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0.txt

제목: 고난도 종양제거 척척, 합병증 걱정도 최소화… 강북삼성병원 로봇수술 도입 1년  
날짜: 20150504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4100000324  
본문: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은 오는 6월 2일 로봇수술 도입 1주년을 맞이한다. 이 병원의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Si는 수술 환자 합병증 감소, 삶의 질 향상,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입됐다. 로봇수술은 최소 절개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합병증은 낮출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의 로봇수술 장비는 수술 시야를 10배 이상 확대해, 출혈은 줄이고 질병 원인만을 제거하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종양만 제거하면 주변 혈관·장기·신경은 자극을 최소로 받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br/><br/> 유방·갑상선암센터 외과 윤지섭 교수는 갑상선암과 부신종양 분야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갑상선암 수술은 목소리 신경과 부갑상선 등을 잘 보전하고 합병증을 줄여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강북삼성병원은 1999년 국내 최초로 갑상선 내시경 수술에 성공해 국내 최다 빈도의 갑상선 내시경 수술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해 환자 중심의 치료로 선택권을 넓혔다. 국내에서 단일통로 복강경적 부신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신 종양 제거수술에도 로봇수술을 적용한다.<br/><br/> 위·대장·간·담도·췌장암을 치료하는 소화기암센터는 암 전이·재발을 막기 위한 림프절 제거 시 로봇을 이용,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소화기암센터 간담췌외과 이성열 교수는 미국 시애틀 오버레이크 메디컬센터 외과팀과 배꼽을 통한 단일공하 로봇담낭절제술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대만로봇학회 연자로 초청을 받은 바 있는 이 교수는 단일공하 로봇담낭절제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 교수는 단일공하 로봇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국내 의료진과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는 9월 아시아·태평양 내시경복강경학회에서 발표한다. 배꼽을 통해 장기 깊은 곳에 위치한 담낭에 접근하는 담낭수술은 안전성, 빠른 회복, 미용 효과 등에서 우수한 수술법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 전립선암은 수술 후 소변줄 착용이 약 2주일 이상 필요하지만 로봇수술로 1주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전립선은 치골 아래 골반 깊은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수술 시간이 길어 다량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주관중 비뇨기과 교수는 “로봇수술로 출혈이 적은 정교한 수술을 시행하고 발기와 관련된 신경을 보존하는데 유용하다”며 “방광과 요도의 섬세한 봉합은 요실금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이행부협착, 요관석 수술 치료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 산부인과 김우영 교수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절제술, 난소종양 절제술, 천골질벽 고정술 등 부인과 종양 영역에서 여성성을 지키면서 수술을 하는 데 주력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방이라고 불리는 자궁 주변 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할 때 골반 저 부위에 위치한 방광과 요관이 손상 받기 쉽다. 또한 동맥 주위 혈관 분포가 많은 림프절은 접근이 어려운 후복막 공간에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다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로봇수술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세한 혈관을 확대해 필요 범위만 제거하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화한다. 자궁근종절제술의 경우 근종 제거 후 섬세한 봉합이 가능해 자궁파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신호철 원장은 “우리나라는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수술 술기로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수술 영역에서 시작한 로봇수술이 현재는 외과 수술의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며 “내시경 수술의 일반화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였듯이 수술 후 합병증을 더욱 낮춘 로봇수술은 앞으로 의학 발전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1.txt

제목: 고대안산병원 개원 30년, 830병상 갖춰…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연구혁신 의료기관 도약  
날짜: 20150504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4100000330  
본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안산에 지난 1985년 100병상으로 문을 연 고대안산병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며 두 번의 증축을 통해 최근 830병상 규모를 갖췄다. ‘30세가 돼 기초를 확립했다’는 ‘이립(而立)’의 나이가 된 고대안산병원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상의 환자 진료와 임상연구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다.<br/><br/> ◇안산 최초 대학병원=개원 당시 15개 진료과 100병상으로 시작해 3년 만에 300병상으로 확장됐다. 개원 10년 만에 신축본관 준공으로 600병상을 갖춘 후, 2014년 본관 3개층 증축으로 830병상 규모로 갖췄다. 지난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후 올해 재지정을 받아 지역 대표 병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대안산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고려대의 구국이념과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등이 맞물려 지역 환경에 맞는 특성화센터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교통 요충지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직업환경의학센터, 재활의학센터, 응급의료센터를 특성화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운영해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 암센터를 설치해 ‘진단·검사·치료·재활 원스톱서비스’, ‘다학제 통합진료’ 등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였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고대안산병원은 최근 암센터, 무균병동,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와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리모델링으로 질환별 전문센터화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융·복합연구를 선도하는 연구혁신병원=지난 30년 역사에서 고대안산병원이 이룬 성과 중 하나가 ‘연구역량’ 강화다. 2005년 의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인체유래물은행, 통합임상시험센터, 인간유전체연구소, 단원재난의학센터 등을 설립해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등과 지역 내 산·학·연 연구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단원재난의학센터는 세월호 사고 시 재난의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적 의료와 대응 체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의학분야 선도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은 안산지역 산·학·연 기관들과 연계해 국내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융·복합연구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연구부원장은 “<span class='quot1'>임상진료와 기초 및 임상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혁신형 첨단임상진료센터’와 다기관협력 연구를 위한 산·학·연·병원과 벤처 및 융합연구 플랫폼인 ‘산·학·연·병 융합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클러스터 기반의 ‘연구혁신병원’으로 도약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병원=고대안산병원은 개원 30주년 슬로건으로 ‘행복의 가치, 나눔의 가치, 지역주민과 같이’를 선언했다. 환자와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솔로 선남선녀! 커플 백년해로!(15일)’, ‘사랑으로 한걸음! 희망으로 다 함께! 자선기금마련 걷기대회(16일)’ 행사를 하고 6월 3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의 건강검진과 의료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어 6월 3∼4일에는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바자회도 연다. 차상훈 고대안산병원장은 “30주년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다.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상생하는 고대안산병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2.txt

제목: “탐지견이 소변냄새로 암 검진… 일본서 시험도입”  
날짜: 20150503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3100000093  
본문: 일본 지바(千葉)현 가도리(香取)시와 일본의과대학 연구팀은 이르면 올가을부터 암 탐지견을 활용한 암검진을 시험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br/><br/>탐지견은 암환자의 소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로, 가도리시는 암검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게 탐지견 검진도 실시해 암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지 검증할 예정이다.<br/><br/>암환자의 소변에는 건강한 사람과는 다른 특유한 냄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이 냄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후각이 발달한 개를 적절하게 훈련시켜 경찰 탐지견처럼 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금까지 실험에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암환자 300명의 소변을 채취한 후 탐지견에게 냄새를 맡도록 한 결과, 암환자 소변 식별 확률이 99.7%에 달했다. <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3.txt

제목: 손등 사마귀 어떻게 할까요?  
날짜: 20150503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3100000164  
본문: 손등에 난 사마귀 뜯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br/><br/>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특히 손등 사마귀는 보기 흉해서 손톱으로 뜯거나 칼로 깎아내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뜯지 말고 병원에서 제거치료를 받아야한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사마귀는 손으로 뜯어내도 또 생겨나기 때문이다.<br/><br/>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보면 바이러스사마귀(질병코드 B07)로 인한 진료 인원은 2009년 22만9000명에서 2013년 36만3000명으로 연평균 12.1% 증가했다.<br/><br/> 사마귀 진료인원의 절반은 10대 이하 영유아와 청소년들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10대가 전체 환자의 32.4%를, 0∼9세가 17.9%를 차지했으며 20대 17.6%, 30대 11.7%, 40대 8.9%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줄었다.<br/><br/> 계절별로는 봄철에 진료인원이 늘어나 여름에 정점을 찍은 뒤 가을이 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br/><br/> 진료인원이 늘어난 것은 발병 자체가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사마귀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의 면역력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10대 이하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 역시 영유아·어린이들의 면역력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br/><br/>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박사는 “면역력이 약해 10대 이하에서 사마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봄부터 사마귀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시기에 활동량이 증가해 신체 접촉이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 사마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피부나 점막에 양성 증식이 일어나는 질환이다.<br/><br/> 손과 발 등에서 주로 발생하나 성기에 생기기도 한다. 성기 사마귀는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보통 성교 2∼3개월 후에 증세가 나타난다. 성기 사마귀 중 일부는 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br/><br/> 쉽게 전염되는 만큼 사마귀가 생기면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잡아 뜯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방치하면 손톱과 발톱의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성기 사마귀의 경우 악성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br/><br/> 사마귀 중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위에 생긴 경우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적다.<br/><br/> 손등이나 팔뚝 부위에 생길 경우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급여대상이지만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 시 통증이 생기거나 불편할 때에는 급여 적용을 받는다. <br/><br/><br/><br/>문수정 기자<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4.txt

제목: 소변냄새로 척척 검진…日 ‘암 탐지견’ 시험도입  
날짜: 20150502  
기자: 강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2100000118  
본문: 일본 지바(千葉)현 가도리(香取)시와 일본의과대학 연구팀은 이르면 올가을부터 암 탐지견을 활용한 암검진을 시험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br/><br/>탐지견은 암환자의 소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로, 가도리시는 암검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게 탐지견 검진도 실시해 암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지 검증할 예정이다.<br/><br/>암환자의 소변에는 건강한 사람과는 다른 특유한 냄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이 냄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후각이 발달한 개를 적절하게 훈련시켜 경찰 탐지견처럼 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금까지 실험에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암환자 300명의 소변을 채취한 후 탐지견에게 냄새를 맡도록 한 결과, 암환자 소변 식별 확률이 99.7%에 달했다.<br/><br/>강현경 기자 hkkang@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5.txt

제목: “피자상자 등 생활용품 표면처리제 치명적 질병 유발 가능성”  
날짜: 20150502  
기자: 강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2100000067  
본문: 피자나 팝콘, 샌드위치를 담는 종이 용기, 바닥에 까는 카펫, 텐트나 기능성 의류 등에 방수(수분 침투 방지)나 내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소화합물(PFASs)이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br/><br/>특히 문제가 되는 이번 불소화합물은 각종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적잖은 보건 관련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br/><br/>1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욕타임스는 방수, 얼룩방지, 내구 목적 등을 위해 각종 생활용품의 표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소화합물이 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br/><br/>논란이 되는 불소화합물은 대표적으로 피자에서 기름이 스며 나오더라도 피자를 담은 종이상자가 원형을 유지하게 하려고 사용된다.<br/><br/>미국 복지부에서 독극물 연구를 총괄하는 린다 비른바움과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의 필립 그랜드진은 국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EHP)에 불소화합물이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span class='quot0'>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소화합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br/><br/>불소화합물 처리를 한 생활용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인체에 불소화합물이 장기간 축적돼 질병 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br/><br/>아울러 미국 국립보건원도 전 세계 과학자 200명의 서명을 받아 불소화합물이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br/><br/>이들 과학자는 전 세계 보건 당국이 서둘러 불소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br/>이들 역시 불소화합물이 처리된 생활용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혈액 등에 불소화합물이 장기간 쌓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br/><br/>이와 관련, 환경단체인 EWG는 동물을 통한 실험 결과, 불소화합물이 기형·저체중 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br/><br/>타임과 뉴욕타임스는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거나 방수 또는 얼룩 제거 기능을 갖춘 생활용품 대부분이 논란이 되는 불소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br/><br/>그러면서 피자·샌드위치를 담는 상자나 포장지,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도록 만들어진 프라이팬·냄비 등 주방용품, 팝콘을 담는 종이상자, 방수 기능을 갖는 기능성 야외 의류, 텐트, 방수 또는 얼룩방지 기능을 가진 의류와 가구 및 카펫, 일부 화장품 용기 등을 예로 들었다.<br/><br/>특히 휴대전화 표면 처리제, 기능성 신발, 슬리핑백 등도 불소화합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품으로 꼽혔다.<br/><br/>강현경 기자 hkkan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6.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허리 휘는 가정경제 살리는 길은?  
날짜: 2015050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2100000194  
본문: 돈은 안 쓰는 게 버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 쓸데없는 지출 또는 계획에 없던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br/><br/> 계획에 없던 지출로는 단연 의료비가 으뜸이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나타나면 돈을 안 쓸 수가 없게 되지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병치레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국민의료비는 2012년 기준 97조1000억원 규모에 이릅니다.<br/><br/> 뇌졸중, 심근경색증, 암과 같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유발됩니다. 무엇보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가 질병 예방은 물론 계획에 없던 의료비 지출을 막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br/><br/> 나누리병원 임재현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되도록 싱겁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허리가 굵어지지 않게 노력하면 병마가 깃들 수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쓸데없는 의료비 낭비를 막으려면 잘못된 생활습관부터 고쳐야 한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같은 이유로 담배는 당장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부담스러운 담뱃값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칼슘 성분을 빼앗겨 뼈가 약해지고 폐암과 후두암, 치주염 등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br/><br/> 반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굳이 돈 들일 필요도 없는 걷기운동은 적극 권장됩니다. 임 병원장은 매일 최소 20분 이상 바르게 걷기운동만 열심히 해도 의료비로 돈 샐 일이 확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의 건강쪽지 전체 목록 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7.txt

제목: 9월부터 장기 입원환자 본인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일반 환자 응급실 이용료도 올라  
날짜: 20150501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1100000325  
본문: 오는 9월부터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커진다. 내년부터 일반 환자의 응급실 이용료가 오른다. 다만 중증응급·중증외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든다.<br/><br/>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응급의료 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정심은 장기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하는 경우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새로운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br/><br/> 지금은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20%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환자는 5∼10%만 내면 된다. 오래 입원할수록 입원료 자체가 낮게 책정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br/><br/> 복지부는 장기 입원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며 16∼30일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 31일 이상은 40%를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나이롱 환자’를 잡으려다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정안 추진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졌다.<br/><br/>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담당 의료진이 장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외 대상 질환도 마련하기로 했다.<br/><br/>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응급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격(수가)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대신 중증응급환자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률(현행 50∼60%)이 입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0%가 적용된다.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낮아진다.<br/><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8.txt

제목: 호남 KTX 개통 한달… 승객 46% 늘었다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1100000290  
본문: 지난달 2일 개통된 호남고속철도(KTX) 이용객이 한 달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TX 개통 이후 관광·유통·의료분야의 위축은 아직 예상보다 덜하지만 열차의 안전성과 저속철 논란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br/><br/> 코레일 광주본부는 “수도권과 호남을 최고 93분 만에 잇는 호남KTX 개통 후 지난 27일까지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이용객이 최고 1만5000명에 달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44% 늘어난 것을 비롯해 나주, 목포역이 각각 246%, 120% 증가했다.<br/><br/> 당초 매출감소가 우려됐던 관광·유통·의료분야는 명암이 엇갈렸다. 여수엑스포역의 경우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통 전 6665명보다 3457명 늘어난 1만122명을 기록했다.<br/><br/> 호남KTX 이용객 증가로 관광업체들은 모처럼 활황을 맞고 있다. 홍도와 흑산도 등 빼어난 경관의 전남 서부권 섬을 다녀오는 관광상품이 KTX 개통과 연계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br/><br/> 포항∼서울 KTX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당초 예상한 3200명보다 40% 이상 많은 4800여명에 달해 벌써부터 증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br/><br/> 고사 우려까지 나왔던 광주지역 백화점 등의 매출감소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봄 정기세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1% 감소하는 데 그쳤고,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히려 2.6% 상승했다. 의료업계 역시 아직까지 환자들의 역외유출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병원과 경쟁에 들어간 전남대병원은 현재 90% 이상의 병실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br/><br/> 하지만 광주 밝은안과가 최근 광주지역 20대와 30대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가 성형외과 진료를 하게 될 경우 수도권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암 진료 26.5%, 건강검진 11.9%, 피부과 10.9% 순으로 수도권 병원 진료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 호남KTX 개통 첫 날인 지난달 2일 워셔액 커버가 고장 나 열차가 청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단전으로 열차 4대의 운행이 지연되고 신호장치 이상으로 급정거를 하는 등 KTX 안전성 확보는 풀어야할 과제로 대두됐다.<br/><br/> 또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광주송정역이 도심과 동떨어진데다 비좁은 역사와 주차난으로 벌써부터 혼잡을 빚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 번화가인 충장로와 15㎞ 거리인 광주송정역은 대합실 1015㎡를 포함해 연면적 4858㎡로 2012년 말 완공된 동대구역사 3만1747㎡에 비해 현저히 적다. 역사와 200m이상 떨어진 주차장도 400대 수준에 불과하다. 서대전역 경유에 이어 논란훈련소역 신설 추진에 따라 저속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br/><br/> 광주시 박남언 건설교통국장은 “<span class='quot0'>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역사 증축을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09.txt

제목: 대장암, 여성도 위험 신호… 한국, 발병률 전세계 1위  
날짜: 20150430  
기자: 권기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30100000422  
본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장암 증가 탓에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br/><br/>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30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CR)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우리나라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10만명당 33.3명으로 아시아 1위,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세계 19위에서 4년 만에 15계단이나 오른 것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201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국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발병률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5.8명), 덴마크(35.7명), 네덜란드(33.9명), 뉴질랜드(33.5명) 등이다.<br/><br/>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도 2008년 세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2008년 인구 10만명당 46.9명에서 2012년 58.7명으로 껑충 뛰었다. 남성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는 슬로바키아(61.6명), 2위는 헝가리(58.9명)다.<br/><br/> 남녀 모두 순위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인구 10만명당 45.0명이다. 2위는 슬로바키아(42.7명), 3위는 헝가리(42.3명), 4위는 덴마크(40.5명), 5위는 네덜란드(40.2명)다.<br/><br/> 전문가들은 여성 대장암이 늘어난 이유로 건강검진 증가를 꼽는다. 민병욱 고려대 구로병원 암센터장은 “과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던 가정주부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감춰졌던 암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 센터장은 “<span class='quot0'>60~70대 여성의 경우 폐경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이 영향을 주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 한국인에게 대장암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로는 고기 위주의 서구화된 식생활, 곡물 섭취 감소,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 비만 등이 꼽힌다. 오상철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지방이 많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줄이고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0.txt

제목: 기독교 신앙으로 설립된 요양병원 ‘8믿음으로 치유한다’… 암스트롱요양병원·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30100000012  
본문: 2007년 5월8일 200병상으로 개원한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고객을 섬기는 일류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은 축령산을 마주보는 전경으로 서울에서 30분∼50분 거리에 위치한 천혜의 청정요지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해 있다. <br/><br/> 최고급 호텔수준으로 건립,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한방과 전문의의 진료와 양.한방 협진진료와 협력병원의 협진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 간병인 등이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료에 임한다.<br/><br/> 특히 보바스 전문 과정과 PNF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환자와 1대 1로 운동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처방을 통한 운동지도와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br/><br/> 또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매그너스요양병원 내에 목사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시는 매그너스교회가 있으며 또한 예배시간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다(031-595-0600·magnushospital.co.kr).<br/><br/> 또 암환우만을 위해 건립된 암스트롱요양병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가평역 15분, 서울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br/><br/> 총 110병상으로 최근 신축 공사로 신관이 개관됐다. 항상 환자들의 휴게공간이 없어 안타깝게 여긴 손의섭 이사장이 환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곳에서 환우들이 진정한 치유와 요양을 경험 할 수 있게 하고자 증축했다. 이곳은 황토병실 이외 카페와 식당, 강당, 휘트니스센터와 최근 개설한 통합의학 암센터가 있다. 이곳은 삼위일체요법(심리요법+영양의학요법+운동요법)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암환우분들의 면역력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br/><br/> 울창한 잣나무군락에서 뿜어 나오는 천혜의 피톤치드향이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풍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산책로와 등산로도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알맞은 전신 운동을 겸할 수 있다.<br/><br/> 암환우 식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는 병원 옆 1만5000㎡의 무공해 친환경 텃밭에서 사시사철 공급된다. 야채, 약초 등으로 환우들의 입맛을 돋우며 아침마다 직접 갈은 신선한 녹즙과, 두유, 토마토즙도 제공한다.<br/><br/> 최근에는 통합의학 암센터를 개설, 한의학과 현대 의료기기를 통합해 양·한방 협진 진료를 모토로 암 환자의 면역강화와 항암의 부작용,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만족도와 치료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설됐다.<br/><br/> 통합의학 암센터에 갖춰져 있는 치료기구는 ‘고압산소 치료기’와 ‘헬스트론 치료기’가 있다. 외에도 ‘공기압 마사지기’, ‘족욕기’, ‘토마리온’ 등과 니시의학에서 고안된 ‘붕어운동기’, ‘모관운동기’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기구들은 전신의 장기와 조직을 깨우고 순환을 돕는다.<br/><br/> 또 암스트롱요양병원은 상주하는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동산, 치료의 동산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 TV방송에서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033-263-8275·amstrong.org) 기획특집팀 <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1.txt

제목: 기독교 신앙으로 설립된 요양병원 ‘믿음으로 치유한다’… 암스트롱요양병원·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30100000488  
본문: 2007년 5월8일 200병상으로 개원한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고객을 섬기는 일류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은 축령산을 마주보는 전경으로 서울에서 30분∼50분 거리에 위치한 천혜의 청정요지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해 있다. <br/><br/> 최고급 호텔수준으로 건립,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한방과 전문의의 진료와 양.한방 협진진료와 협력병원의 협진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 간병인 등이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료에 임한다.<br/><br/> 특히 보바스 전문 과정과 PNF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환자와 1대 1로 운동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처방을 통한 운동지도와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br/><br/> 또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매그너스요양병원 내에 목사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시는 매그너스교회가 있으며 또한 예배시간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다(031-595-0600·magnushospital.co.kr).<br/><br/> 또 암환우만을 위해 건립된 암스트롱요양병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가평역 15분, 서울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br/><br/> 총 110병상으로 최근 신축 공사로 신관이 개관됐다. 항상 환자들의 휴게공간이 없어 안타깝게 여긴 손의섭 이사장이 환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곳에서 환우들이 진정한 치유와 요양을 경험 할 수 있게 하고자 증축했다. 이곳은 황토병실 이외 카페와 식당, 강당, 휘트니스센터와 최근 개설한 통합의학 암센터가 있다. 이곳은 삼위일체요법(심리요법+영양의학요법+운동요법)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암환우분들의 면역력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br/><br/> 울창한 잣나무군락에서 뿜어 나오는 천혜의 피톤치드향이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풍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산책로와 등산로도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알맞은 전신 운동을 겸할 수 있다.<br/><br/> 암환우 식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는 병원 옆 1만5000㎡의 무공해 친환경 텃밭에서 사시사철 공급된다. 야채, 약초 등으로 환우들의 입맛을 돋우며 아침마다 직접 갈은 신선한 녹즙과, 두유, 토마토즙도 제공한다.<br/><br/> 최근에는 통합의학 암센터를 개설, 한의학과 현대 의료기기를 통합해 양·한방 협진 진료를 모토로 암 환자의 면역강화와 항암의 부작용,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만족도와 치료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설됐다.<br/><br/> 통합의학 암센터에 갖춰져 있는 치료기구는 ‘고압산소 치료기’와 ‘헬스트론 치료기’가 있다. 외에도 ‘공기압 마사지기’, ‘족욕기’, ‘토마리온’ 등과 니시의학에서 고안된 ‘붕어운동기’, ‘모관운동기’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기구들은 전신의 장기와 조직을 깨우고 순환을 돕는다.<br/><br/> 또 암스트롱요양병원은 상주하는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동산, 치료의 동산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 TV방송에서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033-263-8275·amstrong.org) <br/><br/>기획특집팀 <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2.txt

제목: [영상] 임윤택이 죽기 전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울라라세션 찬양팀 결성 앨범 발매  
날짜: 20150430  
기자: 신은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30100000414  
본문: 활동하던 중 멤버가 암으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줬던 그룹 울라라세션이 찬양팀을 결성해 활동을 시작한다. 故 임윤택이 추진하던 프로젝트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br/><br/>소속사 울랄라컴퍼니는 울라라세션 멤버 최도원과 과거 멤버로 활동했던 최도원, 하준석 3명이 ‘울랄라프레이즈(Ulala praise)’로 신앙심을 담은 CCM앨범 ‘써니 데이’를 30일 발매했다고 이날 밝혔다.<br/><br/>울라라세션은 그동안 ‘환상의 하모니’ ‘퍼포먼스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만큼 다재다능한 그룹이다. 멤버들은 “<span class='quot0'>그동안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재주를 오직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 프로젝트는 울랄라 세션의 리더 고(故) 임윤택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멤버들은 임윤택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앨범에 유일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은 임윤택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가다.<br/><br/>이 찬송가 외에 다른 8곡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br/><br/>신은정 기자 sej@kmib.co.kr<br/><br/><br/>고 임윤택이 생전 마지막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미국 아카펠라 그룹 버전 영상 보러가기<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3.txt

제목: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로 10억 챙기고 호화생활  
날짜: 20150430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30100000266  
본문: 북한산 마취제 ‘금당 2호’를 다량 밀반입해 ‘만병통치약’으로 유통시킨 몽골인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br/><br/>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 경정)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4·여) 등 몽골인 5명과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br/><br/> A씨 등은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 2호’ 6000여 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 몽골인 가운데는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고 내국인 7명은 관광가이드 등이다.<br/><br/> ‘금당 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 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 명에게 “금당 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br/><br/>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4.txt

제목: 고신대복음병원의 ‘착한 암치료’ 각광  
날짜: 20150429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242  
본문: 고신대복음병원의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암치료가 부작용 없는 ‘착한 암치료’로 각광받고 있다.<br/><br/> 고신대복음병원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췌장암 말기환자 A씨가 온열치료를 받은 후 1년간 치료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br/><br/> 병원에 따르면 2011년 새로운 온열치료기를 도입한 뒤 50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만회 시술을 했다. 구형 온열치료기를 사용했던 1990년~2011년 20년 동안 총 3만회 시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다.<br/><br/> 온열암치료는 환자 1명당 12~36회 정도의 시술을 받게 되지만, 전과 달리 부작용이 없어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 환자 중에는 2년 6개월 동안 150여 회 시술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온열암치료가 어디까지나 부작용 때문에 방사선치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선택하게 되는 보조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이다.<br/><br/> 온열암치료는 온열치료기로 암세포에 열을 가해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1990년대에 각광받았던 암치료법이다. 그런데 암조직 뿐만 아니라 열을 같이 쐬게 되는 다른 건강한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온열암치료가 다시 등장했다. 고주파를 이용해 열을 내면서도 이전에 지적됐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온열치료기가 등장한 것이다. 온열을 이용해 암세포를 치료한다는 시스템은 그대로인 대신 열을 내는 방식에만 변화를 주었다. <br/><br/> 세계온열암협회 아시아 대표부회장이며 대한온열암연구회 회장인 고신대복음병원 암센터장 정태식(62·치료방사선과·장로)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온열암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폐암이나 림프종 등 성장이 빠른 암에서는 온열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분야의 의사들과 협력해 온열암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5.txt

제목: JTBC ‘건강의 품격’ 아나운서 오영실, 활성산소 수치 최고치 기록!  
날짜: 20150429  
기자: 김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236  
본문: 아나운서 오영실이 정상인보다 3배 높은 활성산소 수치를 보였다.<br/><br/>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영되는 JTBC ‘건강의 품격’에 아나운서 겸 탤런트 오영실이 출연하였다. 관찰카메라를 통해 본 오영실은 2010년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br/><br/> 그러나 충격적인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인 160~230에 비해 2~3배 높은 453이었다.<br/><br/> 승마 등 과도한 운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가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 같이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이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산소로 유해산소라고도 한다.<br/><br/>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며 세포막, DNA, 그 외의 모든 세포 구조가 손상 당하고 손상의 범위에 따라 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변질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몸속의 여러 아미노산을 산화시켜 단백질의 기능 저하도 가져오는데 돌연변이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r/><br/> 방송에서는 위장장애가 적어 공복섭취가 가능한 중성 비타민C인 ‘에스터-C 비타민’이 집중 소개 되었다. 에스터-C 비타민은 미국특허를 받은 비타민C 제제로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이 되어 우리 몸의 유해산소 생성을 막아 세포를 보다 건강하게 지켜주는 항산화 제품으로 유명하다.<br/><br/> 특히 일반 비타민C이 속쓰림, 복통, 체외 배출로 인한 요로결석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비해 에스터-C 비타민은 특허 받은 제재로 산도를 PH 2.5에서 PH7 중성으로 맞추어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도 식사 후가 아닌 아무 때나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또 체내에 오래 머물러 흡수율이 높아 하루 한 알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br/><br/>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6.txt

제목: [인人터뷰-김명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공동대표] “‘웰다잉’ 제도적 인프라에 달렸다”  
날짜: 20150429  
기자: 이흥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002  
본문: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 과정을 거쳐 흙으로 돌아간다.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살기도 팍팍한 현대인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치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br/><br/>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웰빙(well-be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질'은 조사 대상 40개국 가운데 32위(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2010)에 머물러 있다.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계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 1만4865명과 의료기관 등 80여개 단체가 국민본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br/><br/> 김명자 국민본부 공동대표를 27일 만났다. 김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br/><br/><br/>-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다.<br/><br/>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국민 인식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기존 종교단체와 의료기관 등에서 호스피스운동에 앞장선 분들이 많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지가 있어야 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본부가 발족했다.”<br/><br/> <br/><br/> -과학자로서 호스피스운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br/><br/> “나는 호스피스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 환경부 장관을 했다. 웰빙을 구현하는 게 임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해오다 제 나이도 나이고, 웰다잉으로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웰빙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불행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행을 덜어보자는 뜻으로 호스피스운동을 시작했다.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의식 전환과 함께 제도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호스피스운동을 하던 분들이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 국민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br/><br/><br/><br/>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고 죽는 것이 웰빙, 웰다잉인가.<br/><br/> “국제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행복지수를 웰빙지수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크게 공간, 자원,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가치관 요소를 더할 수 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다. 웰빙은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연명치료는 웰다잉 조건에서 벗어난다. 중환자실에서 온갖 차가운 기계에 둘러싸여 고가의 검사를 받고 온갖 투약을 받았는데도 말기환자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많이 봐왔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연명치료 상태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은 죽음의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완화치료를 받으며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운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br/><br/><br/><br/>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1만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했는데 실제는 10명 중 3명(27.8%)이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br/><br/>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제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암 관리법에 의해 말기 암 환자만 일부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암 환자의 경우 13% 미만이고, 전체 사망자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제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 호스피스병동에 가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한다.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br/><br/><br/><br/>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br/><br/> “우선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을 제정해야 한다.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암 외에 다른 질환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게 하나고, 시설을 만드는 게 또 하나다. 지금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하다 임종을 맞게 되다보니 중환자실 병상 하나당 매년 8000만∼1억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어 죽는 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완화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에서 완화의료비를 부담해줘야 한다. 말기 환자 돌봄의 질도 대단히 중요한데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다.”<br/><br/><br/><br/> -그러려면 꽤 많은 예산이 들 것 같다.<br/><br/> “현 체제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보 재정이 더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렇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89%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고 싶어 하는데 이 바람을 들어줄 의료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다. 국회에서도 여러 번 입법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엔 그야말로 종교·시민단체까지 힘을 모으고, 각계각층 힘을 실어서 결실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많으면 국회도 손대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 몫을 국민본부가 할 생각이다.”<br/><br/> -유럽을 중심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 대표 생각은.<br/><br/> “이 자리에서 존엄사를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존엄사법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 좀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꺼번에 다하려고 해선 안 된다. 단계를 거치다 보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이 올 것이다.”<br/><br/> <br/><br/>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는데 연명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중단하기 어렵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br/><br/>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까딱하면 의사의 살인방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연명치료와 호스피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연명치료를 받으면 보호자나 가족들이 중단 의사를 밝혀도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가 함부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이것은 모순이다.”<br/><br/><br/><br/> -의학 지식이 거의 없는 자식들 입장에선 완화의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br/><br/> “결국 가치관의 문제다.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명(餘命)기간을 혼자 고립돼 기계장치에 둘러싸여서 보내느냐, 아니면 가족들이나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보낼 거냐의 선택이다.”<br/><br/><br/><br/> -의료진이 정확하게 판정을 해줘야 가족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br/><br/> “우리가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암 환자는 말기 판정이 비교적 쉬운데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의료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는 없다.”<br/><br/><br/><br/> -올해 안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br/><br/> “그게 우리의 목표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금년에 꼭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br/><br/><br/><br/> -앞으로의 계획은. <br/><br/> “시민운동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 지지할 것이다.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와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국민본부를 재단으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재단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운동으로 유지되고 확대돼야 한다. 설령 법과 제도가 갖춰졌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br/><br/><br/><br/> 김 대표는 ‘9988234’를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편하게 저세상으로 가자’는 뜻이란다.<br/>만난 사람=이흥우 논설위원 hwlee@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7.txt

제목: “실손보험금 사기단”… 의사 환자 무더기 적발  
날짜: 20150429  
기자: 전수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324  
본문: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의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려 2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br/><br/> 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와 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19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br/><br/> 주로 입원비 치료비 등이 모두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한 뒤 입원일수 등 진료기록을 부풀려 청구했다.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가량 높게 책정해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조작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br/><br/> 환자 유모(42·여)씨는 지난해 2월 장씨 병원에 하루 입원해 단 한 번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11일간 입원해 11차례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485만원을 챙겼다. 환자 오모(51·여)씨는 지난해 4~8월 청구한 보험금 6350만원 중 2200만원이 허위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환자도 90명에 달했다.<br/><br/> 장씨는 입원환자를 소개하면 사례비로 10만원을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섰다가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에 적발됐다.<br/><br/>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8.txt

제목: 서울대병원 정창욱 교수팀,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 방지 새 치료법 개발  
날짜: 20150429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207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정창욱(사진)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상은 교수와 공동으로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 회복시간을 기존보다 절반이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새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br/><br/> 전립선은 정액을 분비하는 밤톨만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방광(소변 저장)밑에 붙어있으며, 방광과 연결된 요도(소변 배출)를 감싸고 있다. 이곳에 암이 생기면 전립선 전체를 제거한 후(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요도와 방광을 다시 이어줘야 한다.<br/><br/>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전립선은 요도와 붙어 있는데 전립선이 제거되면서 요도의 괄약근과 주변 조직에 손상이 생겨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까닭이다.<br/><br/> 정 교수팀이 개발한 새 수술법은 방광과 요도의 연결 상태를 최대한 수술 전처럼 견고하게 복원시켜 이런 요실금 후유증 발생 위험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이다.<br/><br/> 정 교수팀은 이를 위해 요도와 방광을 이어줄 때, 연결부위를 단단히 지지하는 일종의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즉, 전립선 제거 후 수술 전 요도 뒤쪽 및 전립선을 싸고 있던 조직과 방광 아래쪽 및 전립선을 싸고 있던 조직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 후 요도와 방광을 이어주는 것이다.<br/><br/> 이 수술은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요도와 방광의 연결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 소변 조절에 관여하는 요도 주변의 혈관, 신경, 근육 등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br/><br/> 정 교수팀은 로봇 복강경 수술로 전립선을 완전히 절제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50명(비교군)에게는 이 수술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명(대조군)에게는 수술법을 적용하지 않은 후 두 군의 요실금 회복을 전향적으로 비교했다.<br/><br/> 그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요실금이 회복되는데 비교군은 평균 18일이 걸린 반면 대조군은 2배 가까운 30일이 걸렸다. 합병증과 후유증도 발견되지 않았다.<br/><br/> 정 교수는 “최근 로봇수술의 발달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요도와 방광을 세밀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요실금을 줄이는 수술법은 정확히 알려진바 없었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연구로 간단한 수술로 요실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br/><br/> 연구결과는 비뇨기과 분야 국제 학술지 미국비뇨기과학회지 ‘저널 오브 유롤로지(Journal of Ur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19.txt

제목: 중국 딸기 먹지 마세요!  
날짜: 20150429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9100000314  
본문: ‘중국 딸기 먹지 마세요.’<br/><br/> 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중앙(CC)TV는 지난 26일 슈퍼마켓과 농원, 도매시장 등에서 딸기 샘플 8개를 구해 조사한 결과 맹독성 제초제성분인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딸기는 중국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재배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 베이징농학원 연구진들이 샘플을 조사한 결과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당 0.09㎎에서 0.36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0.05㎎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딸기에 대한 아세토클로르 잔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아세토클로르는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br/><br/> 보도가 나가자 베이징 뿐 아니라 주변 산둥(山東), 랴오닝(遼寧)성에서까지 딸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딸기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딸기 가격이 슈퍼마켓에서 ㎏당 40위안(7000원)까지 했지만 지금은 4위안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했다.<br/><br/> 베이징시 당국도 파문이 커지자 보도 경위 조사와 함께 딸기에 대한 질량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br/><br/> CCTV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원들도 있다. 베이징시 농림(濃林)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딸기 재배과정에서 제초제는 필요치 않다면서 제초제를 쓴다면 딸기라는 식물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딸기 재배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매년 경작면적은 13만3300헥타르(㏊)에 이른다. <br/><br/><br/><br/>베이징=맹경환 특파원<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0.txt

제목: [헬스 파일] 무통 암 냉동제거술  
날짜: 20150428  
기자: 박성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8100000326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다들 예상하듯 암이다. 여러 암 치료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증이 거의 없는 암 치료법이 요즘 화제다. 바로 ‘무통 암 냉동제거술’이란 것이다.<br/><br/> 암 냉동제거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최소 침습’ 암 치료법이다. 지름 1.47㎜의 얇고 가는 침을 암 조직에 찔러놓고 영하 40도 이하의 가스를 분사해 조직을 얼리고 괴사시킨다. 시술에는 암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br/><br/>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암, 전립선암, 폐암에 이어 최근 신장암까지 적용영역이 확장돼 주목을 받고 있다.<br/><br/> 암 냉동제거술은 침을 찌르는 부위만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시술된다. 냉동가스를 암 조직에 전달하는 침은 매우 가늘다. 따라서 몸속의 암세포가 동결될 때 환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br/><br/> 또 암 냉동제거술은 발암초기 암은 물론 수술이 어려운 전이 암과 재발 암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시술 전후에 출혈이나 흉터도 없다. 목표로 삼은 특정 암 조직만 괴사시키고 주변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은 시술 후 1∼2일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br/><br/> 암 냉동제거술의 또 다른 효과는 시술 후 면역력까지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안 케터링 암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암 냉동제거술을 받으면 인터루킨6, 10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항면역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인터루킨6, 10 단백질은 면역계가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해로운 물질과 맞서 싸울 때 에너지로 사용된다. 암 냉동제거술을 받으면 시술 중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동안 암 세포가 터지고 파괴된다. 이 때 암세포의 항원이 드러나고, 이를 타깃으로 하는 항종양 면역항체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원리다.<br/><br/> 주의할 것은 암 환자라고 누구든지 이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암 냉동제거술에도 시술 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좋다는 암 냉동제거술이라 해도 시술을 고려할 때는 적응증이 맞는지, 드물다 해도 시술 후 어떤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br/>박성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1.txt

제목: [소년소녀 가장돕기-울산 직장인 모임 ‘이웃사랑해모임’] 겨우내 군고구마 팔아 새 학기 교복 선물  
날짜: 20150428  
기자: 조원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8100000353  
본문: 40∼50대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임인 ‘이웃사랑해모임(이사모)’ 회원들은 지난겨울 퇴근 후 짬을 내 군고구마 장수로 변신했다. 맹렬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거리에 리어카를 세워 놓고 밤늦게까지 고구마를 구워 팔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군고구마를 팔아 번 돈은 8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돈을 울산 북구청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새 학기를 앞둔 지역 소년소녀가장 32명의 교복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br/><br/> 이사모 회장 이상근(52)씨는 “<span class='quot0'>숨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도 많은 데 관심을 받아 부끄럽다</span>”며 겸손해 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14년 동안 해마다 군고구마가 생각날 때쯤이면 14일 동안 울산 북구 천곡동 대동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군고구마를 팔았다. 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가 암에 걸렸으나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다 ‘사랑의 군고구마 판매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씨와 이웃 주민 1명이 시작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도우려면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웃사랑해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은 6명으로 늘었다.<br/><br/> 이사모의 한 회원은 “<span class='quot1'>지역 주민들도 이웃돕기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군고구마를 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br/> 군고구마 장사에 필요한 리어카와 고구마 등 기초 재료는 회비를 거둬 마련했다. 회원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군고구마는 퇴근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지 판매했다.<br/><br/> 하루 판매량은 10㎏짜리 13박스다. 고구마를 구울 장작은 목공소를 하는 지인이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주민들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오고 있다. 자녀의 저금통을 깨서 함께 군고구마를 사러 오는 가족도 있고 한 봉지를 사면서 10만원을 놓고 가는 이웃도 있다. <br/><br/>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한부모 가정을 돌보고 있는 단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는 집 등에 나눠준다. 14년 동안 기부한 성금은 9000만원가량 된다. 이씨는 “<span class='quot2'>이제 울산 시민들에겐 군고구마를 사먹는 것 자체가 나눔에 참여하는 일이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2.txt

제목: “암 환자의 삶의 질,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좌우한다”  
날짜: 2015042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7100000277  
본문: 암환자의 생활 기능 보존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재활의학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암 재활이란 암 자체나 암 치료와 관련된 통증, 근위약, 피로, 림프부종 등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분야다.<br/><br/>의료 기술의 발전과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정책 등으로 암 생존율이 향상되면서 암 생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 복합질환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또 다양한 형태의 합병증과 일상생활 기능 장애가 암 생존자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암 환자의 기능 보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r/><br/>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임재영 교수팀은 한국 재활의학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암 재활의학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 연구했다. <br/><br/>연구팀은 대한재활의학회에 등록된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 171명을 대상으로 암 재활의학의 인식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 중 77%에서 ‘암생존자(암이 완치되고 장기간 생존하는 사람)’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 중 50% 이상에서 유방암, 뇌종양, 척수종양 환자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br/><br/>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80% 이상이 부인암, 대장암, 전립선암환자에게는 재활치료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인 진료 프로토콜이 없고 의료진간의 소통과 협진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했다. 하지만 암 전문의와의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경우 부인암 환자의 운동, 림프부종 교육, 항암치료 후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2배 이상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br/><br/>대다수의 재활의학과 전문가가 암환자에게 재활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는 암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암전문가와의 협진시스템이 부재하여 암 생존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한국에서의 암 재활의학의 현실을 재활의학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로 이를 통해 한국 암 생존자에게 재활치료를 적절히 받게 할 수 있는 향후 정책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br/>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생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장애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암 재활의 목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종별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개발을 통해 암 생존자를 위한 재활치료가 더욱 활성화 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많은 환자에게 제공되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 암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br/><br/>장윤형 기자 <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3.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우유가 유방암 일으킨다?  
날짜: 20150425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5100000171  
본문: “우유 대신 두유를 먹어라. 유제품은 유방암을 일으킨다.” 영국인 과학자 제인 플랜트(70) 박사가 최근 국내 출판계에서 관심을 끄는 신간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윤출판)를 통해 제기한 주장입니다.<br/><br/> 플랜트 박사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마흔두 살 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5년 뒤 네 차례나 암이 재발하는 불운을 겪으며 유방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br/><br/> 그 결과 우유를 포함한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한 자신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플랜트 박사는 그날로 치즈, 버터, 우유, 요구르트 등 냉장고에 있는 모든 유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책에서 밝혔습니다.<br/><br/> 유방암은 유제품 등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중심으로 한 서구식 식습관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입니다. 실제 1990년대 말만 해도 10만명당 24.5명에 그쳤던 한국인의 유방암 발생률이 식생활의 서구화로 2012년 기준 50.7명까지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는 청소년기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우유가 성인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br/><br/>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한국인의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식생활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br/><br/> 평소 가능한 한 채소를 많이 먹고 플랜트 박사 말마따나 유제품 제한은 물론 육류 등 다른 동물성 지방 섭취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의 건강쪽지 전체 목록 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4.txt

제목: [짜잔뉴스] “이제 이런 거 못보나요?” 임성한 드라마 황당설정 베스트 5  
날짜: 20150423  
기자: 박상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3100000017  
본문: “<span class='quot0'>원 없이, 미련 없이 썼다.</span>”<br/><br/>임성한 작가의 은퇴 소식이 23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욕 하면서 보게 되는’ 마약 같은 드라마를 탄생시킨 임 작가. 1998년 MBC ‘보고 또 보고’를 시작으로 현재 방영 중인 MBC ‘아현동 마님’까지 10편의 드라마를 집필했는데요. 오로지 임성한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소개합니다.<br/><br/>[짜잔뉴스] '이제 더 못보나요?' 임성한 황당설정 베스트5 <br/><br/><br/>① 임성한 데스노트의 시작, ‘웃찾사 죽음’ - SBS ‘하늘이시여’(2005)<br/><br/><br/><br/>배경음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극중 개그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보던 소피아(이숙 분)는 숨이 넘어갈 듯 웃다가 진짜로 숨을 거뒀는데요. 수 많은 캐릭터가 임 작가에게 돌연사(?) 당했지만 소피아의 죽음은 임성한 드라마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황당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br/><br/>②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 두 여인의 엽기 사극쇼 - MBC ‘아현동 마님’(2007)<br/><br/><br/><br/>연지(고나은 분)와 혜나(금단비 분)가 미숙(이휘향 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벌인 코믹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여자 연예인이 한복에 대머리 가발을 쓰고 원더걸스의 ‘텔미’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죠.<br/><br/>약 15분 동안 진행된 이 코믹쇼는 사약을 먹은 혜나가 앙드레 김으로 변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방송 후 비난이 폭주하자 임성한 작가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해명을 했는데요. “<span class='quot0'>고나은과 금단비가 연기를 제대로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다</span>”고 하네요. 흠….<br/><br/>③ 역대급 CG 등장, 아수라 귀신 빙의 - SBS ‘신기생뎐’(2011)<br/><br/><br/><br/>여전히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는 이 장면. 극중 귀신에 홀린 아수라(임혁 분)는 갑자기 눈에서 초록색 레이저를 쏘며 다른 사람의 몸을 투시하는 초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수라의 가족뿐만 아니라 시청자까지 기절초풍!<br/><br/>④ “조카 사랑이 과했어요” 백옥담의 복근 빨래 - SBS ‘신기생뎐’(2011)<br/><br/><br/><br/>‘신기생뎐’의 명장면이 또 있습니다. 공주(백옴담 분)가 손자(전지후 분)의 배 위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인데요. 공주는 손자가 단사란(임수향 분)에게 복근을 과시하자 “빨래판 같다. 빨래 해 보고 싶다”고 말하며 배를 만집니다. 그날 밤 공주는 욕실에 팬티만 입은 채 누워있는 손자의 배 위에서 빨래를 하는 꿈을 꾸죠. 백옥담이 임성한 작가의 조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조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나요…?<br/><br/>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암세포 생명설’ - MBC ‘오로라공주’(2013)<br/><br/><br/><br/>“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 해요.”<br/><br/>극중 암에 걸린 설희(서하준 분)의 대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서하준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대본을 받고 5분간 얼음이 됐다”고 했을 정도니까요.<br/><br/>임 작가의 마지막 작품인 ‘압구정 백야’는 다음달 15일 종영됩니다. ‘압구정 백야’에서도 등장인물의 급작스러운 죽음, 황당 전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명장면이 탄생할지 궁금해지네요.<br/><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5.txt

제목: 화식(火食)이 인간을 해친다? 영양 효율 높은 생식 주목  
날짜: 20150422  
기자: 김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2100000209  
본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49명이며 뒤 이어 뇌혈관질환이 50.3명, 심장질환이 50.2명을 차지한다.<br/><br/>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은 모두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짜게 먹는 습관과 과식, 과음은 고혈압과 당뇨 등 대사질환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대사질환을 방치할 경우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br/><br/> 이에 따라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처럼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고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식이다.<br/><br/> 인간이 불을 발견한 이후 화식(火食)을 하게 됐지만 불이 없던 태초의 인간은 생식만으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다. 특히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불로 인해 식품 속 고유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화식을 하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엽록소 등이 파괴되며 단백질이 열로 인해 변성된다. 지방 역시 가열하면 산패하기 때문에 생식으로 온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또한 생식은 화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6배나 높고 필요 칼로리의 30%만 섭취해도 충분하다. 생식은 화식에 비해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br/><br/> 실제로 미국의 포틴저 박사가 10년에 걸쳐 고양이 900마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식의 놀라운 효과가 입증됐다. 고양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화식을, 다른 한 그룹에는 생식을 먹이로 주며 4대에 걸쳐 관찰한 결과, 생식을 한 고양이 그룹은 10년 내내 건강한 새끼를 낳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화식을 한 고양이는 인간이 걸리는 사산, 불임을 비롯해 인간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최근에는 완전한 생식이 아니더라도 녹즙이나 생식곡물가루 등을 섭취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고칼로리의 음식, 과음과 흡연 등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에 늘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br/><br/>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6.txt

제목: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인천 예안교회] 철거 당한 예배당… 암 투병 사모와 “교회 회복” 기도  
날짜: 2015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110017027280  
본문: 지난해 7월 아내 김회영(47) 사모가 갑자기 하혈했다. 아내는 별일 아닐 것이라며 며칠 더 지내보자고 했다. 그런 아내를 떠밀 듯이 해 근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했다.<br/><br/> 직장암 3기였다. 아내는 수술을 두 번 받았다. 그해 11월 직장 절제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인공항문(장루)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견딜 만했다. 하지만 항암치료가 문제였다.<br/><br/> 혈관을 통해 항암제가 몸에 들어올 때 아내는 마치 펄펄 끓는 물을 몸에 끼얹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지가 끊어지는 고통이 이런 것일 것 같다고 했다. 아내는 이 같은 항암치료를 세 번 받았다. 그리고도 앞으로 세 번이 더 남았다. <br/><br/> 그게 끝이 아니다.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치료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br/><br/> 지난달 30일 인천 검단 예안교회에서 만난 이태영(56) 목사는 “<span class='quot0'>2010년 컨테이너로 만든 교회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당한 후 이 중 일부를 떼어 만든 공간에서 7년 넘게 살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난방기기라고는 전기장판뿐이었는데, 그때 아내의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다</span>”고 안타까워했다.<br/><br/> 7년을 살았다는 컨테이너 건물 안은 썰렁했다. 거실과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개의 공간에 책과 갖가지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다. 컨테이너 건물의 안과 밖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br/><br/> 1997년 서울장신대를 졸업한 이 목사는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3년간 사역하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땅을 330㎡(100평)가량 샀다. 그 위에 컨테이너를 이용해 예배당을 건축했다.<br/><br/> “그런대로 예쁘게 지었어요. 성도는 많지 않았지만 20여명 됐고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 확신했죠.”<br/><br/>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인천시가 이 컨테이너 건물은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것이라며 철거를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4년 만에 철거했다.<br/><br/> 이 목사는 철거하고 남은 땅 위에 천막을 치고 목회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이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다.<br/><br/> 이 목사는 근처 태권도장을 빌려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도 1년 만에 이사했다. 인근에 있는 교회가 교회끼리 너무 가깝다며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br/><br/> 그래서 그는 2013년 가을부터 한 음악학원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는 10여명으로 줄었다.<br/><br/> 성도가 적어 목회 사례비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빚만 늘어난 상태다. 정교한 수술이 필요해 로봇으로 아내의 직장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정부 보조도 받지 못했다.<br/><br/> 또 인천에서 서울의 큰 병원까지 오가느라 카드빚도 500여만원 생겼다. 그나마 예장통합 서울서남노회와 북부시찰, 서울장신대 동문, 인천서구청 신우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후원했다. 하지만 향후 치료까지 생각하면 병원비로도 부족하다.<br/><br/> 사실 이 목사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아내와 교회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최근 가슴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 약을 먹고 있어요.”<br/><br/> 이 목사는 “<span class='quot1'>아내는 암과 싸우면서도 교회가 회복돼야 한다며 매일 기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교회 철거 후 아내는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바자에서 싸게 산 운동복 1000여벌을 손빨래해 되팔기도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고 예안교회가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br/><br/>인천=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7.txt

제목: 부산시, 공공형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전국 지자체 처음 시작  
날짜: 20150421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1100000229  
본문: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취약계층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br/><br/> 부산시는 24일 부산가톨릭대에서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개소식과 함께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병원에서 추진하는 말기암 환자 치료를 위한 상업목적의 호스피스 활동과는 차이점이 많다.<br/><br/> 시의 서비스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가정에서 무료로 편안하게 호스피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호스피스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꼭 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일’ 등을 함께 해결하며 생애 말기의 삶을 돕는 것이다. 또 환자가 임종할 경우 남은 가족들과도 함께 하며 정신적 건강을 돕는 시스템이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8.txt

제목: [암과의 동행] “후코이단이 암 전이 억제 역할”… 대만 연합연구팀 발표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6  
본문: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은 암으로 인한 쇠약증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의 전이와 확산을 막는 작용까지 한다.</span>” 최근 대만의 대규모 연구팀이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후코이단에 암 환자의 악액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와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br/><br/> 대만 장경기념병원, 장경대학, 국립대만문화대학 등이 연합한 연구팀은 암을 유발한 마우스를 이용해 해조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후코이단을 처리할 경우 암의 성장 및 전이가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코이단을 처리한 군에서 폐암 조직의 성장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의 확산이 크게 억제되면서 암으로 인한 악액질 증상, 즉 전신쇠약 증상 역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VEGF 및 MMPs 등 암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각종 매개물질들의 발현이 저해되어 암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br/><br/> 연구팀은 “후코이단을 통해 암의 확산이 억제되는 까닭은 암의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및 암의 전이와 연관된 MMPs 효소가 저해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후코이단이 암으로 인한 쇠약 증상을 개선하고 암의 확산을 막는 항암관리 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만 연구팀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마린드럭(Marine Drugs)에 2015년 4월에 게재됐다.<br/><br/> 한편,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이 밝혀지며 천연 항암물질로 큰 관심을 끌어왔다. 2015년 4월 현재 후코이단에 대한 학술연구 논문이 1200여편을 넘고 있으며, 올해에만 이미 40편 이상의 국제학술지 논문이 발표됐다. 학자들이 연구한 후코이단의 대표적인 항암기능은 암세포 자살유도 이외에 암의 성장 억제, 암의 전이 억제, 면역증강 등 다양하다.<br/><br/> 현재 세계 후코이단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의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황산기 함량이 매우 높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29.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희귀암이라고 암 정보도 희귀해서야  
날짜: 201504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32  
본문: 암환자가 되면 궁금한 게 많아진다. 내가 걸린 이 암의 생존율이 어떤지, 어떤 치료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무엇보다 내 병을 치료해 줄 명의가 누구인지 등이다.<br/><br/> 의사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물음일 테고, 치료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느낄 수 있다. 그저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알고 시작한 치료일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에서 조금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br/><br/> 서울의 한 대학병원 두경부암센터에서 만난 황영호씨는 지난해 8월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그는 구강암 중에서도 설암이었다. 진단 직후 황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구강암과 설암에 대한 각종 의료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또 서점에 들러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찾아볼수록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는 “구강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처음 듣는 암이었다. 대장암, 위암 등 하고많은 암 중에 처음 들어보는 구강암이라니, 드물수록 난치병이 아닐까 걱정돼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암정보가 많다고 해도 막상 찾아보면 환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별로 없다. 나처럼 발병률이 낮은 암은 의료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2000년 이전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발병률 외에 국내 치료현황이나 또 병기별로, 위치별로 예후 등도 알 수 없었다. 사실 구강암 중 설암이었는데 설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 구강암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해 답답한 마음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br/><br/> 황씨처럼 희귀암이란 이유로 의료정보가 부족해 답답한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조언에 혹하기 쉽다. 황씨는 “구강암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신경을 죽이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민간요법인 줄 알면서도 구강암 환자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도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br/><br/> 희귀암 환자들은 의료정보가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에 몰려있다고 하소연한다. 희귀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의료정보와 조언, 용기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황씨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위 말하는 ‘카더라’ 정보에 휩쓸리고 말았다. 암경험자나 똑같은 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환자수가 적은 암일수록 환우회도 잘 형성돼 있지 않다. <br/><br/> 치료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암환자들은 카더라 정보에 마음이 뺏긴다. 이럴수록 인터넷 정보보다는 의료진을 믿어야한다. 황씨도 ‘나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치료의지가 다시 생겨났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암환자들은 업데이트된 국내외 최신정보나 치료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자료보다 ‘완치할 수 있다’는 위안이 되는 글귀를 보고 싶었던지도 모른다. 암환자들의 중요한 정보원이 되는 병원과 관련 정책부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 역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만 하기보다는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만나 ‘완치할 수 있냐’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하냐’는 식의 두루뭉술한 질문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상업적이라고 의심되는 민간요법에 대해 묻는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마노요양병원 암치료센터,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도입… 치료범위 넓고 부작용 없어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9  
본문: 마노의료재단 마노요양병원(사진) 암치료센터는 4월부터 최신의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EHY-2000)’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 선진국형 전문 요양병원을 지향하는 마노요양병원 암치료센터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Oncothermia treatment), 항암면역세포 주사치료와 함께 독일·스위스·일본 등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을 접목시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전인적 치료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br/><br/> 마노요양병원 암치료센터 측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 의료진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고의 암요양 치료센터를 목표로 설립해, 언제나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부설 아트센터, 레스토랑, 아트샵, 펜션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인근의 남사당 공연장 등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br/><br/> 4월부터 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온코써미아’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는 치료 범위가 넓고, 피부 부작용(화상, 홍반)을 유발하는 과도한 에너지 방출 방식이 아닌 제품이다. 이 제품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에너지 제어와 냉각시스템 등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증이 없고 무독성이어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환자 맞춤형 설계로 치료가 용이하고 치료 시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장비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음으로써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증식을 억제한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김영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항암치료 중 폐암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날짜: 201504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16  
본문: 폐암은 암 중에서 사망률 1위라는 최악의 수식어를 갖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김영철 교수는 이 같은 사실에 절망하기보다 폐암의 종류와 실체부터 정확히 알 것을 조언했다. 똑같은 폐암일지라도 종양이 생긴 위치와 성질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그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br/><br/> ◇폐암의 조기 증상과 검진법=김영철 교수는 폐암 환자들 대부분이 병원을 찾아오기 전, 폐암만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낫지 않는 기침이다. 또 객담이 많아지거나 각혈이 생기고, 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숨이 쉽게 가빠진다면 폐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꼭 검진을 받아볼 것을 조언했다. <br/><br/> 아직까지 폐암을 위한 효과적인 검진방법은 확립돼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사망률 1위라는 수식어에도 국가암검진 항목에 폐암은 빠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5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CT검사를 시행하면 조기폐암을 발견하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 검진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국립암센터 주관 하에 대한폐암학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가들이 모여 폐암 조기검진에 대한 근거 중심의 권고안이 개발됐다. 이는 30년 이상 흡연한 자나 과거 흡연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들에게 저선량 흉부CT검사를 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 ◇똑같은 폐암이라도 성질이 다르다=전체 폐암의 85%는 비소세포암, 15%는 소세포암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폐암은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해 치료계획을 세웠지만 발전을 거듭한 현대의학 덕에 비소세포암을 다시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으로 구분해 항암제를 고른다. 김영철 교수는 “선암은 EGFR과 ALK라는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면 완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표적항암제는 항암화학요법의 일종이지만 기존 항암제와 작용기전이 다르다. 일반 항암제가 몸 안에서 빠르게 자라나는 암세포적 성격을 가진 모든 세포를 공격한다면, 표적항암제는 변이된 특정유전자를 지닌 세포만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폐암 환자에게서 EGFR이나 ALK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표적항암제가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다. 이에 김 교수는 “같은 폐암이라도 특정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만으로 암의 상당부분이 줄어들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폐암 진단받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br/><br/> 김 교수는 또 “표적이 없는 환자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폐암은 암 중에서도 유전자연구, 환자맞춤연구가 활발한 암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표적항암제 EGFR과 ALK 억제제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표적 유전자와 이들에 대한 표적항암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면역치료제도 기대해볼 만하다. 향후 5∼10년 뒤에는 훨씬 다양한 표적항암제와 면역치료제가 의료현장에 나와 폐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나아가 생존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폐암 환자를 위한 식단? “<span class='quot0'>평소 좋아하던 반찬으로 구성할 것</span>”=폐암환자 대부분이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환자는 다양한 항암제 조합을 통해 생존기간 연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항암제 하면 떠오른 것이 구심,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다. 김영철 교수는 “폐암 4기 환자라도 다양한 항암제를 잘 조합해 투여할 경우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폐암은 항암화학요법이 잘 듣는 암이다. 그러므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을 반드시 이겨내야 다시 살 수 있는 희망도 느낄 수 있다”며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야 할 것을 강조했다. <br/><br/> 김 교수는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는 방법으로 ‘무조건 잘 먹기’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보호자가 암환자를 위한 식단에 얽매여 맛없는 음식을 주기보다는 환자가 평소 즐기던 음식으로 식단을 차려 잘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특히 지나친 저나트륨과 저지방을 강조한 예방식은 암환자의 체력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식욕저하를 느낀다면 식욕을 촉진하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일단 약을 통해 식욕이 오르면 밥을 잘 먹기 때문에 활기찬 모습이 되찾고 치료의지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용기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30  
본문: 치료를 포기했다는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다니던 병원에서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많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에 넋을 놓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전에 촬영한 CT 사진을 살펴보니 오른 쪽 폐에 세 개의 암 덩어리가 있었고, 대정맥에 한 개가 침범해 있었다. 완치율이 10%미만으로 보고되는 3기 후반의 폐암이었다.<br/><br/> 병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적인 설명을 하기는 물론 어려웠다. 환자는 그나마 몇 가지 치료에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정맥 침범은 있지만 수술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여러 개의 폐암 덩어리가 같은 쪽의 폐에 있어 전신에 암이 퍼져 있는 경우보다는 치료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다.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환자가 보이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는 우리 진료팀도 느낄 수가 있었다.<br/><br/>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것보다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반응을 본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고 나서 전신상태가 나빠져 수술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어 걱정이 됐다. 하지만 50대 초반의 이 환자는 약 5주간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고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었고, 힘든 치료도 잘 견뎠다. 이 후 치료 절차에 따라 여러 개의 폐암 덩어리가 있는 오른쪽 폐를 전부 절제했고, 대정맥에 침범된 부분도 같이 절제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br/><br/> 폐 절제술을 받고 나면 수술 후 상당기간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진들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이틀 이상 주의 깊게 상태를 관찰하고 호흡기능을 관리했다. 환자는 다행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고 10년 째 정기검진을 위해 본원을 방문하고 있다.<br/><br/> 매일같이 암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완치나 정상적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환자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더구나 폐암의 완치율이나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br/><br/> 앞서 이야기한 완치 환자는 지금 생각해도 감당하기 몹시 어려운 상태였다. 말기 폐암환자의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동시요법 성공으로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60% 정도이고, 폐 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은 30%이상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무사히 마쳐도 재발하는 경우가 70%에 이르기 때문이다. <br/><br/> 놀라운 치료결과를 접할 때마다 암과 싸워 이기는 과정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노력을 강조한 문구처럼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어려운 투병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버티고 견뎌내는 노력이 실낱같은 가능성을 완치의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게 아닐까. <br/><br/>이해원 원자력병원 폐암센터장<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3.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면역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 치료 패러다임 대변혁 예고  
날짜: 201504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4  
본문: 과거에 암은 ‘불치병’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개발되며 암도 만성질환과 같이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겼다. <br/><br/> 항암제는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진화했다. 1세대 항암제들은 정상세포에 비해 분화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를 지녔지만,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공격해 환자에게 구토나 탈모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1997년 처음 등장한 2세대인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적항암제는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br/><br/> 항암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 3세대 치료제가 있다. 바로 ‘면역항암제’다. 최근 면역항암제가 개발돼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인 T-CELL을 조절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면역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나, 새로운 물질을 공격하게 된다. 이를 ‘면역반응’이라고 한다.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 종양세포와 같이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며, 면역체계는 이 항원이 암세포를 비정상 세포로 인식해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br/><br/> 면역항암제를 이용한 항암요법은 면역체계에 합성 면역 단백질과 같은 요소를 추가, 면역체계를 자극해 종양 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 CTLA-4, LAG-3 등 억제기전의 수용체와 종양세포 사이의 신호경로에 작용해 종양세포를 억제한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사멸시켜 환자에게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며, 암세포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제의 내성 문제나 부작용 등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차세대 항암제로 알려진 면역항암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분야는 흑색종암, 신장암·방광암·두경부암, 폐암 등이 있다. <br/><br/>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앞장서 있는 BMS는 흑색종치료제 ‘옵디보’를 6월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BMS와 오노약품공업이 공동 개발한 옵디보는 현재 국내에서 두경부암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옵디보는 미국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흑색종치료제와 폐암치료제로, 일본에서 작년 7월 흑색종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0일자로 PD-1 표적 면역항암제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흑색종 환자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옵디보는 면역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T세포를 불활성화시키는 특정 표적 단백질 중 하나인 PD-1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T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이물질로 인식,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반응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기대되고 있다. <br/><br/> 머크(MSD)의 ‘키트루다’도 국내에서 시판 허가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항 PD-1계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로, 악성 흑색종 환자에서 이필리무맙 또는 BRAF 억제제치료 후에도 암이 진행한 환자에 대해 투여할 수 있다. 한편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항암제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마지막 보루 병원 임상시험 어떻게 참여하나… 주치의와 상담이 지름길  
날짜: 201504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1  
본문: #사례. 아버지께서 직장암 말기이십니다. 7년여 전에 발견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로, 한 달에 한 번 입원해 약물로 치료 받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다리를 절어서 걸어 다니지 못할 만큼 아프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재 임상시험 대상 암환자를 공모 중인지 궁금해 글을 남겨봅니다.<br/><br/>이 사례는 3년여 전 한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심정을 보여준다.<br/><br/> 기술의 발전으로 암 발견 및 치료효과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아예 치료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해외에는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할 수 없다면 당사자나 가족으로서는 일말의 희망이 오히려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환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다. 임상시험은 새로운 치료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실험적 연구로, 새로운 치료방법의 효능과 안전성이 동물에서 먼저 증명되더라도 사람에게 적용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 그렇지만 임상시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고, 환자가 견디기 힘들거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임상시험이 중단될 수 있다.<br/><br/>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로서는 치료 가능성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당하는 임상시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치료효과가 높은 표적항암제의 경우 암세포의 유전자형과 표적단백이 치료제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br/><br/>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는지, 또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br/><br/>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임상시험등록시스템(clinicaltrials.go)이나 WHO(apps.who.int/trialsearch)에서도 각국의 임상등록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찾아볼 경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br/><br/>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무상으로 운영하는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활용하면 좋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병원들은 자체적(임상시험센터)으로 피험자 모집공고 등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br/> 모집중이거나 진행 중인 몇 가지 임상을 소개하면 △전이성 뇌암에 대한 수술 중 고열치료법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위한 1·2상 △전이암 환자에 대한 뜸 치료의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 효과 △전이성 및 재발성 노인 위암 환자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으로 복합요법과 단독요법 군간의 치료 효과 및 순응도 비교; 다기관 무작위 배정 3상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OPB-111077의 안전성 및 내약성을 조사하기 위한 제I상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Globo H-KLH(OPT-822) 활성 면역 요법의 2·3상 등이 있다.<br/> 조민규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5.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이대여성암병원] 전용공간 마련… “여성 몸·마음 충분 이해”  
날짜: 201504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07  
본문: 이 시대의 명의는 더 이상 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 그 자체다. 병원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료서비스가 달라지고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생각도 달라진다. 병원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대여성암병원은 여성 암환자가 느끼는 불안, 초조, 걱정 등을 함께 고민하며 눈으로 보이는 인테리어부터 피부로 와 닿는 진료체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며 혁신을 거듭한다. 지난 14일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센터장을 만나 '왜 여성 암환자는 이대여성암병원을 가야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br/><br/>Q. 이대여성암병원만의 장점은 무엇인가.<br/><br/> △백남선 원장=국내 최초로 병원 내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 여성검진센터, 여성암환자 전용 레이디 병동이 그것이다. 또한 촉진을 통해 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바로 영상검사와 조직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검사결과도 며칠 이내 나오기 때문에 수술이 일주일 내로 가능해진다. 우리 병원을 시작으로 타 대형병원들도 이 같은 시스템을 접목해나갔다. 의료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br/><br/> △문병인 센터장=우리 병원은 ‘여성암환자’를 위해 타 병원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호텔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다. 호텔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병원에 왔을 때도 느끼게 하는 거다. 환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오지만, 실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심리적 불안함을 없애줘야 한다. 이대여성암병원에 들어서면 여느 병원처럼 회색톤이 아닌 호텔처럼 따뜻한 색의 벽지와 조명, 인테리어소품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진료를 대기하는 동안 환자는 자신이 환자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br/><br/> Q. 다른 대형병원과의 경쟁을 신경 쓰는 편인가. <br/><br/> △백=이화의료원은 타 대형병원처럼 규모면에서 크지 않지만 여성암치료분야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성적은 가진 ‘Small Giant’라고 자부한다. 우수한 여성암 전문 의료진이 대거 포진돼있고 이들의 특화된 의술과 연구역량은 여성암 정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 국내를 넘어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암환자라도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여성암’이란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지에서 찾아온 많은 환자수가 이를 반증한다. <br/><br/> △문=경쟁은 의료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된다. 진료는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거나 어느 분야에서는 그 이상 수준으로 올라와있다. 앞으로는 의료서비스 측면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요즘 환자들은 가까운 병원만 가지 않는다. 교통이 좋아 마음만 먹으면 반대편 동네의 병원에 갈 수 있다.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br/><br/> Q. 세상에 많은 ‘명의’들이 존재한다. <br/><br/> △백=환자들은 병원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내 병에 누가 명의인지를 찾아본다. 그리고 그 명의가 있는 병원으로 간다. 물론, 우리 병원의 의료진을 원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 환자가 살펴봐야할 것은 그 병원이 암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한다. <br/><br/> 더 이상 의사 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유명하다고 찾아간 병원에서, 검사부터 진단까지 몇 달이 걸린다면 당장 치료를 시작하고픈 환자로서는 애가 타는 것이다. 마음이 급한 환자를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빠른 검사와 진단,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한다.<br/><br/> △문=여성암환자는 궁금한 것이 많아 진료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본다. 반복되는 물음일지라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준다. 암환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다. 보통의 질환자와 다르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보다 여성암환자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환자들도 알아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도 이화의료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6.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인천성모병원] 다학제 진료시스템 진가발휘… 유방암 대장암 폐암 적정성 1등급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08  
본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며 암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인천성모병원은 주요 암 질환들을 센터별로 전문화해 치료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암 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유방암·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br/><br/> ◇최적의 암 치료법 찾는 다학제 통합진료=인천성모병원이 다학제협의진료팀을 신설하고 암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녀야 하는 기존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 1명의 암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전문의 4∼5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기에 맞는 최적의 치료계획을 도출한다.<br/><br/> 다학제 통합진료는 진단부터 검사, 수술, 치료 일정을 결정하는 협의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성모병원 다학제협의진료팀 오세정 위원장(유방갑상선센터 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환자는 각 진료과의 의료진을 매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진료를 보며 서로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pan>”고 설명했다.<br/><br/> ◇전문센터에서 최고 의료진이 치료=인천성모병원은 암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센터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한다. 유방갑상선센터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방 보존술, 감시 림프절 절제술 등의 치료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유방의 일부분만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유방 보존술이다. 감시 림프절 절제술은 유방에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생체염료를 주입해 암세포가 가장 처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림프절 일부만 찾아 절제해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이다.<br/><br/> 소화기센터에서는 환자의 부담을 줄인 수술법으로 위암·대장암 등 소화기암을 치료하고 있다.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을 도입해 진행한다. 복강경수술이나 로봇수술은 주위 장기나 조직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br/><br/> 이윤석 인천성모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대장암 중 골반 깊숙이 항문가까이 자리잡은 저위(低位) 직장암처럼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들어가기 힘들고,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대장암 환자는 로봇수술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인천성모병원 호흡기센터는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통해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치료 결과를 끌어올리고 있다. 안중현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저선량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폐암 환자의 정확한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 경피적 폐생검, 뼈스캔, PET-CT 등 첨단 진단장비를 도입했다</span>”고 말했다.<br/><br/> 간암의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는 장기이식이다. 인천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다른 병원보다 간 이식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진다. 윤영철 장기이식센터장(외과 교수)은 “장기이식 받을 환자의 대기 시간이 다른 병원에 비해 짧다. 현재 간이식 성공률은 100%”라고 설명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7.txt

제목: [암과의 동행] 귓바퀴 뒤 로봇수술로 두경부암 흉터없이 완치… 연세암병원 고윤우 교수  
날짜: 201504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12  
본문: 직장인 황영호씨는 지난해 8월 혀에 생기는 암, 설암을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다. 이른 나이에 찾아온 암환자란 운명은 그를 절망케 했다. 황씨는 “<span class='quot0'>의료진으로부터 설암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어린 자식들과 가족의 생계 걱정으로 앞날이 막막했다</span>”고 말했다.<br/><br/> 자영업을 하는 이영하씨는 2년 전 뺨 안쪽에 생기는 암,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평생 단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구강암을 진단받은 이씨는 진단명이 생소하다 보니 완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고 말했다. <br/><br/> 설암을 진단받은 황영호씨와 구강암을 진단받은 이영하씨는 현재 로봇수술을 통해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막막했다고 말하는 그들은 수술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br/><br/> ◇두경부암의 실체와 최근 치료법=이들의 구체적인 진단명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두경부암으로 묶인다. 두경부암이란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고, 말을 하는 데 관련된 신체 부위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혀 부위에 발생하는 설암과 입술와 입안에 생기는 구강암, 침샘에 생기는 침샘암, 음식물이 넘어가는 인두와 후두에 생기는 인후두암, 잘 알려진 갑상선암까지 모두가 두경부암에 속한다. 두경부암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방법은 다양하다. 목 부위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경부절개수술과 환자의 겨드랑이나 가슴 부위를 작게 절제해 내시경 경구로 종양을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 마지막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로봇수술이 그것이다. <br/><br/> 암 명의마다 조금씩 다른 접근법과 특화된 의술을 사용하는데, 연세암병원 두경부암센터 고윤우 교수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으로 두경부에 생긴 종양을 제거한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로봇수술은 비싸기만 한 수술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로봇수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 까닭은 눈에 띄게 달라진 암환자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br/><br/> 로봇수술로 설암을 극복한 황영호씨는 로봇수술을 택한 이유가 단순히 미용적인 고민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황씨는 “다른 암은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에 수술 자국이 남지만 두경부암은 남들에게 보이는 목이나 얼굴 부위에 ‘칼자국’이 남는다.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 되는 것이 싫었다. 얼굴에 생긴 칼자국은 역차별을 받기 딱 좋은 흉터다. 앞으로 20∼30년은 더 일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당시 황씨의 수술을 맡았던 고윤우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최근 암치료의 트렌드</span>”라며 “<span class='quot1'>두경부암에서의 로봇수술은 수술 이후 사회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술법</span>”이라고 말했다.<br/><br/> ◇특화된 의술, 해외로 수출=고윤우 교수는 귓바퀴 뒷부분을 작게 절개한 다음 로봇 팔을 넣어 암덩어리를 제거해 나간다. 수술 로봇을 개발한 미국 업체는 보급 당시 로봇팔을 입 안에 넣어 종양을 제거하는 경구강로봇수술법을 고안했지만 이 수술법은 기존 경구강 레이저수술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br/><br/> 고 교수가 국내에서 개발한 귓바퀴 뒤(이개)를 절개해 들어가는 이개로봇종양제거술은 미국 본사로부터 흉터를 남기지 않고 재발률을 낮추는 획기적인 접근법이란 찬사를 받았다. 연세암병원 측은 미국 유명 병원을 비롯해 두경부암 발병률이 높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고 교수가 개발한 로봇제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해외 환자가 몰려들고 초청강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두경부암은 위치적 특성상 수술 후 환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큰데, 로봇수술을 통해 출혈과 절개에 따른 합병증의 빈도를 낮추고 같은 부위의 재발률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두경부암(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갑상선암)과 목에 생긴 양성종양(혹)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로봇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안정적이고 빠른 사회생활 복귀를 희망하는 환자라면 수술 부위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로봇수술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8.txt

제목: [단독] 10大 말기질환자 절반 이상 수술·검사 마다했다  
날짜: 20150420  
기자: 권기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441  
본문: 품위 있는 죽음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말기환자들은 얼마나 그런 죽음을 선택하고 있을까. 암을 제외한 10대 말기질환에서 사망 직전 수술·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최근 4년간 폐질환, 뇌졸중,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숨진 환자의 절반 이상은 삶이 끝나기 직전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다. 97% 이상이 완화의료 대신 항암치료를 받는 말기 암 환자와 대조적이다. 말기 암 위주로 짜여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br/><br/> ◇말기질환자, 수술·검사 거부하다=19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관지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숨진 사람은 1만9348명이다. 이들의 사망 직전 의료이용 행태를 건보공단 내부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비적극적으로 구분한 결과, 비적극적 치료를 받은 사람이 1만371명(53.6%)으로 적극적 치료를 받은 8977명(46.4%)보다 많았다. ‘비적극적 치료’의 기준은 말기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X선 촬영·CT·MRI·양전자 단층촬영(PET) 등 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다.<br/><br/> 뇌졸중으로 4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숨진 1만455명 중에서도 5853명(56.0%)이 비적극적 치료를 택했다. 적극적 치료를 선택한 4602명(44.0%)보다 많았다. 울혈성 심부전 환자도 54.0%가 수술·검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br/><br/> 그 밖의 다른 말기질환자가 사망 직전 비적극적 치료를 택하는 비율은 루게릭병 76.3%, 만성 간경화 73.9%, 파킨슨병 73.1%, 만성 신부전 39.2%, 치매 73.7%, 쇠약 85.0%, 에이즈 52.6% 등이었다. 말기질환자가 비적극적 치료를 택하는 비율은 종합병원·병원급에서 더 높아졌다.<br/><br/> ◇말기암 환자는 끝까지 적극적 치료=같은 기간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이 비율은 정반대였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비적극적 치료 비율이 2.3%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인 97.7%가 숨질 때까지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 처치 등을 받았다. 종합병원·병원급에서도 적극적 치료의 비율은 각각 97.2%와 94.8%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br/><br/> 이런 결과는 말기암 환자보다 다른 말기질환 환자들이 실질적 완화의료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종 직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추세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br/><br/> 하지만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은 말기암 위주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은 암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말기질환 환자는 7월 이후에도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암 위주로 할 것이냐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것이냐는 논쟁 중이다. 대부분 의사는 말기암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간호학계와 야당 등은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한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다른 말기질환에까지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br/><br/> 최영순 건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적극적 치료를 택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는 다른 말기질환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그 환자와 가족에게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span>”고 지적했다.<br/><br/> ◇완화의료 확대, 건보 재정에 도움=암 이외 말기진환으로 완화의료를 확대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내부 자료 분석 결과, 말기 울혈성 심부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 치료를 택했을 때(약 887만원)와 비적극적 치료를 택했을 때(118만원)의 1인당 평균 병원비(건보 급여진료비)는 약 769만원 차이가 났다. 뇌졸중 환자도 742만원 차이가 발생했다.<br/><br/> 이와 별도로 건보정책연구원은 오는 7월 이후 말기암 환자 가운데 10%가 적극적 치료에서 완화의료로 돌아서면 상급종합병원 단계에서만 약 42억7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0%가 완화의료로 옮기면 건강보험 부담이 약 282억원 줄어든다.<br/><br/> 다만 다른 말기질환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김 의원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추가로 60개 지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160억8000만원이 더 필요하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39.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자녀에 발병 사실 알리기… 한 명씩 불러 부드러운 어조로 전해라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11  
본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어린 자녀들은 제일 마지막에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기분 상태가 왜 크게 달라졌는지, 엄마나 아빠가 왜 침대에 누워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자신은 어째서 예전만큼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민감하며, 어떤 면에서는 생각도 더 많다. 따라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엄마나 아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아이들이 생각과 느낌, 궁금증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게 부모의 ‘암 진단’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br/><br/> 전문가들은 우선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아이를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땐 가장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아이를 껴안는 등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암’이라는 질환에 대한 설명은 자녀의 나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지나친 두려움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지는 말아야 한다. 암이 몸의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위치를 가리키면서 설명하고, 질환의 성격에 대해 완곡하게라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나름대로 병을 해석해 실제보다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료 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르는 생활의 변화와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변모(예컨대 탈모, 극심한 피로감, 체중 저하 등)도 미리 말해 두어 나중에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하고, 아이가 나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격려한다. 특히 아이가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걸 표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위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br/><br/> 환자를 지지하는 그룹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지 그룹은 대개 환자의 배우자와 친척, 친구, 성직자, 그리고 다른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며, 환자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지지 그룹이나 시스템에 대해 병원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비록 병이 찾아왔어도 그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br/><br/> 아이들과 부모의 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아이에게 걱정이나 수고를 일절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아이에게 지금부터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형제가 아플 경우 아픈 아이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삼가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아이 앞에서 굳이 숨기려 하는 것도 좋지 않다.<br/><br/> 부모가 암으로 투병중일 때 아이가 학교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시작하거나, 일주일 이상 정서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때는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주 우는 경우, 밤에 자다가 깨어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느끼기에 아이가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나, 부모나 가족들이 아이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임플란트 부작용 극복 열쇠는 ‘일체형’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31  
본문: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부작용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심혈관질환, 당뇨, 암 등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은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과 악취 등에 그치고 있다.<br/><br/> 연세대 한모 교수 등의 ‘일체형 임플란트’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발전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biological), 기계적 (mechanical), 심미적(esthetic)인 여러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생물학적 합병증은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과 뼈의 소실, 점막염증, 조립형 임플란트 연결면에서 생기는 누공(고름 구멍), 임플란트 탈락 등이 있다.<br/><br/> 기계적인 합병증은 조립형 임플란트의 구조와 기계적인 결함을 포함하는데 금속 구조물의 파절, 마모, 유지력 상실, 나사 풀림과 파절, 임플란트 고정체의 파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적인 합병증은 보철물과 주위 조직이 관련되어 보철물의 외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br/><br/> 이 같은 합병증을 극복하고자 많은 시도와 발전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일체형 임플란트의 개발 이었다. 기존의 임플란트는 대부분 이체형(조립형) 임플란트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체형(2-piece) 임플란트에 비해 일체형(1-piece) 임플란트가 기계적, 생물학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여러 연구들을 분석, 고찰해 본 결과 일체형 임플란트는 나사 풀림과 파절, 지대주와 고정체의 파절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이 적다. 또 일체형 임플란트는 미세간극(micro-gap), 미세동요(micro-movement), 치아 연결부 탈착과 재부착 등이 없으므로 생물학적 합병증이 적다.<br/><br/> 텍사스 대학과 취리히 대학 그리고 베른 대학 등의 연구에 의하면 조립형 임플란트는 심한 뼈의 파괴와 잇몸의 염증이 발생하였는데 틈이 없는 일체형 임플란트는 잇몸이 자연의 잇몸에 더 가깝고 잇몸 내 염증세포의 축적도 감소됐으며 임플란트 주위 뼈의 소실도 최소였다.<br/><br/> 이탈리아 페라라 대학의 장기간의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일체형 임플란트가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임플란트”라고 했다.<br/><br/> 독일 베르너 박사는 일체형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률이 97.9%라고 했다. 일체형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혐기성 세균이 없어서 전신 질환의 위험이 적고, 나사 풀림이 없어서 악취가 나질 않으며, 시술 후 청결 관리를 환자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청소를 위해 일부러 치과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br/><br/> 일체형 임플란트의 이러한 장점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다. 이는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이 조립형 임플란트 시술보다 매우 어려운 술식이고 제품의 종류와 제조회사의 기술력,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성공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br/><br/>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의 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일체형 임플란트의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체형 임플란트를 시술하기에 불리한 뼈를 가진 환자의 경우 뼈를 적절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체형 임플란트의 경우 뼈이식 수술보다는 뼈형성 유도술 사용이 유리하다. 국내산 일체형 임플란트가 생물학적 안전성과 구조적, 기술적 성능 측면에서 외제를 능가하고 있다. 수많은 임플란트 부작용을 ‘일체형 임플란트’라면 처음부터 피할 수 있다. <br/><br/>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가족에 지워진 ‘멍에’부터 풀어주자… 소아암 치유모두의 숙제  
날짜: 201504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06  
본문: “우리 아이가 소아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암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평범했던 가정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br/><br/> 아이가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들은 “<span class='quot0'>내 아이의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span>”고 입을 모아 말한다. 소아암 진단을 받은 아이와 그 가족들은 암 판정을 받은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시·공간으로 들어간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일상은 아이가 아프게 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br/><br/> 소아암은 소아에게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크게 혈액암과 고형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혈액암은 몸속의 혈액세포에 암이 생겨 증식을 하는 질환으로 백혈병이 포함돼 있으며, 고형종양은 몸속의 세포 중 일부가 악성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종양 등이 있다. 소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비싼 항암치료비, 검사비 등 모든 치료비용은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남는다. 정부와 소아암재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br/><br/> 기자는 소아암을 겪는 부모들을 만나 치료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들어봤다. <br/><br/>◇소아암 겪는 환우와 가족, 고통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누구나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중증의 병을 앓고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암에 걸리는 것과 다르게, 소아암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긴다. 특히 소아암의 경우는 대부분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부모들은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 자책을 하게 된다. 혹시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임신을 했을 당시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그 어떤 잘못도 부모들에게는 없다. <br/><br/> “한국 정서상,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어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묵묵히 고통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br/><br/> 소아암을 겪는 10세 아이를 둔 한 부모는 “자식이 아프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라며 “사람들이 아이가 아프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br/> 고통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소아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측량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치료 과정에서 오는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br/><br/> 서울대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현재 멘토로 활동 중인 주승남씨. 주씨 역시 아이가 급성림프성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오랜 시간 치료 과정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주씨는 “아이에게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암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겼다”며 “아이가 아프고 난 뒤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br/><br/>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늦둥이 막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일 때인데, 코피가 나기에 몸이 허약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이후 몸에 멍울이 생겼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동네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혈액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이후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림프성백혈병’ 진단이 나왔다고 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주씨는 눈물을 보였다. 주씨는 “암이라고 하면 죽을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이 안 됐다”고 말했다. 주씨는 진단받은 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진료실을 나와 비상구 계단에 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하며 펑펑 울었다고 했다. 당시 병원의 의사는 “<span class='quot1'>급성백혈병이기 때문에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span>”고 했다. 이후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완치 수준에 도달했다. 주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을 계기로, 신규 환자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자청하게 됐다.<br/><br/> 갑작스럽게 자식이 암 판정을 받게 되면 부모들은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진다. 일종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멘토인 주씨는 충격을 받은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치료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소상히 알려, 그들과 공감을 나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어 봐서 알아요. 하지만 원망을 하기 이전에 우선 아이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이는 더 강하게 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br/><br/> 소아암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의 아픔으로 인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주씨는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br/><br/> 소아암 병동의 가족들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다. 항암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 크다. 세부 검사 항목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1년에 1∼2번만 보험이 적용되고, 추가로 검사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100%인 경우도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에 집을 따로 구해야만 한다. 특히 장기입원 환자들의 경우 가세가 기울기도 한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돈을 벌어야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돈도 벌기 어렵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된다. 한 부모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각종 검사비용이나 항암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br/><br/>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아프지 않은 다른 형제들 역시 고통을 겪는다. 4살, 10개월 두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 “큰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태어난 지 10개월도 안 된 둘째를 장모님께 맡겨야 했다”며 “젖도 안 뗀 아기를 보내려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첫째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보러 시골에 갔더니 아기의 혈색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지금은 둘째와 첫째를 같이 데리고 병원에 다닌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br/><br/> “아프지 않은 다른 자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들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돼요.” 주씨는 아픈 아이와 더불어, 아프지 않은 형제, 자매도 18세 미만이라면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br/><br/> ◇소아암 갈수록 증가세,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 여전=소아암으로 고통받는 가정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소아암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0년에 비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증가했다. 그중 10∼14세 구간이 전체 진료인원의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5∼17세 28.9%, 5∼9세 22.1%, 5세 미만 17.5% 순으로 높았다. <br/><br/> 특히 소아암은 ‘백혈병’ 비중이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10∼2014년)의 소아암에 대한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은 백혈병으로 3484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뇌 및 중추신경계’ 11%, ‘비호지킨 림프종’ 10% 순으로 높았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이다.<br/><br/> 다만 소아암은 치료만 잘하면 완치될 확률이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종진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종양혈액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이 70∼80%까지 높아졌고 완치 후 생존기간이 60∼70년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소아암은 조기에 치료만 잘 해도 완치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소아암 가족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생계비 300% 이하(4인 가족 기준 500만4987원 이하), 재산이 약 2억8200만원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백혈병은 1년에 3000만원까지, 고형암의 경우 1년에 2000만원(조혈모세포 대상자는 1000만원 추가지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많지 않다. 재산이 없더라도 4인 가족 월 소득이 약 500만원 이상인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부모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월 소득 500만원을 갖고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br/><br/> 더 큰 문제는 소아암 병동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그리고 어린이병동의 병실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에 전체 소아암 환자의 80%가 입원해 있다. 한 부모는 “병실이 너무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다”며 “만약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오기라도 하면 줄을 서서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감기 등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으로 많이 몰려, 정작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암환자들이 항암제 치료를 받기 위해 찾는 낮병동에서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중증의 소아암 환자들이 병실이 부족해 앉아서 주사를 맞는다. 한 부모는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병실의 현실은 왜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병상수를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br/><br/> 부모들은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아암은 평범한 누군가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의 이웃의 일이자, 내 가족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해 줘야 해요. 더불어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등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봐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암 병동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루가 24년과도 같다. 오늘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병동에서 어려운 항암치료를 이겨내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피폭 불안 난감한 병원… 방사성요오드 이용 치료자 재입원 늘어  
날짜: 201504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0  
본문: 최근 진단 기술의 발달로 갑상선질환 발견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한 갑상선암 치료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방사성요오드(I-131) 치료 후 퇴원환자들이 재입원하면서 방사선노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퇴원환자 관련 안내’ 공문을 배포해 갑상선암치료를 위해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격리·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가족의 피폭을 염려해 다시 일반 병·의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재입원하는 환자가 1명일 경우 방사선량은 미미하지만 다수의 퇴원 환자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방사선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br/><br/> 이 경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직원은 물론, 다른 환자와 내원객 등이 의도치 않게 방사선에 피폭되고, 특히 직원이나 내원객 중 임신부와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감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 병·의원에는 방사성물질을 관리·감독하는 전문 인력은 물론, 의료진 등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관리체계가 없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개인의 방사선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피폭선량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br/><br/> 또 다수 환자의 배설물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방사성 농도가 높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br/><br/>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직원은 물론 일반인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고, 방사성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일반 병·의원 입원수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br/><br/>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유효선량) 만족시 퇴원하게 되는데 환자의 몸에 여전히 방사성요오드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 한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의료용 방사선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3.3회(0.93mSv)에서 2011년 4.6회(1.4mSv)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의 일상생활 연간 피폭량 기준은 1mSv(밀리시버트)이지만 이미 2011년 이 기준을 넘긴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으로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불필요하게 피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br/><br/>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달 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시기관들이 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받는 등 여전히 방사선 피폭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br/>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3.txt

제목: 부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개시  
날짜: 20150420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275  
본문: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취약계층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br/><br/> 부산시는 24일 부산가톨릭대에서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개소식과 함께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br/><br/> 이 서비스는 일반병원에서 추진하는 말기암 환자 치료를 위한 상업목적의 호스피스 활동과는 차이점이 많다.<br/><br/> 시의 서비스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가정에서 무료로 편안하게 호스피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호스피스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꼭 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일’ 등을 함께 해결하며 생애 말기의 삶을 돕는 것이다. 또 환자가 임종할 경우 남은 가족들과도 함께 하며 정신적 건강을 돕는 시스템이다.<br/><br/> 시는 부산가톨릭대, 부산 암센터 등과 지난해 1억원의 예산으로 금정구 등 6개 구·군 18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취약계층 환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16개 구·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모두 4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r/><br/> 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서비스는 생애 말기 환자를 과도한 연명 의료로부터 보호하고 가족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검진권고안 공개… ‘예방 가능’ 인식 확산 기여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13  
본문: 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개발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 초안(이하 권고안)’이 지난 3월 공개됐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02년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자궁경부암 환자가 증가, 새로운 검진방법과 예방백신 개발 등 진단 환경이 변화한 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관(사진)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2002년에 이어 2006년과 2012년 꾸준히 새로운 내용의 권고가 추가됐다. 국내의 경우 2002년 이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br/><br/> 지난 3월 발표된 이번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진 시작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과 검진 종결 연령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권고안에는 ‘만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iquid-based cytology, LBC)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이는 최근 20∼30대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늘면서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검진은 검진 결과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4세에 검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진을 74세에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span>”라며 “<span class='quot0'>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관찰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권고안에는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권고 내용이 담겼다. 자궁경부 세포검사(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와 함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와 관련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HPV 검사를 단독 시행하는 것은 선별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크기를 비교평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술됐다. 이는 권고안에는 HPV 검사의 단독 시행은 포함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재관 위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임상의사가 판단해 필요시에는 선택적으로 HPV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임상의사로서의 판단이다. 환자 개개인마다 성접촉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 노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히 HPV 검사에 대한 이해득실을 설명하고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권고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나 부인종양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br/><br/> 권고안 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과 조기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는 인식을 보다 더 넓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에서 불거진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혔듯이 유의미한 부작용이 아닌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국내 의학자들도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보다 과학적 안전성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조기검진으로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대표적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은 극복 가능한 암인 만큼 조기검진과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5.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서울양병원 양형규 의료원장, 대장항문 치료 전문화 외길… 심평원 수술평가 1등급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09  
본문: “지난 29년간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환자 진료에 임해왔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환우 여러분들과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병원 직원,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기에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양병원을 만들었습니다.”<br/><br/> 지난 1986년 경기도 구리시 양형규외과에서 시작해 1996년 11월에 남양주 양병원을 건립하고, 2005년 3월 서울양병원을 연 양형규(사진) 의료원장. 그는 30여년간 오직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처음 환자를 진료하던 당시 대장항문 치료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문질환에 대한 치료 인식도 낮았다. 하지만 양 의료원장은 대장항문을 전담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차근차근 환자 진료와 임상연구, 우수 의료진 영입 등 병원 발전을 일궈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양병원은 1년간 모든 수술 중 치핵, 치루 등 양성대장항문 질환 수술 건수가 89%에 달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양병원과 남양주양병원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수술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br/><br/> 외과 8명, 내과 5명 등 19명의 의료진이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양병원의 가장 큰 강점은 ‘우수한 의료진’과 ‘내시경 검사’이다. 이에 대해 양 의료원장은 “대부분의 의료진의 대장항문외과·소화기내과·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의료진이 양병원이 고안한 거상고정식 점막하 치핵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상고정식 점막하 치핵절제술’은 항문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치핵 조직은 가능한 한 적게 절제하고 항문 밖으로 빠져나온 조직은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켜 고정해주는 수술법이다. 치루의 경우 항문괄약근 보존과 재발률을 낮추는 다양한 시톤법과 치루관내시경, LIFT 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내시경검사는 용종제거는 물론 위암, 대장암이 있는 경우 치료까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합병증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양병원은 2014년 위내시경 1만8000건(월평균 1550건), 대장내시경 1만700건(월평균 900건)을 시행했으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ESD 치료내시경)도 121건을 시행했다.<br/><br/> “<span class='quot0'>양병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환자와 사회를 위한 병원</span>”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양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현재 총 매출액의 0.5%를 적립해 치료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지난 10년을 넘어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톱(TOP) 5’안에 드는 대장항문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양 의료원장은 양병원을 영국의 세인트막병원, 미국의 클리블랜드클리닉 못지않은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아침 식사 후 꼭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배변습관이다. 아침식사는 두뇌활동뿐만 아니라, 위대장반사로 대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게 한다.<br/><br/>▲배변시간은 3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화장실에 신문이나 책을 들고 가는 일은 금해야 한다. 오랜 시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치질 조직이 아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치질에 걸리기 쉽다.<br/><br/>▲항문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배변 후에는 비데나 좌욕, 샤워기로 세척한 후 잘 건조시켜 주면 그만큼 항문건강에 도움이 된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숲, 생명을 생명답게 이끈다  
날짜: 201504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25  
본문: “자식도 못해 주는 걸 자연과 숲이 해 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지던지. 자연은 사람이 못하는 걸 대신해 주고 숲은 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다정하게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환자의 모든 것을 욕심 없이 공유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고마운 대상이었습니다.”(조병욱씨)<br/><br/>“산의 배풂을 체험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집 뒤에 산을 두고 삽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일은 아이들의 병으로 인해 찾게 된 산과 숲, 그 숲에서 나의 일자리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유병남씨)<br/><br/>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사람들은 심리적·육체적 치유를 위하여 ‘숲’을 찾는다. 숲은 인간의 몸을 회복시키는 수많은 천연 치료제가 존재하는 곳이다. 숲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산소와 피톤치드가 풍부하다. 특히 피톤치드는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인간의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항염증 기능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다. 최근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 질환 뿐 아니라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이 악화되자 숲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숲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자투리 공간, 버려진 땅 등을 발굴하여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숲과 정원을 조성하는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숲 1010곳과 정원 1094곳이 들어선다.<br/><br/> 그렇다면 왜 숲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할까. 숲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암환자나 각종 면역질환 환자들이 숲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산림치유는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산림치유는 질병의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이다.<br/><br/> 산림은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과 같은 치유인자들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피톤치드가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span>”이라고 설명했다. 피톤치드는 식물의 ‘Phyton’과 살해자의 ‘Cide’의 합성어로 염증을 완화시키며, 산림 내 공기에 존재하는 휘발성의 피톤치드는 인간의 후각을 자극해 마음의 안정을 유도한다. <br/><br/> 산림의 또 다른 치유인자로 음이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산성화되기 쉬운 인간의 신체를 중성화시키는 음이온은 산림의 호흡작용, 산림 내 토양의 증산작용을 하며, 계곡 또는 폭포 주변과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에 많은 양이 존재한다. <br/><br/> 산림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인간을 편안하게 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음폭을 갖추고 있다. 산림의 소리는 계절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봄의 산림소리는 안정된 소리의 특징을 보인다.<br/><br/> 햇빛도 중요한 치유 기능을 한다. 산림에서는 도시보다 피부암, 백내장과 면역학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UVB) 차단효과가 뛰어나 오랜 시간 야외활동이 가능하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촉진시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포의 분화를 돕는 비타민D 합성에 필수적이다. <br/><br/> 숲은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산림욕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뇌파 ‘알파파’가 증가한다. 또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가 급증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가족들, 연인,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숲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br/><br/>장윤형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재건수술 Q & A… 보형물·자가조직 이용 두 방법 적용  
날짜: 201504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14  
본문: 이달 1일부터 유방암 환자에 대한 유방재건 성형수술에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유방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부분절제 후 유방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전절제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한 것으로,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급여 대상 구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유방재건 성형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br/><br/> Q.유방재건 수술이 왜 필요한가?=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이 미국에 비해 더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젊은 연령에서의 유방암 발생이 늘고 있다. 외관상의 변화는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른다. 유방암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 살아야 할 날이 많기에 유방재건 수술이 적극 추천된다. 최근 가슴의 기능 회복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환자들이 유방재건 수술을 많이 고려한다.<br/><br/> Q.유방재건 수술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나?=유방재건술은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br/><br/>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은 보형물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피부와 근육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하고, 피부조직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확장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가조직치환술은 배나 등에 있는 근육과 지방을 끌어와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이다. 주로 보형물을 삽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된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즉시재건술과 지연재건술로 다시 구분된다. 즉시재건술의 경우 유방절제를 할 때 이뤄지는 방법으로 일반 수술로 유방 조직을 제거 한 후, 재건 수술의가 유방 보형물을 넣거나 조직확대술을 실시하게 된다. 지연재건술은 유방 절제 시점에 수술이 이뤄지지 않고, 유방절제를 한 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전문의와 상의 후 적합한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br/><br/><br/><br/> Q.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 수술의 경우 부작용은 없나?=유방 보형물은 실리콘 겔이나 생리식염수가 들어 있는 실리콘 탄성중합체 주머니이다. <br/><br/> 따라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형물의 모양과 사이즈, 유형 등을 결정하고 수술을 선택해야 한다. 반드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br/><br/><br/><br/> Q.유방재건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은?=4월 1일부터 유방암 환자가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br/> 유방절제 수술 직후 재건수술은 물론, 시간이 지난 후 하는 재건수술, 재건수술 후 부작용 수술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재건 수술시 기존 수술비용의 50% 가량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8.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 교체투여 보험확대 外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20100000018  
본문: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 교체투여 보험확대=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2가지 약을 먹던 환자가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129만원→58만원)된다. 또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당 연간 약 70만원까지(약 130만원→약 60만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br/><br/><br/><br/>◇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신설=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전국 56개, 939병상)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을 하반기(가정호스피스는 7월 중)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br/><br/><br/><br/>◇간암 검진주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연령 조정 검토=보건복지부는 배가시간(종양의 크기가 두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약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성을 고려해 간암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 여성의 발생률 증가를 고려해 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br/><br/><br/><br/>◇CAL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가 안전성·유용성 인정=골수증식성종양 의심환자 중 JAK2 V617F 돌연변이 검사결과 음성인 환자에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일차성 골수섬유증을 기타 골수증식성종양과 감별진단하기 위한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가 안전성·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또 악성종양 환자 중 종양내 저산소 병변의 확인이 필요한 환자에서 종양내 저산소 병변을 확인하는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들을 준수한다면 안전한 검사이고, 국소부위에 높은 방사선량을 계획할 수 있고,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반응을 확인해 치료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검사로 인정됐다.<br/><br/><br/><br/>◇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보수월액 상한 250만원으로 제한=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60%를 경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50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49.txt

제목: [이야기-고진하 목사·권포근 사모] 잡초, 맛의 깊이 어찌 아시겠어요… 영성, 은혜 크기 어찌 아시겠어요  
날짜: 20150418  
기자: 윤중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8100000100  
본문: 지난 13일 이른 오후 영동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10여분 정도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은 마을 한복판 기와집 앞이었다.<br/><br/>그가 명봉산 자락에서 잡초를 뜯어먹고 산다는 소리만 듣고 주소를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은 '띠리리릭∼' 하고 신호음을 낸 뒤 더 이상 안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지만 맞았다.<br/><br/>당호(집 이름) '불편당(不便堂)'이라는 편액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이 남색 개량한복을 입고 화가들이 주로 쓰는 모자를 쿡 눌러쓴 고진하(62) 목사가 열린 대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br/><br/>흔한 것이야말로 귀한 것입니다<br/><br/>‘삐그덕∼’. 고목 대문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6·25전쟁 직후에 지은 집의 대문이라니 고 목사와 동년배나 다름없어 보였다. 대문을 쑥 밀고 들어서니 흙냄새가 물씬 풍겼다. ‘ㄱ자 기와집’ 흙 마당엔 군데군데 돋아난 잡초가 파릇파릇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달게 삼켰다. 마당 하늘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은 구부정한 장대에 의지해 반듯하게 걸려 있다. 아니, 빨랫줄이 장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장대가 빨랫줄에 의지해 서있는 것 같았다.<br/><br/> 올망졸망한 장독대 앞에선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물 펌프가 유수 같은 세월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중물을 넣고 손잡이를 움직이면 금방이라도 물을 토해낼 것 같았지만 녹슨 손잡이는 지난 세월의 무게에 ‘삐걱’거리기만 했다.<br/><br/> “치악산 밑에 살다가 6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첨엔 세 들어 살다가 몇 년 전에 텃밭까지 다 샀어요. 한 826㎡(250평) 정도 됩니다. 낮엔 집을 고치고 잡초(雜草·산야초)를 뜯고 밤엔 공부하며 시도 짓고 책도 쓰면서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br/><br/> 고 목사는 비가 오니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자며 거실로 안내했다. 부엌과 너른 광을 터 만든 거실은 제법 운치가 있었다. 고 목사의 동반자 권포근(55) 사모가 ‘차풀차’를 끓여 내밀었다. “아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차일 겁니다. 개울가 모래밭에서 자라는 작은 풀이지요. 녹차에서 느낄 수 없는 구수함이 특징이랄까요.”<br/><br/> 권 사모가 안방으로 건너가자 고 목사가 차풀차 자랑을 이었다. “자귀나무 잎사귀와 같아요. 낮에는 잎을 폈다가 밤엔 오므리죠. 지난해 9월 씨가 맺혔을 때 땄는데 맛이 기막히게 좋아요.”<br/><br/> 고 목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잡초비빔밥을 해먹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사실 저는 지난해 봄부터 늦가을까지 농로를 거의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논과 밭두렁에 돋아난 잡초를 뜯어먹기 위해서죠. 아내와 저는 식재료비 0원의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 강한 생명력과 뛰어난 약성(藥性)에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천으로 피어있는 잡초야말로 미래식량의 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br/><br/> 고 목사는 지난해 5월 어느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내용을 전했다. ‘흔한 것이야말로 귀하다’는 깨우침이었다. 누가복음 11장 11∼13절 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는 구절에 꽂혔다고 했다. 바로 ‘성령’이라는 두 글자였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 부동산, 자식의 출세 등 ‘흔치 않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천박한 자본이 지배하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게 된 것이지요.”<br/><br/> 고 목사는 성령은 무소 부재한 것으로 햇빛과 공기, 물처럼 흔한 것이라고 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미소와 어머니의 사랑처럼 흔하다고 했다.<br/><br/> 그는 내친김에 오늘날의 종교가 속된 자본주의에 빠져 세상과 결탁해 일반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현실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했다. “소중한 진리, 흔한 것만 구하고 살면 문제될 게 없지요. 예수님과 바울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부귀와 명예, 권력과 탐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요.”<br/><br/> 고 목사는 차풀차를 다시 우려 찻잔에 부으며 다시 잡초 얘기를 했다. 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전환만이 전 지구적인 파국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개망초 달맞이꽃 곰보배추 질경이 민들레 애기땅빈대 등을 열거하다가 이런 식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고 물었다.<br/><br/> “로제트 식물입니다.” 잡초 얘기가 무르익자 안방에 있던 권 사모가 거실로 나와 이야기를 거들었다. “가을에 종자를 뿌리는 이 식물들은 제일 약한 것들이죠. 차디찬 겨울을 견뎌야만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울 수 있어요. 키가 큰 놈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꽃과 열매를 다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봄이 오면 부활하는 거죠.”<br/><br/> 고 목사는 로제트 식물뿐 아니라 모든 잡초들이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잡초가 원래 다른 식물보다 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약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보다 더 강한 식물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br/><br/> “잡초는 예측 불가능한 난세를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요, 식물의 세계는 정말로 들여다볼수록 웅숭깊지 않습니까.”<br/><br/> 잡초는 인생의 참스승입니다<br/><br/> 고 목사는 ‘난세’는 어지러운 인간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하루 세끼 밥 굶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세상인심은 메말라 가는 등 모두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br/><br/> “과연 지금이 난세인가요? 잡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잡초는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밟히고 또 밟히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질경이를 보세요. 다른 식물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길바닥을 서식지로 삼지 않습니까. 잎은 여리지만 그 속에 강한 실 줄기가 들어 있어 사람들 발길에도 금방 일어나며, 씨앗 젤리 모양의 물질이 있어서 물에 닿으면 부풀어 오르며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br/><br/> 고 목사는 밟히면 밟힐수록 옆으로 자라는 기막힌 지혜를 발휘하는 민들레의 속성도 이야기 했다. 암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각광받고 있는 애기땅빈대도 사람들의 통행이 붐비는 길 위에 납작 엎드려 짓밟히면서 생명을 영위한다고 했다. <br/><br/> “애기땅빈대는 꽃을 피워도 벌이나 나비의 눈에 띄지 못합니다. 개미와 파트너를 이루어 꽃가루받이를 해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생존전략을 보면 잡초는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난세의 스승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버거울 땐 잡초를 보세요.”<br/><br/> 시골생활 십수 년에 고 목사 부부는 잡초비빔밥 전도사로 변신했다. 부부는 그동안 뜯어먹은 잡초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했다. “잡초라고 하면 쓸모없는 풀, 가치 없는 풀이라고 생각하지요. 약초 도감을 보고 확인해 본 결과 가치 없는 풀은 없습니다. 토끼풀은 두통과 지혈, 생인손, 감기에도 좋습니다. 쇠비름은 암, 관절염, 당뇨에도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 밑이나 논밭가에 돋아나는 환삼덩굴은 고혈압이나 위장 질환에 좋고 소변도 잘 나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br/><br/> 권 사모는 올봄이 가기 전에,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산야를 누비며 채취한 잡초를 가지고 요리에 성공한 비빔밥과 주먹밥, 수육, 수제비, 샤부샤부 등의 잡초 레시피를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br/><br/><br/><br/>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시인이다<br/><br/> 최근 ‘시 읽어주는 예수’(비채)를 펴낸 고 목사는 “<span class='quot0'>옥타비오 파스가 시인은 살아 있는 목소리의 거부(巨富)라고 표현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분은 쌀처럼 작고 낮은 목소리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궁극적인 시인이셨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 서너 시간이 훌쩍 넘도록 잡초 얘기만하다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야속한 봄비는 일찍 핀 꽃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았지만 잡초는 저마다 벙긋 웃으며 봄비를 반겼다. 작별을 앞두고 고 목사에게 ‘불편당’ 편액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불(不)’자 한 자 새기는 데 3개월이 걸렸다면서 언제 다 새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너털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는 잡초비빔밥을 대접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 한 편을 선물로 내밀었다.<br/><br/> “<span class='quot1'>흔한 것이 귀하다./ 그대들이 잡초라 깔보는 풀들을 뜯어/ 오늘도 풋풋한 자연의 성찬을 즐겼느니./ 흔치 않은 걸 귀하게 여기는 그대들은/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숱한 맛집을 순례하듯 찾아다니지만,/ 나는 논밭두렁이나 길가에 핀/ 흔하디흔한 풀들을 뜯어/거룩한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느니./ 신이 값없는 선물로 준/ 풀들을 뜯어 밥에 비벼 꼭꼭 씹어 먹었느니./ 흔치 않은 걸 귀하게 여기는 그대들이/ 개망초 민들레 돌미나리 쇠비름/ 산뽕잎 돌콩 고들빼기 익모초 취나물/ 토끼풀 우슬초 질경이 참비름 개똥쑥 등/ 그 흔한 맛의 깊이를 어찌 아시겠는가./ 너무 흔해서 사람들 발에 마구 짓밟힌/ 초록의 혼들, 하지만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바람결에 하늘하늘 흔들리나니,/ 그렇게 흔들리는 풋풋한 하늘을 내 몸에 모시며/ 나 또한 싱싱한 초록으로 지구 위에 나부끼나니.</span>”(‘잡초비빔밥’ 전문)<br/><br/>고진하 목사=1953년 강원도 영월 출생. 감리교 신학대와 동대학원 졸업. 87년 ‘세계의 문학’ 통해 시인 등단, ‘거룩한 낭비’ 등 시집 6권과 ‘신들의 나라, 인간의 땅: 고진하의 우파니샤드 기행’ ‘쿵쿵’ 등 산문집을 냈다. 99년 번듯한 교회를 내놓고 낙향한 고 목사는 현재 원주 한살림교회에서 시골목회를 하고 있다.<br/><br/>원주=글·사진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0.txt

제목: 마포대교 난간 높인다… 자살 시도 안 줄어 내린 조치  
날짜: 20150418  
기자: 서희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8100000011  
본문: 한강 다리 중 자살시도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의 난간이 높아진다.<br/><br/>15일 서울시는 자살시도 통계가 증가해 시범적으로 마포대교 난간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예산 7억 원이 편성됐다.<br/><br/>현재 마포대교 난간은 높이가 130㎝로 키가 평균(160㎝) 정도인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난간의 높이가 조정되면 이보다 70㎝ 오른 2ｍ 높이가 된다. 난간으로 바꾸는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br/><br/>서울시는 2012년부터 삼성생명과 함께 마포대교와 한강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변모시키려는 사업을 해왔다. 마포대교 위에 조명장치, 자살 예방 문구 등이 설치됐다.<br/><br/>하지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5건에서 2013년 93건, 2014년 184건으로 급증해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방재난본부가 담당하는 암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한강 위 25개 교량 가운데 마포대교에서의 자살 시도가 가장 많다.<br/><br/>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시도는 증가했지만 구조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생명의 다리사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완책으로 구조물 설치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1.txt

제목: 성인에만 쓰던 구토억제제, 소아암 환자도 사용 가능…강형진 교수팀, 임상시험 성공  
날짜: 201504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7100000085  
본문: 성인 암환자의 항암치료 시 효과적인 구역 구토 억제제로 알려진 에멘드(Emend)가 소아암환자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근거가 없어 에멘드를 쓸 수 없었던 소아암환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br/><br/>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강형진 교수 연구팀은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소아암환자에게 ‘에멘드’의 효과를 알아보는 세계 최초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4월호에 발표했다. <br/><br/>Lancet Oncology는 임상종양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로, 학술지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인용지수가 24.725이다. 이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의학적인 치료 방침이 바뀌는 등 전 세계 의료 종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br/><br/>연구팀은 전 세계 소아암환자(생후 6개월~17세)를 대상으로, 비교군에는 에멘드와 기존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ondansetron)을, 대조군에는 온단세트론 만을 복용 시킨 후, 항암치료를 받게 했다. <br/><br/>그 결과, 구토 예방 비율이 비교군에서는 51%로 대조군 26%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br/><br/>구역 구토는 항암제 치료 시에 환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다. 구역 구토를 일으키는 신경 기전은 크게 2가지(세로토닌, P물질)다. 항암제 투여 후의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기전을 모두 억제해야 효과적이다. <br/><br/>그중 세로토닌 기전을 막는 온단세트론 등은 1990대에 개발되어 소아에게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P물질 기전을 막는 에멘드는 성인에게 많이 쓰이지만 소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br/><br/>제약사들이 좋은 약을 개발해도,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 소아에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약자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환자 수가 적은 소아용 의약품은 시장성이 낮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성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가 된 약제는 소아에게는 대단위 임상시험을 많이 하지 않았고 소단위 임상시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소아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br/><br/>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사가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면 제약사에게 해당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늘어난 특허 기간만큼, 다른 회사에서는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br/><br/>이번 연구는 시장성이 낮은 소아 환자들도 효과적인 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약회사에게는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며 경제성을 보장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었기에 이번 연구도 가능했다. 강형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소아 임상시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이며 한국이 주도한 소아 대상 연구로는 처음으로 영향력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span>” 라고 말했다. <br/><br/>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대학의 Richard Gralla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가 향후 소아에서 수준 높은 임상시험으로 근거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며 강 교수와 임상시험팀의 헌신에 감사하다</span>”고 평했다.<br/><br/>장윤형 기자 <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2.txt

제목: 표적치료제 이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국내 식약처 허가  
날짜: 20150414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4100000413  
본문: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br/><br/>한국 MSD는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획득을 기념해 새로운 면역항암제의 역할 및 임상적 혜택과 키트루다의 주요임상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r/><br/>키트루다는 이필리무맙 투여 후 진행이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 다만 BRAFV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BRAF 억제제와 이필리무맙 투여 후에도 진행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약 2 mg/kg을 매 3주마다 30분 동안 정맥 점적주입하는 용법으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획득한 항 PD-1 면역항암제다. <br/><br/>면역항암제는 종양 자체를 공격하는 다른 항암제와는 달리, 면역체계에 인공 면역 단백질을 주입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해 면역 세포가 선택적으로 종양 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 CTLA-4, LAG-3 등 억제기전의 수용체와 종양세포 사이의 신호경로에 작용해 종양세포를 억제한다. <br/><br/>방영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항 PD-1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암조직이 발현하는 이상물질의 작용을 차단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직접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표적치료제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서 여러 암종에서 치료효과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span>”고 말했다.<br/><br/>방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항 PD-1 면역항암요법은 일부 환자에서는 큰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중요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다 많은 환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키트루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제시한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다. 인체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 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PD-L1)과 면역세포의 단백질(PD-1)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해, T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다 잘 인식하고 강력하게 암을 억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br/><br/>다기관, 단일군 제 1상 임상연구 KEYNOTE-001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트루다가 투여용량에 관계없이 26%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나타냈고, 1년 전체 생존율에 대한 추정치 는 2mg/kg 투여 군에서 58%, 10 mg/kg 투여 군에서 63%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였다. <br/><br/>한편 키트루다는 진행성 흑색종에 미국FDA 최초로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 및 신속 허가된 바 있으며,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외에도 현재까지 7개의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br/><br/>장윤형 기자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3.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⑨ 건국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성인경 교수팀] 국내외 전문가 견학 올 정도로 명성  
날짜: 20150414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4100000006  
본문: 내시경은 1개의 긴 관 형태로 몸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맨 앞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한 진단기구다.<br/><br/>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 몸속으로 넣으면서 카메라가 보내 주는 화면을 외부 모니터를 통해 받아보고 내부 장기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br/><br/> 실시간으로 환자 몸속 상태를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위·대장 내시경의 경우 암이 의심되는 용종(혹)이나 조기 위암 조직을 특수기구로 바로 떼어내기도 한다.<br/><br/> 수면내시경의 보편화로 검사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도 큰 변화다. 수면내시경(의식진정내시경)을 이용하면 잠을 재우 듯 환자의 의식을 진정시킨 상태에서 위·대장 검사를 편하게 시술할 수 있다. 환자 역시 의사가 자신의 입과 목을 통해 긴 관이 삽입되는 내시경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br/><br/>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돼 있는 소장은 비타민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캡슐 내시경으로 질병을 찾아낸다. 환자가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장치가 몸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의사는 그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다.<br/><br/> 건국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센터장 성인경·소화기내과 교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라면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검사 환경을 갖춘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금도 수시로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전문가들이 이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5∼10명 단위로 견학하고 있을 정도.<br/><br/> 물론 환자들도 좁고 다소 음침한 인상을 주는 다른 병원들의 소화기내시경실과 달리 입구 및 대기실부터 넓고 쾌적한 시설에 절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국제적 표준에 맞춰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 내시경 소독 및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배려에 주안점을 두고 꾸민 곳이 바로 건국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이기 때문이다.<br/><br/> 실제로 이 센터는 초대 센터장을 맡아 지금의 탄탄한 골조와 토대를 쌓은 심찬섭(65) 교수와 성인경(52·센터장), 천영국(49) 교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 의료진과 시설 및 장비를 바탕으로 2013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 세계내시경협회(WEO) 인증까지 획득했다.<br/><br/> 심·천 교수팀은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전문가, 성 교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CD) 전문가다.<br/><br/> ERCP는 내시경과 방사선을 병행하는 검사로 십이지장까지 내시경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십이지장 유두부’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담관과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킨 다음 췌담도의 어느 부위에 병이 생겼는지를 체크하는 검사법이다.<br/><br/> 또 성 교수팀이 주로 시술하는 ECD는 위장 주변 림프절에 옮겨 붙지 않은 조기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을 이용, 위암 병변의 바로 아래쪽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위 점막을 부풀린 후 특수기구로 위암 조직만을 싹둑 잘라내는 치료법이다.<br/><br/> 건국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에는 현재 이들을 포함 모두 27명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및 전공의가 월평균 2000여건의 내시경 관련 검사와 시술을 수행 중이다.<br/><br/> 이곳은 또한 내시경검사구역과 기능검사구역이 구분돼 있는데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위한 전용 공간이 14개나 된다. 이밖에도 상하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및 치료 내시경 시술실, 특수 초음파 내시경실, 복부초음파실, 소화기 중재 시술실 등이 있다. <br/><br/> 내시경 장비 역시 기존의 일반 내시경 외에 경비내시경, 다중굴절내시경(M-Scope), 소장내시경, 캡슐내시경 등 첨단 내시경 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경비내시경은 내시경의 직경이 5㎜내외로 코를 통해 위속으로 삽입하는 내시경이다. 수면내시경을 하기 싫은 이들이 구역반응(메스꺼움) 없이 비교적 편하게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비다.<br/><br/> 성 교수팀은 각종 내시경검사 및 조기 위암, 식도암 그리고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수술은 물론 담석 질환에 대한 홀뮴레이저 수술 등 최신 장비를 이용한 치료내시경 시술 범위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br/><br/>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내시경 검사나 시술 후 회복실에서도 환자의 심폐기능 및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중앙환자감시시스템(CPMS)을 통해 전담 간호사가 수면내시경 및 치료내시경 시술 환자들의 개인 활력징후 및 산소 포화도를 집중 감시, 환자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성인경 교수는<br/><br/>1963년생, 경상남도 창녕 출신이다. 1982년 배명고교를 거쳐 1989년 한양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성균관의대 마산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3년 6개월간 일하다 건국대병원으로 이직, 오늘에 이르고 있다.<br/><br/>속칭 ‘신경성 위장병’으로 불리는 기능성 위장운동 장애 진단 및 치료 분야를 개척한 이종철(67) 전 삼성서울병원장 및 삼성의료원장과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의 대가인 심찬섭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수제자다.<br/><br/>2012년 미국 네바다주립대와 일본 고베대학 연수를 다녀왔다. 이 때의 인연으로 위 내시경으로 암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 뒤 암세포를 도려내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세계 최초로 개발, 보급한 고베대학 다카하시 도요나가(53) 교수팀과 매년 ESD 시술에 관한 원격영상 국제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교류하고 있다. “나, 착해.” 성 교수를 처음 대했을 때 받은 느낌이다. 1시간 여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내내 마음씨 좋은 삼촌과 같이 푸근한 표정과 온화한 말투로 자신과 건국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했다. 사람의 성격과 인격은 어느 정도 얼굴에 투영되기 마련이라는 속설이 맞는 말인가 보다.<br/><br/>병원 관계자는 성 교수가 환자들을 대할 때도 서운하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환자 편에서 정성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분과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소화기내시경센터장겸 연구부원장으로 활동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4.txt

제목: 분당차병원, 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 효능 검증… 임상연구 환자 모집  
날짜: 20150414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4100000010  
본문: 차병원그룹은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옥준(사진) 오승헌 김진권 교수팀이 발병한 지 7일 이내의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대혈(탯줄혈액)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코드스템-ST)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연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br/><br/> 이 연구사업은 2017년 2월까지 진행된다. 임상시험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는 MRI, PET, 뇌파 검사는 물론 다양한 혈액검사와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를 병원 측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분당차병원은 여기에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br/><br/>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는 분당차병원 신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은 신청자 중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급성기 뇌경색 환자 18명을 피시험자로 최종 선정,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할 계획이다.<br/><br/> 뇌졸중은 2013년 기준 국내 사망률에서 암 다음으로 높고 전체 사망의 10%를 차지하는 대표적 사망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발병 후 4.5∼6시간이 경과된 급성기 중증 뇌졸중의 경우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사지마비 등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약이 없어 지금까지 불치의 질환으로 분류돼 왔다.<br/><br/> 김옥준 교수는 “<span class='quot0'>본격 임상시험을 통해 급성 뇌경색에서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함으로써 불치의 벽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5.txt

제목: 서울대서 과학자 꿈 재중동포 연구원, 미국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날짜: 20150413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3100000250  
본문: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과학자의 꿈을 착실히 키우고 있는 재중동포 출신 30대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게 됐다.<br/><br/> 주인공은 서울대 약대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연옥(32) 연구원이다. <br/><br/> 박 연구원이 오는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Scholar-in-Training)을 수상한다고 지도교수인 서영준(58) 교수가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의 논문은 이번 학회의 구연 발표 대상으로도 채택됐다.<br/><br/> 박 연구원에게 상을 안긴 논문의 제목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 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이다.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로운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한 논문이다. <br/><br/>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균이 위암과 연관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br/><br/> 재중동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옌벤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우수 학생을 초청해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 초청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3월부터 서울대 약대에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원래 천연물의 암 예방에 관심이 많았는데, 석사 과정 지도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서울대 서영준 교수 연구실을 추천해 줬다</span>”고 말했다.<br/><br/> 박 연구원의 아버지는 현재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연구원은 “부모님께 수상 소식을 전했더니 장하다. 집안의 영광이라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br/><br/>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단계마다 몇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는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공부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다</span>”고 겸손해 했다.<br/><br/> 서영준 교수는 “<span class='quot1'>박 연구원은 차분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학회에서 상받고, 발표 기회까지 얻은 것은 제자 본인은 물론이고 스승에게도 큰 영광</span>”이라며 흐뭇해 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6.txt

제목: 셰퍼드 후각 이용해 전립선 암 진단 98% 적중  
날짜: 20150413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3100000372  
본문: 개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전립선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후마니타스 임상연구센터 비뇨기과 연구팀은 독일 셰퍼드(암컷)의 후각을 이용해 전립선암을 평균 98%의 정확도로 진단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 연구팀은 두 마리의 셰퍼드에 전립선암 환자 360명, 정상인 540명 등 900명의 소변샘플 냄새를 맡게 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가려내도록 했다. 그 결과 한 마리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98.7%, 또 한 마리는 97.6% 정확히 구분해냈다.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함유돼 있어서 공기 속으로 증발하면서 냄새를 방출하는데 예민한 후각을 지닌 개가 이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br/><br/> 이에 대해 연관된 선행연구를 했던 영국 의학탐지견학회장인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span class='quot0'>훈련된 개가 후각으로 암을 잡아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span>”라면서 “<span class='quot0'>개는 1000분의 1로 희석된 냄새도 맡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게스트 박사의 선행 연구에서 개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93%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이 연구는 미국비뇨기학회 학술지 ‘비뇨기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7.txt

제목: 셰퍼드에게 전립선암 진단 맡겨라-정확도 98%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3100000346  
본문: ‘전립선암 진단은 셰퍼드에게 맡겨라.’<br/><br/>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후마니타스 임상연구센터 비뇨기과 연구팀은 독일 셰퍼드(암컷)의 후각을 이용, 전립선암을 평균 98%의 정확도로 진단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br/><br/> 연구팀은 두 마리의 셰퍼드견에 전립선암 환자 360명, 정상인 540명 등 900명의 소변샘플 냄새를 맡게 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가려내도록 했다.<br/><br/> 그 결과 한 마리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거의 한 번에 98.7%, 또 한 마리는 97.6% 정확하게 구분해 냈다.<br/><br/>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이 함유돼 있어서 공기 속으로 증발하면서 냄새를 방출하는데 예민한 후각을 지닌 개는 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br/> 이에 대해 영국 의학탐지견(Medical Detection Dogs)학회회장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훈련된 개가 후각으로 암을 잡아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면서 개는 1000분의 1로 희석된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br/><br/> 게스트 박사는 그런데도 의학계는 냄새 탐지견을 암 진단에 이용하기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 냄새 맡는 개가 기계였다면 앞 다퉈 이용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br/><br/> 현재 전립선암 검사로는 혈액속의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를 측정하는 PSA검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도가 낮아 신뢰할만한 검사가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진단은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 분석하는 조직생검으로 가능하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비뇨기학회 학술지 ‘비뇨기학 저널’(Jouranl of Ur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8.txt

제목: 세계 최고 존스홉킨스대병원 교수, 자비 들여 국내 복강경 수술법 배우러 왔다  
날짜: 20150413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3100000235  
본문: 세계 최고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자비를 들여 국내 대학병원의 복강경 수술법을 배우러 왔다.<br/><br/> 복강경 수술은 배를 열지 않고 배꼽을 포함한 복부에 0.5~1.5㎝ 크기의 작은 구멍을 한개 혹은 여러개 뚫은 뒤, 그 안에 수술 기구들을 넣고 모니터를 보며 시행하는 수술법이다.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br/><br/> 화제의 주인공은 존스홉킨스대학병원 외과 진 헤(Jin He) 조 교수다. 진 교수는 현재 복강경 수술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에게서 복강경 수술 기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연수를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한 교수에게 지도를 받을 예정이다. <br/><br/> 지금까지 미국 내 여러 병원의 의료진이 한국에서 협력 연구나 단기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존스홉킨스대병원 교수가 자기 돈을 들여 국내 병원에 연수온 것은 처음이다.<br/><br/> 중국계인 진 조교수는 1996년 베이징의대를 졸업한 뒤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주립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2001.11~2008.06)를 거쳐 2008년부터 존스홉킨스병원 외과(종양학)에서 일하고 있다.<br/><br/> 진 교수가 분당서울대병원 연수를 택한 것은 한 교수가 2012년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한 게 계기가 됐다.<br/><br/> 진 교수는 “<span class='quot0'>당시 존스홉킨스병원에서 (한 교수의) 복강경 수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한 교수는 이미 학계에서 간담췌 분야 복강경 수술의 선구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연수를 신청했다</span>”고 말했다.<br/><br/> 한 교수는 세계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간절제술의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교수의 수술법은 당시 외과분야 최고권위 학술지인 ‘외과연보(Annals of Surgery)’에 논문으로 발표돼 주목받았으며, 이제는 세계학회의 수술 기준이 됐다. 한 교수는 또 세계 최초로 간내 결석의 복강경 치료에도 성공, 같은 저널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했다.<br/><br/> 2013년 4월에는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의 초청으로 이 병원에서 ‘간암 환자의 복강경 최신 수술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텍사스의 엠디 앤더슨 암센터와 함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암병원이다.<br/><br/> 이처럼 한 교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엠디 앤더슨 암센터의 클라디우스 콘라드 교수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존스홉킨스병원 외과 크리스 볼프강 교수는 조교수에서 풀타임 정 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한 교수에게 학교 측에 제출할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했다.<br/><br/>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윤유석 교수는 “(한 교수는) 해외연수 경험 없이 독학으로 복강경 수술 분야의 대가가 됐다. 일본과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세계 각지의 의사들이 간담췌 분야 복강경 수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오고 있다”고 전했다.<br/><br/>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과거에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 가서 선진의료를 배워왔지만,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그들에게 최신 치료법을 가르쳐 주는 상황이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우리 외과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59.txt

제목: [한마당-김명호] 사전의료의향서  
날짜: 20150411  
기자: 김명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11100000023  
본문: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span class='quot0'>죽음의 공포는 당연하지만 극복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사마천은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스티브 잡스는 “<span class='quot1'>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span>”이라고 단언했다.<br/><br/>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많은 인물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남겼다. 죽음과 삶의 관계, 죽음과 대면했을 때의 자세, 예정된 죽음을 향한 삶의 태도…. 죽음의 질(質)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를 넘어 죽음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갈하는 것 같다. 요즘 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 같은 말들이 회자된다. 모두가 코앞의 현실에만 바빴지 죽음의 품격에 무관심했었다는 뜻일 게다. <br/><br/> 20년 가까이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를 “<span class='quot2'>가장 비참한 임종을 맞는 나라</span>”라고 칭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편안한 가족이 아니라 이름모를 기계와 호스에 둘러싸인 채 맞는 죽음, 돈으로 사는 임종의료의 현실 등등은 죽음의 질을 현저히 낮춘다. 사나톨로지(thanatology)라는 학문이 새로이 주목 받는단다. 죽음학, 임종학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류학 종교학 의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연구하는 일종의 통섭 학문이다. 결국 ‘품위 있는 죽음’을 생각해보고 제시하는 게 목표다. <br/><br/>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쓰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문서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한 번쯤 조망해보는 기회도 된다. 존엄사와 함께 삶의 의미도 되새겨주지 않을까.<br/><br/><br/>김명호 논설위원 mhkim@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0.txt

제목: 미국 알래스카항공, 암환자 비행기에서 쫓아내 비난 쇄도  
날짜: 20150409  
기자: 정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9100000097  
본문: 미국의 알래스카항공이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비행기에서 쫓아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br/><br/>다발성 골수종 환자인 엘리자베스 세드웨이(51·여)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8일(현지시간) 하와이 공항에서 새너제이로 가는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에 올랐다.<br/><br/>그런데 세드웨이가 마스크를 낀 것을 본 항공사 직원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세드웨이는 처음에 ‘필요 없다'고 답했다가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고는 "몸이 아파서 탑승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br/><br/>‘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항공사 직원은 의사를 불렀고, 세드웨이와 가족이 비행기 좌석에 앉은 후 다른 직원이 와서 "비행기를 타도 괜찮다는 의사의 비행 허용 진단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했다.<br/><br/>세드웨이는 화학치료를 맡은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의사는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 것 같은 컨디션이면 그냥 타면 된다"고 말해 줬으나, 항공사 직원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세드웨이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br/><br/>그는 자신과 가족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br/><br/>당시 세드웨이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마치 범죄자나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쫓겨나고 있다. 내가 암 환자이고 비행기를 타도 좋다는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항의했다.<br/><br/>그는 이어 여객기의 좁은 통로로 나가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시간이 지체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br/><br/>그는 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하와이에 하루 더 머물러야 했으며, 예약돼 있던 이틀간의 화학치료를 놓쳤다. 남편은 결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결석했다.<br/><br/>알래스카항공은 이에 대해 "세드웨이 씨가 어제 겪은 불편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황 대처 방식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며 "항공료는 환불됐으며 하루 더 머무른 숙박료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br/><br/>이 항공사는 "우리 직원은 고객의 안녕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했지만, 이번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도 있었다"며 상황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br/><br/>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1.txt

제목: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폐암 오진이 가장 많아  
날짜: 20150409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9100000197  
본문: 의료 기관의 오진 피해 사례 10건 중 6건이 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오진이 가장 많았다. <br/><br/>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2015년 2월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480건) 가운데 암 오진 피해(296건)가 61.7%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br/><br/> 피해 사례 296건 가운데는 진료 과정에서 오진을 받은 경우가 218건(73.6%)으로 건강 검진 등 검사 과정(78건·26.4%)보다 많았다.<br/><br/> 유형별로는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48건·16.2%)과 소화기암인 상부위장관암(39건·13.2%), 간담도췌장암(36건·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br/><br/> 특히 폐암은 단순 방사선 검사(X-ray)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확진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한데 초기 방사선 판독이 잘못돼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br/><br/>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110건·37.2%)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류한 상급종합병원(72건·24.3%) 순으로 나타났다.<br/><br/>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오진을 겪은 사례가 108건(36.5%)으로 제일 많았고 40대(55건·18.6%)와 60대(39건·13.2%)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166건·56.1%)가 여성 피해자(130건·43.9%)보다 다소 많았다.<br/><br/>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81건(61.1%)이었지만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2.txt

제목: ‘담배 위해성’ 정부가 직접 밝혀낸다…질병관리본부에 ‘국가흡연폐해연구소’ 설치  
날짜: 20150408  
기자: twmin@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8100000148  
본문: ‘담배 위해성’의 과학적 근거를 밝혀낼 정부 연구소가 처음 생긴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br/><br/> 연구소는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각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으며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담배의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한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담배의 기본 성분 외에도 담배에 첨가된 물질들도 실험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험과 분석을 통해 첨가물들이 얼마나 중독성을 강화하는지,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각 담배의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한다.<br/><br/>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먼지 같은 환경 시료를 활용해 담배연기로 의한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도 검사한다.<br/><br/> 또 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할 계획이다.<br/><br/>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을 수행하는 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br/>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해 실험·분석을 실시해 비공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담배 분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br/><br/><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3.txt

제목: “봉사는 작은 데서부터”…소아암 투병 중인 환아에게 모발 기증한 간호사  
날짜: 20150408  
기자: 최영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8100000309  
본문: 암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어준 간호사의 선행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br/><br/>대구 파티마병원 이아름별(25) 간호사의 선행은 지난 6일 메디칼 타임즈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br/><br/>지난해 이른 봄 이 간호사는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고 7년이 넘도록 길러온 소중한 생머리를 40㎝ 넘게 싹둑 잘랐다.<br/><br/>백혈병이나 소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해서였다.<br/><br/>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무료로 가발을 만드는 모발 업체에 기부했다.<br/><br/>이러한 선행은 직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은 병원 홍보팀의 직원에게 포착되며 1년이나 지나서야 외부로 알려졌다.<br/><br/>메디칼 타임즈에 따르면 1년이 지난 현재는 또 머리가 자라 가지런히 묶고 있었다고 전한다.<br/><br/>이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긴 생머리를 자를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오히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묶고 있을 때는 무거웠는데, 홀가분해졌다"라고 말했다.<br/><br/>이 간호사는 평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그래서 찾은 것이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였다고.<br/><br/>머리카락 기부는 시간도, 돈도 따로 들지 않았다. 파마와 염색을 하지 않아야 하고 길이가 25㎝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또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br/><br/>수술실 간호사로 발령받아 2년차가 된 이 간호사. 그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한편 병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4.txt

제목: “봉사는 작은 데서부터”…소아암 투병 중인 환아에게 모발 기증한 간호사  
날짜: 20150408  
기자: 최영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8100000174  
본문: 암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어준 간호사의 선행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br/><br/>대구 파티마병원 이아름별(25) 간호사의 선행은 지난 6일 메디칼 타임즈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br/><br/>지난해 이른 봄 이 간호사는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고 7년이 넘도록 길러온 소중한 생머리를 40㎝ 넘게 싹둑 잘랐다.<br/><br/>백혈병이나 소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해서였다.<br/><br/>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무료로 가발을 만드는 모발 업체에 기부했다.<br/><br/>이러한 선행은 직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은 병원 홍보팀의 직원에게 포착되며 1년이나 지나서야 외부로 알려졌다.<br/><br/>메디칼 타임즈에 따르면 1년이 지난 현재는 또 머리가 자라 가지런히 묶고 있었다고 전한다.<br/><br/>이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긴 생머리를 자를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오히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묶고 있을 때는 무거웠는데, 홀가분해졌다"라고 말했다.<br/><br/>이 간호사는 평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그래서 찾은 것이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였다고.<br/><br/>머리카락 기부는 시간도, 돈도 따로 들지 않았다. 파마와 염색을 하지 않아야 하고 길이가 25㎝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또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br/><br/>수술실 간호사로 발령받아 2년차가 된 이 간호사. 그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한편 병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5.txt

제목: 간증집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적들’ 무료로 드립니다  
날짜: 2015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710016875059  
본문: 양·한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영육치료 전도사’로 불리는 의료법인 매그너스 의료재단 이사장 손의섭(67·사진) 장로는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모은 간증집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적들’(북스토리)을 전도용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절절한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 체험한 간증들을 이 책에 담았다.<br/><br/> 손 장로는 한때 하루 세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골초’였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인 1983년 12월 군 복무를 하던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는 성경공부와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했다. 술, 담배를 끊고 방언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사역에 매달렸다.<br/><br/> 그는 의약품 업계에서 오랜 연구를 거친 끝에 버섯균사체 전문가가 됐다. ‘간을 보호하고 암을 이기는 버섯균사체’ ‘간장병·암 알고 치료받아야 산다’ ‘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등의 저서는 이때 출간돼 화제를 모았다. <br/><br/> 2002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최신 설비를 갖춘 호텔급 요양시설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2008년 호평재활요양병원, 2010년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암환자를 치료하는 암스트롱요양병원을 개원했다. <br/><br/> 현재 ㈜한국마그너스와 ㈜마그너스 바이오푸드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매그너스 복지재단 이사장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선교 열정의 소유자다. 미얀마와 태국 등에 제빵 기계를 기증하고 고아원을 돕는 등 국내외 불우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br/><br/> 손 장로는 오는 10∼11일 암스트롱요양병원에서 ‘암 치유를 향한 비상(飛上)-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인도한다. 암 환우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선배환우들의 암 극복 체험사례 발표, 풍욕체험, 올바른 호흡과 걷기, 자연운동법, 음악치료, 유기농·자연식 식사, 황토입원실·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br/><br/> 그는 사업을 전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시작한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겠다”면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장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니 행복하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라”고 조언했다(02-514-4658). <br/>남양주=글·사진 유영대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6.txt

제목: 매그너스 의료재단 이사장 손의섭 장로, 간증집 무료 배포  
날짜: 20150406  
기자: 유영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6100000350  
본문: 양·한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영육치료 전도사’로 불리는 의료법인 매그너스 의료재단 이사장 손의섭(67·사진) 장로는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모은 간증집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적들’(북스토리)을 전도용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절절한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 체험한 간증들을 이 책에 담았다.<br/><br/> 손 장로는 한때 하루 세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골초’였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인 1983년 12월 군 복무를 하던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는 성경공부와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했다. 술, 담배를 끊고 방언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사역에 매달렸다.<br/><br/> 그는 의약품 업계에서 오랜 연구를 거친 끝에 버섯균사체 전문가가 됐다. ‘간을 보호하고 암을 이기는 버섯균사체’ ‘간장병·암 알고 치료받아야 산다’ ‘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등의 저서는 이때 출간돼 화제를 모았다. <br/><br/> 2002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최신 설비를 갖춘 호텔급 요양시설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2008년 호평재활요양병원, 2010년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암스트롱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이곳에서는 노인과 암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다.<br/><br/> 현재 ㈜한국마그너스와 ㈜마그너스 바이오푸드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매그너스 복지재단 이사장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선교 열정의 소유자다. 미얀마와 태국 등에 제빵 기계를 기증하고 고아원을 돕는 등 국내외 불우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br/><br/> 손 장로는 오는 10~11일 암스트롱요양병원에서 ‘암 치유를 향한 비상(飛上)-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인도한다. 암 환우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선배환우들의 암 극복 체험사례 발표, 풍욕체험, 올바른 호흡과 걷기, 자연운동법, 음악치료, 유기농·자연식 식사, 황토입원실·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br/><br/> 그는 사업을 전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시작한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겠다”면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장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니 행복하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라”고 조언했다(02-514-4658).<br/><br/>남양주=글·사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7.txt

제목: 건강강좌 판도 변화 ‘몸’ 이 아니라 ‘마음’ 입니다  
날짜: 20150406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6100000156  
본문: A병원에서 열리는 건강강좌 중 참가자가 가장 많은 강좌는 우울증과 수면에 관한 건강강좌다.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관한 강의실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참가자가 모여 강의실을 옮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br/><br/> 서울 강서구에서 40년째 문구업을 하는 김찬수씨는 올해 예순 여덟이다. 최근 들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말하는 그는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증이 걱정돼 정신건강 강좌를 찾아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병을 강조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본인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br/><br/> 한 대학병원에서 하루 간격을 두고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방법을 소개하는 암 건강강좌와 외상후 스트레스를 알려주는 트라우마 강좌가 열렸다. 대장암 건강강좌에 모인 참가자 수는 15명으로 강의실은 한산했다. 강연자가 준비한 자료의 양에 비해 참가자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트라우마 강좌에 모인 참가자 수는 50명을 넘겼다. 전날 대장암 강좌와 대조적인 풍경이다. <br/><br/> 많은 대학병원이 각종 암의 예방법과 치료방법을 소개하는 시민 건강강좌를 자주 연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강의실이 텅 비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강연자로 나선 의료진이 무색할까봐 병원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br/><br/> 분노조절 장애 건강강좌에서 만난 박희봉씨는 “문병을 왔다가 분노조절 장애에 관한 건강강좌를 들었다. 예전에는 ‘들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서 들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암 같은 병만 공부할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부족한 면모들을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 오순복씨는 최근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정신건강 강좌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씨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일종의 장애인 줄 몰랐다. 불안을 느끼는 게 내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병이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br/><br/>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회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출장 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법’이다.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직장인 김단희씨는 “스트레스가 타인에 의해 쌓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였다. 스트레스를 질환으로 생각하니까 강연하는 동안 메모하며 듣게 됐다”고 말했다. <br/><br/> 신체 건강에 위협적인 암보다 외상후스트레스나 우울증, 화병을 다루는 건강강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br/><br/> 이런 배경에 대해 병원 측은 암에 관한 정보가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진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 것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건강한 정신을 갖는 일에 다소 소극적이던 한국인의 정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br/><br/>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은 “<span class='quot0'>불안장애로 힘들어하는 50대 여성이나 인생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60대 남성,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느낀 직장인, 이들의 공통점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갖가지 증상들을 더 이상 제쳐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span>”고 설명했다. 김단비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8.txt

제목: 한국싸나톨로지협회 14일 국회서 영적돌봄 호스피스 서비스 토론회 개최  
날짜: 2015040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6100000261  
본문: 한국싸나톨로지협회(회장 전세일)는 14일 오후 1시30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호스피스 제도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공개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br/><br/> 다가오는 7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이용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만 해당될 뿐 다른 만성질환자는 물론 심리적·영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적용대상서 제외돼 있어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br/><br/> 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 호스피스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서의 심리적·영적 돌봄 강화를 통한 질적 향상 및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정부 호스피스 정책 관련 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가 여섯 명이 연사로 나서 심리적·영적 돌봄에 대한 정의 및 사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증할 예정</span>”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br/><br/> 호스피스 서비스에 있어서 죽음은 삶의 완성이고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은 인간 존엄성의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기에,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완화치료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완성하며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심리적·영적 돌봄을 병행하게 된다. 심리적·영적 돌봄은 호스피스를 단순히 고통 경감 절차가 아닌 한 인간의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서비스가 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br/><br/> 현재 일부 호스피스 기관에서 자체 인력을 양성하여 심리적·영적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심리적·영적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또한 아직 수립되지 않은 형편이다. <br/><br/>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전세일 회장을 좌장으로,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창걸 박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김근하 박사(전일의료재단 명예이사장/국제싸나톨로지스트), 고진강 박사(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 공인식 사무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등이 참석, 자유토론에 나선다. <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69.txt

제목: [저자와의 만남-푸드앤웨이브 CEO 송순복 선교사] “성경적 재정 축복의 길, 믿음으로 열립니다”  
날짜: 20150404  
기자: 윤중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4100000231  
본문: 16.5㎡(5평) 작은 사무실에서 단돈 500만원으로 싱크대사업을 시작해 성경적인 일터기업 ㈜푸드앤웨이브를 창업한 송순복(54) 선교사가 최근 성경적 재정 축복의 길을 인도하는 ‘부의 거룩한 이동’(나침반)을 펴냈다. 전업주부였던 저자는 제조업과 유통업에서 CEO로 성장하는 한편 해외 선교지에 16개 교회를 세우고, 18개 푸드 체인점을 개설해 후원하는 일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br/><b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국민일보에서 만난 송 선교사는 “<span class='quot0'>평범한 주부일 때 부터 오늘까지 겪은 ‘성경적 부의 이동’에 대한 실제 고백을 책에 담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일으키실 ‘성경적 부의 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span>”고 밝혔다. 책은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두 번의 암 수술로 죽음의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적 재정 방법을 이야기 한다.<br/><br/> 그의 집은 경기도 수원 연무동에서 청과사업을 크게 한 아버지와 경제 감각이 탁월했던 어머니 덕택으로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세 오빠가 의기투합해 차린 전자회사가 큰 빚을 떠안고 망한 것이었다. 여고 3학년 2학기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L사 경리부 직원을 거쳐 P사 미용 사원으로 입사했다.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br/><br/> 그는 23세 꽃다운 나이에 J식품에 다니는 청년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후 첫 딸을 낳고 1987년 난산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들이 심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됐다. 새벽기도중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음성을 들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 미처 이름도 짓지 않았던 아들이 3개월 만에 발을 까딱이고, 소변을 봤다. 6개월이 되던 날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했더니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br/><br/> 그는 집 앞 교회에 찾아가 이 아이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이며, 특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포했다. 믿지 않던 남편(이규두 장로)도 회심해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br/><br/> 청주에서 살다가 친정인 수원으로 돌아온 송 선교사는 92년 4월 5일 부활절에 백조싱크 남부 대리점을 오픈하고 “<span class='quot0'>월 500만원 매출에 50만원 십일조를 하겠다</span>”는 기도를 드렸다.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에는매출 5000만원의 십일조 500만원을 드렸다. 이어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기업’을 목표로 정하고 이슬람 국가에 선교도 다녀오고 그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br/><br/> IMF 외환위기에도 송 선교사의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98년 5월 유방암 2기. 서울 노원구 노원로 원자력병원에서 10시간 동안 왼쪽 유방 완전 절제 수술을 받았다. 5년 후엔 오른쪽 가슴에 또다시 암세포가 발견돼 대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나 일터로 돌아왔다. 이후 순복음총회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한 저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원남지방회에서 안수를 받고 수원 순복음교회(이재창 목사)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br/><br/> 사업도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한샘 키친 프라자’라는 사업장을 열었고 제조와 유통, 도소매와 인테리어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을 완성했다. 2012년엔 수원에 푸드앤웨이브 사업본부를 세웠다. 이어 감자탕과 낙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잠실감자탕 힘센낙지’ 브랜드를 개발했다. 또 탕 요리와 볶음요리를 전문적으로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요리조리 노리울’ 브랜드를 탄생시켰다.<br/><br/> 국민일보 기독여성 CEO 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일터 사도로 ‘333운동’을 펴고 있다. 3000명의 후원자, 3000개의 선교지 후원, 3000개의 일터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는 오스힐먼의 저서 ‘일터 사역’을 중심으로 10주간 진행되는 ‘일터 사역 10주’ 강의부터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크리스천 CEO들을 위한 ‘성공하는 4차원의 일터 리더 세미나’를 열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품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소유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글·사진=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0.txt

제목: “날 성추행한 새아빠와 엄마를 고발합니다” 시끌… 페북지기 초이스  
날짜: 20150404  
기자: 김상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4100000046  
본문: “날 성추행한 새아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바람피운 우리 엄마를 고소하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여 버리고 싶어요.”<br/><br/> 20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새아빠와 친엄마를 증오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실인지 확인된 글은 아니지만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묘사에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4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br/><br/> 글은 지난 2일 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부모한테 고소 당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br/><br/> 글쓴이 A씨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세상에 누가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했나요? 저는 제 부모 때문에 죽고만 싶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br/><br/> A씨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친아빠를 폐암으로 여읜 뒤 6개월도 채 안 돼 엄마(B)가 이웃집에 살던 새아빠(C)와 재혼했다는군요.<br/><br/> A씨는 그때부터 불행했다고 합니다.<br/><br/> “새아빠 가족들의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OO년은 기본이었고 불쾌해하는 하는 얼굴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다 받고 삭혀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사해도 인사 안 했다고 욕 먹고 그렇게 꾸역꾸역 살았습니다.”<br/><br/> B씨는 A씨를 위로하기 보단 ‘너가 아빠 돈 받아 먹고 사는 거니 아빠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아빠 기분 잘 맞춰’라며 C씨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br/><br/> A씨는 새아빠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br/><br/> “초등학교 4학년 때 새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는 믿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그 인간 얼굴 보면서 살았어요.”<br/><br/> B씨와 C씨는 자식 두 명을 더 낳았고 A씨는 항상 뒷전이었다는군요. A씨의 더 큰 불행은 친할머니를 만나면서 찾아왔습니다. <br/><br/> A씨는 “저희 엄마랑 새아빠가 친아빠 살아계셨을 때부터 바람난 사이였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아빠가 충격 먹고 술 드시다 암이 재발해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br/><br/> 친아빠가 돌아가신 뒤 C씨가 아빠가 운영하던 횟집을 차지했다고도 하네요.<br/><br/> 음악을 좋아했던 A씨는 대학에 진학한 뒤 음악 선생님들을 더 따르게 됐답니다. C씨와 갈등 끝에 집을 나온 A씨는 따르던 선생님의 작업실에 머물며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도왔답니다.<br/><br/> B씨는 그런 A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A씨의 앞길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A씨는 “엄마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날 납치했다며 고소했다”면서 “엄마는 또 피아노 학원을 하는 선생님에게 대학생을 고용했다며 민원을 넣어 학원이 문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 조사까지 받았다는군요.<br/><br/> A씨는 자신을 괴롭혔다며 엄마와 새아빠를 증오한다고 적었습니다.<br/><br/> “(새아빠한테) 성추행까지 당하고 우리 아빠 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심지어 절 도와준 선생님들까지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여 버리고 싶어요.”<br/><br/> 그녀는 끝으로 경찰서에 새아빠를 신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새아빠가 망하는 걸 보겠다는 다짐까지 했네요.<br/><br/> A씨의 사연에 인터넷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인지 의심하는 반응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에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br/><br/> 한 네티즌은 A씨에게 ‘학원에 취업한 것은 불법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물한 살이면 성인이니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방송에서 취재 나와야할 정도’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겠다’는 응원글이 많았습니다.<br/><br/>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1.txt

제목: “날 성추행한 새아빠와 엄마를 고발합니다” 시끌… 페북지기 초이스  
날짜: 20150404  
기자: 김상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4100000082  
본문: “날 성추행한 새아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바람피운 우리 엄마를 고소하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여 버리고 싶어요.”<br/><br/> 20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새아빠와 친엄마를 증오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실인지 확인된 글은 아니지만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묘사에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4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br/><br/> 글은 지난 2일 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부모한테 고소 당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br/><br/> 글쓴이 A씨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세상에 누가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했나요? 저는 제 부모 때문에 죽고만 싶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br/><br/> A씨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친아빠를 폐암으로 여읜 뒤 6개월도 채 안 돼 엄마(B)가 이웃집에 살던 새아빠(C)와 재혼했다는군요.<br/><br/> A씨는 그때부터 불행했다고 합니다.<br/><br/> “새아빠 가족들의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OO년은 기본이었고 불쾌해하는 하는 얼굴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다 받고 삭혀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사해도 인사 안 했다고 욕 먹고 그렇게 꾸역꾸역 살았습니다.”<br/><br/> B씨는 A씨를 위로하기 보단 ‘너가 아빠 돈 받아 먹고 사는 거니 아빠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아빠 기분 잘 맞춰’라며 C씨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br/><br/> A씨는 새아빠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br/><br/> “초등학교 4학년 때 새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는 믿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그 인간 얼굴 보면서 살았어요.”<br/><br/> B씨와 C씨는 자식 두 명을 더 낳았고 A씨는 항상 뒷전이었다는군요. A씨의 더 큰 불행은 친할머니를 만나면서 찾아왔습니다. <br/><br/> A씨는 “저희 엄마랑 새아빠가 친아빠 살아계셨을 때부터 바람난 사이였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아빠가 충격 먹고 술 드시다 암이 재발해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br/><br/> 친아빠가 돌아가신 뒤 C씨가 아빠가 운영하던 횟집을 차지했다고도 하네요.<br/><br/> 음악을 좋아했던 A씨는 대학에 진학한 뒤 음악 선생님들을 더 따르게 됐답니다. C씨와 갈등 끝에 집을 나온 A씨는 따르던 선생님의 작업실에 머물며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도왔답니다.<br/><br/> B씨는 그런 A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A씨의 앞길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A씨는 “엄마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날 납치했다며 고소했다”면서 “엄마는 또 피아노 학원을 하는 선생님에게 대학생을 고용했다며 민원을 넣어 학원이 문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 조사까지 받았다는군요.<br/><br/> A씨는 자신을 괴롭혔다며 엄마와 새아빠를 증오한다고 적었습니다.<br/><br/> “(새아빠한테) 성추행까지 당하고 우리 아빠 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심지어 절 도와준 선생님들까지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여 버리고 싶어요.”<br/><br/> 그녀는 끝으로 경찰서에 새아빠를 신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새아빠가 망하는 걸 보겠다는 다짐까지 했네요.<br/><br/> A씨의 사연에 인터넷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인지 의심하는 반응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에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br/><br/> 한 네티즌은 A씨에게 ‘학원에 취업한 것은 불법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물한 살이면 성인이니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방송에서 취재 나와야할 정도’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겠다’는 응원글이 많았습니다.<br/><br/>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2.txt

제목: 부패·기밀누설 혐의 저우융캉 기소… 최고 사형  
날짜: 20150404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4100000260  
본문: 중국 검찰이 저우융캉(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부패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돼 온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br/><br/> 신화통신은 톈진시 인민검찰원이 3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span class='quot0'>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span>”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 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br/><br/>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최근 저우융캉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민 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를 기소함으로써 저우융캉의 기소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다.<br/><br/>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주석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이 저우융캉을 기소함으로써 ‘최고지도부의 성역’이 깨졌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 시진핑 지도부는 저우융캉 외에도 최근 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 ‘신4인방’을 몰락시키며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br/>베이징=맹경환 특파원<br/><br/> khmaeng@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3.txt

제목: 존 레넌 첫번째 부인 신시아 레넌 사망… ‘헤이 주드’, 레넌 아들 위한 매카트니의 위로곡  
날짜: 20150403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3100000592  
본문: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 리더 존 레넌의 첫 부인 신시아 레넌이 1일(현지시간) 7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br/><br/> 신시아의 아들 줄리안(51)은 이날 자신의 웹 사이트를 통해 어머니가 스페인 마요르카 자택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부른 노래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의 대리인은 신시아가 짧지만 용감하게 암과 싸웠고 줄리안이 내내 곁을 지켰다고 전했다.<br/><br/> 신시아는 1957년 영국 리버풀의 음악학교 서예 수업에서 처음 존을 만났다. 문제아였던 존은 필기구도 안 갖고 수업에 들어와 줄곧 신시아에게 신세를 졌다. 이 수업이 인연이 됐고 두 사람은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인 1962년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식은 그 흔한 꽃다발과 사진도 없이 비틀스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와 조지 해리슨 등 몇몇 주변 사람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br/><br/> 신시아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스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많은 비틀스 소녀팬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비틀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헌터 데이비스는 신시아를 ‘유명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묘사했으며, 그녀를 “<span class='quot0'>존과 달리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데다 결코 히피가 아니었다</span>”고 회고했다.<br/><br/> 그러나 1968년 존이 일본인 행위예술가 오노 요코를 만나는 걸 알게 되면서 신시아는 과감히 이혼을 택했다. 비틀스의 대표 곡 가운데 하나인 ‘헤이 주드(Hey Jude)’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부모의 이혼에 상처받았을 줄리안을 위해 매카트니가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로 바꿔 곡을 쓴 것. 신시아는 이후 아들 줄리안을 맡아 키우면서 세 번 재혼했다.<br/><br/> 신시아는 자서전을 통해 존과의 결혼생활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존을 질투심 많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비틀스 초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와 춤을 췄을 때 존에게 맞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모두가 그에게 경탄했다”며 존의 인간적인 매력을 언급하기도 했다.<br/><br/> 신시아 사망 소식에 매카트니는 “<span class='quot1'>리버풀 시절부터 안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줄리안에게 좋은 엄마였고 우리 모두 그녀를 그리워할 것</span>”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노 요코 역시 “그녀는 위대한 사람”이라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br/>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4.txt

제목: [中 저우융캉 기소] 시진핑, 반 부패 드라이브 정점 달해  
날짜: 20150403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3100000416  
본문: 중국 검찰이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부패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돼 온 반(反)부패 사정드라이브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br/><br/> 신화통신은 톈진시 인민검찰원이 3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span class='quot0'>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span>”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br/><br/> 검찰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r/><br/>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최근 저우융캉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민 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를 기소함으로써 저우융캉의 기소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다. <br/><br/>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주석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이 저우융캉을 기소함으로써 ‘최고지도부의 성역’이 깨졌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 <br/><br/> 시진핑 지도부는 저우융캉 외에도 최근 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 ‘신4인방’을 몰락시키며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br/><br/>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5.txt

제목: [中 저우융캉 기소] 시진핑, 반 부패 드라이브 정점 달해  
날짜: 20150403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3100000371  
본문: 중국 검찰이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부패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돼 온 반(反)부패 사정드라이브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br/><br/> 신화통신은 톈진시 인민검찰원이 3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span class='quot0'>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span>”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br/><br/> 검찰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r/><br/>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최근 저우융캉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민 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를 기소함으로써 저우융캉의 기소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다. <br/><br/>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주석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이 저우융캉을 기소함으로써 ‘최고지도부의 성역’이 깨졌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 <br/><br/> 시진핑 지도부는 저우융캉 외에도 최근 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 ‘신4인방’을 몰락시키며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br/><br/>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6.txt

제목: ‘암 예방 김치’ 위암 막아준다…항암 건강기능식품 가능성 ‘주목’  
날짜: 20150402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2100000020  
본문: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암 예방 김치’의 항암 효과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특히 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암 발생을 막아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br/><br/> 차의과학대학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와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팀은 1~4일 서울대 암연구소(소장 송용상 산부인과 교수) 주최로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리는 ‘국제 암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br/><br/>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중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 세계 14개국 90여명의 암 연구 분야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br/><br/> 주최 측이 배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한식 세계화 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암 예방 김치(cpKimchi)’로 명명된 김치를 개발했다.<br/><br/> 연구팀은 이 암 예방 김치와 기존 일반 김치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고농도 소금 섭취로 위 종양 형성이 유도된 실험 쥐에 물과 함께 섞어 36주간 각각 투여하고, 김치를 먹이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다.<br/><br/> 그 결과 김치를 먹이지 않은 실험쥐에서는 36주 후 위에 궤양과 종양은 물론 표면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관찰됐지만 암 예방 김치를 먹인 쥐들에서는 이런 증상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김치를 먹인 실험쥐들도 위에서 홍반과 결절성 변화, 점막 궤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br/><br/> 위 점막 내 세포 분석에서도 암 예방 김치를 먹이지 않은 쥐들은 종양 형성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염증물질(COX-2, IL-6)의 발현 등이 관찰된 반면 암 예방 김치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 연구팀은 암 예방 김치 추출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하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유도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br/><br/> 연구팀은 동물실험에 사용된 암 예방 김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특허권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br/><br/> 함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예방 김치를 매일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축성 위염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항돌연변이 등의 반응으로 종양 형성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br/><br/> 한편 구충곤 화순 군수는 이번 국제 암 심포지엄을 통해 화순군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로의 발전에 국제적 관심과 이목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br/><br/>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암센터,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진단과 치료, 휴양 의료 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메디컬 클러스터’와 녹십자와 생물의약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임상·임상·제조에 이르는 인프라를 연결,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조성된 ‘바이오 클러스터’ 등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br/><br/> 구 군수는 “<span class='quot1'>화순군이 암 예방에 중요한 섭생과 신체활동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생명과학융합센터는 물론 치유농업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7.txt

제목: 호암재단, 호암상 수상자에 천진우 교수 등 5명 선정  
날짜: 2015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210016825424  
본문: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호암재단은 1일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학상은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은 김창진 미국 UCLA대 교수, 의학상은 김성훈 서울대 교수, 예술상은 김수자 작가, 사회봉사상은 백영심 간호사가 각각 선정됐다.<br/><br/> 과학상을 수상한 천 교수는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하고, 설계한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절해 MRI(자기공명영상) 조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공학상의 김 교수는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전기 습윤 기술의 창시자다. 이를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미세 유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의학상을 받은 김 교수는 항암 단백질 전문가로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ARS·aminoacyl-tRNA synthetase)가 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예술상의 김 작가는 세계적인 개념미술 작가로 ‘보따리’ ‘바늘여인’ 등의 작품이 있다. 사회봉사상의 백 간호사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지에 병원과 간호대학을 설립했다.<br/><br/> 호암재단은 매년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 부문에서 1명을 선정해 호암상을 시상한다. 호암재단은 호암상 심사를 위해 국내외 저명 학자·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해외 석학 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호암상 시상식은 6월 1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들은 상장,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br/><br/>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8.txt

제목: 존 레논 첫부인 신시아 사망…레논과의 인연, '헤이 주드' 등 그녀의 삶 재차 조명  
날짜: 20150402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2100000543  
본문: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 리더 존 레논의 첫 부인 신시아 레논이 1일(현지시간) 7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br/><br/> 신시아의 아들 줄리안(51)은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어머니가 스페인 마요르카 자택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부른 노래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의 대리인은 신시아가 짧지만 용감하게 암과 싸웠고 줄리안이 내내 그 옆을 지켰다고 전했다.<br/><br/> 신시아는 1957년 영국 리버풀의 음악 학교의 서예 수업에서 처음 존을 만났다. 문제아였던 존은 필기구도 안 갖고 수업에 들어와 줄곧 신시아에게 신세를 졌다. 이 수업이 인연이 됐고 두 사람은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인 1962년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식은 그 흔한 꽃다발과 사진도 없이 비틀스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와 조지 해리슨 등 몇몇 주변 사람들만 참석해 조용히 치러졌다.<br/><br/> 신시아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스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많은 비틀스의 소녀 팬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비틀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헌터 데이비스는 신시아를 ‘유명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했으며, 그녀를 “<span class='quot0'>존과 달리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다 결코 히피가 아니었다</span>”고 회고했다.<br/><br/> 그러나 1968년 존이 일본인 행위예술가 오노 요코를 만나는 걸 알게 되면서 신시아는 과감히 이혼을 택했다. 비틀스의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인 ‘헤이 주드(Hey Jude)’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부모의 이혼에 상처받았을 줄리안을 위해 매카트니가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로 바꿔서 곡을 쓴 것. 신시아는 이후 아들 줄리안을 맡아 키우면서 총 3번 재혼했다.<br/><br/> 신시아는 자서전을 통해 존과의 결혼 생활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존을 질투심 많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비틀스 초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와 춤을 췄을 때 존에게 맞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모두가 그에게 경탄했다”며 존의 인간적인 매력을 언급하기도 했다.<br/><br/> 그녀의 사망 소식에 매카트니는 “<span class='quot1'>리버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줄리안에게 좋은 엄마였고 우리 모두 그녀를 그리워할 것</span>”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노 요코 역시 “그녀는 위대한 사람”이라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79.txt

제목: 존 레논 첫부인 신시아 사망…레논과의 인연, '헤이 주드' 등 그녀의 삶 재차 조명  
날짜: 20150402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2100000566  
본문: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 리더 존 레논의 첫 부인 신시아 레논이 1일(현지시간) 7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br/><br/> 신시아의 아들 줄리안(51)은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어머니가 스페인 마요르카 자택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부른 노래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의 대리인은 신시아가 짧지만 용감하게 암과 싸웠고 줄리안이 내내 그 옆을 지켰다고 전했다.<br/><br/> 신시아는 1957년 영국 리버풀의 음악 학교의 서예 수업에서 처음 존을 만났다. 문제아였던 존은 필기구도 안 갖고 수업에 들어와 줄곧 신시아에게 신세를 졌다. 이 수업이 인연이 됐고 두 사람은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인 1962년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식은 그 흔한 꽃다발과 사진도 없이 비틀스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와 조지 해리슨 등 몇몇 주변 사람들만 참석해 조용히 치러졌다.<br/><br/> 신시아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스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많은 비틀스의 소녀 팬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비틀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헌터 데이비스는 신시아를 ‘유명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했으며, 그녀를 “<span class='quot0'>존과 달리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다 결코 히피가 아니었다</span>”고 회고했다.<br/><br/> 그러나 1968년 존이 일본인 행위예술가 오노 요코를 만나는 걸 알게 되면서 신시아는 과감히 이혼을 택했다. 비틀스의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인 ‘헤이 주드(Hey Jude)’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부모의 이혼에 상처받았을 줄리안을 위해 매카트니가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로 바꿔서 곡을 쓴 것. 신시아는 이후 아들 줄리안을 맡아 키우면서 총 3번 재혼했다.<br/><br/> 신시아는 자서전을 통해 존과의 결혼 생활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존을 질투심 많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비틀스 초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와 춤을 췄을 때 존에게 맞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모두가 그에게 경탄했다”며 존의 인간적인 매력을 언급하기도 했다.<br/><br/> 그녀의 사망 소식에 매카트니는 “<span class='quot1'>리버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줄리안에게 좋은 엄마였고 우리 모두 그녀를 그리워할 것</span>”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노 요코 역시 “그녀는 위대한 사람”이라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0.txt

제목: “위암 로봇 수술이 합병증 빈도 낮다”  
날짜: 20150401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1100000295  
본문: 국내 의료진이 위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로봇수술의 발생빈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송교영 교수팀은 로봇수술 시행 초창기 복강경 수술과 각 40례의 수술 후 임상적인 인자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수술 후 췌장염 발생빈도가 복강경 수술 군에서 22.5%인 반면, 로봇 수술 군에서는 10%로 로봇 수술 군이 낮은 결과를 얻었다.<br/><br/>그동안 복강경 수술과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이 적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위암에서 로봇수술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복강경 수술보다 더 우월한지에 대한 논란에 서있었다.<br/><br/>송 교수팀은 로봇을 이용한 수술 시 췌장을 자극하는 회수가 복강경에 비해 더 적다는 점에서 췌장염 발생빈도가 더 작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환자들의 임상경과를 관찰했다.<br/><br/>위암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 가장 흔한 것은 췌장염이다. 췌장은 위의 등쪽에 위치하므로 수술 중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br/><br/>송 교수는“<span class='quot0'>그동안 다방면에 있어 로봇수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 위암 로봇수술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한 첫 시도였다</span>”고 밝혔다. <br/><br/>송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0'>암세포 특성상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재발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로봇 수술을 통해 좀 더 암 발생부위를 완전하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자 입장에선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피로도가 적으므로 장시간을 요하는 위암 수술에 적합하다</span>”고 덧붙였다. <br/><br/>한편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개념으로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면 의사가 원격으로 조종해 복강경 수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복강경 수술과 다른점은 3차원의 높은 해상도를 기반으로 환부를 10~15배 정도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는 수술용 카메라가 있어 좋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 움직임이 디지털화되므로 집도의의 미세한 손 떨림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br/><br/>장윤형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1.txt

제목: 2015년 호암상(湖巖賞) 수상자 발표. 부분별 상금 3억원  
날짜: 20150401  
기자: 노용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1100000158  
본문: 호암재단(이사장 손병두)은 1일 ‘2015년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천진우 박사(53·연세大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박사(57·美 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박사(57·서울大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58),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53) 등 5명이다.<br/><br/> 이들은 국내외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후보자로 추천 되어 국내외 저명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37명)의 면밀한 업적 검토와 국제적 명성의 해외 석학(30명)들로 구성된 자문단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수상자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노벨상 수상자 2명 등 해외 저명 석학 4명이 호암상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의 업적을 국제적 차원에서 검증했다.<br/><br/> 과학상 천진우 박사는 세계적 수준의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하고, 설계한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MRI 조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공학상 김창진 박사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로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미세유체의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 <br/><br/> 의학상 김성훈 박사는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aminoacyl-tRNA synthetase, ARS)가 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에 관여한다는 새로운 사실과 이 ARS들이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br/><br/> 예술상 김수자 작가는 ‘보따리’, ‘바늘여인’, ‘호흡’, ‘지수화풍’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하였으며, 뉴욕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이다.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오며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세계 각국 의료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내며 연간 20만 명을 치료하는 의료기반을 구축했다.<br/><br/>시상식은 6월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되며, 각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호암재단은 시상식 전후인 5월29일, 6월2일에는 국내 및 해외 연구자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호암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국제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호암포럼’을 개최한다.<br/><br/>노용택 기자 nyt@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2.txt

제목: 윤형빈 4년 만에 유암종 재발…“담배피우는 것 본 사람에게 500만원 주겠다” 공약  
날짜: 20150401  
기자: 최영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1100000112  
본문: 개그맨 윤형빈에게 4년 만에 다시 직장 유암종이 발견됐다.<br/><br/>1일 방영 예정인 KBS2TV '비타민'에서는 증상이 없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대장암’의 예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br/><br/>윤형빈은 2011년 KBS2TV ‘남자의 자격’에서 유암종이 발견돼 제거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따로 검사를 받거나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모두를 걱정시켰다고 전해진다.<br/><br/>방송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윤형빈은 또다시 큰 대장 용종과 직장 유암종이 발견돼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윤형빈에게서 발견된 용종은 톱니 모양으로 담배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실제 윤형빈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고발 영상이 전파를 타면서 MC와 출연자 모두 윤형빈에게 ‘금연’선언을 촉구했다.<br/><br/>이에 윤형빈은 “4년 전 직장 유암종 발견 당시엔 미혼이었고, 지금은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다.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오늘 당장부터는 어렵고. 4월 5일부터 정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내가 담배피우는 것을 본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br/><br/>윤형빈은 녹화가 끝난 후 검사 때 발견된 직장 유암종 제거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 방송은 4월 1일 오후 8시50분.<br/><b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3.txt

제목: 윤형빈 4년 만에 유암종 재발…“담배피우는 것 본 사람에게 500만원 주겠다” 공약  
날짜: 20150401  
기자: 최영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401100000091  
본문: 개그맨 윤형빈에게 4년 만에 다시 직장 유암종이 발견됐다.<br/><br/>1일 방영 예정인 KBS2TV '비타민'에서는 증상이 없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대장암’의 예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br/><br/>윤형빈은 2011년 KBS2TV ‘남자의 자격’에서 유암종이 발견돼 제거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따로 검사를 받거나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모두를 걱정시켰다고 전해진다.<br/><br/>방송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윤형빈은 또다시 큰 대장 용종과 직장 유암종이 발견돼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윤형빈에게서 발견된 용종은 톱니 모양으로 담배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실제 윤형빈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고발 영상이 전파를 타면서 MC와 출연자 모두 윤형빈에게 ‘금연’선언을 촉구했다.<br/><br/>이에 윤형빈은 “4년 전 직장 유암종 발견 당시엔 미혼이었고, 지금은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다.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오늘 당장부터는 어렵고. 4월 5일부터 정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내가 담배피우는 것을 본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br/><br/>윤형빈은 녹화가 끝난 후 검사 때 발견된 직장 유암종 제거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 방송은 4월 1일 오후 8시50분.<br/><b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4.txt

제목: 서울대병원, 폐암 조기 진단 클리닉 새로 개설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3110016791647  
본문: 서울대병원은 30일 폐암센터 호흡기내과에 저선량 흉부CT 검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암조기진단클리닉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br/><br/> 폐암은 세계 암 사망률 1위인 ‘나쁜 암’이다. 첫 진단 시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암에 비해 장기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 초기에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br/><br/> 폐암이 생기기 쉬운 고위험군은 하루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55세 이상인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폐암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해 매년 1회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br/><br/> 서울대병원 폐암조기진단클리닉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문을 연다. 환자 1명 당 진료시간을 10분 이상 최대한 확보해 폐암 검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폐암 진단 시 최상의 치료계획을 세워준다고 밝혔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5.txt

제목: [헬스 파일]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난소암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3110016791765  
본문: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40)가 최근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그녀는 2013년 2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아직은 멀쩡한 유방을 양쪽 다 잘라낸 바 있다. 이번 수술은 혈액검사 결과 난소암 발병 우려가 높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br/><br/> 앤젤리나 졸리는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주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데다 이미 어머니를 포함, 외할머니와 이모 등 3명의 가족을 암으로 잃은 상태다.<br/><br/> 난소암은 여성의 난소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발암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진단이 어렵다. 난소암 환자 10명 중 7명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진단이 곧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암이다. 하지만 소위 유전적 원인으로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필요로 하는 난소암은 약 5%에 불과하다.<br/><br/>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발암 유전자는 BRCA1과 BRCA2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나면 장차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말이다. BRCA1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은 70세까지 유방암과 난소암이 발생할 누적위험도는 각각 57%, 40%에 이른다. 또 BRCA2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은 70세까지 그 위험도가 각각 49%, 18%다.<br/><br/> 앤젤리나 졸리의 몸에선 이 두개의 유전자가 모두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멀쩡한 유방과 난소를 잘라내는 수술이 용인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r/><br/> 그렇다고 난소암이 생길까 두렵다고 멀쩡한 난소와 난관을 수술로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앤젤리나 졸리와 같은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결정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는 게 좋다.<br/><br/> 첫째, 난소난관절제술은 불임과 폐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난소암을 유발하는 BRCA1과 BRCA2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에겐 이 수술이 권장되지 않는다. 이땐 단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6개월마다 난소암의 발병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검진으로 대신해야 한다.<br/><br/> 둘째, 어쩔 수 없이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면 폐경기증후군을 겪기 쉽다. 따라서 폐경 증상 조절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치료는 원래 자연 폐경이 예상되는 50∼55세까지 계속해야 한다.<br/><br/><br/>박정열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⑦ 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 이민혁 교수팀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3110016791644  
본문: 유방암 수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유방절제술에서 유방보존술로,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절제술 후 즉시 재건술로 발전하고 있다.<br/><br/> 유방절제술은 암에 걸린 유방을 모두 잘라내는 수술법, 유방보존술은 눈에 보이는 암 조직만 들어내고 나머지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법을 가리킨다. 또 유방절제술 후 재건술이란 유방을 암과 함께 잘라낸 후 곧바로 본래의 유방 원형을 복원해주는 재건성형 수술법을 말한다.<br/><br/> 한국유방암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절제술은 2005년까지 유방외과 의사들에게 표준 수술법으로 통했지만 그 이듬해부터 유방보존술이 유방절제술보다 많이 시술되기 시작했다. 2012년 이후 국내에서 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 중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는 67%,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33% 정도. 유방보존술이 유방절제술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시술되는 셈이다.<br/><br/> 그러나 이 역시 최근 들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재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유방보존술보다 아예 암의 싹을 모두 없애는 유방절제술 후 즉시 유방재건성형수술을 통해 재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br/><br/> 2014년 미국암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유방절제술 후 즉시 유방재건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수가 과거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 동부지역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60∼70%가 곧바로 유방재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 이민혁(66) 교수팀은 유방암 수술의 최신 경향이랄 수 있는 유방절제술 후 즉시 유방재건 성형수술을 선도하고 있는 외과 의료진이다. 이 교수팀이 수술하는 유방암 환자 중 60%가 미국과 같이 유방절제술 후 즉시 유방재건 성형수술을 받고 있다. 이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가을 대한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때 보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br/><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은 종합건강검진 등의 영향으로 발암 초기에 조기 발견되는 유방암 환자가 많은데다 하루를 살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span>”고 강조했다.<br/><br/> 치료 패턴이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팀이 유방암 수술 시 치료는 기본이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의 상징인 유방의 미용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게 된 까닭이다.<br/><br/> 실제 이 교수팀은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고려한다. 기왕이면 재발 우려가 없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br/> 이렇듯 유방보존술보다 유방절제술이 다시 각광받게 된 데는 유방 전 절제 및 유방재건 성형수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이다.<br/><br/> 과거의 유방절제술은 유두, 유륜, 광범위한 유방피부 및 유선조직을 절제한 다음에 유방재건 성형수술을 시행했었다. 그러다보니 유방피부를 광범위하게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수술 흉터가 크게 남아 재건성형 수술을 한대도 반대편의 유방과 비슷하게 복원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br/><br/> 이에 따라 이 교수팀은 유방피부는 보존하고 유두와 유륜만 도려내 암세포로 오염된 유방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최신 수술법인 ‘피부보존 유방절제술’을 누구보다 먼저 도입했다. 이 방법은 유륜 부위에만 수술 흉터가 남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유두 및 유륜을 재건하기도 쉬운 이점이 있다.<br/><br/> 이 교수팀은 여기에다 유방피부는 물론 유두와 유륜까지 모두 보존하는 ‘유두보존 유방절제술’을 사용, 유방절제술 후 즉시 유방재건 성형수술을 시도함으로써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 반대편 유방과 거의 같은 모양의 유방을 갖도록 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br/><br/> 이 교수팀이 이끄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의 또 다른 경쟁력은 유전성 유방암과 관련해 연구 및 임상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br/><br/> 한 예로 이 교수팀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유방암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여성 유전성 유방암 발병 실태를 조사했다. 유전성 유방암이란 최근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해 화제가 된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두려워한 바로 그 암이다.<br/><br/> 이 교수팀은 한국인 유방암 생존자연구회를 결성해 이들 유방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향상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수술 후 통증과 같은 후기 합병증과 2차 암 발생 예방, 운동 및 영양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 성형술 연구도 새로 시작했다.<br/><br/>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고 유방 상실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4월부터 유방재건 성형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절제 수술 후 유방재건 성형수술 비용 부담은 종전 최대 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해주기 때문이다.<br/><br/><br/>☞ 이민혁 교수는 <br/><br/><br/>194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1968년 계성고교, 1975년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의대(1985∼1987년)와 조지타운대(1993년) 부속 병원에서 최신 유방암 치료법을 익혔다. 언제나 정갈하게 가운을 여미고 수줍은 웃음으로 환자를 맞이하기로 입소문이 나 있다. 이 교수는 일요일은 물론 명절 연휴에도 병실을 찾아 유방암 수술 환자들의 용태를 확인하는 게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 또 외래 진료실에선 전공의나 펠로우(전임의)에게 맡기지 않고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정보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는 습관이 있다. 혹시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게 있을까 염려돼서다. 6년 전 이 무렵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 워크숍에서 이사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다 치명적인 흉부대동맥파열로 쓰러졌다가 응급수술을 받고 기사회생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때 개흉술의 흔적으로 가슴 한복판에 10㎝ 이상의 긴 흉터가 남았다. 2007∼2009년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2008∼2010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및 회장을 역임했다. 2007년 유방암 관련 국제 학술대회인 GBCC의 초대 조직위원장과 대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의학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함인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 백운이 전 경북대병원장 등과 고교 동기동창이다. 술·담배는 거의 안 하고 매주 토·일요일 한강 둔치에서 1시간 이상 걷는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 정년퇴임 후에도 병원에 임상교수로 남아 계속 유방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이유다.<br/><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7.txt

제목: 암·심장병·뇌출혈도 그녀의 선교 비전 막지 못했다… 이광순 주안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이야기  
날짜: 2015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3010016777677  
본문: 소녀는 고향 경주에서 7세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다. 10세 되던 해,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다. 그러면서 신기한 체험을 한다. 자신의 다가올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간 것이다. 소녀는 ‘나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인생계획표를 작성한다. 그대로 실행했다. 결혼도 잊었다. 말기암과 심장병, 뇌출혈도 비전을 막지 못했다. 1985년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여성 최초로 박사(Ph.D.) 학위를 받고 장로회신학대(장신대) 선교학 교수, 주안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마칠 때까지 비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이광순(69) 전 총장 얘기다. <br/><br/>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만난 이 전 총장은 올 1월 18일 뇌출혈로 입원한 경험을 들려줬다. 여전도주일 설교를 마치기 직전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그는 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환자 30%는 이동 중에, 30%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임에도 그는 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완쾌됐다. 의사들은 기적이라 했다. 그는 뇌출혈 이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 24년 전 첫 심장마비를 겪은 뒤 줄곧 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했고, 말기암 수술을 받고서도 일어났다. <br/><br/> 이 전 총장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살려주신 것은 열 살 때 받았던 선교 비전을 끝까지 이루라는 사명이 아닌가 싶다.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진짜 비전(vision)을 주신다면 ‘프리비전(prevision·선견)’과 ‘프로비전(provision·공급)’을 주신다. 사람은 그저 ‘예’ 하며 따라가면 된다. <br/><br/> 이 전 총장의 인생 역정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이었다. 84년 미국 유학을 마치면서 그에겐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 선교사 500명을 훈련시켜 파송하고 신학교에 선교학과를 설치한다. 총회(예장 통합)에서 여성 안수를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10년 만에 모두 성취됐다. 세계선교훈련원을 세워 500여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켰고 장신대에 선교학과를 만들었다. 여성 안수는 94년 총회가 결의했다. <br/><br/>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2004년부터 선교전문대학원 설립을 타진했다. 선교 현지의 야전사령관 배출을 위한 선교 사관학교였다. 2011년 개교한 주안대학원대학교는 그렇게 시작됐다. 학교는 선교학 박사 배출이 최우선 목표였다. “교수 선교사 중에는 박사 학위가 없어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사 학위가 있으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인정합니다. 짱짱한 실력을 갖춘 선교사를 양성하자는 게 취지였어요.”<br/><br/> 주안대학원대학교는 그동안 55명의 석·박사를 배출했고 그중 9명이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생 중 40여명이 해외 선교사였고, 20년 넘게 활동한 시니어 선교사도 13명이나 됐다. <br/><br/> 이 전 총장은 사람 중심의 선교를 역설해왔다. 돈이나 건물을 앞세운 선교는 반대했다. 사람을 키우면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집짓고 예배당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고 훈련해야 합니다.”<br/><br/> 그는 2010년부터 ‘transnational(초국가적)’이란 말을 자주 써왔다. 당시 ‘TASU(Transnational Association School and University)’라는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라이트미션’도 설립했다. TASU는 초국가적으로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연결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선교와 훈련, 지도자 배출을 돕자는 것이다. <br/><br/> 이 전 총장은 신학계에서 맹렬한 여성 학자로 통했다. 선교학계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아 백방으로 뛰었다. 2010년 에든버러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5000쪽에 달하는 에든버러대회 연구총서를 번역, 출간했다. 국제로잔복음화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다. 지금은 한국로잔위원회 의장과 아시아로잔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br/><br/>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자기를 버려야 한다”며 대나무 얘기를 들려줬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어요. 꽉 찬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 부러지지 않습니다. 기울어지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대나무 같은 선교사, 대나무 같은 목사가 됩시다. 우리 모두.”<br/><br/>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8.txt

제목: “잡스는 인간미 넘치고 팀워크 중시했다” 새 자서전 ‘스티브 잡스 되기’ 미국서 출간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510016726148  
본문: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쳤던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색다른 모습을 그린 새 자서전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간됐다. 새 자서전에는 유머가 넘치고 팀워크를 중시한 인간미 넘치는 잡스의 모습이 그려졌다.<br/><br/> 미국 잡지 포춘의 편집장을 지낸 브렌트 쉘렌더가 전기작가 릭 테첼리와 같이 쓴 자서전의 제목은 ‘스티브 잡스 되기(Becoming Steve Jobs·사진)’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쉘렌더는 1998년 잡스의 오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5년간 잡스의 삶을 추적해 왔다. 쉘렌더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자서전을 쓰면서) 크게 놀란 것은 잡스가 매우 유쾌하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술회했다.<br/><br/> 무엇보다 자서전의 출간을 반긴 것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비롯한 일명 ‘스티브 잡스’ 사단이다. 최근 쿡은 지난 2011년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직후 월터 아이작슨이 쓴 자서전 ‘스티브 잡스’를 두고 “<span class='quot0'>잡스의 모습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span>”고 비판하는 동시에 새 자서전이 잡스의 진정한 면모를 담아냈다고 평가했다.<br/><br/> 애플의 산업디자인부문 부사장 조너선 아이브와 소프트웨어 담당 CEO 에디 큐도 트위터 등을 통해 새로 나올 자서전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2011년 자서전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br/><br/> 이처럼 호평 속에 출간된 새 자서전에는 잡스가 멋진 팀워크를 이뤄 하나의 전설로 남은 밴드 비틀스에 비견될 만큼 팀워크를 중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암으로 투병 중인 잡스에게 쿡이 자신의 건강한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일화도 소개됐다. 잡스는 2003년 말부터 병을 앓기 시작해 2009년에는 복부에 물이 차는 증상을 보였다. 마침 잡스와 혈액형이 일치한 쿡이 먼저 간 이식을 제안했지만 잡스는 자신 때문에 쿡에게 수술을 받게 할 수는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br/><br/> 쿡은 “잡스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제안을 거절했겠느냐”며 잡스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후 잡스는 2009년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지만 2년 뒤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br/><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8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⑥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 조석구 교수팀] 세포치료, 환자 맞춤형 미래 의학 선도  
날짜: 2015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410016712057  
본문: “세포치료분야는 맞춤형 의료의 대표적 영역입니다. 신약개발이 뒤쳐진 우리나라로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치료기술입니다.”<br/><br/>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는 세포치료를 이렇게 정의했다. 조 교수는 서울성모병원이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진료형 세포치료센터 센터장이다.<br/><br/> 그는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수립부터 세포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까지 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세포치료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br/><br/>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양, 자가면역질환, 장기부전, 조직손상유발 질환 등은 여전히 미제의 영역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엽 줄기세포뿐 아니라 조직, 재생의료, 종양면역 난치성 질환 치료에 이르기까지 세포치료를 광범위하게 시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포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지위를 선점해 세포치료를 중심으로 한 환자 맞춤형 미래의학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br/><br/> ◇림프종, 간경변, 췌도이식, 크론병 등 7개 분야 진료=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모두 7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혈액내과 조 교수팀이 주도하는 ‘림프종 면역세포치료’를 비롯해 성형외과 이종원 교수팀의 ‘창상세포치료클리닉’, 소화기내과 배시현 교수팀의 ‘간경변증 줄기세포 치료’, 내분비내과 양혜경 교수팀의 ‘췌도이식세포 치료’, 순환기내과 박훈준 교수팀의 ‘심근경색증 줄기세포 치료’, 재활의학과 고영진 교수팀의 ‘상과염(테니스엘보)과 족저근막염의 세포치료’, 대장항문외과 강원경 교수팀의 ‘크론병의 세포치료’ 등이다.<br/><br/> 순환기내과 박 교수팀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과립구집락자극인자‘에 의해 동원된 골수유래 말초혈액 CD34+ 줄기세포 치료술’을 개발했다. 이 치료술은 허혈성 심장혈관 질환, 특히 급성심근경색증과 심부전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br/><br/> 재활의학과 고 교수팀은 ‘내·외측 상과염과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치료술’을 시도한다, 이 시술은 창상 치유 조절인자가 많이 포함된 PRP를 자신의 혈액에서 분리 농축해 손상된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소염 진통 효과는 물론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치료법이다.<br/><br/> ◇임상시험·최소조작 세포치료제 진료도=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앞으로 관절염으로 손상된 연골재생에 쓰이는 세포치료제 ‘카티스템’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을 승인한 세포치료제는 물론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와 최소조작 세포치료제도 과감하게 진료에 이용할 계획이다.<br/><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좋은 세포치료제를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상용화해 임상진료에 도입할 경우 세포치료를 원하는 해외 난치병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는 효과가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이 분야 선도국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각국 사정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세포치료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세포를 치료와 진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먹는 약이나 주사약 같은 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품 개발과정과 똑같은 시설기준과 절차에 따라 품목별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br/><br/>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국내 다른 어떤 병원보다 먼저 세포치료에 관심을 갖고 고순도 정제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임상연구와 치료에 적합한 세포를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세포생산시설과 우수의약품제조 및 시설기준(GMP) 등급의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생산하고 분양하는 능력을 구비했다.<br/><br/> 유관 협력기관으로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조혈모세포은행 및 제대혈은행 등을 보유한 것도 다른 병원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점이다.<br/><br/>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는 안락사, 낙태 등 죽음의 문화가 드리워진 가운데 생명이나 진배없는 배아를 의학연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배격한다. 이 센터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임상 적용에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br/><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세포치료를 수행하면서 난자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어떤 연구도 수행하지 않는 등 인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겠다</span>”고 다짐했다.<br/><br/>☞조석구 세포치료센터장은 <br/><br/><br/>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 서울고교, 1988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도쿄생화학회 장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쿄대 의대에서 2002년까지 유전자요법 및 암백신 제작기술을 배웠다.<br/><br/> 조 교수는 특히 이 시기 진행성 콩팥 암 환자를 위한 유전자 변형 암백신을 개발, 특허까지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콩팥 암이 흔한 암이 아니라서 그런지 관심을 보이는 제약사가 없어 끝내 상업화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span>”고 털어놨다. <br/><br/>조교수는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줄기세포 관련 중개중점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금까지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로 발표한 연구논문 50여편을 포함 100여편의 연구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중 가장 자부심을 갖는 연구는 엡스타인 바(EB)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 발생 연구다. EB바이러스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수두바이러스와 같이 환자의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신장이나 간이식 등 장기이식 후 면역이 떨어졌을 때 활동을 재개하며 림프종을 일으킨다. <br/><br/> 지금도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이 많은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동시에 투여해 난치병을 극복하는 ‘병용세포치료’ 개념을 세계적으로 임상 진료에 가장 먼저 도입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0.txt

제목: [기획] ‘호스피스 사회’ 아직 먼 길… 말기 암환자 보호자들 조사로 본 현주소  
날짜: 2015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410016712047  
본문: “만약 어머님이 또 그렇게 된다면….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라 어렵습니다’ 하면 바로 모시고 나올 것 같아요. 암병동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서둘러 호스피스로 갈 겁니다.”(호스피스병동에서 부모를 임종한 자녀)<br/><br/> 행복한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호스피스병동에서 부모를 임종한 자식들의 소회를 기록한 보고서(‘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가 23일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호스피스병동과 일반 암병동에 말기 암 가족을 입원시킨 보호자 250명(각 12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호스피스병동 보호자 93.6%(117명)는 “(이런 상황이 다시 닥치면) 호스피스를 택하겠다”고 답했다.<br/><br/> 연구진은 호스피스병동에서 부모를 떠나보낸 자녀 4명의 심층 인터뷰도 보고서에 담았다. 네 사람은 각각 폐암 피부암 대장암 신장암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잃었다. 이들은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span class='quot0'>병상을 늘리고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span>”며 개선점도 지적했다.<br/><br/>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심층 인터뷰 가운데 각자 ‘임종 경험’을 소개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한 응답자는 “○○병원에서 임종실이 어떤 공간보다 좋았다”고 했다.<br/><br/> “세면대와 소파가 있고, 가정집 침실처럼 꾸며놨어요. 어머님 종교에 맞는 음악을 계속 틀어주시고요. 임종실에서 3∼4시간 있다가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분이 이때가 딱 넘어가시는 단계니까 가족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울고 끝냈을 텐데,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br/><br/> 다른 응답자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했다. “<span class='quot0'>가족들도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아버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span>”<br/><br/> 연구진은 호스피스병동 보호자 125명에게 ‘(호스피스가) 환자 및 보호자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주는가’고 물었다. 76.8%가 ‘그렇다’고 답했다.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해주는가’에도 80.0%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 암병동 환자의 보호자 125명은 두 질문에 각각 56.0%와 56.8%만 ‘그렇다’고 답했다.<br/><br/> ◇법적 요건 못 갖춘 호스피스도 상당수=모든 보호자가 호스피스에서의 임종 경험에 만족한 것은 아니다. 한 응답자는 사별의식 같은 건 없었다고 했다. “임종실이 아니고 그냥 입원실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가족만 오라고, 그 얘기만 해줬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br/><br/> 환자 사망 후 시신 처리가 보기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br/><br/> “아버지가 계신 옆방에서 곡소리가 나더니 조금 이따가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병원 이름 적힌 하얀 천으로 덮고 안전벨트처럼 넙적한 플라스틱끈으로 묶어 끌고 내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숨을 쉬던 분인데 저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br/><br/> 임종 기억이 극과 극인 이유는 법적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호스피스 시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56곳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12곳은 5인실에 남녀 환자를 함께 입원시키거나 가족실·목욕실·상담실을 호스피스병동 밖에 설치하는 등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br/><br/> 환자 2명당 1명씩 전담 간호사를 배치토록 한 규정을 안 지킨 곳도 여럿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기관’은 4분의 1인 14곳에 불과했다. 병상이 적고 대기시간이 긴 점은 고질적 불만사항이다. 현재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적으로 939개에 불과하다. 10개 이하의 병상을 갖추고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는 시설도 9곳이나 된다.<br/><br/>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도 상존=연구진은 일반 암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의 보호자 4명도 심층 인터뷰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한 보호자는 ‘환자가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br/><br/> “<span class='quot0'>환자가 거기 있다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은 생을 사는데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span>”<br/><br/> “<span class='quot0'>호스피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식이 다섯이나 되니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자고 했어요.</span>”<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아직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호스피스=죽음’으로 받아들여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환자를 호스피스로 옮겼더니 불안감이 커져 증세가 악화됐다’는 경험담이 있다. 끝까지 치료하는 게 자식의 도리이고 효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br/><br/> 호스피스병동에서는 호전될 가망이 없는 병을 치료하기보다 주로 통증을 완화하는 처치를 한다.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음악·미술 활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br/><br/> “대학병원에서는 모르핀 투여할 때 기본이 5라고 하면 3까지만 (주사를) 놔줬대요. 그런데 여기(호스피스)는 아프다며 5까지 놔달라고 하면 무조건 놔주는 걸로 (약속을) 했죠.”<br/><br/> ◇7월부터 건보 적용되지만…=지금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돈이 많이 들었다. 한 보호자는 “2인실을 이용했더니 하루 50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경제적 부담은 줄어든다.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통증 관리와 상담 서비스도 계속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7월부터 건보 적용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br/><br/> 호스피스를 이용해본 보호자들은 병실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6인실로 갑니다. 거기서 (보호자가) 잠자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까 일반 병실과는 다른 체계로 가야 할 것 같아요.”<br/><br/>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순 연구위원은 “현재 호스피스는 암관리법에서 다뤄 말기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말기 질환자로 확대하려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가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1.txt

제목: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1000원 밥상’… 십시일반 온정으로 다시 데운다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310016698869  
본문: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신념을 받들겠습니다. 밥값 1000원은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 말고 떳떳이 숟가락을 들라는 할머니의 배려입니다.”<br/><br/> 광주 대인시장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짜리 백반을 팔아온 고 김선자(73)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 할머니는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던 지난 18일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는 한 식당 문을 닫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br/><br/> 김 할머니가 떠난 뒤 장례식장에 모인 2남4녀의 유족과 대인시장 상인들은 각박한 세상에 온기를 전하던 ‘따뜻한 밥상’을 계속 차리기로 했다. 홍정희(65·여) 상인회장 등은 십시일반 식당 운영자금을 모아 김 할머니의 1000원짜리 백반을 계속 팔기로 했다. 끼니걱정을 하는 이들에게 김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구수한 된장국에 나물 반찬 3∼4개가 딸린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기로 한 것이다. <br/><br/> 홍 회장은 “김 할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난 당신이 있으니까 천원 밥집 믿고 가. 없는 사람들 배불리 먹게끔 해줄 줄 알고...’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배고픔을 덜 수 있는 식당이 김 할머니의 유산으로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br/><br/> 김 할머니가 광주 도심 대인시장 골목에 89㎡(27평) 규모의 식당 문을 연 것은 2010년 8월이다. 당초 죽 집을 운영하려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쌀밥과 국 또는 찌게, 3∼4가지 반찬을 파는 ‘해뜨는 식당’을 개업했다. 젊은 시절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 수년간 고생하면서 돈 없고 배고픈 설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깔려 있었다. <br/><br/> 식당이 문을 열자 채소를 팔러 시장에 나온 노점상과 주머니가 가벼운 일용직 근로자 등이 단골손님이 됐다. 소박하지만 할머니의 맛깔스런 손맛과 정성이 버무려진 ‘행복한 밥상’을 1000원이면 언제든 받아들 수 있었다. 손님이 늘수록 적자폭도 커져 김 할머니는 한 달 평균 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내가 차린 밥상으로 누군가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며 오히려 즐거워했다.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도 모아 부족한 식당 운영비로 보탰다.<br/><br/> 김 할머니가 2012년 5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게 되자 식당은 한동안 문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대인시장 이웃 상인들과 시민, 지역기업의 도움으로 식당은 이듬해 기적처럼 다시 문을 열었다. 반찬값에 보태라며 몇 만원을 식탁에 몰래 놓고 가거나 쌀 포대와 함께 김치를 담가온 시민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일 가족장으로 광주 시립공원에 안장됐지만 암 투병 중에도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뜻은 다행히 명맥을 잇게 됐다.<br/><br/>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례적으로 ‘김선자 할머니 타계에 부쳐’라는 애도성명을 발표했다.<br/><br/> 윤 시장은 “<span class='quot0'>할머니께서는 낮은 곳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셨다</span>”며 “<span class='quot0'>1000원 밥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요, 가장 배부른 밥상일 것</span>”이라고 회고했다.<br/><br/>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2.txt

제목: ‘대장암 씨앗’ 선종성 용종 환자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 왜…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310016698684  
본문: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선종성 용종’ 환자가 최근 5년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용종 발견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환자 중에는 50, 6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종성 용종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8년 6만7742명에서 2013년 12만9995명으로 1.9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진료환자 가운데 남성은 8만2685명, 여성은 4만7310명으로 남성이 1.8배 더 많다. <br/><br/> 남녀 모두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이어 60대, 40대 순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환자가 더 많았다. 2013년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은 329명, 여성은 188명에게서 용종이 발견됐다.<br/><br/> 용종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대장 내시경 검사다. 별 증상이 없어도 내시경 검사를 받는 중·장년이 증가하면서 용종 발견도 늘었다. 육류 섭취가 많아진 서구화된 식생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br/><br/>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는 “<span class='quot0'>40대 이후 정기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해주면 대장암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또 “국가 건강검진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별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br/><br/> 선종성 용종의 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종이 암으로 발전돼 증상을 보일 때까지는 5∼10년이 걸린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3.txt

제목: [최의헌의 성서 청진기] 무감각의 병  
날짜: 2015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110016689671  
본문: 한센병은 이 병의 원인균인 나균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병명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병명으로 붙이는 것은 구시대적 방식이며 지금은 병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지 않는 편이다. 한센병은 영어로 Leprosy이며, 병명에 사람 이름이 없다. 나균의 학명 Leprae와 흡사하다. 그렇게 맞추자면 우리도 나균에 상응하는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새로 채택한 이유는 바로 병 자체에 대한 심히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이다. 병명이라도 바꾸어서 심하게 왜곡된 견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함이다. 정신질환의 경우도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너무 심해 조현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채택하고 있다.<br/><br/> 이렇듯 이름만으로도 소외의 대상이 되는 병이었는데 그 이유는 끔찍하게 느껴지는 신체의 변형 때문이기도 하고 전염될 수 있기도 하여서다. 레위기에 의하면 한센병으로 판정될 경우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며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레 13:45∼46). 이제는 균이 규명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었으니 적극적인 치료로 전염을 막고 신체 변형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엔 저주받은 병이라는 인식에서 못 벗어난 채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자신은 그 병으로 희생이 되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br/><br/> 사람들이 다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서는 하나님이 작성하신 것이니까 시대를 초월한다고 생각한다. 의미로는 맞지만 실제 글 자체로는 아니다. 성서는 작성 당시의 상식 수준에서 기록되어 있지 시대를 초월하여 그 시대에서 터득하지 못한 과학적 지식이 담겨 있지는 않다. 지구 생성, 지동설, 여러 질환의 이해 등등이 그러한 예다. 한센병에 대한 접근을 레위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당연히 안 되며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지식에 맞추어 적절한 의료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질환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서적 접근이라면서 정신질환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br/><br/> 그런데 한센병의 병적 특성을 알아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다. 한센병이 오명을 가진 것은 신체의 변형이 주요한 이유인데 사실 한센병은 암처럼 스스로 피부, 근육 혹은 뼈를 파괴시키는 병이 아니다. 한센병은 인간의 감각세포를 파괴한다. 그래서 어디 부딪혀도 모르니까 신체가 점차 닳아 없어지는 것이다.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도 비슷한데, 에이즈균이 맹독성이 있어서 인간을 파괴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균이 우리의 면역기능을 마비시켜 다른 여러 감염 질환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죽게 되는 것이다.<br/><br/> 무감각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감각은 예민해도 문제지만 너무 무디어도 문제다. 신체 감각과 심리 감각 둘 다 마찬가지다. 신체 감각이 무딘 하나의 예로 술이 센 사람을 들 수 있다. 술에 강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당히 취하려면 남보다 많은 양의 술을 먹어야 하니 그만큼 술에 의한 피해를 더 보는 것이다. 심리 감각이 무딘 하나의 예로 죄에 무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딤전 4:2)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술에 센 사람과 죄에 무딘 사람은 차라리 레위기 시절로 돌아가 “나 사실 이런 문제가 있소. 그러니 나를 가까이하지 마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생각을 해본다. <br/><br/>최의헌<연세로뎀정신과의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4.txt

제목: ‘코어라이프 소스’ 김수홍 박사, 치매 예방 물질 ‘커큐미노이드’ 세계 첫 발견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2010016679172  
본문: 미국 한인과학자 데릭 김(Darrick Kim ·한국명 김수홍·55·사진) 박사가 연구, 개발한 암관련 OH 프로그램과 치매 관련 제품이 최근 한국 식약청 검사를 통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되면서 이 분야 환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br/><br/>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미국에서 코어라이프 소스(corelifesource)란 회사를 윤영하는 그는 미국 남가주 얼바인 대학(UC-Irvine) 및 대학원(Ph.D)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UIC) 약대교수를 역임했다.<br/><br/>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제 물질 및 제조공정에 관한 미국 특허(14건 획득, 12건 출원 중)를 갖고 있는 김 박사는 투머릭에서 뇌신경세포 관련 연구내용을 국제학술지에 30여편이나 발표한 바 있다.<br/><br/> 김 박사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75년 도미, 생물학과 화학과 등 의예과를 거친 ‘암 전문의’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화학과 교수가 ‘의사는 평생 수 천 명의 환자만 다룰 수 있지만, 암을 정복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면 수 억 명의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치료제 연구로 방향을 틀게 됐다.<br/><br/> 1992년 초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얻었지만, 제약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용화될 수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그 때, 새로운 연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br/><br/> “갑자기 ‘치매’에 대해 연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 예방 치료제 연구를 기초로 연구해 왔던 물질들을 토대로 치매 예방치료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떠오르는 대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죠.”<br/><br/> 건강정보가 넘쳐 나는 이 시대에 결국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 명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라 할 수 있다는 김 박사는 자연약초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다스리는 물질 ‘커큐미노이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최근 카레가 건강에 좋다는 모든 연구결과들은 김 박사 연구가 시초가 됐다.<br/><br/> 그가 발견한 치료제의 임상실험 첫 대상자는 목회자인 아버지였다. 초기 치매 증세로 정년보다 일찍 목회에서 은퇴한 아버지에게 현재 치매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 ‘아미넥스1’의 성분을 조제해 드린 결과 현재 85세인데도 다시 목회하시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건강해 지셨다. 김 박사는 아버지한테 나타난 효과 하나만으로도 연구한 보람이 크다. <br/><br/> 김 박사는 치매치료제 개발과 함께 암을 다스리는 1:1 개인별 맞춤형 OHP (Optimum Health Program )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따라서 필요한 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암을 다스릴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 건강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김 박사는 오는 26일부터 4월12일까지 한국을 방문, 방송출연과 건강세미나를 인도한다.<br/><br/> 김 박사는 건망증 및 치매 치료 효능성분과 제조공법으로 4개의 미국 특허를 획득한 건강보조식품 아미넥스 (AmyNex)와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알파실(Alpha-Xyl)을 상용화한 바 있다. <br/><br/> 연구가 아무리 바빠도 최고 우선 가치를 교회활동에 두고 살아온 김 박사는 “<span class='quot0'>하나님께서 연구 열매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사업영역이 커지면 그동안 기도해온 선교비전이 구체화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김 박사는 교회초청 건강세미나도 시간이 허락하면 언제나 응하고 있다. 건강세미나 신청과 제품관련 문의는 코어라이프소스코리아(대표 장흥복 장로)로 하면 된다(0505-550-4000,010-7172-4440·corelifesource.com).<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5.txt

제목: 가천대 길병원 호스피스강좌 수강생 모집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899  
본문: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봉사하게 될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과정 수강생 60명을 23일까지 선착순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25∼27일, 3일간 뇌과학연구원 5층 강의실에서 매일 오후 12시30분부터 5시까지 4시간30분씩 진행된다. 강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사별가족지지와 돌봄, 말기환자의 의사소통(25일), 말기 암 환자의 신체적 돌봄, 암이란 무엇인가, 말기 암 환자의 영양관리, 자원봉사자의 역할(26일), 말기 암 환자의 심리적 돌봄, 향기요법과 림프마사지, 선배의 조언(27일)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6.txt

제목: [올해 과학기술 10대 트렌드] 첨단기기 싫어… ‘안티테크’ 뜬다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957  
본문: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안티테크(anti-tech)’ 현상이 올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이언스’ ‘네이처’ 등 과학 학술지의 예측을 바탕으로 선정한 ‘2015년 국내외 과학기술 10대 트렌드’를 16일 과학기술정책 최신호에서 소개했다.<br/><br/>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률이 2013년 65%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으며, 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갈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하이테크 기기와 인터넷의 홍수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안티테크를 넘어 ‘네오 러다이트’(새로운 기계파괴 운동)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br/><br/> 생명과학계는 암 극복을 위한 연구 성과를 활발히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방사선, 표적약물 등 다양한 면역요법을 혼합한 ‘결합면역요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이언스는 암 면역요법을 2013년의 획기적 발견으로 선정했었다. 발암 유전자로 알려진 ‘미크(Myc) 유전자’ 한 쌍 중 하나를 제거해 쥐의 수명을 연장한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의 지난 1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서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은 에볼라는 6월쯤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br/><br/> 우주과학 분야에선 지난해가 ‘혜성의 해’였다면 올해는 ‘왜소행성의 해’가 될 전망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무인우주탐사선 돈(Dawn)은 최근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원시행성 ‘세레스’의 궤도에 도착했다. 7월에는 나사의 다른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가 50억㎞를 이동해 명왕성에 근접할 예정이다.<br/><br/> 올해는 탄생 100주년을 맞는 상대성이론의 재조명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상대성이론은 현대 우주이론의 토대를 제공했지만 완벽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초끈이론, 고리양자중력이론 등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스마트 기기는 ‘가상현실용 헤드셋’ ‘헬스케어용 헤드셋’ 등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음악 감상을 통해 뇌가 휴식을 취하게 하는 제품도 9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br/><br/> 국내에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재난 대응에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7.txt

제목: [뉴스파일] 생활정보 21종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909  
본문: 행정자치부는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 21종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17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조세·사회보험 미환급금, 경찰청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등 6종이었으나 이번에 예비군훈련일, 암검진, 재산세, 국민연금예상액 등 건강, 병역, 세금, 연금 분야 18종이 추가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8.txt

제목: 연세대 신인재 교수팀, 암세포 자살 유도 항암물질 개발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438  
본문: 연세대 화학과 신인재 교수팀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물질을 개발했다.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는 신 교수팀이 암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열충격단백질70(HSP70)’의 작용을 막아 암세포를 죽게 하는 물질 ‘아폽토졸’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열 충격 등 외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세포가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HSP70은 암세포의 항암제 내성을 강하게 만들어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암세포에서 HSP70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지금껏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br/><br/> 아폽토졸을 암세포 이식 생쥐에게 투여하는 실험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 피부에 사람의 폐암, 결장암, 자궁경부암 세포 조직을 이식한 생쥐에게 이틀에 한 번씩 2주간 아폽토졸(4㎎/㎏)을 투여했더니 암 조직의 크기가 폐암은 61%, 결장암 65%, 자궁경부암은 68% 감소했다. 연구결과는 화학·생물학저널 ‘케미스트리 앤드 바이올로지(Chemistry&Biology)’ 13일자에 실렸다.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099.txt

제목: 고려대안산병원 신철 교수팀, 수면무호흡 노화 앞당긴다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710016615888  
본문: 수면무호흡을 방치하면 잠을 제대로 못 이뤄 급(急) 노화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면무호흡은 잠을 자는 동안 자주 깨는 ‘분절수면’과 같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br/><br/> 고려대안산병원은 수면장애센터 신철(사진) 교수와 인간유전체연구소 권유미 박사 연구팀이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할수록 염색체의 양끝 말단부분(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br/><br/> 신 교수팀은 국내 45∼72세 381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추출한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와 수면 중 호흡 및 심장박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br/><br/> 텔로미어는 ‘인체 내 노화시계’로 불린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유전적 영향 외에 활성산소나 염증 반응에 의해 줄어든다. 이렇게 짧아진 텔로미어는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br/><br/> 연구결과 수면무호흡이 1시간에 15회 이상 나타나는 중증도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정상 수면을 하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절 수면이 많아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텔로미어의 길이도 짧아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br/><br/> 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이 있을 때 체내에 생기는 유해산소가 염증 반응을 통해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속될 때는 수면장애를 의심해 즉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연구결과는 수면무호흡 관련 국제 학술지 ‘슬립 앤드 브리씽(Sleep and Breathing)’ 최신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0.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항암치료가 두렵고 고민되십니까? 주치의 믿는 것이 암 극복 첫걸음입니다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149  
본문: “항암치료가 두렵고, 먹는 것이 고민이라면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주치의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암환자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치료 전략을 세웁니다.”<br/><br/>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종양내과 김효송 교수는 인터뷰 내내 의료진과 암환자 사이의 신뢰를 강조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최선의 치료가 가능하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br/><br/> “기억의 남는 환자 중 75세 고령의 진행성 위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단 당시 무척 고령인데다 위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섣불리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항암치료를 권했는데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진의 치료방법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줬습니다. 몸에 좋다는 특정 음식이나 대체요법에 빠지지 않고 의료진의 결정을 믿고 따라준 고마운 환자입니다.”<br/><br/> 종양내과인 김효송 교수는 의외로 항암치료에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며 두려울수록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강조했다.<br/><br/> 김 교수는 “항암치료를 두려운 존재로 보는 암환자들이 많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겁내할수록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요법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요법 하느라 치료시기를 놓치면 현대의학으로는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져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의료진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가령 부작용을 일으키는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구토와 구심 등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 똑같은 항암제이지만 알약보다 주사제로 주입할 때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따라 알약으로 항암제를 처방할지 주사제로 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br/><br/> 위암은 치료성적이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암환자들은 쉽게 절망하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김효송 교수는 “낙담하긴 이르다”며 “<span class='quot0'>암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span>”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행성 위암이라도 선행화학요법을 통해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위암은 맞춤치료가 활발한 분야다. 똑같은 위암 환자라 해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고 가장 효과적인 약제와 치료방법을 찾는다. 특히 위암의 유전자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신약 개발도 순조롭다.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르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공동의 적인 위암과 맞서 나가자”고 말했다.<br/><br/> 한편 상당수의 위암환자가 조기포만감이나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연하곤란을 경험한다.<br/><br/> 이에 김효송 교수는 영양불량 상태에 빠지기 쉬운 위암환자들이 특정 음식을 고집하지 말고 병원 내 영양사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br/><br/> 김 교수는 “암을 낫게 하는 음식은 없다. 보호자들은 암 치료방법에 대한 질문보다 음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충분한 영양공급을 1순위에 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암이 자라면서 자연히 식사량이 줄게 돼 영양상태가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보호자는 병원에서 열리는 건강강좌나 영양상담을 통해 암환자가 잘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짜볼 수 있다. 또 방사선과 항암 치료 중 입맛이 없어진다면 식욕을 촉진하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r/><br/> 위암 환자는 완치 후에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소화 불량 등의 합병증을 경험한다. 김효송 교수는 이때 재발을 염두에 둔 식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위암 환자는 치료 도중에는 영양불량과 체력악화를 막기 위해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사법에 주력해야한다. 반면 완치한 위암 환자는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식을 해야 한다. 드물지만 수술한지 한참 지나서도 극단적인 식습관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다.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1.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현실 받아들이며 스스로 마음 다스려야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225  
본문: 암환자 치료 과정 중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항암화학요법 치료이다. 이는 암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br/><br/>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환자는 우울해지기 쉽다. 암 치료 자체에 대한 불안감, 삶이 바뀌는 것의 낯섦,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다.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면 치료 스케줄에 따라 일과를 변경해야 하고, 약제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힘이 들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환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시 환자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기 전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다른 환자, 종교인 등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걱정을 덜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br/><br/> 심리를 안정시키는 여러 방법들 중 ‘자신이 병에 걸렸으며 치료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불안감에 휘둘리면 병의 치유가 어려워진다.<br/><br/> 두 번째 방법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과정에서 일지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날그날 있었던 일이나 떠오른 상념과 의문을 기록해 두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문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br/><br/>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덜 받도록 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br/><br/> 네 번째로 의식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서 몸 상태가 나아졌을 때 할 일들을 계획하는 것도 추천된다.<br/><br/> 다섯 번째 ‘가능한 대로 운동’을 한다.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긴장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고 식욕 증진에도 좋다.<br/><br/> 마지막으로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마음을 가다듬는 데 좋다.<br/><br/> 암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 과정에서 긴장을 푸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암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완법’은 몸의 긴장을 풀어 편안하게 하면 불안한 마음을 줄여준다.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헐렁한 옷을 입고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편한 자세로(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지 말고) 특정 사물을 계속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평화로운 장면을 생각하며 1∼2분 동안 호흡에 집중한다. 다음으로 ‘긴장이완술’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숨쉴 때 어느 부분의 근육을 긴장시킨다.<br/><br/> 예를 들어 눈을 꼭 감거나, 찡그리거나, 이를 악물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다. 숨을 멈추고 1∼2초 동안 근육에 힘을 꽉 주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푼다. 몸의 힘이 빠지면서 긴장 또한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br/><br/> 또한 ‘기분전환’ 방법은 마음의 걱정이나 통증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경우이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기분전환 방식이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뜨개질, 모형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책에 몰입하는 것도 잠시 근심을 잊는 좋은 방법이다.<br/><br/> 암환자 가족들의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 이럴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환자와 같이 있어 줘야 한다. 환자의 상황과 감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줘야 한다. 환자의 생각과 기분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는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 <br/><br/>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하대병원 다학제 암 치료시스템 정착 환자 신뢰도 한 차원 높였다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282  
본문: 지난해 9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은 A(36·여)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사실이 무섭고 두려워 병원을 찾아 않았다. 하지만 한 달 후 유방종괴가 커지고 출혈이 심해져 정상인 헤모글리빈 수치의 4분의 1인 3.0 상태에서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종괴 사이즈는 30㎝를 훌쩍 넘었고 출혈이 심해 폐혈전증까지 동반된 상태였다.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와 유방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유방암 다학제 통합진료팀은 수술전 항암치료 와 항응고제를 사용해 종괴를 줄인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수술 결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의료진과 함께 암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br/><br/> 이처럼 암 치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최근 '다학제 암 진료시스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학제 암진료시스템은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어려운 사례의 암환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치료를 결정하는 장점이 있다. 인천지역 최초로 다학제 암 통합진료를 도입한 인하대병원은 퇴원환자들에게 수술 후 정기적인 환자 맞춤형 다학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간호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외래와 입원, 퇴원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다학제 암 통합프로그램이 암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br/><br/><br/>◇최고의 의료진이 펼치는 암 극복 오케스트라=다학제 암 통합진료는 환자가 4∼5개의 세부 전문의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설명하는 새로운 진료시스템이다. 이문희(사진)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암을 두려워하는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료가 다학제 암통합진료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인하대병원 등 소수의 의료기관만이 다학제 통합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하대병원은 대장·위·식도·담도·췌장암 등 소화기암과 유방암, 갑상선암, 비뇨기과적 암, 부인과 암, 뇌암 분야에서 다학제 암 통합진료팀을 운영하고 있다.<br/><br/> 지난해 8월 정부가 다학제 암 통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발표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다학제진료에 나서고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인하대병원은 1996년 개원초기부터 쌓아온 의료진들의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미 3년전부터 다학제 진료를 시행해 왔고, 많은 진료 노하우와 암 치료 성공 환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안정화된 진료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환자 치료만족 위해 최선 다해=다학제 통합진료는 병원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를 경험한 환자 측면에서 치료의 결과가 더 향상되고 치료 만족도 또한 높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인하대병원은 다양한 암환자 치료 경험을 축적하고, 많은 의료진이 함께해 더 완성도 높은 치료만족도를 위해 노력하다는 계획이다. 이문희 교수는 같은 암이라도 체력, 나이,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다학제 암 통합진료가 환자 최적의 치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 이 교수는 “암 환자들은 한명의 의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인하대병원은 암환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다학제 통합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진과 함께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좋은 치료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3.txt

제목: [암과의 동행] 3∼4기 진행돼서야 진단 받아… 고신대복음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승현 교수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378  
본문: 대장암 환자 4명 중 1명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퍼진 ‘전이성 대장암’ 환자다. 전이성 대장암은 보통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되는 대장암 3기와 4기를 말한다.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3기와 4기가 돼서 암을 진단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br/><br/> 대장암 3기는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4기는 간, 폐, 뼈 등의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장암 3기 생존율은 28%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대장암 4기는 생존율이 6%로 3기 생존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전이성 대장암은 수술이 어렵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주로 하게 된다. <br/><br/> 최근에는 획기적인 표적치료제가 개발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암이 전이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맞춰 치료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승현 고신대복음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를 만나 ‘전이성 대장암의 항암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br/><br/> 전이성 대장암은 0에서 3으로 치료의 단계를 나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이성대장암 0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용하면 최적의 조건을 거두는 단계다. 하지만 암이 전이된 3단계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나, 항암치료를 통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다. <br/><br/> 보통 전이성 대장암의 4기 환자 중에는 여명을 선고 받아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전이성 암 4기라고 진단 받으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최근에는 수술법이 진보하고, 획기적인 표적 항암제들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높아졌다</span>”고 말했다. <br/><br/> 보통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하면 말기암에 해당돼 생존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한다. 하지만 의사와 적극 협조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치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실제 55세의 전이성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은 암이 간까지 전이됐다. 하지만 환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항암치료를 적극 수행한 결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br/><br/>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병용하는 다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인다. 최근에는 항암요법 시에 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표적항암제와 폴피리(FOLFIRI) 요법을 병행한다. 폴피리 항암요법이란 ‘이리노테칸’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말한다. 이 교수는 “이리노테칸 기반에 폴피리 요법과 표적항암제를 병용해 환자에게 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 최근 보험급여의 확대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고 생존율도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br/><br/> 그는 전이성 대장암도 이제는 ‘완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정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던 전이성 대장암도 최근 항암 화학요법들이 발전됨에 따라 완치에 가까운 질환이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들이 의사를 믿고 적극 치료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span>”고 밝혔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수술 발전 직장암 재발 낮아져… 충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지연 교수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365  
본문: 직장암은 대장의 한 부분인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뤄진 악성 종양이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직장은 결장과 항문을 연결해 주는 부위다. 직장은 다른 대장 부위와 달리, 구불구불하지 않고 반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직장의 전체 길이는 약 12∼15cm다. <br/><br/> 대장암에 비해 직장암은 수술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이 높다. 김지연 충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직장암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해도 20∼50%에서 재발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지난 20년간 획기적 수술법과 수술 전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제의 개발로 인해 재발 위험이 크게 낮아졌으며 직장암 환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span>”고 말했다.<br/><br/> 직장암 재발은 국소 재발, 원격 전이,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반된 재발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국한된 장소에 발생하기보다는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로 나타나므로 근치적 절제에 한계가 있다. <br/><br/> 직장암 초기에는 근치적 수술이 주된 치료법이지만, 직장암 2·3기 등 암이 상당히 진행되거나 재발된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직장암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2기 또는 3기암의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와 방사선 요법을 보조적 치료로 이용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 직장암의 위치나 크기로 인해 항문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의 범위를 줄여줌으로써 항문을 살리게 될 때도 있다. 방사선 치료는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시행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 치료하면 항암화학약물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강시켜 국소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span>”고 말했다.<br/><br/> 직장암의 수술 전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항암화학요법’에 널리 이용되는 항암제로는 주사용으로 5-플루오로우라실(5-FU), 이리노테칸(Irinotecan) 및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등이 있다. 과거에는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으로 FL(5-FU+leucovorin)요법이 표준요법이었으나, 요즘에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FOLFOX(5-FU+leucovorin+ oxaliplatin) 요법 또는 카페시타빈(제품명·젤로다) 경구 요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5-fu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바늘로 인한 염증 부작용,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방사선요법과 병행해 하루 한 알 경구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카페시타빈 등의 항암제와 함께 치료하면 환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든다</span>”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는 젤록스 요법이 3기 결장암 보조요법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는 기존 주사제 병용요법의 항암치료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br/><br/> 끝으로,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직장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음식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원광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원철 교수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00  
본문: “암환자의 상당수는 체중 감소가 동반됩니다. 환자가 독한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을 이겨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잘 먹어야 합니다.”<br/><br/> 박원철 원광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의 대부분은 식욕 부진에 의한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가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해야 암을 극복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 암환자의 체내에선 항암제의 지원을 받은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항암치료는 암환자라면 누구나 겪는 힘든 과정이다. 항암제 투여로 인해 탈모, 피부이상, 구토 등의 각종 부작용을 호소한다. 이러한 독한 항암치료에 맞서 몸이 견뎌내기 위해서는 환자 몸에 충분한 영양이 보충되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때는 양질의 식단관리를 통해 체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가 제대로 영양을 보충하지 못해 체력 부진을 겪는다. <br/><br/> 암환자의 체중감소는 심각한 문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암환자의 15% 정도가 심각한 체중감소를 겪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체중감소는 환자의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기에 체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실제 환자 중 상당수가 악액질(암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전신쇠약증세)로 인해 사망한다. <br/><br/> 그는 잘 먹는 환자들이 독한 항암치료도 잘 견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실제 주요 학계연구를 살펴보면 식도암이나 구강암, 폐암 등에서 영양상태가 좋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최대 40%까지 높다. 결국 이는 체중감소와 암치료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 암환자의 체중감소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도구도 있다. SNAQ(The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라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리 체중감소가 있는 환자들을 판별할 수 있다. 이 조사는 1분 안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80%의 정확도를 보인다. 이 조사를 통해 체중감소로 판명된 환자들은 집중적인 영양관리를 시행한다. <br/><br/> 박 교수는 환자들 중에서 잘 먹지 않아 체력이 고갈돼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다. 영양실조로 치료가 중단되면 암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과 전문 영양사의 처방에 따라 식단을 관리하는 게 필수다. 식욕부진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암환자에게는 메게이스 등의 식욕부진 개선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메게이스는 환자의 체중 증대 효과뿐 아니라 식욕 증대 효과가 있어 영양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br/><br/> 박 교수는 “실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65세 여성의 경우 항암치료 과정에서 식욕이 없어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 있었다. 환자에게 영양공급을 위한 식욕부진 개선제를 처방하자 잘 먹게 되면서 체력이 향상됐고 암 치료를 잘 견뎌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br/><br/> 그는 암환자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결국 면역력을 높여야 암도 잘 치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철 과일, 고기 등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직업성 암 인정 110건중 폐암이 67건 최다 산재보상은 건설·조선업 順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052  
본문: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병의 발병원인과 근무환경의 연관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은 다양한 발암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많은 암들이 특성상 오랜 기간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수년에서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퇴사한 이후에 발병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br/><br/> ‘통계로 본 암 현황(Cancer Facts & Figures 2014)’에 따르면 직업성 암은 대부분 호흡기계암·림프조혈계암·방광암·뇌종양 등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의 하나인 폐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110건을 살펴보면 호흡기계 암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에서도 폐암이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악성 중피종 13건, 백혈병 16건, 림프종 6건, 방광암 3건, 뇌종양 1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2000년 이후 산재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직업성 암, 특히 호흡기 암으로 보상을 받는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br/><br/> 산재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직업성 암은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철강, 화학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에서 다수 발생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직업성 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이원철 외)에 따르면 암이 발생해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된 산업은 건설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업 11건 △기타 금속제품 제조 10건 △주물업 9건 △기계가공 8건 △철도 6건 △자동차제조업 5건 △고무제품제조 4건 △운수업 3건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물공, 용접공이 16건으로 가장 높았고, △광부, 석공 14건 △광부, 건설근로자 5건 △엔지니어 3건 순이었다.<br/><br/> 국제암연구소(IARC)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알루미늄생산’은 휘발성 코르타르 피치와 방향족 아민 등에 노출될 경우 폐와 방광암 위험이 있으며, ‘석탄가스화’와 ‘코크스생산’업은 PAH와 코르타르 등에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장공’은 6가 크롬에 노출될 경우 폐·중피종·방광암 위험이 높아지고, ‘가구 캐비닛 생산’에서는 목분진에 노출되면 비강 관련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br/><br/> 또 염료 제조시에 벤지딘·2나프틸아민·4아미노비페닐·o-톨루이딘 등에 노출되면 방광암 위험이 있고, 병원소독제제나 화학산업 종사자가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되면 백혈병과 림프종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외에도 항공·우주산업·전자산업에서 사용되는 ‘베릴륨’은 폐암의 위험을 높이고, ‘벤젠’은 석유화학·고무산업·제화산업·의약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백혈병·림프종 위험을 높인다. 방사선치료시 ‘Iodine-131 등 방사성동위원소’에 일정량 이상 노출되면 감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X선이나 감마선의 경우도 전신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태양광선에 많이 노출되는 실외 작업자는 피부 관련 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r/><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의료진 스트레스 주범은 과도한 업무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44  
본문: A대학병원 교수는 암환자가 자신을 마지막 희망으로 의지하거나, 치료하던 환자의 생애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가슴에 답답함을 느낀다. 특히 자신은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설령 해줄 게 있어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해줄 수 없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한다.<br/><br/> 이처럼 매일 암환자를 접하는 의료진도 환자의 고통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및 지역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암 의료제공자 680명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만족도를 조사(2013년)한 결과, 과도한 업무가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암 의료제공자의 업무스트레스를 영역별로 보면 ‘과도한 업무로 가정생활이 방해를 받는 것’이 1.66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환자의 고통에 관여하는 것(1.44점)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받는 원망에 대처하는 것(1.34점) △부족한 관리 및 자원 지원(1.29점) △임상진료의 변화에 맞추는 것(1.25) △관리적인 책임을 갖는 것(1.24점) △동료나 관리직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1.03점) 순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당신의 시간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를 받는 것’(환자진료/관리업무/연구/대학교육)이 1.89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상충되는 것’(진료 vs 관리, 진료 vs 연구)이 1.88로 높았다.<br/><br/> 업무관련 만족도 조사에서는 영역별로는 ‘지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답변이 2.01점으로 가장 만족이 높은 업무로 나타났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과 좋은 관계 유지’(1.96점), ‘직업적 전문성 및 자신감’(1.94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적절한 관리와 자원 지원’이 1.6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는 ‘전공분야의 전문가인 것’(2.3점)과 ‘환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2.08점)이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일을 잘 하기에 적절한 재정적 자원이 있다고 느끼는 것’(1.23점)이 가장 낮았다.<br/><br/> 업무만족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은 반면, 업무에 대한 만족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수록 업무스트레스는 적고, 업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그렇지만 당직근무나 주당 진료시간이 많을수록 업무스트레스는 높고, 업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r/><br/> 전반적으로 느끼는 암 의료제공자의 업무스트레스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스트레스는 평균 2.12점이었고, 업무만족은 평균 2.72점으로 스트레스 점수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8.txt

제목: [통계로 보는 암-갑상선]2004년 이후 여성암 부동의 1위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95  
본문: 갑상선암은 인체에 발생하는 내분비 계통의 암 중 가장 흔한 암이다. 1999년 이후 다른 암에 비해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해 2004년부터는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증가세가 빠른데 이로 인해 과잉 수술 등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br/><br/>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갑상선암의 최근 10년간 추이변화’ 연구에 따르면 양성결절과 갑상선암 환자는 2003년 대비 2012년에 각각 5.5배와 7.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갑상선암 환자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4배 이상이었는데 남성의 경우 2003년 14%에서 2012년 18.3%로 꾸준하면서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별 환자변화에서는 남성의 경우 10년간 40∼49세 구간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0대, 60대 순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50대 환자가 크게 증가해 2009년부터 1위를 차지했다. 양성결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 시행비율은 2003년 19%에서 2012년 31.7%로 증가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 환자수와 신규 갑상선암 환자의 비율은 2004년 48%에서 2012년 25%로 감소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갑상선암 환자의 왜곡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br/><br/> 치료양상을 보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는 2003년에 비해 2012년 5.7배 증가한 4만440명이 수술을 받았고,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시행비율은 2005년 77%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62%로 낮아졌다. 동위원소 치료의 시행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수술한 환자의 중증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조기에 갑상선암을 발견하고 수술하게 되면서 동위원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br/><br/> 갑상선암 치료비용은 진단 1년차에 가장 많은 금액이 청구됐고, 진단 2년차 이후로는 평균 청구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단 6년차 이후에는 청구비용 감소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산정특례 적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br/><br/> 한편 지난해 상반기(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보면 갑상선암 환자는 25만1964명(입원 2만7111명, 외래 25만626명)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243억615만3000원으로 입원 522억1680만7000원(1인 평균 192만6038원), 외래 720만8934만7000원(1인 평균 28만7637원)으로 입원 환자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br/><br/> 성별로는 여성(21만481명)이 남성(4만1483명)에 비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50대(7만882명) 환자가 가장 많았고, 남성에서는 50대(1만2487명)와 40대(1만2258명)가 높았다.<br/><br/>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5만9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7만6334명) △의원급(2만6370명) △병원급(1만2861명) △보건기관(207명)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환자수는 서울(10만6627명)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았고, 이어 경기(3만4452명), 부산(2만5777명), 대구(2만1890명), 전남(1만1724명)이 뒤를 이었다. <br/><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09.txt

제목: [의사가 만난 암환자] 위암4기 불구 늘 밝았던 그녀, 어려운 순간 함께 걸었던 것은 큰 선물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40  
본문: 처음 보았을 때 현숙 씨의 위암 병변은 크지 않았다. 복수가 많이 찬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복수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 등 필요한 검사 결과 이미 암이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이미 말기 위암인 셈이다.<br/><br/> “위암 자체는 안 크다면서요. 복수 말고는 딴 데 전이도 안 갔다면서요. 항암치료 세 번 맞고 복수도 다 빠졌는데 왜 수술이 안 돼요? 얼마 산다고요?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그렇게 밖에 못 산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br/><br/> 참 많이도 물었다. 같은 질문을 서너 번씩 했었다. 아마도 좀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였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를 들려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너무 젊은 나이라서 안쓰러웠다. 경구 항암제를 먹으면서 설사에 시달리고 하얗던 피부도 검어지고 예뻤던 얼굴은 이젠 누가 봐도 전형적인 암환자의 얼굴이 돼가고 있었다. <br/><br/> 어느 날 현숙 씨는 외래에 임산부 옷을 입고 왔다. 복수가 꽤 많이 차서 임산부 옷을 입었다고 한다. 참 지혜롭고 밝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한약이나 암에 좋다는 무슨 버섯이나 대체식품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현실을 직면하려 했고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이 보통인 4기 위암환자의 생존 기간을 훨씬 훌쩍 뛰어 넘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교적 좋은 삶의 질을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br/><br/> 여름휴가 다녀온다는 나에게 잘 다녀오라고 자기 대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한다. 나는 내심 내가 다녀온 후에도 환자가 여전히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하면서도 하늘나라 가면 나 잘되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좋은 의사 되게 잘 좀 보살펴달라고까지 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그러죠. 늘 선생님 위해 기도해요’라고 했다. <br/><br/> 환자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건가 가끔 새삼스럽게 고맙고 뭉클할 때가 있다. 나는 일부러라도 환자를 사무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감정 표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많이 친해지려고 안 한다. 지나치게 가까워졌을 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여의사가 참 쌀쌀맞고 냉정하다는 얘기도 환자들끼리 한다고 그런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데도 결국은 참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다. 가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진다. 가족에게 못할 얘기도 나누게 된다.<br/><br/> 현숙 씨와 나의 마지막 몇 달은 마치 정말 호흡이 잘 맞는 부부처럼 다 같이 결정했다. 참 별로 좋은 결정 내릴 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도 신기할 뿐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절망은 없나 보다. 같이 결정하고 같이 생각해서 힘든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같이 걸어가는 것, 종양내과 의사로서 환자와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더구나 좋은 순간이 아닌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같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큰 선물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너무도 버거운 짐처럼 느껴져 도망치고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내 짐을 환자들이 같이 나눠 가질 때 나는 의사로서,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br/><br/>윤소영 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암 치료 & 체중감소 관리… 전이성 대장암도 ‘완치시대’로 접어들었다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348  
본문: 지난달 27일 부산에서는 ‘대장암의 항암치료 & 체중감소 관리’라는 주제로 대장항문외과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대장항문학회 내 항암요법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약 40명의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br/><br/>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희대의대 이석환 교수, 연세대의대 김익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총 3개의 강의가 진행됐다. 충남대의대 김지연 교수가 ‘직장암의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 고신의대 이승현 교수가 ‘직결장암의 항암치료’, 원광대의대 박원철 교수가 ‘암환자의 체중감소 관리 및 예방법’을 강의하며, 직결장암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과 암환자의 영양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br/><br/>◇대장암 전문가 한자리 모여 최신 항암치료 지견 공유=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장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암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충남대의대 김지연 교수는 ‘직장암의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직장암은 대장암에 비해 수술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재발 위험도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지난 20년간 수술법 발전과, 최신 표적 항암제의 개발로 인해 재발 위험이 크게 낮아졌으며 암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span>”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전이성 대장암의 항암치료’를 주제로 고신대의대 이승현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대장암 환자 4명 중 1명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퍼진 ‘전이성 대장암’ 환자다. 하지만 최근에는 획기적인 표적치료제가 개발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리노테칸 기반에 폴피리(FOLFIRI) 요법과 표적항암제를 병용해 환자에게 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 이러한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었다</span>”고 말했다.<br/><br/>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원광대의대 박원철 교수는 ‘암환자의 체중감소 관리 및 예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암환자들이 독한 항암치료를 견디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실제 주요 학계 연구를 살펴보면 식도암이나 구강암, 폐암 등에서 영양상태가 좋은 환자들의 생존률이 그렇지 못한 환자에 비해 5%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암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해서는 식욕 촉진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br/> ◇“환자 위해 대장암 항암치료 ‘보험급여’ 확대돼야”=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인 경희대의대 이석환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외과)와 연세대의대 김익용 교수(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외과)는 대장암 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보험급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환 교수는 “처음 대장암 진단 시 전이성 대장암인 3기와 4기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한다. 전이성 대장암의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고가의 표적항암제 중 상당수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가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현실이다. 중증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 김익용 교수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항암제 보험급여 적용이 느린 편이다.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인 치료방법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성 4기 치료에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약제가 제한돼 있다. 정부가 중증 암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1.txt

제목: [항암 밥상-씨앗장 쌈밥] ‘된장+견과’는 환상의 콤비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47  
본문: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는 발효음식. 그 중에서도 콩을 발효해 만든 장은 예로부터 이어 내려온 발효식품 중에서 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콩에는 ‘제니스틴’ 이라는 강력한 항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제니스틴이 발효를 거치면서 당이 떨어져 나가 ‘제니스테인’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인체에 흡수되기가 더 쉽다.<br/><br/> 장에는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발효 생성물이 있어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콩을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콩을 발효한 장류를 먹는 것이 항암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br/><br/>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장이라 하더라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염분의 섭취량이 높아지므로, 주당 570g 이하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염분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욱 좋다.<br/><br/> 된장 등의 장류에 고소한 맛이 나는 견과류를 넣어 조리하면 맛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염분의 섭취량을 줄이면서, 견과류에 들어간 영양 성분이 된장의 영양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다.<br/><br/> 견과류(너츠, nuts)는 나무의 씨앗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 건강, 노화 방지, 다이어트 등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견과류의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으로,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준다. 게다가 견과류는 심혈관 계통에 유익하며, 식이섬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이 풍부하다. 견과류 중 대표적인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종양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또한 암을 억제시키는 항산화 성분은 성인병 예방 및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해바라기 씨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 세포의 확산을 막음으로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br/><br/> 다만 주의할 점은 견과류에는 또한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섭취 칼로리가 적정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보관 방법에 유의하면 좋다. 된장과 견과류를 함께 넣어 즐길 수 있는 씨앗장(견과류장)과 씨앗장을 넣어 만든 쌈밥 레시피를 공개한다. <br/><br/><br/>조규봉 기자 ckb@kukimedia.co.kr<br/><br/><br/><도움말:샘표 요리과학연구소 지미원, 송지희 영양사&박상지 셰프>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2.txt

제목: [암과의 동행] 3시간 대기 3분 진료냐… 가족적인 진료 분위기냐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098  
본문: 한 통계에서 서울의 빅5 대형병원 환자의 절반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지방 환자가 서울의 대형병원을 다니는 것은 어떤 이점 때문일까. 우선 빅5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은 치료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해 암 치료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외과와 종양내과, 방사선과 등 암 치료 진료과들의 협진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임상실험에 참여할 기회가 지방 병원에 비해 많다. 현재 A대형병원을 다니는 위암 환자 김병래(58)씨는 이런 서울 소재 대형병원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경우다. 김씨는 “<span class='quot0'>나는 위암 중에서도 국내 케이스도 많지 않고 예후도 좋지 못한 진행성 위암이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서울의 병원을 고집하고 있다</span>”고 털어놓았다. <br/><br/> 한편 지방 환자가 집에서 먼 서울의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는 안 좋은 점도 있다. 우선 집에서 멀어 오고가는데 시간과 돈, 체력을 소진하게 된다. 또 대기 환자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점도 암환자를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의료진을 만나도 자세한 설명을 듣기가 힘들다. 병실이 부족해 입원이 쉽지 않은 것도 단점 중 하나다. <br/><br/> 유방암 환자 오윤희(54)씨는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집에서 가까운 전문병원으로 옮겨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을 옮긴 이유를 묻자 집에서 가까워 작은 통증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씨는 “투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2∼3시간씩 고속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니는 일이었다. 가족들은 병원을 옮기겠다는 내 의견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성을 내건 소형 병원들은 대학병원처럼 환자가 많지 않아 비교적 입원이 쉽고 원하는 날짜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고 싶은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점이다. 또 대형병원보다 비교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br/><br/> 한편 암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진료기관의 장단점을 잘 살펴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병원이 대학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특정 치료분야에 집중해 있는지 잘 살펴야한다.<br/><br/> 반대로 전문병원에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통원의 어려움, 입퇴원의 제약, 오랜 기다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 옮기든 병원을 옮길 때는 소견서와 의무기록, CT 사진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br/><br/> 또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치의와 상의해볼 수 있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살펴 조언할 것이다.<br/><br/> A대학병원 김모 교수는 “환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예약된 진료날짜에 오지 않는 암환자들의 상당수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준비 없이 산으로 들어간 경우다. 치료 도중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환자에게 신체적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되돌아오더라도 이미 의료진과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환자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br/><br/><br/>김단비 기자<br/><br/>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대식세포의 암세포 성장 돕는 과정 규명 外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43  
본문: 대식세포의 암세포 성장 돕는 과정 규명<br/><br/>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언·김효수 교수 연구팀은 대식세포의 PPAR(퍼옥시즘 증강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이라는 전사인자가 암세포에 의해 활성화되면 암세포 제거 임무를 띤 대식세포가 오히려 암세포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br/><br/> 연구팀은 암 조직 내 대식세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는지 세계 최초로 밝힌 것으로, 대식세포의 PPARdelta를 차단하면 암세포 성장이 억제됨을 증명했다. 이는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넘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br/><br/>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br/><br/>보건복지부는 11개 호스피스전문기관 대상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r/><br/> 이번 안에 따르면 7월부터 병동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본 사업이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시행되며, 가정에서 암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정완화의료 시범사업도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br/><br/> 또한 불필요한 치료 제한을 위해 일당정액(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해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했다.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시켰다.<br/><br/>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1만5000원, 간병을 급여로 받을 경우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일당정액제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5인실 기준 16만원 정도이며, 통증치료와 상담치료 등은 별도 산정된다.<br/><br/><br/><br/>새로운 간경변증 조기진단법 개발<br/><br/>간경변증에 대한 새로운 조기진단법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돼 치료율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세암병원 간암센터 소화기내과 한광협, 김승업, 김미나 교수팀은 기존 검사방식에서는 간경변증이 진단되지 않았던 만성 B형간염 환자들에서 간 경화도를 측정하는 간 섬유화 스캔검사를 통해 간경변증 환자를 골라냈다.<br/><br/> 연구진은 복부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간경변증이 확인되지 않은 2876명의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간섬유화 스캔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285명이 연구진이 설정한 간 경화도 수치 13점을 넘어 잠재적 간경변증 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285명의 잠재적 간경변증 환자를 5년여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5.2%에서 간암이 발생했다.<br/><br/><br/><br/>서울대병원 25일 ‘간이식’ 건강강좌<br/><br/>서울대학교병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암병원 1층 영상의학과 회의실에서 ‘간이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br/><br/> 이날 강좌는 외과 김혜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간이식과 최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등을 소개한다(문의: 02-2072-3550, 0049).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4.txt

제목: [암과의 동행] 희귀암에 속절없이 빼앗긴 아들 남은 빚 1억은 잊지 말라는 부탁 일까요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41  
본문: “아이에게 말했어요. 천국에서의 시간은 이승보다 빨라 며칠만 놀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갈 거라고요. 헤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아이와 우리는 곧 만날 거예요.”<br/><br/>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를 만났다. 그들의 아이(고 박지수군)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작년 5월 천국으로 갔다. 유인육종이라는 희귀암을 앓은 지 2년 3개월 만에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났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엄마의 생일날 아이를 데려갔다. <br/><br/> 아이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부모는 여전히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 암 치료비 1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산다. 아이의 엄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 아이의 아빠는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아이의 누나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부모는 아이 잃은 슬픔을 삭이기도 전에 치료비를 갚기 위해 생업 전선에 나서야 했다. 주변의 도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치료 받은 병원에서도 후원을 받았고 주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은 치료약이 너무도 비싼 희귀암이었다.<br/><br/> “아직도 갚아 나가야 할 금액이 많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미치도록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선교 활동 하느라 아이에게 간식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커 주길 바랐죠. 어느 날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끼니 잘 챙겨먹지 못하고 불량식품만 사 먹어 동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식 살리려고 진 빚은 빚이 아니죠.” <br/><br/> 의료진은 늘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아이는 강했다. 어른도 참기 힘든 통증을 진통제 없이 참아내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아이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운명보다 자신 없이 이 세상에 남아 슬퍼할 부모를 걱정했다. 마술사가 꿈이었던 아이는 자신처럼 암과 맞서 싸우는 또래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며 위로하는 어른스러운 아이였다고 한다.<br/><br/> “암이 척추에까지 퍼져 마지막에는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병동 간호사 누나, 또래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며 주변을 즐겁게 했어요. 그런 아이였어요. 우리에게는 과분한 아이죠. 늘 부모를 걱정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걱정이야’라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일하느라 힘들어도 돌아와 텅 빈 아이 방을 보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사진만 봐서는 아이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너무 그리울 땐 무덤을 파서 만져보고 싶을 정도예요.”<br/><br/>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아이는 고통스러워했다. 극심한 고통에 한밤중 고성을 지르는 경우가 잦아졌다. 어른스러웠던 아이는 병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br/><br/> “무서워하더라고요. 신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하면서도 너무 아프니까 무서워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부모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천국은 이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자주 말해줬어요. 고통 없이 하고 싶은 마술 마음껏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와 있을 거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내 휴대폰을 갖고 놀다 실수로 초기화돼 저장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됐어요. 엄마가 자신을 너무 그리워할까봐 삭제시켰는지도 모르죠. 다시 얼마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야죠. 아이에게 못해준 만큼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행복해지겠죠.”<br/><br/> 아이는 부모에게 선물을 남겼다. ‘믿음의 노래’라는 곡이다. 부모의 지인이 아이의 흥얼거리는 멜로디에 가사와 음표를 넣어 실제 교회에서 찬송되도록 곡으로 재탄생시켰다.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 이 곡은 부모를 다시금 살아가게 한다. <br/><br/> “투병하던 지난 2년여의 기간은 오롯이 아이를 위해 살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신이 왜 내 자식을 데려갔을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내 생일날 천국으로 떠나고, 남은 가족들에게 이 아름다운 곡을 남긴 걸 보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누나랑 행복하게 살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아마도 우리 아이는 지금 천국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치유 안되는 입 속의 궤양, 구강암 노출 강력 경고음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42  
본문: 신혼여행을 앞둔 30대 초반의 남성은 몇 주째 입안이 헐고 궤양이 낫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고민은 며칠 후면 떠날 신혼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 준비로 바빴고 피곤했기 때문에 입 속에 난 궤양이 대수롭지 않았다.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 그가 ‘구강암’ 진단을 받은 것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br/><br/> 구강암은 진단받은 환자 열 명 중 한두 명만 겨우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구강암의 전조 증상은 치유되지 않은 궤양이다. 다만 입 속에 궤양이 나타날 때마다 구강암의 공포를 느끼고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포인트는 치유되지 않는 궤양이란 점이다. 약을 발라도 좀처럼 낫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궤양의 정체를 살펴봐야 한다.<br/><br/><br/><br/> ◇구강암 예방, 왜 중요한가=구강암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나타난 암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수술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구강’이라는 특성 때문에 음식을 씹고 맛보는 저작기능의 상실,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발음기능의 저하, 또 종양을 도려낸 탓에 나타나는 얼굴 생김새의 변화 등 환자가 사는 동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명훈 교수는 수술 후 자신을 왜 살려냈냐며 토로하는 구강암 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취재 중 만난 여성 구강암 환자는 앞으로 무엇이 가장 걱정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적인 변화’를 들었다. 그녀는 오른쪽 뺨에 구강암이 발생했다. 수술 후 얼굴 한 측이 무너졌다. 말을 할 수 없어 글로 표현해야 했던 여성 환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을 걱정했다. <br/><br/> 구강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절반도 못 되는 30∼40%에 불과하다. 이토록 예후가 나쁜 까닭은 ‘뒤늦은 발견’이 한몫한다. 구강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심지어 구강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암은 몸의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라는 일반적 명제만 기억해도 구강암은 더 이상 낯선 암이 아니다. <br/><br/> ◇구강암 왜 생기나=구강암의 원인이 어렴풋이 밝혀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다. 유력인자는 단연 흡연과 술, 고령의 나이다. 구강암 환자의 상당수는 흡연을 한 사람이다. 담배의 유해성분이 구강 점막을 변화시킨다. 백색 또는 적색 병소로 점막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흡연은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구강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또 지난 30년간 역학조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즐기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구강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구강암의 새로운 원인으로 꼽힌다. 구강암 환자의 3분의 2에서 HPV가 발견된다. <br/><br/> ◇어떤 경우에 구강암을 의심해야 하나=구강암의 전암 병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혀와 입천장, 혀 아래, 잇몸과 입 안 등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모든 공간은 구강암이 생길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들 부위의 점막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명훈 교수는 “<span class='quot0'>점막 변화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 구강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구강 건강을 살필 때 색(Color)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혀의 일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과 심하게 빨개지는 적반증이 그것이다. 명 교수는 “백반증은 손톱으로 긁어도 제거되지 않고 구강 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혀는 연분홍색을 띠며 오동통한 모양이다. 너무 빨갛거나 하얀색을 띠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 교수는 구강암 예방을 위해 구강의 색을 살필 것을 재차 강조했다.<br/><br/> 모든 백반증과 적반증이 악성종양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환자들이 구강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을 뒤늦게 온 탓에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명 교수는 “구강은 소화기관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도와도 연결돼 있어 이곳에 암이 생길 경우 삶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입속 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구강 상태를 청결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6.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환자-의사 속타는 건보 적용 언제까지 경제논리 앞세우려나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30  
본문: 전이성 대장암 4기 환자인 김주명(가명)씨는 기존 항암제 치료가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 이에 새로운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새로운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주치의로부터 듣고 처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의사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약값이 100% 환자 부담이라는 말을 전했다.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약값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br/><br/>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증의 암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약은 많지 않다. 특히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 치료효과를 내는 표적항암제는 기존 치료제보다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당히 고가의 약이다 보니 환자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환자, 의사는 늘 신약 사용을 놓고 갈림길에서 고민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9종의 표적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정부에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이 중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치료제가 보험급여를 적용받지 못해 획기적인 치료제가 있어도 고가의 약값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환자들이 생명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환자는 “대장암 말기인데 표적항암제가 100% 자비여서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br/><br/> 의사들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이석환 강동경희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의사들도 치료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환자에게 쉽게 권하기 어려운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중증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표적항암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입법예고 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KRPIA는 “<span class='quot1'>환자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면제 조항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span>”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식약처에서 3상 조건부 없이 허가를 받은 항암제는 거의 없어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3상 조건부 항목은 삭제돼야 한다”며 “환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br/><br/> 우리 정부는 4대 중증 질환에 희귀 질환을 포함해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중 ‘재정적인 이유로 제한돼 있던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신약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원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을 거두고 있다. 양심적 의사들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항암제 치료에 필요한 보험급여 적용은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가 항암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7.txt

제목: [암환자 희망일기] 그대 쉰목소리는 후두암 검진 일깨우는 신호음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94  
본문: 올 초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고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흡연자 중에는 지난 몇 십년간 담배를 피워 왔는데 이제 와서 끊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다. <br/><br/> 흡연자 중에 목소리에 이상이 왔을 때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것은 후두암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흡연과 음주가 후두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후두암 발병에 있어 흡연은 폐암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br/><br/> 사람의 성대는 무척 민감하다. 결절이나 폴립이 생기면 곧바로 목소리 변성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후두암도 목소리 변성 등 이상 증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다. <br/><br/> 정년을 2년 앞둔 60세의 고등학교 물리선생님이 병원을 찾았다. 젊었을 때부터 피워온 담배를 끊지 못한 게 원인이었는지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음성이 변하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후두암 2기로 진단되었는데 환자는 정년까지 목소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이후 재발 없이 무사히 정년까지 교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 <br/><br/> 전북 고창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65세의 남자 환자는 20대 군 입대 무렵부터 40년 가까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워 왔다고 했다. 3개월 전부터 목에서 쉰 소리가 나면서 음성이 변해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에서 후두암으로 진단되었고, 다행히 임파선 전이 없이 후두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후두암 1기였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후두점막에 있는 암을 제거하여 현재 재발이 없는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 두세 달에 한 번 씩 외래진료를 위해 내원하는데,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3년째 금연 약속을 지키고 있다. <br/><br/> 72세 남자 환자는 최근에 심해진 쉰 목소리와 목에 만져지는 밤톨만한 종양이 걱정되어 병원을 찾았다. 후두내시경과 조직검사 결과 상태가 좋지 않은 후두암으로 진단됐다. 임파선으로 크게 전이되어 있었고 후두 부위에 있는 종양 또한 크기가 커서 주변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였다.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다. 다행히 목 이외의 원격 전이는 없어 후두 전적출술 및 동측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했고, 병기가 높아 수술 후 방사선 치료 과정을 거쳤다. 예전처럼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운영 중인 식도발성법 교실에 꾸준히 참석, 식도발성법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br/><br/> 목소리 변성을 주 증상으로 내원한 65세 남자 환자는 5년 전에도 병원에서 ‘성대점막 과각화증’을 진단받아 정기적으로 관찰 중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피워온 담배를 끊지 못해 서너 차례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으며 지내다 이번에 후두암으로 진단받았다. 목소리 변성으로 꾸준히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후두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고 레이저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잘 마무리됐다. <br/><br/> 목으로 목소리를 내고 숨을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흡연 등으로 목을 계속 혹사시킨다면 편안한 숨과 목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목에 이상이 감지되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후두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br/><br/>이국행 원자력병원 후두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8.txt

제목: [한세준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긍지 심어준 광역학 치료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87  
본문: 필자가 이 칼럼의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재를 마치는 글을 쓰고 있다. 칼럼을 연재하면서 유난히도 힘들어했던 몇몇 환자들의 얼굴과 함께 그 환자들이 출산한 새 생명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동안 암투병 중에도 필자에게 광역학치료를 받고 아기를 출산한 엄마들이 보내 온, 미소 짓는 아기들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이 생명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금 느낀다. <br/><br/> 얼마 전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 또한 최저인 췌장암 환자에게도 이 광역학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새 희망을 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빛으로 치료하는 이 광역학치료가 새삼 ‘생명의 빛’으로 느껴진다. <br/><br/> 이번 마지막 칼럼에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2월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이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선 셈이다.<br/><br/> 필자에게 광역학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이 출산한 아기의 숫자는 아직 미미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광역학치료를 시술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필자 혼자만이 아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는 양육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광역학치료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br/><br/> 이제 칼럼 연재를 마치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환자들이 보다 개선된 광역학치료제의 사용으로 광역학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선된 광역학치료제가 아직도 여러 규제로 인하여, 수년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묶여 있어서,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자유로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br/><br/> 필자는 의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외한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개선된 광역학 치료제를 찾아서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로 나가서야 되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감히 자부한다. 실제로 광역학치료가 처음으로 시행된 유럽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욱 높은 암치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암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br/><br/> 이제는 이 광역학치료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고 새로운 치료제의 승인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고 범용화되어 많은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이 희망 또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암환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br/><br/> 그동안 글재주 없는 필자의 칼럼을 읽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암을 포함한 모든 암환자에게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로 글을 마친다. <br/><br/>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부인종양학>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완도발 훈풍… 천연항암제 미역귀 수확 풍성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74  
본문: 3월 완도의 봄 바다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다. 지난겨울 혹한을 이기고 자라난 햇미역의 고운 자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 미역은 쌀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3월이 수확철이다. 10∼11월 미역의 포자를 발아시켜 이를 바다로 넣어주면 이듬해 3∼4월에 다 자란 미역을 수확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햇미역을 맛볼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미역이 아닌 미역귀가 주인공이 된 듯한 분위기다. 최근 암환자들 사이에 미역귀가 암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조 미역귀를 많이 생산하는 완도 금일읍 등에는 미역귀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문의가 부쩍 늘었다. 미역귀를 활용해 반찬류를 선보이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미역귀는 미역 포자가 방출되는 생식기관으로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후코이단은 미역귀가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등극할 수 있게 해준 일등 공신이다.<br/><br/> 이은선 해림후코이단 기업부설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강력한 항암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소재</span>”라고 설명했다.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는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입증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혈관신생 억제기능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 억제기능 △면역력 증강기능 △방사선 치료 부작용 완화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r/><br/> 완도는 일찍부터 해조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진행한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건립 지원 사업’이다. 당시 완도군은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고품질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지원 30억원,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세계 후코이단 시장에 한국산 후코이단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완도군은 지원사업을 통해 후코이단 전문생산업체 해림후코이단 설립에 성공했다. 해림후코이단의 규모는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생미역귀 기준 원료 소비량 2000톤에 달한다. 완도군 해조류 활용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br/><br/> 이정식 해림후코이단 사장은 “<span class='quot1'>지난 10여년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후코이단 시장이 국산제품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으며, 수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하던 미역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해조산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후코이단의 의미가 작지 않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0.txt

제목: [인터뷰] ‘3월의 눈’ 부부 역할 신구·손숙… 손숙 “성실한 신구씨 3일 만에 대본 다 외워”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9074  
본문: 원로배우 신구(79)와 손숙(71)이 올해 국립극단의 개막작 ‘3월의 눈’(3월 13∼29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br/><br/> 2011년 초연된 이 작품은 원래 한국연극사의 산증인인 원로배우 백성희(90)와 장민호(1924∼2012)의 이름을 딴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을 기념해 두 배우에게 헌정된 것으로 유명하다. 노부부 장오와 이순이 오랫동안 살아온 한옥을 떠나기 직전 모습을 담담하게 담았으며, 이듬해 장민호가 타계하면서 연극계에서 한층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됐다. 장민호 타계 이후에도 백성희가 박근형, 변희봉, 오영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2013년까지 꾸준히 공연됐다. 2년 만에 돌아온 이 작품은 극장도 바뀐 데다 배우도 새롭게 캐스팅했다.<br/><br/> 신구는 1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장민호 선생님이 출연했던 초연부터 공연될 때마다 이 작품을 전부 봤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역사적인 이 작품의 역사에 내가 참가할 수 있게 돼 기쁘다</span>”고 밝혔다. 이어 손숙은 “<span class='quot1'>백성희 선생님이 이번 공연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 힘이 닿을 때까지 이 작품을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든다</span>”고 밝혔다.<br/><br/>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오랜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두 배우는 원래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둘은 1970년대 국립극단 단원 시절을 함께 보낸 바 있다. 1971년 국립극단 연극 ‘달집’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2009년 39년 만에 명동예술극장의 연극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로 재회했다. 그리고 2013년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에서 극중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이번에 ‘3월의 눈’에서도 또다시 부부로 나온다. 먼저 캐스팅된 손숙이 신구를 강력 추천했고, 신구 역시 바로 응했다는 후문이다.<br/><br/> 손숙은 “<span class='quot1'>신구씨는 워낙 성실한 배우로 유명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번 작품에서도 첫 번째 대본 리딩을 하고 3일 뒤 첫 연습 때 대본을 다 외워 와서 깜짝 놀랐다</span>”고 감탄했다. 이에 대해 신구는 “<span class='quot0'>‘꽃보다 할배’ 그리스 편 촬영 때문에 10일간 연습에 동참할 수 없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나 때문에 작품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본이라도 먼저 외웠다</span>”고 답했다. <br/><br/> 두 사람이 처음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에서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다. 반면 ‘3월의 눈’에서는 아내가 먼저 타계하고 홀로 남은 남편이 쓸쓸한 말년을 보낸다. 신구는 “<span class='quot0'>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죽음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괴롭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되도록이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손숙은 “<span class='quot1'>‘3월의 눈’에서 장오는 하나뿐인 혈육인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남은 재산인 집까지 처분하고 홀로 요양원에 간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나나 신구씨는 자식을 위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말한 적이 있다</span>”고 웃었다. <br/><br/> 50년 넘게 연기를 해온 원로배우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연기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드러냈다. 손숙은 “<span class='quot1'>배우는 나이를 먹어도 연출가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장민호 백성희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span>”고 밝혔다. 신구 역시 “나이를 먹으면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작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br/><br/><br/>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름값 제대로 하는 표적항암제 효능 클수록 더 커지는 “건보적용” 목소리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7951  
본문: 최근 정부는 표적항암제 룩소리티닙의 사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당 치료비용이 월 600만원에서 17만원으로 크게 경감되고, 관련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 중 약 45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br/><br/> 일반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뛰어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들 표적항암제에 대한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2015년 3월 1일 기준) 보험적용을 받는 표적항암제는 △백혈병: 글리벡·스프라이셀(만성골수성, 급성림프모구), 타스그나·슈펙트(만성골수성)·맙테라(만성림파구성) △신장암: 수텐·넥사바·보트리엔·토리셀·아피니토 △대장암: 아피니토·얼비툭스 △유방암: 허셉틴·타이커브·아피니토 △신경내분비암: 수텐·아피니토 △비소세포폐암: 이레사·지오트립 △위장관기질종양: 글리벡수텐 △다발골수종: 벨케이드 △췌장암: 타세바 △피부암: 글리벡 △간세포암: 넥사바 △위암: 허셉틴 △연조직육종: 보트리엔트 △중추신경계암: 아피니토 △갑상선암: 넥사바 △골수섬유화증: 자카비 등 20개 암종, 19개 품목이다.<br/><br/> 이중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급여일 01.06.20)·위장관기질종양(02.11.01)·급성림프모구백혈병(05.01.01)·피부암(07.07.01) 등 4가지에 대해 급여를 받았고, 아피니토는 신장암(11.08.01)·신경내분비암(13.03.01)·중추신경계암(14.01.01)·유방암(14.04.01) 등 4가지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 또 수텐은 신장암(07.03.01)·위장관기질종양(07.03.01)·신경내분비암(13.01.01) 등 3가지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얼비툭스·넥사바·스프라이셀 등도 각 2가지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br/><br/> 최근 7년간(2008년부터 2014년) 항악성종양제 사용환자 대비 보험적용을 받는 표적치료제 사용환자 비율은 2008년 25.3%에서 2010년 32.4%, 2012년 44%, 2013년 46.6%, 2014년 48.1%로 지속 증가해 전체 항암치료제 사용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환자수는 2008년 1만1528명(약제비 1499억7300만원)에서 2009년 1만3046명(1770만7400만원), 2010년 1만7116명(2554억2800만원), 2011년 2만3536명(2908억6400만원), 2012년 2만7888명(3359억4500만원), 2013년 3만2285명(3817만7600만원, 2014년 3만7024명(3994억6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사용환자는 321.2% 증가한 반면, 약제비는 266.4% 증가하는 데 그쳤다.<br/><br/> 한편 효과가 향상되거나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들이 속속 국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들의 급여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적치료제 등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제약사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br/><br/>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적을 경우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약값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라는 한정된 규모 안에서 다른 질환자들과의 형평성, 비용경제성 등을 고려해 약값을 낮추려고 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와 ‘잴코리’,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와 ‘캐싸일라’, 쿠싱병치료제 ‘시그니포’ 등 다양한 치료제들을 국내에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지만 급여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br/><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2.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사별 가족 위한다면… 때로는 무관심이 약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610016578495  
본문: “남편이 살아있을 땐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공과금도 남편이 냈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는 일도 남편이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내 몫이었고, 그 외 경제적 활동은 남편 몫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금, 아이를 혼자 키워 나가야 하는 현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나이에 당장 들어갈 회사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사도우미나 환경미화원뿐이에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네요.”<br/><br/> 부부 사별 모임에서 만난 김연희(가명)씨는 췌장암으로 2년간 투병하던 남편과 얼마 전 사별했다. 췌장암 남편을 간호하면서 많이 지쳤다고 고백한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보다 삶의 무게가 그녀를 더 힘겹게 만든다고 했다. <br/><br/> “남편이 떠나고 나면 나도 쉬고 싶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떠나고 나면 몸은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도 절이라도 가서 당분간 쉬라고 권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절에 들어가 맘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녜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뒷바라지하려면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해요.”<br/><br/>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사별후 곧바로 생활전선에 나선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여성은 떠난 아빠의 몫까지, 남성은 엄마의 몫까지 해야 한다. 김씨처럼 생활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전업주부로 평생 살아온 여성의 경우 남편의 부재로 그동안 해본 적 없는 경제적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했던 부부 관계에서 사별을 겪을 경우 이별의 슬픔에 경제적 상실감까지 찾아온다고 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홀로 설 수 있도록 경제적 사정을 이해하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br/><br/> 한편 자녀들이 직장을 다닐 정도로 성장한 경우라면 부모가 겪는 고뇌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 이들은 오히려 ‘무관심이 약’이라고 말한다. <br/><br/> “자식들이 행여 내가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봐 바깥에 나가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일상을 즐길 만큼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애들 눈치 보여서 억지로 바깥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를 생각해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데,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앉아있다 보니 몸이 더 힘들더군요.”<br/><br/> 자녀들은 홀로 남겨진 부모를 걱정해 취미를 갖고 다양한 일을 해보라 권한다. 그런 자녀들의 맘을 모르는 게 아닌 부모들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마음이 쉴 틈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 적당한 무관심이 아픔을 딛고 단단해질 시간을 가져다준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반드시 웃음으로 승화시킬 필요는 없다. 당장 무엇을 하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먼저란 사실을 기억해둬야 한다. 마음의 균형은 다양한 활동이 아니라 생각을 비우는 여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3.txt

제목: [저자와의 만남-성공 목회 책으로 낸 김종원 목사] “6년만에 교회 두배 성장… 비결은 제자훈련”  
날짜: 2015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410016574758  
본문: “<span class='quot0'>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span>”<br/><br/>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 경산중앙교회(경북 경산시 강변동로) 김종원(46) 목사도 6년 전에 그랬다.<br/><br/>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돼 부임할 즈음, 김 목사의 큰누나가 담낭에 이상이 생겨 입원했다. 처음엔 그저 담석 시술을 받는 것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암이었다. 10시간 가깝게 담낭을 절제하고 전이된 간의 일부를 제거했다. 그러나 소화기관까지 절제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스러워했다. 가족들은 기도한 뒤 더 이상 수술을 허락하지 않았다. 소화 기관이 남아야 자연 치료라도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br/><br/> 목회자 동생이 할 일은 기도 밖에 없었다. 그때 성경을 펼치고 묵상한 말씀이 시편 40편이었다. “<span class='quot0'>…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span>”(시 40:1∼3)<br/><br/> 부임 첫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노래’였다. 입원 중인 큰누나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는 새 노래를 입에 넣어 부르게 하실 주님을 소망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노래로 큰 누나는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br/><br/> 돌아보니 주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수렁에서 건져 올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설교에 열정을 쏟았다. 6년 후 경산중앙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손꼽히는 교회로 성장했다. 주일학교 학생 1800명을 포함한 전체 교인은 6600명에 이른다. 김 목사가 부임할 당시 3200여명이었는데 두 배로 성장했다. <br/><br/> 비결은 제자훈련이다. 고(故) 옥한흠 목사로부터 받은 노하우였다. 김 목사가 실시한 체계적인 훈련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수평이동이 아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중심축이다. 온 성도들이 즐겁게 전도에 힘을 쏟는다. 해마다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라는 주제로 모든 교인들이 혼연일체가 돼 진군식을 개최한다. 교회 주차장을 마당으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2014년 주제)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 아이들과 어르신 등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긴다. <br/><br/> 교회 안에 발길을 들여놓은 이들은 새가족 확신반,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성경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다. <br/><br/> 교회 밖에서는 이웃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역으로 헌혈과 장기기증 캠페인이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 일에 평균 160여명의 교인들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754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br/><br/>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 목사) 대구경북지부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음악회를 열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해 매년 한두 차례 신나는 공연도 펼친다. 또 2006년부터 매년 결식아동 40여 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br/><br/> 매년 방학 때마다 돌아오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성령집회는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준다. 봄과 가을에 걸쳐 진행되는 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운다.<br/><br/> 김 목사는 지난 6년 동안 열정을 쏟은 목회 이야기를 최근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부임해서 한 첫 설교 제목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노래’(넥서스 CROSS)다. 지난 11일 오전 KTX를 타고 서울에 온 김 목사는 생애 처음으로 출간한 책을 기자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형통한 날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인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br/><br/>글·사진=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4.txt

제목: 소변 한 방울로 암 진단 가능해진다… 암 발병 여부 95% 적중시켜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310016562881  
본문: 소변 한 방울로 암 발병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규슈대 히로츠 다카아키 박사팀이 체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이용해 암 환자의 소변을 통한 암 발병 여부를 95% 확률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일본 지지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br/><br/> 연구팀은 암 환자 소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점에 착안해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암 환자 24명과 정상인 218명의 소변을 채취해 선충들이 비치된 실험접시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 뒤 선충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실험에 사용된 선충은 주로 위나 식도에 기생하는 아나사키스란 선충으로 몸길이는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개와 비슷한 수준의 후각을 가졌다.<br/><br/> 실험 결과는 극명했다. 선충은 암 환자 23명의 소변에는 가까이 모여든 반면, 정상인 207명의 소변에서는 달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암 환자 여부를 가리는 데 95%의 적중률을 보여준 것이다.<br/><br/> 아나사키스는 증식이 어렵지 않아 상용화되면 암 검진 과정이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위암 식도암 췌장암 등 암 종류는 물론 진행정도에 관계없이 발병 여부를 판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br/><br/> 히로츠 박사는 “<span class='quot0'>소변 한 방울만 검사기관에 보내면 암을 발견할 수 있다</span>”면서 “의료비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상용화될 경우 회당 1000엔(약 9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약 1시간 반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히타치제작소 등과 함께 진단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11일자 미국 학술지 ‘플로스원’에 게재됐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5.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비즈니스가 된 시민단체 저항운동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310016561981  
본문: 사회가 비정부기구(NGO)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지적하고 저항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날 시민단체들의 모습은 어떨까. 세계자연기금(WWF)이 세계에서 알루미늄과 유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코카콜라와, 수잔 코멘 유방암재단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패스트푸드 판매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은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른바 저항운동이 ‘비즈니스’가 됐다는 것, 저자는 ‘운동의 기업화’를 주장한다.<br/><br/> “비정부기구의 구조는 갈수록 기업과 닮은꼴이 되어간다. 재정 확충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에 나서고 프로그램을 키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201쪽)<br/><br/> 이처럼 NGO들의 행동은 점차 무뎌지고 있다. 기업 투자를 받아 캠페인을 벌이고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됐고, 다른 시민단체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마케팅업체를 동원한 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단다. 불편한 진실 위에 책은 세계의 비정부기구들이 어떤 방향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신랄하게 평가한다. 또 ‘운동의 기업화’가 세계 정치 변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종을 울린다. 황성원 옮김.<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④ 삼성서울병원 갑상선센터 정재훈 교수팀] 상담에서 정밀검사까지 원스톱 서비스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010016520857  
본문: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이다. 이 곳에서 하루 분비되는 극미량의 갑상선호르몬이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지배한다.<br/><br/> 갑상선은 또한 우리 몸에서 혹(종양 혹은 결절)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기이기도 하다. 전 인구의 5%가 목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혹을 갖고 있으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이들 두 명중 약 한 명꼴로 갑상선 혹이 발견될 정도다.<br/><br/> 물론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양성 종양이고 약 5%만이 갑상선암에 해당될 뿐이다.<br/><br/>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 설명이다. 갑상선암은 크게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악성 림프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90∼95%가 비교적 성질이 온순하고 진행도 느린 유두암과 여포암이다.<br/><br/> 갑상선암의 경우 흔히 좋은 의사, 좋은 병원까지 찾았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갑상선암의 완치를 기대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조기발견 및 수술과 더불어 경험이 많은 의사와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br/> 삼성서울병원 갑상선센터(센터장 정재훈·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런 점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클리닉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진료 환자 수가 연인원 5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중 갑상선 암 절제수술 환자 수는 연평균 약 800명이다.<br/><br/> 정재훈(55)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내분비외과 김지수(52) 교수를 선두로 김정한(49), 최준호(45) 교수팀의 경우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손기술이 섬세하고 정확하다</span>”고 자랑했다.<br/><br/> 삼성서울병원 갑상선센터를 지키는 의료진은 이들 외에도 더 있다. 내과 쪽의 김선욱(49), 김태혁(36) 교수와 이비인후과 쪽의 백정환(58), 손영익(53), 정한신(48), 정만기(43) 교수팀이 가담하고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에서도 수시로 지원하는 체제다. <br/><br/>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이나 순서 등은 전 세계가 표준화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재발위험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환자 입장에선 병의 진행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br/><br/> 삼성서울병원 갑상선센터는 타 병원 암센터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br/><br/> 첫째, 다른 병원에선 갑상선암 환자를 암병원, 또는 암센터에서 돌본다. 하지만 이곳은 갑상선암과 부인암 환자만큼은 암센터에서 분리, 본원에서 따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br/><br/> 누구든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우울해지기 쉽다. 미래의 삶이 불투명하고 그만큼 불안감이 커서다.<br/><br/>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완치를 기대해도 좋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불치 또는 난치 가능성이 높은 다른 암 환자들을 보고 더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 이 진료체제를 구축하게 됐고 환자들도 아주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전했다. <br/><br/> 현재 정 교수팀의 갑상선 암 환자 10년 평균 생존율은 90∼95%에 이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율이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진료 시 다른 암 환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그 결과 치료 반응도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 둘째, 암 환자를 일반 갑상선질환자와 분리 진료하기 위해 갑상선종양클리닉을 운영한다. 이 클리닉은 주로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만 본다. 따라서 어디서든 암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단순히 혹이 만져진다는 이유만으론 이 클리닉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갑상선종양클리닉에선 상담 진료와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까지 전 진료 과정이 당일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br/><br/> 셋째, 암 유전자 검사를 상설화했다. 갑상선암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발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암 유전자 검사를 보편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다.<br/><br/> 하지만 정 교수팀은 소수이긴 해도 악성도와 재발 위험이 높은 갑상선암을 선별하기 위해 암 유전자 검사를 상시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암 환자에겐 필요 없다 해도 해당 암 환자에겐 자칫 진단이 늦어질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br/><br/> 대표적인 것이 고화질 초음파 및 세침 흡인 검사 상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갑상선 유두암을 최종 확인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BRAF 돌연변이 유전자 선별검사다. 정 교수는 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암세포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단계에서도 유두암 확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br/> 삼성서울병원 갑상선센터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패스트(FAST)클리닉이다.<br/><br/>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려 진단 후 몇 달 뒤 수술한다 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부 암은 성질이 아주 고약해 한시가 급한 경우가 있다. 악성도가 높은 미분화암, 재발암, 원격전이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 교수팀은 이들에게 어김없이 응급환자와 같이 중환자 우선 신속진료 원칙을 적용해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다.<br/><br/><br/><br/>☞정재훈 교수는<br/><br/>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여의도고교(1979)와 서울대 의대(1985)를 거쳐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21년째 갑상선 환자들만 돌본다.<br/><br/>국내에서 순수하게 갑상선학만 전공하는 몇 안 되는 임상의사 중 한 사람이다. 또한 국내선 처음으로 혈청 칼시토닌 측정 및 암 유전자 검사를 도입하는 등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새 지평을 개척해 온 이로 인정받고 있다.<br/><br/>지금이야 갑상선질환 명의로 정평이 나 있지만 그는 사실 의대생 시절 내과보다는 신경외과 쪽 의사가 되기를 더 바랐다고 한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육군 군의관 만기 제대 후 돌아오니 마침 빈자리가 갑상선 분야 밖에 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분비내과를 주 전공으로 삼게 됐다</span>”고 털어놨다.<br/><br/>지난 2000∼2002년 미국 국립보건원 및 오하이오대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갑상선학의 최신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공부했다.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갑상선암센터장과 진료의뢰센터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내분비대사내과장겸 갑상선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한내분비학회 윤리이사(2013∼2014)와 대한갑상선학회 총무·기획이사(2005∼2010)를 거쳐 2011년부터 4년째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7.txt

제목: 女회음부 재건 새 치료법 개발 3차원 구조 피판 이식술 효과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010016520838  
본문: 생식기 암 절제 수술로 손상된 여성의 회음부를 3차원(3D) 구조 피판(皮板) 이식술로 재건해주는 새 치료법이 개발됐다.<br/><br/>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이종원·한현호 교수팀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외음부 또는 질에 종양이 생겨 회음부가 손상된 여성 9명을 대상으로 3차원 구조 회음부 피판 이식술을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br/><br/> 피판이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부위 피부조직의 일부를 말한다. 이 교수팀은 주로 환자들의 사타구니 주름 근처 피부조직을 피판용으로 이용했다.<br/><br/> 여성 회음부 결손은 상피내암, 편평세포암, 유방 외 파젯병(유두 및 유륜에 생기는 상피내암이 여성 생식기에 발생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종양 제거 시 회음부까지 폭넓게 절제해야 하기 때문이다.<br/><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 회음부 재건에 쓰이는 3차원 구조 피판은 날개를 펼친 갈매기 형상과 비슷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피판 공여부도 사타구니 주름 근처여서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수술 후 성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 연구결과는 유럽의 외상 분야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운드 저널’(IWJ) 인터넷판 최신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8.txt

제목: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의학상 수상자에 박종완·이명식 교수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1010016521378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 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br/><br/> 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 김형범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 개발 성과가, 박정열 교수는 복강경 수술로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공로가 각각 높게 평가됐다. 아산의학상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제정했다. <br/><br/> 상금은 기초·임상 부문 수상자 각 3억원이며,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는 5000만원씩이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29.txt

제목: [기획] 나이롱환자 잡으려다… 장기입원 重환자 ‘입원료 폭탄’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0510016481103  
본문: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30∼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입원 환자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예외는 재활치료 환자와 정신과 치료 환자 정도다.<br/><br/>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려는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장기 입원 환자 중에 ‘나이롱환자’를 걸러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지금까지는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를 조금씩 깎아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선택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br/><br/> 하지만 이런 조치는 환자 입장에선 ‘입원료 폭탄’이 된다. 오래 입원한다고 다 나이롱환자는 아니다. 오히려 오래 입원할 수밖에 없는 중증질환자가 훨씬 많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무려 13조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강행해야 하는지 따지는 목소리가 높다.<br/><br/>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최대 8배 ‘껑충’=정부는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5일 입법예고했다. 1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br/><br/> 상급종합병원 5인실 기준으로 살펴보면 입원료는 이렇게 달라진다. 15일 이하로 입원하면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환자가 내야 하는 하루 입원료는 약 9400원이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1만4000원으로 오른다(본인부담률 30% 적용). 31일을 넘기면 1만9000원까지 껑충 뛴다(40% 적용).<br/><br/>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10%를 적용받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본인부담률이 5%인 암 환자는 하루 입원료 부담이 무려 8배까지 뛴다. 암 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에서 16∼30일은 1만4000원, 31일 이상은 1만9000원으로 급증한다.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다.<br/><br/> 복지부는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불가피하게 입원 기간이 길어져도 입원료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장기 입원환자=나이롱환자?’ 행정편의주의=정부는 장기 입원 문제를 손대면서 우리나라 환자의 입원 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기준 OECD 평균 입원 일수는 8.5일인데 우리나라는 14.2일이다.<br/><br/> 오랜 입원은 환자의 선택이기보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환자의 입원 일수를 늘리는 일부 ‘과잉진료’ 행태를 바꾸는 대신 환자에게 ‘경제적 장벽’을 세웠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손쉬운 방법이다.<br/><br/>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병을 고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6일 이상 오래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료를 더 내야 한다. 일부 저소득층은 입원료 부담에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국민 5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했다.<br/><br/> 복막염과 폐렴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45일 동안 입원했던 이모(56·여)씨는 입원비로만 90만원가량을 냈다. 이씨가 8월 이후 같은 기간 입원하면 입원료는 12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오래 입원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span>”며 “<span class='quot1'>환자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 치료받고 있으니 병원비를 더 내라는 건 서민들은 아파도 참으란 소리</span>”라고 말했다.<br/><br/>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곳간에 13조원을 쌓아두고도 정부는 돈 걱정만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2.5%)이 OECD 평균(8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0.txt

제목: 13세 나이에 ‘성경 5독’ 달성 황현성 장로 외손녀 윤혜정양 “외할아버지 따라 성경 다섯 번 완독”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0510016480464  
본문: “<span class='quot0'>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span>”(딤후 3:16)<br/><br/> 2007년 여름 즈음이었다. 성경을 편 황현성(77·수원성림교회 원로) 장로는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인근에 살던 두 외손녀가 떠올랐다. “<span class='quot0'>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한단다.</span>” 당시 각각 10세, 5세였던 외손녀를 설득한 그는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첫째 외손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진도가 술술 나가 중학교 입학 때까지 신·구약을 한 차례 완독했다.<br/><br/> 문제는 둘째 외손녀 윤혜정(13·진안중1)양이었다. 한글을 띄엄띄엄 알고 있던 다섯 살짜리 꼬마는 “할아버지, 성경은 읽어서 뭐해요?”라며 성경 읽는 게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황 장로는 손녀를 집에 데려와 앉은뱅이책상 앞에 앉힌 뒤 또박또박 기도부터 하게 했다. “<span class='quot0'>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span>” <br/><br/> 이렇게 시작된 윤양의 성경읽기는 8년 만에 ‘신·구약 5독 달성’이라는 열매로 이어졌다. 성경 읽기를 지도해온 황 장로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글을 잘 모를 때에는 내가 읽어가는 구절을 볼펜으로 짚어가며 따라오게 했어요. 사람 이름만 500명 넘게 나오는 역대서나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제사 절차 내용들은 어른조차도 포기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걸 읽어내더라고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br/><br/> 하루 한 장, 많으면 여섯 장씩 읽어 내려간 윤양은 창세기를 펴든 지 2년이 지난 2009년 10월 1독에 성공했다. 초등학생이 되자 글 읽는 속도가 붙어 이듬해 12월 2독을 마쳤다. 중간중간 황 장로는 손녀를 위해 어린이용 성경학습 자료를 사다 주면서 성경 읽기에 흥미를 갖게끔 도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능력검정시험(3급) 자격증을 딴 윤양은 5독째부터는 국·한 혼용 성경으로 바꿔 읽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14일 5독 마침표를 찍었다. 처음 시작할 때 거실 벽에 붙여둔 선언문 ‘나의 포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신·구약 성경 5독 달성’을 이뤄내는 순간이었다.<br/><br/> 손녀의 성경 읽기를 지도하던 같은 기간 동안, 황 장로는 신·구약 340독을 돌파했다. 2013년 7월 말 300독을 돌파한 이래 1년6개월여 만에 40차례나 더 읽으며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다. 그것도 오른쪽 눈만으로. 왼쪽은 6년 전쯤 암으로 잃었다. 황 장로는 “어릴 때부터 읽은 성경 읽기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 가문의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br/>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1.txt

제목: 백혈병 투병중인 원성도 불가리아 선교사 “하루 빨리 회복해 집시들 곁으로 가고 싶어요”  
날짜: 2015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0210016413228  
본문: “하나님이 저의 백혈병을 치료해주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불가리아의 집시 사역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불러주시면 더 좋은 곳(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br/><br/> 최근 경기도 수원명성교회 게스트룸에서 만난 원성도(66) 불가리아 선교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천사처럼 평안한 모습이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과연 암 환자가 맞나 하는 놀라움을 안겨줬다.<br/><br/> 하지만 자세히 그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부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를 괴롭히는 병명은 ‘필라델피아 양성 성인 급성 림프성 백혈병’. 오는 16일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백혈병 선고를 받은 후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면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그의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 간호하고 있는 김수자(61) 사모 역시 5년째 뇌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점이다. 그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것도 아는 선교사의 권유로 사모 치료차 잠시 중국을 방문할 때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감사하다는 원 선교사의 고백에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의 진실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br/><br/> 원 선교사는 2004년부터 불가리아에서 집시 사역을 했다.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돌기 좋아하는 집시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사역에 그의 인생을 걸었다. 집시들과 한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음식 의류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놓을 정도였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자 통제하기 힘든 집시들도 마음을 열었다. 이제 집시들은 원 선교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집시 사역 외에도 그는 현지에서 ‘기독세겜총회’ 교단을 세워 소속 교회들을 돌보았다. 원 선교사의 눈물어린 헌신으로 집시촌에 6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이 사역에 동참했다.<br/><br/> 현지와 한국을 오가며 원 선교사를 도왔던 김 사모 역시 불가리아 집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특히 한국에서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보탰다. 뇌종양 발병 후 수면제와 진통제 없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2013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이영훈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뇌종양의 크기가 멈춘 기적을 체험했다. <br/><br/> 원 선교사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5000만원에 육박한 병원비와 수술비다. 또 원 선교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하다.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나와 교회 게스트룸에 머물러 있지만 여건상 계속 남아 있기도 쉽지 않다. 암담한 상황임에도 선교사 부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br/><br/> “<span class='quot0'>하루라도 빨리 몸을 회복해 집시들에게 달려가고 싶다</span>”고 말하는 원 선교사 부부에게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국민 479401-04-135220 김수자·010-3240-5661).<br/><br/>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2.txt

제목: 프로바이오틱스, 왜 열풍인가… 면역력 키우는 효자, 한국형 유산균 복용해야 효력  
날짜: 2015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0210016414360  
본문: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지난달 3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제로 제22회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을 길러주고 아토피, 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도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건강식품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무엇이며, 그 효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br/><br/> <br/><br/>◇주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한 올바른 정보<br/><br/>◇일시= 2015년 2월 3일 오후 3시<br/><br/>◇참석자=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지현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정명준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부회장, 건강전문강사 정혜진 약사<br/><br/>◇진행= 원미연 쿠키건강TV아나운서<br/><br/>◇연출= 정현호 쿠키건강TV PD<br/><br/>◇방송일시= 2015년 3월 3일 오후 6시 20분∼오후 8시(80분)<br/><br/>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엇인가. <br/><br/> △김지현=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이다. 유산균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일부 유산균만을 프로바이오틱스로 분류한다.<br/><br/> △이동호= 장 내에는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몸에 유익한 유산균의 분포가 많아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총칭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프로바이오틱스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데.<br/><br/> △정명준=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생산액은 지난 2013년 804억원으로 55%의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영유아의 면역력 증강,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개선 등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br/><br/>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 유산균의 차이점은?<br/><br/> △김지현= 모든 유산균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로는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 스트렙토코쿠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이 있다. <br/><br/> -학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br/><br/> △김지현=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기까지 100여년간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일부 균주 외에도 더 많은 균주들이 발견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br/><br/> -의학계에서는 자연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이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다는데?<br/><br/> △이동호= 아기는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락토바실러스 등 몸에 좋은 유산균을 갖고 태어난다. 자연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살고 있던 유익균을 물려받는다. 반면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엄마 피부를 절개해 태어나므로 피부를 통해 포도상구균 등의 유해균을 받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 자연분만 아이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후 유익균을 물려받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동안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좋은 균의 양이 점차 줄어든다.<br/><br/> -병원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이 많이 이뤄지는가. 주로 어떤 질환에 사용되나.<br/><br/> △이동호=과민성 장증후군, 크롬병 뿐 아니라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 등에도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다. 증상이 100% 개선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치료 효과는 충분히 의학적으로 입증돼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 등의 신경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앞으로도 그 쓰임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br/><br/>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돼 각종 질병들이 발생한다는데?<br/><br/> △이동호=약 20∼30년 사이에 한국인에서는 거의 없었던 크롬병, 과민성 장증후군, 알레르기, 각종 암 등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로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많이 꼽힌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 내 미생물의 환경이 변했다. 장에서 뿜어내는 각종 염증 물질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인체에 유익한 균이 절실한 이유다. <br/><br/>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장 내 세균과 면역체계의 상관관계는?<br/><br/> △이동호=일종의 전투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사투를 벌인다. 장 안에 유해균이 침범하면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유익균이 적(유해균)들을 쫓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좋은 유산균이 나쁜 균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먹으면 장 속 유해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늦춰지고, 유익균이 활성화돼 면역력이 좋아진다.<br/><br/> △정명준=기능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영유아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의 개선을 돕는다. 또한 유해균에 대한 직접적인 항균활성 등을 통해 건강한 장을 유지시킨다. 마지막으로 대사 활성화다.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영양분을 소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유독물질을 분해하거나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br/><br/> -요즘 약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 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들었다. <br/><br/> △정혜진=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후 빠르면 2∼3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분들도 있다. 우선 변의 색이 달라지고 변비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는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 가려움증이 개선된다는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면역력이 증가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br/><br/> -아이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챙겨 먹여야 하는가?<br/><br/> △정혜진=생후 만 12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아이의 면역체계로 하여금 병원균의 침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이의 면역체계가 균형을 잡고 장내 세균총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므로 반드시 챙겨 주는 것이 좋다. <br/><br/> -약사 입장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하는가?<br/><br/> △정혜진=보통 질병을 갖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건강에 필요한 첫 단추는 ‘장 건강’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안 되듯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3∼5세 아이들에게 아토피 등의 별다른 질환이 없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라고 권한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된 아이들은 감기에 잘 걸린다. 그래서 감기 잘 걸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것을 권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이의 두뇌 발달,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적극 권하는 편이다. <br/><br/>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br/><br/> △정혜진=식약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루 1억∼100억 마리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산 분비가 많을 때 섭취하면 유산균이 많이 죽게 되므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br/> △정명준=약을 복용하면 프로바이오틱스의 90%가 사멸한다. 그러므로 약 복용 후인 4∼6시간 뒤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것을 권한다. <br/><br/>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외국 제품보다는 한국형 유산균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br/><br/> △정명준=한국인에서 적합하게 살아남은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은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10% 이상의 유전자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식습관, 주변환경, 생활환경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유산균이 진화하고 이로 인해 장 내 생육 및 생존 능력에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서양인의 장에서 추출한 유산균의 경우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추, 마늘, 생강 등 향신료가 많은 음식을 먹는 한국인의 장에서 추출한 한국형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을 권한다. <br/><br/> -시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종류가 너무 많다.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br/><br/> △정혜진=수많은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프로바이틱스는 건강증진을 위해 복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먹되,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자. 무엇보다 몸에 유익한 균주가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살피자.<br/><br/> △정명준=유산균은 열과 수분,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제조, 보관, 섭취과정에서 파괴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결건조 과정을 거쳐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저장 안정성과 소화액에 대한 안정성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이중코팅 기술이 필수다. 아무리 탁월한 효능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라도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장까지 도달하는 이중코팅 기술을 보유한 제품을 권한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3.txt

제목: ‘찾아가는 의료제도’ 적극 도입하자  
날짜: 2015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0210016414306  
본문: 독거노인인 김복순(85·가명) 할머니는 현재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육남매인 자녀들이 있으나 자식들 역시 먹고 살기 바빠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인근에 있는 지역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 통증을 참다가 병이 악화돼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간병인 고용이 부담스럽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 의사들이 찾아와 진료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거동이 힘든 말기 암환자나 노인에게는 잠깐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는 것이 누구보다도 버겁다. 이를 위해 환자가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의료진이 환자를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의료제도(일명 왕진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br/> 정부가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가족들이 간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병원 안에서 보호받는 제도여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다. 또 정부가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간병비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다. <br/><br/> 문제는 가족이 있으나 병원을 찾기 어려운 중증질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말기 암환자의 10%는 적절한 통증 조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임종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들 중 상당수는 질병이 악화됐음에도 병원에 제때 들르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대석(사진)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거동이 힘든 환자가 잠깐의 진료를 위해 앰뷸런스까지 불러서 병원으로 힘겹게 오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span>”며 “<span class='quot1'>이것이 왕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span>”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은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하게 제도화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복지도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만 이뤄지며, 의료급여 1종 환자는 의료비가 무료지만 의료기관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br/> '찾아가는 의료제'가 적극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허 교수는 "영국과 같은 왕진제도의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고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는 국민보건제도(National Health Service)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로 국민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간병과 간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br/><br/>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에는 '왕진'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영국은 지역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와 독거노인들을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허 교수는 "의사가 일일이 환자의 집을 다니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사가 환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를 살펴야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r/><br/>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왕진'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잊혀져 가는 제도가 됐다. 과연 이 제도의 부활은 비현실적이고 후진적인 생각일까. 이에 대해 허 교수는 "독거노인이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고, 간병 문제로 가족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책임 부서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는 말뿐"이라며 "고가 장비로 가득 채운 공공병원을 지을 예산, 한 달 약가가 1000만원이 넘는 신약들을 급여화하는 데 들이는 예산을 독거노인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파악하고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4.txt

제목: ‘헬스케어 솔루션 프로젝트’ 우승자 RAIN · Healive, 희귀질환자·가족들 도와줄 새 해법 제시  
날짜: 2015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30210016414385  
본문: “<span class='quot0'>대학원에서 생물정보학을 전공하고 암환자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차세대염기서열결정법(NGS)이라는 융합기술을 이용하면 희귀 질환 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 저희 아이디어의 시발점이었습니다.</span>”<br/><br/> 최성민(서울대학교 생물정보학 석사)씨는 보건정책 전공자, 의사, NGO 등 다양한 배경의 6명의 팀원이 함께하는 RAIN팀을 조직한 공동대표이다. 현재 RAIN팀은 희귀 질환자의 긴 진단 기간, 높은 오진율,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br/><br/> 이들의 아이디어는 차세대염기서열 결정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을 통해 통상적인 유전질환 진단법으로는 명쾌한 진단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진단법을 발전시키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희귀 질환은 7000개 이상이지만, 이 중 국가로부터 진단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질환은 고작 28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br/><br/> RAIN팀의 프로젝트는 최근 아이디어 실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아쇼카 한국이 주최한 ‘Making More Health-헬스케어 솔루션 발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부문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것이다. RAIN 팀은 현재 수십 개의 검사 유전자 수를 약 2만 개로 늘리고, 진단 기간도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포부를 품고, 우승 상금 1000만원을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br/><br/> ‘Making More Health - 헬스케어 솔루션 발굴 프로젝트’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셜이노베이터 발굴 프로젝트’다. 헬스케어 분야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국내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서류 심사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RAIN팀과 더불어, 아이디어 부문 우승자로 Healive팀(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국경민 와 4명)이 선정됐다.<br/><br/> Making More Health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2014년 시작됐지만, 세계적으로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세계 최대의 사회혁신기업가 네트워크 조직인 아쇼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36개 국가에서 Making More Health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60여 명의 Making More Health 펠로우를 발굴 지원해 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사장은 “<span class='quot1'>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척한 우승자들의 아이디어는 매우 놀라웠다</span>”며 “<span class='quot1'>선정된 아이디어들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span>”고 밝혔다.<br/>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5.txt

제목: [월드뷰-박상은] 생명이 첫째입니다  
날짜: 2015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810016413208  
본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어두움과 사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잔인한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아직 다 잠기지 않은 뒤집어진 배를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외치는 우리 자식들의 비명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공범자요 살인방조자일지도 모른다.<br/><br/> 이제 세월호는 2014년 세월 속에 묻히고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펜션 화재사고, 이어지는 어선의 침몰사고, 토막 살해된 주검….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구타로 젊은 청년들이 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어린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으로 생을 일찍 접으며, 아파트 경비원과 실직한 어른들은 마지막 자존감을 침해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1위를 지켜내고 있다.<br/><br/>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야 한다. 안전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도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명제다. 생명은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그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목적적 존재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다.<br/><br/> 한편,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새로운 기술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다음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불임치료, 자신의 입맛대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타입의 정자와 난자를 살 수 있는 세상, 태아세포이식술,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 장기수급이 부족해서 그 대책으로 등장한 뇌사문제,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의 안락사 시비, 복제 양으로 야기된 인간복제 논란, 모두가 의료인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문적인 윤리문제들이다.<br/><br/> 이러한 생명윤리의 이슈들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생명의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세계관은 그 어떤 미약한 인간생명이라도, 가령 중증장애아이든 치매환자든 말기암 환자라도 인간생명이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을 지녔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관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생명은 목적적 존재로서 결코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br/><br/> 반면, 인간생명을 상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관은 인간생명도 질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아이나 치매환자를 낮은 질의 인간생명으로 보며, 이는 필요에 따라 생을 마감함으로 나머지 생명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다수 이익을 위해 소수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간생명이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r/><br/> 과연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소수 인간생명의 가치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며, 쾌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인간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 아래 우리 모두는 속박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br/><br/>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 생명존중헌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생명의 절대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하겠다. 생명존중헌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엄성을 교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만들어지는 안전매뉴얼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사회지도층,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실천해내는 생명존중운동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br/><br/> 2015년 봄 어김없이 새싹은 돋아나며, 생명은 겨울의 동토를 뚫고 강한 생명력을 드러낼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 이 찬란한 2015년 봄, 생명존중헌장이 만들어짐으로 생명존중의 원년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해본다.<br/><br/> □ 이 칼럼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합니다.<br/><br/>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위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6.txt

제목: [월드뷰-박상은] 생명이 첫째입니다  
날짜: 2015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8172022002  
본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어두움과 사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잔인한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아직 다 잠기지 않은 뒤집어진 배를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외치는 우리 자식들의 비명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공범자요 살인방조자일지도 모른다. 이제 세월호는 2014년 세월 속에 묻히고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펜션 화재사고, 이어지는 어선의 침몰사고, 토막 살해된 주검….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구타로 젊은 청년들이 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어린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으로 생을 일찍 접으며, 아파트 경비원과 실직한 어른들은 마지막 자존감을 침해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1위를 지켜내고 있다.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야 한다. 안전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도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명제다. 생명은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그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목적적 존재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다. 한편,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새로운 기술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다음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불임치료, 자신의 입맛대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타입의 정자와 난자를 살 수 있는 세상, 태아세포이식술,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 장기수급이 부족해서 그 대책으로 등장한 뇌사문제,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의 안락사 시비, 복제 양으로 야기된 인간복제 논란, 모두가 의료인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문적인 윤리문제들이다. 이러한 생명윤리의 이슈들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생명의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세계관은 그 어떤 미약한 인간생명이라도, 가령 중증장애아이든 치매환자든 말기암 환자라도 인간생명이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을 지녔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관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생명은 목적적 존재로서 결코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반면, 인간생명을 상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관은 인간생명도 질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아이나 치매환자를 낮은 질의 인간생명으로 보며, 이는 필요에 따라 생을 마감함으로 나머지 생명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다수 이익을 위해 소수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간생명이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소수 인간생명의 가치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며, 쾌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인간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 아래 우리 모두는 속박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 생명존중헌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생명의 절대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하겠다. 생명존중헌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엄성을 교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만들어지는 안전매뉴얼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사회지도층,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실천해내는 생명존중운동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 2015년 봄 어김없이 새싹은 돋아나며, 생명은 겨울의 동토를 뚫고 강한 생명력을 드러낼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 이 찬란한 2015년 봄, 생명존중헌장이 만들어짐으로 생명존중의 원년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해본다. □ 이 칼럼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합니다.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위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7.txt

제목: [사설] 호스피스 건보적용에 보완해야 할 점들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710016400598  
본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보 수가가 적용되면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하루 1만9000원만 내면 된다.<br/><br/> 더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편안한 마무리를 맞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말기 암 환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처치를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을 겪고,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여지가 높아졌다.<br/><br/>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56개 병원 939개에 불과한 호스피스 병상을 대폭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말기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 특히 암 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중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서울의 성모병원 한 곳뿐이다. 지역별 병상 안배도 잘 살펴야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공급 과잉이 되고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 <br/><br/>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입퇴원이 잦은 말기 암 환자의 특성상 병원과 가정의 호스피스 연계는 필수적이다. 가정 호스피스를 엄격히 제한한 암 관리법 개정이 절실하다. <br/><br/> 궁극적으로는 암 이외 질환 말기 환자들에게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대상을 말기 암 환자로 국한한 암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야 겠다. 일본 대만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br/><br/> 우리는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그만큼 ‘죽음의 질’에 대해 더욱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8.txt

제목: [사설] 호스피스 건보적용에 보완해야 할 점들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7114120001  
본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보 수가가 적용되면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하루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편안한 마무리를 맞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말기 암 환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처치를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을 겪고,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여지가 높아졌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56개 병원 939개에 불과한 호스피스 병상을 대폭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말기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 특히 암 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중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서울의 성모병원 한 곳뿐이다. 지역별 병상 안배도 잘 살펴야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공급 과잉이 되고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입퇴원이 잦은 말기 암 환자의 특성상 병원과 가정의 호스피스 연계는 필수적이다. 가정 호스피스를 엄격히 제한한 암 관리법 개정이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암 이외 질환 말기 환자들에게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대상을 말기 암 환자로 국한한 암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야 겠다. 일본 대만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그만큼 ‘죽음의 질’에 대해 더욱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39.txt

제목: 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610016388913  
본문: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연명치료 대신 편안히 임종을 맞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25일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1만5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한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특징은 하루 진료비가 미리 정해진다는 점이다.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음악·미술 요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당정액’ 방식이다. <br/><br/> 물론 병원급별로 몇인실인지에 따라 기본수가 차이는 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신장 투석, 마약성 진통제 등 고가의 통증관리 등은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br/><br/> 시뮬레이션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 가족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숨진 말기 난소암 환자 A씨(58·여)는 51일간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생제·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연명치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총 2396만4230원이 나왔고, A씨 가족은 법정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327만5324원을 냈다. 만약 A씨가 7월 이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명치료 없이 죽음을 맞았다면 가족의 부담은 약 4분의 1인 81만4906원으로 줄어든다.<br/><br/>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도 급여화된다. 일정 자격의 도우미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7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모두 56곳이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0.txt

제목: 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6114043002  
본문: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연명치료 대신 편안히 임종을 맞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1만5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한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특징은 하루 진료비가 미리 정해진다는 점이다.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음악·미술 요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당정액’ 방식이다. 물론 병원급별로 몇인실인지에 따라 기본수가 차이는 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신장 투석, 마약성 진통제 등 고가의 통증관리 등은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 가족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숨진 말기 난소암 환자 A씨(58·여)는 51일간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생제·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연명치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총 2396만4230원이 나왔고, A씨 가족은 법정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327만5324원을 냈다. 만약 A씨가 7월 이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명치료 없이 죽음을 맞았다면 가족의 부담은 약 4분의 1인 81만4906원으로 줄어든다.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도 급여화된다. 일정 자격의 도우미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7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모두 56곳이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1.txt

제목: 장애도 가난도… ‘배움의 꿈’ 못 막았다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6171741001  
본문: 골형성부전증. 정재은(33·여)씨가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는 희귀병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부러진다. 혼자서는 서 있거나 걷기도 버겁다. 정씨도 몸이 자라면서 얇은 철심을 뼈 옆에 삽입하는 수술을 15차례나 받았다. 장애 탓에 열 살에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출석일수를 채우려고 깁스를 한 채 힘들게 졸업했다. 중학교 진학은 포기했다. 대신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더 배우고 싶다’는 정씨의 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005년 정씨는 첫발을 뗐다. 25세의 나이로 한국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했다. 석사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겪는 법적 문제를 공부한 정씨는 박사과정 진학과 동시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도 함께 병행했다. 한 학기에 법학 12학점, 사회복지학 12학점을 수강하는 강행군이었다.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현재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법·사회보장법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정씨는 “<span class='quot0'>법학과 사회복지학을 접목해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span>”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수여식’을 열고 정씨를 비롯한 학생 11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과 사회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 전문대·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고, 독학학위제를 통해서는 4차례 시험을 본 뒤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외에도 골육종(뼈에 생기는 암)과 가난을 이기고 시나리오 게임기획자를 꿈꾸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취득한 이대수(27)씨와 독학학위제로 24년 만에 학위를 딴 공무원 현수환(52)씨, 2009년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를 딴 채신아(43·여)씨가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선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2만9813명과 독학학위제 학습자 1358명 등 모두 3만1171명이 학위를 취득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2.txt

제목: 장애도 가난도… ‘배움의 꿈’ 못 막았다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610016388873  
본문: 골형성부전증. 정재은(33·여)씨가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는 희귀병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부러진다. 혼자서는 서 있거나 걷기도 버겁다. 정씨도 몸이 자라면서 얇은 철심을 뼈 옆에 삽입하는 수술을 15차례나 받았다. 장애 탓에 열 살에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출석일수를 채우려고 깁스를 한 채 힘들게 졸업했다. 중학교 진학은 포기했다. 대신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더 배우고 싶다’는 정씨의 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br/><br/> 2005년 정씨는 첫발을 뗐다. 25세의 나이로 한국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했다. 석사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겪는 법적 문제를 공부한 정씨는 박사과정 진학과 동시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도 함께 병행했다. 한 학기에 법학 12학점, 사회복지학 12학점을 수강하는 강행군이었다.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br/><br/> 현재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법·사회보장법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정씨는 “<span class='quot0'>법학과 사회복지학을 접목해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 교육부는 25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수여식’을 열고 정씨를 비롯한 학생 11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과 사회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 전문대·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고, 독학학위제를 통해서는 4차례 시험을 본 뒤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외에도 골육종(뼈에 생기는 암)과 가난을 이기고 시나리오 게임기획자를 꿈꾸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취득한 이대수(27)씨와 독학학위제로 24년 만에 학위를 딴 공무원 현수환(52)씨, 2009년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를 딴 채신아(43·여)씨가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선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2만9813명과 독학학위제 학습자 1358명 등 모두 3만1171명이 학위를 취득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3.txt

제목: [겨자씨] 굿바이, 수명 다한 노후 원전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610016388865  
본문: 27일 부산 고리원전 홍보관 앞에서는 ‘제3회 탈핵주일 연합예배’를 드린다.<br/><br/>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일본은 이제 100만명 이상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한국 땅에도 23개의 핵발전소가 있다.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위험수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는 탈핵을 결정하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핵 발전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천상과 지상의 운행법칙과 자연법칙을 결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엿볼 수 있다.<br/><br/> “<span class='quot0'>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span>”(욥 38:31∼33)<br/><br/> 이 시대의 아마겟돈이자, 계속되는 ‘홀로코스트’(몽땅 불태워진 희생물)인 후쿠시마와 같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이 땅에 비극으로 임하지 않게 하소서. <br/><br/>최병학 목사(남부산용호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4.txt

제목: [겨자씨] 굿바이, 수명 다한 노후 원전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6171740001  
본문: 27일 부산 고리원전 홍보관 앞에서는 ‘제3회 탈핵주일 연합예배’를 드린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일본은 이제 100만명 이상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한국 땅에도 23개의 핵발전소가 있다.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위험수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는 탈핵을 결정하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핵 발전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천상과 지상의 운행법칙과 자연법칙을 결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엿볼 수 있다. “<span class='quot0'>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span>”(욥 38:31∼33) 이 시대의 아마겟돈이자, 계속되는 ‘홀로코스트’(몽땅 불태워진 희생물)인 후쿠시마와 같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이 땅에 비극으로 임하지 않게 하소서. 최병학 목사(남부산용호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② 국제성모병원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0016365707  
본문: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 이 약도 안 듣고, 저 약도 안 듣고….”<br/><br/> 암 환자들이 말기에 이르게 됐을 때 주치의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다. 천길 높이 절벽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거나 반대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는 절망적인 상황. 환자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 눈앞이 캄캄했다”고 회고한다.<br/><br/> 대부분 암이 다른 장기로 옮겨붙은 ‘전이암’ 환자이거나 없어진 줄 알았던 암이 몇 년도 안 돼 다시 나타나는 ‘재발암’,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발생한 ‘이차암’으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환자들이다.<br/><br/> 결국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 나서거나 근거가 희박한 줄 알면서도 민간요법에 의지하기 일쑤다. 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에서 나오는 행동일 것이다.<br/><br/> 과연 이들을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일까. 인천가톨릭의료원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전이·재발암, 이차암 등으로 말기에 이르러 오갈 데 없어진 환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강조한다.<br/><br/> 천주교인천교구가 지난해 2월 인천 서구 심곡로 소재 국제성모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 내 전문병원으로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원장 이종두)을 설립, 1년째 운영한 이유다.<br/><br/> ◇말기 암 환자의 지친 심신 달래주는 곳=암 환자들의 진단 후 삶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별된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완치돼 사회복귀에 성공하거나, 치료에 실패해 제도권 밖 민간요법 등으로 자가 치료를 도모하다 고통 속에 숨지는 경우다.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이중 후자 유형의 환자를 돕는 국내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다.<br/><br/> “<span class='quot0'>암 진단 후 수술을 목전에 둔 환자, 수술 후 추가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 수술을 앞둔 조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및 전이 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진행 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고통 없는 치료를 추구한다.</span>”<br/><br/>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이종두(60) 원장의 말이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고통 없는 암 치료를 모토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성격의 의학적 치료는 물론 한의학과 각종 보완대체의학 및 영적(정신적) 치료까지 망라한 통합의료를 시도해 암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br/><br/> 우리나라의 조기 암 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진행단계가 3기 이상인 전이·재발암 환자의 경우 치료 종결 후 5년 생존율이 19%에 그친다. 뒤늦게 발견된 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돼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고, 그만큼 완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br/><br/> 그러나 이 원장은 “전이·재발암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암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가져다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br/><br/> 방법은 통합의료를 통해 구현된다. 통합의료란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암식이·영양과 등 각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적의 환자 개인맞춤 처방을 찾아내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br/><br/> 이를 위해 라운지 형태의 통합진료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4월 초에는 암 환자 교육훈련 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br/><br/> ◇암 환자들 관심 많은 한의학 접목 통합의료 눈길=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국내 대형 암병원과 암센터가 경원시하는 한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양·한방 통합의료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통 한의학이 발전시킨 천연약용식물(약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암기능식단 개발에 온힘을 다해 주목받고 있다.<br/><br/>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우리 병원을 찾는 전이·재발 암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십중팔구는 한방치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환자의 목마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줄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 항암성분을 많이 함유한 갖가지 식물을 원내 특용작물 농장에서 직접 재배, 환자에게 매끼 제공하는 항암기능 유기농채소 식이요법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매주 월요일 오전 한의사 3명이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 정례회의 때 과학적 근거 찾기 및 검증 작업을 일상화한 것도 마찬가지다.<br/><br/>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이를 ‘2015 암 환자의 영양관리 지침’으로 엮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고, 유효성분이 분자생물학적으로 기존 항암제와 유사한 구조인 강황, 녹차 등 15가지 항암기능식품도 포함됐다.<br/><br/>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연구결과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되 단백질과 지방질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 ‘저탄수화물 고칼로리 다이어트’가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천연약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 한의학 이론과 현대 임상식이영양학을 이상적으로 조합해 암의 진행을 늦추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개발하고 있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명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② 국제성모병원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71413001  
본문: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 이 약도 안 듣고, 저 약도 안 듣고….” 암 환자들이 말기에 이르게 됐을 때 주치의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다. 천길 높이 절벽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거나 반대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는 절망적인 상황. 환자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 눈앞이 캄캄했다”고 회고한다. 대부분 암이 다른 장기로 옮겨붙은 ‘전이암’ 환자이거나 없어진 줄 알았던 암이 몇 년도 안 돼 다시 나타나는 ‘재발암’,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발생한 ‘이차암’으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환자들이다. 결국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 나서거나 근거가 희박한 줄 알면서도 민간요법에 의지하기 일쑤다. 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에서 나오는 행동일 것이다. 과연 이들을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일까. 인천가톨릭의료원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전이·재발암, 이차암 등으로 말기에 이르러 오갈 데 없어진 환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주교인천교구가 지난해 2월 인천 서구 심곡로 소재 국제성모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 내 전문병원으로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원장 이종두)을 설립, 1년째 운영한 이유다. ◇말기 암 환자의 지친 심신 달래주는 곳=암 환자들의 진단 후 삶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별된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완치돼 사회복귀에 성공하거나, 치료에 실패해 제도권 밖 민간요법 등으로 자가 치료를 도모하다 고통 속에 숨지는 경우다.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이중 후자 유형의 환자를 돕는 국내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span class='quot0'>암 진단 후 수술을 목전에 둔 환자, 수술 후 추가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 수술을 앞둔 조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및 전이 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진행 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고통 없는 치료를 추구한다.</span>”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이종두(60) 원장의 말이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고통 없는 암 치료를 모토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성격의 의학적 치료는 물론 한의학과 각종 보완대체의학 및 영적(정신적) 치료까지 망라한 통합의료를 시도해 암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조기 암 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진행단계가 3기 이상인 전이·재발암 환자의 경우 치료 종결 후 5년 생존율이 19%에 그친다. 뒤늦게 발견된 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돼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고, 그만큼 완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원장은 “전이·재발암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암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가져다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방법은 통합의료를 통해 구현된다. 통합의료란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암식이·영양과 등 각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적의 환자 개인맞춤 처방을 찾아내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라운지 형태의 통합진료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4월 초에는 암 환자 교육훈련 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암 환자들 관심 많은 한의학 접목 통합의료 눈길=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국내 대형 암병원과 암센터가 경원시하는 한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양·한방 통합의료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통 한의학이 발전시킨 천연약용식물(약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암기능식단 개발에 온힘을 다해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우리 병원을 찾는 전이·재발 암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십중팔구는 한방치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환자의 목마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줄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항암성분을 많이 함유한 갖가지 식물을 원내 특용작물 농장에서 직접 재배, 환자에게 매끼 제공하는 항암기능 유기농채소 식이요법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매주 월요일 오전 한의사 3명이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 정례회의 때 과학적 근거 찾기 및 검증 작업을 일상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이를 ‘2015 암 환자의 영양관리 지침’으로 엮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고, 유효성분이 분자생물학적으로 기존 항암제와 유사한 구조인 강황, 녹차 등 15가지 항암기능식품도 포함됐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연구결과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되 단백질과 지방질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 ‘저탄수화물 고칼로리 다이어트’가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천연약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 한의학 이론과 현대 임상식이영양학을 이상적으로 조합해 암의 진행을 늦추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개발하고 있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이종두 원장은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71414001  
본문: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를 거쳐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1987년부터 연세대 의대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 교수로 일했다. 지난해 가을 가톨릭관동대 의대로 일터를 옮겼다. 가톨릭 전이·재발암병원장이란 중책을 맡아서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 기능 식이요법을 발전시켜 암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고 싶어 이직을 결심했다</span>”고 털어놨다. 이 원장은 연세대 의대 영상의학과 이종태 교수팀 및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팀과 함께 1994년 피부암과 간암 치료에 효과적인 방사성동위원소 홀미움 패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1997년에는 스텐트(금속성 그물망)에 홀미움 패치를 붙인 뒤 식도가 좁아져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식도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신기술도 개발했다. 식도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 스텐트 삽입술’이다. 이 공로로 유한의학상(1995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1996·2006년), 제1회 대한핵의학회 학술상(2011년) 등을 수상했다. 그동안 대한핵의학회 보험위원장과 대한뇌기능매핑학회장을 역임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이종두 원장은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0016365792  
본문: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를 거쳐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1987년부터 연세대 의대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 교수로 일했다. 지난해 가을 가톨릭관동대 의대로 일터를 옮겼다. 가톨릭 전이·재발암병원장이란 중책을 맡아서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 기능 식이요법을 발전시켜 암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고 싶어 이직을 결심했다</span>”고 털어놨다.<br/><br/> 이 원장은 연세대 의대 영상의학과 이종태 교수팀 및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팀과 함께 1994년 피부암과 간암 치료에 효과적인 방사성동위원소 홀미움 패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br/><br/> 1997년에는 스텐트(금속성 그물망)에 홀미움 패치를 붙인 뒤 식도가 좁아져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식도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신기술도 개발했다. 식도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 스텐트 삽입술’이다. 이 공로로 유한의학상(1995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1996·2006년), 제1회 대한핵의학회 학술상(2011년) 등을 수상했다. 그동안 대한핵의학회 보험위원장과 대한뇌기능매핑학회장을 역임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49.txt

제목: [미션&피플] 시각장애인 서원선 박사 “국내 대학 강단서 장애인 멘토 역할”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71431001  
본문: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텍사스 주정부 재활상담사로 활동했던 서원선(38·평촌진리사랑교회) 박사. 그는 요즘 새로운 의욕과 기대에 차 있다. 오는 3월부터 경기도 용인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대학원(웨신) 글로벌재활상담과정 특임교수로 임명돼 강단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미 텍사스 오스틴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박사(재활상담학) 학위를 받은 그는 주정부 재활상담사로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강단에 서기까지 긴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서 박사는 중도실명자다. 7세 때 앓은 홍역으로 시력이 약해진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신경 위축’으로 빛을 잃었다. 2남 중 둘째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서 박사가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2003년 미국 유학을 떠나기까지 매일 옆에서 보살펴 주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맹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교과서를 읽어주고 노트도 정리해 주시고 수업 내용까지 녹음해 복습하게 하셨지요.” 서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 간 후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으나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숨기다 임종 직전에야 알렸다. 어머니의 나이 50세,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붙잡고 서 박사는 울고 또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지만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 늘 전화로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은 공부에 있어 장애인이라고 봐주는 게 없었다. 강의를 녹음해 다시 듣고 참고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쓰는 일은 비장애인의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다.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처리해야 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 짐을 몇 번이나 싸기도 했다. “이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신앙입니다. 현지 한인교회 교인들이 돌아가며 저의 통학을 도와주고 반찬도 만들어주는 등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병까지 숨기며 격려해준 어머니를 떠올리면 다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곤 했어요.” 서 박사는 ‘장애인 재활’을 공부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아직 음지에 있는 많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도우라는 사명으로 인식, 안정된 미국 직장을 뒤로하고 2010년 귀국을 결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4년간 직장을 찾아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으나 시각장애인은 학생을 가르칠 수도, 업무도 보기 힘들다는 것이 모두의 선입견이었다. “8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은 것이 한국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런 저를 나사렛대 부총장인 김종인 박사님이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일하도록 주선해 주셨지요. 이것이 발판이 되어 이제 대학 강단에 서게 됐으니 제 꿈이 반쯤 이뤄진 셈입니다.” 한국의 어느 곳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방황할 때 서 박사를 소리 없이 도와준 천사 같은 자매가 있었다. 교회서 만난 방과후 교사 길은영(31)씨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결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올해 제가 아버지가 됩니다. 더구나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게 돼 감사의 조건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력은 안 주셨지만 대신 청각과 후각, 영감을 발달시켜 주셨습니다. 장애는 고난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서 박사는 웨신에 신설된 ‘글로벌재활상담 및 선교석사학위 과정’에서 모두 영어로만 강의할 예정이다. 웨신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재활’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머니의 헌신과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사랑, 멘토가 돼준 김종인 박사가 안 계셨으면 자신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겸손해 하는 서 박사. 그는 “많은 분에게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은 나처럼 갈 길을 못 찾던 장애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일일 것”이라며 “앞으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0.txt

제목: [미션&피플] 시각장애인 서원선 박사 “국내 대학 강단서 장애인 멘토 역할”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0016366169  
본문: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텍사스 주정부 재활상담사로 활동했던 서원선(38·평촌진리사랑교회) 박사. 그는 요즘 새로운 의욕과 기대에 차 있다. 오는 3월부터 경기도 용인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대학원(웨신) 글로벌재활상담과정 특임교수로 임명돼 강단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br/><br/> 미 텍사스 오스틴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박사(재활상담학) 학위를 받은 그는 주정부 재활상담사로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강단에 서기까지 긴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br/><br/> 서 박사는 중도실명자다. 7세 때 앓은 홍역으로 시력이 약해진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신경 위축’으로 빛을 잃었다. 2남 중 둘째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서 박사가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2003년 미국 유학을 떠나기까지 매일 옆에서 보살펴 주었다.<br/><br/>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맹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교과서를 읽어주고 노트도 정리해 주시고 수업 내용까지 녹음해 복습하게 하셨지요.”<br/><br/> 서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 간 후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으나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숨기다 임종 직전에야 알렸다. 어머니의 나이 50세,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붙잡고 서 박사는 울고 또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지만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 늘 전화로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br/><br/> 미국 대학은 공부에 있어 장애인이라고 봐주는 게 없었다. 강의를 녹음해 다시 듣고 참고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쓰는 일은 비장애인의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다.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처리해야 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 짐을 몇 번이나 싸기도 했다.<br/><br/> “이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신앙입니다. 현지 한인교회 교인들이 돌아가며 저의 통학을 도와주고 반찬도 만들어주는 등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병까지 숨기며 격려해준 어머니를 떠올리면 다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곤 했어요.”<br/><br/> 서 박사는 ‘장애인 재활’을 공부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아직 음지에 있는 많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도우라는 사명으로 인식, 안정된 미국 직장을 뒤로하고 2010년 귀국을 결심했다.<br/><br/>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4년간 직장을 찾아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으나 시각장애인은 학생을 가르칠 수도, 업무도 보기 힘들다는 것이 모두의 선입견이었다.<br/><br/> “8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은 것이 한국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런 저를 나사렛대 부총장인 김종인 박사님이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일하도록 주선해 주셨지요. 이것이 발판이 되어 이제 대학 강단에 서게 됐으니 제 꿈이 반쯤 이뤄진 셈입니다.”<br/><br/> 한국의 어느 곳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방황할 때 서 박사를 소리 없이 도와준 천사 같은 자매가 있었다. 교회서 만난 방과후 교사 길은영(31)씨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결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br/><br/> “올해 제가 아버지가 됩니다. 더구나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게 돼 감사의 조건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력은 안 주셨지만 대신 청각과 후각, 영감을 발달시켜 주셨습니다. 장애는 고난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br/><br/> 영어 실력이 뛰어난 서 박사는 웨신에 신설된 ‘글로벌재활상담 및 선교석사학위 과정’에서 모두 영어로만 강의할 예정이다. 웨신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재활’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br/><br/> 어머니의 헌신과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사랑, 멘토가 돼준 김종인 박사가 안 계셨으면 자신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겸손해 하는 서 박사. 그는 “많은 분에게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은 나처럼 갈 길을 못 찾던 장애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일일 것”이라며 “앞으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1.txt

제목: [헬스 파일] 흡연자의 필수 건강검진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0016365743  
본문: 흡연은 일반인이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생겼거나 흡연을 하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것이 검진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br/><br/> 흡연자는 어떤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 일단 기본 검진은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심혈관계 위험인자(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이나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뿐 아니라 흡연자라면 더 철저히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다.<br/><br/> 흡연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검진 중에는 폐암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간 흡연을 한 사람은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통해 폐암에 의한 사망위험을 20%, 전체 사망률을 7% 낮출 수 있다.<br/><br/>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PSTF)가 2013년 “55세에서 80세까지 30갑년(1갑씩 30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며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매년 저선량 흉부CT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br/><br/> 흡연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 이 역시 관상동맥 CT촬영이나 뇌MRI·MRA,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며 담배도 오랜 기간 피웠다면 관상동맥 CT검진이 필요하다. 심장혈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다.<br/><br/> 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연자에게 가장 좋은 건강증진 방법은 금연 실천이다.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금연 결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흡연이 단순한 건강습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일 것이다.<br/><br/> 최근에는 금연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약물이 다양하게 등장해 금연생활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담뱃값이 대폭 오르자 “반드시 의지로 끊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찾아 금연 상담을 받도록 하자.<br/><br/> 정부는 25일부터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br/><br/>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2.txt

제목: [헬스 파일] 흡연자의 필수 건강검진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4171413002  
본문: 흡연은 일반인이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생겼거나 흡연을 하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것이 검진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자는 어떤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 일단 기본 검진은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심혈관계 위험인자(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이나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뿐 아니라 흡연자라면 더 철저히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다. 흡연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검진 중에는 폐암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간 흡연을 한 사람은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통해 폐암에 의한 사망위험을 20%, 전체 사망률을 7% 낮출 수 있다.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PSTF)가 2013년 “55세에서 80세까지 30갑년(1갑씩 30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며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매년 저선량 흉부CT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흡연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 이 역시 관상동맥 CT촬영이나 뇌MRI·MRA,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며 담배도 오랜 기간 피웠다면 관상동맥 CT검진이 필요하다. 심장혈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연자에게 가장 좋은 건강증진 방법은 금연 실천이다.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금연 결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흡연이 단순한 건강습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금연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약물이 다양하게 등장해 금연생활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담뱃값이 대폭 오르자 “반드시 의지로 끊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찾아 금연 상담을 받도록 하자. 정부는 25일부터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3.txt

제목: [신간] ‘알로에 면역혁명’ 전문가 연구성과 쉽게 해설… 알로에 놀라운 효능 재조명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71322001  
본문: 건강 관련 기자로 일하면서 천연물을 사용한 건강 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온 김경화씨가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는 ‘알로에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알로에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에서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CAP은 1993년 출범한 연구 조직으로 현재까지 14개 대학, 100여명의 교수와 연구진이 참가 총 15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된 거대 프로젝트로 알로에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앞서왔다. 저자는 웰니스 시대에 만성질환으로 달라진 질병 패턴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주요 효능으로 △면역력 증강(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 연구) △체지방 감소 △당뇨 증세 개선(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비를 막는 알로에 당단백)을 연구자들의 상세한 인터뷰와 함께 제시했다. 김경화 작가는 “알로에는 과거 피부 건강과 장 건강에 좋은 천연식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알로에가 면역력 증강과 면역 조절 기능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책을 통해 알로에가 노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은 물론, 대사성 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로에가 새롭게 재조명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4.txt

제목: [신간] ‘알로에 면역혁명’ 전문가 연구성과 쉽게 해설… 알로에 놀라운 효능 재조명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0016355336  
본문: 건강 관련 기자로 일하면서 천연물을 사용한 건강 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온 김경화씨가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는 ‘알로에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br/><br/> 저자는 알로에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에서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CAP은 1993년 출범한 연구 조직으로 현재까지 14개 대학, 100여명의 교수와 연구진이 참가 총 15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된 거대 프로젝트로 알로에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앞서왔다.<br/><br/> 저자는 웰니스 시대에 만성질환으로 달라진 질병 패턴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알로에 면역다당체의 주요 효능으로 △면역력 증강(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 연구) △체지방 감소 △당뇨 증세 개선(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비를 막는 알로에 당단백)을 연구자들의 상세한 인터뷰와 함께 제시했다.<br/><br/> 김경화 작가는 “알로에는 과거 피부 건강과 장 건강에 좋은 천연식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알로에가 면역력 증강과 면역 조절 기능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책을 통해 알로에가 노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은 물론, 대사성 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로에가 새롭게 재조명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br/> 조규봉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5.txt

제목: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0016355253  
본문: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권을 따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개원 기념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라스 알 카이마 통치자인 셰이크 사우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 등이 참석했다.<br/><br/> 두바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 떨어진 라스 알 카이마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이다. 암·심장질환·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UAE 왕립병원을 5년간 운영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이 병원에는 한국 의료진 170명이 근무 중이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6.txt

제목: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13832001  
본문: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권을 따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개원 기념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라스 알 카이마 통치자인 셰이크 사우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바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 떨어진 라스 알 카이마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이다. 암·심장질환·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UAE 왕립병원을 5년간 운영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이 병원에는 한국 의료진 170명이 근무 중이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7.txt

제목: [인터뷰] 건강 챙겨주는 주스 카페 첫 개설…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 운영 박정률 대표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71331001  
본문: 국내 대표적인 주서(juicer)기 제조업체 ‘휴롬’이 휴롬주스 카페 ‘휴롬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인 주스카페 시장을 열고 있다. 박정률 휴롬팜 대표를 만나 휴롬팜의 경영 철학과 주스 카페 산업의 비전을 들었다.-휴롬이 주스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주서기 업체가 주스 카페를 만든 건 휴롬이 국내 최초다. 휴롬 제품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휴롬으로 만든 주스를 마셔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 제품의 우수성과 가치가 집약된 곳이 바로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이다. 우리 주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 휴롬팜을 열었고 국내 최초의 주스 바가 됐다. 휴롬팜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스 바가 많이 생겨나면서 주스에 대한 인식도 기존 인스턴트 음료에서 건강한 음료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휴롬팜이 다른 주스 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주스의 맛, 영양, 건강 세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다. 휴롬주스는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 3가지 요소의 가장 이상적 조합을 찾아 끊임없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맛과 영양을 최적화시킨 다양한 메뉴가 가능한 이유는 휴롬의 영양분석실에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휴롬팜을 4년간 운영, 100% 홈메이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첨가물도 일체 넣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즉석에서 착즙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주스는 12시간 안에 마셔야 가장 신선한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다. 휴롬이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12시간 유통법칙은 휴롬 만의 약속이다. 보존료나 첨가료를 일절 넣지 않아 냉장 시 최대 48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과정을 거쳐 색이 변하고 영양소 파괴가 이뤄지기 때문에 빨리 마실수록 더 신선한 자연 효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휴롬은 주스가 완성되면 하단에 파이토스(Phytos, 과일·채소 전문가로 6개월의 전문 교육과정과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의 이름과 날짜, 시간을 수기로 기입하고 12시간 후 전량 폐기한다. -최근 ‘클렌즈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휴롬 클렌즈 프로그램은 휴롬팜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다. 암 발생 원인 1위는 식습관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음식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휴롬은 그동안 체내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주스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이 클렌즈 프로그램이다.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phyto),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의 합성어로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천연 생체 활성화합물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 색깔을 5가지로 나눈 뒤,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5병의 주스에 담았다. 개인의 체질에 맞는 메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생체 리듬에 따른 음용시간 등을 고려해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전문 영양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게 주스도 선택할 수 있다. -해외 시장 전망은 어떤가?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 방콕, 미국, 유럽 등에서 휴롬주스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베트남에서 이미 완료했고 다른 국가들도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휴롬주스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소비자에게 건강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휴롬 브랜드로 ‘시장을 이렇게 바꾸겠다’하는 목표가 있다면? △현대인에게는 다양한 식습관이 존재한다. 또 그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와 브랜드가 공존한다. 휴롬은 그 중에서도 올바른 먹거리와 식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정보력을 키운다. 때문에 채소, 과일의 가치를 좀더 정직하게 알리고 식습관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시장의 리더가 되고 싶다.김진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8.txt

제목: [인터뷰] 건강 챙겨주는 주스 카페 첫 개설…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 운영 박정률 대표  
날짜: 2015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2310016355349  
본문: 국내 대표적인 주서(juicer)기 제조업체 ‘휴롬’이 휴롬주스 카페 ‘휴롬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인 주스카페 시장을 열고 있다. 박정률 휴롬팜 대표를 만나 휴롬팜의 경영 철학과 주스 카페 산업의 비전을 들었다.<br/><br/><br/><br/>-휴롬이 주스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는?<br/><br/> △주서기 업체가 주스 카페를 만든 건 휴롬이 국내 최초다. 휴롬 제품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휴롬으로 만든 주스를 마셔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 제품의 우수성과 가치가 집약된 곳이 바로 휴롬 주스 카페 ‘휴롬팜’이다. 우리 주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 휴롬팜을 열었고 국내 최초의 주스 바가 됐다. 휴롬팜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스 바가 많이 생겨나면서 주스에 대한 인식도 기존 인스턴트 음료에서 건강한 음료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br/><br/> -휴롬팜이 다른 주스 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br/><br/> △주스의 맛, 영양, 건강 세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다. 휴롬주스는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 3가지 요소의 가장 이상적 조합을 찾아 끊임없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br/><br/> 이렇게 맛과 영양을 최적화시킨 다양한 메뉴가 가능한 이유는 휴롬의 영양분석실에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휴롬팜을 4년간 운영, 100% 홈메이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첨가물도 일체 넣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즉석에서 착즙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br/><br/> 주스는 12시간 안에 마셔야 가장 신선한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다. 휴롬이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br/><br/> -12시간 유통법칙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br/><br/> △12시간 유통법칙은 휴롬 만의 약속이다. 보존료나 첨가료를 일절 넣지 않아 냉장 시 최대 48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과정을 거쳐 색이 변하고 영양소 파괴가 이뤄지기 때문에 빨리 마실수록 더 신선한 자연 효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휴롬은 주스가 완성되면 하단에 파이토스(Phytos, 과일·채소 전문가로 6개월의 전문 교육과정과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의 이름과 날짜, 시간을 수기로 기입하고 12시간 후 전량 폐기한다.<br/><br/> -최근 ‘클렌즈 프로그램’을 출시했다.<br/><br/> △휴롬 클렌즈 프로그램은 휴롬팜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다. 암 발생 원인 1위는 식습관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음식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휴롬은 그동안 체내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주스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이 클렌즈 프로그램이다. <br/><br/>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phyto),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의 합성어로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천연 생체 활성화합물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 색깔을 5가지로 나눈 뒤,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5병의 주스에 담았다.<br/><br/> 개인의 체질에 맞는 메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생체 리듬에 따른 음용시간 등을 고려해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전문 영양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게 주스도 선택할 수 있다.<br/><br/> -해외 시장 전망은 어떤가?<br/><br/>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 방콕, 미국, 유럽 등에서 휴롬주스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베트남에서 이미 완료했고 다른 국가들도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휴롬주스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소비자에게 건강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br/><br/> -휴롬 브랜드로 ‘시장을 이렇게 바꾸겠다’하는 목표가 있다면?<br/><br/> △현대인에게는 다양한 식습관이 존재한다. 또 그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와 브랜드가 공존한다. 휴롬은 그 중에서도 올바른 먹거리와 식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정보력을 키운다. 때문에 채소, 과일의 가치를 좀더 정직하게 알리고 식습관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시장의 리더가 되고 싶다.<br/><br/>김진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5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① 서울대암병원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0016333980  
본문: 전문병원, 전문센터 전성시대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해도 111개에 이르고,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진료과를 못 찾아 병원을 헤매는 환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는 물론 진료 대기 중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 복도에 좋은 그림을 전시하는 병원도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의사)을 '명의&인의를 찾아서 주목! 이 클리닉'이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첫 회는 최근 혈액종양내과 김태유(54) 교수를 새 병원장으로 선임한 서울대암병원이다.<br/><br/>서울대암병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아 맞춤형 암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상연구 및 IT기술을 활용해 누구든지 편하게 믿고 선택하는 암 환자 친화 병원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br/><br/>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은 16일 “<span class='quot0'>암 정복의 길을 창조하는 연구중심병원, 암 진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 암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노동영(59) 초대 원장으로부터 지난 1일 바통을 넘겨받았다.<br/><br/> 창경궁 쪽 도로변에 자리잡은 서울대암병원은 지상 6층, 지하 4층짜리 병동으로, 별관의 소아암병상까지 합쳐도 202병상 규모다. 지상 15층 지하 7층 454병상의 연세암병원, 지상 11층 지하 8층 652병상의 삼성서울암병원, 지상 13층 지하1층 712병상의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등과 비교하면 몸집이 약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br/><br/> 하지만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은 진료 능력만큼은 결코 이들 병원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br/><br/> 서울대암병원은 독립적으로 대규모 암 병동을 운영하는 연세암병원 등과 달리 서울대병원 본원 시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상대적으로 입원실이 적은 암병원은 암 환자에게 시급한 ‘단기입원·외래진료’를 위주로 개방하고,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본원의 시설을 이용케 하는 것이다.<br/><br/> 궁여지책인 듯싶지만 효과는 최상이다. 김 원장은 이를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의 진료능력과 암 환자만을 위한 전문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암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체제</span>”라고 자랑했다.<br/><br/> 실제 서울대암병원은 최근 3년 동안 외래환자가 48%, 입원 환자는 83%, 수입은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24만8349명에 그쳤던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157만85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진료 수입도 2011년 약 446억원에서 지난해 약 3269억원으로 늘었다.<br/><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철저한 ‘센터 중심 협진 시스템’과 선진국들과 같이 단기입원 낮 병동 체제를 정착시킨 덕분에 이룬 성과</span>”라고 밝혔다. <br/><br/> 서울대암병원에는 암 종류별로 16개 진료센터와 9개 통합암센터, 암정보교육센터, 종양임상시험센터 등 총 28개 센터가 있다.<br/><br/> 이들 각 센터의 진료 프로세스는 모두 ‘당일 진료, 당일 검사’에 맞춰져 있다. 이른바 ‘스피드 암 진료’다. 전체 202병상 중 최장 3박4일간 입원하는 단기 병동에 48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위한 항암 낮 병동에 43개, 주사치료실에 39개, 종양임상시험센터에 30개 병상이 배정돼 있다. 나머지 42병상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별관 병동에 배치돼 있는데, 이 역시 단기입원 위주로 운영한다.<br/><br/> 본격적인 암 치료 단계에 들어가면, 서울대암병원은 다른 병원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암 치료 능력이 한층 빛을 발하게 된다.<br/><br/>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간암과 위암 치료쪽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6년에는 악성 및 양성간 종양을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주목을 받기도 했다.<br/><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간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시술받은 뒤 당일 귀가하는 간동맥색전술 시술 능력은 전 세계 어떤 암센터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근거 중심 임상진료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 임상진료에 활용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연구 성과는 어떻게든 신(新)의료기술로 등록,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br/><br/> 현재 김 원장이 연구 중인 개인 맞춤형 유전체 검사와 암유전자 선별 피검사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가 완성되면 암에 걸릴 위험을 미리 예측,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피 한 방울로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알 수도 있게 된다.<br/><br/> 서울대암병원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제 임상시험 능력이다. 2011년 163건의 신약 임상시험을 수행한 데 이어 2012년 181건, 2013년 212건, 지난해 2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br/><br/> 이는 그만큼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의 임상연구 능력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서울대암병원을 찾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상업화 직전 단계의 최신 항암제를 누구보다 빨리 사용해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주목! 이 클리닉] ① 서울대암병원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71003001  
본문: 전문병원, 전문센터 전성시대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해도 111개에 이르고,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진료과를 못 찾아 병원을 헤매는 환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는 물론 진료 대기 중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 복도에 좋은 그림을 전시하는 병원도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의사)을 '명의&인의를 찾아서 주목! 이 클리닉'이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첫 회는 최근 혈액종양내과 김태유(54) 교수를 새 병원장으로 선임한 서울대암병원이다.서울대암병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아 맞춤형 암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상연구 및 IT기술을 활용해 누구든지 편하게 믿고 선택하는 암 환자 친화 병원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은 16일 “<span class='quot0'>암 정복의 길을 창조하는 연구중심병원, 암 진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 암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노동영(59) 초대 원장으로부터 지난 1일 바통을 넘겨받았다. 창경궁 쪽 도로변에 자리잡은 서울대암병원은 지상 6층, 지하 4층짜리 병동으로, 별관의 소아암병상까지 합쳐도 202병상 규모다. 지상 15층 지하 7층 454병상의 연세암병원, 지상 11층 지하 8층 652병상의 삼성서울암병원, 지상 13층 지하1층 712병상의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등과 비교하면 몸집이 약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은 진료 능력만큼은 결코 이들 병원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서울대암병원은 독립적으로 대규모 암 병동을 운영하는 연세암병원 등과 달리 서울대병원 본원 시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상대적으로 입원실이 적은 암병원은 암 환자에게 시급한 ‘단기입원·외래진료’를 위주로 개방하고,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본원의 시설을 이용케 하는 것이다. 궁여지책인 듯싶지만 효과는 최상이다. 김 원장은 이를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의 진료능력과 암 환자만을 위한 전문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암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체제</span>”라고 자랑했다. 실제 서울대암병원은 최근 3년 동안 외래환자가 48%, 입원 환자는 83%, 수입은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24만8349명에 그쳤던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157만85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진료 수입도 2011년 약 446억원에서 지난해 약 3269억원으로 늘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철저한 ‘센터 중심 협진 시스템’과 선진국들과 같이 단기입원 낮 병동 체제를 정착시킨 덕분에 이룬 성과</span>”라고 밝혔다. 서울대암병원에는 암 종류별로 16개 진료센터와 9개 통합암센터, 암정보교육센터, 종양임상시험센터 등 총 28개 센터가 있다. 이들 각 센터의 진료 프로세스는 모두 ‘당일 진료, 당일 검사’에 맞춰져 있다. 이른바 ‘스피드 암 진료’다. 전체 202병상 중 최장 3박4일간 입원하는 단기 병동에 48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위한 항암 낮 병동에 43개, 주사치료실에 39개, 종양임상시험센터에 30개 병상이 배정돼 있다. 나머지 42병상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별관 병동에 배치돼 있는데, 이 역시 단기입원 위주로 운영한다. 본격적인 암 치료 단계에 들어가면, 서울대암병원은 다른 병원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암 치료 능력이 한층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간암과 위암 치료쪽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6년에는 악성 및 양성간 종양을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간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시술받은 뒤 당일 귀가하는 간동맥색전술 시술 능력은 전 세계 어떤 암센터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근거 중심 임상진료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임상진료에 활용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연구 성과는 어떻게든 신(新)의료기술로 등록,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김 원장이 연구 중인 개인 맞춤형 유전체 검사와 암유전자 선별 피검사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가 완성되면 암에 걸릴 위험을 미리 예측,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피 한 방울로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알 수도 있게 된다. 서울대암병원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제 임상시험 능력이다. 2011년 163건의 신약 임상시험을 수행한 데 이어 2012년 181건, 2013년 212건, 지난해 2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의 임상연구 능력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서울대암병원을 찾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상업화 직전 단계의 최신 항암제를 누구보다 빨리 사용해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1.txt

제목: 작년 건강보험 4조5869억원 흑자 “불황에… 아파도 병원 못가” “암 감소 등 국민 건강해져”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0016334319  
본문: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4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최근 4년 동안 최고치인 4조5869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은 12조807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보 재정 흑자 행진에 대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불황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br/><br/>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이 48조5024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고, 총지출은 43조91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 늘어 당기흑자가 4조5869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건보 지출 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12.0%였지만 2012∼2014년엔 5.5%로 크게 낮아졌다.<br/><br/>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진료비 부담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자 본인이 비용을 100% 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선택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에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에 보험료를 적게 낸 하위 20%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15.3%(21만2000명)는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에 한 번도 안 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0'>소득에 따른 의료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반면 정부는 다르게 본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1'>건강한 고령화, 암 발생률 감소,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이 늘어 의료비 지출 증가를 둔화시킨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건보 재정은 계속 흑자인데 보장성(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수준)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2011년 20.0%에서 2012년 20.3%로 증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span class='quot2'>건보 재정 흑자를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써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2.txt

제목: 작년 건강보험 4조5869억원 흑자 “불황에… 아파도 병원 못가” “암 감소 등 국민 건강해져”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71050001  
본문: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4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최근 4년 동안 최고치인 4조5869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은 12조807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보 재정 흑자 행진에 대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불황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이 48조5024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고, 총지출은 43조91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 늘어 당기흑자가 4조5869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건보 지출 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12.0%였지만 2012∼2014년엔 5.5%로 크게 낮아졌다.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진료비 부담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자 본인이 비용을 100% 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선택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에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에 보험료를 적게 낸 하위 20%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15.3%(21만2000명)는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에 한 번도 안 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0'>소득에 따른 의료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다르게 본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1'>건강한 고령화, 암 발생률 감소,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이 늘어 의료비 지출 증가를 둔화시킨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계속 흑자인데 보장성(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수준)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2011년 20.0%에서 2012년 20.3%로 증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span class='quot2'>건보 재정 흑자를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써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3.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봉래 (12) 암으로 출소 무기수 “목사님 저 살아났어요”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0016334207  
본문: 재소자들 중엔 속을 썩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중에 자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중구금 시설 교도관들에 따르면 못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바늘로 눈을 꿰매고 칫솔을 먹는다 한다. ○○○번 병만이(가명)가 그랬다.<br/><br/> 어느 날 병만이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전도사요? 그런데 왜 나랑 상담 안 하오?” 했다. 나는 다음 날 그와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침핀으로 자신의 눈을 찔렀고 밤중에 소동을 피워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며칠을 못 가 칫솔을 먹고 외부 병원으로 실려갔다 돌아왔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br/><br/> 나는 얼마 후 병만을 만나러 그의 두 평 남짓한 독거실에 들어갔다. 이는 수형자 상담 원칙에 어긋났지만 나는 병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들어갔다. 담당 직원도 놀라 문을 열어놓고 주시했다. 나는 병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다음 날엔 성경책을 사주고 읽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며칠이 안 돼 병만은 자신의 손가락을 문에 넣고 닫아버려 봉합수술을 받았다.<br/><br/> 나는 다시 병만의 독방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했다. 붕대로 감겨 있는 그의 손가락을 보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병만도 뉘우치는 것 같았다. 그는 성경을 필사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나도 2005년 정년퇴임했고 그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나는 경교대교회를 맡으면서 담안 형제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갔다.<br/><br/>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출입문을 바라보는데 병만이가 서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무기수였다. 16년 수감생활을 했으니 아직 형기가 남아 있었다. ‘설마 탈옥을 했나’ 생각하며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담낭암 진단을 받고 형 집행정지로 나왔다고 했다. 의사 말로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br/><br/>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느낀 서운함 때문에 출소하자마자 일을 벌이려 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도 감정이 있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출소해보니 어머니는 하얀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고민하던 그는 나를 만나러 찾아온 것이다. <br/><br/> 나는 그에게 기도원으로 가라고 했다. 그는 강남금식기도원에 이어 천마산기도원,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등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원자력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술 한 번 받고 싶어 갔다고 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병만은 말했다. “목사님, 저 살았어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래요. 제 목숨 참 모질지요.” <br/><br/> 병만은 그때 나에게 묵직한 박스를 건넸다. 상자를 열어보니 흉기가 들어 있었다. 나는 놀라서 얼른 닫았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려고 물색하다가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형기를 다 마치는 날 흉기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것으로 간증을 다니겠다고 했다. <br/><br/> 병만은 재수감됐다. 대전교도소에서 한 차례 소동을 일으켜 교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다. 나는 송금을 하고 병만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징벌 기간이라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발길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그의 변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br/><br/> 병만은 어디 성한 곳이 없다. 심지어 양쪽 발목 아래 아킬레스건에 상처를 내 자신을 혹사시켰다. 무기수인 그는 언제 출소할지 모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br/> 정리=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4.txt

제목: 스웨덴 연구팀, 인공태양 개발… 밤에도 일광욕?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0016334322  
본문: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은 햇빛에 노출될 시간이 적은 것이 문제다. 일정량의 햇빛을 쬐지 않을 경우 우울증, 수면장애, 비만, 심지어는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br/><br/>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룬드대 토르뵈른 라이케(사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내에서도 태양광과 같은 효능을 인체에 줄 수 있는 ‘인공태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br/><br/> 이 인공태양은 청색 계열의 밝은 빛을 모아놓은 것으로 인체에는 실제 태양 노출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BBC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인공태양 기술을 활용해 ‘데이지메터(Daysimeter)’란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 장비는 인체가 햇빛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측정하고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가 개발되면 야간 근무 등으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 라이케 교수가 이 연구에 뛰어든 것은 북반구 중에서도 고위도 지역에 속해 겨울철에 유난히 일조량이 적은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겨울철에 유난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체는 수면과 기상에 대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이 기준이 빛에 대한 노출이다. 때문에 적절한 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수면장애가 오고 피로가 쌓이게 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5.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봉래 (12) 암으로 출소 무기수 “목사님 저 살아났어요”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71012001  
본문: 재소자들 중엔 속을 썩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중에 자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중구금 시설 교도관들에 따르면 못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바늘로 눈을 꿰매고 칫솔을 먹는다 한다. ○○○번 병만이(가명)가 그랬다. 어느 날 병만이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전도사요? 그런데 왜 나랑 상담 안 하오?” 했다. 나는 다음 날 그와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침핀으로 자신의 눈을 찔렀고 밤중에 소동을 피워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며칠을 못 가 칫솔을 먹고 외부 병원으로 실려갔다 돌아왔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얼마 후 병만을 만나러 그의 두 평 남짓한 독거실에 들어갔다. 이는 수형자 상담 원칙에 어긋났지만 나는 병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들어갔다. 담당 직원도 놀라 문을 열어놓고 주시했다. 나는 병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다음 날엔 성경책을 사주고 읽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며칠이 안 돼 병만은 자신의 손가락을 문에 넣고 닫아버려 봉합수술을 받았다. 나는 다시 병만의 독방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했다. 붕대로 감겨 있는 그의 손가락을 보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병만도 뉘우치는 것 같았다. 그는 성경을 필사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나도 2005년 정년퇴임했고 그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나는 경교대교회를 맡으면서 담안 형제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출입문을 바라보는데 병만이가 서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무기수였다. 16년 수감생활을 했으니 아직 형기가 남아 있었다. ‘설마 탈옥을 했나’ 생각하며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담낭암 진단을 받고 형 집행정지로 나왔다고 했다. 의사 말로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느낀 서운함 때문에 출소하자마자 일을 벌이려 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도 감정이 있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출소해보니 어머니는 하얀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고민하던 그는 나를 만나러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에게 기도원으로 가라고 했다. 그는 강남금식기도원에 이어 천마산기도원,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등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원자력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술 한 번 받고 싶어 갔다고 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병만은 말했다. “목사님, 저 살았어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래요. 제 목숨 참 모질지요.” 병만은 그때 나에게 묵직한 박스를 건넸다. 상자를 열어보니 흉기가 들어 있었다. 나는 놀라서 얼른 닫았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려고 물색하다가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형기를 다 마치는 날 흉기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것으로 간증을 다니겠다고 했다. 병만은 재수감됐다. 대전교도소에서 한 차례 소동을 일으켜 교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다. 나는 송금을 하고 병만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징벌 기간이라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발길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그의 변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병만은 어디 성한 곳이 없다. 심지어 양쪽 발목 아래 아킬레스건에 상처를 내 자신을 혹사시켰다. 무기수인 그는 언제 출소할지 모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정리=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6.txt

제목: 스웨덴 연구팀, 인공태양 개발… 밤에도 일광욕?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7171050002  
본문: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은 햇빛에 노출될 시간이 적은 것이 문제다. 일정량의 햇빛을 쬐지 않을 경우 우울증, 수면장애, 비만, 심지어는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룬드대 토르뵈른 라이케(사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내에서도 태양광과 같은 효능을 인체에 줄 수 있는 ‘인공태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인공태양은 청색 계열의 밝은 빛을 모아놓은 것으로 인체에는 실제 태양 노출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BBC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인공태양 기술을 활용해 ‘데이지메터(Daysimeter)’란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 장비는 인체가 햇빛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측정하고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가 개발되면 야간 근무 등으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케 교수가 이 연구에 뛰어든 것은 북반구 중에서도 고위도 지역에 속해 겨울철에 유난히 일조량이 적은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겨울철에 유난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체는 수면과 기상에 대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이 기준이 빛에 대한 노출이다. 때문에 적절한 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수면장애가 오고 피로가 쌓이게 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의료비지원 꼼꼼히 챙겨야 실속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60  
본문: 사례1. 건강보험 가입자가 위암에 걸려 1회 입원 수술 후 300만원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시 2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br/><br/>사례2. 건강보험 가입자가 위암에 걸려 1회 입원 수술 후 300만원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시 1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br/><br/> 위 사례처럼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1월 1일 입원자부터 적용)는 작년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다소 축소됐는데 우선 법정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최저생계비 200%∼300% 이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수준은 1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이다.<br/><br/> 정부는 암환자를 위해 △국가암검진 △중증(암)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서비스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br/><br/>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지원자는 2009년 3497명에서 2010년 3629명, 2011년 3877명, 2012년 3991명, 2013년 3984명으로 나타났다. 성인암 지원자는 2009년 5만783명에서 2010년 5만3466명, 2011년 5만3366명, 2012년 5만5666명, 2013년 6만533명 수준이다.<br/><br/> ‘소아 암환자’는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까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된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br/><br/>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최근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어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8.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아 신경치료 인한 암 유발 막으려면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6001  
본문: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삶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과 재생이 반복된다. 재생 과정에서 노화된 세포는 스스로 죽어 주변 세포에 의해 흡수된다. 피부 세포는 노화되면 각질이 되거나 때가 되어 떨어져 나간다. 뼈세포의 경우 복잡한 파괴와 재생 과정을 겪게 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감염과 염증 같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와 재생이 일어날 경우 다양한 원인과 경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치아는 뼈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나 뼈와 달리 파괴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평생 동안 사용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감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파괴 시스템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바로 상아질모세포이다. 상아질모세포는 치아 내부의 신경과 치아 사이의 경계면에 배열돼 있는 세포로서 치아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때, 처음 만나는 세포이고 선천적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아 내부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마모됐을 때 시린 것을 느끼는 것도 상아질 모세포 돌기가 일차적으로 담당한다. 상아질 모세포는 평소에 상아세관을 통한 세균의 침투를 막으며 충치가 발생하면 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형성하기도 하는 중요한 세포이다. 하지만 충치가 심해지면 상아질모세포는 사망하게 된다. 상아질모세포가 사망하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들어있는 근관(뿌리내부구멍)에 감염이 무차별로 진행되며 치아 내부의 세포들은 괴사돼 버린다. 이때 치과에서 시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가 근관치료(신경치료)이다. 근관치료의 실패율은 최대 15%에 달하고 증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근관치료가 된 치아의 대부분은 상아질 모세포가 살아 있는 자연치아와는 달리 구조상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세균이 서식하기 좋으며, 장기적인 감염의 요충지로 작용한다. 또 상아질모세포가 담당하던 면역 조절기능이 사라져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로부터 치아가 비자기화 물질(이물질)로 판단돼 수지상세포 등에 의한 파괴와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치아손상, 현성감염, 만성적인 불현성감염(증상이 없는 감염), 면역세포들의 인식과 낮은 상태의 만성염증 등이 우리 몸의 전신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감염에 의한 암 발생 과정과 후생학적 관점에서의 히스톤단백질의 변형, 그리고 뼈단백질 생성 등이 근관치료와 관련돼 암을 유발하고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와 주변 턱뼈에서 발생되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폰틴, 상아질기질단백질, 뼈시알로단백질, 상아질 시알로단백질, 기질외인산당단백질 등이 암의 발생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 오스테오폰틴은 대장암 유방암 위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발생 침습 진행 전이와 관련돼 있다. 뼈 단백질들은 암세포의 사멸 방해, 증식 접착, 이동, 기질 파괴, 침투, 대식세포 활성화 및 종양관련대식세포의 분화, 암세포의 혈관 내 이동과 혈관 밖 이동(삼출), 전이, 신생혈관 생성, 암세포 증식, 암세포 생존 등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치아 감염치료가 근관치료가 아닌 보다 덜 침습적이고 확실하게 감염을 차단할 치료법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감염과 염증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치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다. 기존의 근관 치료가 돼 있는 치아 주변에 뼈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69.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스트레스 억누르지 말고 올바로 표출하라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8001  
본문: 암환자는 진단과 치료,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등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암환자들은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누구라도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때로는 터뜨리기도 한다. 특히 치료 막바지에는 ‘의료진과 내 주위를 지켜온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혹은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등의 생각들로 힘들고 외로워지게 된다. 또한 암 때문에 개인적인 삶이 달라지고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큰 변화 생겨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 기복과 스트레스는 슬픈 감정의 지속, 텅 빈 느낌, 불면,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식습관의 변화, 성적 욕구의 변화, 불안과 공포, 주위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분노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기복과 스트레스는 암에 대처하는 능력과 치료 효과, 부작용 정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또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주변 사람을 찾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올바르게 표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암환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 또는 지지자에게 이야기한다 △가족, 친지,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한다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암환자 모임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 참여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 △우울이나 불안 감소를 위해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경우에 따라 약물 처방도 받는다 △유머 등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 암환자들은 스스로 즐거웠던 경험의 목록을 만들고, 그중 오늘이나 내일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실천으로 옮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슬픔이나 우울함이 지속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찾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시 약물 처방도 받는다. 수술 후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치료 과정의 불편함은 일시적인 것으로 병을 이기기 위해 겪는 일일 따름이라고 여기고, 큰 수술도 이겨냈으니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의료진인 만큼 의료진을 믿고 돈독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디어 보도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특수 약제나 대체요법들은 시간과 돈, 체력을 소모시키고 치료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0.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아 신경치료 인한 암 유발 막으려면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51  
본문: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삶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과 재생이 반복된다. 재생 과정에서 노화된 세포는 스스로 죽어 주변 세포에 의해 흡수된다. 피부 세포는 노화되면 각질이 되거나 때가 되어 떨어져 나간다. 뼈세포의 경우 복잡한 파괴와 재생 과정을 겪게 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감염과 염증 같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와 재생이 일어날 경우 다양한 원인과 경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br/><br/> 치아는 뼈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나 뼈와 달리 파괴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평생 동안 사용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감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파괴 시스템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바로 상아질모세포이다.<br/><br/> 상아질모세포는 치아 내부의 신경과 치아 사이의 경계면에 배열돼 있는 세포로서 치아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때, 처음 만나는 세포이고 선천적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아 내부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마모됐을 때 시린 것을 느끼는 것도 상아질 모세포 돌기가 일차적으로 담당한다. 상아질 모세포는 평소에 상아세관을 통한 세균의 침투를 막으며 충치가 발생하면 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형성하기도 하는 중요한 세포이다. 하지만 충치가 심해지면 상아질모세포는 사망하게 된다.<br/><br/> 상아질모세포가 사망하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들어있는 근관(뿌리내부구멍)에 감염이 무차별로 진행되며 치아 내부의 세포들은 괴사돼 버린다. 이때 치과에서 시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가 근관치료(신경치료)이다.<br/><br/> 근관치료의 실패율은 최대 15%에 달하고 증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근관치료가 된 치아의 대부분은 상아질 모세포가 살아 있는 자연치아와는 달리 구조상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세균이 서식하기 좋으며, 장기적인 감염의 요충지로 작용한다.<br/><br/> 또 상아질모세포가 담당하던 면역 조절기능이 사라져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로부터 치아가 비자기화 물질(이물질)로 판단돼 수지상세포 등에 의한 파괴와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br/><br/> 치아손상, 현성감염, 만성적인 불현성감염(증상이 없는 감염), 면역세포들의 인식과 낮은 상태의 만성염증 등이 우리 몸의 전신반응을 유발하게 된다.<br/><br/> 감염에 의한 암 발생 과정과 후생학적 관점에서의 히스톤단백질의 변형, 그리고 뼈단백질 생성 등이 근관치료와 관련돼 암을 유발하고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와 주변 턱뼈에서 발생되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폰틴, 상아질기질단백질, 뼈시알로단백질, 상아질 시알로단백질, 기질외인산당단백질 등이 암의 발생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br/><br/> 오스테오폰틴은 대장암 유방암 위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발생 침습 진행 전이와 관련돼 있다. 뼈 단백질들은 암세포의 사멸 방해, 증식 접착, 이동, 기질 파괴, 침투, 대식세포 활성화 및 종양관련대식세포의 분화, 암세포의 혈관 내 이동과 혈관 밖 이동(삼출), 전이, 신생혈관 생성, 암세포 증식, 암세포 생존 등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r/><br/> 궁극적으로는 치아 감염치료가 근관치료가 아닌 보다 덜 침습적이고 확실하게 감염을 차단할 치료법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감염과 염증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치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다. 기존의 근관 치료가 돼 있는 치아 주변에 뼈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br/><br/>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1.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스트레스 억누르지 말고 올바로 표출하라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38  
본문: 암환자는 진단과 치료,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등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암환자들은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누구라도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때로는 터뜨리기도 한다. <br/><br/> 특히 치료 막바지에는 ‘의료진과 내 주위를 지켜온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혹은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등의 생각들로 힘들고 외로워지게 된다. 또한 암 때문에 개인적인 삶이 달라지고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큰 변화 생겨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br/><br/> 이러한 감정적 기복과 스트레스는 슬픈 감정의 지속, 텅 빈 느낌, 불면,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식습관의 변화, 성적 욕구의 변화, 불안과 공포, 주위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분노 등으로 나타난다. <br/><br/> 따라서 감정기복과 스트레스는 암에 대처하는 능력과 치료 효과, 부작용 정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또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주변 사람을 찾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올바르게 표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br/><br/> 암환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 또는 지지자에게 이야기한다 △가족, 친지,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한다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암환자 모임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 참여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 △우울이나 불안 감소를 위해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경우에 따라 약물 처방도 받는다 △유머 등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br/><br/> 암환자들은 스스로 즐거웠던 경험의 목록을 만들고, 그중 오늘이나 내일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실천으로 옮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슬픔이나 우울함이 지속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찾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시 약물 처방도 받는다.<br/><br/> 수술 후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치료 과정의 불편함은 일시적인 것으로 병을 이기기 위해 겪는 일일 따름이라고 여기고, 큰 수술도 이겨냈으니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br/><br/> 특히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의료진인 만큼 의료진을 믿고 돈독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디어 보도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특수 약제나 대체요법들은 시간과 돈, 체력을 소모시키고 치료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2.txt

제목: 암환자 임상시험 정보 어떻게 얻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288  
본문: 임상시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시험’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임상시험은 신약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며 암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더 이상 기존 방법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암환자는 임상시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하는 것일까. 이를 보여주는 국가적 차원의 통계는 없다. 다만 국내 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경우를 꼽았다. 일단 주치의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다.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가운데 새로운 항암제를 연구 중인 경우 이를 자신의 환자에게 제안해볼 수 있다. 위암환우회 회장 심순복씨도 이 같은 경우였다. 심씨는 “첫 암진단을 받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 거의 포기할 때쯤 병원을 옮겨 찾아간 곳에서 임상시험을 권유받았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믿고 참여했다”고 말했다.<br/><br/> 두 번째는 환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다. 일단 회원수가 많은 환우회는 그 안에서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또한 특정 대형병원에서 만들어진 환우회일수록 간호사가 임원인 경우가 많아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S병원 임상연구간호사는 “신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효능비교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자신이 가짜약 군(group)에 속할까봐 오히려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는데, 자신이 임상신약 군에 뽑힐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br/><br/> 마지막으로 대형병원에서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임상시험의 종류와 시험기간, 의료혜택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일일이 물어보며 발품 파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상시험을 대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A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시험이 지나치게 미화되어서 환상을 갖고 참여했다가 효과가 없어 크게 실망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환상 속 신기루 같은 이미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국내 임상시험 수준은 수많은 시행착오 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센터를 갖춘 대형병원에서는 피험자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험자보호센터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임상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는지 심의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윤리생명심의위원회(IRB)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임상시험 중인 한 교수는 “비윤리적인 실험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그만큼 윤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본다.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나 의료진의 이해도가 높아진 덕”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전국 6만여명 스타의사 찾아 서울로… 원정 암치료 정답일까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8  
본문: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항암치료는 입원치료가 가능했지만 방사선은 통원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에 있는 쉼터를 알게 돼 지원을 했고, 1회차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br/><br/> 많은 사람들이 스타 교수와 규모가 큰 유명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면 더욱 뛰어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방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치료가 힘든 질환일수록 더 심한데 물론 이들 교수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 힘든 암에 좀 더 익숙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수요(환자)는 많고 공급(의료진, 병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명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 다행히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도 이들 스타교수의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치료시기가 늦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br/><br/> 위 사례는 서울로 항암치료를 다니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다행히도 환자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이용할 기회를 얻어 보다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 중에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지낼 곳이 없어 통원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시·도별 신규 중증(암) 등록환자(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5만539명인데 서울 소재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수는 11만8287명으로 2배를 훌쩍 넘는다. 즉 6만7748명은 서울 이외 지역의 암환자가 치료를 위해 서울로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r/><br/> 반면 경북지역은 등록 암환자가 1만4843명인데 이 지역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8132명으로 약 6700명의 환자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등록 암환자는 5만4271명이지만 이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5만2139명으로 약 2100명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동일 시·도 내에서 치료받는 암환자보다 등록 암환자수가 충남 4300여명, 경남 3000여명, 전북 3000여명, 충북 2200여명, 전북 1100여명, 강원 800여명 많았다. 결국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2만명이 넘는 환자가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가이드에 따른 진료과정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진료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2014년 12월 19일)된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경우 서울권 35개소, 경기권 24개소, 전라권 8개소, 충청권 9개소, 경상권 26개소, 강원권 4개소로 나타났는데 우선 가까운 곳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br/><br/> 아무리 예전보다 치료기술이 좋아졌다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암은 무섭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기에 누구나 최상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환자·보호자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시간과 금전적 부담까지 3중고에 시달리도록 하는 원정 진료가 꼭 필요한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4.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 外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13631001  
본문: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와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800만∼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혜택을 보는 환자는 1만여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화이자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 美 FDA 승인화이자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Ibrance)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다. 이달 초 FDA는 기존 호르몬치료 경험이 없는 폐경 후 ER 양성,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을 동반한 폐경 후 여성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letrozole)과 병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브란스는 암세포의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사이클린의존성인산화효소(CDK) 4와 6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다. 이 약물이 출시되면 타목시펜(tamoxifen), 레트로졸(letrozole) 같은 호르몬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에스트로겐수용체(ER) 양성, HER2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0개 병상을 말기암 환자 위한 완화의료용 전환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 병상을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10병상(임종실 1개 포함)으로 전환해 공적인 진료기능이 확충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일반 암병동에서도 다학제적 완화의료팀이 조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체계의 제도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당뇨약 ‘메트포르민’ 위암수술자 생존 향상 도움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Metformin)이 위암수술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연구진은 당뇨를 가진 위암수술 환자들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결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수술연감(Annals of Surgery)’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연세암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1974명의 환자를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 326명과 당뇨가 없는 환자 1648명으로 나눠 암 재발률과 생존기간을 평균 6.2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뇨병을 가진 326명의 조사 대상 위암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위암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이 1.6배나 높았고, 5년 생존율 또한 평균 77%로, 당뇨가 없는 환자의 84%에 비해 낮은 치료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5.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 外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244  
본문: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br/><br/>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와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800만∼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혜택을 보는 환자는 1만여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br/><br/><br/><br/>화이자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 美 FDA 승인<br/><br/>화이자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Ibrance)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다. 이달 초 FDA는 기존 호르몬치료 경험이 없는 폐경 후 ER 양성,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을 동반한 폐경 후 여성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letrozole)과 병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브란스는 암세포의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사이클린의존성인산화효소(CDK) 4와 6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다. 이 약물이 출시되면 타목시펜(tamoxifen), 레트로졸(letrozole) 같은 호르몬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에스트로겐수용체(ER) 양성, HER2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br/><br/>10개 병상을 말기암 환자 위한 완화의료용 전환<br/><br/>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 병상을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10병상(임종실 1개 포함)으로 전환해 공적인 진료기능이 확충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일반 암병동에서도 다학제적 완화의료팀이 조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체계의 제도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br/><br/><br/><br/>당뇨약 ‘메트포르민’ 위암수술자 생존 향상 도움<br/><br/>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Metformin)이 위암수술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연구진은 당뇨를 가진 위암수술 환자들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결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수술연감(Annals of Surgery)’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연세암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1974명의 환자를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 326명과 당뇨가 없는 환자 1648명으로 나눠 암 재발률과 생존기간을 평균 6.2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뇨병을 가진 326명의 조사 대상 위암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위암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이 1.6배나 높았고, 5년 생존율 또한 평균 77%로, 당뇨가 없는 환자의 84%에 비해 낮은 치료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의료비지원 꼼꼼히 챙겨야 실속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34001  
본문: 사례1. 건강보험 가입자가 위암에 걸려 1회 입원 수술 후 300만원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시 2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사례2. 건강보험 가입자가 위암에 걸려 1회 입원 수술 후 300만원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시 1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 위 사례처럼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1월 1일 입원자부터 적용)는 작년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다소 축소됐는데 우선 법정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최저생계비 200%∼300% 이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수준은 1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암환자를 위해 △국가암검진 △중증(암)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서비스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지원자는 2009년 3497명에서 2010년 3629명, 2011년 3877명, 2012년 3991명, 2013년 3984명으로 나타났다. 성인암 지원자는 2009년 5만783명에서 2010년 5만3466명, 2011년 5만3366명, 2012년 5만5666명, 2013년 6만533명 수준이다. ‘소아 암환자’는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까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된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최근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어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치료제 중심 탈피 면역조절 항암제시대 도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9001  
본문: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특정 부위에 발현한 종양을 사멸시키는 표적치료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 치료의 면역체계가 표적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방한을 한 구스타프 가우더넥(사진)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 교수는 “이제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 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조절 항암제 시대에 도래했다”며 “제약사들도 면역체계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치료를 위한 면역치료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항암제 제품 중 100여개의 제품이 암과 관련한 백신으로, 면역치료가 암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사멸시키는 항암치료 백신 GV1001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GV1001은 바이오기업 젬백스가 보유한 췌장암 치료 백신이다. 1989년부터 가우더넥 교수는 ‘인간의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설로 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아제 효소를 발견하게 됐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 가우더넥 교수는 GV1001의 작용 기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GV1001은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제(hTERT)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로 다양한 암 질환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항암 백신이다. 텔로머라제는 세포의 무한증식을 막는 텔로미어를 유지시켜 세포 분열이 이뤄지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GV1001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GV1001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치료제”라고 말했다. GV1001은 지난 2000년도부터 10여개가 넘는 임상시험(1∼3상)을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진행했다. 2006년 미국FDA와 유럽 EMA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치료제는 췌장암 환자의 자기 면역을 극대화 시켜 암세포를 파괴하고, 기존 화학치료제와 병용 투약 시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는 항암 치료제다. 하지만 젬백스는 영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이라는 특정 생체지표가 높은 대상 환자에서 생존일이 연장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가우더넥 교수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오탁신 수치는 GV1001을 투여할 경우 생존기간 연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돼 현재 진행하는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에 대한 추가 적응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span>”고 덧붙였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치료제 중심 탈피 면역조절 항암제시대 도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0  
본문: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특정 부위에 발현한 종양을 사멸시키는 표적치료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 치료의 면역체계가 표적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br/><br/>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방한을 한 구스타프 가우더넥(사진)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제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 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조절 항암제 시대에 도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제약사들도 면역체계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br/> 최근 암치료를 위한 면역치료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항암제 제품 중 100여개의 제품이 암과 관련한 백신으로, 면역치료가 암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br/><br/> 그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사멸시키는 항암치료 백신 GV1001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GV1001은 바이오기업 젬백스가 보유한 췌장암 치료 백신이다. 1989년부터 가우더넥 교수는 ‘인간의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설로 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아제 효소를 발견하게 됐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 <br/><br/> 가우더넥 교수는 GV1001의 작용 기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GV1001은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텔로머라제(hTERT)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로 다양한 암 질환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항암 백신이다. 텔로머라제는 세포의 무한증식을 막는 텔로미어를 유지시켜 세포 분열이 이뤄지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GV1001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치료제</span>”라고 말했다.<br/><br/> GV1001은 지난 2000년도부터 10여개가 넘는 임상시험(1∼3상)을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진행했다. 2006년 미국FDA와 유럽 EMA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치료제는 췌장암 환자의 자기 면역을 극대화 시켜 암세포를 파괴하고, 기존 화학치료제와 병용 투약 시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는 항암 치료제다. <br/><br/> 하지만 젬백스는 영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이라는 특정 생체지표가 높은 대상 환자에서 생존일이 연장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가우더넥 교수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오탁신 수치는 GV1001을 투여할 경우 생존기간 연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돼 현재 진행하는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에 대한 추가 적응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span>”고 덧붙였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79.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할 수 있는 한 서울행…그들은 오늘도 즐겁게 상경한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7001  
본문: “주치의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는데, 왜 굳이 서울을 가냐고 말리더군요. 보호자도 환자도 힘들어지고 돈만 잃게 된다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서울 가는 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주는 약만 먹으며 죽는 날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죽더라도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싶은 게 환자 마음 아닌가요.” 남편 우강현씨의 달력에는 빨간 색 동그라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은 진행성 위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날이다. 이 대형병원에서 남편 우강현씨는 나름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아내에게 줄 도시락을 들고 진료실 밖을 서성인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아내가 나오길 기다린다. 한 번도 병원에 아내를 혼자 보낸 적이 없다. 또 아픈 아내를 아들, 딸들에게 맡기는 법이 없다. 양복은 늘 깔끔하다. 지방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싫어서란다. 진료가 끝나고 아내는 남편이 싼 도시락을 먹고 다시 항암제를 맞으러 주사실로 들어간다. 남편의 기다림은 계속된다. 남편 우씨는 아내가 애당초 선고받은 날짜보다 6개월은 더 버티고 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이들 부부도 서울로 오기까지 맘고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항암치료 받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 동안 힘든 항암치료만 끝내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다시 봄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암 덩어리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다른 항암제로 새로 시작해보자는 의사 얘기에 우리 부부는 서울로 가보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의사는 만류하더군요. 처방받은 항암제는 어느 병원을 가나 똑같고, 큰 병원일수록 지방 암환자에게만 접근하는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 후회로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내 손을 잡고 올라왔죠. 그런데 서울서 처음 만난 종양내과 교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임상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의사를 믿었다기보다 아무것도 못해보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투여 받은 신약은 아내에게 별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고 치료 성과도 좋았죠. 서울로 오지 않았다면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강현씨 부부처럼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 무작정 상경하는 암환자가 많다. 지난해 정부조사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지방 환자 수는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환자가 한쪽에 몰릴수록 의료 양극화는 심해진다. 이를 우려한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방 암환자들의 서울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 암환자의 서울행을 무조건 말려선 안 된다는 걸 이번 사례에서 보여준다.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환자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지방에서는 신약의 기회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다. 모든 임상시험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는 기존의 방법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만난 우씨는 아내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투병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병원 가는 날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내의 삶을 며칠은 더 연장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0.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할 수 있는 한 서울행…그들은 오늘도 즐겁게 상경한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52  
본문: “주치의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는데, 왜 굳이 서울을 가냐고 말리더군요. 보호자도 환자도 힘들어지고 돈만 잃게 된다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서울 가는 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주는 약만 먹으며 죽는 날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죽더라도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싶은 게 환자 마음 아닌가요.”<br/><br/> 남편 우강현씨의 달력에는 빨간 색 동그라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은 진행성 위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날이다. 이 대형병원에서 남편 우강현씨는 나름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아내에게 줄 도시락을 들고 진료실 밖을 서성인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아내가 나오길 기다린다. 한 번도 병원에 아내를 혼자 보낸 적이 없다. 또 아픈 아내를 아들, 딸들에게 맡기는 법이 없다. 양복은 늘 깔끔하다. 지방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싫어서란다. 진료가 끝나고 아내는 남편이 싼 도시락을 먹고 다시 항암제를 맞으러 주사실로 들어간다. 남편의 기다림은 계속된다. 남편 우씨는 아내가 애당초 선고받은 날짜보다 6개월은 더 버티고 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이들 부부도 서울로 오기까지 맘고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br/><br/> “아내는 항암치료 받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 동안 힘든 항암치료만 끝내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다시 봄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암 덩어리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다른 항암제로 새로 시작해보자는 의사 얘기에 우리 부부는 서울로 가보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의사는 만류하더군요. 처방받은 항암제는 어느 병원을 가나 똑같고, 큰 병원일수록 지방 암환자에게만 접근하는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 후회로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내 손을 잡고 올라왔죠. 그런데 서울서 처음 만난 종양내과 교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임상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의사를 믿었다기보다 아무것도 못해보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투여 받은 신약은 아내에게 별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고 치료 성과도 좋았죠. 서울로 오지 않았다면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br/><br/> 우강현씨 부부처럼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 무작정 상경하는 암환자가 많다. 지난해 정부조사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지방 환자 수는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환자가 한쪽에 몰릴수록 의료 양극화는 심해진다. 이를 우려한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방 암환자들의 서울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r/><br/> 다만 지방 암환자의 서울행을 무조건 말려선 안 된다는 걸 이번 사례에서 보여준다.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환자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지방에서는 신약의 기회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다. 모든 임상시험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는 기존의 방법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br/><br/> 이번에 만난 우씨는 아내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투병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병원 가는 날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내의 삶을 며칠은 더 연장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br/>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1.txt

제목: [암과의 동행-자궁경부암] HVP 예방백신 접종만이 왕도일까… 세포진 검사 통해 전암병변 발견 중요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5  
본문: 1970년 HPV(Human Papilloma virus,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이 바이러스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로 HPV로부터 여성의 몸을 지키는 백신이 등장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의 이름을 따서 HPV 예방백신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상은 바이러스 이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통용되어 불린다. 이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HPV 16형과 18형의 발생을 막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편의상 불리는 별칭 탓에 오히려 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HPV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일부 보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자 그룹에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의 병변을 발견하는 조기진단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경구피임약 복용,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br/><br/>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암세포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전암병변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암이 되기 전 전암병변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암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HPV 백신접종과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자궁경부암 발생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을 위해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하나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2∼3년에 한 번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 표면에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 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만으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br/><br/> 일부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복용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했다. 경구피임약이 어떻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5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연관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국내외 암학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횟수를 늘릴 것을 권장했다.<br/><br/> 한편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HPV 감염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소개한 세포진 검사와 같이 진행된다. 세포진 검사가 자궁 내 세포가 암으로 변할 조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라면 HPV 검사는 세포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궁경부에서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검사다. 따라서 세포의 암성변화 이전에 암으로 발전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span class='quot0'>HVP 검사로 자신의 위험도를 알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정보로 앞으로 더 열심히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2.txt

제목: [암환자 희망일기] 식도암, 흡연 음주와 깊은 연관… 조기발견땐 근치적절제술로 치료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55  
본문: 식도암은 발생률은 높지 않으나, 한 번 발생하면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이다. 또한 흡연과 음주가 식도암 발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폐암, 후두암 환자에게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br/><br/> 12년 전에는 폐암, 7년 전에는 구강암으로 각각 수술을 받은 65세 환자분이다. 2013년도에 다시 식도암이 발생해 식도암절제술 및 위장관치환술을 받았다. 세 가지 암 모두 비교적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전부 근치적절제술이 가능했다. 식도암 수술 시 위장을 이용한 위장관치환술을 하면 위장이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 조금씩 소장으로 내보내주던 기능이 없어져 위장관 역류증상 등이 발생한다. 현재 환자분은 식사 요령을 잘 익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br/><br/> 6년 전 후두암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61세의 환자분으로 계속 경과관찰 중 식도암이 발견됐다. 과거 후두암으로 경부식도 절제술을 이미 받았고 경부식도에 소장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다. 식도 주변에 유착이 있어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위장관치환술을 잘 받았다. 이분은 기존의 후두암으로 기관절개술까지 받아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식도암도 잘 극복한 경우이다.<br/><br/>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 다른 병원에서 목 주변의 임파선 전이를 동반한 식도암 3기를 진단받은 58세 남자분이다. 환자분은 수술은 불가능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1년 정도밖에는 더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본원 식도암센터를 방문했다. 정밀검사 후 식도암 3기는 맞지만 수술 전에 항암제 투여를 2회 실시한 다음 수술을 시행해볼 수 있겠다는 의료진의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br/><br/> 중소기업의 영업부에 근무하던 46세 남자분으로 업무 특성상 술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근래 피곤한 감이 있어 직장의 직원 검진에서 추가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다. 위내시경검사에서 작은 위염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식도중부에 식도점막의 부식이 있어 조직검사를 했고 식도암으로 진단받았다. 다행히 추가 정밀검사에서 다른 이상은 없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12년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평소 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다.<br/><br/> 기존의 암에 동반하여 식도암이 발생한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은 편이지만 기존의 암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함으로써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근치적절제술도 가능하다. 암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암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치료의 희망은 있다. <br/><br/>이해원 원자력병원 식도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비소세포폐암 이긴다… 표적항암제 ‘지오트립’ 생존기간 연장 효능 입증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9  
본문: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에 비해 장기생존 비율이 낮고, 예후가 좋지 않아 진단 이후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도 감기나 기관지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과 혼동되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어려워 환자의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된다. 이 가운데도 국내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환자의 55∼80%가 처음 진단 당시 진행과 전이를 동반하고 있고, 조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20∼50%는 재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br/><br/>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반응이 좋은 환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여 치료하는 표적치료제가 등장해 항암 치료 중에도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줄어들었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 환자의 40%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변이를 가지고 있어, 표적 치료제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 계속해서 비소세포폐암을 잡는 표적항암제들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 치료제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전방위적으로 표적을 차단하는 치료 매커니즘을 무기로 좋은 임상 결과를 쏟아놓으며 암 정복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가운데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임상 결과가 올해 1월 유명 의학저널인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되어 치료 기대를 더욱 높였다.<br/><br/> 베링거인겔하임의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은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분석 결과를 통해 (지오트립을 일차 치료 요법으로 투여 받았을 때) 화학 요법 대비 가장 흔한 유형의 EGFR 변이(엑손 19 결실; Del19) 양성 환자가 일 년 이상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지오트립을 제외하고 어떤 EGFR 표적 치료제도 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연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지오트립은 그 동안 화학요법 대비 Del19와 L858R 환자군 모두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FS) 연장, 폐암 증상 조절과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것은 물론, 전체 생존 기간(OS) 연장이라는 더욱 큰 혜택을 더하게 됐다.<br/><br/> 암 치료를 위한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확한 변이를 찾아 표적하는 표적치료제의 치료 매커니즘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의 가장 흔한 유형의 변이 가운데 엑손 19 결실에 탁월한 치료 반응을 보이는 지오트립이 좋은 예이다. 점점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치료 접근법으로 진화에 따라 생명 연장이라는 암환자의 치료 희망도 커지고 있다.<br/>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전국 6만여명 스타의사 찾아 서울로… 원정 암치료 정답일까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4002  
본문: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항암치료는 입원치료가 가능했지만 방사선은 통원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에 있는 쉼터를 알게 돼 지원을 했고, 1회차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 교수와 규모가 큰 유명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면 더욱 뛰어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방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치료가 힘든 질환일수록 더 심한데 물론 이들 교수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 힘든 암에 좀 더 익숙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수요(환자)는 많고 공급(의료진, 병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명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 다행히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도 이들 스타교수의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치료시기가 늦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위 사례는 서울로 항암치료를 다니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다행히도 환자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이용할 기회를 얻어 보다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 중에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지낼 곳이 없어 통원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시·도별 신규 중증(암) 등록환자(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5만539명인데 서울 소재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수는 11만8287명으로 2배를 훌쩍 넘는다. 즉 6만7748명은 서울 이외 지역의 암환자가 치료를 위해 서울로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경북지역은 등록 암환자가 1만4843명인데 이 지역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8132명으로 약 6700명의 환자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등록 암환자는 5만4271명이지만 이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5만2139명으로 약 2100명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동일 시·도 내에서 치료받는 암환자보다 등록 암환자수가 충남 4300여명, 경남 3000여명, 전북 3000여명, 충북 2200여명, 전북 1100여명, 강원 800여명 많았다. 결국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2만명이 넘는 환자가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가이드에 따른 진료과정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진료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2014년 12월 19일)된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경우 서울권 35개소, 경기권 24개소, 전라권 8개소, 충청권 9개소, 경상권 26개소, 강원권 4개소로 나타났는데 우선 가까운 곳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예전보다 치료기술이 좋아졌다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암은 무섭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기에 누구나 최상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환자·보호자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시간과 금전적 부담까지 3중고에 시달리도록 하는 원정 진료가 꼭 필요한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5.txt

제목: [한세준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의지의 한국인은 바로 엄마가 된 당신입니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9001  
본문: “<span class='quot0'>당신이 바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span>” 필자는 부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생명에 대한 남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필자는 부인과 의사이지만 남자여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또한 엄마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일단 자신의 몸부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도 그다지 예외는 아니다. 이는 인지상정이리라! 그런데 자신보다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암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었다. 아마도 외국에서 유학 중에 자궁경부이형증 진단을 받은 환자로 기억이 된다. 이 환자 역시 필자에게 오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자궁경부이형증 2기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환상투열요법(LEEP) 시술로 치료받은 후, 새로이 자궁내막암으로 발전이 되었고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호르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임신과 유산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결국은 암이 재발한 상태였다.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그 환자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아기를 갖고 싶다는 바로 그 간절함이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필자 역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 광역학시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아주 양호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자신의 몸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보다 엄마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치료를 받은 그 환자는 쌍둥이를 출산하고 또다시 아기를 출산하여 이제는 세 아기의 엄마가 되어 있다. 자신보다는 아기를 갖겠다는 간절함과 의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치료를 원하는 그 환자! 의지의 한국인은 바로 지금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바로 그 환자가 아닐까? 한 가지 질병만으로도, 그것도 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아마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리라! 자궁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 치료방법에는 수술과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광역학치료이다. 물론 모든 병기에서 이 광역학치료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임신을 원하는 적정병기의 여성암 환자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심각한 상태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필자에게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온 아기가 20여 명에 이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20여 명의 새 생명이 나에게는 200명 아니 20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도 3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는 물론 유럽 등 해외에서도 임신을 원하는 자궁암 또는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이메일을 읽을 때면 가슴이 저며 온다. 이제 곧 설 명절이다.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며 특히 아기를 갖고자 하는 여성암환자들에게 이 광역학치료가 빛의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부인종양학)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임상시험 정보 어떻게 얻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13634001  
본문: 임상시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시험’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임상시험은 신약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며 암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더 이상 기존 방법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암환자는 임상시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하는 것일까. 이를 보여주는 국가적 차원의 통계는 없다. 다만 국내 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경우를 꼽았다. 일단 주치의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다.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가운데 새로운 항암제를 연구 중인 경우 이를 자신의 환자에게 제안해볼 수 있다. 위암환우회 회장 심순복씨도 이 같은 경우였다. 심씨는 “첫 암진단을 받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 거의 포기할 때쯤 병원을 옮겨 찾아간 곳에서 임상시험을 권유받았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믿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환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다. 일단 회원수가 많은 환우회는 그 안에서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또한 특정 대형병원에서 만들어진 환우회일수록 간호사가 임원인 경우가 많아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S병원 임상연구간호사는 “신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효능비교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자신이 가짜약 군(group)에 속할까봐 오히려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는데, 자신이 임상신약 군에 뽑힐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형병원에서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임상시험의 종류와 시험기간, 의료혜택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일일이 물어보며 발품 파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상시험을 대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A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상시험이 지나치게 미화되어서 환상을 갖고 참여했다가 효과가 없어 크게 실망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환상 속 신기루 같은 이미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임상시험 수준은 수많은 시행착오 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센터를 갖춘 대형병원에서는 피험자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험자보호센터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임상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는지 심의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윤리생명심의위원회(IRB)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임상시험 중인 한 교수는 “비윤리적인 실험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그만큼 윤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본다.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나 의료진의 이해도가 높아진 덕”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7.txt

제목: [암과의 동행-자궁경부암] HPV 예방백신 접종만이 왕도일까… 세포진 검사 통해 전암병변 발견 중요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2001  
본문: 1970년 HPV(Human Papilloma virus,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이 바이러스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로 HPV로부터 여성의 몸을 지키는 백신이 등장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의 이름을 따서 HPV 예방백신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상은 바이러스 이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통용되어 불린다. 이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HPV 16형과 18형의 발생을 막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편의상 불리는 별칭 탓에 오히려 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HPV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일부 보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자 그룹에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의 병변을 발견하는 조기진단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경구피임약 복용,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암세포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전암병변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암이 되기 전 전암병변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암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HPV 백신접종과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자궁경부암 발생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암협회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을 위해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하나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2∼3년에 한 번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 표면에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 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만으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복용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했다. 경구피임약이 어떻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5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연관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국내외 암학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횟수를 늘릴 것을 권장했다. 한편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HPV 감염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소개한 세포진 검사와 같이 진행된다. 세포진 검사가 자궁 내 세포가 암으로 변할 조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라면 HPV 검사는 세포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궁경부에서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검사다. 따라서 세포의 암성변화 이전에 암으로 발전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span class='quot0'>HPV 검사로 자신의 위험도를 알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정보로 앞으로 더 열심히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8.txt

제목: [한세준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의지의 한국인은 바로 엄마가 된 당신입니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53  
본문: “<span class='quot0'>당신이 바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span>” 필자는 부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생명에 대한 남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필자는 부인과 의사이지만 남자여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또한 엄마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다. <br/><br/>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일단 자신의 몸부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도 그다지 예외는 아니다. 이는 인지상정이리라! 그런데 자신보다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암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었다. <br/><br/> 아마도 외국에서 유학 중에 자궁경부이형증 진단을 받은 환자로 기억이 된다. 이 환자 역시 필자에게 오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자궁경부이형증 2기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환상투열요법(LEEP) 시술로 치료받은 후, 새로이 자궁내막암으로 발전이 되었고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호르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임신과 유산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결국은 암이 재발한 상태였다.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그 환자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아기를 갖고 싶다는 바로 그 간절함이었다. <br/><br/>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필자 역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 광역학시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아주 양호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자신의 몸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보다 엄마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치료를 받은 그 환자는 쌍둥이를 출산하고 또다시 아기를 출산하여 이제는 세 아기의 엄마가 되어 있다.<br/><br/> 자신보다는 아기를 갖겠다는 간절함과 의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치료를 원하는 그 환자! 의지의 한국인은 바로 지금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바로 그 환자가 아닐까? 한 가지 질병만으로도, 그것도 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아마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리라! <br/><br/> 자궁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 치료방법에는 수술과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광역학치료이다. 물론 모든 병기에서 이 광역학치료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임신을 원하는 적정병기의 여성암 환자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br/><br/>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심각한 상태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필자에게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온 아기가 20여 명에 이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20여 명의 새 생명이 나에게는 200명 아니 20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br/><br/> 오늘도 3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는 물론 유럽 등 해외에서도 임신을 원하는 자궁암 또는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이메일을 읽을 때면 가슴이 저며 온다.<br/><br/> 이제 곧 설 명절이다.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며 특히 아기를 갖고자 하는 여성암환자들에게 이 광역학치료가 빛의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 본다. <br/><br/>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부인종양학)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89.txt

제목: [암환자 희망일기] 식도암, 흡연 음주와 깊은 연관… 조기발견땐 근치적절제술로 치료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31001  
본문: 식도암은 발생률은 높지 않으나, 한 번 발생하면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이다. 또한 흡연과 음주가 식도암 발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폐암, 후두암 환자에게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12년 전에는 폐암, 7년 전에는 구강암으로 각각 수술을 받은 65세 환자분이다. 2013년도에 다시 식도암이 발생해 식도암절제술 및 위장관치환술을 받았다. 세 가지 암 모두 비교적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전부 근치적절제술이 가능했다. 식도암 수술 시 위장을 이용한 위장관치환술을 하면 위장이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 조금씩 소장으로 내보내주던 기능이 없어져 위장관 역류증상 등이 발생한다. 현재 환자분은 식사 요령을 잘 익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6년 전 후두암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61세의 환자분으로 계속 경과관찰 중 식도암이 발견됐다. 과거 후두암으로 경부식도 절제술을 이미 받았고 경부식도에 소장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다. 식도 주변에 유착이 있어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위장관치환술을 잘 받았다. 이분은 기존의 후두암으로 기관절개술까지 받아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식도암도 잘 극복한 경우이다.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 다른 병원에서 목 주변의 임파선 전이를 동반한 식도암 3기를 진단받은 58세 남자분이다. 환자분은 수술은 불가능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1년 정도밖에는 더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본원 식도암센터를 방문했다. 정밀검사 후 식도암 3기는 맞지만 수술 전에 항암제 투여를 2회 실시한 다음 수술을 시행해볼 수 있겠다는 의료진의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영업부에 근무하던 46세 남자분으로 업무 특성상 술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근래 피곤한 감이 있어 직장의 직원 검진에서 추가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다. 위내시경검사에서 작은 위염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식도중부에 식도점막의 부식이 있어 조직검사를 했고 식도암으로 진단받았다. 다행히 추가 정밀검사에서 다른 이상은 없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12년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평소 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기존의 암에 동반하여 식도암이 발생한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은 편이지만 기존의 암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함으로써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근치적절제술도 가능하다. 암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암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치료의 희망은 있다. 이해원 원자력병원 식도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예방에 비타민D는 필수입니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7001  
본문: “유방암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유방암이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논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선고 후 1년 만에 세상과 작별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건강한 여성도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꼽히는 것들을 멀리하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외과 박경식 교수는 인터뷰를 시작하며 기억의 남는 환자 이야기를 꺼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유방암 선고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였다. 불행히도 그 환자는 유방암의 종류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염증성 유방암이었다. 전체 환자의 1∼6%를 차지하는 염증성 유방암은 암의 성장이 빨라 치료성적과 예후가 좋지 않다. 박 교수는 “수술과 보조치료의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모든 유방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다. 유방암 중에서도 전통적인 치료법이 듣지 않는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예방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단 박 교수는 비타민D의 섭취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타민D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유방암 예방을 위해 중요한 영양소다. 햇빛 노출을 꺼려하는 한국 여성들의 상당수는 체내 비타민D 농도가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 유방암 환자들 중에도 체내 비타민D 수치가 평균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 섭취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나의 환자들에게도 비타민D가 풍부한 연어, 참치, 꽁치, 표고버섯 등을 잘 섭취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타민D 섭취를 위해 아무리 식단을 챙겨먹어도 평균치만큼 끌어올리기 힘들다. 이때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두 번째로 꼽는 유방암 예방법은 저지방식이와 운동이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데, 젊은 여성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고 중년 이상의 여성은 복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 박 교수는 “저지방식이와 운동을 통해 복부지방을 없애면 체내의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유방암 발생위험이 크게 떨어진다. 사실 복부지방을 없앤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 유방암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연령별 유방암 발생빈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유방암 환자의 발생률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특히 60∼7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40∼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60대 이후부터는 유방암 발생률이 서서히 떨어진다. 박 교수는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유방암 발생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한국 여성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40∼50대 한국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다. 유방암 환자 중 부신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우리나라에 40∼50대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유방암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항암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암 덩어리 자체에서 나오는 독성이나 항암제의 독성으로 식욕부진이 찾아올 수 있다. 암환자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식욕촉진제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와 생선, 닭고기, 콩 등 단백질 반찬, 비타민D가 풍부한 반찬은 유방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1.txt

제목: [암과의 동행] 비소세포폐암 이긴다… 표적항암제 ‘지오트립’ 생존기간 연장 효능 입증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13641001  
본문: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에 비해 장기생존 비율이 낮고, 예후가 좋지 않아 진단 이후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도 감기나 기관지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과 혼동되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어려워 환자의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된다. 이 가운데도 국내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환자의 55∼80%가 처음 진단 당시 진행과 전이를 동반하고 있고, 조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20∼50%는 재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반응이 좋은 환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여 치료하는 표적치료제가 등장해 항암 치료 중에도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줄어들었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 환자의 40%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변이를 가지고 있어, 표적 치료제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비소세포폐암을 잡는 표적항암제들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 치료제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전방위적으로 표적을 차단하는 치료 매커니즘을 무기로 좋은 임상 결과를 쏟아놓으며 암 정복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가운데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임상 결과가 올해 1월 유명 의학저널인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되어 치료 기대를 더욱 높였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은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분석 결과를 통해 (지오트립을 일차 치료 요법으로 투여 받았을 때) 화학 요법 대비 가장 흔한 유형의 EGFR 변이(엑손 19 결실; Del19) 양성 환자가 일 년 이상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지오트립을 제외하고 어떤 EGFR 표적 치료제도 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연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지오트립은 그 동안 화학요법 대비 Del19와 L858R 환자군 모두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FS) 연장, 폐암 증상 조절과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것은 물론, 전체 생존 기간(OS) 연장이라는 더욱 큰 혜택을 더하게 됐다. 암 치료를 위한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확한 변이를 찾아 표적하는 표적치료제의 치료 매커니즘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의 가장 흔한 유형의 변이 가운데 엑손 19 결실에 탁월한 치료 반응을 보이는 지오트립이 좋은 예이다. 점점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치료 접근법으로 진화에 따라 생명 연장이라는 암환자의 치료 희망도 커지고 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예방에 비타민D는 필수입니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37  
본문: “유방암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유방암이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논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선고 후 1년 만에 세상과 작별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건강한 여성도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꼽히는 것들을 멀리하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합니다.”<br/><br/> 건국대학교병원 외과 박경식 교수는 인터뷰를 시작하며 기억의 남는 환자 이야기를 꺼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유방암 선고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였다. 불행히도 그 환자는 유방암의 종류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염증성 유방암이었다. 전체 환자의 1∼6%를 차지하는 염증성 유방암은 암의 성장이 빨라 치료성적과 예후가 좋지 않다. 박 교수는 “수술과 보조치료의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모든 유방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다. 유방암 중에서도 전통적인 치료법이 듣지 않는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예방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br/><br/> 일단 박 교수는 비타민D의 섭취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타민D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유방암 예방을 위해 중요한 영양소다. 햇빛 노출을 꺼려하는 한국 여성들의 상당수는 체내 비타민D 농도가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 유방암 환자들 중에도 체내 비타민D 수치가 평균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 섭취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나의 환자들에게도 비타민D가 풍부한 연어, 참치, 꽁치, 표고버섯 등을 잘 섭취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타민D 섭취를 위해 아무리 식단을 챙겨먹어도 평균치만큼 끌어올리기 힘들다. 이때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고 말했다.<br/><br/> 박 교수가 두 번째로 꼽는 유방암 예방법은 저지방식이와 운동이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데, 젊은 여성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고 중년 이상의 여성은 복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 박 교수는 “저지방식이와 운동을 통해 복부지방을 없애면 체내의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유방암 발생위험이 크게 떨어진다. 사실 복부지방을 없앤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 유방암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br/> 한편 박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연령별 유방암 발생빈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유방암 환자의 발생률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특히 60∼7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40∼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60대 이후부터는 유방암 발생률이 서서히 떨어진다. 박 교수는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유방암 발생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한국 여성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40∼50대 한국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다. 유방암 환자 중 부신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우리나라에 40∼50대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유방암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br/><br/> 박 교수는 현재 항암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암 덩어리 자체에서 나오는 독성이나 항암제의 독성으로 식욕부진이 찾아올 수 있다. 암환자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식욕촉진제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와 생선, 닭고기, 콩 등 단백질 반찬, 비타민D가 풍부한 반찬은 유방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재건술 10년새 8배나 증가… 선별급여 적용 400만원 이하 부담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215  
본문: 유방암학회에 따르면 0기 또는 1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2000년 32.6%에서 2011년 56.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전체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방법도 변화를 맞았는데 2000년에는 27.9%에 머물렀던 유방부분절제수술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65.7%를 차지하게 된다. 유방재건수술이나 종양성형수술도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9건에 불과하던 유방재건술이 2010년에는 812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방재건술’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4월부터 급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800만원에서 1400만원 수준이던 환자 부담이 200만∼4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br/><br/> 유방암의 일차적 치료는 수술인데 유방의 암과 겨드랑이 림프절의 암 전이 상태가 환자의 정확한 병기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자 수술 후 이뤄지는 보조치료 선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유방암 수술은 유방에 대한 수술(유방 보존술, 유방 전 절제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감시림프절 생검, 액와림프절 절제술)로 이뤄지며, 1차적 수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내분비요법, 표적치료 등을 시행한다.<br/><br/> 방사선치료는 유방절제술 후 혹시 수술 부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박멸하기 위해 보조적 치료법으로 사용하거나, 수술 부위의 재발 또는 뼈나 뇌 등의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 완화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거나, 전체절제를 했더라도 많이 진행된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며, 진행이 심해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도 수술 대신 방사선치료를 하기도 한다. 내분비요법은 방사선치료·항암화학요법과 달리 환자의 고통이 덜하고 효과적이어서 주목받는 보조요법이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60∼70%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내분비요법은 여성호르몬의 생성을 막거나(아로마타제 억제제) 작용하지 못하게(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하는 방법이다. 폐경 후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종양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경우 효과적이다.<br/><br/>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여야 하거나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또는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메소트레세이트, 5-FU, 독소루비신(아드리아마이신), 에피루비신,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이 있으며, 성장인자수용체 유형2(HER-2) 유전자를 표적 치료하는 트주맙, 라파티닙과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퍼투주맙 등도 있다. 이외에도 에버롤리무스, T-DM1(트라스트주맙 엠탄신), 에리불린 익사베필론 등의 성분이 전이 및 재발성 유방암에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재건술 10년새 8배나 증가… 선별급여 적용 400만원 이하 부담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0001  
본문: 유방암학회에 따르면 0기 또는 1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2000년 32.6%에서 2011년 56.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전체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방법도 변화를 맞았는데 2000년에는 27.9%에 머물렀던 유방부분절제수술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65.7%를 차지하게 된다. 유방재건수술이나 종양성형수술도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9건에 불과하던 유방재건술이 2010년에는 812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방재건술’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4월부터 급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800만원에서 1400만원 수준이던 환자 부담이 200만∼4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의 일차적 치료는 수술인데 유방의 암과 겨드랑이 림프절의 암 전이 상태가 환자의 정확한 병기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자 수술 후 이뤄지는 보조치료 선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유방암 수술은 유방에 대한 수술(유방 보존술, 유방 전 절제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감시림프절 생검, 액와림프절 절제술)로 이뤄지며, 1차적 수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내분비요법, 표적치료 등을 시행한다. 방사선치료는 유방절제술 후 혹시 수술 부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박멸하기 위해 보조적 치료법으로 사용하거나, 수술 부위의 재발 또는 뼈나 뇌 등의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 완화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거나, 전체절제를 했더라도 많이 진행된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며, 진행이 심해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도 수술 대신 방사선치료를 하기도 한다. 내분비요법은 방사선치료·항암화학요법과 달리 환자의 고통이 덜하고 효과적이어서 주목받는 보조요법이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60∼70%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내분비요법은 여성호르몬의 생성을 막거나(아로마타제 억제제) 작용하지 못하게(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하는 방법이다. 폐경 후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종양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경우 효과적이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여야 하거나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또는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메소트레세이트, 5-FU, 독소루비신(아드리아마이신), 에피루비신,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이 있으며, 성장인자수용체 유형2(HER-2) 유전자를 표적 치료하는 트주맙, 라파티닙과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퍼투주맙 등도 있다. 이외에도 에버롤리무스, T-DM1(트라스트주맙 엠탄신), 에리불린 익사베필론 등의 성분이 전이 및 재발성 유방암에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임상시험 제약사 위주 편중 연구자 주도 독립진행 바람직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7  
본문: 임상시험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약회사에서 시판허가를 위해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을 서로 비교하며 우월성을 따져보는 실험이다. 국내 임상시험의 현주소는 신약을 내놓기 위해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는 “기존 약들의 효과를 비교해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표준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외부의 의뢰 없이 연구자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더 나은 치료법을 발견하는 기회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국가에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약물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 외에도 치료기간별 효능을 비교한 시험을 진행해 중대한 정보를 발견하기도 한다. 일례로 허가 당시에는 ‘효과를 위해 환자는 1년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6개월간 복용한 환자와 1년간 복용한 환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드러나면 환자는 6개월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안이 바뀔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환자는 복용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고 의료비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br/><br/> 여기서의 문제는 약물을 비교하는 임상이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제약회사는 약물효능 비교실험에서 자사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것이 입증될까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과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연구진이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의사 혼자 이 모든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연구를 위한 재정도 문제고, 제약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윤구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약회사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다. 후자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주제로 실험을 진행해 나가는 거다. 가령 제약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다른 항암제의 효능을 비교해볼 수도 있고 기존 약물을 혼합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국내 임상시험은 제약사 중심의 임상시험 비중이 높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공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향상된 치료법 개발을 위해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r/><br/> 미국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의료진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며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유방암 치료에 있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근치적 유방절제술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유방암 재발률이 높은 상태에서 특정 항암제를 복용하면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보 모두 생명연장에 기여한 면이 크다.<br/><br/> 강 교수는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고다. 멀리 보면 불필요한 치료제의 지출을 아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약물요법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극복… 환자-의사가 말하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193  
본문: 지난해 11월 강규언(45)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 회장이 양정현(66)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원장 겸 유방암센터장에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암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의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올해 바자회에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만큼 도움이 필요한 암환자에게 쓰였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양 의료원장은 “매년 환우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도움이 필요한 환우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항상 에델바이스에게 감사하고, 의료진들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덧붙였다. 이에 강 회장은 다시 “환우회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어 뿌듯하다. 유방암 환우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잡아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양 의료원장과 강 회장의 첫 만남은 유방암 환자와 유방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시작됐다. <br/><br/>◇양정현이라는 의사를 만나다=지난 2011년 40대 초반 나이의 강규언씨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1기 환자로 양정현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장을 만났다. 유방암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양 센터장이 삼성의료원에서 이 병원으로 부임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같은 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강씨의 주치의 만남은 행운 그 자체였다. <br/><br/> 그해 6월 16일 강씨는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7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친 항암치료에 이어 11월 18일까지 방사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씨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항호르몬제를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다.<br/><br/> 유방암을 이겨내겠다는 강씨의 마음가짐과 양 의료원장과 의료진들의 노력이 합쳐져 치료 3년이 지난 2014년 8월 검사상 재발 및 전이 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강씨는 암이 본인에게 찾아왔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br/><br/> 만 40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받게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때 했던 유방촬영검사에서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초음파검사를 해보라 했지요. 초음파검사에서 작은 혹이 보인다고 계속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로부터 일년 남짓 후에 초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조직검사를 했고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조직채취를 위해 의료침상에 누웠을 때 암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몸에게 ‘너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아끼지도 않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제 몸에게 깊은 사과를 했어요.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무덤덤했어요. 남편이 오히려 눈물을 보였지요.<br/><br/> 남편이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방암 권위자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양정현 교수님을 알게 됐고, 양 교수님을 찾아서 건국대병원에 오게 됐어요. 양 교수님은 ‘감시림프절 생검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해 유방암 치료에 선구자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분이란 생각을 했어요. 운 좋게 양 교수님을 알게 되어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에서 양 교수님을 처음 뵙던 날, 교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당신의 저서인 ‘유방암 진료실에서 못다 한 이야기’ 책 한 권을 사인을 해서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양 교수님의 방송프로를 인터넷에서 다시보기를 통해 모조리 보았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방법과 진행 등 유방암에 대한 정보와 함께 양 교수님의 유방암 환우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나니 든든하고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지요.<br/><br/> 수술을 위해 수술대에 누웠을 때 양 교수님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교수님을 믿었으니까 마음을 놓고 편히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br/><br/> 양정현 의료원장은 유방암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유방암 치료 명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방암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법, 겨드랑이 부분에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는 겨드랑이 임파절 내시경 수술, 침 정위 생검법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면서 환자들의 통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 전체 유방암 환자 중 80%에 대해 유방 보존술을 시행했는데 이는 선진국 수준의 유방보존 성적이다. <br/><br/> 양 의료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국립의료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과과장, 암센터장, 진료부원장, 성균관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 지냈다. 2011년 6월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장으로 부임했으며 그해 9월 건국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연구를 선도해온 양 의료원장은 한국유방암학회장, 대한내분비외과학회장, 대한감시림프절연구회장, 세계유방암컨퍼런스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유방외과술기연구회장, 대한림프부종학회장을 맡고 있다. 해외 학술활동으로는 미국외과학술원회원, 미국종약학회 정회원, 미국유방학회 정회원, 국제 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r/><br/> ◇환자 강규언씨는 이랬다=양 의료원장은 처음 강씨를 만났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br/><br/> 오른쪽 유방의 바깥쪽 겨드랑이에 가깝게 밤알만한 딱딱한 혹이 만져졌다. 외부병원에서 이미 침생검을 해 조직검사상 유방암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비교적 양순하고 치료방법도 많이 발달해 있어 너무 두려워 말라고 당부했다. 검사, 수술 결과 1기 유방암으로서 수술은 유방부분절제술과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보조로 시행하고 현재 항호르몬 치료 중인바 수술 후 4년째인 현재 재발이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다.<br/><br/> 강규언씨를 포함한 모든 유방암 환자들에게 양 의료원장은 “유방암은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 아니며 최근 많은 치료약제가 개발돼 생존율이 눈부시게 높아진 암이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치료하고 잘 관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라고 당부한다”고 항상 얘기한다. <br/><br/> 또 현재 유방암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병원에 올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자신이 유방암 환자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고, ‘나는 감기를 앓고 있듯 필연적으로 유방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낙천적인 사고와 신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br/><br/> 아울러 양 의료원장은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무척 중요한데,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환자의 일상, 관심사 등을 고려하며 나누는 진료실 대화는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의사의 권위나 진료의 효율성은 잠시 내려놓고서 환자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마음의 노력을 하고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도 이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남다른 이유=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2011년 양 교수 부임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국내 최고의 전문암센터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br/><br/> 2012년 들어서면서 유방암센터는 진료 성적을 국내 최고로 끌어 올리는 한편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에 주력했다. 유방암 환자만을 위한 전문 외래진료 공간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여성 전용 병동을 가동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한 해 총 수술 건수가 30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가 높다는 객관적 근거다. <br/><br/> 유방암센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8개 진료과의 유방질환 전문의가 유방 방사선 촬영, 유방 감마스캔, 초음파, 조직검사 장비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환자 진료정보를 종합 분석해 유방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외래 환자에 대해 당일 진료 및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유방암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법, 겨드랑이 부분에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는 겨드랑이 임파절 내시경 수술, 침 정위 생검법, 양성종양에 대한 맘모톰절제술 등의 첨단 기법을 이용해 진단에서 치료의 전 과정에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의 근본인 수술의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협진, 최신 수술 장비 및 기법을 통해 유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유방보존수술을 받은 경우는 8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유수의 병원과 대등한 성적이다. 또 전 절제가 불가피한 환자라 할지라도 수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 <br/><br/>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수술 후에도 유방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유방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여성으로서의 상징성이 사라져 비록 암은 완치될 수 있으나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양 개수가 많거나 암 조직이 크면 항암치료를 한 뒤 유방보존술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br/><br/>◇환우회 회장과 의사로 다른 환자를 돕다=강규언 회장과 양정현 의료원장의 이러한 인연은 유방암 환우회 봉사로 이어졌다. 건국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환우회지만 구성원은 다양하다. 인천, 용인, 이천 등 각지에서 환우들이 찾아온다. 회원들이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br/><br/> 에델바이스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 강규언씨는 암 환자일 당시에도 환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완치 후에도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 회장은 “<span class='quot0'>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에델바이스를 계속 찾는 이유</span>”라고 말했다.<br/><br/> 에델바이스는 매년 옷과 음식 등 유방암 환우를 위한 자선바자회를 진행, 수익금을 암환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건국대병원에 기부하고 있다. 매년 초 정기총회를 개최해 1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봄에는 춘계 야유회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회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여름에는 희망나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으로 불우한 환우를 돕는다. 가을에는 핑크리본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건강강좌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겨울에는 송년의 밤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br/><br/> 양 의료원장은 “환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환우일수록 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환우회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인간관계는 투병 중 겪는 심적인 고통을 상당히 덜어주어 향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극복… 환자-의사가 말하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09001  
본문: 지난해 11월 강규언(45)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 회장이 양정현(66)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원장 겸 유방암센터장에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암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의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올해 바자회에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만큼 도움이 필요한 암환자에게 쓰였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양 의료원장은 “매년 환우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도움이 필요한 환우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항상 에델바이스에게 감사하고, 의료진들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덧붙였다. 이에 강 회장은 다시 “환우회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어 뿌듯하다. 유방암 환우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잡아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양 의료원장과 강 회장의 첫 만남은 유방암 환자와 유방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시작됐다. ◇양정현이라는 의사를 만나다=지난 2011년 40대 초반 나이의 강규언씨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1기 환자로 양정현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장을 만났다. 유방암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양 센터장이 삼성의료원에서 이 병원으로 부임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같은 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강씨의 주치의 만남은 행운 그 자체였다. 그해 6월 16일 강씨는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7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친 항암치료에 이어 11월 18일까지 방사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씨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항호르몬제를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다. 유방암을 이겨내겠다는 강씨의 마음가짐과 양 의료원장과 의료진들의 노력이 합쳐져 치료 3년이 지난 2014년 8월 검사상 재발 및 전이 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강씨는 암이 본인에게 찾아왔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만 40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받게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때 했던 유방촬영검사에서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초음파검사를 해보라 했지요. 초음파검사에서 작은 혹이 보인다고 계속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로부터 일년 남짓 후에 초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조직검사를 했고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조직채취를 위해 의료침상에 누웠을 때 암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몸에게 ‘너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아끼지도 않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제 몸에게 깊은 사과를 했어요.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무덤덤했어요. 남편이 오히려 눈물을 보였지요. 남편이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방암 권위자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양정현 교수님을 알게 됐고, 양 교수님을 찾아서 건국대병원에 오게 됐어요. 양 교수님은 ‘감시림프절 생검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해 유방암 치료에 선구자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분이란 생각을 했어요. 운 좋게 양 교수님을 알게 되어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에서 양 교수님을 처음 뵙던 날, 교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당신의 저서인 ‘유방암 진료실에서 못다 한 이야기’ 책 한 권을 사인을 해서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양 교수님의 방송프로를 인터넷에서 다시보기를 통해 모조리 보았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방법과 진행 등 유방암에 대한 정보와 함께 양 교수님의 유방암 환우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나니 든든하고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지요. 수술을 위해 수술대에 누웠을 때 양 교수님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교수님을 믿었으니까 마음을 놓고 편히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양정현 의료원장은 유방암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유방암 치료 명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방암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법, 겨드랑이 부분에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는 겨드랑이 임파절 내시경 수술, 침 정위 생검법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면서 환자들의 통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 전체 유방암 환자 중 80%에 대해 유방 보존술을 시행했는데 이는 선진국 수준의 유방보존 성적이다. 양 의료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국립의료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과과장, 암센터장, 진료부원장, 성균관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 지냈다. 2011년 6월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장으로 부임했으며 그해 9월 건국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연구를 선도해온 양 의료원장은 한국유방암학회장, 대한내분비외과학회장, 대한감시림프절연구회장, 세계유방암컨퍼런스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유방외과술기연구회장, 대한림프부종학회장을 맡고 있다. 해외 학술활동으로는 미국외과학술원회원, 미국종약학회 정회원, 미국유방학회 정회원, 국제 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자 강규언씨는 이랬다=양 의료원장은 처음 강씨를 만났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오른쪽 유방의 바깥쪽 겨드랑이에 가깝게 밤알만한 딱딱한 혹이 만져졌다. 외부병원에서 이미 침생검을 해 조직검사상 유방암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비교적 양순하고 치료방법도 많이 발달해 있어 너무 두려워 말라고 당부했다. 검사, 수술 결과 1기 유방암으로서 수술은 유방부분절제술과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보조로 시행하고 현재 항호르몬 치료 중인바 수술 후 4년째인 현재 재발이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다. 강규언씨를 포함한 모든 유방암 환자들에게 양 의료원장은 “유방암은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 아니며 최근 많은 치료약제가 개발돼 생존율이 눈부시게 높아진 암이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치료하고 잘 관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라고 당부한다”고 항상 얘기한다. 또 현재 유방암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병원에 올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자신이 유방암 환자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고, ‘나는 감기를 앓고 있듯 필연적으로 유방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낙천적인 사고와 신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의료원장은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무척 중요한데,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환자의 일상, 관심사 등을 고려하며 나누는 진료실 대화는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의사의 권위나 진료의 효율성은 잠시 내려놓고서 환자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마음의 노력을 하고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도 이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남다른 이유=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2011년 양 교수 부임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국내 최고의 전문암센터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2012년 들어서면서 유방암센터는 진료 성적을 국내 최고로 끌어 올리는 한편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에 주력했다. 유방암 환자만을 위한 전문 외래진료 공간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여성 전용 병동을 가동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한 해 총 수술 건수가 30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가 높다는 객관적 근거다. 유방암센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8개 진료과의 유방질환 전문의가 유방 방사선 촬영, 유방 감마스캔, 초음파, 조직검사 장비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환자 진료정보를 종합 분석해 유방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외래 환자에 대해 당일 진료 및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유방암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법, 겨드랑이 부분에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는 겨드랑이 임파절 내시경 수술, 침 정위 생검법, 양성종양에 대한 맘모톰절제술 등의 첨단 기법을 이용해 진단에서 치료의 전 과정에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의 근본인 수술의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협진, 최신 수술 장비 및 기법을 통해 유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유방보존수술을 받은 경우는 8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유수의 병원과 대등한 성적이다. 또 전 절제가 불가피한 환자라 할지라도 수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가 수술 후에도 유방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유방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여성으로서의 상징성이 사라져 비록 암은 완치될 수 있으나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양 개수가 많거나 암 조직이 크면 항암치료를 한 뒤 유방보존술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환우회 회장과 의사로 다른 환자를 돕다=강규언 회장과 양정현 의료원장의 이러한 인연은 유방암 환우회 봉사로 이어졌다. 건국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환우회지만 구성원은 다양하다. 인천, 용인, 이천 등 각지에서 환우들이 찾아온다. 회원들이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에델바이스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 강규언씨는 암 환자일 당시에도 환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완치 후에도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 회장은 “<span class='quot0'>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에델바이스를 계속 찾는 이유</span>”라고 말했다. 에델바이스는 매년 옷과 음식 등 유방암 환우를 위한 자선바자회를 진행, 수익금을 암환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건국대병원에 기부하고 있다. 매년 초 정기총회를 개최해 1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봄에는 춘계 야유회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회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여름에는 희망나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으로 불우한 환우를 돕는다. 가을에는 핑크리본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건강강좌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겨울에는 송년의 밤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양 의료원장은 “환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환우일수록 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환우회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인간관계는 투병 중 겪는 심적인 고통을 상당히 덜어주어 향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8.txt

제목: [암과의 동행] 30∼40대 환자가 40%… 젊은층도 불안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194  
본문: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지난해 발행한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2012년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세이고, 40대가 전체의 약 36%(453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약 32%(4041명)였고, 30대 유방암 환자와 60세 이상 유방암 환자도 각각 10%와 21%로 나타났다.<br/><br/> 우리나라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0∼40대 젊은 층이 전체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유방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유방암 정기 검진은 30대에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정윤 강동경희대병원 여성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고지방·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률 저하, 수유 기피, 빠른 초경과 암 검진사업에 따른 유방검진의 활성화로 유방암 발견 빈도가 늘어났다</span>”고 설명했다.<br/><br/> 유방암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른 초경, 늦은 폐경과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오랫동안 분비될 때, 수유한 적이 없거나, 유방에 양성 종양이 생긴 적이 있을 때 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유방암 발생 빈도가 4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25세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br/><br/> ◇유방암 자가진단, 월경 후 3∼5일 최적기=유방암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가진단과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 유방암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지만 비만과 음주를 피하고 운동을 주 5회 이상 지속해야 한다. 특히 유방암 예방은 이차 예방,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이다. 조기 발견을 위해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진단,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유방 진찰, 40세 이후 1∼2년 간격으로 의사의 유방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고한 바 있다. 자가진단은 매월 월경이 끝나고 3∼5일 후이며, 이유는 이때 유방이 가장 부드럽기 때문이다. 또한 자궁제거술을 받았거나 폐경인 여성은 매월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자가진단 시 유방멍울, 통증, 유두 분비, 유두의 함몰, 유방의 주름, 유두습진, 유방 피부의 변화와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 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혹이 만져지거나 유방의 통증이 느껴지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br/> 유방암 진단방법 중 유방촬영은 필수 기본검사다. 5㎜ 정도 크기의 종괴 발견이 가능하며 90∼95%의 정확성을 보이고, 촉지 되지 않은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예민한 검사다. 이는 조기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에 지방조직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치밀유방 소견이 많아 유방촬영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 유방암 수술 전 병기 결정이나 전이여부, 상피내암이나 다발성 병변 진단 등을 할 경우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시행한다. <br/><br/> ◇유방재건수술로 삶의 질 향상=유방암 치료는 발생연령, 병기, 암의 병리학적 특성, 환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한다. 수술 치료는 부분절제수술(유방보존수술)과 전체절제수술로 구분된다. 최근 수술 후 림프부종 등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생검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수술 전 선행 항암화학요법으로 종양 크기를 줄여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치료도 많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유방 전체절제수술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재건수술을 적극 시도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99건이었던 유방재건수술이 2012년에는 910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송정윤 교수는 “<span class='quot1'>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유방암의 경우, 증상이 발견된 후 진단된 유방암에 비해 좀 더 좋은 예후 인자를 가진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사망률 또한 낮추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199.txt

제목: [암과의 동행] 30∼40대 환자가 40%… 젊은층도 불안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09002  
본문: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지난해 발행한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2012년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세이고, 40대가 전체의 약 36%(453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약 32%(4041명)였고, 30대 유방암 환자와 60세 이상 유방암 환자도 각각 10%와 2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0∼40대 젊은 층이 전체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유방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유방암 정기 검진은 30대에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정윤 강동경희대병원 여성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고지방·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률 저하, 수유 기피, 빠른 초경과 암 검진사업에 따른 유방검진의 활성화로 유방암 발견 빈도가 늘어났다</span>”고 설명했다. 유방암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른 초경, 늦은 폐경과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오랫동안 분비될 때, 수유한 적이 없거나, 유방에 양성 종양이 생긴 적이 있을 때 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유방암 발생 빈도가 4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25세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유방암 자가진단, 월경 후 3∼5일 최적기=유방암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가진단과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 유방암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지만 비만과 음주를 피하고 운동을 주 5회 이상 지속해야 한다. 특히 유방암 예방은 이차 예방,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이다. 조기 발견을 위해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진단,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유방 진찰, 40세 이후 1∼2년 간격으로 의사의 유방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고한 바 있다. 자가진단은 매월 월경이 끝나고 3∼5일 후이며, 이유는 이때 유방이 가장 부드럽기 때문이다. 또한 자궁제거술을 받았거나 폐경인 여성은 매월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자가진단 시 유방멍울, 통증, 유두 분비, 유두의 함몰, 유방의 주름, 유두습진, 유방 피부의 변화와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 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혹이 만져지거나 유방의 통증이 느껴지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방암 진단방법 중 유방촬영은 필수 기본검사다. 5㎜ 정도 크기의 종괴 발견이 가능하며 90∼95%의 정확성을 보이고, 촉지 되지 않은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예민한 검사다. 이는 조기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에 지방조직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치밀유방 소견이 많아 유방촬영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 유방암 수술 전 병기 결정이나 전이여부, 상피내암이나 다발성 병변 진단 등을 할 경우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시행한다. ◇유방재건수술로 삶의 질 향상=유방암 치료는 발생연령, 병기, 암의 병리학적 특성, 환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한다. 수술 치료는 부분절제수술(유방보존수술)과 전체절제수술로 구분된다. 최근 수술 후 림프부종 등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생검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수술 전 선행 항암화학요법으로 종양 크기를 줄여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치료도 많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유방 전체절제수술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재건수술을 적극 시도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99건이었던 유방재건수술이 2012년에는 910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송정윤 교수는 “<span class='quot1'>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유방암의 경우, 증상이 발견된 후 진단된 유방암에 비해 좀 더 좋은 예후 인자를 가진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사망률 또한 낮추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환자수 매년 1만여명씩 꾸준히 증가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1001  
본문: 유방암(악성)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2010년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이 91%에 달하는 예후가 좋은 암 중의 하나이다. 이는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도 있는데 때문에 10년 후에도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30%의 재발률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9년 8만8155명에서 2010년 9만7008명, 2011년 10만4390명, 2012년 11만3242명, 2013년 12만3197명으로 매년 1만명 가까이 증가해 2014년에는 6월까지 11만5778명(입원 2만2078명, 외래 11만4220명)의 환자가 진료(진료비 2249억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남성 유방암 환자는 447명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 275명 당 1명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122명, 60대 128명, 70대 124명으로 중년 이후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2만2750명 중 50대가 4만93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만6984명, 60대 2만2945명, 70대 9128명, 30대 9076명 순이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8만9072명, 종합병원 3만8739명, 병원급 1만36명, 의원급 1만2211명, 보건기관 66명 등 약 15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환자보다 3만명 가까이 많은 수치다. 그 이유는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암이 주는 두려움에 여러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환자의 심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34만934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58만7210일, 병원급 50만5425일, 의원급 10만7446일, 보건기관 364일이었다. 연간 1인당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327만6000원, 종합병원 324만원, 병원급 314만원, 의원급 47만원, 보건소 8만6000원이었다. 유방암 환자가 많은 시·도 지역은 서울이 6만605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2만2479명), 부산(1만1257명), 대구(8260명) 순으로 높았다.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2005년 9월부터 등록인원 기준)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지역이 3만529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3만3986명, 부산 1만474명, 인천 8138명이 뒤를 이었다. 이를 2013년 인구수(세종 제외) 순위(가장 많은 수가 1위)와 비교해보면 강원(인구 14위, 암등록 11위), 대전(인구 12위, 암등록 10위), 인천(인구수 5위, 암등록 4위), 대구(인구 7위, 암등록 6위)의 경우 인구수 순위에 비해 등록암 환자수 순위 높았고, 전남(인구 10위, 암등록 13위), 경북, 경남, 광주는 낮았다. 2013년 기준 신규 암환자가 많은 지역 역시 대부분 인구수에 비례해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는데 인천의 경우는 인구수 순위는 8위인 데 반해 신규 암환자 등록은 4위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고, 강원 역시 인구수 순위는 14위인 데 반해 신규 암환자 등록은 10위를 차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환자수 매년 1만여명씩 꾸준히 증가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226  
본문: 유방암(악성)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2010년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이 91%에 달하는 예후가 좋은 암 중의 하나이다. 이는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도 있는데 때문에 10년 후에도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30%의 재발률을 보인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9년 8만8155명에서 2010년 9만7008명, 2011년 10만4390명, 2012년 11만3242명, 2013년 12만3197명으로 매년 1만명 가까이 증가해 2014년에는 6월까지 11만5778명(입원 2만2078명, 외래 11만4220명)의 환자가 진료(진료비 2249억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2013년 기준 남성 유방암 환자는 447명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 275명 당 1명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122명, 60대 128명, 70대 124명으로 중년 이후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2만2750명 중 50대가 4만93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만6984명, 60대 2만2945명, 70대 9128명, 30대 9076명 순이었다. <br/><br/> 요양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8만9072명, 종합병원 3만8739명, 병원급 1만36명, 의원급 1만2211명, 보건기관 66명 등 약 15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환자보다 3만명 가까이 많은 수치다. 그 이유는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암이 주는 두려움에 여러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환자의 심리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 입·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34만934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58만7210일, 병원급 50만5425일, 의원급 10만7446일, 보건기관 364일이었다. 연간 1인당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327만6000원, 종합병원 324만원, 병원급 314만원, 의원급 47만원, 보건소 8만6000원이었다.<br/><br/> 유방암 환자가 많은 시·도 지역은 서울이 6만605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2만2479명), 부산(1만1257명), 대구(8260명) 순으로 높았다.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2005년 9월부터 등록인원 기준)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지역이 3만529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3만3986명, 부산 1만474명, 인천 8138명이 뒤를 이었다. 이를 2013년 인구수(세종 제외) 순위(가장 많은 수가 1위)와 비교해보면 강원(인구 14위, 암등록 11위), 대전(인구 12위, 암등록 10위), 인천(인구수 5위, 암등록 4위), 대구(인구 7위, 암등록 6위)의 경우 인구수 순위에 비해 등록암 환자수 순위 높았고, 전남(인구 10위, 암등록 13위), 경북, 경남, 광주는 낮았다.<br/><br/> 2013년 기준 신규 암환자가 많은 지역 역시 대부분 인구수에 비례해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는데 인천의 경우는 인구수 순위는 8위인 데 반해 신규 암환자 등록은 4위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고, 강원 역시 인구수 순위는 14위인 데 반해 신규 암환자 등록은 10위를 차지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임상시험 제약사 위주 편중 연구자 주도 독립진행 바람직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4001  
본문: 임상시험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약회사에서 시판허가를 위해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을 서로 비교하며 우월성을 따져보는 실험이다. 국내 임상시험의 현주소는 신약을 내놓기 위해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는 “기존 약들의 효과를 비교해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표준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외부의 의뢰 없이 연구자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더 나은 치료법을 발견하는 기회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국가에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약물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 외에도 치료기간별 효능을 비교한 시험을 진행해 중대한 정보를 발견하기도 한다. 일례로 허가 당시에는 ‘효과를 위해 환자는 1년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6개월간 복용한 환자와 1년간 복용한 환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드러나면 환자는 6개월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안이 바뀔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환자는 복용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고 의료비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약물을 비교하는 임상이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제약회사는 약물효능 비교실험에서 자사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것이 입증될까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과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연구진이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의사 혼자 이 모든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연구를 위한 재정도 문제고, 제약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윤구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약회사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이 있다. 후자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주제로 실험을 진행해 나가는 거다. 가령 제약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다른 항암제의 효능을 비교해볼 수도 있고 기존 약물을 혼합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국내 임상시험은 제약사 중심의 임상시험 비중이 높고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공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향상된 치료법 개발을 위해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의료진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며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유방암 치료에 있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근치적 유방절제술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유방암 재발률이 높은 상태에서 특정 항암제를 복용하면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보 모두 생명연장에 기여한 면이 크다. 강 교수는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고다. 멀리 보면 불필요한 치료제의 지출을 아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약물요법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듀아비브’ 유방자극 불편 줄여 큰 효과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35001  
본문: 우리나라 폐경 여성의 수는 전체 여성 인구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이면 전체 여성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구의 고령화, 출생률 저하로 절대 인구수가 줄어든 만큼 폐경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폐경기 여성이 늘고 있지만, 여성들의 상당수가 폐경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호르몬요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폐경 치료의 권위자인 미국 뉴욕대학교 란곤 메디컬센터 산부인과 스티븐 골드스타인(Steven R. Goldstein·사진 왼쪽)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 산부인과 이병석 교수(오른쪽·대한폐경학회 회장)를 지난 4일 만나 대담을 갖고 폐경 여성의 치료법에 대해 물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폐경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폐경기의 주요 증상은. △골드스타인 교수=미국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이 암 등의 중증 질환이 없으면 평균 기대 수명을 91세로 예측하고 있다. 폐경 이후의 기간이 본인 인생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폐경기 증상으로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야간발한, 안면홍조와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있으며, 골 질량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골손실 등 주로 골 건강이 나빠지는 증상이 있다. -한국 여성들은 폐경기 치료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폐경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병석 교수=우리나라 여성들은 폐경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호르몬치료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약물치료에 대한 복약순응도가 낮고 호르몬 치료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폐경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조기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에만 의존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 △골드스타인=미국에서도 대체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건기식의 경우 붉은 토끼풀(Red clover)이나 승마(Black Cohosh)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제제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표준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만들어지지도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병석=우리나라에서도 백수오, 달맞이꽃 종자유, 당귀 등을 사용한 건기식을 많이 먹는다. 이러한 건기식은 폐경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더 확보돼야 하며,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폐경기 여성들에 쓰이는 기존의 호르몬 치료제는 유방암 위험성 증가, 골다공증 등의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었다. 특히 WHI(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는 큰 우려를 낳았다. △골드스타인=현재까지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쓰이던 호르몬 요법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병용한 요법이다. 하지만 WHI 연구를 통해 폐경 여성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유방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며 학계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호르몬 치료의 이점이 많음에도 잘못된 근거에서 발생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병석=WHI 보고 이후 주요 언론들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가 주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위험에 집착해 장점들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과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폐경기 여성에게 적극 권장된다. -기존 호르몬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TSEC 계열의 ‘듀아비브’라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들었다. 폐경기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병석=이 약물은 신약이기 때문에 장기 임상결과는 없어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이 치료제는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져가면서, 바제독시펜 성분이 함유돼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뼈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어 폐경기 여성 치료에 긍정적인 약물이다. △골드스타인=에스트로겐 단독 사용 시에는 자궁내막 증식의 위험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복합 요법 시에는 유방 자극 및 자궁출혈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듀아비브는 결합형 에스트로겐과 바제독시펜을 접목해 자궁출혈의 불편함, 유방 자극 등의 불편함을 줄여 폐경기 여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듀아비브’ 유방자극 불편 줄여 큰 효과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77  
본문: 우리나라 폐경 여성의 수는 전체 여성 인구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이면 전체 여성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구의 고령화, 출생률 저하로 절대 인구수가 줄어든 만큼 폐경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폐경기 여성이 늘고 있지만, 여성들의 상당수가 폐경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호르몬요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폐경 치료의 권위자인 미국 뉴욕대학교 란곤 메디컬센터 산부인과 스티븐 골드스타인(Steven R. Goldstein·사진 왼쪽)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 산부인과 이병석 교수(오른쪽·대한폐경학회 회장)를 지난 4일 만나 대담을 갖고 폐경 여성의 치료법에 대해 물었다. <br/><br/>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폐경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폐경기의 주요 증상은. <br/><br/> △골드스타인 교수=미국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이 암 등의 중증 질환이 없으면 평균 기대 수명을 91세로 예측하고 있다. 폐경 이후의 기간이 본인 인생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폐경기 증상으로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야간발한, 안면홍조와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있으며, 골 질량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골손실 등 주로 골 건강이 나빠지는 증상이 있다. <br/><br/> -한국 여성들은 폐경기 치료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폐경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br/><br/> △이병석 교수=우리나라 여성들은 폐경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호르몬치료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약물치료에 대한 복약순응도가 낮고 호르몬 치료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폐경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조기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 <br/><br/>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에만 의존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br/><br/> △골드스타인=미국에서도 대체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건기식의 경우 붉은 토끼풀(Red clover)이나 승마(Black Cohosh)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제제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표준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만들어지지도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많다. <br/><br/> △이병석=우리나라에서도 백수오, 달맞이꽃 종자유, 당귀 등을 사용한 건기식을 많이 먹는다. 이러한 건기식은 폐경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더 확보돼야 하며,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br/><br/> -폐경기 여성들에 쓰이는 기존의 호르몬 치료제는 유방암 위험성 증가, 골다공증 등의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었다. 특히 WHI(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는 큰 우려를 낳았다.<br/><br/> △골드스타인=현재까지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쓰이던 호르몬 요법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병용한 요법이다. 하지만 WHI 연구를 통해 폐경 여성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유방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며 학계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호르몬 치료의 이점이 많음에도 잘못된 근거에서 발생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br/><br/> △이병석=WHI 보고 이후 주요 언론들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가 주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위험에 집착해 장점들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과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폐경기 여성에게 적극 권장된다. <br/><br/> -기존 호르몬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TSEC 계열의 ‘듀아비브’라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들었다. 폐경기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br/><br/> △이병석=이 약물은 신약이기 때문에 장기 임상결과는 없어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이 치료제는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져가면서, 바제독시펜 성분이 함유돼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뼈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어 폐경기 여성 치료에 긍정적인 약물이다. <br/><br/> △골드스타인=에스트로겐 단독 사용 시에는 자궁내막 증식의 위험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복합 요법 시에는 유방 자극 및 자궁출혈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듀아비브는 결합형 에스트로겐과 바제독시펜을 접목해 자궁출혈의 불편함, 유방 자극 등의 불편함을 줄여 폐경기 여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5.txt

제목: [건강 나침반] 어렵게 나온 표적치료제… 환자들 접근은 쉬워져야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30  
본문: 최근 5년 사이 암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동안 신규 암환자는 25만1025명 발생했는데 이중 갑상선암 환자가 4만4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위암 환자 3만417명이 고통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위암은 다행히도 우리 의료진들이 세계적인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 2008∼2012년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이 71.5%에 이를 만큼 우수하다. 이러한 지표는 동전의 양면처럼 70% 이상의 위암 환자들이 완치를 얻을 수 있다는 밝은 소식과 함께 약 30%의 위암 환자들은 진단 시점부터 이미 완치가 어려울 만큼 진행된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수술과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br/><br/>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거나 재발된 위암 환자들은 완치 가능성과 생존율은 낮지만 지속적인 항암화학치료를 통해 암의 진행을 막으려는 힘든 싸움을 치른다. 이들 진행성 위암 환자들은 그 숫자가 매년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온 몸에 있는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암제 치료와 면역치료가 대표적이다. 위암은 비교적 항암제 치료에 반응이 좋아 다른 암에 비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항암치료는 회복이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위암 환자는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항암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생존율을 높이면서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 필요하다.<br/><br/> 최근 진행성 위암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표적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암 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화를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표적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위암 세포의 진행과 전이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차단하는 표적치료제도 진료에 도입되고 있다. <br/><br/> 이러한 새로운 표적치료제의 성공적 개발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수많은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들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이러한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통해 더욱 진보된 새로운 약물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험실에서 새로운 항암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신약개발이 시작되고 이후 임상연구에 성공해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해지는 약제는 후보 약물 1000개 중 하나 정도로 드물다. 신약개발은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새로이 시판되는 항암제의 가격은 연구비용을 반영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된다. <br/><br/> 안타깝게도 높은 가격의 신약은 위암 환자들이 본인 부담으로 감내하기도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수술과 단기간의 항암치료로 완치에 이르는 암환자의 의료부담은 그리 크지 않지만, 오랜 기간 항암제 치료와 고가의 약물 치료에 매달려야 하는 진행성 위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큰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모든 암환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차등 적용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br/><br/> 어렵게 세상에 나온 새로운 표적치료제라는 희망의 불씨를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소중한 희망의 등불을 지켜 주는 것이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이 입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혼돈을 막는 방법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br/><br/>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 교수(대한암학회 학술이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6.txt

제목: [건강 나침반] 어렵게 나온 표적치료제… 환자들 접근은 쉬워져야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16001  
본문: 최근 5년 사이 암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동안 신규 암환자는 25만1025명 발생했는데 이중 갑상선암 환자가 4만4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위암 환자 3만417명이 고통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위암은 다행히도 우리 의료진들이 세계적인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 2008∼2012년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이 71.5%에 이를 만큼 우수하다. 이러한 지표는 동전의 양면처럼 70% 이상의 위암 환자들이 완치를 얻을 수 있다는 밝은 소식과 함께 약 30%의 위암 환자들은 진단 시점부터 이미 완치가 어려울 만큼 진행된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수술과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거나 재발된 위암 환자들은 완치 가능성과 생존율은 낮지만 지속적인 항암화학치료를 통해 암의 진행을 막으려는 힘든 싸움을 치른다. 이들 진행성 위암 환자들은 그 숫자가 매년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온 몸에 있는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암제 치료와 면역치료가 대표적이다. 위암은 비교적 항암제 치료에 반응이 좋아 다른 암에 비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항암치료는 회복이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위암 환자는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항암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생존율을 높이면서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성 위암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표적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암 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화를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표적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위암 세포의 진행과 전이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차단하는 표적치료제도 진료에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표적치료제의 성공적 개발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수많은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들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이러한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통해 더욱 진보된 새로운 약물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험실에서 새로운 항암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신약개발이 시작되고 이후 임상연구에 성공해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해지는 약제는 후보 약물 1000개 중 하나 정도로 드물다. 신약개발은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새로이 시판되는 항암제의 가격은 연구비용을 반영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높은 가격의 신약은 위암 환자들이 본인 부담으로 감내하기도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수술과 단기간의 항암치료로 완치에 이르는 암환자의 의료부담은 그리 크지 않지만, 오랜 기간 항암제 치료와 고가의 약물 치료에 매달려야 하는 진행성 위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큰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모든 암환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차등 적용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렵게 세상에 나온 새로운 표적치료제라는 희망의 불씨를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소중한 희망의 등불을 지켜 주는 것이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이 입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혼돈을 막는 방법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 교수(대한암학회 학술이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7.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갈 길이 멀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6870  
본문: 국내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br/><br/> ◇국내 에너지 공급, 석유 석탄 LNG가 85%=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 사태라는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했다. 이후 비교적 건설기간이 짧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을 대거 승인했다. 멈췄던 원전이 재가동되고, 과거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상기후 발생이나 원전이 갑자기 멈추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br/><br/>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37.8%·2013년 기준)다. 석탄(29.3%)과 LNG(18.7%)를 합치면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의 85% 이상을 감당하는 셈이다. 원자력이 10.4%, 태양열·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3.2%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중 9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 수년 전부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다. <br/><br/> ◇갈 길 먼 신재생에너지산업, 대체 왜?=일단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 생산단가가 비싸다.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이용률이 80%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는 kwH당 평균 275원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매년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300원을 넘는다. 원자력(47.93원)이나 석탄(62.33원), 가스(119.57원) 등과 비교하면 발전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br/><br/>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은 여전히 문제다. 연간 이용률도 15% 정도에 불과하다. 강원도 영월의 태양광발전소는 1400억원을 들여 세워졌지만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에 불과하다. 한국형 3세대 신형 원전(APR-1400) 설비용량(1400㎿)의 3% 수준이다.<br/><br/> 특히 태양광은 토지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입지에도 불리한 여건이다. 풍력발전은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해상 풍력발전은 풍속이 육지보다 빠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분야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육상 풍력발전보다 경제력에서 앞선다. 이 때문에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참여를 저울질했다. 그러나 삼성과 효성 등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br/><br/>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력은 저장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량에 차이가 난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풍력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계절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정도의 바람이 불 때 효과적인데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가 어렵다.<br/><br/> 충남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은 세계 최적의 조력발전소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이 설립되면서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어업 생산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br/><br/>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한 전력 가격의 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차액보상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정부는 2015∼2029년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7차 전력수급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중 발표하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br/><br/>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br/><br/> ▶ 관련기사 보기◀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르포] 한국 '신재생에너지' 아직 미약… 미래를 투자한다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갈 길이 멀다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잇단 석유 고갈론… '포스트 석유' 시대 멀지 않았다 <br/> <br/> <br/><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괴담은 불안이 만든 상상 속 공포 <br/> <br/>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불시 정지' 사고일까 고장일까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원 "인정" 학계 "무관"… 암 유발싸고 논란 확산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근 여성 암 발병 2.5배" vs "방사선량 한도 안 넘는다"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위험성, 우리 가족이 증인이자 증거" <br/> <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근무 20년… 나도 팀원들도 문제 없어" <br/> <br/> ▶ 원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8.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갈 길이 멀다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837001  
본문: 국내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국내 에너지 공급, 석유 석탄 LNG가 85%=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 사태라는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했다. 이후 비교적 건설기간이 짧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을 대거 승인했다. 멈췄던 원전이 재가동되고, 과거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상기후 발생이나 원전이 갑자기 멈추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37.8%·2013년 기준)다. 석탄(29.3%)과 LNG(18.7%)를 합치면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의 85% 이상을 감당하는 셈이다. 원자력이 10.4%, 태양열·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3.2%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중 9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 수년 전부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다. ◇갈 길 먼 신재생에너지산업, 대체 왜?=일단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 생산단가가 비싸다.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이용률이 80%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는 kwH당 평균 275원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매년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300원을 넘는다. 원자력(47.93원)이나 석탄(62.33원), 가스(119.57원) 등과 비교하면 발전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은 여전히 문제다. 연간 이용률도 15% 정도에 불과하다. 강원도 영월의 태양광발전소는 1400억원을 들여 세워졌지만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에 불과하다. 한국형 3세대 신형 원전(APR-1400) 설비용량(1400㎿)의 3%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은 토지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입지에도 불리한 여건이다. 풍력발전은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해상 풍력발전은 풍속이 육지보다 빠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분야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육상 풍력발전보다 경제력에서 앞선다. 이 때문에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참여를 저울질했다. 그러나 삼성과 효성 등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력은 저장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량에 차이가 난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풍력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계절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정도의 바람이 불 때 효과적인데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충남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은 세계 최적의 조력발전소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이 설립되면서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어업 생산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한 전력 가격의 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차액보상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정부는 2015∼2029년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7차 전력수급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중 발표하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르포] 한국 '신재생에너지' 아직 미약… 미래를 투자한다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갈 길이 멀다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잇단 석유 고갈론… '포스트 석유' 시대 멀지 않았다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괴담은 불안이 만든 상상 속 공포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불시 정지' 사고일까 고장일까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원 "인정" 학계 "무관"… 암 유발싸고 논란 확산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근 여성 암 발병 2.5배" vs "방사선량 한도 안 넘는다"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위험성, 우리 가족이 증인이자 증거"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근무 20년… 나도 팀원들도 문제 없어" ▶ 원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09.txt

제목: [암과의 동행-환경과 건강] 가습기 살균제 공포…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하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0016317346  
본문: “<span class='quot0'>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 사용한 살균제가 아이를 죽게 한 원인물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span>” <br/><br/> 김지현(가명)씨 부부는 그렇게 쌍둥이 아이들이 저세상으로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집 안에 가습기를 설치했는데, 그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온 살균제 성분이 아이의 폐 손상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 유해 화학성분이 다량 함유된 살균제는 정부가 판매를 허가한 대형기업의 제품이었다. 부모는 아이 건강을 위해 제품을 믿고 사용했을 뿐이다. <br/><br/>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500명 이상이다. 살균제 때문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부모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등의 자녀들은 간질성 폐손상으로 2011년 2∼6월 사망했으며, 김씨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을 생후 20∼22개월 만에 잃었다. 이들은 국가가 살균제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사망한 당시의 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6∼2008년 아동들에게 급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문은 발표됐지만 논문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이 근거가 된 것이다. <br/><br/> 가습기 살균업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당시에 없었던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시 살균제는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제로 분류돼 기업들이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한 근거다.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에 대해 미리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면책사유가 됐다.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현행법상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br/><br/> 부모들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5∼20개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피부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화장품,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손세정제, 치약, 주방세제 등에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불안 때문인지, 독일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사들이는 엄마들도 늘고 있다. 집에서 천연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 주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허가해주는 제품들로 인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소비자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0.txt

제목: [암과의 동행-환경과 건강] 가습기 살균제 공포…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하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6170923001  
본문: “<span class='quot0'>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 사용한 살균제가 아이를 죽게 한 원인물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span>” 김지현(가명)씨 부부는 그렇게 쌍둥이 아이들이 저세상으로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집 안에 가습기를 설치했는데, 그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온 살균제 성분이 아이의 폐 손상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 유해 화학성분이 다량 함유된 살균제는 정부가 판매를 허가한 대형기업의 제품이었다. 부모는 아이 건강을 위해 제품을 믿고 사용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500명 이상이다. 살균제 때문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부모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등의 자녀들은 간질성 폐손상으로 2011년 2∼6월 사망했으며, 김씨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을 생후 20∼22개월 만에 잃었다. 이들은 국가가 살균제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사망한 당시의 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6∼2008년 아동들에게 급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문은 발표됐지만 논문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이 근거가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업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당시에 없었던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시 살균제는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제로 분류돼 기업들이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한 근거다.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에 대해 미리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면책사유가 됐다.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현행법상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부모들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5∼20개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피부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화장품,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손세정제, 치약, 주방세제 등에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불안 때문인지, 독일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사들이는 엄마들도 늘고 있다. 집에서 천연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 주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허가해주는 제품들로 인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소비자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1.txt

제목: 거침없는 팀 쿡의 애플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2170310001  
본문: 팀 쿡 체제의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이끌던 시절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10일(현지시간) 주당 122.02달러로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 7107억 달러(약 780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시가총액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애플이 처음이다. WSJ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각각 구글의 2배, 월마트의 2.5배, 뱅크오브아메리카의 4배, 맥도날드의 8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애플 주식은 1년 전보다 64%가 올랐다. 캐나다 증권사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사업의 이익 93%를 가져갔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9%에 불과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2%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대등한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고가 제품 중심인 애플의 수익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쿡 체제의 애플이 돋보이는 건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쿡 CEO는 이날 골드만삭스의 ‘기술과 인터넷’ 콘퍼런스에 참석해 태양광발전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패널 업체 퍼스트 솔라와 협력해 캘리포니아 북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쿡은 “지구온난화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28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애플은 25년간 130㎿의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쿡은 “쿠퍼티노에 짓는 신사옥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6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현재 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가동 중이다. 쿡 CEO는 자신의 색채를 분명하게 할 신제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이폰6가 잡스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면 애플 페이와 애플 워치는 쿡의 결과물이다. 4월에 나올 애플 워치에 대해 그는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 중 사용자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제품은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애플 워치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량 추적 기능을 예로 들면서 “가만히 있으면 손목에 진동이 와서 움직이라고 한다. 많은 의사들이 앉아 있는 걸 새로운 암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 페이에 대해선 “적용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최근 개발자들에게 배포한 iOS 8.3 베타버전에 중국 진출과 관련한 단서가 들어 있다고 전했다. 애플 페이 관련 코드에 중국 유니언페이(은련) 카드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근거다. 이 전망이 실현된다면 애플 페이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을 놓고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2.txt

제목: 65세 이상 男-폐암 女-대장암 ‘최다’  
날짜: 2015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1113243001  
본문: 65세 이후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립암센터의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폐암으로 조발생률(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이 441.3이었다. 이어 위암(412.5) 대장암(354.9) 전립선암(293.7) 간암(202.8) 순이었다. 65세 이상 여성은 대장암(184.1)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위암(155.4) 폐암(125.5) 갑상샘암(102.3) 간암(71.8)이 뒤를 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서 남성의 경우 15∼34세는 갑상샘암이, 35∼64세는 위암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두 연령구간 모두 갑상샘암이 발생률 1위였다. 모든 암의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다가 50대 후반부터는 남성의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암 발생률은 여성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999년과 2002년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여성은 5.6%였다. 최근 부쩍 늘어난 갑상샘암이 여성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표준화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줘 산출한 것이다.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 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1999년 이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암은 갑상샘암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남녀 각각 24.3%와 22.4%였다. 남성은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뒤를 이었다. 간암과 폐암은 줄고 있다. 여성은 유방암 대장암이 증가하는 반면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줄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암(기타 피부암 제외)의 조발생률은 294.3으로 미국 318.0, 호주 323.0보다 낮았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1.5보다 높았다. 터키(205.1) 일본(217.1) 스웨덴(270.0)에 비해 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3.txt

제목: 채소·과일·요구르트·두부·콩으로 냉장고를 채워라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0165855001  
본문: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질병이 정복됐지만 아직도 암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 말기 암 환자는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로 인해 심한 구토와 탈모증상을 겪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체중이 급격히 빠져 뼈만 앙상한 모습이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당연한 듯 죽음부터 떠올린다. 암은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초기에 이상을 자각하기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쉽다. 국제암억제연합(UICC)이 제정한 세계 암의 날(4일)을 계기로 암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남자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린다암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도 바로 암이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가 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는 생존자 기준으로 110만명을 넘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만 헤아려도 남자 11만2385명, 여자 11만1792명 등 22만4177명에 이른다. 남녀를 합해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최근 과잉진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갑상선암이다.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다. 평생 남자는 5명 중 2명(37.5%), 여자는 3명 중 1명(34.9%)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에게 흔한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이고, 여자 5대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이다. 이들 암이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건강검진은 암 검진이 아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암이 발견되기까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소화기 암으로 복통을 느끼거나 혹이 만져지고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쉽다. 암은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야 암의 뿌리를 뽑아 장기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다. 1∼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 암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곧 암 검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1∼2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선 특별히 따로 검사항목을 추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간 기능이상 여부와 위암, 자궁경부암 등 일부 암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만 놓고 섣불리 발암 여부를 판정할 수가 없다. 중앙대병원원 가정의학과 조수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약 정말로 암에 걸릴까 염려된다면 겁이 나는 장기별로 특화된 암 검진을 따로 받아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8∼2012년 암의 의학적 완치 기준인 5년 평균 생존율이 68.1%에 이른다. 이는 미국(66.1%), 캐나다(63.0%) 등과 대등한 생존율 수준이다. 암 환자 10명 중 6명꼴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0'>암 치료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덕분이겠지만 조기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완치 가능성이 높은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span>”고 설명했다.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 암 예방의 시작 암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질병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먹어 문제가 되는 요즘엔 특히 식습관이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꼽힌다. 뭘 먹느냐에 따라 20∼30년 후 질병 발생 패턴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냉장고 안을 살펴보자. 만약 냉장고 안이 고기, 버터, 베이컨 등 고지방 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 냉장고’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대장암과 유방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냉장고란 지적이다. 젓갈과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이 가득하면 ‘위암 냉장고’가 된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요구르트, 두부, 콩 등과 같은 식품으로 꽉 차 있으면 ‘항암 냉장고’라고 할만하다. 금연 실천도 중요하다. 담배 연기에는 69가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한다. 한 해에 5만명이 폐암, 후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흡연관련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흡연자와 비(非) 흡연자의 식습관을 비교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류의 당분이나 지방질 음식, 술 따위를 더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은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정희철 교수는 “<span class='quot1'>식습관도 안 좋은데 담배까지 계속 피우고 있다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질병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span>”고 말했다. 스트레스 역시 암을 촉진하는 위험인자다.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쥐의 암 조직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전이도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도 줄어든다</span>”며 “<span class='quot1'>암을 피하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푸는 것이 좋다</span>”고 강조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4.txt

제목: 당뇨병 약 ‘메포민’, 위암 환자 재발률 낮춘다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0165900001  
본문: 국내 의료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서 위암 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새 항암제를 찾았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는 위장관외과 노성훈·형우진 교수팀이 종양내과 정현철·라선영·정민규(사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당뇨를 가진 위암 수술 환자에게 ‘메포민(Metformin)’이란 약물을 복용케 한 결과 암 재발률이 낮아지고 생존율도 높아졌다고 9일 밝혔다. 메포민은 인슐린 분비기능이 떨어진 제2형 당뇨병(후천성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이다. 이 약이 위암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메포민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인 ‘엠토르’(mTOR)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정 교수팀은 연세암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32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132명)에겐 메포민을 복용케 하고 다른 그룹(194명)에겐 인슐린주사 등 다른 당뇨 약을 쓰도록 한 뒤 각각 6년2개월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메포민 복용 그룹의 암 재발 위험도가 다른 약을 쓴 환자 그룹보다 무려 37%나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뇨병을 갖고 있을 경우 메포민을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가 없는 일반 위암 환자와 비슷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 교수팀은 “<span class='quot0'>메포민이 당뇨 위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항암효과를 더 규명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애널스 오브 서저리(Annals of Surgery)’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5.txt

제목: 구순암·설암 환자 ‘근접방사선치료’ 시작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10113148001  
본문: 서울대병원은 최근 갑상선두경부종양센터 우홍균·김진호·하정훈·김정인 교수팀이 입술과 혀에 암세포가 생긴 구순암과 설암 환자를 대상으로 ‘근접방사선치료’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근접방사선치료란 방사성동위원소를 암 조직 속에 집어넣어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몸 밖에서 암 조직을 향해 방사선을 쪼이는 ‘외부방사선치료’에 비해 주변의 정상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설암을 근접방사선으로 치료할 때는 환자를 전신마취 시킨 후 턱 아래 피부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가 든 ‘근접치료기구’를 혀의 암 조직에 심고, 5일간 하루 두 번씩 총 10회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보통 6주간 총 30회 방사선을 쪼여야 하는 외부방사선치료에 비해 간편하다. 우 교수팀은 두경부암 중 구순암과 설암 치료에 근접방사선치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크기가 작은 조기발견 암은 이 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6.txt

제목: [기독여성CEO 열전-(2부)] ① 장미희뷰티연구소 장미희 대표이사  
날짜: 2015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9165735001  
본문: 장미희뷰티연구소 장미희(55) 대표이사는 암환자를 위한 가발(일명 항암 가발)을 임상시험하기 위해 2007년부터 3년여간 삭발을 했다. 1996년 ‘이지쓰’라는 업체를 설립한 장 대표는 패션 가발을 만들다 2000년 항암 가발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지쓰의 사업을 확장한 ㈜이지쓰위그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장 대표는 “<span class='quot0'>패션용 가발은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쓰지만 암환자용 가발은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 쓴다</span>”며 “<span class='quot0'>암환자와 비슷한 체험을 하려고 삭발을 했다</span>”고 말했다. 한두 번 삭발을 한 게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밀었다.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가발을 출시하고도 강의 때 만나는 암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또 4년여간 삭발을 했다. 장 대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의료원 등에서 암환자를 위한 외모관리 강의를 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연구 열정과 암환자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항암 가발을 개발하게 만든 것이다. 2004년 제품으로 출시한 항암 가발은 2006년 암환자를 위한 기능, 디자인으로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를 받았다. 현재 매출은 연간 5억여원에 달한다. 장 대표가 개발한 항암 가발은 이물감이 적다. 암환자는 거의 24시간 가발을 쓰기 때문에 가발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물감이 적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 대표는 사람의 두상을 48등분 해 자극에 민감한 부분과 민감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과학적으로 제품화했다. 또 통풍이 잘돼 땀이 잘 배출된다. 암환자는 일시적인 갱년기 증상을 겪는다. 갑자기 땀이 날 때가 많아 땀 배출이 중요하다. 가발 앞부분을 톱니 형태로 만들어 민머리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얼굴형에 맞춰 외관상 자연스럽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나면 패션용 가발로 활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대구가톨릭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디자인, 미용, 패션 등에 관심이 많았다. 1985년 2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미용기술을 배워 부산에 피부숍을 차렸다. 어느 날 외국 잡지에서 가발을 봤다.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이거다”라고 외쳤다. 당시만 해도 한국시장엔 패션 가발이 없었다. 책에 소개된 가발은 한국산이었다. 그는 제조회사를 찾아가 샘플을 사다 대학 인근 옷가게에 뿌렸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다시 업체를 찾아가 국내 총판권을 샀다. 이어 사업체를 만들어 대학가 옷가게에 가발을 공급했다.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던 태화백화점에까지 진출했다. 95년 태화백화점 잡화코너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백화점 8곳에 제품을 납품했다. 이지쓰를 세운 뒤 벌어들인 돈을 세느라 밥 먹을 시간도 부족했다. 그때 외환위기가 닥쳤다. 그가 받은 어음들이 부도나면서 사업은 풍비박산이 났다. 2000년 어느 날 외환위기 이후 암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여성 암환자도 늘어 탈모 여성이 많아졌다고 했다. 유방암 등 여성 암은 주로 호르몬 이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진다. 머리카락이 없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2차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성 암환자들을 위해 가발을 만들기로 했다. 가발을 만들려면 원사를 알아야 했다. 장 대표는 대구가톨릭대 디자인대학원에 진학해 2003년 미술학 석사를 마친 뒤 이듬해 암환자를 위한 가발을 정식 출시했다. 제품은 나오자마자 크게 주목받았다. 2004년 5월에는 여성발명 우수사례로 특허청장상, 2011년엔 세계여성발명협회 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때부터 속눈썹 연장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 속눈썹 연장기기도 히트를 치면서 2013년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을 받았다. 장 대표는 가발과 속눈썹 연장기기 기술 보급과 인재 양성을 위해 2013년 ㈔세계가발패션 예술인협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8일 “<span class='quot0'>협회를 통해 제품뿐 아니라 가발을 다듬고 속눈썹 연장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 콘텐츠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진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업 확장 못지않게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비즈니스 선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를 섬기고 있는 장 대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새내기 성도다. 그가 고신대 대학원을 다닐 때 많은 이들이 전도했지만 다 무시했다. 그러다 한 지인이 ‘7080 노래’를 들으러 가자고 해 따라간 곳이 교회였다. 그는 이곳에서 찬양을 처음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정착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은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암환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신앙의 도움이 컸다. 암환자 외모관리 강의나 암환자 돕기 가발 패션쇼 등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아픈 자들의 가슴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돈을 잘 벌 때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습니다. 남은 삶은 주님 안에서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약력=1961년생. 대구가톨릭대 불문과, 부산 고신대학원 보건학 박사. 1996년 이지쓰 창업. 2004년 여성 발명 우수사례 특허청장상. 2006년 ㈜이지쓰위그로 확장 및 사명 변경. 2011년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현 장미희뷰티연구소 대표이사, ㈜이지쓰위그 부사장. ㈔세계가발패션 예술인협회 회장.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7.txt

제목: [미션 르포] 우리는 아픕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날짜: 2015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7165628001  
본문: 석원제(52) 선교사는 전남 보성군 복내면 천봉산 자락에 거한다. 석 선교사는 중국 톈진, 시안, 선전, 난닝 등에서 15년간 선교사로 헌신했다.그는 지난해 8월 귀국해야 했다. 가슴 통증이 심상찮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결과 그는 폐암 4기였다. 손쓸 상황이 지났던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지난 2일 석 선교사를 천봉산 아래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대표 이박행 목사)에서 만났다. 마침 센터에서 3박4일 일정의 ‘제105회 복내 로하스 힐링 캠프’가 열리는 첫날이었다. 이 캠프는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요법을 통해 환우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이박행(53) 목사가 석 선교사를 소개했을 때 잠시 어리둥절했다. 프로그램에 초대된 강사 목사인 줄 알았다. 그만큼 건강해 보였다.석 선교사는 지난해 9월 30일 이곳에 들어왔다. “<span class='quot0'>단 한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span>”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 기도도 통증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울 유수 종합병원 의사가 그에게 “<span class='quot1'>선교사님에게 맞는 치료약이 하나도 없습니다</span>”라고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란 얘기였다.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3∼6개월이란 답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의사는 생명연장을 위한 입원을 권했다. 폐에서 퍼진 6.5㎝ 암 덩어리와 암세포는 위 척추 턱 등으로 진행됐다. 침샘이 말라갔고 미각을 느끼지 못했다. 당연히 목소리가 탁했다. “<span class='quot0'>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span>”(공동번역 엡 4:16) 그는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고자 했다. 그리고 이곳을 택했다. 병원에서 죽어가며 사탄의 발톱에 24시간 긁히는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여기 들어온 지 10일 만에 1시간 코스의 길을 산책하게 됐어요. 지팡이 짚고서 말이죠.” 사탄의 발톱에 긁히는 고통 당하느니…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교계가 세계 각국에 파견한 선교사는 2만6677명이다. 그런데 이 많은 선교사들의 건강 관련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선교사들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전도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의식이 약하다. 때문에 석 선교사와 같이 병마를 얻어 중도 귀국해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대 교단 예장합동의 해외선교 기관인 GMS(예장합동총회세계선교회)가 지난해 일시 귀국한 726명을 대상으로 귀국 사유를 물은 결과 100명이 ‘질병 때문’이라고 답해 어림짐작하는 정도다. 가벼운 질병이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면 되지만 암과 같은 중증 질병은 ‘기름 부음 받은 사도와 그 가족’을 실족케 하는 일이다. 이박행 목사는 1995년부터 이곳 복내에서 중증 환우 케어를 시작했다. 그 가운데 만나는 선교사들의 안타까운 삶은 늘 기도제목이었다. 그는 중증 선교사들을 위한 돌봄(care)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딱 20년 만에 ‘중증 선교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증 선교사 환우에겐 일반 환우와 다른 치유 시스템이 적용된다. 수십년간 선교사 생활을 해온 그들과 그 가족에겐 그들만의 정서와 동선, 말씀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시작된 케어 시스템 적용 환우는 4∼5명이다.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인원수다. 이 목사는 이들에게 경제적 형편에 맞게 능력껏 기부케 하는 한편 협력 병원과 연계해서 무료 검진 및 치료를 돕고 있다. 선교 동료와 서로 고충을 나누고 통합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도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방법의 정서적 치유다. 영성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기 음식 전인치유, 즉 하나님 방법은 환우 가족에게 ‘눈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들어가 영성과 현대의학이 곁들여진 치유 과정에 놓인 내 가족이 과연 호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다. 석 선교사는 이번 105회 힐링 캠프를 너끈히 아니 즐겁게 수료했다. ‘생활 속의 대체 의학’ ‘예배’ ‘건강을 지키는 영양요법’ ‘암 재활운동’ ‘숲&웃음 치유’ ‘춤·명상’ ‘내적 치유 및 영성으로의 초대’ ‘전인건강체조 및 발목 펌프’ ‘선교사의 건강관리 특강’ 등이 이어졌었다. 그는 “<span class='quot0'>깨끗한 물, 공기, 음식이 면역력 회복을 도왔고 무엇보다 예배·묵상 등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하루 세 차례 산책을 가능하게 했으며 미각도 돌아오게 만들었다</span>”고 말했다. ‘무엇이 건강을 해친 것 같으냐’는 질문엔 ‘스트레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낯선 환경에 떨어진 선교사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2일 밤 환우 선교사의 쾌유를 위한 예배가 별도로 이뤄졌다. 배점선(58) 불가리아 선교사, 모희원(가명·57) 사회주의권 선교사, 최광식(52)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경열(52) 남아공선교사, 고종원(52) 제주세계선교훈련센터 간사 등이 함께한 자리였다. 이경준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정재철 아시아미션 대표는 중증 케어가 필요한 선교사 실태를 듣고자 일부러 참석했다. 최 선교사는 사모가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나 또한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태도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선교 현장이란 먹고 마시는 것이 열악하고 무엇보다 현지인과의 갈등 등은 몸 안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낳는다</span>”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선교 19년차인 그는 “<span class='quot0'>여성의 지위가 낮은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생활한 아내의 스트레스는 내가 겪는 것 이상 혹독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따름</span>”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pan class='quot0'>모국어로 말할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순회 선교사의 방문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한다</span>”며 오지 선교사의 모국어 갈증을 얘기하기도 했다. 배 선교사는 24년차다. 지난해 현지 교통사고로 회복 중에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선교사 가정은 늘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기 마련</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사모 등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 중증 질병의 빈도가 남편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span>”고 호소했다. 최근 남아공 빈민촌 사역 현장을 소개한 책 ‘냄새나는 예수’(홍성사)를 펴낸 김 선교사는 “<span class='quot2'>선교사들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의지만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믿고 자기 관리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2'>선교사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죄짓는 일이 아니므로 성경적 의학에 기대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암이 내 영혼 엄습할지라도 당신이 주신… 남해 바다를 끼고 있는 보성은 2월초였지만 따뜻했다. 산기슭 양지쪽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꽃이 고개를 내밀었다. 석 선교사를 비롯한 40여명의 환우들은 고급 펜션과 같은 안식처에서 산책과 예배를 번갈아 하며 자신을 돌봤다. 대학 교수 출신으로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전도사가 됐다는 한 환우는 “<span class='quot3'>비록 대장암이 내 영혼을 엄습할지라도 당신께서 주신 바람과 물과 깨끗한 음식을 방패삼아 이겨 나가고 있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천봉산희년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내치유선교센터는 ‘환자가 환자 같지 않았다’. 그만큼 밝고 건강한 육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4기 이상의 중증 암 환자였다. 얼굴에 윤기가 흘렀고 늘 감사의 언어를 썼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건네는 그들의 표정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들의 행복을 알 수 있었다. 석 선교사가 말했다. “영과 육이 해독되면 사역지로 나가야죠. 사랑받는 세포가 암을 이긴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061-853-7310).”이박행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대표청소년과 청년 시절 신장염과 만성간염으로 투병생활을 했었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투병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20, 30대 교역자 시절 김진홍 목사 등과 함께 ‘두레연구원’ ‘두레학숙’ 실무책임자로 사역했으며 투병 경험을 교훈 삼아 ‘전인건강운동연합’을 발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역은 간질환 재발을 불러 요양원 등을 전전했다. 그리고 1995년 천봉산희년교회 설립을 계기로 전인치유에 전념하게 된다. 이 센터는 교회, 친환경 숙소와 식당,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통합의학센터와 대안학교 등을 갖춘 공동체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이 목사는 그간의 전인치유사역을 아내 최금옥 사모와 함께 ‘전인치유목회 이야기’ ‘복내마을 이야기’ ‘암을 이기는 복내영양요법’(홍성사)이란 책으로 남겼다.보성=글·사진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8.txt

제목: [그 숲길 다시 가보니-임항] 자작나무 숲에 여성들이 몰리는 까닭  
날짜: 2015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7165650001  
본문: 자작나무에는 모순적 이미지가 중첩돼 있다. 귀하고 이국적 나무로 느껴지지만, 실은 주변에서 정원수로도 흔히 볼 수 있다. 여성적이고, 날씬하다 못해 가냘프면서도 영하 80도의 추위를 견디는 강인함을 지녔다. 시베리아와 백두산을 상징하는 북방계 나무지만, 남한에서도 강원도 인제와 평창 등 강원산간지방에 부분적으로 자생한다. 평안도가 고향인 시인 백석은 1930년 여행한 함경도의 풍광을 자작나무를 통해 그려냈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백화(白樺)’) 지난 3일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품에 안겼다. 겨울 자작나무 숲은 포근했다.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고, 지난달 중순 이후 눈마저 끊겨 쌓인 눈이 많이 녹은 덕분이었다. 138㏊(약 40만평)에 이르는 원대리 자작나무 조림지는 자작나무 군락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고, 1991년부터 3∼4년간에 걸쳐 조성됐다. 입구의 자작나무 숲 안내소에서부터 비교적 넓은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초입부터 신갈나무, 물박달나무들 사이로 군데군데 자작나무 숲을 볼 수 있다. 원대리의 원대봉(해발 800m) 일대는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자생하는 곳이었으나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이 크게 번지면서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자작나무 4만 그루를 심었다. 처음엔 무슨 벌건 꼬챙이를 꽂아 놓은 듯했겠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높이는 평균 20m, 가슴높이 지름이 평균 14㎝에 이를 정도로 컸다. 동행한 인제국유림관리소 송동현 주무관은 “<span class='quot0'>높이로는 거의 다 자랐고, 이제는 더 굵어질 일만 남았다</span>”고 말했다. 하얗게 빛나면서 매끈한 수피를 지닌 자작나무는 귀족적 이미지를 지녔다. 정비석은 기행수필 ‘산정무한’에서 금강산의 자작나무를 가리켜 “비로봉 동쪽은 아낙네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해(樹海)였다. (…)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공주(樹中公主)이던가”라고 읊었다. 암·수꽃이 피는 4월, 새순이 파릇파릇 돋는 5월 초,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단풍이 드는 10월 중순도 좋지만, 자작나무는 역시 흰 눈과 하나가 돼 푸른 하늘로 날카롭게 치솟는 겨울이 가장 좋다. 3.2㎞의 임도를 1시간 남짓 걸으니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에 도착했다. 25㏊에 이르는 이 조림 구역은 숲속 교실, 생태연못, 놀이터, 인디언 집 등 최소 단위의 시설을 갖췄다. 숲 한가운데 들어서니 사방에 흰 방한복에 스키를 신은 산악특수부대의 열병식을 보는 듯했다. 송씨는 “<span class='quot1'>이곳이 계곡 습지라서 5∼6월경에는 큰앵초, 애기나리, 박새 등 야생화가 지천</span>”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방문객은 11만5000명. 2012년 탐방 편의시설을 갖춘 이후 방문객은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우리나라 조림지는 일본잎갈나무(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등 침엽수 위주였다. 산림청은 활엽수도 활용해 보자는 생각으로 재질이 단단한 자작나무를 선택했다. 하지만 자작나무는 40년을 자라야 목재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런 저런 목적이 뚜렷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원수나 장식용으로 인기를 끌던 자작나무를 “그냥 한번” 심어본 것이었다고 한다. 박치수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span class='quot2'>자작나무 조림은 조림정책의 전환에 따른 것이었지만,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2011년부터 관내 유치원들과 협약을 맺고 유아들에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많을 때엔 주말 하루에 3000∼4000명이 몰리다 보니 폐해도 드러나고 있다. 사진작가들이 야생화를 훼손하고, 탐방객들이 ‘천년을 견딘다는’ 사랑의 편지를 쓰기 위해 자작나무 수피를 벗겨내거나 수피에 하트 모양과 이름 등 온갖 낙서를 한다. 2월 말∼3월 중순에는 자작나무 수액 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송씨는 “<span class='quot1'>원대리 자작나무 숲도 결국 탐방예약제를 실시해야 할 것 같다</span>”고 말했다. 내려가는 도중 동쪽에서 석양을 받은 설악산 귀때기청봉을 봤다. 해는 저물어가는데 한 모자(母子)가 올라가는 길을 재촉한다. 아마 입학이나 취업, 혹은 그 실패를 계기로 먼 데서 온 듯하다. 송씨는 “탐방객의 80%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자작나무가 날씬한, 다이어트가 필요없는 미인의 아이콘 아닌가. 그들 중 상당수가 인생의 고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닐까. 자작나무 숲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19.txt

제목: 암환자에 소금물 관장 치료사기 최동원 선수도 당했다  
날짜: 2015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6113026001  
본문: 불치병을 치료해준다며 말기 암환자에게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1년 숨진 프로야구 최동원 선수에게도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56)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20만원을 받고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호스를 연결해 소금물을 넣는 관장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버젓이 했다. 이들은 소금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 불순물을 빼주고 암을 낫게 해 준다고 속였다.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환자를 모아 9박10일 캠프도 열었다. 캠프 동영상에는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최 선수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2010년 12월이다. 최 선수는 2007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조씨 부부의 무허가 시술이 최 선수의 병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 선수와 함께 소금물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span class='quot0'>시술 후 병세가 더 악화됐다</span>”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선수의 사망과 무허가 시술 사이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0.txt

제목: 1년에 절반 해외서 집회 인도, 가는 곳마다 눈물·회개… 경북 구미푸른교회 강경구 목사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5165350001  
본문: 경북 구미푸른교회 강경구(53) 목사는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낸다. 국내에서 6개월을 목회하고 해외에서는 6개월간 집회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 측 목사로는 드물게 성령 집회 형식이다. 벌써 올해로 23년째. 비행기 이동거리만 600만㎞. 4만㎞가 지구 한 바퀴라면 그동안 150바퀴를 돌았다. 미국을 비롯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미국은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를 제외한 48개주를 누볐다.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로 6년 전엔 구미 최초로 국제학교를 세웠다. 지난달 30일, 구미시 부곡동 필그림크리스찬국제학교에서 강 목사를 만났다. “1993년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여행을 겸한 방문이었는데 수요 저녁기도회 설교를 시작으로 여행은 전혀 못했고 집회만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년의 절반을 해외 집회로 보내는 계기를 묻자 강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첫 집회는 시카고순복음교회였다. 교회 담임목사는 여행 온 그에게 “<span class='quot0'>고향 소식을 전할 겸 설교를 하시오</span>” 했다. 그렇게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했는데 신자들은 눈물바다가 됐다. 그 후 한 달을 머물며 집회를 인도했고, 가는 곳마다 회개와 눈물이 넘쳤다. 강 목사는 87년 구미시 도량동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 전도사 시절이었다. 아무 가진 것 없던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동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생활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건 예사였다. 악성빈혈도 심했다. 10일, 20일 금식기도를 밥 먹듯 했다. 그러다 천막교회에서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주민들은 “도량동에 젊은 부부 도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했고 암 환자 등이 찾아오며 나았다. ‘도사’ 소문은 더욱 확산돼 어른들도 모이기 시작했다. “당시 주일학교 어린이는 100여명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은 10원, 50원짜리 동전으로 헌금을 했고 저는 그 돈으로 쌀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할 것이란 음성이었어요.” 강 목사는 그렇게 5년을 기도했고 마침내 6년 째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그 사이 강 목사의 꿈 이야기가 허황되다며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강 목사 역시 기도 응답이 없자 낙심했다. 그랬던 강 목사는 중국 선교사를 만나면서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셔요. 그런데 그 꿈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했다. 그때부터 강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렇다고 은사 집회는 아니었다. 철저히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과 성경 본문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설교했고,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결론지었다. 2012년엔 뉴욕 타임스 스퀘어 거리에서 붕어빵을 나눠주며 두달 간 전도했다. 팥 대신 슈크림을 넣어 미국인 입맛에 맞췄다. 붕어빵은 히스패닉 이민자들에게 히트를 쳤다. 강 목사는 미국 역사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청교도 신앙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운동을 시작하고 부흥 했다”며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10년 전부터는 구미푸른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청교도 신앙과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를 방문하고 있다. 강 목사는 “목회는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목사 자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며 “미국 교회는 자녀 제자 삼기에 실패해 교회당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강 목사가 미국교회의 실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교회당은 거대한데 성도들은 노인만 수십 명 남아있는 곳이 많았다. 그들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조명을 끄거나 난방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는 이 같은 미국교회의 이면엔 부모가 자녀를 제자삼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국제학교에 올인했다. 2009년 설립한 필그림크리스찬국제학교는 미국 보수 기독교대학인 펜사콜라크리스천칼리지의 커리큘럼과 학제를 도입해 한국 분교로 출발했다. 100% 영어로 강의하며 졸업하면 월 100만원에 수업료와 생활이 가능한 크리스천대학과 주립대 등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학교는 1주일에 12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여명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의대에서도 10여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인터뷰 끝에 그는 천막교회 당시 고생했던 얘기를 더 풀어놓으며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좇으세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붙잡으세요.” 구미=글·사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1.txt

제목: 가천대 길병원, 여성암센터 개원… 집중 관리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056001  
본문: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은 최근 여성암센터(센터장 박흥규 유방외과 교수)를 새로 개원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이 센터는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등 우리나라 여성에게 흔한 암을 집중 관리하는 곳이다. 모든 치료과정은 여성암 전문 코디네이터(간호사)가 직접 관리한다. 병원은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병동을 14층에 따로 운영한다. 투병 중에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자는 의미의 ‘새빛삶’ 옥외정원(휴게실)도 마련했다. 또 여성암 환자들이 치료 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해피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병원장은 “<span class='quot0'>가족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최상의 진료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로 여성암 환자들을 돕겠다</span>”며 각오를 밝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2.txt

제목: 전립선암 수술 후 악성도 가늠자, 유전자 변이 발견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057001  
본문: 전립선암은 서구에서 남성의 장기에 발생하는 각종 고형암 중 발생빈도 1위로 꼽히는 암이다.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남성 암 중 발생률 5위를 기록 중이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발생 위험과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에 따라 악성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항암화학요법 및 수술 등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비밀이 인종이나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적 차이에 있음을 국내 의료진이 밝혀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변석수·오종진 교수팀은 최근 국내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바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수술을 받은 환자 257명에게서 얻은 유전체 24만2221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15개의 SNP가 전립선암 수술 후 악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rs33999879’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악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rs33999879 유전자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염색체 응축과 유전자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간암 및 림프종의 진행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전립선암의 진행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적출수술을 하면서 얻은 검체에서 향후 악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상태나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3.txt

제목: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직업상 술·담배 끊기 어려워…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050001  
본문: Q : 자세한 직분은 밝힐 수 없지만 저는 중형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탓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는 술을 마셔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담배도 피웁니다. 주일예배에 가기 전 이를 닦고, 가글을 하고, 향수를 뿌리지만 괴롭고 부담스럽습니다. 술 담배는 죄가 되는지요?A : 여러 차례 본 상담글을 통해 술 담배 문제를 다뤘지만 때마침 새해 들어 금연열풍이 불고 있어 한 번 더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인격도 정신도 아닌 물질입니다. 물질인 탓으로 독성이나 유해성분이 있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죄 자체는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 활용도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기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술은 종류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도수 높은 술일수록 취기가 높아지고 중독성이 강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의약용 알코올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술 속에 함유된 알코올은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파괴하는 성분이 있어 인격과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이상행동도 술 때문이었고, 삼손의 비극도 술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구절을 애주가들은 명구라며 내세웁니다만 그것은 의약품이 귀한 시절 약용으로 쓰라는 뜻이지 마시고 취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사고 원인도 음주 때문이고 자아통제나 조절이 흐트러지는 것도 술 때문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은 방탕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금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저런 구실을 내세워 마시는 것보다는 마시지 않을 이유를 찾아 금주하는 편이 현명한 결단입니다. 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술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휴대가 간편한데다 중독성이 강해 피우기는 쉽고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결정적 해를 끼칩니다. 폐암, 간암의 원인이 되는가하면 간접흡연이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금연보조제로 통용되는 전자담배도 암 발생률이 15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유익한 것들이라야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을 돈 주고 사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술이나 담배는 건덕에도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글을 하고 향수를 뿌리면서까지 자신의 행위를 감춰야 하는 행위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인생도 신앙도 결단에 의해 성패가 결정됩니다. 무익한 행동은 버리십시오. 꼭 필요한 일, 좋은 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전체 목록 보기●신앙생활 중 궁금한 점을 jj46923@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목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4.txt

제목: 화상환자 ‘수면드레싱’ 통증 완화 큰 효과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055001  
본문: 기절까지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화상치료에 마취주사를 이용한 ‘수면드레싱’이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외과 김도헌 교수팀은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수면드레싱을 중증 화상환자 92명에게 적용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원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보통 화상을 입으면 손상된 조직에서 활성산소와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방출되고, 염증이 깊은 화상으로 이어지면서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 때문에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드레싱은 화상 환자에게 필수 치료과정이다. 하지만 화상 드레싱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이나 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통증과 비교될 만큼 심하다는 게 문제다. 일부 환자는 드레싱 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 기절까지 할 정도다. 수면드레싱은 이 같은 고통을 잠재워준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처럼 마취주사를 맞고 잠이 든 상태에서 드레싱 처치를 받기 때문에 통증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실제 이 치료를 받은 화상 환자들은 모두 “수면드레싱을 계속 받을 의향이 있다”거나 “다른 환자에게 수면드레싱을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치 시 통증 정도에 대해서도 44%가 ‘전혀 없다’, 32%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수면드레싱 때 통증을 기억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도 80%가 ‘전혀 안 난다’(47%)거나 ‘대부분 안 난다’(33%)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면드레싱이 화상환자의 통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여겨진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5.txt

제목: 튼튼한 혈관 만들기!… 걷기운동 시작부터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054001  
본문: 현대인의 혈관이 병들고 있다. 육류 중심의 식습관, 패스트푸드,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경쟁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각종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혈관건강을 위협한다.각종 암 다음으로 한국인 사망원인 2위에 올라있는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질환과 돌연사를 부르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병이 대표적이다. 실명 및 다리 절단 위험을 높이는 당뇨망막증과 당뇨발(족부궤양)도 혈관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생명의 원천인 피가 맑고 건강하게 온 몸을 누비게 하려면 일상생활 중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생명의 원천 피가 누비는 길=혈관은 우리 몸 속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일을 담당한다. 우리가 호흡한 산소를 피에 실어 전신 조직과 세포에 나르고, 위나 장 등 소화관에 있는 영양분을 가져다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일도 혈관의 역할이다. 혈관이 망가지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이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피를 필요한 만큼 공급받지 못한 장기와 조직에 허혈성 변화(증상)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일어나는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혼수, 마비 등이 그것이다. 오래 살려면 혈관건강부터 튼튼하게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은 대부분 혈관 이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혈관질환을 방치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를 자초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이상 느끼면 이미 말기 단계=혈관질환은 크게 중심성과 말초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성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혈관질환이 대표적이다. 동맥경화성 신(콩팥)혈관질환과 심부내장혈관에 생기는 동맥류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말초성 혈관질환이란 주로 사지(四肢) 혈관에 발생하는 것으로, 팔다리 혈관이 동맥경화 또는 염증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를 말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망막증, 버거병, 수족냉증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 혈관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특별한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안면 홍조 등을 혈액순환장애 증상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돌기가 안 좋다고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 관리로 혈관질환 예방 가능=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는 “<span class='quot1'>튼튼한 혈관을 가지려면 우선 생활습관부터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span>”고 당부했다. 혈관건강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상 중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자주 힘차게 걸으면 팔다리 근육이 발달해 근육수축을 통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이 확장돼 온몸에 혈액이 잘 흐르게 된다. 따라서 혈압도 내려가고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금연은 필수다. 담배는 혈관건강에 백해무익한 존재다. 혈관 벽을 손상시키며 동맥경화를 부추긴다.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도 악화시킨다.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푼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증과 뇌출혈을 부르는 고(高) 위험인자자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자.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매일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고지방식품을 피하고 채소 중심의 균형 있는 식단이 권장된다. 특히 콩이나 견과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 현미와 보리 등이 혈관에 좋은 식품이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6.txt

제목: 신학교에서 새 길 걷는 가수 ‘수와진’ 안상진씨 “교만한 삶 버리고 사람 낚는 가수 되렵니다”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3165136001  
본문: 감미로운 목소리로 '새벽아침' '파초' 등을 불러 큰 사랑을 받았던 쌍둥이 형제 가수 '수와진'. 거리모금 공연으로도 유명했던 수와진의 동생 안상진(55)씨가 '사람 낚는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 방배동 백석신학원(학장 정인찬 목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안씨는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에서 전도사 자격을 얻는다. 학업과 공연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는 그를 최근 이 학교 상담실에서 만났다. 안씨는 “<span class='quot0'>간경변과 폐종양 등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리포트 때문에 ‘끙끙’ 대는 날도 있지만 첫 학기 올 A플러스를 받으며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span>”고 말했다. 안씨가 교회에 처음 나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어머니는 네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다. 방황하던 그에게 어디선가 감미로운 노래가 들려왔다. 바로 교회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더군요. 찬송이 좋아 기타를 배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3분 먼저 태어난 상수 형과 함께 군부대교회에서 찬양을 하다 문화선전대(군부대 위문공연 조직)에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 무명가수였던 시절,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형 상수씨와 함께 심장병어린이 돕기 거리공연을 시작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멈추지 않았던 수와진의 거리공연은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고생은 했지만 보람이 더 컸죠. 노래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KBS 신인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1987년 ‘새벽아침’으로 데뷔해 그해 KBS 가요대상 신인상, MBC 아름다운 노래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게 되더군요.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매를 드셨어요. 89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새해 첫날 한강을 산책하던 그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세 차례나 뇌수술을 받았다. 그 사건으로 한강에 가로등이 설치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는 한동안 가수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레스토랑을 오픈 했는데 잘되더라고요. 장사가 잘되면 잘될수록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간이 고장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았는데, 새 앨범 내고 바빠지니까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2011년 또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암이었다. 폐암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에 눈앞이 깜깜해졌다. 주위에서 기도를 해 주었지만 정작 그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폐를 일부 절제하는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이튿날 그는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머니와 처갓집 식구들도 전도했다. 친분이 있는 목회자와 함께 경기도 수원 영통에 예그리나교회도 개척했다. “애들이 그래요. 아빠 얼굴이 환해졌다고. 성도 안 내고 악한 기가 하나도 없대요(웃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연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안씨는 지금도 때때로 형과 함께 수와진으로서 모금공연을 한다. 수와진은 그동안 거리모금 공연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900여명의 수술비를 지원했고 매년 1억여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2013년에는 ㈔수와진사랑더하기를 설립해 상임이사를 맡았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지회도 세웠다. 계획을 물었다. 목회자 후보생다운 대답이 돌아왔다. “계획은 없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것저것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젠 오직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7.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위험성, 우리 가족이 증인이자 증거”  
날짜: 2015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2164954001  
본문: 이진섭(52·사진)씨는 자신을 ‘부산 사나이’라 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증을 앓던 아들 균도(24)씨 치료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낸 2년을 제외하면 평생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근처에서 살았다. 1990년 부인 박금선(50)씨와 결혼한 뒤에도 원전에서 불과 3㎞ 떨어진 마을에 정착했다. 걱정은 됐지만 정부를 믿었다.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2010년 부산 기장군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라는 병원이 들어섰다.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들어오는 조건이었다. 병원은 인근 주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이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부인 박씨가 갑상샘암 판정을 받았다. ‘기분이 이상했다’는 게 이씨의 회상이다. “한 집 걸러 한 집씩 갑상샘암이나 다른 암 환자가 나왔어요. 8년 전 장모님도 위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부부가 동시에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집도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씨가 갑상샘암 진단을 받을 즈음 고리원전 3호기에 ‘짝퉁’ 부품이 설치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의구심을 떨칠 수 없던 이씨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몇 명의 마을 주민이 암 진단을 받았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평소 건강염려증이 의심될 만큼 약을 자주 챙겨먹는 아내와 꾸준히 운동을 하던 이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은 떠오르지 않았다. “원전밖에 없었어요. 각자 직업과 생활습관이 다른 환자들의 공통점은 원전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모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했지만 이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다. 첫 승소 판결이 나던 날 이씨는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과 원전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씨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유로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기로 했다. 가족 간 상의 끝에 항소를 결심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토박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수원이 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증인이자 증거입니다.” 기장=글·사진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8.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근 여성 암 발병 2.5배” vs “방사선량 한도 안 넘는다”  
날짜: 2015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2164957001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과 원전 간 직접적 연관성이 정확히 밝혀진 연구는 아직 없다. 질병 발생에 대해 원전 측이 일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도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선례가 없기에 공방은 더욱 치열했다. 2012년 갑상샘암 판정을 받고 환경운동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부산 고리원전 주민 박금선(50·여)씨는 2년3개월간 네 차례 공판 끝에 일부 승소했다. 재판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2억원을 청구했던 박씨에 대해 한수원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연구, 다른 해석=법원이 한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①서울대 의학연구소가 2011년 발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5㎞ 이내에 거주 중인 여성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성의 2.5배에 달했다. ②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검진 결과 기장군민 3031명 중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주민은 41명(1.35%)으로 서울 A병원(1.06%)이나 B병원(1.04%)의 전체 암 검진율보다 높았다. ③재판부로부터 감정 요청을 받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갑상샘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방사선 노출이다. 원전 주변 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갑상샘암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박씨 변호를 맡았던 변영철 변호사는 “<span class='quot0'>평소 건강했던 박씨에게 원전 이외의 다른 발병 요인이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span>”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즉각 항소했다. 원전 주변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990년 이후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보면 0.005m㏜(밀리시버트) 안팎 수준으로 법적 연간 방사선량한도(1m㏜)에 크게 못 미친다. 재판부가 인용한 서울대 의학연구소의 연구도 한수원의 반론 근거가 됐다. 한수원 측은 서울대 의학연구소가 보고서에서 밝힌 ‘한계점’을 주목했다. 이 보고서는 ①갑상샘암 발병률이 원전 주변의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고 ②남성을 제외한 여성에게만 높은 발병률이 나타나고 있어 일반화가 어려우며 ③원전 주변 지역과 원전으로부터 떨어진 원거리 지역의 방사선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 원전 주변 주민은 갑상샘암 검진 횟수가 많다는 점이 잦은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수원 조현순 법무실장은 “<span class='quot1'>원전 주변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해 갑상샘암 검진 횟수가 높다</span>”며 “<span class='quot1'>더 많이 발병됐다기보다 (자주 검사받으니) 더 많이 발견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집단 소송, 실체 밝혀질까=박씨 승소의 여파는 컸다. 지난해 12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8개 시민단체는 고리원전을 비롯해 월성·영광·울진 원전 등 4개 원전 주변 반경 10㎞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 301명을 모아 추가 소송을 냈다. 지난 31일까지 모집한 추가 인원으로 2차 집단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씨 측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 배상액(15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소송이 확산되면서 한수원과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수원 측은 1일 “<span class='quot2'>증거 면에서 질 수 없는 재판을 졌다</span>”며 “<span class='quot2'>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방사선 외의 요인과 갑상샘암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내 앞으로의 재판에 대비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조민영 박세환 기자 mymin@kmib.co.kr도움 주신 분들(가나다 순)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정운관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조현순 한국수력원자력 법무실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29.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원 “인정” 학계 “무관”… 암 유발싸고 논란 확산  
날짜: 2015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2112618001  
본문: “<span class='quot0'>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 상당수가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샘암에 걸렸다.</span>”(원전 주변 마을 주민) “<span class='quot0'>원전에서 수십년 근무한 우리 부서 직원 가운데 갑상샘암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span>”(원전 근무 직원)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갑상샘암에 걸린 부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금선(50·여)씨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갑상샘암에 걸린 것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내 방사선·원자력 관련 학계와 관계기관 등 13개 단체는 서울대 원전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원전 주변 지역의 방사선량률은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갑상샘암과 원전의 연관성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 판결도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으로 넘어갔고 양측 주장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방사능과 갑상샘암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인정돼 왔다. 방사능 동위원소 중 요오드 131이 갑상샘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원전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권리의식이나 원전의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갑상샘암에 대한 원전 책임을 물은 선례가 없다. 재판부가 원전 주변 갑상샘암 환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과학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한 데서도 원전과 갑상샘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난제임을 알 수 있다. 원전 주변의 방사선량이 암을 발병시킬 정도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운관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일 “원전은 갑상샘암 유발 물질인 요오드 131을 배출하지 않도록 설비돼 있다. 외부에서 검출되는 요오드는 미량일 뿐더러 원전과 무관한 지역의 하천에서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등 13개 단체는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 한도인 1m㏜(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개는 0.01m㏜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 자연으로부터 연간 평균 3m㏜ 정도의 방사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02년 발표한 핸포드 갑상샘 질환 연구 등 여러 해외 역학조사와도 같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전 주변 지역에서 갑상샘암 발병자가 다수 발생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고리원전을 넘어 다른 원전 지역에서도 발병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갑상샘암에 대한 과잉 진료로 발병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있으나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과잉 진료를 한다 해도 이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할지 의문이다. 서울대 원전 역학조사에서 ‘원전 방사선과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갑상샘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인근 5㎞ 이내에서는 61.4명으로 5∼30㎞의 43.6명, 30㎞ 밖의 26.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경북 울진군, 경주시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와 한수원 측에 갑상샘암과 원전의 역학관계를 밝혀낼 연구 용역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민영 박세환 기자 my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0.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전 근무 20년… 나도 팀원들도 문제 없어”  
날짜: 2015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202164952001  
본문: “<span class='quot0'>제가 아마 고리원전 직원들 중 방사선을 가장 많이 쬘 겁니다.</span>”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방사선안전팀 이승주(44·사진) 과장은 방사선 전문가다.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하는 기술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미리 터빈 근처의 방사선량을 확인해 수치가 높은 곳을 벽돌 등으로 막는다. 발전소 출입구에 설치된 측정기로 출입 인원의 피폭량을 일일이 잰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피폭량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작업이다. 이 과장이 한수원에 입사한 것은 1996년, 25세 때였다. 지역주민 특채로 들어왔다. 부모님과 아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고리원전 근처에 산다. 7㎞ 이내 거리다. 가장 걱정되는 건강 상태를 물었다. “직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문제 없습니다. 최근 축구하다 다리를 다친 것 외에는 병원에 거의 간 적이 없어요.” 한수원 직원들은 매년 방사선보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다. 초음파, 피 검사, 내시경, CT 촬영과 함께 갑상샘암 검진도 포함된다. 가족들도 인근 병원에서 매년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부모님과 아내, 자식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거나 제 직업이 우리 가족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진작 그만뒀겠지요. 팀원이 25명인데 최근 5년간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병이 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정비(오버홀) 중이다. 핵연료를 갈아끼우고 발전소의 각종 부품과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은 작업이 사무실에서 1∼2분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1∼2분 걸으면 바로 방사선 관리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20년간 매일 방사선에 노출돼 왔던 겁니다.” 원전이나 방사성물질 취급 기관들 종사자는 법상 연간 피폭량이 20m㏜(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인의 안전 기준치는 1m㏜다. 이 과장은 “<span class='quot1'>측정 결과 1년에 제가 받는 방사선량은 15m㏜</span>”라며 “<span class='quot1'>지금까지 신체적으로 전혀 이상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물론 한수원 직원과 하청업체 기술자들 중 암이나 다른 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하지만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직접 문제라면 내가 가장 먼저 암에 걸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span>”고 반문했다. 기장=글·사진 박세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1.txt

제목: “창조섭리에 반하는 유전자치료 연구 안돼”… 교계, 법률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날짜: 2015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9164600002  
본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생윤협·상임공동대표 박재형 교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원장)가 국회 차원의 유전자치료 연구요건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전자치료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형질을 발현시켜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치료의 연구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유전자치료의 연구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치료 연구’와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유전자치료 연구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span class='quot0'>기술 발달로 유전자치료는 맞춤의료의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박재형 상임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1'>유전자치료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치료가능 범위를 확대하면 유전자치료를 받는 사람은 물론 다음세대에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2.txt

제목: “原電 주변 주민 갑상샘암, 연관 과학적 근거 없다”  
날짜: 2015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9112435001  
본문: 최근 불거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갑상샘암 문제가 원전과 뚜렷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방사선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13개 방사선·원자력 관련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갑상샘암이 원전과 연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전 주변의 미비한 방사선량을 근거로 들었다. 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도인 1m㏜(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통 0.01m㏜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누구나 자연으로부터 연간 평균 3m㏜ 정도의 방사선을 받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연간 피폭선량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0.01m㏜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거는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20년간 실시한 역학조사 연구결과다. 연구원이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원전 주변 주민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 원전과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원전 주변 지역주민 중 여성에서만 갑상샘암이 유독 높게 발견됐고, 갑상샘암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았다. 한 원자력 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원전이 들어온 뒤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갑상샘암 검진 횟수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상대적으로 높은 검진빈도가 갑상샘암 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단체의 주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수원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상충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10㎞ 이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했고 원전 방사선 외에 다른 발병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말 원전 인근 주민 중 갑상샘암에 걸린 301명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3.txt

제목: 방사선의학硏 박인철 연구팀, 폐암 치료효과 저하 효소 첫 발견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7164229001  
본문: 같은 방사선 치료를 해도 환자에 따라 폐암 사멸 효과가 다른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조철구)은 최근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인철(사진) 박사팀이 폐암에 방사선을 쪼일 때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는 히스톤 탈아세틸화 2번 효소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는 암 억제 유전자들을 방해해 암을 유발하거나 방사선 및 항암제의 저항성을 갖도록 인도하는 물질이다, 이 효소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떨어트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이 효소는 폐암 세포가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단백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박 박사팀이 히스톤 탈아세틸화 2번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유전자를 폐암 세포에 주입하고 방사선을 쪼이자 암세포 퇴치 효율이 종전보다 약 40% 증가했다. 박 박사팀은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는 폐암 환자 40명에게서 이를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암 전문 국제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4.txt

제목: 경기소방, 59초마다 1번씩 출동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7112301001  
본문: 지난해 경기 소방은 총 53만1498건 출동해 37만4487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59초에 1번 출동해 1분 24초당 1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셈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014년 경기도 화재·구조·구급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의 질병은 고혈압이 4만6774건(11.8%)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2만8927건(7.3%), 암 1만1799건(3%) 등 순이었다.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9675건으로 77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부상했다. 화재건수는 전년보다 626건(6.9%) 증가했으나 사망은 23명(42.6%), 부상은 90명(19.2%)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9049건의 화재로 54명이 사망하고, 468명이 부상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458건(46.1%)이나 됐다. 특히 담배꽁초 실화가 전체의 33%인 1741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조리 566건(12.7%), 화원방치 513건(11.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경기 재난본부는 화재나 사고 등 구조현장에 13만7943건 출동해 1만8322명을 구조했다. 3분 48초마다 한번 출동해 28분 48초마다 1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건수는 벌집제거 신고가 3만6240건(37.1%), 동물구조 1만5560건(16%), 교통사고 9283건(9.5%), 화재 6703건(6.9%), 산악사고 2021건(2.1%) 등이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5.txt

제목: “목회자 유족 등 우리 안의 그늘에 눈 돌려야”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6164106002  
본문: 김진호(76) 서울 도봉감리교회 원로목사는 인터뷰 도중 왈칵 눈물을 쏟았다. 자신이 회장을 맡은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다가 불현듯 막내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아들은 5년 전 뇌가 세균에 감염된 뇌농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겨우 서른여덟이었다. “전국 감리교회 소속 ‘홀사모’ 약 200명 중 절반은 40∼5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이들이죠. 이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 막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막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살아 있다면 이들 홀사모와 비슷한 또래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조의금이 15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모두 운동본부 기금에 적립했어요. 홀사모들 돕고 싶어서요.” 지난 21일 김 목사를 만난 곳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 있는 운동본부 사무실이었다. 24㎡(약 7평) 크기의 아담한 사무실에서 그는 직원 한 명 없이 단체의 ‘살림’을 꾸려 가고 있었다. 김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2002∼2004년)까지 역임한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원로 중 한 명이다. 2009년 4월 도봉감리교회에서 은퇴예배를 드리며 43년 목회활동의 마침표를 찍은 그는 그해 8월 이 단체를 설립했다. 목회자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한 셈이다. “하나님이 교단장까지 시켜줬으니 은퇴했다고 놀아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교회의 사각지대가 어딜까 생각하다 목회자 유가족이 떠올랐어요. 사무실에 직원 한 명쯤 채용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아껴서 좋은 데 쓰고 싶어 이렇게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웃음).” 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매년 2월과 8월 홀사모 자녀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 총 3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김 목사와 뜻을 함께 하는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이다. 김 목사는 기부금과 함께 그동안 운동본부에 답지한 따뜻한 사연들도 들려주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매달 5만원씩 기부하고 있는 70대 여성, 암 수술을 받은 뒤 받은 보험금 1000만원을 내놓은 50대 남성, 단체 설립 때부터 매년 100만원씩 기탁해준 고 나원용 목사….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감독회장으로 재직할 때는 전도운동에 전념하느라 홀사모 문제를 살피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독 실업인들과 교단들이 지금이라도 홀사모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고 주문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수여식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웃음).” 김 목사는 은퇴 이후 미자립교회인 ‘비전교회’ 살리기에도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부터 매년 3월과 10월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신바람목회세미나’를 열고 있다. 부흥에 성공한 교회 목회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그는 “<span class='quot0'>교회를 개척한 뒤 자립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형교회들은 비전교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span>”고 거듭 말했다. “대형교회들이 해외선교에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해외선교보다는 우리 안의 그늘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대형교회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대거 비전교회에 파송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공생할 수 있어요.”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6.txt

제목: [얼굴] 한국뇌연구원 서유헌 원장 “‘치매’ 성경 읽으며 예방하세요”  
날짜: 2015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4164005001  
본문: 20세기 최고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은 두정엽(頭頂葉·마루엽)의 천재다. 그는 입체 공간적, 과학적 사고 기능을 하는 뇌가 보통사람보다 15% 이상 크고 잘 발달한 세기의 과학자로 1921년 노벨상을 받았다. 3세 때 처음 말문을 연 아인슈타인이 만약 한국에 태어나 조기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 미래가 달라지는 엄마표 뇌교육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비타북스)와 ‘우리 아이 영재로 키우는 엄마표 뇌교육’(동아M&B)이라는 책을 펴낸 서유헌(67·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한국뇌연구원(KBRI) 원장은 “<span class='quot0'>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뇌 발달 시기에 알맞은 뇌 교육을 시켜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나이에 걸맞지 않게 조기교육, 선행교육을 시키면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span>”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대구 동구 첨단로 한국뇌연구원에서 뇌과학의 권위자인 서 원장을 만났다. 지난달 4일 완공된 연구원 건물은 사람의 뇌 구조를 닮았다. 서 원장은 좌뇌에 해당하는 건물 2층 원장실에서 뇌 모형을 들고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서 원장은 먼저 아이들이 감정과 본능 충족이 없어도 공부만으로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의 태도에 2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보다 먼저, 더 일찍 교육(선행)하고 많이 할수록(양적) 잘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결국 각종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다. 3∼6세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되는 시기임으로 단순 반복이나 선행교육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인간성과 도덕성 교육에 치중, 동기 부여와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6∼12세는 측두엽(언어의 뇌) 두정엽(과학의 뇌)이 발달하는 시기로 국어와 영어 교육, 실험을 통한 원리 및 창의적 과학교육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12∼15세는 후두엽(시각피질)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기 정체성과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감성 발달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라고 했다. 기본적인 뇌 발달 후 적성과 소질을 나타내는 교육이 필요한 때는 15세 이후다. 인지적 성숙과 유연성, 다양한 사고가 이루어지는 때라 뇌를 혹사시키는 교육을 하면 결국 자식의 뇌가 망가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치매 없이 젊게 사는 뇌 건강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이면 사람은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 기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지만 뇌는 훈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소리다. “중년의 뇌는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고, 무분별하고 불규칙한 생활·식습관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랩니다. 그 결과 우울증, 뇌졸중, 치매 등 여러 가지 뇌질환을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중 치매는 중년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으로, 100세 시대의 재앙이라는 말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치매예방 십계명 서 원장은 2013년 한국의 치매 환자는 57만6000명(보건복지부)이며, 2024년에는 환자가 100만명에 도달해 암 환자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1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이 되면 치매 유병률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10%, 75세 이상 20%, 85세 이상은 절반가량이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가 85세까지 산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 원장은 치매예방법으로 10가지를 들었다. 앞의 7가지는 많이 하고(7多) 뒤의 3가지는 하지 않는 (3不)것이 좋다고 했다. 첫째는 역시 머리를 쓰라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각종 게임 즐기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등이다. 둘째는 끊임없이 운동(Physical activity)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부지런한 자가 무병장수한다는 얘기다. “옛말에 양반보다 머슴이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걷고, 춤추고 노래하며, 집안일, 온 동네일을 도맡아 했지요.” 셋째,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이다. 홀로 지내지 말고 집안, 사회에 적극 참여해 봉사활동하고 일하라는 이야기다. 넷째는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수면은 뇌건강과 치매예방의 기본이다. 다섯째는 오감 훈련을 하고 음식을 많이 씹기다.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 훈련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라는 것. 특히 식사할 때 30번 이상 씹으면 기억중추인 해마로 혈류가 많이 가서 기억력이 증가한다. 치아가 빠지면 잘 씹지 못해 치매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다. 여섯째는 긍정·적극·낙관적으로 사고하기다. 뇌 회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해마가 활성화돼 기억이 좋아지고, 동기의 뇌가 활성화돼 일의 성취도가 올라 치매가 예방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좌·우뇌를 같이 많이 사용하면 좋다. 왼손도 자주 쓰는 게 좋다. 또 논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감정도 발달시키면 두뇌가 발달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 나머지는 3불(不). 스트레스를 이완시켜 뇌 혹사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극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주위로부터의 격리, 일로부터의 격리, 움직이지 않고 대접받으려는 자세가 뇌 신경세포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매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다. 아홉째는 뇌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것. 유명한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 로빈슨, 레슬러 김일 등 두뇌손상이 많았던 선수들은 상당부분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거나 이들 병 때문에 사망했다. 겨울에 빙판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는 충격에 몇 초 의식을 잃게 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 원장은 음주와 흡연 등 고질적인 생활·습관병과 이별할 것을 권했다. 알코올은 뇌신경세포를 마취시켜 사멸을 촉진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치매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령기에 과음은 치명적이란다. 흡연은 뇌혈관 질환을 증가시켜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산돌교회(김강식 목사) 집사인 서 원장은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하단다. 그는 “<span class='quot0'>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span>”(잠 22:6)는 말씀을 예로 들며 어린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청소년의 기억력을 고양시켜주고 중년기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레인300’을 개발하기도 했다. 국내 최고의 뇌와 치매연구 전문가 서 원장이 밝힌 가장 좋은 치매예방법은 구약과 신약이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외워서 마음과 뇌 속에 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an class='quot1'>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span>”(수 1:8)대구=글·사진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7.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심장혈관질환 예방 금연은 필수！  
날짜: 2015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4164027001  
본문: 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3위에 올라있는 심장혈관질환의 대부분은 흡연,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양식에 의해 그 싹이 틉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심장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을 잘못된 생활양식의 개선만으로 75%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잘못된 생활양식을 개선, 치명적인 심장혈관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대한심장학회는 심장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다음 3가지 생활양식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첫째, 금연을 실천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소판 및 응고체계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흡연자의 평균수명은 비(非)흡연자보다 13∼14년이나 짧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해주며 만병의 원인이라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학회는 1주일에 10층 계단을 이틀만 걸어서 오르내려도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을 20%나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복부비만(뱃살)을 막아야 합니다. 뱃살은 내장지방을 축적시켜 동맥경화성 심장혈관질환 발병위험을 2∼3배 높입니다. 복부비만 예방을 위해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가운데, 기름지고 짠 음식을 피하고 녹황색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의 건강쪽지 전체 목록 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8.txt

제목: 암 유발 확률 5∼15배 높아… 담배보다 무서운 전자담배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3163910001  
본문: 흡연자들이 금연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5∼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자담배에 함유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때문이다.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입량도 배 가까이 많다. 정부는 ‘전자담배=담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대 연구진은 5V 전압에서 전자담배 용액을 하루 3㎖ 흡입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14㎎을 마시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반 담배 한 갑을 피울 때 마시는 포름알데히드(3㎎)보다 5배 정도 많은 양이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기화된 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서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전자담배를 오래 사용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담배를 피울 때보다 최대 15배 높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다만 3.3V의 낮은 전압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면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체 형태로 빨아들이게 만든 기기다.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여성 불임 및 남성 정자 감소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 등이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기체의 포름알데히드는 니코틴 용액에 포함된 것보다 193배 많았다. 강한 독성을 가진 포름알데히드는 노출량이 30ppm 이상이면 인두염 기관지염에 걸리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니코틴 함량은 전자담배 10모금(니코틴 0.41∼2.2㎎)이 일반 담배 1개비(니코틴 0.1∼1.4㎎)보다 배 정도 높다. 이렇게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최근 전자담배를 찾는 인구는 되레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자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점을 강조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연초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다만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청소년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전자담배는 일반적인 공산품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국은 전자담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청소년이 약국에서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를 산 뒤 니코틴 용액을 따로 구입해 넣는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전자담배에 대한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문수정 조성은 박세환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39.txt

제목: [대통령 업무보고]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제로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3163842002  
본문: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축소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장관은 ‘주류세 인상’과 관련해선 “<span class='quot0'>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를 지원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생계(중위소득 30%)·의료(40%)·주거(43%)·교육(50%) 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중간순위 소득)을 기준으로 바뀌는 급여는 7월 20일 처음 지급된다. 복지부는 최소 한 가지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가 2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명이다.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도 바뀐다. 하반기부터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해 일선 공무원이 직접 위기 가정을 방문,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500조원 시대를 맞아 3월까지 기금운용·관리 시스템 개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을 적용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축소된다. 예산 420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치료, 암 환자 유전자 검사료, 항진균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중소병원 100곳에서 동참한다. 하반기부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는 말기암 환자의 선택진료비, 1인실 병실료, 간병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월엔 영유아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월부터는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3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사업,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인상(연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등을 보고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0.txt

제목: [친절한 쿡기자] 말기 암 딸 위해 대마 기름 투여 아빠 체포, 접촉 금지… “부녀 생이별 비인간적”  
날짜: 2015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2163617001  
본문: [친절한 쿡기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고통에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두 살배기 딸이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딸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호주의 한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 벌이는 눈물겨운 사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일간지 미러는 호주 퀸즈랜드 케언스 출신인 아담 쾨슬러가 지난달 말 4기 신경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딸 루머 로즈에게 의료용 대마초 기름(medicinal cannabis oil)을 투여해 체포 후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즈가 앓고 있는 병은 신경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입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생기며 전이가 빠르고 생존 확률이 50%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쾨슬러는 로즈에게 코코넛을 혼합한 대마초 기름을 투여한 후 딸에게 기적적인 개선의 조짐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 뉴캐슬 헤럴드신문과 인터뷰에서 “암으로 위축된 딸의 작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 거의 즉각적으로 딸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했죠. 쾨슬러는 또 “딸은 ‘아빠, 배 안 아파’라며 챔피언처럼 먹을 수 있게 됐고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span class='quot0'>아이가 힘이 돌아와 다리를 웅크리고 누워 있는 대신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혈색이 돌아오고 눈이 다시 반짝거려 서로 쳐다보면서 완전히 놀랐다</span>”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 2일 브리스베인에 다녀온 후에 아버지는 병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16세 미성년에게 위험한 마약을 공급하고 소지한 혐의였습니다. 죽어가는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10만명의 시민들이 석방 청원에 서명하면서 쾨슬러는 석방됐지만 조건은 딸과의 접촉금지였습니다. 시민들은 퀸즈랜드 총리와 법무장관이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아버지를 중병을 앓고 있는 딸로부터 떼어 놓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청원운동도 벌어졌죠. 네티즌들도 “<span class='quot1'>쾨슬러는 부모로서 딸의 치료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span>”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4만여명이 쾨슬러의 페이스북에 동감을 뜻하는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딸의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쓸 수천 달러를 기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죠. 로즈의 지속적인 자연식 치료를 위해서 1만4000달러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그는 최근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법의 판단은 어떨까요?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1.txt

제목: [오늘의 설교] 심각한 질문  
날짜: 2015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1163411001  
본문: 살다보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라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휴 린튼(1926∼84) 선교사는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농어촌과 섬들에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할 자재를 차에 실고 가다가 만취한 기사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인요한(미국명 존 린튼)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을 수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신앙 좋고 신실한 권사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죽었고 목회자의 부인인 장녀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봉사, 믿음으로 사는 권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교회 일에 충성하는 성도의 가정에 재난이 올 때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왜 주님은 스테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바라보고만 계시는가.’ 그러나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휴 린튼의 사망으로 한이 맺힌 그의 아들 인요한은 구급차를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나 거지 나사로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답고 선한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천국에 가야 풀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푯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푯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주님입니다. 빌립보서 3장 7∼8절처럼 주님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화입니다. 성도는 주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살전 4:3, 벧후 3:11). 거룩함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화가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푯대는 성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셋째, 주님이 주신 비전이요 꿈이요 사명입니다. 복음증거의 사명, 교회봉사의 사명, 사회봉사의 사명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푯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푯대는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이요, 영생입니다. 인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육이 완전해집니다. 이런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병수 원로목사(서울 숭인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2.txt

제목: [헬스 파일] 겨울철 암환자 면역력 증강법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0163159001  
본문: 암은 면역시스템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면역력의 상승이 곧 암의 진행을 전적으로 막는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면역력의 저하는 새로운 암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암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있어선 매우 중요한 숙제다. 특히 수술, 항암화학 및 방사선 치료 시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면역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수반되기 일쑤이므로 적극적인 면역력 상승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철 날씨는 야외 운동이 힘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축되기 쉽다. 겨울은 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암 환자들이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수면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수면의 질 또한 좋아야 한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전신의 피로가 풀릴 만큼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이때 수면의 질은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환자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불안감과 우울감, 신경이 예민해진 경우와 같은 정신적 문제. 암성 통증과 같은 불편한 신체 증상 등이 꼽힌다. 만약 정신적 문제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 명상을 꾸준히 습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암성 통증을 포함한 신체적인 원인에는 침과 뜸 치료가 효과적인데, 이 치료를 통해 양약(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 낮 시간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해야 한다. 하루 중 비교적 따뜻한 시간인 한낮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추워서 야외 운동이 어려운 요즘에는 기공, 요가, 태극권 등 실내에서도 가능한 운동이 권장된다. 이러한 운동은 호흡, 정신, 신체 동작을 하나로 조화롭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어 암 환자의 면역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장의 울혈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장의 울혈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적취(積聚)라고 한다. 적취란 복부 속을 누르면 장이 단단히 뭉쳐져 있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를 암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장의 울혈상태가 지속되면 림프순환 및 말초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면역기능과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어 암이 생길 수 있는 미세 환경이 조성된다. 복부를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 하는 것과 뜸 치료, 좌훈 요법 등이 장의 울혈 개선에 도움이 된다. 불규칙한 식생활을 삼가고, 무분별한 약제 복용도 피해야 한다.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3.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암센터 및 집중화센터] (9) 고려대안암병원 암 치유 희망병동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0163158001  
본문: 고려대안암병원(병원장 김영훈)이 최근 ‘환자 최우선-디자인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며 감동 스토리와 함께 하는 희망의 진료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환자 최우선-디자인위원회란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진료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환자 편의와 만족도 제고란 지상 과제에 맞춰 재편하는 일을 하는 기구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환자경험의 날’을 지정, 김영훈 병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직접 가상의 환자가 되어 환자들의 실제 동선을 따라 돌며 불편한 점을 수집, 개선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과 ‘다시 찾고 싶은 병원’, 그리고 ‘이웃에게 추천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내 집처럼 편하고 아늑한 암 치유 희망병동 주목=고려대안암병원은 올 한 해 암 환자와 외국인 환자 진료 분야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환자 최우선-디자인위원회의 역할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최근 새로 오픈한 ‘암 치유 희망병동’과 ‘글로벌허브(HUB)병동은 이 같은 노력의 첫 결실이다. 두 병동의 다른 이름은 ‘안암동’(安癌棟)이다. 병원이 위치한 행정구역 안암동(安岩洞)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암 환자들이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란 뜻을 담은 별명이다. 뜻하지 않게 암이라는 인생의 큰 걸림돌을 만난 암 환자들에게 고려대안암병원이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도 새겨져 있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지난해 1년 동안 환자 최우선-디자인위원회를 수십 차례 소집해 지혜를 모으고, 국내외 유수 암 병원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가장 이상적인 두 병동을 탄생시켰다. 환자들이 병동에 들어설 때부터 나갈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프로세스에 치유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병동 환경도 아늑하고 늘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두 병동의 상담실은 24시간 개방돼 있다. 따라서 이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궁금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편하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휴게실엔 24시간 개방 노트북 전용 바도 설치돼 있다. 김영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질병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국내외 암 환자들에게 우리 병원이 희망이 되고, 최선의 선택이 되어 벼랑 끝에서도 새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라이프 플러스(Life-plus)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span>”고 말했다. ◇암 치유의 길 동행하는 ‘희망의 디딤돌 되겠다’ 각오=이 병원의 암 진료는 종양혈액내과 김열홍 교수가 이끄는 암센터에서 이뤄진다. 이 암센터엔 폐암센터, 유방암센터, 대장암수술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특성화센터들이 들어서 있다. 또 이들 암 특성화 센터에서 진행되는 암 진료의 공통분모는 전인치유다.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의 제거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과 재활에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암 극복에 필요한 정신적, 물리적, 사회적 편의를 모두 봐주는 것이 전인치유의 시작이다. 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그 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던 비만관리, 부종치료, 심리상담 등을 병행해 암의 재발을 막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느 병원에도 없는 특별한 ‘희망우체국’도 눈에 띈다. 이 우체국은 한마디로 ‘느린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다. 우편물 배달에 1년이 걸린다. 암 환자들이 1년 뒤 자신의 투병생활을 돌아보거나 혹은 말기에 이르러 남긴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추억과 감동을 이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암 치유 희망병동은 150병상, 글로벌HUB 외국인병동은 33병상 규모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여기에 16병상 규모의 호스피브병동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모두 국제의료기관인증평가(JCI)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치료의 질적 발전과 암 센터의 기능을 가일층 활성화시켜 암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 편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암 치유 희망병동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4.txt

제목: 연말정산 때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꼭 챙기세요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20111856001  
본문: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놓쳤다 환급을 받은 실제 사례 1500건을 유형별로 정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2003∼2013년 연맹의 도움으로 놓친 소득공제를 뒤늦게 챙겨 받은 직장인은 3만3968명으로 총 금액은 287억원에 이른다. 1인 평균 85만원꼴이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시부모·장인·장모 등 부모님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모든 항목을 공제받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갑상샘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0'>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선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5.txt

제목: [건강 나침반] 임플란트도 암 발생시키는 한 원인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47001  
본문: 암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이지만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포들은 일정한 삶의 주기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손상된 세포는 예정된 과정에 의해서 죽는다. 이를 ‘예정세포사’라고 하는데 암세포는 예정된 세포의 죽음에 저항하며 정상세포보다 오래 산다. 세포 복제를 계속하며 불멸성을 가진다. 종양의 경우 주위에 새로운 혈관을 생성한다. 암세포는 처음 발생한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전이 능력이 있으며 임파절이나 주변 조직, 그리고 다른 장기로 침투하는 성질을 가진다. 세포 내 유전자가 불안정하거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통합적으로 백혈구라고 부르는 면역세포들의 면역감시 체계를 회피하거나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기도 한다. 세포가 소비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 정상 세포와 다르다. 종양을 촉진하는 염증을 동반한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불운이라고 한다. 전체 암 발생에서 3분의 2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시술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잇몸아래 뼈에 심어진 있는 부분과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을 절개하고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 넣는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2개월 정도의 뼈가 회복할 시간이 지나서 잇몸을 다시 절개한다. 이미 심어진 임플란트에 나머지 부분을 나사로 조여서 연결한다. 이때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에는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금속의 변형으로 인해 틈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진 틈 사이는 혐기성 세균이 머물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 결국 임플란트 내부는 백혈구들이 기능을 할 수 없어 미세한 세균들의 천국이 된다. 임플란트 연결부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들 중에서 진지발리스라는 균은 몸속에 감염될 경우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심혈관, 뇌혈관 질환, 당뇨, 치매, 류머티즘, 건선 등을 유발시킨다. 최근의 연구에서 진지발리스는 다른 세균과 달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여러 기능을 방해하며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진지발리스균은 면역세포들에 대한 면역감시체계를 회피하거나 교란하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감염된 세포의 예정세포사를 방해한다. 세포의 사멸주기를 연장한다. 감염된 세포를 오래 살게 하고 세포에 노화를 가져오며 감염된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다.진지발리스에 감염된 암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 또한 더 높다. 진지발리스균에 의한 감염의 증상과 암세포의 특성은 매우 유사하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 진지발리스균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치과임플란트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신선한 혐기성 세균이 계속 몸속으로 공급돼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암 발생과 전신질환 유발 가능성에 있어서 틀니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암은 대개 원인 발생 후 암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5년에서 20년, 길게는 40년이 걸린다는 추정 기간이 있다. 불완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경우 유사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치과 임플란트의 시술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보건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험한 의술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다.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생활밀착형 관리에 중점 둬야… 암 생존자도 의사결정 참여 필요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20001  
본문: “암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료를 마치고 생존한 분들의 경우 적절한 영양, 재활, 정신상담 등을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 생존자 관리는 암 치료 후 겪는 정서적인 문제, 신체의 외형적·기능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기 생존 암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내 의학자들이 암 생존자 관리의 학문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한국암생존연구회.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사진) 회장은 “<span class='quot0'>암치료 후 장기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암 생존자 관리 기준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연구회의 출발점</span>”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8월 대한암학회 산하로 모임이 결성된 한국암생존연구회는 지난해 5월 발기인대회와 12월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김 회장은 “이미 5년 이상 장기 암 생존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항암치료제와 암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 암 생존자들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단순히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나 질환관리 차원을 넘어 ‘암은 평생 가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암 생존자의 적극적인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생존연구회는 암 생존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 근거 중심의 학문적 기반 마련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장기 암 생존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암 생존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도 연구회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특히 연구회의 역할 중 암 생존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차원의 암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김 회장은 “암 생존자에 대한 근거중심의 데이터를 만들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정부 기관과 연구회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데이터 산출 등을 함께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암생존연구회는 국내의 암 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과 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암 생존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도 목표이다. 김성 회장은 “<span class='quot1'>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기 암 생존자 관리에 대한 보험수가와 관리지침 개발, 암 전문의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암 생존자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 국가 차원의 암 생존자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구 활성화 등이 모두 암생존연구회가 해야 할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암 생존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히는 데 힘쓸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 생존자 관리는 시스템과 인식변화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암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후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덩어리가 불러오는 암성통증… 환자·의료진 관리 뒷전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18001  
본문: “요즘 부쩍 한밤중에 너무 아파서 깨는 날이 많아요. 새가 계속 피부를 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온몸 신경이 소리 내어 아우성치는 느낌이랄까요. 전신에 퍼진 통증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유방암 3기 오혜정씨) 암환자가 느끼는 모든 통증을 가리켜 ‘암성통증’이라고 부른다. 암성통증은 암 덩어리 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증부터 항암·방사선 치료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과 근육세포의 손상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암성통증의 유병률은 약 52∼80%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진통제 잘못된 편견 암성통증 방치=일단, 환자의 문제다. 통증을 잡아내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통증관리에 대한 인지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연희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은 “마약성 진통제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중독을 우려한다. 그러나 암성통증을 조절하는 진통제로 중독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암환자라면 무조건 겪게 되는 고통쯤으로 여기고 통증을 참는 환자가 많다. 여기에는 참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란 심리가 깔려 있다. 또 진통제가 암치료를 방해할 것이란 견해도 지배적인데,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진통제는 없다. 오히려 암성통증을 제대로 조절해나가지 못할 때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주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암성통증을 치료하는 약물요법은 암환자 개개인의 통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진통제의 종류가 정해진다. 1단계 약한 통증에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사용되며 2단계 중간 통증부터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암성통증 관리지침 내용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모든 단계의 통증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진통제 의존성보다 부족한 통증치료가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통증관리에 대한 의료진 무관심 암성통증 키운다=통증관리에는 의료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암성통증은 적절한 약물처방과 관리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증관리 지침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부족해 응급실을 내원한 암환자가 적절한 진통제 처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김연희 간호부원장은 “과거보다 환자가 통증관리에 적극적이긴 하나 병원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주치의가 환자의 통증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통증이 암 치료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외래에 온 암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바이탈 사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박, 혈압, 체온, 호흡수 말고도 통증이 포함돼 있지만 환자에게 ‘지금 통증이 있는지’, ‘몇 주간 통증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암 전문의는 많지 않다. 통증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8.txt

제목: [건강 나침반] 매일 야채·과일 섭취하고 가공육·붉은 육류 피해야… 암예방 도움되는 식습관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13001  
본문: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암에 걸려 생존해 있는 국내 암환자 수가 이미 120만명이 넘었다. 이는 국내 암환자 수 100만명 시대의 도래가 2015년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3년이나 앞당겨질 만큼 암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떠한 식습관이 암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는 체중 관리, 운동 및 음식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체중 관리 면에서 평생 동안 저체중이 아닌 가능한 이상적인 체중으로 마른 몸매를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과체중인 경우라면 소량의 체중 감소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건강에 이득이 되고 건강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고칼로리의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육체 활동, 즉 운동에 관한 것이다. 어른의 경우는 1주일 동안 빠른 걷기 운동을 2시간 30분 정도, 혹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1시간 내외에서 하되 이를 1주일 동안 분산하여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매일 한 시간 정도의 빠른 걷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권하고 있다. 더불어 앉아 있든지, 눕든지, TV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행동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음식의 경우 야채 중심의 건강한 식단이 좋다. 즉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만큼의 음식과 음료를 골라 섭취한다.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는 가능한 한 섭취를 제한하고, 매일 야채나 과일을 섭취한다. 정제된 곡류보다는 통밀이나 현미 등 정제되지 않은 곡류 섭취가 몸에 더 좋다. 술을 마시는 사람인 경우, 남자의 하루 최대 허용량은 여성의 두 배인데, 여성의 경우 하루 허용량은 맥주의 경우 한 캔(360cc), 와인의 경우 5분의 1병(150cc), 소주는 3잔, 양주의 경우 1.5잔(45cc), (막걸리의 경우는 와인과 맥주 중간 정도의 양인 250cc 정도) 이상 마시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알코올 절대량의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 발생은 최근 사이언스 잡지에 발표된 연구와 같이 환경요인, 유전요인 및 줄기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와 모두 연관이 있으므로 환경요인 중 생활습관만으로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것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결국 다음의 7가지 신체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식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배변이나 배뇨 습관의 변화, 잘 낫지 않는 상처,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 유방이나 고환 등 몸 어느 곳이든 새롭게 만져지는 혹, 소화불량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몸의 반점이나 입안의 궤양 등의 크기, 색깔 및 모양변화가 보일 때, 그리고 계속되는 기침이나 목소리 변성 등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지름길이 되겠다. 황대용 건국대학교병원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49.txt

제목: [암과의 동행] 80세까지 생존 경우 한국인 암 경험 확률 34%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22001  
본문: 헬스케어 3.0 시대가 밝았다. 과거 헬스케어 1.0 시대가 전염병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헬스케어 2.0 시대가 질병 치료로 기대수명을 연장하고자 했다면, 헬스케어 3.0 시대는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영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 이 역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이다. 우리나라가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다. 그 이후부터 매년 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평생 한 번이라도 암에 걸릴 확률은 34%로 나타났다.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3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바로 암이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젊은 층의 암 발병 증가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20∼30대는 1만8050명으로 10년 전 9998명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2010년 신규 암 환자 수가 20만2053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명 중 1명 정도가 20∼30대인 셈이다. 젊은 층에게 흔한 것으로 보고된 암은 갑상선암이나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 중 하나이며, 비교적 예후가 좋고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갑상선암은 목에 촉진되는 결절, 쉰 목소리,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 경부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진단 당시 50% 이상의 환자는 무증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할 때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암은 발생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기 진단 비율 및 평균 5년 상대생존율 등으로 인해 예후가 좋은 대표적인 암으로 꼽힌다. 하지만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위암은 노년층에 비해 조직분화도, 즉 암 세포의 모양이나 패턴이 나쁜 경우가 많아 암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도 용이해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은 40대 이하다. 이 중 30대 이하도 16%나 된다. 유방암은 출산 경험과 모유 수유 경험이 없고, 어린 나이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늦은 나이에 폐경이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에 따라 30세 이상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잊지 않도록 하고 40세 이상에서는 1∼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연령별 통계를 보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는 30∼40대이며, 50대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40∼50대는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 대장, 간, 심장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 대장암 환자가 중년층에서 급속히 늘고 있다. 대장암은 생활방식의 서구화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이며,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증가한다.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유전이나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나쁜 생활습관을 가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사람, 육식을 즐기는 사람 등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선종성 용종(폴립)이라는 암의 전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대한대장항문학회가 권장하는 바에 따라 50세(가족력 있으면 40세) 이후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간암은 만성 간염 보균 상태에서 대개 40∼50대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40∼50대 중년 남성의 사망 원인 1위가 간 질환일 정도로 간 질환은 중년 남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B형 간염은 유병률이 상당히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간경변증과 간암의 최대 원인이다. 특히 간암은 발견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50%가 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환자의 절반정도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6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본격적으로 노화가 몸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남자는 전립선암을 주의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50세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전립선암의 3분의 2는 65세 이상의 남자에서 발견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며, 잔뇨감이 드는 등 배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립선암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특히 가족력은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폐암은 2013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인 동시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65세 이상 암 환자들의 사망률 1위인 암이다. 폐암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이 흡연이다. 일찍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 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흡연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성분 중 일부는 간접흡연으로도 암 발생률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졌다. 자궁경부암은 세계 여성암의 약 15%이며,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 순위 중 5위를 차지한다. 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만 한 해 3800∼4000명 정도가 걸리는데 주로 성생활이 활발한 연령인 30대에서 HPV에 감염되어 40대 중후반에 생기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에 발병할 확률이 높다. 자궁경부암은 예방 백신이 개발된 유일한 암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9∼13세 모든 여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만 3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이 권장된다. 자궁경부의 이상 소견이 있었던 병력이 없고 앞서 10년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면 70세 이후에는 검사를 중단해도 된다. 췌장암은 여러 암 가운데서도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이다. 발생률은 70대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60대가 잇는다. 인구노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진행과 전이가 빠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생존자 123만명 돌파… 삶의 질 높이는 사후관리 대책 세우자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15001  
본문: 국내 암 생존자가 지난해 기준 12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암환자로 생존(2013년 1월 1일 기준)한 것으로 확인된 암 경험자 수는 123만487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8.1%로, 암환자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생존율 53.8%보다 14.1%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특히 암환자 5년 생존율은 199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암 생존자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신규 암환자 수가 늘고, 5년 이상 장기 생존 암환자들이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만성질환 관리나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 암 생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암환자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암 치료 전문가와 보건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장기 암 생존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암환자 정신적 고통 크다=대다수 암환자들은 암치료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또 다른 질환에 노출되거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암 경험자 또는 암 생존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암은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고 있지만, 많은 수의 암환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암 진료 환자 중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177명(남성 1만2686명, 여성 1만7491명)으로 확인됐다. 암 진료 후 자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6657명(남성 2703명, 여성 3954명)이었다. 또한 국내 한 자료에서는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 비해 암 진단 6개월 미만인 집단에서 자살위험도가 남성 2.6배, 여성 3배 높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81만명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암환자의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암환자 자살과 관련, 충북의대 박종혁 교수와 국립암센터 이수진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암 진단 후 평균 3년이 지난 암 생존자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경험했고, 우울감을 경험한 암 생존자 10명 중 6명가량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암 생존자 평생 관리 필요=이처럼 장기 생존 암환자들은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암과 무관한 만성질환이나 이차암 또는 암재발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특히 암수술과 항암치료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해질 수 있고, 영양조절이나 식단관리, 재활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해 암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적극적인 ‘암 생존자 관리’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장기 암 생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며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 집행과 연구 데이터 축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대병원암병원 주최로 열린 ‘국제암생존자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MD앤더슨암센터 루이스 폭스홀 교수는 “체계화된 전문교육과 암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암 생존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암 생존자들에 대한 관리는 암 진단 시점부터 고려돼야 하고, 환자 본인뿐 아니라 투병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과 친구, 돌봄 제공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암 생존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암 치료 후 장기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 교육, 관련 정책개발과 암 생존자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목표로 지난해 설립된 한국암생존연구회(회장 김성·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김성 회장은 “장기 암 생존자들이 늘면서 암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큐어(cure)의 개념이 이제는 암 치료와 그 이후에 대한 생존자 관리를 포괄하는 케어(care)로 바뀌고 있다. 이는 ‘암은 평생 간다’는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암 생존자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의료계 함께 머리 맞대야=암이라는 질환 특성상 암 생존자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는 암 전문의들이 주도하지만, 수술과 항암치료 후 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연계해 관리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암 생존자들은 평상시 식단 등 영양관리와 체중조절, 재활과 운동, 심리·정서적인 지지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암 생존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성 회장은 암 생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확산과 합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암 생존자 관리라는 개념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 데이터 등이 없기 때문에 장기 암 생존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가 차원에서 국가암검진사업과 국가암등록통계 등을 통해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제 의료 현장이나 암 생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체계적인 암 생존자 관리는 암 경험자(치료 중이거나 치료 이후)들의 또 다른 암 재발이나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 국가 차원의 의료비 절감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 회장은 “<span class='quot0'>암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보건소 등 지역사회나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후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환자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도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1.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최원일 동산의료원 교수 “하루 세끼 균형잡힌 식단 챙기세요”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6001  
본문: “<span class='quot0'>암환자의 40% 이상이 영양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영양상태가 불량해 항암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span>” 최원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암환자의 체중감소가 질병의 악화나 사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보고에 따르면 입원한 암환자의 10% 이상에서 체중감소가 일어났고, 특히 1∼6개월 사이에 체중감소가 나타나면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그렇다면 영양불균형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 교수는 영양불량이 인체기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간기능 변화에 의한 약물대사에도 영향을 끼쳐 약물치료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 이는 치료효과를 낮추고, 치료기간을 연장시켜 합병증 유발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의 40∼80%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영양결핍은 주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때문에 암환자는 올바른 영양섭취와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그는 “암환자의 체내에선 항암제의 지원을 받는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치열한 사투를 벌이므로 독한 항암치료에 맞서서 몸이 견뎌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항암제 투여로 인해 탈모·구토 등의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양질의 식단관리를 통해 체력을 확보해야 항암치료로 손상된 세포를 빨리 재생시킬 수 있고, 각종 부작용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2개월 전부터 항암치료를 중단했는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영양분이 암을 키운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일부러 식사량을 줄여 체중이 5kg 이상 감소했고, 기본적인 체력도 바닥나 더 이상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암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전해들은 것을 믿기보다는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산의료원 암센터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암환자는 우선 하루 세 끼 일정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음식을 씹기 어려운 환자들은 다지거나 갈아서 만든 식단을 이용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식단 선별도 필요하다”며 “암환자는 입안이 헐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매고 짠 음식은 안 된다. 또 항암치료 중에는 가능하면 익힌 음식과 신선한 음식이 좋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암환자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균형 잡힌 식단을 짜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해야 하며,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암 병기별, 진행별로 영양관리가 다를까.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있다. 최 교수는 오심과 구토로 인한 식욕부진으로 음식을 오래 먹지 못하는 암환자에게는 적게 먹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고단백 식이가 좋다고 조언했다. 또 세 끼 식사에 집착하기보다는 끼니 사이마다 칼로리를 보충해줄 수 있는 간식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먹는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며, 식욕이 단기간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내원하거나 가정간호사를 통해 환자의 집에서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암환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물 섭취에 대한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메게이스 등의 식욕촉진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진행성 암환자의 경우 암에서 배출되는 여러 물질에 의해 식욕부진이 동반되고, 항암약물치료 등이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감소 및 면역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암환자의 식욕부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간에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차암… 멈출수 없는 또 다른 전쟁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11805001  
본문: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차암’이다. 이차암은 암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완치 후 이전에 있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하는 암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암세포가 인접 부위에서 자라는 재발과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부위에서 자라는 전이와는 구분된다. 이차암은 기존 암세포와 성격과 조직학적 형태가 다르다. 국내 공식적인 이차임에 관한 통계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중앙암등록사업부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암 생존자의 이차암 발생파악 연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암환자들에서의 이차암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방과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차암 발병의 요인은 크게 흡연과 비만,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가능한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다. 유방암 환자의 이차암 발생에 관한 해외연구에서 수술 후 적정체중 조절 실패는 자궁내막암, 대장암, 반대편 유방의 암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하는 암 생존자들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암이 이차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암 진단 이후 흡연을 지속한 폐암 환자의 이차암 발생률은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암 생존자들의 검진 시기이다. 암 생존자에 대해 검진 항목이 많아지거나 주기가 짧아진 암 검진 권고안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진 암 생존자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이차암 검진안을 지켜 왔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 서홍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차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이차암 권고안이 특별히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그렇게 주기를 짧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된 견해</span>”라고 말했다. 암 생존자의 이차암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차암 관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암 생존자들 중 ‘이차암’을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발이나 전이와 의미를 혼동하는 까닭이 크다. 그러나 이차암은 이전 암과 다른 종류의 암이 생길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추적검사만 집중하는 것이 이차암 발견을 막는 요소로 꼽힌다. 서홍관 교수는 “위암 전문의는 암 생존자를 대할 때 위암의 재발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그 위암 완치 환자도 다른 암종, 즉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에 걸릴 수 있으나 해당 의료진의 ‘이차암’ 인식이 적어 이차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검진하는 데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3.txt

제목: [암환자 희망일기] 위암은 초기발견시 거의 100% 완치… 가족력 있으면 주저말고 내시경 검사를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0001  
본문: 2014년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13.8%를 차지하여 2위로 보고됐다. 남자는 2만839건으로 남성 암 중 1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1만8건으로 여성 암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위암은 조기 발견 시 대부분 완치가 되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나 복강경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수술 후 큰 통증이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또한 2∼3기에 발견되더라도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으로 60∼7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간헐적인 명치부위 통증 때문에 위장약을 복용해온 환자가 본원을 방문했다. 44세 남자로, 1∼2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어 인근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실시했는데 조기위암이 발견됐다.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검사 상 위 주위의 림프절 전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8년이 지난 현재 재발 소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위체부의 조기위암이 발견된 45세의 여자 환자도 있다.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검사상 위 주위 림프절 전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했다. 현재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내원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수개월간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속쓰림, 명치부위 통증으로 본원을 방문한 69세 남자 환자는 위내시경 검사에서 하체부에 5x4cm 크기의 궤양이 발견됐고, 조직검사에서 위암으로 진단됐다. 복부 CT검사상 위 주위 림프절이 커져 있는 소견을 보여 개복수술로 위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3기 진행위암으로 판명되어 항암제를 1년간 복용했고, 5년이 지난 현재 재발 소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복통과 체중감소로 내원한 39세 여자 환자였는데 아버지와 동생이 위암으로 수술 받은 가족력이 있었다. 인근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암이 진단됐다. 위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림프절 전이가 있는 3기 진행위암으로 경구 항암제를 1년간 복용, 5년이 지난 현재 재발 소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좀 더 이른 시기에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위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막에서 발생된 암이 점막하층까지 진행하는 데 평균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되는 특징이 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 탄 고기나 생선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남자 40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속쓰림, 소화불량 등 애매한 소화기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의의 진찰을 꼭 받아야 한다. 유항종 원자력병원 위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신약 보험적용 환자 의견 반영하라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11759002  
본문: 2013년부터 시행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치료기회 확대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큰 공감을 받고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중 하나이자 국내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암 보장성 강화 방안이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 환경과 더욱 긴밀하게 맞닿을 필요가 있다. 대한암협회는 지난 2014년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과 함께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 ‘대한민국 암 정책, 환자를 담다’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 의료계, 보건경제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치료 환경 조성과 암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위한 목소리 전달 채널 필요=각계 전문가들은 2015년 암 정책이 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많은 암 환자들은 치료 후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대부분 생존율이 매우 낮아져, 하루하루의 일상이 절박해진다. 적극적인 암 치료로 단 2∼5개월만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그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치는 매우 크다. 또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커진다. 이 때문에 신약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와 사회적 비용절감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치료를 경험하는 환자들의 의견이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 및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암 환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위원회, 협회 및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료 현장에서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 정책 되어야=환자들이 진료 현장에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 정책도 중요하다. 암 치료는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필수 표준치료 범위에 따른 종합적인 급여정책을 요한다. 특히, 많은 의료진들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보험 가이드라인과 실제 치료지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체감하는 당사자로서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 및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약 임상시험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의료진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험 급여, 경제성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해야=보험급여에 다양한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작업도 강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술평가(HTA) 제도 상 ‘비용 효과성 측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선진 해외 국가들에서는 의료기술평가 제도 내에서 의약품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있는 평가를 수행하고자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취약계층을 고려한 형평성, 신약의 혁신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안전성 및 효과성, 효능, 삶의 질, 질병 부담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환자에게 ‘그림의 떡’ 되지 않으려면 위험분담제의 제도적 보완 필요=마지막으로 위험분담제의 조건 완화 및 합리적인 보완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위험분담제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4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기간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위험분담제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위험분담계약 필수요건으로, 비용 효과성만을 위주로 평가하는 약물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환자들의 제도 접근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또한, 위험분담제를 적용 받은 치료제가 제도 운영 기간 중 적응증이 추가되었을 때 급여 승인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위암 치료제로 위험분담제를 적용 받은 신약이 폐암 등 다른 암 치료에도 혁신적인 경우, 제도 운영 기간 중 적응증이 추가되었을 때 급여 승인에 제한을 받게 된다. 위험분담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항암제의 경우 1개 이상 여러 개의 적응증을 위해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위험분담제 계약 중 적응증 추가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귀, 암세포 자살유도하는 ‘후코이단’ 풍부… 다양한 항암기능 밝혀지며 인기 급상승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3001  
본문: 조금은 생소한 식재료, 미역귀가 암환자들 사이에서 필수식품으로까지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역귀는 미역 뿌리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역의 포자가 방출되는 생식기관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의 엽채(葉菜) 부분에 비해 다소 두껍고 부드러운 맛이 떨어져 식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러나 최근 미역귀에 천연항암물질인 ‘후코이단’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덕꾸러기 식재료에서 귀한 약용식품으로 변신한 것이다. 미역귀를 귀하신 몸으로 탈바꿈시킨 후코이단은 1996년 55차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한다’는 기전이 밝혀져 일약 스타덤에 오른 물질이다. 올해까지 발표된 국제학술지 논문만 이미 1200편이 넘었다. 지금까지 후코이단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신생혈관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방해해 전이를 막는 기능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기능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기능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엘란비탈암의학연구소 정일훈 소장은 “<span class='quot0'>미역귀의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세포주기에 관여해 암이 성숙한 성체가 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암세포의 소포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외에 부가적인 항암기능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정 소장은 “<span class='quot0'>물론 암 환자의 경우 후코이단을 추출·농축한 상태로 만든 것을 먹는 것이 좋겠지만, 암 예방이 목적인 일반인이라면 미역귀를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해조 섭취는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식습관</span>”이라고 덧붙였다. 주목할 것은 우리 인근해에서 자란 미역귀에 양질의 후코이단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다. 후코이단의 품질 및 효능 지표로 황산기 함량이 꼽히는데, 우리 인근해에서 자란 미역귀의 경우 황산기 함량이 평균 30% 가량으로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의 공동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완도, 고흥 등 우리 인근해의 미역귀로 후코이단을 생산할 경우 황산기 함량이 평균 30%, 많은 경우는 35%까지도 나오고 있다. 국제 후코이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즈쿠(큰실말) 후코이단의 2배에 달해 품질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6.txt

제목: [2015 암정복 지원정책] 고비용 200여 약제 건강보험적용… 호스피스 서비스 일반병상 확대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11800001  
본문: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수정안을 통해 2015년 정책목표를 암생존율 67%(당초 목표 54%)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8명으로 정했다. 또 성인남자 흡연율을 35%이하로 감소시키고,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55%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가암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8% 감소했는데 △암등록통계 관리 및 홍보: 40억원 △암검진: 165억원(전년 181억원) △완화의료전문기관지원: 33억원(60개소로 확대) △지역암센터지원: 9억5000만원 △암연구 국제협력: 2000만원 △암역학조사: 4억원(전년 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암환자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6% 감소했는데 재가암환자 관리에는 12억40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전년 대비 20억원이 줄어든 204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소아암환자 의료지 지원에 전년대비 6억7100만원 줄어든 66억1400만원(4227명), 성인 암환자 의료지 지원은 전년대비 13억7700만원이 줄어든 137억8600만원(6만4220명)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는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지원단가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 내용을 보면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1월부터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에 급여가 확대되며,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유지요법)의 투여대상이 확대되는데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도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에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를 추가했다. 또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선다. 여성암 예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도입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변경된다. 우선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400% 이하 의료비 발생수준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신청은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의 경우만 가능하다. 한편 암질환 관련 용어도 재정비됐는데 △다발성 골수종은 ‘다발골수종’ △여포형 림프종은 ‘소포림프종’ △피하내투여는 ‘피하투여’ △위장관기저종양은 ‘위장관기질종양’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등으로 변경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7.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부정적 보도 접할때 가슴 철렁… 꼭 알아야 할 정보 집중 바람직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4001  
본문: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엄마와 저녁뉴스를 보는데 채널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앵커가 여러 개 암의 생존율을 이야기하면서 폐암의 생존율이 가장 낮고 살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아 삶의 질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폐암 3기인 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살 수 없다’고 못 박는 것과 다름없어요. 병원에서도 부정적인 정보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뉴스에서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온갖 암에 관한 통계를 이야기할 때면 치료받고 싶다는 의욕마저 꺾여버립니다.” 암 판정을 받은 환자를 위로하는 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국내 암 생존율이다. 80∼90%에 이르는 생존율은 나 한 명쯤은 생존자에 속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또 나와 비슷한 병기의 환자 사례를 보며 앞날은 예단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간혹 의료정보를 얻으러 환우회를 찾았다가 비슷한 경우의 환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을 보면 내 일처럼 기쁘다. “환우회에 나가 보면 완치 후에도 환우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환우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병기와 전이여부 등과 같은 당시의 상태예요.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보는 거죠. 본인보다 암울한 상황이었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희망을 얻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일반인을 위해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긍정적인 면만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암환자 사례들은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뉴스거리다. 그러나 암환자는 여기저기 떠드는 부정적인 수치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암과 관련한 부정적인 통계가 노출되는 까닭은 질병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 뿐 아니라 고가 검진상품을 팔려는 병원, 암 보험 상품을 팔려는 보험 회사들의 꼼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암 생존자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료를 끝낸 암 생존자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해도 부정적인 수치에 아예 무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암환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앞서 소개된 사례의 주인공도 부정적인 통계에 민감해했다. 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득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생존율 통계에서 비롯되므로 부정적인 수치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한 암환자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모으고 부수적인 정보들을 제쳐두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정보는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예후에 이로울 게 없다.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다. 그 중 암과 관련한 통계는 암환자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다. 우연하게 부정적인 통계를 맞닥뜨려도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8.txt

제목: [포토] 북적이는 금연 클리닉… 암 예방 정책도 실효성 높여야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7001  
본문: 새해를 맞아 담뱃값 인상과 금역 구역 확대로 금연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의 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의 암 정책은 진단과 치료 못지않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일보DB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59.txt

제목: [한세준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자궁암·자궁경부암 환자에 희망을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49001  
본문: “<span class='quot0'>교수님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span>” 필자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살아오면서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을 때가 있다. 환자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의 칭찬을 받곤 한다. 그저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내가 ‘빛’으로 비유되는 과분한 일이 있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과분하고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다. ‘빛’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특별함 때문일까?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가 있다. 내게 오는 많은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환자도 임신을 간절히 소망하는 부인암 환자였는데 불행히도 여러 가지 여건이 최악이었다. 통상적으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암 환자들은 20대 또는 30대 초반이어서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암 등의 질환을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내게로 온다. 그런데 지난번 칼럼에 소개했던 환자들과는 달리, 그 환자는 면역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 당뇨병을 앓고 있고 간수치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인공수정의 실패,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 그리고는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은 그런 환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였다. 게다가 아기를 갖기에는 조금 늦은 30대 후반이었다. 보통 이러한 상태의 환자라면 아기를 갖는 것보다는 환자 자신의 몸을 생각해 다른 병원 선생님께서 권하신 대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아기를 갖고자 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듣고서 도저히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 간절함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죄스럽다.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합병증이 있는 터라서 더욱 신중하게 광역학 치료로 시술을 진행했고 감사하게도 광역학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바로 그 환자가 쌍둥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담은 편지가 내게 도착했다. “<span class='quot0'>교수님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span>”라는 말과 함께. 출산 경험이 없는 37세의 노산에다 제반 상황이 최악인 환자이었기에 그 출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접할 때마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돕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누구 할 것 없이, 암이라는 한 가지 질병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환자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필자를 찾아온 것은 바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간절함과 희망 때문이리라!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이 그 환자에게 쌍둥이 아기를 선물로 보내준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그 쌍둥이 아기들이 그들에게는 ‘빛’이 아닐까? 나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그 어떤 어둠도 그 ‘빛’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암과 같은 질병이 ‘어둠’이고 광역학 치료가 ‘빛’이라면 무리한 비교일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이 광역학 치료는 바로 그 빛으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다. 이 광역학 치료가 하루라도 빨리 암이라는 질병으로 어둠 속에 살아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든 환자에게 빛으로 성큼 다가오기를 오늘도 희망한다. 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 교수(부인종양학)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0.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1) 마음가짐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23001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암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암환자 생활백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공동기획으로 진행됩니다. 암환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한동안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현실을 인정하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 치료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한다. 물론 암을 상대하고 이겨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환자 혼자 외롭게 짊어진 아픔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암환자의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심리전문가에게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고 치유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또한 암환자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 암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서면 당초의 두려움은 언제든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암환자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했는지를 돌아본다. 어떤 자세로 대했고 무슨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떠올려 암이라는 지금의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기분을 보다 낫게 해줄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며,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일들은 멀리한다. 따라서 명상이나 이완 등 감정 조절을 돕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암에 잘 대처한다 해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다. 따라서 기분이 저조해지는 일이 잦거나 정도가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사람, 서로 존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들을 비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를 의논하러 의사에게 갈 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자. 마음이 불안하면 의사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환자와 함께하는 이들은 치료과정에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상담은 암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면 암으로 인한 증상들을 더 잘 견뎌내고 치료 효과도 향상될 수 있다.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위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 50대 환자수 3위 불구 평균진료비 최다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2001  
본문: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과음과 흡연, 자극적인 음식물 섭취 등으로 서구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4.5배 높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병 위험도가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암 환자수는 2009년 12만6092명, 2010년 13만4958명, 2011년 13만7764명, 2012년 14만2318명, 2013년 14만703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4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 심사결정 완료분) 기준 총 13만9963명 중 남성 9만4205명, 여성 4만5758명으로 남성이 2배 많았다. 2014년 기준 연령별 환자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60대가 가장 많은 3만1553명이었으며 이어 70대 2만5474명, 50대 2만5456명, 40대 9535명 순이었다. 20세 미만에서도 10명(10대 8명, 10세 미만 2명)의 위암환자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1만19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만1678명, 50대 1만1478명 순이었다. 또 10대는 9명이 있었고 10세 미만은 없었다. 1인당 진료비는 60대를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60대는 117만5006원인데 반해 50대는 131만7470원, 70대는 122만496원으로 더 커졌다. 이는 여성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60대 1인 진료비는 102만1315원인데 50대는 119만3402원, 70대는 124만3119원으로 커졌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32만6942원이었으며, 가장 부담이 큰 연령은 남여 모두 10대 구간으로 남성의 경우 383만9875원(환자수 8명, 진료비 3071만9000원), 여성은 209만2111원(환자수 9명, 진료비 188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환자수 2위보다 3위인 50대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50대에 비해 환자수가 18명 더 많았으나 진료비는 50대(335억3753만원)가 24억4659만8000원 많았다. 여성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60대에 비해 환자수가 200명 적은 50대에서 진료비(136억9787만6000원)는 17억7095만1000원 더 많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병원급 1인 평균 진료비가 180만288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종합병원(122만4400원), 상급종합병원(117만641원) 순이었다. 반면 의원급은 1인 평균 12만1753원으로 간단한 관리를 받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이전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1인 평균 진료비가 2012년 22만522원, 2013년 27만969원 수준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12년 암발생률 현황에 따르면 ‘위암’ 신규환자는 3만847명으로 전체 암에서 2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는 첫 번째(2만839명), 여성에서는 4번째(1만8명)로 많이 발생한 암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생존율(2008∼2012년)은 71.5%로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에 이어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암 유발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짜고 자극성이 강하거나 불에 탄 음식 등은 어릴 때부터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2차 예방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위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2.txt

제목: [항암 밥상-황태 달걀국] 겨울에 어울리는 풍미… 떨어진 입맛 돋우기 제격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8001  
본문: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의 기본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 음식 궁합을 고려해 먹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식재료와 반찬을 활용한 푸짐한 상차림을 즐기기 때문에 음식 궁합은 단순히 맛의 차원에서 나아가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음식 궁합은 각각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을 보완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과학적인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배처럼 항암 효과가 높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체내 발암 유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암을 치유하는 능력 자체를 높여주기도 한다. 오늘은 이렇게 음식 궁합이 탁월한 제철 식재료 요리를 소개한다. 보통 겨울이 제철인 명태는 찬바람이 불면 잡히기 시작해 초봄까지 맛이 좋다. 명태는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것은 생태, 생태를 얼린 것은 동태, 말렸다 얼리기를 반복한 것은 황태, 바싹 말린 것은 북어, 코에 꿰어 반쯤 건조시킨 것은 코다리라고 부른다. 또한 명태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도 달라지는데, 황태는 생태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지방이 거의 없어 더 건강한 식재료로 꼽힌다. 특히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주어 성장기 아동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수험생들에게도 좋다. 황태는 해독작용을 하는 식품이기도 하다. 공해와 다량의 인스턴트 식품 속 유해물질 섭취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몸 안에 쌓인 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암과 질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런 황태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는 달걀이다. 황태에는 간을 보호해주는 메티오닌, 리신,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연말연시에 밥상에 올리기 적합한 황태국을 끓일 때 달걀을 넣으면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황태 속 단백질의 흡수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주어 영양을 보완할 수 있다.조규봉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3.txt

제목: [암과의 동행-유방암] 글로벌화된 신기술 사용허가 절실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12001  
본문: 현재 정부의 암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외국에서 20∼30년 살고 있다가 암에 걸리면 최근에는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해주고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중증 해당)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건강보험을 매달 지불해 큰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돈을 내고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의 사용이 방사선 노출 위험성이라는 명목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재를 많이 해 환자의 암 상태나 치료과정의 평가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심지어 비급여로도 촬영이 불가능해 환자와의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외과계의 수련의 모집에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없는 이유는 3D(difficult, dangerous, dirty)뿐 아니고 그들이 넓은 공간, 많은 인력이 필요해 경비문제로 개원해도 생계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비의 현실화가 정말 중요하다.(현재는 미국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수준) 대학병원에서도 양질의 보조자(레지던트)가 없어 수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는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기술과 그 결과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즉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어, 환자들의 경제 활동에도 가정생활에도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일례로 IORT: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등은 이미 유럽 국가, 미국, 일본, 중국에서 많은 임상시험의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널리 사용 중인데)을 정부가 사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유방암 보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지방 환자들까지 서울에 살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 유방암 수술 중 4분∼20분이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 경제활동 등에 제약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또한 가정생활, 직장 생활 및 치료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이 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유방암 전문 치료 의사로서 안타깝다.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4.txt

제목: [암과의 동행-간암] 비대상성 간경변증, 희귀질환 포함돼야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11001  
본문: 간암환자는 간암뿐 아니라 바이러스간염과 간경변증 등 3가지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간암의 가장 중요한 기저질환인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간학회, 유럽간학회 등 국내외 모든 B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에서 간경변증은 일반적인 간염과는 다른 치료 기준을 정해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대상성 간경변증과 비대상성 간경변증 모두에서 엄격한 급여 기준을 두어 적극적인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간경변증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고, 국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을 차지하며, 60세 이후가 아닌 40∼50대의 가장(家長)에게 주로 발생해 사회경제적인 질병 부담이 막대하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을 희귀난치 질환에 포함하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간경변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간 손상이 반복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단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면 치료를 받아도 간이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고 더 진행하게 되어 간암이 발생하거나 간부전으로 사망한다.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고 진행된 경우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2010년 한국의 질병 부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간경변증에 의한 조기사망은 7위를 차지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한국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간경변증 환자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5년 생존율이 약 25%로 이미 4대 중증질환으로 등록돼 보장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약 39.9%)나 암환자들(약 45.9%) 보다도 위중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가려져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암 등 다른 중증 질환들은 고령으로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간경변증은 40∼50대 남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나타나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의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간경변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간암 이외의 암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다른 만성질환과는 달리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질환이다. 즉 간경변증 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준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5.txt

제목: [암과의 동행-폐암] 유용한 치료제 보험적용 신속 결정 중요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5001  
본문: 한국인의 폐암 진료 현황은 매우 좋다. 한국의 의료 특징은 구미 각국에 비해 저렴한 수가 구조와 양질의 시설과 양질의 의료진으로 인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하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증으로 최근 외국인 환자와 외국에 있는 동포 환자들의 고국 방문 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의 해외 수출도 성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암환자 치료에 대한 보장을 잘 해 주고 있다. 환자 및 의료진 대부분 만족스러워한다. 하지만 더 나은 폐암 치료를 위해 보장과 관련된 사항과 의료 환경에 대해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나열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항암제의 표적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가격이 상당히 높아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개발되는 모든 약들에 보험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환자에게 유용한 약제는 선별적으로 사용을 신속히 허가하고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약제 선정은 전문가의 대표 기관인 각 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여 결정해야 되며 한 번 선정된 약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 선정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 둘째,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확충과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보장을 더 확고히 해서 마지막 여명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셋째, 최근 국내 폐암 전문가들의 1여년의 논의 끝에 폐암 고위험군, 즉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운 55세 이상인 환자들에 대한 저선량흉부CT 검진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검진지침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저선량흉부CT 검진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실에 맞는 진단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대단위 검진 인구의 장기간 운영 관리 방법이 잘 보완된 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따라서 당분간 수년간의 시범 사업기간을 거쳐서 폐암저선량흉부CT검진의 사업 세부 내용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침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도 충분하기에 더욱 이러한 시범사업이 적절하겠다. 넷째,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아직도 의료는 자본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색채가 많이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의 수익구조를 보고 의료는 정말로 자본주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의료보상체계임을 단번에 파악한다. 의료 수가를 대폭 현실화해 병원이 영안실과 상점 운영으로 겨우 적자를 보전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성숙환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교수(대한폐암학회 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6.txt

제목: [암과의 동행-갑상선암] 저평가된 수술 수가 현실화 시급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8001  
본문: 갑상선암은 외부로 노출되는 목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많은 갑상선암의 특성상 수술 전부터 미용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 갑상선암에 대한 전통적인 수술법들은 대개 보험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흉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환자들을 위해 수술 흉터를 줄이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되길 바란다. 갑상선암 수술은 암이 발생한 갑상선과 암이 퍼진 림프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갑상선 주변에는 성대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시 자칫 손상될 위험도 있다. 이 같은 고난도 수술임에도 저평가돼 있어 국내 갑상선암 수술 수가는 다른 외과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외과의들이 보상 없이 어렵기만 한 갑상선 수술을 기피해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수술을 시행하다 보니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교함과 기술력을 요하는 갑상선암 수술에 대한 저평가는 갑상선외과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갑상선암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검사법이 있다. 이중 가장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는데,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혹에 세포를 뽑아 병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BRAF 유전자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BRAF 돌연변이 발생률이 전체 유두암종에서 약 2배 높다.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단일검사로 시행했을 때보다 유전자 검사를 병행했을 때 양성과 악성을 선별하는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두 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침검사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전자검사는 제외돼 있다. 많은 환자들이 세침검사와 유전자검사를 함께 하므로 동시에 인정해주는 편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후와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갑상선암의 최신 의료장비들은 수술 후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도 수술 이전의 삶과 거의 동일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의료장비의 개발 및 보급 속도에 비해 보험급여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편이라 최신 의료기법의 혜택을 받은 환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박해린 강남차병원 외과 교수(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총무이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7.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HM61713·뉴라펙·슈펙트] “항암주권 찾자”… 국내 제약사 약진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56001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癌). 글로벌제약사의 항암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암을 극복하기 위해 ‘항암주권’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제약업계가 항암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적항암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이 있다. 국내 제약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표적항암제 개발에 매진하는 대표적인 제약사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는 ‘HM61713’, ‘포지오티닙(Poziotinib)’, ‘HM95573’로 크게 3가지다.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항암신약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폐암 표적항암제인 HM61713이다. HM61713은 현재 서울대병원 등에서 1,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이 약물에 대한 임상결과를 발표한 김동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HM61713이 현재 EGFR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의 표준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1세대 EGFR 저해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였다</span>”고 평가했다. 또 다른 표적항암제 포지오티닙은 HER2, HER3, HER4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표적항암제로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국립암센터 소재)과 함께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위암, 두경부암 등에 대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흑색종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HM95573도 글로벌 신약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평가 받고 있다. 녹십자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항암제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항암제 분야 첫 품목인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의 출시를 앞두고 항암제 사업부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입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녹십자는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기관에서 진행한 뉴라펙의 임상 3상 결과, 대조약인 암젠의 뉴라스타와 맹검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양약품의 ‘슈펙트’는 국내 기술진이 자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한 슈펙트는 현재 2차 치료제로 출시돼 있으며,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다국가 다임상 3상이 올해 2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1차 치료제’로서 허가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슈펙트는 2세대 약물 중 제일 저렴한 ‘경제적 약가’로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실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JW중외제약은 ‘Wnt’라는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해 암 전이의 원인인 암줄기세포를 사멸시켜 암을 치료하는 표적항암제 CWP231A를 개발 중이다. 현재 임상1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바이오기업 프리즘파마와 표적항암제 개발 기술을 수출하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8.txt

제목: [암과의 동행-대장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 아쉬워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4001  
본문: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대장내시경을 많이 시행하게 되면서 대장암의 초기 발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대장암 진단 시 진행성 대장암(3기 및 4기)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 종양 및 주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근치적 수술 후 추가적인 항암치료(보조적 항암치료)가 필요하다. 보조적 항암치료는 암이 남아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성 대장암의 재발확률이 3기는 약 35%, 4기는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항암치료가 필요하다. 항암치료는 대개 여러 연구들을 기반으로 약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시행하는 항암치료는 이 연구들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좋은 약제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이 있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지침이 이용되며 흔히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인용한다. 하지만, 외국의 치료 지침을 국내에 적용하기에 제약이 있다. 이는 바로 건강보험이다. 상당수의 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 하에 있어 환자가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암의 항암치료이다. 대장암은 크게 결장암과 항문과 가까운 직장암으로 나누어 이야기 하는데, 3기 이상의 대장암에서 수술 후 항암요법에 엘록사틴(Eloxatin)이라는 항암제를 흔히 사용하며, 그 효과는 이미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장암 3기는 이 약제를 사용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암 3기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 이미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인 치료방법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 좀 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씩 정책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정은주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69.txt

제목: [암과의 동행] 휴대전화 10년사용 뇌종양 발병 40% 증가…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전자파 위협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17001  
본문: 35살 이정재(가명)씨는 전자기기가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는 출근 길 2시간동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뉴스, 그날의 이슈 등을 검색한다.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7∼8시간은 컴퓨터로 업무를 본다. 집에 와서는 TV를 켜고 즐겨 보는 스포츠 및 예능 프로그램을 2시간 시청한다. 취침시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침대 위 전기장판을 약 6∼7시간 켜 두고 잔다. 요즘 직장인, 학생 등 너나 할 것 없이 갖고 다니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다. 전자기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설령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자파는 우리 몸에 얼마나 유해한 것일까. ◇휴대전화 10년 이상 사용하면 뇌종양 위험 높아=전자파의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전자기기가 ‘휴대전화’다. 특히 어린이나 10대 청소년들은 체내 수분 함량이 성인보다 높아 전자파 흡수율이 높다. 인체에 침투한 전자파를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성인보다 전자파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1년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유발물질로 분류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매일 30분 이상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종양 발병률이 40%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됐다. 실제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된 3만7916명을 대상으로 한 23건의 종양 관련연구들 중 13개의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군에서 암 발생도가 높아졌다. 명준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는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뇌종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span>”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강한 전자파, 호르몬 분비·면역계 교란 위험=강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 내에 유도전류가 형성돼 호르몬 분비 체계나 면역세포 등에 교란을 줄 위험이 있다. 그 결과 두통이나 수면 장애, 기억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압선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소아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비염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에게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남성의 경우 정자의 활동이 줄고 불임 위험성이 커진다. 실제 아르헨티나의 생식연구기관은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정자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DNA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전자파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멀리 떨어져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므로 거리를 둬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TV는 1.5m, 컴퓨터 모니터는 20∼30cm이상, 휴대전화는 이어폰 등을 사용해 거리를 두면 어느 정도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위험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휴대전화 전자파 표기를 의무화했으나,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파 노출에 따르는 건강 위해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치를 제시해야 한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0.txt

제목: [건강 나침반] 유방암은 젊을수록 전이·재발률 높아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46001  
본문: 국내 유방암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1996년 3801명이던 유방암 환자가 2011년 1만6967명으로 15년 사이에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며 한 해 발생 환자 수 1만5000명을 넘어섰다.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을 84세로 가정했을 때, 25명 중 1명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 유방암 발병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양과 달리 유방암 환자 2명 중 1명은 30∼40대 젊은 사람으로 폐경 전의 유방암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유방암은 진단 당시 나이가 적을수록, 특히 35세 이전의 여성의 경우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어 전이나 재발의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 전이 및 재발에 의한 증상뿐만 아니라 길어진 치료 기간으로 인해 삶의 질도 상당히 저하된다. 유방암의 생물학적 특징이나 진단 시 병기에 따라 전이 및 재발률도 다르지만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0∼30%에서 전이나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 재발 유방암이란 유방암의 근치적 치료 후 암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국소구역 재발이나 전신 재발을 포함하는데 진단될 때부터 전이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발 및 전이 유방암은 원발 병소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전이 병소에 대한 국소치료와 전신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조기 유방암이나 국소진행 유방암과 달리 재발 및 전이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자의 삶의 질이다. 최근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처럼 암을 관리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이 유방암 환자의 치료 성적도 점차 향상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이 유방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약 30%로, 이는 10명의 전이 유방암 환자 중 약 3명은 장기 생존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이 유방암 환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항암치료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의료진은 전신항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환자의 장기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전이 유방암 환자는 우선적으로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게 되는데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항암요법을 받게 된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환자의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여 환자의 치료 의지가 점점 저하될 수 있다. 이에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면서도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를 되도록이면 빠른 단계에서부터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최근 전이 유방암 치료에도 약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표적치료제가 표준 치료법에 포함된 지 오래되었고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이전에 다양한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전이 유방암 환자에서도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는 단일요법 항암제가 출시되었다. 전이 유방암 환자가 생존 기간 연장을 입증한 치료제를 투여받는 것은, 그 기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예비 투약 및 배합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작용이 적은 단일요법을 시행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흔히 사용되고 있는 복합 항암화학요법은 단일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개선된 단일요법의 항암제 개발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진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마지막으로 전이 유방암 환자들은 이미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의 연장과 함께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어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곽금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유방암센터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1.txt

제목: [암과의 동행-백혈병] 보험심사 애매한 규정부터 손질을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101001  
본문: 지난 2012년 9월 필자는 국내 10개 대학병원의 교수, 500명 이상의 백혈병 환우들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백혈병에 대한 애매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때문에 중요한 표적항암제 처방에 제한이 많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몇 차례의 시정 요구 글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일부 항목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는 애매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왜 심평원은 보험 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소극적일까. 그리고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왜 자주 ‘사전심의를 통해’라는 부가 조건을 추가로 달아 규제를 지속해야만 할까. 최근 백혈병의 의료보험 적용분야가 일부 확대됐지만 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많은 교수들은 심평원의 보험적용기준 중 일부는 여전히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심사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보험적용기준 제시가 이뤄지지 않는 걸까. 이에 대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해이든 진실이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다. 첫째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 심평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지 모른다는 것, 둘째로 심사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로 오늘날 세분화돼 발전하고 있는 전문의료분야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떨어진다는 자질론과 함께 평가원에 유리한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을 선호한다는 광범위한 불신이 존재한다. 심평원의 심사의 질 향상과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새해부터는 애매모호한 규정의 유권 해석에 의한 심사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험적용기준의 제시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사전심사 항목의 합리적인 축소가 필요할 것 같다. 김동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2.txt

제목: 실손보험, 두 곳 들어도 두 배 안나온다… 이런건 꼭 알아두세요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9163045001  
본문: 가입자가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때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약 2700만명에 이른다.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표준약관 내용이 복잡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과 양 협회가 제시한 가입자 유의사항 중 하나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사별로 나눠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보험(암보험 등)을 동시 가입하면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만으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반면 보상을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국내로 들어와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파스나 무좀약 등의 일반의약품은 보상이 가능하다. 동네 병원에서 녹내장 의심소견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치료목적상 의사의 임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최대 연령이 65∼70세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가입연령을 75∼80세로 늘린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노인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무사고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회사별로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갱신보험료의 1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3만∼10만원) 청구 서류도 줄어든다. 청구 시 진단서 없이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은 같지만 회사별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보험료 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 인상률과 손해율을 비교할 수 있다. 매년 보험료 등이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은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재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재가입 때는 계약의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장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3.txt

제목: [삶의 향기-이지현] 분노의 갑옷을 벗어라  
날짜: 2015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7162928001  
본문: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상처를 받는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경쟁자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릴 수도 있으며,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재해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도 있다.수시로 마음 돌봐주어야 일반적으로 상담학에서는 고의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상처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은 분노라고 말한다. 이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정신건강뿐 아니라 육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듀크대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분노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돼 심장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반면 만성적으로 화를 참아도 암세포를 죽이는 NH 세포 활동이 억제되어 심하게 화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상처는 돌이켜볼 때마다 점점 커진다. 그러나 분노한다고 지나간 시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감정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하루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 분노가 치밀면 일단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90초간 심호흡을 한 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하고 잠깐 생각해본다. 먼저 분노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는 게 중요하다. “<span class='quot0'>그를 보기만 해도 울화가 치밀어</span>”라고 말하는 순간 분노의 대상이 감정을 조정한다. 따라서 분노에 저항하지 말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분노를 분석한 후 상대에게 적절하게 얘기한다. 단 주어는 ‘너’가 아니라 ‘나’여야 한다. “<span class='quot0'>너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어</span>”가 아니라 “<span class='quot0'>나는 너의 그런 행동에 화가 난다</span>”고 말하는 편이 좋다.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 즐거웠던 일,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면 효과적이다.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또 글쓰기는 감정을 쏟아내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일기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나만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경험을 떠올리면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보자. 어느 정도 분노 상황이 정리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그동안 우리는 외모엔 신경을 써왔지만 마음은 소홀히 해왔다.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보지만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꾸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다. 마음을 수시로 돌봐주어야 한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마음에 덕지덕지 입혀졌던 분노의 갑옷을 벗어 버리고 어두운 감정의 터널을 걸어나오면 우린 어제보다 더 건강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span class='quot0'>상처를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강해진 채/ 고통에서 걸어나온다….</span>”(초대 교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시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중에서).이지현 종교기획부장 jeeh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4.txt

제목: [한국의 성읍교회-고흥읍교회] “소아 박만돌군이 열심히 단이다”… 절의로 세운 예배당  
날짜: 2015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7162903001  
본문: ‘1929년 6월. 김정복 목사가 제5대 교역자로 부임, 제3대 담임목사로 시무하시다. 일제의 잔인스러운 학정과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직히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시며 지나시다가 1942년부터 투옥되니 교회는 문을 닺게 되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과 함께 굳게 다첫든 교회문은 활짝 열리고 투옥되엇든 목사님은 풀여나오시고 흐터젓든 성도들을 다시 모와 광복의 예배를 들이니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감격에 남치다. 시온에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엿든 종들이 돌아오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에 돌리세. 다시는 이 땅에 민족적 수치와 국가적인 슬픔이 있을손가? 주여! 이 겨레를 직혀 보호하시옵소서.’ ‘1946년 6월. 파란 많은 목회생활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핍박을 격으신 김정복 목사님께서 군내 소록도 국립나환자교회로 떠나시니 사랑과 덕망과 관후하신 성품에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다. 17년간의 목장을 떠나심은 너무도 아쉬웠으나 불쌍한 나환자의 영혼을 위하여 가시니 말리지 못하였다.’ 일경에 구속된 목사, 광복 후 소록도 목회 빛바랜 교회 당회록이다. 한국 교회가 애국심과 신앙심이 결합된 민족교회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교회는 한말의 국권위기 때 민족교회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그 무렵 크리스천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으며, 예수가 그랬듯 불의에 저항했다. 위 기록은 ‘소록도’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소록도가 속한 전남 고흥군 고흥읍교회 당회록 연혁 부분이다. 연혁은 이 교회 제9대 김선영(1967∼1973년 재임) 목사가 1969년 1월 1일 정리했다. 지난 12일 고흥읍교회(최동식 목사) 당회장실에서 수십년 된 당회록을 최동식(60) 목사, 조재열(77) 원로장로, 정종철(66) 장로, 송시종(67·고흥문화원장) 집사 등과 함께 열람했다. 그들은 연신 ‘할렐루야’ 소리를 내며 기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흥읍교회는 1905년 4월 시작됐다. 미국 의료 선교사 오원(C C Owen·1867∼1909)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목치숙, 신우구씨 등 6명이 신씨의 한약방에서 예배를 본 것이 이 지역 모교회의 시작이다. 하지만 조선은 그해 11월 이완용 등에 의해 소위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의 일본 식민지가 되고 만다. 이 패망으로 가는 조선에 예수는 백성의 희망이었다. 1907년 고흥읍교회는 ‘한약방이 좁아 서문 동정지(東町地) 뒷동산에 16평의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적었다. 그 이듬해 ‘교회는 날로 부흥 중이며 많은 소아들이 모이게 되엇으니 멀리 10리박에 호형에서 많이 아이들이 모이였는데 특히 소아 박만돌군이 열심히 단이다’라고 기술했다. 그 한약방은 지금의 옥하리 홍교 근처다. 고흥읍교회는 교인이 늘자 1907년과 1919년 서문과 옥하리 쪽에 헌당을 거듭하다 1954년 옥하리 145-7번지에 지금의 석조예배당 건축을 시작한다. 송시종 원장은 “<span class='quot0'>고흥읍교회는 옛 흥양읍성 안에 터전을 두고 멸망한 조국의 현실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했다</span>”고 말했다. 흥양은 현 고흥군 일원을 지칭하는 옛 지명이다. 마을 유지들 기독교 배척 고흥은 요즘으로 치자면 해군 군사도시였다. 조선은 왜구의 출몰이 잦자 남양산성, 율치산성 등 많은 성을 쌓았고 사도진, 녹도진, 발포영, 여도영 등 수군 병영을 두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가 되기 전 발포영만호를 지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고흥) 절이도 전투에서 적의 머리 71군을 베었다’는 기록이 있다. 흥양현감 배흥립, 녹도만호 정운 등 이순신 휘하 장수들이 호남과 남해바다를 지킨 것이다. 송 원장은 “<span class='quot1'>그러나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업신여기던 조선은 무장이 많았던 우리 고장 인물을 발탁하지 않음으로써 이곳이 다른 성읍에 비해 서원과 사우 건립이 적었다</span>”고 설명했다. 박치기왕 김일, 세계권투챔피언 유제두 등이 이 고장 출신이란 점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현 고흥군청 안에는 동헌 ‘존심당(存心堂)’이 건재하다. 동헌은 일제 강점기 군청사로 사용됐다. 존심은 사람의 욕망 따위에 의해 본심을 해치는 일 없이 항상 그 본연의 상태를 지킨다는 뜻이다. 고흥사람들의 기개와 절의를 보여주는 듯하다. 순교자 이기풍(1865∼1942). 고흥읍교회 당회록은 그가 1925년 6월 부임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고흥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워 활동하시다 5년10개월 만에 총회 전도부 파송에 따라 제주도 선교사로 가시다’라고 했다. 이기풍은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됐고 이때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별세했다. 이기풍의 절개와 양심을 김정복 목사가 이어받은 셈이다. 그리고 고흥읍교회엔 또 한 명의 걸출한 목회자가 부임한다. 한국보수신앙운동을 주도한 정규오(1914∼2006) 목사다. 1953년 부임한 정 목사는 ‘전란 중 많은 계몽운동(공산주의와 기독교)을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라고 서술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보수적 기독교운동을 했다는 뜻이다. 그 재임 시인 1954년 지금의 석조 예배당 기공식이 이뤄졌다. 한데 그 성전 터는 일제 강점기 신사 터였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교회가 신사 터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자 핍박했다. 읍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좋은 위치인 것과 기독교 배척 정서 때문이었다. 우상의 전당인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대지와 성전을 건축케 되니 군민과 유지들이 결사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치안을 맡아 수고하시던 이제국 경찰서장의 노고와 협조가 큰 공이 되어 1957년 완공을 보게 된다. 현재 교회 뒤쪽으로 흥양읍성 잔존 성벽이 남아 이 일대가 어린이공원이 됐다. 당시 일제는 읍성을 허물고 동헌을 접수해 군청을 만들면서 옛 성읍 가장 좋은 위치에 신사를 지었다. 따라서 고흥읍교회는 앞으로 군청, 뒤로 잔존 성벽 사이에 있다. 성돌을 가져다 석조 건축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 한편 정 목사는 1956년 광주중앙교회로 부임했고 1959년 에큐메니컬운동(WCC)에 반대, 장로교 합동교단 설립을 주도했다. 또 1979년엔 합동 교단 개혁을 부르짖으며 개혁 교단 출범의 중심의 된다. 교회 성장과 분열을 보여주는 ‘한국교회사’ 이러한 영향으로 고흥읍교회 역시 몸살을 겪는다. ‘60년 2월. 국제적 변동과 신앙사조(WCC)에 의하여 교단이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됨으로 본교회는 보수주의인 합동 측에 머물러 진리와 복음 전파의 기치를 들다’ ‘일부 교인이 좌경적인 통합 측과 내통하다가 50여 교우가 분열 이탈하여 중앙교회를 세우니’ 등 한국교회 분열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64년 4월 사이비 종파 이단에 현혹되어 용문산 집단에 가는 교인을 책벌키로’ 등의 문구에서 엿볼 수 있듯 이단의 획책에 대응하는 모습도 읽을 수 있다. 고흥읍교회 최대 성장기는 1978∼88년이다. 장년 450여명이 출석, 총 700여명의 교인으로 북적였다. 한때 24만명에 달하던 군 인구 영향도 있었다. 그러던 교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6만여명)로 교회 부속 유치원 원아모집이 쉽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랜드마크였던 석조예배당은 고령 교인을 위한 접근성 확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단 고흥읍교회 고민이 아닌 한국의 농촌교회가 안고 있는 절박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주 1∼2명씩 새 교인이 등록하는 것은 기도가 주는 힘이다. 이처럼 고흥읍교회 110년 연혁은 한국교회사나 다름없다. 시대상에 따라 교회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새벽기도는 끊이지 않았다. 신사라는 우상을 딛고 예배당을 세운 선대의 신앙이 계속되기 때문이다.교회 직분자들의 2015 비전“교회와 지역사회 위해 노인복지 계속 펼칠 것”최동식 목사 “노인 인구가 64%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다. 교인 70%도 그렇다. 이들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섬기는 게 내 사명이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인복지를 계속 펼쳐 나가겠다.” 조재열 원로장로 “사업 한답시고 40대 초반까지 교회에 덕 안 되는 일 많이 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제대로 회개하니 섬길 일이 아주 많았다. 교회가 보금자리처럼 따뜻하다.” 정종철 장로 “개인사업을 하다 암 발병으로 힘들었다.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 보리가 웃자란 듯한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흥=글·사진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5.txt

제목: [겨자씨] 행동이 말하게 하라  
날짜: 2015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4162429001  
본문: 캐나다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적 영웅을 꼽으라면 단연 ‘테리 팍스(Terry Fox)’일 것입니다. 테리는 22세 때 골육종이란 암을 앓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연구소를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의족을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끼운 채 달리는 ‘캐나다 전국횡단 마라톤’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국민 2500만명이 1달러씩 모금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의족을 한 채 143일간 매일 달려 총 5373㎞를 뛰었습니다. 이 소식이 캐나다 전역에 알려지자 모금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리는 그러나 다리의 종양이 폐까지 전이돼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9개월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테리는 세상에 없지만 사람들은 그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모금 액수는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모든 캐나다인들의 가슴에는 암 환자를 향한 그의 사랑과 도전정신이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말하게 하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신민규 나사렛대 총장(상암동교회 목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6.txt

제목: 윈도 페인터 나난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 분단 울타리 걷어야죠”  
날짜: 2015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10161942001  
본문: “<span class='quot0'>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염없어요.</span>” 형용사 ‘하염없다’. ‘시름에 싸여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윈도 페인터 나난(36·서울 이태원동 대성교회)에게 DMZ 생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그린 이유를 묻자 이런 대답이 나왔다. 나난은 지난해 관계 당국의 협조를 받아 파주, 철원 등서 동식물을 관찰해 왔다. 사향노루, 산양, 삵, 붉은머리오목눈이, 콩새, 쑥새, 저어새 등은 관찰하고 공부할수록 우리 땅에서 서식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통일부 등은 그녀의 작업을 위해 생태자료 등을 제공했다. “<span class='quot0'>철원에선 조류 관찰이 쉬웠으나 동물 관찰은 가로막힌 철조망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아 분단이 실감났다</span>”고 밝혔다. 1979년생 나난(본명 강민정)에게도 통일은 하염없는 일일 수 있다. 나난은 자신이 ‘어떤 시름’에 싸여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분명했다고 말한다. 그가 태어난 79년은 멸공의 이데올로기가 횡행했으며 그런 가운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신년사에서 북한에 당국자 간 대화를 촉구했다. 멸공과 대화는 불립이었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상했다. 결국 유신헌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던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0·26사건으로 서거했다.그 79년. 나난은 모태신앙이었다. 서울 노량진2동 장성교회를 외할머니,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녔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주일학교와 중등부 크리스천 학생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했다.한편 그의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80년대 쟁취한 민주화 성과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아버지 세대의 가난은 그의 삶과 무관한 것이었다.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교련훈련 같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도 느슨해졌다. 반공과 멸공은 사어(死語)가 되어갔다.지난해 히트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그 내용과 비슷한 환경이 나난에게 주어졌다. 서태지와 프로야구는 문화코드였다. 반면 통일은 ‘하염없었다’.이런 90년대 풍요는 나난을 밖으로 돌게 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했다. 나난은 이태원과 홍대 클럽의 ‘빠순이’였다. “통일?… 우리 얘기였다” “10, 20대들에게 ‘통’자만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 DMZ 내의 포유류, 조류, 식물류를 그리게 됐어요. 그 일러스트 작품으로 통일문화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티셔츠 등 문화상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그 나이 때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한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에 의지해 작업하다보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신약에선 평화를 가장 많이 얘기하셨죠. 생명 치유와 나눔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깨치게 됐죠.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거라고 봐요. 평화의 예수니까요.” 나난은 지금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 6∼7일 그녀가 출석하는 대성교회에서 만났을 때도 광고 세팅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빠순이’는 바로 이 대성교회에서 엎어졌다. 10여년 전 일이다. “대학 가겠다고 건성건성 교회에 다니다가 노는 거에 빠져 클럽녀가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홍대앞 라이브 클럽 합법화를 위해 운동을 했을 정도니까요. 클럽 합법화를 쟁취한 후 당시 고건 서울시장과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대표였죠. 술과 담배를 물고 살았고요. 늘 ‘의리’를 강조하며 그 의리를 신처럼 믿었죠.” 젊음과 방황을 상징하는 거리 이태원과 홍대 앞은 더없는 놀이터였다. 서울예전 광고창작과 졸업 후에도 그 생활은 계속됐다. 그러던 무렵 아버지가 아팠다. 암이었다. 딸은 여전히 건성건성이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고 병상에서 권면했다. 친구들조차 교회 나가자고 졸랐다. 듣지 않았다.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 겉멋으로 이태원을 주 터전으로 살아가던 그는 시름시름 몸이 아팠다. 이명에 시달렸고 눈이 침침했다. 그럼에도 광고와 잡지일 한답시고 흡연과 음주를 달고 살았다. 명성은 그를 고집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손대는 잡지건 광고건 대박을 쳤다. LG텔레콤의 카이매거진 편집장을 하면서 ‘나난스 다이어리’라는 젊은 감각의 일러스트 그림을 연재했는데 그것이 명성을 가져다주는 계기였다. 나난을 비롯한 클럽녀들은 그렇게 “나는 나다”를 외쳤다. 그녀는 친구들과 달리 강하지 않고 무난해 ‘무난한 나난’이 됐다. 그 ‘무’를 뺀 ‘나는 나’가 작가명 ‘나난’이 된 이유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평소대로 신나게 하루를 논 나난은 홍대 앞 친구 집에서 잠을 청했다. 한데 잠이 잘 안 와 친구 집 창문에 윈도우 페인팅을 했다. 지금이야 흔한 게 윈도우 페인팅이지만 말이다. 나난은 그 일로 한국 윈도우 페인팅의 효시가 됐다. “친구 집 윈도우 페인팅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하루에 인터뷰가 10개 넘게 잡혔어요.” 그녀는 2000년대 새로운 한 세기를 이끄는 ‘젊은 작가’에 선정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아파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유언이 늘 일상 속에서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고요. 아플 때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나 교회에 다니면 안 아프게 해줄 거예요’ 하고요. ‘예전처럼 교회 나갈 테니 고쳐 달라’고 생떼를 부렸어요. 2006년 대성교회에 출석했어요. 아픈 거요? 1주일 만에 나았어요. 자고 일어나니 어느 순간 귀도, 눈도 통증도 싹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 인도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자 예술관도 변했다. 첫 윈도우 페인터로서 저작권 욕심이 있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윈도우 트리’ 캠페인을 벌였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위해 수많은 나무가 베어졌고 그 나무마다 화려한 전구를 달았다. 나난은 그것이 마음 아파 윈도우 트리 키트를 만들어 보급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윈도우 페인팅 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 탄생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결과였다. “윈도우 트리 키트를 보급하자 홍콩 세계무역센터에서 저를 불렀어요. 센터 안 백화점 전체를 생명 손상 없는 윈도우 트리로 꾸며 달라는 거였죠. 두 달간 머물며 작업했어요. 홍콩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을 받았어요.” 이후 나난은 서울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 런던 영국문화원 등 수많은 곳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또 기도만 하면 꿈이 이뤄졌다. 아티스트로 뉴욕 가고 싶은 열망을 늘 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마친 후 전봇대에 붙은 ‘뉴욕 31 갤러리’ 영아티스트 공모를 보고 부랴부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뽑힌 것이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았다. 선물이었다. 이후 ‘한부모 자녀를 위한 모임’ 등 각종 소외 시설에 다니면서 윈도우 트리 작업을 했다. 생명 손상 없는 크리스마스트리 키트 보급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창의성이 폭탄처럼 터졌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아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의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무한 축복을 찬양해야지요. 생명의 공간 DMZ 동식물을 그리며 미래세대에게 예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녀의 DMZ 생태 창작 작업은 2013∼2014년 집중됐다. 통일부와 통일문화운동을 이끄는 사회적기업 플랜트리(대표 심태선)의 요청으로 도라산역 등 DMZ 시설과 생태를 둘러보고 관련 문화상품을 살피면서 ‘하염없는 광복 70년, 분단 68년 이후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했다. “성경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분열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충고를 거스른 데서 비롯됐잖아요. 르호보암과 같은 위정자가 백성에게 분단이라는 멍에를 지웠어요. 혹여 우리가 그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됐어요. 그냥 저는 크리스천 예술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창작물이 올해부터 다양하게 쓰여 분단의 울타리를 걷는 자그마한 힘이 됐으면 합니다.” 나난은 앞서 5일 신년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서로 사랑하자’였다. 예수는 생명이므로 사랑하면 생명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제 ‘무난한 나난’이 아니라 통일을 외치는 ‘용기 있는 나난’이 시작됐다.나난“학력에 대한 뇌구조가 없다”고 말하는 나난은 잡지사 객원기자로 일했다. 우연히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유목민 아티스트. 창문에 그림을 그리는 윈도 페인터로 뉴욕 31 갤러리 영아티스트에 선정됐고 런던 영국문화원, 홍콩세계무역센터, N서울타워, 신세계백화점 등과 페인팅 작업을 했다. 서울역 공항철도 에스컬레이터 작업으로 2013년 ‘소비자가 뽑은 광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로 활동 중. 지난해 그의 작업 DMZ 안 동식물 세밀화 작업이 올해 통일문화운동으로 활용되며 관련 상품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이태원동 대성교회 출석.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7.txt

제목: 암 사망 10명중 7명 생명보험 가입 안해  
날짜: 2015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7111118001  
본문: 우리나라 암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사망자가 고령층일수록 보험금 수령액이 적었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암 사망자는 2만3000여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7만3000여명)의 31.5%였다. 60세 이상 암 사망자가 지급받은 암 관련 보험금(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보험금 등)은 1인 평균 2800만원으로, 60세 미만(8900만원)의 31.4% 수준이었다. 20∼40대 암 사망자는 1인 평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으나 50대는 평균 7500만원을 받았고 60대부터 수령액이 급감했다. 60대 이상 암 사망자가 4개 담보(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 가운데 받은 담보는 1인 평균 2.2개로, 60세 미만(3.2개)보다 1개가 적었다. 천지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8.txt

제목: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정실 “희망의 소리로 행복을 선사 합니다”  
날짜: 2015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7161504001  
본문: 전자음악이 가미된 대중음악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은 클래식 음악을 듣기 꺼린다. 이른바 음악 편식 중이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정실(46·서울 봉원교회)씨는 청소년의 ‘클래식 음악 보급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찾아가는 희망의 소리 해설 있는 음악회’를 통해 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떠먹여준다. 그것도 클래식 기타로 말이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묶은 서씨가 클래식 기타를 은은하게 연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본다. 송년콘서트 준비에 한창인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에서 만났다. “음악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란 재능으로 기독교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에게 음악은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음악이란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다. 현재 ㈔희망의 소리의 음악 감독인 그는 음악과 문화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희망의 소리 해설 있는 음악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7년 동안 90여개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연했다. 학교 뿐 아니라 회사, 병원, 군부대, 해외 오지까지도 찾아간다. 특히 음악을 접하지 못한 네팔, 방글라데시, 알제리, 모로코, 미얀마 등에서 자선연주를 통해 세계 곳곳의 청중들과 만나고 있다. 문화가 소외된 지역일수록 이 음악회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네팔의 한 학교에서 연주했는데 학생의 60%가 고아였죠. 외양간을 개조한 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평생 음악회라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친구들이 연주를 들으며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또한 그는 자선음악단체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의 연주자로서 장애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한편, 장애 학생들의 음악지도를 맡고 있다. 음악치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전문 연주자로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이 교육은 사랑반(시각장애인) 행복반(발달장애, 복합장애) 희망반(저소득계층)으로 나눠지며 교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무료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사들의 눈물어린 헌신으로 올해 시각장애인 학생이 서울예고에 합격했고, 몇 년 전에도 장애학생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 ‘클래식 기타’. 그는 어떻게 음악을 접하게 됐을까. 클래식 기타는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공대 공부보다 음악공부가 더 좋았다. 1학년 때 클래식 기타 ‘오르페우스’ 동아리에 들어가 처음 이 악기를 배웠다. “클래식 기타를 배우면서 잘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기타는 저에게 끝까지 풀고 싶은 퍼즐이었어요.” 공과대학 2학년을 마친 1991년, 클래식 기타에 확신을 가진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다. 미국 맨해튼 음악학교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의 부모는 “좋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굶더라도 기타 연주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다. 유학생활은 즐거웠다. 유학생활 석사과정을 포함한 6년 동안 신나게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다. 그가 확신했던 것이 옳았다. 할머니의 믿음을 시작으로 3대째 신앙을 물려받은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2005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암 전이로 인해 한 달에 무려 3번의 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련은 오히려 음악활동의 지경을 넓혀준 계기가 됐다. “아내와 저는 이때 하나님과 담판 짓는 기도를 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기도했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서광선 이화여대 명예교수) 그리고 아내와 함께 희망의소리 사역을 시작했어요. 신기한 것은 아내도 저도 힘들었지만 배짱이 있었어요. ‘이러하다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지만 ‘적당히 힘들다가 고난이 지나 갈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거야’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고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신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음악가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나이 들어서도 감동을 주는 연주가가 되고 싶어요. 최종 목표로 음악공부 하기 힘든 여건의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음악학교를 꼭 짓고 싶습니다.” 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79.txt

제목: 신선한 채소 ‘항암효과’ 더할 나위 없네∼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342001  
본문: 위암, 대장암, 폐암은 대한암협회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된 세 가지 암으로 꼽은 암들이다. 40대 초반의 가수 출신 방송인 고(故) 유채영씨가 지난해 7월, 가수 고 임윤택씨와 배우 고 장진영씨가 각각 2013년과 2009년에 같은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장암과 폐암은 지난해 11월 배우 김자옥씨를 쓰러뜨렸다. 2008년과 2012년 각각 대장암과 폐암 진단을 받은 김씨가 말기 암과 싸우다 숨지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과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생긴다. 폐암은 간암 및 췌장암과 더불어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가장 낮다. 대한암협회 구범환 회장은 5일 “<span class='quot0'>2015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면 가능한 한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평소 동물성 고지방 음식보다는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천연 채소류, 생선,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최근 일본 교토의대 생화학교실 니시노 호요쿠 교수가 새로 펴낸 ‘암 억제 식품사전’(전나무숲)에서 국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대장암과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암식품을 발췌, 소개한다(별표 참조). ◇호박·당근=호박만큼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채소도 드물다. 호박죽 호박엿 호박고지떡 호박나물 호박전 호박찌개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항암 효과로는 호박 중에서 겨울철 별미로도 으뜸인 단호박찜이 제일이다. 당근과 마찬가지로 배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등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암 억제 작용을 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은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해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고, 세포돌연변이에 관여하는 인지질 대사를 억제하는 항산화물질로 유명하다. 단호박에는 알파카로틴도 많이 함유돼 있다. 니시노 교수팀의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은 폐암, 간암, 피부암에 대항하는 저항력이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 높다. 알파카로틴은 당근에도 단호박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다. 니시노 교수는 “<span class='quot1'>단호박, 당근, 파슬리, 샐러리 등을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수시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폐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시금치=디즈니 만화영화 ‘뽀빠이’ 때문에 힘이 솟는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는 오랫동안 암을 막는 녹황색 채소의 대표주자이자 영양의 보고로 자리매김했다. 시금치에는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A 공급원인 카로티노이드(베타카로틴) 성분이 100g당 4200㎍이나 들어있다. 시금치는 최근 풍부한 루테인 성분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루테인 역시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작용으로 피부암과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항산화물질이다. 니시노 교수팀은 책에서 실험용 쥐 30마리에 인위적으로 피부암을 유발한 뒤 시금치에서 추출한 루테인 성분을 지속적으로 주입한 결과 65%에서 암 세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다. 특히 겨울 시금치는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60㎎에 이른다. 여름 시금치의 3배다.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단시간 빨리’가 기본이다.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 물에 빨리 녹는데다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이다. 유효성분 루테인 역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된다. ◇신선초=한방에서 생약 재료로 애용하는 미나리과 채소다. 향이 산뜻하고 생명력이 왕성하며 건강에 좋은 성분도 많아 주목을 받는 암 억제 식품이다. 신선초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노란색 액체(황즙)가 폐암 억제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연구결과 신선초의 황즙 속에는 ‘칼콘’과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피부암, 폐암,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메이지약대 오쿠야마 교수팀은 미나리과 식물 14종에서 각각 추출한 즙을 피부암에 걸린 쥐한테 투여하고 20주 동안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신선초의 황즙이 가장 뚜렷한 피부암 억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신선초의 약효를 과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오쿠야마 교수는 “<span class='quot2'>실험결과 신선초의 항암 효과는 예방에만 도움이 될 뿐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2'>치료 식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암억제 식품 또는 쌈 채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span>”는 의견을 내놨다. 쑥갓이나 고들빼기와 같이 쓴 맛이 나는 채소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고구마=변비 해소 및 겨울철 다이어트 식품으로 애용되는 고구마가 어떤 버섯류나 약차보다 훌륭한 항암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일본 유리노키클리닉 사마루 요시오 박사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모두 82종류의 채소를 대상으로 항암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익힌 고구마의 암세포 분열 및 증식 억제율은 98.7%, 안 익힌 날 고구마는 94.4%로 각각 1, 2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암세포 분열 및 증식 억제율이 높은 식품은 아스파라거스(93.7%), 파슬리(83.7%), 가지(74,8%), 셀러리(73.7%) 등이었다. 고구마의 강력한 항암 효과는 ‘강글리오시드’란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석대전주한방병원 송호철 원장은 “<span class='quot3'>고구마, 신선초, 단호박 등 자연식품이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과 이미 생긴 암의 증식을 억제 또는 소멸시키는 작용을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녹황색 채소류와 일부 뿌리 식품 및 푸른 생선 등을 자주 섭취하면 암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0.txt

제목: 김치와 홍삼이 만나면? 위장병 예방 OK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338001  
본문: 김치에 홍삼을 더하면 위가 튼튼해지는 건위제(健胃劑)로 변신한다? 김치를 만들 때 홍삼을 첨가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균에 의한 위장병을 예방, 튼튼한 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차병원은 소화기내과 함기백(사진) 교수팀이 최근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팀과 함께 홍삼을 첨가한 김치를 만들어 HP균 감염으로 위염과 위선종(胃腺腫)이 생긴 생쥐들에게 먹이고 10주 이상 관찰한 결과 위염과 위선종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5일 밝혔다. 홍삼이 김치와 만나 HP균 억제 작용을 하고, 나아가 HP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위염 등 위장병 증상까지 개선한 셈이다. HP균은 사람의 위(胃) 속에서 기생하며 위염과 위·십이지장 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일으키는 병원체다. 1983년 호주 의사 베리 마샬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균은 나이가 들수록 감염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60%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함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부에선 맵고 짠 음식인 김치가 위장 건강에 해가 될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음식이자 항산화(抗酸化) 음식인 김치에 홍삼을 더하면 오히려 HP균 감염에 의한 위장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함 교수팀은 홍삼의 이 같은 HP균 제균 효과가 사람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그 결과 항균제와 홍삼을 병용한 사람은 HP균 제균율(除菌率)이 85%에 이른 반면 항균제만 단독 투여한 사람의 제균율은 약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 최신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음식을 통한 연관 질환의 완화 및 암 예방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실렸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1.txt

제목: [헬스 파일] 하지정맥류와 림프부종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335001  
본문: 새해는 내가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된 지 만 36년이 되는 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동안 나도 세 번 이상 변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에서 하지정맥류 전문의로 20년, 그리고 지금은 10년째 림프부종 전문의로 행세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1995년 어느 날 쌍꺼풀 수술을 목적으로 필자의 진료실을 방문했던 한 중년부인이 상담 중 “이참에 보기 흉하게 튀어나온 내 종아리 핏줄도 감춰 달라”고 주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 하지정맥류란 정맥혈관의 판막이 망가져 피가 거꾸로 흐르는 질환이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다리 혈관이 힘줄처럼 불거져 겉보기에 흉해 짧은 치마를 입기가 어려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 증상이 생긴다. 따라서 보기 싫은 혈관을 없애면 미용 효과뿐만 아니라 이상이 생긴 혈관을 치료하는 효과도 얻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방면으로 전문가를 수소문한 결과 독일에 연구를 많이 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곧바로 독일로 건너가 ‘정맥류 치료법’을 전수받고 돌아왔다. 이어 국내 최초로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열어 치료를 시작했고 2000년에 중국 다롄에, 2006년에는 베이징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오픈했다. 대한정맥학회도 만들어 동료의사들과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더욱 갈고 다듬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계속했다. 그간 내가 치료한 국내외 하지정맥류 환자는 무려 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또한 나를 하지정맥류완 전혀 다른 질환인 림프부종에 대해 새로 공부하도록 이끌었다. 림프액 순환장애로 다리가 부은 환자들이 림프부종을 하지정맥류와 유사한 다리 혈관질환으로 오인해 찾아왔기 때문이다.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및 피하지방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이면서 팔다리가 크게 붓는 병이다. 림프부종은 두 종류가 있다. 1차성 림프부종은 림프선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림프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다. 2차성 림프부종은 유방암, 자궁암 등 암수술 시 암세포 전이를 막기 위해 주위 림프절을 제거한 뒤 팔다리가 붓거나 방사선치료, 외상, 감염 등으로 림프액 순환계가 막혔을 때 발생한다. 나는 다시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림프부종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세림프절 이식술 등 나만의 치료법을 개발해 진료에 할용 중이다. 물론 아직 100% 완치를 장담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오갈 데 없던 림프부종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을미년 새해는 보다 나은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임상연구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심영기 연세에스병원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2.txt

제목: [기획] ‘비합리’에 저항 ‘화풀이’로 변질… 한국사회 ‘집단분노’ 두 얼굴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433001  
본문: 재벌 3세의 운명을 가른 건 ‘집단분노’였다. 특정된 주도세력 없이 형성된 이 분노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됐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여론을 주도한 것도, 사법처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도 집단분노였다. 사정 당국과 사법부 관계자들도 이를 거역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정의 차원의 집단분노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과정에 국민적 공분(公憤), 즉 집단분노가 고려됐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span class='quot0'>처음에는 영장 발부를 이례적으로 봤지만 집단분노를 더 키울(조현민 전무의) 문자 메시지 얘기를 듣고 ‘잘 발부했다’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초기에는 조 전 부사장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지 않았다면 “비대해진 집단분노가 검찰과 법원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는 고백도 있었다. 법원도 집단분노를 무시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굳이 수치화하자면 이런 사건에선 국민 다수의 분노를 10% 정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집단분노는 이처럼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킬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울림이 크다. 정치권의 개입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분노는 갈수록 힘이 커진다. 반면 정치권이 개입하면 집단분노는 변질된다. 땅콩 회항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여론형성 수단이 마련된 데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갑을 문제와 취업난 등이 맞물리면서 그 파괴력이 커졌다. 이런 사회적 토양으로 형성된 집단분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 변혁의 힘이 됐다. 반면 자칫 마녀사냥 같은 또 다른 비합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비단 땅콩 회항 사건만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지난해만 해도 세월호 참사, 육군 가혹행위, 통합진보당 해산,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두고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분노했다. 하지만 집단분노에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본질은 외면 받고 국론만 분열된다. 사회학자들은 이 집단분노에 양면성이 있다고 말한다. 악습을 고치는 사회 전반의 문제제기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언비어를 동반하고 막무가내로 ‘희생양’을 만드는 집단광기로 흘러가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로 향할 때 많은 사람이 후련해했지만 “과연 구속까지 이를 일인가”하며 고개를 갸우뚱한 이도 적지 않았던 건 이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국민 전반의 의사인지, 특정 집단의 입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집단분노에 대한 판단은 늘 딜레마”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갈 때는 늘 명과 암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4면이경원 정부경 전수민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 ‘비합리’에 저항 ‘화풀이’로 변질… 한국사회 ‘집단분노’ 두 얼굴 ▶[한국사회 집단분노-분노의 함정] ‘희생양’ 만들 위험 ▶[한국사회 집단분노-분노의 힘] ‘정의 실현’ 에너지 ▶[한국사회 집단분노] 불신·조롱 제1 타깃은 ‘승인 받지 못한 권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3.txt

제목: [기획] ‘비합리’에 저항 ‘화풀이’로 변질… 한국사회 ‘집단분노’ 두 얼굴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454001  
본문: 재벌 3세의 운명을 가른 건 ‘집단분노’였다. 특정한 주도세력 없이 형성된 국민적 분노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됐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사법처리로 이끈 건 이 분노의 힘이었다. 사정 당국과 사법부 관계자들도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과정에 국민적 공분(公憤)이 고려됐다고 증언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초기에는 조 전 부사장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방향을 잡아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지 않았다면 비대해진 집단분노가 검찰과 법원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span class='quot1'>굳이 수치화하자면 이런 사건에선 국민 다수의 분노를 10% 정도 고려해 판단한다</span>”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span class='quot1'>처음엔 영장 발부를 이례적이라고 봤는데, 집단분노를 더 키울 (조현민 전무의 ‘반드시 복수하겠어’) 문자 메시지 얘기를 듣고 ‘잘 발부했다’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집단분노는 이처럼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관행을 바꿀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울림이 크다. 정치권의 개입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분노는 갈수록 힘이 커지는 속성을 갖는다. 정치적 목소리가 끼어들면 변질되기 쉬운 약점도 안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자연발생적 집단분노의 힘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여론형성 수단이 갖춰진 데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갑을 문제와 취업난 등이 맞물리면서 그 파괴력이 커졌다. 이런 사회적 토양에서 형성된 집단분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효과를 낳고 사회 변혁의 힘이 돼 왔다. 하지만 자칫 마녀사냥 같은 또 다른 비합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한국사회는 지난해만 해도 세월호 참사, 육군 가혹행위, 통합진보당 해산,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두고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분노했다. 그 결집된 힘에 편승하려 정치적 목소리가 끼어들 때 본질이 외면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사회학자들은 집단분노에 양면성이 있다고 말한다. 악습을 고치는 문제제기란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언비어를 동반하고 막무가내로 ‘희생양’을 만드는 집단광기로 흘러가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로 향할 때 많은 사람이 후련해했지만 “과연 구속까지 이를 일인가”하며 고개를 갸우뚱한 이도 적지 않았던 건 이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span class='quot1'>국민 전반의 의사인지, 특정 집단의 입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집단분노에 대한 판단은 늘 딜레마</span>”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span class='quot1'>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갈 때는 늘 명과 암이 있다</span>”고 덧붙였다.이경원 정부경 전수민 양민철 기자neosar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4.txt

제목: [한국사회 집단분노-분노의 힘] ‘정의 실현’ 에너지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6161403001  
본문: 잘 조직된 집단분노는 우리 사회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藥)'이 되곤 했다. 숱한 전관예우, 온정에 기댄 판결, 권력비리 등 묻힐 뻔했던 많은 부조리가 국민들이 토해내는 분노의 힘에 민낯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집단분노를 "사회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평한다.◇사회정의 실현 ‘원동력’…선진국선 이미 법제화=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나 ‘갑질’ 남양유업 불매운동, 더 거슬러 올라가 장애아동 성폭행 ‘도가니’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사고가 집단분노의 손을 빌려 세상에 실체를 보였다. 분노의 목소리는 사건 공론화뿐 아니라 법적 심판과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4일 “<span class='quot1'>(판결에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는 데는) 명과 암이 있을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중요 사건이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하면 ‘이 정도는 처벌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사회적 합의로 볼 수도 있다</span>”고 했다. 판결은 양형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내려진다. 다만 그 범위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미세하게나마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에서는 대중의 ‘분노 에너지’를 ‘건강한 논의’의 무대로 이끌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프랑스, 스위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법제화된 국민발안제나 주민발안제가 그것이다. 모두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54년 2차 개헌 당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가 채택됐다. 하지만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만일 국민발안제가 계속 유지됐다면 세월호 사건에서도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졌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500만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발안제 취지에 따르면 이는 법을 만들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으면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집단분노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게 만드는 장치다. ◇‘공론의 장’ 인터넷과 SNS=집단분노 현상은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맞물리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분노가 확산되고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2년이었다. 그해 6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주한미군 2사단의 장갑차가 여중생 미선이와 효순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잊힐 뻔했던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한 네티즌이 “촛불을 들자”고 제안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촛불시위는 집단분노의 ‘상징물’이 됐다. 이어 온라인 포털 사이트들은 앞 다퉈 일명 ‘신문고’ 게시판을 만들었다.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의 가족, 부당하게 해고당한 직원, ‘갑’에게 시달린 ‘을’의 하소연 등 수많은 사연이 게시판을 채웠다. 게시글은 네티즌들의 지지와 분노를 등에 업고 공론화됐다. 집단분노는 국민 스스로 ‘밀집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힘이 부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모두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일 공간이 생기면서 개개인이 느끼는 분노가 하나로 결집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span>”고 분석했다.정부경 전수민 양민철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5.txt

제목: 쿠키건강+ 암과의 동행, 더 풍성해집니다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10957001  
본문: 독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일보 건강섹션 ‘쿠기건강플러스’와 ‘암과의 동행’은 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생활 건강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쿠키건강플러스’와 ‘암과의 동행’은 ‘유익한 건강정보 전파’, ‘보건의료 정책 대안 제시’, ‘독자들과 함께하는 건강섹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한 건강정보 전파를 위해 매월 첫째 주 발행되는 ‘쿠키건강플러스’에서는 기자별 건강정보 고정 코너를 운영합니다. 기자별 건강정보 코너는 독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질환 치료와 예방법,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방법, 건강한 먹거리 등의 풍성한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발행되는 ‘암과의 동행’ 섹션도 기존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항암 밥상], [암정보 게시판]과 함께 [암환자 생활백서], [환경과 건강] 등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암과의 동행’ 연재는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또한 ‘쿠키건강플러스’와 ‘암과의 동행 섹션’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 서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꾸짖는 감시자가 되도록 눈과 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안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던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를 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건강플러스’와 ‘암과의 동행’ 건강섹션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독자들과 함께하는 지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며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법을 소개해 왔던 ‘닥터 토크 콘서트’와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다 더 풍성하게 기획해 상세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대국민 건강캠페인과 공동기획을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6.txt

제목: 현대重도 노조에 작업중지권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10933001  
본문: 현대중공업도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중공업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했고 회사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건(계열사 포함)의 중대재해가 일어나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곳은 현대자동차와 STX조선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단체협약 제86조(안전보관 관리자 선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법상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조항 대신 ‘노조가 시설보완 등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는 강화된 조항을 추가했다. 노사는 또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조합원이 출산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한다.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7.txt

제목: 65세 이상 일반 병의원서도 독감 무료접종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61252001  
본문: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53조472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모자보건사업과 노인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에 지원이 확대되고, 암 관련 사업에도 예산이 크게 늘었다. ◇12∼36개월 어린이, A형 간염백신 무료접종(5월 예정)=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일반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10월 예정)=만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 제공(7월 예정)=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지원을 확대, 민간의료기관(보건소는 무료)을 이용해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순차 확대)=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무탐침정위기법, 체부정위적방사선치료,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 2월부터는 비수술 중증 심장·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정특례(현재 입원해 중증수술을 받은 경우만 적용)가 적용된다. 또 항암제, 유전자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선택진료, 입원병상, 포괄간호서비스 추가 개선=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축소(8월 예정)된다. 또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9월 예정)한다. 특히 1월부터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을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70세 이상으로 확대(7월부터)=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의 보험적용이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1월 시행)=1월부터 고암모니아혈증 신약 ‘카바글루확산정’(고암모이나혈증)과 암성통증 신약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신설(3월 예정)=경제성평가가 어려워 보험등재가 지연돼 왔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약가 이하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보험등재를 보다 쉽도록 했다. 다만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가 소수인 경우 대상이 된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3월까지 계도·단속, 4월부터 과태료)=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위반 시 음식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소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오는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이 병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2월 예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지원된다. 또 미혼모, 새터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으로 예외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41억4000만원)과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20억원)가 신규로 확보돼 보장이 예상된다. 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33억원), 암환자의료비지원(30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20억원), 신생아지원(15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50억원), 노인실명예방(8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돼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8.txt

제목: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⑦ ‘십자가 화가’ 최영이 권사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61229002  
본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4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부산국제아트페어’를 찾은 건 행사 개막일인 지난달 18일이었다. 행사장엔 국내외 작가 200여명이 출품한 작품 2000여점이 전시돼 있었다. 저마다 화풍이 인상적인 그림들이어서 관객들 눈을 사로잡기엔 충분했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 한 부스에는 여타 그림과는 소재부터 판이하게 다른 그림 10여점이 걸려 있었다. 화폭에 십자가의 형상을 담은 성화(聖畵)들이었다. 작품을 그린 사람은 부산 수영로교회 권사인 화가 최영이(66·여)씨. 최씨는 20년간 십자가 그림에만 매진한 ‘십자가 화가’였다. “그동안 그룹전이나 아트페어에 많이 참가했는데 기독교 작품을 내놓는 화가는 전시회 때마다 제가 유일하더군요. 십자가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십자가 화가로 외길 20년 최씨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꿈이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미술에 관심이 많아도 화가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던 시절이었지만 최씨의 경우는 달랐다. 그의 아버지는 경남 사천에서 건어물 ‘화어(花魚)’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천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최씨는 영남대 미대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엔 화가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다. 사천에 내려와 회사 일을 도우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씨는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건 스물여덟 살이던 1977년 3월부터다. 당시 최씨는 부산에 살던 언니 집에 놀러갔다가 기도집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았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반기를 든 기독교인들의 집회였다. “교회에 몇 번 나가긴 했지만 신앙도 없었고, 주한미군 문제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회엔 꼭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혼자서 집회가 열린 구덕체육관 앞 광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최씨는 성령을 체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 섞여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영이야, 너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느냐. 그림으로 나를 증거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최씨는 통곡하고 말았다. 사천으로 돌아온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종으로 거듭난 것이다. 새벽기도회를 포함해 교회 행사엔 무조건 참가했다. 하지만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작품 활동은 할 수 없었다. 일에만 전념한 탓에 결혼할 시기도 놓쳤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뜬 85년엔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미술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작품 활동은 하지 않았다. 최씨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건 94년부터다. “수영로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의 환상이 보이더군요. 백합 위에 십자가가 포개진 이미지였습니다. 환상을 보니 그림으로 나를 증거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그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십자가 작품이 100점이 넘을 겁니다. 십자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한 것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하게 되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최씨가 지금까지 개최한 개인전은 25회에 달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개인전을 열었다. 동료 작가들과 함께 한 그룹전 등을 합하면 200회가 넘는 전시회를 가졌다. 특이한 건 십자가 작품을 전시만 할 뿐 어느 누구에도 팔지 않는다는 점이다. “십자가 그림을 팔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기분이 들 것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도 십자가 그림을 돈 받고 팔아선 안 된다고 하고요(웃음). 다행히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그림을 팔지 않아도 생계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십자가 그림을 모은 갤러리를 여는 게 꿈입니다.”최씨의 십자가 사랑은 작품 활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금까지 십자가 그림을 넣은 명함 크기의 전도지를 25만장 넘게 제작·배포했다. 전시회를 할 때면 자신의 프로필과 십자가 사진이 담긴 엽서를 1000∼2000장 만들어 관객들에게 나눠준다. 그는 "다른 화가들은 그림을 팔기 위해 전시회를 열지만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시회를 갖는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십자가는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며 "20대 때부터 십자가 그림을 그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십자가 그림을 통한 미술선교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세계 열방에 나가 십자가 그림 전시회를 열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부산=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89.txt

제목: 건국대병원 거의 만점 획득…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61312001  
본문: 건국대학교병원이 만점에 가까운 종합평가점수로 상급종합병원에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0개 권역별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병원별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조사로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협의회를 거쳐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뿐 아니라 중증도에 따른 환자의 구성 상태를 평가한다. 건국대병원은 높은 종합평가 점수를 비롯해 중증환자의 치료 비율인 전문질병군율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로 건국대병원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암, 심혈관질환, 녹내장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임을 입증 받았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2005년 8월 신축 개원 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명의를 영입해 진료의 질을 국내 정상급으로 끌어올렸다. 유방암의 양정현 교수, 치매의 한설희 교수, 부인암의 강순범 교수, 선천성심장병 분야의 서동만 교수, 내시경 및 췌담도 분야의 심찬섭 교수, 대장암의 황대용 교수와 위암의 방호윤 교수, 류마티스내과 김호연 교수 등 각 진료과 별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12년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규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혈액투석 등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입증했다. 한설희 건국대병원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재지정은 건국대병원이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질환도 정확하고 빠르게 진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젊은 의료진 양성에도 힘써 작지만 강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전했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건국대병원은 이번 인증평가 총평에서 병원 시설과 EMR 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손 위생, 낙상예방 등 환자 안전 행동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환자 진료체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국대병원 의료기관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은 총평에서 “<span class='quot1'>건국대병원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의료기관 평가 서류에도 잘 묻어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위원은 “<span class='quot2'>병동 조사를 돌면서 건국대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환자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span>”고 평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0.txt

제목: 2015년 국내 제약업 생태계 조성 키워드는 ‘환자’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10956001  
본문: 다른 산업이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과 달리 제약산업은 제약사와 병의원, 의사, 환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중 제약산업은 ‘환자’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최종 수요자가 환자이며, 환자의 생명 및 삶과 연결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신약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험급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의 국내 공급이 늦어지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된다. 피해는 비단 치료시기를 놓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 이는 다시 환자 가족들과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도 비용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되는 등 악순환을 만든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의 치료와 가장 밀접한 신약에 대한 치료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환자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신약의 가치를 ‘비용’ 중심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와 이에 따른 약값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줄다리기로 우리나라 환자들의 신약접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span class='quot0'>직접적인 치료약 외에도 병의 악화를 억제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신약과 허가범위가 아닐지라도 치료에 도움 되는 의약품 등의 사용이 보장되는 환경이 된다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삶은 크게 개선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치료제에 대한 가치를 정부가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들이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span>”고 호소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1.txt

제목: [인터뷰] KMI한국의학연구소 이규장 회장, 30년간 오진률 0%… 상술 유혹 이겨내고 정직한 검진으로 일관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5161305001  
본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30년 전 경기도 부천에 건강검진센터를 열었다. ‘건강검진’이란 단어가 지금처럼 일상적이지 않던 시절이다. 서울 지사에서 일을 시작한 이규장(사진) 회장은 검진이 낯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의 중요성을 알려나갔다. 이규장 회장은 “<span class='quot0'>검진센터는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보초병 같은 역할</span>”이라고 말했다. 검진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개업 초기에는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대형병원마다 종합검진센터가 들어차 있었고, 의료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대형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규장 회장은 시스템의 변화보단 의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밀고 나갔다. 사실 이 회장은 대학 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의료와 사뭇 거리가 있는 그가 종합검진센터를 경영한 것은 그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검진과 치료가 분리돼야 한다. 한 병원에서 검진하고 한 병원에서 치료하면 오진이 나도 환자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3명 중 1명이 암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검진은 현대인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 종합검진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두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종합검진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KMI는 ‘첨단 의료장비를 새롭게 도입했다’라는 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불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만들어 끼워 넣는 법이 없다.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본래 설립 취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좋은 건강검진센터란 무엇일까. 이 회장은 “<span class='quot0'>장삿속 과잉검진을 바로잡는 전문인력들의 노력</span>”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검사항목이 많다고 좋은 검진이 아니다. 검사항목이 많아지면 검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부수적인 진단은 하지 않는다. 지난 30년간 오진율 0%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상술 없는 정직하고 정확한 검사를 해왔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KMI로 납품된 검사시약과 의료장비가 잇따라 또 다른 대형병원에도 들어가며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상술에 휘둘리지 않는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을 들이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약을 절반 값에 줄 테니 사가라는 곳도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들어선 검진센터에서 덤핑 제품을 사용하는 꼼수는 센터를 믿고 찾아준 고객들에게는 일종의 배신이나 다름없다.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납품업체와 상술이 섞인 계약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KMI를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 회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며 건강할 권리가 있다. KMI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라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2.txt

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들 (2)] 담뱃값 2000원 오르고 전국 음식점 전면 금연 外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101160804001  
본문: 보건·복지·여성◇담뱃값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담뱃값이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에 흡연석도 설치할 수 없다. 전면 금연 위반 시 업소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흡연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6월부터 실시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긴급복지지원 확대=300만원 이하인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4인 가구 기준 긴급지원 단가는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어르신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확대=종전 75세 이상에 더해 7월부터 70세 이상도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기초연금 최고액이 4월부터 20만원에서 20만3600원(잠정)으로 오른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3대 비급여 개선=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80%에서 65%로 낮아져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확대된다. 대형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중을 50%에서 70%로 늘려야 한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된다.◇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만 65세 이상은 10월쯤부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전국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실시된다. 7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95%를 지원받을 수 있다.◇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가 3월부터 실시된다.◇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의 혜택을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보육료 인상=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0세는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는 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바우처가 새해부터는 소득 65%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된다.◇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구직 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다.장애인·유공자◇장애인 수당 등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현재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급여는 6월부터 신청 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되도록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사법◇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법정 녹음 실시=증인, 사건 당사자,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기록에 붙인다. 변론·공판 절차에서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민사 판결문 공개=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열람·출력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판결문 열람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사건,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증인지원 서비스 확대=전국 16개 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을 경우 특별 증인지원 서비스로 전환된다.통일·외교◇탈북자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도입=탈북자에게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 본인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최대 4년간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재외국민안전과·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기존 재외국민보호과는 관련 정책과 상시 대응을 맡고, 신설되는 재외국민안전과는 예방 홍보 신속대응 업무를 맡는다. 기존 영사콜센터를 개편해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과 간이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한다.◇정보공개 무료화=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 1MB 이내 전자 파일은 무료 제공한다. 열람할 때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국방◇병사 봉급 인상=복무 의욕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해 병장 월급은 14만9000원에서 17만1000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으로 오른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 보상 강화=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병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병사 유가족에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병사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제 전면 실시=입영선호 시기인 2∼5월에는 추첨제로, 기타 시기인 6∼12월에는 선착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입영 선호 시기와 기타 시기를 구분하되 희망 입영일자를 1, 2지망으로 두 개 선택한 뒤 무작위로 전산 추첨한다. 문화·체육◇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미술·음악·무용 등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 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3.txt

제목: 국민일보 박병권 논설위원 별세  
날짜: 2014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31160655001  
본문: 박병권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30일 오전 별세했다. 54세. 고인은 1988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사회2부장 체육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6월부터 암 투병 중이었다. 2011년에는 자랑스러운 경북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장례는 국민일보 사우회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은 부인 김현미씨와 아들 두범씨, 딸 누리씨. 빈소는 경기도 일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일 오전 8시30분(031-900-0444).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4.txt

제목: 흥행몰이 스타감독들 신작 줄줄이 대기… 2015년 을미년 새해 새영화들  
날짜: 2014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31160557001  
본문: 2015년 새해에는 흥행을 이끈 스타 감독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한국 배우가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도 잇따라 개봉된다. 유하 최동훈 이준익 강제규 등 감독들이 신작을 들고 찾아와 이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국내에서 촬영해 관심을 모은 ‘어벤져스’의 속편 등 외화들도 줄줄이 상륙을 준비 중이다. ‘말죽거리 잔혹사’(2004)와 ‘비열한 거리’(2006)에 이어 유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거리 3부작’의 완결편 ‘강남 1970’이 1월 21일 개봉된다. 한류스타 이민호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1970년대 서울 강남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렸다. 형제처럼 지내다 ‘땅 종대’(이민호)와 ‘돈 용기’(김래원)라는 별명이 붙은 사나이들의 이권싸움이 처절하게 전개된다. ‘도둑들’(2012)로 1000만 관객을 모은 최동훈 감독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암살’로 7월에 돌아온다. 친일파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임시정부요원과 청부살인업자 등의 이야기를 그린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 ‘도둑들’에 이은 최 감독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전지현과 이정재가 호흡을 맞췄다. 하정우 조진웅도 가세했다. ‘평양성’(2011)의 흥행 실패 후 상업영화 은퇴를 선언했다가 2013년 ‘소원’으로 복귀한 이준익 감독은 사도세자의 얘기를 재조명한 ‘사도’를 선보인다. 유아인이 사도세자 역을 맡았고 송강호와 문근영이 함께 출연한다. ‘왕의 남자’(2005)로 1000만을 모은 이후 ‘라디오스타’(2006) ‘즐거운 인생’(2007) ‘님은 먼 곳에’(2008) 등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이 감독이 10년 만에 명예회복할지 관심이다. ‘쉬리’(1998) ‘태극기 휘날리며’(2004)의 강제규 감독은 지난 18일 개봉한 단편영화 ‘민우씨 오는 날’로 3년 만에 관객과 만난 데 이어 내년에는 장편영화 ‘장수상회’를 선보인다. 재개발을 앞둔 동네의 작은 가게를 중심으로 똥고집의 까칠한 노인 성칠(박근형)이 금님(윤여정)을 만나 주고받는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영화다.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임권택 감독의 신작 ‘화장’도 내년 초 개봉된다. 소설가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화장’은 암에 걸린 아내가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얘기다.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출연한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이석훈 감독은 황정민 정우와 함께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담은 ‘히말라야’를 들고 찾아온다. 곽재용 감독은 임수정 조정석 이진욱 주연의 ‘시간이탈자’로, 류승완 감독은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등과 함께한 액션 영화 ‘베테랑’으로 관객을 찾는다. 배우 정우성은 주연과 제작을 맡은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로 김하늘과 호흡을 맞추고, 전도연과 공유는 금지된 사랑에 빠진 남녀의 얘기를 그린 ‘남과 여’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이병헌 전도연 주연의 사극 무협영화 ‘협녀: 칼의 기억’과 유승호의 군 제대 후 첫 작품인 ‘조선마술사’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매트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워쇼스키 남매 감독의 ‘주피터 어센딩’이 2월 국내 관객을 찾는다. 배두나가 ‘클라우드 아틀라스’(2013)에 이어 워쇼스키 남매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췄다. 채닝 테이텀과 밀라 쿠니스 등도 출연한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의 속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은 4월 말 국내 상륙한다. 자신을 복제해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울트론에 맞서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블랙위도우(스칼렛 조핸슨), 헐크(마크 러팔로) 등 어벤져스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배우 수현이 천재 과학자 역을 맡았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는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함께 이병헌이 출연한다. 7월 개봉 예정이다.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5.txt

제목: 고혈압 남성,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 높다면… 심혈관 질환 가능성 크다  
날짜: 2014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30160352001  
본문: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수치가 높은 고혈압 남성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부천성모병원은 순환기내과 임상현(사진) 교수팀이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순환기내과 권범준 과장 연구팀과 함께 2011∼2013년 24시간 활동협압계로 고혈압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85명의 갑상선 기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임 교수팀은 조사 대상자들을 TSH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0.40∼1.99 μIU/㎖)과 높은 군(2.00∼4.50 μIU/㎖)으로 나눈 다음 이들의 24시간 활동혈압 수치와 심혈관 상태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TSH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24시간 수축기 혈압(주간 및 야간), 중심 수축기 혈압, 동맥 경직도, 전신 혈관 저항성 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심박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교수팀은 그러나 여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폐경, 호르몬 치료 등의 이유로 TSH와 24시간 활동혈압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성 고혈압 환자는 남성 고혈압 환자에 비해 TSH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속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TSH 수치가 높을 경우 심혈관 질환에 대해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연구결과는 심혈관 질환 관련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IJC)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6.txt

제목: [삶의 향기-전정희] 우리에게 악이 붙어 있다  
날짜: 2014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7160111001  
본문: “<span class='quot0'>한 국가의 독재자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배급사나 그 창작물을 방해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생길 때 계속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spa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화 ‘인터뷰’ 개봉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제작사 소니픽처스를 나무라며 한 말입니다. 덧붙여 “북한에 비판적 보도를 한 CNN이 그런 공격 위협에 놓인다면 갑자기 북한과 관련된 보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뷰’는 북한 김정은 암살 장면 등을 담은 내용으로 그 예고편이 공개되자 북한 외무성이 “노골적 테러·전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후 소니픽처스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 당하자 개봉 취소를 선언했던 것이지요. 이튿날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에게 행한 쓴소리도 기억에 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계 지도자들이) 영적 치매에 걸렸다”고 질타한 겁니다. “<span class='quot0'>자신의 열정·변덕·광기에만 의존해 주변에 담을 쌓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span>”는 거지요. 교황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 ‘협업 없이 일하는 것’ ‘가십에 몰두하는 것’ ‘보스에 대한 지나친 찬미’ ‘겸손 열정 행복 기쁨 없는 장례식에 간 듯한 얼굴’ 등도 지적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받는 신앙두 권력자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 이상이 되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타락하고 혼돈할 때 그 세계는 위협을 당합니다. 생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이 일침한 ‘자기검열’ ‘우상의 노예’에 대한 지적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편적 진실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빼어난 경구(aphorism)인 것도 아닙니다. 신탁 받은 리더로서 원칙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사회는 올 한 해 언어의 타락과 혼돈 속에서 지샜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등 끊이지 않은 사건·사고는 극단의 언어를 양산했습니다. 그 언어가 좀비가 되어 우리를 ‘종북’이라는 언어 프레임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이 이를 웅변합니다. 한데 신앙인의 언어는 세상 언어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언어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계 지도자의 메시지는 어떤 형태의 프레임도 거부하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수평적 윤리나 가르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에서 알려주었듯 ‘하나님 구원의 언어’여야 합니다. 개신교에 스며든 바알 우상 한국 교계는 세상에 대한 말씀의 힘이 없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암 2:6∼7)’ 하여도 누가 나서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성전 행사에만 북적였던 아모스 선지자 시대 같은 오늘의 한국 교계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가 타락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신교로 스며든 바알 우상을 막는 것에 소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제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만 한다면 우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롬 7:22∼23). 새해엔 이런 우리의 팔목을 말씀으로 잡아줄 리더를 기대해봅니다.전정희 종교기획부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7.txt

제목: [행복을 나누는 기업-아모레퍼시픽] 암치료 외모 변화 고통 여성들에 희망붓칠  
날짜: 2014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6155924001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29일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기업 활동 전 부분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치료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연출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해오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슬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한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핑크리본 캠페인’은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여명의 참가를 통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이밖에도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 희망가게, 공병수거 캠페인 ‘그린사이클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8.txt

제목: [행복을 나누는 기업-홈플러스] 소아암 환자 돕기 캠페인… 유방암 예방강좌  
날짜: 2014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6155926001  
본문: 홈플러스는 2012년 3월부터 소아암·유방암 환자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어린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306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2000명의 위탁가정 어린이를 지원했다. 이 캠페인은 고객이 캠페인 상품을 구매하면 홈플러스와 협력회사가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각각 상품 매출의 1%씩 최대 2%를 기부하고 소아암 어린이 및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는 사회공헌운동이다. 누적 고객은 8000만명을 돌파했다. 홈플러스는 또 올해 10월부터 세계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치료 지원을 위해 ‘핑크플러스 캠페인’을 추가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핑크플러스 걷기대회에는 3000여명의 고객이 참여했고, 전국 문화센터 유방암 예방강좌에는 총 1만5508명이 찾아왔다. 홈플러스는 SNS를 통한 유방암 예방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해 200명의 고객에게 유방암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나눔과 감동의 페스티벌’ 일환으로 ‘응원 댓글 달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홈플러스가 1명당 2000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해 소아암과 유방암 환자에게 지원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299.txt

제목: 보험금 청구 시효 1년 늘어… 처방전으로 ‘실손’ 청구 가능  
날짜: 2014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6160026001  
본문: 내년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년 더 늘어나고, 실손의료보험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는 처방전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노인들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상품에 연동된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25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발급비용이 1만원 이상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하는 상품이 내년 1분기 내로 나온다. 이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으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연금 중 일부를 보험에 넣어 의료비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추가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를 낸 제삼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사는 제삼자에 대한 처분 권리(대위권)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따로 명시된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 있던 수술비 보장대상 당뇨병·고혈압 합병증의 병명이 약관에 명시되고, 고혈압성 뇌병증과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보장 대상에 추가된다. 합병증 수술비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실히 알게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수술비 보장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보험대리점(GA)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계약 관련 의사표시(청약·해지 등)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상법에 명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보험설계사 39만6988명 가운데 GA 소속 설계사는 18만5139명으로 46.6%에 달한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GA의 설계사 수가 2분기에 비해 13.3% 증가하는 등 대형 GA로 설계사가 집중되는 추세다.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0.txt

제목: 현대의학이 못넘는 암, 자연치료와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4155552001  
본문: “저희 의원이 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수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외롭게 투병하는 사람 보다 병을 알려서 많은 인척과 주변인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병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신촌성결교회 장로)은 “미국의 모 대학병원에서 암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본인들에게는 모르게 한팀 명단을 놓고 치유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는데 당연히 이 팀이 다른 팀 보다 증세가 호전됐다는 통계가 있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얼마 전에 30대 후반의 방광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전도를 했지만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저희 병원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정영신 목사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자 이를 수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을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새삼 전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노 박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병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각 자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치료를 찾아 처방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다양한 암치료법을 제시해 주면서도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의료보험을 최대한 적용시키고 다양한 자연치료법과 면역요법을 제시하며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치료법을 제시해 주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 휴스턴 베일러(Baylor) 의과대학에서 암유전학에 대해 연수한 적이 있는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그곳에서 자연치료의사(ND)들이 따로 있고, 그런 치유의학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귀국 후 양방과 함께 자연치료도 병행하기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 노 박사는 “<span class='quot1'>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 낫는 경우도 있고 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span>”고 말했다. 노 원장은 한의사들과도 교류하려는 열린 생각으로 양한방 의사들이 모이는 ‘자연의학회’도 만들었고 암 환자들이 참여하는 블로그와 카페도 개설했다. 자연치료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주변에 조선족 및 한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에 중국인전용의원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어를 직원들과 함께 배우기 시작해 간단한 회화와 문자보내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노박사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중국어예배부에서 봉사하고 있기도 하다. “출석 교회가 대학가인 신촌에 있다보니 중국유학생들이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글성경반을 만들어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중국선교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노 원장은 늘 환자를 먼저 생각하며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 ‘의술은 인술’이라는 명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span class='quot2'>노박의원을 중국인전문의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니 중국방송을 볼 수 있는 무료케이블을 설치해 주겠다는 분이 찾아 오셨고 상호 협력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span>” 7층 건물 전체를 병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노박의원은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정치료실, 도수치료실을 설치하고 암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뿐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잡고자 다양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노박의원은 비용은 좀 들지만 ‘항암면역세포치료’를 도입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방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이미 효과가 입증된 미슬토주사요법도 환자들에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노박의원은 이처럼 항상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이를 연구하는 자세로 도입, 내방환자들에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항상 붐빈다. 노 원장은 크리스천으로써 의술과 함께 정신적 치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질병은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과 감정, 영혼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이 자연의학의 중심적 개념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을 회복시켜 줄 때 인체가 가진 천연방어력이 잘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수술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현대의학의 암 치료를 넘어, 영양면역요법과 운동면역요법·정신(영)면역요법 등도 사용하고 있는 노박의원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1.txt

제목: 암 치료 임상과 자연 의학에 대한 정보 가득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4155554001  
본문: 노태성 원장은 최근 이미 출간돼 인기를 끌어 온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란 저서의 증보판(표지사진)을 냈다. 이미 이 책은 많은 암환자들에 이해하기 쉽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인기리에 읽혀 왔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많은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더 큰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또 책 일부는 노 원장의 동생인 노태진 박사(제일진단방사선과의원 원장)도 함께 집필해 형제 공저로 책이 출간됐다. “크리스찬투데이란 주간신문에 건강칼럼을 연재한 것을 모은 것인데 매주 정성을 다해 썼어요. 암환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예방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이해는 물론 특히 암치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박사가 양의사 이면서도 자연의학에 해박한 지식과 임상을 경험한 내용이 빼곡하다. 1부는 자연의학 들어가기를 소개했고 이어 생사의 갈림길을 사례를 통해 정리한 전환점을 2부에 담았다. 이어 노 박사는 본격적인 저술에 들어가 ‘몸과 마음의 정화’ ‘암이란 무엇인가’ ‘암환자의 건강관리’ ‘암치료 안내’ ‘암치유 명상’‘신앙에세이’ ‘상세치료’ ‘사잔검사’ 등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의학계에서 암에 대한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환자나 가족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유의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하다. 암세포의 실체를 알고 이들 세포가 자연소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안다면 더이상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몸은 늘상 암세포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를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차단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암세포가 퍼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 박사는 이 책에서 “어떤 암치료를 한다해도 우리의 면역기능이 암세포를 용인하면 암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한다”며 “따라서 체내의 독소를 없애고 온갖 스트레스를 버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섭취로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 줌으로 암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근본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서적으론 두꺼운 편인 352페이지에 달하는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는 노 박사의 오랜 암치료 임상과 연구, 신앙을 통해 촘촘히 배어나온 알찬 내용이란 점에서 일반인은 물론 특히 크리스천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건강지침서이다. 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2.txt

제목: ‘공포의 암’ 희소식… 발생률 2000년 이후 첫 감소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4155711001  
본문: 암 환자 발생률은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암 발생률이 떨어진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암 환자의 최근 5년 생존율은 68.1%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및 암 유병률 현황’을 23일 발표했다. ◇10년 만에 암 환자 발생률 꺾여=우리 국민이 평균수명(81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다. 남성은 5명 중 2명(37.5%), 여성은 3명 중 1명(34.9%)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암 환자 수는 연평균 3.5%씩 증가했다. 2012년 새로 발견된 암 환자는 22만4177명(남 11만2385명·여 11만1792명)으로 전년도(22만287명)보다 1.8%, 2002년(11만7089명)보다 91.5% 늘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암 환자 수를 따지는 발생률은 10년 만에 꺾였다. 인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암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적극적 건강검진, 금연 등 예방사업이 효과를 보면서 발생률은 떨어진 것이다. 2012년 발생률은 319.5명으로 전년 대비 3.6명 줄었다. 그동안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명당 219.9명에서 2000년 214.1명으로 감소한 이후 줄곧 증가세였다. 암 환자의 33.8%는 감염, 흡연, 과체중, 음주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66.2%는 미지의 원인 때문에 암이 생겼다. 특정 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기여위험도’를 보면 위암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76.2%, 흡연은 19.2%로 나왔다. 폐암(흡연 기여위험도 46.5%)과 방광암(35.4%)은 흡연 외의 위험 요인을 못 찾고 있다. ◇‘암에 걸리면 사망’ 공식 깨져=최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8.1%로 1996∼2000년 44.0%보다 크게 늘었다. ‘암에 걸리면 사망’이라는 공식은 이렇게 깨지고 있다. 1999년 이후 암 치료를 받은 뒤 생존해 있거나 아직 치료 중인 암 경험자는 전체 인구의 2.5%(123만4879명)에 이른다. 암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도 달라진다. 갑상샘암(100.1%) 전립선암(92.3%) 유방암(91.3%) 대장암(74.8%) 위암(71.5%)은 특히 생존율이 높았다(갑상샘암 생존율이 100% 이상인 건 잠재적 위험집단까지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간암(30.1%) 폐암(21.9%) 췌장암(8.8%)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암 환자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의료기술 향상과 암 검진 보편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일찍 암을 발견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7.9%나 된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67.2%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과거에는 암이 2∼3기까지 진행된 뒤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1∼2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었다</span>”고 말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3.txt

제목: [키워드로 본 2014 문화-영화] ‘1000만 클럽’ 4편 최다… 다양성 영화·다큐 영화의 놀라운 돌풍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4155547001  
본문: 외화의 파상공세 속에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한국영화를 구한 한 해였다. 충무공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명량’이 각종 흥행 기록을 경신하며 1500만(최종 1761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첫날 68만명으로 개봉일 최다 관객을 동원하고 12일 만에 1000만을 돌파했다. ‘아바타’(1362만)와 ‘괴물’(1301만)의 흥행기록을 돌려세우고 역대 흥행 순위 1위로 우뚝 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변호사’도 1000만 관객을 넘었다.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터스텔라’도 1000만 고지에 올랐다. 올해 ‘1000만 클럽’에 가입한 영화는 모두 4편으로 역대 최다다. 한국영화 관객은 3년 연속 1억명을 돌파했다. 음악영화이자 다양성영화로 분류된 ‘비긴 어게인’이 이례적으로 342만을 모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76년간 해로한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흥행 질주도 놀라웠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각종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화 제작 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한 임금 별도관리제가 도입됐다. 한류 확산으로 영화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이 늘면서 경사도 있었다. 김태용 감독은 오랜 연애 끝에 중국의 톱 배우 탕웨이와 지난 7월 결혼했다. 반면 할리우드에서도 주목받는 배우 이병헌은 동영상 공개 협박을 둘러싼 추문에 휩싸여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원로 배우 황정순이 89세로 세상을 떠났고, 배우 김진아도 암 투병 끝에 하와이에서 숨졌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4.txt

제목: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입안 덴 듯 아프다고요?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3155350001  
본문: 김연남(가명·72)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입이 화끈거리고 아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아랫입술 중앙부위가 아팠다. 그렇게 시작된 입술 통증은 점차 입술 전체로 퍼져 조이는 듯 아프고 마치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른 것처럼 화끈거렸다. 두세 달 전부터는 입술뿐만 아니라 혀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입 주변이 화끈거리며 혀가 마르고 사포처럼 꺼칠꺼칠해지면서 아팠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 모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다. 입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약을 먹으면 조금 덜 아픈 듯이 느껴지지만 입안이 불타는 듯 아픈 통증은 여전해 치과병원과 통증클리닉을 전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노년층 고령 여성들 가운데 특별한 원인도 없이 입안이 화끈거리고 아파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다. 한번 발병하면 좀처럼 낫지를 않아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암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구강작열감증후군(BMS)’이란 조금 생소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불 타는 입 증후군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구강작열감증후군에 걸리면 혀, 입천장의 앞쪽, 입술 등이 화끈거리는 느낌과 함께 쓰리고 따끔거리며 아프다. 때로는 흡사 구강건조증이나 미맹(味盲)에 빠진 듯이 입안이 마르거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입 안의 이물감과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지어 음식물을 먹는 것이 힘들어 기운이 빠지고 수면 장애가 심해져 잠을 못자거나 우울 증상까지 겪을 수 있다. 사실 구강작열감증후군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드문 병도 아니다. 보통 50세 이상 장·노년층에게서 발생하는데. 남성보다는 폐경기 여성에게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빈도는 폐경기 여성 10명 중 한두 명 꼴(12∼18%)로 보고돼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고홍섭 교수는 “<span class='quot0'>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각종 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원인은 감각신경계의 기능변화다. 일반적으로 혀나 구강점막에 가해지는 만성 자극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 당뇨와 비타민 결핍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수면장애 및 불안, 우울감이 팽배할 때 심해진다. 치료는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만성질환이 구강작열감증후군을 부추길 때는 그 질환을 퇴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0'>당뇨나 빈혈을 동반하고 있을 때는 혈당조절을 제대로 하고 빈혈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불에 타는 듯한 입 안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구강건조증 및 구강 진균(곰팡이) 감염도 흔한 원인 중 하나다.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구강 작열감이 더 심해진다. 이럴 때는 인공타액을 사용하거나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 처방이 필요하다. 한편, 구강건조증으로 침이 부족하면 입 안에 곰팡이가 쉽게 자라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는 균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향진균제를 쓰면 통증이 사라진다. 격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입 안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원인이 되는 정신과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바로 폐경기를 거치면서 불안, 초조감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여성들이 구강작열감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다. 구강암과 같은 암 질환에 대한 공포증, 우울증과 불면증도 구강작열감증후군을 유발한다. 이렇게 발병에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여겨질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김찬병원 통증의학과 한경림 원장은 “<span class='quot1'>식사를 잘 못하는 노인의 경우엔 비타민 B군을 포함한 영양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섭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5.txt

제목: 명필름 대표 심재명 “엄마가 되고 나서야 엄마를 알았어요”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3155449002  
본문: 서울시청 여자핸드볼 감독 임오경은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지도자다. 그러나 그녀도 코트에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일본 실업팀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활동하던 그는 임산부의 몸으로 6개월간 뛰었다. 남편은 당시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느라 바빴다. 어렵게 낳은 딸은 체육관 구석 바구니에서 컸다. 임 감독은 운동하다 딸이 울면 우유를 먹이고 다시 뛰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뮤지컬 배우 전수경은 마흔에 이혼하고 어린 쌍둥이 딸을 혼자 키웠다. 이혼 후 갑상샘암 선고도 받았다. 이혼녀에 암 환자, 게다가 아이들은 고작 아홉 살이었다. 암 수술을 받고 무대에 복귀한 그녀는 재혼했다. 전수경은 싱글맘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사는 게 너무 각박해지고 본인 스스로도, 아이들에게도,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경림이 여성 명사 18명을 만나 육아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집 ‘엄마의 꿈’(문학동네)이 22일 발간됐다. 유명인이자 성공한 커리어우먼, 여성들의 롤모델이지만 그녀들도 엄마였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 엄마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일반론에 묻히는 게 아니라 엄마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방송인 최윤영은 MBC 간판 아나운서로 일하다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 때문에 ‘내가 나쁜 엄마인가’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나’ 끊임없이 자괴감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탤런트 채시라는 촬영장에 유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유 수유를 했다.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완벽한 엄마를 꿈꿨으나 잘 내버려두는 게 답이었다”고 말한다. 소설가 하성란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원고 마감을 하기도 했다. 명필름 대표 심재명은 “<span class='quot0'>엄마가 되고 나서야 엄마를 알았다</span>”고 고백한다. 이들 외에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 최태지, 대한항공 기장 황연정, 쇼호스트 유난희, 바둑기사 한해원, 배우 홍은희 신은정 박은혜, 국회의원 신의진, 농구코치 전주원, SM C&C 대표 송경애, 환기미술관 설립자 김향안 등이 엄마로 살아온 얘기를 들려준다. 박경림은 서문에서 “<span class='quot1'>그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면서도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멋진 엄마, 아름다운 아내들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엄마들이 꿈꿀 수 있도록 우리의 엄마들을, 이 땅의 엄마들을 지켜주어야 한다</span>”고 썼다.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6.txt

제목: [공병호의 세상 읽기] 당신의 ‘영의 그릇’은 안녕하십니까  
날짜: 2014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0155055001  
본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지식이 늘어날수록 세상을 뚜렷하게 보게 되고 그럴수록 허무감이 커져. 그래서 나중에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많아.” 소설가 복거일이 암 투병 상태에서 행한 인터뷰 중에 던진 말이다. 사실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부를 많이 갖게 된 상태, 즉 불편함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제법 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더하기도 한다. “과학이 내놓은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니 종교에 기대지 못하는 나 같은 불운한 사람에게 절망은 가장 확실한 평정을 줄 수 있어. 나도 남들이 점점 소중해지고 다가오는 죽음이 끔찍하긴 하지만 희망이 없어 기댈 곳도 없다 생각하니 오히려 맘이 편해.” 내가 그분의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외관으로 죽음 앞에 이토록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온 사람으로서 평생을 엄격한 관찰자로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분이라면 능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흔들림 없는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는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수없이 쌓더라도 사람은 구조적으로 허전함, 한 걸음 나아가 허무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고국을 떠나서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던 분들조차 인생의 끝자락에는 허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올해 84세가 되는 철학자 박이문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평생 노력했지만 인생의 궁극적 의미 같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허무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내게 다가오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론자라고 할 수 있지요.” 삶을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치열하게 학문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참 평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인생의 답을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결국 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 노학자의 고백이다. 평생 죽음 문제를 연구해 왔고 그녀 자신이 죽음에 관해 수많은 저술을 발표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이다. 그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전달했지만 막상 뇌출혈이 그녀를 덮치고 9년간에 걸친 긴 투병 생활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참조하면 죽음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그녀에게 자유로움을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녀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막막해 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다. 왜, 지식이나 부나 지위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일까. 필자 또한 탐구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잠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육의 그릇과 혼의 그릇 그리고 영의 그릇으로 구성된 인간은 어느 것 하나가 부실하면 참다운 평화를 누리기가 힘든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리고 학습으로부터 평생 동안 육과 혼을 단련하는 데 수없이 긴 시간을 투입한다. ‘영의 그릇’이란 어떤 것일까. 50대의 어느 날, 믿음의 길로 들어선 필자는 공부가 더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면 늘 ‘길 위에 인생’이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존재라는 사실이다. 초조와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등과 같은 감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참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참 평화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란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일에서부터 깊이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도 모두 은혜에 더 큰 은혜가 더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span class='quot0'>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span>”(요 8:32) 말씀이 영혼의 그릇에 차고 넘치지 않는 한 인간은 참다운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는 힘들 존재이다.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7.txt

제목: [미션 르포] 성경의 땅에 성탄은 없다  
날짜: 2014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0155114001  
본문: "웰컴, 살람 알레이꿈." 지난 9일(현지시간) 오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체크포인트(검문소) 직원은 영어와 아랍어 인사를 섞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양철과 나무로 만든 검문소는 수십개의 강철문과 방탄유리, M-16 소총으로 무장한 병사가 경계를 하던 이스라엘 국경과는 대조적이었다. 평상복 차림의 PA 직원은 "가자에 와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고 하자 싱긋 웃으며 아랍어 인사를 던졌다. 이곳 검문소를 통과하면 또 하나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1㎞쯤 더 들어가자 하마스 체크포인트가 나왔다.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집권당.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무장단체여서일까. 검문소 직원들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단단한 몸집에 짙은 검은색 수염을 기른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펼쳐보더니 곧이어 "웰컴" 했다. 드디어 가자로 '내려왔다'(행 8:26).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국제구호 단체인 월드디아코니아(WD·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이날 가자지구 지원을 위해 기독교인 가정을 먼저 찾았다. 한국교회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격당한 기독교인 가정 “한나입니다.” 하마스 검문소에 마중 나온 사람은 가자침례교회 담임 한나 마헤르(35) 목사였다. 인사를 하며 내민 오른손엔 십자가 문양 문신이 있었다. 낡은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가자 시내 빈민가인 제툰 지역. 차창 너머로 보이는 가자는 우울했다. 회색 모래바람 속에 가랑비가 떨어졌다. 국경지대의 집들은 무너진 곳이 많았다. 건물마다 총탄 자국이 선명했다. 운전기사는 “1967년부터 생긴 흔적이에요” 했다. 오후 5시가 지나자 해가 졌다. 제한적인 전기 공급으로 시내는 암흑으로 변해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번쩍였다. 한 골목으로 접어들자 오른편으로 폭삭 주저앉은 집이 시커먼 괴물처럼 눈에 들어왔다. 마헤르 목사는 “<span class='quot0'>지난여름 폭격당한 유일한 기독교인 가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리스정교회 교인이었던 집주인은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span>”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가리지 않았다. 5분쯤 지나 도착한 집은 하페즈 아부 다와드(56)씨 가정이었다. 거실엔 다와드씨를 비롯해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에 여성 사진이 보였다. “제 딸입니다.” 일주일 전 둘째 딸 매들린(18)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곧 성탄절이었지만 이들은 중동 기독교 전통에 따라 40일을 애도기간으로 삼고 있었다. 매일 점심이면 교회 신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식사를 같이한다고 했다. 가족들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 웃지 않았다. 다와드씨만 덤덤하게 얘기를 이어갔다. “만약 우리가 가자에 살지 않았다면 딸아이는 살아 있었을 거예요. 변변치 못한 이곳 의료시설로는 힘들었죠. 만약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 병원이라도 빨리 갔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로 가려면 35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다. 반드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스라엘 측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 가자지구와 외부 세계를 잇는 통로는 모두 세 곳이다. 북부의 에레츠와 남부의 케렘 샬롬, 라파 국경 검문소다. 라파는 현재 폐쇄돼 있으며 에레츠와 케렘 샬롬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렵고 북서부 지중해는 이스라엘 해군이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가자 주민들은 면적 360㎢의 ‘지붕 없는’ 감옥에 사는 셈이다. 다와드씨는 전쟁 이전까지 일을 했으나 이후 일터를 잃었다. 그의 아들이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여기는 4000년 전부터 구약의 땅이다. 그러나 다들 떠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 딸이 죽었으니 한 명이 줄은 셈”이라며 “가자의 문제는 이·팔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스베로(52)씨 집. 아파트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스베로씨는 손전등을 직접 비추며 앞장섰고 7층까지 올랐다. 캄캄한 출입문에 손전등을 비추자 장미로 둥글게 만든 성탄 장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자지구의 유일한 성탄 메시지처럼 보였다. 그의 아내 아멜(50)씨가 문을 열자 여자 아이들이 달덩이 같은 얼굴로 웃어보였다. “우리 집 딸들이에요. 모두 7명이죠.” 7공주들은 밝았고 예뻤다. 큰딸 크리스티나(21)는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홍차와 설탕을 내오며 “지난 전쟁에서 폭격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다. 위협과 공포가 우리를 에워쌌다”고 몸서리를 쳤다. 스베로씨는 “당시 전기와 물이 끊긴 게 제일 어려웠다”면서 “유엔과 NGO의 도움으로 촛불을 켜고 살았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인 조안나(17)는 “위성 TV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며 “한국인을 직접 보게 돼 신기하다”고 말했다. 스베로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하마스에 일을 빼앗겼다. 그는 “하마스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진다”면서 “전쟁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수많은 NGO들이 왔으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아내 아멜씨는 “가자를 떠나고 싶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어렵다”며 “우리는 희망이 없는 상태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들은 다가오는 성탄절 소원으로 자녀들의 안전과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꼽았다. WD 방문팀은 다음날인 10일 집중 폭격을 당했던 자발리야 지역을 돌아봤다. 이스라엘 국경과 불과 2.5㎞ 마주한 이곳은 반경 2㎞ 지역이 초토화됐다. 이곳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부터 숱하게 공격을 받은 곳이다. 폭격한 자리에 또다시 폭탄이 떨어지면서 건물은 무너지고 분해되면서 벽돌 잔해만 굴러다녔다. 폭격으로 쓰러진 건물 밑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다. 마헤르 목사는 “<span class='quot0'>가자가 성경의 도시이지만 성탄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기도해 달라</span>”고 말했다. 가자(팔레스타인)=글·사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8.txt

제목: [시선] ㈔월드휴먼브리지·국민일보, ‘1% 나눔 캠페인’… ㄱ∼ㅎ 머릿글자로 본 4년  
날짜: 2014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20155100001  
본문: “<span class='quot0'>1%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100%가 되고 나에겐 200%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캠페인을 함께 벌입시다.</span>”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 목사)와 국민일보(대표 최삼규)는 2010년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소외받는 이웃에게 행복한 미소를 찾아주기 위한 ‘1% 나눔 캠페인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 후 만 4년이 지났다. 당시 3개 기업이 어깨동무를 했지만 지금은 227개 사업장이 꿈과 희망을 주는 캠페인 대열에 동참했다. 행복 바이러스를 곳곳에 퍼트리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 캠페인을 ‘ㄱㄴㄷ…’로 그 의미를 정리해봤다.ㄱ 기적을 낳다기적은 나비효과 같은 것이다.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수치에 불과한 1%가 나중에 100% 이상의 결실을 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2010년 월드휴먼브리지를 창립할 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또 하나의 NGO가 생기는구나. 잘될 수 있을까.” 또 “월드휴먼브리지는 20억원으로 출발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제 시작할 때 자금은 고작 3000만원이었다. ㄴ 나눔은 꼬리를 물고나눔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처음 3개 업체가 참여한 이후로 아름다운 나눔실천운동이 줄을 이었다. 이 캠페인은 사회 저변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병의원, 상점, 식당 등 개인사업주가 수익의 1% 정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는 것이다. ㄷ 드림기업 이야기㈜드림기업(대표 임범수·61)은 대전지역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설업체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은 드림기업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건설에 주력하는 회사다. 임 대표는 수익이 얼마 나지 않을 때부터 1% 기부 약속을 했다. 지금은 50억원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1% 나눔 외에 지역의 여러 기관에 또 다른 기부활동을 펴고 있다. 임 대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다니시던 지금의 대전산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움막집에서 시작한 교회 초기부터 큰 교회로 부흥한 대전산성교회의 역사(60년) 중 53년을 다녔고 7년 전 장로가 됐다. ㄹ 로또는 없다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아주 작은 소규모 기업이다. 이들은 느리지만 0.1%씩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작전을 편다.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이삭토스트 성결대점(대표 김옥순)은 처음엔 작은 가게여서 토스트를 판매해 많은 수익도 얻지 못하는데 나눌 수 있는 게 있겠나 싶었지만 1%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1'>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니 더 많은 고객들이 단골이 되는 계기가 됐다</span>”고 말했다. ㅁ 만나교회가 앞장처음에 만나교회가 앞장서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대형 교회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많았다. 또한 자체적으로 독립된 NGO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면 서로가 또 경쟁이고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지적에 결국 한 배로 항해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ㅂ 봉사는 종교도 초월월드휴먼브리지는 한국교회에 열린 NGO다. 어느 교단과 교회의 소유가 아니다. 한 사람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곳이다. 절대 종교를 내세우거나 강요하지도 않는다. ㅅ 시작은 미약했으나3000만원의 자본금으로 만나교회(김병삼 목사), 대전산성교회(지성업 목사), 안양감리교회(임용택목사) 3개 교회가 손잡고 시작했다.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3개 해외지부가 설립돼 2014년 사업 규모가 33억원인 중견 NGO로 우뚝 섰다. ㅇ 윤택하지 않아도2010년부터 1% 나눔에 참여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노엘치과 도성호 원장은 “<span class='quot2'>나눔은 윤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앞서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참여해보면 알게 된다</span>”고 밝혔다. ㅈ 주님을 대하듯㈜제이콥에프앤비(jacob F&B) 헬로키티 카페는 ‘1% 나눔 캠페인 1호 기업’이다. 초창기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매출 기준으로 1%를 기부했다. 김종석(43) 대표는 앙증맞은 캐릭터 헬로키티를 앞세우고 1년여 동안 4곳의 카페를 연달아 설립, 성공 행진을 이어가는 젊은 사업가다. 삼성건설을 거쳐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김 대표는 36세가 되면 독립해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2007년 사표를 내고 전공을 살린 인테리어 회사 제이콥 씨엔이(jacob C&E)를 차렸다. 제이콥은 야곱의 영어식 발음. 야곱이 받은 은혜와 복을 되새기고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야곱의 축복이었을까. 2009년 초 헬로키티 카페 체인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헬로키티는 1974년 일본에서 탄생한 고양이 캐릭터. 지금까지 문구류를 비롯한 의류와 가방 등에 다양하게 활용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왔다. 2010년 김 대표는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월드휴먼브리지가 전개하는 ‘1% 나눔 캠페인’에 동참키로 선언한 것. 그것도 수익이 아닌 매출의 1%여서 주변에서 은근히 말리기도 했다. 헬로키티 카페는 현재 홍대점과 신촌점을 비롯해 인천공항, 죽전 등 4곳에 직영 매장이 있다. 지난해 오픈한 제주 헬로키티 아일랜드는 올해 매출 2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엔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ㅊ 처음처럼 언제나1%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에 참여하게 하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놀라운 파급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겼다. 성공한 사람들은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1%의 희망과 가능성이 준 교훈을 잊지 않는다. ㅋ 코고섬 부부의 큰 사랑코고섬(COGOSUM)이라는 조그마한 퓨전국수집을 운영하는 김현섭(55) 사장의 부인 김예봉(57)씨는 암 수술 직후 회복이 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나눔 현판식에 참석해 진한 감동을 남겼다. 부부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국수를 말고 있다.ㅌ 타인에게 사랑을1% 나눔운동은 일반 기업 외에 과일가게와 옷가게 음식점 병원 약국 카센터 미용실 카페 마트 찜질방 등 개인 사업주와 자영업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ㅍ 팔 걷고 모두 동참참여하는 기업과 가게에는 1% 나눔 현판을 붙여주고 기업의 상품 등에 월드휴먼브리지 로고와 사회공헌 내용을 기재해준다. 임직원들은 물론 회사 방침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선다. ㅎ 희망 바이러스올해로 창립 21년을 맞은 ‘환이’(대표 진현기·52)는 우유제품 단백질 등 식품 원료를 수입해 국내 생산업체에 납품한다. 진현기 대표는 1993년 퇴직금 200만원으로 창업해 97년에 법인을 설립했다. 진 대표는 “2007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은 후 기업이 급성장해 한 해 평균 매출 60억원, 지난해에는 매출 2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엔 세월호 여파로 식품업계 타격이 컸지만 지난해보다 2∼3%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한 우물만 팠다. 현재 바스프 등 외국 13개 업체와 계약하고 홈플러스, 코스코 베이글 모두 환이가 납품한다. 치즈 분야에선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진 대표의 10년 후 꿈은 한국의 바스프가 되는 것이다. 진 대표는 학창시절과 청년시절 신경하 전 감독회장과 김진호 전 감독회장으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다. 그가 가장 아끼는 성경 말씀이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09.txt

제목: 말기 암 환자 진료비 호스피스 비용 2.5배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9105935002  
본문: 각종 항암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말기 암 환자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는 말기 암 환자. 환자마다 상황이 달라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가늠키란 불가능하다. 다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했더니 호스피스보다 항암치료가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대학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말기 암 환자가 사망 전 한 달간 쓴 건강보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1400만원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비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다가 숨진 말기 암 환자는 마지막 한 달간 평균 530만원을 썼다. 적극적 항암치료군은 입원기간이 길수록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완화의료군과 대조된다. 연구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건강보험 암 질환 사망자를 적극적 항암치료군과 완화의료군으로 나눠 입원기간에 따른 평균 진료비를 비교 분석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의 97.4%는 적극적 항암치료군이었다. 완화의료군은 2.6%에 불과했다. 아직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완화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63.5%가 병원에서 숨졌다. 중증 암 등록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 사망자의 74%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임종한다. 가정에서 숨지는 경우는 36.5%로 해가 갈수록 병원 내 사망비율은 증가하고 가정 사망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0.txt

제목: 자식보다 살가운 대접에… 쌈짓돈 털린 노인들  
날짜: 2014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7154722001  
본문: 지난해 7월 충남 금산에 ‘○○사슴농장 홍보관’이란 행사장이 문을 열었다. 가족용 체험학습장을 연상시키는 이곳에는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전국에서 5만명 넘게 노인이 몰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 생가 관광을 무료로 시켜준다는 말에 “바람 쐴 겸 가보자”며 온 사람들이었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효도관광을 시켜주다니, 세상에 이런 공짜가 있을 리 만무했다. 업자들의 목적은 건강식품 판매였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노인들 앞에 녹용 제품을 내놓고 “이걸 먹으면 고혈압 당뇨는 물론 각종 암이 낫는다”고 소개했다. 말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이었다. 90g짜리 50봉이 33만원. 큰돈이지만 노인들은 “어머니” “아버지” 하며 자식보다 살갑게 대해주는 업자들에게 기꺼이 쌈짓돈을 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제품의 시가는 2만원 정도였다. 16배 이상 비싸게 판 것이다. 중국산 저가 한약재로 만들어 당연히 암 치료 효과 같은 건 없었다. 경찰은 업자 25명을 사기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5457명에게 약 15억8200만원어치를 팔았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강식품 ‘떴다방’ 등 허위·과장광고 사범 1326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확인된 판매액은 3199억원, 피해자는 75만9369명이나 됐다. 1인당 평균 42만원씩 사기당한 셈이다. 팔린 제품의 평균 원가는 8만6000원으로 판매가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업자들은 무료 공연이나 관광, 싸구려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홍보관에 사람이 모이면 의료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A씨는 노인들에게 자신이 프로폴리스 제품을 직접 개발한 유명 의사라고 소개했다. 23년간 외과의사로 근무한 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가르친다고 했다. “이런 제가 왜 프로폴리스 제품을 만든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렸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려고 임상실험까지 해가면서 결국 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까지 꾸며댔다. A씨 일당은 2만5000원짜리 제품을 12만8000원, 8만원짜리를 39만80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585명에게 8억원어치를 판 혐의로 5명이 붙잡히고 그중 1명은 구속됐다. 이 조직은 노인들을 회원제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회사를 이용한 떴다방도 있었다. B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울산 광주 전주 등 전국 18곳에 주식회사 형태로 지역센터를 열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처럼 노인들을 유인했다. 현미와 밀 등을 섞어 만든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했다. 암 뇌경색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 중인 노인들이 절박한 심정에 넘어갔다.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1.txt

제목: 기도·말씀선포·회개·성령충만 “4가지 충족돼야 부흥”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6154509001  
본문: “지금처럼 한국교회에 부흥이 목말랐던 시기도 없습니다. 침체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여년 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총신대 박용규(58) 역사신학 교수가 세계부흥운동 역사를 추적해 최근 1004쪽짜리 ‘세계부흥운동사’(생명의말씀사)를 펴냈다. 박 교수는 2000년 저서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백주년기념대회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홍재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재직할 때 이단을 해제하자 교수 170명과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가 결국 승소하는 등 이단척결에도 관심이 많다. 박 교수는 15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부흥과 이단문제의 관계에 대해 “<span class='quot0'>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본질을 회복하고 이단에 빠질 일도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바른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 각성운동도 일어날 수 없다</span>”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부흥현장 32곳을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았다. 2006년부터 1년간은 미국 예일대 객원교수로 전 세계 부흥운동과 관련된 서적 200여권을 수집했다. 미국 인도 중국 호주 노르웨이부터 카리브해 섬나라에 이르기까지 전개됐던 부흥운동을 살펴본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부흥이 오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지금처럼 40년 넘게 부흥이 임하지 않았던 적도 없습니다. 20세기 초 전개된 원산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 백만인구령운동, 1920년대 김익두 부흥운동, 1930년대 성결교부흥운동 이용도부흥운동, 1950년대 부흥운동, 1970년대 빌리 그래함 복음전도 운동과 대중전도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운동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부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병적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암 수술을 받았지만 펜을 놓지 않았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부흥운동이 해당 국가의 교회와 사회, 민족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위대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span class='quot0'>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선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부흥을 경험하려면 부흥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 말씀 선포, 철저한 회개, 성령 충만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강한 반기독교운동과 심각한 교회 분열·침체, 이단세력의 왕성한 발흥이라는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span>”고 진단했다. 이어 “하나님께선 40년간 부흥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영적 기름 부으심, 즉 부흥을 주시고자 한다”면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간절히 사모하자”고 강조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2.txt

제목: [여의도 포럼-엄상익] 마음이 추운 젊은 노인들에게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6154413001  
본문: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에게 막차시간을 물을 때였다. 역무원은 내게 ‘어르신’이라고 했다.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 노인이라는 소리였다. 영원할 것 같던 젊음이 언제인지 모르게 소리도 없이 잦아들 듯 소멸했다. 30대 때 나는 60대인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 없었다. 노인들의 삶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십년 후면 대한민국 노인이 1000만명을 넘는다는 통계를 읽었다. 사업에 실패한 대학동창이 폐지 줍던 일을 털어놓았다. 하루 5000원을 받는 리어카를 빌려서 폐지를 찾아 헤매다 어느 날 멀리 신문지 뭉치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운 좋은 순간이었다. 그는 리어카를 끌고 급하게 가다가 옆에서 카트를 끌고 절뚝거리면서 그 폐지를 향해 가는 노파를 보았다. 그는 순간 ‘이러고도 살아야 하나?’라는 서글픔이 속에서 울컥 솟아올랐다고 했다. 늙고 병들어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는 노인들이 많다. 그들의 가난은 게을러서도 아니고 학력이나 경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허덕이다 보니 보랏빛 노을의 황혼이 된 것이다. 얼마의 퇴직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도 흔했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예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예수도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인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가난과 불행을 사회와 국가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공허하다. 물론 생존이 걸린 늙고 병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게 함께 사는 사회다. 그러나 장수하는 시대에 방황하는 젊은 노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보다 의미와 자기 정체성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70대 초반의 노인은 동네 주유소에 기름 총을 잡으러 간다. 알바를 해도 품값을 더 싸게 받고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그는 가난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다. 몇 년 전 달동네 임대주택에서 암에 걸린 채 혼자 죽어가는 시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소년시절 정비공을 하면서 그는 두 일간지의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천재였다. 외롭고 가난한 노년임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편하게 임대 아파트에 누워있을 수 있게 해 준 정부의 복지정책이 고맙다고 했다. 동네 중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남은 밥과 성당의 신도들이 가져다주는 반찬에 황송해했다. 그는 꽃에 매달린 아침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했다. 그는 죽기 전날에도 시를 쓰다가 저세상으로 갔다. 그 시절을 살았던 아동작가 권정생씨의 삶이 담긴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폐병에 걸린 그는 어린 시절 집에서 나왔다. 형제들이 많은 그는 입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깡통을 들고 거지가 되어 이집 저집을 돌아다녔다. 밤에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그는 항상 품에 성경을 넣고 다녔다. 성경 속의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는 위로를 받았다. 평생을 병과 친구하며 소박하게 살던 그는 아동작가가 되어 받은 인세를 힘든 사람들에게 내놓고 죽었다. 가난해도 줄 수 있었던 그는 부자였다. 지금 노인세대의 핏속에는 가난을 이겨내는 강한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낙후되고 가난한 국가에서 히말라야보다 높은 보릿고개를 넘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조받은 밀가루와 구호품인 헌옷들을 입고 자라났다. 대학을 졸업한 백수가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사직공원 벤치에서 오후를 보냈다는 시도 있다. 노년에 몸보다 마음이 추운 경우도 많다.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기다릴 게 아니라 현명한 노인이라면 스스로 찾아나서야 하지 않을까. 인도에서는 60세 노인이 되면 숲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숲에서는 신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북한산 자락에서 노년에 경전을 읽는 생활을 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삶의 의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엄상익 변호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3.txt

제목: [미션 & 피플] 미자립 교회 목사·사모에 성형수술 봉사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5154115001  
본문: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2번 출구 인근 파티마의원을 찾은 이들은 계단을 오르다 주춤한다. 병원을 찾아왔는데 교회에 들어서는 듯한 착각 때문이다. 계단 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예쁜 글꼴이 붙어 있다. 이 의원 원장은 남궁설민(66).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소할지 모르나 40대 이상이면 “아!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하고 반응한다. 1980∼90년대 미용 성형이 흔치 않던 시절 성형시장을 형성해낸 성형외과 의사 1세대이자 그 분야 최고 권위자였다. 그가 80년대 말 서울 압구정동에 성형외과 병원을 개업한 후 이 지역에 성형외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지금 압구정거리는 ‘성형외과 의료산업 기지’가 되다시피 했다. 해외 의료 고객으로 병원마다 특수를 누린다. 그런데 그는 성형 특수와 무관하게 살아간다. 여전히 현직 의사로서 활동하지만 정작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비만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를 지난 12일 만나봤다. -목사님들에게 인기가 좋으시던데요. 이 얘기에 그는 쑥스러워 안절부절못했다. 수년 전부터 미자립교회 목사와 그 사모 등에게 성형수술 봉사를 해왔는데 그것이 알려져서였다. 그는 의료법상 꼭 필요한 최소 비용만 받고 자신의 달란트를 바쳤다. “허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그리한 건데…. 물질로 섬긴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가벼운 성형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눈 처짐 등 얼굴이 불편한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분들은 직분이 그렇고, 형편도 어렵고 해서 수술은 생각도 못하시죠.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당황하십니다. 20여명 정도 시술했습니다.” -치료적 성형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경기도 외곽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눈 처짐 때문에 성경 읽기가 불편하셨어요. 제게 시술받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감사편지를 보내 오셨어요. 한 사모님은 어린 시절 입은 얼굴 화상으로 늘 콤플렉스에 시달렸는데 가난한 목회자 사모이다 보니 수술할 꿈도 못 꾸셨죠. 제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힘닿는 데까지 해야죠. -병원이 교회 같습니다. “일하는 자리가 병원, 교회, 학교 기능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국교회 시작도 그러했잖아요. 세 기능의 본질은 나눔입니다. 병원은 진료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와 배움 공동체 공간도 있습니다. 매일 12시면 소규모 예배가 이뤄지고, 성경공부와 건강강좌 등도 이어지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스타 의사’로 잡지와 방송 등서 섭외하느라 애먹을 정도였죠. 국내 3대 대기업 자동차와 패션광고 모델을 동시에 하셨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건가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화여대 앞에서 돈 벌어 압구정에서 개업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한데 어느 날 수술환자가 숨을 거둔 거예요. 의료사고죠. 반응이 없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환자를 살려주십시오. 매달렸어요. 그러자 의사인 제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처럼 숨이 돌아왔어요. ‘아, 나는 티클 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 사건 앞서 피아니스트인 여성 골수암 환자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은 상태에서도 연주를 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인가요. 암 환자 치유에 전력하셨죠. “뉴아이(NEW I)암치유센터를 통해 기도 중심의 치유를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죠.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에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지금 성형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나이 들어가는 얼굴 참 좋아요. 성형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어야 하죠. 안 할 수 있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알고 나서 후회되는 게 많았습니다.”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4.txt

제목: [오늘의 설교] 거룩한 두려움을 만나세요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5154122001  
본문: 현대인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정신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두려움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을 망가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리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본문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두려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span class='quot0'>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span>”(37절) “<span class='quot0'>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span>”(38절)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은 분명 두렵습니다. 큰 광풍이 인생을 긴장시키는 두려움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외침, 예수님을 깨울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불이 나면 물로 끄듯이, 시험이 오면 주님을 찾는 기도로 끄면 됩니다. 제자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고, 깨웠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찾지 않은 채 그 어려움에 함께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감 열등감 우울증 불안감 무력증에 젖어듭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span class='quot0'>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span>”(39절)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span class='quot0'>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span class='quot0'>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span> 하였더라.</span>”(40∼41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신성을 체험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목격할 때 갖는 신적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신적 임재 앞에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합니다(41절).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올 때,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대함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오며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물음은 “<span class='quot0'>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span>”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오며 벌벌 떨며,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 우리 주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두려움을 만납시다.주도홍 목사(백석대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5.txt

제목: [책과 영성] 이 시대 미생들을 위한 17인의 따뜻한 위로  
날짜: 2014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3153947001  
본문: “회식 때 술을 몇 번 거절했더니 융통성 없다는 소리나 듣고 대인관계가 엉망이에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직장사역연구소 대표 방선기 목사는 이 시대 ‘미생’들을 위로한다. “교회와 세상, 일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아야 할뿐더러 세상에 하찮은 일도, 하찮게 대해도 되는 일은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의식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133쪽) 미국 유학시절, 방 목사는 아르바이트로 빌딩 청소를 하며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자 청소일마저도 하나님의 수업과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목사’라는 공통적인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멘토들의 이야기다. 방 목사를 비롯해 고훈 김명혁 김해성 명성훈 박성민 박종화 박형규 서정인 손인웅 신민규 정태기 정현구 지형은 최일도 한진환 목사와 얼마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방지일 목사까지 모두 17인의 목회자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 그러다가 한줄기 빛인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답과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책에는 이들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보석 같은 성경 구절이 들어 있다. 그 역시도 ‘미생’이었던 방선기 목사에게 빛이 됐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이다.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는 스무 살 청춘에 찾아온 폐결핵 말기 판정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유효기간 하루짜리인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시절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한줄기 빛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이다. 12년 전에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고 목사는 여전히 즐겁게 사역 최일선에서 외친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벅차게 사랑하다 가볍게 떠나자.”(25쪽) ‘밥퍼’ 최일도 목사는 청량리 노숙인을 시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병원까지 설립했다. 이런 열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는 말씀에서 비롯됐다. 최 목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위대한 힘’을 소개한다. “사랑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가장 작은 것을 크게 하여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그 사랑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258쪽)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것을 넘어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에서 아동 사역에 온 힘을 쓰고 있다. 그의 인생을 갈라놓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이다. “<span class='quot0'>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span>” 책에는 사랑을 깨닫고 행복해지는 법, 잃었던 자존감을 올바로 세우는 방법, 풀리지 않는 대인관계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멘토들은 ‘도대체 옳다는 건 무엇일까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인생에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등 시대가 던지는 고민들에 대해 각각 답을 내준다. 책이 더 마음에 와닿는 이유다.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내 인생을 비춰주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래서 얻은 내 삶의 열매는 또 무엇인지를 말이다.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6.txt

제목: [책과 영성]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날짜: 2014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3153938001  
본문: 지금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는가.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다는 전화 한 통에, 가족이 큰 시련에 빠졌다는 소식에, 카드 빚으로 파산해 막막할 때,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깨질 때,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등의 파도가 밀려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절망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아주 잘 나가는 목회자로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삶의 정상에서 3년 동안 깊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 차를 받아 이 질긴 목숨 끊어 주면 좋겠다.</span>”(18쪽)저자는 정말로 죽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절대로 입 밖에 내뱉지는 못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는 대번에 배부른 소리라는 핀잔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였다. 번듯한 집도 있었고, 남들처럼 빚을 진 것도 아니었으며, 몸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 밖에서 보면 자살 충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빡빡한 일정과 산더미 같은 책임에 치여 살다 보니 더 이상 힘들어서 살기 싫은 지경에 이르렀다. “약의 도움을 받아도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발작이 찾아왔다. 늘 걱정에 시달렸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했다. 매일같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21쪽) 과연 탈출구가 없는가? 혹시 스트레스와 근심을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저자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린 순간, 인생은 표류하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책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땅, 걱정이 아닌 평안의 땅, 자포자기가 아닌 자유의 땅, 그 땅으로 안내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307쪽) 이 책의 결론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유머와 솔직한 고백, 빛나는 통찰이 어우러진 이 책을 읽다보면 우울증, 걱정, 스트레스, 근심거리 등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억눌림’에서 ‘누림’으로 해방되는 비결도 알려준다. 저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뉴스프링교회의 담임목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목회자 중 한 명이다. 그가 개척한 이 교회는 2000년 당시 150여 명의 성도로 첫 예배를 시작해 현재 앤더슨과 찰스턴, 콜롬비아, 플로렌스, 그린빌 등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의 10여 개 캠퍼스에서 매주 평균 3만2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멀티사이트 교회로 성장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7.txt

제목: 기쁜소식선교회 피해자들 “박옥수 구속하라”  
날짜: 2014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2153839001  
본문: ‘기쁜소식선교회’ 피해자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70)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옥수씨는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운화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 등 87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전주지검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최근 기각됐다. 피해자 전해동(40)씨는 “박옥수씨는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신도와 가족들에게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한 ㈜운화 주식을 주당 10만∼50만원에 팔았다”면서 “이는 그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운화가 만든 건강식품 ‘또별’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옥수씨의 거짓말에 속은 870여명은 지금 가정파탄 직전에 있다”면서 “사법부는 세월호 배후로 지목된 유병언씨가 수사 착수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교집단 교주인 박옥수씨를 공익 차원에서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도 “박옥수씨의 말만 믿고 말기암 환자였던 시어머니 치료를 위해 또별을 7000만원어치 구매했다”면서 “교회에서 병원치료를 받으면 또별의 효능을 알 수 없으니 또별만 먹으라고 권해 시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주모씨도 “피땀 흘려 번 돈 중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교회에 주식매각을 문의했지만 ‘알아서 처리하라’며 매입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 단체와 박옥수씨는 운화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다만 또별을 복용하고 좋아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span>”고 답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8.txt

제목: 경매로 팔린 노벨상 메달 원주인인 왓슨에 돌아간다  
날짜: 2014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1153511001  
본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86·사진)이 생활고에 쫓겨 경매로 팔았던 노벨상 메달을 돌려받게 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9일(현지시간)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아스널을 소유한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61) 회장이 지난 4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75만 달러(약 53억원)에 산 왓슨의 노벨상 메달을 돌려줄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스마노프 회장은 부친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span class='quot0'>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도우려고 경매에 참여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뛰어난 과학자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정당한 주인’에게 선물로 돌려주려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내가 지불한 돈은 과학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왓슨은 2007년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흑인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능력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서구의 아프리카 정책은 잘못됐다</span>”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노벨상 메달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1'>그간 나를 지원해준 여러 교육기관에 기부할 돈이 필요했다</span>”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19.txt

제목: ‘백발연인’의 76년 리얼 로맨스  
날짜: 2014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10153211001  
본문: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인터스텔라’ ‘퓨리’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초겨울 극장가를 장악한 가운데 소소한 스토리의 다양성영화 2편이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나란히 개봉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꾸뻬씨의 행복여행’이다. 대작에 비해 상영관은 많지 않지만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며 흥행몰이 중이다. 8일 현재 ‘님아…’는 27만여명을 동원하며 전체 개봉작 중 3위를 차지했다. 한국영화로는 ‘빅매치’를 제치고 1위다. ‘꾸뻬씨…’는 9만3000명을 모으며 8위에 올랐다. ◇노부부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감독 진모영)는 76년간 해로했던 노부부의 가슴 아픈 이별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강원도 횡성의 한 마을에 사는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강계열 할머니는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금슬 좋은 부부다.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는 이들은 매일 신혼처럼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 꼬마를 묻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은 점점 약해져 간다. 갈수록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애틋함이 화면에 가득하다. 올해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86분. 전체관람가. ◇행복의 의미 일깨우는 힐링 무비=‘꾸뻬씨의 행복여행’(감독 피터 첼섬)은 프랑수아 를로르의 베스트셀러 동명소설을 영화한 작품이다. 매일 같이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영국 런던의 정신과 의사 헥터(사이먼 페그).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렸다. 보고 나면 행복해지는 영화로 ‘연말 힐링 무비’라는 평가와 함께 호응을 얻고 있다. 핵터는 여행 과정에서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은행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프리카의 마약 밀매상,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난 말기 암 환자,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해둔 첫사랑 등을 만나 ‘행복 리스트’를 완성해간다. 그리고는 질문한다. “<span class='quot0'>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span>”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결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120분. 15세가.이광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0.txt

제목: [아이들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6] 公교육이 놓친 아이들… 꿈 키울 권리를 許하라  
날짜: 2014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8152752001  
본문: 의사가 되고 싶은 소아암 진우 이야기 “가로가 16㎝, 세로가 20㎝, 높이가 8㎝인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모양의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해. 벽돌은 모두 몇 장이 필요할까?” 선생님의 질문에 진우(가명·17)가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대답했다. “너무 쉬워요. 200장이요.”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20층의 한 강의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병원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다. 옹기종기 둘러앉은 3명의 학생들은 선생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연습장에 무언가를 적었다. 일반 수업과 다른 점은 학생들이 모두 파란 환자복에 머리를 남김없이 민 ‘소아암’ 환자라는 거다. 서울성모병원학교 총괄 책임자 정다운(29·여) 교사는 “<span class='quot0'>2009년 학교를 만든 후 현재 소아암 병동에 입원해 있는 36명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미술, 음악치료 등 다양한 수업으로 아이들 학습을 돕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병원학교 수업을 실제 학교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진우는 병원학교의 ‘모범생’이다.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잡는다.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 진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병원학교다. 부모님과 간호사를 제외한 또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외로움이 몸에 밴 진우에게 병원학교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다. 2년이 넘는 병원생활은 진우를 어른스럽게 만들었다. 아픈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투정만 부릴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열심히 공부해야 ‘의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다. 정 교사는 진우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소아암이 발견돼 4년간 투병했던 아이였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무사히 끝나 축하 파티까지 했었는데 병이 재발했다. 어머니가 숨겼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 교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span class='quot1'>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아요.</span>” 아이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 병원학교에 나왔다. 좀 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span class='quot1'>그때 생각했어요, 병원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지를 지탱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하고.</span>” 그러나 병원학교는 현재 전국에 31개뿐이다.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 대학병원은 최근 화상을 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병원학교를 개설하려 했지만 만성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좌절됐다. 정 교사는 “<span class='quot2'>국가 차원에서 병원학교를 더 늘려서 진우 같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줬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느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를 뿐 동호(가명·11)는 오후 8시 이전에 부모를 본 기억이 거의 없다. 회사일로 바쁜 부모를 기다리던 동호는 곧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했고 욕이 늘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공부는 시시했다. 수업시간 내내 딴짓을 하기 일쑤였다.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국어 시험을 보면 10점 안팎의 점수를 받았다. 학습부진아, 동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동호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소속 박은희(43·여) 교사를 만난 건 지난 4월이다. ‘함께걷는아이들’은 학습부진 아동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와 보육원에 지도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방과후 1대 1 지도로 학습 의욕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다. 동호가 다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함께걷는아이들’에 도움을 청하면서 박 교사와 동호의 만남이 시작됐다. 처음엔 유쾌하지 않았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반에는 친구가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어요.” 무엇보다 동호는 꿈이 없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동기가 없으니 의지가 생길 리 없었다. 박 교사는 ‘듣기’에 중점을 뒀다. 동호는 말이 많았다. 방과후 외로운 시간들, 부모에 대한 원망, 학교 다니기 싫다는 얘기까지 속내를 털어놨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호는 조금씩 변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전투기 조종사’라는 자신의 꿈도 박 교사에겐 슬쩍 알렸다.‘조종사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박 교사의 말이 방아쇠가 됐다. 동호는 교과서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박 교사가 10∼20번 반복해 가르쳤다.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변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동호의 국어 성적이 55점으로 올랐다. 30점대에 머물던 수학도 75점으로 껑충 뛰었다. 박 교사의 ‘집중마크’가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한번도 웃지 않던 동호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던 게 눈에 아른거린다는 박 교사는 ‘우회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친구들은 갈 곳이 없어요. 공교육이 놓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1.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대장내시경 검사, 3∼5년 주기로 받아야  
날짜: 2014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6152702001  
본문: “작년에 했는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올해 또 받아봐야 할까요? 평소 배앓이를 자주하는 편이라….” 요즘 제가 우리 회사 동료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60대 초반의 여배우 김자옥씨 때문에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탓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50대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50대 이후 장·노년층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암으로 변할 여지가 있는 1㎝ 이상의 대장용종이 발견돼 절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자주, 즉 3년 주기로 한 번씩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의 보고에 따르면 1㎝ 이상 크기의 용종이 장 속에서 두 개 이상 발견돼 절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장차 대장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반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절제한 용종이 한 개뿐이고 크기도 1㎝ 미만일 경우엔 대장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불규칙한 식생활 등 발암 위험인자를 가진 일반인보다 25%나 낮았습니다. 이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필요 이상 자주 받는 것보다 평소 술·담배와 고지방식 섭취를 자제하고 스트레스 피하기 등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노력이 대장암 예방활동에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2.txt

제목: [2014 겨울 서적특집] 순교의 땅에서 되새겨본 순종의 의미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5152350001  
본문: 책은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순종은 처음이고 또 끝이라고 말한다. “누구도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순종의 자리에서는 좌절을 겪지 않았고,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책은 핍박과 순교의 땅에서 날아온 삶의 도전장이다. 순종을 잃어버린 세대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걷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쓰라린 주님의 마음, 배는 부르지만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매여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저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암 9:11∼12)은 예배의 장막을 의미한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건강해 보이지만 타락해가고 있는 공동체의 몸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10여년 전, 어린시절 품어왔던 축구선수의 꿈을 접고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해 여러 나라를 탐방하다 그의 눈과 심장에 심겨진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가족은 한국에 남겨둔 채 테러의 공포로 불안한 그 땅에서 묵묵히 순종했다.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위해 한국에 돌아온 그는 너무나 변해버린 이 세대의 모습에 깊은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저자는 지금 또 다른 땅에 서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땅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한다. 이전보다 더 척박하고 외로운 곳, 영적 최전방의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으로 싸워 나간다(02-578-0003).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3.txt

제목: [슬로 뉴스] 증인 없는 故신해철씨 ‘영상 유언’ 법적 효력 없다는데… 웰다잉의 마침표, 유언장 쓰기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5152400001  
본문: “<span class='quot0'>만일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한 번 당신의 남자친구이기를, 당신의 남편이기를 소원합니다.</span>”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씨는 숨지기 전 따로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다. 3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찍은 동영상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영상에서 “<span class='quot0'>만약 내게 재난이 닥쳐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남기는 이야기, 편지, 그리고 제 유언장</span>”이라며 아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많은 이들에게 유언장 작성은 죽음을 재촉하는 불길한 행위쯤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종 직전에나 해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삶의 흔적을 정리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다. 정리의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4일 “<span class='quot1'>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장은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힌 것이 맞는지 애매할 때가 많아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span>”고 설명했다.날짜, 주소, 이름, 날인은 ‘필수 항목’ 유언장은 미리 작성해 두는 편이 좋다.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로이자 배려다. 세상을 떠난 이후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유언 관련 사건은 지난해 262건으로 2004년 118건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유언장 작성은 복잡하지 않다. 몇 가지 유의점만 숙지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유언장은 직접 손으로 쓴 자필유언이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복사된 자필유언장도 효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작성 연월일(年月日)과 주소, 이름, 날인이다. ‘2014년 11월 여의도동에서 홍길동’이라고 쓴 유언장은 어떨까? 이런 유언장은 무효다. 대법원은 날짜와 주소를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홍길동씨는 날짜를 빠뜨렸고, 주소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특히 연월일은 유언장이 여러 장이 발견됐을 때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절대 빼먹어선 안 된다. 이름은 자기 성명뿐 아니라 집에서 불리는 예명 등을 써도 상관없다. 유언자가 누군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 날인은 인감도장, 지장 모두 가능하다.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통상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연금 등 재산분할 내용과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는다. ‘뒷산에 묻어 달라’ ‘화장해 달라’ 식으로 장례방식을 적어두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주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컨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거나 은행에 돈 관리를 맡기는 신탁, 재단설립, 상속재산 분할 금지, 어린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정 등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유언을 제대로 집행할 믿을 만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정해 기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해철 ‘영상 유언’ 법적 효력은 없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한 유언 영상 만들기도 유행하고 있다. 민법은 영상이나 육성으로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녹음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유언자가 내용과 자신의 이름, 연월일을 또박또박 말하면 된다. 다만 자필 유언과는 다르게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은 유언장 녹음 또는 촬영 시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는 확인을 하면서 이름을 말하면 된다.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신해철씨 유언 영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다. 증인의 수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통상 2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복잡해서 싫다면 공증인을 찾아가면 된다. 2명 이상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대신 작성하는 식이다. 형식 등은 공증인이 알아서 작성해주니 수고를 덜 수 있다. 약간의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처럼 사망 이후 법원의 검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기본양식 지키면 언제든 수정 가능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다. 비밀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자기 이름을 기입한 유언장을 봉투 등에 담아 밀봉한 뒤 밀봉한 부분에 도장을 찍는다.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밀봉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 봉투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다는 사실만 확인받으면 된다. 봉투 겉면에 제출 연월일을 쓰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출 연월일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법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 쓴다.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말하고, 증인 중 1명이 이를 받아 적는 식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 검인을 받지 못한 유언은 무효다. 개그우먼 이성미씨는 노트에 매일 유언장을 써 나가고 있다고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말했다. 이씨는 “암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영영 못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이후 노트에 여러 가지를 적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편지도 써놓고, 남겨줄 유산까지 적어 놨다”고 했다. 기본 양식만 제대로 지킨다면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삭제·추가·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살아 있는 동안 재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1년 단위 등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삶을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4.txt

제목: 소설가 복거일씨,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공로상  
날짜: 2014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4152253001  
본문: 소설가 복거일(사진)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상하는 시장경제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전경련은 3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제25회 시장경제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복씨를 포함한 3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복씨는 암 투병 중에도 최근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였고, 대표적 자유주의 논객으로 주요 언론사 기고·인터뷰 등으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가치 전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에서도 복씨가 편저를 맡아 자유주의자 21명의 이념적 여정을 서술한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가 대상을 받았다. 논문부문은 명지대 조동근·빈기범 교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낙수효과를 설명한 ‘처리량 반응 분석에 의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기고부문에서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대상을 받았고, 교육부문에서는 ‘정규재tv’가 일반인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장경제대상은 1990년 ‘자유경제출판문화상’으로 출범해 2005년에 시상 부문을 확대하면서 현재 명칭으로 개편됐다. 이후 2010년에 문화예술부문과 공로상을 신설하며 시장경제 분야의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5.txt

제목: [한국사람들의 인생살이] ‘암 사망’ 男, 女의 두 배 육박하고… 통계청 ‘2013년 생명표’  
날짜: 2014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4152316001  
본문: 남자가 암으로 숨질 확률은 여자의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평균 81.9년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78.5년, 여자는 85.1년으로 남녀 간 6.5년 차이가 났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은 남성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추세가 생기면서 기대수명 차이가 계속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가 5.3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의 남녀 수명 차이는 큰 편이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가 큰 것은 암으로 숨질 확률의 남녀 차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사망 원인 추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출생한 남자가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은 28.1%였다. 2012년 출생아보다 0.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여자도 전년보다 0.3% 포인트 늘어 16.6%를 기록했지만 남자보다는 크게 낮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7배나 되는 셈이다. 실제 암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거할 경우 남자의 기대수명은 4.7년, 여자는 2.8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현재 65세인 남성이 암에 안 걸린다면 기대수명이 3.9년 늘고 여성은 2년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이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숨질 확률도 남자가 9.2%로 여자(5.8%)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모두 더 높았다.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할 때 남녀 모두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4% 포인트 이상씩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심장 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도 증가했다. 반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10년 새 5% 포인트 이상씩 줄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6.txt

제목: 수용자 78명 세례 “회개하고 주님 영접”… 소망교도소 설립 4주년 감사예배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2151930001  
본문: 함박눈이 쏟아진 1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강당에서는 푸른 수의를 입은 수용자 78명이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개소 4주년을 맞은 교도소 강당에서는 감사예배와 함께 이들을 위한 세례식이 열렸다. (재)아가페 이사장 김삼환 목사와 아가페 상임이사인 김상학 목사, 여주교회협의회장 유영설 목사, 서교동교회 우영수 목사는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span class='quot0'>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span>” 수용자들은 작지만 힘차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다. 수용자들의 얼굴엔 진정성이 묻어났다. 그동안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세례자 중에는 강간치상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 4년형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 등도 있었다. 세례를 받은 수용자 함모(39)씨는 간증에서 “술을 마시면 폭행하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암에 걸린 아버지를 이해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 수용자는 난생처음 선물받은 성경을 차분히 읽으며 지은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수용자 30명으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이 ‘키 작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특별찬양을 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한 목회자는 세례를 받은 수용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위로의 하나님’(고후 1:3∼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며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 귀한 삶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삼환 목사는 축사에서 “<span class='quot1'>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건축·개소한 것은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잠깐 실수로 담 안에 갇힌 이들이 우리 사회의 모범 시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꾸준히 예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 서기행 목사는 수용자들이 분노와 자포자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원했다. 이날 세례식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소망교도소 교정선교의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010년 12월 1일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현재 350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371명이 출소해 5.1%(19명)의 재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다른 교도소 재입소율(20∼22%)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인성교육 등을 받은 성범죄 출소자 88명은 아직 한 명도 교도소에 재수감되지 않았다. 심동섭 소망교도소장은 “<span class='quot2'>사람을 가두는 교도소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 소망교도소의 사역은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과 함께 계속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여주=글·사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7.txt

제목: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착공… 2018년 개원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2151837002  
본문: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 새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3일 서울 은평구 통일로변 2만1611.6㎡(약 6538평) 부지 새 병원 건축 현장에서 지하 5층, 지상 16층 800병상 규모의 은평성모병원(조감도) 기공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CMC 산하 9번째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2018년 5월 문을 열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부근에 있다. CMC는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은평성모병원에 최상의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을 구축, 서울 서북부 및 경기 북부권역에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CMC는 특히 심뇌혈관센터를 중점 육성하고 암·호흡기·소화기·장기이식·뇌신경 등 5개 분야도 질환별 특성화 센터로 운영해 다른 병의원들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내과·산부인과·외과, 피부과·정형외과 등 진료과목 벽을 허물어 의사들의 통합진료를 도모할 방침이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8.txt

제목: [헬스 파일] 치약 속 파라벤이 유방암 일으킨다고?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2151845001  
본문: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습관 변화로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14 유방암백서’를 보면 2012년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은 10만명당 52명에 이른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중 최다 발생률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방암 발생에는 환경, 유전적 요인 외에도 여성호르몬 노출기간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초경은 빨랐으나 폐경이 늦은 경우, 임신기간이 짧았던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발암물질 파라벤(parabens)에 자주 노출되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유방 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 파라벤은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첨가물이다. 세균성장을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에 많이 함유돼 있다. 크림, 로션 같은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에도 널리 쓰인다.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파라벤 4종이 주로 사용되며 메틸파라벤은 블루베리, 당근, 올리브 등 천연 성분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행 중 다행히 지금까지 확인되기로 파라벤의 발암 위험은 유방 쪽에서 에스트로겐보다는 많이 약한 편인 듯하다. 유방 조직에 암을 일으키려면 고농도의 파라벤에 장시간 노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라벤이 유방 조직에 흡수돼 얼마나 많이,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 현재 한국, 유럽, 미국의 허용 기준은 단일 파라벤의 경우 0.4%, 혼합물은 0.8%까지다. 그 이상 첨가하면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3세 이하의 어린이도 파라벤 함유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사실 유방암 발생에는 파라벤 외에도 수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파라벤과 같이 특정 물질 한 가지만 콕 집어 주원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파라벤의 장기간 사용이 유방암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 완전히 무해한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파라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한다. 파라벤 사용에 따른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유방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균형 있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길들이고, 30대 이후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자.정승필 고대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29.txt

제목: [‘靑 정윤회 문건’ 파문] 박지원 “아직 문건 10분의 1도 안 나왔다”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2151907001  
본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상설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전날 ‘정윤회 게이트’라고 불을 지핀 데 이어 계속 몰아치는 분위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pan class='quot0'>국정농단 진상규명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빠른 시간 안에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단행하자</span>”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를 향해 “<span class='quot1'>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 법한 해괴한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비선 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span>”고 질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span class='quot2'>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이 때 이르게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권력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고 국정을 망치는 암적 요소</span>”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span class='quot3'>박근혜정권의 구중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3'>비선라인의 국정개입은 적폐이자 단두대에 올릴 대표적 폐단</span>”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4'>문건을 본 사람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아직 (언론에)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span>”고 추가 폭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비대위원은 “<span class='quot4'>문건은 세월호 사고 전인 3월쯤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드디어 터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span>”고 전했다. 문건이 ‘증권가 정보지(짜라시)’를 수집한 수준이라는 청와대의 해명도 적극 물고 늘어졌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span class='quot5'>‘찌라시’ 내용은 확인이 되어야만 보고할 수 있는 것이지, 찌라시 자체만 가지고 보고하지 못한다</span>”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span class='quot6'>청와대가 ‘찌라시’라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span>”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찌라시를 이용하더니 이제는 국정운영조차 찌라시로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상조사단은 정윤회씨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설 등도 거론했다.엄기영 기자 eom@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span class='quot7'>靑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span>”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문건유출 수사 특수부 투입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권력암투설 등 조기 진화… ‘의혹 도미노’ 차단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靑, 유출자 왜 밝혀내지 못하는지 의문 ▶ [실태 분석-‘靑 정윤회 문건’ 파문] 문고리 권력 실태는…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span class='quot7'>3인방 사이 예전같지 않아… 회동 자체가 신빙성 없어</span>”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檢 수사 무게중심은 유출 규명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한때 임야·목장용지 등 부동산 투자… 지금은 거의 ‘빈손’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span class='quot7'>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증인 출석할 것</span>” 정윤회 측 적극대응 ▶ [‘靑 정윤회 문건’ 파문] 의혹 열쇠 박경정 “난 아니다” 되풀이 ▶ [사설] 검찰은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 좌고우면 말라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온열요법은 고대부터 사용 암 치료 기본전략 포함 기대”… 대한온열암연구회 학술대회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9001  
본문: 암 치료방법 중 최근 몇 년 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온열암치료법은 암조직이 정상조직에 비해 열에 약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다. 온열암치료는 암 조직에 열을 가해 암 세포의 괴사와 세포자살을 유도하는 암 치료법이다. 국내에서도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주도로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온열암연구회는 지난달 15일 ‘온코써미아, 기초과학에서 임상까지’를 주제로 제5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방사선 생물학과 온열암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네소타대학교 송창원 교수가 ‘암과의 전쟁에서 온열암치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또한 기초연구 분야로 온열암 치료장비인 ‘온코써미아’의 분자기전, 면역증강제와의 상승효과, 동물실험에서 여러 장비의 비교 및 세포수준에서의 온도 상승기전 등이 발표됐다. 이어 임상연구 분야에서는 국립암센터와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4개 센터에서 실시 중인 온코써미아 임상시험 내용이 제시됐다. 송창원 교수는 “온열요법은 고대로부터 암치료에 사용됐다. 현대에는 암조직에만 가열할 수 있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많은 연구를 통해 암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치료의 주요한 기본 치료 전략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임상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 온열암치료가 기본 치료전략의 하나에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정태식 회장은 “과거 온열암치료도 경험했고 현재의 온열암치료 장비인 온코써미아로 15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으로 본다면, 온열암치료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저평가돼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온열암치료 방향에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앞으로 온열암치료가 암치료의 제4의 기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열암 장비 온코써미아를 공급하는 하스피케어 박혜순 대표는 “온코써미아는 와버그 효과, 센트죄르지 효과, 스촨 효과, 타임 프렉탈 효과 등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정립된 최첨단의 생물·물리학의 이론에 의한 효과를 바탕으로 한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온열암치료 제품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이론과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임상의들이 관심을 갖고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스피케어에 따르면 현재 온코써미아는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종합병원 20여개 등 모두 70여개 국내 병원에서 90여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1.txt

제목: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이성 유방암, 표적치료제 개발로 정복 단계 진입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1001  
본문: 최근 국내에서 유방암 발병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률은 지난 2001년 7165명에서 2011년 1만6015명으로 약 10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유방암의 급증은 최근 여성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로 패스트푸드와 같이 지방함량이 높은 음식섭취로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음주, 흡연, 환경오염에 의한 발암물질 노출 증가가 유방암 발병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획기적인 표적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유방암도 정복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 문제는 유방암 치료 후 암이 재발이나 전이가 잘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이성 유방암’ 편에서는 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전이 또는 재발을 겪은 유방암 환우를 위해 ‘전이성 유방암’ 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그가 유방암 환자를 위해 헌신하게 된 것은 뜻밖의 계기였다. 김 교수는 “2008년 미국 연수시절 우연히 전이성 유방암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했다. 전이 판정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료법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며 “환자들이 이렇게 활기찰 수 있다는 사실이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이성 암환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1%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재발 위험도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환자 10명 중 약 3∼4명 정도는 재발하거나 전이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사람은 90%의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10% 가능성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지워버린다</span>”고 말했다. 환자는 투병을 시작하면서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기에 암이 전이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만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노출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아이를 적게 낳는 등 상대적으로 여성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길어진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비만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이 과잉 생성될 확률이 높아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진다. 유방암 재발 부위는 크게 2가지다. 유방암이 최초에 발생한 유방이나 겨드랑이 등의 ‘국소부위’ 재발이 있다. 또한 암이 뼈나 림프절, 피부, 폐, 뇌 등 피를 타고 퍼지는 ‘혈행성 전이’가 있다. 보통 전체 30%는 뼈에서, 30%는 피부, 그리고 나머지 30% 가량은 장기 등으로 암이 전이된다고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소 부위의 암은 재발이 되더라도 완쾌되기가 쉬우나, 다양한 부위로 암이 전이되면 치료는 좀 더 까다로워진다. 유방암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김 교수는 “암은 천의 얼굴이다.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듯 암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며 “표적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해야 하는 환자도 있고, 호르몬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환자도 있다. 환자마다 적합한 치료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체 유방암 중 약 70%는 호르몬 양성에 의한 것이며, 약 20%는 HER2 양성이 원인이 된다. 나머지 삼중음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암이 발병한다. 호르몬 양성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통해 치료한다. 크게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에 맞춰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HER2 양성 환자의 경우 표적치료제와 호르몬요법 등을 병행해 치료한다. 유방암 치료는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를 병행한다. 국소 치료에는 외과 수술로 유방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치료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가 있다. 유방암 환자는 암이 전이되면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 신체 전반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전신치료에는 항암 화학 치료와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치료가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약물을 사용해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전신치료다. 우리 몸의 일반 세포들은 자라면서 성장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파괴되는 세포주기를 갖는다. 하지만 암세포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일종의 돌연변이 현상을 갖는다. 항암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런 빠른 증식을 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돼 있다. 유방암의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보조적인 치료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화학요법을 해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한다.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도 항암화학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급격히 자라는 암, 암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 간이나 뇌 등으로 암이 다발성 진이가 될 경우, 3가지 약제 이상의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항암화학치료를 병행한다. 유방암을 정복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표적치료제’의 역할도 컸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특정 표적인자를 찾아내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암 치료효과를 높이고 정상세포의 독성을 줄여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다. 특히 HER2 수용체를 표적해 작용하는 표적치료제의 등장으로 암 정복이 가능해졌다. 표적치료제는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다. 유방암 진단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HER2 양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 특성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 항암제는 효과가 좋았으나 건강한 세포까지 모두 사멸시켜 환자들에게 위험부담이 컸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로 인해 치료 부작용은 줄이면서 특정 암세포만 죽일 수 있게 돼 치료효과는 높일 수 있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현재 HER2 양성유방암은 다른 암 보다 새로운 치료 옵션의 연구 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김 교수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표적치료제로 ‘퍼제타’와 ‘캐싸일라’를 설명하며 “<span class='quot0'>퍼제타는 기존 표적 치료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는데, 전체 생존기간이 5년 가까이 연장되는 효과를 입증했으며 캐싸일라는 트로이목마처럼 특정 암세포에 결합한 이후 세포 내에서 화학항암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최소화 하고 치료 효과는 높다</span>”고 전했다. 환자들 중 잘못된 민간요법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에 수천만원을 들이고 정작 제대로 된 의학적 치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암이 전이가 돼도 ‘완치가 가능하냐’ 여부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2004년까지만 해도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견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최근 전이암도 완치하는 사례도 있으며 전이암 생존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은 현재의학 수준에서 항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암의 전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환자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힘써 치료에 힘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병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2.txt

제목: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춤형 치료 어떻게… 진단 시기·병기 따라 다양한 요법 시술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5001  
본문: 유방암은 원인 인자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한 암이다. 암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여부와 암의 병리학적 특징에 따라 치료 접근 전략이 달라진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 및 수술 후 보조요법 등의 순으로 치료를 한다. 하지만 암이 퍼져있거나 수술이 불가능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 요법,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이용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유방암의 원인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유방암 원인에 따라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유방암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국면에 와 있는 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유방암은 진행에 따라 0기에서 4기로 구분한다. 암을 여러 병기로 나누는 이유는 병의 진행과 예후를 평가하고 치료방법에 따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유방암 0기로 불리는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상피 내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WHO에 따르면 암이 아닌 양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기는 침윤성 유방암이라 일컬어지며 암세포가 상피뿐만 아니라 주위 유방조직에 침범한 경우다. 1기는 침윤성 유방암 중 가장 초기로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없고 전신 전이도 없는 경우다. 암 진행에서 매우 초기 단계이므로 재발과 전이가 적어 생존율이 매우 높다. 또한 2기 유방암은 종양 크기가 2cm를 초과하면서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거나 종양 크기가 2cm 초과 5cm 이하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는 경우다. 3기는 더욱 진행된 암으로, 종양 크기가 5cm 이하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심하거나 5cm 초과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다. 4기는 말기로도 불리며, 목의 림프선, 뼈, 폐, 간 등의 전신 전이가 있는 경우다. 종양의 대부분은 유관 및 유엽 세포 등에서 발생한다. 초기에 발생 지점이 유방 관련 조직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전신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혈류 및 림프절을 통해 암 세포가 퍼져 나가 다른 장기에서도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를 유방암의 ‘전이’라고 하는데, 병기 구분 상 4기 유방암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방암의 병기는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로써, 크게 종양의 크기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 폐나, 뼈, 간 등 전신 전이 여부로 나뉜다. 유방암은 암의 병리학적 특징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이 때문에 단일한 치료 요법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암 중 하나다. 유방암은 크게 HER2 수용체 양성 여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부 등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 실제 전체 유방암 중 약 70%는 호르몬 양성에 의한 것이며, 약 20%는 HER2 양성이 원인이 된다. 나머지 삼중음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암이 발병한다. HER2 수용체 양성인 경우 HER2 표적 치료에 반응이 좋으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항호르몬 요법을 사용한다. 또 HER2 수용체 음성, 에스트레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등이 모두 음성인 경우를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비(非)삼중음성 유방암보다 치료 예후가 불량하다. 유방암의 원인에 따라 치료 전략은 천차만별이다.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3.txt

제목: [건강 나침반] 금연 못하는 암환자 지원 적극 나서자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39001  
본문: 담배가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암의 주요 원인의 32%는 흡연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사실 폐암 외에도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은 물론이고 췌장암, 신장암, 구강암, 임후두암, 식도암 등 흡연 여부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하지만 담배의 폐해를 아는 것과 실제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 보다. 얼마 전 흡연자 중 53%가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 놀라운 것은 상당수가 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를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대한암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나 행사에서 만나는 암 환자들에게서도 금연에 자꾸 실패하여 괴롭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한다. 이처럼 담배의 치명적인 중독성은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따라서 암에 걸려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는 암환자들이 담배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담뱃세 인상과 함께 정부가 논의 중인 금연 지원 정책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연 지원 정책은 이번 담뱃세 인상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미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금연 치료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암환자들이 암 치료와 더불어 금연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진들이 적극적인 금연 진료 및 금연 치료제 보험 급여, 암환자들도 참여 가능한 종합 금연 프로그램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금연 지원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지난 50년 가까이 대한암협회가 우리나라의 암 퇴치를 위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바로 암 예방이다. 암은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도 예방이 가능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임이 분명하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과 같은 생활환경 및 습관만 개선하더라도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금연 지원을 통해 암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이뤄내길 기대해본다. 윤형곤 대한암협회 기획팀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4.txt

제목: [암 수술 잘하는 병원-이대여성암병원] 유리피판술로 유방암 절제시 재건술도 병행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7001  
본문: 최근 유방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유방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치료 후 삶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잃을 수 있는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시 유방 보존술을 선택하거나 완전 절제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유방 재건술을 선택하게 된다. 유방 재건술은 불가피하게 유방을 잃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유방을 다시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보형물과 뱃살로 자기 가슴 만들어=임우성 이대여성암병원 외과 교수는 “유방 절제를 한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상실감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생존율이 높은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유방 재건술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방 재건술과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오해도 잘못된 인식이다. 임 교수는 “전이성 유방암인 경우에도 유방 재건술을 시행한다. 유방암 재발과 전이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이대여성암병원이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며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유방 재건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방 재건술은 자신의 조직을 이용한 자가조직 재건술과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로 나뉜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유방 확대 수술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을 암세포가 제거된 빈 공간에 채워서 반대쪽과 모양을 맞추는 것이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자가 조직 이식보다 수술 시간이 짧고 상처가 적은 것이 장점이지만, 원래 가슴 모양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고 방사선 치료 때 보형물의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신의 신체 일부 조직을 이용한 자가 조직 재건술은 배와 등에 있는 조직을 이용하는데 대부분은 뱃살을 이용한다.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형물보다 몸 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느낌이 적고 자연스러운 모양의 가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암 수술과 유방 재건술 동시 시행, 환자 부담 줄여=이대여성암병원은 암 세포 제거와 유방 재건을 한 수술에서 동시에 하는 유방 동시 재건술을 시행해 환자들의 여성성 상실 기간과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유방 동시 재건술은 유방암 수술에서 암 조직과 관련 조직을 제거한 후 곧바로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 번의 전신 마취 수술로 암 세포 제거와 유방 재건을 시행해 환자들의 수술 부담을 낮추고, 입원 기간이 짧아 수술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방 절제 후 올 수 있는 상실감이 없고 암 치료 후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임우성 교수와 협진으로 유방 재건술을 담당하는 서현석 성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가 조직을 이용한 동시 재건술은 유방에 남는 흉터의 길이가 짧고 재건 후 유방의 모양도 지연 재건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span>”고 설명했다. 특히 이대여성암병원의 경우 외과와 성형외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 100여 건의 유방 동시 재건술을 시행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임우성 교수는 “당일 진료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당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낮춘 자가조직 유방 동시 재건으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우성·서현석 교수팀은 환자 유방 본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최소 절개를 통해 암세포 제거와 유방 재건을 실시한다. 기존 복부의 혈관 줄기를 끌어오는 ‘유경피판술’ 대신 현미경을 이용해 피판조직의 혈관을 직접 내유동맥에 연결하는 ‘유리피판술’을 시행한다. 이는 현미경을 이용해 미세한 혈관과 신경을 일일이 연결해주는 고난도의 수술이지만 지방조직의 괴사가 거의 없고 미용적으로 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방 동시 재건술은 암 세포를 제거하는 외과 의료진과 가슴을 재건하는 성형외과 의료진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대여성암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5.txt

제목: 제주에 동북아 최고 암 전문 병원 설립 첫 발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05003001  
본문: 제주도에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립 추진 중인 ㈜유니드파트너스는 30일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과 최근 중입자암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본 계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니드파트너스는 제주도 내에 9만9000㎡(3만여 평)의 부지를 마련, 2016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첨단 암 치료 병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다. 이 치료 방법을 이용하면 암세포 밑에 숨어있는 기저암까지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간암, 두부경부암, 폐암에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주변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와 같은 특정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 유니드파트너스는 향후 제주한라병원과 응급의료 처치 지원과 암 검진 및 진료, 중입자 치료계획 수립, 환자 요양까지 병원 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드파트너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내년 초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착공식을 가질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와 별개로 독일에 500명의 암환자를 보내 중입자 가속기로 치유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6.txt

제목: [암과의 동행-알아두세요] 유방암의 숨은 복병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2001  
본문: 유방암은 5년 생존률 90%를 상회하는 치료가 상대적으로 ‘쉬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병기와 암의 특성에 따라 같은 유방암이라도 치료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 5년 생존률이 90%를 웃도는 유방암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한 경우다. 폐나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인 4기 유방암의 경우,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사망한다. 또 조기에 발견돼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및 전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방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재발 해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어 다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려 10년 뒤에도 재발 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 및 전이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스트레스 요인이다.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9명의 유방암 재발 환자 및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재발로 인해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이 신체적, 기능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이성 유방암(3기∼4기)은 초기 유방암과 치료 접근방법이 다르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유지가 주요한 치료 목표다. 따라서 암 치료에 대한 반응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여부와 HER2 수용체 양성 여부를 구분하여 치료한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HER2 수용체 양성 중 예후가 좋지 않은 유방암은 HER2 양성 유방암이다. HER2 수용체는 정상세포 및 암세포의 표면에 모두 존재하며, 세포의 성장 및 분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HER2 수용체가 암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HER2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재발 위험이 높고 생존기간이 짧다. 유방암 환자의 대략 25% 가량에서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HER2 수용체만 표적해 작용하는 일명 표적치료제가 등장했다. 표적치료제는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도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HER2 양성인 경우 표적 치료를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유방암 진단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HER2 양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 오늘 날 유방암 환자들의 95%가 HER2 수용체 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및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이성 유방암이면서 HER2 양성인 경우 표적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표적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할 경우 치료 효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치료제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HER2 표적치료제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HER2는 다른 HER 수용체들과 결합해 짝을 이루는 ‘이합체화’라는 과정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 촉진 신호를 보내게 된다. 최근 이런 이합체화 과정에서 HER2 수용체를 표적해 짝을 이룰 수 없도록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가 등장했다. 또 유방암에서도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 구성성분이 결합한 기전의 항체-약물접합체가 개발됐다. 항체-약물접합체는 암 세포를 표적하는 항체를 사용해 세포독성 약물을 종양세포에 직접 전달 할 수 있어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 구성요소의 장점이 조합된 치료제다. 이런 치료제들의 발전이 재발 및 전이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7.txt

제목: [한세준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전 아직 서른도 멀었는데”… 자궁경부암 진단 젊은 여성의 탄식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0001  
본문: 9년 전 이맘때쯤으로 기억한다. 가을비가 내리는 11월 오전에 젊은 여성과 엄마로 보이는 중년 부인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왔다. 차트를 자세히 보기도 전에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린다. “<span class='quot0'>교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 주세요,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고….</span>” 서울 모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자궁을 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는 필자를 찾아온 환자 엄마의 절규였다. 필자가 처음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자궁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은 거의 45∼60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겨졌다. 즉 아이를 다 낳은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가임기 젊은 여성에게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어 버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1999년 이후 연평균 약 4%씩 줄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여성에서는 매년 거의 5%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생활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어려지고 젊은 여성들의 음주, 흡연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있는 환자들에게 지난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의사 입장에서는 현재 환자 상태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치료법으로서 임신을 원하는 자궁암환자 등에게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치료법 이야기가 나왔으니 치료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암치료의 치료율은 완전관해와 부분관해를 포함한 반응률로서 평가된다. 그런데 소위 화학요법이라고 칭하는 약물들의 치료율을 보면 약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분관해를 포함한 치료율이 어떤 약물은 30%, 어떤 약물은 50% 정도 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머지 50∼70%의 환자는 치료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암치료가 어렵다는 말이고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몇 개월 생명 연장의 근거로 또는 50% 미만의 치료율을 보이는 약물들을 신약으로 또는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광역학 치료는 그 치료율이 화학요법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물론, 암의 종류나 병기의 구분에 따라 치료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필자가 시술하고 있는 광역학 치료는 그 동안의 치료 경험의 축적과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치료율이 거의 80∼90%에 이른다. 실로 놀라운 치료율이 아닐 수 없다. 9년 전 절망 속에서 필자를 찾아왔던 환자는 광역학 치료 후 정기적 추적관찰 중 완치되어 결혼해 정상 임신과 만기 출산 후 현재 건강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필자는 산부인과 의사이기는 하지만 남자여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의 위대함을 감히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임기의 젊은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는 감사의 소식을 전해 올 때면, 마치 내가 아기를 낳은 것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곤 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임신과 출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광역학 치료는 대중화되지가 않았다.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초기 치료가 시술 후 약 4주 정도 빛을 차단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불편한 단점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광민감제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이 광역학 치료가 반드시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오늘도 가져본다. 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부인종양학)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8.txt

제목: [우리동네 주치의] 20~30대 대장용종 발생 늘어… 내시경 검사로 조기발견 중요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32001  
본문: “최근에는 기름진 육류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암 위험인자인 용종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속편한내과의 김배환·이준혁(사진) 원장은 “대장암의 위험인자로는 동물성 지방식인 육류, 대장 용종, 염증성 장질환, 가족력 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대장암 위험인자인 ‘대장용종’ 치료와 대장암 예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인 암 발병 남성 2위, 여성은 3위인 ‘대장암’. 특히 대장암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는 대장용종이 있다. 대장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돼 장의 안쪽으로 돌출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대장용종은 발생하더라도 대개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김배환 원장은 “<span class='quot0'>용종은 발견되면 가능한 제거하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전 단계이므로 반드시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선종의 크기가 2cm 이상일 경우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40%에 육박한다. 그는 “<span class='quot0'>특히 가족력이 있는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검사는 필수</span>”라고 말했다. 선종성 용종의 원인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인자와 동일하게 고지방식 식습관, 비만, 음주, 흡연 및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그 사람의 나이, 얼굴, 생활패턴만 봐도 이제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40∼50대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는 남성이라면 용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pan>”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에서 10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연령이 대부분 40∼60대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인 30대부터 꾸준한 관리를 기울여야 한다. 김 원장은 “요즘은 20∼30대 젊은층에서도 간혹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준혁 원장은 “<span class='quot1'>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한편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엇보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용종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39.txt

제목: 감마나이프, 전이성 뇌암 치료 대표주자 부상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37001  
본문: 감마나이프는 뇌종양과 뇌동정맥 기형 삼차신경통 등을 방사선으로 수술하는 첨단 장비다. 이 시스템은 201개의 방사선원을 반구모양의 헬멧 내에서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으듯 한 군데로 집중해 조사함으로써 정상 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병적 조직에 대한 방사선 조사량을 극대화해 집중적으로 병변을 파괴 또는 괴사시킨다. 이른 바 칼을 쓰지 않는 수술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폐암 또는 유방암 등의 전신 암의 뇌전이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뇌수막종, 청신경종, 삼차신경종 등의 양성 뇌종양, 뇌동정맥기형, 해면상혈관종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그 외에 삼차신경통과 같은 기능성 뇌질환, 일부 재발성 악성 뇌종양 등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간질, 진전증, 파킨슨병 같은 난치성 질환에도 적용되고 있다.주부 조현주(43·가명)씨는 일주일 전부터 약을 먹어도 계속되는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조씨는 2005년 7월 왼쪽 유방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5년간 경과를 관찰하던 중이었다. 진단 결과 유방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 무려 8개의 전이성 병변이 뇌 MRI에서 발견됐고 심지어 생명 중추인 숨골(뇌간부)에도 전이성 뇌종양이 있었다. 이미 뇌 여러 군데에서 전이성 뇌암이 발견됐다. 개두술을 통한 접근이 쉽지 않은 숨골(뇌간부)까지 병변이 발견, 개두술은 불가능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했다. 조씨는 처음 발견됐던 8개의 전이성 뇌종양이 뇌 MRI상 사라져 현재까지 외래를 다니며 추적 관찰 중이다. 전이성 뇌암은 전신에 있는 암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으로 두개강 내 종양 중 가장 흔한 종류이며 암환자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최근 암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이성 뇌암 역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남녀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가장 흔히 뇌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성에게는 폐암이 대표적이다. 신체의 어떤 부위에 악성 암이 있는 환자에서 20∼50%가 전이성 뇌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이성 뇌암의 원발성 암으로 폐, 유방, 피부, 신장, 소화기 계통의 암 등이 약 95%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 세포는 대부분 혈류를 통해 중추 신경계에 도달한다. 전이성 뇌암의 임상증상은 두개강 내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며 두개강 내 압력 상승, 신경세포의 자극 및 파괴에 의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지만 종양 내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고영초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원발성 뇌종양은 크게 양성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성 뇌종양은 성장속도가 느리고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뇌 조직의 특성상 그 발생 위치에 따라서 악성종양 못지않게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악성 뇌종양은 소위 ‘뇌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원발성 양성 뇌종양의 발생비율은 인구 10만명당 4∼5명, 평균 발생 연령은 53세이며 일반적으로 뇌종양은 고연령군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신체 다른 부위의 모든 암이 다 무섭지만 뇌에 혹이 생기는 뇌종양은 두개골을 쪼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 뇌종양이라고 해서 모두 암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 절반가량만 ‘악성’으로 진행된다. 악성 뇌종양은 신체 다른 부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주위 조직으로의 침투 능력이 강해 주변의 정상 뇌조직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며 치료도 쉽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과는 달리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성향은 매우 낮아, 최근에는 적극적인 수술과 방사선치료 및 화학요법으로 그 치료 성적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조준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종양은 비록 발생빈도가 다른 장기의 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뇌라는 장기의 특성상 매우 치명적이며 심각한 장애의 원인이 된다”며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남녀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데 여성은 양성뇌종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성은 뇌암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에 따른 생존율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10∼45세의 환자와 45세 이상의 환자들 간에는 적어도 2∼3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뇌종양의 치료에는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항암 치료 등이 있다. 특히 양성 종양은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뇌하수체 선종은 머리를 열지 않고서도 코를 통해 접근하면 효과적으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좁고 깊은 코를 통한 수술적 제거에 어려움이 있고 종양 주변에 시신경, 뇌동맥, 여러 뇌신경으로 인해 수술 후 종양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과 같은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함께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외과적인 종양 제거 수술 후, 남은 종양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혹은 3cm 미만의 작은 종양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도 감마나이프 수술이 유용하다. 다만 시신경과 너무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선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시신경과 떨어진 종양이 감마나이프 수술을 통한 치료에 적합하다. 크기가 작고 시신경과 떨어진 선종의 경우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감마나이프 수술을 일차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감마나이프 수술 시에는 정상 뇌하수체 조직에는 최소한의 감마선만 투여되게 조절할 수 있어 일반적인 방사선치료에 비해 뇌하수체 호르몬 저하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다. 조준 교수는 “<span class='quot0'>감마나이프 수술 후 처음 몇 개월간은 종양 내부가 괴사되며 일시적으로 전체 종양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차차 크기가 감소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감마나이프 수술은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할 경우보다 청력을 보존하거나 유지시킬 확률이 약 70%로 높고 청신경초종 주변의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확률이 약 3∼4%로 현저히 낮아 감마나이프 시술이 매우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예방하려면 성 접촉 경험 여성들은 1년에 한번 검진받아야”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8001  
본문: 발령 연령대가 낮아지고 환자가 늘고 있는 부인암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방문을 꺼려하는 젊은 여성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부인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인 1기와 2기에서 발견된다면 5년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비교적 적어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인암 중 가장 흔한 자궁경부암은 암중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진 암이다.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이 주 원인이며, 환자의 99.7%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70%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9∼26세에 접종할 수 있지만, 11∼12세 정도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나이가 어릴수록, 또 성 경험이 없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 중년 여성인 경우에도 새로 감염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45세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김윤환(사진)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첫 성 경험 연령을 늦추고, 성 접촉 경험이 있는 여성은 1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 등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매년 국내에서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소암은 자궁경부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부인암이다.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거나 모호해 조기 진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환자의 80% 이상이나 되며,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별검가 없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아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족 중에 난소암 환자가 있을 경우 유전성 난소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 친척 중에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때문에 유전적인 배경이 의심되는 여성들은 난소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김윤환 교수는 “초경이 빠른 경우나 늦은 폐경, 미혼여성, 불임 여성의 경우 난소암에 걸릴 위험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임신과 출산, 수유, 그리고 피임을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배란을 억제하므로 난소암 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은 난소암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술 치료가 필요한 부인암의 경우 흉터가 많이 남는 개복 수술보다 작은 절개를 통한 복강경 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특히 배꼽 위치에 하나의 구멍을 내고 기구를 넣어 수술 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환자의 통증과 회복 기간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1.txt

제목: [최승호 교수가 말하는 위절제 후 식사원칙]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세요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740001  
본문: 최승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를 찾아 ‘위 절제 후 식사 원칙’을 물었다. 그는 암환자에게 암환자다운 식사원칙을 지키되 자신만의 방법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특히 위암환자들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령 백미와 현미 중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밥을 어떤 식으로 조리해서 먹을까를 고민하라는 것. 또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식에 따라 소화해 내는 개인차가 큰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단출한 식단보다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다양한 식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암환자들을 위한 원칙은 존재한다. 위암환자들은 찬 음식과 단 음식 그리고 물기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차고, 달고, 물기 많은 음식 피해라=위암 환자는 위의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을 잘게 부숴 분해하는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하다. 또 위의 용량이 작아져서 음식물의 저장 공간이 줄어 덩어리 진 음식물이 소장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간다. 이때 각종 증상이 발현한다. 음식물이 곧장 소장으로 내려가면 음식물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혈액 속 수분이 장내로 유입됨으로써 메스꺼움과 불쾌한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한다. 이때 단 음식은 이 증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단 음식과 더불어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음식들을 섭취할 경우도 그러하다. 최승호 교수는 “위절제술 후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음료는 소화 장애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과일을 섭취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수박의 경우 차고 달고 물기가 많은 대표적인 과일이다. 과일을 먹은 후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면 줄이거나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쁜 마음으로 식사해라=위암 환자들이 느끼는 위 팽만감은 일반인들이 포식 후 느끼는 더부룩함과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매일 환자를 보는 나조차도 환자들이 느끼는 증세를 다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나를 찾아와 밥을 먹은 후 공포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위 팽만감은 위암환자들에게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호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건강한 사람도 긴장을 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식사 후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위암 환자라면 그 증세가 더할 것이다. 환자가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식욕감퇴로 체중이 심각하게 감소했다면 식욕촉진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절제 전 고혈압, 당뇨 앓았다면 치료 계획 다시 세워야=최승호 교수는 위암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위암 환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 외의 답변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위를 절제하기 전과 절제한 후 대사성 질환의 증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고혈당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위 절제 후 저혈당 증세를 보일 수 있고 반면 고혈압 환자가 위 절제 후 저혈압으로 고생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찾는 내과가 있다면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려 치료 계획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2.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매 예방 첫걸음은 건강한 구강 유지부터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7001  
본문: 치매는 구강세균에 의한 감염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아를 둘러싼 잇몸 조직은 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 구강세균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특히 공기가 없는 곳에 살아가는 혐기성 세균은 공기가 희박한 혈관 내 먼 거리로 이동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비롯한 혈관 관련 질환과 만성면역성 질환을 유발한다. 세균 감염은 종양 괴사인자나 인터루킨 및 C-반응성단백질 등의 염증 분자를 생산하고 이들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인슐린 저항성 당뇨를 유발하게 된다. 인슐린의 저항 당뇨 환자에서 고인슐린혈증이 발생되면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프로스타사이클린(PGI2), 과산화수소 등이 관련된 혈관 내피세포 기능장애가 발생한다. 염증으로 생긴 종양괴사인자는 혈관의 형태학적, 생체역학적, 동적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뇌혈관의 경우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이 무너진다. 염증에 의해 혈액뇌장벽의 혈관투과성이 증가하면 미세하게 출혈이 생겨 적혈구의 철분이 뇌에 쌓이게 된다. 철분은 반응성 산소종을 생기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돼 혈관뇌장벽(BBB)의 파괴를 가속화해 치매로 이어진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내분비 질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염증에 의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특징짓는다. 구강 내 세균 중에서 혐기성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치매의 원인균으로 알려졌다. 진지발리스는 구강잇몸을 통해 혈관 내피 세포에 침투, 유전자 변이를 통해 암을 일으킨다. 진지발리스는 NDK, LPS, PAD, Gingipain 등의 효소와 당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NDK는 진지발리스를 사람 세포내 침투작용을 하고 LPS는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혈전을 유도해 혈전증을 일으킨다. PAD와 Gingipain은 피브리노겐, a-에놀라제와 같은 단백질들을 시트룰린으로 변화시켜 치매를 유발한다. 진지발리스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다 E-Selectin, P-selectin 등의 부착분자에 의해 혈관세포에 부착해 뇌혈관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리하면 구강 내 혐기성세균에 의한 염증이 전신질환을 일으키고 혈관질환을 일으킨다. 뇌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다. 때문에 구강 건강이 열악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얼핏 구강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치매가 올 수 있다. 진지발리스균의 감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면 혈액검사가 추가 돼야 한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 조기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치매는 감염과 당뇨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감염과 당뇨의 진행 정도는 체내 AGE축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나 뇌 척수액에서 AGE를 측정해 초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바늘로 채혈하는 혈액검사보다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해 AGE를 측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치매예방을 위해 조기검진과 올바른 치과치료, 그리고 환자자신의 현명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3.txt

제목: [암환자 희망일기] 골육종엔 맞춤 치료를… 수술후 신체 기능장애 최소화 중요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6001  
본문: 골육종은 뼈에서 생긴 악성 종양세포가 유사골 조직이나 미성숙 골을 무한정 만들어 내는 암이다.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2년 이내에 대부분 폐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며, 발생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지만 다행히 발생 빈도가 100만 명당 3∼4명 정도로 드문 질환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다. 특히 무릎 주위 뼈에 발생하기 때문에 종양 절제 후 성장 판이 소실되어 영구적인 하지 기능장애를 동반하기 쉽다. 30∼40년 전에는 사지에 생긴 육종을 잘라내는 수술이 치료방법의 전부였으므로 완치율이 10∼20%에 불과했지만, 수술과 항암요법을 병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사지를 절단하지 않고도 완치율이 60∼70%에 이르러 악성 종양 중에는 비교적 치료 결과가 좋은 암이다. 27세 남성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서혜부 통증 및 종창으로 방사선 진단을 받은 결과 골반골의 치골부터 고관절 윗부분까지 침범한 종양이 발견됐다. 조직 검사상 골반골에 생긴 골육종으로, 골반골의 3분의 2정도 절제가 불가피하며 생존율은 30∼40%이며 완치된 경우라도 평생 목발이나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했다. 본원에서는 수술 후 기능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반골 및 주위 근육의 절제 범위를 결정하여 절제 후 남아있는 골반골과 대퇴골 골두 사이에 새로운 고관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재건을 시행했다. 수술 후 3개월은 목발 보행을 하였으나 6개월이 되자 정상 보행이 가능했고 골반과 대퇴 골두 사이에 견고한 가관절이 형성된 것을 방사선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환자는 현재 수술 후 3년이 경과하여 재발 및 전이가 없으며, 올 연말에는 본원의 다른 환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주회를 계획 중이다. 64세 목사님이 3∼4개월 지속된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소염제 치료만 받다가 방사선사진을 찍었는데 근위 경골에 작은 골병변이 발견되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양성 골종양으로 생각하고 골 소파술 후, 병리 조직 검사 상 골육종으로 진단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항암치료가 불가피하며 처음에 긁어낸 경골 부위는 항암 치료 후 반응 정도를 보면서 재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권했다. 환자분은 고령으로 극히 고통스럽다고 들은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항암치료가 불가피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내원했다. 본원의 치료 경험상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항암치료는 합병증의 위험이 크므로 원발 부위만 재수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환자 분은 항암치료 없이 수술만 진행했고 3년째 재발 없이 목회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 3년 전에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면 아마 백혈구 감소 등의 합병증을 못 이기고 돌아가셨을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하나님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골육종 환자가 전부 비슷한 것 같아도 환자의 나이, 병소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재건술이나 항암요법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골육종이라는 병과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때에 따라서 항암치료 합병증으로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 아울러 향후 치료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부터 치료에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대근 원자력병원 골연부종양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4.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바야흐로 표적항암제의 완승 모드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4001  
본문: 지난 14년간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와 과학자들 간에 지루했던 샅바 싸움이 끝날 전망이다. 새로운 표적항암제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제로 인한 내성 돌연변이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조만간 표적항암제의 완승으로 인해 ‘완치가 가능한 최초의 혈액암’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백혈병 줄기세포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서서히 초기 발병 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것도 표적항암제만으로의 완치를 크게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백혈병 줄기세포란 무엇일까. 우선 백혈병 줄기세포는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만들어 내는 정상 혈액 줄기세포와 모양이 같고, 구별이 어려워 이제까지 일부 과학자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세포였다. 하지만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 세포 중에 ‘BCR-ABL1’ 유전자 이상을 보이며 동시에 모든 혈액 줄기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CD34’ 항원 단백질을 가진 세포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줄기세포로 성공적인 분리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상상이 아닌 현실 속의 세포가 된 것이다. 백혈병 줄기세포는 1% 미만의 암세포만이 세포 증식에 동원돼 활동하며 대부분의 세포들은 대사를 멈춘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들이 작용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 즉, 이제까지 개발된 표적항암제들은 백혈병 줄기세포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 채 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자손 세포들만 제거하는 부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혈병 줄기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치료 과정에서 재발은 필연적인 숙제로 남게 되고, 암환자들은 평생 치료제를 복용해야만 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글리벡 표적항암제 중단 연구 결과들을 보면 비록 백혈병 줄기세포가 인간의 몸속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손상을 줄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고 아주 적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현상들이 관찰됐다. 이에 ‘완치를 위해 반드시 모든 백혈병 줄기세포를 제거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백혈병 줄기세포가 남아있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로 그 수준이 진단 시 백혈병 세포의 약 5만배 이상 감소해 장기간 지속됐다면,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고도 백혈병 세포가 늘어나지 않는 ‘기능적 완치’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표적항암제는 평생을 복용해야 한다는 게 의학계의 정석이었다. 표적항암제는 백혈병 줄기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백혈병 세포의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혈병 줄기세포에 대한 대사 과정 연구와 표적항암제 중단 임상연구에 의해 이러한 고정 개념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지원으로 ‘한국 글리벡 중단 다기관 중개융합연구’를 통해 약 100명의 환자가 성공적인 표적항암제 중단이 가능한 기능적 완치 상태에 도달했고, 5년간 10억원을 투자한 이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글리벡을 수입하지 않아 절약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즉, 백혈병 줄기세포 연구와 결합된 표적항암제 중단 연구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으며,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국가 암정복 추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5.txt

제목: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 수백억대 주식 사기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201151802001  
본문: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로부터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70·사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기쁜소식선교회와 국제청소년연합(IYF)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전북 전주의 보조식품업체 ㈜운화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2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운화에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단순 식품에 불과한 ㈜운화의 제품이 ‘암, 에이즈 치료에 효능을 갖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하고 ‘㈜운화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였다”면서 “신도와 가족 등 870여명의 피해자들은 3년 뒤 10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주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박씨는 ㈜운화와 관련이 없으며 고문으로서 설교만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변호사가 법원에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6.txt

제목: 2013년 서울 사망자 수·사망률 83년 來 최고  
날짜: 2014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7104817001  
본문: 지난해 서울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원인은 청년층은 자살, 장노년층은 암이 1위였다. 서울시가 26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는 총 4만2063명으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375.6에서 420.1로 높아졌다.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31%(1만3028명)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 순이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부터는 암이 가장 많았다. 19세 이상 시민의 비만율은 2008년 20.6%에서 지난해 23.2%로 증가했다.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도 2008년 30%에서 지난해 39.3%로 늘었다. 특히 여성은 같은 기간 31.6%에서 41%로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82.9세로 2000년(78.8세)보다 4.1세 높아졌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86세로 남성(79.7세)보다 높았다.김재중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7.txt

제목: 꽃지바다는 ‘천년 사랑’을 기억할까  
날짜: 2014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7151240001  
본문: 지아비 승언과 지어미 미도의 천년 사랑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른다. 다시 바위로 태어난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눈치 챈 때문일까. 황금빛 날개가 눈부신 갈매기가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를 분주히 오가며 밀어를 전한다. 꽃지바다를 붉게 채색한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마지막 남은 한줄기 빛조차 허공 속에서 분해된다. 이어 하루 두 번씩 부부를 떼어놓은 꽃지바다가 원망스러운 듯 검은 바닷속으로 침잠한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가 파도소리에 흐느낌을 실어 보낸다.솔향 그윽한 충남 태안은 한반도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다. 531㎞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32개의 해변과 45개의 항·포구, 그리고 서해안에 흩뿌려진 119개의 보석 같은 섬 곳곳에서는 저녁마다 환상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날씨가 청명하고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이맘때면 수평선과 입맞춤을 하는 해가 불기둥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태안반도가 품은 첫 번째 낙조 명소는 학이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는 형상의 학암포이다. 분점도의 학바위를 축으로 W자형의 해변이 양쪽으로 펼쳐지는 학암포는 조선시대에 중국과 질그릇을 교역하던 무역항이었다. 한창 때는 수십 척의 무역선이 드나들던 항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학암포의 낙조 포인트는 썰물 때 해변과 연결되는 소분점도이다. 해송이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분점도는 물이 빠지면 주변 바다에 흩뿌려진 바위가 드러나 수중 산봉우리를 연상케 한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채색한 낙조를 배경으로 소분점도를 비롯한 민어섬, 벗섬, 장구섬, 소리섬, 대뱅이, 여뱅이, 거먹뱅이, 수리뱅이, 꽃뱅이 등 이름조차 정겨운 태안의 섬과 바위가 두루마리 그림처럼 펼쳐진다. 학암포 남쪽에 위치한 먼동해변은 태안이 꼭꼭 숨겨놓은 비경 중 하나로 해녀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먼동해변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갯바위가 어우러진 곳으로 본래 이름은 안뫼이다. 1993년 드라마 ‘먼동’이 촬영되면서 이름도 먼동해변으로 바뀌었고, 이후 ‘용의 눈물’ ‘야망의 전설’ ‘불멸의 이순신’ 등이 먼동해변을 무대로 삼았다. 먼동해변을 대표하는 풍경은 소나무 두 그루가 뿌리를 내린 거북바위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거북바위와 왼쪽의 삼각형 바위 사이로 해가 떨어지면서 그림엽서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해변을 따라 이동하면 거북바위 소나무 가지에 걸리는 붉은 해를 카메라에 담을 수도 있다. 먼동해변이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받는 이유는 해변을 비롯해 바다 건너편 구름포에 인공 구조물이 없기 때문이다. 태안의 낙조 중 가장 이색적인 풍경은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펼쳐진다.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신두리 해안사구는 길이 3.4㎞에 폭 500∼1300m로 바람과 모래, 그리고 시간이 빚은 모래언덕이다. 사구에는 어김없이 ‘바람의 땅’을 증명이라도 하듯 고운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붉은 모래언덕의 능선은 청과 적의 경계이자 명과 암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해가 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면 햇살에 젖은 모래언덕이 붉게 빛나고 반원 형태의 모래언덕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신두리 해안사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모래언덕을 채색한 노을이 해당화처럼 붉게 빛나는 저녁 무렵이다. 만리포를 비롯해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일리포에서 펼쳐지는 낙조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만리포해변은 대천, 변산과 함께 서해안 3대 해변으로 꼽힌다. 가요 ‘만리포 사랑’의 무대인 만리포해변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빨간 등대를 배경으로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는 어선이 수평선과 맞닿은 해 속으로 들어가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전복으로 유명한 파도리의 어은돌해변은 새끼섬을 거느린 도루섬 낙조가 유명하다. 해가 두 섬 사이로 떨어지면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와 갯가에서 바지락을 캐는 아낙도 붉게 물들어 풍경화의 주인공이 된다. 멀리 안흥 앞바다의 사자바위, 가의도, 정족도, 옹도 등 작은 섬들은 도루섬 낙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에 충실하다. 백사장항과 드로니항을 연결하는 250m 길이의 해상인도교 ‘대하랑꽃게랑’을 비롯해 꽃지해변과 방포해변을 잇는 꽃다리는 인공 구조물과 어우러진 낙조의 황홀미를 보여준다. 반면에 안면도 운여해변의 운여저수지와 방풍림이 연출하는 낙조는 강원도 삼척의 속섬 일출을 닮았다. 갈수기인 요즘은 운여저수지의 마르지 않은 물웅덩이에 비친 방풍림의 반영이 여인의 눈썹처럼 아름답다. 태안 최고의 낙조는 안면도 꽃지해변의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를 배경으로 삼는다. 꽃지해변은 변산 채석강, 강화 석모도와 함께 서해안 3대 낙조 명소로 손꼽히는 곳. 100m 정도 떨어진 두 개의 바위섬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시시각각 빚어내는 낙조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웅장하고 장엄하다. 2012년에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 중 2위를 차지한 꽃지해변은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굴이나 조개를 캐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한다.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로 불리는 30m 높이의 바위섬은 해상왕 장보고의 부하 승언 장군이 전쟁터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아내 미도가 죽어 망부석이 됐다는 순애보의 전설이 전해오는 곳이기도 하다. 애달픈 전설 때문인지 검은 실루엣으로 침잠한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를 품은 꽃지해변의 하늘과 바다는 서럽도록 붉다. 서해안에서도 태안의 낙조는 자연이 빚은 최고의 풍경화이다.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며 포구로 돌아오던 어선 한 척이 오메가 모양의 해 속에 갇히고 갈매기들이 무시로 해 속을 드나들 때쯤 태안반도는 거친 질감의 유화로 거듭난다. 태안=글·사진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kspark@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8.txt

제목: 강한 표현 동원 ‘혁신 바람’ 불어넣기  
날짜: 20141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6151157001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잇따른 문제 오류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능 취지 바르게 실천돼야” 강하게 지시=수능 재검토 지시는 박 대통령이 4주 만에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 말미에 나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span class='quot0'>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span>”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히 “<span class='quot0'>(수능 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span>”고 언급한 것은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방식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대입전형 완료 후 성적 재산출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복수정답이 나온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다. 어찌됐든 이번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1994년 도입된 수능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제 단두대에 올려 처리” 강도 높은 표현=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각종 규제를 언급하면서 “암 덩어리 핵심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또 ‘단두대’ ‘혁명’ 같은 강도 높은 표현도 많이 사용했다. 규제를 단두대(기요틴·guillotine)에서 처형하듯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강한 말보다는 실천력 있는 이행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 기요틴’은 80년대 일부 유럽국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규모 규제 철폐를 단행하면서 붙인 명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외국에서도 사용하는 ‘규제 기요틴’을 설명하시는 차원에서 나온 언급</span>”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 이후 자동차 튜닝이 유망산업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들며 ‘규제 혁명’도 강조했다. ◇“정의의 반대말은 의리”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촉구=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자기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 청탁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새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혁신 바람도 주문했다. 안전처에는 재난안전 전문가 확보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 관리를 주문했고, 혁신처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49.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암센터 및 집중화센터] (7)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5150947001  
본문: 1985년 4월 경기도 안산·시흥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고려대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이 세월호 사건 이후 국내 최고 수준 재난대응 전문 의료기관으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한데 이어 또 한번 변신을 시도,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인구 110만 명의 안산·시흥 지역 암진료 거점센터로의 발돋움이다. 고려대안산병원은 지난 17일 암센터를 새로이 개소하고 수도권 암 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장비,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단-검사-치료-재활 등 암 진료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 벌써부터 지역 암 환자들의 발길이 줄 잇고 있다. 암센터는 특히 협력기관인 고려대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암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물려받아 '다학제 통합진료' 등 암 환자 중심의 집중·통합 의료서비스를 펼쳐 환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환자맞춤진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국내 최고수준의 암센터, 환자중심 원스톱 서비스=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는 기존의 다른 병원들과 같이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진료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확고히 구축됐다. 또 의료진보다는 환자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검사 및 치료 동선과 편안한 진료 환경을 조성,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병원 암센터에는 외래진료실, 초음파 등 각종 검사실, 방사선치료실, 일일 항암치료실, 다학제 통합진료실 등이 들어서 있다. 부작용은 적은 반면 효과가 좋은 신약을 중심으로 항암화학치료, 표적치료와 같은 환자 개인맞춤치료 시스템도 자랑거리다. 암센터장 손길수 교수(유방내분비외과)는 “<span class='quot0'>복강경수술 등 수술 시 상처와 흉터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물론 각종 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도 구비, 빠른 회복과 함께 환자들의 만족도를 최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온힘을 다 쏟고 있다</span>”고 말했다. ◇국내 최고 교수진의 다학제 통합진료로 치료율 제고=사실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의 최고 자랑거리는 암 진단 및 치료 전문의 교수진으로 운영되는 다학제 통합 암 진료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암 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 각과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수술은 어떻게 할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시행할지, 수술 후 재활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호응도 좋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환자가 진단, 치료, 재활의 과정에서 각각 따로 진료를 받게 되면 여러 과를 전전하느라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치료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학제 통합진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해결돼 암 환자들의 편의 향상과 더불어 진단의 정확도와 치료율이 급상승하고 최적의 암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다</span>”고 강조했다. ◇치료 후 회복기에도 전인적 치료로 호평 받아=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암 치료 후 조기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암 재활전문 진료팀을 구성, 암 환자들이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뜻밖의 후유증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호평을 받고 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기 쉽다. 따라서 암 환자들의 심리안정을 돕는 한편 치료 의지를 상승시키는 것은 암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차상훈 고려대안산병원장은 “<span class='quot1'>암은 의사와 환자가 같이 힘을 합쳐 싸울 때 이겨내기 쉬운 병으로 바뀌는 만큼 우리 병원의 전 의료진이 암 환자들을 내 가족 같이 위하는 마음으로 돌봐줌으로써 우리 암센터를 수도권 최고의 지역 거점 암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span>”며 포부를 밝혔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0.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대장암 극복 토크 콘서트 열어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5150943002  
본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병원장 심영목)이 대장암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책 읽기 특강을 열어 화제다. 삼성서울병원은 암병원 대장암센터 김희철 센터장(소화기외과 교수)이 최근 암병원 지하 1층 암교육센터에서 대장암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장암 극복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사진). 대장암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 20명을 초청, 대장암을 극복한 시인으로 유명한 이해인 수녀의 저서 ‘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를 함께 읽고 건강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병원 측은 환자들이 “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희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을 극복하신 이해인 수녀님의 책을 같이 읽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환자분들이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는 좋은 기회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들의 정신적 쾌유를 돕는 ‘암 전문의의 책 읽기 특강’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1.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대장암 피하려면, 과일·야채 즐기세요  
날짜: 2014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2150716001  
본문: 최근 배우 김자옥(63)씨가 대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전 진행 단계 대장암을 뒤늦게 발견, 수술을 받은 그는 잔류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는 바람에 끝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 지인들로부터 밝은 웃음소리가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데다가 같은 교회 식구이자 팬이었던 아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선방송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와, 주일날 교회 성가대에서 워낙 밝은 모습으로 봐왔기 때문에 더욱 그런 듯했습니다. 대장암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를 너무 자주 먹거나 햄, 소시지 등 가공 육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사과 고구마 양배추 마늘 블루베리 등 적황녹백청(赤黃綠白靑) 5색 컬러 푸드를 자주 먹도록 당부합니다.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변비와 혈변, 복통입니다. 특히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1만7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명 중 1명이 변비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일찍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장암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평소 5색 과일과 채소를 즐기는 식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조기 발견을 위해 50대 이후엔 적어도 5년에 한 번 꼭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2.txt

제목: “30년 이상 담배 피운 55∼74세, 매년 폐암 CT검사 받아야”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1104443002  
본문: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5∼74세는 매년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일명 폐CT검사)로 폐암선별검사를 하는 게 좋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립암센터는 국가암검진권고안위원회에서 전문가 문헌 검토와 토론 등을 통해 마련한 ‘폐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권고안은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피웠던 55∼74세를 폐암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담배를 끊었더라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고위험군은 CT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을 고려해도 저선량 흉부 CT로 매년 폐암 검사를 하는 게 좋다. 4년 동안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매년 할 경우 총 6∼7m㏜의 방사선을 쐬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1년 동안 쐬는 방사선이 2.4m㏜인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양이다. 권고안은 이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2500분의 1 정도이긴 하지만 크게 해롭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반면 가슴부위 X선 촬영, 객담 세포진 검사, 혈청 종양 표지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는 권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폐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은 전체 암 사망자 중 26.2%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는다. 여성은 16.4%다. 남성 암 환자 중 폐암은 13.8%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기준).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5년 이상 상대 생존율은 20.7%인데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엔 4.9%까지 낮아진다. 폐암 환자는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 부담도 커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3.txt

제목: NH농협생명 ‘하나로NH3대질병보험’, 암·뇌출혈·심근경색… 한방에 대비해요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0150155001  
본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47.4%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다. 각종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대표되는 이 3대 질환은 하나같이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 발병 시 가족과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NH농협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보험금 보장에 특화된 ‘하나로NH3대질병보험(갱신형·무배당)’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계약 하나로 3대 질병을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돼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높였다. 3대 질병 진단 시 각각 최대 3000만원씩 지급하고, 10년 만기 생존시에는 만기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암 진단 시에는 암 종류에 따라 진단보험금이 상이하다. 하나로NH3대질병보험은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온 가족 건강보험으로 활용 가능하며,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입으로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별조건부특약’, 특정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10년 만기에 전기월납 가입 시 40세 남자 2만8620원, 여자 2만3160원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4.txt

제목: 항균 물비누 ‘트리클로산’ 발암 위험… 미 UC 교수 논문서 주장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0104416002  
본문: 항균 물비누, 보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liver fibrosis)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로버트 튜키 교수와 UC 데이비스의 브루스 해먹 교수 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17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학술원회보(PNAS)에 실었다. 논문에 따르면 6개월간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 컸다. 이 노출 기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 18년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또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기전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튜키 교수는 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튜키 교수는 생활 주변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소비자용 제품에서 이 물질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pan class='quot0'>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따른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데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간 독성 위험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미국의 강에서 가장 흔히 검출되는 화합물 7개 중 하나이며, 수유를 하는 산모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먹 교수는 “<span class='quot1'>트리클로산 사용에 따른 이득이 적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트리클로산의 인체·환경 노출을 줄일 수 있다</span>”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span class='quot1'>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그대로 써도 좋다</span>”고 했다.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5.txt

제목: 알토란 금융상품으로 홀쭉해진 가계 알차게 채우자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0150153001  
본문: 11월 말, 곳곳에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쪼그라든 주머니 사정은 ‘연말 분위기’보단 ‘추워진 날씨’에 가깝다.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생활비 걱정 등이 더욱 커지는 시기기 때문이다. 금융사들도 이 같은 걱정과 우려를 공략하는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당장의 생활비 한 푼도 아쉽다. IBK기업은행이 내놓은 ‘IBK생활비 통장’처럼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에 부여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노후가 걱정되는 은퇴자라면 은퇴자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연금처럼 나눠받는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BK연금플러스통장’은 가입 다음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방식과 일정 기간 운용한 뒤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갑자기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월 급여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매년 5%씩 늘려주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화재 매일든든 가족생활보험’은 보험기간 중 닥친 장애가 심해져 소득이 사라질 경우 10년간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만기시에는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큰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라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주요 사망원인만 집중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NH농협생명은 이 세가지 진단보험금 보장을 특화시킨 ‘하나로NH3대질병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6.txt

제목: 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물가상승률 감안 보장액 매년 5%씩↑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20150154001  
본문: 한화생명은 은퇴(60세)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또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급여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 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증액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 가입 연령은 만 15(체증형은 25세)∼65세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7.txt

제목: [암과의 동행] 경북대병원 종양내과 김종광 교수 “지나친 채식위주 식단은 영양불균형·합병증 초래”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10001  
본문: 암환자는 다른 질병 환자보다 몸에 큰 부담이 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김종광 경북대학교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암환자가 영양불균형이나 영양 결핍 상태이면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면역결핍도 동반할 수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암환자의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많은 암환자가 암 자체에서 분비하는 여러 물질과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항암약물이나 방사선치료 등으로 식욕부진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 수술 후 회복과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 시 이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면역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 일례로 김 교수의 환자 중에 위암 수술을 받은 중년여성이 있는데 수술 후 재발억제 목적으로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하던 중 지나친 식이조절로 인해 체중감소 및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빈혈과 폐렴의 합병증이 동반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식사조절이 암치료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환자는 어떻게 영양을 관리해야 할까. 김 교수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등을 통해 완전 절제를 받은 후 추적관찰 중인 환자는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적절히 식이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며 “조기 암의 경우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식사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 위암의 경우 너무 짜거나 소금에 절인 음식 등은 피하고, 대장암의 경우는 붉은색의 육류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진행 암의 경우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를 받거나, 수술 대신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는 육류를 포함한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적절한 신체기능을 유지해야 치료도 잘 견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암 치료 중에는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나친 채식 위주의 식사는 영양 불균형이나 치료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환자가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식욕부진 개선제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는 “진행성 암환자의 경우는 암에서 배출되는 여러 물질에 의해 식욕부진이 동반되고, 또 항암약물 치료 등이 메스꺼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감소 및 면역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암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식욕부진의 해소에는 메게이스 등의 약제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진료 현장에서 항암 약물치료를 받는 중에도 과도하게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거나 너무 싱겁게 먹다 체중감소나 무기력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감염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치료를 받는 중에도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적절한 신체기능을 유지해야 효과가 검증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span>”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비만이 무서운 이유… 치료율 떨어뜨리고 재발률 높여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01001  
본문: 비만과 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비만과 관련한 호르몬이 암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유방암이 대표적인데, 마른 체형의 여성보다 비만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 여성은 체내 에스트로겐과 같은 생식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이뤄지고 과도하게 분비된 에스트로겐은 유방에 암 생성을 유발한다. 전립선암의 경우도 비만일수록 높은 병기의 전립선암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비만은 암 발생률을 높이고 나아가 암 재발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암 생존자에게 ‘과체중’이 지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한소화기암학회가 발간한 ‘소화기암환자들의 영양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장암 2기, 3기의 환자들 중 비만인 환자가 정상 체중의 환자들에 비해 수술 후 무질병생존율에서 불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다. 이 학회는 “영양을 통한 암 예방연구에서 전이가 없는 대장암의 경우, 진단 전의 비만(BMI>30㎏/㎡)은 환자의 전체 사망률, 대장암 특이 사망률,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률 모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도 비만을 암 생존율을 낮추는 주된 위험인자라고 지목했다. 학회는 지난달 1일 발표한 학회지를 통해 비만을 잡아야 암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를 집필한 다나-파버암연구소의 제니퍼 박사는 “<span class='quot0'>비만이 암환자의 치료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차암 또는 동반질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국내서는 일찍이 비만과 암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2005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윤영숙 교수팀은 한국인 성인 남성 78만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결과, 비만이 한국인의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연구진은 “<span class='quot1'>한국인의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전립선암, 신장암, 갑상선암, 폐의 소세포암, 임파선암, 흑색종(피부암)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span>”고 밝혔다. 이들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9배, 간암에 걸릴 위험이 1.6배, 담도암 2.2배, 전립선암 1.9배, 신장암 1.6배, 갑상선암 2.2배, 폐의 소세포암 1.5배, 임파선암 1.5배, 흑색종(피부암) 2.8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위암의 경우, 비흡연자를 상대로 한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1.7배 높게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미국임상종양학회는 비만인 암환자라면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의 체중 감량을 도와야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서양식 식이패턴을 좇다 보니 비만과 관련 높은 암종의 발병률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비만이 암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치료율을 떨어뜨리고 재발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암환자와 암 생존자의 체중관리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59.txt

제목: [암 예방 수칙] 비만은 남녀 경계대상 1순위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00001  
본문: 흡연과 비만은 많은 암에 있어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흡연의 경우 최근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비만의 경우 오히려 식생활이 서구화되며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돼 있고,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도 2011년 2조7000억원으로 크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초고도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2년간(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초고도비만율(BMI≥35kg/㎡)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2.9배 증가했다. 그렇다면 비만과 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최근 영국에서는 500만명 대상의 대규모 비만 코호트 추적·관찰 연구를 통해 비만이 자궁암 담낭암 간암 신장암 등 주요 암 발생 위험을 10∼41%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의 암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만은 폐경기 이후의 유방암 대장직장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전립선암 감상선암 등 여러 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비만은 2차 암 발생위험을 높이기도 하는데 암 진단 전에 비만이었던 암 생존자는 정상체중 암 생존자에 비해 대장직장암 발생 위험이 3.45배, 생식비뇨기계암 발생 위험이 3.61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유방암 환자에서 비만은 반대쪽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타목시펜(유방암치료제)을 복용 중인 유방암 환자에서 비만인 경우에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은 식도암 대장직장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신장암 다발성골수종 위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 많은 암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질량지수가 1 높아질수록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은 3%씩 증가하고, 유방암 진단 후 체질량지수가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재발위험이 53%, 사망위험이 64%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여성 대장암 환자에서는 비만일 때 재발이 24%, 총사망이 34%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도 문제이다. 저체중(체질량지수 18.5kg/㎡ 미만)은 암의 예후에 오히려 불리한데 저체중 유방암 환자에서 재발과 원격전이가 더 많으며, 두경부암이나 식도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 시 저체중이었던 경우에 비해 오히려 사망위험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 또 대부분 암환자는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료기술과 치료약제 발달로 장기생존이 가능해져 암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암 생존자의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18.5%), 당뇨(7.8%), 심혈관질환(6.8%) 순으로 높아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 동반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의료진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암의 재발과 사망, 그리고 2차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0.txt

제목: [암 예방 수칙] 음주 피하고 꾸준히 운동을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859001  
본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癌)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36.9%)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잘못된 식생활,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10대 암에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암 명의들을 통해 주요 암종별 예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위암=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건강한 한국인 2만명을 20년간 장기 추적·조사한 ‘한국인 암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위암 발생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박테리아균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면 위암 발병률이 높다. 유근영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인은 국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고쳐야 할 식습관”이라고 말했다. △간암=간암의 최대 위험요인은 간염, 간경화다. 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성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간경화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간경화의 4대 위험요인은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 과도한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유방암=비만은 유방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등의 다른 암과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여러 가지로 해롭다. 선우영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규칙적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길</span>”이라고 당부했다. 또 너무 많은 콩류를 먹는 것을 의사들이 권장하지는 않는다. △폐암=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암, 뇌혈관질환 등의 위험인자가 바로 ‘담배’라는 연구도 있다. 하루에 15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그만큼 흡연은 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박사는 “<span class='quot2'>담배에는 발암물질, 중독유발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모든 암 사망의 30%가 흡연에서 비롯되는 만큼 금연은 암 예방의 첫걸음</span>”이라고 말했다. △자궁경부암=한국의 성생활을 하는 여성에서의 HPV감염 유병률은 약 34.2%다. 대부분의 경우 신체는 HPV와 싸워 이기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HPV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HPV로 인해 생식기사마귀나 암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질암 및 외음부암, 항문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에서 항문암, 생식기사마귀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으면 HPV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암 예방은 ‘조기 검진’=암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암 치료 기술 발달로 암환자의 치료 후 생존율은 50%를 넘어섰고, 조기에 발견한 암환자 완치율은 95%에 달하고 있다. 유근영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암은 인체 내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다. 이것이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각 암의 발병위험이 높은 연령대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만40세 이상의 남녀 대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의 남녀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 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 환자나 간염바이러스 양성인 자, 만성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40세 이상 여성, 만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한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1.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항암제 고통 이해해주는 종양내과선 환자보기 어려워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08001  
본문: 유방암 환우회서 만난 김명희(52)씨는 자신에게 명의는 ‘종양내과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암환자가 수술을 잘하는 명의를 찾아 병원을 물색하는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대답이다. 반면 지방 암환자 박주희(48)씨는 최근 서울로 항암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방 병원에서는 자신을 수술한 외과 선생님이 항암제까지 처방했는데, 서울 병원에서는 종양내과에서 약을 처방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나중에야 항암제 처방과 부작용, 대처방안 등에 능통한 진료과는 종양내과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외과에서 종양내과로 긴급히 환자를 트랜스퍼(전과) 해 왔다. 사정인즉슨 외과에서 처방한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종양내과 의료진들은 자신들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물인데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만 종양내과로 트랜스퍼 해 오는 외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지방 소재 대형병원의 종양내과에서는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환자를 만나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대형병원에는 외과, 방사선과, 종양내과 등 암 치료를 위해 다양한 진료과가 협업하는 치료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환자들의 치료만족도는 물론 치료 초기에 병원 신뢰도를 높여 치료 순응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밖으로 비춰지는 화목한 모습과 달리 내부 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이더라도 분업이 생각처럼 자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항암치료는 암 치료의 3대 원칙 중 하나인데도, 정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종양내과에서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 익명의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에 대한 수가가 적다보니 이를 메우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며 환자수를 번다</span>”고 말했다. 종양내과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진료과다. 늦게 도입된 탓에 의사수도 적고 그만큼 의료계 내 영향력도 크지 못한 편이다. 어느 한 대형병원의 종양내과 교수는 “지금 우리 과가 마주한 의료계 내 폐쇄적인 구조는 미국 의료시스템의 과거 모습이다.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서 종양내과를 들여온 미국도 우리처럼 내부적 진통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종양내과 규모가 커지고 환자들이 종양내과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상황이 좋아졌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암환자들은 수술 후유증보다 항암제 후유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자신의 명의를 종양내과 의료진으로 꼽은 이유는 ‘약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하는 암환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차이, 또 최신 약제까지 항암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종양내과에서는 환자가 던지는 막연한 질문에도 진심으로 고민하며 성심껏 대답해줄 것이다. 길고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환자가 수술의 명의를 찾듯 종양내과 분야에서도 명의를 찾아야 한다. 앞으로 다학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범주는 넓어질 것이다. 모든 진료과 의료진이 열린 자세로 임해야 다학제 진료의 참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2.txt

제목: [암과의 동행-한세준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교수님, 저 둘째 낳았어요！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18001  
본문: “<span class='quot0'>교수님 저 둘째 아이 낳았어요!</span>” 나에게 치료를 받았던 한 환자로부터 지난 4월에 온 편지의 첫 글이다. 요즘 둘째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화젯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산모가 암 환자라면 더구나 자궁경부암 환자라면, 치료를 위해서 자궁을 들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환자라면, 이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편지를 받을 때면 절망에 빠져 외래로 찾아왔던 환자와 그 보호자의 모습이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보여진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 들어 자궁암, 자궁경부암 등의 발병 연령이 20∼30대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자궁을 적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궁경부암에 걸렸지만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도 광역학 치료를 통해 자궁 내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술법이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 광역학 치료는 부인과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 질환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광역학 치료는 수술이 아니다. 따라서 치료 중에 출혈이 거의 없는 게 큰 장점이며 통증이 없으므로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기존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 정상 조직의 손상이 매우 적으며 시술에 대한 제한성이 없어 여러 번 반복해서 시술을 할 수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이 광역학 치료로만 자궁암 등을 시술한 건수는 200건이 넘는다. 고령 환자를 포함해서 출산을 원하는 젊은 여성 환자를 다 포함한 숫자이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시술 중에는 단 한 건의 실패 사례도 없었다. 젊은 환자 중에서 임신에 성공해 출산을 한 환자가 15명이나 되고 어느 환자는 3명의 아기를 출산했고 또 다른 환자는 현재 임신 중이다.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한 생명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탄생시켰다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심지어는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임신을 원하는 자궁암 또는 자궁경부암 환자들로부터 안타까운 사연들로 가득 찬 편지와 이메일이 도착한다.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젊은 나이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광역학 치료의 시술이 하루 빨리 대중화됐으면 한다. 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 교수(부인종양학)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담배 끊으면 수명 느는데… 암 진단 후에도 흡연자 75%는 금연의사 없어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25001  
본문: 대장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남편 서경목(58)씨를 간호하는 부인 조민숙(55)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담당 의사에게 남편의 흡연을 말릴 수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남편의 대장암이 평생 피운 담배 때문이므로 빨리 완치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 생각이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담배 피울 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편 서씨는 “<span class='quot0'>담배의 유해성과 암을 크게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길고 험난한 암 투병이기에 금연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암을 선고받은 사람 대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려 한다. 자의건 타의건 저염식이나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숙면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피워온 담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담배에는 6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들도 ‘발암’ 소리를 들으면 금연을 한번쯤 떠올리기 마련인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박현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암환자 650명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 중 53%가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계속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소개된 암환자 서씨처럼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34.3%였으며 6개월 이후에 끊겠다고 답한 사람이 40.2%로 조사돼 사실상 암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에서 당분간 금연의사가 없는 사람이 74.5%에 달했다. 암환자의 금연율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현아 교수는 암 판정을 받은 직후 혼란스런 치료과정을 꼽았다. 즉 금연의 동기부여가 가장 잘 되는 기간을 ‘암 판정 직후’로 꼽을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환자가 암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쉽게 인정 못하는데다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 그 과정에 집중하느라 금연하기 좋은 타이밍을 놓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한 번 피우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 때문에 암환자라 할지라도 금연하기가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건강에 해로우니 금연하라고 말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에 대한 치료가 이뤄져야 금연이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한편 암환자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연치료의 급여화가 꼽혔다. 실제 암 판정을 받았어도 금연치료에 대한 비용은 모두 환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당장 모든 사람의 금연치료를 보험화할 수 없으나 암 치료와 연계된 금연치료에 한해 보험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금연치료의 보험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실제 담배의 성분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담배의 60여 가지 발암물질은 기관지섬모의 이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을 떨어뜨려 암 수술 후 폐 합병증(폐렴 등)의 유병률을 높인다. 또 담배의 해로운 성분은 조직의 산소량을 떨어뜨려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니코틴의 혈관수축 효과로 혈액순환이 저해돼 수술로 인한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흡연은 몸 안에 주입된 항암제의 대사를 촉진하여 암세포 살상 효과를 저하시키며 가뜩이나 암 치료 중 감소하게 되는 입맛과 체중을 더 감소시킨다</span>”라고 설명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늘 귀기울이세요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06001  
본문: 똑똑한 몸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일종의 ‘신호’를 보내온다. 이때 주인이 몸이 보내온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치유하거나 원인을 해소하면 건강한 상태를 되찾지만 무심하게 넘겨버리면 병이 생기고 만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남성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암은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폐암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유방암과 대장암이 잇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 발생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내시경을 항문으로 넣어 장 안을 살펴보는 대장암 검사나 헛구역질을 감수해야 하는 위암 검사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담스런 검사법이다. 유방암 검사 역시 여성이 유방 촬영을 하며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작지 않다. 특별한 신체 이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모범답안이지만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몸의 보내오는 ‘신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땐 90% 이상 예방 효과… 이대 여성암병원 주웅 교수에게 듣는다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15001  
본문: 만약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있다면 맞아야 할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증은 남는다. 암을 예방한다는 그 백신이 '암을 100% 예방 가능한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다양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세계적으로는 2분마다 1명씩, 국내에서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 있다.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이 질환은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정기 검사와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알려져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지난 12일 진행된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자궁경부암 예방' 편에서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주웅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20∼3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주 교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9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겨울 나그네’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자궁경부암을 앓는다. 당시만 해도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을 몰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을 파악하는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은 ‘문란한 성생활 여부’, ‘결혼 유무’, ‘남편이 있는지 여부’, ‘결혼생활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등의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1980년대만 해도 미개한 수준의 설문조사가 이뤄졌다</span>”고 말하자 강연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러한 설문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이 밝혀졌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우리 곁에 다가왔다. 전 세계 여성 암 사망률 2위인 자궁경부암. 자궁은 체부와 경부로 구성된다. 자궁 입구의 도우넛 모양의 작은 부분을 자궁의 목, 즉 경부(頸部)라고 하고 이곳에 생기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른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이 전혀 없으나 질환이 진행되면 질출혈이나 질 분비물의 증가, 골반통 및 요통, 체중 감소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span>”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성 접촉 등으로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다. 이 관계를 최초로 밝혀낸 것은 독일의 쮜르 하우젠 박사이며 그는 지난 2008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고 보고됐다. 현재까지 100여 종의 HPV가 관찰됐으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약 15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HPV16과 HPV18 두 가지는 약 70%의 자궁경부암에서 발견돼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HPV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번은 걸릴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3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일생에 한 번은 생식기에 HPV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span>”고 말했다. 자궁경부의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자궁경부는 그 특수한 위치로 인해 손쉽게 세포를 얻을 수 있는 장기다. 조기 검진을 통해 이형성증이나 상피내암 같은 암의 전 단계에서의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암발생이 월등히 높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궁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암이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대표적인 것인 자궁경부 세포진검사가 있다.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얻어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악성세포를 발견하는 검사로, 검사과정이 간단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민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백신을 맞는 것이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span>”며 “<span class='quot0'>100%는 아니지만 효과가 매우 높다고 이해하면 된다</span>”고 설명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100가지 이상의 변종이 있는데 이 중 자궁경부암과 가장 밀접한 16형 18형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것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처음에는 바이러스 종류와 자궁경부암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16형과 18형 두 가지 바이러스만 막아도 한 여성이 걸릴 수 있는 자궁경부암의 약 70%가 예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접종 후 효과는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본, 호주 등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국내 식약처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부작용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span>”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소아감염병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 접종 시 위약(가짜약) 주사를 접종했을 때보다 심각한 부작용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증상은 가다실 접종군과 위약 주사군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백신 외에도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 교수는 “면역력이 좋지 않은 여성이나 체질적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한 여성들에게서는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된다. 때문에 건강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잘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며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취하는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따른다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 해도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맞아 항체를 만들어 놓는다면 더욱 더 튼튼한 예방책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6.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건강검진 PET-CT 표준안내문 마련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04238001  
본문: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PET-CT(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과 예후판정에 사용) 촬영 시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지난 7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 안에 따르면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내달부터 조혈모세포이식비 50% 지원보건복지부는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00만원∼5000만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로 이식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7.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넥사바] 신장암·간암 적용되던 다중표적제, 분화 갑상선암까지 치료영역 확대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32001  
본문: 한 가지 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있다. 특정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표적해 치료하는 단일 표적항암제에서 더 진화된 다중표적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엘헬스케어의 ‘넥사바’는 신장암, 간암에 이어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다중표적항암제다. 단일 표적 치료제가 암세포 또는 혈관 내피세포 중 하나를 차단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다중표적항암제는 표적항암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다중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는 물론이거니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내피세포까지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다중표적항암제는 종양의 증식과 혈관 생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반면,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들이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겼던 탈모, 구토 등의 부작용을 줄여준다. 넥사바는 지난 2005년 12월 세계 최초의 경구용 진행성 신장 세포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07년 11월에는 간 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최초의 경구 치료제로서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간 세포암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신장 세포암에 대한 적응증 승인에 이어, 2008년 간 세포성 암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또 2011년 11월부터 간암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많은 간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넥사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갑상선암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계 암종 중의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만5000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2011년 기준, 약 4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1만5000명 정도의 환자가 갑상선암으로 치료 받고 있다. 넥사바는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에 대해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 넥사바는 국내에서 간세포성암 및 사이토카인(cytokine)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요법이 적절하지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다. 넥사바에 대한 이번 국내 승인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CISION 3상 임상시험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DECISION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약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5.8개월인 데 비해, 넥사바 치료군은 10.8개월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5개월 연장시켰다. 또 위약군에 비해 질병의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41%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연구결과는 제49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노상경 바이엘헬스케어 전문의약품 사업부 대표는 “<span class='quot0'>넥사바의 유용성이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의 분화 갑상선암이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표준치료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넥사바가 이 환자들에게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경험자 130만명… 조기 발견이 공포 탈출 지름길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02001  
본문: 암 경험자 130만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 45명당 1명은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암은 치료를 받더라도 진행 정도에 따라 재발·전이 위험이 높아 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과 완치율이 올라가지만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것이다. 1020◇해마다 기본검사를 충실하게=신체 발육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10대는 가장 활동적인 시기이기도 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일반 건강검진으로 기본적인 몸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해 비만 관리를 이 시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20대부터는 해마다 기본건강검진이 권장된다. 이 시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독립하는 등 환경 변화가 커지면서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체지방이 증가한다. 남성은 혈압과 위내시경, 흉부 X선 검사를, 여성은 기본검진과 필요에 따라 자궁경부, 유방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3040◇자기 몸을 잘 관찰하며 특화 검진=30대 남녀는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불편을 느끼는 특정 부위와 관련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30대 이상인 여성은 갑상선과 유방 검사를 꼭 받는 것이 좋다. 가족 중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갑상선 관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기능 및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30∼40대 여자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 중 하나며 비교적 예후가 좋고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모든 암이 그렇듯 유방암 또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에 의하면 30세 이상에서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에서는 1∼2년마다 임상검진과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40대는 위암과 간암 검진이 필수다. 신체의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는 40대부터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성기능 장애,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위암과 간암의 발병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스스로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위암은 위장조영촬영, 위내시경으로 검진하고 간암은 혈액검사, 초음파, 조영CT 등을 이용해 검진한다. 40세 이상 남성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6개월∼1년 간격으로 간암 검사, 1년 간격으로 폐암 검사가 권장되며 40세 이상 여성은 1년 간격으로 갑상선과 폐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권유한다. 5060◇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진=50대부터는 대장암은 5년에 한 번씩(대변검사는 매년 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생활의 변화로 대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반면 대장내시경은 다른 검진에 비해 번거로운 편이라 잘 시행하지 않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조치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폐암도 필수 검사 항목이다. 비흡연 여성 또한 간접흡연으로 폐암이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으므로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폐암은 흉부 X선 촬영, 조영CT 등을 통해 정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성 비뇨기암(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남성의 비뇨기암 증가율이 위암, 폐암보다도 높다. 통계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5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전립선암의 3분의 2는 65세 이상의 남자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립선암의 진단에는 전립선초음파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조직검사가 있으며 신장암의 경우에는 초음파, CT, MRI 검사가 사용된다. 이외에도 50, 6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앓는 질병 치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해보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대장암과 간암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를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30대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흡연, 과도한 음주, 기름진 음식 등으로 암 발병이 늘고, 40대 이상도 암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은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6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극복에도 ‘남녀유별’ 적용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19001  
본문: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암, 위암 등 암에서도 성 차이에 근거한 의학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남녀 성별에 따라 대장암 등 암을 다르게 치료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가 ‘여성과 남성, 의학적으로도 달라요!’를 주제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차의학(Gender-Specific Medicine, GSM)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의사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그중 대장암에서의 성차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소화기내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발생과 기전에서 대장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에서 남녀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성차의학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성차의학 개념이 생소하다. 성차의학이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성차의학의 개념은 미국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 미국 NIH안에 ‘The 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 (ORWH)’가 개설됐고, 일본에서는 1999년 동경대학의 아마노 교수가 성차의학의 개념을 순환기 분야에서 소개함으로 시작됐다. 지금은 질병의 발생률이 남녀 간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병태, 발병률은 같아도 남녀 간 임상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질환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대장암’에서도 남녀별 차이가 있다고 했다. 표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 보인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장암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령에서 발생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대장암이 발생하는 부위도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은 남성에 비해 암이 우측 대장에 생기는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장 용종도 여성에서는 대장내시경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납작한 용종이 더 많다</span>”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의 대장암 발생에서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과 비만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의 비만은 남성에 비해 대장암의 위험도를 더 높이고, 여성호르몬은 반대로 대장암 발생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 실제 폐경기 여성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은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증가한 반면, 폐경기 여성에서 호르몬대체요법을 받은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현재 성별에 따라 대장암을 다르게 치료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장암 발생에 여성호르몬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치료법이 연구 중에 있다</span>”고 밝혔다. 한국의 성차의학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김 교수는 “최근 여의사를 중심으로 뇌질환, 심장질환, 소화계질환, 암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성차의학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성호르몬과 유전적 특성에 의해 질환 발생의 시기, 진행의 속도 등 남녀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도 우리나라에서 성차의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다. 향후 성차의학 연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0.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환자 희망일기] 갑상선암 치료율 높지만 방심은 금물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21001  
본문: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결절이라고 하며 갑상선결절은 양성결절과 악성결절(암)로 나뉜다. 양성결절은 전이가 안 되므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악성결절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곳으로 암세포가 퍼져 생명을 잃을 우려가 있다. 현재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남자에게서는 4.6%로 6위, 여자에게서는 26.4%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세 여자 환자분으로 결혼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예비신랑과 시행한 결혼 전 건강검진에서 5mm 정도 크기의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 내원한 환자였다. 젊은 여성에게는 암으로 인한 수술 이외에 목에 생기는 흉터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갑상선암 결절만 있는 초기였고 초음파 검사 상에도 다른 림프절 전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겨드랑이와 유륜 절제를 통한 내시경적 갑상선 일엽절제술을 시행했다. 여자 환자분은 축복받는 결혼식을 치르고 현재 재발 소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57세 여자 환자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인근 주민 대상 무료검사에서 우연히 1.5cm 크기의 갑상선 종양이 발견되었다. 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유두암으로 진단되었고 추가로 시행한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CT)에서 미세한 경부 림프절 전이소견까지 발견돼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경부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시행 받았다. 수술도 잘되고 경과도 아주 순조로워 현재 재발 없는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 35세 여자 환자로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분이었다. 얼마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친언니를 보고 검사를 시행했다가 우측 갑상선에 5m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이 발견되어 갑상선 일엽절제술을 시행 받고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중요했던 경우로 유두암의 경우도 전체 유두암의 5%에서 가족력이 있다. 특히 모계 쪽에서 어머니나 언니 중에 갑상선 암 병력이 있으면 꼭 검사로 확인해 봐야 했던 좋은 사례였다. 65세 남자 환자분으로 목소리 변성을 주 증상으로 오셨던 환자분이다. 검사 상 우측 성대마비 소견을 보였고, 성대마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시행한 경부컴퓨터 단층촬영(CT)에서 갑상선 피막을 침범하는 3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이 발견되어 갑상선 전 절제술 및 동측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갑상선암에 의해서 침범이 의심이 되었던 우측 되돌이 후두신경도 같이 제거됐다. 신경침범까지 보였던 심한 경우였지만 수술 후에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및 후두성형술을 통해 현재는 큰 불편감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갑상선암은 치료가 잘되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암이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질 가능성은 항상 있다. 갑상선암 환자는 대부분 오래 살기 때문에 재발이 많고 재발하는 경우 전이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치료 및 추적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발이 되더라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여전히 좋은 치료성적을 보인다.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암과 관련된 위험인자들을 피해야 한다. 두경부의 방사선 조사를 피하고 가족력을 확인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국행 원자력병원 갑상선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1.txt

제목: [항암 밥상-모듬 버섯 꼬치구이] 면역 증강 도움 베타클루칸 다량 함유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29001  
본문: 보통 사람들은 암을 이겨내는 음식이라면 희귀한 것이라 값이 비싸고, 유기농 재료 혹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닐까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항암식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를 알맞게 조리하기만 하면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평범한 식재료를 활용해 식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기만 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항암밥상을 준비할 때 매력적인 식재료가 있다. 바로 버섯이다. 항종양 및 면역 증강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한 버섯은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 식재료로 손색이 없다. 또한 버섯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성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버섯에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시중에서 구입하기 쉽고 잘 알려진 종류를 선택해도 안전하다. 특히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은 계절에 상관없이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정에 구비된 다른 버섯으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표고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도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좋은 식재료로 꼽힌다. 버섯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 및 이외의 다당체 성분들은 대부분 수용성이며,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버섯은 먹었을 때 식감이 좋아 각종 채소는 물론 고기 등과 곁들여 먹어도 좋으며, 영양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주는 여러 종류의 버섯을 활용해 특유의 고소한 맛을 살린 ‘모듬 버섯 꼬치구이’를 만들어 보자. 버섯을 이용해 구이 요리를 하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육류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아삭아삭한 식감의 채소와 함께 식탁에 올리면 먹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색감 좋은 파프리카와 함께 요리하면 식욕을 돋우는 것은 물론 영양 성분까지 함께 보완해 준다. 또한 구이 요리를 할 때 요리에센스 연두, 향신간장 등을 활용하면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으며,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조규봉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2.txt

제목: [건강 나침반] 치아주변 건강하면 치매 위험 줄어들어… 신경치료된 치아·임플란트 철저관리를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23001  
본문: 치과질환의 종류로는 충치, 잇몸질환, 치주염, 임플란트주위염, 치수염, 구취 외 감염성질환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세균의 감염과 관련이 있다. 우리 몸에 세균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세균의 구성과 종류, 세균의 양에 따라 눈에 보이는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물론 눈에 보이는 질병이 없다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증상 감염이 장기간 이어질 때 더욱 위험하다. 치아 주위 조직은 세균감염에 무디게 반응하기 때문에 치과 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신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질환들 중에서 당뇨, 심혈관, 뇌혈관, 류머티스, 건선 암, 알츠하이머들의 주요 원인은 구강세균에 의한 감염이다. 구강으로부터 침투한 세균은 혈관을 통해 균혈증을 일으키고 전신에 이동하여 심장이나 혈관내피세포와 각종 장기에 서식하게 되며 세균에 대한 항체와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성해 치매와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염증반응 과정에서 최종당화산물과 아밀로이드베타 등이 뇌에 축적돼 기억과 언어기능을 방해하고 면역세포와 세균의 직접적인 신경세포 파괴의 결과로 치매가 발생하게 된다. 치과 질환 중 가벼운 충치를 제외하고 장기화되면 대부분 위험하지만 특히 점막 하방에서 혈관에 직접 세균을 공급할 수 있는 근관치료(신경치료)된 치아 주위의 염증, 조립형 임플란트주위염, 심한 치주염 등이 치매발생 위험이 제일 높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구강 내 세균은 다양한 기능으로 암, 치매, 파킨슨씨병, 건선, 류머티스, 당뇨 등을 일으키며 치매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등 매우 위험한 세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치매 환자의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검사 대부분이 치매발생 이전에 이를 예측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등의 초기 치매가 발생한 이후 이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매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치과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 진지발리스균은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만성 감염상태로 잇몸점막이나 혈관, 심장 등에 존재하므로 감염 여부를 알려면 포르피로 모나스 세균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만성 염증이 치매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최종 당화산물이 뇌와 체내에 쌓이는데 많은 양의 아밀로이드베타가 쌓이면 치매와 대사성 질환이 일어나게 된다. 아밀로이드와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된 정도를 측정해 혈관질환과 당뇨 그리고 치매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치매를 비롯한 감염에 의한 전신질환 예방을 위한 치과 치료는 감염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잇몸 수술과 항생제로 염증과 감염을 없애야 한다. 오래되거나 감염된 경우 신경치료가 돼 있는 치아일지라도 전신질환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 혐기성 세균에 오염된 조립형 임플란트의 경우 대부분 세균의 저장소 역할을 하므로 제거해야 한다. 구강 내 세균 감염은 전신질환을 유발한다. 다만 서서히 진행되고 발병기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위험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환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3.txt

제목: [암과의 동행-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 꽃피운 청년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17001  
본문: 요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건과 갈등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가끔 가슴이 답답해진다. 12년 전인가. 만 20세의 앳돼 보이는 젊은 청년 한 명이 개인의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진찰실로 들어왔다. 글리벡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해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백혈병이 안정을 찾아가자 하루는 자신의 꿈이 성직자가 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며 꽃동네 수도회에 입회하고 싶다고 진료 소견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극구 말렸지만 워낙 본인의 신념이 강해 긍정적인 소견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 몇 해가 지나 서원을 하고 수사가 된 청년은 자신의 소원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다. 몇 달이 지난 후, 환우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 왔다. ‘안녕하세요. 2002년 4월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올해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해서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올해 저는 서원을 하고 필리핀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필리핀에 가고 싶다고 하였을 때 가서 견딜 수 있겠느냐 걱정했지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꿈이 있었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결핍된 사랑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묘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묘지가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버려진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서 팔고 하루에 약 5천원을 벌면서 그 돈으로 간신히 하루에 1끼 내지 2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방문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빵 한 조각에 몇 십 명의 아이들이 달려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핵에 걸린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보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길가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또 국립병원을 간다고 해도 안타까운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백혈병 환자로서 지난 10년 동안 글리벡을 복용하며 이곳에서 느끼는 것은 백혈병이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꿈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백혈병은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혈병이 걸렸지만 그래도 매일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가 필리핀에서 보내 온 편지다. 절망을 안겨준 ‘백혈병’ 진단, 하지만 힘든 투병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현실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다. 이 글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많은 환우들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다’는 글들을 접하면서 우리 의료진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에너지를 재충전해 본다. 김동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4.txt

제목: 적정진료 가로막는 건보 적용 기준 손본다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842001  
본문: 백모(58·여)씨는 얼마 전 120만원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일을 경험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뇌경색이 의심돼 집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의사는 ‘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간암 환자인 백씨는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갔다. 이번엔 암을 검사하는 뇌 MRI 촬영을 다시 해야 했다. 간호사는 MRI 검사비 120만원이 찍힌 진료비 계산서를 내밀었다. 직전 병원에서 찍은 MRI 비용은 7000원이었다. 뇌 MRI의 경우 뇌경색은 1년에 한 번, 암은 6개월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루 전에 뇌 MRI를 찍은 탓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간호사 설명이었다. 백씨는 처음 간 병원에서 비급여 비용으로 MRI 검사비를 다시 계산하고, 대학병원에 사정을 설명한 뒤에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당초 검사비의 5% 수준인 5만여원으로 줄었다. 처음 간 병원의 비급여 MRI 비용은 13만원이었다. 백씨는 “뇌경색인 줄 알고 갔다가 암이 의심되면 큰 병원에서 MRI 촬영을 다시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무슨 이런 기준이 다 있느냐”고 반문했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건보 적용 기준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손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 재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과 의료계 건의사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건보 적용과 관련해 일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적정 진료’를 막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제대로 된 진료를 가로막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장모(31)씨는 몇 달 전 퇴근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함께 차에 탔던 동료 2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고 장씨만 살아남았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 2회 30분 상담은 늘 부족하다. 하지만 외래 진료는 주 2회만 건보 적용이 된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오랜 병가 끝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장씨는 ‘주 2회의 부족한 진료’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다. 정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의약단체, 환자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 의견을 접수한 뒤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은 “<span class='quot0'>의도와 달리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기틀을 마련하겠다</span>”고 말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 [이슈분석-‘공짜 집’으로 번진 무상복지 논란] ‘재원 토론’ 뒷전… ‘진영 싸움’ 양상 ▶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 여·야 연일 ‘무상’ 공방 ▶ [르포] “연탄이 없어요” 쪽방촌에 한파는 벌써 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알코올성 간질환 남성 50대가 32.6%로 최고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30001  
본문: 간암 환자가 늘고 있다.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 지속적인 심한 음주, 간경변증 등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술에 의해 간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연말 술자리가 늘면서 간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 남성 중에서는 50대(4만2000명, 32.6%), 40대(3만1000명, 24.5%), 60대(2만3000명, 18.2%)가 많았다. 여성 중에서는 50대(6000명, 28.4%), 40대(5000명, 25.9%), 30대(4000명, 18.1%)가 많았다. 세부상병별로는 알코올성 지방간(3만9000명, 30.4%), 알코올성 간염(3만2000명, 25.1%), 알코올성 간경화(1만9000명, 15.0%) 순으로 많았는데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코올성 지방간은 감소하고, 중증 만성질환인 알코올성 간경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가 위험 요인이기는 하지만 간암의 주요 발생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다. 대한간학회가 2013년 진행한 일반인 간질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73.5%에서 술이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술 담배만 조심하면 간암은 염려할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비율도 22.8%로 높게 나타났다. 또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거나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은 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각각 21.6%와 34.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만1381명(진료비 3050억2256만5000원), 2010년 5만4467명(3559억98만2000원), 2011년 5만6686명(3646억8835만원), 2012년 6만1168명(3873억473만7000원), 2013년 6만3707명(4143억1000만원)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6월 기준) 남성 간암 환자는 4만7325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1만6317명이었고 이어 △60대 1만6102명 △70대 1만270명 △40대 5201명 △80세 이상 2018명 △30대 826명 △20대 78명 △10대 48명 △10세 미만 70명 순이었다. 여성 간암 환자는 총 1만5241명으로 60대가 가장 많은 5042명을 차지했고, 이어 △70대 4640명 △50대 3658명 △80세 이상 1400명 △40대 1140명 △30대 304명 △10세 미만 56명 △20대 42명 △10대 3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만2820명) 경기(9774명) 부산(5154명) 대구(4415명) 경남(3011명) 순으로 많았고, 충북(706명) 제주(586) 세종(14명)은 적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원인의 암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C형 간염과 술에 의한 간경변증(간이 딱딱하게 굳는 것) 및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간암의 발생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3∼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여러 민간요법, 대체 요법을 사용할 경우 드물게는 급격한 간 기능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약품·한약·건강식품 등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비흡연 여성 폐암 잡는 표적항암제 눈길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858001  
본문: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여성 환자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국립암센터의 통계에서도 폐암 여성 환자 10중 9명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폐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계영 건국대학교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술 받았던 2948명 중 여성이 831명으로 28.2%에 해당하고 이 중 대다수인 730명(87.8%)이 흡연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녀 전체의 폐암 발생 추이는 1999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발생률 28.9에서 28.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10만 명당 51.9에서 46.7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2.9에서 15.5로 증가했다. 수술 성적은 초기에 해당하는 IA기에서 비흡연 여성의 5년 생존율이 96.6%로 비흡연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인 84.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수술 후 재발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 이후부터 중앙생존기간이 34개월이었고, 5년 생존율도 22.5%에 달했다. 이는 최근에 개발된 표적치료제의 효과라 추정된다. 비흡연 여성에서 발생하는 선암인 경우 표적치료제에 잘 듣는 유전자변이가 흡연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폐암은 현미경적으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과 소세포폐암(SCLC, small cell lung cancer)으로 구분된다. 비소세포폐암은 소세포폐암에 비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나,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1, 2, 3A기 일부 환자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보통 비소세포폐암은 3A기 이후에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며 일부 1기 또는 2기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폐암 치료에 있어 최근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등 폐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여 작용하는 표적항암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치료제들은 주로 비흡연자, 여성, 선암 환자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작용이 경미한 편이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여성 흡연자들이 남성 흡연자들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전 위험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영 교수는 “폐암 치료는 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분자병리학적 진단법과 표적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전환기를 맞이했다. EGFR과 관련한 타이로신 키나아제(TK)라는 세포 내부 단백질을 차단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억제하는 다양한 EGFR TKI가 개발됐다. 이에 따라 폐암치료는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치료 접근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히 비흡연 여성폐암 환자의 치료성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폐암 치료의 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분자병리학적 진단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교수는 폐암의 유전자돌연변이 검사법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보험 급여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 이 교수는 혈액검사를 통한 폐암조기진단법 개발 연구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국내 허가된 기존 1세대 EGFR TKI 치료제로는 이레사와 타세바가 있으며 최근 보험급여를 획득한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지오트립이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 폐암검진에 사용되고 있는 저선량흉부CT는 폐암환자 모두에게 권장하기에는 비용, 효과,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혈액검사를 통하여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표적 치료제의 임상 도입과 함께 조기폐암진단법의 개발로 폐암 치료의 미래는 밝다</span>”고 덧붙였다. 한편 폐암은 가장 흔하게 뇌로 전이되는 암이다. 전이성 뇌종양은 무혈 뇌수술인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정상 뇌에 대한 손상 가능성이 가장 적고, 전이성 뇌종양 치료 시 종양 억제의 성공률이 약 95%로 효과의 우수성이 입증된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건국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센터에서는 전이성 뇌종양, 뇌동정맥기형, 뇌수막종, 신경초종, 삼차신경통, 파킨슨병을 활발히 시술하고 있다.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백신 성 생활 시작전 접종하면 가장 큰 효과… WHO 1차 대상 9∼13세로 정해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04235002  
본문: 자궁경부암은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3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 바로 자궁경부암 백신이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은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밝혀졌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일 뿐 아니라 여성에게 외음부암, 질암 등을, 남성에게 음경암 및 항문암 등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 남녀의 75∼80%가 일생 중 한번 이상 HPV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100여 종의 HPV가 관찰됐으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약 15종인 것으로 보고 됐다. 이 중 HPV16과 HPV18 두 가지는 약 70%의 자궁경부암에서 발견돼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HPV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번은 걸릴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다. 우리나라 여성의 3분의 1이 HPV에 감염돼 있으며,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 2명 중 1명이 감염 된 것으로 나타났다. HPV 예방 백신은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 즉 감염에 노출되기 전에 접종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HPV 1차 예방 대상을 9∼13세로 정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9세부터 접종 가능하다. 특히 만 9세에서 13세 사이의 소아·청소년은 2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는 가다실, 서바릭스가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9세에서 13세 사이 남녀 소아청소년은 가다실의 경우 기존 3회에서 2회 접종 가능하다고 승인했다. 남녀 소아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승인 받은 백신은 가다실이 유일하다. 가다실은 국내에 앞서 해외에서 먼저 9∼13세에 대한 2회 접종을 승인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4월 9∼13세의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다실 2회 접종 일정을 승인했으며,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이 해당 일정을 승인 받았다. 서바릭스도 9∼14세 여아 대상 2회 접종을 승인 받았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접촉을 하기 전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전략자문그룹(WHO SAGE, The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에서는 올해 4월 여아들이 성접촉을 하기 전 HPV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이롭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5세 이전에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2회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이다. 더불어 남성 역시 항문질환과 생식기 사마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국가적 면역 체계 구축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가가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HPV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53%(13∼17세), 영국은 75.4%(12∼20세), 호주(12∼17세)는 80%에 달한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기피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HPV 백신 접종이 다발성 경화증 등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한다는 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WHO는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백신 접종을 기피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차세대 표적치료제 지오트립… 아시아 폐암환자 생존연장 효과 또 입증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27001  
본문: 차세대 비소세포폐암(NSCLC) 표적항암제인 아파티닙(제품명 지오트립)이 아시아 폐암 환자들에게 1차 치료요법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임상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히 지오트립은 가장 흔한 유형의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엑손 19결실-del19) 양성 아시아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연장에서 기존 항암 화학요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임상결과 발표=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4 아시아태평양 폐암학회(APLCC)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오트립 임상시험(LUX-Lung 3) 하위그룹 연구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개발사인 베링거인겔하임에 따르면 LUX-Lung 3 아시아인 하위 분석 결과 1차 치료로서 지오트립을 투여 받은 아시아 환자군에서 전체 생존기간(OS)이 33.3개월이었다. 반면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은 22.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상연구의 책임자인 우 이롱(사진) 중국 광둥종합병원 폐암연구센터 교수는 각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오트립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전체 생존기간이 연장됐고, 사망 위험을 43%까지 유의하게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아시아 비소세포폐암 환자 하위분석 연구 결과는 기존 LUX-Lung 3 전체 임상 결과에서 보여진 엑손19결실 환자군 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교수는 “지오트립은 가장 흔한 EGFR변이(del19) 양성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유의한 전체 생존기간 연장 혜택을 입증한 최초의 치료법으로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폐암 발현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확인하는 EGFR 변이 상태 평가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오트립 비소세포폐암 전체 생존기간 연장 혜택 입증=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다수의 폐암 전문가들도 “<span class='quot0'>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있어 전체 생존기간 연장 혜택을 입증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span>”라고 평가했다. 특히 매년 90만명 이상의 신규 폐암환자가 진단되는 아시아지역에서 전체 생존기간 연장 혜택이 유의하다고 확인된 점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하위그룹 연구결과가 발표된 LUX-Lung 3 연구는 EGFR 활성(del 19/L858R) 돌연변이를 가지며 진행성 또는 전이가 있는 폐선암환자 345명을 대상으로 아파티닙과 표준화학요법(시스플라틴과 페멕트렉시드)을 비교한 것으로, 지난해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LUX-Lung 3 임상에는 홍콩,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임상 결과에서 지오트립은 전체 EGFR 변이의 9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EGFR변이(del 19/L858R)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의미 있는 임상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임상결과에 따르면 화학요법치료군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6개월을 조금 넘었던(6.9개월) 반면, 지오트립 치료군에서는 종양 성장 없이 약 1년 이상 생존(13.6개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오트립 치료군은 화학요법 치료군보다 기침과 가슴통증 등 폐암 관련 증상과 환자들의 삶의 질도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LUX-Lung 3 임상 책임연구자인 대만 국립의과대학 지신 양 암연구센터장은 “지금까지 진행성 폐암환자를 포함하는 임상연구에서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혜택을 보인 치료제는 거의 없었다. 지오트립이 LUX-Lung 3과 LUX-Lung 6 임상 모두를 통해 del19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서 12개월 이상의 전체 생존기간 혜택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은 특정한 유형의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권고되는 표적항암제로,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EU), 일본, 대만, 캐나다 등에서 승인됐다. 미국에서는 질로트립이라는 제품명으로 승인돼 시판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7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일본·호주선 자궁경부암 부작용 논란… 백신 연관성 밝혀지지 않아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04235001  
본문: 지난해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여성들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며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과 근접한 한국에서 유독 크게 논란이 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급감하기도 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자궁경부암 백신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는 2분마다 1명씩, 국내에서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정부기관이나 학회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이 백신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 백신 접종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은 ‘백신을 10대에 맞아도 되는 건지’, ‘부작용 문제는 없는지’,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에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지난해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도되며 불안감이 높아졌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신경학적 이상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백신 접종과 선후 관계만 있을 뿐 인과관계의 증명은 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선후관계만 보고 인과관계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span>”고 밝혔다. 실제 일본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명확한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이상 반응이 심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학교 집단 접종 초기 여학생들이 주사를 맞고 실신을 하는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 된 바 있지만 이 역시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신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염은 80년 넘게 백신에 사용됐으며 전체 백신의 80%가량이 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제기구에서도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WHO 산하 단체인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GACVS)에서는 HPV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팔의 통증이나 두드러기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금방 사라진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도 HPV 예방 백신 접종이 필요할까.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되기 이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span>”고 설명했다. 최근 가다실 등 자궁경부암 백신은 2회 접종으로 변경·승인되며 접종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이 100% 예방이 될까.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시판되는 백신은 이론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70%를 막아 주도록 개발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실제 접종을 해보니 그 보다 더 높은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대목동병원, 토요 진료-수술 전면확대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8145928001  
본문: 이대목동병원이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토요일 진료와 수술을 확대 실시한다. 최근 국내 대형 병원들이 저마다 토요일 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환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진료를 실시해온 이대목동병원이 평일에 대학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환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토요일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강화한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은 진료과별 환자 특성에 따라 일부 교수들만이 토요일 진료에 참여해 왔으나, 이달 8일부터 전 진료과에서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토요일 진료와 수술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교수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선택진료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토요일 당일 접수를 통한 진료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모든 교수가 참여해 재진 환자들도 예약을 통해 토요일에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토요일 진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들이 크게 불편해했던 검사 및 수술이 이번 토요진료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 환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단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토요 수술도 확대 강화된다. 이대목동병원은 1∼3일 단기 입원 후 퇴원할 수 있는 수술의 경우 금요일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후 토요일 수술, 일요일에 퇴원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직장인과 학생들이 직무나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요일 수술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입원 후 백내장이나 사시 수술, 눈꺼풀 처짐 교정술, 편도염 수술, 자궁경 수술, 인대 봉합술, 중이염, 성대 수술 등은 토요일 오전에 수술 받고 당일 저녁 퇴원이 가능하다. 요로결석 제거 수술이나 요도 확장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은 토요일에 입원해 당일 수술 후 일요일 저녁이면 퇴원할 수 있으며 내시경을 이용한 담석 및 담낭 수술, 탈장 수술, 전립선 및 방광 절제술, 치질 수술, 편도 절제술 등도 입원 후 2∼3일이면 끝난다. 이대목동병원은 이처럼 원활한 토요일 진료를 위해 각종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초음파검사와 MRI, CT 등 대부분의 검사도 확대 실시해 진료와 수술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은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드러내기 꺼려하거나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이 필요한 보톡스 클리닉, 소아신경클리닉, 치매예방센터 등 전문 클리닉의 토요일 진료를 중점 실시해 개인별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직장 여성을 위한 임부클리닉도 개설한다. 실제 토요일 전문 클리닉은 환자들이 평일과 달리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원하는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구용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토요일 진료 전면 실시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으로 평일에 휴가를 내기 힘든 직장인과 학생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1.txt

제목: 웃음요법, 암 환자 ‘방사선 피부염’ 감소시켜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7145616002  
본문: 많이 웃는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생기는 피부염도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병원은 “<span class='quot0'>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사진) 교수팀이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34명의 피부조직 손상 정도를 웃음치료 그룹(15명)과 그렇지 않은 그룹(19명)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span>”고 16일 밝혔다. 방사선 피부염은 근접 방사선 치료 후 피부가 열에너지에 의해 벌겋게 익거나 열감,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약 80%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웃음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은 중증 방사선 피부염(2∼3등급) 발생률이 84.2%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웃음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그 비율이 66.6%에 그쳤다. 웃음치료를 실시한 환자들의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7.6%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다. 공 교수팀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웃음요법은 주 2회, 1시간씩 두 달간 총 16회 실시됐는데 주로 거울보고 웃기, 음악에 맞춰 춤추기,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며 활동하기 등 신체활동과 타인과의 교감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공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환자의 경우 중증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면, 방사선 치료를 1∼2주 중단하는 일도 생기는데 이는 방사선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웃음치료를 통해 방사선 치료의 피부염 후유증 발생위험을 낮추고 치료 효과도 높이면 궁극적으로 암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암 표적치료 전문 국제 학술지 ‘온코타깃 앤드 써래피’(OTT)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2.txt

제목: 영원한 공주님, 이젠 하늘나라로…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7145747001  
본문: 폐암으로 투병하던 여배우 김자옥씨가 63세로 별세했다.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16일 오전 7시40분 별세하셨다”며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2008년 4월 종합검진에서 대장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대장암 투병 중 암세포가 임파선과 폐에 전이됐다”며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고인은 1951년 부산에서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시인 김상화씨의 2남5녀 중 3녀로 태어났다. 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연기력과 흥행성을 겸비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75년 작가 김수현의 드라마 ‘수선화’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거머쥐었고 ‘모래 위의 욕망’ ‘사랑과 진실’ ‘유혹’ 등을 통해 안방극장의 스타로 사랑받았다. 스크린에선 76년 변장호 감독의 ‘보통여자’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영아의 고백’ ‘지붕 위의 남자’ 등에 출연해 관객을 끌어모았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 한 달 만인 2008년 5월 SBS 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했다. 이후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오작교 형제들’과 지난 3월 종영한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등을 통해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연기 외에 성우, 가수로도 활약했다. 74년 MBC 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계절’에서는 성우를 맡아 한국방송대상 성우상을 받았고 90년대 MBC 코미디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의 코너 ‘세상의 모든 딸들’에서는 여고생 복장을 하고 등장했다. 96년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가수로 데뷔, ‘공주는 외로워’를 불러 ‘공주 신드롬’도 일으켰다. 지난 1월 케이블 채널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기도 했다. 인기 절정이던 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한 고인은 2년 뒤 KBS 드라마 ‘사랑의 조건’으로 복귀했고 이듬해 최씨와 이혼했다. 84년 그룹 ‘금과 은’의 보컬 가수 오승근과 재혼해 지금까지 연예계의 대표 잉꼬부부로 살아왔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오씨는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별세 소식에 문화계 인사들은 슬픔을 표했다. 배우 나문희, 유호정, 윤소정, 주원과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등이 조문했다. 위암 투병 중인 소설가 이외수는 트위터에 “<span class='quot0'>마왕님(신해철씨)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span>”이라며 애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9일이다.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3.txt

제목: 이어령 원로에게 영성의 길을 묻다  
날짜: 2014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5145459001  
본문: ‘옛날 성자들이 꽃밭이 아니라 사막에서 영성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오늘의 사람은 어디이겠는가. 바로 저 소설의 무대인 도시의 아스팔트 거리일 것이다.’ 2010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 화제가 됐던 이어령(80·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전 문화부장관이 4년 만에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포이에마)를 최근 출간했다. 그는 이 책 프롤로그에서 ‘아스팔트의 영성’을 얘기했다. 앞서 2007년 여름. ‘한국의 대표적 지성 이어령’이 세례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퉁 울리는 뉴스였다. 대중은 평생 텍스트를 분석하며 산 학자, 계몽과 합리에 익숙한 지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 ‘그 무엇이 있다’고 받아 들였다. 이어령이 복음을 받아들인 창(窓)은 딸 이민아 목사(1959~2012)였다. 암과 싸우면서도 목회자로서 단 한 순간도 전도를 멈추지 않던 딸. 그 딸은 죽는 순간까지 한국 지성의 상징 아버지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어령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그러나 그로부터 몇 주 후 그의 사랑하는 외손자가 스물다섯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그 부녀는 수백, 수천 번 읽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너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은 아들 잃은 어미마저 거둬갔다. 그 딸의 아비는 과연 영성을 향한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연구소에서 이어령 이사장과 두 시간여의 대담을 가졌다. 노학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침없었다. 그러면서도 내면의 평안함이 묵상하듯 배어나왔다. -책장에 일본 원서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독자는 잊지 못하죠. (독도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 이승철이 일본 공항에서 부당한 억류와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소식이 요 며칠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곳이 일본 땅인데 그 복음이 정착을 못했어요. 복음이 자리 잡았으면 저렇게까지 편협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본은 관료주의가 우리보다 몇 십 배 강합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근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방계, 북방계에서 쫓겨온 사람들로 이뤄진 국가입니다. 그러니 ‘만들어진 깃발’이 필요했던 거죠. 가짜 천황을 만들어 놓고 신도 의식으로 섬깁니다. 50∼60년에 걸쳐 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정책 등을 이뤄놓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가잖아요. 천황은 인질로 잡힌 겁니다. 가장 지존하지만 가장 천한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을 결속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우상이어도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구중(九重)의 옷을 입어요. 다마네기(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옵니다. (우리와) 영원히 근접할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자기들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이런 의식이 일본을 지배해요. 독일도 비슷해요. 유대인 600만명을 죽인 것 보세요. 두 나라가 과학과 교양, 지식이 뛰어나나 인간의 기본적인 문화를 컨트롤 못하는 야성이 있어요.” -영성 부족이 공동체를 파괴하는군요. “그렇죠. 과학과 합리주의는 신을 살해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군이 누구를 먼저 죽이나요. 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신을 하나 세워 둔 ‘최고 존재의 제전’을 열지요. 그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당초 불행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들의 옹호자였죠. 인권변호사였어요. 그는 이상에 충실했고 목숨 내걸고 약자 편을 들었어요. 정권을 잡았어도 셋방살이 했어요. 그런 그가 극단적 열정에 사로잡혀 기독교를 부정하고 파괴합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한 자신의 잣대로 보니 도처에 죽을 놈들이 널린 겁니다. 끔찍한 처형이 이어지죠. 공포정치의 대명사잖아요.” -이성이 갖는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간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한 번에 대여섯 명을 놓고 처형했어요.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바로 정(情), 사랑이 없었어요. 정의로운 혁명이든 그렇지 않은 혁명이든 혁명은 생명과 사랑을 도외시합니다. 6·25를 겪었고 혼란한 시절을 살아온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죠.” -‘사랑 없는 혁명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이신데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의 일맥 하는 흐름 같습니다. 다섯 작품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말테의 수기’ ‘탕자, 돌아오다’ ‘레미제라블’ ‘파이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은 ‘레미제라블’에서 뽑아낸 순례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레미제라블의 한국판 제목이 ‘아, 무정(無情)’입니다. 딱 드러내는 제목이죠. 한국사회는 레미제라블의 혁명과 자유, 평등을 가지고 지금도 사방에서 이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산업화는 자유를, 민주화는 평등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도처에서 충돌해요. 심지어 가족·세대 간에도요. 한데 사랑의 영성을 가진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성서에서 그 답을 찾아요. 사랑이죠. 그는 교회가 이를 완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인간의 오만이 이성을 이유로 우상을 만드는군요. "기독교는 영성의 힘입니다. 한데 잘못된 교주가 이성을 끌어와 자신을 신과 구별이 안 되게 흐려놔요. 공산당도 그런 방식입니다. 그 교주의 종교나 공산당은 서로 혁명군이죠. 사랑 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사랑 없는 인간의 진보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예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죽는 빵'을 먹으려 하지요. 목사조차도 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죽는 빵'이요.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성이 생깁니까.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열광하죠. 훗날 교회도 열광해요. 지금의 설교자들도 예수가 행한 기적이라며 말이죠. 오병이어는 그 비유가 아닙니다. 구름 떼처럼 사람이 몰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는 도망가요. 군중이 지상의 왕이 돼라 하니 당연히 도망가죠. 오병이어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 빵을 먹으려는 이들을 질책하는 비유입니다. 예수가 강에서 배를 타려 할 때도 '죽는 빵'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죠.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살 텐데 먹어도 배고픈 빵만 찾으니 그렇죠. 제가 50년을 문학비평한 사람입니다. 비유법을 전공했어요. 그 텍스트를 이해 못할까요." -영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군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삽니까. 무엇보다 제대로 믿어봐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니체(19세기 독일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바른 번역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절실한 얘기였던 거죠. 적어도 니체는 믿어봤으니까요. 믿어야 영의 양식을 알고 영성을 알죠." -다섯 작품마다 심연에서 헤매는 인간이 있고 분석이 있습니다. "'파이 이야기'는 벵골호랑이와의 공생을 묘사했습니다. 자기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소년 파이는 끝내 살려주죠. 생명이니까요. 주인공 파이가 탄 구명보트에서 가장 갈급한 건 갈증입니다. 갈증을 축여주는 물은 우리 내면의 목마름, 영성의 세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인거죠. 227일간의 조난이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겠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살았다'가 파이가 하고 싶은 말 아닐까요." -따님은 생명이셨죠. "죽음이 그 아이를 막지 못했어요. 영생을 믿은 딸은 엄청난 통증에도 늘 의연했어요. 죽기 전날까지도 기도하며 평안했어요. 혼절해서 깨어나면 '아빠, 마귀가 어젯밤은 좀 심했어'라며 웃더군요. 내가 내 딸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지식인의 책무가 남달리 들리지 않으실 텐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인의 책무는 비판에 비판을 거듭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빅토르 위고 등 책에 나오는 작가들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들이 작품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하려는 건 사랑, 하나님의 영성입니다."이어령문학평론가. 1934년 충남 온양(현 아산) 태생. 서울대 국문과와 같은 대학원 졸업. 1956년 '우상과 파괴'로 평론계 등단.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 역임. 이화여대 교수(1966∼89), 초대 문화부 장관,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새천년준비위 위원장, 2002년 월드컵조직위 식전문화 공동의장 역임. 저서 '저항의 문학'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등 다수. 현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4.txt

제목: 스마트 가발·안구 마우스…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서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품 봇물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4145407001  
본문: 암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가발’(사진), 후방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오토바이 운전자용 헬멧, 수중 구조 활동을 돕는 스마트 물안경,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안구 마우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13일 개최한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품들이 나왔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언제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몸이나 옷 일부분에 착용하도록 만든 컴퓨터다. 인터넷에 기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 등은 이미 상용화됐다. 출품작 중 ‘암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가발’은 가발 안에 심박수와 체온을 재는 센서가 내장돼 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응급사고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잠수부의 수중 구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물안경’도 출품됐다. 스마트 물안경은 가시광선이 아닌 초음파로 시야를 확보한다. 깊은 물 속이나 매연, 분진 등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비로 쓰일 수 있다. 실시간 수심을 체크해 주는 ‘스마트 구명조끼’도 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심 정보가 전송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가 미리 등록된 번호로 전송되는 기능도 장착됐다. ‘스마트 슈즈’는 사용자가 어떻게 걷는지에 따라 신발 모양이 조절돼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착용감을 조절해준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깔창’도 출품됐다. 깔창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 미리 계획한 여행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진동을 통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생 52개팀이 지원했고 15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건강관리 제품이 6개, 오락·정보 제품이 9개다. 시상식은 14일 열리고 11개팀이 수상 예정이다.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5.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인공 불빛 끄면 새롭고 황홀한 세계 드러난다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4145256001  
본문: 만약 당신이 밤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미네소타의 시골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별과 달을 보며 자란 후 지구의 빛에 관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는 말한다. “<span class='quot0'>평온한 수면과 생체리듬, 예술과 사유뿐만 아니라 끝내는 당신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span>”라고. ‘지구상 가장 어두운 곳으로 떠나는 깊은 밤으로의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어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루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꽉 채운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가. 가로등, 주차장, 주유소, 쇼핑센터, 운동장, 사무실, 가정집 등에서 흘러나온 불빛으로 눈부신 밤은 결코 안전하지도, 이롭지도 않다. 인공 불빛으로 밝힌 밤은 오히려 어둠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수면장애에서 암에 이르는 질병을 일으키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한반도의 밤은 대조적이다. 남한의 서울은 선진국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휘황찬란하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펼쳐진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러면서 지구 전체에 희망의 불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동시에 밤의 세계지도가 더욱 어두워지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한다. 노태복 옮김.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6.txt

제목: [시온의 소리-권명수] 따뜻한 남성을 향한 첫걸음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4145414001  
본문: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가 되는 법을 어릴 적부터 은밀하게 배우게 된다. 사내는 대범하고, 강직하며, 과묵하고, 신중해야 한다. 쉽게 자신의 속내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길을 가다 넘어지면 스스로 흙을 털며 일어나야 한다. 피가 나거나 아프다고 울면 “사내자식이 이깟 일로 울고 그러느냐”는 핀잔을 듣는다. 사내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에 사회적 체면과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무감동, 무감정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줄로 안다. 장남이라면 여기에 짐이 하나 더 추가된다. 장남은 한 가정을 이끌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더욱 의젓하고 늠름해야 한다. 공부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잘 건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가슴은 무뎌지고 일만 아는 일벌레가 되고 만다. 일중독에 빠진 장남들은 일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남성도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다. 소설 ‘가시고기’의 주인공 정윤호를 살펴보자. 그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팔아 수술비를 마련해 암에 걸린 자식을 구한다. 그가 이혼당한 홀아비라는 데서 충격의 강도는 더욱 크다. 물론 소설이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그가 시인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인은 머리로 시를 쓰지 않고 가슴으로 쓴다고 한다. 가슴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시상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는 이가 시인이다. 이런 점에서 남성 정윤호는 자신의 가슴과 밀접하게 연결해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들에 대한 사랑에 민감하였으리라. 그는 애절한 가슴의 울림을 외면하지 못하고 생명과 같은 눈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하고 생을 마쳤다. 필자를 위시하여 많은 남성들이 성숙한 남성이 되고자 노력한다. 스스로에게도 힘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남성들은 외부적 조건만 강조하지, 내면이나 가슴의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숙하고 많지 않다. 사오정 허무 개그에 “이 세상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가장 험하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여행이 뭘까요”라는 질문이 있다. 정답은 30㎝ 거리의 여행인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남성은 머리에 많이 의존한다. 머리를 사용해 일과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그렇다. 차가운 머리와 이성의 영역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친밀한 인간관계에는 가슴의 표현이 더 요구된다. 참된 인간관계는 지적 능력, 외부 조건, 매력보다는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속내를 주고받는 마음의 대화가 중요하다. 따뜻한 남성을 향한 길은 어색하고 힘들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이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 가슴에 담긴 얘기를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조금씩 실제로 해보는 시도가 중요하다. 든든하고 성숙한 남성, 다정한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려는 뭇 남성들이여, 나와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시급하고도 신성한 여정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저만치서 행복이 손짓하고 있다.권명수 교수(한신대 목회상담)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7.txt

제목: 예장합동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나섰다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2144950001  
본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광주전남·전북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11일 광주 남구 봉선로 겨자씨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집회’를 열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희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상황과 저지활동 경과’ 강의에서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영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이슈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러나 법안이 막상 통과된 뒤 학교에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고 강단에선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심지어 일부 국가는 동성애자의 결혼식 때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는 교회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민순 조선간호대 교수는 ‘보건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2006년 이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100%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이중 92%는 남성, 8%는 여성”이라며 “남성 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은 남성 간 성관계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계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span class='quot1'>에이즈 환자는 매달 약값만 300만원가량 되는데 건강보험과 세금으로 100% 지원받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반면 국민 다수가 걸리는 뇌졸중이나 암 환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1'>동성애 반대 측에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특혜를 문제 삼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그러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과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성애의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이태희 변호사도 “<span class='quot2'>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의 가르침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왜곡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것</span>”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주최측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광주시청 앞에서 낭독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8.txt

제목: 갑자기 쉰 목소리, 혹시 후두암?… 후두내시경으로 걱정 ‘끝’  
날짜: 2014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10144522001  
본문: 중년 남성은 목소리 변화에 유난히 민감하다. 혹시 후두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후두암이 흔하지는 않지만 환자 중 약 93%가 남성이고, 99%가 술과 담배를 즐기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을 때나 갈라지듯 쉰 목소리가 나올 때, 후두암 때문인지 빨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후두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면 간단히 해결된다. 암 검진이라고 하면 CT나 MRI 혹은 수면 마취 후 내시경 검사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후두암은 1분도 안 돼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로 발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후두내시경을 목 안쪽으로 넣어 후두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마취를 하거나 사전에 약물을 복용할 필요도 없다. 검사비용도 2만원 정도여서 부담이 적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주형로 목질환센터장은 “<span class='quot0'>만약 장기간 술·담배를 즐긴 50대 이상 남성이 갑자기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에 이물감이나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느껴지면 한번쯤 후두암을 의심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이상 증세가 없더라도 술과 담배를 즐기는 50대 이상 남성은 후두암 예방을 위해 연 1회 정도 이비인후과를 방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후두는 목의 중앙에 위치한 기관으로 발성과 호흡을 담당한다. 공기 통로인 후두에 종양이 생기거나 염증에 의해 붓게 되면 통로가 좁아지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아래나 위쪽보다는 중앙부인 성대 쪽에 잘 생긴다. 갑작스런 목소리 변화가 후두암 적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후두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금연이 필수다. 주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장기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6년 이상 금연하면 후두암 발병률이 크게 떨어지고 15년 이상 지나면 비(非) 흡연자와 비슷해진다는 보고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89.txt

제목: [11월의 잡지] ‘식품과 건강 어떤 관계있나’ 분석… ‘건강과 생명’  
날짜: 2014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8144342001  
본문: 이달의 특집은 ‘식품과 건강’이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인스턴트식품 과다 섭취 문제, 음식 알레르기, 단체 급식, 치료식에 대해 차례로 살폈다. 특히 치료식과 관련, 질병별 주요 치료식 유형의 예는 현재 당뇨병이나 심장·위장·간·신장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하다. 주요 식사의 원칙, 치료식 유형 등을 꼼꼼하게 다뤘다. 분야별, 진료별 최고의 전문의가 만드는 ‘건생주치의’ 코너에서는 여성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골반 내 감염’에 대해 알아본다. 불임 및 자궁외임신 등의 원인이 되는 이 질환은 가임기 여성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0.txt

제목: 2050년 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 20억명 달해… WHO 비어드 박사 논문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7144247001  
본문: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5살 이하 어린이 인구를 앞지르고,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8억4100만명에서 20억명으로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노령화 담당 국장 존 비어드 박사는 6일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존 비어드 박사는 세계인구의 기대수명이 늘고 있지만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노인들의 삶이 피폐해져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비어드 박사는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60세 이상 인구의 약 23%가 암,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병,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병, 정신이상, 신경계 질환 등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6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이상꼴로 위와 같은 병에 걸려 여생을 보낸다는 의미다. WHO에 가입한 194개 회원국의 기대수명 통계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1990년 64세에서 2012년 70세로 증가했다. 60세 인구의 평균 기대여명도 같은 기간 18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현재 60세인 사람이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이 20년이란 뜻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평균 건강수명이다. WHO는 지금 태어난 아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을 62년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70세인 것을 감안하면 8년 정도는 질병 등의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본 것이다. 논문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보건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노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조기 진단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어드 박사는 “<span class='quot0'>만성적인 질병과 이에 따른 환자 본인 및 가족의 복지 수준 저하 등으로 인한 부담이 보건 체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료체계는 물론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공동 연구자인 티에스 보에르마 박사는 “<span class='quot1'>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계통적 연구는 정책의 주요 준거가 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1.txt

제목: [기획-희귀병 질환자의 고통] 희귀병 기본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다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7144221001  
본문: 우리나라에 희귀난치성질환(희귀병) 환자는 몇 명이나 될까. 아무도 모른다. 연간 희귀병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총액은 어느 정도일까. 이 또한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질환·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의 기본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희귀병은 1020종이다. 환자는 50만명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인된 희귀병은 7000여종이고, 박채원양처럼 병명조차 없는 병까지 감안하면 국내 희귀병 종류와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50만명으로 어림잡아도 100명 중 1명은 희귀병 환자라는 소리다. 결코 적지 않다. 희귀병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희귀병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고, 희귀병 진료비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그렇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span class='quot0'>관련법이 없다 보니 희귀병 정의가 모호해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누락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원 비용도 만만찮아서 법이 만들어져야 정부도 준비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2012년부터 3년간 희귀병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는 법안을 잠재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희귀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도록 하는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지난달 말 현재 157종의 희귀병 진단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7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희귀질환의 절반 정도는 산정특례에서 제외돼 있다. 120개 질환은 질병코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희귀병 치료약이나 각종 처치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다. 채원이네는 진료비로만 월평균 1000만원씩 써야 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span class='quot1'>국회가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하루하루 힘겨운 환자와 가족들을 보듬어 달라</span>”고 호소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2.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곽효정] 달과 별 미술관  
날짜: 2014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5143809001  
본문: 1층 북카페는 백반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래된 책이 꽂혀 있던 나무책장과 파도의 질감이 그대로 묻어난 그림들, 옛집을 떠올리게 하는 난로가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쉬웠다. 백반집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주인이 북카페를 세주고 게스트하우스만 운영한다는 것이다. 백반집 아줌마는 내 카메라를 보더니 주인아저씨도 사진을 찍던데 한번 만나보라고 넌지시 권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주인아저씨에게 나는 7년 전 이곳에 카페 벽마다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며 바닷가에 손수 만든 작은 갤러리에 가져다뒀는데 보여주겠다고 했다.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기억해주는 사람이라면 형도 보여주기를 바랄 것이라 했다. 겨울이라 가는 길에 해가 졌다. 아무것도 없는 외진 곳에 작은 미술관이 하나 있었다. 한쪽 면은 통유리였다. 잠시 후 하늘과 바다가 구분가지 않을 만큼의 어둠이 내려앉고 그 사이로 손톱달이 나타났다. “<span class='quot0'>여기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이런 풍경을 혼자만 볼 때예요.</span>” 그러면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다. “땅끝마을이라 그런지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죠. 형도 그중 하나인데, 매년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언제부턴가는 제가 물감을 사놓았죠. 딱 봐도 형편을 아는데, 그 양반이 물감 사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예술가였죠. 돈 벌려고도 하지 않고 여기 오면 몇날 며칠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그림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진짜 미술관에 전시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그가 형이라 불렀던 그 화가는 암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다. 겨울이면 북카페의 난로 주변에 손님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불을 쬐며 군고구마를 까먹곤 했다고, 그들 중 화가 형도 함께 있었다고,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림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라고 생각할 뿐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하늘을 바라봤다. 손톱달이 조금씩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조명이 생략된 그곳은, 온통 달과 별뿐이었다.곽효정(매거진 '오늘' 편집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3.txt

제목: 전침항암요법 시행 유방암도 잡아내는 ‘큐어람 한의원’  
날짜: 2014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4143617001  
본문: 유방암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시행되는 한방국소항암치료의 하나인 전침항암요법. 이 치료법은 유방암과 같이 피부 표면에서 만져지는 암에 항암활성이 강한 한약재의 추출물을 주입하고 세포 내로 흡수가 잘 되도록 자극을 가해 주는 방식이다. 전침항암요법은 이미 유럽에서 20여 년간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돼 왔다. 스테판 오르워프스키 박사가 영국의 학술지(Biochemical Pharmacolog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에 순간적인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항암제가 암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비율이 무려 700배나 증가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치료법인 전기적 항암치료(이하 ECT, electrochemotherapy)의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은 유럽 4개국의 7개 기관이 참여한 ESOPE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ECT를 응용해 유방암과 피부 전이 병변을 치료하는 큐어람한의원 임창락(사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양방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라도 한약재 중 항암성분이 있는 천연추출물을 주입해 치료하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 항암제의 경우 암의 발생 및 성장 기전 중 한 가지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일단 내성이 생기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천연추출물의 경우 추출물 내에 들어 있는 다양한 항암 성분들이 여러 기전을 동시에 공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단순히 천연항암제를 피하에 주입하는 약침요법을 넘어, ECT의 전기 자극법을 결합해 개발된 전침항암요법의 경우 암 조직 속으로 흡수되는 천연 항암성분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임 원장은 “<span class='quot1'>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피부에 전이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다른 치료에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span>”고 말했다. 유방암이 피부에 전이되면 심한 경우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고 고름으로 인해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아 대인 접촉을 꺼리고 우울증에 빠져 치료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 전침항암요법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한방암치료를 통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임창락 원장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타 암종에 비해 식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막연한 예방이나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유방암에 좋은 음식을 찾아내는 원칙으로 ‘지방과 혈당을 줄여라’라는 한 문장을 꼽았다. 지방에서는 여성호르몬 유사물질이 분비된다. 여성호르몬에 오래 노출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고, 유방암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체내에 축적돼 여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상황은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고지방 식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지만,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다. 유방암 환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1에서 1대2 정도가 되도록 오메가6의 섭취비율을 늘리도록 권장된다.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생선과 견과류이고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옥수수기름, 동물성 지방 등이다. 혈당을 줄이는 것은 모든 암 환자가 지켜야 할 철칙이다. 혈당을 급속도로 높이지 않으려면, 흰쌀밥보다 현미를, 흰 밀가루보다 통밀을 이용한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임 원장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통합식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병원을 찾아 현재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과잉되거나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고 꾸준한 노력이 더해질 때, 적극적인 치료의 의미가 있는 유방암 환자의 식이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4.txt

제목: '차움' 개원 4주년… 글로벌 의료관광 1번지 자리매김  
날짜: 2014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4143658001  
본문: 차병원의 프리미엄 검진센터 '차움'이 지난달 28일로 개원 4주년을 맞았다. 차움은 2010년 10월 28일 국내 최초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로 개원해 주목을 받았다. 올 기념 행사는 차병원그룹이 지난 5월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목표로 오픈한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진행됐다. 차바이오 콤플렉스는 차병원그룹의 유전체·의생명·암·줄기세포연구소와 동물실험센터, 차의과대학원, 제약, 바이오 계열사 등 산학연 기관이 모두 집결돼 교류하는 미래형 연구원이다. 미래형 병원 차움의 프리미엄 ‘검진’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인기다. 현재 중동 국가들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명사는 물론 왕족과 국가 원수까지 전용기를 타고 찾아오는 세계적인 의료관광센터로 자리매김했다. 할리우드 배우 피터 폰다와 크리스틴 데이비스 등 유명 배우들을 비롯해 세계적 부호인 중국의 엄빈 회장, 캐나다의 나이가드 회장, 미식축구 스타 테렐 오웬스, 중국 여배우 장징추, 메이저리거 추신수, 프로골퍼 박인비 등이 진료 차 다녀갔다. 최근에는 아부다비 왕, 두바이 공주 등 중동 왕족들도 차움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찾는 검진이 바로 ‘10대 암 검진’이다. 혹시라도 암이 발견되면 바로 현지에 있는 병원이나 미국 등의 큰 병원으로 연결해 주고 의사가 직접 소견서를 써 주기도 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 차움·차병원 국제진료센터의 크리스티 김(사진) 원장을 만나 차움만의 차별화된 검진에 대해 물었다. 그는 “지난 4년간 차움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명의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왔다”며 “누워만 있으면 의사가 직접 와 검진이 이뤄지는 세계 유일의 셀 검진과 방사선양을 대폭 줄인 안심 검진 서비스는 국내외 환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차움의 검진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 걱정 없는 ‘안심 검진’=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종합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더라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이 늘면서 2010년 암환자가 2005년 대비 위암은 약 3.5배, 대장암은 약 6.3배로 늘었다. 이에 차움은 국내 최초로 개인 방사선 노출량 통보시스템과 최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Discovery 750 HD) 시스템을 도입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했다. 또 좁은 공간에서 한 시간 넘게 누워 있어야 하는 기존 MRI와는 달리, 검사 공간이 넓고 검사 시간이 짧아 폐쇄공포증 환자도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차움의 검진 서비스는 의료진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1인 개인 룸에서 필요한 모든 검진을 시행하는 ‘원스톱 맞춤검진’으로 진행된다. 차움의 크리스티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기존의 검진이 질환 자체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차움의 검진은 고객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span>”고 말했다. 더불어 노화도 정밀 진단을 통해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다. 검진 결과가 나오면 주치의와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한 팀을 이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과를 상담하며 향후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 해준다. ◇한국인에서 발병률 높은 ‘10대 암’ 집중관리=차움의 검진시스템은 프리미엄과 안티에이징, 유전자 검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중년 이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에서 발병률이 높은 10대 암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남성이 잘 걸리는 10대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방광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 및 담도암이다.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 담낭 및 담도암, 췌장암, 난소암이 이에 해당한다. 차움은 이런 암 예방을 위해 장기 및 질환별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한다. 검사 항목엔 기초검사를 포함해 정밀 혈액검사와 폐기능 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검사, 복부초음파,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뇌혈관 검사 등 총 14가지가 들어 있다. 대상은 성인 남녀 모두 가능하다. 이 모든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며, 당일 검진에서 당일 결과 및 상담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개원 4년 맞아 프리미엄 외래진료시스템 도입=크리스티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차움의 건강검진은 환자 우선주의를 앞세운 것이 가장 큰 특징</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에서는 예약을 통해 하루 30명만 검진이 가능하고 오전에 검진을 받을 경우 당일 검진 결과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차움은 최근 개원 4주년을 맞아 프리미엄 외래진료 시스템도 도입했다. 또 차움은 검진 후 주치의가 사후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Dr. Checkup 프로그램인 ‘주치의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질환이 발견된 고객이나 잠재 질병이 있는 고객들이 주치의의 상담을 받고 사후 관리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티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 4년 간 차움은 예상치 못할 만큼 커다란 성장을 이뤄냈고 처음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해외 명사들이 입소문만으로 찾는 의료 관광 명소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보다 더 내실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첨단 줄기세포 등 새로운 의학의 접목과 연구도 진행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병원은 국내 최초 의료 수출 1호 기업으로 1999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요청으로 콜롬비아대학 CC불임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5.txt

제목: 비뇨기과로 한발 더 가까워져라  
날짜: 2014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104143643001  
본문: 필자가 주변인들에게 배뇨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느 진료과를 찾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의외로 ‘비뇨기과’라는 대답이 드물다. 오히려 비뇨기과는 성병이나 음경 확대 수술, 조루와 같은 성(性) 기능과 관련된 시술을 하는 곳이 아니냐는 조금은 황당한 반문이 돌아오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 비뇨기과를 검색해 봐도 이런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비뇨기과에 대한 오해가 많은 만큼 한국 남성들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은 편이다. 비뇨기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질환은 신장,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를 포함한 소변이 생성되어 배출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모든 요로기관은 물론 음경, 음낭, 고환과 같은 생식기관 전반에 발생하는 질환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비뇨기과 질환은 한 가지 질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50대 이상 중년 노년 남성에게 암을 제외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뇨기과 질환 중 하나인 발기부전의 경우, 환자의 72%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으며 이 중 36%는 남성 갱년기를 동시에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발기부전 환자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과반사, 골반 내 동맥 혈류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아 배뇨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은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 발생 위험도 높인다. 따라서 발기부전 환자가 여러 이유로 비뇨기과 방문을 꺼리게 될 경우, 그 환자는 한 가지 질환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다른 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기회도 놓치게 되는 셈이다. 얼마 전 진료했던 50대 남성의 경우, 4년 전부터 발기부전 치료를 미뤄 왔다. 이 환자는 발기부전 이후 찾아온 잔뇨감, 빈뇨 등의 하부요로증상이 점차 심해지고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이 더해져 주위의 권유로 내원한 환자였다. 검사 결과 중등증의 발기부전과 연령에 비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진료 후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남성갱년기를 통합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발기부전과 배뇨 장애는 물론 성욕감퇴, 우울감, 무력증과 같은 갱년기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비뇨기과는 환자가 인지하고 있는 특정 질환만을 개선시키거나 치료하는 공간이기보다 남성 건강 전반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최근 비뇨기과에서는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 다른 연계 질환의 가능성은 없는지, 연계 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단과 관리를 제공하는 남성 건강 종합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기대 수명이 점차 증가하면서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뇨기과는 남성들이라면 더욱 가까이 두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남성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양대열 강동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6.txt

제목: 가을은 화양구곡서 마침표를 찍는다… 우암 송시열이 은거했던 괴산 화양동계곡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30142816001  
본문: 우암 송시열은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이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붓으로 세상을 움직인 노론의 영수로 공자(孔子)와 주자(朱子)에 이어 송자(宋子)로 불렸다. 그는 효종과 함께 북벌을 꿈꾼다. 그러나 효종이 즉위 10년 만에 승하하면서 북벌이 무산되자 송시열은 노구를 이끌고 심산유곡에 바람처럼 스며든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송시열이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 화양동계곡이다. 이곳에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속리산 품에 안긴 충북 괴산(槐山)은 느티나무의 고장이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느티나무로 꼽히는 장연면 오가리의 느티나무를 비롯해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만 113그루나 된다. 고을 이름조차 ‘느티나무 괴(槐)’를 쓰고 있다. 화양동계곡도 예외는 아니어서 바람이라도 불면 느티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비가 갈색추억을 노래하며 나그네를 맞는다. 화양동계곡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 그리고 너른 반석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무릉도원이다. 송시열은 이 화양동계곡을 무척 사랑하고 아껴 스스로를 화양동주(華陽洞主)라고 부르며 직접 화양구곡의 위치를 선정했다. 그리고 제자인 수암 권상하는 3㎞ 구간의 구곡에 경천벽(제1곡), 운영담(제2곡), 읍궁암(제3곡), 금사담(제4곡), 첨성대(제5곡), 능운대(제6곡), 와룡암(제7곡), 학소대(제8곡), 파곶(제9곡) 등 이름을 붙였다. 수직절리와 수평절리가 두부모를 자른 듯 날카로운 경천벽(擎天壁)은 기암괴석이 우뚝 솟은 형상이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주차장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나치기 쉽다. 경천벽은 드라마 ‘상도’ 촬영장으로도 유명하다. 오른쪽 바위에는 단암 민지원이 쓴 ‘擎天壁’이 선명하고, 왼쪽 바위에는 ‘華陽洞門(화양동문)’이라는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경천벽에서 잣나무와 느티나무 가로수가 멋스런 도로를 한참 걸어가면 ‘구름의 그림자가 맑은 소에 비친다’는 운영담(雲影潭)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직절리와 수평절리, 그리고 하식애로 이루어진 삼형제바위가 운영담에 반영을 드리운 풍경이 마치 데칼코마니 기법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넓은 반석인 읍궁암(泣弓巖)은 송시열이 효종의 죽음을 슬퍼해 새벽마다 이 바위 위에서 통곡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읍궁암에는 돌개구멍으로 불리는 포트홀과 안내석을 세웠던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화양서원터에 보존된 직육면체 안내석 4개 중 가장 깨끗한 돌이 어느 해 홍수 때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석이다. 송시열의 울음소리인 듯 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한 읍궁암 앞에는 그를 추모하는 송자사(宋子司)와 중국 명나라 신종의 위패를 봉안했던 만동묘(萬東廟) 등이 복원돼 있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을 비롯해 원군 23만명을 파병한 명나라의 신종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송시열의 유지를 받든 권상하 등이 건립했으나 일제에 의해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다. 화양서원이 있던 길섶에는 제주도의 정낭을 닮은 하마소가 보존되어 있다. 담쟁이덩굴에 둘러싸인 하마소는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각 구멍이 두 개 뚫린 길쭉한 돌에 나무를 끼운 일종의 바리케이드이다. 이 하마소는 훗날 대원군이 화양서원을 철폐하는 원인이 된다. 대원군은 집권 전 말을 타고 전국을 유람하다 화양서원을 찾았으나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생들에게 호되게 봉변을 당했다. 그날의 치욕을 잊지 못한 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화양서원을 가장 먼저 철폐시켰다. 유생들의 횡포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화양서원이 철저하게 파괴된 데는 대원군의 사감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시냇가 바위 벼랑 펼쳐진 곳/ 그 사이에 집을 지었노라/ 조용히 앉아 경전의 가르침 찾아/ 시간을 아껴 높은 곳에도 오르리라’ 화양구곡 최고의 절경은 맑고 깨끗한 물과 금싸라기 같은 모래가 펼쳐져 있는 금사담(金沙潭)과 금사담 앞 바위절벽에 고즈넉하게 올라앉은 암서재(巖棲齋)이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가는 산을 배경으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하는 암서재는 송시열이 후학을 양성하던 곳으로 3칸짜리 기와집과 함께 송시열의 시 한 수가 전해온다. 햇빛과 달빛에 반짝이던 모래사장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사라졌지만 물소리에 놀라 파르르 떠는 단풍잎이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화양천 물줄기를 따라 조금 더 거슬러 오르면 별 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의 첨성대(瞻星臺)가 도명산 자락에 우뚝 솟아있다. 이 바위벽에도 수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大明天地 崇禎日月(대명천지 숭정일월)’은 명나라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송시열의 글씨를 각자한 것이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뜻의 ‘非禮不動(비례부동)’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글씨다. 첨성대 옆 바위에 새겨진 ‘만절필동(萬折必東)’은 선조가 임진왜란 후에 쓴 글씨로 경기도 가평의 조종암에 새겨진 것을 베껴 옮긴 것이다. 만절필동은 강물이 일만 번을 꺾여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으로 명나라를 사대하고 청나라를 배척한 송시열의 결의를 담고 있다. 만동묘는 ‘만절필동’에서 처음과 끝 자를 따온 것이다. 시냇가에 우뚝 솟은 바위가 구름을 찌를 듯 높다는 능운대(凌雲臺)와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바위가 길게 누워있는 와룡암(臥龍巖), 그리고 바위산 낙락장송에 학이 둥지를 틀었다는 학소대(鶴巢臺)의 풍경에 취해 걷다보면 하늘에서 오색물감이 방울방울 떨어질 것만 같은 단풍나무 숲길이 한동안 이어진다. 화양구곡의 마지막 절경인 파곶(巴串)은 단풍나무 숲길에서 계곡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만날 수 있다.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span class='quot0'>골짜기에서 흘러내린 큰 시냇물이 밤낮으로 돌로 된 골짜기와 돌벼랑 밑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천만번 돌고 도는 모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span>”고 한 파곶은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는 절경이다. 여인의 피부처럼 매끄럽고 하얀 파곶의 너럭바위는 단풍으로 물든 계곡 전체를 보듬고 있다.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용의 비늘처럼 보인다는 수많은 포트홀은 자연이 만든 천연의 악기라고나 할까. 흐르는 물이 포트홀에서 튕겨 오르며 내는 소리는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장엄하고, 리드미컬하게 여울지는 물결은 무희의 몸놀림처럼 경쾌하다. 우암 송시열이 ‘물은 청룡처럼 흐르고 사람은 푸른 벼랑으로 다닌다’고 한 파곶은 성리학적으로 학문의 완성을 뜻하는 곳이자 괴산의 가을이 완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괴산=글·사진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kspark@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7.txt

제목: [인포그래픽] 몸의 동력 혈액, 질병 진단 보고서…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9142800001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 하세요혈액학적 검사 여기에는 혈구 검사, 즉 CBC(Complete Blood Count)가 있다. 이것은 혈색소, 헤마토크릿(혈구용적),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수, 백혈구의 세포백분율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혈색소가 감소된 경우 빈혈의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멍이 잘 들고 혈액 응고에 문제가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알 수 있고 백혈구 수의 증감, 백혈구 백분율의 변화를 보면 백혈병 등 백혈구 질환의 잠정적인 진단을 얻을 수 있다. CBC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혈액도말 검사(혈액을 슬라이드에 얇게 발라 염색하여 혈구의 모양, 수 등을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 골수 검사 등을 시행하여 CBC에서 나타난 혈액 질환에 대해 더 자세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미생물학적 검사세균 검사를 말한다. 박테리아, 결핵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에 대한 배양 검사가 모두 시행될 수 있어 감염의 원인을 밝혀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검사이다.혈청 생 화학 검사혈액 내의 각종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혈당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간과 관련된 각종 효소 즉, AST, ALT, Gamma-GT,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등을 측정하여 간염, 지방성 간 질환, 간경화, 간암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보는 데 이용한다. 또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황달의 경우 그 정도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빌리루빈 등도 측정한다. 또한 노폐물을 걸러 주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왔을 때 증가되는 BUN, 크레아티닌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종 특수 화학 검사가 시행되는데 이는 심근경색증,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각종 대사 산물은 선천성, 또는 후천성 대사 질환의 진단을 내려준다. 화학 검사에는 암표지자 검사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특정 암을 직접 진단해 주지는 못하지만 암의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수혈 검사기본적으로 혈액형 검사가 있으며 수혈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적혈구 항체를 규명하는 검사도 포함된다. 각종 적혈구 항원 검사와 조직적 합성 항원(HLA) 검사를 같이하여 친자 감별도 실시한다. 유전학 검사는 혈액 내에서 DNA, RNA 등 핵산을 추출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유전자 이상을 진단한다.면역 혈청 검사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항체 검사가 포함된다. 즉, B,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등에 대한 항원·항체 검사로 이들 감염증을 진단한다. 또한 류머티즘 질환 진단과 함께 각종 면역 세포의 기능도 혈액에서 이들 면역 세포를 분리해내어 실시할 수 있다. 기타 알레르기의 각종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혈액 내의 특정 면역 글로블린을 측정함으로써 알레르기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혈액질환혈우병(Hemophilla)엄마나 아빠 염색체에 있는 X염색체가 자식 염색체로 유전된다. 혈우병A는 제8 응고인자가, 혈우병B는 제9 혈액응고인자가 유전적으로 결핍되어 생긴다. 혈우병 유발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며 열성으로 유전된다.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골수에서 혈소판을 못 만들거나 만들어진 혈소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모 또는 파괴될 때 발생한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 : 혈소판이 항체에 의해 제거되었을 때.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 : 혈액응고에 의해 소모되었을 때.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암전이 등 : 골수에 병이 생겨 혈소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백혈병(Leukemia)골수에 백혈병 세포가 자랄 때 정상기능을 하는 백혈구는 물론 적혈구와 혈소판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미성숙 백혈구들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어져 세균 감염 또는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혈소판 수혈에 의지하여 투병한다.Rh신생아 용혈성 질환 Rh(D)음성 임산부가 Rh(D) 양성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 또는 유산 등의 과정을 통하여 아기의 적혈구가 엄마의 혈액 내로 유입되면 엄마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 엄마는 Rh항체(anti-D) 를 가진다. anti-D를 가진 여성이 Rh(D) 아기를 다시 임신하면 아기의 Rh 양성 적혈구를 파괴하여 아기에게 심한 황달, 빈혈 등이 나타난다.빈혈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쉽게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기운이 없어진다. 철결핍성 빈혈 : 헤모글로빈 생성시 필수적인 철이 부족하여 생기며 철분제제를 공급하여 치료한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 골수에 병이 생겨 발생하며 항암제 치료 또는 골수이식을 한다.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 자가항체에 의해 일찍 제거되어 발생하며 자가 항체가 감소되도록 치료한다.혈액형이란생명체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형질 중의 하나. ABO, Rh, MNSs, P, Li, lewis, Duffy, Kidd, Kell 등 수백가지가 존재. 적혈구 표면에는 수많은 구조물이 있고, 적혈구 표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물 때문에 ABO, Rh, MNSs, P, Li, lewis 등 수많은 적혈구 ABO혈액형 이외의 항원들은 수혈 후 비예기 항체(unexpected antibody)를 만들 수 있어 ABO혈액형이 맞더라도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비예기 항체 빈도는 0.2∼0.6%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8.txt

제목: [세월호 결심공판] 희생된 단원고 학생 아버지 아들 곁으로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8103015001  
본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고 인태범(2학년 5반)군의 아버지 인병선씨가 최근 담도(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하다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끝내 아들 곁으로 떠났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씨가 숨진 사실을 전했다. 유 대변인은 “조금 전 태범이 아버지 인병선님께서 소천하셨다”며 “얼마 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참사 전에 암 진단 받은 적도 없던 분이 참사 후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인터뷰 당시 한 달 남았다고 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됐는데…</span>”라며 “<span class='quot0'>세월호 사고 후 극심한 스트레스가 인씨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span>”고 주장했다. 그는 “태범이 아버지… 어찌 눈을 감으셨어요. 우리 남은 가족들이 그 한 반드시 풀어드리겠다. 태범이와 함께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씨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에 안치됐다. 같은 반 박성호군 어머니 정혜숙씨는 “인씨가 평소 아들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 이래 살아서 뭐하냐며 낙담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399.txt

제목: [가정예배 365-10월 28일] 감사 제사가 최고입니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8142448001  
본문: 찬송 :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통 85장)신앙고백 : 사도신경본문 : 시편 50편 23절말씀 : 성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은 행복한 부부를 본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감사 신앙, 감사 제사에 대해서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첫째, 축복의 재테크는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 기도는 축복의 재테크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부터 가난한 집에는 묵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궁핍해 배고프다 보니 익기도 전에 따먹어 버립니다. 가정에는 축복을 받아야 저축해 묵혀둔 돈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교회 봉사도 묵혀서 저축해야 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하나지만 생활의 복을 받는 믿음은 다양합니다. 활기찬 신앙, 영성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뿐더러 감사 신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 신앙으로 축복의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감사 기도, 감사 찬양, 감사 생활만큼 훌륭한 축복의 재테크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곳간에 축복을 쌓는 것이 감사 신앙입니다. 둘째, 영성훈련에 가장 좋은 것은 감사 신앙입니다. 인간의 체온이 1도 상승할수록 암에서 고침 받는 확률이 10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성의 온도가 높아지면 성령으로 충만해 범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영성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는 영성훈련의 강도가 세기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과 방해, 환경의 거부 등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려 하면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야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지만 감사의 생활화는 실제생활에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매스컴과 정치, 교육, 문화를 통해 불평과 고발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조작하니 감사생활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운동이 교회에서부터 회복돼 사회로 확산돼 나가야 합니다. 감사팔찌운동 등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감사는 일종의 훈련으로써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화됩니다. 감사훈련으로 믿음의 정예군사가 돼야겠습니다. 셋째,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감사가 찬양에 배이고 기도에 녹아들고 예배에도 배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축복을 받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영적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대기권의 공기저항과 같이 감사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세속의 대기권이 방해합니다. 이것만 벗어나면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 제사는 모든 저주를 이기는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추진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영혼에 안구건조증이 생겨 눈물샘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져 겸손히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기도 :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주기도문김봉준 목사(구로순복음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0.txt

제목: 담배, 너란 놈은?… 흡연자 절반 암 진단 후도 피워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7142324001  
본문: 담배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금연이 필수다. 그런데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이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흡연을 계속 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의대 서울백병원은 가정의학과 박현아(사진) 교수팀이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암 환자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자 중 53%가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하루 평균 흡연 양은 14.5 개비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6%, 6개월 내 금연계획자는 2.8%, 심지어 6개월 이후 금연계획자도 40.2%에 불과했다. 또 아예 금연할 생각이 없다는 환자도 3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 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 중 남성은 14.5%로 여성(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 소득수준 상위 25%보다 하위 25% 계층 암 환자들의 흡연율이 4배가량 높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한 환자의 흡연율(9.1%)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잘못 안 환자(4.2%)보다 되레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암 환자가 건강을 자포자기한 심리상태에서 흡연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암 종류별 흡연율은 간암환자가 16.7%로 가장 높았고, 위암 14%, 대장암 13.3%, 요로계통 암 12.1% 순이었다. 여성 암 중에서는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흡연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금연 실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암 진단 후 치료에 급급해 금연치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금연치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연세의대 영문판 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MJ) 2015년 3월호에 게재된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1.txt

제목: 아주대의료원 유희석 의료원장 “동남아·중동지역에 진출… 제2도약 일군다”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7142319001  
본문: 아주대의료원이 베트남과 이라크,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외상센터,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3개 특성화센터를 집중 육성해 향후 10년 동안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아주대의료원은 특히 다른 병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베트남과 이라크 지역에 진출,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아주대의료원은 최근 개원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향후 발전계획을 담은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유희석(59)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만나 그동안 아주대의료원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포부를 들었다. 유 의료원장은 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옥포대우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거쳐 미국 오하이오대 제임스 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 1994년 아주대병원 개원과 동시에 귀국해 줄곧 산부인과에서 부인암 환자를 돌봤다. 이후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 병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3월부터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개원 20주년 아주대의료원 현주소는? “아주의대·의학전문대학원은 한마디로 ‘규모는 작지만 연구 역량이 아주 뛰어난 대학’이다. 의사시험 합격률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수 1인당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순위는 전국 4위, 연구비 수주 능력은 전국 6위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연구역량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2006년 이후 외부지원 연구비도 해마다 200억∼300억원씩 수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만 해도 연간 154편에 불과했던 SCI급 논문이 2013년 기준 연간 496편까지 늘었다. 아주의대는 또한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와 플로리다대, 일본 게이오대, 이탈리아 다눈치오대 등 세계 90여개국 의대와 협약을 맺고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국제감각을 익히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다. 병원도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개원 당시에는 843병상, 하루평균 외래환자 2500명 정도 수준이었다. 지금은 1098병상, 하루평균 외래환자 4500명 규모로 성장했다. 연면적도 1994년 10만8708㎡(3만2884평)에서 현재 16만1614㎡(4만8888평)로 49% 증가했다. 아주대병원은 국내 인증평가는 물론 2011년과 2014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거푸 받는데도 성공했다. 이는 지금 아주대병원의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세계 어디 내놔도 국제 수준에 부합된다는 뜻이다. 해적들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통해 중증외상 치료의 메카가 된 권역외상센터도 자랑거리다. 아주대의료원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아주대의료원은 전국 종합병원 진료실적 순위 7위에 올라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계획은? “아주대병원은 개원 초부터 오산·평택 미 공군병원과 상호협력하고 있다. 용산 미 육군 121병원과도 협력관계를 맺어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아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연인원 9000여명에 이른다.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에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실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연마한 선진 의술을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우재단 지원으로 베트남의대 부속병원 의사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최신 의술을 전수하고, 하노이 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세워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그 중 한 예일 뿐이다. 한화그룹과 손잡고 인구 약 50만명 규모로 건설되는 이라크 신도시 비스마야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 의료한류의 중심에 서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라크 정부가 이곳에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짓기로 하고 우리에게 운영을 요청해 협의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현지에 소규모 진료소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 의료전문 기업과 공동으로 베이징과 옌벤 중심지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측이 병동을 지으면 우리가 시설과 의료진을 포함한 검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연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단기 발전계획 등 미래 청사진은? “우선 2024년까지 10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환자중심 병원, 대한민국 의료교육을 선도하는 기관,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 배양, 암과 심뇌혈관질환 및 외상진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가을쯤 권역외상센터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독립 병동으로 완공된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가 도착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례식장도 내년 5월까지 새로 꾸민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빈소 12개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선진형 장례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원시 광교 신시가지에 외국인 및 지방 환자들을 위한 메디텔과 새 병원 등을 건립하는 광교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통해 사고 및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이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2.txt

제목: “흡연 쾌감이 호흡 고통으로”… TV 금연광고 2탄 주제 ‘폐암’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4142216001  
본문: 중년 남성이 즐겁게 뛰어노는 가족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문다. 연기가 그의 폐에 가득 찬다. 장면이 바뀌고 남성은 호흡 보조장치에 의존한 채 거친 숨을 내쉰다. 연달아 기침도 한다. 폐암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두고 나지막이 내레이션이 깔린다. “<span class='quot0'>들이마시고 내뱉는 흡연의 쾌감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의 고통이 되었습니다.</span>” 이런 장면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두 번째 TV 금연광고 ‘호흡의 고통’ 편이 24일부터 방영된다. 주제는 ‘폐암’이다. 담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이지만 정작 폐암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광고를 제작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이자 사망률 1위 질병이다. 암으로 사망한 사람 5명 중 1명이 폐암 환자다. 특히 폐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16.7%로 전체 암 환자(5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폐암으로 진단된 한국 남성의 87%가 흡연자일 정도로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케이블 TV를 비롯해 극장 및 전국 보건소, 고등학교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도 광고를 방영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3.txt

제목: 체게바라 흑백 사진 찍어 유명 사진 거장 르네 뷔리 별세  
날짜: 2014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2102652001  
본문: 1960년대 쿠바 혁명기에 시가를 입에 문 체 게바라의 흑백 사진을 찍어 유명해진 스위스의 사진 거장 르네 뷔리(사진)가 사망했다. 향년 81세. 세계적 보도사진 작가그룹인 매그넘은 암으로 투병하던 뷔리가 20일(현지시간) 취리히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마틴 파 매그넘 회장은 “<span class='quot0'>뷔리는 전후의 위대한 사진가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넉넉한 사람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매그넘에 대한 헌신과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출중한 능력이 그의 유산</span>”이라며 애도했다. 1956년 매그넘에 합류한 뷔리는 1963년 미국 언론과 인터뷰 중 시가를 피우며 상념에 잠긴 듯한 전설적 혁명가 체 게바라의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세계 전역에 퍼져 나가 유명해졌다. 뷔리는 나중에 체 게바라에 대해 “오만한 사람이지만 매력이 있었다. 우리에 갇힌 호랑이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낸 피델 카스트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등의 사진을 연달아 촬영했다. 손병호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4.txt

제목: 美 영부인·스타들 드레스 제작 명성 디자이너 드 라 렌타 별세  
날짜: 2014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2102652002  
본문: 미국 영부인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입는 드레스를 만든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오스카 드 라 렌타가 20일(현지시간) 숨졌다. 향년 82세. 드 라 렌타는 미 코네티컷의 자택에서 암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드 라 렌타는 18세에 스페인으로 미술 유학을 떠났다가 의상 디자인을 배웠다. 마드리드에서 디자이너 발렌시아가 밑에서 수련한 그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랑방을 이끌던 디자이너 안토니오 델 카스티요의 조수로 활동했다. 이어 뉴욕에서는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일했고, 1965년 독립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는 60년대 당시 패션 아이콘이던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의 옷을 만들면서 명성을 얻었다. 힐러리 클린턴과 로라 부시 등 영부인들이 그의 옷을 즐겨 입었다. 페넬로페 크루스, 샌드라 불럭, 세라 제시카 파커 등 스타들도 고객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배우 조지 클루니와 결혼한 인권변호사 아말 알라무딘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다. 국내에서는 고소영과 한혜진이 그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하대병원 인천 유일 ‘사이버나이프’ 치료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1001  
본문: 3년전 건강검진을 받던 A(62·남)씨는 전립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장기간 입원이 힘들어 인하대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 후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결정했다. A씨는 입원을 하지 않고 매일 1시간30분 동안 통원치료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5일간 받았다. 치료 종료 후 3주간 약간의 배뇨통 이외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현재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와 빠른 일상 복귀 가능=외과적수술 없이 암 수술을 하는 최첨단 장비가 ‘사이버나이프(Cyber Knife)’다. 이는 첨단 로봇기술과 컴퓨터 기술을 방사선종양학분야에 접목한 방사선수술 장비로,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한 방사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위 방사선 치료 프로그램이다. 이 장비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칼(나이프)인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쪼여 종양을 괴사시킨다. 기존 감마나이프와 달리 로봇팔에 의해 1248개의 방향에서 원하는 신체 부위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장점이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사이버나이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우철 소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사이버나이프는 방사선 수술 전용장비로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다량 조사해 종양을 죽이는 첨단 장비</span>”라며 “<span class='quot0'>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세밀하고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1회 치료 시 기존의 방사선치료와 비교해 3∼8배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해 치료 기간이 짧고, 환자들의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다. 적용 대상 암은 뇌전이암을 포함한 뇌종양, 폐암, 간암, 전립선암, 두경부암 등이다. 하지만 사이버나이프도 제한은 있다. 김 소장은 “모든 종양에서 사이버나이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기가 적은 암, 조양의 크기가 대략 5㎝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증된 암 장비로 지역사회 암 극복=A씨처럼 전립선암의 경우 기존 방사선치료 장비보다 치료 범위 정확도가 높아 좁은 범위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쪼일 수 있다. 윤상민 인하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주변 조직에 방사선을 노출시키지 않아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립선에는 방사선량을 높여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폐암의 경우에는 종양이 움직이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폐암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는 폐 조직의 미세한 움직임을 정확히 추적해 조직에 붙어있는 암세포만을 제거하고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여 최대의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류정선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존 방사선 치료는 10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반면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 치료는 대부분 1주일 안에 치료를 끝낼 수 있고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장점을 꼽았다. 이러한 첨단 치료법을 통해 지역사회 암 극복을 위해 최근 인하대병원은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김 소장은 “<span class='quot0'>첨단 장비를 통한 치료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암 극복을 위해 비용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 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장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이버나이프를 포함한 모든 암 치료 시 환자들이 의료진을 믿고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6.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유방절제땐 복원술 동시 실시… 치료후 삶의 질에 초점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7002  
본문: ‘착한 암’으로 알려진 갑상선암은 1cm 정도의 작은 크기여도 암이 생긴 갑상선과 그 주위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이 전통적인 치료방법이다. 암 덩어리가 한쪽 갑상선엽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잔류암을 우려해 반대편 갑상선엽까지 떼어낸다. 완치에 도달하더라도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갑상선암이 ‘착한 암’일 수 없다. 유방암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병기와 상관없이 유방을 전부 절제하는 유방전절제술이 보편적으로 시행된다.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달라진 외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좌우 불균형으로 척추와 허리, 골반이 뒤틀어지며 신경통과 관절염을 앓는다. 또 수술 후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번 착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신체활동의 제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에서 시행되는 전절제술은 90% 이상의 놀라운 생존율을 가져왔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후 삶의 질 저하를 피하기 힘들다. 치료 성적이 좋을수록 ‘암환자’란 이름표를 뗀 이후의 삶이 여전히 ‘환자스럽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이제는 암환자들의 치료 성향도 완치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던 모습에서 치료 이후의 삶을 고려하며 치료전략을 세우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목의 흉터가 남지 않도록 로봇수술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자신이 갑상선 한쪽만 절제해도 되는 경우인지 서로 다른 병원의 의료진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사례도 많아진 편이다. 최근 만난 유방암 환우회에서는 유방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사례의 주인공은 한쪽 가슴을 잃은 자신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동시 수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방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동시에 받는 환자는 절제술만 받는 유방암 환자에 비해 두세 배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의술에 무지하더라도 큰 수술을 여러 개 받는다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그녀는 암 치료 후 그 흔한 ‘우울증’ 한번 앓지 않았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빨랐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갑상선암 로봇수술과 더불어 유방암 환자가 유방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동시에 받는 것은 치료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용기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치료방법 이외의 시도가 늘고 있는 까닭은 짚어볼 만하다. 이는 암환자들이 살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각종 후유증에 적응해 가며 살기보다 능동적으로 치료방법을 설계해 나간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든 의료진과의 상의가 우선일 것이다. 다만 환자가 적극적으로 병에 대한 최신 치료 방법을 적용해 나가는 일은 암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다.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7.txt

제목: [암과의 동행] 김영탁 서울아산병원 교수 “좋은 것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버려라”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6001  
본문: “<span class='quot0'>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해 오는 ‘스트레스’가 음식물 그 자체보다도 몸을 더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span>” 김영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치료를 잘 받으려면 암환자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몸이 더 악화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일례로 버섯을 달인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위장 관계 암을 가진 환자에서 암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야채를 갈아 만든 즙을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오히려 독성을 유발해 간수치가 상승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몸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span>”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암환자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건강 상식 중 대표적인 것이 ‘육식’에 대한 편견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일부 환자들은 육식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본인의 건강한 세포뿐 아니라 암세포까지 키울 수 있다는 오해로 인해 고기 섭취를 중단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고기, 야채,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항암치료를 이겨낼 힘도 생긴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중에는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섭취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 김 교수는 “세포독성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대사에 간섭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무조건적인 비타민 투여는 오히려 해가 된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암환자들 중에는 영양상태가 불량해 항암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암환자의 40∼80%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영양결핍은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 병원에 내원한 부인암 말기 환자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영양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영양 결핍은 수술 직후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암환자들의 체중감소를 막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암환자에게 영양 결핍은 곧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효과를 떨어뜨리고 치료에 동반되는 부작용을 이겨내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김 교수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많은 영양물을 소비한다. 암환자는 섭취한 영양물을 암세포에게 빼앗기게 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영양관리의 목표는 체중감소를 방지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김 교수는 “식사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항암치료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탁 교수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렵다면 식욕촉진제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식욕을 촉진하는 약으로는 황체 호르몬이 함유된 메게이스 등의 약이 있다. 원래 이 약은 자궁내막암,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임상 과정에서 식욕 개선과 체중증가 효과가 밝혀져 암환자들의 식욕개선을 위한 보조제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8.txt

제목: [항암 밥상-애호박 젓국찌개] 찬바람 불때 따뜻한 국물… 넉넉한 즐거움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52001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400g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섞어 하루 권장량(400g) 이상을 섭취하면 암 발생률을 최소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각종 색깔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들어 있어 암, 심혈관 질환, 노화 예방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중 여름의 더위와 강렬한 햇살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자랑하는 호박은 밝은 주황색을 대표하는 채소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항암효과 역시 탁월하다. 지난 2008년에는 뉴욕타임스가 ‘푸대접 받고 있지만 진가를 알아야 할 식품 11가지’ 중 첫 번째로 호박과 호박씨를 선정할 만큼 체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다. 호박 속에서 노란 빛을 띠는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생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이며, 호박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용이하게 해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어 혈압을 조절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 하지만 다른 양념이나 기름을 첨가하게 되면 칼로리가 올라가므로 된장찌개나 국 등에 넣어 먹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중 ‘애호박’은 다른 호박에 비해 소화 흡수가 잘돼 소화력이 약한 환자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으며, 엽산 성분이 풍부해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에게도 아주 좋은 식재료이다. 애호박으로는 호박나물, 호박전, 호박찜, 호박찌개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가늘게 채 썰어 고명으로 얹기도 한다. 호박은 새우젓과 음식 궁합이 좋은데, 새우젓을 넣고 조리하면 호박이 무르지 않고 뭉그러지지 않도록 조리할 수 있다. 새우젓은 발효하는 동안 새우 껍질에 존재하는 키틴이라는 성분의 일부가 분해돼 ‘키틴 올리고당’이 생기는데, 키틴 올리고당은 면역에 관여하는 대식 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 담당 세포를 강화시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음식 궁합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있는 애호박과 새우젓을 이용해,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애호박젓국찌개를 끓여 보자. 조규봉 기자 ckb@kukimedia.co.kr도움말:샘표요리과학연구소 지미원 / 송지희 영양사&고효정 셰프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0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양세포만 골라 정밀 타격… 光역학 치료 대중화 열린다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46001  
본문: 광역학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동성제약의 2세대 광과민제 '동성포토론'이 지난 9월 5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됨으로써 빛을 이용한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광역학 치료는 암환자에게 광과민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광과민제가 환자의 암 조직에 축적되면 광과민제를 활성화시키는 파장의 레이저를 암조직에 쏘인다. 이때 광과민제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암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치료 원리이다. 광역학 치료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상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합병증 발생 위험도 적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과민제는 1세대로 주사 후 약 3일 정도(48∼72시간)의 기간이 지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며 약 4주 정도의 차광시간이 필요하다.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의 깊이도 약 4mm에 불과하다. 반면 동성제약의 광과민제인 '동성포토론'(사진)은 주사 3시간 후에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시술 후 최대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의 깊이도 18mm에 달한다. 즉 시술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환자 삶의 질을 현격히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1세대 광과민제에 사용하는 레이저 조사기는 파장이 630nm로 665nm가 필요한 2세대 광과민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제약은 이미 지난 2012년 10월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UPL-FDT를 허가 받은 상태다. 이러한 광역학 치료는 현재 국내에서 피부기저세포암 치료 등 그 허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자궁암,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내막암, 뇌종양, 간문부담도암, 폐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구강암 등 다양한 암종에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는 간문부담도암 치료에 광역학 치료를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한 결과, 생존기간이 이전보다 2배 연장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는 유럽암학회 공식저널(European Journal of Cancer)에 게재됐다. 또 네이처 리뷰 임상 종양(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 리서치 하이라이트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광역학 치료 가능 분야 중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하는 질환은 여성의 출산과 관계된 자궁경부암, 자궁암 등이다. 일반적으로 자궁암에 걸린 여성은 대부분 항암치료를 받다가 치료효과가 없거나 병의 진행 정도가 심해지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가임 여성의 경우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광역학 치료를 선택할 경우,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도 자궁 내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최근 20∼30대 여성들의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추세임을 고려할 때, 광역학 치료는 임신을 원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출산 가능의 예는 한세준 조선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학 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이거니와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동성포토론이 하루빨리 국내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를 통해 국내 광역학 치료가 한층 더 발전되어 다양한 암질환의 극복은 물론, 국내 출산율을 높이는 약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진료비 절감 산정특례제도 잘 살펴보세요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8001  
본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증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 시 환자본인 부담 진료비를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에서 중증질환이 확진되면 환자가 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지사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경감 대상자가 되면 ‘심장·뇌혈관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특정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암’(특례기간 5년)과 ‘중증화상’(특례기간 1년)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5% 적용되며, ‘희귀난치성질환’(특례기간 5년)은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암의 경우 최초 등록한 암 이외에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어 수술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추가 등록 없이 본인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을 확인하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진료인원은 166만명으로 진료비는 8조7718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암질환 95만명 △희귀난치 63만명 △심장혈관 8만명 △뇌혈관 3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본인부담 비율 20%를 16∼30일 30%, 31일 이상 40% 인상 적용)을 마련했는데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질병 특성상 입원 기간이 긴 희귀난치 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외모 스트레스 심해… 미용관련 부작용 사전에 알려줘야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25001  
본문: 암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탈모·피부질환 등 외모의 변화는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심지어 급격한 외모의 변화가 두려워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진의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생명보다 외모가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환자에게는 생명만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치료 부작용으로는 탈모가 대표적인데 방사선 치료의 경우 치료 시작 2∼3주 후부터 발생하며 보통 치료가 끝나면 4∼6주 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외에도 두피 자극이 발생하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며 건조해지기도 하는데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파마와 염색은 피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자외선차단제·스카프·가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질환도 환자에게 많은 고민을 주는데 방사선 치료의 경우 조사 부위의 피부가 빛에 그을린 것처럼 검게 변색되기도 하고 트거나 짓무르며 벗겨질 수도 있으며, 항암제도 피부발진 및 손발톱의 변화, 피부 변색과 햇빛에 대한 민감성 증가, 항암제 유출(혈관 밖으로 새어 나감)에 의한 피부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피부자극을 줄이기 위해 편안한 면제품의 옷을 입고, 실내 환경은 너무 덥거나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며, 건조한 경우에는 보습제를 자주 바르는 것이 좋다. 탈취제·향수·파우더 사용을 피하며, 전기면도기를 사용해 피부자극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특히 외모 변화에 민감하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의 90%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 중 40%는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쇼핑이나 모임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화장품 회사와 손잡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이크업 교육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한 병원도 많다. 서울대암병원의 ‘퍼스널 컬러 컨설팅’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 컨설턴트가 환자들에게 더 건강해 보이면서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 주는 개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최혜진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는 “치료효과가 있어도 환자가 미용문제로 약을 먹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부작용에 적극 대응해 환자의 반발을 줄여야 한다. 특히 환자에게 미리 미용과 관련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부작용의 경우도 피부과 등과 연계해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2.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암 PET 급여대상에 비뇨기계·자궁내막암도 추가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24001  
본문: 보건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급여 대상은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으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 66만원 절감(70만원→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치료 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선된 급여기준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표적항암제 ‘지오트립’ 건강보험적용한국베링거인겔하임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대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불안감 벗어나려면…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9001  
본문: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낮추는 방법에는 크게 정기검진과 백신 접종 두 가지가 있다.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은 성경험이 있는 만 30세 이상 여성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 것으로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를 보이게 한 다음, 세포 채취용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하면 검사는 끝난다. 시술자는 채취한 세포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고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병변인 자궁경부 상피세포 이형성증(dysplasia) 유무를 확인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긴 하나 여성이 느끼는 검사의 고통이 적지 않다. 직장인 윤영희(32·가명)씨는 “좀 아플 것이란 의사에 말에 짐작은 했지만 검사를 마치고 검사 부위가 아파 한동안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이 검사를 2년마다 받을 바엔 일찍이 예방접종을 받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윤씨처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성은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HPV 예방접종을 한 여성은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미루는 편이다. 또 다른 직장인 김설화(28·가명)씨는 “1년마다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암 예방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 아직 나이도 서른이 되지 않아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대상자도 아니어서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예방접종을 받은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궁경부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질문 가운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1∼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글이 많다. 이는 여성들에게 정기검진보다 예방백신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권고안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부 김열 부장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이 필요하다. 다만 예방접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에 정기검진보다 백신이 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설명이다. 자궁경부암의 70%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16형과 18형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접종이 허가된 백신들이 이 두 유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백신이 없는 다른 성병이나 이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HPV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관련 질환은 부인과 정기검진을 통해 쉽게 발견해 치료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는 편이 완벽한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다만 정부도 해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접종자와 비(非)접종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조기검진 권고안을 적용해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4.txt

제목: [암과의 동행] ‘흡연’… 모든 암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7001  
본문: “<span class='quot0'>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조기 사망한 미국인이 전쟁 중에 숨진 미국인의 10배가 넘는다</span>”는 말이 있다. 뒷받침하는 근거로 1964년 미국 정부는 ‘테리보고서’를 통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올해에는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10가지에 폐암 외 간암과 결직장암을 추가했다. 통계청의 ‘201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이었고 전 연령대의 사망 원인 역시 암이 1위였다. 암 종류로는 폐암이 1위였고 간암이 그 뒤를 따랐다. 세부적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에 폐암이 포함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33명에서 34명으로 폐암 사망이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지표이다. 이처럼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간암과 결직장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력병원에서 실제 암 환자를 진료하는 각 분야별 전문의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폐암’ 이해원 폐암센터 과장=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폐암의 주된 발생 원인은 암 유발 유전자의 변이이고 담배의 발암물질이 유전자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이 폐암 유발 원인으로 추정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최소 9배부터 2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담배에는 니켈, 벤젠, 비소 등 직접적인 발암물질의 종류만 60종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을 하게 되면 폐암의 발생률은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20년 이상 금연을 하게 되면 비흡연자 대비 9배 이상에서 2배까지 그 위험도가 감소하게 된다. ◇‘간암’ 박수철 간암센터 과장=간은 담배에 함유되어 흡연 시 섭취하게 되는 유해물질 등의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담배 유해물질 속 발암물질들은 이미 일부 동물실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암을 유발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즉 흡연을 통해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되고 이런 물질이 대사되는 장소가 간이므로 간암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에서 간암이 63% 정도 많이 발생하지만 금연을 한 사람의 간암 발생 위험률은 13%로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다. ◇‘결직장암’ 문선미 대장암센터 과장=흡연이 대장암을 비롯한 다른 암의 발생 위험 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장암을 유발하는 과정의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담배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중 다수의 유해 물질에 의해 DNA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의 체내 흡수는 DNA의 메틸화를 유발하게 된다. 흡연은 대장 세포에서 DNA의 CpG 과메틸화를 유발해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흡연이 대장암 사망률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을 지속해 온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에서는 32%, 여자에서는 41% 정도 사망률이 더 높게 조사됐다. 또한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금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금연을 한 기간이 길수록 비흡연자에 비해 4∼15% 정도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5.txt

제목: [심순복씨의 위암 극복 스토리] 9차례 항암치료 힘겨운 재활 눈물로 버텨… 진단 5년만에 완치 성공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5001  
본문: “유치원 교사로서, 주부로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명에 나 자신뿐 아니라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고, 거짓말, 꿈인가 싶었습니다.” 12년 전 위암 4기 진단 받았던 심순복(위암환우회 회장)씨, 4기는 흔히 ‘말기’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단계다. 특히 그녀는 종양이 위 주변 장기와 임파선까지 침범한 진행성 위암이었다. ‘암’ 선고를 내린 당시 의료진은 그녀에게 살 수 있는 날이 5개월 안팎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치료를 포기하던 순간에 심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치료결심을 세웠다. “아들의 말이 지금은 학생으로서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만약 엄마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도 안받고 돌아가신다면 훗날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슬픈 기억을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심순복씨는 아산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외과, 종양내과 돌아가며 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된 그녀는 이미 수술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생존기간을 늘리는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아홉 차례나 이어진 힘든 치료였다. 정신적, 육체적 힘든 시기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겪어야했던 고통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어렵게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당시 주치의였던 강윤구 종양내과 교수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할 수 있다는 기쁨이나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배짱도 항암치료로 지친 그녀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심씨는 “수술날짜를 잡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혹시…’하는 생각에 장롱 안에 묵은 옷과 이불, 주방 그릇, 책장의 묵은 책과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만의 하나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엄마의 빈자리와 흔적을 느끼지 말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적고 견출지를 붙여뒀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문제는 수술 후 약해진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이었다. 당시 그녀의 몸은 항암치료 직후 바로 이어진 수술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수술의 성공과 환자의 회복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항암치료로 전신이 약해진 암환자는 더욱 그러하다. 암환자는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후유증으로 인해 더 아플 수 있다. 심씨도 마찬가지였다. 심씨는 “9차례의 항암치료 직후 수술이여서 고통이 더 컸다. ‘다시 살았구나’를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배와 가슴에 배 속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 줄줄이 달아놓은 튜브들로 많이 힘들었다. 야윈 몸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칼로 도려내는 통증을 겪었다. 한층 계단의 수가 왜 그렇게 놓고 많게 느껴지던지 주저 않고 운적도 많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투병생활 5년 후 심순복씨는 강윤구 교수로부터 ‘완치’라는 말을 들었다. 또 지난해 검진결과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고 완치하기까지 12년이 지났다. 그녀는 지금 투병중인 모든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환우회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녀는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한다. 심씨는 “암으로 죽기도 하지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우리들을 더 죽음으로 몰아놓는다. 어떤 경우라도 암이라는 절망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내가 선택과 병원과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고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6.txt

제목: [암 희망일기] “늦었다고”… 자궁경부암 포기해서는 안된다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42001  
본문: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있어 암 발생률은 7위, 사망률은 9위로 보고 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고형 암과 비교할 때 재발 후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특히 방사선 치료에 민감한 종양이기 때문에 진행성 자궁경부암이나 재발성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25세 여성이 임신 진단 후 산전검사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이상 소견 있어 내원했다. 내원 당시 임신 3개월이었고 초음파 상에서 태아는 정상이었다.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상피내 암종이었다. 확진과 치료를 위해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아직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치료를 하기로 했다. 출산 후 자궁경부의 병변만을 도려내는 원추절제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병변이 완전히 절제됐다. 현재 환자는 둘째 임신을 계획 중이다. 25세 미혼 여성이 불규칙한 질출혈이 있어 근처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 종양이 관찰되고 조직검사 상 자궁경부암으로 확진돼 내원했다. 검진상 약 3cm 크기의 자궁경부 종양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환자는 미혼이고 향후 출산을 고려해 자궁 체부는 남기고 종양이 있는 자궁 경부만을 절제하는 근치적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먼저 2회의 항암치료를 시행했고 종양은 약 1cm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MRI에서 임파선이 커져 있었고 이는 임파선 전이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만약 임파선 전이가 확인된다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고 이는 향후 출산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했다. 임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골반 임파선 절제술과 근치적 자궁경부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조직검사 상 다행히 임파선 전이는 없었고 조직 침범의 정도도 미미했다. 현재 환자는 결혼해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42세 여성이 자궁경부암 1기말로 타 병원에서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임파선 절제술을 받고 추가 방사선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 됐다.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시행 1년 후 시행한 양전자 단층촬영 상 대동맥 주변 임파선에 종양이 발견됐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것이다. 방사선 치료는 각 장기별로 조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 방사선을 시행했던 부위에 다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다. 다행히 전이된 임파선이 한 개이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어 국소부위만 고선량을 조사하는 사이버나이프를 시행했다. 종양은 줄어들었고 환자는 5년 이상 재발이나 심각한 합병증 없이 살고 있다. 이처럼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의 3대 치료를 다 동원하고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진단, 치료 장비의 첨단화 덕분에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진행성 암의 경우 산부인과 외에 비뇨기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의사들의 협진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분야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새로운 다가 HPV 백신이 시판될 예정이고 항암제 외에 표적치료제 분야에서의 임상시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진행성 암의 감소 및 치료 성적의 향상이 기대된다. 유상영 원자력병원 자궁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7.txt

제목: [건강 나침반] 당뇨 잡으려면 만성 치과질환도 신경써야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1001  
본문: 당뇨라고 불리는 만성 대사성 질환은 우울증, 소화기 질환, 암 등 다양한 부작용과 연관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다. 유전, 비만, 스트레스, 고지방의 식단, 흡연, 음주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되면 티로신키나제, PI3K, Ras, AMPK 등 다양한 효소와 단백질 분자들의 반응에 의해 당과 단백질 대사가 조절된다. 그러나 조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대사를 비롯해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당뇨 약물 치료는 기전에 따라 인슐린 설폰요소제 메트포르민(metformin) 등이 사용된다. 운동요법과 식단 개선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당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만성 치과 질환을 가진 당뇨 환자는 이러한 약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치과 질환이 있는 경우 세균과 면역작용의 부산물들이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터루킨 같은 각종 사이토킨 및 종양괴사인자(TNF-α)를 포함한 염증 분자와 C-반응성단백질(CRP), 프로스타글란딘 등이 있다. 이들 염증 부산물들은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대사 작용을 방해한다. 최근 치과 질환이 당뇨와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 만성적인 치과 질환에 노출된 환자 중에 당뇨 환자들이 많다. 치과 질환이 심할수록 당 조절이 어렵다. 치과 감염과 만성 염증을 가진 인슐린 저항성 당뇨 환자의 경우 구강 내 염증의 원발성 부위를 진단해 제거해야 한다. 입안의 치아와 치아 주변의 잇몸은 감염이 돼도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세균 감염 후 잇몸이 파괴되면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주변의 조직은 감염이 돼도 세포가 파괴되는 것에 저항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는 급격한 세균 감염을 막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염된 잇몸이 아프지도 않고 보기에 멀쩡해 육안으로 감염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균 감염 여부는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다. 감염된 잇몸의 치료는 항생제와 소염제의 투약과 함께 잇몸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는 감염이 없어도 상아질이 면역 세포에 의해 비자기로 인식돼 오스테오폰틴, 인테그린 등의 종양 지표 물질이나 종양괴사인자(TNF) 세포 외 기질단백질이나 효소들이 생성된다. 이들은 당뇨 환자에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혈관 내에 혈전 형성을 가속화시켜 뇌혈관 질환 등의 당뇨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본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 신경 치료가 돼 있는 치아들을 발치해 세균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량의 혐기성 세균에 감염돼 있었다. 조립형 임플란트는 구조 때문에 조립된 공간에 혐기성 세균이 존재한다. 연결 부위가 점막 내부에 있으므로 혐기성 세균을 우리 몸속에 넣은 셈이다. 임플란트 연결 부위에서 증가된 세균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공급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 소독을 해도 완전 멸균은 불가능하다. 소독을 해도 5분에서 3일 이내에 다시 세균의 증식이 일어난다. 당뇨 환자에서 만성 염증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이들 감염 발생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8.txt

제목: 만병의 근원은 독소… 질병 예방·치유는 해독이 답이다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625001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신경락한의원 원장 조병준(64) 장로는 요즘 아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자신이 30여년간 한의사로 지내며 터득한 내용, 즉 만병의 근원이 체내에 쌓이는 ‘독소’에 있고 이를 해독하고 ‘효소’를 잘 섭취해야 한다는 건강이론을 담은 저서 ‘해독이 답이다’(상상나무)가 많은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건강분야 MD선택도서로 선정되고 출간 2개월 만에 재판을 찍은 이 책은 기존의 건강도서와 달리 건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바쁜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질병의 홍수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릴 직전의 상태들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결국 ‘과식’과 ‘스트레스’, ‘운동부족’등으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들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및 기름진 음식 섭취는 장내에 많은 독소를 만들고 무한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드는 등 쌓인 독소가 질병의 시작입니다.” 조 원장은 “결국 독소를 해독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한다. 체내에서 축적된 독을 빼는 방법은 결국 호흡, 땀, 대·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땀을 흘릴 기회가 적고 대소변으로도 독소배출이 안되니 체내 독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면역기능의 80%는 장이 담당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기능도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사라지며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성 독소가 나가야하니 소변배출도 함께 중요합니다.” 조 원장은 “일상식생활에서 해독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려운 일은 아니며 이는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현미밥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과 정제식품을 가능한 안먹으면 된다”며 “소식(小食)에 힘쓰고 걷기운동과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독소와 노폐물들이 혈관과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경색, 암 등이 됩니다. 관절염과 디스크 등 모든 통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도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체내 독소배출을 주안점으로 처방하고 섭생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조 원장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체중관리와 함께 해독과 효소식사법을 충실하게 관리해 줌으로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보고 있다. “환자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체력이 회복되면서 살찐 사람은 다이어트효과도 얻고 몸도 가벼워지니 매우 좋아합니다. 독소가 빠지면 지방도 빠지고 효소가 활성화 되면 건강해 지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조 원장은 일산에서 비만전문한의원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줌으로써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면서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크게 주효했던 것. “비만치료는 체질과 유형에 따른 원인치료가 선제돼야 하고 부작용과 후유증도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요요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 원장은 지방 제거를 위해 먼저 환자의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없애도록 돕는 것에 진료의 초점을 맞춘다. 독소를 빼 혈액을 맑게 하여 대사기능을 높여 주고, 한쪽으로 위의 축소를 도모해 소식을 하는 체질이 되게 만드는 것.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3개월간 15∼25㎏ 이상을 감량하게 만들면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다. 신경락한의원을 내방한 환자들은 “소식을 하는 데도 힘이 나고 컨디션은 좋아지는데 아픈 곳은 사라지고 지방은 날마다 줄어가니 신기하다. 젊은 시절의 체중과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니 매사에 자신이 생긴다”며 입을 모은다. “감기같은 작은병으로부터 비만, 고혈압, 당뇨, 암같은 깊은 병까지 모든병의 원인이 독소입니다. 해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조 원장에겐 ‘해독 전도사’란 말이 따라 다닌다. 관련 책을 낸데다 환자들 치료 역시 해독요법을 실시해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출석교회에서 매주일 의료봉사를 하고 있기도 한 조 원장은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한의사가 되길 항상 기도하고 있다(신경락한의원 www.new-om.com·031-902-2221).기획특집팀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진행성 위암, 생존율 5.8％… 맞춤치료 향한 희망은 진행 중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2001  
본문: 각종 암에 대한 완치율 통계 가운데, 유난히 절망적인 수치를 가진 암이 있다. ‘진행성 위암’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위암은 조기진단 및 수술로 관리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진행성 위암은 생존율이 5.8%로 급감해 그 위중도가 심각하다. 진행성 위암은 종양이 위(胃) 내부 표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표면 아래까지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조기위암이 악화됐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진행성 위암은 장기와 뼈로 전이와 재발이 매우 빈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의료진은 환자 진단 시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을 구분해 치료계획을 세운다. 항암화학요법이 진행성 위암환자의 생존기간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5년 생존율이 10%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진행성 위암’은 한마디로 ‘목숨 걸고’ 싸워야하는 암이다. 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의 든든한 조력자다. 위암환우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환자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다. 진단 받아 치료계획을 세울 때부터 낙관보다 절망이 앞서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은 다른 암종보다 유독 ‘자기편’이 필요한데, 강 교수는 환자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신약이나 임상연구 등 완치를 위한 최신 의학정보를 가감 없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며 완치를 돕는다. 지난 16일 진행된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진행성 위암’ 편에서 강윤구 교수는 강연자로 나서 진행성 위암의 치료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환자들이 투병 중 겪게 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조언했다. 강 교수는 이날 강연을 시작하며 환자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진행성 위암의 특성상 이미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전이된 경우가 있다. 깊숙이 숨은 경우 CT로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배를 열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발된 경우는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기보다 처음부터 깊이 숨은 암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병원은 치료성공률이 높은 표준화된 항암제 조합을 환자에게 사용한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0%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항암요법은 진행성 위암 환자의 생존기간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술 전 시행하는 항암요법으로 종양이 줄어 수술이 가능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윤구 교수는 꼭 맞는 항암제를 찾지 못하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은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진행성 위암의 완치율이 해마다 오르는 까닭은 항암제의 발전 때문이다. 특히 표준항암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신약’이라고 불리는 것들 모두 임상시험을 통해 나온 것이다. 임상시험은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새로운 항암제의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쯤 강 교수는 아홉 번 항암치료 후 수술을 받은 환자사례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희망을 안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항암제가 별 효과가 없이 재발되거나 전이됐을 때 환자는 낙담한다. 그러나 미리 겁먹거나 걱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의료진이 수술 전 항암요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면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모든 환자들이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암협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25명 가량의 아산병원 위암 환자들이 참석했으며, 강연 후 다양한 항암화학요법을 주제로 질문 및 답변 시간이 이어졌다.Q&A요즘 20∼30대 젊은 층의 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던데 정말인가요? -최근 20대 환자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위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2006년 25%에서 2011년 37.5%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젊은 층에서도 위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기 위암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67%, 20∼30대에서 53%였으나, 3기 혹은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4기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21%에 비해, 20∼30대에서 29%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 않나요?-수술적 완전 절제술만이 위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조기에 진단해 수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위암 환자는 국소진행성 혹은 전이성 병기에서 진단되고 있습니다. 위암의 평균 상대생존율(69.4%)은 모든 암 평균 상대생존율(66.3%)과 유사하나 원격 상대생존율(5.8%)은 모든 암 평균생존율(18.7%)에 비해 급격히 떨어져 그 위중도가 심각합니다.초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은 위벽의 점막층에서 발생하며,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뉩니다. 조기위암은 암이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국한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위암이며, 진행성 위암은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및 그 이상의 단계로 진행한 위암을 뜻합니다. 이렇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을 구분하는 이유는 위의 점막층에는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 등 파이프 모양의 관상 구조물이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수술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진행성 위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가 어려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거나, 복막에 파종이 됐거나, 간, 폐,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는 병이 이미 전신에 퍼져 있는 것으로, 국소적인 치료방법인 수술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신에 퍼진 모든 암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항암화학요법(항암제, 항암주사, 약물치료)이 대표적인 치료방법입니다.위암에 있어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첫째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써의 역할입니다. 수술 후에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잔류암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둘째는 수술을 전제로 종양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원격전이 없이 국소적으로 진행된 위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함으로써 크기를 줄이고 절제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고식적인 치료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위암 환자의 음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암 환자는 암발생의 원인이 되는 맵고 짠 음식, 불에 태운 음식, 부패된 음식,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먹지 않도록 하며,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em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브의 고민 자궁관리 어떻게?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24002  
본문: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산부인과는 항상 먼 존재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여성 질환은 위험수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베드로병원 하이푸센터 조필제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연령별 자궁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사춘기 이전과 청소년기=사춘기 이전에는 증상이 있어도 나이의 특성상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비뇨기계나 소화기계의 문제는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 또 외음부에 가해진 마찰이 있었는지 질 내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지 살피고 각종 염증, 성조숙증, 난소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춘기에는 아동기를 벗어나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생리불순, 부정 출혈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할 경우 불임,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증식기 단계의 자궁내막이 많은데 이것이 월경으로 배출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받게 되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자궁경부암예방백신도 성관계 경험 전에 접종하는 것이 추천된다. ◇가임기와 폐경기=여성의 자궁 기능이 완성돼 아기를 완전하게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인 가임기 여성들은 특별히 더 자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흔한 질환인 자궁근종의 경우 35세 이상 여성의 약 50%에서 볼 수 있으며 30대 미만의 젊은 여성에게서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임기에 극심한 생리통, 성교통, 요통은 자궁 질환의 적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이상 초음파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분비물검사, 풍진항체 검사와 성병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여성호르몬이 감소해 폐경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호르몬 요법을 많이 시행하는데 이로 인한 호르몬 환경의 변화와 질벽이나 자궁내막의 위축이 가장 흔한 자궁질환의 원인이다. 이 외에 자궁내막암, 자궁내막 플립,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 자궁체암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조필제 원장은 “결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정기적인 검사로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여성 2명 중 1명이 앓는 자궁근종의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1년에 1번 이상 초음파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1.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항암주권 확보위한 신약개발 앞장 김인철 단장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0001  
본문: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 암에 대한 ‘항암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 항암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암정복프로젝트’에서는 국산 항암신약 공동개발과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김인철 단장을 만나 국산 항암제 개발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부가 직접 글로벌 항암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은 2011년부터다. 그간 항암제 개발에는 많은 한계가 뒤따랐다.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등으로 이어지는 신약개발의 전 주기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소액 분산투자 위주여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0'>사업단은 우리나라 항암신약 개발의 병목 단계 돌파를 통한 글로벌 국산 항암신약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출범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항암제는 모두 수입품이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0'>항암제는 고가이며 대부분 수입품으로 국부 유출이 심각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항암신약 개발 투자에 나선 이유</span>”라고 말했다.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10년이 넘는 기간과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려면 큰 리스크(risk)를 감수해야 한다. 김 단장은 “어느 한 곳의 제약사만 노력한다고 해서 혁신 신약이 발굴되기는 어렵다”며 “산학연이 협력해 가치가 있는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해 글로벌 항암신약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산 항암제는 4건에 불과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항암신약 후보물질이 발굴이 되더라도, 대부분 연구자의 실험실에서 사장되거나 헐값에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0'>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이 나오면 비임상 등 중간 단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사업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국내 산학연으로부터 총 118건의 물질을 공모 받아, 이 중 11건을 선별해 비임상 및 초기임상 개발 등 후속 개발 중에 있다. 11건의 항암신약 후보물질 중 6건은 개발과정에서 결점이 발견돼 개발을 중단했고, 나머지 5건은 임상1상 등을 진행 중이다. 사업단은 글로벌 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에게 신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0'>2016년까지 4개의 글로벌 항암신약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목표</span>”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뤘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임상시험 중인 한미약품의 항암신약(물질명 HM 781-36B(Poziotinib))은 지난 8월 20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중국의 루예제약에 기술 수출하기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는 “한국은 빨리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다. 머크 등의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우리는 이제 10살이다.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산학연이 노력하면 혁신 신약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암 환자를 다루고 있는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기초 연구자들과 분리돼 있다. 수많은 암환자들을 다뤄 온 의사들이 기초 연구자들과 적극 협력해 임상 등을 돕는다면 국산 혁신신약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아주대병원 임선교·허훈 교수, 하이브리드 수술 성공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23001  
본문: 아주대병원 위암센터 소화기내과 임선교(사진 왼쪽) 교수와 위장관외과 허훈(오른쪽) 교수가 조기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과 복강경을 동시에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조기위암 수술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주대병원 위암센터 의료진은 최근 조기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9명에 대해 내시경 절제와 복강경 수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조기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미국외과의협회지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시에 암이 퍼지는 길목에 있는 림프절(감시림프절)을 복강경으로 절제해 암이 림프절에 전이됐는지 분석했다. 이어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 전층을 절제하고, 복강경을 이용해 이를 다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 9명이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됐으며, 암이 불완전하게 절제된 데에 따른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1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환자 중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로 위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전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광범위 림프절 절제를 하고 전이 정도에 따라 복강경으로 위의 3분의 2가량을 절제(위아전절제)하거나 위 전체를 절제(전절제술)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현재 내시경적 절제술과 수술적인 위 절제술 사이에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동안 이런 환자의 치료방법을 정하는 데 논란이 있어 왔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번 하이브리드 조기위암 수술법을 통해 이런 환자에서 위암 병변을 제거하면서도 장기 절제를 최소화해 의학적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수술법은 특히 위암환자가 수술 후에도 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임선교·허훈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위암 치료는 절제 후 남겨지는 병변과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 절제를 하면서도 범위를 최소화해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수술로 발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내시경을 통한 위병변 부위의 정확한 확인과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아보는 감시림프절 술기가 좀 더 발전한다면 이번에 시행한 하이브리드 수술법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조기위암 치료의 표준 수술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근당 ‘프리페민 정’, 국내 첫 생약성분 월경증후군 치료제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53002  
본문: 종근당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생리전증후군, PMS) 치료제 ‘프리페민 정’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리페민 정은 스위스 생약전문회사 젤러(Zeller)에서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유럽의약국(EMA)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프리페민 정의 주성분은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생약성분(식물성분)으로,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피부증상, 아랫배 통증, 가슴팽창, 신경과민, 과민성 감정굴곡, 우울, 피로,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월경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약 40%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여러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이 생리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배란 후 황체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생리 시작 직전이나 그 직후 소실돼 여성들의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준다.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내 최초로 출시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가 그동안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 받아온 여성들의 일상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 제품은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1회, 1회 1정으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4.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2014년부터 포토프린 사라지고 3세대 광과민제들 사용될 듯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40001  
본문: 광역학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과민제와 이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빛, 체내 산소가 필요하다. 이중 광과민제는 포르피린을 포함하는 1세대와 크롤린을 포함하는 2세대로 나뉜다.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광과민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약제에서 높은 파장의 흡수와 빠른 대사를 보여 보다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광과민제 개발이 활발하다. 3세대 광과민제는 나노물질과 결합해 진단과 치료를 겸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적인 광과민제의 요건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성이 없는 것 △병소 부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것 △광흡수 스펙트럼이 600∼900nm 범위에 있는 것 △triplet quantum yield가 높은 것 △active oxygen(single oxygen, oxygen redicals) quantum yield가 높은 것 △일정한 형광 quantum yield가 있는 것 △물에 녹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과민제는 헤마토폴피린 유도체(HpD)를 근간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것이 포토프린이다. 이 약제는 실제 임상에 쓰이고 있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많은 환자에서 완전관해, 부분관해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헤마토폴피린류의 광과민제는 주로 종양의 혈관 손상을 야기해 혈행을 차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세포괴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체내에서 배설되는 시간이 길어 광역학 치료 시 광과민제가 완전히 대사될 때까지 빛을 차단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광과민제는 폴피린 기반과 그 외의 것으로 구분된다. 임상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광과민제의 거의 모두가 폴피린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대표적인 1세대 광과민제인 포토프린은 폴피린계 광과민제로 1993년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방광암의 광역학 치료를 위해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광역학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포토프린이 60가지 화합물의 혼합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암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광역학 치료가 갖는 장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폴피린 기반 광과민제가 정맥 투여된 후 종양에 축적이 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진 명확하지는 않다. 2세대 광과민제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1세대 광과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심골격구조의 화학적 변경을 통해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높은 몰 흡광 계수를 갖는 크롤린계 및 프탈로사이아닌계 유도체를 합성했다. 아프토신 유도체를 비롯한 3세대 광과민제들의 임상 3상시험이 완료되고 있음에 따라, 2014년경부터는 포토프린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3세대 광과민제들이 다양한 질병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의 광과민제 개발은 연구 인력이 적고 소재 개발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광역학 치료와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이용한 역학치료를 할 때에도 초음파 감각제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음향 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감각제는 광역학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크롤린 계통의 광과민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광과민제인 클로린만을 가지고 진단·치료할 수 있는 장점과 침투 깊이가 깊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광역학 치료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음향 광과민제의 개발이 활발히 연구될 것으로 생각한다.안웅식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2014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 스마트 시대의 건강관리 주제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27001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국내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 1층 드림홀에서 ‘2014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스마트 시대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주관한다. 이번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는 웰니스, 스마트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성장동력 핵심 분야인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의 추진 전략과 정책 현황, 소비자 대상의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헬스케어 시장 재도약의 기반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가한다. 컨퍼런스는 ‘미래성장동력,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 추진 전략’(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 주제의 기조강연과 △개인건강관리 관련 정책 현황 △소비자 대상의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동향 △ICT융합 기반의 맞춤형 건강 웰니스 서비스 사례 △해외 주요국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사례 등이 발표된다. 한편, 부대행사로 ‘스마트 건강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이 10월 23일(목)부터 11월 16일(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상식은 컨퍼런스 당일 함께 개최된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6.txt

제목: [암과의 동행-Q&A] 光역학 치료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48001  
본문: -광역학 치료가 기존의 광선요법과 다른 점은 “광역학 치료는 체내에 주입된 광과민물질이 빛에 의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활성 산소를 생성하면 이 활성 산소가 특정 병변 부위나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임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이나 광선요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광선요법이 빛을 쏘아 질병을 치료하는 반면, 광역학 치료는 광과민물질을 주입한 후에 조직에서 빛의 작용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광과민물질이 체내에 주입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광역학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시스템은 포르피린 계통의 광과민제가 종양세포에서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 파장(630nm)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의 구체적 원리는 “광역학 치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산소, 광과민제, 가시광선입니다. 치료의 효과는 선택적으로 종양 세포 내에 응집되는 광과민제의 특성, 가시광선의 조직 내 투과력, 광과민제의 조사된 가시광선의 흡수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과민제는 주변의 정상조직에 비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 구성된 악성 조직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가시광선에 의해 활성화된 광과민제는 조직 내 산소와 상호작용해 매우 짧은 반감기와 작용 반경을 가지는 활성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 활성 산소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미세혈관의 장애를 초래해 직접적인 세포 독성 효과와 함께 종양 세포를 파괴합니다. 적절한 병변의 치료를 위해서는 광과민제의 종류와 용량, 약물과 빛 간의 시간, 방사 강도, 빛의 양 및 파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광역학 치료 시 환자 주의 사항은 “처음 1∼2주 정도는 광과민제를 투여했으므로 빛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치료 3주 후에도 빛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호의를 착용할 권을 권장합니다. 4주 후에는 광과민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추이를 지켜봅니다. 치료 후 6주 정도가 되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선택적인 보호의만 착용하면 됩니다.” -광역학 치료 시 부작용 위험은 “광역학 치료는 다른 치료법에 비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광과민제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치료 후 최소한 30일까지는 태양광선에 의한 직접적인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7.txt

제목: [암과의 동행] 폐암 환자 6만7000여명… 서울·경기 4만4000여명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33001  
본문: 담뱃값 인상, 담배소송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흡연피해와 관련된 질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암은 기관지 및 폐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 비소세포폐암(폐암의 약 80%)과 소세포폐암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며,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간접흡연), 석면, 방사선, 환경적·유전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침·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면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또 일부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흉부 엑스선검사,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등을 통해 폐암 여부를 가려내며, 가래 세포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세침흡인 검사, 종격동 내시경 검사 등으로 확진한다. 폐암 환자는 2009년 5만1183명(입원 3만202명, 외래 4만6094명)에서 2013년 6만8448명(3만9481명, 6만1099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진료비도 2009년 3421억7470만원에서 2013년 4383억5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6월 기준 폐암환자는 6만7454명(입원 3만580명, 외래 5만9393명)인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만5552명 △종합병원 2만5403명 △병원급 6846명 △의원급 4773명 △보건기관 11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3만1127명이었으며, 이어 경기(1만3694명), 부산(5059명), 대구(4898명), 전남(4298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70대(1만6911명)와 60대(1만602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7933명), 80세 이상(4120명), 40대(1971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도 60대(6866명)와 70대(67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5553명), 80세 이상(2318명), 40대(1806명) 순이었다. 또 10세 미만에서 7명(남성 3명, 여성 4명), 10대에서 31명(남성 17명, 여성 14명)의 폐암환자가 있었다. 폐암의 치료제는 EGFR 표적치료 1세대(EGFR 수용체 중 ErbB1만 차단)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와 ‘타세바’(성분명 엘로티닙)가 있고, 2세대(ErbB1, HER2, ErbB3, ErbB4를 비가역으로 차단해 내성 위험을 낮춘 치료제)에는 최근 보험급여를 받은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이 있다. 이 외에 ALK 표적치료제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와 표준항암제 ‘알티마’(성분명 페메트렉시드)도 쓰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재발성·진행성 위암의 항암 치료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02623001  
본문: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환자는 조기 위암 환자에 비해 완치율은 떨어지지만 항암화학요법에 의해서 증세가 완화될 수 있으며, 생존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위암은 소화기암 중 비교적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플루오로피리미딘(fluoropyrimidine)과 백금(platinum)을 포함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진행성 위암의 표준치료이긴 하지만 반응률이 50% 미만이며, 1차요법에 반응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의 진행을 경험하게 된다.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라도 상당수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 환자의 전신상태는 여전히 양호할 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항암화학요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그동안 위암의 2차 항암요법에 대한 많은 임상시험이 시행됐고, 일부에서는 항암치료를 통해 생존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도 보고 된 바 있다.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질병 무진행생존기간이 2∼4개월 정도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치료지침이 마련되긴 했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약제 선택에 있어 표준 치료제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차 항암화학요법의 용법 선택, 약제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은 예상되는 약제의 독성, 환자 간의 차이,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종류, 전신수행상태, 동반 질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위암 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고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항암화학제제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생존율은 높이면서 항암치료에 따른 유해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항암화학제제를 이용한 치료의 개념에서 분자 수준의 세포 내외의 신호전달체계를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VEGF-R, HER2 등의 계열)를 이용한 표적치료에 관한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새로운 치료 대안들은 위암 환자들의 의학적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치료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29.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국가차원 항암제 복약 순응도 증대 노력 절실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8001  
본문: 획기적인 표적항암제의 등장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업무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또한 기존의 의사와 환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1년 이전에는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진단 후 즉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주로 무균병실과 수술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보슬립, 이클루시그의 연이은 출현으로 이식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입원하는 환자는 크게 줄어 의사들은 진료 이외의 의학 연구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이식이 주요한 치료법이 되었던 시절에는 △이식을 언제 할 것인지 여부 △골수를 채취할 것인지 여부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수집해 이식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 △형제 이식을 할 것인지의 여부 △비혈연간 이식 가능 여부 △어떤 항암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치료 과정 중의 많은 중요한 결정 모두가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 하에 있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 치료는 아무리 의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처방하더라도 환자가 정확한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다. 즉, 평생 동안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해야만 효과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표적항암제 치료법은 정확하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의사의 실력뿐 아니라, 환자의 규칙적인 복약 습관이 치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환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교육이 더 필요하게 됐다. 2010년 영국의 연구진이 특수 고안된 기기를 이용해 조사한 ‘글리벡 복약 순응도’를 보면 의사가 처방한 글리벡의 90% 이상을 복용한 환자는 단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 4명 중 1명은 처방된 항암제의 적량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환자들의 장기간 치료 효과는 현저하게 저하됨이 보고된 바 있다. 글리벡으로 처음 치료를 시작한 363명의 한국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치료 결과를 보고한 서울성모병원의 자료를 보면 7년 장기생존율은 94%에 달해, 해마다 약 1% 미만의 환자만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중 글리벡에 효과를 보아 계속 치료를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71%에 불과했다. 즉 아무리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라 하더라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장기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비싼 표적항암제를 다국적제약사로부터 국가 세금을 들여 수입한 후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값싸게 공급하지만 환자들이 제때 복용하지 않아 버려진다면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표적항암제에 대한 복약 순응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2005년 이후 필자의 병원은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환자와의 교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9월 22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표적항암제의 정확한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만성골수성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 질환에서 매일 경구 복용해야 하는 표적항암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해당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항암제 복약 순응도 증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동욱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0.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화이자 ‘잴코리’] 한 알에 16만원… 보험적용 줄다리기 계속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51001  
본문: 대학 시절에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9년째 투병 중인 박소연(31)씨는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이나 드는 바람에 치료 중단 위기에 처했다. 박씨는 암이 상당히 많이 전이된 말기 폐암 환자였다. 그는 9년간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내고 있다. 항암치료 도중 출산을 해, 현재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박씨는 “항암제 내성이 생겨 다른 약은 쓸 수도 없다. 유일한 희망은 ‘잴코리’라는 약물이다. 하지만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폐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이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부담을 떠안고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 바로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다. 이 약은 현재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한 알당 16만원씩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을 들여 사 먹는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억2000만원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명의 폐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약 200∼300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비싼 약가로 인해 현재 복용 환자 수는 약 60여명(2014년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잴코리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 받은 최초의 신약이다. 이 약을 먹고자 하는 환자는 치료 시작 전에 검증된 FISH(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법을 이용해 ALK 변이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출시 직후 화이자는 잴코리를 ‘진료상 필수약제’로서 급여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잴코리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span class='quot0'>해당 적응증에 도세탁셀 등이 쓰이고 있으므로 잴코리가 진료 상 필수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span>”고 평가했다. 이후 지난 2012년 11월 잴코리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화이자는 잴코리의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성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잴코리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화이자는 잴코리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경제성평가 모델을 개발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올해 7월 개최된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잴코리의 효과 및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됐으나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인해 다시 한번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화이자 측은 “잴코리는 혁신적인 약제이지만 대상 환자수가 적다. 현 급여 제도에서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보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환자들로부터 거센 급여 요구가 이어지자 건보공단에서는 잴코리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적정한 약가를 받으려는 제약사와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값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부 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가 그간 몇 번의 실패를 거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루 빨리 잴코리도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모바일 헬스케어 지금부터 시작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35001  
본문: 애플, 구글, 삼성 등 글로벌 국내외 기업이 IT와 헬스케어가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나아갈 방향도 정해지지 않아 정부나 산업계도 선도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의료기기업체 쿡메디칼코리아가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모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연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실장과 행사를 주최한 쿡메디칼코리아 이승재 지사장에게 모바일 헬스케어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쿡메디칼코리아의 ‘생각리더십’ 포럼은. △이 지사장=국내 헬스케어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모바일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의료기기 및 의료계, 학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모바일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어디까지 왔나. △박 실장=2000년 뉴헬스 바람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 활성화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헬스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바람은 좀 다른데 전통적인 의료영역의 회사가 아닌 애플, 삼성, 구글 등 IT 공룡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미래 먹거리로 생각해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장=쿡메디칼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로 IT와 직접 연관은 없다. 업계 차원에서 보면 모바일(무선)이 활성화돼 있고, 빅3 회사들도 시장의 틀을 만들고 있어 접목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직은 모바일 헬스가 단지 수치를 보여주는 측정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기술이 발전되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 기능 위주의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은 의료기기인가. △박 실장=법적으로 의료기기의 정의는 있지만 현재 나오는 제품들을 구분하기는 힘들다. 규제당국이 메디컬 영역을 축소해서 볼지 확대해서 볼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판단해서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웨어러블이 나오면 의료기기 포함 여부 등 분류체계와 가이드라인을 재빨리 마련해 제공해야 처음 진입하는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경계영역의 제품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규제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알려주는, 즉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형 기업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이 득일까 실일까. △이 지사장=IT 업체가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시스템이 약해 중소기업이 피해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데 각각의 특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만드는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 활용만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든 정부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몰려들 것이고 협력을 통한다면 IT업체, 의료기기업체, 비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 실장=기존의 전통 의료기기 업체들도 웨어러블로 확대할 것이고, IT 전문기업도 헬스케어 산업으로 진출할 것이다. 특히 선도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모바일 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성될 것이고 업체들 협력과 선투자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방향은. △박 실장=최근의 화두 중 하나가 사물인터넷인데 가전·가구 등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효용가치가 높은 분석 결과를 낸다는 것으로 헬스케어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생체데이터가 모여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분석을 통해 결과가 피드백되어 자신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주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정보는 자신이 설정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다. 특히 법·제도적 시스템에 국가가 선투자한다면 웨어러블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민간사업자가 개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환경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등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의료영역이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의료행위와 연결됐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는 IT 기업들이 개인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돼 메디컬에서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대되고 개인들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식단 등 여러 행동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이 실현될 것이고, 사람들은 건강해져 삶의 질이 높아지며, 국민 의료비는 절감돼 헬스케어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요구인데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정리=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치약·화장품’ 너 마저도… 일상 지배하는 발암물질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1141753001  
본문: 직장인 김연아(가명)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균작용 효과가 높다는 A사의 치약을 듬뿍 올려 양치질을 한다. 출근 전 김씨는 스킨로션, 영양크림 등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다. 출근할 때 이용하는 자가용에는 악취를 없애고자 방향제를 뿌린다. 이후 회사에 도착한 김씨는 책상 위의 먼지를 닦기 위해 물티슈를 사용한다. 어느 날 김씨는 신문을 통해 이러한 생활용품 상당수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품들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제 믿고 쓸 제품이 없다”고 말했다. 치약이나 화장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포함된 파라벤 등의 유해성분이 몸속에 흡수되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은 ‘치약’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치약의 약 3분의 2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됐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내놓았다. 김 의원은 치약의 파라벤 함량은 0.2%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해 놓았지만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이미 해외에서도 유해성분이라고 판명된 물질이다. 미국은 이 성분이 유해한 성분임을 인지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했다. 실제 2004년 미국 질병관리방지본부에서 국민 2517명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의 소변 내 농도를 측정한 결과 57.8∼74.6%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고 모체의 혈장과 모유에서도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캐나다 역시 구강세척제의 트리클로산 함유량을 0.03%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트리클로산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여성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함유된 방부제인 파라벤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화장품의 보존재로 사용되고 있는 다섯 종류의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보존제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내분비 장애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물티슈에 함유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생활 속 유해성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외친다. 우리나라는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어린이치약이 무려 63개나 된다. 또 화장품류의 파라벤 함유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제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측은 “유럽 등의 국가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발암물질 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물질들이 우리 생활에 쓰이지 않도록 장려한다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3.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특성화센터 및 암병원] (6) 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  
날짜: 2014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0141520001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는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이 있다. 각 진료과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다. 한 자리에서 오직 대장암 치료만을 위해 특화된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센터는 내원객의 동선을 고려해 설계된 공간에서 환자의 시간과 체력을 아끼는 효율적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가 길잡이가 돼 선도하는 ‘대장암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무흉터 수술로 암 환자 고통을 최소화시켜=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는 복강경 수술의 메카다. 복강경으로 대장암 환자들이 수술 후 겪을 고통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대장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구멍 한두 개만 뚫고 시술하게 돼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복강경을 뱃속으로 넣기 위해 뚫은 절개창이 작아서 나중에 상처가 아문 후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된다. 이 수술을 이끄는 의사는 대장암 명의로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된 대장항문외과 민병욱 교수팀이다. 민 교수는 국내 대장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병원까지 건너가 상처 없는 수술법인 ‘노츠(NOTES)’를 완벽하게 익히고 돌아왔다. 고려대 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는 이외에도 철저하게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기로 정평이 나있다.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대신 의사의 협진은 최대화시킨 덕분이다. 특히 직장암 환자의 경우 완벽한 암 절제와 함께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방사선종양학과와의 유기적 협진이 필수적이다. 종양내과 의료진의 적극적 항암치료를 통해 끝까지 암을 추적, 섬멸하고 수술이 어려운 타 장기 전이 암도 장기별 전문가가 직접 환자 상담은 물론 수술까지 책임 집도한다. 이런 다학제 협진 시스템은 보통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발, 전이, 진행성 대장암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대장항문외과 이선일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의 MD앤더슨 암센터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전이암 치료에 필요한 선진 치료기법을 이 센터에 이식 중이다. 실제 이 교수팀이 이곳 다학제 협진팀에 참여하면서 난치성 말기 및 전이암 치료율이 눈에 띄게 높아져 국내 전 의료기관 평균값보다 10%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학제 협진 시스템은 대장암 환자의 진료시간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루가 급한 암 환자로선 진료 및 수술 대기시간도 지루하게 느껴지기 쉽다. 이에 따라 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는 가능한 한 누구든지 당일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타과 진료도 예약 없이 바로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공격적 항암치료와 유전자 맞춤치료 빛봐=고려대구로병원 대장암센터 종양내과 오상철 교수는 “암 치료에 수술만이 중심이 되던 시대는 지났다. 수술 후 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항암화학요법의 대가로 입소문이 난 오 교수팀은 이 센터에서 수술 전과 후에 항암제를 적극 투여하는 치료를 하기로 유명하다. 약물로 암의 크기와 범위를 대폭 줄여서 외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이 잔류 암을 좀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병원 관계자는 오 교수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대장암 환자들의 치료율과 삶의 질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 도쿄대 의대 연수를 통해 대장암 유전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많이 얻은 종양내과 이석영 교수팀은 암 환자의 가족까지 보듬어주는 가족 치료로 대장암 예방 및 극복의 길을 열고 있는 의사다. 이 교수팀은 누구보다도 자세한 문진과 상담을 통해 가족력이 있는 암 환자의 경우 위험군을 선별, 다른 가족이 대장암에 걸리지 않게 인도해줘 호평을 받고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4.txt

제목: 유방암 발병 동아시아서 ‘1위’… 육류 위주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범  
날짜: 2014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20141506001  
본문: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온 한국인 유방암 발생률이 최근 일본을 앞서며 동아시아 국가 중 최고 위험 수위에 올랐다.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 서울성모병원 내분비외과 교수)는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한국인의 유방암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발병 양상이 서구식으로 급격히 변화해 인구 10만명당 발생빈도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2012년 기준 10만명당 한국인 유방암 발생률은 52.1명이다. 우리보다 먼저 식생활습관이 서구화 추세에 접어들어 장기간 동아시아 지역 내 유방암 발생빈도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51.5명보다 0.6명이나 많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만명당 유방암 발생률이 38.9명에 불과했다. 4년 만에 10만 명당 13.2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별로 유방암 환자를 분류했을 때 만 15세부터 만 54세까지의 유방암 발생률이 일본보다 앞섰고, 15∼44세 발생률은 미국마저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유방암 환자 발생 역시 1996년 3801명에서 2011년 1만6967명으로 늘었다. 15년 사이에 환자수가 약 4.5배 증가한 것이다.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유방암 조직의 양상도 서구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지방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암은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꾸준히 반응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치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있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2002년만 해도 전체 유방암 환자의 58.2%에 그쳤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비율은 2012년 기준 73%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사이 14.8% 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송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육류 위주의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결과를 봐도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경여성의 유방암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폐경 전보다 폐경 후에 더 잘 발생하고,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도 지방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폐경 후 유방암 발생률이 전체의 절반(53.4%)을 넘어섰다.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도 51세로 2000년의 46세보다 5세나 많아졌다. 2012년 기준 한국인의 하루 육류 섭취량은 85.1g으로 1998년(53.7g)보다 58.5%나 증가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육류 중심의 식습관이나 비만 외에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초경이 빨랐거나 반대로 폐경이 늦었을 때, 첫 출산을 경험한 나이가 고령이었을 때, 수유 경험이 한번도 없을 때 등이 꼽힌다. 아주대병원 유방암센터 한세환 교수는 “<span class='quot1'>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유방암 발병이 급증하고 패턴이 변화하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 아닌 북아메리카, 서유럽,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유방암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다. 0기 진단 환자는 5년 생존율이 98.8%에 달한다. 1기와 2기 진단 환자도 5년 생존율이 각각 97.2%, 92.8%로 90%를 웃돈다. 반면 4기 및 말기에 발견한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44.1%에 불과하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5.txt

제목: 법원, 주민 암 발병-원전 상관관계 첫 인정  
날짜: 2014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8102503002  
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린 것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의 암 발병과 원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다. 정부의 원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span class='quot0'>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48·여)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수력원자력은 박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span>”고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1'>갑상샘암의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샘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span>”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50)씨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 위암 판정을 받은 친정어머니(72)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당시 “<span class='quot2'>최근 핵발전소 주변 지역(5㎞)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span>”고 강조했다. 박씨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5㎞ 안에서 살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span class='quot3'>그동안 한수원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따지는 판결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향후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span>”이라고 말했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6.txt

제목: [한국교회,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4부] ② 은퇴 선교사의 3중고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7141326001  
본문: "한국교회는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될 정도로 국외에 선교사를 열심히 보냈다. 그런데 막상 선교사가 은퇴하고 귀국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 몸은 망가지고, 여생을 보낼 집은 없고, 일자리조차 없는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 주거 문제라도 해결하자는 심정으로 예수마을을 구상했다."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38만3000㎡(약 11만6000평) 규모로 은퇴 선교사를 위한 '생명의 빛 예수마을'을 세운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의 이야기다. 예수마을은 은퇴 선교사들이 직면한 열악한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은퇴 선교사들은 대부분 주거·생계난, 건강악화, 사역 비전 부재 등 3중고에 시달린다.◇지병 악화로 귀국, 후원 끊기고 생계도 막막=김광수(65) 선교사는 필리핀 선교사 시절 펄펄 날았다. 1988년 파송 받아 마닐라 라왁 지역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40대를 바쳤다. 14년 동안 현지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만 12곳.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해외선교부 간사 출신인 김 선교사는 20곳이 넘는 후원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에 전념했다. 하지만 2002년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일 서울아산병원 입원실에서 만난 김 선교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와 왼쪽 팔목 아래, 오른손 엄지와 중지가 없었다. 조직 괴사로 절단했다고 한다. 10년 전부터 혈액 투석을 시작한 그는 최근 들어 소변을 한 방울도 누지 못한다. 신장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에 3차례 오전마다 혈액 투석을 한다. 지난 12년 동안 서울 병원과 충남 서산의 요양병원을 오가며 그나마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내 송재은(60) 사모 덕분이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송 사모는 사표를 내고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떠났다. 하지만 갑작스런 귀국으로 살길이 막막해졌다. "아파서 귀국한다는 선교보고 편지를 후원교회들에 보내니까 거짓말처럼 후원이 싹 끊기더군요. 우리를 파송한 제1후원교회가 1년 정도 지원해준 게 전부였어요." 송 사모는 다시 임용고시를 본 뒤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전세를 얻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남편을 돌보고 있다. 아들과 딸은 결혼해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 간호는 전적으로 송 사모 몫이다. 그도 2년 전 디스크 수술을 한 터라 온전한 몸 상태는 아니었다. "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송 사모는 "선교 현장에선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 그리고 그곳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돌이켜 보면 조금이라도 은퇴 준비를 해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추방 당해 곤궁한 처지로 내몰리기도=김모(58) 선교사는 최근 A국에서 추방 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그는 태권도를 특기로 30대 후반에 선교사가 됐다. 20년 이상 현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영접한 현지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더욱 선교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5∼6년 후엔 현지인 사범에게 어렵게 차린 태권도장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추방으로 계획은 어긋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귀국해야만 했다. 김 선교사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모아둔 돈이 없었다. 교회 후원금은 모두 태권도 선교에 썼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후원했던 교회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후원 중단을 통보했다. 다른 선교지로 가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다. 그는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갑자기 귀국하니 참 막막하다"면서 "살 집은 고사하고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만난 차영수(88) 선교사는 "나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가구점을 운영하다 199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떠난 차 선교사 부부는 수도인 도도마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21년을 헌신했다. 그들이 세운 용자이초등학교는 3명으로 시작해 현재 학생만 550명 규모로 커졌다. 현지에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명문 학교로 통한다. 그런데 차 선교사 부부는 올 초 급거 귀국했다. 몸이 좋지 않아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부부 모두 암 확진을 받았다. 남편은 대장암, 아내는 신장암. 차 선교사는 대장 절제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아내 최계숙(77) 선교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차 선교사는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우리 부부는 그나마 자식이 한국에 있고, 사 놓은 집도 있어서 견딜 만하다"면서 "집 없고 후원 끊기고, 연고도 없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오히려 다른 선교사들의 딱한 처지를 걱정했다. ◇선교사 2명 중 1명 "은퇴 준비 안해"=한국 선교사들의 '대책 없는' 은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OMSC) 김진봉 선교사가 해외 거주 한국인 선교사 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선교사 은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이 20%였다. 5명 중 1명은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88%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다른 일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그렇다'고 밝혔다. '은퇴 후 사역'에 대해서도 교단과 선교단체 등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선교사관리부 남수현 목사는 "대다수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아직 선교사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퇴 선교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재찬 전병선 신상목 기자 jeep@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7.txt

제목: ‘암’ 영하 187도로 꽁꽁 얼렸다 녹여서 파괴  
날짜: 2014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3140751001  
본문: 암 조직을 영하 187℃로 얼렸다가 영상 67℃까지 해동시켜 파괴하는 새 암 치료법이 등장, 간암과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원종윤·허진·박성윤 교수팀은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냉동소작술을 50여회 시술, 평균 90% 이상 암 조직을 완전 파괴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냉동소작술이란 가느다란 주사침을 피부를 통해 암 조직까지 도달시킨 다음 아르곤가스를 주입, 영하 187℃까지 순간 냉동시켰다가 녹이는 방법으로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경피적 에탄올주입술, 고주파소작술 등과 함께 혹의 크기가 3㎝ 이하인 암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다. 국내에선 주로 간암과 폐암, 전립선암의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원종윤 교수팀은 2㎝ 미만 크기 소(小)간암을 단 한번의 시술만으로 90% 이상 완전히 괴사시키는데 성공했고, 2㎝ 이상 크기 진행성 간암의 경우엔 2∼3개의 천자침(穿刺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등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은 95%의 에탄올(알코올)을 암 조직에 주입, 피가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혹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일반적으로 약 1∼8㎖의 에탄올을 혹의 크기에 따라 4∼12차례 주입하거나 대용량(60∼150㎖)의 에탄올을 한꺼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암 조직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에탄올을 혹 속에 골고루 주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냉동소작술에 비해 여러 차례 반복 시술이 불가피하다. 많은 양의 에탄올을 한꺼번에 주입할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해 반드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것도 단점이다. 또 60℃ 이상의 고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고주파로 암 조직을 파괴하는 고주파소작술도 시술 시 고열로 인해 암 주변 정상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대혈관 주위 혹의 경우 열 손실이 많아 조직파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에탄올주입술과 마찬가지로 시술 중 극심한 통증을 유발, 수면마취 혹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반면 냉동소작술은 국소 마취만으로 가는 천자침을 간암 조직에 찔러 놓고, 아르곤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라 간편하다. 연구결과 이 방법으로 혹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응증이 맞을 경우 폐암 조직도 90% 이상 괴사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게다가 고주파소작술 등과 달리 주위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이 거의 없고 시술 중 통증도 없다. 시술 시간은 30분 정도로 짧다. 냉동소작술은 간암과 폐암 외에 신장암, 전립선암 등의 제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2년, 이들 암에 대한 냉동소작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간암과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이 냉동소작술을 사용하는 의료진은 모두 8개 병원 9개팀이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원종윤 교수팀 외에도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강석호, 흉부외과 함수연·김광택 교수팀, 보라매병원 흉부외과 이정상·문헌종 교수팀, 국립암센터 비뇨기과 정진수 박사팀,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 한영민·진공용 교수팀, 경기도 안양시 지샘병원 영상의학과 전용식 박사팀, 강북삼성병원 영상의학과 홍현표 교수팀, 동아대병원 영상의학과 조진한 교수팀 등이 그들이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8.txt

제목: 조기위암도 ‘하이브리드 수술’로 치료… 위내시경·복강경 동시 사용  
날짜: 2014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3140748001  
본문: 조기위암도 위내시경과 복강경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위암센터 소화기내과 임선교, 소화기외과 허훈(사진) 교수팀은 조기위암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절제술에 복강경 수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조기위암 수술을 하고, 최근 1년간 경과를 추적 관찰했다. 수술은 암이 퍼지는 길목에 있는 림프절(감시림프절)을 복강경으로 먼저 잘라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위내시경으로 암이 자리를 잡은 위 점막 전층을 도려낸 다음 복강경으로 다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환자 9명 모두 특별한 합병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다. 불완전한 절제술로 남은 잔여 암 때문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고, 1년 후 재검사에도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환자 중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로 위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전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광범위하게 림프절을 절제하고 전이 정도에 따라 복강경으로 위의 3분의 2가량을 절제거나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조기위암 수술은 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두 방법 중 한 가지 방법만으로 시술했을 때 잔여 암이 생기거나, 반대로 정상조직까지 과도하게 잘라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허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조기위암에 대한 치료는 암 조직 절제 후 남겨지는 병변과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절제범위도 가능한 한 작게 해 수술 후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절제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림프절감시법이 좀 더 발전하면 하이브리드 수술이 더욱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미국의 외과 분야 학술지 ‘저널 오브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서전스(JACS)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39.txt

제목: [미션 르포] 할머니·이주여성·어린이 한글에 눈을 뜨게하다  
날짜: 2014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1140631001  
본문: 시골교회 예배당 담에 쓴 성경 구절과 예쁜 벽화가 눈길을 끌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고딕체의 검정 글씨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이에 물과 하늘, 해와 달, 땅과 동식물이 그려져 있었다. “<span class='quot0'>천, 지, 를, 창, 조, 하, 시, 니, 라!</span>” 그 담 위로 얼굴을 내민 ‘해님과 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읽었다’. 달님은 할머니들이었고 해님은 이주여성들이었다. ‘읽는다’라는 행위는 피조물의 자의식 발현이다. 천부의 자유의지의 실현이다. 그 해님과 달님은 교회 부설 문해학교 학생들이다. 이제 해님과 달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한 기념일 한글날도 안다. ‘글을 읽고 이해(文解)’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축복으로 복음도 알게 됐다. 한글 공관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임을 고백하게 됐다. 그들이 말했다.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span>”이 ‘문해의 풍경’이 지난 6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백운산 아래 산골 동네 도화교회(문순국 목사)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잡혔다. 초가을 빛이 나락을 살찌우고, 초목을 단풍 들게 한 날이었다. 도화교회 마당은 푸른 잔디였다. 그 잔디 마당 앞은 한적한 지방도로였고, 도로를 따라 산 정상으로 계곡이 이어졌다. 교회에서 시오리(6㎞)만 내려가면 면사무소가 있다. 면사무소에서 제천 시내 방향으로 오리 즈음에 그 험준하다는 천등산 박달재가 병풍을 이룬다. 도화교회가 그만큼 오지라는 얘기다. "성경 읽을 줄 알아야 교회에 가지" 2004년 문을 연 도화문해학교는 도화교회 부설 기관이다. 1998년 설립된 도화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으나 2002년 문순국(52) 목사가 부임하면서 지금은 50여명의 재적교회가 됐다. 10배 늘어난 수치다. 도화문해학교 박만분(88) 황홍순(86) 박명월(78) 유영애(76) 할머니. 매주 화·금요일이면 할머니가 아니라 학생이다. 이들은 근년 들어 도화교회 집사가 됐다. 특히 유 집사는 무속인이었으나 한글을 깨치면서 새로 태어났다. 문해학교 반장이기도 하다. 할머니 집사님들은 문해학교 입학 후 졸업 없이 ‘마냥’ 학교에 다닌다. “졸업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안 해.”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졸업 거부’를 선언했다. 매년 평균 10∼20명 정도가 학교를 들락날락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재밌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4명은 쓰기와 읽기 잘 못한다고 누가 뭐라 한들 눈 한 번 깜박이지 않는다. “<span class='quot0'>나는 곧 하나님 나라 갈 사람</span>”이라고 선생님에게 억지 부리면 그걸로 끝∼. 교사 최성범(76) 장로는 이 ‘악동 학생’들에게 늘 당하면서도 허허 웃으시며 가르친다. 교회 앞 계곡 건너편 화당초교에서 마지막 교편을 잡았던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전직 교사로 이곳 백운면 출신이다. 문 목사로부터 문해학교 교사 청빙 받고 가르치면서 개종을 했고, 장로 봉직도 받았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문해학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새로 부임한 문 목사가 교회 주변 마을 화당리, 도곡리, 방학리 등을 다니며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하며 전도하곤 했는데 이 할머니들은 영화 ‘마파도’ 할머니들 캐릭터처럼 요리조리 잘도 둘러쳤다. “목사 양반. 고생이 많아요. 가고 싶어도 성경책을 읽을 줄 알아야 가지.” 갈 마음 없었던 할머니들은 이렇게 눙쳤다. 문 목사는 처음에 할머니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인사치레 하느라 그러는 줄 알았다. 한데 의외로 문맹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들은 “남들 우세스러워 모르고도 아는 척하며 살았다”고 한글을 쓰고 읽게 된 후 고백했다.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런 세월을 살았다. “내가 일정 때 태어났는데 계집애가 무슨 공부냐며 친정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냈어. 시집이라고 와 보니 폭폭 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지. 돌멩이 시알려(세서) 셈을 해 장사를 했어. 그렇게 자식들 대학 보냈고….” “열일곱 살 때였어요. 야학이 식전에 잠깐씩 열렸어. 여자들이라고 야학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가르쳐 줘. 그마저도 어머니가 애(동생) 보라고 안 보내 주지 뭐야.” “그때 배운 게 지금도 생각나. 첫날 ‘아이, 오리, 은하수’를 배웠어. 다음날 ‘감나무가 점점 자라오. 조심해 가거라’를 읽고 쓰게 했어. 이틀 배운 걸로 시험을 봤는데 냅다 붙었었지 뭐야. 그러니 어머니가 ‘됐다. 그 정도 배웠으면. 더 나갈 거 없다. 여자가 더 배우면 연애편지나 쓰지’ 이러셨어. 그 후로 평생 못 배웠지.” 학생들 얘기가 끝나자 최 장로가 말했다. “내 여동생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장까지 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한데 내 동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 초등학교 입학 한 달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정정하셨다면 여동생 학교 보내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감나무가 점점 자라오….’ 그 꽃다운 시절 처녀들은 어머니가 됐고 그들의 감나무는 자라지 않았다. 그리고 칠순이 넘어 비로소 문해학교에 입학, 칠판에 한 자 한 자 적으며 개명(開明)했다. 이제는 교회도, 우체국도, 농협도, 면사무소도, 파출소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들 그랬나 몰라.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랬겠지? 가난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같이 한글 공부" 그렇게 문해학교 교실에서 한담이 오갈 때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우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피부가 뽀얀 베트남 하노이 출신 여인 비트람(37).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는 이주 여성이다. 2008년 이곳으로 시집 온 재혼 여성으로 중도입국한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다. 대만에서도 3년여를 지내 중국어를 잘한다. 늘 잘 웃는 비트람은 교회 위쪽 덕동계곡에 있는 서울 사랑의교회 제천기도동산에서 주방 일을 한다. 교회 문해학교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던 필리핀 이주여성 아더리타(43)가 그런 비트람을 맞았다. 아더리타는 고향 루손 섬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1997년 한 이단종교 주선으로 국제결혼을 해 이곳에 정착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도화늘푸른지역아동센터 영어 교사이기도 하다. 고1·중2 1녀1남, 거기에 중3 조카도 데리고 키우는 한국의 보통 학부모. 키 145㎝의 이 당찬 필리핀 엄마는 ‘호랑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으면서도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또 다른 이주여성 두예림(35)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인근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정도로 이웃과 교회에 열심이다. 이날 일이 밀려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문해학교 국제반인 셈이다. 국제반 담임은 문 목사이다. 이주여성 세 자매는 도화교회의 보배이기도 하다. 서로 이끌어 주며 한글을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아더리타는 “2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한글을 몰라 문해학교에서 같이 배웠다”며 “한글학교 다니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며느리가 애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교사여”하며 자랑하던 ‘호랑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가 그간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 얘길 하며 이제는 40대가 된 아더리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날 도화교회 이영숙(50) 사모는 비트람의 특별 과외를 곰곰이 생각했다. 인사성 좋고, 순발력 뛰어난 비트람이 읽고 쓰는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교회 부설 기도동산에서 일하는 여건상 사람 접하기 쉽지 않아 한국어를 쓸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 비트람의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문 목사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문해학교 설립 이유를 말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글을 몰라 천국을 못 가는 것 아니냐’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암 검진’ 안내장을 암 판정으로 알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이주여성들도 그 같은 어려움을 겪겠지요. 도화문해학교는 교회가 이웃에 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주일 예배에서 성경 본문 말씀을 척척 찾는 문해학교 학생들을 볼 땐 ‘아,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이러하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도화문해학교 학생들은 거침없이 ‘읽었다’. 제천=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0.txt

제목: 5시30분 전에 일어나고 아침식사 푸짐하게… ‘컬러테라피’ 연구 김현숙 원장  
날짜: 2014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1140629001  
본문: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섭리 속에서 창조됐고 치료방법도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다 있습니다. 모든 장기는 컬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컬러로 건강을 지키는 컬러테라피’(대원사)를 펴낸 김현숙(50) 원장이 최근 러시아연방 다게스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일 방한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큐플러스한의원·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평신도 전문인선교단체 인터콥 소속 선교사로 지구촌 오지를 돌며 의료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 금산의 한의사 집안에서 자란 김 원장은 뉴질랜드에서 한의학과 접목한 ‘컬러테라피’를 연구개발하게 됐고, 그로 인해 힐링센터와 뉴질랜드 한의대를 설립했다. 컬러테라피는 모든 종류의 색채 스펙트럼을 이용해 병을 치유하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이다. 김 원장이 그동안 창조섭리에 의해 연구한 컬러테라피 치료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24시간 건강생활법(표 참조)이다. 김 원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루 24시간에 배속돼 육장육부(담장, 간장, 폐장, 대장, 위장, 비장, 심장, 소장, 방광, 신장, 심포, 삼초)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람의 하루는 폐에서 시작(오전 3:30∼5:30), 기를 열어 간에서(오전 1:30∼3:30)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새날을 준비해 주는 12지간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밝힌 우리 몸의 육장육부가 활동하는 시간대와 원리를 살펴보면 사람의 몸은 소우주(小宇宙)와 같다. 해가 뜨고 짐에 따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순환하듯이, 하루 24시간에는 각기 자연의 흐름에 따른 순환체계가 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언제 일어나면 좋을까. 김 원장은 5시30분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폐의 기를 깨워주기 위해 일찍 일어나며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전인 진시(7:30∼9:30) 전에 용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아침을 푸짐하게 꼭 먹는 습관을 들여 줄 것을 권한다. 낮에는 조금씩 휴식을 취해 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가급적 찬바람을 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녁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오후 7시30분 전에 가벼운 저녁을 먹고 몸을 쉬게 해준다. 잠자리에는 9시30분 전에 드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1시30분 이전에는 취침을 하는 게 좋다. 그가 제시하는 건강생활법은 현대를 사는 바쁜 생활인으로서는 다소 지키기 힘든 부분도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무조건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지키며 하루를 지낸다면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김 원장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옷 색상이나 음식의 색상 등은 자신이 어울리거나 취향에 따라서만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자신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원하는 색상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한의학에는 5가지 색상이 있는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그린색,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붉은색,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노란색, 신장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주로 검은색을 입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체의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회복을 위해서 선호하는 색상을 끌리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자신의 오장육부의 허와 실에 의해서 몸이 원하는 색상이 달라지는데 유난히 빨간색이 끌린다면 심장이 허하기 때문이다. 내달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 방에는 벽 한쪽을 그린색 포인트 벽지를 장식해주거나 커튼이라도 그린색으로 바꿔주면 집중이 잘되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다. 식초를 탄 물과 레몬, 홍차, 초콜릿은 잡생각을 없애주고 안정을 찾는 데 좋다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은 ‘24시 건강 생활법’(몸의 반란)을 주제로 한 신간을 준비 중이다. 내년 1∼2월엔 컬러테라피 원리에 따른 넥타이와 스카프, 의류도 생산할 예정이다. 그는 또 경기도 평택시에 중증 암환자와 소외받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고 오행침술을 전수하는 선교훈련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1.txt

제목: [책과 길] 500년 역사 한글, 500년 후에도 살아남을까?  
날짜: 2014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10140414001  
본문: 한글날인 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했다. 문자를 주제로 한 국립박물관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국립중국문자박물관을 제외하면 유일하다고 한다. 지난해부터는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겉으로 보자면 오늘날 한글의 위상은 견고하다. 치열했던 한자혼용론과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굳힌 것 같고, 영어공용화론이 새롭게 도전해오고 있으나 그 세는 아직 미미해 보인다. 한글의 세계화, 한글의 산업화 등에 대한 얘기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과연 한글은 안녕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500년 역사의 한글은 앞으로 50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한글날에 즈음해 출판된 두 권의 책은 한글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한글의 미래에 대한 위기론을 다급하게 발신한다.‘한글전쟁’의 저자 김흥식 서해문집 대표는 “<span class='quot0'>우리 언어생활이 이미 신문맹 시대에 돌입했다</span>”고 평가한다. 기본품목: 201 마력 2.4 GDi 엔진, 6단 자동 변속기 외관: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신규디자인 17인치 알루미늄 휠, 범퍼일체형 듀얼 머플러… 내장: 가죽 & 하이그로시 변속기 노브, 가죽 & 우드그레인 스티어링 휠, 스웨이드 내장… 그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랜저 기본품목’을 보여주면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소유한 가장 비싼 재산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우리는 그 제품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신문맹 시대의 도래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맹인가”라고 묻는다. ‘우리말은 병신 말입니까’를 쓴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영어를 못 하면 병신 취급을 받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우리말이 ‘병신 말’이냐고, 그들을 병신으로 만든 자들은 대관절 누구냐고 따진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강의하고 논문을 잘 써온 교수들이 오늘 갑자기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교수 자격이 없는 무책임한 교수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교수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대학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병신이 된 까닭은 그들이 병신 말인 우리말만 썼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와 구 교수가 공통적으로 꼽는 한글의 최대 위협은 영어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1'>영어는 오늘날 한글 나라에 떨어진 핵폭탄</span>”이라고 묘사했고, 구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말은 글자 없이 반만 년, 제 몸에 딱 맞는 글자를 얻고도 한자에 눌려 지낸 지 오백 년, 새 빛이 비추어 힘찬 날개 짓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지 오십 년 만에 다시 영어에 내몰려 병든 몸이 되었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span>”라고 통탄했다. 영어의 범람은 갈수록 확대되고 깊어진다. 한자혼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영어 범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 일쑤다. 이 시대 영어 숭배 현상에는 세계어라는 권위, 성장담론, 신분상승의 욕구 등이 연결돼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말은 어딘지 모자라 보이는 싸구려 또는 이류가 됐고, 영어를 모르면 병신 취급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언어생활과 학문세계에서 영어 사용이 계속 확대된다면 한글은 표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경고다. 특히 구 교수는 영어로 강의하기, 영어로 논문쓰기 등 대학들이 영어를 학문어로 강제하는 추세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한글이 처한 학문어로서의 위기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영어가 외부적 위협이라면 한글은 내부적으로 조어력(造語力) 빈곤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게 두 저자의 공통된 분석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물이나 학문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어력 문제는 외국어의 무차별적 수용을 불러오는 요인이기도 하다. 조어력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한자를 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구 교수는 대학의 영어 광풍이 우리말로 논문쓰기,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부추기는 언론사의 대학평가 제도를 고발한다. 병신, 암, 전쟁 등 한글을 다루며 두 책이 구사하는 표현은 꽤나 격렬하다. 한글의 안부에 대해 우리가 그간 너무 무심했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편에서는 혹시 위기를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글은 지난 500여년 거의 언제나 위기였다는 사실이다. 한글의 역사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이어져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위기라는 점에서 두 저자의 경고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미국 유학파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는 날,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김흥식) “현재 많은 상위권 대학들은 ‘영어로 강의하기’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우리말로 강의하기’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날이 올 수도 있다.”(구연상)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2.txt

제목: “도심으로 나와 시민과 소통하는 한마당 잔치로” 대학축제 담을 넘다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9140308001  
본문: 경북 경산의 대경대가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가을축제를 대구 도심에서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생들의 축제가 캠퍼스 밖에서 열리는 것은 국내 처음이라고 대경대는 설명했다. ‘대구·경북 시·도민 드림 축제’로 이름 붙은 축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부로 나눠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대경대 36개 학과 전체가 특성화교육 체험 부스를 마련, 참가자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자동차딜러과는 해외 자동차 설명회를 열고, 동물조련이벤트과는 미니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간다. 뷰티디자인과는 헤어스타일링을 해주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호텔조리학부와 베이커리학과는 야외 베이커리를 운영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생활체육과는 원 포인트 골프레슨을 하고, 간호계열은 혈당체크 및 10대 암 조직 전시회를 하는 등 학과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부 ‘이것이 문화다-대경 시·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는 오후 6시 중국 산둥공예예술대학의 초청 패션쇼와 함께 시작된다. 모델과가 주축이 된 패션쇼와 뮤지컬과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 메이크업과의 ‘보디페인팅쇼’ 등이 이어진다. 동물조련이벤트과는 40여종의 동물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실용음악과는 학과에서 배출한 그룹을 총출동시켜 공연을 한다. 이채영 대경대 총장은 “<span class='quot0'>대경대의 강점을 살려 시민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한 만큼 소비하는 대학축제가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span>”고 말했다.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3.txt

제목: [겨자씨]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7135923001  
본문: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과 같은 천재지변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나 암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의문점 혹은 내면의 두려움을 구체적인 구도의 소리로 탁월하게 육화시키는 작가로 ‘필립 얀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캠퍼스라이프’와 ‘크리스채너티투데이’지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한 경험을 살려 신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불어넣고 새로운 차원의 확신을 부여해 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에서 “<span class='quot0'>책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의 땅에서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선 책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span>”고 말합니다. 그는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덕봉 목사(요나3일영성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4.txt

제목: 건강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가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7101713001  
본문: 흡연피해 소송에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환자의 건보공단부담 진료비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 빅데이터 활용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면 각종 질환에 대한 건강지도(발병의 요인, 형태, 취약자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고, 질병 발생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문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가 하는 점인데, 데이터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측은 데이터 제공 단계에서 중요 개인정보는 삭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며, 연구자에게 제공된 데이터들의 폐기관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선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성별·나이·지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신상정보는 아니더라도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 체계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용내역정보 역시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돼 상충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정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빅데이터 활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 결과, 진료내역,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등 1조3000억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12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고, 2013년에는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100만명)을 추출해 ‘연구용 표본코호트DB’도 구축해 자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외래환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모든 내역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에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5.txt

제목: [건강 나침반] 관절염, 퇴행성 연골 마모서 유발… 류마티스 조기진단 중요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7140024001  
본문: 며칠 전 65세의 여성분이 진료실을 찾았다. 2년 전부터 무릎,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손가락 관절과 손목의 붓는 증상과 더불어 통증이 심해졌다고 털어놓았다. 시골집 근처 병원에 다니며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더 악화되는 느낌에 방문했다고 했다. 오랜 시간 퇴행성 관절이 있었고, 농사철을 지나며 일이 많아져 그런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고 했다. 관절 초음파 등을 통해 진찰한 결과 단순한 퇴행성이 아닌 손목과 손가락, 무릎 등 여러 관절에 물이 차고 활액막이 두꺼워져 있는 전형적인 류마티스관절염임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우측 손목에는 이미 뼈가 손상된 상황이었다. 사람은 일생 중 한번은 관절이나 관절 주변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일을 많이 해서, 운동을 심하게 해서 또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등의 이유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관절통증과 관절염증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증의 경우 자체 통증뿐 아니라 부어 있고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압통이 동반된다. 관절염은 외상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저절로 낫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다. 관절염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질환으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루푸스 등이 있다. 가장 흔히 보이는 퇴행성관절염은 엄밀히 관절염증보다는 연골의 마모가 주요한 특징이지만, 일시적으로는 관절염증을 동반하여 관절이 붓고 물이 차기도 한다. 관절염증의 증상이 나타난 지 수 개월이 지났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2년 안에 관절의 손상과 파괴가 발생하고 이미 발생한 관절의 변형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질환인지 파악하는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병의 증세가 심해지기 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효과도 높을 뿐 아니라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만성 관절염은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관절염은 치료제가 없고 진통제로 통증만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최신 치료제의 개발로 증상 완화의 수준을 넘어 일부 환자는 완치에 이르는 것도 가능해졌다. 적시적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관절의 손상과 파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현대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90세는 거뜬히 넘겨 사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수의 길에 관절염이라는 복병을 조심해야 한다. 장수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관절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절이 붓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나경선 (나경선내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6.txt

제목: [헬스 파일] 간암 극복 전략 시급하다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6135747001  
본문: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3년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 1위는 인구 10만명당 149명을 사망케 한 악성신생물(암)이다. 이 중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폐암(3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간암 사망자는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40, 50대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간암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은 26.7%로 조사돼 있다. 이는 대장암(72.6%)이나 위암(67%)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생존율이다. 간암환자들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간경화를 함께 갖고 있고 ‘침묵의 장기’란 별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별다른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간암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은 물론 간암 퇴치 및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간암 조기검진과 간암 예방활동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간암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전국적 단위의 역학조사를 통해 간암 발생 및 치료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물론 국가 간암 조기검진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니라는 2003년부터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에 간암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은 1년에 한번씩 간 초음파검사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통해 간암 발병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수검률이 문제다. 현재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들의 간암 조기검진 수검률은 38.6%에 불과하다. 간암 극복을 위해선 간암의 조기검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향상시켜 수검률부터 대폭 높여야 한다. 또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권장되는 간암 검진주기도 6개월마다로 단축해야 한다. 그래야 간암 감시 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고위험군의 간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간암의 최대, 최고 위험요인은 간경화다. 따라서 만성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간경화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간경화의 4대 위험요인은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 과도한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만성 B형간염이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간염의 활성도를 검사해서 필요한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다. 폭음에 관대한 사회풍토를 개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 과도한 음주는 그 자체로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B·C형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서경석 대한간암학회 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7.txt

제목: “시판 치약 3개중 2개 유해물질 함유”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6101636001  
본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약 3개 중 2개에 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1302개(63.5%)에 '파라벤'이, 63개(3.1%)에는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방부제의 일종인 파라벤과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트리클로산의 경우 미국 치약 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가 2011년부터 사용을 전면 중단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에선 지난 5월 사용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사의 토탈클리어 치약 등은 0.3%의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대체되고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생산·판매되고 있다"면서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이 주요 성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치약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주요 성분이 아니어서 대부분 치약에서 이 성분의 포함 여부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파라벤은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트리클로산은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별도의 관리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8.txt

제목: 삼성행복대상 정진성·백성희 교수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2135352001  
본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4년 삼성행복대상에 정진성(왼쪽 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백성희(오른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1일 선정됐다. 이 상은 여성 권익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효행을 실천한 여성·단체·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여성선도상 수상자인 정 교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혼이주여성, 불가촉천민(인도 최하층 신분)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창조상을 받는 백 교수는 암 발생·전이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해왔다. 가족화목상은 ‘e세대 가정봉사단’이 받는다. 21세기형 가족봉사단으로 2002년부터 270여명의 봉사단원이 130여명의 홀로 사는 노인과 1대 1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밖에 김솔비(18·제주여상고3) 박세은(18·관양고3) 송은혜(18·해남공고3) 이준영(17·부평공고2) 정다영(18·전주사대부고3) 학생이 청소년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 달 6일 삼성생명 콘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청소년상 500만원)이 지급된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49.txt

제목: 흡연, 간암·당뇨도 유발… 간접흡연은 뇌졸중 불러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2135426001  
본문: ‘테리 보고서’는 1964년 미국 정부가 흡연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보고서다. 특히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50년간 매년 보고서가 개정됐는데 올해는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10가지가 추가됐다. 흡연 때문에 생기는 암에는 간암과 결직장암이 추가됐다. 당뇨, 결핵, 노인성 황반변성증, 남성 발기부전도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확인됐다. 자궁외 임신, 엄마의 흡연에 의한 선천적 결함(구강 안면 파열), 류머티즘 관절염, 면역 기능 약화 등도 새로 포함됐다. 간접흡연이 뇌졸중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 보고서 요약본을 번역해 국회,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발간된 미국 공중보건국장 보고서(Report of the Surgeon General)는 1964년 테리 보고서 발간 이후 2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흡연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0만명은 간접흡연 피해자였다. 영·유아 10만명은 부모 특히 엄마의 흡연 때문에 영아돌연사증후군이나 조산과 저체중에 의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심혈관 및 대사성 질환이 778만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 관련 암(658만명·31.6%) 폐질환(380만명·18.3%) 등이 흡연자의 주요 조기사망 원인이었다. 보고서는 “흡연 때문에 병에 걸려 일찍 사망한 미국인이 전쟁터에서 숨진 미국인의 1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흡연율은 1965년 42%에서 2012년 18%로 떨어졌다. 폐암·심장병 등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2005∼2009년 35세 이상 48만여명이 흡연 때문에 일찍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8세 미만 청소년 중 560만명이 담배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폐암 사망의 87%, 각종 폐질환 사망의 61%, 관상동맥 질환 사망의 32% 이상은 간접흡연 때문이었다. 미국 암학회의 추적연구 결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의 25배쯤 됐다. 흡연자가 만성 폐쇄성 질환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의 22배였다. 보고서는 흡연이 수명을 10년 단축시킨다고 설명했다. 40세 이후 금연하면 수명 단축 위험이 90% 정도 줄어든다. 60세에 담배를 끊어도 수명 단축 위험은 60%가량 줄어든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은 조기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덜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니코틴 중독은 태아 성장과 발달, 면역체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에 해롭다. 간접흡연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을 20∼30% 상승시킨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30∼40% 높다. 담배를 피우면 당뇨병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 미국에서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2890억∼3330억 달러나 된다. 1300억 달러는 성인 흡연자 치료비용이고, 1500억 달러는 흡연자 조기 사망, 50억 달러는 간접흡연 피해자 조기 사망에 의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이다. 보고서는 “흡연자를 더 줄이려면 국제적인 담배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하고 담배산업의 강력한 마케팅에 대응해 국가 단위 캠페인을 계속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0.txt

제목: 심장스텐트·PET 건강보험 확대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1101333001  
본문: 12월부터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자궁내막암 환자에게도 ‘양전자단층촬영(PET)’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 관상동맥 안에 심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심장스텐트’는 개수 제한 없이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는 ‘기증 제대혈 제제’ 비용 부담이 50∼9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심장질환자에게 이같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PET는 암세포의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비뇨기계 암 환자는 그동안 70만원 정도인 PET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4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약 1만9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치료가 끝난 뒤 재발 의심 증상 없이 촬영하는 경우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다.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치료재로 쓰이는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는 개당 190만원의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했는데, 12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는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치료에 쓰이는 기증 제대혈 제제 비급여 가격이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인하된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0만3000∼20만6000원만 내면 된다. 연간 57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1.txt

제목: 못받은 車사고 특약 보험금 받는다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1001101337001  
본문: A씨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동차 사고로 입원 시 하루 3만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2만원을 지급받는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사고를 당한 뒤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만 지급받았다. A씨가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정확히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했고, 보험사도 굳이 이를 챙겨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최근 3년간 별도의 상해보험 등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에 가입하고도 해당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span class='quot0'>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2014년 6월 사이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span>”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챙겨 지급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미지급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자체 점검 대상에는 자동차 사고 관련 입원치료 시 상해입원일당과 생활유지비 특약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누락 여부, 할증지원금·부상치료비 특약 관련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일반 암과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사가 자사 내 중복 상품에 가입된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타사와 중복된 경우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내용을 파악해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사실을 알릴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2.txt

제목: 암전문병원 노박의원은? ‘항암면역세포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 도입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30135029001  
본문: 노박의원은 현재 6층 건물 전체를 병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1층 외래진료실·물리치료실, 2층 피부·비만·두피관리실, 3층 물리치료실, 4층 진단방사선과, 5∼6층 입원실로 돼 있다. 특히 6층 입원실은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외에도 교정치료실, 도수치료실을 설치하고 암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뿐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잡고자 시도하면서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암재활, 비만, 관절 등 다양한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처럼 일반 개인의원이 아닌 병원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가 내원하면 당일 진료와 치료가 곧바로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 노박의원은 최근 비용은 좀 들지만 ‘항암면역세포치료’를 도입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방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치료법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백혈구를 증강시킨 뒤 다시 주입함으로 자체 면역 및 치유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인데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박의원은 항상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이를 연구하는 자세로 이를 도입, 내방환자들에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노박의원은 암전문병원으로 소문이 나 환자가 항상 붐빈다. 노 원장은 크리스천으로써 의술과 함께 정신적 치료에도 큰 관심이 보이며 진료를 하고 있다. 노 원장는 “<span class='quot0'>질병은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과 감정, 영혼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이 자연의학의 중심적 개념</span>”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을 회복시켜 줄 때 인체가 가진 천연방어력이 잘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이 천연방어력을 최대한 가동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노박의원은 수술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현대의학의 암 치료를 넘어, 영양면역요법과 운동면역요법·정신(영)면역요법 등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박의원의 치료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처럼 노박의원의 치료방법은 환자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3.txt

제목: 자연·양방 결합한 암치료법… ‘중국인전용의원’ 서울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30135027001  
본문: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은 요즘 틈만 나면 중국어를 배운다. 출석하고 있는 신촌성결교회(이정익 목사) 중국어예배에 참석하는가 하면 한문으로 대화하는 카톡방에도 가입해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 있다. “저희 병원이 있는 지역에 조선족과 한족 등 중국어가 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요즘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으로 엄청나게 한국을 찾아 옵니다. 그래서 저희 노박의원이 ‘중국인전용의원’이란 타이틀을 걸고 본격적으로 진료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노박병원 직원들을 주 4회씩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올해 신촌성결교회서 장로장립을 받은 노 원장은 중국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의술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은 그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노박의원이 암치료 전문병원이란 소식을 듣고 중국 다롄에 사는 전직학교 교장인 한족(漢族) 한 분이 우리 병원을 찾아왔어요. 당뇨합병증으로 전신쇠약에 관절통, 실명직전의 위험한 상태였지요. 한국에 아예 머무르며 진료를 받겠다고 해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어요. 우리 병원의 자연치유요법과 온열치료 등을 통해 3개월 만에 건강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던 그는 감사를 표시하는 휘장을 제작해 병원으로 가져왔다. 의덕고상 의도병제(醫德高尙 醫到病除)라고 쓴 글씨는 ‘의사로서 덕을 갖추어 고상했으며 병을 제거하는 의술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었다. 노 박사는 이 글씨를 보며 하나님께서 올해 자신을 장로로 임직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의사가 되게 하신 사명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오랜 의사생활을 하면서 왜 목사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도 암이라는 병에 걸릴까하는 의문도 순식간에 풀리는 것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평생 놀라운 사역을 펼친 바울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 질병을 계속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계기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22일 전남 장흥 관산읍에서 열리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저희 노박의원도 부스를 마련해 참가합니다.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암치료법(자연치료 및 양방치료)를 제시하고 체질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산성화지수를 무료로 검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박의원이 암전문병원으로 많은 환자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해 주면서도 반면 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의료보험만으로도 치료를 호전시키도록 정성을 쏟는 것은 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 원장의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박의원은 자연치료라도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가급적 보험 적용 테두리에서 진료를 해주려고 노력한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5∼1997년 미 휴스턴 베일러(Baylor) 의과대학에서 암유전학에 대해 연수한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그곳에서 자연치료의사(ND)들이 따로 있고, 그런 치유의학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귀국한 뒤 환자들을 자연치료로 치료하기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 “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방도 자연치료 의학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 원장은 “자연치료 방법이 정통적 양방 암 치료와 반대 개념이 결코 아니며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 낫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한의사들과도 교류하려는 열린 생각으로 양한방 의사들이 모이는 ‘자연의학회’도 만들었고 암 환자들이 참여하는 블로그와 카페도 개설했다. 자연치료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 그동안 고충도 많았다. 대학병원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자연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현대의학의 한계는 환자가 위중한 상황이 되면 되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노 원장은 신앙적인 이야기와 자연치료의 정신과 경혐을 녹여 “노박사의 따뜻한 암 치료”(도서출판 생명나무)를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환자와 사람들에게 건강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늘 환자를 먼저 생각하며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 ‘의술은 인술’이라는 명제를 실천하고 있는 노태성 원장. 노박의원을 중국인전문의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곳이 한족을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도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4.txt

제목: [고령사회 노인들] 65세 이상 2013년 진료비 1인당 322만원… 평균 3배 넘어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30135136001  
본문: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진료비로 1인당 연간 321만9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연평균 진료비(102만2000원)의 3배가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로 50조9552억원이 쓰였고 노인 진료비가 35.5%(18조852억원)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인 진료비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574만명으로 전체 인구(4999만9000명)의 11.5%를 차지했다. 2008년 처음으로 노인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매년 전체 진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06년(7350억4000만원)에 비해 7년 새 2.5배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는 2006∼2010년 동안 연 13.8∼24.1%씩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질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일차성 고혈압’이었다. 524만명에게 2조1639억원이 들어갔다. 이어 만성 신장질환(1조3419억원·15만명), 급성 기관지염(1조1242억원·1415만명) 순으로 진료비가 쓰였다. 또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무릎관절증(9490억700만원·246만7000명), 뇌경색증(8878억4700만원·43만6000명), 알츠하이머 치매(7662억6500만원·24만1000명) 등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 질병 5∼7위에 올랐다.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도 노인성 질환과 관련이 깊었다.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 1위는 기타 추간판 장애(23만7507명), 2위는 노년성 백내장(23만6975명)이었다. 뇌경색증(9만2856명), 무릎관절증(9만408명), 협심증(8만878명) 등도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 수는 1375만명이었다. 고혈압에 이어 치매 등 신경계 질환(259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247만명), 당뇨병(232만명), 간질환(150만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암 환자는 25만1025명이었고, 전체 암 환자는 143만7310명이었다. 암 환자에 들어간 진료비는 4조6291원에 이르렀다. 저출산 현상 심화도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699곳으로 2008년(954곳)보다 26.7% 줄었다. 5년 동안 분만기관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분만 건수(42만7972건)도 2012년보다 4만4775건 감소했다.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이 커지면서 제왕절개 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율은 37.4%로 2012년보다 3.1% 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산모 비율은 2001년 8.4%에서 2012년 21.6%로 11년 동안 2.6배 늘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5.txt

제목: [도약하는 충청·강원] “무병장수 열쇠 찾아서…” 바이오산업의 미래 한눈에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30135036001  
본문: ‘120세 무병장수와 아름다움의 비밀을 밝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양쪽 유방을 제거하고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BRCA1’이라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유방암 발병 확률이 75%에 이른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실제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한 것이다. 미래의 병을 예측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무병장수라는 인류의 꿈도 무르익고 있다.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을 주제로 아쉽게도 10월 12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리고 있다. 바이오엑스포는 환영의 장, 주제와 체험의 장, 산업의 장, 축제의 장으로 구성됐다. 환영의 장 초대와 만남을 위해 상징꽃 탑과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고 주제 체험의 장에서는 바이오미래관, 주제영상관, 건강체험관, 뷰티체험관, 에듀체험관이 들어섰다. 바이오산업의 장은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 바이오마켓이 마련됐다. 축제의 장에서는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바이오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가장 먼저 잡는 곳은 바이오미래관이다. 이곳은 포스트 게놈 이후의 바이오 산업화 단계, 현황과 성과, 의료·의약·식량·에너지·융합기술 등 바이오 기술의 미래와 무병장수를 향한 인류의 꿈을 엿볼 수 있다. 바이오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의 복제견은 지난 26일 폐사됐다. 지난 7일 태어난 복제견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검증까지 거쳤으나 면역력이 약해 그동안 인큐베이터에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복제견 탄생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만 관람할 수 있다. 주제영상관에서는 생명공학의 가치, 바이오산업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 세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 건강체험관에서는 피 한 방울로 간단하게 암·심장병·갑상선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를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간은 뷰티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를 즐기고 바이오 융·복합 화장품 등 미래의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피부 노화방지 바이오 화장품, 먹고 입는 화장품을 접해볼 수 있다. 홍보대사인 가수 씨스타의 무대를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K뷰티 홀로그램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은 에듀체험관에서 생명과학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충북도립대가 진행하는 재미있는 바이오 실험실에서는 해부학과 DNA 추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고 손의 지문으로 자신의 미래직업을 점쳐볼 수 있다. 인체탐험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체의 내부기관을 연상시키는 시설 안에서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체험관이다. 소화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체의 내부기관을 표현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관은 국내외 300개 기업들이 참가해 서로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경쟁의 자리다. 행사 기간 세계적인 석학과 노벨상 수상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는 7차례 개최된다. 문화축제는 2014한국산양삼축제, 제12회 국제바이오의과학 실험경연대회, 전국고교생바이오경진대회, 제23회 오송국제미용건강올림픽 등이 열린다. 바이오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383억원, 부가가치 1088억원, 고용창출 4178명에 달한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차영(53)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바이오엑스포는 바이오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한 미래로 가는 비밀을 확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12년 만에 오송에서 다시 열리는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충북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6.txt

제목: [최의헌의 성서 청진기] 환절기  
날짜: 2014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7134806001  
본문: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우리를 반기는 건 감기다. 감기는 우리에게 “가을 맞으러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다. 계절적으로는 가을, 겨울에 우울증 발병이 높다. 해가 덜 드는 나라에서 우울증이 높은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우리 몸에서 낙엽이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 몸도 나무와 비슷한 채비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중간 상태는 이전의 균형과 이후의 균형 상태에 비해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나 보다. “<span class='quot0'>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span>”(딤후 4:21) 이 구절을 포함한 주변 성경 본문을 두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 내가 보았던 제목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가을 편지’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을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 운치 있지 않은가?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가을의 정취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마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입장을 느끼게 된다. 바울만 해도 가을 편지의 심정이 어떠한가? 디모데에게 다급히 어서 오라고 한다. 그의 편지에는 자기를 떠난 사람들과 남아 있는 사람, 해를 입힌 사람, 그리운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다. 바울의 험난한 심정을 고려하면 그의 가을은 운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환절기인 가을 초입은 이중적이다. 애잔한 그리움만 아니라 잊혀진 아픔의 기억을 되돌려 놓는다. 가슴 따뜻한 홀로 있음만 아니라 가슴 시린 외로움도 안겨준다. 어쩌면 가을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두 큰 인생의 흐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떠밀리는 심사를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생은 많은 것을 반복한다. 심리학자 레빈슨은 중년의 시기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생이 상승 곡선에서 하강 곡선으로 방향전환을 이루는 시기임을 상징하는, 다소 부정적인 특성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아직 중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가을을 경험하며 자기 미래의 중년의 위기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중년 이상인 사람들은 무수하게 가을을 반복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가을이 올 때마다 경험하는 마음의 열병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매사 변화의 연속인 인생이지만 아주 인상적인 몇몇 변화들이 우리 기억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중 부정적인 변화라고 칭하는 변화들을 하나하나 회상해보자. 각각은 나름의 상황과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융합되어 어떤 막연한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가장 가깝고 인생의 시기로는 중년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변화는 부정적인 최종 결과물을 연상시킨다.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밤에 좀 더 무서워하는 편인데 그것은 불안의 특성과 밤의 특성이 비슷해 상승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불안의 심연을 파고들면 가장 극단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과의 대표가 바로 죽음이다. 불안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약화된 형태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근원적인 면을 고려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적당히 직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안에 놓인 사람들에게 무조건 안심시키기를 시도하기보다 불안의 보다 실질적인 원인을 고려하고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좀 더 직면하여 생각해보도록 권유한다. 지난 6월 이 코너에 처음 썼던 글이 한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암 판정 내용이었는데 지난주에 장로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너무나 일찍 떠나셔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하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 일찍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은 참 가을 같으신 분이다. 최의헌(연세로뎀정신과의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7.txt

제목: [내일을 열며-한승주] 최인호, 눈물로 얼룩진 책상  
날짜: 2014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7134817001  
본문: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소설가 고(故) 최인호(1945∼2013)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문학청년’으로 불렸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지난 25일로 1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에는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늘 유쾌하게 웃던 작가처럼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하얀 뭉게구름이 파란 하늘을 캔버스 삼아 이런저런 풍경을 수놓던 오후였지요. 열두 살 많은 띠동갑이지만 각별했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영화 ‘고래사냥’의 배창호 감독과 배우 안성기, 그를 친형처럼 따랐던 가수 김수철 등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최인호 1주기 추모전 개막식이 열렸거든요. 영인문학관은 이어령의 아내인 강인숙씨가 관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니 실물 크기의 최인호 입간판이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는 생전 작가의 육필 원고, 편지, 사진, 신문기사, ‘원고지 위에서 죽고 싶다’고 쓰인 손도장 등 그를 추억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추모객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잡은 곳은 그가 마지막까지 쓰던 서재를 재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침샘암과 불편한 동거를 하던 죽음의 문턱, 글을 쓰던 책상에는 그가 혼자 흘린 눈물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지요. 눈물은 생전의 그와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무 골무도 있었지요. 그는 5년간 암에 시달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손톱 빠진 자리에 골무를 끼고 새 소설을 썼습니다. 이어령은 최인호를 항상 웃고 쾌활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어떤 슬픔도 코웃음 쳤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 책상의 칠이 다 벗겨졌다니. 최인호라 더 가슴 아팠다”라고요. 최인호는 형식과 격식을 싫어했고 멋쩍어했지요. 그래서 이어령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span class='quot0'>인호는 늘 나와 만날 때 격식 없이 만났다</span>”면서요. 이어령은 지난해 여름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 짧은 순간, 그는 조각난 바깥세상이 한순간에 휙 지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세상과 저세상의 문턱을 넘나드는 ‘의사 죽음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후 집에만 있던 그를 바깥세상으로 불러낸 사람이 바로 작가였습니다. 최인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그가 살아서 처음으로 외출한 곳이 최인호의 영안실이었다니요! 최인호는 딸 다혜를 끔찍이 사랑했고, 그 딸이 낳은 딸(외손녀)을 무척이나 아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외손녀 정원이가 그려준, 수줍게 웃는 눈과 코와 입이 그려진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면서 병과 싸워왔지요. 그는 또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상업주의 작가라고 지탄받을 때 그는 태연하게 ‘소설가는 원래 그런 거지’라고 말했지요. 그에게는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강 관장은 회고합니다. 최근 만난 소설가 정찬주도 최인호 얘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최인호가 집에 벽시계를 걸어두고 갔는데, 지금도 시계를 볼 때마다 그가 생각난다고요. 보통 작가들은 명절은 쉬는 날로 생각하는데 최인호는 “프로가 명절이 어디 있느냐. 남들이 놀 때 오히려 써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 작가의 태도가 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는군요. “<span class='quot0'>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글만 써라</span>”고 얘기해준 것도 최인호였답니다. 그가 떠난 자리,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를 추억합니다. 최인호는 갔지만 문단은, 아니 세상은 그를 기억합니다. 아직 그를 정녕 떠나보내기엔 너무 이른 듯합니다.한승주 문화부 차장 sjha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8.txt

제목: 간호사 부족에…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운영 중단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5101008001  
본문: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간호 인력 부족으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2008년 6월 14개 병상으로 개설한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그동안 간호사 7명이 3교대로 근무했었다. 하지만 최근 간호사 2명이 퇴직해 관련법(암 환자 관리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기준(연평균 1일 입원환자 절반)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하루 입원 환자는 12명으로 최소 6명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5명뿐이다. 대구의료원은 입원 중인 기존 말기암 환자 7명을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 치료키로 했으며, 인원 충원 시 호스피스 병동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운영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의료원(498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현재 192명으로 병상 수 기준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20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낮은 임금, 근무 환경 등 때문에 지원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59.txt

제목: [100세 특집-삼성화재 ‘시니어암’] 고혈압·당뇨병 있어도 암보험 가입 OK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4134331001  
본문: 삼성화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고령자 암전용보험 ‘시니어암’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 연령은 61세부터 75세까지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10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며 만기시 재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시 최대 4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치료비가 적게 드는 5대 소액암과 일반암, 3대 특정암, 고액치료비암에 따라 보험금 규모를 다르게 설정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택 특약 가입시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특약의 암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게 장점이다. 암 사망 담보는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보험료를 면제받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0.txt

제목: [100세 특집-NH농협생명 ‘장수만세 NH실버암보험’] 고령자 전용 암보험… 61∼75세 대상 간편 심사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4134329001  
본문: NH농협생명은 그동안 가입연령 제한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자를 위한 전용 암보험 ‘장수만세 NH실버암보험’을 판매중이다.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령층 질환자나 당뇨·고혈압 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영업보험료에서 5%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고액치료비암 보장을 별도 특약없이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액치료비암 4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등의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65세 남녀 기준으로 각각 최초 가입시 5만7100원, 2만8600원이다. 농협생명의 ‘평생행복NH건강보험’은 사망과 고액질병을 보험료 인상 없이 평생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망은 물론 고액질병을 보장해주며 고액 질병 보장범위에 따라 일반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까지 보장하는 실속형과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1.txt

제목: 간암 사망 〈 자살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4100941002  
본문: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간암 사망자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42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28.5명꼴로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22.6명)보다 많은 이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배 이상 높고 자살이 많은 국가인 일본(20.9명) 폴란드(15.7명)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남성 자살률이 39.8명으로 여성(17.3명)의 배를 넘었다. 남성 자살률은 전년보다 4.2% 증가한 반면 여성 자살률은 4.2% 줄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은 올해도 전체 사인의 절반 가까이(47.4%)를 차지했다. 암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암(34명) 간암 위암(18.2명) 순이었다. 뇌혈관 질환이 50.3명, 심장 질환 50.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10년 전인 2003년(5.7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이 걸리기 쉬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26만6257명으로 전년보다 964명 줄었다. 연간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2년 한파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해 다시 사망자 수가 줄었다</span>”고 설명했다.세종=이용상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2.txt

제목: 서울 증가교회 ‘갈등 끝’ 4년 만에 아름다운 화해… 담임목사 대물림 싸고 분열됐던 성도들 손잡다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3134220001  
본문: 4년 2개월 동안 원로목사의 아들 청빙 문제를 놓고 분란에 싸여 있던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증가교회(백운주 목사)가 극적으로 화해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은 분열된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성도들은 2010년 4월부터 편을 가르고 싸웠다. 한쪽은 원로목사의 아들 청빙을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목회자 세습’이라고 반대했다. 원로목사는 은퇴하고 아들 청빙도 무산됐지만 여파는 이어졌다. 그동안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했고, 성도는 13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줄었다. 2011년 6월 백운주 목사가 청빙됐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화해의 실마리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왔다. 고민을 거듭하던 백 목사는 성경공부를 하자고 제안했다. “<span class='quot0'>지금이 공부할 때냐, 심방하고 사람들을 만나 화해시켜야지</span>”라는 주변의 지적에 백 목사는 “말씀이 역사해야 회복된다”고 설득했다. 먼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신앙의 본질’ 5주, ‘교회의 본질’ 5주 등 10주 과정으로 화요일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600여명이 수강했다. “중반쯤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온화해지고, 성경공부 마지막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케이크와 떡을 준비해 종강을 축하했어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을 감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성경공부를 한 이후에도 성도들의 이탈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백 목사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조직검사 결과 암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2주간 요양을 하고 교회로 왔는데 분위기는 또 달라져 있었다. “백 목사 잘못도 아닌데 병을 얻었다는 측은지심이 교회 내에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가 아픈 것도 은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성경공부를 체계화했다. 부목사가 지도하는 ‘신앙 베이직반’, 이 과정을 이수한 성도를 대상으로 담임목사가 지도하는 ‘제자대학’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3학기를 진행했다. 그러다 올 초 시무장로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 화해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자’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김천일 선임 장로가 임시 당회 때 시무장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른 장로들도 공동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김 장로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는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올라 괴로웠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성도 대표인 장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로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일마다 식당 봉사를 하고 주차 안내를 했다. 격주로 수양회에 모여 참회의 기도회도 열었다.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빨리 수습하지 못한 것, 교인들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문을 썼다. ‘참회의 주일’로 선포한 지난 6월 29일에는 장로 대표들이 전 교인들 앞에서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글을 낭독했다. 백 목사는 “<span class='quot1'>1·2·3부 예배 때마다 장로들이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에 성도들도 함께 울고 감사의 박수, 희망의 박수를 쳤다</span>”고 말했다. 증가교회는 지난달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회의 효과는 컸다. 김 장로는 “기대보다 많은 성도가 참석해 말씀에 은혜 받고 공동체 게임 등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목사는 “<span class='quot1'>이 수련회는 갈등 중에 있던 지난해 말 당회 때 일정을 잡았는데, 화해의 완결편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절묘하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서로 싸우면서 성전을 완공하고 고소 한번 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며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만큼 순수한 분들인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span>”고 말했다. 증가교회는 교회가 갈등을 빚을 당시, 목회자도 없이 1300여석의 예배당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성전을 신축했다.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3.txt

제목: 임신 중 암 진단 환자, 10년 새 4배 가까이 증가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2134049001  
본문: 임신 중 암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신 유지를 포기하고 암 치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임신을 유지하다 출산 후 암 치료를 받아야 할까. 최근 결혼시기가 늦춰지면서 그에 따른 고령임신의 증가로 임신 중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산부인과 최석주 교수팀이 1994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7년 4개월간 임신 후 출산 때까지 정기검진을 받은 임산부 4만7545명의 산전(産前)관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임신 중 암진단을 받은 이가 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산부 1만 명당 19.1명꼴로 암에 걸린 셈이다. 일반 여성의 암 발생빈도는 2010년 기준으로 1만 명당 29.7명꼴이다. 암 종별로는 자궁경부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6명, 소화기암 14명, 혈액암 13명, 갑상선암 11명, 두경부종양 7명, 난소암 6명, 폐암 3명, 기타 암 3명 등의 순서였다. 또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암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12명에 불과했으나 2000∼2005년엔 33명, 2006∼2012년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불과 10년 사이 임신 중 암 진단 환자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암 치료를 위해 임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23.1%에 그쳤다. 나머지 76.9%는 그대로 임신을 유지해 출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 암 치료의 결과는 암의 종류, 병기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임신 중 암 발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25명(27.5%)으로 대부분 발견 당시 이미 3, 4기 이상의 진행성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환자들이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아와 임산부 본인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암 진단 후 바로 적극적으로 암 치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신 중 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아이와 산모 모두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있으므로 암이 의심될 때는 임신 중이라도 검사를 미루지 말고 받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4.txt

제목: [미션&피플] 15년째 국내 외국인에 쪽복음 전하는 이선묵 장로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2134100001  
본문: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길 오산감리교회 앞. 노인 한 명이 외국인 남성 두 명이 지나가자 “아이보완!” 하면서 다가갔다. ‘아이보완’은 스리랑카 인사말. 외국인들은 반가움을 나타냈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책자를 보여줬다. 대한민국 지도였다. 노인은 북한 쪽을 손으로 짚었다. “<span class='quot0'>북한 가서 일하며 돈 벌어 봤어요?</span>” 하고 묻자, 스리랑카인들은 “아니요” 했다. 이번엔 남한 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온 거고요. 예수 믿읍시다.” 스리랑카인들은 웃었다. 노인은 책자를 이들 손에 한 권씩 쥐어줬다. 스리랑카어 요한복음이었다. 15년째 외국인에게 쪽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선묵(71·오산감리교회 원로) 장로다. 이 장로의 전도 현장은 교회 앞길과 자신의 일터인 금은방이다. 그가 외국인 전도에 나선 것은 시장 전도에 나섰을 때 중국인이 전도지를 달라고 한 것이 계기였다. 마침 자신의 금은방에도 외국인들이 자주 찾았다. “<span class='quot0'>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싶었어요.</span>”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교회 대표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각 나라 언어로 적은 전도지를 제작하는 거였다. 처음엔 지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 구절을 보여주며 번역을 부탁했다.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언어 등이었으나 오역이 많았다. 몇 번의 수정을 거듭했고 나중엔 요한복음 전체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해 국가별 성경책을 모았다. “기독교서점이나 대한성서공회에 수소문해 외국어 성경을 구했어요. 인도의 경우는 방언이 많아 선교사에게 연락해 표준어 성경을 찾아 달라 했지요.” 이 장로는 이렇게 구한 성경에서 요한복음만 따로 복사·인쇄해 책자를 만들었다. 모두 16개국어였다. 책자 표지엔 파랑 주황 노랑 분홍 등 색깔을 입혔다. 그동안 4200명에게 전달했고 베트남어의 경우 1100권을 배포했다. 16개국은 이 장로가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들의 출신 국가였다. 그는 이제 외국인 얼굴만 봐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감이 잡힌다 했다. 나라별 인사말을 익히기 위해 카드 크기 메모지에 국적별로 인사말을 적어 암기했다. 베트남 태국 네팔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등 9개국이다.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준 메모지엔 손때가 묻어 있었다. 전도의 열매가 궁금했다. 이 장로는 “그게 아쉽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라며 “한 번 만나면 다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쪽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8년 만난 네팔인 부부는 거의 유일한 열매다. 쪽복음을 받은 이후 몇 차례 이 장로를 만났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왔다. 간혹 자국어 성경을 보고 감격하는 경우도 있다. 몽골 출신 외국인은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쪽복음 전달은 겨울에도 이어진다. 이 장로는 4년 전부터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장갑을 선물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겨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는데 이 장로의 책자를 받으면 맨손으로 들고 가야 했다. 안타까움에 장갑을 벗어줬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 아예 장갑을 대량으로 구해 쪽복음과 함께 선물했다. 전도에 열심인 그는 2007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전도했다. 짧은 간증과 건강요법을 담은 전도지를 제작해 병실마다 다녔다. 2011년에는 방광암 수술을 받으면서 전도했다. 환자가 병실에 있지 않아 의사들이 이 장로를 찾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그는 “암 수술 받고 나은 것은 전도하라는 뜻”이라며 “힘주시니 전도한다. 귀찮은 거 생각하면 못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7000명이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 깊은 얘기를 못해 아쉬워요. 그래도 선교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번뿐인 전도 기회, 힘닿는 데까지 해보렵니다.” 오산=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5.txt

제목: 남성 ‘전립선 질환’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2134052001  
본문: 대한전립선학회(회장 유탁근·을지의대 교수)는 올해의 전립선주간(22∼26일)을 맞아 전국 17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사진)도 보급하는 전립선 바로알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립선질환 중 가장 흔한 전립선비대증은 노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남성 질환이며, 전립선암은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남성 암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이른바 전립선 바로알기 앱은 이를 개선, 고령의 남성들이 전립선질환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 전립선 관련 질환에 대한 설명과 각종 치료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과 만성전립선염 자가진단법, 전립선특이항원 검사결과 기록 및 저장 등 앱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자신의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전립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탑재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충북대병원 윤석중 교수는 “<span class='quot0'>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립선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6.txt

제목: [김종환의 칼럼] 자가 치유의 에너지  
날짜: 2014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20134003001  
본문: “<span class='quot0'>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만 주는 것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나요?</span>” 상담학과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평소 학생들은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상담학은 진실성과 무조건적인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가 치료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가르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노이로제 거식증 실어증 말더듬이 부정망상처럼 심각해 보이는 문제들도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나면 생각보다 쉽게 치료되는 사례가 많다. 카운슬러는 잘 들어만 주었을 뿐이며, 내담자의 마음과 몸에 내재된 ‘자가 치유(spontaneous healing)’ 에너지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자가 치유’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의학계의 바이블로 통하는 ‘미국의학협회저널’이나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충분히 보고되고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 브루스 모슬리의 무릎수술 비교실험이 유명한 사례다. 무릎환자의 한 집단은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집단은 정교하게 고안된 가짜 수술을 받았다. 가짜수술을 받은 집단은 진짜수술과 동일하게 무릎의 세 부위를 절개하고, 타인의 수술 장면을 자신의 수술처럼 비디오로 보여주었다. 세척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흉내 내고 물을 튀기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릎을 봉합했다. 예상대로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의 3분의 1이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 집단에서도 동일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이 환자들은 수술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나은 것이다. 다시 말해 오로지 마음의 작용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체 증상이 치료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암이 감쪽같이 사라진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의사는 뒤늦게 방사선 기계가 고장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은 방사선을 한 줄기도 쏘이지 않았는데, 이 환자는 방사선을 쏘였다고 믿었고 실제로 병이 나았던 것이다. 또 심장 수술을 거부한 심장마비 환자가 식단을 바꾸고 운동과 명상, 집단상담에 참석하면서 불치 진단을 받았던 막힌 관상동맥이 뚫렸다. 뿐 아니라 약효가 미미하다고 평가된 EPOH라는 약으로 뛰어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던 한 암 전문의사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이 의사는 환자들에게 약 이름을 EPOH 대신에 HOPE로 바꿔서 처방했다는 것이다. 같은 약인데 EPOH가 HOPE가 되니 약효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 ‘자가 치유’보다도 카운슬링을 통한 마음의 ‘자가 치유’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마음에는 카타르시스 현상이 있어 몸보다 ‘자가 치유’가 빠르게 나타나는 법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한 법이다. 그래서 성경은 “<span class='quot1'>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span>”(잠 17:22)고 하였다. 크메르 루주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던 캄보디아 여성들 중에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2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여성들은 검사 결과 눈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span class='quot2'>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span>”고 탄식했다. 마음의 비통함이 시력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 반응’과 ‘이완 반응’이라는 두 가지 기제 속에서 병들기도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한다. ‘스트레스 반응’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코르티솔 수치를 악화시켜 심신을 병들게 하며,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게 하면서 대신 부교감신경이 작동해 자가 치유가 나타난다. ‘이완 반응’이 나타나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잠을 푹 자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span class='quot0'>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span>”(요 14:27) “<span class='quot0'>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span>”(시 127:2)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명예교수◇약력=미국 카우만신학대학원(D.D), 풀러신학대학원, 호주연합신학대학원 교환교수.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감독회원, ㈔한국가족치료연구소 이사장 역임, 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명예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7.txt

제목: 서울우유-서울대 공동, ‘반짝반짝’ 형광 소… 세계 첫 형질전환 소 생산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8133829001  
본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재조합 단백질을 활용해 ‘형질전환 형광소’ 생산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트랜스포존(transposon) 방법을 이용한 것도 세계 처음이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 장건종 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형광소의 생산은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내년 2월쯤에는 항암치료에 쓰이는 인터루킨 등 유용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형질전환 소가 태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장구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에 생산된 형광소는 두 가지 유전자를 삽입해 각각의 특질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처음의 특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의미가 크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형광소는 녹색 빛을 내는 ‘녹색형광단백질’을 갖고 있어 불을 끈 채 자외선을 쏘이면 털이 없는 주둥이, 발굽 등은 녹색으로 보인다. 재조합단백질을 주입하면 적색으로 다시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형질전환 소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를 이용해 외래 유전자를 소의 정자, 난자, 수정란 등에 넣었다. 이는 암 유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본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끼어들어가면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트랜스포존을 활용했다. 이번 형광소는 트랜스포존을 직접 미세 주입한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생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8.txt

제목: [건강나침반] 암·만성질환 예방 첫걸음은 ‘자연치아 살리기’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403002  
본문: 잇몸질환이 당뇨,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류머티스, 간 질환, 각종 암 등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주장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중 포르피로 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균은 세포 내로 감염되면 숨어 있는 병원균으로 작용한다. 감염 후 P.진지발리스균은 육안으로는 마치 멀쩡한 것처럼 보여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 감염여부는 상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P.진지발리스균의 감염과 관련된 암 발생은 세포주기와 관련된 사이클린 조절 과정, 예정세포사멸과정(Apoptosis), AKT경로, 표면성장인자(EGF)경로, P53경로, 바탕질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생성, Bcl-2 신호경로, JAK/STAT신호경로, PI3K 등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암 발생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와 분화된 세포들은 병원성 세균이 침입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세포 자체가 터져 정상세포로 대체돼 암 발생을 억제한다. 이는 괴사(Necrosis)나 세포자살(Apoptosis)과 같은 세포사멸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P.진지발리스균은 세포자살과정을 방해한다. 오히려 세포 안에서 살면서 세포의 수명을 늘려 자신의 삶도 늘린다. 잇몸의 각화상피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생제도 효과가 없다. 또 세포 내 미세소관(microtubule)을 통해 감염 세포를 늘려 간다. 또 각종 암 발생 과정에 참여해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폐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의 발생과 전이를 일으킨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세균이 어떻게 우리 입안에 존재하고 몸 안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우리 구강 소화관은 점막으로 이뤄져 있고 점막의 시작인 구강으로 세균이 들어와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점막에 상처가 있을 때와 일부 세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균들은 우리 몸 안(점막 안쪽)으로 들어 올 수가 없다. 하지만 치아는 구강점막을 뚫고 들어가 있다. 잇몸질환 환자의 경우 치아를 이용해 세균이 우리 점막 내부로 이동한다. 잇몸 질환의 염증과 신경 치료된 치아의 염증 그리고 조립형 치과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은 공통점이 있다. 입안에서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낮은 상태의 만성 염증 상태인 점과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혐기성 그람 음성 세균이 발견 된다는 점이다. 신경 치료가 된 치아를 빼서 세균을 검사해 보면 P.진지발리스를 비롯한 다양한 병원성 세균이 대량 존재한다. 실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비교한 결과 구강 전체의 세균 수보다 신경 치료된 앞니 하나의 혐기성 세균의 수가 더 많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 부 공간에 혐기성 세균이 존재하는 조립방식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으로 세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감염원으로 작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연치아를 살려야 한다. 신경 치료를 통해서 ‘자연치아를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오히려 신경 치료는 자연 치아에 구멍을 내서 자연치아의 구조를 약하게 하고 면역계를 파괴, 외부 세균에 대한 방어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자연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입안의 위생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고,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또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잇몸상피세포의 세균 감염을 꼭 점검하고 미리미리 감염을 제거해 전신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6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연구중심 진료시스템 구축… 새 치료법 임상에 신속 적용”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04001  
본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암은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암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은 예방, 연구, 진료 활동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암정복프로젝트’에서는 암의 예방과 연구, 진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을 만나 국민들의 암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담을 통해 국민들이 암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루’로서 국립암센터의 향후 전략과 계획을 소개한다.한 포털사이트에서 ‘암이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국립암센터를 가보세요’라는 간단한 답변이 달렸다. 환자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 지인이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병원, 이것이 국립암센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최근 2∼3년 사이 대형병원마다 암센터가 들어섰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첨단장비가 들어 차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호텔만큼 고급스럽다. 최근에 들어선 암센터의 모습은 하나같이 병원 같지 않은 병원을 지향한다. 그런데 국립암센터는 이와 조금 다른 모습이다. 압도당할 만큼의 규모도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도 지극히 ‘병원’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병원이란 사실에는 변함없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암 진단 시 치료를 희망하는 병원으로 국립암센터가 1위에 뽑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암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암 예방과 치료, 영양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크게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연구소 △부속병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 국가암관리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는 연간 86만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한다. 국민들은 최고의 암전문의와 암전문간호사, 영양팀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곳에서 암 진단부터 치료, 회복 과정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한다. 최근 국립암센터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강현 원장(제6대 원장)은 본지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원만의 숨은 노력과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pan>”고 말했다. -국립암센터가 설립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 1월 정부의 ‘국립암센터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와 진료를 주 기능으로 하는 부속병원 그리고 국가 암 관리 사업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유일의 기구죠. 연구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고, 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치료법이 임상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진료업무 연계체제는 다른 대형병원들과 구별되는 차별점입니다. 최근 여러 병원이 실시하고 있는 다학제적 통합진료는 국립암센터에서 처음 선보였던 것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많아지자 다른 병원들이 잇따라 통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암 예방과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주요 연구 분야로는 항암 표적 발굴을 위한 암 발생기전 연구, 첨단 암 진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 신기술 실용화 지원체계 구축, 암 발생의 유전 및 환경 인자 발굴, 암 위험요인 관리·중재 연구 등입니다. 특히 최근 근거 중심의 암 연구에서 개인 맞춤 치료 연구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유전체 연구, 맞춤 검진과 개인의 암위험도 연구 등 유전자적 특성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기술 개발과 보급 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요. “암에 대한 신기술이나 표준 진료 지침이 만들어지면 연구 논문이나 워크숍, 암정복포럼 등의 행사 혹은 보도자료, 홍보 등을 통해 적극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분야에서 새로 제시되는 내용은 암정복포럼을 통해 격월로 신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 발표된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은 간세포암종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가 42명이 참여했고 2009년 개정 이후 5년 동안 더욱 발전한 진단 기술과 치료법 등의 517편 논문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암 치료를 위한 국내외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국내 다수의 병원 및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기관으로는 일본 및 중국 국립암센터와 아시아국립암센터연맹,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암연구소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2위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2위인 위암의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 치료 및 검진 전략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향후 위암 연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수준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암정복 연구를 진행하시던데요. “내부적으로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TFT를 구성했는데 이 TFT를 중심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의 암 연구개발 정책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R&D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암 예방에서 검진, 치료, 생존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국가단위의 빅데이터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암 종합정보 DB’를 기반으로 ‘암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과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검증’, ‘암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외환자 특히 전립선암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교포분들에게 암예방 건강검진 또한 적극 추천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국립암센터가 국민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암센터, 해외에 계신 교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암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개의 단위 조직이 각 역할을 통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세계 최고의 암센터라는 비전도 그런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0.txt

제목: [암과의 동행] 42도 ‘고주파 열’ 쏘아 암세포만 골라 정밀 타격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8001  
본문: 최근 제4의 항암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치료’. 온열암치료는 암 치료의 기본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온열암치료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다양한 암종과 암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열치료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해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원리로, 암세포가 일반세포보다 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세포 주변 온도를 42도가량으로 높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온열암치료가 적용되는 암종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임 등 범위가 넓다. 또 최신 고주파 온열암치료시스템의 첨단 핵심기능을 활용해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회장 정태식·고신대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지난 2010년 6월 설립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온열암치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의 의료진 5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관계자는 “항암제를 투여 받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물론이고 암이 재발됐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곤란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기존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때보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장비(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한다. 하스피는 이처럼 최근 주목을 받는 고주파온열암치료기기의 선두주자로 암치료시스템 특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스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주파온열암치료는 암치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는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유성선병원, 제주중앙병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 성하청 하스피 대표는 “<span class='quot1'>방사선 요법이나 화학요법과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1'>CT나 MRI와 같은 영상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 기능으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자연사 또는 괴사시켜 효율적인 치료도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환자는 육식·채식 가릴 것 없이 잘 먹어야 한다”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0001  
본문: 1년 전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60대 박명수(가명)씨는 8개월 전부터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도 늘렸다고 한다. 하지만 검진 결과 박씨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항암치료를 견뎌낼 체력이 바닥난 것. 더욱이 몸에 좋다고 먹은 비타민C가 항암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료진으로부터 알게 된 뒤 박씨는 이마저도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다. 대다수의 암환자들은 암의 호전을 위해 식단을 조절한다. 하지만 박씨처럼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식습관을 고친다며 잘못된 식이요법을 택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비타민 등 건강식품을 맹신하고 과량으로 복용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병용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시키므로 적당량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가 비타민C 등을 과량으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나 E, A 등은 항암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의 한 학회지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보통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비타민 C나 E 등의 과량복용이 치료효과를 더디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것을 복용할 때는 의사와 복용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상의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암 치료 과정 중에 환자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항암치료를 견디기 위해 육식, 채식 가릴 것 없이 되도록 잘 먹어야 한다. 특히 그는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span class='quot0'>생선이나, 저지방 치즈, 콩류, 육류 등 좋은 단백질원은 우리의 면역기능을 유지시켜 주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span>”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을 섭취할 때는 불포화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해야 한다. 또한 탄수화물은 가공된 밀가루보다는 곡류나 통밀이 좋다고 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은 미네랄 등이 적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심 교수의 설명처럼 암환자는 무조건 잘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항암제와 암세포 독성으로 힘들어하는 암환자는 메스꺼움, 속쓰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음식 섭취가 쉽지 않다. 실제 미국에서 나온 한 보고에 따르면 암환자의 63%가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는데 그중 소화와 관련이 깊은 위암과 췌장암 환자의 경우 무려 83%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20% 이상은 사망 원인이 영양 부족일 정도다. 하지만 암환자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에 따라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암환자가 식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개선제도 있다. 심 교수는 “암 환자가 잘 먹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잘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과 에너지를 유지하게 된다”며 “결국 잘 먹어야 암치료에 의한 부작용도 줄고 병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2.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립암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 인력·시설로 ‘국민 암정복 작전’ 최전선에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10001  
본문: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암 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암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암 관리 정책 개발, 국내 암 연구 진흥, 국내 암 전문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암 예방과 연구,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암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 인력과 최첨단 연구·진료 장비·시설로 신개념의 연구, 최상의 진료, 세계적 암 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 국가암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 연구소의 경우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항암표적 발굴을 위한 암 발생 기전 연구 △첨단 의료 기술 및 기기 개발 △신기술 실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속병원과 연구소가 함께하는 국립암센터의 특성 및 장점을 살려 의료진과 연구진이 서로 협력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실용화가 가능한 협동 연구와 신약·신의료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은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기 위해 신축병동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병원경영을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혁신과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 기능 내실화와 함께 기존의 △환자중심 진료시스템 △최첨단 인프라 구축 △삶의 질 중심의 암 진료 △프로토콜 기반의 임상진료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암 임상연구의 중심화 △우수 암 전문 인력 영입 및 양성 △국제 수준의 암 전문 교육 △세계 수준 의료인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암관리사업 분야는 국가암관리 사업의 총괄적 기획, 지원, 평가, 사업수행, 교육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와의 교감을 강화하며, 미래 지향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상 7층 지하 4층 규모의 연구소에서는 종양은행, 동물실험실, Imaging Core Lab, Genomics Core Lab 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암 연구자들이 암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내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정부에서 국내 학·연·산·의료계 소속 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항암 표적 발굴을 위한 암 발생기전 연구, 첨단 암 진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과 신기술 실용화 지원체계 구축, 암 발생의 유전 및 환경 인자 발굴, 암 위험요인 관리·중재 연구 등이다. 특히, 요즘 암 연구 트렌드는 근거 중심의 연구에서 개인 맞춤 치료 연구로 바뀌고 있다. 유전체 연구, 맞춤 검진과 개인의 암 위험도 연구 등 유전자적 특성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와 국제암연구소는 임상연구를 통한 위암의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3월 국립암센터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립암센터 기관장 미래 도약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헬리코박터 치료에 관한 다기관 임상 연구를 실시한다. 국립암센터 측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2위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2위인 위암의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치료 및 검진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암 연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 수준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암유전체 지도구축사업(TCGA:The Cancer Genome Atlas) 참여를 포함한 중개 연구 분야 협업, 인력 및 학술 분야 교류, 연구 자원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위암의 전장유전체 분석연구를 통해 위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쁜 미만성 위암과 관련된 유전체 변형 및 융합유전자를 발견했다. 국립암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인의 전장유전체 데이터와 엑솜 분석 데이터 및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해 암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관련 반론 보도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00424001  
본문: 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 건강면 “현직 치과의,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이 암유발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규명된 바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조선대 한박사의 논문은 환자 혀 주위나 임플란트 주위열구보다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는 세균분포가 적었다는 것이 요지이며, 미쇼드 박사의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암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흡연인자에 따른 치주질환과 치아상실의 암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4.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세포를 잠재워라” 자연 속에서 치료·요양을 동시에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32001  
본문: 각종 공해와 유해물질이 가득한 도심속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대형병원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천연 자연이 주는 회복력과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피톤치드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도심속 공해가 차단된 풍부한 피톤치드와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연속 요양병원을 찾아 들어가면 휴식은 얻겠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여 암 치료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병원이 있다. 가평에 자리잡고 있는 큐오엘 가평산속암요양병원은 전이 재발암 특화 치료와 도심속 공해에서 차단된 입지조건으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다양한 암환자들이 치료 경험을 공유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순관(사진) 가평산속암요양병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암 치료에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자연이 주는 치유력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암 치료를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평산속암요양병원은 최적의 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 양방 협진 치료를 도입하고 유해물질과 차단된 산속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식 치료를 제공한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전이 재발암 특화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처럼 암을 휴면상태로 만들어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병원의 치료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 목표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권순관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휴면암이란 암이 잠자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몇 달간 암이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처럼 암 세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길면 길수록 여명이 계속 증가해 전이는 물론 재발을 막아 제2의 암발병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span>”고 말했다. 전이 재발암 치료를 위한 권순관 대표원장의 끊임없는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가평산속암요양병원에서는 10년간의 암환자 전문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암다나, 씨앤씨 등의 한방단독치료와 양방 병행치료에서의 면역증대와 암치료 부작용 감소를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산속암요양병원에서는 암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히기 위한 병행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부작용 완화 개선을 위한 병행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증상치료, 암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온열, 광선, 약침, 심리치료, 생활 개선) 치료가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대체의학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 치료기까지 도입해 휴면암으로의 치료는 물론 암의 축소와 사멸을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권순관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이처럼 환자에게 최적의 휴양 환경과 전문적인 양방과 한방의 병행치료, 보완대체의학인 고주파온열암치료까지 모두 한번에 시행하는 가평산속암요양병원에서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세포를 잠재워라” 자연 속에서 치료·요양을 동시에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48001  
본문: 각종 공해와 유해물질이 가득한 도심속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대형병원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천연 자연이 주는 회복력과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피톤치드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도심속 공해가 차단된 풍부한 피톤치드와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연속 요양병원을 찾아 들어가면 휴식은 얻겠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여 암 치료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병원이 있다. 가평에 자리잡고 있는 큐오엘 가평산속암요양병원은 전이 재발암 특화 치료와 도심속 공해에서 차단된 입지조건으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다양한 암환자들이 치료 경험을 공유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순관(사진) 가평산속암요양병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암 치료에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자연이 주는 치유력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암 치료를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평산속암요양병원은 최적의 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 양방 협진 치료를 도입하고 유해물질과 차단된 산속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식 치료를 제공한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전이 재발암 특화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처럼 암을 휴면상태로 만들어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병원의 치료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 목표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권순관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휴면암이란 암이 잠자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몇 달간 암이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처럼 암 세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길면 길수록 여명이 계속 증가해 전이는 물론 재발을 막아 제2의 암발병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span>”고 말했다. 전이 재발암 치료를 위한 권순관 대표원장의 끊임없는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가평산속암요양병원에서는 10년간의 암환자 전문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암다나, 씨앤씨 등의 한방단독치료와 양방 병행치료에서의 면역증대와 암치료 부작용 감소를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산속암요양병원에서는 암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히기 위한 병행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부작용 완화 개선을 위한 병행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증상치료, 암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온열, 광선, 약침, 심리치료, 생활 개선) 치료가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대체의학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 치료기까지 도입해 휴면암으로의 치료는 물론 암의 축소와 사멸을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권순관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이처럼 환자에게 최적의 휴양 환경과 전문적인 양방과 한방의 병행치료, 보완대체의학인 고주파온열암치료까지 모두 한번에 시행하는 가평산속암요양병원에서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6.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유방암 치료제 아피니토·허셉틴] 암세포 성장 억제… 부작용 최소화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400001  
본문: 유방암은 유럽과 미국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급증해 여성암 중 발생률 1위의 암으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 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1년 7000여명에서 2011년 1만50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유방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잘되는 암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 환자는 외과적 수술 외에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치료를 한다. 항암화학요법은 약물을 사용해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전신치료다.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세포의 분열증식에 관계되는 DNA, 효소 등에 작용해 성장이나 증식을 멈추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인다. 우리 몸의 일반 세포들은 자라면서 성장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파괴되는 ‘세포주기’를 갖는다. 하지만 암세포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일종의 돌연변이 현상을 갖는 특징이 있다. 항암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런 빠른 증식을 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돼 있다. 유방암의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보조적인 치료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화학요법을 해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한다. 유방암이 전이가 됐을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 탁산계 약물, 알킬화제 약물 등이 있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항암화학요법은 정상세포까지 죽여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호르몬 치료는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항암화학요법과 호르몬치료제 외에도 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됐다.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기존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제다. 바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와 ‘허셉틴(성분명 트라스주맙)’ 등이 대표적인 약제다. 로슈에서 개발한 허셉틴은 ‘HER2’라는 암유전자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HER2 과발현을 보이는 유방암인 경우 표적 치료제인 허셉틴 치료를 하게 된다. 표적 치료는 정상세포에 대한 영향이 적고 부작용 및 독성 누적이 적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조기 유방암에 적용된다. 노바티스의 아피니토는 폐경 후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의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엑스메스탄과 병용 투여하도록 승인 받은 약물이다. 아피니토는 주로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mTOR 경로를 표적해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GSK의 항암제 ‘타이커브(성분명 라파티닙)’는 HER2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허셉틴과는 달리 HER1과 HER2 모두를 저해해 종양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의 치료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투여한다. 에자이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 메실산염)’은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약물이다. 송병주 서울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유방암 환자는 수술 이후 최소 5년 이상 약물을 복용한다. 평생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인 만큼, 꾸준한 복약 순응도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생기는 원인·치료법 다 몸안에 있다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28001  
본문: “<span class='quot0'>통합 암치료를 위해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암환자 전담 의료진이 맞춤형 진료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 지난 10여년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암전문연구원을 거쳐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인 임창락(사진) 큐어람한의원 대표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암 전문연구경험을 통해 얻은 암 발생과 치료 기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에 나선다. 환자에게 필요한 양방과 한방 치료를 적극 도입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서비스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암치료 선진국의 실질적인 통합 암치료를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큐어람한의원 치료의 핵심은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체내환경을 조성하는 통합 암치료이다. 임 원장 “체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요소들을 큐어람한의원 자체의 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자 개개인의 체내 환경을 자체검사를 통해 파악해 암을 치료함과 동시에 암이 살 수 없는 체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큐어람한의원은 세계적인 암치료 흐름을 의료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검증된 치료법을 도입해 암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MD앤더슨암센터, 메모리얼슬론 캐터링암센터 등 세계적인 암센터가 시행하는 통합 암치료의 최근 성과들을 국내 암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양방과 한방의 구분 없이 필요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치료 방법들을 제시한다. 임 원장은 “이미 미국에서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 통합 암센터가 시행하는 치료법을 도입했다. 질병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황을 파악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의 기본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화·과학화된 진단과 치료법을 암환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큐어람한의원은 ‘체내환경개선기, 치료(수술·항암·방사선)전 준비기, 수술 후 집중치료기, 항암·방사선 치료 중 집중치료기, 항암·방사선 치료 후 집중치료기, 전이·재발 방지 유지치료기, 단독치료기’ 등의 7단계 치료전략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항암치료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며 항암·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천연추출물의 큐어람 면역약제를 사용한다. 임 원장은 “<span class='quot1'>큐어람 면역약제는 체내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각각의 항목을 정상범위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항목을 조화롭게 조절해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큐어람 면역약제는 항암효과와 면역력 상승의 효과가 있는 한약재 천연추출물을 새로운 가공법을 도입해 제조한 것으로, 유해성분을 배제시키고 유효성분의 함량을 높여 치료효과를 높였다. 이와 함께 큐어람한의원은 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 통합 암치료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전침항암요법’을 도입했다. 유방암이나 피부암 등 표재성 암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는 전침항암요법은 기존의 항암·방사선치료와 병행하며, 암세포에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큐어람한의원의 또 다른 치료서비스로 뇌종양치료를 위한 ‘비강내 주입법(비훈)’과 2단계 투약으로 자궁경부에 천연추출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자궁경부세정법’, 통합식이치료를 기반으로 암환자들에게 맞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디톡스프로그램’ 등이 있다.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비급여 암환자 교육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1001  
본문: 병원마다 암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은 공개강좌 형식에 무료로 진행되지만 일부 전문교육은 유료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병원마다 가격과 내용이 다른데, 환자들은 대개 의료진의 권유를 받고 신청을 하지만 다른 병원과 가격 차이가 클 경우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렇다면 교육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위 빅5 병원의 암환자 교육 가격만 비교했을 때 1회 비용은 세브란스병원이 평균 6만1250원(최저 4만9500원, 최고 7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성모병원이 5만1000원, 삼성서울병원 평균 4만원(최저 2만5000원, 최고 5만5000원), 서울아산병원 평균 3만9000원(최저 2만8000원, 최고 5만원) 서울대병원 3만원 순이었다. 소아암환자 교육의 경우는 최저와 최고 가격의 편차가 컸는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만원인데 반해 서울아산병원은 7만원, 서울성모병원 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계열의 병원에서도 가격 편차가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암환자 교육이 3만원(다회 3∼7만원)이었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최저 2만원(최고 3만1500원), 보라매병원 최저 2만900원(최고 4만9800원)으로 최대 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가톨릭의료원 산하병원 역시 서울성모병원이 5만1000원인 데 반해 성바오로병원 4만7000원, 여의도성모병원 4만3000원, 인천성모병원 3만원으로 최대 2만1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병원마다 교육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차이를 문제로 지적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암환자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암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첫 항암치료 전에 영양교육을 받으라고 하기에 필수인 줄 알고 3만원인가를 결제까지 했다가 취소했다” “당연한 옵션인 줄 알고 5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별 내용은 없었고 딱히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말도 없어 괜히 받았나 싶었다”며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암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외 비급여 교육은 해당 진료과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필요 시 신청해 진료 후 교육처방이 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며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옥소치료) 치료 집단교육의 경우 갑상선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처음 처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내분비내과 치료를 받기 2∼4주 전이나 그 전에 교육일정 예약이 가능하다. 교육은 갑상선센터 코디네이터(간호사)와 영양사가 진행하며 주로 3∼4명의 소그룹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암 관련 무료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어 필요한 강좌를 들으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79.txt

제목: [암 희망일기] 유방에 멍울 잡히면 지체 말고 검진을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406001  
본문: 현재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은 비만, 모유 수유의 감소, 식습관의 서구화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연령대의 유방암 발생이 많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는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전신으로 전이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2세 환자로 2개월 전부터 우측 유방에 혹이 만져져 내원했다. 유방초음파 및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확진됐고 2000년 1월에 좌측 유방 전절제술 및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받았다. 최종 조직 검사 결과 암 크기는 3cm이었고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암의 전이는 5개 발견돼 3기 유방암으로 진단됐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재발 및 전이가 잦아 예후가 비교적 나쁜 편인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후 6개월간 보조적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시행 후 현재까지 15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 2009년 유방암 진단 당시 44세 환자로 내원 3주 전부터 만져지는 유방종괴가 있었으며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내원했다. 검사 결과 3cm 이상의 유방종괴 및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소견을 보여 3기 유방암으로 진단됐다. 이에 수술 전 항암요법을 3차례 시행 후 수술을 시행했고 조직검사 상 3cm이었던 유방암은 1.6cm로 줄었으며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됐던 암은 항암치료에 잘 반응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유방보존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동일한 항암요법을 3회 더 시행했다. 수술 전 3기 유방암이었으나 올해 8월 검사 시 재발 및 전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신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으로 2001년 갑상선암으로 진단돼 본원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사하던 중, 5년 뒤 44세의 나이로 우측 유방암이 진단됐다. 2006년 5월에 우측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조직검사상 암의 크기는 2.2cm이며 겨드랑이 림프절의 암전이가 발견되지 않아 2기 유방암으로 확진됐다. 수술 후 6개월간 보조적 항암치료 및 경구 항암제, 경구 호르몬제 치료를 끝냈으며 올해 8월까지 갑상선암과 유방암 모두 재발 및 전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진단 당시 3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분이었다. 한 달 전부터 우측 가슴에 혹이 만져져 내원했다.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이 확진됐고 2002년 9월에 좌측 유방 전절제술 및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받았다. 조직 검사 결과 암 크기는 2.2cm이었고 림프절 전이는 4개로 확인됐으며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삼중 음성 3기 유방암으로 최종 진단됐다. 수술 후 6개월간 보조적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행, 현재까지 재발의 증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 유방암은 초기단계에서는 대체로 증상이 없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피 섞인 분비물, 피부 및 유두의 변화, 림프절 전이로 겨드랑이나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질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유방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방암 확진 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좋은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방암의 치료과정은 힘들지만 “나는 완치가 가능한, 흔치않은 병에 걸린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우철 원자력병원 유방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0.txt

제목: [건강나침반] 환절기 암 환자 독감 접종 치료 시작했다면 4개월 후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36001  
본문: 빠른 추석과 끝나가는 여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져서 환절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철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 즉 일교차가 커지고 많이 건조해지는 시기이다. 이런 환절기 동안에 우리 신체는 외부기온의 변화와 낮은 습도에 적응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외부기온의 변화가 너무 크고 습도가 낮으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암환자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 자체와 수술,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담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해 면역력, 체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럴 때 우리 신체에 부담을 주는 환절기라는 외부 환경이 더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감기, 독감,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이다. 호흡기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환절기 기간에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아지면 호흡기의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외출시 일교차를 고려해 옷을 입으며 자주 물을 마셔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이나 물건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접촉되거나 같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자주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도록 하고, 피곤할 경우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한다. 독감이나 폐렴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의 경우에는 매년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0월까지, 늦어도 11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 다만 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는 바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나, 암치료가 시작된 경우에는 치료 4개월 이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면역성을 얻기 위해 1회의 추가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코 속에 분무하는 형태의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생백신이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폐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한 한 진단 후 바로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 항암제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치료를 시작하기 3주 이전에 시행하거나 혹은 치료 3개월 이후에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환절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음주는 남자는 하루 3잔 이하, 여자는 2잔 이하로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한다. 아침 식사를 포함해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제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을 피하며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은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씩 시행하는 것이 좋다. 매일 7∼8시간씩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최재경 건국대병원 '암치료 후 건강관리클리닉'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1.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절제 환자 20% 잔여 암 발견” 정은주 건국대병원 교수 대장암 국제심포지엄서 발표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40001  
본문: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돼, 용종을 떼어낸 후 단면에서 암세포의 유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장절제술을 적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6회 ‘2014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 국제심포지엄’에서 정은주(사진)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교수는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 후 근치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용종절제술 후 암세포가 발견돼 추가적으로 대장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50명을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수술을 결정한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용종을 떼어낸 단면에 암세포의 유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23명(46%)으로 가장 많았고, 용종을 떼어낸 단면에서 암세포가 보이는 경우가 14명(28%) 그리고 7명(14%)의 환자는 암이 점막하층에 깊이 침투해 근본 수술을 받은 경우였다고 발표했다. 또 전체 50명의 환자 중 대장절제수술 후에 대장에 암이 남아 있었던 경우는 18%인 9명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11∼15% 보고된 것과 비교해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이 중 절반인 5명은 림프절 전이가 확인돼 3기로 진단, 보조적 항암치료를 시행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의 결과 용종절제술 후 대장암이 진단돼 대장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약 5명 중 1명꼴로 잔여 암이 발견됐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림프절 전이를 보인 3기암에 해당됐다. 또 용종의 절제 단면에서 암 세포의 존재 유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던 환자 6명(26%)에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돼 이런 경우 추가적인 대장절제수술을 고려하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암 표적치료제 베바시주맙의 효과’에 대한 같은 센터 유춘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이된 대장암으로 약물치료를 했던 234명을 대상으로 표적치료제 중 하나인 혈관형성억제제인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중 아바스틴과 대장암 항암요법인 폴폭스나 폴피리 중에서 하나를 같이 사용한 64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234명 중 나머지 170명은 항암요업인 폴폭스나 폴피리 중 하나만을 사용했다. 실제 종양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인 경우는 아바스틴을 포함해 항암제를 사용했던 그룹에서 47%로 폴폭스나 폴피리만을 사용한 32%, 31%보다 높았다. 이들 반응을 보인 경우에 안정상태를 같이 포함(질병조절률)해 비교하면 아바스틴을 사용한 경우에서 92%의 질병조절률을 보여 폴폭스나 폴피리의 75%, 74%와 비교해 매우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반응률이 직접 생존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 교수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아바스틴을 포함한 항암제의 병합치료는 항암제만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이기는 하나 이것이 뚜렷하게 생존기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항암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아바스틴을 추가한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종양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대장암 치료의 최종 목표인 수술절제 가능성은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2.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 읽기] 名醫 찾아 서울로 서울로…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화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3001  
본문: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질환의 종류를 막론하고 환자들이 갖는 첫 번째 궁금증이다. 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러한 궁금증은 더하다. 수술의 명의는 누구인지, 방사선 치료의 명의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진다. 그래서일까. 암 분야의 명의를 소개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적들이 인기다.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발품 팔아가며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던 과거에 비해 손쉽게 내 병을 가장 잘 치료해줄 의사를 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점도 생겨났다. 지방과 서울 간의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된 명의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병원의 의료진이다. 지방 암환자들이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인 대장암 환자 박희순(가명·52)씨는 “TV에 소개된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셨어요.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느 환자가 명의에게 치료받고 싶지 않겠어요. 돈 없고 빽 없더라도 나 살려줄 의사가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기를 쓰고 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사에 소개된 의료진은 명의가 되어 많은 환자들이 찾는다. 수술 실적이 오르고 수술 성과도 날로 좋아진다. 어려운 케이스를 치료할 기회도 많아진다. 성공 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동시에 지방병원은 더욱 소외된다. 지방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는 “<span class='quot0'>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해서 살리고 싶은 것이 의사 마음인데, 암 진단을 받자마자 서울로 갈 수 있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다</span>”고 말했다. 치료 실력과 수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명의 선정이 이뤄질 테지만 서울에서 근무해야 명의가 될 수 있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있다. 대전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빅5에 근무하시던 교수님을 2년 전 우리 병원으로 어렵게 모시고 왔다.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수술 실적 면에서든 성과 면에서든 명의로 불리셨다. 그러나 지방의 암환자들이 모두 서울로 몰리니까 연간 수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어려운 환자 케이스도 만날 수 없으니까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다. 교수님이 어느 날은 우리 팀을 찾아와 ‘나보다 못한 후배가 명의가 돼 있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시고 온 우리가 죄송했다”고 말했다. 서울서 지방으로 어렵게 내려온 명의가 본의 아니게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가 없는 상황을 몇 년 견디다 결국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한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의료진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의료진과 병원 정보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감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언론사에 소개됐던 의료진이 매체만 바뀌어 다시 명의로 등장하는 현실은 재야에 묻힌 명의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석하기 힘들다. 환자도 재탕하듯 반복하는 명의 보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부주의한 보도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부천성모병원 ‘폐암전문센터’, 7개과 드림팀 협진 환자에 희망 심는다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501001  
본문: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유재석(66·가명)씨는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졌다. 흉부외과 교수는 수술을 권유했으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다른 병원에도 들렀지만 혼란은 커져 갔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는 대신, 여러 과가 공동 연구·진찰하는 '다학제진료'를 받기로 했다. 다학제진료란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환자의 상태를 논의하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진료 방식이다. 이는 한 환자를 상대로 다양한 진료과에서 최상의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방식을 적극 도입한 곳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다.명의(名醫)는 잘 알려져 있지만 ‘명의(名醫)팀’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요즘 의료 현장의 대세는 협진을 통한 집중 치료다. 특정 의료인 한 명에 의존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특히 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가 관건이라 의사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를 통한 협력 치료가 암 정복의 지름길이라고 전문의들은 진단한다. ◇사망률 1위 폐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치료 시너지 창출=폐암 발병률은 전체 암 중 ‘4위’,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은 1위’다. 부천성모병원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집중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폐암전문센터’를 도입한 이유다. 부천성모병원은 2008년부터 쌓아 온 ‘협진’ 노하우를 하나로 결집, 다른 어느 곳보다 앞선 2012년에 ‘폐암협진팀’을 꾸리고 폐암 정복에 나섰다. 부천성모병원 ‘폐암전문센터’에는 분야별 10년 이상 활약한 7개과 교수와 관련 의료진이 탄탄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 호흡기내과(권순석·김용현·박기훈 교수), 혈액종양내과(진종률·전상훈·이국진 교수), 흉부외과(김영두·전현우 교수), 영상의학과(정명희 교수), 핵의학과(김정호 교수), 병리과(김진아 교수), 방사선종양학과(윤세철 교수)를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의무기록 등 문서 위주의 공유와 협의에 그치는 다른 병원의 명목상 협진이 아니다. 10명이 넘는 전문의들이 ‘브레인스토밍’으로 각 임상과의 노하우와 경험, 학술정보를 총망라한 ‘환자별 맞춤 치료’ 방법을 찾는다. 때문에 2012년 3월 폐암전문센터 오픈 후 폐암수술환자 수가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127%, 2013년에는 177% 급격히 증가하는 등 폐암전문센터를 찾는 환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협진 이후 폐암환자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결과다. ◇병기에 따라 치료법 세분화, 7개과 드림팀 모여 ‘다학제진료’=폐암 협진팀을 이끌고 있는 권순석 호흡기내과 교수(진료부원장)는 “<span class='quot0'>폐암은 아직도 치료 방법 선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가 진행 중인 암으로, 병기가 전체 4단계로 나뉘며 3단계까지는 다시 A·B 형태로 세분화(4기는 말기)돼 있어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각기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진료과별 전문의 의견 조율을 통한 팀워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료는 물론 연구 성과도 내기 힘들다</span>”고 말했다. 폐암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초 호흡기내과로 내원해 조직검사를 포함한 CT, 기관지 내시경, PET-CT 검사를 진행한다. 7개과 협진을 통해 검사 결과를 보며 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 등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3∼4개 유관 의료진이 환자 면담을 진행한다. 최소 7개 진료과가 모이는 폐암 협진은 부천성모병원이 유일하다. 폐암전문센터를 이용한 환자들은 단시간 정확한 검사와 진단 후 폐암 완치를 위한 최적의 복합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사결과를 기다리면서 갖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러 과를 배회하듯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을 큰 만족으로 꼽고 있다. 또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협진에 성직자가 동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진 시 성직자의 동석은 환자와 보호자가 다수의 의료진을 한 자리에서 대면할 때 느낄 수 있는 위압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진만을 대면했을 때보다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협진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메디컬협진센터를 이용한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이 병원에서 자체 실시한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의사의 진료 과정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8%가 검사 절차 설명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권순석 교수는 “<span class='quot1'>한 명의 폐암 환자를 위해 7개과 교수와 관련 의료진이 함께 모여 진단과 치료에 임하는 협진 시스템은 병원 수익보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는 가톨릭병원의 진료철학이 있기에 가능한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폐암 치료는 스타 의사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4.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중증 암환자, 4∼5명의 의사협진도 수가 적용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00426001  
본문: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 등을 신설했다. 암환자 공동진료의 경우 5인 의사 기준 14만1510원(본인부담 7000원), 집중영양치료는 3만6870원(상급종합, 본인부담 7370원)이다. 또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 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 5회)하고, 한 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제2, 제3 등의 수술 보상을 50%→70%로 개선)해 고난이도 행위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5.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임상시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403001  
본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에게 미국 보건당국은 전임상시험 단계인 ‘지맵(ZMapp)’을 임상시험 없이 투여해 2명의 미국인이 극적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지맵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만 진행되고 있어 인간에게 투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용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인이 숨질 때까지도 정식 임상시험을 통한 투약은 계속 유보돼 왔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이례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전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인간에게 투약하도록 허용하면서 임상시험 절차에 대한 여러 의문이 생기게 된다. 즉 ‘효과가 좋은 약을 그동안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인이 걸리자 개발을 시작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들은 치료제를 개발해 봐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제약사가 약 개발을 미뤄 오고 있었다.’ 등 무수한 추측과 의혹이 일어났다. 하지만 암환자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경우처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걸렸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의 개발 과정에서 위의 의혹들의 대부분은 맞지 않다. 이보다는 ‘안정성, 유효성 검증이 우선인가,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빨리 약물을 공급해 생명을 구제함이 우선인가’라는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2000년대 초 글리벡 공급 원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과 다른 고형암 환자들이 글리벡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심지어 의료진들조차도 말기 암환자에게는 한 번 써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약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당시 글리벡 공급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의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적응증 이외의 질환에 불필요하게 약물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 부작용 발생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말기 암환자들에게 제한 없이 약물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공급 초기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얼마 전 ‘서울이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도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미국, 유럽 대신 만만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우선 시행해 본 후, 안전하면 서양인을 대상으로 나중에 투약을 한다는 음모론이 한동안 SNS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미국 39.4%, 독일 5.9%, 일본 4.9%, 프랑스 4.5%, 영국 3.2%, 중국 2.5%, 한국 1.96%)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해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서울이 초대형 병원과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국제임상시험을 유치할 우수한 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과 휴스톤을 앞지르고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약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서양 환자에게는 약물 투여를 미뤄 온다면 이번의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맵 투약 건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의혹과 오해는 막연히 ‘임상시험은 약효와 안전성이 불투명한 약물을 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라는 고정 관념에서 출발한 것 같다. 하지만 동물실험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과 효능을 검증한 후에야 인간에게 투약하게 되는 임상시험의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임상시험에 대해 가졌던 많은 의혹과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김동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로봇수술 선별급여 필요한가… 일각 “비용효과성 등 검증 안돼”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00457002  
본문: 로봇수술이 선별급여 검토대상으로 알려지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용효과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50∼80% 범위에서 본인부담률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비용이다. 로봇수술의 비용이 10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일반 수술에 비해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면 효과면만 강조하는 병원의 제안에 환자는 선택할 권리를 빼앗길 수 있고, 결국은 로봇수술 건수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선별급여 첫 적용대상인 로봇수술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인데다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몇 대형병원에 국한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급여 형평성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한데 일각에서는 “로봇수술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으로 급여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등에서는 “기술 습득시간이 짧고, 수술시 출혈량이 적을 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환자 회복이 빠르다”며 환자의 비용절감을 고려할 때 일부 급여화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약 등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효과의 우월성이 있어도 비용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약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면 급여권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때문에 로봇수술이 효과가 있고, 제도권 밖에서 환자들이 큰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설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로봇수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개 병원에서 로봇수술 장비를 설치·사용(2012년 12월 기준) 중이며, 주로 암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데 전립선암(33.7%)과 갑상선(28.4%) 수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술환자 2만944명 중 로봇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자는 18명이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7.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비급여 4·5인실 일반병실 전환 건보 적용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00422001  
본문: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액 환자 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 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는데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8.txt

제목: 100% 초음파 세정 치아 마모 걱정 끝… 초음파 전동칫솔 ‘에미 덴트’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354001  
본문: 전 세계 2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미-덴트(Emmi-dent) 초음파 전동 칫솔’이 국내에 출시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과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라이넥스(대표 김기홍)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이 제품은 초음파 기술과 미용제품 전문기업인 EMAG그룹의 일원인 독일 에미-울트라소닉(Emmi-Ultrasonic)사가 개발했다. 김기홍 대표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대부분의 구강 관리는 일반 매뉴얼 칫솔, 음파식이나 회전식 전동 칫솔, 치간 칫솔 등으로 해 왔으나,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이 잇몸과 치아를 비롯한 구강관리를 거의 완벽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span>”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판된 이 제품은 지금까지 전 세계 28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회전식, 음파식 전동칫솔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해 왔다. 특히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칫솔질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단순한 마모를 통한 치아, 잇몸의 세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이 오직 100% 초음파를 통해서 세정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세정 시 칫솔을 치아 표면, 잇몸 주위에 접촉만 시켜주면 치아, 잇몸의 마모 없이 구강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은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 잇몸 염증 및 치아 관련 질병 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 김 대표는 “1분에 최대 8400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잇몸 속 칫솔모가 닿지 않는 부위에 자리 잡은 박테리아를 살균한다. 구강 속 박테리아는 치주 치은염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구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기존의 전동칫솔은 박테리아를 살균하지 못해 구강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지만, 에미-덴트 초음파 세정기술은 박테리아를 살균해 구강질환 예방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89.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항암제 복제약 괜찮을까… 안전성 입증안돼 불안감 여전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6133401001  
본문: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은 박길동(가명)씨는 보훈병원에서 오리지널의약품 ‘글리벡’을 꾸준히 처방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글리벡 복제약인 ‘글리마’로 처방이 강제 변경됐다. 처방이 변경되고 몇 개월간 약을 복용한 박씨는 기존에 오리지널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없었던 설사와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됐다. 박씨는 “<span class='quot0'>항암제 복제약이 기존에 먹던 의약품과 비교할 때 가격은 저렴해서 좋다고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 의사에게 글리벡으로 다시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복제약인 글리마로 처방이 강제 변경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보훈병원은 복제약에 의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 한해 글리벡으로 처방할 수 있게 했다. 항암제 복제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 효능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복제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은 “성분이 동일하다고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오리지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항암제 복제약은 정말 안전할까. 환자나 의사들이 복제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불안 때문이다. 항암제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데, 종합병원 의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항암제라면 사용을 꺼린다. 의사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오리지널 항암제를 선호한다. 게다가 국산 항암제 상당수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복제약이기에 환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약가는 항암제 선택을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가격차가 크지 않다면 오리지널 약을 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복제약의 경우 약물이 혈액내로 들어오는 농도가 오리지널의약품과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려면 원료, 약의 재조합 과정 등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리벡 복제약의 경우만 봐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제형에 있어 차이가 크다. 김동욱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현재 시중에 나온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글리벡은 베타형이다. 겉모양인 분자식은 같지만 복제약과 글리벡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며 “일부 국내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만들 때 가격단가를 맞추기 위해 인도 등에서 저렴한 원료를 수입하는데, 이러한 약에는 불순물이 섞여 환자들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span class='quot1'>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으로 복제약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1'>항암제는 일반약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복제약을 만드는 데 적극 뛰어들고 있다. 2016년 벨케이드, 타쎄바, 이레사, 2018년 허셉틴 등이 만료돼 관련 국내제약사들이 복제약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상위제약사인 종근당, 한미약품, 보령제약, 일양약품 등이 이들 항암제 시장에 적극적이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0.txt

제목: 불에 덴 듯 화끈 화끈… ‘불타는 입증후군’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날짜: 2014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5133226001  
본문: 김연남(74·가명·경기도 수원시)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입이 화끈거리고 아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아랫입술 가운데 부위가 아팠다. 그렇게 시작된 입술 통증은 점차 입술 전체로 퍼져 조이는 듯 아프고, 마치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른 것처럼 화끈거렸다. 두세 달 전부터는 입술뿐만 아니라 혀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입 주변이 화끈거리며 입안이 건조해져 혀도 사포처럼 마르며 꺼칠꺼칠해지고 아팠다. 이런 입 통증은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참다못한 김 할머니는 결국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치과까지 찾아가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같이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자신은 불에 덴 듯 입이 화끈거리고 아파 죽겠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덜 아픈 듯이 느껴지기만 할 뿐 통증은 여전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입안이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이 있다. 한 번 발병하면 좀처럼 낫지를 않아 심지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불타는 입증후군(Burning Mouth Pain)이란 조금은 생소한 병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만성 및 난치성 통증치료 전문 기찬병원 김찬 원장(전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14일, “<span class='quot0'>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드문 병도 아니다</span>”고 설명했다. 도대체 불타는 입증후군이 어떤 병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폐경 여성의 12∼18%가 겪는 고통=김 원장에 따르면 불타는 입증후군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3배가량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 인구 중 약 12∼18%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수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불타는 입증후군이 이렇듯 고령의 여성 노인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크게 3가지 가설이 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혀 상피에서 통증과 온도 감각을 전달하는 ‘가는 신경섬유’가 소실된 탓이라는 이론이다. 전체 환자들 중 약 60%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신경섬유가 없어짐에 따라 입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다. 이밖에 우리 몸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뇌 속 도파민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 저하, 또는 안면부 감각신경인 삼차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설도 있다. 불타는 입증후군 환자 10명 중 2명꼴로 각각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경기능 이상은 폐경 이후 호르몬 균형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해 영양결핍 상태에 빠진 사람, 당뇨나 갑상선질환과 같은 대사 장애 질환이 있는 사람, 잘 맞지 않는 틀니에 의해 구강 내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람, 노인성 우울증 및 불면증, 불안증 환자 등에게 잘 생긴다. ◇원인규명 후 적절한 약물치료로 대응=불타는 입증후군은 말 그대로 입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는 혀다. 그 중에서도 혀끝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어 입술 볼 입천장 목 등의 순서로 많이 아프다. 틀니가 닿는 부위만 유독 화끈거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늘 입이 마르거나 쓰고, 입맛이 변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환자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 혀와 구강 점막에선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상을 찾을 수 없으니 가족들마저 환자가 너무 예민해서 겪는 ‘신경성’이라며 방치하기 일쑤이다. 치료는 먼저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약물을 찾아 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환자가 가장 괴롭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우선적으로 없애주는 쪽으로 대처하되 우울과 불면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항우울제 처방도 병용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평상시는 물론 치료 중에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설탕이 없는 껌을 씹으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식사를 잘 못할 때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 및 영양제도 보충해줘야 한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1.txt

제목: [헬스 파일] 담석증과 담낭 용종  
날짜: 2014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5133225001  
본문: 담석증 환자가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다. 식습관의 서구화로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몸 안에 돌을 갖고 사는 인구도 덩달아 늘고 있다. 담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 소화불량이다. 명치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우측 날개 뼈 아래와 어깨 쪽으로 퍼진다. 때때로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보통 2∼3시간 후 수그러든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나서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 정도로 받아들이기 쉽다. 식사 후 불편했다가 좋아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담석증은 의사들에게 ‘4F’ 질환으로 불린다. 40대(Forty)의 비만(Fatty)한 여성(Female)에게 잘 발생하고, 특히 임신(Fertile) 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담석은 담즙이 통과하는 담관과 담도, 담낭(쓸개)에서 주로 발견된다. 식습관이나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담즙 자체가 돌처럼 굳기 쉬운 성질을 가져 발생한 것이 많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 담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통증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만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통증이 있는데도 담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만성 담낭염으로 발전, 담도가 들러붙는 담도협착증을 합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낭염이 동반된 담석은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로 제거한다. 식습관의 서구화 및 담석증 환자의 증가로 담낭을 제거한 인구도 많아졌다. 충수염으로 맹장을 잘라내듯 담석증으로 담낭을 잘라낸 것이다. 이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담낭 없이 사는 것이 괜찮은지’에 관한 문제다. 흔히 지조가 없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을 ‘쓸개 빠진 인간’이라고 놀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쓸개를 ‘중정지관’(中正之官)이라 하여 결단력이나 담력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는 오해다. 담낭이 없어져도 간에서 같은 양의 담즙이 계속 생산되고 십이지장과 담도가 쓸개즙 분비 및 조정자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담낭절제술 후 처음엔 소화 장애나 거북함, 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 한편 담석과 함께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 담낭 용종이다. 담낭 용종이란 담낭 안에 생긴 물혹을 가리키는 것이다. 담석과 달리 자각증상이 거의 없다. 이 때는 자칫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양성이라도 추적 관찰하는 게 원칙이다. 그 결과 크기가 10㎜이상으로 자라고 담석까지 동반하게 되면 제거해야 한다. 담낭 용종 역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로 제거한다. 정철운 국제성모병원 소화기외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2.txt

제목: “구멍 뚫린 오존층 복구되고 있다”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12100223002  
본문: 오존층을 복구하기 위한 25년간의 국제 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은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인류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산업화의 여파로 오존층이 얇아지거나 심지어 남극 주변의 오존층에는 구멍도 뚫렸다. 이 때문에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됐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 등에 대한 국제 규제로, 이번에 규제의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오존층 파괴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14’에서 오존층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복구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나오자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은 일제히 “<span class='quot0'>오존층이 다시 두꺼워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다</span>”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제 협력으로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으며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기 이전인 198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오존층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계속 얇아지는 추세였지만 2000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 남극대륙의 오존층 구멍 역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10년 뒤면 남극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존층 파괴 물질은 2050년까지 10배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규제 덕분에 연간 200만건의 피부암이 억제되고 있고, 인간의 눈과 면역체계 손상도 예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과 농업도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극의 오존층 구멍 때문에 지구 남반부에서는 이상기후가 많았지만 이 역시 줄고 있다고 밝혔다. UNE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1'>몬트리올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인 환경 협약</span>”이라고 강조했다. WMO의 미셸 자로 사무총장도 “<span class='quot2'>국제적인 행동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성공 스토리가 생겼다</span>”고 기뻐했다.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3.txt

제목: [사이언스 토크] 100조 개의 특효약  
날짜: 2014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6132828002  
본문: 아기가 갓 태어나서 누는 암녹색의 배내똥은 냄새가 없다. 똥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장내 세균이 음식을 소화한 뒤 내놓는 분비물 탓인데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아기 똥에 냄새가 난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장균과 유산균 등 수많은 세균이 아기의 장에 들어간다는 증거다. 보통 인간의 장 속엔 약 500종에 달하는 세균이 약 100조 마리나 서식한다. 모두 합치면 그 무게가 약 1㎏이나 된다.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균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면서 소화를 돕기도 하는 이 장내 세균이 요즘엔 미래 의학의 가장 흥미롭고 유망한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몸에 이로운 장내 세균 군집이 붕괴하고 해로운 장내 세균이 득세하면 암이나 당뇨, 비만이 발생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특정 종류의 장내 세균 비율이 낮을 경우 자폐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또 장내 세균이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장내 세균은 영아기 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감소하는 세균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근래 들어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실험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이지만, 장내 세균이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획기적 치료법을 제시해 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구진은 장내 세균이 인간의 식습관 및 음식 선택에 영향을 줘 자신들의 성장에 좋은 특정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조종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장은 신경계 등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장내 세균이 특정 신호전달물질을 분비해 인간의 신경신호를 바꾸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내 세균이 사람의 기분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구진이 실험쥐를 대상으로 특정 박테리아를 주입한 결과 평상시와는 달리 불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대로라면 장내 세균을 이용해 간단하게 개인의 식습관 및 체질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조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조류로부터 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내 세균을 이식시킬 경우 자연스레 해조류를 찾게끔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아이들의 편식을 고쳐주는 ‘장내 세균 특효약’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이성규(과학 칼럼니스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4.txt

제목: 엄홍덕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팀, 암세포 전이 촉진 효소 발견…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규명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3132455001  
본문: 한국원자력의학원 엄홍덕(사진) 박사 연구팀이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하는 효소를 처음 찾아내고 이 효소를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규명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일 밝혔다. ‘두 번째 암’으로 불리는 전이암은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전이가 일어나는 원리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폐암 세포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콤플렉스1’ 효소가 암 전이를 촉진하며, 쓸모없는 세포를 죽이는 ‘백스 단백질’이 암 전이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p21단백질’이 암 전이 촉진 물질을 분해해 전이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5.txt

제목: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국민일보·세복협 공동캠페인] 탄자니아 하나님의성회 킬리만자로 연합교회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2132253001  
본문: 방한 중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글로리어스 쇼우(50) 목사의 표정은 우울해 보였다. 암에 걸려 인하대병원에 통원 치료 중인 아내 조세핀 쇼우(47)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세핀은 앞으로 5차 항암치료를 받고 골수이식수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수술비가 5만 달러(약 5000만원)나 든다. 모금한 돈도 떨어지고 지인들의 도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1981년 결혼한 쇼우 목사 부부는 ‘ 탄자니아 하나님의성회 킬리만자로 연합교회’를 개척하고 평범한 목회를 하다가 2001년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지역에 ‘뉴라이프 파운데이션’(newlifetz.org)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쇼우 목사 부부는 이를 통해 고아와 미혼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14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역의 기쁨도 잠시였다. 4명의 자녀를 낳은 조세핀이 시들시들 앓게 된 것이다. 처음엔 몸이 피곤한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됐다. 2004년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곤 했다. 아내가 건강을 잃으니 쇼우 목사의 사역도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쇼우 목사 부부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난해 2월 탄자니아에 온 인천주안중앙교회(박응순 목사) 소속 전도사의 소개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의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하신 것이다. 검사결과는 림프종 암 3기. 우선 탄자니아 병원에 연락했다. 탄자니아 병원에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며, 현지 의사들도 치료경험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한국에 남아 치료를 받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 쇼우 목사도 한국에 왔다. 다행히 조세핀을 치료 중인 인하대병원 김철수 교수는 이 병은 치료하면 낫는 병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쇼우 목사 부부는 기도하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천주안중앙교회와 인하대 직원, 여성 자원봉사단체인 소롭티미스트, 탄자니아 교인들의 도움과 모금이 잇따랐다. 4차 항암치료비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액 지원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해피빈 모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치료비가 많이 들어 역부족이다. 본보에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데보라(24·백석대 기독교교육학과4·인천주안중앙교회)씨는 “고향 탄자니아에서 고아들의 어머니가 된 조세핀 사모님의 사정이 딱해 연락을 드렸다”며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하면 탄자니아 교육과 장래,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쇼우 목사 부부는 아프리카 불우 청소년들에게 인생 및 신앙 상담을 하고, 미혼모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등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쇼우 목사 부부는 “<span class='quot0'>기도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탄자니아 기독교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각오를 내비쳤다.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6.txt

제목: “라식 49만원”… 도 넘는 안과 광고 조심하세요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2132338001  
본문: “라식·라섹 49만원”, “<span class='quot0'>주중 시술은 10만원 추가 할인</span>” 요즘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시력교정술 광고다. 39만원, 49만원, 59만원 등 홈쇼핑 광고도 아닌데, 끝자리가 모두 9로 끝난다.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각종 최신 레이저기계와 수술법을 소개하며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랑한다. 별도 팝업창을 통해 값이 싼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들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는 광고한 가격대로 해당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 전화 상담 결과 광고 글이 허위는 아니었지만 그 가격대로 시술할 경우 최신 레이저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환자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추가 옵션도 적지 않았다. 선택은 소비자 몫이었지만 병원은 안전성을 담보했다. 제시한 추가 옵션들을 선택할수록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추가 옵션을 2∼3개 선택하고 나니 시술비는 처음 제시된 가격의 2배가 돼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았다기보다 소위 ‘낚였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하지만 일단 시력교정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병원으로부터 낚였다는 느낌을 받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의료현실이다. 20년째 한 곳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모씨는 잘못된 의료광고가 의료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의료행위는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없다. 암환자가 많다고 수술비가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값싼 수술법을 광고하는 안과일수록 환자들이 몰리고 그 병원은 더 잘된다. 과거에는 병원의 성패가 의사 개인의 실력에 달렸지만 지금은 얼마나 언론매체에 노출되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병원은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환자가 의료광고를 통해 의사의 정보나 병원의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기존의 시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마치 획기적인 시술처럼 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신 기기가 이전의 기기에 비해 나은 성능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의 기기가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마케팅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올리는 형식이 그것인데, 실제 시술을 받고 쓴 체험담인지 돈을 받고 호의적으로 쓴 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무분별하게 저가마케팅을 벌이거나 과장광고를 벌이는 안과병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 기껏해야 회원 자격 상실 정도인데, 대부분 의사회를 탈퇴한 병원들이 광고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규모를 불려 나간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선택하기보다 꾸준히 다닌 병원을 선택해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저가 마케팅만을 벌이는 병원이라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인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7.txt

제목: 유방보존수술 중 방사선 치료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시행  
날짜: 2014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1132154001  
본문: 수술 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새 암 치료법이 국내에 등장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유방암센터 정준(사진) 교수팀이 최근 우측 유방에 2.3㎝ 크기의 침윤성유방암이 발견된 48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방사선 치료(IORT)’를 시행, 방사선 치료 기간을 8일이나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방을 모두 도려내는 전(全) 절제수술이 아니라 일부만 잘라내는 유방보존수술 중 방사선 치료가 국내에서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IORT 시술 환자는 6∼8주간 걸리던 방사선 치료기간을 5∼6주 만에 마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술 중 암이 있던 자리 주위만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집중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IORT는 수술 중 고용량의 방사선을 환부에 직접 쪼여줌으로써 추가 방사선 치료횟수를 대폭 줄여 장기간 방사선 치료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 단 이 시술은 암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한 개만 발견된 경우에 가능하다. 또, 유방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도 시술이 어렵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8.txt

제목: [한마당-김상기] 담배의 효능  
날짜: 2014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901095803001  
본문: 담배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614년 나온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최근 일본에서 들어와 널리 펴졌다’고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1610년쯤 전해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담배는 금세 온 백성이 즐기는 작물이 됐다. 우리 역사에서 담배만큼 인기가 많은 기호품은 없었다. 조선 사람들은 남녀노소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조선 사람들의 담배 사랑은 하멜표류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1653년 제주도에 표착했다 14년간 조선에 억류됐던 하멜은 ‘아이들도 4, 5세가 되면 담배를 피우며 남녀노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적었다. 어른이 아이에게 담뱃대를 물린 것은 배 아픈 데 특효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선조들은 뱃속 회충이 담배 연기에 질식해 밖으로 나온다고 믿었다. 1810년 이옥이 펴낸 담배 전문서적 ‘연경(煙經)’에는 재배법이나 피우는 예법 등과 함께 담배의 효능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아침에 일어나 목에 가래가 끓고 침에 텁텁한 것을 가시게 한다. 시름 많고 걱정 심하거나 하릴없이 심심할 때 피우면 상쾌해진다. 추울 때 몸이 얼고 입술이 뻣뻣해질 때 연거푸 피우면 몸이 따뜻해진다. 비가 많이 내려 축축하고 곰팡이 피는 것 같을 때 피우면 상쾌해진다. 한 대 태우면 좋은 시구가 딱 떠오른다.’ 이처럼 담배가 각광을 받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선 사람들에게 싼값으로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었다는 점이 크다. 조선 사람들은 숱한 자연재해와 질병, 절대적인 식량 부족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된 일 등으로 고통 받았다. 담배는 이런 이들에게 짧은 순간이지만 더할 나위 없는 휴식과 여유를 제공했다. 수명이 짧으니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걱정할 필요가 적기도 했다. 선조들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주던 담배는 현대에 와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4000종이 넘는 유해물질과 독성화학물질로 범벅돼 있어 각종 암이나 심장병, 순환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최근 담배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등장한 지맵을 양산하는 데 담뱃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로부터 얻은 항체를 담뱃잎에 주입하고 이를 다시 7∼8주간 성장시켜 항에볼라 바이러스 혈청을 대거 얻는다는 것이다. 만병통치약과 같은 묘약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내몰렸던 담배가 다시 인류의 적을 퇴치하는 일등공신이 될지 기대된다.김상기 차장 kitti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499.txt

제목: [강진구의 영화산책] 헤이즐이 가르쳐 준 죽음교육  
날짜: 2014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30132115001  
본문: ‘사랑과 죽음’은 모든 예술의 뿌리이자 진리를 체감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롬 5:8)이자 감동의 원천이 되듯 죽음 앞에서 사랑은 빛을 발하고, 사랑을 통해 죽음은 그 의미를 발산한다. 이것은 곧 죽음을 외면한 사랑이란 진실하지 못한 일이며, 사랑 없이 죽는 일 또한 가장 덧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사랑한다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일이고, 이왕 죽을 거라면 사랑하면서 죽을 일이다. 영화 ‘안녕, 헤이즐’은 말기암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십대 남녀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을 긴 여운을 드리우며 그려내고 있다. 여주인공 헤이즐(쉐일린 우들리)은 갑상선암이 전이되는 바람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16세 꽃다운 청춘이다.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까닭에 항상 산소통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만 말기암 환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명랑쾌활하다. 비록 암환자 모임에서 만난 두 살 연상인 남자친구 어거스터스(안셀 엘고트)가 먼저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녀의 짧은 사랑은 끝을 맺고 말지만 상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채 그녀는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고 신세 한탄으로 이어지는 신파극으로 이해되기 십상이지만 ‘안녕, 헤이즐’의 경우는 다르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이별의 순간에도 쿨한 척하는 요즘 십대들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자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첫째, 죽음에 대한 이해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헤이즐이 말한 대로 요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산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추모사를 낭독하는 일이란 원래 죽은 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사실 죽은 사람은 그 추모사를 들을 수 없다. 추모사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연설인 셈이다. 그렇다면 죽은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추모사가 있다면 당연히 죽기 전에 들려주는 것이 옳다. 영화에서 헤이즐은 어거스터스가 죽기 전 교회에서 자신이 읽을 추모사를 들려준다. 그를 사랑하고 또한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얘기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죽어가는 이 앞에서 사랑과 감사를 말한다는 사실이. 또한 이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영화는 죽음의 순간에 함께할 동행자의 가치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로브 라이너 감독의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카터(모건 프리먼)와 에드워드(잭 니컬슨)는 죽기 전 해야 할 일을 정한 후 그 일을 함께 실현해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한 일보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함께할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행자의 역할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일이다.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죽어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헤이즐이나 어거스터스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들은 환자가 임종을 맞을 때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줄 것을 약속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소피아대학교에서 죽음학을 강의하는 알폰소 디켄 교수는 그의 책 ‘행복한 죽음’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심리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다. 그것은 ‘기대와 희망’이라는 심리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임종을 앞둔 신앙인 가운데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에서 살아갈 남은 가족을 오히려 위로하며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진정한 현실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영화평론가)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0.txt

제목: ‘의료 한국’ 관리시스템 중동에 수출 잇따라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9095658001  
본문: 우리나라 의료관리 시스템이 중동 국가들에 수출되는 쾌거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복지부 장관이 체결한 ‘한국-사우디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에 따라 오는 9월 사우디킹파드왕립병원에 ‘뇌조직은행’과 ‘아바타 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뇌조직은행은 각종 뇌수술 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뇌 조직을 보관해뒀다가 뇌종양이나 치매 등의 치료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뇌조직은행을 구축하는 데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며, 사우디킹파드왕립병원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또 오는 2016년 이후 이 병원에 사람의 특정 암세포를 가진 ‘동물모델’을 이용해 최적의 암 치료법을 찾는 아바타 시스템도 수출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민간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주회사인 VPS에 한국형건강검진센터를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음 달 UAE에서 체결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0일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병원을 5년 동안 맡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29일 향후 2년간 사우디아라비아 내 5개 지역의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 총 3000여 병상 규모의 병원에 700억원 규모의 의료정보 및 병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1.txt

제목: [건강보험료 대수술 (하)] ‘땜질’ 부과체계 이번엔 달라질까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7131737001  
본문: 전모(33)씨는 충북 충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장사가 안 돼 올해 2월 종업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꾸려가고 있다. 종업원이 있을 때 식당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어서 전씨도 직장가입자였다. 건보료를 월 12만5000원 냈는데 종업원을 내보내자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16만2000원이 됐다. 전씨는 다른 재산도, 자동차도 없어 오직 소득에만 부과된다. 똑같이 2012년 소득(2351만원)을 근거로 부과된 건보료가 ‘직장’과 ‘지역’의 산정 공식이 달라 3만7000원이나 올랐다. 형편이 나빠져 종업원을 내보낸 그를 현행 부과체계는 ‘형편이 좋아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전씨 경우는 ‘같은 보험, 다른 기준’의 부과체계가 서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득만 갖고도 부과방식이 달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같은 다른 기준까지 개입되면 형평성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부과체계의 파장이 건보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의 많은 서민 복지서비스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노인 돌봄, 간병, 암 조기검진부터 난임부부 지원까지 20가지가 넘는다. 건보료의 형평성 문제가 한국 사회의 복지 전반에 고스란히 전이(轉移)되는 구조다. 불공정 건보료의 2차 피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의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밥 먹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외출하는 일을 도우미가 찾아가 해결해주고 있다. 치매나 중풍 노인이 있는 가정에 매우 필요한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15만원을 넘지 않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수입원이 제각각인 사람들의 소득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얼마나 내느냐로 이 자격을 따진다. 만약 충주의 전씨에게 치매 걸린 노모가 있다면 그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올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3만2707원, 지역가입자는 월 15만713원 이하를 내는 사람에게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직장·지역 부과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조금 차이를 뒀다. 전씨의 경우 직장 건보료(12만5000원)를 내던 2월까지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지역 건보료(16만2000원)로 바뀐 3월부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암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질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국가가 살펴주는 이 서비스의 자격 요건은 검진 대상 연령에 이른 사람 중 ‘건보료 부과액 하위 50%’다. 직장은 월 8만5000원, 지역은 월 8만4000원 이하여야 한다. 월급 200만원에 2억5000만원 아파트, 3000㏄ 자동차가 있는 직장가입자 A씨와 연소득 2000만원에 똑같은 아파트·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 B씨를 가정해보자. 월급에만 부과되고 절반은 회사가 내주는 A씨의 건보료는 월 5만9900원, 아파트·자동차까지 점수화해 산정하는 B씨의 건보료는 월 28만1480원이다. 비슷한 소득과 재산이지만 A씨는 암 검진을 받고 B씨는 못 받는다. 건강·복지도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건보료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복지사업은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등 서민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서비스들이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시간제 아이돌보미를 보내줄 때도 건보료를 따지고 있다. 건보료가 5만원 미만인 직장가입자 중에는 10억원 이상 재산가가 2만6000명이 넘는다. 그중 200명은 100억원 이상이다. 300억원대 자산을 갖고도 건보료를 1만원만 내는 사람도 있다. 충주의 전씨나 직장가입자 B씨가 탈락하게 되는 ‘건보료 기준 복지서비스’를 이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 출범 이후 정부는 건보료 부과규정을 숱하게 ‘손질’했다. 건보공단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로 매년 바뀌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땜질’에 그쳤다. 고소득층에 관대하고 저소득층에 깐깐한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실비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0%에 육박한다.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돈을 전체 가구로 나누면 월평균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액과 가입된 보험 개수가 많다. 건강보험으론 내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해 민간보험에 투자하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적정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충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이는 고소득층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건강의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span class='quot0'>건보료 형평성 논란이 다른 복지 분야로 전이되고 건강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부과체계를 뜯어고쳐서 형편에 맞게 징수하는 게 급선무</span>”라고 말했다.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2.txt

제목: 봉사기간 끝났지만 에볼라 창궐하자 다시 짐 풀어… 의료구호 중 감염 ‘윌 풀리’ 헌신 화제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7095600001  
본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영국인 윌 풀리(29)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런던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헌신적인 의료구호 활동담이 영국 사회를 감동시키고 있다. 풀리는 보람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호 일을 배웠다. 간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난 2월 시에라리온으로 의료구호 봉사를 떠났다. 처음에는 수도인 프리타운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다. 죽어가기 직전의 에이즈 환자와 암 환자를 돌보는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을 돌봤다.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기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내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이들의 가난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풀리는 당초 6개월 정도 현지에 머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봉사를 마칠 즈음 시에라리온에 에볼라가 창궐하면서 체류를 연장했다. 그리고 5주 전 시에라리온의 한 지방도시인 케네마로 떠났다. 에볼라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동료들은 감염될 수 있다며 그를 뜯어말렸다고 한다. 이미 케네마에서는 15명의 현지 의료진이 에볼라에 감염돼 숨진 뒤였다. 하지만 풀리는 환자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며 끝내 케네마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케네마의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다. 그러나 마땅한 치료약도 없었다. 게다가 의료진도 상당수가 도망친 뒤였다. 그럼에도 풀리는 제한된 약으로 정성스레 치료에 나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완치됐다. 현지의 한 의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풀리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뭐든지 했다</span>”며 “그는 영웅이었다”고 말했다. 풀리는 귀국 뒤 가족을 면회할 때 “환자들이 치료돼 스스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고 영국 언론 가디언이 전했다. 가족들도 남달랐다. 가족들은 후송 뒤 발표한 성명에서 “풀리를 데려와줘 감사하다”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풀리처럼 좋은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수많은 다른 환자들이 있음을 영국과 국제사회가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3.txt

제목: [기고-유승흠] 건강검진 과열시대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6131506001  
본문: 일상생활에서 건강검진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소득이 2만4000달러 시대라서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게 되었으며,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암검진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과 직장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직장검진, 그리고 개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하는 검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조기검진의 성과는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1990년대 41.2%였던 암의 상대생존율이 현재 66.3%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암 조기 발견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조기 치료의 산물이다. 질병은 처음부터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발병을 막지 못했다면 차선책은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병이 진행되었을 때보다 치료방법도 상대적으로 쉽고 치료 결과 또한 월등히 좋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이 장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과유불급(過猶不及)이라 하지 않았던가.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건강검진기관의 경쟁이 확산되었고, 검진기관들은 비교우위에 서고자 같은 비용으로 많은 항목을 검진해 주겠다고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즈음 갑상선암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종종 입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굳이 매년 건강검진에서 찾아내야 할 필요가 없는 암이기 때문이다. 의료장비의 발달로 초음파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찾을 수 없었던 미세 갑상선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암과는 달리 ‘느림보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은 아주 크기가 작을 때 떼어 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일찍 치료를 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진기관의 직간접적인 권유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하게 된다.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장단점이 이슈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덕분에 이제 보통 사람들도 갑상선 검진으로 인한 이익과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진이 사전에 검사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와 상의해서 진단과 치료과정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항목을 받기보다 자신의 상태나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을 스스로 판단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치르는 약간의 수고인 것이다. 건강검진을 제때에 받지 못해 큰 병을 놓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과잉 검진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과잉 검진으로 낭비되는 의료자원을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이지 않을까 싶다.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4.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집중화센터 및 암병원] (4)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  
날짜: 2014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5131342001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 폐암다학제진료팀(팀장 강경호·호흡기내과 교수)이 환자맞춤치료로 주목받고 있다. 폐암다학제진료란 폐암환자 1명을 진료하기 위해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7개 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것을 가리킨다. 효과가 가장 좋은 최적의 환자 개인맞춤 검사 및 치료법을 찾아 적용하기 위해서다. 고려대구로병원 폐암다학제진료팀은 국내 의료계에서 이 분야 최고 수준의 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정확한 진단·조기치료 중심 생존율 85% 구현=폐암은 한국인 사망률 1위다. 5년 생존율도 10%로 낮다. 초기증상이 마른기침, 가래 같이 가벼운 질환이어서 환자가 암이라 생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 무엇보다 조기진단이 중요한 암이다. 고려대구로병원은 호흡기내과 강경호·심재정·이승룡 교수팀을 중심으로 조기폐암검진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폐암 조기진단에 형광내시경을 활용한 곳도 이 클리닉이 처음이다. 이들은 2005년부터 형광내시경을 이용했다. 형광내시경을 활용하면 백색광내시경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조직까지 샅샅이 찾아내기 때문에 폐암 조기진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강 교수팀이 진료한 초기 폐암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무려 85%에 달하는 것도 이 덕분이다. 폐암의 진단, 병기 판단, 치료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계획 설계의 기초가 되는 영상판독은 영상의학과 강은영 교수(대한흉부영상의학회장)가, 조직검사는 병리과 김한겸 교수(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신봉경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세계 최고사양의 방사선 영상장비인 640MS-CT와 3.0테슬라 MRI를 갖춰 첨단의료장비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100차례 첫 돌파=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는 선진 폐암수술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가슴을 여는 개흉(開胸) 수술 대신 2㎝ 내외의 구멍 한개만 가슴에 뚫고, 그 속으로 내시경을 넣어 폐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이 수술은 상처를 최소화시켜 수술 후 통증과 회복기간을 대폭 줄이고 흉터도 거의 눈에 안 띄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많은 경험이 없으면 시술이 불가능하다. 이 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팀은 2012년 4월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 수술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100차례 이상 시술경험을 자랑한다. 대부분 조기진단 및 조기수술이어서 환자들의 생존율도 높다. 김 교수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첨단 3D 흉강경을 새로 도입, 고난도 폐암수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3D 흉강경 수술은 내시경에 2개의 고성능렌즈를 장착, 환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암조직을 정교하게 도려내는 치료법이다. ◇정상 폐조직을 살리는 감시림프절 생검=폐암수술 시 폐절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고령의 폐암환자들은 합병증도 많아 폐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보존하는 것이 암 절제 못잖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검사법이 ‘감시림프절 생검’이다. 국내에서 이 병원에서만 유일하게 시술하는 이 검사법은 암세포가 림프절을 통해 다른 장기로 번질 때 최초로 전이한 ‘감시림프절’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검법을 이용하면 정상범위를 최대한 살리고, 암조직이 있는 부위만 정교하게 절제하는 수술이 가능하다. 한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수술이 어렵거나 수술 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가 불가피하다. 수술 전에 항암제 또는 방사선치료를 먼저 2∼3차례 시행해 혹의 크기를 줄여놓은 뒤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항암화학요법은 강경호·심재정·이승룡·강은주 교수팀이,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양대식 교수팀이 담당한다. 조기 폐암뿐 아니라 진행성 폐암환자 치료경험도 풍부한 이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하루 동안 항암치료실에서 항암제를 투여 받고 귀가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국내 폐암 환자들이 줄지어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5.txt

제목: [메디컬 뉴스] 양지병원 ‘암 예방 쿠킹 레시피’ 시식 행사 外  
날짜: 2014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5095434001  
본문: 양지병원 '암 예방 쿠킹 레시피' 시식 행사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은 최근 신관 2층 로비에서 이 병원 암통합케어센터(센터장 이재진) 의료진이 추천한 ‘암 예방 쿠킹 레시피’ 시식 행사를 가졌다. 유방암 환자 체중조절을 위한 ‘실곤약 비빔국수’,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는 셀레늄과 섬유소가 풍부해 대장암 환자에게 유익한 ‘호밀 베이글 샌드위치’, 부드러운 고기로 갈아 만든 위암 환자용 ‘파프리카 찜’ 등이 소개됐다.대전성모병원 간호사들 '마음간호 환우사랑' 발간대전성모병원 간호부는 간호사들의 일상을 진솔하게 담은 수필집 ‘마음간호 환우사랑’을 발간했다. 중환자실, 수술실, 전인치료센터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 36명이 환자들과 함께 겪은 사연을 재미있는 글로 표현했다.한미약품, 표적항암제 기술 中 수출 계약 체결한미약품은 최근 개발 중인 포지오티닙(Poziotinib) 성분의 표적항암제(HM781-36BP) 제조기술을 중국 루예제약집단에 이전하는 내용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금은 200억원이다. 시판 후 판매액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다. 루예제약집단은 앞으로 포지오티닙의 중국 내 임상시험과 생산 및 판매를 맡게 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6.txt

제목: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 묻지마 살인 공익요원 무기징역  
날짜: 2014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3095420002  
본문: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span>”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가출한 후 김모(25·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월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회정화를 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는 등의 12개 살인수칙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span class='quot1'>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span>”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범행 직전 한 2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를 쫓았던 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를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감정의는 이씨에 대해 “의식이 명료하고 사고과정이 적절하다.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이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사회를 이 같은 범죄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7.txt

제목: [홍보대사 공화국] 이 기관… 저 단체… ‘얼굴마담 모시기’  
날짜: 2014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3131324001  
본문: 대한민국은 홍보대사 공화국이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는 또 한 명의 연예인 대사가 탄생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안선영(38)에게 “<span class='quot0'>장애 청소년의 친구가 돼 달라</span>”고 요청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안선영은 “<span class='quot1'>장애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위해 이웃처럼 친구처럼 다가가겠다</span>”고 답했다. 이런 행사는 거의 매일 있다. 홍보대사 경험이 없는 연예인을 찾기 힘들 정도다. 톱스타들이 홍보대사로 나서면 크게 주목을 받는다. 지난 13일 2014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홍보대사가 된 배우 이영애(43),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제 홍보대사인 장근석(27) 등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계명대 진용주 교수는 지난 3월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span class='quot2'>2013년 4∼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전국 225개 조직, 기관, 행사추진위원회, 기업 등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span>”고 밝혔다. 3개월에 225명 이상, 적게 잡아도 하루 평균 2.4명이다. 산술적으로 1년에 1000명에 달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연예계 최다 홍보대사는 방송인 김미화(50)다. 그는 “<span class='quot2'>국내 거의 모든 사회·공공기관과 인연을 맺었다</span>”며 “<span class='quot2'>지금까지 80여 차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span>”고 말했다. 최수종(52)·하희라(45), 차인표(47)·신애라(45), 션(노승환·42)·정혜영(41) 부부도 단골 홍보대사다. 홍보대사는 홍보위원, 홍보 자문위원, 명예대사 등을 포괄한다. 처음 시작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82년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배우 신성일(77), 김영애(63), 고(故) 고우영 화백을 KBO 홍보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세계적으로는 1954년 유니세프가 위촉한 할리우드 희극배우 대니 케이를 원조로 꼽는다. 한국 홍보대사의 부흥기는 1990년대다. 탤런트 채시라(46)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지금까지 16년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공동모금회 중앙회에만 인천시립예술단 금난새(67) 상임지휘자, 팝페라 가수 임형주(28), 마라토너 이봉주(44) 등 16명이 활동 중이다. ‘으리’ 탤런트 김보성은 공동모금회 서울지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관련 성금으로 1000만원, 시각장애인 성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홍보대사는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관광공사에는 최고의 한류 스타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가수 싸이(박재상·37)를 비롯해 2011∼2012년 아이돌 그룹 2PM과 미쓰에이, 2010년 ‘욘사마’ 배용준(42)이 합류했다. 관광공사는 이들에게 모델료로 얼마나 지급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류 스타의 해외 계약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투입된 광고 제작비는 평균 5억원”이라며 “세계 70개국에 광고를 방영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화려한 홍보대사 섭외 능력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여줬다. ‘3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를 비롯해 제프 블래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디자이너 앙드레 김, 월드컵 4강 신화의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감독이 거쳐 갔다. 원래 무보수지만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기관에선 거액을 제시한다. 가수 이승기(27)는 2010∼2011년 복권 홍보대사 활동 명목으로 기획재정부를 통해 5억7000만원을 받았다. 어수룩해 보이는 탤런트 임현식(69)도 “암 검진 줄을 서시오”라고 외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걸쳐 같은 액수를 받았다. 슈퍼주니어도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홍보대사로 3억8000만원을 타냈다. 원더걸스도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로 모델료만 3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홍보대사라기보다 사실상 CF 모델이었는데 명칭만 홍보대사를 빌린 것이다.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8.txt

제목: 암 투병 배우 김진아 별세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2131220002  
본문: 1980년대 활약했던 배우 김진아(사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51세. 김진아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말기 암 판정을 받았던 김진아가 전날 세상을 떠났다</span>”며 “<span class='quot0'>김진근이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이기도 한 김진아는 2000년 미국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 하와이에서 거주해 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09.txt

제목: 한화생명, 암·뇌졸중 등 중대 질병 100세까지 보장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21131023001  
본문: 한화생명은 사망 보장은 종신까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CI) 보장은 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하는 ‘스마트변액CI통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 CI 발병률이 높아지는 60세부터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CI 진단자금을 증액해주기 때문에 고액의 보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특약 5000만원을 가입한 경우 CI 발생 시 60세 이전에는 가입금액 5000만원을 지급하지만, 60세 이후에는 3년마다 증액돼 최대 1억원까지 수령이 가능(투자수익률 7.0%,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하다. 소득보장형을 선택하면 60세 이전 사망 또는 80% 이상 장해 시 가입금액의 1%나 2%를 60세까지 매월 월급처럼 받아 유가족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월지급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45세 이후에는 연금 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른 보험사와 달리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크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종신연금형(100세 보증)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100세까지 보증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자금을 유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0.txt

제목: 정남식 신임 연세의료원장 “환자가 가정·사회에 복귀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의료문화 창출”  
날짜: 2014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9130826001  
본문: “병원이 질병 치료에만 매달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 치유와 함께 가정과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새로운 의료문화 창달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정남식(62·사진) 신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은 18일 연세대동문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브란스병원이 병자 없는 건강사회를 만들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비욘드 호스피털(Beyond Hospital) 의료문화’를 일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병원 너머 의료문화’라고 할 수 있는 BH의료문화란 병원이 질병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숨 쉬며 소통하는 문화를 뜻한다. 정 의료원장은 이를 기본 개념으로 삼아 지난 130년간 우리나라 근대의학의 효시이자 발전을 이끈 연세의료원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정 의료원장은 또 ‘제중원 힐링 캠프’(가칭)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 암과 중증 난치성 질환, 만성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모임 마당, 즉 미술·음악치료는 물론 식사와 영양 치료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 및 난치성 희귀질환자 치료에 더 전념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세월호와 같은 대형 재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료원장은 심장병 전문가로 대한심장학회 이사장과 세브란스심장혈관병원장, 연세의대 학장, 세브란스병원장 등을 역임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1.txt

제목: 한국인 사망자 10명 중 4명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날짜: 2014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9130854001  
본문: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는 26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40%가량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고,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를 막지 못해 사망자 10명 중 4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18일 ‘우리나라의 회피 가능 사망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방·치료가 가능했던 죽음이 연간 사망자의 38.8%나 된다고 밝혔다. 회피 가능 사망이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뜻한다. 정 연구위원은 영국 통계청의 사망 원인 분류기준을 국내 데이터에 적용했다. 영국은 결핵 바이러스간염 에이즈를 비롯한 감염병, 폐암 위암 같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암, 만성질환, 자살 및 각종 안전사고 등 50여 가지를 회피 가능한 사인(死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2010년 국내 사망자 데이터에 대입했더니 10명 중 4명은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었다. 치료가 가능했는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숨진 경우가 인구 10만명당 75.5명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50.4명꼴이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병인데 막지 못해 한국인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건 폐암, 간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모두 흡연, 지나친 음주 등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젊을수록 회피 가능한 사망이 많은데, 우리나라 20대에겐 자살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유아·청소년기에 회피 가능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4세 이하, 주된 요인은 주산기 합병증과 선천성 장애였다. 40대 이하에선 치료 가능했던 사망이, 40대 이상에선 예방 가능했던 사망이 많았다. 또 흡연 등 나쁜 생활습관이 많은 남성은 예방 가능 사망에, 여성은 치료 가능 사망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회피 가능 사망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예방 가능 사고’에 의한 사망률만 크게 증가했다. 2000년 인구 10만명당 57.9명이던 예방 가능 사망률은 2010년 66명으로 14%나 늘었다. 자살, 교통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 및 안전사고 의한 사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질병 치료 성과는 비교적 높아지고 있지만 질병·사고의 예방은 아직 미흡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감안한 보건정책의 방향 설정과 대책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2.txt

제목: 환자·가족·일반인 중 절반 ‘말기 암’ 의학적 정의 모른다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8130639001  
본문: ‘말기 암’이란 용어가 명확한 정의도 없이 일반인 사이에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통합암케어센터 윤영호(사진) 교수와 이준구 전문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내 17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암 환자 1242명과 가족 1289명, 암 전문의 303명, 일반인 1006명 등 총 3840명을 대상으로 ‘말기 암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의학적으로 말기 암은 환자가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수술·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 완치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보다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 국내 암 환자와 가족들은 이런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말기 암을 해석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을 치료나 생명연장이 가능한 재발·전이암, 국소 암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결과, 의학적 판단과 같이 말기 암에 대해 시한부 선고(6개월 이내에 사망)로 본다는 응답자는 45.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 다음으로는 난치 암(항암 치료에도 암이 진행, 21.2%), 재발·전이암(19.4%), 임종기(수일·수 주 내 사망, 11.4%), 국소 암(초기는 지났으나 완치 가능, 2.5%)이란 뜻으로 본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말기 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말기 암에 대한 해석 차이는 말기 통보나 연명의료 결정 시 자칫 잘못된 선택과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은 환자 측의 오해나 잘못된 결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좀더 세심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의료커뮤니케이션 분야 국제 학술지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MDM)’ 8월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3.txt

제목: 오늘의 QT (8月 18日)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8095059002  
본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행 16:22∼23)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nd the magistrates ordered them to be stripped and beaten.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Acts 16:22∼23)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려 점치는 여인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 여인의 주인으로부터 고발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4.txt

제목: 자궁경부암, 30대 이후 매년 검진받아야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8130637001  
본문: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장흡·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오는 25∼30일, 제5회 자궁경부암 예방 ‘퍼플리본’ 캠페인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2분마다 1명, 국내에서는 하루에 3명이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 암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상피내암(기암)과 검진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는 선암이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을 맞아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성석주 교수의 도움으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다. ◇40∼50대 중년 여성에게 호발=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즉 자궁 입구 문 부위에 생긴 암을 말한다. 자궁문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든지 질을 통해 육안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자궁경부의 정상세포는 자궁암세포로 변하기 전에 반드시 ‘이형세포’라는 중간과정을 거친다. 보통 자궁암 검사라고 하면 이런 세포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궁경부암은 이형세포 단계에서 조기 발견, 암세포로 변하기 전에 암의 뿌리를 제거하는 게 상책이다.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이형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이후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span>”고 말했다. 자궁경부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은 40∼50대다. 나이가 증가하면서 발생빈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궁경부암 0기는 자궁경부 상피, 즉 자궁문 세포 중 가장 바깥쪽의 겉 세포에만 국한된 초기 상태다. 주로 25∼40세의 젊은 층 여성에게서 발견된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출산 경험과 성 경험이 많은 기혼 여성이다. 자궁경부암 발생엔 성생활이나 출산력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성관계 파트너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발생빈도가 높다. 또 첫 성교의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저소득층 여성일수록 발병 위험이 높다. 성관계로 옮는 전염성 질병, 즉 성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 역시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도 자궁경부암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1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자궁경부의 정상세포가 이형세포로 변하고, 다시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나 징후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하혈 등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는 이미 꽤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쉽다. 자궁경부암도 3기 이상 진행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되면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수술 및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이다. 3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이상이 나타나면 확진을 위해 질 확대경 검사나 자궁경부 조직검사도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암세포 발생 전 상태의 이형세포도 3단계로 진행 정도를 구별하는데, 이 이형세포나 자궁경부암 0기일 때에는, 가능한 한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법을 쓴다. 특히 앞으로 임신을 해야 할 젊은 여성의 경우엔 국소적으로 암세포만 파괴하는 자궁경부 전기소작법이나 냉동요법, 레이저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만약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도 원뿔 모양으로 자궁경부의 암세포만 도려내는 ‘원추절제술’을 사용해 자궁을 살린다. 침윤성 자궁경부암은 암이 0기를 지나 1기 이상으로 자란 경우다. 이 경우엔 자궁경부를 폭넓게 도려내는 광범위 자궁경부암 근치술이 필요하다. 암세포가 자궁방 결합조직이나 골반 림프절까지 퍼져서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 때는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제 치료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발암 위험인자 HPV에 대한 면역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을 피하고 싶다면 건전한 성생활 및 균형 있는 식생활과 함께 위생관리와 부인과검진을 습관화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5.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캡사이신 지나친 섭취, 암 부를 수도  
날짜: 2014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6130545001  
본문: 매운맛에 길들여져 식사 시 더 맵고 더 독한 것을 찾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매운 거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매운맛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된장에 찍어 먹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으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운맛을 즐기더라도 고추 섭취를 줄여야 할 듯합니다. 고추의 주성분으로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적당히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되레 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울산의대 대학원 김헌식 교수(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양보다 과도한 양의 캡사이신을 위암 세포와 혈액암 세포에 각각 투여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내 항암 수용체와 결합하고 남은 잉여 캡사이신이 ‘자연살해세포’에 붙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로 인해 자연살해세포가 위암 및 혈액암 세포를 무력화하는 힘도 각각 33%, 50%나 감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캡사이신도 과용하면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식생활에서 지나침은 모자람 못잖게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을 위해 매운맛도 짠맛 이상으로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span>”고 말했습니다.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6.txt

제목: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어떠한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참여·개혁 적극적 역할 기대  
날짜: 2014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6095049001  
본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15일 오후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해 "그 어떠한 상황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바로 이것이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나누어야 할 메시지"라고 연설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17개국에서 온 2000여명의 청년 신자들과 자리를 같이 한 교황은 청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한 뒤 대전가톨릭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시아 각국 대표로 선발된 17개국 청년 17명과 오찬을 가졌다. 영어로 진행된 오찬에서 청년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교황이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졌고 교황은 피곤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성심껏 답했다고 유흥식 대전교구장은 전했다. 교황은 언어구사가 자유롭지 않지만 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했다. 교황은 방한 전 영어 공부에 몰두했다고 한다. 오찬엔 아시아청년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보아도 함께했다. 청년들과의 만남은 교황이 밝힌 방한의 첫 번째 목적이다. 교황은 4박5일의 방한 일정 14건 중 3건을 청년과의 만남에 할애했다. 방한 이틀째인 이날도 청년에 대한 교황의 메시지는 이어졌다. 교황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청와대 연설에서도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은 선조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긴다"면서 특히 기성세대를 향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저녁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의 만남에서도 "젊은이들의 교육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해외 방문이 지난해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참석이었다는 사실까지 떠올리면 청년세대에 대한 교황의 관심은 분명 각별한 데가 있다. '청년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청년세대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고, 사회참여와 개혁을 중시하는 교황이 청년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7.txt

제목: 할리우드 원조 섹시스타 로렌 바콜 89세로 사망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4094914002  
본문: 미국 유명 여배우 로렌 바콜이 12일(현지시간) 숨졌다. 향년 89세. AFP통신은 연예전문매체 TMZ를 인용해 바콜이 이날 아침 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전했다. 바콜의 남편이었던 영화배우 험프리 보가트의 재단도 트위터를 통해 바콜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span class='quot0'>그녀의 놀라운 삶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span>”고 밝혔다. 바콜은 1942년 잡지 표지모델을 통해 영화계에 뛰어든 뒤 영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데뷔했다. 함께 출연했던 25세 연상의 보가트와 45년 결혼했다. 두 자녀를 뒀으며 57년 보가트가 암으로 사망한 뒤에는 한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60년대 브로드웨이 연극에 출연해 토니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프랭크 시내트라와 잠시 염문을 뿌렸던 바콜은 61년 배우 제이슨 로바즈와 재혼했다. 70년대 할리우드로 컴백해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을 비롯해 ‘더 팬’ ‘미저리’ 등에 출연했다. 96년 영화 ‘로즈 앤 그레고리’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처음 오르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도그빌’ ‘만델레이’ 등 영화에 조연으로 잇따라 출연했다. 바콜은 섹시한 미모와 174㎝의 큰 키,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기를 끌었다.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8.txt

제목: 육류는 굽기보다 삶는 게 좋고 후추는 양념할 때 넣지 말아야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3094849001  
본문: 암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벤조피렌과 화학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등 유해물질 섭취를 줄이려면 ‘삶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span class='quot0'>조리법만 바꿔도 발암물질 섭취를 줄일 수 있다</span>”고 밝혔다. 육류를 굽는 것보다 삶는 게 좋다고 권하는 것은 벤조피렌과 폴리염화비페닐(PCB)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구운 고기, 탄 음식,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들어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운 돼지고기에는 g당 0.77ng(나노그램), 쇠고기에는 g당 0.13ng의 벤조피렌이 생긴다. 반면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삶으면 벤조피렌 생성량은 g당 0.1ng으로 크게 줄어든다. 구워먹더라도 불이 고기에 직접 닿는 숯불이나 석쇠보다 불판을 이용하는 게 낫다. PCB는 육류의 지방에 주로 들어있다. PCB에 많이 노출되면 간기능 장애, 피부염, 현기증 등이 생길 수 있다. PCB는 육류 g당 평균 0.26ng이 들어있는데 고기를 구우면 함량이 반으로 줄고, 삶으면 4분의 1로 떨어진다. 육류를 볶기 전 양념 과정에서 후추를 넣는 것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증가시킨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암 또는 신경계통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후추에는 g당 492ng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는데 후추를 넣고 볶으면 11배, 튀기면 12배, 구우면 14배 이상으로 함량이 급증한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19.txt

제목: KT ‘인간 뇌’ 연구한다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3130144001  
본문: 사람들은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해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컴퓨터는 명령을 내리고 기억을 저장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명령하고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뇌를 연구하지 않는다. 뇌를 분석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학을 융합시키고, 사람의 뇌처럼 인지하고 학습하는 기기를 만든다. 글로벌 IT(정보통신) 업계가 ‘뇌 연구’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KT는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뇌 구조 연구에 나섰다. KT는 12일 세계적인 뇌 연구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협약을 맺고 인간의 뇌에 있는 1000억개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와 활동 원리를 파악하는 커넥톰(Connectome·뇌 지도)을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2012년 저서에서 소개한 개념인 커넥톰은 학계에서 게놈 프로젝트 이후 최대의 과학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승 교수는 온라인 게임 ‘아이와이어(EyeWire)’를 만들어 세계 최초로 신경세포를 3차원 이미지로 보여준다. 신경세포를 잇는 부분에 색을 칠해서 복잡한 뇌 지도를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 가게 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4만명 이상이 아이와이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망막의 특정 구역 신경세포 348개 중 85개의 구조가 밝혀졌다. KT는 아이와이어에 기술 인프라와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는 등 연구에 참여해 암이나 뇌질환 등 불치병 해결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span class='quot0'>KT가 선언한 융합형 기가토피아의 중요한 요소는 미래 융합서비스이고 그중 하나는 유전체 분석 솔루션을 통한 예방 중심 헬스케어</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인간의 기억과 의식에 대한 비밀을 밝혀 치매 우울증 자폐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뉴로피아(Neuropia)’에 이르는 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키겠다</span>”고 강조했다. 뇌 연구를 통해 기기에 사람의 뇌처럼 인지하는 역량과 학습하는 기능을 더하는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일 IBM은 삼성전자와 함께 인간 뇌 구조를 닮은 새로운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명령, 저장 능력에서 나아가 뇌의 인지 역량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칩은 고집적도 메모리와 저누설(low-leakage)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삼성전자의의 28㎚(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제작됐다. 지난해에는 퀄컴이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0.txt

제목: [헬스 파일] 위암 전 단계 담적병 극복법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1125855001  
본문: 우리나라 암 환자 2명 중 약 1명은 소화기 암 환자다. 국가 암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암 중 2위와 3위에 오른 위암(14.5%)과 대장암(12.9%)만 해도 전체 암 환자의 27.4%를 차지한다. 여기에 식도암과 췌장암, 간·담도암까지 합치게 되면 발생률이 40%안팎까지 높아진다. 우리나라엔 평소 속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을 찾아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이상 소견’이 안 나와 고민하는 만성 신경성(?) 위장질환자도 너무 많다. 툭하면 꺽꺽 트림을 하고, 명치에서 목까지 무엇인가가 막고 있는 듯해서 음식을 잘 못 먹고, 자주 얹히고, 공복이나 새벽에 속이 쓰린데 잘 안 낫고,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더부룩해서 위내시경검사를 해봐도 별 문제 없다는 진단을 받기 일쑤라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소위 속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위장병 환자 10명 중 6∼7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화기암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힘든 신경성 위장병 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현대의학이 그동안 간과해온 ‘담적병’(痰積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담적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 말고, 다른 위장 조직에 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위장 속을 맨눈으로 보듯 샅샅이 뒤질 수 있는 내시경검사는 사실 위장 내 점막만 보는데 그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제 우리의 위장은 총 4개 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두께가 3∼8㎜에 이른다. 따라서 내시경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두꺼운 위벽의 한 층, 즉 점막층 뿐이다. 위점막 하층에 숨은, 나머지 3개 층에 생긴 변화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위산으로 잘게 부숴 그 속의 영양분을 소화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소화효소와 면역, 신경, 호르몬, 혈관, 근육 등은 모두 점막 하층에 존재한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위장 내 점막이 깨끗해 보인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속이 거북한 경우 위벽을 이루는 이들 3개 층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성 위장병의 실체이자, 소화기암 발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담적병은 과식, 폭식, 급식, 야식, 독성 음식 등에 의해 유발된다. 무절제한 식습관은 몸속에 노폐물을 양산하고, 그 노폐물이 부패하며 유해물질 담(痰)을 만들고, 그 독성이 위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 위벽 조직 내 3개 층에 계속 쌓이게 된다. 각종 위장 이상 증상은 이로 인한 결과물인 셈이다. 담적병은 일반 소화제나 위장약으론 치료가 안 된다.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특수 약물로 위 조직에 숨어든 담 독소를 배출시키고, 병들어 딱딱하게 굳은 위벽 조직을 풀어주어야 해결된다.최서형 위담한방병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1.txt

제목: [기독여성CEO 열전] (30) 정은경 골든코스컴퍼니 대표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11125847001  
본문: 그는 속칭 '잘나가는' 피아니스트였다. 미국 동부지역 4대 명문 음대 중 하나인 뉴욕 맨해튼 음대에서 공부했다. 1994년에는 뉴욕 링컨센터에서, 98년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그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좋은 연주가가 대학교수로 이어지는 한국 음악계에서 그는 늘 꿈꾸던 교수 임용의 문턱까지 와 있었다. 현재 ㈜골든코스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정은경(46) 대표 이야기다. 골든코스컴퍼니는 공연기획은 물론 음반제작 및 유통, 출판까지 손을 뻗치는 회사다.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클래식 공연계에서는 꽤나 유명하다. ‘Mr. 재즈, Miss. 클래식의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 ‘클래식-재즈 매력에 빠지다’ ‘나, 너,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등 굵직한 공연들을 기획했다. 대학교수 자리가 눈앞에 보였던 그는 어쩌다 공연기획사의 대표가 됐을까. 지난 6일 서울 용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살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게 저를 공연기획자로 만들었네요(웃음).” 수술대 오르면서 약속 정 대표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한 건 98년이다. 예술의전당 공연을 마치고 나니 아침마다 손가락이 쑤셨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그의 손에 ‘관절 류머티즘’ 판정을 내렸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잠깐씩 피아노를 치는 건 괜찮지만 10시간씩 연습하는 건 안 된다</span>”고 했다. 꿈은 그렇게 사라졌다. 머리 한쪽에 있던 교수의 자리는 우울증이 채웠다. 한동안은 아예 공연 보는 걸 포기했다. 지인들의 초청이 있을 때 몇 번 가긴 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공연에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저 부분은 왜 저렇게 치지’ ‘나라면 더 잘 칠 텐데’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잡은 것도 피아노였다. 직접 칠 순 없었지만 가르치는 건 가능했다. 99년 경기도 일산에 피아노 입시학원을 차렸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원은 번창했다. 5년이 흐른 2004년 정 대표의 학원은 교사만 23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5년 정 대표의 삶은 다시 한 번 흔들렸다. 어느 날 가슴에 기분 나쁜 통증이 밀려왔다. 정 대표는 “크게 아프지는 않았다. 그런데 병원은 한 번 가 봐야 할 것 같았다. 묘한 기분이 영 꺼림칙해 국립암센터로 바로 갔다”고 말했다. 그의 육감은 틀리지 않았다. 진단은 유방암, 진행도는 초기였다. 의사는 간단한 절제술로 종양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다. 수술은 간단하지 않았다. 첫 수술 후 이어진 조직검사에서 암 세포 전이 사실을 발견했다. 곧장 2차 수술에 들어갔다. 의사는 이번에도 많이 번진 게 아니니 조금만 더 잘라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술은 한 번 더 이어졌다. 2차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도 또다시 전이된 탓이다. 결국 그녀의 가슴은 완전히 절제됐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수술을 세 번이나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피아노니까 자선음악회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 이정도로는 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한 게 앞으로 20년 동안 먹고사는 것만 빼놓고 모두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오르면서 하나 더 약속했죠. 남들이 정말 하기 싫은 봉사를 제가 찾아 하겠다고요.” 수익과 봉사를 모두 추구 정 대표는 퇴원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피아노학원 대표로는 음악회를 열 수 없었다. 마침 예전에 만든 법인 위드뮤직이 있었다. 법무사였던 한 학부모가 선물로 만들어 준 법인이었다. “막상 공연을 준비하려고 보니 필요한 게 많았어요. 단순히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음악만 들려주려고 했는데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도 몇 명 뽑고 하다 보니 공연기획사가 돼 있더군요.” 이후 정 대표는 공연기획에 매진했다. 대부분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공연이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꾸민 공연은 2007년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암 환자 자녀 돕기 음악회’다. 당시 공연 수익금 대부분을 암 환자 자녀에게 기부했다. 그렇다고 수익을 챙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연 기획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받았고, 고생한 연주자들도 넉넉히 챙겨줬다. 다만 수익을 낸 이후에 다시 기부하는 일이 많아 큰 흑자를 내진 않았다. 이후로도 정 대표의 회사는 의미 있는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데 주력했다. 다문화가정 노숙인 장애인 등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꾸준히 기획했다. 나중에는 단순히 음악공연뿐 아니라 뮤지컬과 교육프로그램 토크콘서트까지 만들어 무대 위에 올렸다. 지난해 말 회사명을 위드뮤직에서 골든코스컴퍼니로 바꾼 것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곳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달 정 대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콘서트를 연다. 얼핏 보면 최근 화제가 되는 사회적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정 대표는 결코 아니라고 답한다. “저요, 돈 엄청 좋아해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봉사하는 무대에 공연을 올린 게 많을 뿐이지 다른 기획은 철저히 제대로 따져 받습니다. 수익은 수익대로 내야 공연자들 출연료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고, 봉사도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웃음)?”정은경 대표△1968년 출생 △1990년 전주대 졸업 △1992년 미국 브루클린 콘서바토리(음악학교) 졸업 △1994년 미국 맨해튼음대 대학원 석사 △2007년∼ ㈔희망의소리 상임이사 △2011년∼ 고양상공회의소 상임위원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2.txt

제목: [힐링노트-오인숙] 아파트 이웃들  
날짜: 2014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9094647002  
본문: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삼년이 다 되어간다. 우리 아파트는 201동 505호다. 맞은 편 집은 506호다. 그런데 506호 아저씨는 여전히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인사를 하면 고개도 들지 않고 도망치듯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 친밀해지기 위한 시도를 몇 번 했지만 반응이 없어 우리 식구들은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위층은 605호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의 위층은 대단했었다. 엄마의 고함치는 소리, 두 아들이 맞고함 치는 소리를 거의 매일 들어야 했었다. 덕분에 층간소음에 단련된 바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는 참고 넘어갔었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입사시험 준비를 하던 조카가 참다못해 605호로 올라갔다. 잠시 후 605호 아기엄마가 떡을 가지고 내려왔다. 죄송하다며 사정을 이야기했다. 여섯 살 딸과 시골에서 내려온 여동생의 아들이 뛰어노느라 소음을 냈다는 거였다. 여동생은 암 투병 중이라 서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이면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요즘이 그 기간이라는 거였다. 그 후 605호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요란해지면 우리 식구들은 ‘시골에서 조카가 왔구나’라고 생각한다. 605호 아기엄마는 요즘 시골 친정에서 무공해로 키웠다는 옥수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는 동생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누구나 이웃을 괴롭힐 이유로 소음을 내지는 않는다. 본의 아니게 또는 배려심이 부족하여 소음을 낼 수는 있지만 층층이 사는 서로가 조금씩 참아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506호 아저씨는 여전하지만 요즘 알게 된 그 집 딸과 아들은 인사도 잘하고 다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 부부가 ‘부끄러움이 많은가 보다’고 해석했다. 아파트 이웃은 서로 좋은 해석을 해야 할 것 같다. 오인숙(치유상담교육연구원 교수·작가)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3.txt

제목: [슬로 뉴스] 말기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생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날짜: 2014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7125542001  
본문: 한 해 우리나라에서 평균 25만명이 죽습니다. 그중 자살이나 사고사는 10% 남짓. 나머지 90%는 병이나 암, 고령 등으로 죽습니다. 암 사망자는 7만명. 암 환자를 비롯해 대다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닙니다. 말기라는 시간을 지나쳐 임종에 이릅니다. 의학적으로 말기란 판정은 ①적극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②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③잔여수명이 3∼6개월 있는 상태에서 내려집니다. 삶의 마지막 시간, 말기를 돌보는 의사가 있습니다. 임종의료 의사, 완화의료 의사, 호스피스 의사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50) 교수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의사 생활의 대부분을 말기 암 환자들과 보냈습니다.한국인의 마지막 모습 윤 교수는 최근 한국인의 임종 실태를 다룬 책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엘도라도)를 출간했습니다. 한국인의 임종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둘 것이냐고 책을 통해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윤 교수는 세 가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말기 환자 가운데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58%에 불과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 10명 중 4∼5명은 자신에게 삶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가망 없는 연명치료에 매달리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도 없이 극심한 통증 속에서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 마디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는 응답자가 40∼50%에 이릅니다. 그러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죽는 사람은 18.8% 밖에 안 됩니다. 70.1%는 병원에서 죽습니다. 집에서 치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실정입니다. 집은 가장 이상적인 임종의 공간이지만 누구도 집에서 죽지 못합니다. 윤 교수는 "말기의 풍경이 비참하다 보니 죽음은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되어버렸다"면서 "한국인의 가정과 일상에서 죽음이 소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드물긴 하지만 아름다운 임종도 있습니다. 윤 교수도 몇 차례 그런 임종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대장암 말기였는데, 남편이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요. 남편은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았고 스스로 그 일을 하고자 했어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던 그 두 분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말기 환자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가 치료를 했죠. 식도가 막혀서 거의 못 먹는 상태였는데도 1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집에 가보면 말기 환자가 있는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족들 관계가 화목했어요. 그 환자는 말기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었죠." '좋은 죽음'이나 '죽음의 질'을 논할 때 임종 장소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89년에는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77.4%나 될 정도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병원이 지배적인 임종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 교수는 "병원이 과연 바람직한 임종의 장소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말기, 자기 인생을 완성하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서너 달의 짧은 시간, 말기는 삶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윤 교수는 "말기 환자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주어진다"면서 "그 시간을 죽음의 지연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가 만나는 환자들은 전부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항암 등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 있는 이들로 잔여수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윤 교수는 이들에게 완화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해 주는 한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인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처음 만나는 환자에게 그는 자신을 '삶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 교수가 만나는 환자들은 2주나 한 달 안에 대부분 사망합니다. 다들 너무 늦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기라는 사실을 몰라서 늦고, 연명치료에 매달리다 늦고, 혼자 고통을 참다가 늦습니다. 윤 교수는 1992년 '암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첫 논문을 썼습니다. 2004년에는 '말기암이란 사실을 알려야 하나'라는 논문을 써서 세계적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말기 환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쟁점이지만 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환자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 삶을 다시 펼쳐보며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늦어서 그들의 인생을 완성할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간 말기를 맞은 시한부 인생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모두에게 감사하며 품위 있게 임종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말기의 삶은 좀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통스럽지 않고, 품위 있게 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윤 교수는 호스피스 시설의 확대와 국가의 역할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임종의 장소는 집 근처 호스피스 시설로 봅니다. 그가 "호스피스에서 죽게 하자"고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콘도처럼 편안하고, 가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는 환경이라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적당하지 않을까요?" 호스피스는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고통을 조절하는 치료가 가능하고 가족들의 곁에서 품위를 지키며 임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호스피스 병상 수는 880개로 필요 병상(2500개)의 35.2% 수준을 겨우 충족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대학병원의 장례식장부터 호스피스센터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우리에게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좋고 접근성 좋은 호스피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 난제에 대해 윤 교수가 찾아낸 답은 '국가'입니다. 누구나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의 마지막 시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입맛 없다면 ‘식욕촉진제’ 복용도 방법”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259001  
본문: “환자들은 ‘∼하더라’라는 소위 카더라 통신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면 혼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주변인에게 물어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렇게 내린 판단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에게 묻는 것이 어렵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암을 정확히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이경희 교수(사진)의 연구실은 많은 책들로 혼잡했다. 연구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암환자들이 읽기 편한 대중서적들도 많았다.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이었다. 이 교수는 진료실을 찾은 암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책 한 권씩을 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상한 정보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묻는 것은 금물이다. 이때 책 한 권이 치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TV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암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경희 교수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들 매체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가 모두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인지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담당 의사를 통해 얻는 정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가 회진을 돌 때마다 보호자들에게 던지는 첫 질문은 ‘식사 잘하셨습니까’다. 암환자의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암환자의 불규칙한 식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적 증상을 초래한다. 몸이 괴로우니 입맛이 살아날 일이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암환자의 식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듯 암환자도 식사를 잘하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 결과적으로는 치료에 대한 용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홀로 암과 맞서 싸우는 환자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암은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무척 벅찬 상대다. 가족의 위로와 지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자서 병원을 찾는 암환자도 드물지 않다. 이 경우 대개 식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병원마다 암환자 영양 상담을 해주는 곳이 늘고 있다. 영양 간호사가 환자의 1주일 식단을 짜주기도 하고 환자의 식습관을 살펴서 문제점을 찾아준다. 단식원이나 종교적 모임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환자들은 대개 담당의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경우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렵다면 식욕촉진제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메게이스는 암환자의 떨어진 식욕을 도와주는 약이다. 약을 먹고 나면 즉각적으로 입맛이 살아나는 환자도 있다. 잘 먹게 되니 환자의 삶의 질이 금세 올라간다. 하지만 이 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경희 교수는 “<span class='quot0'>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배탈이 나서 힘들게 쌓아올린 면역력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5.txt

제목: “세균 유입 경로” VS “50년간 안전성 입증”… ‘투바디 치아 임플란트’ 암 유발 논란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406001  
본문: "투바디(Two-Body·조립형) 치아 임플란트가 암을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P.진지발리스)의 유입 경로가 되고 있다."(본보 7월 15일자 참조) 현직 치과의사의 이 같은 임플란트 부작용 주장에 치과계가 임플란트 시술은 50여 년간 높은 성공률을 보여 왔고, 안전성도 임상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치과이식학회,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치주과학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투바디 임플란트의 위해성을 보고한 신세계치과(서울소재) 황정빈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 인정되는 임플란트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보철물의 손상”이라며 “구취는 구강 내 휘발성 화합물에 의한 것이지 임플란트와는 관련성이 낮다. 다만 임플란트 주변의 냄새는 투피스 임플란트를 보수, 유지하기 위해 체결된 부분을 분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진지발리스균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에 서식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틈이 있는 모든 곳은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 이들 학회는 “구강 내 수복물이 임플란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듯 수복물과 치아 사이 이음새를 밀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곳에서도 치주질환의 원인균이 서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피스(One-Piece)형 임플란트는 이음새가 없어 세균 서식의 환경적 요인이 적을 수 있으나 그 주변 역시 기존 임플란트와 같은 연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기존 임플란트와 같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치주질환은 진지발리스 세균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인성질환(Multifactorial disease)이며 구강 내에는 700여종의 다양한 세균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으므로 하나의 세균이 모든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유발 가능에 대한 황 원장의 주장은 특별한 위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중론(衆論)이다. 치과계의 반박에 황 원장은 또다시 관련 논문을 제시하며 “<span class='quot1'>WHO(세계보건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수천 명의 과학자가 전신질환과 암의 원인이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에 존재하는 세균이 전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학회의 해명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span>”고 재반박했다. 황 원장은 “<span class='quot1'>구강 내 세균 감염이 암, 당뇨, 류머티스 등의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다</span>”고 전제한 뒤, “<span class='quot1'>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한 환자의 썩은 이를 뽑아서 관절염을 치료했다</span>”고 역설했다. 실제 류머티스 관절염은 구강 내 세균인 P.진지발리스균이 유발하는 것으로 2009년 네이처(nature)지에서 발표한바 있다. 황 원장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가 위암과 췌장암의 원인 균으로 간주됐고, 최근에는 구강 내 존재하는 치주질환의 원인균인 P.진지발리스균이 췌장암과 유방암, 신장암을 비롯한 구강 소화기암의 주요 원인균으로 제시되고 있다. 황 원장은 미국 플로리다대학 치주과 일마즈(�wzlem Yilmaz) 교수의 논문을 통해 P.진지발리스와 여러 세균들이 입안의 치아와 잇몸 주변에 있는데 경우에 따라 잇몸의 세포 안으로 세균들이 침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지발리스는 또 다른 세균에 없는 PAD(Peptidylarginine deiminase)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시트룰린화(단백질)·MMP(matrix metaooprotease 숙주효소로 자기 몸을 파괴함) 생성 촉진을 통해 류머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종양 유방암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Peptidylarginine Deiminase and Citrullination 논문). 황 원장은 “<span class='quot1'>P.진지발리스는 항생제에 취약한 균이지만 잇몸의 각질상피세포 내에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살균이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을 통해서만 제거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 시점에서 투바디 치아 임플란트에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상위 교수 “2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환자 생존기간 늘린다”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426001  
본문: ‘걸리면 죽는 암’으로 알려진 폐암,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탓에 생존율이 다른 암 종에 비해 매우 낮다.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완치가 불가능한 폐암 환자들에게 항암화학요법은 마지막 희망이 되지만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그 치료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항암제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높인 폐암 표적치료제가 등장했다. 암세포의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게피티닙이나 얼로티닙이 대표적인 약제들이며 최근 이들 1세대 약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료효과를 높인 2세대 표적치료제인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이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상위 교수를 만나 폐암 환자의 표적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상위 교수는 “폐암은 종류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폐암은 크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소세포폐암과 느린 비소세포암으로 나뉜다.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은 다시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으로 구분된다. 최근 선암의 발병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EGFR 라는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환자가 많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비흡연자인 여성 폐암 환자에게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60∼70%정도로 높다. 이런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들은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면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폐암 환자에게 사용해온 1세대 표적치료제는 생존율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일반 항암치료를 할 경우 평균 생존율은 8∼10개월이지만 표적치료를 받을 수 있는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들은 표적치료제 사용 시 약 2년까지 생존한다는 보고가 있다. 1세대 표적치료제가 폐암 환자의 평균 생존율을 두 배로 올렸지만 내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세대 표적치료제는 암 성장에 핵심적인 특정 단백질 수용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작용을 통해서 성장신호를 차단하고 세포를 사멸시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표적치료제가 붙지 못하도록 하는 반동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내성 기전이다. 지오트립과 같은 2세대 치료제는 1세대 치료제와 달리 비가역적(irreversible)으로 계속 수용체에 붙어 있으며 EGFR을 포함한 ErbB Family 수용체를 폭넓게 억제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내성이 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오트립과 같은 표적치료제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당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김상위 교수는 “EGFR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표적치료제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고 더 좋은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세대 표적치료제인 지오트립의 경우 70%의 아시아인이 포함된 임상 시험에서 11.1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보였다. 6.9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을 보인 일반 항암제 치료의 2배되는 수치다. 무진행생존기간은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유지되어 종양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서 환자가 생존한 기간을 의미하며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폐암의 5년 생존율이 다른 암 종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1년에 가까운 무진행생존기간은 삶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1세대 폐암 표적치료제와 차세대 지오트립의 효능과 독성을 비교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이 연구가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위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며 환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높인 표적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폐암이 그 선두에 있다고 본다. 과거 걸리면 죽는 병에서 이제는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질환으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용기와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한다면 좋은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병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 내 진료비 확인 어떻게?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258001  
본문: A병원에 폐암으로 46일간 입원해 치료받은 김모씨는 폐엽절제수술 후 면역기능이 저하돼 진균감염증 예방을 목적으로 원플루주사약을 전액(25만4996원) 본인부담으로 투여받았다. 김씨는 이후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을 통해 보험급여에 해당되는데도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로 징수한 것을 알아내고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의 5%)을 제외한 주사약제비용 24만2246원을 환불받았다.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 의료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암의 경우 2012년 기준 진료인원 98만4166명, 진료비 4조149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치료재료비·병실료·간병료·약제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진료비 금액이 적다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환자들은 혹시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의료기관이 제도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 가기 전 ‘병원진료비 정보’를, 진료를 받고 난 후에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높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비가 제대로 지불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병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만약 비급여 처리된 진료비 중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년간 환불 진료비는 525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진료비 환불을 보면 2011년 9932건(36억원)에서 2012년 1만1568건(45억원), 2013년 9639건(31억원)으로 나타났다. 확인신청 10명 중 4명은 환불을 받았는데 특히 대학병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암 등의 중증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상급병원에서 환불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비 확인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그동안 구(區) 단위로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진료비 정보=수술 종류와 지역, 병원 종류에 따라 예상 진료비와 입원일수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선택진료·특실료 등의 비급여 대상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 수술비용, 입원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규모 병원의 평균 진료비·입원일수를 비교해 치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사전에 진료비 궁금증 해소=모든 비급여 진료비가 환불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기 전에 자신이 환불 대상인지 아닌지 직접 가늠해보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이 그것인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을 때 심사결과가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환불금이 없는 경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진료비 환불예측 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국민은 서류 확인, 신청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환불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고,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진료비 확인서비스=환자가 병·의원에서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특히 선택진료, 수술, 입원 등의 비급여 항목이 많은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들을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지불한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비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 드리는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span>”라며 “<span class='quot0'>심평원 홈페이지, 우편, 방문 및 스마트폰 ‘진료비확인’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span>”라고 말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8.txt

제목: [항암제이야기]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볼라설팁’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094434001  
본문: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은 골수와 혈액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암으로 모든 백혈병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70세로 주로 연령이 높은 성인에서 많이 발병한다. 현재 권고되는 표준 치료요법은 집중 화학요법이지만 연령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집중 화학요법을 견뎌내지 못하며, 치료 예후 또한 좋지 않다. 최근 이러한 고령의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항암제 후보물질인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 ‘볼라설팁(volaserti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연합 규제당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약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치료법이나 진단 방법이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희귀질환의 치료제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 약물로 선정한다. 희귀의약품지정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과 허가 절차에 도움을 주는 규제 지원 및 장려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의 기전은 무엇일까. 볼라설팁은 세포 성장 및 과도한 분열을 억제하는 효소를 표적화하는 선택적 Plk(Polo-like kinase) 억제제다. Plk1은 Plk과에 속하며, 그 특성이 가장 잘 규명된 키나제이다. 볼라설팁으로 Plk1을 억제하면 세포 주기가 정지되고 궁극적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Plk1 활동을 억제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종양 세포 성장을 멈추고 종양 세포의 활발한 분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어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볼라설팁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두 개의 후기 임상 단계의 항암제 신약 후보화합물질 중 하나이다. 이는 현재 3상 개발 단계다. 3상 연구인 POLO-AML-2는, 집중 관해유도요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65세 이상의 AML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 사이타라빈(화학요법의 한 형태)과 볼라설팁의 병용요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볼라설팁은 제1, 2상 임상 시험을 통해 화학요법과 병용 치료할 경우,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올해 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제한된 치료요법으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볼라설팁이 향후 출시될 경우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지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span class='quot0'>현재 진행 중인 볼라설팁 제3상 임상 연구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이 약물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엄기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볼라설팁은 미국에서도 임상 진행 중인 약이며 국내 임상 등의 도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약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획기적인 치료약이 될 수 있을지는 다른 약과의 비교임상 등을 통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DNA 백신, 질병 예방 넘어 감염환자 치료도 가능”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349001  
본문: “DNA 백신은 기존 백신이 지니던 기능이자 한계였던 질병예방 차원을 넘어서 치료개념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백신입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여겨져왔던 암이나 에이즈 등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전염병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희생하는 무수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4 DNA 백신 학술대회에서 대회 의장을 맡은 펜실베이니아대 데이비드 와이너(David Weiner) 박사는 DNA를 이용한 새로운 백신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와이너 박사를 포함해 이노비오 사의 종 조셉 킴(J. Joseph Kim) 박사 등 DNA 백신 분야의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모여 DNA 백신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백신은 20세기 공공보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온 발명품으로 일컬어진다. 백신 덕에 무수히 많은 전염병이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거의 사려졌다. 콜레라, 결핵,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적절한 치료 기술이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감염성 질환들이 백신의 개발로 효과적으로 퇴치될 수 있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의 수혜를 많이 입은 나라이기도 하다. 영유아가 홍역으로 집단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인해 불구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백신은 병원체에 노출되기 전 미리 접종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작용 논란으로 백신 반대론까지 불거지면서 한때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DNA 백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백신이 지닌 한계와 단점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우선 ‘예방용’으로 머물러 있던 기존 백신과 달리 DNA 백신은 이미 감염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백신이다. 또한 DNA 백신은 ‘치료제’로서 역할을 다한 뒤 해당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원성을 장기간 유지시켜 예방백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체는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 두 가지의 면역체계를 작동시킨다. 하나는 항체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액성 면역과 T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세포성 면역이다. 기존의 백신은 항체 생성에만 의존한 탓에 충분한 예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감염되는 이유는 이 탓이다. DNA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T세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기술은 종래 백신기술로는 예방이 어려웠던 에이즈나 암 등에 대한 백신 연구·개발이 가능하게끔 한다. 더불어 일각에서 백신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알루미늄이나 수은과 같은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기존 백신에 비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병원체를 체내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존 백신은 실제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DNA 백신은 체내에서 병원체의 특정 부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조셉 박사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될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조셉 박사는 “DNA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된 많은 연구가 있다. 미국 FDA도 더 이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흔히 DNA 백신이라고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DNA를 직접 주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 세포 안에서 항원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병원성 균이나 바이러스가 잔존하는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국내 바이오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여한 진원생명과학은 대회 마지막 날 C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DNA 백신 임상1상 결과를 발표해 세계 석학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C형간염의 표준치료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내성 문제와 비싼 약값 때문에 조절이 어려운 질환이란 점에서 치료백신 개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진원생명과학 박영근 대표는 “항바이러스제는 수주 후에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는 내성의 출현과 면역력의 감퇴 때문이다. 하지만 DNA 백신을 이용하면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 내년 임상2상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0.txt

제목: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국민일보·세복협 공동캠페인] 미국 한마음교회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309001  
본문: 이상훈(45) 전도사는 목회에 뜻이 없었다. 목회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침례신학대를 졸업했지만 전도사로 봉사하는 데 만족했다.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 침례신학대로 유학을 갔지만 여전히 목회에 대한 비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무조건 목사가 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담임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영어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세를 잘 보조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전도사로 섬기며 미국 시민권도 얻었지만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겪으며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한 성도의 집에 다녀오던 길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 핸들에 가슴을 부딪쳤는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다친 가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장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미국 의료보험이 없던 이 전도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대에 올랐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 전도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장암을 발견한 뒤 전도사로만 봉사하고자 했던 생각도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치료를 끝내고 반 년 만에 돌아간 미국은 달라져 있었다. 그가 5년 동안 섬기던 교회가 분열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한 성도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 그에게 다른 여러 교회를 소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전도사는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풀러턴의 한 공원에서 이 성도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한마음교회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한 영혼도 네게 준 양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제게 맡긴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와 함께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점차 늘어갔다. 지난 1월에는 한 성도의 도움으로 33㎡(10평) 규모의 작은 예배당도 마련했다. 최근 이 예배당의 계약이 만료됐지만 다행히 같은 건물 안에 다른 공간을 구했다. 현재 8명의 성도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전도사는 “예배당에는 강대상, 마이크, 기타, 의자 10여개가 전부”라며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도사는 한마음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목회를 꿈꾸고 있다. “어렵지만 한마음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합니다. 뒤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 한국과 미국 어떤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끌어주고,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진삼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1.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약가 인하, 신약개발 先 투자가 답이다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257001  
본문: 필자의 기억에 2005∼2006년도는 병원에서 연구원들과 2세대 표적항암제 스프라이셀, 타시그나의 국제 2상 임상연구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맡아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사(BMS)의 스프라이셀과 2000년 초 글리벡 개발을 필두로 전 세계 항암제 개발 제약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타시그나 임상연구가 2005년 같은 해에 동시에 시작돼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항암제 개발 연구 분위기를 화끈하게 달구고 있었다. 환자수가 다른 암에 비해 훨씬 적고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상 임상연구여서 해당 제약사들은 서로 더 많은 우수한 임상연구기관과 환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2가지 표적항암제의 연구에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부터 100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스프라이셀 임상연구에는 약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모집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사의 타시그나 임상연구에는 약 700명 이상의 환자가 참여했다. 자사의 임상연구에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함으로써 상대방 회사의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수를 줄여 상대적으로 더 빠른 기간 내에 먼저 2상 임상연구를 마치고, 처음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연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사 간의 경쟁은 치열했다.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2000명 이상의 2상 연구 환자를 모집한 BMS의 연구 계획서에는 다양한 용법, 용량에 대한 연구도 포함돼 오늘날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간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경쟁 치료제인 타시그나의 1일 2회 공복시 복용이라는 불편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었다. 개발이 늦어 2008년도에나 2상 임상연구가 시작된 화이자사의 보슬립과 일양약품의 슈펙트 임상연구는 이미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의 시판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어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상 연구에 대상 환자의 모집이 아주 어려웠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의 연구 계획서는 글리벡 내성뿐만 아니라 스프라이셀 또는 타시그나 치료에 실패한 환자까지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켰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상 치료 유효율을 최대로 올려 대상 환자 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임상연구를 시작했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국산 2세대 표적항암제 슈펙트는 1상과 2상 임상연구를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결과 도출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개별 노력만으로 블록버스터급 항암 신약의 전임상·임상연구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 아래 국내 제약사의 역량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3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단’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국내 개발자나 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진다. 2013년 미국혈액학회 공식 의학잡지인 블러드(Blood)지 사설에 실린 ‘일양약품이 개발한 슈펙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항암제 치료 약가가 가장 싼 국가는 한국이다’는 내용에 주목해 보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재정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의료 소비자인 암 환자들에게 고가라는 이유로 항암신약의 보험 처방을 1∼2년 이상 지연하는 부자연스러운 반인권적 약가 인하 정책이 아닌, 자연스럽게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국산 항암신약 개발에 선 투자하는 것’임을 국회와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 같다. 김동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2.txt

제목: [현장에서-조민규] 정부 금연정책, 흡연자를 위한 것일까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5125259002  
본문: 정부가 2004년 이후 10년간 유지돼 온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거의 동시에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 사례를 담은 담배 혐오 광고의 방영을 시작했고, PC방에 이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이토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최근 발표된 ‘OECD 헬스데이터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7.6%로 전체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은 정부로서는 기존의 금연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담배 혐오광고, 담뱃세 인상, 흡연피해 소송 등으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흡연자들 역시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금연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흡연자의 72.6%는 금연계획이 있고, 55.3%는 금연을 시도해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의료진을 위한 금연진료 안내서’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내서는 약물치료가 수반될 경우 금연 성공률은 6.5배 이상 높은 26%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등 ‘금연 지원책’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최근 금연에 나선 한 지인은 “금연을 위해 월 20여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 금연치료제가 약 13만원이고 금연보조제 등에 5만∼6만원이 추가로 드는데 효과는 있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매일 한 갑씩(2500원 기준) 한 달간 담배를 피울 경우 7만5000원이 드는데 금연을 위해서는 추가로 10여만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흡연은 거의 모든 종류의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대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6.5배 높고, 흡연으로 인한 암·심장·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치료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연치료 급여화를 통해 질환의 발생과 사회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악’인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력으로는 4%대에 불과한 금연 성공률에 도전해 보라고 흡연자들을 몰아세우기보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연 지원책을 포함한 창조적 금연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3.txt

제목: [메디컬뉴스] 삼성서울병원, 간이식 수술 1500회 돌파 外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4094333001  
본문: 간이식 수술 1500회 돌파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장기이식센터 이석구, 조재원, 권준혁, 김종만, 최규성 교수팀이 간이식 수술 1500회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1500번째 간이식 수술 환자는 급성 간 기능 부전과 간성혼수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통해 기증받은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원 국산화 성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포항가속기연구소, ㈜태성정밀 등과 공동으로 방사선 치료기의 핵심장치인 방사선원(X-선·전자선)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엑스선·전자선 방사선원은 암 치료기 뿐만 아니라 재료, 환경, 소재, 비파괴 분야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황반변성 예방 위한 썬플라워 캠페인 콘서트 순천향대서울병원은 한국실명재단과 함께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황반변성 예방을 위한 썬플라워 캠페인 콘서트’를 개최한다. 황반변성 환자들과 후원자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 가수 신효범, 이동우, 장원기 등과 재즈 아티스트 대니정, 연극배우 박정자, 시인 문정희,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 고려대병원 앙상블, 한양대병원 합창단, 순천향대서울병원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02-539-9143).5일 '꼿꼿한 척추관절 교실' 개최 자생한방병원은 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SS빌딩 2층 회의실에서 ‘꼿꼿한 척추관절 교실’을 개최한다. 한의사 성익현씨가 다양한 척추질환의 원인을 설명하고 각각의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려준다(1577-0007).'소아청소년 뇌종양' 공개건강강좌 서울대어린이병원은 7일 오후 4시 임상 제2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뇌종양’을 주제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방사선종양학과 김일한, 소아청소년과 박경덕 교수 등이다(02-2072-3444).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4.txt

제목: 근종 제거, 자궁 적출이 최선책 아니다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4094334001  
본문: 배우 신애라씨가 과거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던 사연을 공개해 화제다. 신씨는 지난 달 2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주년 특집방송에 출연해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 사이에 자궁근종이 있으면 자궁을 들어내는 게 최선책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궁까지 들어냈을까 하는 동정론 못잖게 복강 내 전이가 우려되는 암도 아닌데, 여성의 상징인 자궁을 적출한 신씨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양성종양이다. 주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30∼40대에 많이 발생한다. 가임기 여성의 30% 정도가 자궁근종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미혼여성에게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궁근종 환자의 절반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다. 가장 흔한 이상 증상으로는 생리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다. 또 골반과 하복부 통증, 생리통,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궁출혈(부정출혈), 배뇨장애, 빈뇨, 과도한 변비, 성교통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궁근종은 혹의 크기나 위치, 성질, 환자의 나이, 상태 등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 보통 증상이 없고 5㎝미만일 때는 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 근종이 계속 자라서 너무 커지거나 통증과 출혈(하혈)을 유발할 때는 수술로 도려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배꼽을 통한 복강경 수술로 최대한 자궁을 보존하면서 혹만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수술은 배꼽 피부만 2㎝ 정도 째고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임수현 과장은 “<span class='quot0'>가임기 여성의 경우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진을 받아 작은 이상이라도 조기에 발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자궁건강을 지키는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5.txt

제목: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② 국내 유일 십자가 전문 사진작가 권산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4125217001  
본문: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다. "빛이 보고 싶다." 방이 어둡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청에 아들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 아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환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진에서 본 건 빛이 아니었다. 십(十)자 모양의 창틀이었다. 신앙이 두터웠던 아버지는 그 사진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다. 사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었다. 아버지는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2012년 6월이었다. 임종 당시 아버지는 나무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들은 왠지 그 모습이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아들은 카메라를 들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십자가를 찍었다. 교회 첨탑이나 예배당에 내걸린 십자가가 아니었다. 길섶이나 건물 속에 숨은 십자가의 형상을 촬영했다. 아들의 이름은 국내에서 유일한 십자가 전문 사진작가인 권산(본명 권오일·43)씨다. 지난달 29일 권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이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아스팔트는 이글거렸고 도로에는 차들이 쌩쌩 내달렸다. 이곳은 권씨가 선택한 오늘의 십자가 촬영지. 그는 카메라를 들고 반포대교까지 약 1㎞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권씨의 분신과도 같은 DSLR 카메라는 벽돌처럼 무거워 보였다. “날씨도 더운데 매일 이렇게 촬영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이런 곳에 십자가가 있긴 한가요?” “하나님이 출근할 때 나와 하나님이 퇴근할 때 귀가합니다(웃음). 햇볕이 조명이고 자연이 스튜디오죠. 십자가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권씨가 가리킨 곳은 평범한 맨홀뚜껑이었다. 그는 맨홀뚜껑을 카메라로 찍었다. 신기하게도 카메라 액정에는 십자가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맨홀뚜껑 무늬에 새겨진 십자가였다(사진①). 몇 걸음 걷더니 이번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보도블록 틈 사이로 아카시아 꽃잎이 십자가 모양으로 예쁘게 쌓여 있었다(사진②). 마치 권씨를 위해 누군가 연출한 듯했다. 권씨는 담쟁이넝쿨이 우거진 도로 옆 방음벽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했다(사진③). 찜통 같은 폭염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촬영에만 몰두했다.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 십자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점자보도블록 보셨죠. 떨어진 꽃잎,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 이런 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인터뷰는 그가 출석하는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에 위치한 영일교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됐다. 교회 복도엔 그가 촬영한 각양각색 십자가 사진 15점이 전시돼 있었다. 양계장에서 포착된 십자가(사진④), 모닥불 십자가 속에 불길로 등장한 기도하는 사람 형상(사진⑤) 등이 눈에 띄었다. “사진을 찍다 하루에 10㎞를 도보로 이동할 때도 있어요. 매일 500장 넘는 십자가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집에 돌아가 마음에 드는 사진만 저장하는데, 지금까지 1만장 넘게 저장했어요.” 권씨는 사진을 전공하지도, 유명한 사진전에서 입상한 이력도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에 입대했으며 제대 이후엔 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 돈을 벌었다. 한때는 기독교 관련 액세서리나 액자 등을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그는 사진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다. 그의 이름은 금세 유명해졌고 전시회도 수차례 열었다. 미혼인 그는 비정기적으로 사진학원에 출강해 생활비를 충당한다."한때는 십자가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 팔자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을 보는 시선으로 십자가를 찾을 것 같아 마음을 고쳐먹었죠. 십자가를 파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이날 영일교회로 가던 길에 그는 인도에 납작 엎드렸다.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 옆이었다. 그는 하수구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가 가장 즐겨 찍는다는 하수구 철망에 새겨진 십자가(사진⑥)였다. 권씨는 "이런 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고통 받은 분이었잖아요"라고 되물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찍을 겁니다. 이를 통해 명성이 아닌 영성을 쌓고 싶어요.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항상 십자가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6.txt

제목: 부패 공무원 자살 늘고 공산당 가입자는 급감  
날짜: 2014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802125132001  
본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를 높이면서 곳곳에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고 공산당 가입자 수도 뚝 떨어졌다. 북경청년보는 1일 저장(浙江)성의 한 관리가 지난 30일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저장성 당국은 “자살한 사람이 항저우시 경제정보기술위원회 소속의 순시원(감독관)인 자오지라이”라고 밝혔다. 자오는 유서에서 “몇 년 동안 암과 불면증에 시달려 왔다”면서 “당의 기율을 어기는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자우의 자살 시점은 신화통신이 중앙기율위가 상하이와 저장성 등 동부지역에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한 다음날이다.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은 6명이다. 뇌물수수를 시인하는 유서를 남긴 사람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자살 공무원들이 크게 늘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베이항대 런젠밍 교수는 “<span class='quot0'>중국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지키는 문화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공무원의 죽음은 곧 부패 조사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1'>자살은 부패 공무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모방 자살이 유행할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유례없는 반부패 움직임에 공산당 당원증에 대한 매력도 식어가고 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산당원은 8669만명으로 전년 대비 156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253만명이 늘었던 2012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최근 10여년 동안 200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던 증가폭이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해마다 치솟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도 올해 급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지방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전년 대비 12.3%나 감소했다. 인민대 장밍 교수는 “<span class='quot2'>당 가입자 감소는 확실히 반부패 활동과 관련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솔직히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뇌물을 챙기려는 의도로 당과 정부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span>”고 꼬집었다.베이징=맹경환 특파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7.txt

제목: [따뜻한 기업 함께가는 기업-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우들에 ‘아름다움’ 선물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30124806001  
본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1945년 창립 이래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UP YOUR LIFE’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여성 암 환우들을 돕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 때문에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중국에서도 펼치고 있다.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도 전개해오고 있다.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도 2001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다. 2003년 기금을 조성하고 2004년 1호점을 개설했으며 2013년에는 200호점을 개설했다.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작업 등 그린 사이클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431t으로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456t에 이른다. 이는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다. 사내용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사회공헌포털을 지난해 4월 ‘MAKE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로 새롭게 단장,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8.txt

제목: 말기암 환자 60%이상 “호스피스 완화치료 받을 생각 없다”  
날짜: 2014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8124443001  
본문: 국내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호도가 각각 38.2%, 51.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말기암 환자 10명 중 6명 이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족 두 명 중 한 명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서울대암병원은 통합암케어센터 윤영호(사진)·안아름 교수 연구팀이 국립암센터 의료진과 함께 18세 이상 말기암 환자와 가족(보호자) 359쌍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4개월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11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말기 암 환자 중 46.6%, 가족 중 40.8%가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원치 않는다’ ‘비용 부담’ ‘가족이 원치 않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기관이 부족하다’ 등의 순서였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데다 현실적으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놓고 환자와 가족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원 측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대체의학 전문 학술지 ‘완화의학’(Palliative Medicine) 7월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39.txt

제목: [쉼과 영성] 마음의 쉼표, 안식… 그분과 동행할 새 길을 보았습니다  
날짜: 2014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6124351001  
본문: 언제부턴가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네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span></span>. 10, 9, 8, 7, 6…”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직업적 전환을 뜻하는 이야기로 여겼다. 그러다 성경 묵상을 통해 그것을 믿음의 비본질에서 믿음의 본질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돌이켜보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며 행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었다. 나의 믿음생활이 그랬고, 내가 지켜보았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랬다.하나님과의 만남, 즉 임재가 종교성으로 대체됐다. 믿음은 이상(理想)이 되었고, 소망은 소유로 변해 버렸다.이후 개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란 중력은 언제나 나를 감싸고 있었다. 중력에 저항하며 더 높이 날아오르기란 쉽지 않았다. 갈망, 사모함은 재산이었다. 그러나 갈망만으로는 부족했다. 시간이 없기에. 갈망만 품고 이 세상을 떠날 순 없는 일이었다.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으면서 새삼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007년 1월 16일. 안면신경 마비로 인해 생전 처음 4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았다. 당시 내 나이 46세. 수술대 위에서 ‘가던 길 멈추고 정지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에 힘이 느껴졌고 다시 돌아간 세상 속에서 은혜가 점차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됐다. 수술대 위에서 느꼈던 절절한 은혜에 대한 갈구도 희미해져갔다. ‘쫓기듯 살지 않겠다’는 다짐도 희미해지면서 영성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가 ‘이 시대의 대적(大敵)’이라고 규정한 분주함 속에 또 파묻히게 됐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던져라 수술대 위에서 ‘이제 다시는 수술 받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신의 의지에 반(反)한 인간의 의지는 유약할 수밖에 없다. 처음 수술 받은 지 7년5개월 만에 나는 다시 수술대에 눕게 됐다. 2014년 6월 2일이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담낭염으로 인한 담낭(쓸개)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철저히 수동태였다. 50대 초반에 다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수술 이후 분주하게 지냈던 지난 7년여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일상과 일생을 충실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일상에 매이고 일생에 매인 세월이었다. 생각해 보니 진정한 휴식을 모르고 살았다. 멀티태스킹이 요청되는 시대에서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생산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찾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육신과 내면은 몹시 지쳐갔다. 담낭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새삼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네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span></span>”는 말이 다시 생각났다.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주위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급작스레 떠나는 경우도 목격했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비본질’을 떠나 가장 중요한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 했다. 더 이상 곡선 인생을 살 수 없었다. 무언가 하는 듯했지만 먼지처럼 사라진 인생을 산 사람들을 무수히 보았다. 나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컸다.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직선 인생을 살아야 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예후는 좋았다. 수술 후에 경기도 가평의 기독교영성센터인 필그림하우스에 1주일 동안 머물렀다. 영혼의 쉼을 누리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다. 마침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음성’ 등을 쓴 고 댈러스 윌라드 박사 기념 방이 배정됐다. 금세기 복음주의 지성 가운데 한 명인 윌라드 박사는 지난해 5월, 암 투병 끝에 77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다. 윌라드 박사 기념 방에는 그의 생전 모습과 핸드프린팅이 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난 윌라드 박사를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했었다. 그는 내가 만난 최고의 인터뷰이(interviewee)였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나의 질문에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답했다. 윌라드 박사는 “<span class='quot0'>목사는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행복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한다</span>”고 했다. 윌라드 박사의 방에서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동시에 유한한 인생 속에서 ‘불멸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했다. 그동안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것일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던져라’였다. 그럼, 누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누가 중력을 거부하며 던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던져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애굽 시스템에서 왕국 시스템으로 믿음의 거성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느꼈을 때 언제까지나 그들의 이야기만 전달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카운트다운 속에서 벼락같은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네 차례는? 이젠 네가 던질 차례란다. 깊은 데로 가거라.” 생각해 보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보냄 받은 자였다. ‘안식’을 쓴 마르바 던은 말했다. “<span class='quot1'>삶에 있어서 나의 책임은, 나의 창조자와 그분의 뜻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가능한 한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span>”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자리가 문제였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었다. 그러나 난 고민했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중력을 거부하며 던지는 삶을 살고 싶었다. 26년 동안 행복하게 다녔던 회사를 정리했다. 지나온 다리를 감사함으로 불태웠다.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네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span></span>”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작은 나의 관성을 의지적으로 단절하는 것이었다. 내 정체성과 같았던 직장을 ‘던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애굽 시스템’(System of Egypt)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세상 시스템을 벗어나면 망할 것 같은 느낌, 그 중력의 힘이 무서웠다. 그러나 그 애굽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만 ‘왕국 시스템’(System of Kingdom)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필그림하우스에는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을 경험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해석자’란 문패가 마음에 와 닿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는 윌라드 박사의 말을 믿으며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련다. 그리고 짧은 인생 속에서 내 삶의 궁극적 해석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병상과 필그림하우스에서의 안식을 통해 얻은 교훈이었다. 주의 율례를 알게 해줌으로써 질병은 오히려 기막힌 은혜가, 안식은 내게 임한 창조주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이태형 전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0.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까  
날짜: 2014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4124155002  
본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증상인 사람에게 암 검진을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검진을 막아야 한다.”(신상원 고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암은 원래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가 1㎝ 미만의 작은 갑상선암도 예후가 좋지 않거나 전이로 인해 어떤 양상을 보일지 예측할 방도가 없다.”(강호철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립암센터에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임상교수들의 상반된 주장이다. 요즘 의료계가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메디텔 등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 허용 문제 못잖게 열기가 뜨겁다. 복지부가 국가 암 검진사업에 한국인 암 발생률 1위로 올라선 갑상선암과 폐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갈 위기의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한 나머지 은근히 의료계의 장삿속 과잉진단 및 수술 문제를 부각시킨 게 도화선이 됐다.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등록통계자료(2011년)를 보면 갑상선암은 주요 암 가운데 발생률 1위(18.6%)에 올라 있다.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23.7%씩 증가했다. 갑상선암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식생활의 서구화나 발암물질 증가 등과 같은 식생활 및 환경요인 쪽보다는 초음파 검사 등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1㎝ 미만 크기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증상 혹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무분별하게 초음파 검사가 이뤄져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암 같지도 않은 암’ 환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암의 조기발견과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한다.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어서 누가 맞고 틀리다 할 수 없으니 국민들로선 더 혼란스럽다. 평생 아무 일 없이 살다 죽은 이를 부검해 보니 갑상선암이 자라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진행이 느린 암이 분명하면 일단 지켜보며 놔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검사비 및 수술비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하지만 진행이 매우 빠른 데다 주위 장기 및 림프절로 쉽게 옮겨 붙는 것도 적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갑상선암이기도 하다. 무증상 갑상선암이라도 선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들을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현행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유방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들이 2년마다 검진을 받고, 위암과 간암은 남녀 모두 40세 이상, 대장암(대변검사)은 50세 이후 1∼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도 호발 연령층과 고위험군을 조사해 40세부터로 하든, 50세부터로 하든 우리 실정에 맞게 수검 대상 및 시작 연령을 정해줘야 한다. 또 간 기능 이상자만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권하는 간암 검진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해본 뒤 이상이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방법도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등록 암 환자 2897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경로를 조사해보니 47.6%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긴 다음에 병원을 방문, 암에 걸렸음을 알게 된 환자는 43.6%,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각각 4.6%, 4.1%로 조사됐다. 남성은 위암(26.1%) 폐암(21.2%) 간암(11.9%) 순이었고 여성은 갑상선암(43.9%) 유방암(16.4%) 위암(11.1%) 순이었다. 암 환자 두 명 중 약 한 명은 어떤 이상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했고, 그중 갑상선암은 특히 여성에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1.txt

제목: [뉴스파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포분열 과정 중 암 발생 원리 규명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3093749002  
본문: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기원 교수와 박석열 박사, 미국 암 연구소 이경상 박사 연구팀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하는 원리를 밝혀냈다. 연구팀은 세포가 분열할 때 중심 역할을 하는 중심체 ‘센트로좀’이 염색체 분열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세포의 유전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세포 내에서 폴로박스가 센트로좀 단백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는 지난달 29일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2.txt

제목: [친절한 쿡기자] “방사능 이기자?”日 황당 캠페인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3124048001  
본문: [친절한 쿡기자] 세상에 방사능에 맞서 싸워 이기는 법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라면 몸의 면역력을 키운 뒤 이겨낼 수 있겠지만 방사능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건 어린이라도 잘 알 텐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일본대지진 직후 원전 사고로 최악의 피해를 본 후쿠시마시가 황당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을 한숨짓게 만든 캠페인이 무엇인지 한 번 보시죠. 22일 일본 매체 뉴스아메바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방사능에 지지 않는 몸을 만들자’는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암을 일으키기 쉬운 생활습관을 피폭량과 비교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3홉(540㎖)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1.6배 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이는 2000m㏜의 피폭량에 상당하는 수치’라거나 ‘비만(BMI 30 이상)인 사람은 1.22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 이는 200∼500m㏜의 피폭량과 같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나 비만으로 인한 암 발병의 위험성을 방사선 피폭량과 비교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그랬을까요?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습니다. 후쿠시마시는 방사능에 지지 않는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식습관을 보면 ‘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방사능 오염) 산지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텃밭에서 채취한 작물은 제대로 검사를 하라’ ‘섬유질이나 발효식품 등을 먹고 용변을 잘해 신속하게 배설하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시간을 맞춰 간식을 섭취하며, 항산화 비타민 등을 매일 보충하고 꼭꼭 씹어 아침을 먹으라는 식의 안내가 돼있네요. 생활습관 페이지에서는 일찍 잠을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시키고 세탁물은 햇볕에 말리며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꼭 양치질을 하라는 식의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시의 캠페인에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건 방사능이에요.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지거나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사능에 지지 않는 몸이라고? 정부가 무슨 주술사입니까? 하하 ㅠㅠ.” “후쿠시마시 공무원들의 뇌가 방사능에 오염된 듯.” 사실 후쿠시마시의 황당 캠페인에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00일이 되도록 제대로 원인 규명이나 대처를 못하는 우리 정부가 오버랩 돼서 말이죠.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3.txt

제목: 오늘의 QT (7月 23日)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3093743001  
본문: “<span class='quot0'>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span>”(암 4:13) “He who forms the mountains, creates the wind, and reveals his thoughts to man, he who turns dawn to darkness, and treads the high places of the earth-the LORD God Almighty is his name.”(Amos 4:13)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과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좋아하십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4.txt

제목: [돋을새김-서완석] 버킷 리스트보다 중요한 것  
날짜: 2014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2123943002  
본문: 영화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란 부제를 달고 2008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다.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잭 니콜슨 분)와 자동차 정비사 카터(모건 프리먼 분)가 여생 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여행길에 나선다.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카레이싱과 스카이다이빙하기, 눈물날 때까지 웃어보기 등. 이들은 목록을 지워 가기도 하고 더해 가기도 하면서 인생의 환희와 삶의 의미, 감동, 우정 등 많은 것을 서로 나눈다.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2012년 8월 초 런던올림픽 취재차 가 있던 영국으로 날아든 동생의 암 선고 소식에도 나의 버킷 리스트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니 관심 없었다. 그저 일상이 쫓기듯 바빴고, 바쁠수록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길들여져 있었던 시절. 나이는 먹지만 바쁜 일상의 결과는 훗날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후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동생처럼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같은 확신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병실에 누운 그들의 모습이 나 자신의 얼굴과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일을 하며 청춘을 바친 결과가 불치병이라니. 병상에 누운 자와 지켜보는 자의 차이를 누가 함부로 구분한다는 말인가. 그 기준은 누구의 뜻인가. 결코 짧지 않은 생에서 얻은 경험의 하나는 인생은 러시안 룰렛 게임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의사들은 가족력 운운하지만 일생에서 암에 걸릴 확률 35%를 피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법이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지탄받는 나쁜 사람들보다 착하고 아까운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평생 가족들을 위해 일만 열심히 하더라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빨리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면 늦기 전에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그중 하나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다던가. “<span class='quot0'>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span>” 좀 더 정확한 번역 “<span class='quot0'>정말 오래 버티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span>”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좀 더 능동적인 삶을 살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버킷 리스트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남자의 유일한 액세서리라는 좋은 시계 갖기, 손목에 이름이 새겨진 맞춤 셔츠 입기 등은 약간의 금전을 필요로 했다. 맞춤 구두 신어보기는 목록에 적어뒀다. 이 같은 물질적인 것 외에 영화에서처럼 낯선 사람 도와주기 같은 것도 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사랑과 배려는 강한 면역체계하지만 버킷 리스트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다. 버킷 리스트는 불행이 닥치기 전에 그동안 못 다한 욕망을 해소하는 소극적인 방어기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물질적 정신적 갈구함이 다 채워졌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나를 더욱 허기지게 만들었다. 암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다. 어느 날 TV에서 본 의학자의 강연이 눈을 번쩍 뜨게 했다. 그는 암 예방책으로 자가면역체계 강화를 권했다.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 그가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음식과 보약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었다. 마음에 평화를 갖고 욕심을 버리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이었다. 버킷 리스트 작성에 앞서 해야 할 그 무엇이 바로 이것이었다.서완석 체육부 국장기자 wssu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5.txt

제목: 위암·대장암 검진 때 내시경검사 병행을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1123805002  
본문: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주위 사람이 암 판정을 받을 때마다 “혹시 나도?” 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건강검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암검진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국가암검진 사업이다. 국가암검진 사업이란 국가가 암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암 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대 암에 대한 기본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암 극복에 큰 역할을 하는 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도 허점이 있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난으로 최소한의 검사만 제공하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암 사망원인 상위권에 들어있는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대변 검사에서 대변에 피가 섞여 있지 않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또한 국가암검진을 받을 때 해당 암 진단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 다른 암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국가암검진에서는 누구든지 40대에 들어서면 2년마다 한번씩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지원해준다. 또 50대에 진입하면 대장암 감별을 위한 대변검사, 간 기능 이상자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복부초음파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성은 30세 이후 자궁경부암 검진, 40세 이후 유방암 검진을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다. 이 때 다른 암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검사를 추가로 받자는 것이다. 예컨대 위암과 대장암 검진 때는 대장암 발견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를 병행하고, 여력이 있다면 간암과 췌장암 발견에 도움이 되는 복부초음파검사를 추가하는 식이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이창현 교수는 “<span class='quot0'>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제공하는 대변검사만으론 대장암을 충분히 가려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위암 또는 대장암 검진 시 내시경검사를 병행하면 초기 암을 놓칠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30세 이후 2년에 한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궁경부암, 40세 이후 받게 되는 유방암 검진 때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 발견을 위한 질세포진 검사의 경우 진단율이 70%에 그치고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이 생겼는지 여부는 알 수도 없으므로 복부초음파 검사를 곁들이는 것이 권장된다. 유방암 검진 때도 국가암검진에서 제공하는 유방X선 촬영에 유전자검사와 유방초음파 검사를 더하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빠져 있는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50세 이상 흡연자와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저선량CT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 노동법에 의한 직장검진에서 제공하는 흉부X-선 검사로는 폐암을 가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구동억 교수는 “<span class='quot1'>저선량CT는 일반CT에 비해 방사선 노출을 5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도 영상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 폐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span>”고 강조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6.txt

제목: [헬스 파일] 갑상선암 과잉수술 논란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1123809001  
본문: 필자의 환자들은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이미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환자들의 수술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변해서 걱정이다. 그 전에는 진찰 후 암이 맞는다고 확인해주면 대개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 “혹만 떼면 안 되나?” 등과 같이 수술을 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 수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의사들의 그릇된 주장에 휘둘린 탓이라 생각된다. 암을 포함해 갑상선질환을 치료할 때 의사 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옛날식이다. 짧은 지식에 짧은 경험, 몇 편의 편향적 시각이 담긴 논문을 읽고 그것이 전부인양 진료하다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쉽다. 갑상선암 환자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성이다. 국가엔 최소한의 금도, 즉 법이 있듯이 갑상선질환 진료에도 제일 좋은 길을 안내하는 ‘진료 가이드라인’(진료지침)이 있다. 말하자면 진료 중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이 막힐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다. 진료지침은 한두 편의 논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논문을 심사숙고해서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나 더 타당하고 더 발전된 것이 나오면 개정판에 올려 다듬는다. 마치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갑상선 암은 깨끗이 절제를 하는 것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선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암이 분명한데도 조기 암인데다 착한 암이라는 이유로 그냥 놔둬도 된다고 황당한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다.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주장이다. 암 환자 진료 시 아무런 학술적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일 뿐 아니라 세상을 기만하는 행위다. 필자도 수술을 하지 않고 6∼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검사 영상을 봐가며 지켜보자는 암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암의 크기가 1㎝가 안 되고 주위 림프절도 괜찮고, 피막을 뚫고 나가지 않았으며, 가족력이 없고, 돌연변이 발암 유전자 ‘BRAF’가 없고, 갑상선 속에 단 한 개만 보이고, 나이가 45세 이하로 젊은데다가 기도, 식도, 혈관, 성대신경 등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않다면 일단 지켜보다가 변화가 보일 때 수술하자고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더 살고 싶다면 싫더라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건 필자만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갑상선질환 관련 학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다 그렇게 돼 있다. 박정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7.txt

제목: 항구토제 ‘에멘드’ 소아 암 환자에게도 유용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1123806002  
본문: 그동안 성인 암 환자에게만 사용해 온 아프레피탄트(aprepitant) 성분의 항구토제, ‘에멘드’가 소아 암 환자에게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사진) 교수팀은 소아 암 환자에게도 ‘에멘드’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세계 최초의 무작위 배정 제3상 비교 임상시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강 교수팀은 생후 6개월∼17세 사이의 소아 암 환자 30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군(152명)에는 에멘드와 기존의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ondansetron)을, 대조군(150명)에는 온단세트론만을 복용시킨 후 항암치료를 계속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독한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구토를 하지 않는 환자가 비교군의 경우 두 명중 한 명꼴(51%)에 그쳐 대조군(26%)에 비해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멘드가 항암 치료 시 구토를 막아준 것이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항암 치료 시 환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의 하나가 구역(메스꺼움)과 구토</span>”라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소아 암 환자들도 에멘드를 이용, 항암 치료 중 구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소아에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 하면 사회적 약자인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제약사들이 환자 수가 적은 소아용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사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연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강 교수팀의 이번 연구에 힘입어 에멘드를 만든 제약사 엠에스디(MSD)도 특허기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연구결과는 세계 암 보존치료 학회 학술지 ‘MASCC’ 최신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8.txt

제목: 최첨단 해독 시설 생기방, 체내 독소 배출해 심신 치유한다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21123800001  
본문: 강력한 영성을 접목시켜 몸과 마음, 신앙을 치유하는 충남 논산 양촌면 증산리 양촌치유센터(원장 김종주 박사)가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환자, 삶과 신앙이 버거운 이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장소로 환영받고 있다. 요즘 양촌치유센터 중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은 9박10일간 입소해 영혼육을 치료받는 생기방(生氣房)이다. 이곳은 중환자가 몸속의 노폐물과 각종 독소를 배출, 암과 성인병을 치유하고 호전시키는 최첨단 해독시스템이다.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곳이란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무료로 입소생을 받아 놀라운 치유효과와 변화를 이끌어 냈다. 앰뷸런스에 실려왔던 환자가 두 발로 걸어나가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던 것. “양촌치유센터는 이미 전인치유, 전인건강을 강조하며 지난 28년간 2박3일 합숙하여 6만명 이상을 치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역으로 금식하며 절처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됩니다.” 김종주 원장은 “금식이야말로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생기방은 내 몸의 독소를 배출, 각종 병을 치유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자기치유법”이라고 소개했다. 생기방은 성인병, 각종 병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며 치유 이후에 복음을 위해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자 할 경우 입소가 가능하며 당분간 9박10일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3차는 8월4일(월)부터 13일(수)까지 9박10일간 계속되며 4차는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양촌치유센터가 주최하는 제16차 목회자부부초청 전인치유 무료세미나가 8월18일 오후 2시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열린다. 선착순 120부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길 원하는 부부, 침체된 목회로 힘들어 하거나 전인치유사역을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김종주 원장 외에도 ‘장자권 회복과 누림’으로 유명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 등이 강사이다. 또 양촌치유센터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청소년 게임중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마을 중독치유학교’이다. 게임과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독의 원인과 그 뿌리를 찾아 일주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4기를 통해 놀라운 성과와 열매를 맺어 중독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권효진(19·가명)양은 “게임에 빠지고 거짓말로 나를 미화시켜 살아온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되었다”며 “이제 새마음으로 남은 학창생활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녀를 이곳에 보낸 한 학부모는 “담배도 끊고 놀랍게 달라져 공부하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일주일간 치유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기맑고 조용한 양촌에서 실시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이미 오랜기간 실시되고 검증된 치유 프로그램으로 초교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은혜와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종주 원장은 “이곳의 스텝들은 모두 내적치유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20여년간 6만명을 치유한 노하우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아울러 양촌치유센터 내에 있는 2년 과정의 크리스찬치유영성연구원 가을학기 학생도 모집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햇살마을중독치유학교와 전인치유세미나, 생기방 9박10일 프로그램, 영성연구원에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홈피(www.homhealing.net)나 전화(041)742-8276, 010-5390-1496)로 문의하면 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49.txt

제목: 하나님의 12가지 약속 의미는…  
날짜: 2014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6123202001  
본문: 착착 진행되던 강연 계획이 어그러지고, 아내에 이어 자신도 암 선고를 받고, 이사 가기로 한 새집은 사기를 당하는 등 끊임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바로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2가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약속이 지닌 성경적 의미를 전한다. 먼저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 가깝게 우리를 인도한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36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믿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등 저자는 성경에서 익히 들어온 12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승리, 축복의 약속 등을 믿는지 점검한다. 말씀의 배경과 맥락을 살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을 던져주고, 그 약속이 말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준다.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걸렸다고 성생활 무조건 피할 필요 없다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8001  
본문: 성(性)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많은 의사와 암환자들은 암 치료가 환자의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결혼한 암환자의 경우는 부부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에 적응이 잘된 환자는 심리적 안정으로 치료 효과가 높은 반면, 잘 안된 경우는 갈등이 생겨 치료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암환자의 배우자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심각한 디스트레스(distress)에 빠질 수 있으므로 부부 간에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성생활 역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환자의 성생활은 단순히 ‘해야 한다’ ‘안 된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한암학회가 최근 간행한 ‘암환자의 성’에 따르면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에 암이 걸리거나 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성관계가 쉽지 않은데, 아랫배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남성은 방사선이 음경으로 유입되는 혈관을 손상시켜 발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 역시 골반부위 방사선 치료는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난소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난소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사선 치료로 손상된 질은 내벽이 얇아져 쉽게 찢어질 수도 있는데 성관계 동안에 통증이 없어도 관계 후에 약간의 출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광·직장·자궁·자궁경부·질 등의 종양에서 출혈이 많지 않다면 골반 방사선 치료 시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외 방사선 치료의 경우는 체내에 방사선을 남기지 않아 성관계 동안 파트너가 방사선에 노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체내 방사선 치료는 방광·자궁·질 내부에 방사성 물질을 며칠 동안 삽입해 놓는 경우도 있어 이 방사성 물질이 몸안에 있는 동안에는 파트너도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치료하는 동안 성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항암화학요법에서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발기기능을 유지하며, 발기와 성욕이 감소해도 대부분 회복된다 여성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상당수가 생리주기의 변화를 겪기도 하고 조기폐경을 경험한다. 질이 건조하고 좁아져 성관계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질 내벽이 얇아져 성관계 후에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은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 파트너로부터의 감염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암 치료가 환자에게 미치는 정신적·정서적 영향도 큰데, 특히 질환이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예전같이 즉흥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할 경우 우울감과 상실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파트너, 의료진과 의논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의 경우 암 치료로 인해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곤 하는데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발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임신·출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이를 갖기 전부터 암 치료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조민규 쿠키뉴스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골고루 잘 먹어야 암 이긴다… 인하대병원 이문희 교수에게 듣는 ‘암환자 영양관리법’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9001  
본문: 간암 2기 판정을 받은 70대 김철수(가명)씨는 3개월 전부터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했다. 암환자에게 육식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채식만 고집하다가 체중이 약 7kg 이상 감소했고 체력도 바닥이 나 더 이상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병이 더 악화됐지만 주치의는 “<span class='quot0'>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항암제를 투여하기 어렵다</span>”고 경고했다.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은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난 민간요법은 무엇이든 한다. 특히 상당수 환자들이 ‘암에는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는 말을 믿고 쇠고기, 닭고기 등 모든 육식을 아예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문희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을 치료하는 데 특별히 좋은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이며,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해야 암을 극복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암환자의 체내에선 항암제의 지원을 받은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독한 항암치료에 맞서 몸이 견뎌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항암치료는 암환자라면 누구나 겪는 힘든 과정이다. 독한 항암제 투여로 인해 탈모, 구토 등의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때는 양질의 식단관리를 통해 체력을 확보해야 한다. 항암치료는 우리 몸의 나쁜 세포인 ‘암세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세포인 ‘면역세포’도 파괴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영양가 있는 단백질, 각종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항암치료로 손상된 세포를 빨리 재생시킬 수 있으며, 암 치료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항간에는 ‘육식을 많이 하면 암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속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말했다. 채식만 한다거나 몸에 좋다는 특정 식품만 유독 많이 먹는 것은 암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채식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가 문제다. 환자 중 상당수가 악액질(암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전신쇠약증세)로 인해 사망한다. 실제 이 교수는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잘 먹지 않아 체력이 고갈돼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영양실조로 치료가 중단되면 암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과 전문 영양사의 처방에 따라 식단을 관리하는 게 필수다. 식욕부진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암환자에게는 메게이스 등의 식욕부진 개선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암 마다 주의해야 할 식단도 있다. 육류 중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붉은색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식품의 섭취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이 흰색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좋다. 튀긴 음식은 무조건 좋지 않고, 찌거나 삶은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 유방암에는 콩이 좋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유방암 발생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콩류를 먹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위암 환자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짜고 맵고 찬 음식을 삼가는 게 좋다. 암을 이기는 식생활은 무엇일까. 우선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끼니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치즈,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채소 반찬은 매끼에 2가지 이상 있는 것이 좋다. 음식을 씹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는 음식을 다지거나 갈아서 줄 수도 있다. 음식은 너무 맵고 짜면 안 된다. 암환자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호자들은 환자에게 몸에 좋다는 것만 먹이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식단을 바꾸기란 어렵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2'>환자가 식욕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서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디스트레스(모든 정신적 고통) 관리… 일지 쓰면서 원인을 찾아보자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040001  
본문: 신체적 고통만도 감당하기 벅찬 암환자들. 하지만 그들의 신체적 고통은 고스란히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암환자가 겪는 모든 정신적 고통을 가리켜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부른다. 건강한 사람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Stress)와 구별되며, 증상의 정도도 현저히 다르다. 암환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의 강도는 일반적인 의료 상황과 비교할 수가 없다. 치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 등의 정서적 문제와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와의 갈등, 직업 상실, 치료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 암환자에게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암환자의 디스트레스를 단순히 환자라면 경험하게 되는 것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암환자의 치료경과를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된다. 남성 암환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고 가족 외에 병원의 지원도 잘 받지 않는 편이다. 정서적 고립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성 환자의 대부분은 직업이 있었거나 오랫동안 일을 해온 터라 암으로 인한 직업 상실 등 사회적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서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반면 여성 암환자의 경우는 어떨까. 주부로서, 엄마로서 희생적인 역할을 해온 그녀들에게 암 선고는 심한 좌절감과 우울, 특정 대상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부족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유방암 치료를 시작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최순희(52·가명)씨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대가가 암이었다고 말한다. “병원 가는 날 외에는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암에 대한 사회 인식도가 높아지고 완치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 선고를 받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서 치료를 마친 후 로비에 한참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까지 생각했죠.” 디스트레스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는 일은 치료의 시작이다. 우선 요즘 얼마나 괴로운지,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디스트레스 일지’를 써내려가며 우울증을 느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다. 치료의 부작용인지 복용한 약물의 영향인지, 의료진에게서 느낀 서운한 감정 탓인지 등 암환자가 스스로 만든 디스트레스 일지는 유발 원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된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순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암이 낫지 않는 이상 디스트레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다. 디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의 치료과정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일조를 하게 된다. 최근 대형병원이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병원 로비에만 들어서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요가, 미술요법, 웃음 강연,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혼자만의 생각, 어려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명상이나 음악 감상 등 나만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극복 노하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3.txt

제목: [건강나침반] 면역 떨어진 암경험자 예방접종을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4001  
본문: 암경험자에게 예방 접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건강 행동이다. 암경험자는 암 치료과정 이후 면역 저하 상태일 수 있어 그로 인한 예방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의료인은 암경험자의 예방접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예방접종과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암경험자를 위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유의해 일반 성인 예방접종 권장을 따라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모든 면역 이상이 없는 암경험자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신, B형 간염 백신이다. 이외 필요시 A형 간염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도 접종할 수 있다. 권장되지 않는 백신으로는 수두, 홍역-볼거리-풍진과 같은 생백신으로 암경험자에게 주의를 요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소위 ‘독감’이라고 불리는 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게 접종하도록 하는데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가급적 9∼10월경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에 받도록 한다. 폐렴사슬알균은 폐렴,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감염은 10만명당 8.8명 관찰된 것에 비해 암경험자의 경우에는 암종의 따라 300∼500명 발생했다. 특히 혈액암 환자의 경우 사망위험이 높은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폐렴사슬알균 백신은 23가 백신과 13가 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두 백신의 선택은 환자의 나이와 면역 상태 등에 따라 고려된다. 폐렴사슬알균 백신은 암 진단 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은 유아기 때 접종하는 DTP백신과 달리 성인에게는 부작용을 고려해 함량을 낮춘 Tdap 백신을 처방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줄일 수 있고 비용-효과 면에서 우수하여 암경험자에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이다. B형 간염은 간경변과 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20대 이상의 항체가 없는 모든 성인은 예방접종 대상이다. 그러나 암경험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3회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암경험자의 예방접종률은 많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암경험자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암경험자는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와 치료 일정을 고려하여 의료진을 통한 적절한 예방접종을 안내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암경험자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암경험자 가족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암경험자의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안아름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바이오마커’ 이용, 암 발병 쉽게 파악… 단백질·DNA 변화로 측정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44001  
본문: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암(癌)’이다. 이러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항암제들의 개발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라 불리지 않게 됐다. 암 정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암 치료에 있어 핵심이 되는 ‘바이오마커(Bio-marker)’다. 바이오마커란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DNA,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표지자다.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우리 몸이 정상인지 또는 병리적인 상태인지를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할 때, 암 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 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면 발병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바이오마커의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항암 치료 시 치료 대상의 바이오마커 수치 측정을 통해 처방 약물의 치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치료 진행 전 바이오마커 측정을 통해 처방하려는 약물과 환자의 몸 상태 일치 여부도 쉽게 판단 가능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향후 임상시험 성공률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분석하면 어떤 암인지, 얼마나 병이 진행됐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맞춤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쉽다. 지금까지 사용된 항암제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파괴한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손발톱 빠짐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오마커 기술은 유도 미사일과도 같다. 암에만 특별하게 발현되는 단백질을 이용해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을 주입하면 특정 암세포만을 겨냥해 파괴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지킬 수 있다. 바이오마커의 유전자형을 진단키트로 사전에 파악하면 특정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불필요한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표적인 유방암 항체치료제인 로슈의 ‘허셉틴’은 바이오마커인 ‘HER2’에서 과발현하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표적치료제다. 유방암 환자라고 해도 모두 허셉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ER2에서 과발현하는 환자에서만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암젠의 항암제 ‘벡티빅스’는 바이오마커인 ‘K-RAS’라는 유전자를 함유한 대장암에서만 작동한다. ‘얼비툭스’ 역시 대장암의 바이오마커인 K-RAS 정상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이레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의 특정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해당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를 판정해 불필요한 투약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 카엘젬백스는 항암백신 후보물질 ‘GV1001’과 바이오마커의 상관관계를 입증 한 결과로 전 세계 PCT(국제특허협력조)와 대만지역 출원을 완료했다. 젬백스는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 수치가 높은 환자는 GV1001을 활용한 치료로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5.txt

제목: [암과의 동행] 특정 암 위험에 영향 미치는 식사 및 신체활동… 달리기·수영 등 강도 높은 운동 ‘효과’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093221001  
본문: 한국인의 3분의 1이 비만이고, 다수가 적정 운동량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체지방, 지나친 열량섭취, 신체활동 부족 등이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복부 지방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췌장암·자궁내막암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과 폐경 후 유방암 감소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바 있으며, 다른 유형의 암 위험도 체중 감량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성인 여성의 과체중과 체중 증가는 폐경 후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지방 섭취를 줄이면 유방암 발생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입증이 안 된 상황이다. 대장암 또는 대장 용종의 가족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장기간 흡연과 과음도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과체중과 비만이 남녀 모두에서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위험은 증가했다. 반면 신체활동이 활발할수록 위험은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는데 규칙적인 중간 강도의 운동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강도가 높은 운동은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섬유질 섭취, 특히 정제하지 않은 곡류로부터의 섬유질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암, 폐암, 구강암·인두암·식도암, 췌장암 등은 금연·금주, 비만예방 및 매일 적정량(400∼500g) 이상의 채소·과일 섭취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암환자는 심적·육체적 부담으로 먹기도,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치료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적정한 음식 섭취와 운동을 조언한다. 대한암학회가 최근 번역·발간한 ‘암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간 강도(춤추기, 걷기, 골프, 배드민턴 등) 이상의 강도가 높은(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축구, 농구 등) 신체활동을 하는 이들은 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유형의 암 위험을 낮추고, 일부 암은 신체활동 후 체중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6.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현직 치과醫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癌유발 가능성”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4001  
본문: 김세환(56·가명)씨는 하악 좌·우측으로 각각 4개씩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주염이 심해 A치과를 방문했다. 이어 진료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좌·우측 제1대구치(#36, #46) 2개에 대해 투바디(Two-body)형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년 만에 치주염으로 인한 골 파괴로 임플란트를 전부 제거하게 됐다. 김씨는 "임플란트 후 치주염이 더 심해져 결국 해 넣었던 임플란트도 제거했다"고 하소연했다. 치아 임플란트의 부작용 사례다.◇입속 악취, 주위염 예견된 부작용=치아 임플란트는 이가 없는 이에게 씹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반영구적인 치과 시술로 1990년대 초반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치과의 주요 수입원이 된 비급여 진료과목이다. 당시 임플란트 한 대의 진료비는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호가했다. 실력깨나 있는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현재는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이 임플란트를 진료과목으로 내걸 정도다. 특히 외국에선 한국 치과의사들의 손기술이 남다르다며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임플란트 환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늘고 있다.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악취다. 그런데 이 같은 부작용에 현직 치과의사가 “이는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치아 임플란트가 유방암 신장암 췌장암 혈액암 등 전신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 적용 대상 임플란트 시술에는 투바디형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어 안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한 신세계치과 황정빈 원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위해성을 보고했다. 위해성 보고에 따르면 원바디형과 달리 투바디형 임플란트에서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 사이 공간에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P.gingivalis(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균 등이 스며들어 서식지를 형성한다. 임플란트 속 서식 공간이 좁을 경우 세균은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몸 속 혈류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혈류를 타고 들어간 구강 내 세균들은 다른 세포들과 만나 각종 종양세포를 만들어 유방암 신장암 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또 임플란트를 해 넣은 후 구취가 심해지는 것도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이 틈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가 서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지대주 임플란트서 진지발리스균 발견=황 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치과대학에서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 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한명주 박사논문)에서 ‘임플란트-지대주 연결부 미세누출로 인한 치주질환 관련 세균의 검출’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는 황 원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연구자는 이 병원 임플란트 센터에서 시술을 받고 현재 임플란트 보철물을 사용 중인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세균검사를 한 결과 지대주 임플란트에서 진지발리스균 등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공격력 강한 구강 내 세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span class='quot1'>임플란트 보철물 사용 환자의 세균조절 실패로 인해 구취, 출혈,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황 원장이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알게 된 것은 논문이 나오기 전 환자 몇 명을 진료하면서부터다. 김영민(45·가명)씨는 악취가 심해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지만 불만족스러워 수소문 끝에 황 원장을 찾았다. 황 원장이 김씨의 상황을 듣고 이전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열어본 결과 그야말로 경악스러웠다. 투바디형의 임플란트였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시커먼 피가 덩어리져 있었던 것. 또 임플란트를 식립한 잇몸뼈 주변은 무너져 내려앉은 데다 벌겋게 변하기까지 해 세균의 침투를 가늠할 수 있었다. 김씨와 같은 임플란트 부작용 환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재내원한 환자의 90%는 치주질환에 시달렸고, 식립한 임플란트를 열어 보면 그 안에 마치 하수구를 연상하게 할 정도의 위해물질이 그득했다. 황 원장이 위해정보보고를 한 이유다. 또 경증의 염증이 장기화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면역세포) 체계에 이상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입속 진지발리스균, 혈류 타고 암 등 각종 질병 유발=임플란트 치주염을 방치하면 진지발리스균 등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와 면역체계에서 나오는 각종 사이토카인(Cytokine·세포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단백질 인자의 총칭)이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당뇨나 류머티스 관절염 등 면역질환과 암을 일으키게 된다. 구강 내 세균은 다른 세균과 달리 혈관으로 침투하기가 쉬우며, 이렇게 침투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영국 임페리얼대학과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염병학 교수인 도미니크 미쇼드 박사팀은 ‘The Lancet Oncology’ 최신호를 통해 40∼75세 남성 4만8000여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치주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 위험이 췌장암 54%, 신장암 49%, 폐암 36%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MIT의 생명공학부 디돈 박사팀도 ‘사이토카인’과 관련된 효소 등이 정상 세포들의 DNA 구조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외 논문과 치료사례를 바탕으로 한 황 원장의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2'>임플란트 사용 중 발견되는 p.gingvalis의 세균은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span>”며 “<span class='quot2'>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주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적극적인 정기검진과 치주관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span class='quot3'>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span>” 관련 반론보도]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 건강면 “현직 치과의, <span class='quot3'>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span>, 암 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암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이 암유발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규명된 바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조선대 한박사의 논문은 환자 혀 주위나 임플란트 주위열구보다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는 세균분포가 적었다는 것이 요지이며, 미쇼드 박사의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암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흡연인자에 따른 치주질환과 치아상실의 암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7.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도시락 싸서 병원 가야 하는 암환자의 이중고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1001  
본문: 동물성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암환자에게 해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외식을 하며 접하는 모든 음식들은 암환자의 식단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대형병원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들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병원에 암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환자의 몸에 좋은 음식이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나쁠 일이 없는데도 하나같이 대형병원의 푸드코트는 백화점의 푸드코트를 닮아 간다. 유기농 재료를 이용하고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 암환자를 생각했다는 슬로건은 어느 곳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항암치료를 시작한 박민술(48)씨는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박씨는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거의 반나절 병원에서 생활한다. 오전에 채혈하고 종양내과 외래 진료를 보고 오후에 항암주사를 맞는다. 중간에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데 병원 푸드코트를 가 보면 육개장, 자장면, 돈가스, 칼국수, 맵고 짠 탕 종류뿐이다. 암환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고 기껏해야 죽이다. 자식 걱정이 되는 칠십이 넘은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오셔서 내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리신다. 어머니께 죄송하다. 암환자가 된 자식은 불효자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암환자도 사정은 비슷했다. 남편의 간암 치료를 위해 서울과 지방을 오고간 지 2년 됐다는 김경희(52)씨는 “사서 먹는 밥은 믿을 수가 없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왔다. 병원 밖이나 병원 안이나 음식이 똑같다. 병원 와서 외식하는 꼴이다. 환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손꼽히는 병원을 다니면서도 일일이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대형병원들은 환자 중심의 치료를 지향하며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미술요법, 웃음강연 등 확실히 암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모든 암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병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은 의료정보 제공에 치중한 나머지 지식정보센터, 교육센터라는 공간을 만들고서 정작 암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도시락 하나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놓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만나 본 암환자들 이야기의 결론은 같았다. 병원 가는 날이 기분 좋은 날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는 의료진이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지만 아직 암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병원은 몸 아프고 신경 쓸 곳 많은 곳이다. 대형병원이 치료의 공간을 넘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건강한 밥을 제공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차가운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음식점을 입점 시키기보다는 환자들에게 ‘집밥’다운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귀에 든 생리활성물질 ‘후코이단’ 암세포 자살 유도하고 면역력 키운다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6002  
본문: 이름도 생소했던 미역귀가 최근 항암식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역귀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 후코이단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암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등 항암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미역귀(사진)란 미역의 뿌리 바로 위에 달려 있는 머리 부분으로 미역은 다른 해조류와 달리 이 부분에서만 포자를 방출한다. 사실상 미역의 생식기관인 셈. 미역은 소중한 생식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후코이단도 이 중 하나다. 그런데 이 후코이단에 강력한 항암기능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올해 초 사이언티픽월드저널에 발표된 논문 ‘갈조류의 두 가지 주요 대사물인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 항종양 잠재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후코이단의 종합적 항암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60여편의 후코이단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후코이단의 항암기능을 △암세포 자살유도 기능 △종양의 성장억제 기능 △암의 전이억제 기능 △면역증강 기능 등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암세포의 자살유도 기능은 후코이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항암효과로 꼽힌다. 원래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일정 기간이 되면 스스로 죽고 그 자리를 싱싱한 세포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러한 기능에 이상이 생겨 영원히 살면서 증식만을 반복하게 된다.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망가진 자가소멸 기능을 되살려 스스로 죽도록 만든다.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도 두드러진다.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미역귀의 후코이단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해 암이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도 탁월하다. 암세포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혈관으로 들어가 혈소판에 달라붙는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가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 역시 미역귀 후코이단의 항암효과 중 하나다. 특히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암환자들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다당류인 후코이단이 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면역도 상승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후코이단을 암 치료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는 항암보조요법으로 암환자들에게 후코이단을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후코이단을 함유한 음료가 큰 인기를 끌며 연간 1조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역귀 후코이단 전문생산 업체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의 항암효과는 이미 다양한 논문과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행히도 우리 바다에서 자란 미역귀에는 황산기 함량이 높은 고품질 후코이단이 들어 있어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후코이단 경쟁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span>”고 밝혔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59.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최은경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장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 가능한 종양 늘어날 것”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038001  
본문: 방사선은 공간을 통과하며 고속으로 진동하는 전자파를 말한다. 1895년 뢴트겐이 엑스선(X-ray)을 발견한 이후 의학 분야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수술, 화학요법과 함께 암 치료의 3대 요법 중 하나다. 최신 방사선기기일수록 더욱 정밀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암센터를 둔 대형병원들도 암환자 유치를 위해 최신 의료기기의 도입사실을 적극 홍보한다. 이에 대해 최은경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장(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은 왜곡된 의료현실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방사선 치료는 기기의 물리적 성질과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 임상적 측면 등을 고려한 종합 의료다. 종양의 크기, 방사선 감수성에 따라 필요한 선량과 방사선이 닿는 범위를 세분화하는 치료계획은 철저히 의료진이 결정한다. 기계의 역량만을 앞세워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가령 양성자 치료기는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며 최신 의료기기로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가 무척 많이 들 뿐더러 적용할 수 있는 암종에 제한이 있다. 기존 방사선기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의 치료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훌륭한 무기를 꼽을 수 있지만 그 무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소속된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과 비교해 최신 방사선기기의 도입이 늦은 편이다. 그 이유는 기존 방사선기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설명처럼 엑스선, 중성자, 양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기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사선 치료다. 특히 방사선 치료 성적이 날로 향상되는 배경에는 고도로 컴퓨터화된 치료장치의 개발이 한몫을 한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암 조직 뒤에 있는 정상조직까지 파괴했다. 반면 최근 도입된 기기들은 공통적으로 인체를 투과하는 빔의 세기를 조절해 암세포만 정확하게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 또한 암 조직에서 최대의 파괴력을 발휘한 후 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상조직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실 과거 방사선 치료는 치료보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용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보조적 치료도구로 보는 견해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수준은 의료선진국과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암환자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미국은 60%, 영국은 40% 정도의 암환자가 치료기간 중 한번이라도 방사선치료를 받지만 국내는 아직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방사선 치료를 ‘마지막 선택’ 쯤으로 여기는 국내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방사선 기기의 발달로 암 덩어리만 골라서 파괴할 뿐더러 치료효과도 굉장히 좋아졌다.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완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환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어느 진료과보다 먼저 우리 과를 찾아오기도 한다. 앞으로 방사선 치료 성적은 날로 향상될 것이며 종양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 가능한 것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한양대병원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센터, 최고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 치료시간 단축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0001  
본문: “노발리스 티엑스는 기존 방사선 치료 장비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정밀한 방사선 치료로 환자들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기존 장비와 달리 짧게는 2∼3일, 길게는 1∼2주로 3∼4회의 방사선 치료만 받아도 돼 전체 치료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양대병원이 도입한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장비 운영을 맡고 있는 노발리스 티엑스센터 전하정(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센터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한양대병원 암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발리스 티엑스는=노발리스 티엑스 치료시스템은 종양 주변 정상 신체조직에 방사선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종양에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종양형상화 방사선수술(Shaped cancer radiosurgery)이다. 전하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현재까지 개발된 방사선 치료기기 중 정밀함과 정확도가 우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초정밀 시스템</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 강점</span>”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비는 종양의 모양에 따라 형상을 맞춰 방사선 빔을 조사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으며, 종양 크기에 맞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치료하는 초정밀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뇌종양과 척추 종양 등 작은 크기의 종양이나 혈관기형 등에 방사선을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사해 치료한다. 전 센터장은 “이 장비는 환자 종양 위치를 치료 공간 내에서 정확하게 추적해 치료한다. 또한 6자 유도 로봇침대와 실시간 CT 촬영, 정밀방사선 위치추적기와 적외선 위치 추적기술을 장착해, 환자들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암에 적용 가능=한양대병원 노발리스 티엑스센터는 협진에도 적극 나선다. 전 센터장은 “<span class='quot1'>현재 암센터 소속 암 전문 의료진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각종 암 치료에 나서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위와 폐, 간, 유방, 전립선 등 여러 부위의 종양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특히 이 장비는 섬세한 치료가 필요한 뇌와 척추에 전이된 암에도 효과적이며, 내과적으로 수술이 힘든 고령의 암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전 센터장은 “고령자들의 경우 폐기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작은 암조직도 수술을 못하거나 치료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노발리스 티엑스를 활용할 경우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장점에도 노발리스 티엑스는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전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노발리스 티엑스는 뇌, 척추, 전립선암은 건강보험 급여로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적지만, 그 외의 암은 모두 비급여여서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노발리스 티엑스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방사선치료에 한계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급여 적용을 정책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span>”는 견해를 밝혔다. 암은 조기발견을 통해 적극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하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노발리스 티엑스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span>”고 당부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1.txt

제목: [암 수술 잘하는 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앞장”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19001  
본문: ‘당일 진료·검사와 수술’, ‘진료과별로 유방암 전담 교수 지정과 다학제 협진’, ‘유방암 수술 후 사후 관리와 환자 삶의 질 향상’, ‘임상연구를 통한 의료진들의 유방암 정복 노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유방센터가 내세우는 경쟁력이자 강점이다. 유방센터 이민혁 교수(사진)는 “<span class='quot0'>유방센터는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span>”고 강조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의 최대 강점은 10년 전부터 치료와 미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재건 수술을 독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절제술을 통해 유방암을 완치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슴 보존에 대한 기술은 미흡했다. 하지만 유방센터에서는 수술 후 완치 뿐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유지 할 수 있는 유방즉시 재건술을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적용한다. 성형외과 강상규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옥시영 교수, 영상의학과 장윤우 교수 등과 협진을 통한 팀워크가 그 비결이다. 특히 이민혁 교수팀은 피부보존 또는 유두, 유륜보존 유방절제술 후 즉시 재건술과 등 근육을 이용한 즉시 유방재건술 등의 독보적인 술기로 환자들의 아름다움을 지켜준다. 현재 유방센터는 당일 진료와 검사 후 곧바로 협진을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의 경우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할 경우 절제수술 없이 암을 치료하거나, 수술전 항암요법을 통해 수술을 최소화한다. 또한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유방보존과 재건을 위한 성형외과의 유기적인 협진으로, 환자가 겪을 지도 모를 상실감을 줄여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외과, 성형외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서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협진을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진료과별 의료진 중 유방암 전담 교수들이 지정돼 있어 암환자를 잘 이해하면서 진료와 수술, 치료를 시행한다</span>”고 강조했다. 또한 유방센터는 유방암 경험자들에 대한 수술 후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율 향상, 재발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경쟁력은 유전성 유방암과 관련해 연구와 임상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순천향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공동으로 한국유전성유방암연구회의 6년 간의 연구 성과물로 지난해 유전성 유방암 발병과 관련한 3000여명의 국내 여성 유전성 유방암 관련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유방암 절제술을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예방적 유방암 절제술과 관련 이 교수는 “반드시 전문 상담사가 배치된 의료기관을 찾아 예방적 유방암 절제술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예방적 유방암 절제술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고 조언했다. 순천향대병원 유방센터는 앞으로 유방암 경험자들의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 유방암 생존자연구회를 결성해 유방암 경험자 대상의 장기 코호트연구를 시작했고, 통증관리와 2차암 예방을 위한 꾸준한 임상연구도 수행하고 있다.송병기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2.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옥살리플라틴·경구 5-FU] ‘옥살리플라틴·경구 5-FU’ 병용요법 위암 치료 효과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46001  
본문: 위암은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남녀 모두 합쳐 1위가 갑상선암이며, 위암이 2위를 차지했다. 위암은 위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뉜다. 원인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최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 식품, 불에 태운 고기에 들어 있는 질소화합물이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로 작용한다. 위암 치료술로는 크게 수술요법과 항암제 투여 등의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있다. 수술 요법은 말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의 방법은 암의 위치에 따라 위 전체를 제거하는 위전절제술과 위아전절제술(위의 3분의 2 가량을 절제)로 나뉜다. 위암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사용된다. 항암치료는 투여된 약이 혈관을 따라 순환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정맥주사나 근육주사, 경구투여의 방법으로 투여한다. 진행된 위암은 이미 미세하게 전이됐거나, 수술 시 암세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섬멸을 위해 항암치료가 필수적이다. 빠르면 수술 후 10분 정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개 6개월 정도 실시한다. 위암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약제는 5-FU(5-플루오로우라실)이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병합요법에서 기본약제로 쓰이고 있다. 또한 미토마이신-C, 시스플라틴 등이 단독요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암 환자의 반응률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약제를 2∼3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항암제 병용요법이 위암치료의 원칙이다. 생존기간은 6∼12개월로 단독요법에 비해 효과가 좋지만 아직 복합요법이 5-FU 단독투여에 비해 우수하다고는 증명되지 못했다. 1980년대에는 진행성위암 환자에게 FAM이라는 병용요법이 위암의 표준요법으로 사용됐다. 1990년대에는 5-FU와 시스플라틴이 서로 상승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새로 개발된 항암제가 위암 치료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약제로는 옥살리플라틴, 경구 5-FU제제가 있다. 새로운 약제들을 이용한 다양한 항암제 병용요법들은 기존 약제의 병용요법에 비해 생존율이 10∼12개월에 육박한다. 대표적인 경구용 제제인 5-FU로는 젤로다, TS-1 등이 있다. 이는 단독으로 28일간 연속 투약한 후 14일간 쉬거나, 2주간 투여한 후 1주간 쉬는 것을 한 주기로 해 반복 투여한다. 빈혈, 설사가 주요한 부작용이다. 5-FU 작용기전은 종양세포 내에서 종양세포의 DNA와 RNA 합성을 저해하고 손상을 일으켜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젤로다와 옥살리플라틴을 병용요법으로 하는 젤록스(Xeolox)도 있다. 옥살리플라틴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위해 입원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준현 부천성모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젤로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핸드풋 신드롬(손톱과 발톱이 빠지고 물집이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수족 부작용이 있다</span>”고 말했다. 또한 TS-1이라는 약물은 단독요법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입원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TS-1과 옥살리플라틴이 병용요법으로 쓰인다. 이준현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TS-1과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암 재발 환자 또는 말기암 환자</span>”라며 “<span class='quot1'>다만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격부담이 높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정재훈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 “갑상선암, 정부 주도 역학조사 필요”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3001  
본문: 0.5∼1cm 크기의 갑상선암을 두고 수술해야 할지 말지 논란이 많다. 갑상선암 과잉 진단과 수술 남발 논란 이후 뚜렷하게 나온 결론이 없기 때문에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1cm 이하 갑상선암도 수술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다른 암종보다 유독 높은 재발률을 근거로 한다. 미국 의학계에서 갑상선암 수술환자를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무려 30%가 재발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환자가 10년 이내에 재발했기 때문이다. 즉 이런 관찰 결과로 볼 때, 종양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되는 1cm 이상의 갑상선암만 수술할 경우 재발하는 환자는 더 많아지고 재발되는 기간도 더 단축된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 병기와 크기를 떠나 재발이 잘되는 암인 만큼 수술을 통한 철저한 제거가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한 견해로 자리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과잉수술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국내 환자의 증가요인에 있다. 이에 대해 정재훈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정부 주도적인 추적관찰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 그동안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할 암이 아니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이 됐지만 과거에는 대장암, 위암 등에 밀려 보건복지 정책 입안자들의 논외 대상이었다. 갑상선암이 왜 급증했는지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알아볼 수 있는 대규모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주도 없이는 힘들다. 관련 부처가 나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비만, 의료방사선 노출 등의 인자들이 실제 암 발병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만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과잉 의료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cm보다 작은 갑상선암을 수술했을 때와 수술 없이 추적 관찰했을 때의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가 없는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 이 같은 연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진단, 과잉수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도 수술하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는 그룹과 수술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하지 않은 환자그룹에서 암이 전이되거나 상태가 악화된다면 해당 의료진과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작은 갑상선암을 치료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1cm이하 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재발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어느 병원에서 미세유두상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추적관찰한 결과 예후가 좋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나온 발표여서 국내 의료계에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소규모로 진행된 임상결과여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는 미지수다. 단 국내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라면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사망률을 높이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4.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2014 진료가이드’ 제작 총괄 박중원 교수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9001  
본문: “진료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것들을 기반으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모든 관련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 중심의 간암 진단, 치료, 예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국내 간세포암종 진단과 치료, 예방법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담은 ‘2014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가 세상에 나왔다. 지난 2003년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2009년 개정을 거쳐, 더욱 발전된 진단 기술과 치료법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번 진료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총괄한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간암센터 소화기내과)는 “<span class='quot0'>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와 진단, 예방법을 담아내기 위해 간암과 관련한 각 진료과별 42명의 전문의들이 참여했다는 점, 국내 발생 6대 암 중 유일하게 다학제 협의를 통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pan>”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모든 간암 관련 임상의사들이 참여해 만들었고, 2009년 개정 이후 5년 동안 더욱 발전한 진단 기술과 치료법 등 517편의 논문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세포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새로운 간암 진단 기준과 예방법은 물론 기존에 없었던 암성통증 관리 지침을 담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환자 입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선 피폭 문제를 정리한 것도 특징이다. 박 교수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 “<span class='quot0'>가이드라인에서는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한 영상검사 방사선 피폭량의 제한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진단과 추적을 위한 CT 검사는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간암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과 추적 관찰을 위한 CT촬영은 간암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span>”며 방사선 피폭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환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암성 통증과 약물치료’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환자별 병기(암의 진행상태)에 따라 최선의 치료방법과 차선의 치료방법을 제시해, 진료의사는 물론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결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삼을 만하다. 박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간암 치료의 목표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기존과 달리 획기적인 치료법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에 검증된 치료가 환자마다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적정한지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위해 517편의 국내외 논문을 검증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진단과 치료, 예방법을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 교수는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다 효과적인 간암 치료를 위한 모든 것을 담아낸 만큼 환자들이 믿음을 갖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말기암 환자 생존기간 예측 어떻게… ‘Karnofsky’ 지수 40점 미만이면 3개월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039001  
본문: “<span class='quot0'>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span>” 말기암 환자들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전문 의료진조차도 말기암 환자의 여명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최근 암환자들 사이에서 치료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말기암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준비하려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여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진들도 여러 가지 증상, 징후, 암종별 생존 통계 등을 활용해 남은 삶을 예측한다. 암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객관적인 도구는 많다. 대표적으로 ‘Karnofsky’ 수행지수가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가장 많이 쓰인 수행 상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해 100점이 만점이고 0점은 사망이다. 지수가 40점 미만인 환자들의 여명은 약 3개월로 보고 된다. 완화 수행 지수도 있다. 이는 환자의 수행지수로서 보행상태, 활동수준, 질병 정도, 자가 돌봄, 의식상태의 5가지 면을 다룬다. 환자의 증상을 통한 예후 예측은 상당히 중요한 측정도구가 된다. 환자가 식욕부진으로 인한 악액질, 호흡곤란,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면 짧은 여명 기간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혈액검사를 통해 환자의 여명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전이성 암에 대한 생존율 통계도 측정도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의 생존 기간을 살펴보면 진행성 위암의 경우 7개월, 진행성 간암은 3∼10개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은 6∼11개월, 진행 혹은 전이성 대장·직장암은 12∼22개월, 전이성 유방암은 15∼22개월, 진행성 췌장암은 5∼6개월이다. 또 다른 중요한 측정도구는 의사의 예측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에 다소 낙관적이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실제 생존기간은 의사의 임상 예측보다 30% 정도 짧게 나타났다. 오래 돌본 환자일수록 그 환자에 대한 생존기간 예측은 틀리기 쉽다. 이러한 다양한 객관적 측정도구보다 더 중요한 예측 척도가 있다. 바로 말기암 환자 스스로가 느끼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다. 최근 이러한 환자의 주관적 평가가 환자의 남은 생존기간(기대여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 교수와 동국대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팀이 2006∼200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 6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162명이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점수를 평가하고, 이를 환자의 생존기간과 비교한 결과, 신체기능 상태와 삶의 질 평가가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삶의 질 평가 항목 중 건강상태, 감정기능은 점수가 높을수록 말기암 환자의 생존위험비가 낮았다. 즉 환자가 느끼는 건강과 감정 상태가 양호하면 생존기간이 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용주(사진)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 결과로 삶의 질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신체 상태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1'>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암 고통 여성 위해 신기술 개발 최선”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2001  
본문: ‘난치성 여성암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치료센터로 도약’.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2단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 이화의대 교수)의 비전이다.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장을 겸임하며 특성화 연구를 통해 여성암 정복에 나선 김승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여성암 정복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해 센터의 자립화와 대학과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span>”라고 설명했다.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에는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49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12억원이 투입되며, 조기예측 진단의 상용화와 맞춤치료법 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난치성 여성암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치료 센터 도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저질량 이온 대사체 분석법을 통한 진단법 개발 △재발 조기 예측을 위한 후성유전학적 진단법 개발 △세포표현형 변이 제어를 통한 여성암 치료법 개발 △조절T림프구 표적 신개념 여성암 면역치료제 개발 등 4개의 세부 과제로 나뉜다. 이와 관련, 연구센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센터는 난치성 여성암 조기 발견을 위한 신개념 진단, 치료법 개발의 초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2편의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8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성과를 창출했다.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연구센터의 사업 비전과 목표는 정부와 학교의 사업 지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수익 이외의 병원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임상연구와 제품화, 기술이전 등은 여성암 분야의 국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구센터의 책임이 막중하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마무리된 1단계 연구가 기초와 임상의 중개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이었다면, 2단계 연구에서는 임상 협력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을 발굴한다. 연구센터의 2단계 연구는 2016년까지 매년 국비 10억원과 주관기관 대응비 10억원 등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연구센터가 1단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내면서 2단계 성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의 자체 연구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대여성암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 노하우와 연구진들의 인적 인프라, 연구 협력 네트워크 등이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 제품화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연구센터에는 각 세부과제별로 김승철 센터장을 포함해 이화의대 산부인과 주웅 교수,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 외과 문병인 교수 등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 여성암의 경우 치료 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날도 곧 다가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받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실용화가 가능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살의 질을 높이는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7.txt

제목: [항암 밥상-채 썬 가지전] 면역력 키우면서 입맛까지 살리는 건강 메뉴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3001  
본문: 우리나라 2대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비롯해 당뇨와 수많은 알레르기 등 다양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장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쁜 장내 환경이 면역력을 낮추고 그 결과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발효식은 현대인들이 좋은 장내 환경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식품으로, 장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키워준다. 우리는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식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그 효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의 발효식품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질병에 효과적인지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발효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발효식을 이용한 간편 레시피를 통해 맛있는 발효식 밥상을 만날 수 있다. 발효 명가 샘표가 제안하는 항암밥상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병을 이겨 낼 수 있는 요리들을 선보인다. 요리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맛이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고 한들 맛이 없으면, 즐겨 먹지 않게 된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주의 항암밥상 메뉴는 가지로 채 썬 가지전이다. 먼저 좋은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꼭지가 까맣고 돌기가 날카로우면서 가지 꼭지의 심줄이 선명한 것을 고른다. 잘 익었다는 증거이다. 또 껍질은 짙은 보라색으로 윤기가 흐르면서 상처가 있거나 갈색인 가지는 피하는 것이 좋고, 탱탱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또한 들었을 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은 속이 비었으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지는 추위나 건조한 환경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이나 종이봉투에 싸서 시원한 곳에 두는 것이 좋고 냉장고에 3일 이상 보관 시 껍질과 씨가 딱딱해지므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가지를 전으로 부칠 때 가지가 달걀과 기름을 흡수해 좋지 않은 식감을 주기 쉬운데, 가지를 채 썰어 전으로 부치면, 좀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을뿐더러 건강에도 좋다.도움말:샘표요리과학연구소 지미원 송지희·영양사&셰프◇만드는 법 가지 1개(100g), 요리에센스 연두 1큰술, 찬물 ½컵(120g), 박력분 ¼컵(60g), 카놀라유 2큰술(10+10g), 초간장(양조간장 ½큰술, 요리에센스 연두 ½큰술, 식초 ½큰술)1. 가지를 둥글게 펴 썬 후 3㎜두께로 채 썬다.2. 박력분에 연두와 물을 넣고 섞는다.3. 2)에 채 썬 가지를 넣고 건져 팬에 올리고 반 스푼 정도의 반죽을 부어 팬에 굽는다.(지름 6∼7cm의 원)4. 초간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세계 학회 이목 집중시킨 한미약품 항암·바이오신약… 매년 매출액 15% R&D 투자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27001  
본문: 기존 약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환자에게 쓸 수 있는 표적항암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약효가 유지되는 당뇨병치료제,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신개념 치료제. 이는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한미약품이 글로벌에서 활발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바이오·항암신약이다. 어려운 제약환경 속에서도 매년 매출액 15%대의 R&D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뚝심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미약품은 국내 코스피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R&D 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R&D에 대한 신념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약효 지속, 투약용량 최소 바이오신약과 내성이 생긴 암환자 또는 부작용에 노출된 암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차세대 표적항암제 등 20여건의 치료제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 미국,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돼 관련 분야 임상전문가, 전 세계 제약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표적항암제인 HM61713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구연발표되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다. ASCO는 1964년 창립된 세계 최대 임상종양학회로, 한미약품은 폐암부문 주요 심포지엄 중 주제 ‘EGFR 타깃항암제 향후 10년’ 세션에서 구연연제로 채택, 표적항암제 HM61713의 임상 1/2상 결과를 책임연구자인 김동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했다. HM61713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인 T790M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 48명 중 36명(75%)에서 질환 조절효과가 있었고 이 중 14명(29%)은 실질적 종양감소를 보였다. 발표에 나선 김동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EGFR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의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1세대 약물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였다</span>”고 말했다. 또 전 세계 1만5000명 이상의 당뇨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당뇨국제학회인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반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접목한 한미약품의 다양한 바이오신약들이 소개됐다. 한미약품은 LAPSCA-Exendin4, LAPSInsulin , LAPSInsulin 115 , LAPSGLP/GCG 등 투약 주기를 늘리거나 용량을 줄인 당뇨신약,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당뇨신약들을 대거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류머티스관절염학회(EULAR)에도 참가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HM71224의 임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잇따라 개최된 세계 학회에서 파이프라인을 대거 선보인 한미약품은 항암, 바이오신약들의 개발 속도를 높여 글로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span class='quot1'>R&D와 신약개발은 한미약품의 미래이자, 인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제약기업의 소명</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개발 중인 신약이 당뇨와 암 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개발에 전념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69.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약사, 복약지도 안 하면 과태료 外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093250001  
본문: 약사, 복약지도 안 하면 과태료약국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9월부터 4인실도 건강보험적용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4인실, 5인실의 상급병실료는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이며,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은 4000∼8000원이고 5인실은 3000∼600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무자격자, 6개월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 모든 진료에 대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초·재진 진료에 대해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진료일자를 포함해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 제출·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하다.대한간학회, 6개 지역에서 간질환 무료검진대한간학회는 바쁜 생계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재래시장 상인 및 상대적으로 의료 복지혜택이 적은 중소기업 임직원, 간질환 인식 및 검진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간질환 무료검진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간 되찾기’ 캠페인을 9월까지 진행한다.국내 연구진, ‘한국형 유방암 위험 예측 도구’ 개발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교수와 국립암센터 박보영 박사는 13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유방암 위험 예측 도구’ 개발에 성공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0.txt

제목: [암 희망일기] 간암치료 포기 않으면 길은 있다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4002  
본문: 간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중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무서운 암이다.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어렵고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증세가 거의 없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치료가 잘 된 분들도 적지 않다. 60세 여자분인데 평소 술을 즐기고 만성C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을 갖고 계신 분이다. 만성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면 간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소 간암 감시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다가 8cm 크기의 문맥이라는 큰 혈관을 침범한 진행된 상태의 간암으로 발견됐다. 수술을 하기엔 이미 늦어서 색전술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는데 다행히 치료반응이 좋아 3년째 완치 상태로 외래 진료실을 잘 다니고 계신다. 78세 남자분으로 동료의사의 친척 되시는 분이다. 5년 전 내원 당시 간경화에 8cm 크기의 진행된 간암이 있었는데, 검사해 보니 간 기능이 부족해 절제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색전술을 3회 시행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마침 우리 병원에 들어와 있던 최신 방사선치료기인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해 치료했더니 완치할 수 있었다.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시다가 작년에 작은 간암이 새로 생겨 역시 색전술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해 다시 완치에 도달했다. 간암은 잘 치료됐는데 간경화는 조금씩 진행돼 현재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으로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 간암은 아무리 잘 치료되더라도 남은 간에 대개 간경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이 흔하며 평생 재발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완치된 후에도 철저히 감시검사를 받아 재발하는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분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과다음주의 병력이 없었다. 요즘은 비만·당뇨병 등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간경화나 간암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서 10년 전 정기검진에서 간에 1cm 결절이 발견되어 내원한 45세의 여자분이다. 추가 검사상 간경변에 의한 결절로 진단돼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했고, 5년 전 다른 부위에 2cm의 간암이 발생해 수술 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수술 후 다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직을 만류했던 환자이다.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 간암이 진행된 상태일수록 치료 성적은 좋지 않아서 5년 생존율이 3기 간암은 15%, 4기 간암은 6% 정도이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간암 환자들은 생존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일부 환자들은 의외로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도 한다. 따라서 아직 치료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지레 포기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만성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간질환 관리와 간암 감시검사를 철저히 받았어야 하나,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불행히 진행된 상태에서 간암이 발견됐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간암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한철주 원자력병원 간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근당 ‘티로서겔’, 상처·화상·입술포진 등에 효과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36001  
본문: 종근당이 최근 상처, 화상 및 입술에 작은 물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입술포진 등 다양한 피부손상에 효과적인 상처치료제 ‘티로서겔(사진)’을 발매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티로서겔은 티로트리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색의 하이드로겔 타입의 상처치료제로 항균작용을 통해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상처 부위에 습윤환경을 조성해 흉터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쿨링작용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바른 후 얼굴에 남지 않아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티로서겔은 독일 엥겔하드(Engelhard)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승인된 외용항생제다. 현재 독일 일반의약품 상처치료제 판매 1위 제품으로 유럽 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티로서겔은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흉터 발생을 최소화해 다양한 상처 치료에 효과적인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은 물론 흉터에 민감한 여성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2.txt

제목: [암과의 동행] “투병 아내에게 상처만 줘 속상했는데…”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5123141001  
본문: “당신, 나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던 거야? 그래서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한 거였어?”, “나 아픈 뒤로 제대로 밥도 못 챙겨준 날이 더 많았잖아… 당신도 일하고 돌아오면 힘든데, 내가 언제까지 나 아프다고 하소연만 할 수 있었겠어.” ‘힐링 갤러리 시즌4’ 프로그램에 참석한 유방암 환우 부부는 한참을 이렇게 서로 말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투병 중인 아내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은데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아 늘 속상했어요. 이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만 예민해진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객석에 앉아 있던 유방암 환우 남편들은 같은 고민을 해 왔다는 듯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4월 19일, 서울미술관에서는 유방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힐링 갤러리 시즌4. 가족과 함께하는 유방암 환우 힐링 워크숍’이 진행됐다. 힐링 갤러리는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유방암 환우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 로슈가 진행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2년 초 서울에서 박보순 화백과 함께한 ‘치유와 예술의 공간, 힐링 갤러리전’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된 시즌2, 3은 각각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열린 바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힐링 갤러리는 지금껏 진행된 힐링 갤러리에서 환우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반응과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Family Gallery: 함께 그리는 희망’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1부는 아트 테라피 체험으로 환우와 그 가족들이 각자 그린 그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아트 테라피 체험은 환우와 가족들이 투병 생활로 지친 감정을 표현하고 미처 몰랐던 마음을 알아 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남편, 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한 유방암 환우 이모씨는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함께 견뎌 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전문가가 나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부에서는 유방암 극복 경험이 있는 개그우먼 이성미씨가 사전에 접수 받은 환우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심리 상담 전문가인 이남옥 교수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힐링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이남옥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환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같은 유방암 환우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이 심리적인 후유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개된 사연은 힐링 토크쇼에 참가한 환우와 가족들 모두의 공감을 자아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앞으로도 한국로슈는 책임감 있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환우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 한국로슈는 앞으로도 유방암 환우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힐링 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구성으로 보다 많은 유방암 환우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3.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 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100건 돌파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4122939001  
본문: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을 이용한 암 절제 수술 100건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로봇수술은 기존 개복수술 대신 복강경과 로봇을 병용하는 최신 수술법이다. 개복수술의 경우 암 덩어리를 포함한 장기를 제거할 때 복벽 피부를 길게 절개해야 했으나 로봇수술은 복벽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어 그 틈으로 수술기구를 넣고 수술을 진행한다. 따라서 출혈량이나 수술 후 통증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적어 미용적으로도 환자 만족도가 높다. 로봇수술은 또한 고배율의 3차원 영상을 지원해 시술자의 수술 시야를 확대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다. 분당차병원이 그동안 로봇수술로 치료한 질환은 전립선암, 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 등 비뇨기암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 암들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산부인과(자궁근종, 자궁적출, 난관미세수술), 외과(갑상선암, 담낭질환, 위암, 직장암), 흉부외과(폐암, 식도암, 종격동암, 심장판막질환) 등에도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 중이다. 지훈상 분당차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전 외과 계열의 고 난이도 중증수술에도 로봇수술을 적용, 수술 정밀도와 치료 성공률을 더욱 높일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4.txt

제목: [메디컬 뉴스] 이대목동병원, 주말 보톡스 클리닉 개설 外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4093144001  
본문: 주말 보톡스 클리닉 개설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신경과 외래 진료소에 주말 보톡스 클리닉을 새로 개설했다. 눈 주변이 떨리면서 입 주위까지 경련이 생기는 반측 안면경련,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눈이 감기고 뜨기 어려운 안검경련 등 이상운동 질환을 집중 치료하는 곳이다.‘나누리 디자인 공모전’ 응모 하세요나누리병원은 8월 22일까지 ‘제7회 나누리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척추관절 질환 전문 나누리병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광고 및 UCC영상을 만들어 출품하면 된다. 수상자는 9월 5일 병원 홈페이지(www.nanoori.co.kr)를 통해 발표된다.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각각 준다.뇌졸중 치료 지원 ‘브레인 세이버’ 앱 개발한림대의료원은 최근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출시했다. 브레인 세이버 앱은 119구조대가 병원과 연계하여 응급 후송 중인 뇌졸중 환자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생생척추관절교실’ 어깨질환 강연자생한방병원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SS빌딩 2층 대강당에서 정기 건강강좌 ‘생생척추관절교실’을 연다. 한의사 양승희씨가 ‘중년 이후 많이 발생하는 어깨질환’이란 제목으로 강연한다(1577-0007).청소년 혈당 관리 주제 건강교육고려대안암병원은 17일 오후 4시, 8층 중회의실에서 ‘방학 중 혈당관리’를 주제로 2014년 소아청소년 당뇨교실 여름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제1형(선천성) 당뇨병 소아·청소년 환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참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02-920-5896).의료분쟁 리스크 관리방안 주제 세미나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16일 오후 7시 서울 365MC병원 별관 6층 오렌지홀에서 ‘의료분쟁 및 대언론 리스크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심화세미나를 개최한다. 전현희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의료분쟁 사례분석과 대처방안’, 김철중 세계과학기자연맹 회장이 ‘대 언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02-543-3444).간이식 주제 공개 건강강좌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6일 오후 1∼2시 암병원 1층 영상의학과 회의실에서 ‘간이식’을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외과 이광웅 교수(02-2072-3550).‘방사선 암 치료 제대로 알기’ 강좌 고려대구로병원은 17일 오후 4시 암병원 3층 협진실에서 방사선 암 치료, 제대로 알기‘란 제목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방사선종양센터 양대식 교수(02-2626-2322).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5.txt

제목: 췌장암, 광범위한 절제 수술보다 화학요법·방사선 치료 병행이 효과적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4122934001  
본문: 췌장암 발견 시 주변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수술보다는 암세포가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고(표준수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생존율 연장에 더 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외과 김선회(사진), 장진영, 강미주 교수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내 7개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 후 췌·십이지장 절제수술을 받은 169명을 대상으로 표준 림프절 및 신경 절제술 그룹(83명, 비교군)과 광범위 확대 림프절 및 신경 절제술 그룹(86명, 대조군)으로 나눠 수술 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췌·십이지장 절제수술은 복부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로 췌장, 십이지장, 담도를 동시에 잘라내는 치료법이다. 또 표준 림프절 절제술은 췌장 주위의 림프절 중 암 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특정 림프절만 제거하는 수술, 확대 림프절 절제술은 표준 수술보다 림프절 절제 범위를 더 넓혀 주변 신경 조직까지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가리킨다. 조사결과, 췌장암 수술 후 2년 생존율은 표준수술을 시행한 비교군이 평균 44.5%인 반면 대조군은 평균 35.7%에 그쳤다. 수술 후 무(無)진행 2년 생존율도 비교군은 평균 25.2%, 대조군은 평균 19%로 조사됐다. 이는 확대 림프절 절제술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별 도움이 못된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차라리 표준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보고했다. 왜냐 하면 수술 후 항암화학 및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은 환자들의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20.8개월에 이른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고작 14개월에 그쳤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는 외과계 국제 학술지 ‘애널스 오브 서저리’(Annals of Surgery) 최신호에 발표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6.txt

제목: [헬스 파일] 늙어서 아픈 것은 당연하다?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4122936001  
본문: “<span class='quot0'>늙으면 여기 저기 아픈 것은 당연하다</span>”,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프면 참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신경통이나 여러 가지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자는 자식들의 권유를 거부하는 고령자(시니어)들이 많다. 물론 지나치게 병원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니어의 경우 통증을 나이 탓으로 여겨 방치하는 것은 자칫 만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이른바 ‘시니어 통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몸의 노화가 진행되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근력이 약해지며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특히 노년기의 통증은 퇴행성관절염이나 신경통과 관련된 통증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 비해 환자가 체감하는 통증 정도도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들이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통증 자체를 병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평소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진통제 복용을 포함한 다른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지 않아도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약물을 복용하기에 급급해 진통제 추가 복용 등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증을 방치하면 그것이 만성화되고, 직접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갑상선질환, 당뇨병 등 내분비 질환을 부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감기, 암 등 각종 질환을 만들고 기존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시니어는 진통제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사용 시 최소 용량으로 시작해 경과를 봐가며 서서히 증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치료는커녕 자칫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非)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위장관,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으므로 65세 이상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복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최소 용량만 써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심장병 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발작 또는 뇌졸중을 자초할 수 있다. 특히 관상동맥 수술 전후는 물론 아스피린 복용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심혈관계 자체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위장과 신장 계통에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나 마약성 진통제가 더 권장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즉 시니어의 통증 치료는 통증 종류, 통증 외 동반 증상 및 질병 등을 잘 관찰한 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약물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엔 비(非)약물 치료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문동언 문동언마취통증 의학과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7.txt

제목: “죽음의 구덩이서 건지신 하나님 은혜 놀라워”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4122945001  
본문: 서정순(69·여)씨는 시각장애 1급,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오른쪽 눈은 의안(義眼)이며 왼쪽 눈도 높은 도수의 안경을 써야 겨우 보인다. 다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아 한걸음 한걸음이 불편하다. 비가 올 때면 사지가 쑤신다. 서씨가 지나온 고통의 터널은 그녀의 몸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상도소망교회에서 만난 그녀는 “<span class='quot0'>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행복</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span>”고 고백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서씨에게 처음 고난이 찾아온 것은 1990년, 그녀의 나이 45세 때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로 왼쪽 가슴을 들어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지고, 방사선 치료 탓에 피부는 까맣게 변했다. “<span class='quot1'>여자로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가족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span>” 하지만 이는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다. 항암치료 6개월 차로 암이 거의 완치돼 갈 무렵인 1991년 4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지인들과 경남 사천공항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하동방향 남해고속도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화물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 서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동행한 지인 두 명은 숨졌다. 서씨의 양팔과 다리는 분쇄골절됐고, 이마는 함몰됐으며, 그 탓에 오른쪽 안구가 떨어져 나갔다. 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2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서씨가 회복하길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극심한 통증과 싸우며 몇 개월을 보냈다. 온몸에는 욕창이 생겼다. “<span class='quot1'>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친오빠가 매일 성경구절 복사해서 보여주고, 읽어주더군요.</span>” 그때 서씨의 마음을 움직인 구절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용기를 갖고 재활에 힘썼습니다.” 서씨는 이후 2001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16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의 회복을 두고 사람들은 기적이라 했지만 서씨는 마냥 감사할 수 없었다. “<span class='quot1'>무엇보다 힘든 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감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span>” 그런 서씨의 삶에 변화가 온 건 2006년 상도소망교회 서충원 목사를 만나면서부터다. “<span class='quot1'>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선포한 설교를 듣고 제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span>” 서 목사의 권유로 서씨는 놓쳤던 학업의 끈을 40여년 만에 다시 잡았다. “<span class='quot1'>가난 탓에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것이 한이 됐는데 용기를 얻어 도전을 했습니다.</span>” 2010년 서울 일성여고에 입학한 그녀는 대학 진학의 목표도 세운다. “<span class='quot1'>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span>” 서씨는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수시로 합격해 2012년 입학했다. 서씨의 사정을 접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무료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손자, 손녀와 같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더군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MT도 꾸준히 참석하고, 학점관리도 열심히 해서 지난 2월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용인송담대학은 서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서씨는 학교생활을 하며 사회복지사2급, 한국레크레이션치료사2급, 다문화복지사2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족과 교회 성도 등 여러 손길을 통해 베푸신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남은 삶을 이웃을 돌보며 살겠습니다.”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8.txt

제목: 121세 노인에 “징병 대상” 美 병무당국, 컴퓨터 오작동으로 황당한 통지서  
날짜: 2014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2093141002  
본문: 미국 정부가 121세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징병 대상’이라고 통보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병무 당국이 1893∼1897년 사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1만4215명에게 최근 이런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통지서를 받은 가족들이 황당해하며 병무 당국에 대한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소개했다. 일부 가족들은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존했을 당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초 통지서를 보낼 대상은 1993년∼199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컴퓨터 에러로 100년 전에 태어난 117∼121세 사람에게 잘못 보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를 받아본 가족들이 항의하면서 아직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겐 발송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징병제도 운용하고 있다. 18∼25세 남성이 대상으로 징병 대상 등록을 거부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는다. 병무 당국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통지를 받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보훈병원이 숨진 지 2년이나 지난 퇴역군인 출신 환자에게 1차 진료 예약을 잡겠다며 ‘적절한 진료를 위해 빠른 응답을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가족의 분노를 샀다. 생존 당시 흑색선종과 방광암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환자는 2012년 8월 병세가 악화돼 숨졌는데 암 치료를 위한 진료예약 신청에 대한 답변이 2년이 넘어 도착한 것이었다. 보훈병원은 당시 사과성명을 냈지만 퇴역 군인과 상이용사들의 보훈병원에 대한 불신은 한동안 계속됐었다.이제훈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79.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에 1조원대 의료 시스템 수출  
날짜: 2014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1093059001  
본문: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립 종합병원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국내 병원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5년간 위탁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UAE 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총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이다. 올해 말 암과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내년 4월 공식 개원한다. 입찰 과정은 치열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과 영국의 킹스칼리지 병원 등 세계 주요 병원 7곳이 경쟁을 벌였다. 지난 6월 방한한 UAE 대통령실 실사단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을 실사한 뒤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의향서를 UAE 정부에 제출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의 강점은 ‘대규모 인력 현지 파견’과 ‘우수한 의료정보 시스템’이었다. 서울대병원은 1420명 규모의 칼리파 전문병원 채용 인력 중 20%를 국내에서 선발해 현지로 보내기로 했다.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인 ‘베스트케어 2.0’도 UAE 정부 측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5년간 칼리파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경영진 및 의료진 인력 교육, 의료기술 전수, 의료진 채용과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UAE 측으로부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파견 직원 인건비와 위탁운영 수수료로 연간 70억∼80억원의 수익도 따로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NUH International(서울대병원 인터내셔널)을 설립해 각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0'>이번 성과는 한국 의료의 수출시대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국 의료진의 현지 면허 인증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span>”고 밝혔다.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0.txt

제목: 청류로 눈 씻으면 청학동 선경이 보일까… 강릉 소금강으로 떠나는 초여름 계곡여행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0122616001  
본문: 아홉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소금강 구룡폭포의 천둥소리에 놀란 금강송이 가늘게 떤다. 전날 내린 장맛비로 수량이 한껏 불어난 때문일까. 용이 꿈틀대는 듯 선녀탕에서 목욕하던 선녀의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듯 폭포수가 너무 깊어 검은 소(沼)를 향해 하얗게 쏟아진다. 만물상을 비롯한 소금강 계곡의 절경을 주유한 청류가 구룡폭포의 마지막 소에서 잠시 호흡을 고른 후 445년 전 율곡이 감탄사를 남발했던 그 계곡을 달려 강릉바다로 초하의 여행을 떠난다.청학동에는 정말로 청학(靑鶴)이 살고 있을까? 오대산 노인봉 동쪽에서 발원한 청학천이 연곡천과 합류해 동해로 흘러드는 강원도 강릉시 연곡동의 청학동 소금강 계곡은 기암괴석과 층암절벽, 폭포, 소 등이 두루마리 산수화처럼 펼쳐지는 절경으로 1970년 국가명승 제1호로 지정됐다. 오대산국립공원의 높은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13㎞ 길이의 소금강 계곡에는 식당암 등 거대한 암반과 만물상 등 기암괴석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전봇대처럼 쭉쭉 뻗은 금강송과 울창한 숲, 집채만한 바위와 그 사이를 흐르는 청류, 그리고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오르면 오를수록 진경산수화를 연출한다. 소금강이라는 이름은 강릉이 낳은 대학자 율곡 이이의 글에서 유래됐다. 1569년 초여름 벼슬을 그만두고 강릉으로 내려온 율곡은 연곡천을 거슬러 올라 청학동 계곡을 찾는다. 그리고 그 감흥을 담은 ‘유청학산기(游靑鶴山記)’라는 기행문에 “청학동 계곡의 빼어난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며 소금강(小金剛)으로 명명한다. 소금강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 실제로 금강산과 닮은 형상도 여럿이다. 소금강 구룡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와 닮았고, 소금강 만물상은 금강산 만물상과 흡사하다. 소금강 연화담도 금강산 연주담과 비슷해 금강산의 비경을 구경하지 못했다면 소금강에서 대리만족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율곡이 “<span class='quot0'>길가의 수석이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기이하고 눈이 어지러워 다 기록할 수 없다</span>”고 한 계곡 구간은 안타깝게도 길이 없어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분소까지 아스팔트 포장길을 에둘러야 한다. 구절양장 잣고개를 넘어 만나는 산촌에서 허름한 초옥과 물방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율곡이 감탄한 봉우리의 푸른 기운은 여전하다. 소금강 분소부터는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된다. 초록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산로 아래 금강송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계곡에는 산복숭아나무와 산벚나무 꽃이 만개하면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다는 무릉계가 자리잡고 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십자소와 연화담은 피톤치드 그윽한 숲길이 계곡과 가까워지는 곳에 있다. 율곡은 푸른 낭떠러지가 오이를 깎아 세운 듯하고 떨어지는 천류가 백설을 뿜어내는 소를 ‘창운(漲雲)’이라고 불렀다. 유람기의 탐방 코스로 미루어 짐작컨대 십자소나 연화담이 창운이겠지만 유람기에서 묘사한 감동은 느껴지지 않는다. 등산로나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계단에서는 계곡을 거슬러 오르던 율곡의 감회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리라. 맑은 계류가 암반을 미끄러져 푸른 담을 이루는 연화담을 지나면 소금강 내에 있는 유일한 사찰인 금강사에 이른다. 금강사 주변에는 전봇대처럼 쭉쭉 뻗은 금강송이 유달리 많다. 약수터 건너편 계곡의 바위에는 율곡이 새겼다는 ‘소금강(小金剛)’ 글씨가 보이지만 율곡의 글씨라는 증거는 없다. ‘겨우 머리를 숙이고 걸어서 석문에 들어서니 그 경색이 더욱 기이하여 황연히 딴 세계였다. 사방을 두루 돌아보니 모두 석산이 솟아 있고 푸른 잣나무와 키 작은 소나무가 그 틈바구니를 누비고 있었다’고 묘사된 식당암은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군사를 훈련시키면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거대한 너럭바위다. 소금강에는 마의태자가 생활했다는 아미산성을 비롯해 고구려 축성 방식의 성인 금강산성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이밖에도 수양대, 대궐터, 연병장, 망군대 등 마의태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식당암에는 율곡이 소금강에서 공부할 때 이 바위에서 밥을 지어먹었다는 전설도 전해오지만 식당암이 생긴 모양에서 유래됐을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한다. 식당암에서 유유자적하던 율곡은 눈에 잡히는 암봉과 푸른 소에 촉운봉과 경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식당암이란 이름이 촌스러웠던지 비선암으로 고쳐 부르고, 산 전체를 청학산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비가 올 것 같은 궂은 날씨 탓에 더 이상의 산행을 포기하고 서둘러 하산길에 올랐다. 안타깝게도 구룡폭포의 장관과 거인상 귀면암 이월암 촛대석 등으로 불리는 만물상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이유다. 식당암에서 푸른 이끼로 뒤덮인 등산로를 한참 오르면 소금강 계곡이 떠나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소금강의 백미인 구룡폭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아홉 개의 폭포와 소가 이어지는 구룡폭포 중 등산로에서 볼 수 있는 폭포는 가장 아래에 자리한 8폭과 9폭이다. 거대한 암반을 타고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여름을 알리는 매미 소리로 속세에 젖은 눈과 귀를 씻고 발걸음을 재촉하면 만물상과 선녀탕이 기다린다.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과 푸른 이끼로 단장한 너덜지대를 지나면 오색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가 요란한 백운대를 만난다. 진고개에서 노인봉을 올라 소금강으로 하산하거나 소금강에서 노인봉을 오르는 산행객들의 휴식처인 백운대의 눈부심은 글자 그대로 한 조각 흰 구름과 다름없다. 이어 노인봉까지는 삼폭포 광폭포 낙영폭포 등 절경이 계속되지만 소금강분소에 주차한 산행객들은 대부분 백운대나 구룡폭포에서 발걸음을 되돌린다. 하산길에 오른 율곡은 청학이 산다는 학소를 못 본 안타까움을 달래려는 듯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뒤를 돌아보았다고 고백한다. 청학은 날개가 여덟 개에 다리가 하나인 상상의 새다. 푸른 산과 푸른 계곡으로 이루어진 청학동 소금강 그 자체가 청학인데 율곡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강릉=글·사진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kspark@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1.txt

제목: [기획] 바둑 소재 영화·드라마 인기… 반상의 승부, 킬러 콘텐츠 될까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10122657001  
본문: 가로 세로 19개의 줄. 그 줄이 만든 361개의 점 위에서 흑돌과 백돌 간 접전은 뜨겁고 집요하다. 공격과 수성이 있고, 다음 수를 노린 의도적인 퇴각도 있다. 집을 만들고 허무는 과정에서 판 위 돌들은 살거나 죽는다. 바둑이 인생에 비유되는 이유다.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잇달아 제작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2편의 영화가 개봉한 데 이어 하반기엔 인기 웹툰 ‘미생’이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내기 바둑’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 ‘바둑으로 비유한 직장생활’ 등 바둑을 소재로 한 점에서는 같아도 풀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국내 최초 바둑 영화’란 타이틀을 달고 지난달 12일 개봉한 영화 ‘스톤’(감독 조세래). 천재 아마추어 바둑기사인 민수(조동인 분)가 폭력조직의 보스 남해(김뢰하 분)의 바둑 선생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들의 교감이 돋보인다. 바둑 소설 ‘승부’의 저자이면서 오랫동안 바둑 소재 영화를 기획해 온 감독 덕분에 현실감이 뛰어나다. 조 감독이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스톤’은 그의 유작이 됐다. 바둑의 승부사적 특성을 강조한 작품은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신의 한 수’(감독 조범구)다. 프로기사 태석(정우성 분)과 살수(이범수 분)가 복수를 꿈꾸며 내기 바둑에 나서는 범죄 액션 영화다. 배우 정우성 이범수 안성기 등 화려한 캐스팅에 실감나는 액션신이 입소문을 탔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6일째인 지난 8일 기준 149만 관객을 불러, 박스 오피스 1위 자리에 올랐다. 오는 10월 방영 예정인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는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장 생활의 바이블’로 불린 동명 원작(작은 사진)의 인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프로기사 입단에 실패한 청년 장그래가 대기업 종합상사에 일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바둑판 위에 은유적으로 담아낸다. 지난해 모바일 영화 ‘미생 프리퀄’이 제작된 데 이은 두 번째 변신. 당시 장그래 역을 맡았던 임시완이 다시 한 번 물망에 오르고 있다. CJ E&M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장그래의 직장 동료 안영이 역에는 강소라가,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는 신입사원 장백기 역에는 강하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죽도록 일하지만 출세하지 못하는 만년 과장 오상식 역에는 이성민이 확정됐다. 오는 10월부터 20부작 금토드라마로 편성된다. 바둑이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론가들은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신선한 소재라는 점, 바둑판 위에 삶을 대입시켜 다양한 인생사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황진미 영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1'>바둑은 그간 성인 만화와 소설 등에서는 다뤄졌지만 영화의 소재가 된 건 최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소재의 신선함이 흥미를 끄는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 한상덕 대중문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2'>바둑은 한 수 차이로 지고 이기는 게임</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작은 실수와 운명에 따라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료가 된다</span>”고 말했다. 또 “경쟁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유발되지만 정적인 면도 갖추고 있어 제작자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2.txt

제목: 상급종합병원 5인실 입원료, 하루 4만∼5만원서 1만3000원으로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9122522002  
본문: 간세포암 환자 A씨(46)는 최근 뼈와 폐에 암이 전이돼 상급종합병원에서 혈관색전술을 받았다. 추가 비용이 드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5인용 병실에 18일간 입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그는 진료비 1543만원 중 402만원을 직접 내야 했다. 청구된 내역은 5인실 상급병실료 90만원, 선택진료비 241만원,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액 71만원 등이었다. 9월부터는 A씨의 경우 220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돼 5인실 상급병실료가 면제된다. 선택진료비는 현재 항목별로 건보 진료비의 20∼100%를 더 내는데 이 비율이 15∼50%로 축소돼(8월부터 시행) A씨의 경우 약 40% 감소한 146만원이 된다. 이런 개편을 위해 진료 수가를 조금 높여서 건보 진료의 본인부담액은 74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선택진료 개편안과 4대 중증질환 급여적용 개편안 등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료는 현재 5인실이 하루 4만∼5만원, 4인실이 6만∼11만원선인데, 9월부터 5인실은 1만3000원, 4인실은 2만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비도 산정비율이 조정돼 8월부터 평균 35% 낮아지며 수술 항목에 대해선 최고 50% 감소한다. 또 중증 암 환자를 의사 4∼5명이 동시에 진료하는 ‘암 환자 공동진료’와 영양불량 환자를 집중 관리해 생존율을 높이는 ‘집중영양치료’ 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중증 암 환자가 의사 5명에게 공동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는 14만1510원이며 환자는 이 중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장 캡슐내시경 검사, 심장이식에 필요한 심근생검 검사, 암이 뼈에 전이됐는지 확인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수가 개편으로 환자 부담은 연간 6070억원 정도 줄어들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6550억원이다.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3.txt

제목: 환경과학원 실험해보니… 아파트 화장실 흡연땐 5분내 위·아래층 솔솔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9122602001  
본문: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배 유해물질은 입자가 작아 20여 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녀서 집안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공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어 층간소음에 이어 실내 흡연은 또 다른 이웃 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아파트 실내 흡연과 유해물질 확산의 특성을 연구·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연기는 최대 1초에 20㎝씩 위·아래층으로 퍼졌다. 환기 통로를 통해 위·아래층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도달하는 데는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실험은 지난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1개 동의 4개 층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을 경우 담배연기는 그대로 옥상으로 배출됐다. ‘흡연자의 화장실→환기통로→위·아래층 화장실 환풍기’ 경로로 담배연기가 이동하지만 각 층의 환풍기가 돌면 담배연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웃의 담배연기를 막으려면 항상 화장실 환풍기를 돌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음·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지 않을 것</span>”이라며 이웃집의 담배연기 피해 가능성을 말했다. 닫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됐다. 이 경우 미세먼지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로 측정됐다.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 0.002㎍/㎥, 크롬 0.011㎍/㎥, 카드뮴 0.001㎍/㎥ 농도를 웃도는 수치다(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담배 10개비를 피우면 납 농도는 0.185㎍/㎥로 치솟는다. 지하철 승강장의 평균 납 농도인 0.092㎍/㎥의 배가 넘고 실내주차장(0.032㎍/㎥), 버스터미널 대합실(0.039㎍/㎥) 납 농도의 4∼6배나 된다.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담배 유해물질은 공기 중에 오래 잔류했다. 실내에서 담배 2개비를 피울 때 20시간이 지나야 담배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다. 10개비를 피우면 24시간이 지나도 그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계식 환기에 의존하는 밀폐형 공동주택이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상시 환기를 해야 한다</span>”고 권했다. 의학계는 직접흡연이든 간접흡연이든 담배연기는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세포폐암을 일으키는 최대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비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소세포폐암은 일반 폐암의 15% 비율로 나타나지만 치명적이다. 암 덩어리가 작고 일부에 국한됐더라도 일단 확진을 받으면 암이 전신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항암치료·방사선치료 등으로 호전돼도 첫 치료 후 2∼3개월이 안돼 재발하기 쉽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4.txt

제목: [헬스파일] 소세포폐암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122258001  
본문: (원발성)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1위인 암이다. 폐암은 조직 유형에 따라 크게 비(非)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뉜다. 폐암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세포폐암이 치료법과 예후 면에서 비소세포폐암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세포폐암은 폐암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암이 소세포폐암이다. 소세포폐암은 거의 대부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다. 비(非)흡연자에게서 소세포페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세포폐암의 증상은 비소세포폐암과 비슷하다.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거리 장기인 뇌나 뼈로 전이가 된 후 해당 장기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세포폐암이 자라서 상대정맥을 압박하면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 얼굴과 팔이 심하게 붓게 되고 호흡곤란이 유발된다. 상대정맥은 머리, 얼굴, 어깨, 팔 등 상반신으로 혈액을 모으는 혈관이다. 이밖에 부종양증후군이라고 하여 암세포가 만들어낸 일종의 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분비해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소세포폐암은 아무리 크기가 작고, 한 곳에 국한됐더라도 진단과 동시에 전신 질환으로 간주한다. 왜냐 하면 눈에 보이는 종양이 흉곽(가슴 속)에만 있을지라도 눈에 띄지만 않을 뿐 온몸에 이미 미세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도 흉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제한 병기’와 암세포가 흉부 밖으로 벗어나 방사선을 이용한 집중 치료가 어려운 ‘확장 병기’로 나눠 실시한다. 말하자면 제한병기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확장 병기엔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소세포폐암은 초기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70∼90%가 좋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곧 재발하는 게 문제다. 이유는 무엇보다 암세포가 금방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첫 치료 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발하는 것은 나은 편에 속한다. 첫 치료 후 2∼3개월도 안 돼 재발하기 일쑤다. 이 때는 ‘항암제에 불응성이 있다’고 하며, 2차적으로 어떤 항암제를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비소세포폐암에서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와 같은 초강력 암 유발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아 표적치료제를 쓸 수가 없고, 맞춤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다. 결국 피할 수만 있다면 소세포폐암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을 실천한 지 15년 미만인 55세 이상인 사람들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흉부CT 촬영검사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 문용화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5.txt

제목: [메디컬 뉴스]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 출시 外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092822001  
본문: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 출시레오파마는 최근 ‘인게놀메뷰테이트’ 성분의 국소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을 새로 출시했다. 광선각화증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가 딱딱해지는 것으로, 피부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피부관리법·화장품 고르기 앱 출시에이오씨((AoC)는 최근 피부과전문의 이창남 원장이 개발한 화장품 성분분석 및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화장품멘토-화장품의 모든 것을 말하다’를 출시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궁금해 하던 피부관리법과 좋은 화장품 선택요령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강생 모집가천대 길병원 암센터는 제3기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에 참가할 수강생을 1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다. 교육은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1회(목요일)씩 총 11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50만원이다(032-460-8485).삼킴장애 클리닉 이달부터 운영한림대강동성심병원(원장 송경원)은 7월부터 연하장애(삼킴장애)클리닉을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파킨슨 병, 뇌성마비와 같이 신경계에 손상이 있거나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예방·재활까지 '통합 암치유센터' 개소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예방부터 치료 후 재활까지 모든 암 극복과정을 포괄적으로 종합관리해주는 ‘통합 암치유센터’(센터장 이정권·가정의학과 교수)를 이달부터 새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을 이용하면 각 암 클리닉의 암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불면증 치료제 '서카딘' 수입 판매건일제약㈜은 멜라토닌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을 이스라엘 뉴림사로부터 직수입,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을 지속적으로 공급, 불면증 환자들이 쉽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약이다.고려대구로병원 180병상 늘려고려대구로병원(원장 백세현)은 최근 새 병상 180개를 추가, 병상수를 총 1140개 규모로 늘렸다. 1983년 300여 병상으로 시작한 이 병원은 10여년 만에 병상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6.txt

제목: 대상포진, 제때 안 고치면 신경통 된다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122254001  
본문: 여름철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병이 대상포진(帶狀疱疹)이다. 7∼8월에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원인은 더위와 스트레스 누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령별 환자분포는 50대가 25.4%로 가장 많고 60대와 40대가 각각 16.2%로 뒤를 이었다. 젊은이보다는 고령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병이라는 얘기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 흔히 걸리는 감기는 며칠 푹 쉬면서 충분히 영양을 보충하면 대부분 쉽게 낫지만 대상포진은 그렇지 않다. 발병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바로 바이러스를 제압해야 한다. 기찬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찬 원장(전 아주대병원 교수)은 “<span class='quot0'>만약 치료가 늦어지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후유증을 얻어 암성 통증 수준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span>”고 경고했다. 대상포진은 말 그대로 띠 모양의 수포가 피부에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피부에 붉은 반점이 일정한 띠를 두르듯이 생기면서 통증까지 느껴진다면 일단 대상포진을 의심하는 게 좋다. 비교적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발생률이 부쩍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대상포진바이러스’는 수두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다. 과거 수두를 앓은 사람의 몸속 척수신경에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돼 신경줄기를 따라 특유의 통증과 함께 띠 모양의 수포(물집)를 일으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첫 발병 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몸살감기 정도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피부에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기 전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가벼운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감기약을 먹는 데 그치다가 병을 키우는 이들도 많다. 대상포진이 몸살감기와 분명하게 다른 점은 콧물, 재채기 등 호흡기 증세가 없다는 점이다. 또 일반적인 근육통과 달리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 배,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고 이어 수포가 형성되는 것도 일반 감기에선 보이지 않는 증상들이다. 임이석테마피부과의원 임이석 원장은 “<span class='quot1'>최근 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무리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즉시 피부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span>”고 당부했다. 특히 급성통증을 느낀 뒤에 작은 물집이 띠 형태를 보이며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날 경우엔 대상포진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초기 대상포진은 피부과에서 주는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히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잘 낫는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커진다. 감기 정도로 오인해 엉뚱한 감기약만을 먹거나 방치할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해 수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4∼6개월 이상 가슴이나 허리, 목 등 다양한 부위에 감각이상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 환자 중 약 10∼18%에서 나타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암 환자가 느끼는 통증 못잖게 극심하다. 옷자락이 환부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환자들이 소스라칠 정도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리게 되면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문동언 원장(전 서울성모병원 교수)은 “<span class='quot2'>대상포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하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해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7.txt

제목: 간 굳은 50대 남자 치료해도 암 확률 높다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122255001  
본문: 나이는 50세를 넘겼고, 간은 섬유화 현상으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면? 게다가 남자라면 치명적인 간암을 합병, 장수를 꿈꾸기 힘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간센터 김순선(사진) 교수팀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B형 간염 치료를 위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엔테카비어’로 1년 이상 치료 받은 간경변증 환자 306명을 대상으로 간암 발생률과 간암 발생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결과, 간암 발생률은 △남성 △50세 이상 △항바이러스제 치료 후 1년이 지났는데도 B형 간염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경우 △치료 1년째 혈청 PIIINP(간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값이 큰 경우에 높았다. 예컨대 남성은 여성에 비해 4.2배, 50세 이상은 50세 미만에 비해 8.4배, 1년이나 약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효과를 본 경우보다 2.1배나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비대상성(非代償性)’ 간경변증 환자인데다 1년째 항바이러스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엔 간암 발생률이 7.7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세 이상 간경변증 환자가 황달, 복수 등 간 기능이상 증상을 동반하게 되면 간암 발생을 바짝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황달, 복수 등 간부전(간 기능 이상) 증상이 없는 간경변증을 가리킨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간경변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도 4명 중 1명 이상이 5년 안에 간암에 걸릴 정도로 간암 발생률이 높았다</span>”며 “<span class='quot0'>B형 간염이 원인이 돼 간경변증을 앓게 된 환자,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 환자는 간암 발생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미국소화기학회 학술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가스트로엔테롤로지’(AJG) 8월호에 게재된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8.txt

제목: [고용률 70% 로드맵 1년] 독일 ‘미니잡’ 명암… 女 일자리 늘었지만 고용의 質 악화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7122333001  
본문: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금이 많진 않더라도 편한 시간에 짧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면 고용률도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부부 중 한 명은 전일제 직장에 다니고 나머지 한 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갖는 이른바 ‘1.5인 맞벌이’ 가정이 확산될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이런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2003년 독일이 시도했던 ‘미니잡(mini job)’이다. 미니잡은 월 소득이 450달러를 넘지 않도록 정해놓은 일자리다. 자연스럽게 미니잡 종사자들은 단시간만 일하게 된다. 대부분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아래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의존하던 비경제 활동 인구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발판 역할도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독일 국민이 미니잡에 관심을 보였다. 2003년 도입 당시 598만명이던 미니잡 종사자는 2013년 3월 733만명까지 늘었다. 주로 여성이 선호했다. 이 중 458만명(62.5%)은 여성이었고, 가정주부가 전체 35.2%를 차지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미니잡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육아 등 가사 때문에 전일제 근로에 부담을 느낀 여성들이 미니잡을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여성 고용률은 50.2%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독일의 미니잡은 대부분 단순 서비스 직종이고, 시간당 임금도 거의 최저 수준이었다. 매장·주유소 보조가 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소(15%), 사무보조(10%), 음식·숙박업(10%) 순이었다. 가정주부의 경우엔 청소가 22%, 마트 등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19%로 1, 2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미니잡과 같은 단기근로 일자리가 남녀 간 임금 차이를 고착화시키고,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벌려 놓는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미니잡은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성의 경우 오히려 숙련자로서의 이미지가 깎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72만2000명으로 1년 새 37.7%나 증가했다. 서비스 종사자(18.9%),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16.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13.2%)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여성 고용률도 저임금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50∼54세 연령층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우리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고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규직 범위 내에서이다</span>”라며 저임금 단순 서비스 업종 위주로 일자리가 느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미니잡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독일경제연구소와 독일 통계청 등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독일의 미니잡 종사자 중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3%나 됐다.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라 이직을 위한 경력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미니잡에 대한 의존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초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는 분명 명과 암이 공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는 독일 미니잡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우리 사정에 맡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세종=이용상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89.txt

제목: 대구 연료단지 인근 주민 28명 진폐증 앓아… 환경부 조사결과  
날짜: 2014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5092813002  
본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의 호흡기 상태를 조사한 결과 28명이 진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 3명과 여성 5명 등 환자 8명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력이 없었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료단지 인근 안심 1∼4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부 엑스레이·컴퓨터 단층촬영(CT)·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 연료단지로부터 500m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래·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비율은 각각 27%, 21%로 나타났다. 연료단지로부터 500m∼1㎞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래·호흡곤란 호소 비율이 24%, 16%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천식으로 인한 병원 이용률은 대구시 전체에 비해 1.2배 높았지만 암 발생률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료단지에서 나온 먼지가 주변지역의 대기 중 분진농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주민의 호흡기계 건강상태와도 관련성이 있다</span>”고 밝혔다.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0.txt

제목: [미션 르포] 땅 끝, 상실의 바다에서 희망을 거두다  
날짜: 2014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5122201001  
본문: 낙도선교회 섬선교 봉사단원 누군가 맹골수도 바닷가에 앉아 말했다. 해조류 톳을 거두는 작업을 하다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지면서였다.“저 건너편 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8명의 단원 중 누가 받아쳤다. “물 위를 걸어가. 예수 그렇게 (오랜 세월) 믿고도 그거 못해?”모두 ‘와아’ 하며 웃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을 거뒀다. 바다안개가 먹구름처럼 그들 머릿속에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침몰된 그 바다였다. 11명의 실종자가 아직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맹골수도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불쑥 자란 해당화만 바다안개에서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실종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 뭍으로 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지난달 30일, 진도 팽목항에서 20여㎞ 떨어진 섬 관사도. 늦장마 탓에 연일 바다안개가 끼어 결항이 잦은 날이 계속됐다. 낙도선교회(대표 박원희 목사) 제56차 단기선교팀이 이 섬에 도착한 것은 29일이었다. 80여명이 진도코스와 완도코스로 40여명씩 나뉘어 1주일간 선교에 나섰다. 진도코스 B팀은 관사도침례교회에 둥지를 틀었다. 관사 마을이었다. 이 마을 반대편 관작마을엔 A팀이 들어가 그곳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하기로 했다. “<span class='quot0'>중심의 모순이 세월호 아이들을 잡아</span>” 관사도는 여의도 반(1.62㎢) 넓이다. 비교적 평지인 관사·관작 마을은 5년 전만 해도 마을을 오가는 도로가 없었다. 산을 넘거나 배로 오가야 했다. 이 섬엔 1960∼70년대만 해도 관사초교 학생 수가 600여명이었다. 지금은 관사분교가 되었고 3명이 학생의 전부다. 주민은 40여명. 그마저도 80%가 80세 넘는 고령이다. 관사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먼 바다의 섬 사정이 대개 이렇다. 이곳에 오기 전에 만난 낙도선교회 박 목사의 얘기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초기 크리스천은 민족이 불운할 때 예수 정신의 씨를 뿌려 민족 속에 교회가 있게 했어요. 70, 80년대에도 크리스천은 정치·사회적 고난을 감당했고요. 이는 땅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은 땅끝이 아닌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신학생들조차도요. 중심의 모순으로 뭉쳐진 암덩어리가 (세월호 탑승) 아이들을 잡았어요. 그로 인한 고난은 변방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고요. 곱게 자란 권력자 아들이 (우리 국민은) ‘미개인’이라고 했나요? 중심의 권력자들은 그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참 안됐군요’하고 말아요. 땅 끝에서 보려고 하지 않죠.” 그 땅 끝은 지정학적 의미만은 아니다. 예수 시대에 문둥병자, 소경, 불구자, 앉은뱅이, 혈루병자, 귀신들린 자, 과부, 고아, 포로 등 소외된 이들은 지금도 땅 끝에 있다. 예수가 태어난 나사렛도 땅 끝이었다. 박 목사가 그 땅 끝 사람들을 위해 모은 단기선교팀 80여명은 ‘무서운 바다’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 반. 매년 진행하던 낙도선교회 단기선교팀 신청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해약자가 속출했다. “<span class='quot0'>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회 신청자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span>”하고 박 목사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교회 측 사정이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끝에 “(신청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신청 교회) 목사의 리더십에 흠이 생길 수 있거든요”라고 아쉬워했다. 어찌됐든 우리 80여명은 기도회 후 땅 끝으로 향했다. 관사도엔 구릿빛 얼굴의 김요셉(48) 목사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해당화와 수국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폐그물과 폐자재 등이 해안가에 나뒹굴었고, 빈집엔 잡초가 키높이까지 자랐다. 따가운 햇살 아래 술주정꾼이 술병을 들고 느릿느릿 걸었다. ‘맹골수도’ 섬 관사도 소금기 먹은 교회 관사도교회당은 십자가가 없다. 교회 문 앞까지 바람에 쓸려온 모래가 쌓였고 떨어진 교회 지붕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 교회 옆쪽 해안은 마을 쓰레기장이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태풍에 교회 예배당이 물에 잠겼어요. 십자가가 꺾여 지붕을 덮쳤고, 교회 뒤 노송도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역시 예배당 지붕 위로 쓰러졌죠. 간신히 응급 복구했지만 비 새는 걸 잡지 못했어요. 십자가 탑은 보시다시피 세우다 중단했고요.” 김 목사는 블록벽돌을 쌓아 십자가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면사무소 측은 교회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선교팀이 십자가 탑 마무리 공사를 해주려 했으나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 관사도에 교회가 들어선 것은 1970년대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마을 쓰레기장을 메워 세운 예배처소였다. 무허가 건축물이 된 이유다. 이 처소는 순회선교사에 의한 기도처가 되기도 했고, 전도사가 들어와 머물 때면 제대로 된 예배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렵만 하더라도 무속이 워낙 강해 복음 전파가 어려웠다. 김 목사 부임 후에도 예배 중 문앞에서 108배 불공드리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경운기로 교회 가는 길을 막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도 20여명이 출석하는 건 김 목사의 ‘복음 열정’ 때문이다. 관사와 관작 마을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 하지만 관작마을 교인들이 관사마을에 있는 교회에 오려면 꼬박 한 시간이 걸린다. 허리 굽은 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마을 유일의 자가용인 밴으로 2회 왕복하며 예배 시간에 댄다. 김 목사는 관작마을에 빈 집 하나를 사 놓고 교회 헌당을 기도 중이다. 팽목항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대책본부가 있는 팽목항에서 관사도행 배를 탔다. ‘환난의 날에 산성’(나 1:7) 되시는 이가 거기 팽목항에서 그렇게 울고 계셨다. “<span class='quot0'>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는</span>”(미 2:1) 자들은 지금도 건재했다. 팽목항에서 관사도, 진목도, 독거도, 상구자도로 흩어지는 팀원들은 슬픔이 가시지 않는 그 항구에서 각자 기도하며 어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간구했다. 관사도 B팀 한우식(33·총신대 신학대학원)씨는 누군가 맹골수도를 향해 세워놓은 푯말 ‘함께 울겠습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했다. 그렇게 애써 슬픔을 짓누르고 관사도에 닿았을 때 김 목사가 선교선 ‘등대 2호’를 내리며 우리를 맞았다. 4월 16일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 김 목사는 세월호에 접근하여 구조된 학생들을 인근 섬 서거차도로 실어날랐다. 김 목사는 필리핀 빈민촌 선교 2년6개월을 마치고 99년부터 이 섬에서 사역하고 있다.“세월호 4층 창가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배 안이었으니 제겐 무성(無聲)이었죠. 아이들의 흰 이가 유난히 떠올라요.” 소름이 돋았다. 질끈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어민 배는 커서 세월호에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어민들이 유리를 깨라고 아우성쳤어요. 한데 수경들이 책임자가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김 목사는 팀원들 앞에서 상처가 될까 그 얘길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언어는 무거웠고, 바다안개는 여전했다. “지난주일 꿈에 흰 이가 가지런한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아이들 뒤로 일어나는 겁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어민 대개가 이런 꿈에 시달려요.” 팀원들도 김 목사에게 되도록 참사를 묻지 않았다. B팀 7명 중엔 김현희(총신대 유아교육과2)양 등 ‘어린’ 학생들도 있었다. 김 목사는 어린 그들에게 물 속 육신의 유망을 전할 수 없었다. 노동하고 복음을 전하다 팀장 김광종(46·전북 완주 성덕교회) 전도사는 첫날 마을을 둘러본 뒤 1주일간 일거리를 챙겼다. 톳 수거 작업과 톳 말리기가 주된 작업이었다. 왜냐면 6월엔 톳, 7월엔 돌미역, 12월의 쑥 수확이 섬주민의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물때에 맞춰 양식 톳과 자연산 톳 수거에 바빴다. “교회 청년들이 고맙제이. 누가 우릴 이렇게 챙겨준다냐. 학상(학생)들이 와준 것만도 감사허구먼.” 몸뻬 작업복 차림의 소마댁(73) 할머니는 건져낸 톳을 뒤집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 앞섬 소마도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관사도로 시집 왔다. 섬 아낙 삶이 그렇듯 자식은 유일한 ‘메시아’였다. 하나님을 먼저 꼽지 않는다고 탓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 섬엔 ‘자식들’이 없다. “교회 교육관에 마을 어린이 3명이 놀이터 삼아 옵니다. 그중 두 아이는 형제죠. 한 부모 아이들이죠. 엄마는 같은데 각각의 성을 써요. 딱히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저마다 있어요. ‘온전한 가족’이 소망인 경우가 많아요.” 섬은 농촌보다 큰 돈 벌 일거리가 많다. 하지만 그 ‘큰돈’은 약탈의 구조를 지녔다. 연 수억대를 버는 이가 있는가 하면 소위 ‘섬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번에 상구자도 팀은 그런 구조 속에 놓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 박원희 목사 얘기다. “사회적 통제가 섬 곳곳에 미칠 수 없으니 구조악이 섬을 지배하는 겁니다. 비단 도서지방 주민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도서지방 기관도 중앙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으니 ‘큰돈’ 시스템에 휘말려가는 거죠. 세월호 참사 사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러니 누가 사회적 약자를 챙길 수 있겠어요. 섬 안 사람들은 아무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얽혀 있거든요. 단 한 곳, 섬 교회만이 소외된 이들의 말을 듣고 위로하고, 구령할 수 있죠. 섬 안에서 섬 주민 마음속에까지 들어가 함께 울어줄 이가 섬 교회 아니면 어디 있나요?” 김요셉 목사의 얘기다. “낙도선교회, 분당중앙교회, 천안북일교회 등 섬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고 복음선 등대호 등을 띄워 주는 이들에게 감사하죠. 저는 예수님과 그들이 있어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신 팀원은 신학생과 대학부 학생,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큰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오셔서 땅 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름다운 섬에 살아 정말 좋으시겠어요’라고 반쯤 철없는 소리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웃고 떠드는 게 좋기만 하죠.” 현희씨의 특산 미역무침 레시피 B팀 현희씨와 식사 당번이 셋째날 저녁 식탁에 특산 돌미역을 데쳐 내놨다. 서울서 싸온 볶음멸치 등 밑반찬이 전부인 식탁이 풍성해졌다. 식사 기도를 마치고 다들 미역무침에 반해 맛있게 먹었다. 뒤늦게 맛본 김 목사가 ‘아차’ 했는지 한마디 했다. “미역을 데쳐 찬물에 식혀 무쳐야 하는데 그냥 무쳤군요. 말해준다는 것이 그만…. 찬물에 한번 씻어야 오도독 씹히는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일찍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별미네, 별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희씨 감사합니다!” 그들은 매일 좌충우돌하며 낮엔 노동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밤엔 기도했다.팽목·관사도=글·사진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1.txt

제목: [인터뷰]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정주섭 교수 “만성골수성백혈병, 발병후 석달내 기 꺾어야”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1121720001  
본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기 3개월입니다. 이 시기에 강력한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암세포를 빨리 줄여야 급성백혈병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 병을 만성질환과 같이 평생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정주섭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초기 3개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치료를 소홀하면 언제든지 병이 악화돼 가속기를 거쳐 급성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이하 CML)은 골수에서 9번과 22번 염색체 이상(필라델피아 염색체의 출현)으로 인해 조혈모세포가 병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혈액암이다. CML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지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매년 인구 19명당 0.6명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은 40∼5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CML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약 15년 전만 해도 이 병의 진단은 곧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다. 당시의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희망이 없어 삶의 의지가 꺾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글리벡 등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 완치까지 가능해졌다. 골수이식 없이 알약 복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01년 30%였던 이 병의 5년 생존율이 2011년에는 약 94%까지 도달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표준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랜 약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의 문제가 생겨났다. 최근에는 이같은 내성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글리벡의 부작용 및 내성을 극복한 치료제로는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가 대표적이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선택된 약제마다 조금씩 작용하는 기전과 부작용이 다르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약순응도를 높여 최상의 치료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span>”이라고 말했다. 표적항암제 투여는 백혈병 치료에 있어 핵심이 된다. 백혈병은 이제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이 되면서 암 자체 관리보다는 동반질환이나 이상반응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약물 복용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위험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불편하다고 자의로 복약을 중단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작용 등의 불편한 점이 생기면 즉각 주치의와 상의해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추가로 처방받도록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대에 CML로 진단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환자들은 3년밖에 못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부산대병원 내 부산지역암센터 소장도 맡고 있다. 부산대병원 암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암경험자와 말기암 환자 지원, 암 등록사업 및 암 연구사업까지 총체적인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암센터는 보건복지부 ‘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2.txt

제목: [진료 현장에서-약값 없어 치료 포기하는 암환자들] 건보 적용 안되는 비싼 치료제 계속 써야하나…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1121717002  
본문: 정모씨의 아버지(83)는 3년째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 전립선암은 80∼90%가 수술을 통해 완치되지만 수술시기를 놓치거나 수술적 치료 시행 후에도 암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약 11개월에 불과한 치명적인 질환이다. 정씨의 아버지가 평균 생존기간보다 오랫동안 병을 관리·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치료제 ‘자이티가’의 영향이 크다. 이 치료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인 도세탁셀 치료까지 실패한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씨의 아버지는 이 치료제를 통해 전립선특이항원(PSA, 전립선암 선별이 이용되는 종양표지자) 수치가 일반인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효과를 본 것이다. 정씨는 아버지가 치료제 효과를 보는 것은 반갑지만 걱정도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제 복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는 지난해부터 보험급여등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후 바로 위험분담협상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만약 올 8월까지 이 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되지 않는다면 정씨는 아버지의 약 복용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 정씨는 “지난 4월 전화로 문의해 봤더니 급여 등재에 120일 정도 걸린다기에 그 기간 동안의 약값만 마련했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연기됐다고 한다”며 급여 적용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가계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자이티가는 기존 호르몬 치료제와 달리 안드로젠이 생성되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항 안드로젠 기전(Androgen Biosynthesis Inhibitor, ABI)의 치료제로 1일 1회만 복용하는 경구제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등 복약 순응도가 우수하고, 호르몬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치료처럼 혈액학적 독성으로 인해 조혈작용을 돕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신체적인 이점이 있다. 더 이상 치료 대안이 없었던 말기 전립선 암환자들에게 생명연장 효과와 더불어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는데, 실제로 기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에도 실패한 환자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자이티가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했을 때의 평균 생존기간이 15.8개월로 나타나 대조군(위약+프레드니솔론 군)보다 평균 생존기간을 4.6개월 더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평원의 자이티가 비급여 판정 근거는 ‘현재 동일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립선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퍼지는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남성호르몬(안드로젠)이 암세포의 증식을 돕기 때문에 이를 차단 또는 억제하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를 받은 후 1∼2년이 지나면 전립선 암 종양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게 된다. 문두건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치료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데, 높은 연령과 부작용 등으로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약가는 비싸지만 자이티가를 사용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씨 부친의 경우 1차 치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 뒤 호르몬 저항으로 인해 자이티가를 사용했으며 그 결과 PSA수치와 전이도 전체적으로 개선됐다</span>”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 “급여기준이 너무 경제논리로 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치료제의 비급여 문제는 환자와 보호자의 갈등도 유발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비싸도 사용해야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고연령자의 경우 자신이 얼마나 산다고 비싼 약을 쓰냐며 거부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도 환자의 경제력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쓰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질환의 고액 진료비를 빈곤전락의 주요인으로 간주해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정본인부담금 혹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장 보장률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자이티가뿐만 아니라 △레블리미드(다발골수종 표적치료제) △얼비툭스(대장암 표적치료제) △아바스틴(대장암 표적치료제) △잴코리(베소세포폐암) △미팩트주(골육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호중구감소증) △젤보라프(흑색종) △심벤다(백혈병) △자카비(골수섬유증) △길레니아(다발성경화증) 등 40여개의 약제들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돼 있는데 이 중 보험급여를 받는 치료제는 레블리미드, 얼비툭스, 아바스틴,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등재에 성공한 치료제들의 등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최근 급여 승인을 받은 대장암 표적치료제 얼비툭스의 경우는 국내 출시 10년 만이었다. 레블리미드 역시 국내 출시된 후 5년간의 도전 끝에 지난 3월 가까스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3.txt

제목: [알쏭달쏭 약 이야기-대장암 표적치료제 ‘얼비툭스’] 암세포 성장 차단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1121719001  
본문: 대장암은 육류와 고지방식 등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특히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대장암은 기본적으로 외과적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약물치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도 자리를 잡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환자상태에 따라 항암약물치료를 한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가 한 곳에만 있을 때 진행하는 치료이고, 항암약물치료는 암세포가 몸 곳곳으로 퍼진 경우에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환자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치료전략을 세우기 위한 환자상태를 확인할 때 유전자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정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 항암치료제의 반응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미리 판별해 볼 수 있는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적치료제는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항암제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효과는 높인 차세대 항암제이다. 이런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특정요인을 표적해 공격하는 치료제이므로, 이런 표적인자 상태에 따라 치료효과도 달라진다. 한국머크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사진)는 대표적인 대장암 표적치료제이다. 암세포에게 성장신호를 보내는 물질과 결합해 명령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세포는 세포 생산을 촉진하는 단백질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생산, 증식하라는 명령신호가 전달돼 성장하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포독성으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얼비툭스는 사전에 유전자검사가 꼭 필요하다. 암세포 성장에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 있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아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때 얼비툭스로 통제가 잘 되므로, 확실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이때 확인하는 유전자는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라스(RAS) 유전자이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으면 얼비툭스는 환자의 전체생존기간을 평균 7.5개월 정도 더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예후가 좋아 얼비툭스 치료 이후에 2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대장암 환자가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면 얼비툭스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처럼 얼비툭스 유전자검사를 통해 치료효과가 있는 환자군을 미리 찾아내는 것은 효과없는 치료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막대한 치료비용을 줄여준다. 정부에서도 얼비툭스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얼비툭스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을 인정해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10만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대장암 표적치료제는 전이성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후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인정하고 있어 유전자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4.txt

제목: [진료 현장에서-약값 없어 치료 포기하는 암환자들] 정부 입장은… 환자들 사정 고려 합리적 결정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1092538001  
본문: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심평원에서는 세부 내용을 진행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해당 전립선암 치료제의 경우 치료비만 1년에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환자는 200여명이 안 된다. 결국 비용효과성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규 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 등을 거치는데 평가과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단체,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산정·조정기준 마련에 업계 등의 요구사항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자이티가는 현재 제약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 중에 있고, 내부검토를 통해 급평위로 가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경우 효과는 인정받았지만 가격이 높다. 위험분담협상제안도 들어왔기 때문에 환자들을 고려해 빨리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 역시 환자를 위해서는 빨리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약제를 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절실한 환경의 환자들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심사·평가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5.txt

제목: 수박의 계절… 지중해 스타일 수박샐러드는 어떤가요?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701121713001  
본문: 수박의 계절이다. 대형 슈퍼마켓에선 잘 생긴 수박들이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당도조사 결과를 곁들여 ‘맛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담긴 메모를 단 채. 저절로 입맛이 다셔지지만 1만원이 넘어 선뜻 장바구니에 담긴 부담스럽다. 하지만 동네나 재래시장에선 이보다 작고 광택도 살짝 덜 하지만 5000~6000원짜리 수박들이 즐비하다. 혹시 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 제철이어서 맛없는 수박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런 염려는 접어둬도 될 듯하다. 수박은 대표적인 빨간색 과일이다. 한국영양학회가 펴낸 ‘내 몸을 살리는 식물영양소’에서 빨간색 식물영양소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빨간색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식물영양소는 리코펜과 엘라그산이다. 수박에는 리코펜이 많은데, 이 영양소는 노화지연, 전립선 건강, 간과 위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돼 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차가워지면 썩둑썩둑 썰어서 한입 가득 베어 먹는 게 한여름 수박 먹기의 정석이다. 반통은 그렇게 식구들과 둘러앉아 먹고, 남은 수박으로 멋진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수박만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지중해요리’와 ‘지중해샐러드’를 한꺼번에 출간한 요리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씨는 수박으로 지중해 스타일 샐러드를 만들어보라고 권했다. 나카가와씨가 추천한 샐러드는 스페인풍의 여름과일샐러드와 그리스풍의 수박과 페타치즈샐러드다. “어렸을 때 수박이 달지 않으면 어머니는 소금을 살짝 뿌려 주셨어요. 단맛이 덜한 수박을 사왔을 때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름과일샐러드에는 짭조름한 블랙올리브, 수박과 페타치즈샐러드에는 짠맛의 치즈가 들어가 있어 수박의 숨어있는 단맛을 찾아 준다고. 나카가와씨는 수박을 넣은 샐러드는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곁들이면 느끼한 맛을 덜어줘 좋다고 했다. 나카가와씨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20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프랑스 요리 셰프인 아버지와 플로리스트인 어머니와 함께 독일과 스페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기자와 번역가로 글을 쓰다 2008년부터 요리교실을 열었다. 그는 “한국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중해 요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서 130여가지의 지중해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집에서 ‘구르메 레브쿠헨’ 요리 교실을 하고 있는 그에게 지중해풍 수박 샐러드 만드는 법을 배워본다. ◇스페인풍의 여름과일샐러드 파인애플 ¼개, 천도복숭아 2개, 키위 2개, 중간 크기 수박 ⅛개, 블루베리·블랙올리브 ½컵씩, 민트잎 1컵, 드레싱(라임즙 또는 레몬즙 1개 분량, 올리브유 4큰술, 후추 약간)①파인애플과 수박은 2㎝ 크기로 깍둑썰기 한다. ②키위와 천도복숭아는 한입크기로 얇게 썬다. ③올리브는 가로로 저미고, 블루베리는 잘 씻어서 물기를 뺀다, ④민트 잎은 채썬다. ⑤드레싱 재료를 한데 넣고 잘 섞는다. ⑥샐러드볼에 ①②③을 담고 드레싱을 뿌린 다음 민트로 장식한다. ◇그리스풍의 수박과 페타치즈샐러드페타 치즈·바질잎 1컵씩, 중간 크기 수박 1/6개, 붉은 양파 ½개, 올리브유 적당량, 후추 약간①수박은 6등분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얇게 자른다. ②양파는 겉모양과 수직으로 잘라 찬물에 5분쯤 담가 뒀다 물기를 뺀다. ③그릇에 수박을 놓고 페타 치즈를 손으로 풀듯이 얹는다. ④③ 위에 양파와 바질 잎을 얹고 올리브유를 충분히 뿌리고 후추도 적당히 뿌린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6.txt

제목: [헬스 파일] 유방암 성형술  
날짜: 2014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30121612001  
본문: 유방암은 가족력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만약 어머니와 언니 또는 여동생이 유방암 환자였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라’는 것에는 정기검진 외에 유방 건강에 안 좋은 생활습관도 포함된다. 피임약 복용, 고칼로리 음식, 잦은 야근 등이 그것이다. 유방암이 여성 암 중 1, 2위를 다투는 이유 역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방암 발생 여부는 손쉬운 자가검진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방암검사를 해 본 여성이라면 열이면 열, 모두 초음파 검사를 선호한다. 유방촬영술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방암검사는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검사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좋다. 유방촬영술은 덩어리(혹)를 형성하지 않고 미세한 석회소견으로만 나타나는 암조직을 찾는데 유리하다. 혹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검사에서 놓칠 수 있는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초음파검사는 유선조직이 조밀한 경우 조직과 조직 사이에 숨은 혹을 찾는데 이롭다. 유방 속에 생긴 혹이 ‘물혹’인지 종양인지 유무를 확인하는데도 초음파 검사가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고통이 상당하다. 육체적, 심리적 고통 외에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유방암 절제수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수술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다. 유방 전(全)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신체 이미지 변형에 의한 상실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는 결국 수술 후 생존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진행성 유방암을 제외한 조기 유방암에 절제술을 실시할 땐 적극적으로 유방 재건 성형을 고려하게 된다. 암 조직이 있는 일부 조직만 잘라내는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암 조직을 잘라내고 남은 유방 조직으로 유방 모양을 만들며 흉터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종양 성형술’로 유방을 복원한다. 이는 가슴을 리모델링해주는 효과가 있다.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특히 40, 50대 여성의 경우 암 제거 후 유방보존 및 종양성형술을 통해 처진 가슴이 수술 후 위로 당겨지고 중앙으로 모이게 돼 수술 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일균 국제성모병원 외과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7.txt

제목: 서울아산병원·연세암병원 글로벌 신약네트워크 가입  
날짜: 2014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30092512003  
본문: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과 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범 세계적 신약 개발 연구혁신 네트워크 ‘윈(WIN)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로써 한국인 암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개인 맞춤 치료제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동안 서양인 중심의 개인 맞춤치료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WIN 컨소시엄은 개별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및 향후 3년 이내에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 전문병원, 화이자 및 아스트라 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사, 파운데이션 메디슨 같은 유전체 검사기관, 오라클과 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회사까지 빅 데이터 운영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 극복의 최신 경향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표적치료제 중심의 개인 맞춤 치료로 집중되고 있다. 폐암과 유방암 등에는 이미 개인 맞춤 치료가 시작됐고,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해서도 100개 이상의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8.txt

제목: [가정예배 365-6월 29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날짜: 2014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8121528001  
본문: 찬송 :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통 379)신앙고백 : 사도신경본문 : 골로새서 2장 6∼7절말씀 :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비유로 하여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한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뿌리를 박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땅에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차하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님께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며 크고 작은 시험에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비결은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세움을 받아’ 살라고 하셨습니다. 수동태 문장으로서 올바른 해석은? 내가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만 자신의 노력으로만 서 있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 주셔야만 합니다. 셋째, ‘교훈을 받은 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거침돌이 되어 넘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입니다(딤후 3:16).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받은 교훈대로 살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경험하게 될 기갈(飢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기갈(암 8:11)이요,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육적기갈(왕상 17:1)과 진리(말씀)를 버리고 거짓을 좇는 미혹(딤후 4:3, 4)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믿음에 굳게 서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말씀의 교훈을 받았으니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 주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열매가 없이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주기도문김철규 목사(경기 광주성결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599.txt

제목: “국가 암 검진 대상자가 시기 놓쳤을 때 검진·의료비 부담 많아 제도 개선 필요”  
날짜: 2014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6121334001  
본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46)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다. 지난해 위암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놓쳤다. 올 초 소화가 잘 안 돼 위암 검진을 받으려고 알아본 A씨는 비용 부담 때문에 검진을 내년으로 미뤄야 했다. 건강보험료를 4만원 정도 내고 있어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이지만 검진 시기에 안 하면 전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A씨처럼 국가 암 검진 대상자가 시기를 놓치면 검진을 미루거나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기준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5대 암 무료검진을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4만1500원, 지역가입자 8만7500원이었다. 위암·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40세 이상과 30세 이상 대상자들이 2년마다, 간암과 대장암은 각각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대상자들이 매년 받도록 돼 있다. 지정된 시기에 검진을 받아 암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지정된 시기에 받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 검진 비용도 10%는 본인이 내야 하고 의료비 지원도 없다. A씨처럼 비용 걱정 때문에 검진을 1년 뒤로 미루는 경우 암을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또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받는데 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83.45%인데 암 검진을 받는 비율은 44.56%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암 검진은 짝수 해에 태어나면 짝수 해에 받도록 돼 있고 일반 건강검진은 사업장이 정하는 시기에 받도록 돼 있다. 두 검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암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0.txt

제목: [상반기 히트상품] 혁신·감성·약속 키워드로 당신의 욕구 채워준다  
날짜: 2014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5092305001  
본문: 불황일수록 소비자들은 각각의 상품이 지닌 특징에 주목한다. 지갑이 얇아진 탓에 같은 값이면 성능·디자인 등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에 손이 가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선정한 2014년 상반기 히트상품 16개도 연장선 위에 있다. 히트상품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혁신, 감성, 약속이다. 혁신하면 주로 기업경영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기발한 제품을 개발하는 정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혁신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필요를 바탕으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혁신이다. 삼성전자의 대표 모바일 브랜드 ‘갤럭시’는 스마트 기기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갤럭시S5는 카메라, 헬스케어, 방수방진, 안전 및 편의기능 등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했다. 사용자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스마트폰으로 인간의 감각을 새롭게 진화시켰다. 사용자와 한 몸처럼 반응하며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어 핏’도 혁신의 산물이다. 레드페이스 아쿠아 샌들은 ‘다용도’를 지향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물론 바위가 많은 계곡과 가벼운 하이킹까지 활용도가 높다. 편안한 착용감, 뛰어난 접지력·내구성은 덤이다. 또한 소비자를 자극하는 감성은 마케팅에서부터 제품 기능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삼성전자의 곡면 초고화질(커브드 UHD) TV는 궁극의 화질, 화면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감성적인 곡선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화재가 고령자 전용 암보험상품으로 내놓은 ‘시니어암’도 감성을 공략한 제품이다. 100세까지 보장, 고혈압·당뇨가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는 소비자가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준다. 이밖에 소비자와 약속을 강조하는 제품도 인기를 끌었다. 21년동안 ‘신선함’이라는 약속을 지켜온 서울우유의 ‘아침에주스’가 대표적이다. 1993년 냉장유통주스로 첫 출시된 이래 보여준 한결 같음이 최대 무기다. 동아오츠카의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나랑드사이다’는 소비자 건강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설탕, 색소, 카페인이 없는 탄산음료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1.txt

제목: 대한암학회 이사장에 노동영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4121033002  
본문: 노동영(59·사진) 서울대학교 암병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노 교수는 유방암 연구와 진료 분야의 권위자로 대한암학회에서 기획재무이사와 함께 외과계 암 임상 발전에 주력해 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2.txt

제목: 정기적 건강검진, 사망위험 최대 35% 낮춰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4092248001  
본문: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암·뇌졸중·심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사망위험이 최대 3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비 지출도 감소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2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92∼2000년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첫 검진 연령이 20∼50세인 163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기간(9년)에 건강검진을 1∼2회, 3∼4회, 5∼7회 받은 이들의 중증질환 사망위험도와 의료비 지출 양상을 분석했다. 1∼2회 받은 이들의 사망위험도를 100으로 할 때 5∼7회 받은 이들은 남성의 경우 65, 여성의 경우 78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사망위험을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질환별로 뇌졸중 사망위험도는 1∼2회가 100일 때 5∼7회는 44(남성)로 56%나 줄어들었다.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합한 의료비 지출도 검진 횟수가 늘어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은 건강검진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사 대상 모든 질환에서 의료비 지출이 줄었고 남성은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의 치료비가 줄었다.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3.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집중화센터 및 암병원] (2) 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3120902001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선정한 '유방암 수술 최우수 1등급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이 지난 2012년 7∼12월, 6개월간 만 18세 이상 여성 유방암 환자를 본 실적이 있는 국내 병원 160곳을 대상으로 치료 대응 능력 등 진료 전반에 걸쳐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무려 99.81점을 획득, 1위에 오른 것이다. ◇통합진료로 최적의 맞춤치료 설계해 만족도 최고조=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가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보다 통합진료로 최적의 환자 맞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고려대구로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는 한마디로 환자들이 담당 교수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체제를 확실히 갖춰놓고 있다. 이곳에선 환자를 보기 위해 무려 12명의 유방암 전문 교수들이 유방암센터 통합진료실로 모인다. 환자가 보는 앞에서 검사에서부터 진단, 치료, 재활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진료 전 과정에 걸쳐 실시간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즉시 환자에게 그 결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유방내분비외과 이재복·우상욱·김우영, 종양내과 서재홍(유방암센터장), 방사선종양학과 양대식, 영상의학과 우옥희, 핵의학과 어재선, 병리과 김애리·김정렬, 성형외과 동은상·정성호, 재활의학과 양승남,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강 교수 등이 바로 그들이다. 다른 암들은 병기 결정과 동시에 치료방법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방암은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치료방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치료 성적도 큰 영향을 받아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수술 및 항암치료도 까다롭다. 이 병원 유방암센터가 교수 한명의 결정에 의한 치료보다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는 통합진료로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고 시행하는 이유다. 그 결과 이 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만족도는 국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슴은 그대로 암조직만 제거, 완치율 90% 이상=최근 유방암 치료법은 암 조직만 걷어내고 가슴은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수술도 혹이 있는 부위 주변 피부 1∼2㎝만 절제해 흔적조차 안 보이게 하는 쪽으로 이뤄진다. 암의 크기가 5㎝이상일 때도 종양성형술이나 수술 전 항암치료를 통해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시도해 가슴을 보존해준다. 암 조직이 유방 전체의 30%를 넘을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근육, 연부조직 및 피부를 이용해 본래 가슴 형태를 살려주는 수술을 시행, ‘여성성’을 지켜주기도 한다. 수술 전 항암치료는 혹이 너무 커서 바로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환자가 유방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을 원치 않을 때 주로 시행된다. 처음부터 혹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더라도 가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먼저 수술을 하고 난 후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를 시행한다. 이른바 표적항암제는 유방암세포표면에 ‘HER-2 수용체 유전자’가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게만 사용하게 된다. 이 치료제를 쓸 땐 병원에 따로 입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편하고 좋지만 HER-2 수용체를 가진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단점이다. 이 병원 종양내과 서재홍 교수는 현재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신규 유방암 표적치료제 ‘압타머’를 개발 중이다.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약이 개발되면 HER-2 수용체 유전자가 안 보이는 유방암 환자에게도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4.txt

제목: [GOP 총기 난사-단독] 온 동네 아이들 맏형 노릇하며 ‘참 복지’ 꿈꿨는데…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3092226001  
본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동부전선 총기난사로 숨진 하사 한 명이 영훈이라네요. 그 착하고 성실한 친구가….”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의 사망자 김영훈(23) 하사는 3박4일 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지 나흘 만에 변을 당했다. 모처럼 고향인 전남 곡성에 내려가 ‘맛집’도 찾아가고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즐겼다. 휴가 마지막 밤에는 친형처럼 따르던 곡성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새벽 4시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나흘이 마지막 휴가가 되리라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지인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군대 체질이라더니…”=김 하사는 전남과학대 호텔조리 김치발효과를 졸업하고 2012년 여름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갈 때마다 “군대가 체질에 맞아 참 좋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며 웃곤 했다. 대한적십자 청소년지도자로도 활동했던 김 하사는 2010년부터 꾸준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해 왔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사회복지 분야의 진로를 모색하던 그는 동네 후배들에게 든든한 멘토였다. “<span class='quot0'>언제나 철저히 준비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에너자이저</span>”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했다.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쌓은 지인 김모씨는 “<span class='quot1'>김 하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span>”며 “<span class='quot1'>나이가 어린 그에게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았다</span>”고 했다. 박경희 곡성지역아동센터장도 “<span class='quot2'>사병들이 김 하사를 잘 따라 조언도 구하고 고민도 털어 놓는다</span>”며 “<span class='quot2'>그렇게 군대를 좋아하던 애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span>”고 울먹였다. ◇든든한 가장, 고민하는 봉사자=장남인 그는 집안의 기둥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겨울방학부터 축산업 유통업 버스기사 등 여러 직업을 거쳤던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다. 4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김 하사는 주말도 밤낮도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어려운 형편에 아직 청소년인 동생도 셋이나 있었다. 그래도 틈틈이 자원봉사나 농활 등을 통해 남을 돕는 데 앞장섰다. 중학교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인 ‘웃음만땅’에서 공부한 김 하사는 성인이 된 뒤에도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나눴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눈을 떴다고 한다. 김 하사와 1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아이들을 돌보는 삶이 좋아 사회복지를 깊이 공부하고 싶어했다</span>”고 말했다. 김 하사의 봉사는 부사관 입대를 준비하던 2012년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그해 지역아동센터 봉사자로 지원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김 하사는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항상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 우직하게 하라’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 아이들의 맏형=김 하사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 교회 집사님들과 낚시하러 다녔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했고 커서는 세 동생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 모두의 ‘맏형’을 자처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요즘은 농촌에 살아도 이런 경험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니 직접 형과 오빠가 돼서 아이들과 산으로 들로 다니며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던 듬직한 선배였다. 야간복지교사, 아동복지교사 봉사를 거쳐 도보순례, 캠프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아이들과 부대꼈다. 2010년 아이들과 도보순례를 하던 그는 “아이들은 어른에게 여쭙고 어른은 아이와 의논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에게 믿음을 주고 어른은 아이들에게 신뢰를 받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며 “이러한 모습에서 ‘걸언’(乞言·가르침을 달라고 청함)의 중요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후배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김 하사가 “휴가 나간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고민을 털어놓는 후배부터 “얼굴 좀 보자”는 친구까지 많은 이들이 그를 반겼다. 김 하사는 입대 전부터 “군복무 하는 동안 꾸준히 적금을 부어 사회에 나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꿈을 키웠다. “<span class='quot0'>실패도 맛보고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는 기업을 일구고 싶다</span>”던 그는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5.txt

제목: [GOP 총기난사-단독] 온 동네 아이들 맏형 노릇하며 ‘참 복지’ 꿈꿨는데…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3120951002  
본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동부전선 총기 난사로 숨진 하사 한 명이 ○○○라네요. 그 착하고 성실한 친구가….”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의 사망자 김모(23) 하사는 불과 나흘 전인 17일까지 3박4일간 휴가를 나왔다. 여느 군인들처럼 소문난 ‘맛집’에도 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즐겼다. 휴가 마지막 밤에는 중학교 때부터 친형처럼 따르던 전남 곡성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함께 새벽 4시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나흘이 마지막 휴가가 되리라곤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온 여자친구도, 친형처럼 따르던 그의 멘토도 알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지인들은 모두 말을 잊었다. ◇“군대 체질이라더니…”=김 하사는 전남과학대 호텔조리 김치발효과를 졸업하고 2012년 여름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이후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갈 때마다 “군대가 체질에 맞아 참 좋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며 환하게 웃곤 했다. 입대 전에는 곡성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자랐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동네 후배들에겐 든든한 멘토였다. 스스로 ‘언제나 철저히 준비하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에너자이저’라고 칭했던 그였지만 어두운 곳을 돌보겠다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쌓은 지인 김모씨는 “<span class='quot0'>김 하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어린 김 하사에게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았다</span>”고 했다. 박경희 곡성지역아동센터장도 “<span class='quot1'>사병들이 김 하사를 잘 따라 조언도 구하고 고민도 털어놓는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렇게 군대를 좋아하던 애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span>”며 울먹였다. ◇든든한 가장, 고민하는 봉사자=장남인 그는 집안의 기둥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겨울방학부터 축산업, 유통업, 버스기사 등 여러 직업을 거쳤던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다. 4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김 하사는 주말도 밤낮도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돌봐야 할 동생이 셋이나 있었다. 그래도 틈틈이 자원봉사나 농활 등의 체험활동 등을 통해 남을 돕는 데 앞장섰다. 중학교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인 ‘웃음만땅’에서 공부하던 김 하사는 성인이 된 뒤에는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나눴다. 그러다 ‘사회복지’에 눈을 떴다. 김 하사와 1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1'>김 하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삶에 의미를 두고 사회복지를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에 봉사자로 지원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우리보다 생활력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 항상 감사하며 살고 어떤 일이든 우직하게 하라’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 생색내는 사회봉사가 아닌 삶에서 묻어나는 사회복지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곡성 아이들의 맏이=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낚시하러 다녔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해온 김 하사는 동네 아이들의 ‘맏형’을 자처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요즘은 농촌에 살아도 이런 경험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니 직접 형과 오빠가 되어 지역의 아이들과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며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던 듬직한 선배였다. 직접 야간복지교사, 아동복지교사 봉사를 거쳐 도보순례, 캠프 등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아이들과 부대꼈다. 그는 “아이들은 어른에게 여쭙고 어른은 아이와 의논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에게 믿음을 주고 어른은 아이들에게 신뢰를 받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며 “이러한 모습에서 ‘걸언’(乞言·가르침을 달라고 청함)의 중요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어린 동생들의 사소한 고민도 지나치지 않고 경청하던 그를 후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믿고 따랐다. 그는 입대 전부터 “복무하는 동안 꾸준히 적금을 넣어 돈을 모은 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꿈을 키웠다. “<span class='quot2'>실패도 맛보고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구고 싶다</span>”고 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6.txt

제목: [최의헌의 성서 청진기] 암과 싸우는 그리스도인  
날짜: 2014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1120818001  
본문: 얼마 전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잘 알고 지내던 장로님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다. 병실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땐 즐겁게 환담하셨지만 헤어지기 전 기도할 때엔 눈물을 보이셨다. “<span class='quot0'>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span>” 질병은 분명 비정상이다. 하지만 비정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과연 비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싶다. 전통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죄의 결과로 생각해 왔다. 그런 인식으로는 중한 병일수록 중한 죄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전통적 인식으로 모든 질병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그가 누구의 죄로 질병에 걸렸는지 물은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죄만 언급한 게 아니라 부모의 죄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를 이어 축복이나 징벌이 이어진다는 개념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문제가 아닌 질병 개념이 그전부터 있었다는 말이다. 셋째, 이 내용이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즉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에만 국한되는 성경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4∼5)고 말씀하시고,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 연못에 가도록 한 것을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의 눈먼 사실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를 포함하여 질병은 정말 죄 때문은 아닌가? 사실 죄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수님과 비슷한 어법으로 말할 때, 앞의 말이 정말 아니라서가 아니라 뒷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질병은 비정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죄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닐 수도 있다. 공해로 인한 암 발생은 우리 인류의 죄인 것이다.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죄의 애꿎은 피해자가 된 셈이니 우리 죄를 대신 졌다고 생각하자. 암이 무서운 것은 죄가 무서운 것과 한 가지 흡사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너무 닮아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우리 일부처럼 여기며 자연스럽게 친화된다. 비슷하게,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처럼 인식되어서 빠르게 증식돼도 면역력으로 처리가 안 된다. 항암제를 쓸 때 머리가 빠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무엇이 암세포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모두 억제 혹은 사멸시키는 목적의 약을 사용하면 비교적 빨리 자라는 세포에 해당하는 머리가 빠지는 것이다. 항암치료는 나날이 발전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는 암세포를 구별해내고 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도 나날이 발전하면 좋겠다. ‘장로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암에 걸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죄와 싸우게 되셨으니 저희는 이제 기도와 관심과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 싸움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창17:12). 부디 모세처럼 피곤한 중에도 저희와 함께 잘 견디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암과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글을 함께 나눕니다. 힘내세요.’◇최의헌 약력: 연세의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복음교회 협동목사, 심리상담연구원 나무와 새 원장, 한국자살예방협회 부회장, 연세로뎀정신건강의원 원장최의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7.txt

제목: [겨자씨] 진짜 눈물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20120658001  
본문: 안구건조증은 현대인의 흔한 질환 중 하나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이들은 인공눈물로 눈을 적시곤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가짜 눈물이 아닌 진짜 눈물이다.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인 암이 나타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가슴속에 맺힌 분노 미움 슬픔 등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면 몸 안의 독소를 뽑아내 건강하게 살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즉, 많이 울라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span class='quot1'>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span>”고 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타인을 이해하기 힘들며 눈물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믿음의 길은 눈물 속에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죄인의 모습’ 때문에 울게 된다. 그리고 나중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이 있는 곳엔 은혜가 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내 영성의 샘이 메말랐다는 증거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고 말했다. 함께 울어주는 눈물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우리에겐 진짜 눈물이 필요하다. 권병훈 목사(상계광림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8.txt

제목: [믿음의 병의원] 성경서 찾은 癌 치료법… 자연치유·적은 비용으로 각광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9120438001  
본문: “이제 돈 때문에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옛말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은비용으로 효과적인 암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7층 건물의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의 말이다. 이 병원은 최첨단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의학을 적절히 접목한 암 치료법을 제시, 많은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박의원은 암환자의 피를 뽑아 백혈구를 늘여 다시 주사하는 면역요법(Immune cell) 치료를 비롯 고주파 온열치료, 해독요법, PDT광선요법, 면역증강요법등 다양한 방법을 환자에 맞게 처방하고 있다. 노 원장이 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5년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미국에 연수를 가면서 부터였다. 2년 동안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암 및 유전자 질환을 연구하면서 전인치유적 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당시 그는 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병행되는 전인치유가 치료에 효과적이란 생각을 했다.자연적 면역기능 치료귀국 후, 노박의원을 개원하고 전인적 암 환자 치료와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던 2007년 9월, 한 암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다. 말기 담낭암 환자로 항암요법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연적인 면역기능 치료로 최선을 다했어요. 긍정적인 사고와 신앙의 힘으로 통증은 완화됐고 마음도 안정을 찾아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고 암 조직이 소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노 원장은 자연치유와 면역치료를 병행했고 암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말기 암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노 원장은 본격적인 암 치료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노박의원’이란 이름은 노태성 원장의 성과 부인인 박은숙(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성을 한 자씩 따온 것이다. 이 병원건물엔 노박의원과 함께 동생 노태진 원장이 운영하는 제일진단방사선과 의원이 들어서 있다. 1층 외래진료실·물리치료실, 2층 피부·비만·두피관리실, 3층 물리치료실, 4층 진단방사선과, 5∼7층 입원실로 돼 있다. 특히 6-7층 입원실은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외에도 암재활을 위해 교정치료실, 도수치료실을 설치하고 암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뿐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잡고자 시도하면서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합적인 치료방법 모색 또 암재활, 비만, 관절,에스테틱 등 다양한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처럼 일반 개인의원이 아닌 병원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가 내원하면 당일 진료와 치료가 곧바로 가능토록 되어 있다. “암은 한가지가 아닌 종합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암으로 낙담해 있는 환자들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노박의원에 얼마 전 간암에 걸려 폐까지 전이된 40대 목회자가 찾아왔다. 40여명의 성도를 둔 개척교회 목회자로 200여만원의 사례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셨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 원장은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와 온열요법 등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치료를 시작, 2주 만에 몸이 호전되어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몸에 맞는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본 사례였다. 중국에서 온 한 조선족 교포는 노박의원에서 병이 잘 치료 되어 고맙다고 금으로 쓴 휘장을 가지고 와 선물하기도 했다. 노 원장은 앞으로 중국 한족의 환자들이 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박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을 시스템화 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중국 의료선교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기도 하다. 고주파치료 등 환자에 맞게 사용 이처럼 노박의원을 거쳐 병이 호전되거나 치료된 사례는 많이 있다. 특히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주파온열 암 치료’는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38.5∼42도의 온도를 가해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최신 치료법이다. 면역치료는 영양요법에 기초를 두고 면역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슬토요법, 메가 비타민요법, 핵산요법, 미네랄 요법 등을 환자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노박의원의 이런 적극적인 치료는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대체의학적 치료인 보완통합의학의 실습병원으로 노박의원을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활의학과 이건재 교수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4차례 노박의원을 방문, 실습 중이다. “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연치료 의학에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기에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박의원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자연치료라도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비로 보험 적용 테두리에서 진료를 해줌으로써 가능한 한 환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 있다. 이는 노 원장의 기독교 박애정신과 나눔을 실천하려는 섬김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노태성 원장은 “<span class='quot0'>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 낫는 경우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성경에서 찾은 치료원리 노박의원은 자연치유 의학 프로그램이 국내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메디텔’ 공간 건립과 전인적 케어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는 ‘몸과 마음의 디톡스’(detox·정화, 해독)를 치료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이 치료 원리는 성경에서 착안됐다. “<span class='quot1'>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span>”(마태복음 10장 1절)는 말씀에서 치료의 원리를 찾은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회복단계’에서는 영양면역요법을 적용한다. 인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암 치료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양면역요법은 가장 중요한 암의 보조적 치료요법으로 꼽힌다. 노 원장은 암 치료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환자가 믿음-사랑-소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혈루증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소경은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전도하는 의사 노 원장은 절대자를 의지하는 믿음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신앙생활을 권하며 전도하고 있다. 그는 환자에게 “<span class='quot1'>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span>”라고 묻는데 대부분 노 원장의 기도를 고마워한다. 한편 노 원장은 동생 노태진 박사(진단방사선과)와 함께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란 책도 펴냈다. 암에 대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팀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7월 출석하는 신촌성결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는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부인 박은숙(56)씨,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02-845-1353·inovac.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09.txt

제목: [믿음의 병의원] 체내 쌓인 독소·노폐물 배출시켜 건강 체질로 바꿔준다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9120457001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아이스페이스(I-SPACE)에 있는 신경락한의원 원장 조병준 장로(64)는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므로 혈액을 맑게하고 대사기능을 활성화하여 질병의 근본치료와 요요현상이 없는 해독 다이어트 전문한의사로 유명하다. 현대인의 3적(敵)-과식, 스트레스, 운동부족 “현대인은 수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흔히 성인병이라 불리우는 대사증후군이 만연해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과음, 흡연 등이 더해지면 심각한 질병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들 중에는 아예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라고 조 원장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 원장은 질병의 종류는 많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음식’과 ‘스트레스’, ‘운동부족’,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설명한다. “<span class='quot0'>인공 화학 첨가물이 빠지지 않는 인스턴트 음식과 고칼로리의 기름진 육류 위주 음식 섭취는 장내에 많은 독소를 비축시키고, 대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와 DNA를 공격한다.</span>”고 그는 설명한다. 여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젖산 물질이 형성되어 체내에 보다 많은 독소가 축적되고 이것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지적한다. 만병의 근원 ‘독소’를 제거하라 조 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결국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 독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는 자명한 결론에 귀납한다. 그렇다면 해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조 원장은 “<span class='quot1'>체내에서 축적된 독은 결국 호흡, 땀, 대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움직임이 많지 않은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서는 땀을 거의 흘리지 않고, 운동부족 등으로 만성변비에 시달리는 등 대소변으로도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니, 체내 독소 축적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span>”고 지적하며, “<span class='quot1'>배출이 안 되는 독소들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면역 기능의 80%는 장이 담당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세라토닌 호르몬의 90%도 장에서 분비한다니,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건강의 바로미터인 체온도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원활해져 수용성 독소가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장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원장은 “ 변의 모양, 냄새, 색깔등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이 황금색이거나 연한 갈색, 물에 뜨는 부변, 풀어지지 않고 바나나처럼 자루변이면서 냄새가 독하지 않고, 일분이내에 나오며 하루1∼2회를 보면서 잔변감이 없어야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변을 보는 현대인은 별로 없으나 해독을 통해 이러한 변의 양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 설명한다.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잘 씻어 껍질째 갈아 드시는 것으로도 식사대용 및 해독식이 됩니다. 토마토와 아몬드를 3대 1 비율로 소스를 만들면 이 소스가 장에 들어가 발효하면서 장속에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조 원장은 “독소와 노폐물들이 혈관과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경색, 암 등이 되는 것”이라며 “관절염과 디스크 등 모든 통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도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내 독소 배출을 주안점으로 처방하고 섭생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조 원장은 “<span class='quot1'>많은 환자들이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면 질병이 치료되면서 자연히 감량이 되니 젊음을 되찾게 되었다고 흡족해 하지요</span>”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조 원장은 원래 잘나가는 고교 수학교사였다가 삼십대 중반에 다시 대입시험을 쳐서 경희대 한의대에 합격해 한의사가 된 다소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어머님과 장모님, 아내의 뜨거운 기도로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교사에서 한의사로 생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3년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고 40세에 졸업하여, 서울 고척동에 첫 한의원을 개원했지요. 거기서 12년간 진료경험을 쌓고 일산으로 와 2002년에 지금의 을 개원했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로 연예인들 사이에 입소문 초기 신경락한의원은 ‘비만 전문 한의원’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원래 청혈 해독 치료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간질환, 관절염 등 대사증후군과, 비염, 여드름, 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 치료 전반에 걸쳐 모두 좋은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한의원으로 입소문이 났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 치료 과정에서 먼저 지방이 빠져나가는 다이어트 현상이 두드러지자 해독 다이어트 클리닉으로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해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의 예약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비만치료는 감량 보다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가볍고 건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살빼기가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추려면 체질과 유형에 따른 원인치료가 선제되어야 하고 부작용과 후유증도 없어야 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통감하다 방송을 타면서 유명세를 치르는 동안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고난이 슬그머니 다가왔다. 운동을 하다 다친 목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돼 엄청난 고통을 주었고, 수술을 해도 8개월 내에 하체마비가 올 수 있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병원에 입원했던 두 달 동안 매일 밤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통제와 소염제, 물리치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조 원장은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고, 수술 직전에 디스크가 완치되는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하였다. “제가 직접 환자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독으로 암의 근본 원인을 다스린다 조 원장은 환자 한 분 한 분에 최선을 다한다. 얼마 전 간암이 발견된 한 사업가(55)가 한의원을 방문했다. 발병 6개월 만에 암크기가 지름 12cm로 커진 경우였다. 유명 대학병원에서 색전술을 3차례 시술해 간암지수는 줄었으나 폐까지 전이돼 해독치료에 기대를 걸고 찾아온 경우였다. 조 원장은 일단 환자에게 준비식을 시키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 30일간 효소와 발효한약만 먹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모든 건강식품을 ‘호감 비호감 검사’를 통해 몸에서 원하는 것만 구별해 먹도록 했다. 이제 치료 40일만에 간암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모든 간수치가 호전되었다. 탄수화물제한식을 하여 극소식인데도 변은 매일 황금색, 뜨는변을 식사할 때 만큼 많이 보고있고 운동량을 늘렸는데도 피로하지않고 몸이 가볍다고 기뻐하고 있다. 조 원장은 “<span class='quot1'>올해 안에 이 환자가 완치판정을 받게되는 것을 목표로 치료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관심을 집중하여 정성스례 치료하면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청혈해독, 소식,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 조 원장의 치료법은 단순하리만큼 일관성을 유지한다. 지방 제거를 위해 먼저 환자의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독소를 빼 혈액을 맑게 하여 대사기능을 높여 주고, 한편으로 위의 축소를 도모해 소식(小食) 하는 체질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3개월간 15∼25kg을 감량한다. 환자들은 ‘소식(小食)을 하는 데도 힘이 나고 체중은 날마다 줄면서 아픈 곳은 사라지고 컨디션은 좋아지니 신기하다. 젊은 시절의 체중과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어 매사에 자신이 생긴다.’라고 입을 모은다. 2014년 국민미션어워드 수상 “얼마 전 2014년 국민미션어워드 수상 한의원으로 선정돼 부담을 느낍니다.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와 고객들에게 더 잘 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환자들을 대하겠습니다.” 40세에 장로 장립을 받아 젊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요즈음은 많은 봉사를 하지못해 항상 죄송하다며 앞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조 원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쓰고 잘했다 칭찬받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신경락한의원 031-902-2221). 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0.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유근영 아·태 암예방기구 사무총장 “1차 예방에 주력해야”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9001  
본문: 암 경험자 110만 시대. ‘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암 치료 기술 발달로 암환자의 치료 후 생존율은 50%를 넘어섰고, 조기에 발견한 암환자 완치율은 95%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암환자 발생이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은 늘고 있다. 따라서 암 예방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암 예방의학자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사무총장인 유근영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유 교수를 통해 암 정복 선결 과제인 ‘암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차 예방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암 예방에는 3가지 접근 전략이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1차 예방’이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하고, 위암을 예방하고자 짠 음식을 피하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1차 예방이다. ‘2차 예방’은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암조기검진 지침이나 건강검진을 통한 선별검사는 암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이차 예방법들이다. ‘3차 예방’은 암 예방에 실패한 경우라도 암으로 인한 생명 손실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이다. 암 예방을 위한 연구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30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다. 당시 의과대학 학생이던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암환자에 대해 치료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이 난적을 예방하는 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왜’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안 걸리는 것일까.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연구에 의하면 몇 가지 유전자가 변형됐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 전체 암의 5% 정도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감수성의 변화에 의해 유발된다. 일례로 BRCA1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가계에서는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여성에서 유방암 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3배 높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가 ‘한국인 암 코호트’ 연구를 통해 건강한 한국인 2만명을 20년간 장기간 추적·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위암의 발생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박테리아균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높다. 유 교수는 “한국인은 탕류 음식을 먹을 때 국물까지 ‘싹’ 먹는 버릇이 있다. 고쳐야 할 우리의 식습관”이라고 말했다. 암을 100%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까. 유 교수는 “암 조기검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암은 10년 이전부터 인체 내에서 소리 없이 서서히 자라고 있다. 이것이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라며 “암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금연이나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 운동, 예방접종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윤형 쿠키뉴스 기자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1.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재발 두려움 안고 사는 암환자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0001  
본문: “의사로부터 재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데 또 암이라니… 신이 내게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에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가족들에게 재발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얘기도 못했어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환자만큼 힘든 게 보호자잖아요. ‘나는 죽어야 하는 팔자인가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죠.” 뼈 전이 후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했다는 유방암 환자 김수정(가명·45)씨는 ‘재발’이라는 두 단어가 주는 좌절감에 한동안 바깥세상과의 인연을 모두 단절했다고 말한다. 여느 날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막막함이 밀려온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누굴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재발됐을 때의 감정은 이와 조금 다르다. 완치됐다는 안도감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좌절감은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초래한다. 김종흔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교수는 “환자는 ‘선생님이 제대로 된 치료를 게을리 했다’ 혹은 ‘병원을 믿었는데 배반당했다’라면서 의료인에게 노여워하는 수가 있다. 솟구치는 분노,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발하지 않은 채 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전(前) 암환자의 삶도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죽을 만큼 힘든 암 치료과정을 이겨냈다는 승리감보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재발에 대한 걱정에 괴로워한다. 가벼운 신체증상만 나타나도 암이 재발된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이차적 암 발생과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많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는 날이 가까워오면 불안해지고 잠을 설치기도 한다. “두려워요. 평온한 날을 보내다가도 혹시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느 순간 불안감이 커져요. 한 번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함도 오래 가지 않죠. 완치되면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여전히 ‘암환자였다’는 꼬리표를 달고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재발의 두려움 속에 극단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넘나들죠.” 위암 완치 후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보고는 암 이후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김종흔 교수는 생존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재발·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암 생존자가 처한 이런 상황은 칼이 머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모클레스의 칼’로 비유되기도 한다. 암 치료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성 기능 문제 및 불임, 만성 피로, 외모의 변화 등의 후유증 때문에 대인관계 적응이 힘든 경우도 있다. 또한 경제적 문제, 직장 복귀 문제 등의 현실적인 일들도 헤쳐 나가기 힘겹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처럼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암환자의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암 생존자 110만명을 넘어선 지금, 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필요한 때다.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정기검진·운동·금연… 하나하나 맞춰가면 2차癌 막는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0001  
본문: 고령화와 더불어 서구형 생활양식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20만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 현재 치료 중인 암환자도 100만명이 넘는다. 다행히 조기 발견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암의 5년 생존율도 높아져 현재는 약 64%에 이른다. 하지만 암을 치료한 뒤에도 암 경험자는 치료 후 부작용과 만성질환, 2차암(치료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생기는 암)의 위험을 안고 산다. 암 경험자는 치료 후 피로와 통증, 불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피로감은 암 환자의 70∼100%가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다. 따라서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피로감을 진단할 때는 암 경험자의 느낌을 우선하는데 암 치료와 관련해 일주일간 느낀 피로를 0∼10점 사이로 평가한다. 4∼10점 사이라면 피로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점 이하라면 암 관련 피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를 받으면 된다. 암 경험자는 통증 유병률도 높다. 원인은 암 또는 암 치료(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호르몬 치료)의 영향일 수 있다. 암 경험자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 청취, 과거 의무기록, 신체검진 등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추정해야 한다. 암 치료 이후 발생하는 통증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항우울제와 항경련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암 경험자의 만성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이완요법과 같은 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면증도 생길 수 있다. 암 경험자의 30∼50%가 수면장애를 호소한다. 음주, 비만, 약물, 항암치료나 불안과 우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약물치료 없이 간단한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 수칙으로 ‘아침이나 낮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잠들기 3시간 전 과식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시계를 따로 보지 않는다’, ‘침대는 잠잘 때만 눕는다’ 등이다. 불면증이 4주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일생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수면 교육뿐 아니라 인지치료, 이완훈련, 수면제한 등 비약물치료 및 약물치료를 필요로 한다. 암에 대한 공포와 치료과정의 고통 등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심장뇌혈관질환의 유병률도 높다. 2차암의 위험도 크다. 최재경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치료 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동반 질환이 무엇인지 등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후기 합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추적관찰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2차암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특히 금연과 금주는 필수다. 흡연은 모든 암 발생의 20∼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담배와 술은 그 자체로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암 경험자의 경우 흡연은 암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 지속적인 흡연은 원발암의 재발뿐 아니라 2차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도 높인다. 최재경 교수는 “<span class='quot1'>금연은 암 경험자에게 있어 중요한 생활습관</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금연에 대한 동기 수준을 파악해 개별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건국대병원은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 금단증상이나 유혹에 대처하는 법 등을 교육하고 니코틴 대체요법과 금연 약물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알코올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후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는 줄일수록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매주 15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비만 역시 암의 재발과 2차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꾸준한 운동은 심장뇌혈관 질환과 당뇨 같은 대사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연구 결과 비만은 대장암, 직장암, 자궁내막암, 식도 선암, 신장암, 췌장암, 폐경 후 유방암 등 여러 암의 일차적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경험자의 경우 비만할수록 2차암이 다른 쪽 유방에 생길 위험이 1.37배 높고 전체 유방에 생길 확률도 1.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궁내막암은 1.96배, 대장암은 1.8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비만이 암 경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암 종류별로 다르고 같은 암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다양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전했다.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신체활동은 심뇌혈관 질환과 대사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피로, 통증 같은 신체증상과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은 유연성운동,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등으로 나눠 골고루 하는 것이 좋다.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하기보다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도를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면역 이상이 없는 암 경험자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디프테리아-파상풍, 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이때 가족도 함께 접종받는 것이 좋다. 암 경험자·가족 건강관리 수칙1. 추적 관찰은 주기적으로 합병증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2. 다른 암에 대한 검진 챙겨받기3. 심장뇌혈관 질환 예방하고 만성질환 관리하기4. 금연은 필수. 술도 가급적 마시지 않기5. 적정체중 유지하기6. 운동은 꾸준히, 매주 150분 유지하기7. 마음 건강을 챙기고 힘들 때 도움 청하기8. 가족과 함께 검진 받고 건강 챙기기9. 예방 접종하기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예방, 이젠 유전 정보 분석으로 해결하세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1001  
본문: 50대 임원 유재석(가명)씨는 2010년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2개 발견돼 절제술을 받았다. 2년 후 유씨는 개인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받았고 그 결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알았다. 대장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유전 정보를 확인한 유씨는 이후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한편 대장 내시경을 건강검진에 항상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암 등의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맞춤형 예방의학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이란 질환과 관련된 유전체 내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인간의 DNA, RNA, 단백질의 유전자 산물을 검사해 분석하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진단적 검사와 예측적 검사로 나뉘는데 이 중 예측적 검사는 만성질환, 암 등과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해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질병의 발생 확률(감수성)을 예측하는 검사다. 예를 들어 똑같이 흡연을 하더라도 폐암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험도는 동일할 수 없다.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얻게 된다.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위한 검사는 간단히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검진자는 의료기관에서 결과 및 맞춤관리방안 등을 상담 받아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분석 시간은 유전자 분석 항목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8주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국내에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한국에서도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치매 파킨슨병 등의 발병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SK케미칼은 디엔에이링크와, 유한양행은 테라젠이텍스와 손잡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치료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식단은 가족 사랑… “밥심으로 이겨내세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6001  
본문: 암환자를 둔 가족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문제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음식 앞에서 구토와 오심으로 힘들어하는 암환자를 지켜보는 일이다. ‘암환자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 잘 먹어야 하는 것이 암환자의 운명이다. 이에 대해 송시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원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송 교수는 암환자 식단은 의사에게도 ‘영원한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가족의 행복은 시름과 좌절감으로 무너진다. 암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지만 그래도 의연함을 찾아야하는 게 바로 암환자의 보호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교수는 “암환자가 잘 먹지 못하는 것은 항암제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암 자체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이기도 하다. 잘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암이 뿜어내는 독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암환자가 먹는 ‘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의 설명처럼 암환자가 잘 먹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항암제와 암세포 독성으로 힘들어하는 암환자에게 ‘어떻게 잘 먹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보호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민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음식을 오래 먹지 못하는 암환자에게는 적게 먹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고단백 식이가 좋다. 더불어 완벽한 세 끼 식사에 집착하기 보다는 끼니 사이마다 칼로리를 보충해줄 수 있는 간식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감자, 고구마, 달걀 등이 알맞다”고 조언했다. 기호식품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송 교수는 “암환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 외과적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환자도 있고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하는 항암제도 제각각이다. 환자군이 이토록 다양한데 이들에 대해 획일적으로 음식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술과 담배처럼 치명적인 기호식품은 금물이지만 애타게 커피 한 잔이 생각날 때 마심으로써 암환자가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택할 여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대의학에서 암환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큼 올바르고 정확한지 의료진들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택할 것을 강조했다. 식욕촉진제 사용과 관련, 송 교수는 ‘암과 싸워 보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송 교수는 “환자가 잘 먹게 유도하는 방법이 식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식욕촉진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진도 보호자도 암환자가 잘 먹는 것을 원한다. 약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잘 먹게 된다면 이는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보호자들로부터 ‘살 수 있나요’ 다음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의사생활 30년 동안 한결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답변을 해 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자문할 때가 많다. 암환자 식단에 대한 의학적으로 통합된 어젠다가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암환자들에게 당부했다. “암에 걸린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음식’뿐입니다. 식단은 완치를 향한 가족들의 바람이자 사랑이죠. 비록 입맛이 없더라도 암환자가 보이지 않는 맛을 음미하며 즐겁게 식사를 한다면 완치를 위한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생활 속 암 발생인자는… 흡연·만성감염·유전 ‘다양’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091941001  
본문: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석면을 비롯해 담배, 음식, 자연 속의 방사선, 대기오염 등 다양한 인자들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암에 노출돼 있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한다. 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암 현황’에 따르면 암의 원인 중 흡연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릇된 식습관 30%, 만성감염 10∼2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직업·유전·생식이 각각 5%, 음주·환경오염·방사선이 각각 3%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2009년)의 경우 만성감염의 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아 암 발생원인의 20.1%, 사망의 23.6%를 차지했다. 이어 흡연(발생 11.9%, 사망 22.8%), 음주(발생 1.8%, 사망 1.8%), 생식(발생 1.6%, 사망 0.9%)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에서 과체중(발생 1.8%, 사망 1.3%)과 부족한 신체활동(발생 0.7%, 사망 0.3%)도 원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음식의 경우 만성적인 자극을 통해 발병을 높이는데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다. 때문에 탄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과 오래된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바이러스도 암 발생 요인 중 하나로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는 간암 발생에 관계가 있으며,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등의 발생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에 단기간 많이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며,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에는 발색 및 생식 독성이 있고 암 발생률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2014년 4월)에 따르면 아플라톡신·베릴륨·비소·카드뮴·석탄·에탄올·아세트알데히드·가죽먼지·니켈화합물·석면·PCB·플루토늄·흡연·엑스레이·감마선·햇빛·페인트공·목재먼지·디젤매연·대기오염·미세먼지 등 113종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2급A(66개) 물질에는 아크릴아마이드·튀김(고온)·미용직·말라리아·석유정제(직업노출)·교대근무(수면장애) 등이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6.txt

제목: [암과 맞서 싸우는 병원-이대여성암병원] 개원 5주년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제2도약 선언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8001  
본문: 여성암 치료 분야를 특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문을 연 이대여성암병원(원장 백남선·사진)은 개원 5주년을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2도약을 선언했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성친화적인 진료 서비스로 여성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5년 만에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이 병원의 유방암 수술 건수는 2012년 국내 5위를 기록하는 등 개원 초 대비 5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갑상선암 수술 건수도 개원 초 대비 약 4배 늘어 ‘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내 여성암 대표병원’이라는 위상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유방암 수술 적정성 평가에서 전문 인력 구성 여부와 기록충실도, 수술 분야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총 99.82점을 기록해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JCI 인증 획득 이후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환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줄인 ‘외국인 환자 우선 진료 시스템’과 국가별 외국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의 1대1 맞춤 서비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몽골,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중동 등 60개국 여성암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는 성과로 이어졌다. ◇차별화된 시스템과 ‘삶의 질’ 높이는 병원=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속하고 빠른 진료서비스이다.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와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 신속한 암 진단을 제공하는 동결조직검사와 암 유전자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최초로 여성 건강검진을 별도 공간에서 시행하는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여성암 환자 전용인 레이디병동의 안정되고 편안한 입원실 등도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술 후 여성암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파워 업(Power-up)’ 프로그램도 환자들의 효과적인 암 치료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의료진으로는 유방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김승철 부인종양센터장,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등이 있다. 이들 여성암 전문 의료진은 수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유방보존 수술법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유방암 수술 환자의 약 75%를 유방보존술로 시행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성형외과와 함께 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을 바로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상실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 장비 도입과 여성암 관련 임상 연구 활성화=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장비 도입도 꾸준하다. 2010년 11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도입한 첨단 영상 진단장비 ‘128채널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와 2011년 12월 가동이 시작된 방사선 암 치료기 ‘트릴로지(Trilogy)’, 다빈치 로봇, 유방 감마스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2012년 10월 도입한 첨단 유방 촬영기 ‘디지털 3차원 맘모그라피’ 등이 대표적이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중장기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상연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2012년 3월 설립된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은 이대여성암병원과 함께 연구 역량을 고도화해 연구와 진료가 균형을 이루고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보건의료 시술을 발굴하고, 이를 빠르게 제품화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1단계 사업(2012∼2013년)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1단계 사업에서는 난치성 여성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개념 진단, 치료법 개발 초기 연구를 통해 2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받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이 센터는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계획이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7.txt

제목: [건강 나침반]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4001  
본문: “선생님! 가슴이 크면 유방암이 잘 생기나요?” “저는 가슴도 작은데 왜 유방암이 생긴 거죠?”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자면 일단 ‘아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다소 모호한 답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암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 발생한다는 모호한 지식이 일반화돼 있을 뿐 아직 확실하게 유방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유방암의 발생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작용된다고 생각하는 의료진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발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유방 세포는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의해 증식하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은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즉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을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이나 폐경 이후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요법도 원인이다. 그 외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젊은 나이의 과도한 음주, 비만,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은 첫 임신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이 잘 밝혀진 암의 하나로 꼽히는데, BRCA1, BRCA2 유전자의 변이는 유방암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 검사로 예방적 유방절제를 받은 유명인은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예방적으로 양측 유선을 모두 절제한 후 보형물을 삽입해서 유방모양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 역시 과거 유방암으로 투병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유전성에 대한 개연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들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모든 유방암 환자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방암 환자의 30% 정도는 이러한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인데, 그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유방전문센터 검진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다. 가슴이 큰 것이 유방암에 걸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비만한 사람이 당연히 가슴이 클 것이고, 날씬하더라도 가슴이 큰 사람들은 유방암이 발생하는 유선조직이 많기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손두민 원장·선두외과의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8.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혼자선 힘들다고요? 체계적 관리 도와드려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1001  
본문: 건국대병원은 암 경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을 개소했다. 암 경험자와 이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암 완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생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맡는다.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의 최재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경험자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치료로 인한 후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2차암의 위험도 일반인에 비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취지를 밝혔다.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은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암 전문센터의 협진 시스템으로 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법과 부작용 치료법,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암 경험자의 가족을 위해 암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큰 암을 선별해 주기적인 검사도 하고 있다. 암 경험자와 가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암 경험자의 피로, 통증, 불면증, 금연, 음주, 체중관리, 예방접종, 가족의 건강관리 등이 있다. 특히 유방암·갑상선암 센터와 연계해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35세 이전의 조기 유방암 환자, 양측 유방암이나 난소암, 다발성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가계도 작성과 함께 변이 위험도를 산출하고 유방암 유전자인 BRCA1, BRCA2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과 생활습관이나 검진 주기 등에 대해 상담한다. 검사 결과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약물을 통한 예방법이나 난소절제, 유방절제 등 예방적 수술법을 고려할 수 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진단을 사망선고라 여겼던 과거와 달리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암 경험자와 가족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영화·TV 드라마 속 암… 희망을 말하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9002  
본문: 특정 병에 대한 정보가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병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미디어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반인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반면 당사자인 환자들은 자신을 영화나 드라마 속 환자에 이입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처를 받기 십상이다. 암 역시 영화나 TV 드라마 등의 소재로 종종 다뤄지곤 하는데,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단순히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등 어두운 소재로 많이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암을 이겨내거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긍정적인 소재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영화 ‘50/50’은 희귀암(말초신경초종양)에 걸린 27세 아담과 그 친구의 이야기이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느끼는 고통은 잔인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반반의 확률은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눈길을 끄는데 가장 친한 친구인 카일은 암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듯하면서 ‘생존 확률 50대 50. 카지노에서는 최고의 승률이야’라고 말하고, 초보 심리치료사 캐서린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죠’라며 긍정을 말한다.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은 암환자들을 위한 영화를 기획해 눈길을 끌었는데 유방암 환자들의 일상을 다룬 영화 ‘스마일 어게인’이 그것. 환자들의 실제 수기를 바탕으로 각색해 환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한편, 환자의 가족과 친구, 나아가 사회의 공감과 정서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겪는 사회 심리적 소외감, 그리고 이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고통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영화의 주인공 숙향과 진주 두 여성이 유방암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암, 특히 유방암 환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말미에는 실제 환자들이 등장해 본인들의 사연을 인터뷰한 영상도 담아 여운을 준다. 암을 소재로 한 영화나 TV 드라마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 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다면 치료보조요법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항암제, 정상세포 손상 덜해…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1001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의 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암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 암 명의(名醫)들의 조언으로 올바른 암 질환 치료·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장암 표적치료제와 유전자 검사'편에서는 안중배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장(종양내과 교수)이 강사로 나서 대장암 환자들과 표적항암제 유전자 검사, 대장암 치료와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일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에서 열린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안중배(종양내과 교수·사진)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 표적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안 교수는 암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치료목표가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비교해서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걱정해 이를 대신해 방사선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방사선치료는 국소적 암 발생부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이되지 않은 환자의 암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고 반면 항암치료는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는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효과적인 암 치료법은 수술로 암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전이되어 수술이 어렵다면 항암치료가 대안이 될 것이다.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 암세포를 공격한다. 이 때문에 암세포 외에도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 세포나 장 점막 세포 등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항암치료는 분열이 빠른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빠른 암의 치료에 좀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구토와 탈모, 손발 저림, 백혈구 감소, 설사 등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암세포만을 타깃으로 삼는 표적항암제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환자들의 약제 사용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값비싼 표적항암제가 보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표적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아 구토와 설사 등 항암제의 부작용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표적항암제의 장단점에 대해 “환자들 가운데 표적항암제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환자상태와 꼭 맞는 표적항암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표적항암제를 사용하기에 앞서 환자의 유전자 유형을 분석해 어떤 약제를 선택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검사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그동안 표적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지나치게 비싼 약값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약효가 좋을 것을 알면서도 한 달에 몇 백 만원 되는 표적항암제를 환자들에게 쉽게 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장암 표적치료제와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표적항암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의사 입장에서도 기쁘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 안 교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암 치료성적이 좌우된다.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에서는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각 과의 의료진이 한 곳에 모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방침을 결정한다.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수한 치료성적을 거두는 이곳 대장암센터만의 비결”이라고 통합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Q. 표적항암제와 기존 항암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내과적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골라 죽인다기보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달리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특정요소를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약물입니다.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은 상대적으로 덜해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병용하면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Q. 모든 암환자가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장암 표적항암제로 알려진 얼비툭스와 아바스틴은 전이성 4기 대장암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한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암의 경우 표적치료제와 기존항암제를 병용해 항암치료를 해 수술 가능할 정도로 병변을 감소시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표적항암제 중 얼비툭스는 기존 항암제와 병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 후 실패한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해 K-RAS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대장암 표적항암제 얼비툭스와 아바스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아바스틴은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혈관을 파괴하고, 새 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암세포에 적절한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해 암세포를 없애는 기전입니다. 얼비툭스는 암세포 표면의 표피성장인자수용체에 결합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일으키는 신호전달체계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바스틴은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어 치료환자군을 표적하기 어렵고, 얼비툭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RAS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해 사용한다면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항암제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가 표적항암제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나요.-기존 항암제 치료에 실패하고 2차 치료로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항암제 단독으로 치료한 것보다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에 실패 후 기전이 다른 항암제와 함께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거나 표적치료제만을 사용하는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Q. 표적항암제 선택 시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요. -표적항암제는 말 그대로 표적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뜻합니다.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항암제의 독성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특정 유전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존에 진단을 위해 시행했던 조직검사 시 획득한 조직이나 수술 조직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K-RAS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4년 전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절제술과 보조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간 전이가 발견됐습니다. 기존 항암제를 병용해서 사용하나요, 표적항암제를 바로 적용해야 하나요. -이 경우 K-RAS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서 K-RAS 정상형일 때 얼비툭스와 항암제 또는 K-RAS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아바스틴과 항암제 병용요법을 모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치료제의 독성(과민반응, 심각한 피부발진, 고혈압, 단백뇨, 혈전 등)이 있는 경우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주치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1.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레이저 빛에 예민한 광감작제 이용 암 조직 죽인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2001  
본문: 레이저는 Light[광], Amplification[증폭], Stimulated[유도], Emission[방출] Radiation[방사(전자파)]의 의미이다. 이는 ‘유도방출에 의한 광증폭(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레이저 광의 생물학적 작용에는 ‘광열작용(Photothermal interaction)’, ‘빛작용(Light interaction)’, ‘광화학적 작용(Photochemical interaction)’, ‘광절제(Photoablation)’ 4가지가 있다. ‘광열작용’은 레이저광과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 중 열작용은 레이저광을 조직에 조사 시 조직 내에서 빛을 흡수해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의 온도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는 비특이성 반응이다. 열작용은 조직 내의 온도 변화에 따라 효소의 변성과 세포막의 변화, 응고, 기화, 탄화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빛작용’은 열작용과 마찬가지로 레이저광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생체자극 범주에 속한다. 빛작용에 의한 생체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저출력 레이저치료(LLLT)이다. 레이저가 방출하는 많은 광자들 대부분은 피부의 진피와 표피의 여러 층에서 흡수되지만 일부는 피부에 침투하지 못한다. 레이저 광선을 흡수한 신체 세포들은 광에너지를 세포의 손상을 치유할 수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를 손상된 부위의 치유 및 통증완화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섬유모세포의 이동속도, 엔도르핀 생성, 미세혈액순환 등을 촉진시킨다. 저출력레이저에 의한 대표적인 생체촉진 효과는 항염증 효과, 면역억제 효과, 혈관확장, 혈액순환 촉진, 진통 효과, 항부종 효과, 상처치유 효과 등이다. ‘광화학적 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와 광역학 진단 (photodynamic diagnosis: PDD)이다. 이것은 조직에서 레이저 빛이 조직 혹은 고분자물질과의 화학적 효과나 화학반응을 하는 실험적 관찰에서 착안됐다. 광역학 치료의 기본 원리는 체내의 풍부한 산소와 외부에서 공급되는 레이저와 레이저 빛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광감작제를 이용해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광감작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조직에 정상 조직보다 많은 양의 광감작제가 축적되고, 광감작제에 맞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정상조직에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채 레이저가 조사된 암조직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광역학 진단은 암조직에 축적된 광감작제의 형광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형광은 광감작제에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발생된다. 원리는 광역학 치료와 같이 광감작제를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조직에 광감작제 축적이 정상조직보다 많아진다. 이때 특정파장 레이저를 조사하면 암조직에만 형광이 나타나는 원리다. 이를 이용해 광감작제 종류에 따라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광절제’는 자외선과 같은 고 에너지를 흡수해 조직 내 유기고분자결합(organic polymer bond)의 분자 결합을 떨어지게 해 조직 괴사가 없이 조각을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조직 사이의 공유결합을 분리시키기에 충분한 빛 에너지가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축적될 경우 빛을 흡수하는 흡수체의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 기화되면서 주위 조직이 튀어나오면서 절제된다. 빛 파장이 적외선 영역에 있는 경우 주된 흡수체는 물이므로, 물이 기화돼 기포를 형성하고 그 에너지가 주위 조직의 탄성한계를 넘어서면 조직의 광절제가 일어난다. 이때 폭발로 인한 반동압과 기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충격파로 인해 주위 조직에 추가적인 기계적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안웅식 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는…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기기로 맞춤치료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2001  
본문: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는 2005년 신설된 대장암 전문 클리닉을 전신으로 한다. 올해 4월 연세암병원 개원에 맞혀 확장한 센터는 풍부한 수술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치료성적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암치료와 환자 개인별 맞춤치료를 지향하는 이곳 대장암센터는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과 더불어 대장암 코디네이터, 장루상처 전담간호사, 외과 전담 간호사 등 전문 인력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고성능 내시경과 MRI, PET-CT 등 최첨단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도입은 연세암병원만의 차세대 진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초기 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 로봇·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을 통해 치료 성적을 높였으며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왔다. 암 치료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함께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곳의 의료진은 재발되거나 진행된 암의 경우에도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 후 다장기 합병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완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대장암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각 관련 과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장루 전문 간호사에 의해 전문적인 장루 관리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장루 치료실이 운용되고 있다. 암 예방센터(Cancer Prevention Center)에서는 대장암 고위험 환자나 유전성 대장암 환자의 유전 상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암으로의 진행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대장암 치료 후 5년간 병이 발생하지 않은 암 경험자들은 별도의 클리닉을 통해 암 완치 후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연세암병원이 특별한 까닭에 대해 이곳을 찾은 환자들은 암지식정보센터의 존재를 이유로 꼽는다. 연세암병원 3층에 위치한 암지식정보센터(Cancer Information Center)는 세브란스병원이 그동안 축적한 암에 대한 모든 정보와 국내외 최신 의료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암지식정보센터는 이용자의 다양성에 맞혀 서적·신문 등 인쇄매체는 물론 동영상 자료도 비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센터 내 위치한 상담실에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암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암 종별 추천 식단 정보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림프부종 예방과 관리, 암환자 운동법, 암성통증관리, 유방절제·탈모 등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신체 변화 관리법, 수면장애 해결법 등 암환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함께 고민하며 암이란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금웅섭 암지식정보센터장은 “암 환자들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생활 등 생활습관의 변화도 그들에게는 현실에 닥친 문제다. 전문의들이 직접 나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강점”이라며 “암지식정보센터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환자들이 연세암병원을 단순히 치료만 받는 곳이 아니라, 치료 전부터 치료 후까지 집처럼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여성암 1위 갑상선암 임신 중에 발견했는데…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3001  
본문: 우리나라 여성암 1위는 갑상선암이다. 그 중 20∼39세 가임기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두드러진다. 의료계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이 월등히 많은 원인을 놓고 ‘여성호르몬’을 지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단정할 만한 의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추정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인에 대해서 추측과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갑상선암이 젊은 여성을 위협하는 암임은 확실하다. 특히 임신 중에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임신을 계획한 여성이라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임신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재훈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갑상선암의 성격을 언급하며 “<span class='quot0'>거북이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행속도가 느린 암이기 때문에 임신 전 생긴 암을 임신 중 발견한 것뿐이지 임신을 해서 갑상선 종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약 암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느꼈다면 임신 중이라도 병원을 찾아 초음파, 미세침흡입 세포검사 등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임신한 여성이 갑상선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불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임신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만약 갑상선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임신한 여성이라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양의 크기가 1cm이하이면서 전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출산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몸에 자리한 암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암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아직 정식 보고된 연구는 없지만 30년간 임상에서 본 임산부의 갑상선암은 보통 암환자들보다 유독 그 성장이 느렸다. 또한 태아에게 영향을 주려면 태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가임기 여성이라면 수술을 고민하겠지만 임신 초기 혹은 말기에 발견한 경우라면 대개 분만 후 수술한다”고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이 암을 발견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일반 암환자보다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아이의 생명을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무척 고민할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가임기 젊은 여성이라면 수술 후 임신 가능성이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예외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없이 수술로만 완치한 경우라면 치료 후 불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항진된 경우라면 유산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재훈 교수는 “태아 발달이 안정기에 접어든 임신 중기(22주 전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의 수술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에서다. 판단은 암의 진행속도, 임신 주수, 의사의 임상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임신 중에 갑상선암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므로 괜한 고민과 염려로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채식의 항암작용? 암 환자에겐 되레 毒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9001  
본문: 1년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김호연(가명·49)씨는 6개월 전부터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꿨다. 평소 육식을 좋아했던 김씨였지만 위암 판정을 받은 이후 무분별한 식습관을 고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 의사 검진 결과 김씨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다. 채식 위주의 식단 때문에 항암치료를 버텨낼 만한 체력이 바닥난 것. 김씨는 “<span class='quot0'>막상 암 판정을 받고 나니 조급한 마음이 들어 무조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조정한 게 원인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육식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몸 상태만 더 나쁘게 됐다</span>”고 하소연했다. 대다수 암환자들은 암의 호전을 위해 식단 조절에 들어간다. 하지만 김씨처럼 무분별한 식습관을 고친다며 채식 위주의 식단만을 고집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강 상식 중 암환자에게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것이 육식에 대한 편견이다.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암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또 굳이 채식만 한다고 해서 위의 말대로 장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가 별로 없으며 적당하게 육식을 지속해온 사람들이 대다수다. 채식주의자가 더 건강하다고 믿는 상식에 비춰보면 채식을 주로 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선사시대 유골 비교에 따르면 신석기인은 구석기인보다 체구도 작고 감염성 질환 등 질병에 걸린 흔적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암에 걸렸다고 급한 마음에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만 식사를 할 경우 오히려 암을 이기기보다는 암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현규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암환자는 암과 싸우기 위해 충분한 체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다. 때문에 채식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채식만으로 식생활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감소되고 체력이 고갈되며 영양불균형이 와서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부에서 채식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것들이다. 효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암 환자에게는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표적항암제 선택의 기준 ‘유전자 검사’ 健保 적용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03001  
본문: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무한정 증식해야하는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와 달리 특이하게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 있다. 이같이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표적항암제(targeted agent)다. 결과적으로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癌)적인 성격을 지닌 세포만을 골라 죽이게 된다. 하지만 표적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 짓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특정 유전자 단백질을 지닌 암환자에게 잘 듣는다. 따라서 표적항암제 사용하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전자 검사는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별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장암·폐암·백혈병·GIST의 표적치료제 선택에 필요한 검사 8종을 보험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유전자 검사 8종에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장암은 표적치료제를 선택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대표적인 암이다. 대장암 표적치료제 선택을 위한 유전자 검사 3종도 이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대장암 환자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라스(RAS)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달라진다. 임상연구 결과,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 없이 정상형일 때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다른 약제보다 환자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수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2차 치료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폐암과 백혈병 표적치료제 선택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들도 보험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전환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6.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치명적 ‘폐암’도 표적치료제 개발 후 치료 희망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10001  
본문: 국내 폐암 환자수가 매년 증가해 연간 2만명이 넘었다. 폐암은 전체 암 중 4번째로 발생률이 높지만, 발병 초기에 증상이 없어 진단을 받을 당시 환자들이 수술치료가 어려운 3∼4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5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환자는 전체 폐암 환자의 약 20%로 다른 암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폐암은 암세포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한다. 국내 폐암 환자의 약 80%는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수술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약 25%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환자들은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폐암은 백혈병, 유방암, 위암과는 다르게 197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치료법의 발전이 거의 없었다.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1960∼1970년대에는 4∼5개월만 살 수 있었고 항암치료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까지 평균 생존기간은 6∼8개월에 그쳤다.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폐암 진단을 받으면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많았다. 폐암은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초반 1세대 표적치료제 등장 이후 여러 차세대 표적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치료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표적치료제(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도록 명령을 전달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 전달을 막아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유전자 돌연변이와 분자생물학적 표지자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및 VEGF, ERCC1 등이 있다. 특히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대표적인 표적으로 이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은 표적항암제를 통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 치료제들은 특정 변이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억제가 가능하고 내성이 생기기 쉽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표적항암제도 진화를 통해 개선된 임상결과를 보여줘 암도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1세대 표적치료제의 한계는 치료 초기에 좋은 반응을 보이던 환자들에게 내성이 생기는 문제였다. 최근에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세대 표적치료제인 아파티닙(제품명 지오트립) 등의 새로운 표적치료제들이 등장했다. 아파티닙은 전임상 연구에서 기존 1차 표적치료제보다 더욱 강력하고 나아가 일부 내성 출현의 경우에도 효과를 보여서 많은 임상연구가 이뤄졌다. 또한 1세대 표적항암제들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용체에 붙어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2세대치료제는 수용체에 결합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력하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암 환자 식단에 필수… 청국장 냄새 타박하지 마세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8001  
본문: 청국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독한 냄새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지독한 냄새에 비해 효능은 뛰어나다. 특히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고마운 식품이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의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청국장이다.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은 청국장에 함유돼 있는 고분자 다당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쥐를 이용한 시험에서 14∼28일간 정상 쥐에 청국장 다당체 추출물을 투여(200㎎/㎏수준)한 결과 면역기관(비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의 증식 및 외부세균이나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당은 글리코겐이나 셀룰로오스 등과 같이 단당분자들이 결합한 것을 말한다. 천연물에서 나오는 다당체는 식품첨가물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항당뇨, 장기능 개선, 항암, 면역기능 증진 등 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청국장은 바실러스균을 이용해 콩 전체를 단기간 발효시켜 만든 전통발효식품으로 이소플라본, 레시틴, 점질물질인 폴리감마글루탐산(poly-γ-PGA) 등의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청국장 분말 100g당 12g 정도의 고분자 다당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한편 청국장의 주재료인 콩은 비뇨기암 중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비뇨기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 암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고지방 단백질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청국장 등 콩을 통한 섭취방법을 권유한다. 윤철용 고려대 구로병원 암병원 비뇨기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저지방인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8.txt

제목: [암과의 동행] 김치·카레, 암세포 증식 막는다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7001  
본문: 음식을 잘 먹으면 몸 속 항암물질이 늘어나면서 암을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카레가 동서양의 대표적인 항암음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치는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양념을 혼합해 저온에서 발효시킨 음식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이다. 김치에는 비타민과 섬유질뿐 아니라 소화를 향상시키는 유산균이 풍부해 암세포 증식을 막아준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에는 요구르트보다 4배 많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으며, 이 유산균은 대장 내부를 청소해주는 정장 작용은 물론 다른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효 중 비타민 B군의 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1g당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 항암효과=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 무 파 갓 등 채소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이 유산균은 내장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대장 건강을 지켜준다. 또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낮춰주며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치는 유기산, 유산균, 식이섬유소 등을 함유하므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좋다. 나아가 암을 일으키는 미생물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건강식품으로 확실히 변하게 된다.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동안 염분에 강한 내염성 세균인 ‘젖산균’이 살아남는데, 이 젖산균은 다른 유해 병원균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젖산균 내 ‘펩티드글리칸’과 같은 성분이 돌연변이나 종양 생성을 억제해 대장암, 고형암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된바 있다. 문성준 대상FNF 종가집 팀장은 “<span class='quot0'>김치의 유산균 수치는 일반 발효유 제품보다 10배 이상 많으며,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그 수가 1만 배 이상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김치의 유익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기능성 김치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카레 커큐민 유방암 예방=카레는 한국인이 즐기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이다.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능과 요리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암예방학회는 2007년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가지’ 중의 하나로 강황 속에 많이 들어 있는 커큐민을 선정한바 있다. 최근 오뚜기 후원으로 열린 ‘제4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함께 커큐민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도록 나노입자 형태로 변형한 ‘나노커큐민’을 유방암 고위험군 실험쥐의 유관에 주입한 결과, 탁월한 유방암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외국에서도 카레의 항암효과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과학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www.eurekalert.org)는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과 여러 가지 향신료에 든 성분이 항암·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미국 앰디 앤더슨 암센터 Bharat Aggarwal 교수는 “<span class='quot1'>인도인들이 즐겨 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 정향 펜넬 쿠민 훼누그릭 등의 향신료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백질인 NF-κB의 활성을 억제해준다</span>”고 설명했다. 영국의 래스터대학 카렌 브라운 박사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 후 실제 종양조직을 가지고 실험한 연구 결과 강황이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29.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예고 外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091942001  
본문: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예고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이며,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은 4000∼8000원이고 5인실은 3000∼6000원이다.유전자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정부는 항암치료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3차원 영상을 이용한(3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확대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기간 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산정특례제도(본인부담률 10% 적용) 종료 대상자가 오는 6월 30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들의 적용기간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연장)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0.txt

제목: [암 희망일기] 폐암, 완치율 낮지만 포기 마세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3001  
본문: 지난 5월 17일 원자력병원 폐암센터에서는 조촐한 축하연이 개최됐다. 축하연의 주인공은 20년 전 본원에서 폐암치료를 받고 원자력병원 폐암 환우회 불암산악회에서 현재까지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 중인 70세 초반의 남자 환우다. 환우분은 당시 폐암선고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는데 폐암센터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폐암 완치 20주년을 맞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전했다. 85세 남자 환우분이 좌측 폐의 폐암으로 진단받고 본원에 내원했다. 다행히 1기 폐암이라 수술을 권유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수술 받기를 꺼렸으나 자녀분들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았다. 흉강경내시경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통증 없이 회복해 5일 만에 퇴원하고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외래에서 웃는 낯으로 뵙고 있다. 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69세 남자 환우분이 다른 병원에서 종격동임파절전이와 흉벽침범이 동반된 폐암을 진단받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기에 매우 절망적인 마음으로 본원의 외래를 방문했다. 검사결과 상당히 진행된 암이었지만 양전자단층촬영 및 기타 전이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술을 결정했고, 개흉술을 통한 흉벽과 폐엽절제술, 그리고 임파절 청소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병기는 3기 전기였고, 이후 항암치료까지 받았다. 치료과정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어느새 수술 후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현재는 의료진의 권유대로 열심히 등산 및 운동을 해 나이에 비해 상당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폐암은 완치율이 높지 않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흡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50대 가정주부는 폐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폐암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침검사로 정확한 병리학적 진단을 하기에도 어려운 작은 결절이었지만 폐암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에 흉강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폐암이 확진됐다. 조직검사를 한 직후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폐엽절제술과 임파절 청소술을 시행했다. 다행히 개흉술을 하지 않고 수술이 완료됐고, 수술 후 병기는 아주 초기로 확인돼 예후도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됐다.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정기검사를 위해 본원을 방문하고 있다. 흡연력이 전혀 없는 분들도 폐암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50대 이후에는 흉부 CT 검사를 5년 내지 10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의 유병률이 차츰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암에 걸리는 중복암의 사례도 늘고 있다. 71세인 여자 환우분이 2기의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으러 왔고, 수술 전에 원격전이여부를 알기 위해 시행하는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폐암의 전이는 없었지만 대장에 병소가 있는 것이 발견됐고, 대장암 초기로 진단됐다. 두 가지 암에 동시에 걸리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폐암은 2기, 대장암은 1기로 진단돼 두 가지 모두 수술로 완치가 됐다. 지금은 수술 후 8년, 정기적인 건강검진만 받고 있다. 폐암 환자라고 해서 폐만 살펴서는 안 되며, 다른 암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박종호 원자력병원 폐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통증치료기 ‘페인스크램블러’ 인정비급여 확정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5001  
본문: 페인스크램블러 장비(사진)를 이용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행위가 지난달 29일자로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확정됐다. 페인스크램블러 장비를 개발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는 지난달 29일자로 보건복지부가 페인스크램블러 치료에 대한 인정비급여를 고시했다며, 난치성 만성통증과 암성 통증 등 통증치료에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신경성통증을 포함하는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 등의 치료기기이다. 일반적인 약물요법 또는 수술치료 등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반 통증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신 의료장비다. 치료원리는 통증 발생 부위에 비침습적 전극을 부착해 페인스크램블러에서 생성된 무통증 신호를 기존 통증 부위로 보내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또는 왜곡된 통증 신호를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감각신호로 전환시켜 통증을 제어한다. 현재 페인스크램블러는 지오엠씨가 직접 개발해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2013년 2월 28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는 통증 치료장비다. 임영현 대표는 “<span class='quot0'>미국, 유럽 등지에서 먼저 상용화 된 페인스크램블러가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 신경외과, 정형외과, 암전문병원, 종합병원 통증센터 등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시점에서 내려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법의 인정비급여 확정 고시는 국내 통증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지오엠씨 측에 따르면 실제 디스크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10회의 치료를 실시하면 통증이 현격히 감소되9.며, 수술과 상관없는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 후 통증 감소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장비를 이용한 치료법은 ‘페인스크램블러 테라피’다. 오랜 기간 통증에 시달리면서 변성이 되어버린 난치성 만성 통증에 대한 인식작용을 정상화시키는 통증치료 장비로 주목을 받고 있다.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2.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2001년 5월 국내 환자 6명에게 ‘글리벡’ 처음 투여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112002  
본문: 1999년 귀국 당시만 해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유일한 완치법은 동종이식이었다. 더 많은 환자의 이식을 위해서는 비혈연 골수기증자를 확보해야 했다. 국내 2곳의 기증자은행에서 확보하고 있던 기증자는 채 5만명을 넘지 못했다. 기증자 확보를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혈연 골수기증자를 확보하고 있던 대만의 츠지재단의 협조를 얻어 20만명이 넘는 대만 골수기증자의 골수를 국내 환자의 이식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00년 초에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글리벡’이라는 새로운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노바티스사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며 백방으로 노력했다. 당시 노바티스사는 “1, 2상의 초기 암 임상연구에 한국의 연구자는 참여 기회를 줄 수 없고 향후 다른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마침내 그해 12월에 열린 미국혈액학회에서 글리벡의 1상 연구 결과가 처음 발표됐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인터페론 치료에 불응성을 보여 임상연구에 참여한 61명 전원에게서 완전혈액반응을 얻는 기적적인 것이었다. ‘글리벡 열풍’으로 전 세계의 의사와 환자들이 글리벡을 구하기 위해 노바티스사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언론은 앞다퉈 이 약의 놀라운 효과를 보도했다. 필자도 글리벡의 조기 국내 도입을 위해 환자들과 노력한 결과, 드디어 우리나라의 환자에게도 글리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기존의 인터페론 치료가 듣지 않거나 가속기나 급성기로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동정적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공정한 환자 선정을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대한혈액학회의 위임을 받아 필자가 위원장을 맡아 5인으로 구성된 글리벡공급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전국의 병원에서 신청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무상으로 글리벡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001년 5월 15일 마침내 성모병원에서 첫 6명의 환자에게 글리벡이 투여됐고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투약이 시작된 지 불과 1주일 이내에 모든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한국 노바티스사의 도움으로 2003년 2월까지 총 460명의 환자에게 글리벡을 공급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됐고 비싼 약가 때문에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희망하는 환우 단체들의 활동(약 150억원)이 이어져 마침내 그해 2월에 환자 부담금 10%의 아시아 최초 ‘글리벡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됐다. 글리벡은 지난해 특허 기간이 만료돼 14개 이상의 국내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글리벡은 α-crystal로 2015년 이후에나 특허가 만료되는 β-crystal에 비해 열과 습도에 쉽게 불안정해져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훈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α-crystal 복제약을 사용하도록 해 많은 환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마법의 탄환 글리벡의 놀라운 효과는 혈액검사나 염색체검사만으로는 더 이상 정확한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후 ‘실시간정량적중합효소연쇄반응법(RQ-PCR)’를 통해 더 정밀하게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 진단법은 개개의 병원 등에서는 국제표준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워 국내 25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Path in CML 프로그램’이 시작돼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표준화된 무상검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다. 김동욱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직장암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만큼 안전”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21001  
본문: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진행성 직장암 치료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종양학적 안전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오재환 센터장과 서울의대 외과 정승용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강성범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근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진행성 직장암에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한 무작위 임상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암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온라인에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2기 또는 3기 직장암 환자 340명을 복강경 수술군 170명, 개복 수술군 170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3년 무병생존율, 전체 생존율, 국소 재발률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동일한 생존율을 보였다. 연구팀은 수술 전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진행성 직장암 치료에서 복강경 수술이 재발률과 3년간의 무병생존율에서 기존 개복 수술과 성적이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체 3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번 연구 결과는 복강경 수술이 대부분의 직장암 환자에서 개복 수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연구팀은 2010년에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으며 단기 삶의 질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정승용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직장수술이 장기 생존율에 개복 수술과 차이가 없음을 입증해 복강경 직장수술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연구에서 보여준 직장암 치료성적, 수술성적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발표된 것보다 우수해 국내 의료 수준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결장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었지만 직장암에서 무작위 임상 연구를 통한 장기 생존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직장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해 면역기능의 저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단기적인 회복이 빠르며 미용상으로도 뛰어나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대장암에서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 결과, 개복술과 비교시 종양학적 안전성에 차이가 없음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장암 환자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적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직장암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임상연구 자료가 없었다. 이에 대해 오재환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복강경 직장수술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존과 관련된 장기 성적이 없어 복강경 직장수술 논란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국 대장항문 외과 의사들에 의해 복강경 직장수술이 표준 술식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보람을 느낀다</span>”고 강조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상처·화상·입술포진 등 피부손상에 효과… 종근당 ‘티로서겔’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7120231001  
본문: 종근당이 최근 상처, 화상 및 입술에 작은 물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입술포진 등 다양한 피부손상에 효과적인 상처치료제 ‘티로서겔’(사진)을 발매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티로서겔은 티로트리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색의 하이드로겔 타입의 상처치료제로 항균작용을 통한 상처 치유에 탁월하고 상처 부위에 습윤 환경을 조성해 흉터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쿨링작용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바른 후 얼굴에 남지 않아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티로서겔은 독일 엥겔하드(Engelhard)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승인된 외용 항생제다. 현재 독일 일반의약품 상처치료제 판매 1위 제품으로 유럽 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티로서겔은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흉터 발생을 최소화해 다양한 상처 치료에 효과적인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은 물론 흉터에 민감한 여성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5.txt

제목: 폐 딱딱하게 굳어지는 특발성폐섬유화증, 당뇨병 환자도 발병 위험 높다  
날짜: 2014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6120014001  
본문: 말랑말랑한 고무풍선과 같은 폐가 어떤 원인에 의해 굳어져 불기 힘들어지거나 불면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 질환이 있다. 아직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불치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바로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 숨 쉴 틈이 없어지는 ‘특발성폐섬유화증’이다. 흡연은 이 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당뇨병도 이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정성환, 경선영, 김유진 교수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대학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1685명의 의무기록을 수집, 조사한 결과 17.8%가 당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로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이다. 폐 조직은 본래 말랑말랑한 상태로 팽창과 수축을 하며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조직이 섬유화 현상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폐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돼 숨쉬기가 어렵게 된다. 발병 초기에는 운동을 하거나 높은 계단을 걸어서 오르거나 등산을 하는 등 호흡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숨이 가뿐 정도로 그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을 달고 살게 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진다. 체내 산소가 부족해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만성적인 저산소증으로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棍棒肢)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이런 증상은 폐 섬유화 현상과 정비례해서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정성환 교수는 “검사결과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의 폐에선 망상(網狀·그물모양)결절과 벌집모양이 당뇨가 없는 환자들보다 두드러지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망상결절과 벌집모양은 섬유화현상이 진행되는 폐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당뇨 환자들은 또한 고혈압, 심혈관질환 유병률이 더 높았고, 암 발생 위험도 당뇨가 없는 환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치명적인 폐암으로의 발전 여부는 당뇨가 있건 없건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위암, 방광암, 대장암, 혈액암 등에 걸릴 위험도는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당뇨 환자 가운데 폐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환자 본인의 폐가 약하다면 정기검진을 통해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조기에 발견, 진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성환 교수의 지적. 특발성폐섬유화증은 CT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CT 사진 상 폐 조직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벌집모양을 하고 있거나 그물망 모양의 결절(혹)이 보이면 특발성폐섬유화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확진은 조직검사로 이뤄진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발병하면 완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퍼페니돈’, ‘엔아세틸 시스테인’ 등의 약이 있긴 하지만 진행을 다소 억제하는 수준일 뿐 특효약은 아니다. 환자들은 이에 따라 증상 완화를 위한 산소 흡입 치료가 필수적이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최대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환자들 대부분이 장기간 흡연을 해온 50세 이상 남자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성환 교수는 “비단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특발성폐섬유화증을 피하려면 담배부터 끊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6.txt

제목: [메디컬 뉴스] 한림대성심병원, 고도비만 학생 대상 체중조절 프로그램 진행 外  
날짜: 2014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6091857002  
본문: 고도비만 학생 대상 체중조절 프로그램 진행한림대성심병원(평촌)은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이 23일부터 만 10∼15세 사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6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5차례에 걸쳐 총 12주간 실시된다. 참여를 바라는 고도비만 학생들은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한국인의 3대 질환 집중 대해부’ 특별 강연회서울아산병원은 19일 오후 2시 동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인의 3대 질환 집중 대해부’란 제목으로 개원 25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박승정 심장병원장과 유창식 암센터장, 김종성 뇌졸중센터장이 심장병과 암, 뇌혈관질환에 대개 각각 강연한다(02-3010-3051∼4).류마티스관절염 바로알기 강좌 개최중앙대병원은 20일 오후 2시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상쾌한 아침 뻣뻣한 관절, 류마티스관절염 바로알기’란 제목으로 관절염강좌를 개최한다. 류마티스내과 송정수, 최상태 교수팀이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 각각 강의하고 영양관리팀 유혜숙 팀장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도 알려준다(02-6299-2219).29일 ‘설수진의 아·름·답·게 걷기대회’ 연다(재)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은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1회 설수진의 아·름·답·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총 6.7㎞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 등 기념품과 음료가 제공된다. 희망자는 24일까지 걷기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070-7603-1982).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7.txt

제목: [기획] 점점이 홀로 살던 노인들 절절한 ‘절친’ 생기다… 노인이 노인 돌보는 ‘밀알공동체’  
날짜: 2014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4115950001  
본문: 지난 12일 오후 15평 남짓한 서울 신길동의 조그만 다세대주택 2층에서 이색 파티가 열렸다. 주 메뉴는 ‘멸치국수’, 참석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대부분 혼자 사는 ‘싱글’들의 파티였다. 파티 주최자는 유태열(76) 할머니다. 유 할머니가 혼자 사는 조용한 집안은 오후 2시쯤 7명의 파티 참가자가 모여들면서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버선발로 나서 이들을 맞은 유 할머니는 국수 삶는 손을 바삐 움직이며 “좋은 국수가 생겨서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의 ‘함께 살이’ 사업 중 ‘밀알공동체’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밀알공동체’는 같은 지역에서 고립된 섬처럼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을 소개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임이다. 유 할머니는 지난해 이 공동체에 가입했다. 유 할머니는 한때 강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아들이 사업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고 잠적하면서 혼자가 됐다. 강남의 집은 전세로, 이어 월세로 바뀌었고 유 할머니는 점점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간간이 찾아오던 다른 가족과 친구들의 발길은 끊긴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유 할머니는 “생활이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좌절에 빠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던 건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의 조향임 생활관리사였다. 처음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무시했지만 계속된 그의 방문에 할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조 생활관리사는 유 할머니에게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밀알공동체를 소개했다. 그가 밀알공동체에서 처음 만난 친구는 채소 장수 A씨(79·여)와 말기암 환자 B씨(76·여)였다. 사회와 담을 쌓은 채 홀로 살아가던 이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또 다른 가족이 됐다. 유 할머니는 A씨가 장사를 하는 신길역을 자주 찾았다. 좌판에 앉아 집에서 타온 냉커피를 마시거나 같이 콩을 까며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B씨와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함께 밥을 챙겨 먹었다. 암에 걸린 데다 허리마저 굽어 이동이 불편한 B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유 할머니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 유 할머니는 “상처는 마음의 문을 잠그는 단단한 자물쇠가 된다. 외부와 단절된 B씨를 보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항상 유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과 달리 어느 날 B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집에 와서 떡 같이 먹자.” 이날 부로 이들은 살아온 인생을 나누는 ‘절친(절친한 친구)’이 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얘기를 전해주던 유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조 생활관리사는 “B할머니는 암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유 할머니 얘기에는 항상 반응을 했다. 유 할머니는 B할머니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유 할머니의 주방 찬장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이라곤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식기구들이 있었다. 15년 전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살 때부터 갖고 있던 ‘짐’이었다. 그러나 짐은 오랜만에 찬장에서 나와 먹음직스러운 국수를 담은 채 친구들 앞에 놓여졌다. 유 할머니는 “혼자 밥 먹을 땐 필요가 없었지. 친구들이 생기면서 짐이 빛을 보게 된 거지”라며 멋쩍게 웃어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이 6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한다. 독거노인도 125만명에 달한다. 조 생활관리사는 “동네를 들여다보면 이런 세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노인들이 많다. 눈을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의 고립된 섬 같다”며 “섬에서 나와 저들끼리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 진짜 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사회 활동이 가능한 60, 70대 독거노인 134명을 ‘밀알도우미’로 선발해 17개 동(여의도동 제외)에서 19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8.txt

제목: 진행성 흑색종, 니볼루맙+이필리무맙 병용요법 혜택 커  
날짜: 2014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2100000062  
본문: T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니볼루맙(nivolumab)과 항CTLA-4 단일클론항체인 이필리무맙(ipilimumab)을 병용 시 진행성 흑색종암 환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제50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br/><br/>이번 연구는 18세 이상 진행성 흑색종 환자 136명을 대상으로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을 병용했을 경우 흑색종 종양의 크기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살펴봤다.<br/><br/>추적결과 환자 42%가 36주 후 종양의 크기가 80%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전에 이 병용요법으로 치료 받은 환자에서 몇주 동안 반응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 기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단 반응을 보인 22명의 환자 가운데 14명이 24주 이상 약물 효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약물과 관련된 3/4 등급 수준의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는 53%였다.<br/><br/>연구팀은 "두 약물을 병용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 전이성 흑색종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BRAF 유전자가 흑색종암 환자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는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의 유무를 떠나 두 약물의 병용요법은 효과적이였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39.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13일, ‘음악과 함께하는 한방 토크쇼’ 개최  
날짜: 20140612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2100000027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이 개원 8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본관 로비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한방 토크쇼’를 개최한다.<br/>오후 4시30분부터 90분간 진행될 이번 행사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만의 차별화된 클리닉과 치료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음악을 통해 환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br/>행사는 한방음악치료센터 이승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회자와 각 과의 담당교수가 질병이나 체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실제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br/>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십니까?(한방소아과 이선행 교수) ▲중풍 환자들을 위한 한의학의 치료법(중풍뇌질환센터 박정미 교수) ▲안면마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침구과 김민정 교수) ▲암환자의 건강관리와 심신 안정(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 ▲태양인과 태음인의 특징 및 건강관리(체질개선클리닉 황민우 교수) ▲소양인과 소음인의 특징 및 건강관리(체질개선클리닉 황민우 교수) ▲무료체험권 추첨(뇌혈류 초음파, 명상, 공진요법, 한방음악치료, 맞춤운동평가 체험권 등) 등이다.<br/>이승현 교수는 “열이 많은 소양인들이 꿀이나 인삼을 먹지 않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악도 체질에 맞는 음악이 따로 있다. 예를 들어 대금으로 연주하는 대금 산조나 느리게 시작하면서도 청아한 울림을 주는 청성곡은 한의학적으로 소양인의 열을 식혀 주는 음악”이라고 설명했다.<br/>고창남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를 통해 강동경희대병원의 개원 8주년을 자축하고, 음악을 접목한 토크쇼로 사상체질과 한방치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제공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내원객은 물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병원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0.txt

제목: 포낙보청기, 암 투병 중인 독거노인에게 ‘소리 선물’  
날짜: 20140612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2100000049  
본문: 포낙코리아(대표 신동일)는 부산 해운대센터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인 윤용철 할아버지(71)에게 포낙보청기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br/><br/>포낙코리아와 해운대센터는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윤 할아버지의 사정을 전해 듣고 포낙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br/><br/>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인 윤 할아버지는 초등학생 시절 귀의 통증과 함께 이명 증상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20세에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또한 30세에 직장암 판정을 받아 4번에 걸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세 자금까지 사용했고,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수입과 집이 없어 창고나 지인의 집에서 얹혀 살기도 했다.<br/><br/>현재 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난청으로 인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포낙보청기 해운대센터는 윤 할아버지의 청력검사에서부터 보청기피팅 및 착용, 청능재활을위한 전문적인 청각관리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기로 했다.<br/><br/>신동일 대표는 “<span class='quot0'>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병마와 싸우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독거노인을 포함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포낙보청기 센터와 공동으로 보청기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1.txt

제목: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부암’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1100000007  
본문: 자외선 노출로 피부암 증가… 흑색종 피부암 생존율 낮아<br/><br/><br/><br/>김상수(76, 가명)씨는 2년 전에 왼쪽 뺨 부위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그는 집에 있던 상처치료 연고를 바른 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고 오히려 진물이 나고, 상처부위가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르더니 2.5cm 정도 크기의 혹이 생겼다. 통증도 없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마다 얼굴에 생긴 혹을 쳐다봐서 신경이 쓰였고, 병원에 가보라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다.<br/><br/>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진단 받았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피부를 포함해 넓은 부위를 절제해야만 했다. 다행히 편평세포암을 제거하는 동시에 노화로 늘어진 피부를 암을 제거한 부위에 이식했다. 수술 후 흉터는 거의 없어졌고, 더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고해상도 초음파검사 및 PET-CT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흉터를 관리해야 한다.<br/><br/><br/><br/>김순자(74,가명)씨는 오른쪽 부위에 있던 조그만 점이 점차 진해지고, 1.5cm 크기로 커졌다. 그리고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긴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 흑생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종양은 수술로 깨끗이 제거를 했지만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육안관철을 비롯해 고해상도 초음파검사 및 PET-CT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br/>올해도 일찍 더위가 찾아왔는데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br/><br/>하지만 통증이나 가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백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만 생각해 피부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br/><br/>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육종, 파젯병, 균상식육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하얗고 얇은 피부는 상처가 빨리 낫고 흉터가 잘 생기지 않지만, 피부암에 잘 걸린다. 그래서 피부암은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행한다.<br/><br/>피부암은 오랜 자외선 노출, 만성적 피부 자극이나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축적량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아져 피부암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9년 11만명에서 2013년 16만명으로 45% 증가했다.<br/><br/>피부암은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눈다. 흑생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다른 암처럼 전이가 잘 되고, 항암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반면 비흑색종은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등을 말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조직검사 및 레이저치료가 가능하지만, 피부 병변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잘되지 않아 늦게 발견하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 구리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보조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br/><br/>◇피부에 이상한 징후 나타나면 바로 병원 찾아야=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점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커지면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피부 속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을 경우나 이유 없이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날 때, 상처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을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br/><br/>점이 비교적 크고(6mm 이상),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규칙하며, 색이 얼룩덜룩하면 흑색종을 의심해야 한다. 또 얼굴이나 노출부위에 가려움증이 없이, 빨갛거나 갈색으로 진물이 나는 상처가 생기고, 일반적인 연고를 발라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흑색종성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br/><br/>서인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성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환자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치부하고 내버려두다가 피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기능 보존하고 흉터 최소화 위해 재건 수술 중요=피부암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절제해 재발을 방지하고, 수술 후 눈 코 입과 같은 안면 구조물의 뒤틀림을 최소화하면서 흉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0.5~1cm, 편평세포암은 1~3cm, 악성흑색종은 2~3cm 이상의 정상조직을 함께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넓은 면적의 피부를 절제하면 피부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흉터가 남으면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우울증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1'>피부암 주위 조직의 변형 및 흉터를 최소화해 수술하는 것은 미적 기준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의 협진을 통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서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피부암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일주일 이상 낫지 않는 피부병변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자외선 차단을 위한 패션센스=옷차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의 소품으로 일광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br/><br/>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은 계절에는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데, 몸에 딱 맞을 경우 햇빛이 옷감 사이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옷이 자외선을 더 잘 막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물기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br/><br/>자외선 차단 효과는 옷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흰 티셔츠는 SPF 5∼9 정도의 효과가 낮지만, 짙은 색 청바지의 경우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높다.<br/><br/>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모자의 자외선 보호 효과는 매우 낮으며 등과 목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다.<br/><br/>선글라스를 구입 시 튀는 패션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 표면처리, 눈부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표면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 사용 목적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이 나쁜 렌즈는 안과 질환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2.txt

제목: “국내 피부암환자 증가 추세”  
날짜: 20140611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1100000023  
본문: # 김상수(76세·가명) 씨는 2년 전에 왼쪽 뺨 부위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그는 집에 있던 상처치료 연고를 바른 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고 오히려 진물이 나고, 상처부위가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르더니 2.5cm 정도 크기의 혹이 생겼다. 통증도 없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이었다.<br/><br/># 김순자(74세·가명) 씨는 오른쪽 부위에 있던 조그만 점이 점차 진해지고, 1.5cm 크기로 커졌다. 그리고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긴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 흑생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종양은 수술로 깨끗이 제거를 했지만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육안관철을 비롯해 고해상도 초음파검사 및 PET-CT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br/><br/>올해도 일찍 더위가 찾아왔다.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양산, 선글라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적당한 햇볕은 인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비타민D의 합성과 살균작용을 하지만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r/><br/>◇야외활동 증가로 서서히 증가하는 피부암<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9년 11만명에서 2013년 16만명으로 45% 증가했다.<br/><br/>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육종, 파젯병, 균상식육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하얗고 얇은 피부는 상처가 빨리 낫고 흉터가 잘 생기지 않지만, 피부암에 잘 걸린다. 그래서 피부암은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행한다.<br/><br/>피부암은 오랜 자외선 노출, 만성적 피부 자극이나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축적량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아져 피부암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br/><br/>◇생명을 위협하는 피부암도 있어<br/><br/>피부암은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눈다. 흑생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다른 암처럼 전이가 잘 되고, 항암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반면 비흑색종은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등을 말한다.<br/><br/>조기에 발견하면 조직검사 및 레이저치료가 가능하지만, 피부 병변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잘되지 않아 늦게 발견하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 구리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보조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br/><br/>◇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피부암 초기증상<br/><br/>피부암은 통증이나 가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백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만 생각해 국내에서는 인식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br/><br/>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점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커지면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피부 속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을 경우나 이유 없이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날 때, 상처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을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br/><br/>점이 비교적 크고(6mm이상),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규칙하며, 색이 얼룩덜룩하면 흑색종을 의심해야 한다. 또 얼굴이나 노출부위에 가려움증이 없이, 빨갛거나 갈색으로 진물이 나는 상처가 생기고, 일반적인 연고를 발라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흑색종성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br/><br/>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성형외과) 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환자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치부하고 내버려두다가 피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기능 보존하고 흉터 최소화 위해 재건 수술 중요<br/><br/>피부암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절제해 재발을 방지하고, 수술 후 눈·코·입과 같은 안면 구조물의 뒤틀림을 최소화하면서 흉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0.5~1cm, 편평세포암은 1~3cm, 악성흑색종은 2~3cm 이상의 정상조직을 함께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넓은 면적의 피부를 절제하면 피부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흉터가 남으면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우울증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 주위 조직의 변형 및 흉터를 최소화해 수술하는 것은 미적 기준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의 협진을 통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은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전신 상태 및 피부암의 진행 정도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해 내원에서부터 치료 후 퇴원에까지 one-stop으로 진행한다.<br/><br/>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부암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노화로 늘어진 피부를 이용해 덮어주는 재건방법으로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하고 피부가 당겨져 젊어 보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br/><br/>수술 후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6개월 후면 흉터가 피부주름에 감춰져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수술 후에는 테이핑 및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절개 흉터에 대한 전문적인 흉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3개월 주기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부암 재발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일주일 이상 낫지 않는 피부병변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자외선 차단을 위한 패션 tip<br/><br/>옷차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의 소품으로 일광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br/><br/>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은 계절에는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데, 몸에 딱 맞을 경우 햇빛이 옷감 사이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옷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br/><br/>자외선 차단 효과는 옷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흰 티셔츠는 SPF 5∼9 정도의 효과가 낮지만 짙은 색 청바지의 경우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높다.<br/><br/>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모자의 자외선 보호 효과는 매우 낮으며 등과 목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다.<br/><br/>선글라스를 구입 시 자외선 차단 표면처리, 눈부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표면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 사용 목적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이 나쁜 렌즈는 안과 질환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3.txt

제목: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규제 완화  
날짜: 20140611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1100000073  
본문: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하게 된다.<br/><br/>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br/><br/>말기 암환자 완화의료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치료를 말한다.<br/><br/>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br/><br/>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 고시는 ‘초안 작성 → 부내 협의 → 체계?자구심사 → 부처안 확정(장관 보고) → 규제 심사 → 행정 예고(통상 20일 이상) → 발령(장관 결재)’ →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반면, 공고는 ‘부서장 결재 → 관보 게재’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및 대국민 정보 전달 가능하다.<br/><br/>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돼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 가능해지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돼 이를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br/><br/>또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했다.<br/><br/>특히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 유도했다.<br/><br/>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4.txt

제목: 강원도 출산장려정책 중단 위기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1091651001  
본문: 춘천·원주·인제·양구·평창 등 강원도 5개 시·군이 시행 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10일 도내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각 시·군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만들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 2만∼3만원씩 5년 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6∼18년간 암 등 주요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들 시·군에서는 6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보험계약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했지만 최근 불가 회신을 받았다. 이백섭 춘천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담당은 “<span class='quot0'>보험 가입과 함께 전출자의 보험 중지를 위해서는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개정되는 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이어 “안전행정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 요청마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5.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MD앤더슨암센터와 ‘한의학 암치료 효과’ 성과 제시  
날짜: 2014061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100000067  
본문: SCI(E)급 저널에 발표, 국제암중개학회에서도 초청 강연 펼쳐<br/><br/>국내 의료진이 미국 엠디앤더슨암센터 연구진과 수행한 임상연구를 통해 암 발생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물질(NF-kB)을 억제시키는 한약제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br/><br/>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최근 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사진)팀이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텍사스의대 엠디앤더슨암센터 바랏 B. 아가왈(Bharat B. Aggarwal) 교수팀과 공동으로 한의학 암 치료와 암 예방 효과에 대한 기초,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br/><br/>이번 연구 성과는 통합종양학 분야의 유명 저널(Integrative Cancer Therapies (Impact factor 2.354, SCIE)에 게재됐다. 또한 엠디앤더슨암센터가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국제암중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al Cancer Research)에 초청돼 구두 발표를 실시했다.<br/><br/>◇한약재의 암 발생, 전이 억제 효과 입증…한의학적 암 치료, 새로운 견해 제시<br/><br/>연구팀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 우리 몸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NF-kB)이 지속적으로 항진되어 만성염증과 함께 암의 발생과 암의 전이를 촉진시킨다.<br/><br/>이와 관련 바랏 아가왈 교수팀이 확인한 결과 NF-kB를 억제시키는 한약재들은 약 30종(뇌공등, 와송, 건칠, 필발, 상황, 오수유, 정향, 유향, 용규 등)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암 치료에 많이 사용돼 왔고, 현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해암탕(解癌湯)의 근간이다.<br/><br/>이러한 한약재들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다약제 내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치료 효과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한약재를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와 병행했을 경우 부작용은 줄이면서 생존기간은 연장시키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성통증, 암성피로, 식욕부진, 전신쇠약과 같이 암환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은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들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들도 같이 발표됐다</span>”고 말했다.<br/><br/>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체내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억제와 함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균형 있게 유지돼야만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상승된다는 ‘한의학적 암 치료원칙’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br/><br/>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한의학의 독창적인 암 치료개념을 널리 알리고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적 암 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전통적으로 암 치료에 사용돼 왔던 한약재들이 과학적으로도 실제 암을 억제하고 암환자의 생존을 늘린다는 것을 증명한 매우 가치 있는 연구</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6.txt

제목: 렌바티닙, 갑상선암 생존기간 위약대비 6배 늘려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100000059  
본문: 렌바티닙(Lenvatinib)이 난치성으로 알려진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RR-DTC)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시킨다는 결과가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됐다.<br/><br/>SELECT 연구에 따르면, 렌바티닙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18.3개월로 위약군인 3.6개월에 비해 6배 가량 연장시켰다(P<0.0001)<br/><br/>2차 평가변수로 전체종양반응률(ORR)과 전체생존기간(OS)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하였는데, 완전 반응(CR)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렌바티닙 투여군에서 1.5%(4명)인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br/><br/>부분 반응(PR)은 렌바티닙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63.2%(165명), 1.5%(2명)이었다. 렌바티닙 투여 후 반응을 보이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개월이었다. 전체 생존기간(OS)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br/><br/>렌바티닙에서 많이 발생한 부작용으로서는 고혈압(67.8%), 설사(59.4%), 식욕 감퇴(50.2%), 체중 감소(46.4%), 메스꺼움(41.0%) 등으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고혈압(41.8%), 단백뇨(10.0%), 체중 감소(9.6%), 설사(8.0%), 식욕 감퇴(5.4%) 등이 나타났다.<br/><br/>이번 연구의 주 저자이자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책임자인 마틴 슐럼버거(Martin Schlumberger) 교수는 "렌바티닙은 치료법이 제한적인 RR-DTC 같은 공격적인 암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br/><br/>한편 분화 갑상선암은 모든 갑상선 암종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암종이다. 이 중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 갑상선암은 수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법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매우 한정돼 있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7.txt

제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2일, ‘갑상선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61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100000097  
본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김광문)은 갑상선암 인식 주간을 맞아 오는 12일(목) 오후 2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8회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이번 강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주관하고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가 주최한다. 강의는 매년 늘어가는 갑상선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 갑상선암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br/>강좌에서는 국민의 암발생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진다. 갑상선암 예방부터 진단, 수술, 치료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부터 갑상선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br/>강의는 1부 ‘갑상선암의 진단 및 수술’을 주제로 ▲갑성선의 기능 및 갑상선의 질병(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박경혜 교수) ▲갑상선암의 종류 및 진단(명지병원 외과 김완성 교수) ▲갑상선암의 수술(명지병원 외과 염차경 교수) ▲조기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일반병원 외과 임치영 교수)가 발표된다.<br/>이어 ‘갑상선암의 수술 후 치료 및 관리’ 주제의 2부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치료(일산병원 핵의학과 김선정 교수) ▲갑상선암의 방사선치료(일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정은지 교수) ▲갑상선암의 수술 후 합병증 및 관리(동국의대 외과 곽범석 교수) ▲갑상선암의 치료 후 관리 및 추적검사(인제의대 외과 김재일 교수)가 발표될 예정이다.<br/>건강강좌를 주관한 일산병원 외과 임치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완치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평소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발병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검진의 중요성 인식으로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 고 말했다.<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8.txt

제목: 호스피스, 왜 병원에서만 하려하나  
날짜: 2014061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100000001  
본문: [인터뷰]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br/><br/>“완화의료와 호스피스는 다르다. 정부가 호스피스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br/><br/>권용진 서울시 북부병원장은 “정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해 시범사업 등 열심히 했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것 같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br/><br/>그는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을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돈과 암, 고통을 연계시켜 서비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책정했다. 왜 죽음이 암질환 만의 문제인가”라며 “암환자의 임종이 다른 질환과 달리 힘들게 임종을 이르기 때문에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의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특히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호스피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이다. 고통속에 임종하는 암환자 때문에 호스피스가 생겨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에 혼란이 생긴 것인데 완화의료는 수가가 책정되지만 호스피스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가책정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밝혔다.<br/><br/>이어 “병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호스피스는 노환으로 사망하는 사람과 암환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수가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완화의료 수가 일부에 호스피스 관련 서비스 수가를 포함시켜 수가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호스피스가 의료서비스인가라는 반문에 부딪친다”라며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도 필요하고 호스피스도 필요한데 행위로 엮어 줄 수 있는 것이 약과 진료밖에 없어 요양병원처럼 일당정액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br/><br/>또 “하루에 많은 환자들이 죽고, 다시 입원하기 때문에 의료진에 너무 큰 로딩이 있다.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계속 봐야하는데 환자들의 상태는 각각이다 보니 계속 새로운 환자를 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없어 업무강도가 너무 쎄다”라며 “호스피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의료진의 심리상담도 해야 하는데 죽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아직 정서적으로 수용이 안돼 정신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며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토로했다.<br/><br/>특히 현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완화의료에서 호스피스는 쉽지 않다. 현재의 제도는 죽기 6개월전에 시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임종시기를 아나. 통계일 뿐인데 북부병원의 경우 2012년 병원에 환자가 와서 죽기까지 21일 정도 된다. 죽기 직전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오는 것”이라며 “항암치료를 죽기 직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 한달 안에 임종을 맞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br/><br/>권 병원장은 “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병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목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인데 아파서 오는 것이고, 끝까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꼭 병원이 아니어도 되고, 다른 형태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br/><br/>이어 “정부가 준비하는 호스피스는 없는 것 같다. 물론 큰 원칙은 지역중심이라는 것인데 우선은 암환자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죽음을 준비하는 노인이나 다른 질환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즉 암환자에 대한 정책 준비는 맞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호스피스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나는 사전의향서쓰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에 대한 문화운동’을 이제는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49.txt

제목: 4·5인실 입원료 9월부터 건보 적용… 1인실 입원 환자는 더 큰 부담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10091634001  
본문: 9월부터 병원 4·5인실 입원비가 1만∼2만3000원 정도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1인실 기본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폐지돼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일부 환자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는 입원비의 20∼30%(암·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만 내면 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4인실 2만3450원·5인실 1만2700원, 종합병원은 4인실 1만2430원·5인실 1만100원으로 하루 입원료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①병원이 정한 병실료(4만∼11만원) ②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4인실 2만8000원·5인실 3만8000원)의 20%를 합친 금액을 입원비로 내야 한다. 4인실 하루 입원료로 적게는 약 4만8000원, 많게는 11만8000원씩 나온다. 정부는 대신 1인실 기본입원료(5만1000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원비가 싸지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만 몰릴까 우려해서다. 1인실 입원료는 더 비싸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입원비 부담이 더 커지는 환자가 생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5일간 입원한 김모(48·여)씨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1인실과 특실밖에 없다’는 병원 설명에 ‘선택의 여지없이’ 1인실에 이틀간 입원해야 했다. 1인실 하루 병실료는 40만원(상급병실료 39만원+기본입원료 본인부담금 1만200원)이었다. 하루 9800원인 6인실에 사흘 더 입원하면서 5일 동안 83만원을 입원비로 냈다. 9월 이후 이 병원에 김씨처럼 1인실 이틀, 6인실 사흘 입원하면 입원비는 91만원으로 오히려 오른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span class='quot0'>상위 10개 병원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담이 더 커지는 환자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대형병원에서 일부 1인실은 기본입원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0.txt

제목: 고대안암병원 김선한 교수팀 대장암 2~3기 수술 후 5년 무병 생존율 ‘세계 최고’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16165310  
본문: 고려대안암병원은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팀의 대장암 2기, 3기 환자들의 수술 후 5년 무병 생존율이 각각 95.2%와 80.9%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br/><br/> 김선한 교수팀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3년간 고려대안암병원에서 대장암 2기 및 3기 진단을 받고 복강경 하 암 절제수술을 받은 168명을 평균 57.3개월 동안 추적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br/><br/> 이는 이 같은 수술 후 생존율은 지금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된 평균치보다도 10% 포인트 가량 높은 기록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본격 진행단계로 접어든 3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5년간 무병 생존율이 80% 이상에 이르는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진다.<br/><br/> 의학계는 암 수술 후 5년 동안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암(2차암)에도 걸리지 않고 무병 생존하는 것을 ‘의학적 완치’로 평가하고 있다.<br/><br/> 이로써 김선한 교수팀은 대장암 수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안정적으로 굳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br/><br/> 연구결과는 유럽대장암학회지, ‘테크니크스 인 콜로프록톨로지’(Techniques in Coloproct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1.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서울백병원 10일, 전립선비대증 강좌 外  
날짜: 20140609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008  
본문: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10일(화) 오후 2시부터 충무아트홀(중구 신당동) 1층 컨벤션센터에서 ‘말 못할 고민, 전립선비대증과 과민성방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서울백병원 비뇨기과 여정균 교수(사진)가 소변보기 불편한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원인을 알아보고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인 치료법과 함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소변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기비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상담도 이뤄진다.(문의: 02-2270-0534)<br/>◎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갑상선 질환에 관심 있는 환우 및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제8회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 무료 공개강좌를 마련했다. 강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갑상선질환 다학제팀 의료진들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내분비내과 석한나 교수의 ‘갑상선 기능 이상과 치료’ ▲외과 김정수 교수의 ‘갑상선 암의 조기검진’ ▲외과 김용석 교수의 ‘갑상선 암의 수술치료 및 수술 후 관리’ ▲핵의학과 나세정 교수의 ‘갑상선 암의 동위원소 치료’ ▲영양팀 정성희 임상영양사의 ‘갑상선 암에 좋은 식이요법’ 순으로 진행된다.(문의: 1661-7500)<br/>◎중앙대학교병원이 오는 11일(수)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결석과 전립선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작은 입자가 신장 내부나 요관에 형성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옆구리나 아랫배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인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번 건강강좌는 이러한 질환들의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결석 질환(비뇨기과 문영태 교수), 전립선 질환(비뇨기과 김태형 교수)으로 구분해 각 질환별 대표적인 증상과 함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법은 물론 질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문의: 02-6299-2219)<br/>◎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와 아주대병원 갑상선센터는 오는 13일(금) 오후 2시부터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를 주제로 갑상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이 갑상선암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 갑상선암의 원인과 진단, 치료 그리고 수술 후 관리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의는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특징과 현황(아주대 의대 외과 이정훈 교수)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진단: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아주대 의대 영상의학과 하은주 교수)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치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한림대 의대 외과 김이수 교수) ▲갑상선암의 병기 및 예후(가톨릭의대 외과 서영진 교수)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및 호르몬 치료(아주대 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갑상선암 수술 후 자가관리(박희붕외과 이강영 원장) 주제로 진행된다. 강좌는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2.txt

제목: 파나진, 유전자 진단제품 3종 건강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609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051  
본문: 유전자 진단제품 전문업체인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제품 3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br/><br/>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9일 고시했다.<br/><br/>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에 따라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한 효과를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 방지와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준다.<br/><br/>이에 파나진은 자사의 핵심기술인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이 적용된 PNAClampTM Mutation Detection Kit 제품군 중 EGFR(폐암) 유전자검사, KRAS(대장암) 유전자검사 2종에 대해 건강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시장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br/><br/>파나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EGFR,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등 총 3종이 건강요양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들은 줄어든 비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중국(CFDA) 및 대만(TFDA)에도 인허가 승인을 진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3.txt

제목: 카엘젬백스, GV1001의 바이오마커 전세계 PCT 특허 출원  
날짜: 20140609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077  
본문: 카엘젬백스는 지난 5일 암치료에 있어 GV1001의 바이오마커 입증의 한 결과로 전세계 PCT 및 대만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CT 출원은 바이오마커를 규명해 지난해 6월에 유럽출원을 완료 한 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이다.<br/><br/>이번 특허의 주된 내용은 영국에서 진행된 글로벌 췌장암 임상 3상 텔로백 환자 분석결과를 통해 규명된 GV1001의 바이오마커 이오탁신이 췌장암환자의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임상종양학회인 ASCO 2014 에서 텔로백 임상 총책임자이자 췌장암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 국립암센터 리버풀대학병원 존 네옵톨레모스 교수에 의해 발표 된 바 있다.<br/><br/>이오탁신의 역할은 우리 몸안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 유발된 자리로 백혈구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이다.<br/><br/>카엘젬백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출원으로 인해 카엘젬백스가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역량을 갖춰을 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업계의 선두주자로써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 도약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span>”라고 말했다.<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4.txt

제목: 9월부터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된다  
날짜: 20140609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059  
본문: 복지부,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br/><br/>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입원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10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br/><br/>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br/><br/>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는데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4인실: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 4만2000원~4만4000원)했었다.<br/><br/>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이며,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은 4000~8000원이고 5인실은 3000~6000원이다.<br/><br/>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br/><br/>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br/><br/>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5.txt

제목: 고대병원 김선한 교수, 대장암 수술 후 5년 무병 생존율 10% 높여  
날짜: 201406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9100000124  
본문: 고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의 대장암 수술 후 5년 무병 생존율이 기존 학술보고된 평균치보다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고대병원 김선한 교수가 복강경수술한 대장암 환자의 5년 무병 생존율은 2기 환자에 대해 95.2%, 3기 환자에 대해 80.9%의 생존율을 보였다. 특히 3기 환자에서 80%를 넘는 5년 무병 생존률은 획기적으로 생존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수술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무병 생존하는 것을 ‘의학적 완치’의 기준으로 하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br/><br/>김선한 교수팀은 지난 2월 Eurasian Colorectal Technologies Association(ECTA) 공식 SCI 색인잡지인 Techniques in Coloproctology에 ‘Complete mesocolic excision with D3 lymph node dissection in laparoscopic colectomy for stage II and III colon cancer: long-term oncologic outcomes in 168 patients(2기 및 3기 대장암에 대한 복강경 결장간막 전(全)절제술과 D3 림프절 절제술: 168명의 환자들에 대한 장기 종양학적 결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결장간막 전(全)절제술(complete mesocolic excision·CME)이 우수한 치료성적을 나타낸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했다.<br/><br/>이 논문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3년간 고대병원에서 대장암 2기와 3기 환자에서 복강경 CME수술을 실시한 168명의 환자를 평균 57.3개월 장기 추적 조사하여 종양의 특성, 합병증 및 생존률을 분석한 연구다.<br/><br/>CME수술이란 대장암을 둘러싸고 있는 결장간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암을 절제하는 수술 기법으로 개복수술에서 개발되어 대장암 치료성적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었으나 복강경수술에서의 적용은 보고가 많지 않았다. 더욱이 168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추적결과를 보고한 것이 이 논문의 우수성이며 향후 CME기술과 D3 림프절 절제술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대장암 정복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br/><br/>김선한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증가율이 높은 암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암이다. 이번 발표는 복강경 CME기술과 D3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대장암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br/><br/>한편 김선한 교수는 직장암 로봇수술의 권위자로서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로봇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외과 스텝과 전공의들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다.<br/><br/>또한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에 직장암 로봇수술 라이브서저리(Live Surgery·수술생중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이사장 및 대한외과로봇수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br/><br/>올해 5월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 중 하나이며 노벨생리의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에 초청되어 직장암 로봇수술에 대한 강연 및 시연을 선보인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6.txt

제목: 조무성 대표 “건강하려면 바보처럼 살라”  
날짜: 2014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7115254001  
본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14:1) 바보란 무엇인가? 바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일반적으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갖추어져 있는 사람과 대조된다.한국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한가모)과 암퇴치운동본부 21세기 ‘바보모임’(바로보기 모임)을 15년째 이끌고 있는 조무성(63·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대표는 자신을 ‘바보’라고 소개했다. 그는 1993년 위암 선고를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이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고통을 자양분 삼아 현재까지 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펼쳐오고 있다.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6월 5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로 국민일보사에서 그를 만났다. 조 대표는 한 해 7만명 이상이 암으로 죽고 20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해 100만명이 암을 앓고 있으며, 환자 가족의 수까지 더한다면 최고 300만명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난한 암 환자는 치료할 길이 막막하며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과 자녀교육 등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암과 관련돼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사회나 교회 모두 이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2000년 교회운동의 일환으로 한가모를 설립해 기도모임을 해오고 있다. 암 발병 원인은 마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조 대표는 우리나라에 암 환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외에 ‘사랑’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미움과 분노, 무관심과 과도한 경쟁’ 등으로 영육이 피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 대표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잠 17:22)는 말씀처럼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예방의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랑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삶 속에서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보처럼 사는 게 좋다고 했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바보는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보는 사람(바보)이 되라고 말씀하신다</span>”고 말했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바보들이야말로 교회 및 가정과 국가를 든든히 세워나갈 주춧돌</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바보는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섬기는 사람</span>”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5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만나교회에서 열린 ‘암 환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주제 강연을 통해 “<span class='quot1'>모든 국민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분당우리교회와 지구촌교회, 만나교회, 할렐루야교회가 펴온 이웃사랑 사역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성남의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큰 교회들이 암 환자 쉼터를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 성남시에 교회주도형 암 환자 쉼터의 모델을 만들어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나아가 성경적 건강도시인 샬롬시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욕심을 버리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바로 보는 사람이 21세기를 사는 진정한 바보</span>”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에 물었다. 당신은 바보인가?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7.txt

제목: [김양규 박사의 성서한방보감] 적근과 백근  
날짜: 2014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7115245002  
본문: 인체 세포에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당계(解糖界)’와 산소가 있어야 되는 ‘미토콘드리아계’가 공존한다. 에너지 생산 방식이나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 한 세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계는 산소 없이 혐기성 당질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순한 과정이기에 작동이 아주 빠르다. 따라서 위급상황에서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미토콘드리아계는 산소뿐 아니라 당질, 지질, 단백질, 햇빛까지 복합적인 재료를 쓰는 호기성 세포여서 에너지 생성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지만 효율이 높다. 해당계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순발력은 탁월하다. 그리고 분열증식이 왕성해 피부, 점막, 정자, 근육 중에서도 순발력이 요구되는 백근(속근·速筋)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계는 효율이 높아 지구력이 탁월하며 분열증식 대신 성장, 성숙하는 특징이 있다. 뇌신경, 심장, 난자, 근육 중에도 지구력의 적근(지근·赤筋)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분열증식이 왕성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100개도 안된다. 평균 세포에 분포하는 5000개에 비해 아주 낮다. 암세포가 저체온, 저산소에서 잘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다. 정자와 난자도 그 점에서 대조적이다. 정자는 분열증식을 해야 하고, 난자는 성숙성장을 해야 한다.때문에 정자는 해당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난자는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해당계는 산소가 필요 없기에 남자의 고환은 차게 하는 것이 좋고, 미토콘드리아계는 산소가 있어야 하기에 여성은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에너지를 쓰는 모드가 달라진다. 사춘기를 지나 성장이 멎을 즈음부터 차츰 순발력의 해당계 우위에서 지구력의 미토콘드리아계 우위로 넘어간다. 중년이 되면 두 시스템이 거의 균형잡힌 생활을 하다 고령이 될수록 지구력 우위로 넘어간다. 중년을 넘겨서도 계속 순발력 위주의 해당계 우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생활의 연속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산소, 저체온 상태로 된다. 미토콘드리아계 활성이 떨어지고 호기성 세포는 적응을 위해 혐기성, 해당계로 전환, 분열증식을 시작한다. 이게 암이다. 암뿐만이 아니다. 모든 생활습관병도 마찬가지다. 어른이 되어도 지구력 대신 순발력으로 달리다 보면 쓰러진다. 달리기와 비교해보자. 단거리 선수는 숨을 안 쉬고 순발력만으로 달린다. 한계가 400미터다. 올림픽 기록이 50초가 채 안된다. 사람이 숨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게 고작 1분이다. 순발력만으로 달려야 하니 단거리 선수는 속근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게 해당계의 백근이다. 단거리 선수가 역도선수처럼 번들거리는 근육질인 것은 백근이 발달한 때문이다. 그에 비해 장거리 선수는 나약하게 보인다. 말라 보인다. 지구력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계의 지근(遲筋)이 발달한다. 지근은 색깔이 붉어서 적근이라고도 부르며, 신체 깊숙이 있어서 내근이라고도 한다. 유산소의 지구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에 비해 급격한 피로는 한결 덜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해당계의 에너지 분출이 많아 순발력이 강하므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중년 이후 점차 활동을 줄이고 기도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중년 이후에는 한 템포 늦추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 전면에 나서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해당계의 활동이 활발한 젊은 분들에게 맡기고 한 템포 물러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처음엔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 자리를 물려줄 후계자를 양성해놓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생체 사이클에 맞게 잘 조절하는 것이 성전 된 우리 몸을 잘 건사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8.txt

제목: [예표와 성취의 땅, 이스라엘] (4)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날짜: 2014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6115154001  
본문: 어려서부터 서른 살까지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온 예수는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회당의 두루마리를 읽고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다림의 달인이었다. 그러나 서른 살이 되어 나사렛을 떠나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두드림의 지혜’라는 것이었다. “<span class='quot0'>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span>”(마 7:8) 서른 살이 되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는 ‘두드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드림에 하늘을 열고 응답하셨다. “<span class='quot0'>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span>”(마 3:16∼17)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 즉 유사하면서도 선택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명제를 꺼냈을 때에도 그는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두드릴 것을 이미 결심하고 그에게 단언했던 것이다. “<span class='quot0'>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span>”(요 1:51) 빌립과 나다나엘을 먼저 보내 놓고 유대 광야로 들어간 것은 그 두 가지 명제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을 구하는 ‘두드림’이었다. 그 광야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미혹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수는 다시 아버지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는지에 관해 분명한 응답을 구하려고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가나로 향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초청을 받은 혼인 잔치에 빌립과 함께 참석했다. 그때 이 잔칫집에 와서 주방 일을 돕고 있던 모친 마리아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다. 모처럼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던진 모친의 말은 좀 뜻밖이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31년 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 준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span class='quot0'>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span>”(눅 1:31∼33)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둔 채 서른 살이 되도록 묵묵히 목수 일만 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span class='quot0'>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span>” 그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최대의 존칭 ‘My Lady’와 같은 의미였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다. “<span class='quot0'>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span>”(요 2:4) 아직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없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처녀로서 잉태하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한 성품을 지녔고, 그만큼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신중한 대답을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말했다. “<span class='quot0'>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span>”(요 2:5) 예수는 눈을 크게 뜨며 모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어휘 때문이었다. 그는 요단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마귀와의 전쟁을 ‘말씀’으로 이긴 후 계속해서 줄곧 ‘말씀’에 관해 생각하며 자신의 장래 일을 지시하실 아버지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보였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요 2:7) 선지자들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었다. “<span class='quot0'>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span>”(암 8:11)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의 물을 길어다가 성전 뜰에 붓는 행사도 있었다. “<span class='quot0'>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span>”(사 12:3) 예수께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정결의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이었다. 아버지의 응답을 기대한 ‘두드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는 본래 생명의 상징이었다. “<span class='quot0'>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span>”(사 55:1) 또 포도주는 인간의 기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span class='quot0'>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span>”(전 1:19)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선물도 포도원이었다. “<span class='quot0'>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span>”(사 5:1) 그러나 생명과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는 인간이 절제를 잃어가면서 차츰 실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변해갔다. 노아는 그의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다가 다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의 자손들은 결국 포도주에 취하여 쾌락에 빠지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다. “<span class='quot0'>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span>”(잠 20:1) 뿐만 아니라 불의와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span class='quot0'>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span>”(잠 31:5)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상징인 포도주는 피가 되었다. “<span class='quot0'>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span>”(사 49:26) 그러므로 물 즉 ‘말씀’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그 본래의 의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아버지의 응답이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는 모친 마리아와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형제들과 함께(요 2:12) 가버나움 등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다. “<span class='quot0'>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span>”(눅 4:14∼15) 글=김성일 소설가, 사진 제공=이원희 목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59.txt

제목: 자외선과다노출 ‘흑색종’ 발병위험 높아져 주의  
날짜: 2014060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5100000005  
본문: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피부암 발병위험이 많아진다. 특히 자외선은 피부건강을 위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피부미용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피부암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높다.<br/><br/>피부암 중에서 피부종양의 일종인 흑색종(Melanoma)은 주로 기저층에 산재한 멜라닌 세포에 발생하는 암이다. 보통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암 중에서 악성도가 가장 높다. 흑색종은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어 검푸른 반점이나 검은 점으로 보여 식별하기가 어렵고,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발견되더라도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 폐, 간, 뼈 등의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부의 악성 흑색종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7년 1894명에서 2011년 2576명으로 5년간 약 682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흑색종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는 질병이다.<br/><br/>통합면역암치료를 시행하는 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흑색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외출하기 전에 태양광선을 차단할 양산이나,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고 태양광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흑색종이 발병한 경우는 면역암치료를 통해 환자 스스로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에 대한 치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0.txt

제목: “암 투병 중인 젊은 목회자를 도와주세요”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510016164730  
본문: “<span class='quot0'>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평생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훈련시키나 봅니다.</span>”<br/><br/> 암 투병 중인 젊은 목회자가 치유를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br/><br/>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 강촌광림교회에서 10년째 목회하고 있는 장동호(40) 목사는 지난 3월 15일 갑작스런 고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는 현재 암 치료를 위해 서울대학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br/><br/> 그는 병세가 호전돼 지난달 13일 잠시 퇴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제일 먼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는 교회에서 기도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다시 입원했다. 병원 진단 결과 항암 환자에게 생기는 폐렴으로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장 목사는 병세가 회복되는 데로 친동생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을 예정이다. <br/><br/> 부인 전선옥(35)씨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동생과 골수 이식에 필요한 조건이 맞아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 장 목사가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인과 지인 등으로부터 헌혈증이 답지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아진 헌혈증이 117장에 이르지만 그동안 진행한 수혈에 모두 사용한데다 앞으로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더 필요해 헌혈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br/><br/> 부인 전씨는 “<span class='quot1'>남편은 올해가 마흔인데, ‘마흔이 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싶다’고 기도해 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열정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은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 덕분”이라면서 “하나님의 치유 계획 속에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 동부연회는 장 목사의 기도와 치유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동부연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밝은 얼굴로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애쓰는 젊은 목회자를 꼭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기도와 후원 그리고 수혈에 필요한 헌혈증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span>”고 밝혔다. 후원 문의는 동부연회 본부(033-734-9451)로 하면 된다.<br/><br/>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1.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개원 25주년 특집 건강강좌, 한국인의 3대 질환 집중 해부  
날짜: 2014060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5100000014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오는 19일(목)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인의 3대 질환 집중 대해부’를 주제로 특집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이번 건강강좌에서는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을 주제로 세계적인 심장중재 시술의 대가 박승정 심장병원장, 대장암 수술의 권위자 유창식 암센터 소장, 뇌졸중 치료의 대가 김종성 뇌졸중센터 소장 등 10명의 서울아산병원 명의들과 함께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br/><br/>1부 심장질환에서는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장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2부 뇌혈관질환에서는 뇌경색, 뇌출혈 및 치매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배울 수 있다. 또한 3부 암의 최신치료와 미래 맞춤치료에서는 한국인에서 가장 호발하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최신 치료법과 미래 맞춤형 치료에 대해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2.txt

제목: 6월 5일 암환자와 가족 위한 특강·기도회  
날짜: 2014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4091342002  
본문: 한국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한가모)과 암퇴치운동본부(대표 조무성 교수)는 5일 오후 3시 성남 분당구 만나교회에서 암환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와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기도회는 김도봉 샘병원 전인치유교육원장의 사회로 시작해 조무성 교수가 '암을 이기는 전인건강생활과 쉼터'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손운산(차병원 원목) 목사가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도서 1:2∼11)를 제목으로 설교한다. 유명운(지구촌교회 호스피스 담당) 목사의 인도로 계속되는 기도회에서는 김혜진 지구촌 호스피스 팀장이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 이어 김문규 차병원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담당,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 백은성 글로벌케어 사무총장, 박종승 평안호스피스회장, 안선송 하늘다리 호스피스봉사자가 각각 암환자와 관련된 기도제목으로 기도에 나선다. 조 교수는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은 현재 100만여 명이며 딸린 가족을 합치면 250만 명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한가모는 올해까지 15년 째 기도운동을 통해 암환우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3.txt

제목: 폐암 항암치료 부작용 개선 등 ‘한의학 R&D'에 41억 지원  
날짜: 201406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024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한방을 이용한 폐암이나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치료 등 한의학 분야 R&D사업에 총 41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복지부는 2014년도 한의약분야 R&D 사업 신규공모 과제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했다.<br/><br/>이들 과제 중에는 폐암 환자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한약제제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암 환자들의 관심을 끈다.<br/><br/>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법으로 우선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암이 너무 진행되었거나 치료 후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표준치료로도 완치나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고, 항암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표준 치료 이외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편이다.<br/><br/>특히 국내에서 항암 치료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한방병행치료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지금 당장은 한방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한다는 목적의 연구는 물론, 한방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효과가 높아진다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한방 암치료의 효과는 단순한 부작용의 개선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 성과도 차츰 나오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이에 대해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는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연구 결과는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와 같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복지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4.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전이·진행암환자 위한 치유여행  
날짜: 20140603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127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 암센터는 최근 경기도 가평 취옹 예술관에서 ‘전이·진행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여행’ 행사를 실시했다.<br/><br/>이번 여행에는 전이·재발된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암환자와 가족 35명과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김진원, 김세현, 최문기 교수를 비롯해 의료진 9명이 참석했다.<br/><br/>지난 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 다섯 번째인 치유여행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숲을 거닐면서 전이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음악과 춤 테라피, 도예교실 등 가벼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기분전환의 시간을 가졌다.<br/><br/>특히 이번 여행은 환자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암의 완치도 중요하지만 증상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암의 진행을 막는 것도 중요한 치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환자와 가족이 용기를 가져야 다시 도전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br/><br/>한 참가자는 “치유여행을 통해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br/><br/>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전이·재발암 환자와 가족들은 완치되지 못한 결과를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치가 아니면 실패라는 인식은 투병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투병 생활 중에 실패자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전이성 암 환자로 행복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span>”이라고 말했다.<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5.txt

제목: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14827001  
본문: 이명숙(37·가명)씨는 2년 전 둘째 출산 후 가사와 육아 부담 때문에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초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증상을 보여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돼 자궁 적출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계획 중이다. 이씨는 정기검진을 잘 받았다면 암을 조기 발견해 자궁 적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다.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주원인=자궁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체부암)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는 자궁경부암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궁암 하면 자궁경부암을 일컫는다. 최근 성관계 연령이 낮아져 젊은 여성에게도 암 발생이 증가하는데, 원인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지목된다.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며 바이러스의 일부는 무증상으로 감염환자의 대다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된다. 하지만 일부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감염되면 자궁경부의 상피에 퍼져 있다가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경도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3명 중 1명(34.2%)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는 별도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은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관계를 일찍 시작해 성생활 기간이 긴 여성, 성관계 상대가 자주 바뀌는 경우 걸릴 확률이 높다.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질 출혈이나 분비물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정기검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 중요=자궁경부암도 조기에 발견해 수술 받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국가 암 검진사업 덕분에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자궁 적출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항암치료로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상당히 크다. 게다가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결혼은 늦어지면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암 발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검진이다. 기경도 교수는 “<span class='quot1'>검사 결과가 몇 번 정상으로 나오면 정기검진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에 대한 방심과 무관심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최근 자궁경부암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예방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계획 중인 경우도 많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다. 해외 임상연구에 따르면 성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이 접종했을 경우 바이러스와 관련한 자궁경부암 예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에 대해 일본의 이상반응 발표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과 일본의 희귀 이상반응 사례는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과학적 견해를 밝혔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6.txt

제목: 2015년 30주년 맞는 고대안산병원… 최상의 진료시스템,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14826002  
본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사진)이 최근 본관 증축공사를 마치고 환자 중심의 대표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대안산병원은 1단계 증축으로 기존 600병상을 850병상으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쾌적한 병동생활이 가능해졌으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대안산병원은 부족한 병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관 9개층에 3개층을 증축했다. 18개월에 걸친 1단계 증축에 이어, 2단계 증축인 ‘진료지원동 신축’으로 현재 행정부서가 입주한 13층을 병동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 측은 기존 병동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깨끗하고 첨단화된 병실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밝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환자들의 마음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본관 증축을 시작으로 환자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센터화와 외래 재배치를 통해 최상의 진료시스템도 갖췄다. 질환별 전문센터화 및 외래 재배치로 환자중심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동선을 최소화해 한 공간에서 다학제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장기이식센터, 불임센터, 수면장애센터 등과 신설될 암센터, 심장센터 등 질환별 전문센터의 다학제협진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최병민 고대안산병원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센터화의 장점은 체계적으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각 분야 전문가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한다</span>”고 소개했다. 내년이면 개원 30주년이 되는 고대안산병원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1년 지역 최초 암 치료기 래피드 아크를 도입해, 암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여성암 등 다양한 암환자를 치료해 암 치료 중심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암치료 중심병원을 내세워 내·외과 협진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 전문성 높은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암치료 등 환자 맞춤형 진료도 제공한다. 지난 2011년 4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신생아 중환자 집중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센터는 응급의료센터, 내·외과 중환자실과 함께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차상훈 원장은 “<span class='quot1'>정부가 지역센터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만한 능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고대안산병원은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상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자기발전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또한 세계 최고 의료기관들과의 경쟁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과감히 도입하고, 최고의 의료진 영입과 기존 의료진의 해외 유수 의료기관 연수 등 인적자원에도 적극 투자했다. 이와 함께 의료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봉사와 지원 등의 나눔 활동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차상훈 원장은 “<span class='quot1'>2012년 상급종합병원 승격, 2014년 본관 증축 완공에 이어 외래 리모델링, 환자 최우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대안산병원의 노력은 끝나지 않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7.txt

제목: ‘사스’보다 무서운 감염질환… 유일한 해법은 ‘예방접종’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14826001  
본문: 메르스 바이러스·폐렴 등 치사율 높아… 폐렴구균 백신이 최선지난 2012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감염자의 3분의 1이 해당 바이러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중동지역에 분포돼 있어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2003년 유행해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SARS)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치사율이 6배가량 더 높을뿐더러 최근 중동지역 외에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의료 전문가를 급파하는 등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백신도 없어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방문 시 증상이 유사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전후에 아시아 전역의 선수 및 관광객이 몰려올 예정이어서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감염질환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질환 치료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염질환 중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폐렴의 경우 우리나라 환자들에게서 검출되는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 치료보다 예방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내 폐렴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년보다 19.3%나 급증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렴은 발생 후 사망률이 높으며 진단 및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망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계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백신을 통해 폐렴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1위의 사망요인으로 폐렴을 꼽고 있으며 폐렴구균 질환으로부터의 유일한 예방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감염학회는 만성폐질환(천식포함), 만성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자와 암 환자, 백혈병, 림프종, 장기 이식 환자 등의 면역저하자, 6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면역력이 우수한 폐렴구균 백신을 최우선 권고등급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span class='quot1'>당뇨병,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폐렴 등의 감염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국내에도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이 도입되어 성인은 1회, 영유아는 4회 접종으로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8.txt

제목: 스티브잡스 사망원인이었던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심포지엄 서울 개최  
날짜: 20140603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089  
본문: 종양내과, 병리학과 등 신경내분비종양 전문의 50여명 한자리에서 정보 공유<br/><br/>[쿠키 건강]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신경내분비종양 전문의를 대상으로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NETour 2014’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NETour 2014 심포지엄은 캐나다 오데뜨암센터(Odette Cancer Center)의 시므론 씽 박사 (Dr. Simron Singh)를 포함해 총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손진희 성균관의대 교수와 전후근 가톨릭의대 교수, 박영석 성균관의대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성황리에 끝났다.<br/><br/>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NETour 2014에서는 한국 환자사례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신경내분비종양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br/><br/>특히, 김경미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표한 199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2명의 한국인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참석 전문의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김경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간 전이성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중 35%는 원발부위를 알 수 없으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더불어 캐나다 오데뜨암센터 시므론 씽 박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산도스타틴 라르 치료가 신경내분비종양의 증상완화 및 종양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씽 박사는 PROMID 임상연구 결과, 산도스타틴 라르는 종양세포의 진행위험을 66%까지 감소시켜 원발부위가 중간창자이거나 중간창자로 추정되는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발부위가 중간창자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산도스타틴 라르를 중요한 치료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이번 NETour2014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박영석 성균관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서 원발부위는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span>”라며. “<span class='quot1'>이번 NETour 2014에서 원발부위가 중간창자이거나 중간창자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한 약물치료 요법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span>”고 전했다.<br/><br/>심포지엄을 주최한 곽훈희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대표는 “한국노바티스는 그 동안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경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양한 암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내분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내분비계 희귀질환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과 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호흡기계 신경내분비종양 등으로 분류한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설사나 복통, 홍조 등 다른 종류의 질환과 증상이 유사하고 모호해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아 환자들이 진단 및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br/><br/>노바티스는 이런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세계 전문의들과 공유하기 위해 신경내분비종양 전문가그룹을 만들고 세계 각국을 방문해 NETou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br/><br/>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69.txt

제목: “만성골수성백혈병, 투약 잘하면 일반인 생존율과 비슷”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14922001  
본문: 성화정 고려대 안산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10여년 전만 해도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만이 유일한 치료였고 그마저도 성공률은 60%미만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 이후 표적치료제의 개발로 치료 성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성실히 약을 복용한다면 건강한 일반인의 생존율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지요.” 성화정 고려대 안산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현실에 맞는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병의지를 북돋아 주고 싶다고 말한다. 골수성백혈병이란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과정에 이상이 생긴 질환으로 이 때문에 적혈구·백혈구·혈소판의 과다 증식 또는 기능적 이상을 불러온다. 이 같은 골수성백혈병은 크게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나뉘고 그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전체 성인 백혈병의 25%를 차지하며 연간 약 10만 명 중 한두 명꼴로 발생한다. 성화정 교수는 예후가 나쁘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급성백혈병과 달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경구항암제 복용만으로 치료와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성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수명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의 특성상 어느 순간 환자는 약제 복용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조혈모 이식 없이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투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되는 등 재발의 위험이 높다</span>”고 말했다. 그렇다면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염색체 이상에 의해 발병한다고 유전적 원인은 알려졌으나 왜 이러한 염색체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환경적 요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성 교수는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간혹 유전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자녀에게로 유전되지 않는 염색체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밝혀진 환경적 요인이 없지만 흡연이 병의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흔히 주위에서 큰 병원을 가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성 교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국제적인 치료지침에 따라 경구항암제를 복용하므로 병원 규모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없다. 혈액내과 전문의라면 표준 치료지침을 넘어선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집에서 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체력적 손실을 많이 안겨준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주된 치료가 경구용 표적치료제여서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는 암전문 간호사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고 영양사가 식단교육을 한다. 이는 투약순응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질환을 장기간 잘 조절하기 위해 환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안에 대해 물었다. 성 교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 골수검사, 세포유전학적 반응 및 분자유전학 반응 등 치료(약)에 대한 반응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반응평가’는 현재 치료법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골수검사는 다소 불편한 과정이지만 혈액 검사로 진행하는 분자유전학적 검사와 더불어 암 유전자의 양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0.txt

제목: 렌바티닙 방사성 요오드 저항성 갑상선암에 효과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112  
본문: 위약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14.7개월 연장시켜<br/><br/>새로운 항암제 렌바티닙(Lenvatinib)이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Progressive Radioiodine-refractory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RR-DTC)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 50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됐다.<br/><br/>SELECT 연구에 따르면, 렌바티닙 투여군의 PFS는 18.3개월로 위약 투여군 3.6개월 대비 유의하게 연장시켰다(P<0.0001).<br/><br/>2차 종료점으로는 전체종양반응률(ORR)과 전체생존기간(OS)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했다.<br/><br/>그 결과 완전 관해(CR)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렌바티닙 투여군에서 1.5%(4명)인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부분 관해(PR)는 각각 63.2%(165명), 1.5%(2명)이었고, 평균 약물 투여 기간은 13.8개월과 3.9개월이었다.<br/><br/>렌바티닙 투여 후 반응을 보이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개월이었으며, 전체 생존기간(OS)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br/><br/>렌바티닙에서 많이 발생한 부작용으로서는 고혈압(67.8%), 설사(59.4%), 식욕 감퇴(50.2%), 체중 감소(46.4%), 메스꺼움(41.0%) 등이 있었다. 3등급 이상의 부작용(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기준)으로는 고혈압(41.8%), 단백뇨(10.0%), 체중 감소(9.6%), 설사(8.0%), 식욕 감퇴(5.4%) 등이 나타났다.<br/><br/>연구의 주 저자인 마틴 슐럼버거(Martin Schlumberger) 교수(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는 "렌바티닙이 제한적인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과 같은 공격적인 암종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한 점이 고무적이다"며 소감을 밝혔다.<br/><br/>한편 분화 갑상선암은 모든 갑상선 암종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암종이다. 이 중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 갑상선암은 수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법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치료법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다.<br/><br/>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1.txt

제목: 한-영 연구중심병원 국제포럼, 서울에서 열려  
날짜: 20140603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3100000004  
본문: 연구사례 공유, 공동연구분야 발굴 등 협력방안 논의<br/><br/>韓-英 연구중심병원 서울 국제포럼이 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연구중심병원, 영국 연구중심병원(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공동주최로 개최된다.<br/><br/>이번 포럼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먼저 도입해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에 성공한 영국과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중심병원 도입은 후발주자인 한국간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기획됐다.<br/><br/>한국과 영국의 연구중심병원 핵심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여명은 이번 국제 포럼에 참석해 연구중심병원간 정책·정보·인력교류 등 협력방안과 국제공동연구 협력모델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br/><br/>이날 포럼에서는 기조연설로 영국 Peter St. George Hyslop 교수(캠브리지대학)가 ‘영국 연구중심병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모델’을 소개하고, 한국 송시영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는 ‘韓·英 연구중심병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br/><br/>패널토론은 ▲뇌과학분야의 양국 협력방안 ▲암분야의 양국 협력방안 ▲양국 국제협력을 위한 실행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데 영국 Kei Cho 교수(브리스톨대학), Paul M.Matthews 교수(임페리얼대학), 한국 함기백 교수(분당차병원) 등 5명이 연구 사례 중심으로 양국의 치료동향과 연구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br/><br/>또 영국 David Rubinsztein 교수(브리스톨대학) 등 2명은 중개연구 분야 국제협력 전략 및 의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사례 등을 소개해 향후 한-영 연구중심병원간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br/><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양국의 연구중심병원 정책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협력 진전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양국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이 국가 HT(Health Technology)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br/><br/>병원에 축적된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 기술·의약품·기기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4월 10개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에는 연구중심병원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 및 전략적 중점연구를 위한 R&D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현재 과제 공모중)이며, 병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br/>현재 한국은 가천길병원·경북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 기관이, 영국은 캠브리지·임페리얼·UCL·킹스칼리지·맨체스터 등 5개 기관이 연구중심병원(World BEST Research-driven Hospital)으로 지정돼 있다.<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2.txt

제목: 흡연하는 남녀 사망률 높아진다…男 44%, 女 48% ↑  
날짜: 201406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2100000085  
본문: 아시아인 100만명 규모 코호트 추적연구 발표<br/>[쿠키 건강]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담배를 피우는 경우 남성은 44%, 여성은 48%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담배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의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br/>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사진 왼쪽)·강대희(가운데)·박수경(오른쪽) 교수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7개국 21개 코호트 연구에서 선정된 45세 이상 성인 105만명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br/>연구팀 분석에 의하면 아시아인의 남성 흡연율은 65.1%, 여성 흡연율은 7.1%였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1.44배, 여성은 1.48배 사망률이 높았다.<br/>추적 기간 중 총 12만3975명이 사망했는데,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남성은 15.8%, 여성은 3.3%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7개국에서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4년 기준으로 무려 1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7개국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아시아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된다며, 이를 근거로 전체 아시아 인 중 약 2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br/>남성의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자의 11.4%, 암 사망자의 30.5%,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의 19.8%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은 각각 3.7%(심혈관질환 사망), 4.6%(암), 1.7%(호흡기계 질환)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br/>조사에 의하면 흡연과 가장 관련이 높은 질환은 폐암이였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았고, 남성 폐암 환자의 60.5%, 여성 폐암 환자의 16.7%가 흡연과 관련 있었다.<br/>이에 대해 유근영 교수는 “2004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45세 이상 성인 약 2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했다. 흡연은 아시아인에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며 “금연에 관한 조직적인 관리대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따.<br/>이번 연구는 2005년 출범한 100만명 규모의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Asia Cohort Consortium)이 이룬 연구결과다. 아시아코호트컨소시엄의 대규모 국제공동연구는 한국인 다기관 암코호트연구(KMCC)가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2005년에 출범했다. 한국인 다기관 암코호트연구는 유근영 교수 등이 주도하여 1993년에 시작됐다.<br/>이번 연구에는 한국에서 2개의 코호트가 참여했다. 연구주제의 발제와 책임연구는 미국 반더빌트 대학의 웨이 쩽 교수가 주도했다.<br/>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PLoS Med, Impact Factor=15.253) 11권 4호에 지난 4월 22일자로 게재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3.txt

제목: “진료비 60만원에 부대비용 38만원 배보다 배꼽이… ”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2091222002  
본문: 지난해 9월을 떠올리면 ‘지독한 밥 냄새’가 따라온다. 병원 밥차가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남편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환자식을 나르는 영양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자 남편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이 처음 항암치료 받던 날을 이미경(가명·46·여)씨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음식 냄새를 못 견뎌 한다. 이씨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려면 음식 냄새가 덜한 시간대를 골라 병원 식당가를 이용해야 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지만 음식은 늘 1인분이었다. 병원 식당가에서 파는 음식 중 가장 싼 메뉴는 6000원짜리 ‘쇠고기 미역국’이다. 이씨 남편이 주로 먹었던 ‘죽’은 종류에 따라 6500∼1만5000원씩 했다. 아픈 남편이 먹을 수만 있다면 병원 카페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식빵이라도 사야 했기에 이씨는 자신의 밥값을 아꼈다. 남편이 먹지 못해 남긴 다 식은 환자식을 병동 휴게실에서 먹곤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만난 이씨는 “<span class='quot0'>한번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비에 맞먹는 돈을 병원에서 쓰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원이 깔끔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병 잘 고치고 덜 비싼 병원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이씨 남편이 처음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5일 동안 진료비는 60만원 정도 나왔다. 그동안 이씨가 남편의 밥값, 과일 값 등으로 쓴 돈이 20만원이다.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과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날도 있었다. 이씨는 남편이 먹을 과일을 살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에서 파는 비싼 과일바구니까지 사야 했다. 주차비도 든다. 이씨의 집은 병원에서 차로 1시간30분 거리에 있다. 입원환자 보호자는 하루 1만원 주차비를 내야 한다. 이씨 남편이 입원한 닷새 중 입·퇴원일은 무료여서 주차비는 3만원이 나왔다. 남편이 퇴원하던 날 이씨는 병원 지하 의료기기점에서 15만원을 썼다. 남편 가슴에 삽입된 정맥관 소독을 위해 거즈, 밴드, 소독약이 묻어 있는 면봉 등 한달치 치료재를 사는데 그 정도 든다. 치료재 대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싸도 딱 맞는 치료재를 구하려면 병원에 있는 상점에서 사야 했다. 이씨 부부가 5일 동안 쓴 돈은 진료비 60만원에 부대비용과 치료재 비용 38만원을 더한 98만원이었다. 모두 고스란히 병원에 들어간 돈이다. 이씨는 “아껴 썼는데도 이렇다”며 “<span class='quot0'>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이사 간다’ 생각하고 짐을 싸오지 않으면 병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span>”라고 말했다.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4.txt

제목: 에자이 항암제 ‘렌바티닙’,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에 효과 입증  
날짜: 201406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2100000025  
본문: 미국 ASCO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br/><br/>[쿠키 건강] 에자이의 항암제 렌바티닙이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Pprogressive Radioiodine-refractory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RR-DTC)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br/><br/>에자이는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형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3상 임상시험인 SELECT(Study of E7080 LEnvatinib in Differentiated Cancer of the Thyroid)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br/>렌바티닙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 대비 3.6개월에서 18.3개월로, 평균 종양 성장이 없는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적으로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SELECT 임상시험 결과는 6월 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50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에서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br/><br/>사전 정의된 하위집단(Subgroup) 모두에서 렌바티닙 치료가 무진행 생존기간(PFS) 연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평가변수로 전체종양반응률(ORR, Overall Response Rate)과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했는데, 완전 관해 (CR, Complete Response)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렌바티닙 투여군에서 1.5%(4명)인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br/><br/>부분 관해(PR, Partial Response)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렌바티닙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에서 각각 63.2%(165명), 1.5%(2명)이었고, 약물 투여 기간은 렌바티닙 투여군의 경우 평균 13.8개월, 위약 투여군의 경우 평균 3.9개월이었다. 렌바티닙 투여 후 반응을 보이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개월이었으며, 전체 생존기간(OS)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br/><br/>렌바티닙에서 많이 발생한 부작용으로서는 고혈압(67.8%), 설사(59.4%), 식욕 감퇴(50.2%), 체중 감소(46.4%), 메스꺼움(41.0%) 등이 있었다. 3등급 이상의 부작용(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기준)으로는 고혈압(41.8%), 단백뇨(10.0%), 체중 감소(9.6%), 설사(8.0%), 식욕 감퇴(5.4%) 등이 나타났다.<br/><br/>분화 갑상선암은 모든 갑상선 암종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암종이다. 이 중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 갑상선암은 수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법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사성요오드치료 저항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치료법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다.<br/><br/>연구의 주 저자인 마틴 슐럼버거(Martin Schlumberger) 교수(M.D.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Institut Gustave Roussy, University Paris Sud, Paris, France.)는 “렌바티닙이 이번 제 3 상 임상 연구를 통해,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제한적인RR-DTC 같은 공격적인 암종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한 점이 고무적” 이라고 밝혔다.<br/><br/>에자이는 일본과 유럽,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보건 당국에 렌바티닙의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일본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승인 받았다. 또한 에자이는 여러 종류의 암종에 대해서 제 2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5.txt

제목: 병원인지… 쇼핑몰인지…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2114705001  
본문: 커다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면 유명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 작품이 곳곳에 놓여 있다. 작은 문화공간으로 꾸며진 로비를 지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미니 백화점'이 나온다. 1500㎡ 규모의 지하 1층에는 미용실, 마사지숍, 옷가게 등 편의시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일식당, 코스 요리를 내놓는 중식당까지 고급 음식점도 눈에 띈다. 이곳은 대기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이다. 흰 가운의 의료진과 입원복을 입은 환자들이 없었다면 이곳이 어딘지 한눈에 알기 힘들 정도였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연세세브란스·서울대·서울성모병원)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번화가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 지어진 대형 건물,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선 식당가, 곳곳에 설치된 문화공간. 취재팀은 5개 병원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이런 병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쇼핑몰 같은 대형병원…위화감 느끼는 환자와 보호자들=A병원의 다인실(多人室)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의자와 간이침대 하나가 전부다. 약 15㎝ 높이의 간이침대에 누우면 추운 날에는 바닥의 한기가 올라온다. 병원은 그래도 보호자에게 담요 한 장 주지 않는다. 병원에서 돈을 내고 구매하는 서비스는 품질이 좋지만 비싸다. 반면 다인실 이용처럼 ‘돈이 안 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는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다 보니 입원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의 화려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4월 폐암 환자인 남편과 강원도 원주에서 온 연모(64)씨는 담요를 사는 대신 빨랫감으로 내놓은 환자 침대 시트를 이불로 쓰고 있었다. 연씨는 “<span class='quot0'>병원비도 벅찬데 비싼 돈 내야 하는 좋은 시설은 그림의 떡</span>”이라고 말했다. B병원에서 암 환자인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 김모(51?여)씨는 주로 병동 배선실(입원환자 배식을 준비하고 환자 식기를 세척·소독하는 방)에서 식사를 한다. 무균실에 있는 아들 간병 때문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7㎡ 남짓한 배선실에서 컵라면과 인스턴트 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김씨는 아들 걱정, 병원비 걱정에 옹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형병원에서 부대시설 이용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외딴곳에 있다 보니 병원 밖으로 나가봤자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C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안모(48)씨는 “<span class='quot1'>병원을 나서서 저렴한 식당을 찾아 30분 넘게 헤매다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span>”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권모(54)씨는 위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D병원을 찾았다. 검사는 오전, 진료는 오후라 반나절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권씨는 “<span class='quot2'>진료를 기다리느라 식당과 카페에서 쓴 돈이 9만5100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병원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해 돈만 쓰게 된다</span>”고 말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3'>병원에서 쓰게 되는 진료비 외의 비용도 환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게 현실</span>”이라고 지적했다. ◇10년 전과 달라진 병원 풍경, 왜=10여년 전만 해도 병원은 다소 살풍경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4'>과거 병원은 소독약 냄새가 나고 회색 돌바닥에 구내식당이나 매점 정도가 들어선 곳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4'>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정책’을 추진한 2005년 이후 병원 풍경이 급변했다</span>”고 말했다. 원래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는 엄격했다. 2005년 정부가 병원 경영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병원은 본격적으로 쇼핑몰 같은 모습을 갖춰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빅5 병원의 임대료 수익은 93억∼156억원이었다. 이 임대료 수익의 상당 부분이 병원에 입점한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회계감사를 했던 한 회계사는 “<span class='quot5'>병원이 공개하지 않는 한 정확한 수익 규모와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span>”라면서도 “<span class='quot5'>병원을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경우 사실상 병원 부대시설에서 임대료 수익이 대부분 나온다고 추정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병원 입점 업체의 임대료는 다른 곳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고정 수요가 있으니 높은 임대료나 수수료를 감수하고라도 병원에 들어가려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6'>수수료로 매출의 50%를 내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6'>수수료나 임대료가 비싸니 소비자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다</span>”고 귀띔했다. 정부는 다시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7'>대형병원이 점점 더 영리를 추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7'>병원이 수익을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문수정 황인호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6.txt

제목: 말기 암 아버지 살해한 남매 항소심서 감형  
날짜: 201406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1100000086  
본문: [쿠키 사회] 말기 암 투병 중인 50대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려 목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br/>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 딸(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에서 범행을 지켜보며 제지하지 않았던 어머니(56)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br/>딸은 지난해 1월 뇌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간호했다. 당시 57세였던 아버지는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딸은 지난해 9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숨을 거칠게 쉬며 고통스러워하자 남동생에게 부탁해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어머니는 “이왕 할 거면 고통 없이 하라”고 말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br/>1심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pan class='quot0'>경제적 궁핍으로 별다른 의료 처치를 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판단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span>”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7.txt

제목: 선병원,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복지부 장관상  
날짜: 201406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601100000031  
본문: [쿠키 건강] 대전선병원(이사장 선두훈)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MEDICAL KOREA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포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br/><br/>선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글로벌 의료를 위한 ‘국내 인프라 조성’ 부문에서 지방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선병원은 지난해 3000명이 넘는 해외환자 유치뿐만 아니라 베트남, 몽골, 러시아, 인도 등의 의료진에게 척추·관절, 암 수술,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의 분야에 해외 의사연수교육(현재 몽골의사 7명 연수중, 러시아 의사 4명 6월 연수 예정)을 진행했다.<br/><br/>또한 선승훈 의료원장은 10여 차례가 넘는 병원경영 해외 특강은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플랜트 수출 진행으로 이어지는 등 한국의료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br/><br/>선병원은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선치과병원 등 4개병원이 질 높은 해외환자 진료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선병원은 체류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중증 해외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와 암센터, 외래시스템을 병설 배치하고, ‘암 발견에서 치료까지’를 모토로 전문의 간 합동 진료시스템을 가동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br/><br/>이와 함께 선치과병원에서는 하루만에 임플란트 등의 보철 치과치료가 가능한 첨단 디지털 캐드캠(CAD/CAM) 장비를 도입해 해외환자들의 니즈에 맞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선치과병원이 국제적 수준의 환자 진료 및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국제검진센터가 검진센터 부문 세계 최초로 1200여 항목에 우수 평가를 받아 JCI 인증을 획득했다.<br/><br/>이규은 선병원 경영총괄원장은 “<span class='quot0'>선병원이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에서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8.txt

제목: [이 땅의 희망지기-이상룡 이혜련 선교사 부부] 모국어는 가슴의 언어  
날짜: 20140531  
기자: 신상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31100000012  
본문: 가슴으로 쓴 성경이라야 말씀도 살아있어<br/>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서 이들의 존재는 각별하다. 평균 고도 2000m. 고산 마을에 살면서 전 세계 등반가들의 도우미로 알려진 사람들, 셰르파. 인구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은 티베트불교(라마교)의 영향 속에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에겐 한 가지 불편이 있었다. 말은 있었지만 표기할 글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국어 대신 어려운 공용어를 배워야 했다. 그런데 지난달 셰르파에게 기념비적 사건이 일어났다. 고유 문자로 쓰인 책 한 권이 출간된 것이다. 셰르파족(族) 최초의 신약성경이다. ‘동쪽 사람(東人)’이란 뜻의 셰르파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룬 지 600년 만이다.<br/>이 성경을 만든 ‘세종대왕’은 다름 아닌 한국인. 이상룡(60)·이혜련(60) 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셰르파어 신약성경을 봉헌한 이 선교사 부부를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성경번역선교회(GBT) 사무실에서 만났다.<br/>성경 번역, 이래서 필요하다<br/>이 선교사가 보여준 성경은 훌륭했다. 갈색 가죽 표지엔 험준하게 생긴 산과 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위엔 셰르파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국의 대한성서공회가 인쇄를 맡았다. 종이 질은 웬만한 한글 성경보다 우수해 보였다. 한 장 한 장 넘기니 손에 착착 감겼다. 인쇄 상태도 깨끗했고 중간에 들어간 삽화는 인상적이었다. 판화를 연상시켰다.<br/>이 선교사는 “<span class='quot0'>삽화는 미술을 전공한 딸아이가 그렸다</span>”며 “<span class='quot0'>셰르파 문화를 그대로 반영해 현지인들이 맘에 쏙 들어한다</span>”고 말했다.<br/>셰르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남아시아 A국은 언어가 다른 종족만 100여개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소수 종족은 공용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많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공용어 사용이 가능한데 굳이 모국어 성경을 번역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공용어 성경을 만들어 배포하면 다른 100개 종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br/>이 선교사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번엔 제가 질문할게요. 영어성경이 있는데 왜 한글 성경을 읽습니까?”<br/>그는 “셰르파 사람들에겐 공용어 성경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용어에 능통해도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며 “우리는 가슴의 언어(heart language)를 존중하고 그 언어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br/>“한국인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성경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슴에 와 닿을까요. 자기 엄마에게 배운 언어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언어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바로 모국어 성경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br/> 질곡의 번역 역사<br/>이 선교사가 지난 26년간 눈물과 땀을 흘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엄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는 것. 사실 이 선교사는 셰르파어 성경 번역 작업에 처음으로 뛰어든 선교사는 아니었다. 이미 앞서간 선교사들이 있었다. 모두 서양 선교사들이었다. 4가정이나 됐다. 하지만 고난이 있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47년 전인 1967년으로 돌아간다.<br/>첫 번째 팀은 호주 출신의 질스트라 선교사였다. 그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간질에 걸려 귀환해야 했다. 이듬해 도착한 사람은 미국 출신 고든 선교사. 극한 환경 속에서 건강이 악화돼 선교지를 옮겼다. 다시 1년이 지나 도착한 사람은 독일의 세털런드라이어 선교사. 그는 비교적 순조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을 번역하던 중 강제 추방을 당하고 말았다. 네 번째 팀인 노르웨이 웬들 선교사가 도착한 것은 84년이었다. 애석하게도 이들 역시 3년 뒤 선교사역을 중단하고 말았다. 집을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됐고 얼마 후엔 암까지 발병,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 번역 사역은 그대로 멈추는 듯했다. 이 선교사가 도착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br/>88년 5월, 현지에 도착한 이 선교사 부부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전임자들도 꿈을 이루지 못한 곳.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없는 땅. 말로만 듣던 미전도지역이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로부터 5년 동안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93년 말에 가서야 딱 한 명이 전도가 됐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와 함께 ‘셰르파 펠로십’이란 기도모임을 만들어 미래의 셰르파 교회를 시작했다.<br/> 번역은 자신과의 싸움<br/>번역 작업은 책상에 앉아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순수 셰르파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만나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확인해야 하고 단어의 선택도 신중해야 했다. 똑같은 말이라도 문화 차이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br/>“일반명사나 고유명사도 어렵지만 추상 명사의 경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경우 셰르파 말에는 신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있지만 사람끼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존재이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단어 의미를 일일이 가르쳐야 했습니다.”<br/>번역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가능했기에 안정적인 체류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의 전임자 중엔 강제 추방된 예도 있었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었던 A국은 이 선교사를 끊임없이 감시했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사전 출간 프로젝트였다.<br/>성경번역 선교사들은 사실상 언어학자이다. 음성학과 음운론 등 기본적인 언어학 공부를 선교사훈련 기간에 배우게 되고 몇 권의 책 분량에 해당되는 성경 번역 지침도 철저히 익혀야 한다. 이 선교사는 이러한 경력으로 A국 정부에 사전 출간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10년간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병행했다.<br/>이 선교사는 “<span class='quot0'>시간은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현지 정부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당시 제작한 사전은 최초의 A어-한국어 사전</span>”이라고 말했다. 99년 613쪽짜리 사전은 이렇게 완성됐다. 이 같은 사전 제작은 현지 정부에 신뢰를 주었고 관련 학자들이 적극 이 선교사를 보호했다. 사전은 A국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현지어와 영어발음기호, 한국어로 편집됐다. 이 사전은 현재 한국인 여행객이나 교민들의 필수품이 됐다.<br/>이 선교사는 “사전 편찬 작업을 할 때만 해도 한국어로 된 여행 책자 하나 없었다”며 “성경번역 작업에 써야 할 10년을 사전 편찬과 병행해야 했지만 허송세월은 아니었다.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부인인 이혜련 선교사도 2000년 회화(會話)집을 집필했다. 이들은 두 번째 사전 작업도 시작했다. 셰르파어와 A국 공용어, 한국어 사전 편찬을 진행 중이다.<br/> 이제 다시 시작이다<br/>이 선교사가 성경번역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화를 통해서였다. ‘마운틴 오브 라이트(Mountain of Light)’라는 영화로, 미국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었다. 감명을 받은 그는 86년 12월, 선교사로 임명받아 싱가포르에서 언어훈련을 받았다.<br/>어려움도 많았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단기적인 성과 없는 번역 일에 매진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했다. 괴로웠다. 40세 중반을 넘어서자 무력감이 엄습했다. 비자문제 없이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부러웠다. 10년 걸릴 일을 20년 넘게 걸린 것도 답답했다. 50세를 넘기면서는 탈진과 불면증까지 찾아왔다. 자존감마저 흔들렸다.<br/>신약성경 봉헌은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했다. 또 후원교회의 지지도 한몫했다. 그를 후원해온 한 목회자는 “성경 번역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지나든 우리는 선교사님 돕습니다”라며 거들었다고 한다.<br/>이 선교사는 신약성경 봉헌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자를 모르는 셰르파 사람들이 쉽게 쓰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 셰르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산지대 마을 전도도 시급하다. 수년 전부터 셰르파인 전도자를 보냈지만 아직 한 명의 전도 열매가 없었다. 이 선교사는 앞으로 직접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br/>그 접촉점을 히말라야 산에서 나무가 사라지는 것에 착안했다. 그는 나무로 연료를 삼아온 셰르파 주민들에게 대체 에너지 공급이나 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선교라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span class='quot0'>히말라야를 살려 셰르파인들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위해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위생 문제를 해결할 한국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수없이 암송하면서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셰르파 사람들의 집은 띄엄띄엄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언젠가 그 집들을 찾아다니며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br/>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79.txt

제목: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날짜: 201405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30100000201  
본문: 암·뇌신경 질환, 난치성 통증 환자 등 약 20만명 혜택…연간 약 540억원 보험재정 소요<br/><br/>[쿠키 건강] 암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6월1일부터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br/><br/>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br/><br/>이와 함께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br/><br/>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되는데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하여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br/><br/>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심장내 부정맥 발생 부위를 고주파로 지지는 시술)도 급여로 전환되는데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시술 중 발생한 심방조동, 심기능 저하가 동반된 심실조기수축 등)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3년 약물치료 불응 → 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Lennox-Gastaut Syndrome)도 급여대상(환자 부담금 1648만원에서 210만원 감소)에 포함했다.<br/><br/>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시 시술할 수 있게 됐다.<br/><br/>또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꿰매는)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추가했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 개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했다.<br/><br/>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로서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했다.<br/><br/>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0.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 500례’ 달성  
날짜: 201405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30100000301  
본문: [쿠키 건강] 계명대 동산병원이 로봇수술 시작 3년만에 500례를 달성했다.<br/><br/>30일 동산병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센터장 조치흠 교수(산부인과)가 지난 28일 자궁선근증 환자 김씨(47·여) 수술을 단일공 로봇장비로 시행하면서 500번째 로봇수술을 성공했다.<br/><br/>동산병원은 2011년 6월 다빈치Si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래 갑상선암, 전립선암, 부인암, 직장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기기 다빈치 Si는 3차원 입체화면뿐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최대 15배까지 시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잘 보여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나 출혈, 통증이 적다. 또 인간 손의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팔의 자유로운 동작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br/><br/>따라서 전립선이나 자궁, 직장과 같이 수술시야가 협소하고 수술공간이 좁아 까다로운 부위의 암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회복속도도 현저히 빠르고, 상처가 작고 입원기간이 일주일 이상 짧아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br/><br/>동산병원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폐암과 심장판막성형수술을 지역 최초로 성공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단일공 로봇수술’을 지역 처음으로 시작해 부인과 영역에서 국내 최다 단일공 로봇수술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br/><br/>로봇수술은 기본적으로 복부에 4개의 구멍을 내어 진행되지만, 단일공 로봇수술은 배꼽 위에 1인치 미만의 구멍을 한 개만 뚫어(단일공)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안전성과 정교함뿐 아니라 통증이 적고 수술후 상처가 거의 없는 무흉터수술이 가능해 여성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br/><br/>조치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 500례 달성은 치료효과에 있어 환자들이 로봇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동산병원만이 가진 복강경 수술의 풍부한 경험과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로봇수술을 이용한 새로운 수술법과 연구에 매진하며 환자 치료효과를 올리는데 더욱 힘쓰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1.txt

제목: 신개념 통증치료 장비 ‘페인스크램블러’, 인정비급여 확정  
날짜: 201405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30100000304  
본문: [쿠키 건강] ‘페인스크램블러’ 장비를 이요해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행위가 지난 29일자로 인정비급여로 확정됐다.<br/><br/>페인스크램블러 장비를 개발한 지오앰씨(대표 임영현)는 29일자로 보건복지부가 페인스크램블러에 대한 인정비급여를 고시했다며, 난치성 만성통증과 암성 통증 등 통증치료에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br/><br/>이 장비는 ▲신경성통증을 포함하는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 등의 치료기기이다. 일반적 약물요법 또는 수술치료 등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반 통증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신 의료장비다.<br/><br/>치료원리는 통증 발생 부위에 비침습적 전극을 부착해 페인스크램블러에서 생성된 무통증 신호를 기존 통증 부위로 보내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또는 왜곡된 통증 신호를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감각신호로 전환시켜 통증을 제어한다.<br/><br/>현재 페인스크램블러는 지오엠씨가 직접 개발해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13년 2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는 통증 치료장비다.<br/><br/>임영현 대표는 “<span class='quot0'>미국, 유럽 등지에서 먼저 상용화 된 페인스크램블러가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 신경외과, 정형외과, 암전문병원, 종합병원 통증센터 등에 빠르게 보급 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시점에서 내려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법의 인정비급여 확정 고시는 국내 통증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페인스크램블러 테라피는?<br/><br/>현재 이 장비를 이용한 치료법은 ‘페인스크램블러 테라피’다. 오랜 기간 통증에 시달리면서 변성이 되어버린 난치성 만성 통증에 대한 인식작용을 정상화시키는 혁신적 통증치료 장비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br/><br/>페인스크램블러는 통증정보에 무통증(non-pain) 신호를 합성해 뇌에서 무통증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술을 상용화에 성공한 의료기기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도 관심이 크다.<br/><br/>지오앰씨 측에 따르면 실제 디스크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10회의 치료를 실시하면 통증이 현격히 감소되며, 수술과 상관없는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 후 통증 감소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완화의료부분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토마스J. 스미스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 국가지정 암센터 재임 시절인 2012년 학술지 ‘The Journal of Pain & symptom Management’에 보고된 논문에서 페인스크램블러의 효용성을 일찌감치 입증하기도 했다.<br/><br/>스미스 교수는 논문에서 만성신경병증환자 26명과 페인스크램블러 치료를 실시한 26명의 환자 간의 비교임상을 실시한 결과 페인스크램블러 치료를 받은 91%의 환자에서 통증 감소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br/><br/>이미 스미스 교수는 지난 2010년에도 1차 논문을 통해 암환자의 30~40%가 겪고 있는 항암제 신경독성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증(CIPN)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페인스크램블러를 하루에 1시간씩 10일간 치료해 59%의 통증 감소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2.txt

제목: 진행성 암 환자 항암치료, 면역치료와 병행해야  
날짜: 201405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9100000241  
본문: [쿠키 건강] 항암치료의 주된 대상은 진행성 암 환자들이다. 수술 전후 보조적 항암요법도 많이 활용되지만, 수술적 요법으로 암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전이가 많이 되어 있어 전신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항암치료의 주된 대상이다.<br/><br/>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암제를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치료법이다. 따라서 진행성 암이나 전이암에 유효하지만, 암 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낟.<br/><br/>항암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골수기능억제에 의한 면역력 저하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체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암이기 때문이다.<br/><br/>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항암치료와 한방 면역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의학적 치료 접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항암치료의 장점은 살리면서, 부족한 면역력을 채워주는 한방 면역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는 물론 삶의 질에 있어서도 훨씬 우수하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br/><br/>이러한 한방 면역치료라는 개념은 비교적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 그 범주는 명확하지 않다. 치종단, 넥시아 등으로 유명해진 옻나무 추출물이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약침 치료, 가장 전통적인 뜸과 침 치료 등은 모두 면역치료를 표방한다.<br/><br/>치종단, 치종탕 등의 개발자인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병을 스스로 이겨낸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암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면역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렇듯 면역력 개념에서 접근하는 한의학적 면역 치료법들의 공통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의 부족이다. 암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 완화에 침 치료가 효과적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조차 최근의 일이며, 여타 한약재들을 활용한 치료법들은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br/><br/>그런 와중에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한방 암 치료제의 주성분인 옻나무 추출물의 항암 효과를 규명하는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확정되어 관심을 끈다.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 암 치료제인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를 활용한 A549 폐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항암제의 보조효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작용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암 치료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는 한약재들은 많지만, 이를 이용해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연구결과들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span>”고 당부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3.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날짜: 201405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9100000206  
본문: [쿠키 건강]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 뇌졸중 치료 전국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다.<br/><br/>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이상 2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br/><br/>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br/><br/>이와 함께 특정 질환(암, 심부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료 프로그램과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인 JCI CCPC에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4.txt

제목: [건강 나침반] 담배의 해독(害毒)과 금연방법  
날짜: 2014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9100000160  
본문: 글·김대현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금연클리닉)<br/><br/>[쿠키 건강칼럼]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말은 해독은 많은데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사람의 건강에 관한 한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담배 피우는 일이다.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 성분은 담배맛을 좋게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피우고 싶도록 만든다. 담배를 오래 피운 애연가는 담배연기를 마실 때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니코틴이 흡수되어 금단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이다.<br/><br/>담배는 한두 개비를 피운다고 갑자기 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피울수록 중독이 되어 끊기가 힘들어진다. 오래 피우면 타르(담뱃진)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때문에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사람 몸에서 생기는 모든 암의 3분의 1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 흡연자는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담배 때문에 생기는 기관지염, 동맥경화가 심해져 심장병, 중풍에 시달리게 된다. 담배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화재의 원인이 되고, 경제적 손해(담뱃값, 병 치료비)를 준다.<br/><br/>담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다른 마약, 술, 교통사고, 자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담배 때문에 생긴 병으로 죽어간다고 하며 지구상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1억명이 담배 때문에 죽게 된다는 통계도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 2명중 1명이 담배 때문에 생긴 병으로 죽게되고, 4명중 1명이 노인이 되기 전에 조기사망한다. 담배 때문에 죽지 않는 흡연자들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가래, 기관지염, 동맥경화, 협심증 같은 병으로 고생하게 된다.<br/><br/>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br/><br/>담배는 중독성 질병(마약)이지만 아직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흡연자 자신의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br/><br/>첫째, 담배를 끊기 전에 며칠간 자신이 담배 피우는 것을 관찰하면서 결심을 굳히는 것이 좋다. 자신이 어떤 상황(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심할 때, 식후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얼마나 피우고 싶을 때 피우는지를 관찰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된다.<br/><br/>둘째, 담배를 끊는 날을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의미있는 날로 잡고 가족과 찬구들에게 알린다.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아서 금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주~1달 정도 회식이 없는 날이 금연 시작일로 바람직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담배를 무엇 때문에, 며칠부터 끊겠다'는 ‘금연서약서’를 쓰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장을 받는 것이지만, 적어도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려주고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 끊기 전날 밤에 담배 피우는데 필요한 담배, 성냥, 라이터, 재떨이 등을 모두 모아서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린다.<br/><br/>셋째, 담배를 5~10년 이상 피운 사람이라면 금연 후 며칠간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때처럼 금단현상이 생긴다.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일이 손에 안잡히고, 불안하며 심한 사람은 손이 떨리고, 잠이 안오고, 입안에 감각이 없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심한 증상은 3일간만 참으면 된다.<br/><br/>견딜 수 없이 담배를 피우고 싶을 경우에는 “1분만 참자”를 마음 속으로 3번 반복하면서 3분만 참으면 위험을 넘길 수 있다.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담배를 피우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은 짜지 않고, 맵지 않게 먹고 술자리를 피한다. 금단증상이 너무 심하면 피부에 붙이는 약(패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br/><br/>넷째,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심호흡, 냉수 마시기, 산책하기, 칫솔질을 해본다. 하루 1~2천원의 담뱃값으로 적금을 들어 둔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 때문에 생기는 병 치료비를 생각하면 담배를 끊는 자체로 수천만-수억원을 벌은 셈이지만, 담배 때문에 드는 돈을 정기적금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br/><br/>금연 후 2주가 지나면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2주 이후에는 금단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권하는 담배를 거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충동적으로 피우고 싶을 때만 조심하면 된다. 금연한지 6주가 되면 단기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한다.<br/><br/>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한 모금 피우더라도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 금연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진리다. 무작정 담배를 피우기보다 담배가 어느 정도 몸에 해롭고,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1995년에 미국 대통령이 담배를 ‘중독성 물질(마약)’로 규정하였고 흡연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못지않게 해롭고, 질병번호(292번)가 매겨져 있는 병이다.<br/><br/>앞으로 30~50년 뒤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배가 법으로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의 해독으로 암이나 중풍, 심장병이 생긴 뒤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다. 지금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어서 건강을 유지하자.<br/><br/>담배의 피해와 관련된 짧은 문구들을 기억해보자.<br/><br/>▲“현재 흡연하는 남성의 52%와 흡연여성의 43%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Changes in Cigarette-Related Disease Risks, p.405)”<br/><br/>▲“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400만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며, 2020년에는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1억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할 것이다.(1997, Richard Peto)”<br/><br/>▲“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매일 사람을 가득 실은 점보제트기 4대가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것과 맞먹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사망자 8명중 1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며 선진국 사망의 4명중 1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전세계적으로 사망자 6명중 1명은 담배 때문에 죽는다.’ (1994, Tobacco Control)”<br/><br/>▲“1톤의 담배로 1백만 개피의 담배를 만들 수 있고 1명의 사람을 죽게 만든다.(세계보건기구)”[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5.txt

제목: 심근경색 후 무호흡치료 안하면 재발위험 높아  
날짜: 201405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9100000267  
본문: [쿠키 건강] 최근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것으로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국내에서는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다.<br/><br/>심장이 멈추면 피가 돌지 않고, 심장 근육조직과 세포,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뇌세포는 20초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도 기능을 상실하고 4분 후부터는 죽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심근경색 환자들이 신체 마비나 뇌경색으로 인해 기억상실 등을 겪게 된다.<br/><br/>심근경색은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각증상의 하나인 흉통은 대부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 48시간 전부터 이미 흉통을 느끼거나 평상시 느끼지 못한 흉통이 생긴다.<br/><br/>따라서 평소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조심해야 한다. 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평소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산소량이 부족해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가 9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한 원장은 “<span class='quot1'>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고령일수록 당뇨나 고혈압, 흡연, 콜레스테롤지수가 높은 사람,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수면무호흡증은 코를 골다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는 횟수가 한 시간에 5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에 속하면 숨을 멈추는 증상이 없어도 수면무호흡증이다.<br/><br/>수면무호흡증은 병원에서 8시간 정도 자면서 산소포화도·뇌파·심장기능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코골이 환자의 약 50%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수면무호흡증은 집중력·사고력·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만성피로를 부른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혈관 속 산소량이 떨어지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결국, 혈압이 오르게 된다. 고혈압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하는 이유다. 이로 인해 사망 위험이 높은 뇌·심혈관질환이 나타나게 된다.<br/><br/>이와 함께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대학 연구팀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 “수면을 취할 때는 뇌세포가 60%나 줄어들기 때문에 깨어 있을 때보다 10배 빠르게 노폐물 제거 과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수면 중 뇌의 독특한 노폐물 제거 활동인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뤄져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신경질환을 유발하는 독소를 청소해준다는 것이다.<br/><br/>따라서 심근경색을 앓고 난 이후에도 수면무호흡증의 수면장애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뇌 기능의 정상적인 회복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심장질환의 재발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코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는 수술과 비수술 치료법이 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5%에 그치는데, 코와 목젖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목젖의 처진 부분을 떼내거나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한다.<br/><br/>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은 혀가 기도를 막는 원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는 양압호흡기(CPAP)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장치는 잘 때 마스크처럼 착용해 수면 중 공기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포화도를 정상으로 유지시킨다.<br/><br/>여기에 운동과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더해야 추가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앓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연은 필수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6.txt

제목: 서울성모병원-한국노바티스,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 협력 MOU 체결  
날짜: 201405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8100000366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한국노바티스가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br/>두 기관은 527일 오후 4시반 병원 본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전후근 암병원장, 양철우 연구부원장 김동욱 암병원 연구부장과 한국노바티스 브라이언 글라스덴 대표, 곽훈희 항암제 사업부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 협력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br/>이번 공동 연구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암 임상시험연구의 추진 및 초기 임상시험 연구의 확대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 발전과 학술 교류를 실시한다.<br/>서울성모병원은 신약 개발과 관련한 제반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연구에 필요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의 공유 및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세계적인 의약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후 임상 연구를 위한 시험 약물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 및 학술, 기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국가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br/>승기배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악을 통해 병원의 임상연구 활성화와 위상 및 인지도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병원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밝혔다.<br/>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는 “<span class='quot1'>서울성모병원은 글로벌 초기 임상연구를 위한 경험있고 노련한 의사와 최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향후 양 기관이 더 큰 관계로 발전하여 세계 암 연구와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한편 1996년 설립된 노바티스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암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7.txt

제목: 기하성, 세월호 참사 ‘안산 지역경제 살리기’ 팔 걷었다  
날짜: 20140528  
기자: 박재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8100000148  
본문: 세월호 참사. 난데없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괴물’ 세월호는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사고 현장의 애끊는 비보를 접할 때마다 전 국민은 집단적 우울증 속으로 빨려들었다. 속수무책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의 마음만 강타한 것은 아니었다.<br/>암울한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소상공인들은 세월호 사고 전후를 비교해 매출이 33%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가 4∼7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br/>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정부 조직 개편, 피해자 보호·지원책은 가장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기하성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27일 경기도 안산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br/>“<span class='quot0'>이건 볶아 먹어도 맛있고 살짝 데쳐 먹어도 맛이 좋아요.</span>”(야채 상인)<br/>“싱싱하네요. 이거 2000원어치랑 옆에 있는 나물도 3000원어치 주세요.”(손님)<br/>27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 단원구 화랑로 라성종합재래시장. 한산하기 그지없던 시장이 인파로 북적이며 활기가 느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일 만이었다.<br/>‘호남분식’ 주인 황형준(52)씨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3곳 모두 불꽃이 올라오고 있었다. 15석쯤 되는 테이블은 모두 찼다. 황씨는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골밥상’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에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테이블에는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쉬이익 쉬이익∼’ 하며 압력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김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몰리자 식당 주인이 밥을 다시 안친 것이다.<br/>이날 분식집과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들은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다.<br/>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장로·권사·집사 등 평신도들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을 비롯해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소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며 총회 임원들이 결정한 고심의 산물이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인천순복음교회, 수원 제일좋은교회 등 수도권 5개 교회에서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시장을 방문했다.<br/>2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최초의 라성종합재래시장은 세월호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부분 상가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50%가량 줄었다. 일부는 간판을 내렸다.<br/>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길게는 수십 년간 마주했던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이중고’를 감내하고 있는 듯했다. 경제적 어려움에다 마음의 상처까지. ‘신발백화점’ 주인 유수남(58)씨는 매출 얘기를 꺼내자 “지금 장사가 문제냐. 아직도 (세월호에서) 꺼낼 애들이 열 명도 넘게 남았는데”라며 버럭 화를 냈다. 사고 이후 하루 종일 뉴스채널을 틀어놓고 있다는 그는 “20년 넘게 신발을 팔면서 한 집만 건너면 이래저래 다 아는 사람들이 큰 시련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지난달 초에는 단원고 선생님이 수학여행 간다고 여기서 신발을 사갔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어집을 운영하는 이향준(74)씨는 사고 이후 닷새간 TV를 켜지 못했다고 했다. 시장은 단원고에서 3㎞ 거리에 있다.<br/>상인들을 마주하는 교회 성도들은 1인 다역을 소화하는 배우 같았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건어물 가게 앞 주인 앞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흥정도 했다. 값을 치르며 헤어질 때는 밝은 얼굴로 “잘 먹을게요” “힘내세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br/>이날 시장 안팎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의 양손에는 크고 작은 검정 봉지들이 2∼3개씩 들려 있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 측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시장방문에 소요된 비용이 약 4000만∼5000만원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이예재(65·여) 권사는 교회 동료 4명과 함께 시장 앞에서 6000원짜리 육개장을 먹고 저녁 반찬용으로 다시마 한 봉지를 샀다. 그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이번 행사를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불과 며칠 전 교계 일부 목사들이 부적절한 언사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칫 덕이 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 속에서 성도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는 표정이었다.<br/>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span class='quot1'>이번 일은 우리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안산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면 안산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교단과 타지역 교회, 나아가 기업과 많은 단체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br/>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구절과 함께 이런 구절도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교회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다.<br/>안산=박재찬 김동우 황인호 기자 jeep@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8.txt

제목: 한방 암 치료, 옻나무 추출물은 효과 있을까?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26  
본문: [쿠키 건강]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파악된 한국의 전체 암 발생자 수는 21만8017명으로 나타났다. 2007~2011년도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93~95년도의 41.2%보다 25.1% 증가한 66.3%에 달해 많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12년 전체 사망자 26만7221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은 74,990명으로 전체의 28% 가량을 차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br/><br/>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수명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이 암을 정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br/><br/>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법으로 우선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암이 너무 진행되었거나 치료 후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표준치료로도 완치나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고, 항암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br/><br/>이 때문에 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표준 치료 이외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의학이나 여러 보완대체의학을 접목한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근거가 불명확한 치료방법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br/><br/>그런 와중에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한방 암 치료제의 주성분인 옻나무 추출물의 항암 효과를 규명하는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확정되어 관심을 끈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 암 치료제인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를 활용한 A549 폐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항암제의 보조효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작용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가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한방 치료만을 받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한방 암 치료제 치종단, 치종탕, 티버스터 등의 개발자인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의 설명이다.<br/><br/>암 치료의 접근은 크게 완치 목적의 치료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고식적 치료, 말기 환자에서의 완화 의료로 나뉜다. 한방 암 치료는 대부분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고식적 치료에 해당하므로, 처음에는 완치 목적의 치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표준 치료와의 병행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br/>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병원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한의원을 찾아온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최선은 병원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병원 치료가 유효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며, 대체요법으로서 한방치료를 고려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span>”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89.txt

제목: 선병원, 日 메디폴리스병원과 암 치료·연구 협약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29  
본문: [쿠키 건강] 선병원(이사장 선두훈)은 지난 26일 유성선병원 강당에서 세계적 수준의 양성자 암병원으로 평가받는 일본 메디폴리스병원(이사장 료이치 나가타)과 암치료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br/><br/>이번 협약으로 양 병원은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암 전문 의료진의 상호 연수 및 교환 ▲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한 신약 및 신의료기술 조기도입 ▲화상통신을 통한 다학제 협진 등 암치료 연구,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br/><br/>선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신 암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양성자 암치료에 관한 연구 및 진료 사례를 공유해 암 분야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br/><br/>양성자 암치료는 양성자를 가속 암을 치료하는 기법으로 암 조직만을 정확하게 공격해 부작용이 적어 암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폐암, 간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br/><br/>선승훈 선병원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으로 보다 수준 높은 암치료 의료기술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국내 암 환자들에게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0.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오상철 교수, 아스트라제네카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35  
본문: 아스트라제네카-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항암분야 연구지원자 선정<br/><br/>[쿠키 건강] 고려대 구로병원 암병원 오상철 교수(종양내과)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항암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Oncology Research Program)에 선정됐다.<br/><br/>오상철 교수는 구로병원 연구중심병원 연구전담의사를 맡아 위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암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장암 유전자 타입에 따른 맞춤형 항암치료에 대한 연구발표로 국제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br/><br/>이번 글로벌 연구자 선정은 오 교수의 임상 연구 뿐만아니라 중개연구의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br/><br/>오 교수는 이번 선정으로 AZ로부터 항암분야 초기 중개연구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받는다. 오 교수는 연구 지원금은 물론 AZ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AZ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중 일부를 전임상 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Z 항암연구개발팀의 기술자문과 협력, 세계 항암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br/><br/>오상철 교수는 “<span class='quot0'>세계적인 항암제 연구개발 전문 기업과 신약개발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공동연구를 통해 암 치료를 위한 신약 연구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궁극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암 치료를 위한 기초에서 임상 연구는 물론 실용화해 환자에게 바로 적용해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1.txt

제목: 갑상선질환, 신경심리증상·스트레스 동반 치료 필요  
날짜: 201405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220  
본문: [쿠키 건강]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신경심리적 증상이 동반되는 갑상선질환 환자는 적절한 처치를 위해 정신과와의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갑상선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 감정기복, 인내심과 집중력의 저하, 과다활동, 과민성과 조바심(특히 소리에의 과민성), 식욕저하와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섬망이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한다.<br/><br/>또한 갑상선 기능의 저하는 흥미 및 의욕의 상실과 무력감, 최근 기억의 저하, 전반적인 지능의 감퇴,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뇌에 영구적인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br/><br/>갑상선기능장애에 의한 신경심리적 증상은 갑상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기까지의 내분비 내과적 치료 기간 동안 신경심리 증상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일시적인 약물치료 혹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br/><br/>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불안, 불면을 비롯한 기타 신경심리적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및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br/><br/>실제로 약 10%의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대체요법 등 갑상선질환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잔여 신경심리적 증상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br/><br/>이러한 진료를 위해 중앙대학교병원은 최근 암환자뿐만 아니라 내분비 질환 및 자가면역질환과 동반된 신경심리증상 및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갑상선센터 내에 신경심리·스트레스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br/><br/>중앙대병원 신경심리·스트레스 클리닉의 김선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 질환 이외 당뇨, 통풍, 루푸스 등의 내분비 및 자가면역질환의 경우에도 신경심리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환자 또한 우울·불안·불면증 및 신경성 위장병, 과민성 대장 증상, 신경성 통증, 두통, 불면증, 어지럼증 등의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과, 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의 긴밀한 협진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2.txt

제목: 한국교회, ‘세월호 참사’ 안산지역 경제 살리기 나섰다  
날짜: 20140527  
기자: 박재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459  
본문: 세월호 참사. 난데없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괴물’ 세월호는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사고 현장의 애끊는 비보를 접할 때마다 전 국민은 집단적 우울증 속으로 빨려들었다. 속수무책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의 마음만 강타한 것은 아니었다.<br/><br/>암울한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소상공인들은 세월호 사고 전후를 비교해 매출이 33%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가 4∼7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br/><br/>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정부 조직 개편, 피해자 보호·지원책은 가장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기하성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27일 경기도 안산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br/><br/>“<span class='quot0'>이건 볶아 먹어도 맛있고 살짝 데쳐 먹어도 맛이 좋아요.</span>”(야채 상인)<br/><br/>“싱싱하네요. 이거 2000원어치랑 옆에 있는 나물도 3000원어치 주세요.”(손님)<br/><br/>27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 단원구 화랑로 라성종합재래시장. 한산하기 그지없던 시장이 인파로 북적이며 활기가 느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일 만이었다.<br/><br/>‘호남분식’ 주인 황형준(52)씨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3곳 모두 불꽃이 올라오고 있었다. 15석쯤 되는 테이블은 모두 찼다. 황씨는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골밥상’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에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테이블에는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쉬이익 쉬이익∼’ 하며 압력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김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몰리자 식당 주인이 밥을 다시 안친 것이다.<br/><br/>이날 분식집과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들은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다.<br/><br/>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장로·권사·집사 등 평신도들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을 비롯해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소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며 총회 임원들이 결정한 고심의 산물이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인천순복음교회, 수원 제일좋은교회 등 수도권 5개 교회에서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시장을 방문했다.<br/><br/>2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최초의 라성종합재래시장은 세월호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부분 상가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50%가량 줄었다. 일부는 간판을 내렸다.<br/><br/>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길게는 수십 년간 마주했던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이중고’를 감내하고 있는 듯했다. 경제적 어려움에다 마음의 상처까지. ‘신발백화점’ 주인 유수남(58)씨는 매출 얘기를 꺼내자 “지금 장사가 문제냐. 아직도 (세월호에서) 꺼낼 애들이 열 명도 넘게 남았는데”라며 버럭 화를 냈다. 사고 이후 하루 종일 뉴스채널을 틀어놓고 있다는 그는 “20년 넘게 신발을 팔면서 한 집만 건너면 이래저래 다 아는 사람들이 큰 시련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지난달 초에는 단원고 선생님이 수학여행 간다고 여기서 신발을 사갔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어집을 운영하는 이향준(74)씨는 사고 이후 닷새간 TV를 켜지 못했다고 했다. 시장은 단원고에서 3㎞ 거리에 있다.<br/><br/>상인들을 마주하는 교회 성도들은 1인 다역을 소화하는 배우 같았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건어물 가게 앞 주인 앞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흥정도 했다. 값을 치르며 헤어질 때는 밝은 얼굴로 “잘 먹을게요” “힘내세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br/><br/>이날 시장 안팎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의 양손에는 크고 작은 검정 봉지들이 2∼3개씩 들려 있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 측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시장방문에 소요된 비용이 약 4000만∼5000만원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이예재(65·여) 권사는 교회 동료 4명과 함께 시장 앞에서 6000원짜리 육개장을 먹고 저녁 반찬용으로 다시마 한 봉지를 샀다. 그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이번 행사를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불과 며칠 전 교계 일부 목사들이 부적절한 언사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칫 덕이 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 속에서 성도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는 표정이었다.<br/><br/>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span class='quot1'>이번 일은 우리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안산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면 안산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교단과 타지역 교회, 나아가 기업과 많은 단체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br/><br/>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구절과 함께 이런 구절도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교회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다.<br/><br/>안산=박재찬 김동우 황인호 기자 jeep@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3.txt

제목: 한국교회, ‘세월호 참사’ 안산지역 경제 살리기 나섰다  
날짜: 20140527  
기자: 박재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7100000397  
본문: 세월호 참사. 난데없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괴물’ 세월호는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사고 현장의 애끊는 비보를 접할 때마다 전 국민은 집단적 우울증 속으로 빨려들었다. 속수무책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의 마음만 강타한 것은 아니었다.<br/><br/>암울한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소상공인 76%가 세월호 사고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매출이 33%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가 4~7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br/><br/>세월호 참사 원인과 대책, 책임자 처벌, 정부 조직 개편, 피해자 보호·지원책은 가장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뛰어넘고 똑같은 재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경제·사회·심리·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살리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한국호가 이대로 침몰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br/><br/>27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 단원구 화랑로 라성종합재래시장. 한산하기 짝이 없었던 재래시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호남분식’ 주인 황형준(52)씨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3곳 모두 불이 켜져 있고, 15석쯤 되는 테이블은 모두 꽉 찼다. 황씨는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br/><br/>좁은 시장 골목 한 쪽에 있는 ‘시골밥상’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테이블에는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쉬이익 쉬이익~’ 하며 압력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김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예상하지 손님이 몰려들어 식당 주인이 밥을 다시 안친 것이다.<br/><br/>이날 분식집과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들은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장로·권사·평신도들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을 비롯해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는 소식을 접한 총회 임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시장을 찾은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인천순복음교회, 수원 제일좋은교회 등 수도권 5개 교회에서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시장을 방문했다.<br/><br/>2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최초의 라성종합재래시장은 과거 ‘안산의 명동’으로 불리던 구도심의 중심가였지만 세월호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상가연합회와 상인 등에 따르면 대부분 상가들의 매출이 30~50%가량 줄었다. 일부는 간판을 내렸다.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하나인 ‘털보아구탕’ 여주인은 “주말에는 그나마 몇 팀 있던 단체 손님이 팍 줄었다”고 했다. ‘미림떡집’ 주인 유기원(56)씨는 “<span class='quot0'>우리 같은 도매 상가는 주문으로 먹고 사는데 5월에 몰려 있던 체육대회나 동문회 같은 행사부터 거리축제, 다문화축제 등 거의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주문량이 뚝 떨어졌다</span>”고 어려움을 토로했다.<br/><br/>‘신발백화점’ 주인 유수남(58)씨는 매출 얘기를 꺼내자 “지금 장사가 문제냐. 아직도 (세월호에서) 꺼낼 애들이 열명도 넘게 남았는데”라며 버럭 화를 냈다. 사고 이후 하루 종일 뉴스채널을 틀어놓고 있다는 그는 “<span class='quot0'>20년 넘게 신발을 팔면서 한 집만 건너면 이래저래 다 아는 사람들이 큰 시련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지난달 초에는 단원고 선생님이 수학여행 간다고 여기서 신발을 사갔는데…</span>”라며 말끝을 흐렸다.<br/><br/>시장에 들른 성도들의 양손에는 크고 작은 검정 봉지들이 2~3개씩 들려 있었다.<br/><br/>강명신(65)씨는 “지역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다”면서 “앞 가게에서 전을 샀고, 순대국집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다. 운동화도 두 켤레 샀다”고 말했다. 장춘옥(53·여)씨는 “얼마 전 셋째를 낳은 전도사에게 주려고 잔대와 대추 같은 약재를 좀 샀다”고 전했다.<br/><br/>이날 성도들이 3시간 가까이 팔아준 금액은 최소 2000만원선. 성도 1인당 최소 1만원 이상씩 구매키로 한 구두약속에 따른 추산이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span class='quot1'>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도, 지역경제도 너무 많이 침체된 것 같아서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번 행사를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불과 며칠 전 교계 일부 목사들이 부적절한 언사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칫 덕이 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 속에서 성도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는 표정이었다.<br/><br/>이 목사는 “<span class='quot1'>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다른 교단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 나아가 기업과 많은 단체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구절과 함께 이런 구절도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교회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다.<br/><br/>안산=박재찬 김동우 황인호 기자 jeep@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4.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집중화센터 및 암병원] (1)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센터  
날짜: 2014052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6100000039  
본문: 조기 위장관 암환자들 흉터 없이 내시경 수술<br/>많은 사람들이 고려대 안산병원이라고 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단원고 학생들을 돌보느라 이목이 집중된 곳 정도로 기억한다. 그러나 고려대 안산병원의 진짜 핵심은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최신 의술을 익힌 의료진과 환자 중심 개인 맞춤의료 및 원스톱 진료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br/>외상 및 응급의료센터 외에도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정밀진단 및 정확한 치료를 주무기로 삼고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센터(이하 소화기센터)를 소개한다.<br/>◇수술 없이 치료! 내시경점막하박리술=소화기센터에선 조기 위장관 암의 경우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을 이용해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br/>이 시술은 환자의 배를 가르지 않고 입을 통해 위속으로 삽입한 내시경만으로 암 조직을 분리,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인 등 전신마취 상태에서 개복수술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수술 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빠르며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br/>소화기센터 내시경실장 구자설 교수는 “이 시술을 하려면 위장관 속 점막하층, 근육층, 림프절이나 주변 장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초음파내시경 시스템 운용능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팀은 시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해 다른 어떤 병원보다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br/>◇좁고 굽은 소장도 전문검사로 정밀하게 진단=소장은 위장관과는 달리 좁고 길며 구불구불하다. 따라서 일반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하다. ‘이중풍선 소장내시경’과 ‘캡슐내시경’을 갖춰야 검사할 수 있다.<br/>소화기센터는 이들 소장 검사용 특수 내시경 장비도 두루 갖췄다. 두 개의 풍선을 이용해 좁은 소장의 내강을 확장시킨 다음 내시경을 삽입해 검사하는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여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시술이 힘든 고난도의 의료기기다.<br/>소장내시경 검사는 위나 대장 내시경으로 원인불명의 반복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나 만성 복통, 설사, 염증성 질환, 소장암 등이 의심될 때 필요하다.<br/>캡슐내시경은 캡슐이 소화기관을 지나 대변으로 자연 배출 될 때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해 소장 내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일반내시경을 받기 어려운 소아와 노인들에게 적합하다.<br/>◇췌장암, 담도암도 내시경적 치료 가능=치명적인 췌장암과 담도암의 제거 및 치료에도 내시경 시술이 활발하게 이용된다. 소화기센터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해 췌·담도계 질환들을 신속하게 선별, 적절한 처방을 내려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br/>ERCP는 십이지장과 간을 이어주는 담도에 가느다란 도관(導管)을 삽입해 담도 및 췌장 내부를 살펴보는 특수검사다. 담석, 담도암, 만성 췌장염 등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 담석을 제거하고 염증을 걷어내며 췌장암과 담도암 제거까지 폭넓게 쓰인다.<br/>소화기센터는 이밖에 내시경 초음파도 췌장과 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br/>이 병원 소화기내과 현종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췌장암과 담도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아 꽤 진행된 다음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단순한 복통이나 소화불량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5.txt

제목: 유방암 환자 절반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날짜: 201405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6100000292  
본문: [쿠키 건강] 한국유방암학회가 한국인 유방암 생존 환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와 삶의 질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br/><br/>디스트레스란 원인과 정도에 관계없이 암환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번 조사는 30개의 전국 대학병원 및 유방암 전문병원 생존 환자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42개의 유효한 응답을 분석에 사용했다.<br/><br/>조사 결과 유방암 생존 환자의 평균 디스트레스 점수는 4.04점이었다. 중증 스트레스로 분류하는 4점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환자가 50.7%(275명)에 달했으, 12.7%(69명)는 8점 이상의 심각한디스트레스를 느낀다 답했다. 3.1%는 디스트레스의 정도가 10점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br/><br/>특히 30세 미만의 환자는 디스트레스 지수가 비교적 높은 6점을 기록했다. 40~50대 환자의 디스트레스 지수가 3.87점인 것을 고려하면, 약 1.5배나 높은 수치다. 유방암 발병 이후 외모 변화나 치료 후 불임 우려 등에 대한 고민으로 젊은 유방암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윗세대보다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번 조사에서는 디스트레스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있는 유방암 환자 삶의 질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유방암 치료의 기능 평가(FACT-B) FACIT(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가 개발한 암 생존자 삶의 질 측정 도구다.<br/><br/>총 3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태를 고려해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상당히 그렇다' 4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이다를 활용해 ▲신체적 상태 ▲사회·가족적 상태 ▲정서적 상태 ▲기능적 상태 ▲유방암 특이적 상태로 나누어 삶의 질을 측정했다. 다섯 개 항목의 총점 평균은 95.28점(최대점: 148점)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10점 만점으로 환산 시 6.44점을 기록했다.<br/><br/>각 상태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특히 주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영역인사회/가족적 상태의 삶의 질 5.88점에 그쳐 가장 낮았다. 유방암 치료 후 우려하는 신체적, 기능적 상태보다 사회적인 상태의 삶의 질 하락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있을 때 삶의 질 점수(6.8점)가 없을 때(6.2점)에 비해 높아 사회 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과 역시 도출됐다.<br/><br/>이번 연구를 주도한 신혁재 명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1%로 높고, 여성성 상실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의 치료와 재발 예방 외에 사회적, 심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또 민준원 단국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사회적 상태에서 느끼는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만큼 사회 복귀를 위한 꾸준한 지원과 유방암 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span>”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6.txt

제목: 독한 욕쟁이 엄마가 왜 무릎 꿇고 울었냐고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날짜: 20140524  
기자: 노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4100000040  
본문: 연예인 VS 엄마로 사는 법<br/>‘욕쟁이 엄마’는 아들에게 말할 때 거침없었다. 칭찬도 욕으로 할 정도다. “<span class='quot0'>넌 어쩜 그렇게 잘하냐, 이 미친놈아!</span>” “이 XX 진짜 똑똑하다.”<br/>그런 엄마를 둔 아들은 수시로 학교 수업을 빼먹었다. 폭력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욕쟁이 엄마 밑에 ‘문제 아들’. 이런 콩가루 집안이 또 있을까.<br/>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를 한다. 욕쟁이 엄마 입에선 사랑, 사랑, 사랑이 흘러넘친다. 하나님 손을 잡았더니 엄마와 아들이 변한 것이다.<br/>개그우먼 이성미(55·베이직교회) 집사네 이야기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이 집사를 만났다. ‘연예인 맞아?’란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수한 모습. 민낯이었다. 지난해 1월 유방암 수술을 받은 그는 편안해 보였다.<br/>“아픈 것에 묶이면 계속 아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수술할 때 ‘난 아프지 않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번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이 빛으로 나를 좀 제대로 쏴주세요. 저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기도했어요.”<br/>절묘한 타이밍이었다. 2012년 늦가을, 그는 두 명의 암 환자 친구를 만났다. 그들의 아픔까지 알 리 없는 이 집사는 그저 낫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검진 받는 촬영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 것이다. 비로소 암 환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다.<br/>“살아야 기적이고 나아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마지막 떠날 때 아름답고 환한 모습을 한 것을 보며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만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웃으며 천국 가는 것도 응답이다, 어쩌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러고 나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지 상당히 기대돼요.”<br/>7년 만에 캐나다에서 귀국해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 그가 들려준 자녀 교육법은 화제였다. 2002년 9월 한국을 떠날 때 이 집사는 마흔셋, 큰아들은 열셋, 둘째 딸은 다섯 살이었다. 막내딸은 태어난 지 14개월. 낯선 곳에서 가족은 힘들었다. 특히 아들은 심하게 사춘기를 보냈다.<br/>학교 수업을 빠진 아들 뒤통수에 대고 이 집사는 험한 말을 쏟아냈다. “<span class='quot0'>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span>” “<span class='quot0'>넌 뭐가 되려고 하냐 미친놈아</span>” “<span class='quot0'>날 샜다, 이 쓰레기 같은 놈</span>”….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span class='quot0'>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span>”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 안돼요”라며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른다.<br/>17년간 아들에게 쏟아냈던 욕이 입에서 완전히 떠나고, 학교에서 폭력사건에 휘말린 아들을 보면서 그는 그동안의 잘못을 빌었다.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를 용서해라. 다 엄마 탓이야”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들은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고 둘은 부둥켜안고 꺼이꺼이 울었다. 새벽기도를 드리러 가는 엄마를 따라 아들이 나섰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했다. 이 집사는 아들에게 다른 말 안 하고 그저 기다려줬다.<br/>요즘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냥 애들 좀 내버려두세요. 엄마들의 ‘자녀 염려증’은 결코 도움 안돼요. 애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해요. 제 아들은 제가 변해서 같이 변한 경우예요. 지금 트리니티대학에서 신학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해요. 25세이면 학비도 자기가 알아서 할 나이입니다. 개고생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20대에 네가 고생했으면 30대에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세우면 40대에 네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50이 되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열매를 볼 것이다’고 말해줘요. 하나님만 붙잡고 스스로 살아내면 됩니다. 오빠를 옆에서 본 두 딸도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째는 열일곱 살인데, 틈틈이 아기 봐주는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br/>이 집사는 이런 자녀 이야기 등을 담아 간증집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두란노·사진)를 최근 출간했다. “책 써”라고 명한 고(故) 하용조 목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이번에 결실을 봤다. “<span class='quot0'>2년간 배불러 있다가 애 나온 거 같아 너무 시원하다</span>”며 웃었다.<br/>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뒤 겪은 상실감, 낳아 준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그 뒤로 세 엄마와 함께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의 마음속에 내재된 외로움과 분노의 아픈 상처들, 유명 개그맨이 됐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있다. 혹 ‘이혼했나?’ 궁금해할 이들을 위해 남편 이야기도 살짝 곁들였다고 했다. “<span class='quot0'>7년 떨어져 지낸 만큼 다시 가족이 사랑하고 화합하기까지 7년이 걸리는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남편도 나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아마 이어질 책은 남편과의 회복이 중심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br/>이 집사의 롤 모델은 구레네 사람 시몬. 뭐든 받아주고 뭐든 먹게 해주고 들어주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 수술 뒤 업그레이드된 간증을 털어놓는 그는 이미 용량이 차고 넘치는 ‘사랑통’의 모습이었다.<br/>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7.txt

제목: 그들은 왜 세종대왕 동상에 올랐나  
날짜: 20140524  
기자: 강주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4100000023  
본문: 이종건 감신대 도빈 회장<br/>“<span class='quot0'>신학생은 기도만?… 행동 안하면 잘못입니다</span>”<br/>세월호 침몰 사고 후 대다수가 침묵으로 ‘거대한 분노’를 삭이고 있을 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외친 청년들이 있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도빈)와 사람됨의신학연구회 소속 대학생 8명은 지난 8일 오후 “유가족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br/>6분30초 만에 경찰에 연행됐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시위 장면이 퍼졌다. 어떤 이는 ‘청춘의 표상은 시위’라며 응원했고 또 다른 이는 ‘신학생이라면 기도나 하라’고 비난했다. 집요하게 배후를 캐묻는 경찰에게 청년들은 “우리의 배후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는 성경 말씀”이라고 했다. 동상 위에서 성명을 낭독했던 감신대 도빈 회장 이종건(21)씨를 지난 20일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만났다.<br/>무릎 꿇는 일은 일어서기 전에 하는 것이다<br/>둥그스름한 얼굴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이씨는 앳돼 보였다. 이씨는 전날부터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며 청계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br/>-신학생은 시위를 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크리스천도 있어요.<br/>“기도는 행동하기 전에 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조용히 홀로 기도하셨어요. ‘노동운동의 대모’ 조화순 목사는 발로 하는 신학이란 말씀을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은 발로 일어서서 움직이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무기로 여기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br/>-일부 교회 안에는 사회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br/>“한국교회는 빈곤 사역을 많이 해요. 노숙인들에게 밥도 열심히 해주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왜 줄지 않는지, 왜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다시 올라가기 어려운지 사회 구조에 대해 얘기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떡만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마 6:10)고 말씀하셨지요.”<br/>-‘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데 많은 사람이 놀란 것 같습니다.<br/>“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구호를 쓸 수 있을까요. ‘정권 퇴진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br/>-불법 시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되진 않나요.<br/>“동상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오를 때 떨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일단 올라가니 다른 생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국민들의 분노를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로 외쳐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벌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생각이에요. 어떤 구호든 외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br/>-왜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갈 생각을 했나요?<br/>“세종대왕은 ‘백성의 분노는 정당하다. 분노의 책임은 왕에게 있다’고 했던 왕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결하길 바라요. 며칠 전 담화는 실망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체를 유가족이 원하셨을까요? 진상을 알기 원하고 재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br/>-가족, 교회, 학교의 반응은 어땠어요.<br/>“어머니가 처음엔 많이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격려해주시고, 아버지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고생했다고 간장게장 등 반찬을 싸주셨어요(미소). 교회사를 가르치는 하희정 교수님은 매주 내야 하는 페이퍼를 면제해주고, 다른 학우들에게는 우리가 낸 성명을 읽고 소감문을 쓰라고 하셨어요. 물론 같이 올라간 친구 중에는 고향에 끌려간 애도 있고 용돈 끊긴 애도 있어요.”<br/>하나님은 ‘나중 온 사람’에게도 같이 주신다<br/>-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에 참여하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br/>“1학년 신학과 강의 중 ‘포도원의 품꾼들’(마 20:1∼19)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일꾼 모두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삯을 줍니다. 흔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화로 쓰이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富)는 불균등하죠. 출발선이 다릅니다. 일정 수준의 삶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부를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복지제도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제 관심을 아는 한 선배가 도빈을 소개해줬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집회에도 자주 참여했어요.”<br/>-세월호 참사와 체제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br/>“그 큰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월 270만원 받는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그 선장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어떤 자리에나 비정규직을 앉히는 것은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상당수 규제 철폐도 이와 연관된 것이 많아요.”<br/>-국가가 자본가를 대변하는 기구가 되고 있다는 성명 문구가 떠오르네요.<br/>“(웃음) 도빈에서는 매주 한 차례 책을 읽고 토론해요. ‘빈곤을 보는 눈’ ‘신자유주의와 종교’ 같은 사회과학 서적도 보고 이현주 목사님의 ‘나의 어머니 나의 신앙이여’ 같은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요. 어릴 때는 문학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와 같은 좋은 책을 많이 권해주셨어요. 저는 소설도 20여편쯤 썼습니다.”<br/>-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br/>“목회자세요. 경기도, 강원도 시골에서 계속 목회를 해오셨어요.”<br/>-아버지를 따라 신학과에 진학한 건가요.<br/>“그런 셈이죠. 어릴 땐 목사 되라는 말이 싫었는데, 아버지처럼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 목회자만큼 좋은 직업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아버지 모습이 좋아요.”<br/>-목회자가 되겠군요.<br/>“그러려고 (감신대에) 입학했는데 그건 모르죠. 비정부 기구(NGO)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br/>헤어질 무렵 이씨는 운동화 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혔다.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아들을 어떻게 보실까. “<span class='quot0'>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span>”(눅 3:22)<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8.txt

제목: 암 유전자 변이 새 검색엔진 개발… 박종철 교수 연구팀, 암 정복 도움  
날짜: 20140523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3100000097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유발 유전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개발했다.<br/>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종철(사진) 교수 연구팀은 암 유전자에 특화된 검색엔진 ‘온코서치’(oncosearch.biopathway.org)를 개발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2일 밝혔다. 암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과거 연구결과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검색엔진 개발로 암 정복을 위한 연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br/>국제적으로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수많은 생물학·의학 연구가 진행됐고 그 데이터베이스(DB)가 300만건에 이른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확한 자료를 찾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온코서치를 이용하면 모든 논문에서 1700종 이상의 악성 종양과 7500여개의 유전자 관련 문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각 유전자가 암 진행에 기여하는 정도를 문장구조 분석과 추론을 통해 명확한 표현이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장점이다.<br/>이번 성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9일자에 실렸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699.txt

제목: 암 관련 유전자 정보 검색엔진 ‘온코서치’ 개발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3100000181  
본문: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종철 교수팀, 300만건 정보 쉽게 검색 가능<br/><br/>[쿠키 건강] 국내 연구진이 암 관련 유전자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특화된 검색엔진을 개발했다. 메드라인에 탑재된 300만 건에 육박하는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연구문헌을 통해 암-유전자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br/><br/>카이스트(KAIST) 전산학과 박종철 교수팀이 지스트(GIST) 이현주 교수와 함께 수행한 이번 연구는 언어학, 컴퓨터공학, 생물학 및 의학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융합연구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 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5월 9일자에 게재됐다.<br/><br/>암은 수천 개 이상 유전자의 비정상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호전달 체계 교란이 주요 원인으로, 암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변화와 암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연구팀은 의학 및 생물학 연구문헌에서 유전자의 발현량 변화와 유전자 변화에 따른 암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문장을 찾아내는 검색엔진 온코서치(OncoSearch, http://oncosearch.biopathway.org)를 개발했다.<br/><br/>온코서치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인 사건 정보 추출 시스템과 엔트로피 분류기를 사용해 문장의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 유전자 발현량의 증감 및 암의 진행상태를 파악하도록 했다.<br/><br/>기존의 암 관련 유전자 정보 수집 기법들과는 달리, 암 관련 유전자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oncogene, tumor suppressor 등)이 없어도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br/><br/>또한 메드라인에 등재된 모든 논문에서 1700종 이상의 악성종양과 7500개 이상의 유전자에 관한 문헌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 연구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br/><br/>박 교수는 “온코서치가 첨단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사용해 연구문헌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암 관련 유전자 정보를 검색 가능하게 한다. 향후 자동 추론기술 등을 통해 암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0.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 수상  
날짜: 201405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3100000215  
본문: [쿠키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최근 ‘2014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br/><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2일 서울컨벤션 일루미나홀에서 열린 ‘제16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여성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br/><br/>지난 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br/><br/>기업과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여성소비자 대상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br/><br/>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및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br/><br/>특히 이대여성암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 병동 등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혁신적인 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여성암 환자의 큰 호응을 받음으로써 의료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br/><br/>이순남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암 질환 치료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1.txt

제목: 안젤리나 졸리, 癌 걱정 때문에…유방 이어 자궁적출수술 예정  
날짜: 201405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3100000259  
본문: [쿠키 연예] 지난 2월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39)가 이르면 올해 안에 같은 이유로 자궁적출수술까지 받을 예정이란 소식이 알려졌다.<br/>졸리가 발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그의 유전적 영향으로 자궁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br/>앞서 그는 지난해 5월에는 유방암을 막기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았다.<br/>졸리는 스타일리스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나의 어머니는 유방암, 자궁암에 모두 걸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내게도 유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궁적출수술을 준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프랑스 여배우였던 졸리의 어머니 마르슐랭 베르트랑은 실제로 자궁암과 유방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2007년 사망했다. 지난해 5월에는 졸리의 이모 데비 마틴도 유방암으로 숨졌다.<br/>한편 졸리는 사실혼 관계인 브래드 피트와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2.txt

제목: 항암 치료 부작용, 옻나무 추출물로 극복  
날짜: 201405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185  
본문: [쿠키 건강] 60대 여성 김모씨는 폐까지 전이된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이 모두 불가하다고 진단,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구용 항암제고, 표적치료제라는 말을 들었기에 큰 부담 없이 치료에 접근했지만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다.<br/><br/>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구토, 설사 등은 물론이고 손끝이 아프고, 마디마다 누런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너무 심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었다.<br/><br/>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들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작용이 어떤지는 환자가 아니고서는 체감하기 힘들다.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br/><br/>김씨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기로 결정했다.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병행치료를 통해 부작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약재가 간에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망설였지만, 전문 한의사와의 상담 이후 생각을 바꿨다.<br/><br/>김씨의 한방암치료를 담당한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많은 환자들이 한약재가 간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일부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해당 질환을 잘 알고, 해당 한약재를 잘 아는 전문가는 이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박 원장은 대한암한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 암 치료제를 복용한 암 환자에서 간기능검사 결과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br/><br/>일부에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한약재들은 혈류를 통해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오히려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의학에서 항암치료 부작용에 활용하는 많은 약재들이 그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br/><br/>옻나무 추출물의 한약재명은 건칠(乾漆)로,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을 지닌 대표적인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3.txt

제목: [질환 바로알기-가족력 질병] 가족력 통해 내 건강 살핀다  
날짜: 201405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273  
본문: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 검진으로 질병 조기 치료<br/>[쿠키 건강] 질병에도 가계도가 존재하며, 이를 ‘가족력’이라고 부른다.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3대 가족 건강만 살펴도 나의 미래 건강 예측이 가능한 셈. 가족력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전혜진 교수(사진)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본다.<br/>◇발병률 증가시키는 가족력 질병 알기<br/>보통 가족력과 유전성 질병을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르다.<br/>유전성 질환은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이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상 유전자의 전달 여부가 질병의 발생 유무를 결정짓는다. 다운증후군이나 붉은색과 녹색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적녹색맹, 혈액 내 혈소판이 부족하여 출혈이 잦은 혈우병 등이 대표적이다.<br/>반면 가족력은 흡연, 음주, 음식 등의 생활습관과 주거환경, 직업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가족력 질병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로 예방할 수 있고 발병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br/>대표적인 가족력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골다공증, 심장병, 탈모, 암 등이 꼽힌다. 심장병은 가족 중 환자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br/>당뇨병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당뇨가 있어도 자녀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부모가 모두 당뇨병일 때 자식에게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30~40%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부모 모두 정상일 때 자녀의 발병률은 4%에 불과하지만 부모 중 한쪽이 고혈압일 때 30%, 양쪽 모두 고혈압일 때 50%까지 발병률이 증가한다.<br/>하지만 발병보다 위험한 것은 조기 치료를 놓쳐 겪는 추가 질환이다. 전혜진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큰 원인이 되는데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 쉽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pan>”고 설명했다.<br/>암의 경우는 유방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위암이 대표적이다. 국제 암학회지에 따르면 부모가 암일 경우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배에서 5배 정도 높았으며,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r/>암이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그리고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br/>◇발병률 높은 질병 관리는 남들보다 빨리,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야<br/>가족력이 있다면 취약한 질병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br/>전혜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규칙적인 검진으로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은 과식하지 않고 싱겁게 먹기, 절주, 금연과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이후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어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의 경우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55세 이전에 성인병이나 암이 발생한 가족이 있다면 정기검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4.txt

제목: 대전성모병원 “암통증 극복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날짜: 201405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331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암 극복 캠페인-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캠페인은 병원 9층 상지홀에서 대전성모병원 종양혈액내과 양영준 교수의 ‘암환자 통증 관리’란 주제의 강의를 비롯해 1층 로비에서 통증에 관한 OX 퀴즈, 암성통증 관리 안내 책자배부, 병동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br/>양영준 대전성모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현대의학에서 암성통증은 97% 조절이 가능하지만, 암치료 중통증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환자분불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적극적인 통증조절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5.txt

제목: 미국임상종양학회 50주년, 항암치료신약 3상 데이터 대거 공개  
날짜: 2014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208  
본문: 2014 ASCO 1주일 앞으로…주목해야 할 연구는?<br/><br/>[쿠키 건강] 올해 50주년을 맞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사상 최대 규모의 항암신약 데이터가 쏟아질 전망이다.<br/><br/>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2만5000여 명의 종양 전문가가 참석해 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전략과 함께 새로운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대거 소개된다.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암정복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의 도전과제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세션도 마련됐다.<br/><br/>지난 14일에는 학회 개막에 2주 앞서 약 5000건의 연구 초록이 공개됐는데, 이날 공개된 예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올해 ASCO에서 주목할만한 연구들을 살펴봤다.<br/><br/>◇대세는 표적치료제, 암세포만 골라잡는다!<br/><br/>글리벡이 출시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암 환자 치료에 있어 대세는 표적치료제다.<br/><br/>ASCO는 3세대 EGFR 타이로신키나아제억제제(TKI)인 아스트라제네카의 'AZD9291'에 주목했다. AZD9291은 1상임상 결과 EGFR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성폐암(NSCLC) 환자의 51%에서 종양수축 효과를 입증했고, 그 중에서도 EGFR T790M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전체반응률(ORR)이 64%에 달했다(95% CI; 53%, 74%). 자세한 결과는 대회 둘째날인 31일 Clinical Science Symposium의 폐암 섹션에서 발표된다(Abstract #8009).<br/><br/>그 밖에도 Late Breaking Session을 통해 다양한 표적치료제가 성적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br/><br/>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PARP 억제제인 올라파립 단독요법과 올라파립 + 세디라닙의 2제요법을 평가한 2상임상 결과는 두 표적치료제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Abstract #LBA 5500). 이미 올라파립은 BRCA 변이가 있는 백금 기반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최근 FDA의 우선검토 승인을 받았고, 세디라닙은 ICON6 3상임상을 통해 동일 환자군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시 전체생존기간(OS) 및 무진행생존기간(PFS)에 대한 유의한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br/><br/>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서 도세탁셀 + 라무시루맙의 병용 효과에 대한 REVEL 3상임상(Abstract #LBA8006)과 재발성 또는 불응성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노인 환자에서 이브루티닙과 오파투무맙을 비교한 3상임상의 중간분석 결과(Abstract #LBA7008), 방사성요오드-불응성 분화갑상선암에 대한 렌바티닙의 SELECT 3상임상 결과도 나온다(Abstract #LBA6008).<br/><br/>◇떠오르는 샛별, 면역항암조절제!<br/><br/>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항암요법에 대한 연구 성과도 기대되는 토픽이다.<br/><br/>최근 3상임상을 개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조절항암제 MEDI4736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트레멜리무맙과의 병용 효과를 평가한 1상임상 데이터가 ASCO 기간 중인 6월 2일에 공개된다.<br/><br/>같은 날 Late Breaking Session에서는 재발 위험이 높은 3기 흑색종 환자에 대한 이필리무맙 보조요법의 3상 데이터(Abstract #LBA9008)와 진행성 흑색종 환자에서 항PD-1 항체인 니볼루맙 + 이필리무맙의 병용 효과(Abstract #LBA9003)와 함께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HPV 타깃 입양면역치료(adoptive T-cell therapy)의 효과를 평가한 초기 임상 결과(Abstract #LBA9008)도 확인할 수 있다.<br/><br/>향후 면역조절항암제가 암환자 치료의 새로운 표준요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6.txt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예고… 12월부터 장애급여·사망보상금  
날짜: 20140522  
기자: 태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072  
본문: 부산에 사는 김모(38·여)씨는 2010년 감기몸살로 약국에 갔다. 감기약을 사먹었는데 오히려 고열이 나고 온몸이 심하게 가려웠다.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처방받은 약도 증세를 더 악화시켰다. 검사 결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이란 진단을 받았다. 전신에 물집이 생겨 환자의 10% 정도는 목숨을 잃는 이 병은 약물 알레르기 때문에 생긴다. 김씨는 증상이 눈에 전이돼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이듬해 10월 국가와 제약사 등을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br/>이렇게 환자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생겨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장애급여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br/>12월부터 시행될 이 규정은 제약사가 제대로 만든 약을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하고 환자도 복용수칙을 잘 지켰는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용된다. 항생제를 먹고 발진이 생기거나 해열진통제 때문에 간에 손상을 입는 등의 피해도 구제 대상이다. 식약처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이상의 부작용 환자가 연간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r/>피해자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보건의료·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 사망 보상금은 최저임금의 5년치, 장애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단,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한 약,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구제 비용은 제약사들이 내는 기본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등으로 조달된다.<br/>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7.txt

제목: “초여름 더위… 애슐리 보양메뉴로 달래세요~”  
날짜: 201405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165  
본문: 애슐리, 두부-연어 보양 메뉴 ‘눈길’ [쿠키 생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심한 일교차는 신체 신진대사의 변화를 야기해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고 기력이 떨어지기 쉽다. 더구나 한낮의 기온이 25℃ 내외까지 올라가면서 때 이른 여름 더위까지 가세했다. 이렇다 보니 여름 관련 상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도 일찌감치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삼계탕 조기판매에 돌입하는 등 여름 마케팅 전쟁이 벌써부터 불 붙었다. 이뿐 아니라 외식업계에서도 변화된 신 풍속도에 맞춰 피로 회복과 기력보충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색풍경 중 하나다. ◇고단백 저칼로리 ‘두부’, 고함량 비타민 B군으로 피로회복= 과거에는 여름철 기력보충 음식으로 삼계탕, 장어구이와 같은 고단백 고열량 음식이 대표메뉴였다. 하지만 이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의 일이고, 요즘에는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다보니 이렇게 고단백 고열량 음식을 보양식으로 챙겨 먹다가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알맞게 섭취해 몸의 ?<br/>綏?회복에 도움을 주느냐가 관건이다.<br/>몸을 보호해주고 입맛을 돋우고 기력보충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 저칼로리 ‘두부’가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다. 몸속에서 생성되지 않는 특성상 피로가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은 비타민 B군을 필요로 한다. 두부는 피로 회복에 탁월한 비타민 B군이 함유돼 있을 뿐 아니라 체내의 신진대사와 성장 발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품이다.<br/>이에 아메리칸 그릴&샐러드 애슐리에서는 고소한 부침 두부에 새송이 버섯과 구운 파프리카를 올린 ‘두부&베지터블 팬케이크’를 선보였다. ‘두부&베지터블 팬케이크’는 담백한 두부에 수분, 섬유소, 비타민 등이 풍부한 새송이 버섯과 비타민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파프리카가 함께 어우러져 영양 밸런스를 고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색감과 식감 모두를 사로잡는 보양식 메뉴 중 하나다.<br/>◇면역력 강화시켜주는 연어와 비타민 C의 조화, 연어 유자 샐러드= 미국 타임지는 연어를 10대 슈퍼푸드(super food)로 선정한 바 있다. ‘슈퍼푸드’란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내 유해산소를 억제해 암, 고혈압, 노화 등의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특히 연어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힐링푸드로 연어의 오메가3 성분이 항우울 효과가 있는 두뇌 화학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연어에는 풍부한 비타민 A, D, B6, 고급 단백질, 셀레늄, 요오드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여름 동안 지치기 쉬운 피부 상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어를 사용한 애슐리의 ‘연어 유자 샐러드’는 부드러운 훈제연어 위에 새콤한 유자드레싱으로 버무린 참나물을 올린 샐러드로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연어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D의 경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한 마리당 칼로리가 100~1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양식으로 살찔 것을 염려하는 여성들에게 맞춤식 메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타민 C가 레몬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유자 드레싱을 곁?<br/>涌?애슐리 스타일의 여름철 보양메뉴로 변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8.txt

제목: 의약품 부작용, 제약사 부담으로 보상  
날짜: 201405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2100000243  
본문: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br/><br/>[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br/><br/>이번 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마됐는데 ▲제약사 부담금 산정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br/><br/>우선 제약사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 기본부담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하며, 부담액은 제약사 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1만분의 6) 이내로 정했다. 또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100분의 25)이다.<br/><br/>부담금 징수·운영 및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게 되며 징수된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br/><br/>피해구제급여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해 질병·장애·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을 조사·규명해 피해 유형 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다만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약국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 등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br/><br/>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부작용피해와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원인 규명 등의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게 된다.<br/><br/>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br/><br/>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며,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09.txt

제목: 을지대병원, 시집 30권 기증 받아  
날짜: 201405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1100000365  
본문: [쿠키 건강] “<span class='quot0'>지금 당신 곁으로 가지 못해도 먼 훗날 먼저 간 당신이 부르면 그 때, 웃으면서 당신 곁으로 가렵니다.</span>” -시집 ‘먼 훗날’ 중 ‘섧다’의 일부<br/><br/>시집 ‘먼 훗날’의 저자 한정민 씨가 을지대학교병원에 자신의 시집 30권을 기증했다.<br/><br/>시집 ‘먼 훗날’은 암 투병중인 아내를 위해 남편 한정민 씨가 기록한 것으로 아내의 죽음 이후의 외로운 삶도 적혀있다.<br/><br/>한 씨는 아내가 항암주사를 맞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가슴팍 동맥에 주사바늘을 꽂았을 때, 헤어짐을 준비할 때, 그리고 세상과 이별을 고할 때, 병마와 싸워 이겨주길 바라는 간절함, 실낱같은 희망을 바라는 절실함, 아픔 같은 것들을 시로 표현했다.<br/><br/>자신의 이야기가 암과 싸우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는 한 씨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이야기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아내도 이런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br/><br/>한 씨가 기증한 책은 을지대학교병원 각 병동마다 비치돼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동병상련의 정과 아름다운 희망을 전한다.<br/><br/>황인택 을지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1'>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여진 시인 만큼 을지대학교병원 환자와 보호자들 마음에 큰 울림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뜻 깊은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0.txt

제목: 완화의료 전문가들 모여 효과적인 암성통증관리 논의  
날짜: 201405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1100000371  
본문: [쿠키 건강] 암성통증관리 활성화를 위해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모였다.<br/><br/>지난 19일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과 경기 서남권역 완화의료전문기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고려대 구로병원 암병원에서 모여 통증관리 위한 치료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br/><br/>고려대 구로병원 김정은 교수와 아주대병원 이현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약물/비약물 치료요법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안양샘병원 전인치유교육훈련원장 김도봉 목사의 영적 및 전인치유에 대해 설명했다.<br/><br/>더불어 이날 각 병원 별 진행되는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진행됐다.<br/><br/>최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의료진들이 암 환자의 통증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통증관리가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캠페인이 의료진들의 통증조절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백세현 고려대 구로병원장은 “<span class='quot1'>이번 캠페인을 통해 통증으로 고통 받는 암 환자들의 삶을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자들이 마음까지 위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통증 관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1.txt

제목: 언어장애 극복 이상윤 부경대 교수의 세상 사랑법 “제2 세월호 슬픔 더이상 안돼”  
날짜: 20140521  
기자: 유영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1100000125  
본문: 해상재난 예방기술 4건 특허 출원<br/>이상윤(40) 부경대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겸 공간정보연구소장은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 8년 전 암과 싸우며 얻은 상흔이다. 그는 최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해상재난 예방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br/>세월호처럼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재난발생 정보를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지시받을 수 있는 기술, 과적과 평형수 부족, 과속 등의 징후를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통제센터에 전달하는 기술, GPS와 통신위성을 이용해 선박의 위험을 알리고 자동으로 통제하는 공간정보기술 선박긴급방재시스템 등 4건이 그가 개발한 신기술이다. 그는 이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br/>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공익을 위해 내놓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역경을 이겨낸 그의 삶과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국립대 교수로서 왕성한 연구실적을 자랑하지만 그의 삶은 간단치 않았다.<br/>대학 졸업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는 2006년 왼쪽 눈 아래와 입천장 사이인 상악동에 악성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암이 3.5기까지 진행돼 생존확률이 10%에 불과하고 했다. 어릴 적 신부산교회와 수영로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그는 살려 달라고 울며 기도했다. 그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br/>고통스런 항암치료에 이어 왼쪽 광대뼈를 모두 들어내는 수술까지 받았다. 암세포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왼쪽 얼굴이 함몰됐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안면기형과 언어장애의 시련이 한꺼번에 덮쳐온 것이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가나다라’를 수없이 반복하며 발음을 교정했다.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학문을 향한 꿈을 키웠다.<br/>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던 그는 2007년 모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이학박사과정에도 진학했다. 2012년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언어장애인으로는 국내 최초로 국립대 교수에 임용됐다. 최근 공공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해 오는 7월 이학과 공공정책학 2개의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다.<br/>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쉬운 건 아니었다. 몇 시간씩 공부하고 강의하다 보면 광대뼈 대신 보철을 한 곳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곤 했다. 그러나 그의 ‘공부’ 열정은 석·박사 학위과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영어공부를 위해 2007년 영남사이버대 실용영어과 3학년에 편입한 뒤 졸업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등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던 그는 같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도 마쳤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YMCA의 교육위원으로 봉사하는 등 사회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저주하며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됐으니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말씀하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2.txt

제목: ‘의료 한류’… 2013년 외국인 환자 20만 돌파  
날짜: 20140521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1100000135  
본문: 러시아 여성 A씨(38)는 20년 넘은 결혼생활에도 임신을 못해 고통 받는 처지였다. 러시아 의료기관에서는 불임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정보를 얻었고, 올 초 한국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원인을 찾아냈고, 치료 과정을 거쳐 시험관 아기로 임신에 성공했다.<br/>A씨처럼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이 5년 동안 3.5배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수입은 7.2배나 늘었다. 중국인(5만6075명) 미국인(3만2750명) 러시아인(2만4026명) 일본인(1만6849명)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br/>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진료기관이 제출한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91개국 21만1218명의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수입은 3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가 6만201명, 진료수입은 547억원이었던 2009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br/>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은 중국인들은 주로 20, 30대로 미용 목적이 많았다. 중국인 환자 4명 중 1명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이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한동우 팀장은 “<span class='quot0'>한류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성형외과 시술·수술이 뛰어나다고 중국에 입소문이 퍼져 있다</span>”고 분석했다.<br/>미국인들은 의료 수준이 높으면서 미국보다 진료비가 싸다는 이유로 증가 추세다. 러시아인은 암·심혈관 등 중증 질환자들이 많다. 진료 수입은 중국(1016억원·25.8%)과 러시아(879억원·22.3%)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다.<br/>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정부 간 환자송출 협약을 맺은 이후 UAE 환자도 크게 늘었다. 2012년 342명에서 지난해 11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UAE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771만원으로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86만원의 9.5배나 됐다.<br/>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진료는 내과(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11개 내과 진료과목 통합)였다. 지난해 6만8453명(24.4%)이 내과 진료를 받았다. 이어 검진센터(2만8135명·10.0%) 피부과(2만5101명·9.0%) 성형외과(2만4075명·8.6%) 산부인과(1만5899명·5.7%) 순이었다.<br/>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한국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제는 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비용 때문에 통역 문제나 기호에 맞는 환자식 제공 등 체계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팀장은 이밖에도 “<span class='quot0'>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강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 브로커 근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3.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면역력 증강으로 항암부작용 줄여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183  
본문: [쿠키 건강] 우리나라 암 발병률은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항암치료를 받는 상당수의 암 환자들에게서 기력저하, 손발저림, 탈모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r/><br/>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과정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으로 암세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저하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br/><br/>한방면역암치료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해주는 한방치료법으로,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면역기능을 증강시켜 항암효과를 높이고 전이재발을 억제한다.<br/><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대표원장은 “환자의 면역력저하, 체질, 기력의 상태 등에 따라 항암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항암치료효율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항암치료와 한방 암 면역치료를 병행해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br/><br/>부산지역에서 통합면역암치료를 시행하는 방선휘한의원에서는 항암부작용으로 인한 손발저림, 림프부종, 개구장애등 항암부작용집중관리 프로그램(면역약침, 온열뜸치료,에어마사지, 오일림프마사지, 비훈치료, 개별맞춤 면역탕제)을 제공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4.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국립암센터 5월 28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外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5  
본문: 국립암센터 28일 국제심포지엄 개최<br/>국립암센터는 오는 28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Seeing is Believing and Beyond’ 주제로 개원 13주년 기념 ‘제8회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탠퍼드대 크리스토퍼 컨택 박사, 샌프란시스코주립대 데니얼 비그네론 박사, 가천의대 조장희 박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PET-MRI와 분자영상을 포함한 초정밀 영상기법을 통한 암 진단법, 영상유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신기술 등이 소개된다.<br/>복지부, 직·결장암 치료제 비용 고시<br/>최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에 대해 월 투약비용을 약 450만원(건강보험 적용시 환자 부담 약 23만원, 월 기준)으로 결정했다. 또한 다발성 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은 월 투약비용 약 600만원(건강보험 적용시 환자 부담 약 30만원, 월 기준)으로 산정했다.<br/>두경부종양학회 30주년 학술대회<br/>대한두경부종양학회(회장 소의영)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두경부종양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영수 학술위원장(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과,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분야의 세계적 두경부종양학 석학들이 모여 다학제 연구와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이화의료원, 난치성 여성암 정복 나서<br/>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가 2014년 보건복지부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연구센터는 2016년까지 60억원을 지원받아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상용화에 나선다.<br/>서울아산병원 22일 부인암 치료 강좌<br/>서울아산병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최신 치료’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는 산부인과 김대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조기진단법과 최신 치료법을 소개한다(문의: 02-3010-3051∼4).<br/>시각장애인 위한 암예방 점자책 발간<br/>국립암센터는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암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은 시각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개선 차원에서 올바른 암 정보 인식과 암 예방 실천 수준 향상을 위해 출간됐으며, 국민 암 예방 수칙,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수록됐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5.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분당서울대 이정렬 교수 “젊은 여성 암환자 임신 가능성 열었죠”  
날짜: 201405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7  
본문: “이제는 암 치료 이후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도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조직 냉동보관을 통해 임신이 가능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는 “여성 암환자의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 난소조직을 동결로 보관해 추후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서창석·이정렬 교수팀은 최근 난소 조직 동결의 새로운 방법인 유리화 동결시 난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동결법을 발표했다.<br/>젊은 여성이 암에 걸리면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다.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난소가 손상돼 임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가임기 암환자에서 치료와 동시에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은 암환자 부부에게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다. 가임력 보존 치료는 젊은 여성 암환자들이 암 치료 후에도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만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이전에 시행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동안 암환자의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배아·난자 동결보존법이었다. 그러나 소아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암 치료가 시급해 과배란유도법을 통해 난소를 채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br/>이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난소 조직 동결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난소조직 동결은 과배란 유도가 필요 없어 초경 전 여성과 미혼 여성에도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항암치료의 연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강조했다. 이 방법은 난소조직을 처리 동결한 후 몇 년 뒤 암 치료가 끝나고 동결 보존됐던 난소를 환자에게 재이식해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난소조직은 난자·배아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도 많다. 이에 조직 전체를 동결하고 해동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발히 시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교수팀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에 착수해 성공했다.<br/>난소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은 배꼽에 구멍 하나만 뚫어 수술하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로 진행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소요 시간도 10분 정도로 간단하다</span>”고 설명했다. 일단 난소조직을 떼어낸 후 동결이 되고 나면 초저온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보존돼 동결보존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성공적으로 이식된 난소조직의 수명은 평균 4∼5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생존기간 동안 자연임신이 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5년간 40억원을 지원받아 난소조직 동결, 정원줄기세포 등을 연구하는 정부지원 가임력 보존 연구의 책임 연구기관으로, 현재 국내 가임력 보존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렬 교수는 “<span class='quot1'>이 과제의 목표는 암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 프로토콜을 전국의 거점 병원으로 기술 이전해 한국인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 수준의 가임력 보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치료 후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환자들에게 힘든 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임력 보존 치료를 통해 암 치료 후의 행복한 삶을 가꾸시길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6.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주파온열치료 ‘제4의 암치료’ 각광  
날짜: 201405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9  
본문: 최근 제4의 항암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치료’. 온열암치료는 암 치료의 기본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회장 정태식·고신대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지난 2010년 6월 설립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온열암치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의 의료진 5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온열암치료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다양한 암종과 암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열치료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해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원리로, 암세포가 일반세포보다 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세포 주변 온도를 42도가량으로 높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또 최신 고주파 온열암치료시스템의 첨단 핵심기능을 활용해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태형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항암제를 투여 받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물론이고 암이 재발됐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곤란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기존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시 보다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고주파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장비(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 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한다.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유성선병원, 제주중앙병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7.txt

제목: [암과의 동행] 2013년 암환자 중 우울증 6600여명  
날짜: 201405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4  
본문: 암 유병자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기술 역시 혁신적으로 발전해 이제는 암에 대한 인식도 과거 ‘무조건 죽는 병’에서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암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다. 이 때문에 타 경증 질환자에 비해서도 정신건강이 더 위협받는다. 특히 질환치료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정신건강은 방치되기 쉬워 치료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177명(남자 1만2686명, 여자 1만749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가 자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6657명으로 나타났는데 남성(2703명)에 비해 여성(3954명)이 더 많았다.<br/>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한국인 암 예방연구 대상자 238만4045명 대상)에 따르면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 비해 암 진단 6개월 미만인 집단에서 자살위험도가 남성 2.6배, 여성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살위험도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암 발생 후 1년 증가할 때마다 자살 위험도는 남성 11%, 여성 1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br/>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암 진단 1년 전, 암 진단 후 기간별로 우울증 관련 외래 이용과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울증 관련 외래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암 진단 전 1년 동안 우울증 관련 외래를 이용한 대상자의 자살 위험도가 남성 1.85배, 여성 7.03배 높았다. 이를 암 진단 전후 우울증 관련 약물 처방과 관련성으로 분석했을 때 우울증 관련 외래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암 진단 전 1년 동안 우울증 관련 외래를 이용한 대상자의 자살 위험도가 남성 1.48배, 여성 1.64배 높게 나타났다.<br/>또 암 진단 후 외래 이용을 자살 위험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래 이용을 조기에 받은 경우의 자살 위험비가 남녀 모두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1개월 이내에 치료한 경우 남성은 0.93배, 여성은 0.73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암 진단 후 조기에 우울증에 대한 사정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br/>암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2011년 310명의 국립암센터 암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한 결과 67%의 보호자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 증세를 갖고 있었으며, 우울 증세가 극심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3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br/>이는 간병으로 인해 보호자에게 많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는 암환자 가족 간병인들 중 1.7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실제 자살 시도를 한 경우도 10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한편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전문 상담원들이 정신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8.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광역학 치료’ 연구에 몰두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4  
본문: 고(故) 이선규 동성제약 명예회장은 암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집념이 남달랐다. 특히 이 명예회장은 고통 없는 암 치료와 희망을 주는 의약품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다. 이러한 유지를 받아 이양구 대표는 암 치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광역학 치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br/>광역학 치료는 약물과 빛의 조합에 의한 치료로 우연한 기회에 광과민물질이 처음 개발된 이후, 폭넓은 임상적 사용을 위한 광과민제의 추가 승인과 더불어 다양한 부위의 종양에 대한 임상적 성공이 현재 확인되고 있다. 광역학 치료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요법과 다르기 때문에 단독 치료 또는 기존 치료법과의 병용 모두에서 효과를 보인다. 방사선 치료와 달리 반복적인 주입과 치료가 가능하며 정상조직을 보존하기 때문에 향후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br/>광역학 치료는 1903년 피부암의 치료에 처음 사용된 이후 최근에는 위암, 대장암 등의 소화기계 암과 유방암에까지 적용돼 비교적 좋은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2003년 처음 러시아에서 개발된 광과민제 포토젬(Photogem)이 소개된 이후 일부 병원에서 한정된 적응증에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하나의 광과민제만이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세대 광감제는 주사 48시간∼72시간 후 레이저 시술하며 약 40∼50일의 차광시간이 필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의 깊이도 약 4mm에 불과한 반면 동성제약에서 도입한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은 주사 3시간 후에 레이저 시술하며 최대 3일이면 퇴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종양의 깊이도 18mm에 달한다. 1세대 광감제에 사용하는 레이저 조사기는 파장이 630nm로 665nm가 필요한 2세대 광감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제약은 지난 2012년 10월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UPL-FDT를 허가받았다.<br/>회사는 이미 광역학 기술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이를 보완, 허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4차 세계광역학 학술대회에서 회사의 광역학 치료 기술을 발표했다. 또 피부기저세포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상피내종양 등의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제약은 광역학 치료 외 음향역학치료(SDT), 저출력 레이저 광선요법(LLLT) 또한 준비하고 있다.<br/>한편, 동성제약은 지난해 말 ‘광과민제 및 아연 프탈로시아닌 나노선을 사용하는 광역학 항암 치료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제는 동성제약과 안웅식 원광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중기청 지원과제 선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약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br/>이와 관련해 이양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광의학 치료용 광감각제 연구와 관련해 최근에는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NT) 기술 등의 융합 의료 개발기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광의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광의학적인 암의 조기진단과 함께 광의학적인 암의 치료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스마트폰 앱 “암환자 건강관리 도와드려요”  
날짜: 201405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1  
본문: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되고 있다. 기본적인 질환 설명부터 치료 일정 관리, 치료 후 관리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특히 치료도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운 암의 경우는 이 같은 앱이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앱이 개발돼 있어 나에게 맞는 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대형병원에서는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어 눈길을 끈다.<br/>삼성서울병원에서 만든 ‘건강다이어리-암환자수첩’은 △일정(치료나 검사, 외래 등의 일정 관리) △암치료의 이해(병원이 제공하는 암에 대한 검증된 정보) △치료 후 관리(치료 후 생활관리 방법과 꼭 필요한 연락처) △나의 다이어리(나의 다짐과 심신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br/>서울대병원 ‘내게 맞는 암정보’는 서울대암병원의 교수들이 직접 개발, 감수한 최신의 암정보로 △암종별 의학정보(각 센터의 교수들이 수많은 암환자를 진료하면서 체감한 의료진 강조사항을 포함해 암치료 여정 중 유의해야 할 사항 제시) △통합 암관리 정보(서울대병원의 다년간에 걸친 암환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관리, 영양, 장기건강관리 등 암환자에게 필요한 암 관리 정보) △애니메이션 동영상(암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시술, 수술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설명해 불안감 해소) △QR cord reader(서울대암병원에 있는 무인안내시스템 ‘스마트도우미’와 암종별 리플렛의 QR코드를 촬영해 서울대암병원 홈페이지의 해당정보에 바로 접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br/>서울아산병원의 ‘나의 항암수첩’은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 관리 및 치료 일정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앱으로 △증상관리(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 및 증상의 단계별 대처방법-애니메이션 형식) △나의 항암수첩(외래 예약일, 검사일정, 개인 메모 기능) △항암제 정보(항암제 주요 부작용 및 대처방법) △자주 하는 질문(치료, 보험적용, 일상생활 및 식생활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병원에 연락해야 할 위험 징후(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위험징후에 대한 정보) △암극복 체험수기(서울아산병원 암환자들의 암극복 체험수기) △암센터 교육일정표(서울아산병원 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치료에 도움의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br/>소아암만으로 특화된 앱도 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 정보’는 진단명별 소아암 정보(악성림프종·소아백혈병 등 15종)와 간병을 위한 도움정보(간병 가이드, 소아암학생 지도 가이드 등 6종) 등을 제공한다.<br/>‘소아암 수첩’은 양현재단, 서울아산병원, 엔씨소프트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개발한 소아암 환아 부모들을 위한 치료 일정관리 앱으로 △내 캘린더(외래·검사일정, 중심정맥관 관리, 감염주의기간 제공) △사진일기(매일 투병기록을 사진과 함께 기록) △검사결과 관리(주요 혈액검사결과를 입력하고 그래프로 확인) △치료일정(외래·검사·입원, 중심정맥관 소독 및 세척 일정 기록-알람 기능) △투약일정(복용중인 약을 기록하고 관리) △항암치료 관리(항암제 치료 차수 및 투약기간 입력·관리, 저균식 가이드 및 항암제 부작용 관리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br/>암예방을 위한 앱도 있는데 ‘유방자가검진 내가슴愛’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방암의 이해와 현황, OX퀴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항병원은 대장·항문 자가진단 앱 ‘DH Self Test’을 제공하고 있다.<br/>이외에도 ‘국가암정보센터 ebook’은 국립암센터와 국립암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암관련 교육자료 및 소책자 등을 한곳에 모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암검진 ebook’은 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발행하는 ‘암검진 질 지침’을 비롯해 국가암검진과 관련된 발행물을 한곳에 모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0.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연세암병원 손주혁 교수 “검증되지 않은 식품 복용, 치료시기 놓치는 자살행위”  
날짜: 20140520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0  
본문: 유방암 환자인 주부 김영희(가명)씨는 최근 중국여행 중 암에 좋다는 차(茶)를 다량으로 구입해 섭취했다가 간수치가 300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 정상 간수치는 30이다. 김씨는 다국적기업에서 실시하는 유방암 임상시험에 참여해 꾸준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환자다. 하지만 무조건 암에 좋다는 주변의 얘기만 듣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복용해 임상시험 탈락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간수치가 너무 높아 항암치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는 간수치가 회복돼 임상시험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제치료와 수술을 병행한 후 호전상태를 보이다가 2011년 재발해 임상시험에까지 참여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주변 말만 믿고 유방암에 좋다는 차를 다량 복용했던 것이 높아진 간수치의 원인</span>”이라고 말했다.<br/>김씨처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중 민간 요법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복용해 오히려 암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자칫 치료시기를 늦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br/>손주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유방암센터) 교수는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식품은 없다. 예방 목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치료제가 아닌데도 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꾸준히 다량 복용한다면 오히려 암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손 교수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10명 중 7∼8명은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 완치가 된다. 항암치료는 예전에 비해 편해졌다. 2000년 이전에 개발된 약들의 경우 구역이나 구토, 오심, 식욕부진 등을 초래했지만 2000년 이후에 개발된 약들은 기존의 항암제로 인한 고통을 크게 줄였다. 특히 지난 1∼2년 사이에 개발된 약들은 굉장히 좋다. 표적치료가 대표적이다. 이는 먹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식욕부진을 막아주는 ‘메게스테롤’ 성분의 호르몬 치료도 효과적이다.<br/>이 같은 치료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암 환자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br/>손 교수는 “전문가들이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는 임상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방법이다. 근거 있는 치료술에 몸을 맡겨야지 ‘카더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며 “근거가 부족한 민간요법 등에 본인의 몸을 맡긴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들의 의식수준도 이제는 높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치료술이 발전한 만큼 민간요법에 쏟는 관심을 돌려 본인이 치료 받고 있는 치료제에 대해 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span>”이라고 덧붙였다.<br/>아울러 암 환자의 식단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권고했다. 단 항암제의 경우 정상 세포들도 죽이기 때문에 정상 세포를 복원하기 위해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변비가 올 수 있으니 야채도 많이 먹어야 한다. 커피 한잔 정도는 해도 된다.<br/>손 교수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의 경우 커피 한 잔이 치료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보다 먼저 환자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며 “평소 좋아했던 음식인데 암 때문에 못 먹는다면 암보다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완치 가능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소홀히 하면 악화  
날짜: 201405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0  
본문: 김동욱 서울성모병원 교수·환우들 CML 주제 좌담회<br/>[편집자 주]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올바른 암 질환 치료·예방 정보 제공을 위해 ‘암과의 동행’ 섹션에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의료 현장에서 암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 암 명의(名醫)들의 조언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 일상생활 관리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난 4월 30일 진행된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백혈병 편’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사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백혈병 환우(루산우회·한국백혈병환우회)들과 함께 만성골수성백혈병(CML)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br/>조기 발견·지속적 모니터링 중요<br/>◇만성골수성백혈병 지속적 치료와 관리로 완치 가능=만성골수성백혈병(CML, Chronic Myeloid Leukemia)은 9번과 22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조혈모세포가 병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혈액암이다. 과거 ‘백혈병’ 하면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10년간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 완치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치료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가속기를 거쳐 급성기로 전환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CML 치료의 권위자인 김동욱 교수는 이날 ‘백혈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열린 환우들과의 좌담회에서 “CML의 경우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 병이 악화되더라도 사망 6개월에서 1년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김 교수는 특히 ‘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에서 만든 제3차 CML 국제표준치료 지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을 주축으로 전 세계 백혈병 전문가 32명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ELN 2013 표준지침이 완성된 것. ELN 국제표준지침은 전 세계 70% 이상의 국가 및 병원에서 진단·치료에 적용하는 기준자료가 된다. 김동욱 교수도 유럽백혈병네트워크 패널위원으로 선정돼 ELN 국제표준지침 제정에 참여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첫 치료 후 3개월부터 유전자검사를 통해 치료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됐다. 최근 허가된 이클루시그와 보술립, 오마세탁신 등의 항암제와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인 슈펙트의 치료효과도 언급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김 교수는 암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제 투여 후 첫 3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밀한 유전자 정량 검사를 통해 3개월마다 백혈병 유전자 소멸 여부를 살펴 완전유전자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br/>◇환자에 맞는 표적항암제 선택과 꾸준한 복용 필수=표적항암제 투여는 백혈병 치료에 있어 핵심이다. 최근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들의 잇단 개발로 생존율이 높아지자 환자들은 매일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암과 동반자가 돼 살아가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치료제로는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등이 대표적이다. 한 환우는 “어떤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약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항암제는 없다. 다만 환자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치료제를 처방 받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CML을 당뇨 등의 만성질환처럼 평생 관리하며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 중에는 약을 깜박하고 먹지 않거나, 부작용을 이유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발진, 울렁거림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약을 중단하면 치료 가능한 병에서 불치병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선택된 약제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약 순응도를 높여 최상의 치료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한 번 먹으면 평생 복용’ 인식 변화<br/>현재 백혈병 표준 치료약으로 글리벡이 있다. 또 최근에는 글리벡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여기에 국산 CML 신약인 슈펙트 등 새로운 신약들이 1차 치료제로 등장할 경우 ‘글리벡’(2013년 6월 특허만료)과 글리벡의 부작용 및 내성을 극복한 2세대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타시그나와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br/>한 환자는 항암제 복제약의 효능에 대해 물었다. 국내에서 수십종의 글리벡 복제약이 쏟아졌지만 처방은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부 병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현재 글리벡 복제약과 오리지널 글리벡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연구는 없다”며 “다만 사우디와 인도, 러시아 등 일부에서 진행한 복제약의 임상 치료 보고에 따르면 복제약의 경우 부작용이 늘고 치료 효과는 저하됐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의 치료 효과가 동일하다는 보고도 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br/>항암제는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환우는 글리벡 복용을 중단하는 연구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글리벡을 복용한 108명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암정복 정부과제 연구에서 약 70%는 약을 끊은 뒤 약 1년 6개월간 암 유전자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자검사상 완전유전자반응 상태가 3년 이상 유지된 경우의 환자는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span>”고 답했다.<br/>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br/>◇국산약 ‘슈펙트’ 출시 후 다른 치료제도 약값 인하…환자 부담 줄어=국산 신약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에게서 치료효과가 우수하지만 다른 치료제처럼 부작용도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적정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슈펙트의 장점은 저렴한 약값과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 치료제라는 점이다. 최근 글리벡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슈펙트 2상 임상을 진행한 결과가 유럽혈액학회의 공식잡지인 ‘Haematologica’에 임상 연구 논문으로 게재됐다. 슈펙트는 유럽혈액학회(EHA)와 미국혈액학회(ASH)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슈펙트를 승인했다. 현재 국내의 슈펙트 복용 환자는 약 200명 정도로 전체 환자(약 3600명)의 6% 수준이다.<br/>평생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항암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혈액학회지(Blood)에서는 2013년 사설을 통해 각 국가별 CML치료제의 경제적 비용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김 교수는 “약값이 저렴해지면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약값이 국내보다 3∼5배 비싼 편이며 동남아도 신약의 약가가 한국보다 2배 비싼 데다 여전히 글리벡이 주된 약으로 쓰인다. 한국은 슈펙트가 개발된 이후 다국적 제약사가 기존 백혈병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는 결과를 얻어 CML 약값이 제일 싼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CML 치료제의 비용 부담이 가장 저렴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슈펙트 등 새로운 신약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경쟁에서 기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2세대 표적항암제 투여가 불가능하며, 글리벡을 투여하지 않고 2세대 표적항암제를 교차 투여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통해 허용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을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br/>한 환자는 “항암제 복용 중 임신을 할 경우 출산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의 경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기형아 발생률이 100배가량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일정 기간의 항암제 복용으로 완전유전자반응을 얻은 후 2년 이상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01년 30%였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의 5년 생존율이 2011년에는 약 94%가 됐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중요한 것은 정확한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선택된 약제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치료효과를 내도록 환자와 함께 의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오랜 투병 지친 환자에 양한방 최적의 치료… 국제성모병원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날짜: 201405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3  
본문: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치료’, ‘비침습적 치료’, ‘고통 없는 치료’라는 3대 진료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친 전이암·재발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입니다.” 지난 2월 개원한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환자 진료에 나선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항암 치료와 오랜 투병생활로 지쳐 있는 환자들을 위한 ‘통합의료’ 구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기선완(사진) 국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정신건강의학과)은 “<span class='quot0'>국내에서 전이암과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치료를 선도적으로 수행했던 인천성모병원의 성과를 더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전이·재발암 치료를 위해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이 출범했다</span>”고 설명했다.<br/>◇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어떤 치료 하나=현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 영양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를 위한 최적의 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다학제 치료를 통해 단순한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암 환자의 영양과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개별 맞춤 치료와 환자의 저하된 건강상태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복력 증진 치료 등이 적용된다.<br/>특히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 관리와 교육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한다. 가톨릭의 영적 지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케어 코디네이터(Care Coordinator)’ 제도를 통한 환자들의 사례관리와 통합 진료로 환자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데이케어 클리닉(Day Care Clinic)’을 개설해 암 환자가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외에도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은 빠르고 정밀한 선형가속 암 치료기로 평가받는 ‘인피니티(Infinity)’를 도입했으며, BIOGRAPH mCT20 PET- CT의 운영을 통해 암 진단의 정밀도를 높였다.<br/>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됐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이미 두 번 이상 겪은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환 자체보다는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말기암이나 전이·재발암 환자들은 대체요법과 같은 다른 치료법을 찾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 요법으로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암환자들에게 보완대체의학요법은 기존 전통적인 암 치료에 추가해 제공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br/>이와 관련, 기선완 실장은 “<span class='quot1'>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대체요법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암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의 치료방침을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가톨릭전이재발병원의 양한방 통합진료는 암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개개인에 맞는 근거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관점의 암 치료방법을 제시한다</span>”고 강조했다.<br/>◇양한방 의학과 개설 및 협진 통합진료=일반적으로 암은 생리기능 이상에 의해 병리적, 기질적인 변화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대의학은 병리적, 기질적 치료 즉 항암제, 수술, 방사선치료 등으로 발전해 왔다. 기질적 치료는 효과가 신속하고 좋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르기도 한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암을 보다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나 혈소판이나 백혈구 등 면역기능이 손상돼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기 실장은 “현재 병원 임상에서도 항암이나 방사선 후유증은 모두 환자의 몫이다. 잘 먹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항암을 지속해 나갈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도중 체력적인 문제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여 안타깝게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이 양한방 협진과 통합진료를 적극 고민한 이유는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한방 협진을 통해 미리 생리기능 회복과 부작용을 조절하며 치료를 병행한다면 암 치료에 한발 더 앞서 갈 수 있고, 대체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기질적 치료에만 의존하고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반쪽 치료에 불과하다. 반면 한의학은 기질적 치료보다는 기능적인 치료를 위주로 발달해 왔다. 한약으로 생리 기능과 면역 기능을 강화해 항암, 방사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 면역력 저하로 인한 전이나 재발을 예방하는 것,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하며 다도(茶道)와 명상, 호흡법을 병행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 등이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의 협진시스템이다.<br/>기 실장은 “<span class='quot0'>양한방 협진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면역기능을 강화한다면 치료 후에도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보이는 것만 병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강해 협진을 한다면 암이 불치병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김열홍 교수 “임상시험 통해 최선·최상 항암제 찾죠”  
날짜: 201405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8  
본문: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항암제를 연구하는 단체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이다. 적정량을 사용하면 암세포만을 죽이지만 과하면 구역질이나 구토, 탈모, 손발 저림 등 각종 부작용으로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수십 종의 항암제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독성이 덜한 최상의 항암제를 찾는다.<br/>2년 전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김열홍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누군가는 나서서 공익적인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며 연구회의 존재가치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 각각의 유효성과 부작용을 평가한 임상시험은 있지만 이들을 서로 비교하는 임상시험은 없다. 항암제를 만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왔는데 퇴출 위험을 감수하고 약효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리가 없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두 항암제를 비교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좀 더 우월한 약을 찾고 그 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약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목표”라고 말했다.<br/>이어 그는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독성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다. 이때 무작정 투여량을 줄이면 항암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암세포가 커지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연구회에서는 항암제의 투여 횟수를 얼마큼 줄였을 때 치료효과가 없어지는지 알아보는 임상시험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br/>며칠 전 한 방송에서는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암환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구역질이나 구토, 손발 저림 등의 고통스런 부작용은 항암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김열홍 교수는 “이 항암제 한 번 써 보자는 식으로 대강 치료를 권하는 의사는 없다. 수십 종의 항암제 가운데 환자의 사회적 활동도, 전신 상태, 나이, 암세포의 조직학적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암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항암제가 가져다줄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저울질하며 고민을 거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항암치료에 대해서는 유독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단 한 번의 항암제로 완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과 ‘항암치료를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생각으로 나뉜다. 항암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질 확률이 100%인 것은 아니지만 항암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 덩어리로 인한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며 “많은 암환자들이 이 힘든 항암치료가 언제 끝나나 하며 우울해하지만 주치의 입장에서는 항암치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치료를 한다”고 말했다.<br/>김열홍 교수의 1년은 바쁘다. 그가 진행하는 암환자 대상 임상시험만 해도 스무 개가 넘을뿐더러 한국유전체학회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며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맞춤의학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주치의의 진찰소견, X-ray, CT, MRI 등을 이용한 검사실 소견, 약제의 반응 여부, 환자의 유전체 분석결과 등이 전산화로 모아지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 이끄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4.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암환자 식욕부진 개선제 ‘메게이스’] 투석환자 식욕부진에도 효과 높아  
날짜: 201405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6  
본문: 암환자의 대부분은 식욕 부진에 의한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 암환자의 영양 결핍은 정상인이 먹지 못해 체력이 떨어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은 환자의 식이조절 메커니즘에 장애를 일으켜 식욕부진을 유발한다. 또 비정상적인 대사 변화를 유발해 체내 지방과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한다.<br/>실제 미국에서 나온 한 보고에 따르면 암환자의 63%가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는데 그 중 소화와 관련이 깊은 위암과 췌장암 환자의 경우 무려 83%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20% 이상은 사망 원인이 영양 부족일 정도다. 하지만 암환자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다. 먹지 못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링거 수액제에도 한계가 있다. 소화기관을 약화시켜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br/>이러한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암환자에게 식욕부진을 돕는 개선제가 있다. 바로 메게이스다. 메게이스는 미국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이하 BMS)가 1971년 자궁내막암,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했다. BMS는 임상 과정에서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투여 시 식욕 개선과 체중 증가 효과가 관찰되면서 식욕 부진과 악액질 치료제로 1993년 9월에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10월 판매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보령제약이 2001년 4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암과 에이즈 환자의 식욕을 개선시켜 심한 식욕 부진 및 이로 인한 체중 감소와 악액질을 치료해 주는 항암치료 보조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보령제약은 메게이스의 입자크기를 50배 정도 작게 줄여, 체내 용해율과 흡수율을 높인 ‘메게이스 에프’를 선보이기도 했다.<br/>암환자의 체내에선 항암제와 방사선의 지원을 받은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 이런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력이다. 식욕이 극도로 떨어진 암환자 66명을 대상으로 메게이스를 복용토록 한 결과, 32%에서 체중이 증가했고 암세포 전이율도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식욕 부진 및 이로 인한 체중 감소와 악액질(암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빈혈·피부의 색소침착을 동반하는 전신쇠약상태)은 암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만성 울혈성 심부전, 류머티즘 등의 만성질환에서 심각한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만성 신부전은 암과 마찬가지로 식욕 부진과 악액질, 체중감소를 일으키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투석중인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영양실조(PEM)의 빈도는 매우 높다. 식욕 부진과 연관된 ‘영양실조-염증 복합 증후군’은 많은 신부전 환자에서 나타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사망률 증가로 연결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사이토카인 등으로 인한 식욕 감퇴, 투석으로 인한 영양 손실 등이 있다.<br/>특히 투석 환자는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군으로 이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도 메게이스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신경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 중 혈청 알부민 치가 3.5g/dL 미만이거나 4.0g/dL 미만이면서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메게이스를 투여한 결과 영양학적 지표, 염증, 식욕부진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내 ‘방사선 치료’ 선구자… 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6  
본문: “저는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장폐색이 동반된 위급한 상태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옮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익숙한 듯 맞아주었고, 림프절제 수술과 종양제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 이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럭무럭 자란 아기는 올 봄 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여했답니다.”<br/>◇50년간 국내 암 치료 선도, 4차 병원이라는 별칭도=원자력병원은 위의 환자 사례처럼 국내 병원의 체계상 3차밖에 없는 현실에서 4차 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1963년 개원 이래 지난 50년간 국내 암 치료의 선구자로서 암 병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br/>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문선미·사진)의 첫 번째 강점은 의료진 간 소통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암 치료 역사가 오래되면서 구축된 협진 체제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원자력병원은 단순한 환자보다는 병이 많이 진행돼서 치료하기 복잡하고 위급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 경우 외과, 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의 6개 진료과 암 전문의들이 즉시 모여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한다.<br/>두 번째 강점은 사이버나이프, 래피드아크를 이용한 정위신체방사선치료(SB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를 통해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병원이 국내 최초의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병원으로서 방사선 치료 분야의 특화된 병원이다 보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SBRT 치료를 많이 받는다. 원자력병원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SBRT 치료 2500례를 돌파했다. 이러한 방사선치료는 적은 부작용과 수술에 버금가는 치료효과 덕분에 방사선수술이라 불리고 있다.<br/>◇치료와 수술 만족도를 최우선으로=문선미 대장암센터장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와 수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특히 직장암의 경우 항문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복회음절제술이 환자들의 상실감과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항문 가까이에 상부의 결장을 연결해 직장을 대신하는 저위 혹은 초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해 항문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방사선치료와 항암제 투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병용요법과 고도로 숙련된 대장암전문 외과의사의 결합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런 치료 방법은 직장암 재발률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br/>하지만, 종양이 항문 괄약근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항문을 절제해야 하므로, 인공항문(장루) 관리와 운용 교육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는 전담 장루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고 장루교실을 운영해 환자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br/>또한 대장암에 대해 바르게 알고 대장암을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암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9월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해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올바른 식사요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br/>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평가 발표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대장암 수술 진료 적정성 평가’, ‘암수술 결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br/>문선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그간 국내 대장암 치료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원자력병원의 노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대장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표</span>”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고 본인이 치료받음에 있어 신뢰가 가는 의료진으로 다가가고자 하고 있으며, 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라면 자신과 가족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말기 암환자 편안하게 임종 맞을 병실 부족하다  
날짜: 201405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5  
본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전국 54곳·병상수 겨우 868개<br/>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는 연간 7만5000명에 달하지만 환자가 호스피스를 통해 마지막 안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은 86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br/>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환자가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고 품격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 현재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54곳이고 이들의 총 병상 수는 868개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가 약 40만개임을 감안하면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중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곳은 총 8개 기관 146병상으로 웬만한 병원의 암센터 1개 시설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고, 그나마도 민간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곳은 4개 기관 57병상이 전부다. 나머지 89병상은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br/>이 때문에 실제로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입원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지만, 결국 병원 문턱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의 마지막을 편히 보내기 위해서도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말기암 환자인 모친의 평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실을 수소문했던 김모(47·여)씨는 “공기 좋은 요양 시설이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찾아 마지막을 준비하시게 하라는 의료진의 설명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면서 “곧바로 호스피스 시설을 찾아봤지만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시설은 몇 곳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환자가 많아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없었다”고 토로했다.<br/>정부의 지원도 당초의 계획에서 많이 후퇴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년)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완화의료기관 육성·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병상수도 2013년까지 국립암센터 내에 100병상을 확충하고 2015년까지 9개 지역암센터(30병상)와 34개 지방의료원(20병상)을 전문형 지역암센터로 전환하는 등 2010년 1000병상, 2015년 2500병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의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1400병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어 확대 폭이 현저히 줄었다.<br/>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병실을 공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마땅히 증가추세를 보여야 하는데도 공급이 항상 제자리인 이유는 다름 아닌 저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병원이 호스피스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의 수가로는 운영할수록 적자만 늘어난다는 것이다.<br/>최근에는 암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암센터나 암 병원을 설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암병원의 병상수는 3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상의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br/>암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평균 약 4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데 이 기간에 병원은 암의 종류에 따라 환자 1인당 약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실 환자는 평균 21일 정도 입원하며 주로 암 통증관리, 영양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는 중증암환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5%만 부담하면 된다. 하루 진료비는 약 16만원∼20만원 사이인데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마약류 진통제나 패치, 복수천자 등 몇 가지 의료처치를 해도 일당 진료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전체 진료 과목 중 가장 기여도가 낮으며, 투약재료비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의료기관들로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실 운영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br/>복지부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에선 의료기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수가와 가산수가로 구성된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했다. 기본수가는 종합전문 15만9290원, 종합병원 12만9140원, 병원 7만7790원, 의원 7만720원이었고 여기에 간호사의 인력확보 수준, 전담 사회복지사의 확보 수준을 감안해 가산수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병실 차액료와 선택진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과 식대는 포함하지 않았다.<br/>2차 시범사업에선 종합병원 이상 17만5980원, 병원급 이하는 11만3580원으로 책정했다. 2차 사업은 종별 재구분(2단계)에 따른 일당 정액수가와 일부 항목의 행위별 수가를 적용했고,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체감 비율은 1차 50%에서 10∼15%로 조정했다. 하지만 종별 구분에 따른 수가체계 정립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수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br/>권용진 서울시 북부병원장은 “병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호스피스는 노환으로 사망하는 사람과 암환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수가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완화의료 수가 일부에 호스피스 관련 서비스 수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호스피스가 의료서비스인가라는 반문에 부딪힌다”며 “병원의 완화의료 서비스도 필요하고 호스피스도 필요한데 행위로 엮어 줄 수 있는 것이 약과 진료밖에 없어 요양병원처럼 일당정액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br/>또 “하루에 많은 환자들이 죽고, 다시 입원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계속 봐야 하는데 환자들의 상태가 제각각인데다 새로운 환자를 받는 주기가 짧아 업무 강도가 심하다”며 “의료진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심리 상담도 해야 하는데 죽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아직 정서적으로 수용이 안 돼 정신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토로했다.<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수가 연구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7.txt

제목: 췌장암, 옻나무 추출물 활용한 한방암치료로 생존기간 늘려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261  
본문: [쿠키 건강]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다른 암에 비해 치료기술의 발전 역시 더딘 암종으로 여겨진다.<br/><br/>이처럼 췌장암의 치료가 어려운 것은 조기 진단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췌장암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항암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br/><br/>70대 남성 이모씨는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췌장 체부의 종양이 복부의 여러 동맥에까지 전이되었으며,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한 부작용에 비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내 치료를 중지했다.<br/><br/>췌장암 환자의 상당수는 이씨처럼 더 이상의 병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타 암의 경우 암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암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항암치료가 비교적 유효한 반면, 췌장암의 경우 아직까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항암제가 드물다.<br/><br/>이씨는 병원치료를 중지한 이후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씨는 병원치료를 중지하고 1년 이상 종양이 성장하지 않은 채 생존하고 있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췌장암 환자 중에는 이씨처럼 항암치료를 통한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경우가 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한방암치료는 항암부작용완화에 초점을 맞춘 한방병행치료에만 초점을 맞춰진 경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암치료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br/><br/>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됐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옻나무 추출물이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가진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_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고 밝혔다.<br/><br/>이러한 연구결과는 항암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치료효과보다 클 수 있는 췌장암, 담도암 등의 환자들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8.txt

제목: 삼진제약, 인천대와 표적항암제 공동개발 나선다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192  
본문: [쿠키 건강] 삼진제약이 인천대학교 생명과학부와 함께 표적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br/><br/>삼진제약 중앙연구소는 최근 인천대 신약개발연구소 안순길 교수팀과 글로벌 표적항암제 혁신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삼진제약과 인천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많은데도 효율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고형암 및 혈액암 발병에 관련된 질환 단백질 활성을 억제하는 분자 표적 항암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 세계 표적항암제 시장은 2016년 약 30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br/><br/>두 기관이 공동 연구를 시작할 우선 과제로는 위암, 대장암의 진행 및 전이에 핵심 역할을 하는 발암관련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이 선정됐다.<br/><br/>이를 위해 인천대학교는 암 유발 단백질의 구조규명 기술과 구조기반 선도물질 발굴 및 in-vitro평가를 담당한다. 또한 삼진제약 중앙연구소는 질환 표적 단백질 구조 규명, 선도물질 최적화, 생물활성도 in-vivo 평가 및 항암기작 연구를 담당하며,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후보물질합성연구, 물리화학적 특성연구, 제제학적연구, 약동력학연구, 질환동물 약효평가 및 초기독성평가를 전담한다.<br/><br/>신희종 삼진제약 중앙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분자 표적 항암제는 전통적인 세포사멸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므로 비교적 독성이 낮아 최근 항암제 연구개발 방향의 주류가 되고 있다</span>”며“<span class='quot0'>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인 일반적 세포 독성이 없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탁월한 항암작용이 증명되고 있어 암 성장과 전이 억제, 항암 치료 내성도 억제하는 이상적인 항암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span>”고 밝혔다.<br/><br/>한편, 삼진제약 중앙연구소는 2006년 항암신약후보물질을 미국 임퀘스트(ImQuest)사에 기술이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형 항암제 개발연구에 노력해 왔다. 새로운 표적항암제 선도후보물질 발굴을 담당한 안순길 인천대 교수는 종근당 종합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혁신신약개발 바이오벤처에서 다년간 항암신약개발을 수행하여 온 신약개발 전문가이자 베테랑 연구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날짜: 201405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4  
본문: 암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와 마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마스랩이 서울지역 시민 5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응답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기사를 통해 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우선 정보습득과 관련해 ‘암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언론기사’로 전체의 54%(281명)를 차지했다. 이어 주위사람(140명, 27%), 인터넷 검색(75명, 14%), 전문서적(27명, 5%) 순이었다.<br/>또 ‘필요한 암정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음식’(175명, 33%)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식이요법이 질환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병원(136명, 26%)과 치료방법(121명, 23%)에 대한 정보 요구도 높았는데,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다 최신 설비를 갖춘 병원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진(91명, 17%)에 대한 정보는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br/>‘암 치료 시 중점 고려사항’에서도 병원(242명, 4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진(189명, 36%), 비용(70명, 13%) 순이었고, 이동거리는 22명(4%)에 불과해 치료 시 병원과의 거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암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원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231명(44%)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전액은 아니어도 확대해야’(159명, 30%), ‘전액 보장’(73명, 14%) 등 확대 의견이 높았고, ‘암 지원은 줄이고 다른 질환의 지원 확대’(60명, 11%)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br/>그렇다면 민간 암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필요하다’(323명, 62%)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82명(16%)에 그쳤다. 즉 국가의 암보장은 만족스럽지만 이는 치료에 대한 것일 뿐 치료 외적인 가계부담 등을 위해 민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br/>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민간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부부의 경우 ‘둘 다 가입’(13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본인만 가입’(113명), ‘배우자만 가입’(61명) 순이었다. 자녀의 경우는 ‘가입하지 않음’(206명)과 ‘자녀 중 일부 또는 모두 가입’(일부 141명, 모두 114명 등 255명)이 비슷해 나이에 따라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무작위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한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남성 274명, 여성 249명 등 총 52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136명), 40대(52명), 30대 이하(23명) 순이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0.txt

제목: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美 연수서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술 습득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5  
본문: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비혈연간 이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조혈모세포 이식 분야에 명성이 높았던 미국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FHCRC)에서 1997년 6월부터 교환교수로 연수를 시작했다.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는 세계 최초의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으로 1990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도널 토마스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하던 민간 연구소다. 이곳은 시애틀의 기업과 시민들이 암 예방 및 퇴치 연구 성금을 조성해 1975년에 정식으로 설립한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 연구를 선도하는 암 연구소다.<br/>동물을 이용한 새로운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을 연구하고자 했던 나의 바람과는 달리 멘토였던 앤 울프리 교수는 비혈연간 이식의 성공을 좌우하는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혈액세포에서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연구하도록 지도했다. 한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던 분자생물학 진단 기술을 확대해 HLA 유전자 전사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며,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br/>당시 연구소에서는 이식을 통한 이식편의 ‘면역관용’(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인체가 반응하지 않도록 해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 현상에 대한 임상 적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항암제 강도는 줄이면서 면역 억제력을 증강시켜, 항암제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환자나 이식이 어려운 환자에게 이식 후 합병증을 줄여 이식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미니이식’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나아가 간경변이나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미니이식을 시행한 후에 면역관용 현상을 유도한 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해 면역억제제의 복용 없이 이식된 장기를 평생 안정적으로 생착시키는 다장기이식 연구가 동물실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br/>치료 기술의 개발과 함께 백혈병의 진단 기술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1990년대 초에는 형광 물질의 방사 파장의 차이를 이용해 유전자의 양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실시간정량적중합효소연쇄반응법(RQ-PCR)’이 개발되고 있었다.<br/>필자는 백혈병 관련 유전자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새로운 진단기술이 향후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과 치료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1999년 5월에 실험기기를 개발한 회사가 개최한 제1차 RQ-PCR 실험 워크숍에 참여해 그 원리와 실험 기법을 직접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에서의 연구를 계속하기를 원했으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스승 김춘추 교수님의 요청으로 RQ-PCR 실험 장비인 iCycler를 구입해 주실 것을 귀국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귀국 직후 곧바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해 그해 12월 국내 최초의 RQ-PCR 기법을 정착시켰다.<br/>미국에서의 연수는 나에게 다양한 분자생물학 실험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연구소 운영, 연구비 집행, 연구 결과의 진실성 및 저자의 자격에 대한 미국 의학계의 엄격한 연구 윤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구 저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이는 연구를 설계하거나 실험을 직접 수행한 경우, 결과의 분석에 참여한 경우, 직접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만 저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간 중 시간을 내어 읽었던 ‘서바이벌(Survivor)’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내용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자 기자가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 휴스턴, 시애틀의 최고의 백혈병 치료 병원을 방문해 직접 의사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자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한 최고의 주치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낀 많은 감정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나에게도 백혈병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대한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1.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1903년 피부종양에 첫 광역학 치료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3  
본문: 광역학 치료의 역사 [하]<br/>지난 1960년 립슨(Lipson) 등은 헤마토포르피린 염화물을 염산과 황산으로 처리함으로써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HpD)가 얻어짐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 개발은 오늘날 광역학치료의 기초가 됐다. 빛과 화학물질이 상호 작용해 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뮌헨에서 헤르만 본 타페이너(Herman von Tappeiner) 교수와 함께 있던 오스카 라브(Oscar Raab)라는 의과대학생에 의해 처음 보고됐다. 본 타페이너 교수의 최초 관심사는 말라리아 치료에 퀴닌이 효과적인 데 비해 또 다른 화학물질인 아크리딘(콜타르에서 얻은 물감성분)이 체외(in vitro)에서는 좀 더 독성이 있고, 체내(in vivo)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오스카는 이러한 아크리딘 색소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광역학 반응(photodynamic reation)을 처음으로 관찰했다.<br/>아크리딘 색소를 희석해 60분에서 100분간 노출시키면 짚신벌레가 모두 죽는 것이 관찰됐으나, 다음 실험에서 800분에서 1000분간이나 길게 노출시켜도 짚신벌레가 살아있는 모순을 발견했다. 두 실험에서의 차이는 단지 한쪽 실험만 심한 천둥이 쳤던 날에 했다는 사실이었으며, 차이는 빛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오스카는 다시 실험을 통해 빛 없이 색소만 주거나, 색소 없이 빛만 노출시킨 짚신벌레들은 살아 있었으나, 색소와 함께 빛에 노출시킨 짚신벌레는 죽는 현상을 관찰했다. 오스카는 빛 자체가 아닌 빛에 의한 형광작용으로 아크리딘 색소로부터 어떤 물질이 생성돼 세포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효과는 빛으로부터 화학물질에 에너지가 전달돼 세포독성 효과가 발행한다고 가정했다. 이후 본 타페이너 교수는 의학에 있어서 형광물질을 이용한 치료가 미래에 잠재적으로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br/>최초로 광과민물질을 인체에 투여해 보고한 사람은 1900년 프랑스 신경과 의사인 프림(Prime)이다. 그는 간질환자에게 에오신이라는 염색약을 경구로 투여해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한 뒤에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피부염이 발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형광물질과 빛이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1903년 본 타페이너와 피부과 의사인 지쇼넥(Jesionek)은 피부종양에 에오신을 바르고 빛을 조사하면 종양에 반응이 나타남을 관찰하고 의학적으로는 처음으로 치료에 사용했다. 1904년 조드바우어(Jodlbauer)와 타페이너는 이러한 광과민 반응에 산소가 필수적임을 증명했고, 1907년 이러한 현상을 산소 의존성 광감작 현상으로 설명하고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타페이너는 1900년도 초기에 광감작제를 광역학 치료에 응용함으로써, 광역학치료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고, 이를 이용해 종양 치료를 가장 처음 시도한 사람이 됐다.<br/>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광역학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또한 폐암 초기 중심부 편평상피암종에 대한 굴곡성 기관지경 광역학 치료가 1980년 연구자들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러한 시술을 통해 완전한 치료가 이뤄진 것이 보고됐다. 이후로 광역학 치료는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발전하게 된다. 방광암과 피부 종양 치료에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시작됐고, 이러한 연구의 성공에 힘입어 점차 다양한 암과 광과민제 관련 시험이 이어졌다.<br/>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원광대 산부인과 교수)<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2.txt

제목: KB국민은행,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3억원 전달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263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은 20일 국립암센터 병원동 1층 로비에서 KB국민은행으로부터 ‘소아암 및 저소득 암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3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br/><br/>이날 전달식에는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진수 이사장과 KB국민은행 상품본부 민영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br/><br/>기부금은 KB국민은행이 판매하고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공익펀드 ‘KB 코리아 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치료비 부담이 큰 소아암 환아들과 형편이 어려운 암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br/><br/>이진수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은 “2011년 4월부터 양성자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소아암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으나, 아직 다른 소아암 어린이 치료에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치매 예방 만능식품… “카레, 너 대단하다！”  
날짜: 20140520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32  
본문: 주원료 강황 속 커큐민의 효과<br/>카레를 자주 먹으면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전용순 가천대 길병원 외과(유방클리닉) 교수는 최근 오뚜기 후원으로 열린 ‘제4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에서 “<span class='quot0'>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함께 커큐민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도록 나노입자 형태로 변형한 ‘나노커큐민’을 유방암에 걸린 실험쥐의 유관에 주입한 결과, 탁월한 유방암 예방효과를 보였다</span>”고 발표했다.<br/>연자로 참석한 이재원 교수(부산대)도 “<span class='quot1'>향신료인 커큐민은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염증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사용돼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마우스 신경줄기 세포(Neural progenitor cells)와 성인해마신경발생에서의 커큐민의 기능을 실험해 본 결과,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 성장에 도움을 줬다</span>”고 연구결과를 전했다.<br/>외국에서도 카레의 항암효과에 대한 비밀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미국 과학논문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www.eurekalert.org)는 카레의 비밀에 대해 소개했다. 유레칼러트에 따르면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과 여러 가지 향신료에 든 성분이 항암·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 카레는 암 예방 외에도 식욕 증진, 면역력 증가 등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이처럼 연구와 논문에서도 잘 알려졌듯 카레 특유의 노란색은 ‘강황’에서 나오는 천연색으로 노화방지와 치매예방은 물론 항암효과까지 있다. 남녀노소 사시사철 카레가 메인 요리로 사랑받는 이유다.<br/>‘카레’의 대명사가 된 브랜드는 ‘오뚜기 카레’다. 1940년경 국내에 처음 소개된 카레는 70년대 오뚜기에 의해 대중화됐다.<br/>오뚜기 카레는 오뚜기가 회사설립과 함께 1969년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오뚜기는 당시 우리 국민의 주식이 쌀인데다 매운 맛을 즐기는 기호와 딱 맞아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br/>오뚜기 카레가 생산된 1969년 국내 시장에는 일본의 ‘S&B’와 ‘하우스 인도카레’ 등의 제품이 있었다. 이미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던 국내 카레 시장이었지만 오뚜기는 카레 시장 석권을 목표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1년 뒤에 경쟁사를 압도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의 △루트 세일(Route Sale) 도입 △유통 질서 확립 △방송·차량·제품 박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이 주효했다.<br/>출시 초기 분말(가루) 형태로 선보인 오뚜기 카레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도 다양화돼 1981년 ‘3분 요리’란 브랜드로 레토르트 카레를 선보이기도 한다. 오뚜기의 ‘3분 요리’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출시 첫해에만 400만개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br/>즉석에서 카레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순한맛, 매운맛, 약간 매운맛 등으로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인식된 결과였다.<br/>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카레의 효능이 밝혀지고 있었다. 2006년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카레의 전립선암 억제 효과 등이 소개되면서 카레시장은 현재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4.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 환자 마음읽기] 임상실험, 기대반 우려반  
날짜: 20140520  
기자: 쿠키뉴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6  
본문: 전이성 유방암 환자 박영주(45)씨는 최근 주치의로부터 표적항암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1차·2차 항암치료를 받아도 암 덩어리가 전혀 줄지 않았던 박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쉽사리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임상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br/>임상시험은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약효평가를 전임상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임상시험이라고 말한다. 박씨처럼 여러 개의 항암제를 써 보아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임상은 신약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희망이 된다. 임상시험센터가 개설된 대형병원마다 피험자보호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피험자보호센터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임상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는지 심의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윤리생명심의위원회(IRB)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br/>김열홍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과거에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권유하면 불쾌감을 표하는 환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임에도 함부로 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임상연구를 위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다양한 기구들이 마련되면서 안전성과 윤리적인 문제가 보완되었다”고 말했다.<br/>임상시험의 장점은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약값을 포함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용이 전혀 없다.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돈을 따지는 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피험자에게는 연구간호사가 1대 1로 배정되고 이들이 환자의 증상과 부작용, 치료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살핀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피험자는 즉각적으로 해당 임상시험을 중단하게 된다. 임상은 총 세 단계로 이뤄진다. 1상 임상시험은 치료독성을 평가하고 용량을 정하는 과정으로 대개 환자가 입원한 상태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심전도와 피검사 등 각종 검사를 여러 번 진행한다. 이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1상에 참여할 수 없고 또한 많은 수의 검사로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 2상은 1상을 통해 얻은 약의 용법과 용량대로 환자에게 투여하고 약효를 평가하는 실험이다. 3상은 기존의 표준치료제와 신약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한 연구간호사는 “<span class='quot0'>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중에는 혹시 자신이 기존치료제 그룹에 배정되어 신약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span>”고 전했다. 임상시험은 쓸 치료제가 남아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거부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 임상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임상시험의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br/>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치료제… 만성기→ 급성기 진행 차단하기  
날짜: 201405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2  
본문: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 유전자에 이상이 나타나, 이상 세포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늘어 나는 혈액암 중 하나다. 백혈병은 임상경과 또는 검사소견에 따라 급성백혈병과 만성백혈병으로 나뉘고, 발병 위치에 따라 골수성백혈병과 림프구성백혈병으로 분류된다. 급성백혈병은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년 내에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만성골수성백혈병(CML, Chronic Myeloid Leukemia)은 급성백혈병과 달리 초기 진단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전체 성인 백혈병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0만명 중 1∼2명에서 발병하고, 30∼50세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형 백혈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만성백혈병 치료의 핵심은 만성기에서 급성기로의 진행을 최대한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발병 초기부터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br/>CML 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완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1950년대 이후에 부설판과 하이드레아 경구 항암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혈구수의 조절을 위해 사용됐고, 1980년대 초에 인터페론이 개발돼 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게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치료약물로 사용됐다. 이후 2000년 들어서면서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개발됐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촉진기, 급성기 및 인터페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기 환자에 대해 사용이 승인됐고, 2003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만성백혈병의 전병기 환자에 건강보험이 승인된 치료제이다. 하지만 결합부위의 구조적 이상으로 글리벡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2세대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인 표적항암제들이 개발돼 출시됐다. 대표적인 약물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슈펙트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등이다. 1세대 치료제에 내성이 온 환자나 1세대 치료제가 결합이 잘 안 되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다. 이 외에 만성기 2차 이후 치료로는 선행요법 실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술립, 이클루시그 등이 있다. 18호 국산 신약인 슈펙트는 아시아 첫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 CML치료제로 개발됐다. 슈펙트는 현재 40mg 1일 2회 요법으로 선행요법 실패 환자에 투여 가능하고, 현재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1차 약제로 승인될 경우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이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6.txt

제목: 고신대복음병원 30일, 생체 간이식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186  
본문: [쿠키 건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원장 이상욱) 장기려기념 간연구소와 간담췌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부터 장기려기념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생체 간이식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최신 치료법을 소개하고, 향후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말기 암환자 치료방안 등을 모색한다.<br/>간담췌 내과, 외과를 포함해 소화기내과, 신장센터, 혈액종양내과·방사선 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 의료진이 간이식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간이식, 신장이식, 간염치료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과, 센터 각각의 현재 최신 치료경향 소개는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예정돼 있다.<br/>이상욱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말기 간질환 환자들을 위한 생체 간이식을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 간질환 치료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있는 본원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span>”을 당부했다.<br/>이날 심포지엄은 ▲간 이식후 B형 간염관리 및 재발시 치료(고신의대 윤병철 교수) ▲신장이식에서의 면역학적 고위험군 대처(고신의대 신호식 교수) ▲간 이식에서의 미세혈관 문합(고신의대 윤명희 교수) ▲간 이식 프로그램 세팅(부산의대 주종우 교수) ▲간 이식 수술후 관리(울산의대 나양원 교수) 등을 주제로 실제 생체 간 이식 사례 발표로 진행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7.txt

제목: 국내 중기 개발 항암 신약 FDA 임상 시험 승인받아  
날짜: 20140520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98  
본문: 국내 중소기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TEW-7197’이 최근 미국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이화여대 약학대 김대기(사진) 교수팀이 간암, 유방암 등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수용체(ALK-5)를 억제하는 화합물질(TEW-7197)을 개발해 중소기업인 메드팩토에 기술이전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br/>이 물질은 암의 전이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암치료제는 항암제 내성과 전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이 물질을 활용하면 내성과 전이를 줄일 수 있고 기존 항암제와 병행 치료하거나 단독 사용할 수 있어 간암, 유방암 등의 치료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br/>이 물질이 글로벌 항암신약으로 개발되면 약 84조원(2013년 기준) 규모의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8.txt

제목: 씨 없는 ‘꿀 수박’ 유건열씨 , 국내 최고 당도 제품 인증 받아  
날짜: 20140520  
기자: 김재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91  
본문: “<span class='quot0'>대한민국 최고의 수박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span>”<br/>경북 고령군 다산면 유건열(67·목화농장 대표)씨의 ‘씨 없는 수박’이 국내 최고의 당도를 가진 수박으로 인증을 받았다.<br/>유씨는 지난달 한국기록원에 ‘최고 당도 수박 대한민국 최고기록’ 도전장을 낸 뒤 최근 자신의 농장에서 현장점검을 가졌다. 현장점검은 한국기록원과 경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 농촌진흥청 수박 전문가 등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br/>이들은 수박 10개에 대해 당도 및 크기, 색깔, 무게 등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9개의 당도가 16브릭스(brix)를 기록, 국내 최고 당도의 수박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br/>일반 수박의 당도가 평균 12∼13브릭스인데 유씨 수박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이다. 50년째 수박 재배를 해오면서 20년 전부터 씨 없는 수박을 연구해 온 유씨는 6000여㎡ 농장 하우스 11동에서 수박을 재배한다.<br/>처음 재배할 당시엔 수정 후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수박 껍질이 갈라지고 당도 역시 10브릭스도 채 나오지 않는 등 실패를 거듭했다.<br/>이후 유씨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 종자가 먹고 자라야 할 영양분을 과육으로 축적해 최고의 당도와 맛을 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수박 내에 있는 ‘리코펜’(수박 내 붉은 부분)의 치밀도와 양을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br/>리코펜은 미국 암연구소와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씨 수박은 토마토에 비해 리코펜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호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span class='quot1'>유씨의 씨 없는 수박은 최고 당도와 재배 안정성까지 갖췄다</span>”고 평가했다.<br/>고령=김재산 기자 jskimib@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39.txt

제목: 강동경희대병원 정원규 교수, 방사선종양학회 우수심사위원상 수상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268  
본문: [쿠키 건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정원규 교수(사진)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br/><br/>우수심사위원상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회장 최은경)가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공로상으로 학회지 발전에 가장 기여한 논문 심사위원에게 시상한다.<br/><br/>정원규 교수는 학회의 정보이사로 활동하면서 공정한 논문 심사와 논문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정 교수는 현재 강동경희대병원의 새로운 진료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암환자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2012년 도입해 많은 암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양한방 협진 맞춤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0.txt

제목: [가정예배 365-5월 20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십시오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3  
본문: 찬송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통 511장)<br/>신앙고백 : 사도신경<br/>본문 : 사도행전 7장 44∼56절<br/>말씀 :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형식이 아닌 내용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습니다. 왕을 예선하러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키’와 ‘용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성전 숭배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br/>첫째, 성막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은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양식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를 40년이나 유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을 몰아내고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워 들어갑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척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함과 친밀함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럴듯한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암 5:22).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있다면 순종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br/>둘째,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합니다. 스데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혹은 모임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 4곳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돼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기도와 삶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삶으로, 찬양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br/>마지막으로 미움과 분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미워하는 유대인과 달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바라봅니다(행 8:55).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순교 순간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예수님을 닮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span class='quot0'>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span>”(행 8:60)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22∼23). 오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br/>기도 :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 몸이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br/>주기도문<br/>조경열 목사(아현감리교회)<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1.txt

제목: 비운의 거장…영화 ‘대부’ 촬영감독 고든 윌리스 별세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299  
본문: [쿠키 문화] 영화 ‘대부’의 촬영감독 고든 윌리스가 사망했다. 향년 82세.<br/>20일(한국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윌리스는 암이 전이되면서 지난 18일 별세했다.<br/>윌리스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우디 앨런 감독의 ‘애니홀’, ‘맨해튼’, 앨런 퍼큘라 감독의 ‘클루트’,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등에참여해 이름을 날렸다.<br/>윌리스는 ‘비운의 거장’이기도 하다.<br/>그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촬영한 작품들은 39번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되면서 19번 수상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2번 노미네이트됐을 뿐 한번도 경쟁부문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br/>그는 대신 2009년 아카데미 협회로부터 명예상을 수여했다.<br/>윌리스 작품의 특징은 단순함, 빛과 어둠의 대조, 규율을 깨려는 의지 등으로 표현된다.<br/>그는 촬영시 빛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또 배경은 암흑에 가까울 정도로 어둡게 하고 할리우드 영화에서 관습적으로 쓰던 ‘아이 라이트’ 기법을 멀리 해 지인들로부터 ‘어둠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br/>윌리스의 마지막 일선 작품은 1997년 ‘데블스 오운’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양성자치료, 암세포만 조준 정상조직은 보호한다  
날짜: 201405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19  
본문: 지난 3월 수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A(8)군은 이달 초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센터장 김주영)를 찾았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A군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A군의 아빠는 성장하는 아이에게 종양치료 시 방사선을 사용할 경우 종양이 아닌 넓은 부위의 정상조직에 방사선이 도달해 성장과정에서 뇌기능 발달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소문 끝에 A군의 아빠는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김주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현재 A군은 양성자치료를 받고 있으며, 총 6주 동안 치료가 시행된다</span>”며 “<span class='quot0'>A군의 경우 아이가 암치료를 받고 성장하게 되면서 발현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국립암센터에 오게 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양성자치료는 성인암에서 안구 흑색종, 척색종, 연골육종, 간암, 폐암, 전립선암 등에 우수한 성적을 보이나 현재 성인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암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일부 암종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태이다. 뇌종양, 중추신경계 종양, 안면부와 두경부 종양이 있으면서 18세 미만인 환자의 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이다.<br/>김 센터장은 “양성자치료는 전 세계 40여 기관에서 방사선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장성이 강한 일반 X선 치료와는 달리 양성자치료는 수소입자에서 전자가 박리돼 생긴 수소핵이 빛의 속도의 3분의 2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가속되어 체내 일정 깊이에서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암세포를 살상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X선은 체내를 통과하는 반면 양성자와 같은 입자는 일정 깊이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종양 후방에 있는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는 임상적으로 정상조직 합병증을 줄여주는 효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에서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성인에서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 2013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명 정도가 양성자로 치료를 받고 있고, 소아환자는 약 300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숫자는 양성자치료가 이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방사선치료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음을 뜻한다. 현재 국내에서 양성자치료를 시행하는 곳은 2007년 4월 문을 연 국립암센터가 유일하다. 특히 국립암센터는 오는 6월 양성자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양성자 분포가 기존보다 더 정밀해져 암세포만을 타깃으로 하고 정상조직은 더 정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스캔빔 테크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양성자치료센터는 과거 10년 사이 2배 늘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양성자치료는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소아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천연항암제’ 인기 후코이단, 두 가지 꼭 따져야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7  
본문: 최근 천연항암제로 일컬어지는 후코이단이 화제를 모으면서 후코이단의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갈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인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혈관신생 억제기능 △면역력 증강기능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기능 등 다양한 항암작용이 밝혀져 천연항암제로도 불린다.<br/>그러나 미역귀, 다시마, 모즈쿠(큰실말) 등 후코이단을 추출할 수 있는 갈조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다양한 후코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후코이단 제품이 있는 만큼 선택이 쉽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에게 딱 맞는 좋은 후코이단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br/>첫 번째는 황산기의 함량을 보는 것이다. 후코이단은 후코스, 자일로스 등 다당류 성분에 황산기가 붙어 있는 분자구조를 가진다. 다시 말해 황산기가 있으면 후코이단이고 없으면 단순한 다당 성분이라는 것. 따라서 황산기 함량이 적을 경우 후코이단이 아닌 다당류 성분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br/>놀라운 것은 국내산 미역귀에서 뽑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이 30% 안팎으로, 모즈쿠에서 뽑은 일본 후코이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산 미역귀로 추출한 후코이단을 먹는 것이 다른 후코이단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br/>두 번째는 고형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후코이단이 함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업체들이 후코이단 함량을 %로 표시하고 있는데, % 표시는 상대적이기 때문이 이 표시만 보고 후코이단을 선택하면 자칫 함량이 떨어지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후코이단을 고르기 전, 후코이단 고형분(100% 후코이단)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2005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된 해림후코이단의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의 황산기는 사실상 후코이단의 품질과 기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미역귀에서 추출한 국산 후코이단은 보통 30% 내외, 아무리 적어도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반면 일본 모즈쿠 후코이단은 16%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span>”고 밝혔다. 또 “좋은 후코이단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황산기 함량인 만큼 기왕이면 국산 미역귀에서 뽑은 국산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근당, 감기약 ‘모드콜플루’ 2종 출시  
날짜: 201405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28  
본문: 종근당은 기침감기와 코감기에 효과적인 ‘모드콜플루 코프’(사진)와 ‘모드콜플루 노즈’를 출시했다.<br/>두 제품은 해열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공통으로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모드콜플루 코프는 기침을 억제하는 중추성 진해제와 가래를 제거하는 거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성분을 함유해 기침감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모드콜플루 노즈는 콧물 등으로 막힌 코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비충혈제거제와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합 처방해 코감기에 효과적이다.<br/>종근당은 이미 주야간 시간대별로 복용할 수 있는 모드콜플루 올데이와 나이트 2종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에 증상별 치료에 적합한 모드콜플루 코프와 노즈의 출시로 감기약 4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br/>모드콜플루 시리즈는 물에 타서 복용하므로 흡수가 빠르고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으며 감기 회복에 필요한 수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픽토그램을 적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br/>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모드콜플루는 다양한 시간대와 증상에 맞춰 복용이 가능한 차별화된 감기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복잡한 감기 증상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5.txt

제목: [사설]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58  
본문: 세월호 참사는 구원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배 하에 있는 청해진해운이 상습적인 과적을 일삼다 빚은 사상 최악의 비극이다. 자신들만 살아나온 승무원들 못지않게 세월호 운영사의 책임자인 유씨의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 그런데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유씨의 행태는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br/>더욱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유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시도한 흔적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유씨가 인척인 모 그룹 A회장을 통해 서울의 한 골프숍에서 50여억원어치의 고급 골프채를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골프 클럽은 기업인들이 정관계 로비를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로비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br/>검찰이 골프숍과 A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골프숍 판매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범행이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A회장은 물론 골프숍 사장 등 관계인을 모두 불러 구체적인 범행 흔적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수백명의 어린 학생을 수장시키고도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유씨에게 법의 엄중함을 가르쳐야 한다.<br/>특히 유씨가 세모를 고의로 부도낸 뒤 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사들이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의 도움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이들의 개입 여부를 캐기 바란다. 사실 영세 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이 5공 당시 한 실세의 도움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가.<br/>겉으로는 종교인인양 하면서 신도들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부를 축적해 온 유씨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검찰이 불러도 오히려 신도를 앞세우며 한마디 대꾸도 없이 역으로 자신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언론에 공개하는 교활함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병언 구원파의 일부 신도는 그를 가증스럽게도 ‘멘토’라고 부르는 등 맹목적인 충성분자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br/>유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그를 검거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버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눈물이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수사의 고삐를 늦추는 것은 이번 사고로 아쉽게 스러져간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검찰은 유씨를 검거해 범죄를 낱낱이 밝힌 뒤 모든 재산을 피해 회복에 사용하기 바란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 각종 수사에서 실망을 안긴 검찰은 유씨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그동안의 과오를 만회하길 기대한다.<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6.txt

제목: 중앙대학교병원, ‘암예방 건강아카데미’ 진행  
날짜: 201405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243  
본문: [쿠키 건강] 중앙대학교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암예방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암에 대한 예방 및 이해를 돕고자 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암예방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br/><br/>지난 15일 용산구보건소 건강교육실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사전 접수 받은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암'을 주제로,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가 예방과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위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및 식이요법 등에 대한 강좌도 진행됐다.<br/><br/>다가오는 22일에는 '췌담도암(소화기내과 오영철 교수)', 29일에는 '유방암(외과 신희철 교수)'에 대한 내용으로 각 분야별 교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알차고 유익한 건강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다.<br/><br/>한편 중앙대병원은 동작구보건소에서도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암예방 건강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인데, 6월 17일 '유방암(외과 박성준 교수)', 6월 24일 '전립선암(비뇨기과 김태형 교수)', 7월 1일 '갑상선암(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br/><br/>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내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33, 9443)로 문의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7.txt

제목: 시판 월드컵대표팀 유니폼서 발암물질  
날짜: 20140520  
기자: 서윤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20100000084  
본문: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월드컵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등 인체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9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길 그린피스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디다스와 나이키, 푸마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월드컵 관련 용품에 대한 독성 화학물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는 한국은 물론 독일 홍콩 멕시코에서 동시에 열렸다.<br/>이번 연구를 위해 그린피스는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를 비롯해 유니폼, 축구화, 골키퍼 장갑 등 33개 제품을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구입했다. 해당 제품은 영국 그린피스 연구소와 독일의 독립 공인 연구소 등에 보내 분석했다.<br/>그린피스 분석 결과, 대부분 월드컵 제품에서 과불화화합물(PFCs), 프탈레이트, 노니페놀 에톡시레이트(NPEs),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생산 과정에서 물을 오염시키고 제품에 남아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과 면역 계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br/>특히 아디다스의 대표적 축구화인 ‘프레데터’와 메시 축구화로 유명한 ‘아디제로’에서는 업체 자체 규정보다 각각 최대 14배, 6배 높은 PFCs가 나왔다. ‘아디제로’ 샘플은 한국에서 시판 중인 제품에서 골랐다. 응원복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시판용 유니폼에서도 프탈레이트가 소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유럽연합(EU)과 한국에선 36개월 미만 유아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다. 브라주카에서는 호르몬 교란물질 NPEs가 발견됐다.<br/>그린피스는 이날부터 월드컵 공식후원사인 아디다스를 겨냥해 독성물질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br/>서윤경 기자 y27k@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8.txt

제목: [현장에서/장윤형 기자] ‘직업성 암(癌)’과 백혈병  
날짜: 2014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296  
본문: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협상 상대인 반올림(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측도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반도체 제조공정과정과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다.<br/><br/>특히 ‘직업성 암’은 전문가들도 선뜻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코멘트를 주기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입증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산재인정을 밝히는 데 따른 부담이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br/><br/>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한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철저한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백혈병이 산업재해인지 여부, 즉 직업과 백혈병과의 연계성인 ‘직업성 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span class='quot0'>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가족에게 합당을 보상을 할 것이며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하겠다</span>”고 밝히면서도, 반도체 제조공정과 백혈병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br/><br/>이에 실제 의료계 현장에서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는 쉽지 않았다. 실제 산업장에서 일하다 직업성 암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직업과 암의 연계성에 대해 진단서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근로현장의 목소리다.<br/><br/>특히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난치병에 걸린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이유는 이러한 직업성 암에 대한 입증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사들은 ‘직업과 암의 연계성’에 대한 입증관계를 밝히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과 산업장 환경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일부 의료진들은 이러한 진단에 대해 답을 피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다. 더불어 의료진들이 작업장 환경과 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밝히는 데 꺼려한다는 것도 암암리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br/><br/>하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과 백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힌 의사들도 있다. 기자가 만난 한 의사는 “반도체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반도체를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유기 용제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외 한 논문에서는 반도체작업장에서 반도체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유기 용제 등의 화학물질에 근로자들이 일정시간 이상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의 암 발병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암 발병이 화학물질 노출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해서 이 둘의 인과관계를 즉각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서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br/><br/>실제 지난 2000년에 발간된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에 실린 논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비소 등의 유해금속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명확한 입증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br/><br/>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주도에 의한 ‘직업과 관련한 암의 역학조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암 발생이나 암 사망 중 직업과 관련된 암의 추정은 암 통계 구축과 역학적 연구가 활발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전체 암 사망의 4.9%(남성 암 사망의 8%, 여성 암 사망의 1.5%), 미국은 전체 암 사망의 약 2.4~4.8% 가 직업성 암 사망이라고 추정했다.<br/><br/>기업의 사업장 관리 책임도 문제지만, 근로자 작업 환경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탓은 더욱 큰 문제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br/><br/>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 여성 암 사망의 1.5%), 미국은 전체 암 사망의 약 2.4~4.8% 가 직업성 암 사망이라고 추정했다.<br/><br/>기업의 사업장 관리 책임도 문제지만, 근로자 작업 환경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탓은 더욱 큰 문제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br/><br/>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49.txt

제목: [현장에서/장윤형 기자] ‘직업성 암(癌)’과 백혈병  
날짜: 2014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270  
본문: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협상 상대인 반올림(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측도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반도체 제조공정과정과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다.<br/><br/>특히 ‘직업성 암’은 전문가들도 선뜻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코멘트를 주기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입증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산재인정을 밝히는 데 따른 부담이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br/><br/>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한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철저한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백혈병이 산업재해인지 여부, 즉 직업과 백혈병과의 연계성인 ‘직업성 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span class='quot0'>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가족에게 합당을 보상을 할 것이며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하겠다</span>”고 밝히면서도, 반도체 제조공정과 백혈병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br/><br/>이에 실제 의료계 현장에서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는 쉽지 않았다. 실제 산업장에서 일하다 직업성 암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직업과 암의 연계성에 대해 진단서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근로현장의 목소리다.<br/><br/>특히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난치병에 걸린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이유는 이러한 직업성 암에 대한 입증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사들은 ‘직업과 암의 연계성’에 대한 입증관계를 밝히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과 산업장 환경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일부 의료진들은 이러한 진단에 대해 답을 피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다. 더불어 의료진들이 작업장 환경과 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밝히는 데 꺼려한다는 것도 암암리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br/><br/>하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과 백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힌 의사들도 있다. 기자가 만난 한 의사는 “반도체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반도체를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유기 용제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외 한 논문에서는 반도체작업장에서 반도체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유기 용제 등의 화학물질에 근로자들이 일정시간 이상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의 암 발병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암 발병이 화학물질 노출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해서 이 둘의 인과관계를 즉각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서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br/><br/>실제 지난 2000년에 발간된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에 실린 논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비소 등의 유해금속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명확한 입증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br/><br/>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주도에 의한 ‘직업과 관련한 암의 역학조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암 발생이나 암 사망 중 직업과 관련된 암의 추정은 암 통계 구축과 역학적 연구가 활발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전체 암 사망의 4.9%(남성 암 사망의 8%, 여성 암 사망의 1.5%), 미국은 전체 암 사망의 약 2.4~4.8% 가 직업성 암 사망이라고 추정했다.<br/><br/>기업의 사업장 관리 책임도 문제지만, 근로자 작업 환경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탓은 더욱 큰 문제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br/><br/>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0.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일, 항암치료 영양관리 外  
날짜: 201405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275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5월 항암치료와 영양관리 등 3차례의 암 환우 및 일반인 대상의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오는 20일(화) 오후 2시부터 ‘항암치료시 영양관리’를 주제로 손은주 영양실장이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강연은 항암치료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영양 식단과 부작용 극복방법 등이 제공된다. 이어 21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인의 암, 위암’을 주제로 외과 민재석 과장의 강연이 펼쳐진다. 민재석 과장은 위암의 치료에 대한 강연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의 궁금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8일(수)에는 정형외과 조상현 과장이 강가로 나서 ‘관절염의 진단 및 치료와 관리’ 주제의 강연을 펼친다. 암 이외에도 환자들이 흔히 궁금해 하는 질병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br/>◎서울특별시 서남병원(원장 김준식)은 2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2층 이화홀에서 ‘건강한 혈관을 위한 동맥경화증의 이해’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 1부에서는 최재혁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며, 2부에서는 영양팀 지영미 파트장이 ‘건강한 혈관을 위한 식이요법’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또한 추첨을 통해 경동맥초음파 검사가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 서남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한다. 오는 7월에는 ‘위·식도역류질환의 이해’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문의: 02-6300-9008)<br/>◎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대연 교수는 22일(목)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는 자궁근종은 최신 약물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한편, 부인암은 자각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으로 치료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조기진단법과 최신 치료법에 관해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문의: 02-3010-3051~4)<br/>◎힘찬병원 4개 분원(강남·강북·은형·창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각 분원에서 ‘무릎·어깨·손목 관절 인대 질환 알아보기’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무릎과 어깨, 손목 관절의 다양한 인대 질환의 원인과 진단법, 치료방법 등이 소개된다. 강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가까운 힘찬병원으로 가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한창욱 강북힘찬병원 과장(정형외과)은 “관절의 인대는 같은 부위에 손상이 반복돼 고질병으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 이번 강좌를 통해 관절 인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1577-9229)<br/>◎중앙대학교병원이 오는 22일(목)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요통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허리건강, 이렇게 지키세요!’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허리통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재활의학과 서경묵 교수) ▲일상생활 자세교정을 통한 요통의 개선(재활의학과 이상윤 교수) ▲요통환자의 운동치료(이왕재 물리치료사)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서경묵 재활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허리통증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흔한 증상이어서 간과하기 쉽고, 이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의를 통해 요통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함께 허리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이번 강좌는 요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접수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문의: 02-6299-2219)<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1.txt

제목: "면역조절항암제, 암 환자 치료의 새로운 열쇠"  
날짜: 2014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172  
본문: 서울의대 김동완 교수, PD-1/PD-L1 단일클론항체의 유용성 발표<br/><br/>[쿠키 건강] 암정복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시도되는 가운데 면역치료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br/><br/>서울의대 김동완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는 지난 16일 한국임상암학회 제12차 정기심포지엄에서 "암의 면역치료는 꾸준히 연구돼 왔고, 일부 환자에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종양면역학의 발달로 CTLA-4, PD-1 등을 타깃으로 한 면역조절항암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br/><br/>면역조절항암제란 T-세포가 암세포를 감지해 공격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체크포인트(checkpoint)를 차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br/><br/>지난 2010년 항CTLA-4 단일클론항체인 이필리무맵(ipilimumab)이 전이성 흑색종 환자에서 생존율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NEJM에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어 2011년에는 다카바진과의 병용 효과가 확인됐다. PD-1 역시 종양세포나 기질세포에 발현되는 리간드인 PD-L1 및 PD-L2와 결합되면 면역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를 억제하는 단일클론항체가 종양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2012년에는 항PD-1 단일클론항체인 니볼루맵(nivolumab, BMS-936558)이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신장암 환자에서 18~28%의 종양반응을 보였다는 1상 임상 결과(NEJM 2012;366:2443-54)와 함께 항PD-L1 단일클론항체인 BMS-936559에 대한 데이터도 발표됐다(NEJM 2012;366:2455-65).<br/><br/>최근에는 흑색종 환자에서 람브롤리주맵(lambrolizumab, MK-3475)이 38%의 종양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NEJM 2013;369:134-44), 이필리무맵과 니볼루맵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단일치료보다 뛰어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이 시사됐다(NEJM 2013;369:122-33).<br/><br/>김 교수는 "이러한 고무적인 치료반응에 힘입어 현재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해 다양한 종양을 대상으로 PD-1 및 PD-L1 단일클론항체들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이 표준치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와 적절한 반응평가 기준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또한 "현재 흑색종, 폐암에 국한돼 있어 이외에 PD-1/PD-L1 단일클론항체에 반응을 보이는 암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의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적응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2.txt

제목: 전립선학회, 전립선암 조기발견·관리 프로그램 개발  
날짜: 201405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242  
본문: [쿠키 건강] 대한전립선학회(회장 유탁근)는 최근 전립선특이항원(PSA)을 이용한 전립선암 조기발견 및 관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br/>전립선암은 국내 남성들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으로, 전체 남성암의 5위에 해당된다. 특히 전립선암은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앞으로 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br/>최근 일부 자료 등의 주장으로 전립선암은 진단할 필요도 치료할 필요도 없는 질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전립선학회 측은 “이의 근거는 전립선암이 남성암의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료로, 상대적으로 늦게 발견되어 진행성 전립선암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br/>배뇨문제와 연관이 되는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든 암이든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찾아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배뇨문제를 잘 들어내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br/>또한 배뇨문제를 성접촉성질환으로 오인하여 오히려 진료를 늦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전립선질환에 대한 진료가 늦어지고, 특히 전립선암의 진단이 늦어져서 생기는 안타까운 현상이 진료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br/>대한전립선학회 측은 “<span class='quot0'>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전립선암의 위험성과 조기발견의 이득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전립선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span>”라는 고민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br/>◇다양한 전립선 조직검사 기록 남겨, 질환 관리<br/>전립선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전립선특이항원수치를 기록하고 조직검사를 받았을 경우 이 결과를 기록해 보관할 수 있도록 팜플렛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전립선질환을 진료하는 비뇨기과의사에게도 전립선특이항원 추적의 시기와 이전기록의 비교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했다.<br/>유탁근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을지의대 비뇨기과 교수)은 “자신의 전립선특이항원 수치를 알고 있다면 좀더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되어 진단되면 생명에 위협을 거의 주지 않는 질환이며, 일부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고 추적하는 치료도 가능한 암중에서는 착한 암에 속한다”고 강조했다.<br/>하지만 유 회장은 “시기를 놓쳐 암이 진행된 경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번 전립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이러한 조기발견이 더 도움이 되는 40~50대의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의 위험을 알려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br/>박홍석 대한전립선학회 기획이사(고려의대 비뇨기과)도는 “<span class='quot1'>전립선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전립선특이항원의 절대수치만을 가지고 전립선암을 예측하던 기존의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대수치와 함께 시간에 따른 전립선특이항원의 변화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전립선암을 예측하고 진단한 후 환자의 연령과 암의 병기에 따라 맞춤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span>”이라고 덧붙였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3.txt

제목: HDA, 3차원 방사선 흡수선량 검증 스캐너 ‘P3DS’ 특허 출원  
날짜: 201405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196  
본문: [쿠키 건강] 의료기기 생산기업 업체 HDX(대표이사 정학진)는 고려대 안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한 3D(3차원) 방사선 흡수선량 검증용 영상 스캐너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br/><br/>현재 이 제품은 국내 특허출원(10-2013-0111070)을 마치고 국제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다.<br/><br/>3차원 방사선량 검증을 위한 환자기반의 3차원 선량검증 광학스캐너(P3DS, Patient based 3 Dimensional Dose Evaluation Optical-CT Scanner)는 암 환자들의 안전한 방사선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다.<br/><br/>이 제품은 고려대 안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용 교수 연구팀(이석 교수·장경환 박사)에 의해 고안됐으며, HDX의 WILL 제조기술로 상용화됐다.<br/><br/>HDX 측은 “이 제품은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활용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체로 조사되는 실제 흡수선량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최단 스캔시간(최소 12초)과 재구성시간(최소 5초)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br/><br/>악성 또는 양성 종양의 방사선치료는 종양의 위치, 크기와 주변 정상장기와 조직들을 고려해 계획된 총 방사선흡수선량을 조사했을 때 각각의 종양과 주변 정상조직들에 얼마만큼 방사선량을 받는 지 확인한 후에 방사선치료계획에 맞춰 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된 흡수선량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의 수치와 2차원의 선량검증에 따른 것이므로, 방사선흡수선량이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br/><br/>이렇게 방사선치료계획 시 미리 설정된 방사선흡수선량과 실제 흡수선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빠른 3차원 선량 측정이 필요하다.<br/><br/>이를 위해 개발된 ‘P3DS’는 임상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차원 선량계인 겔 선량계에서 얻어지는 3차원 스캔데이터를 빠르게 얻어 3차원 방사선흡수선량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br/><br/>최초 빛을 조사하는 광원부로부터 빛을 조사해 겔 선량계(Gel detector)에서 조사된 빛을 수신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콜리메터로 투과시킨다. 콜리메이터를 통과한 빛은 연속 촬영을 통해 검출기의 방사선 흡수선량을3차원 재구성영상으로 생성하는 원리이다.<br/><br/>고려대 안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동 연구팀은 “P3DS에 적용된 특허기술은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낮추기 위해 필수적인 최첨단 기술”이라며 “임상에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한편, P3DS는 지난 2013 ASTRO 전시회에서 동남아, 유럽, 북남미 등 세계 각국의 상공인과 방사치료 관련 박사들의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또한 HDX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팀은 제품 편의성과 SW연동성 등을 극대화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국내 학회는 물론 올해 9월에 열리는 2014 ASTRO에서도 제품을 선보여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4.txt

제목: 남극서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송진원 고대 교수팀 또 ‘세계최초’  
날짜: 201405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220  
본문: [쿠키 과학] 국내 연구진이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으로부터 신종 아데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br/>고려대 의대는 미생물학교실 송진원(50·사진) 교수팀이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남극 세종기지 펭귄 마을 일대에서 채집된 턱끈 펭귄(Chinstrap penguin)에서 신종 아데노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br/>연구결과는 바이러스 전문 학술지 ‘바이러시스(Virueses)’ 최신호에 게재됐다.<br/>이 바이러스는 송 교수팀이 과거 남극 도둑 갈매기로부터 처음 분리한 아데노바이러스와도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른 족속이다.<br/>턱끈 펭귄은 남극 및 아 남극권에만 서식하는 조류지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턱끈 펭귄 아데노바이러스 역시 극지에 서식하는 다른 조류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r/>송진원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이러스 유전자분석 실험결과 턱끈 펭귄 아데노바이러스는 전신감염 증상을 보이는 다른 조류의 여러 장기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종과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조류독감’처럼 사람에게도 질병을 옮길 수 있는지 더 알아볼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아데노바이러스는 실제로 사람에게 호흡기감염, 폐렴, 유행성 각결막염, 장염 등을 일으키며 동물에서는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br/>송 교수는 신종 한타바이러스인 ‘임진바이러스’를 발견한 업적으로 지난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한 바이러스 연구 권위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5.txt

제목: 여전한 병상 확대…병상총량제 해법될까  
날짜: 2014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191  
본문: 1만 1000병상 증설 계획에 병원 유치 선거공약까지 ‘한숨 뿐’<br/><br/>[쿠키 건강] 양적 팽창은 끝난 것 같아 보이던 국내 대형병원들의 병상수 확대가 여전하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년처럼 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도 다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인구당 병상수에 병원 과열 경쟁,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집중 논의된 현재 병원 현황과 병상총량제의 필요성을 짚어봤다.<br/><br/>◇무한 병상 확대 여전히 계획 중<br/><br/>2012년 현재 공공병상수 3만 5696병상,(11.8%), 민간병상수 26만 6005(88.2%), 합쳐서 20만 2500병상에 이른다. 인구 1000명당 8.8병상으로 OECD 국가의 2배 규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형병원 병상 확대 계획을 보면 여전히 1만 1000병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br/>올해만 해도 인천국제성모병원이 1000병상으로 문을 연데 이어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500병상이 오픈했다. 2016년까지 나온 계획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성남시립의료원 500병상, 을지대 의정부병원 1000병상, 용인 동백 세브란스병원 800병상, 인천 인하대병원 600병상, 검단신도시 중앙대병원 1000병상, 마곡 이대병원 1000병상 등이다.<br/><br/>지방으로도 대구 동산의료원 1000병상, 창원 한마음병원 500병상, 천안 순천향병원 800병상, 세종 충남대병원 500병상, 군산 전북대병원 500병상 등이 여전히 병상 확충 계획을 내세웠다.<br/><br/>병상수 무한 팽창을 이어가자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전문, 중증 진료를 확대하자는 방침이 나오고 있으며, 지역병상 총량제도 검토하고 있다.<br/><br/>H&M컴퍼니 임배만 대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가 폐지된 2000년 이후 병상 증가 억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형병원과 기존 병원들 간의 병상 증축 경쟁으로 병상 과잉이 야기되고, 지역 간 입원 병상수 격차가 심화됐다”며 “의료자원의 고른 분배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지방선거 앞두고 병원 유치 공약 쏟아져<br/><br/>병원 자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6.4 지방선거 17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각 후보들의 병원 유치 공약은 올해도 튀어 나왔다.<br/><br/>한현택 대전 동구청장 후보는 1996년부터 진행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내걸었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는 서울대병원을 의식하며 암 등 임상연구를 병행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br/><br/>정정균 무소속 전남 여수시장 후보는 의료시설 고급화를 위해 여수시민은 물론 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종합방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br/><br/>수도권에도 이어졌다. 황춘자 새누리당 용산구청장 후보는 “<span class='quot0'>2011년 3월 중앙대병원 이전 뒤 대형병원이 들어오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코레일 땅이지만 구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양주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서울리조트 부지에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내세웠다.<br/><br/>◇OECD 국가 병상 수 2배, 의사수는 부족<br/><br/>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밝힌 2010년 우리나라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8.8병상으로 OECD 회원국 병상수 4.9병상보다 3.9병상이 많다. 반면, 주요 국가의 병상은 프랑스 6.4병상, 독일 8.3병상, 영국 3.0병상, 미국 3.1 병상 등이다.<br/><br/><br/><br/>OECD 대비 의사수는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0명이며 2005년 1.6명에 비해 0.4명 증가한 수준이었다. 다른 나라를 보면 프랑스 3.1명, 독일 3.7명, 영국 2.7명, 미국 2.4명 등이다. 그만큼 병상수는 많은데 의사수는 부족한 만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br/><br/>문제는 그러면서도 인력은 늘리지 못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다. 전문의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병원의 의사 인력난이 가중되고 오히려 인건비도 1.5배까지 상승한다.<br/><br/>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입원병상수가 부산 1403병상, 광주 1505병상, 전북 1598병상, 전남 1529 병상 등으로 서울 717병상, 경기 739병상, 인천 885병상 등에 비해 훨씬 많다.<br/><br/>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span class='quot1'>지역병상 총량제 도입 찬성은 병상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병상증가 억제를 막을 수 있고, 의료자원의 지역적 왜곡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법을 피해 일부 지역에 병상이 몰릴 수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공급시장을 더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대주장이 맞물린다</span>”고 설명했다.<br/><br/>◇병상총량제 논의됐지만 제자리 걸음<br/><br/>지난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br/><br/>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검토중이다. 복지부 측은 “<span class='quot2'>어떠한 방향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병상관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현재는 서비스 질에 따라 평가하고 여기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추진중</span>”이라고 밝혔다.<br/><br/>병원들은 병상총량제가 나오기 전 빨리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더 이상 병상 확대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br/><br/>한 대학병원장은 “병상총량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다. 그 전에 빨리 병상 계획을 수립해 병상수 확대를 해야 한다. 규모의 경쟁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부분의 규모가 되지 않고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수익구조”라고 피력했다.<br/><br/>건국대의료원 양정현 원장은 “지방에는 기준 병상 일부를 폐쇄하는 곳이 늘어날 정도로 심각하다. 빅5병원 외에는 더이상 양적 팽창은 불가능하다. 병원도 병상을 늘릴 것이 아니라 다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한탄했다.<br/><br/>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급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학병원이 병원, 종합병원의 환자를 빼앗아가고 반대로 병원은 의원급에서 연쇄적으로 환자를 흡수, 의원급의 환자는 날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br/><br/>100병상 당 의료이익률을 보더라도 160병상 미만에서는 -5.3%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장비 등의 투자 대비 효율적 자원이용도 그렇지만, 환자들이 규모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이에 의사협회, 중소병원 등은 병상총량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하다.<br/><br/>개원가에서는 “대형병원은 무리한 병상을 확대하면서 고작 의원들의 환자를 빼앗아가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증 질환 확대가 아니라 경증 질환 외래 환자까지 독식하려는 구조다. 병상총량제 확대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6.txt

제목: [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1)] ‘非理 하차’ 재·보선 이젠 그만  
날짜: 20140519  
기자: 엄기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9100000110  
본문: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후보자들은 공정선거와 지역 발전을 약속한다. 유권자들은 이번엔 제대로 된 후보를 뽑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약속과 다짐은 매번 이뤄지지 않았다. 불과 4년 전도 마찬가지였다.<br/>국민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입수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횡령 등 유죄 확정 판결, 사직·사망 등으로 그 직(職)을 상실한 사례 262건을 전수 분석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사례 54건, 뇌물수수·횡령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례 56건, 사직 121건, 사망 31건이다. 사직의 대부분은 대선·총선 출마 등 더 큰 정치적 욕심을 위해 중도 하차한 경우다.<br/>이런 문제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비용은 809억4800여만원에 이른다. 당선자들의 문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음달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탐사기획-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br/><br/>-2010년 당선자 중 ‘職’ 상실 262명 전수분석-<br/>2009년 최병국 당시 경북 경산시장은 시청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약속했다. 실제 5급으로 승진하자 A씨는 최 시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다른 직원 B씨는 최 시장에게 금품을 건네지 않았는데도 승진했다. 루트는 따로 있었다. B씨는 최 시장의 부인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이미 3000만원을 건넨 상태였다. 최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나 꼬리가 잡혔다. 대법원은 2012년 최 시장 부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br/>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은 2011년 당시 자신의 형제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줬다. 대법원은 “<span class='quot0'>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에 응하라고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span>”고 판결했다.<br/>지방자치가 비리의 검은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권 등 직권을 악용한 비리, 지역 업체와의 유착, 인사 비리 등은 지방자치의 암이다. 만취해 공무원을 때리는 등 자질 논란도 여전하다. 유죄 확정판결,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한 중도 하차는 가뜩이나 정착이 힘든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br/>2010년 6월 2일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 3436명(비례대표 제외)이 당선됐다. 국민일보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0년 제5회 전국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62명은 법이 정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7.6%다.<br/>16개 시·도 지사 중 3명이 임기 중 물러난 광역단체장의 중도 하차 비율이 18.8%로 가장 높았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비율은 16.7%로 그 뒤를 이었고 광역의원(시·도 의원)은 11.3%를 기록했다.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은 144명이 중도 하차해 숫자로는 가장 많았으나 전체 인원이 2512명이나 돼 비율로는 5.7%로 가장 낮았다.<br/>262건의 사례 중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금품수수, 사기, 상해 등으로 퇴진한 경우는 56건으로 집계됐다.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례가 많다.<br/>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9건 중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케이스는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건은 시·군·구 의원들이 국회의원 총선 등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다 법의 단죄를 받은 경우였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으며 지역 보스인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기초의원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다.<br/>자칫 방심했다가는 비리로 얼룩진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br/>탐사취재팀=하윤해 팀장, 엄기영 임성수 권지혜 유성열 유동근 정건희 김동우 기자 justic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7.txt

제목: 가정의 달에 챙겨야할 부모님 건강은?  
날짜: 201405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8100000040  
본문: [쿠키 건강] 5월 가정의 달, 항상 자식이 먼저라고 여기기는 부모님을 떠오르기 마련이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아픈 곳을 숨기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괜찮다, 아픈 곳 없다”고 말하더라도 부모님의 얼굴빛,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건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부모님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급격히 늘어난 체중은 당뇨나 암?<br/><br/>얼굴빛이 해쓱하고 푸석한 데다, 몇 달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면 당뇨나 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당뇨는 식사량이 비슷해도 한두 달 사이에 10㎏ 이상 체중이 줄어들 수 있고, 암도 마찬가지다. 유독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면 당뇨일 가능성이 높다.<br/><br/>당뇨는 자칫하면 시력을 잃거나 발이 썩는 등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빨리 진단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인 경우에도 초기에는 거의 통증이 없으므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암은 빈혈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부모님 눈의 결막이 창백한지를 살펴 빈혈이 의심되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br/><br/>부모님이 부쩍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시거나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고 본다면 노인성 난청일 확률이 높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노인성 난청을 앓을 정도로 흔하긴 해도, 의사소통을 방해해 사회적 고립을 부르기 쉽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br/><br/>치아와 잇몸의 노화는 몸의 노화보다 더 빨리 오므로 부모님 대부분이 치아와 잇몸 질환을 앓고 있기 십상이다. 치아와 잇몸 질환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영양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평소보다 음식물을 씹는 것이 불편해 보이거나 대화를 나눌 때 입 냄새가 심하다면 얼른 치과에 모시고 가는 것이 좋다.<br/><br/>이대일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미 의치를 하고 있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잇몸이나 혀 등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일 깨끗하게 의치를 씻도록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부모님이 외출을 하실 때 햇빛에 유독 눈이 부시다거나 눈을 자주 찡그린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백내장은 눈에서 빛을 통과시켜 물체의 원근을 조절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60대에는 50%, 70대에는 70%가 앓을 정도로 흔하다. 평소 눈이 침침하고 빛이 퍼져 보이거나 햇빛에 눈이 많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동공 부분이 하얗게 변하게 된다. 이미 진행된 백내장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br/><br/>부모님의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뇌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한쪽 얼굴에 저린 증상까지 있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이 파열돼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돼 발생하는 뇌출혈을 통틀어 일컫는다.<br/><br/>뇌졸중이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생기는 뇌경색은 20~40% 정도에서 전조 증상을 보인다. 대표 증상이 신체의 부분마비나 말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극심한 두통, 시야 장애 등이므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br/><br/>이대일 원장은 “부모님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자주 만지거나 일어설 때마다 근처 물건을 짚고 일어나고 걸음이 불편해졌다면 관절염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붓는 것이 퇴행성관절염인데,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며 “특히 쪼그려 앉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부모님은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 등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평소 찬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부모님이 편하게 쉬는 시간에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점, 다리가 차고 시리다는 점 등이 허리디스크와 다르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자칫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 예방하도록 하자.<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8.txt

제목: 2020년 30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1400만명  
날짜: 201405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8100000020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생활 수칙 보급,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응급조치, 초기 집중재활치료 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은 주된 사망원인(심뇌혈관질환 25.8%, 암 27.6%, 2012 통계청)으로 특히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br/><br/>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며, 특히 30세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는 2020년 1400만명, 2030년에 16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br/><br/>정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2011~2015)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br/><br/>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만들어 보급하고,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혈압 수치를 올바르게 알고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료 수준 제고 및 표준화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 및 효과적인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모형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br/><br/>늘어나는 소아비만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리기 동아리와 같은 소아청소년기 신체활동 장려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br/><br/>한편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강원대·경북대·제주대·경상대·전남대·충북대·동아대·원광대·충남대·분당서울대·인하대 등 11개 대학병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br/><br/>이를 통해 성심근경색증은 응급실 도착부터 관상동맥중재술까지 70.9분→47.8분으로 줄었고, 뇌졸중은 응급실 도착부터 뇌경색 약제 투여까지 51분→44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향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성과를 타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의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br/><br/>또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중증 질환 또는 외상 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활성화해 장애 예방, 후유증 감소 및 조속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많은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2~3개월 간격으로 병원(특히 요양병원)을 전전하거나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59.txt

제목: 갑상선암 ‘과잉진단’ 결론은 위험…과학적 검증해야  
날짜: 201405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8100000049  
본문: [쿠키 건강] 국민적 혼란을 불러온 ‘갑상선암 과다 진단’ 논란에 대해 대한내분비학회가 전문가들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br/>제2회 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SICEM 2014) 개최에 맞춰 지난 16일 대한내분비학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용 내분비학회 부총무(서울사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갑상선 과다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br/>김 부총무는 “<span class='quot0'>이날 갑상선암 과다 검진 논란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학회에서는 갑상선암 검진과 관련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2009년 전문가들이 갑상선암 발견을 위한 일상적인 초음파 검사 시행은 권고할 수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당시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전문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며, 하지만 몇몇 의사들이 하지말라고 했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마치 내분비학회가 검진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유감</span>”이라고 지적했다.<br/>따라서 김 부총무는 현재의 논란에 대해 “갑상선암 검진이 과잉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연구와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갑상선 결절(또는 암)은 환자마다 위치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0.txt

제목: [사이언스 토크] 반물질과 반사랑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7100000029  
본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뭘까. 다이아몬드가 그 주인공일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2011년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인사이더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g당 5만5000달러로 3위였다. 2위는 암 치료제인 ‘캘리포늄’으로 g당 2700만 달러, 1위는 g당 무려 62조5000억 달러의 가격이 매겨진 ‘반물질’이 차지했다.<br/>반물질은 쉽게 말하면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의 물질이다. 즉, 물질과 질량이나 크기 등은 똑같지만 전기적 성질만 다르다.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는 플러스 성질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성질의 전자, 중립인 중성자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반물질은 마이너스 성질의 반양성자와 플러스 성질의 양전자, 중성자와 자기 흐름의 방향이 다른 반중성자로 구성된다.<br/>반물질이 비싼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반물질이 없는 물질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주 탄생 이론에 의하면 최초의 빅뱅 직후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생성됐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반물질이 홀연히 사라졌다. 우주를 이루는 물리 법칙이 물질만 편애한 것이다. 반물질이 사라진 이유는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다. 때문에 마치 도플갱어처럼 반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반은하와 반우주가 어딘가에 있으며, 거기엔 중력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중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br/>UFO가 지구 대기상에서 반물질이 소멸되는 현상이라는 가설도 제기된 바 있다. UFO의 순간 가속과 불규칙한 운행, 그리고 순간 소멸 등의 특성이 이만큼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물질이 물질과 만나면 순식간에 쌍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반물질 0.5g만 있어도 히로시마에서 터진 핵폭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나온다. 따라서 이를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10년 만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알파 센타우리는 지금 인류가 발명한 우주선으로는 무려 4만년의 시간이 걸리는 4.3광년 거리에 있다.<br/>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빅뱅 직후 스트질이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인간의 정신세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만약 최초 인류의 탄생 직후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사랑이 모두 사라졌다면 하는 상상 말이다. 그랬다면 증오와 미움, 무관심, 이기심 같은 반사랑이 전혀 없는 온전히 사랑만으로 채워진 인간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진 않을까.<br/>이성규(과학 칼럼니스트)<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1.txt

제목: [사이언스 토크] 반물질과 반사랑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7100000152  
본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뭘까. 다이아몬드가 그 주인공일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2011년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인사이더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g당 5만5000달러로 3위였다. 2위는 암 치료제인 ‘캘리포늄’으로 g당 2700만 달러, 1위는 g당 무려 62조5000억 달러의 가격이 매겨진 ‘반물질’이 차지했다.<br/>반물질은 쉽게 말하면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의 물질이다. 즉, 물질과 질량이나 크기 등은 똑같지만 전기적 성질만 다르다.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는 플러스 성질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성질의 전자, 중립인 중성자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반물질은 마이너스 성질의 반양성자와 플러스 성질의 양전자, 중성자와 자기 흐름의 방향이 다른 반중성자로 구성된다.<br/>반물질이 비싼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반물질이 없는 물질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주 탄생 이론에 의하면 최초의 빅뱅 직후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생성됐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반물질이 홀연히 사라졌다. 우주를 이루는 물리 법칙이 물질만 편애한 것이다. 반물질이 사라진 이유는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다. 때문에 마치 도플갱어처럼 반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반은하와 반우주가 어딘가에 있으며, 거기엔 중력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중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br/>UFO가 지구 대기상에서 반물질이 소멸되는 현상이라는 가설도 제기된 바 있다. UFO의 순간 가속과 불규칙한 운행, 그리고 순간 소멸 등의 특성이 이만큼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물질이 물질과 만나면 순식간에 쌍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반물질 0.5g만 있어도 히로시마에서 터진 핵폭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나온다. 따라서 이를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10년 만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알파 센타우리는 지금 인류가 발명한 우주선으로는 무려 4만년의 시간이 걸리는 4.3광년 거리에 있다.<br/>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빅뱅 직후 반물질이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인간의 정신세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만약 최초 인류의 탄생 직후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의 반사랑이 모두 사라졌다면 하는 상상 말이다. 그랬다면 증오와 미움, 무관심, 이기심 같은 반사랑이 전혀 없는 온전히 사랑만으로 채워진 인간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진 않을까.<br/>이성규(과학 칼럼니스트)<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2.txt

제목: [크리스천과 웰다잉] 죽어야 부활… 믿음 안에서 두려움 떨쳐야  
날짜: 20140517  
기자: 양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7100000025  
본문: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섬뜩한 느낌을 주지만 한편으론 의미심장한 질문이다.<br/>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삶의 마지막 날’을 떠올린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 말했다. ‘실낙원’의 저자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황금열쇠’라고 했다.<br/>이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삶의 모멘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음을 거친 뒤 부활해 지상명령을 전했다.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br/>죽음은 선물이다<br/>누구나 죽음을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으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9.2%는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죽음 준비에 대해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높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br/>사후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20여년간 말기암 환자를 돌본 샘물호스피스선교회장 원주희 목사는 신앙인 역시 평소 죽음을 생각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히 9:27)’이란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대부분 개인의 종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면서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등 죽음에 가까워지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분노하고 슬퍼한다. 이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br/>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보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종교학자인 정진홍 울산대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0'>삶의 끝을 마련한 것은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죽음 준비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br/>전문가들은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을 때 남은 삶을 충실히 살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싸나토로지스트(죽음교육 전문가)를 배출하는 임병식 한국싸나토로지협회 이사장은 죽음 준비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죽음을 앞둔 이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자연히 알게 된다. 쓸데없는 집착을 제거하기 때문”이라며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했듯 신앙인도 집착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br/>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 역시 죽음을 인식할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죽음이 삶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자기반성과 변화”라며 “죽음을 앞둔 이라면 누구나 원수를 용서하고 분노를 풀고자 한다. 또 이로 인해 인생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br/>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은영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회장은 “우리 모임이 올해로 23년 됐지만 교회에서 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인학교나 사회복지센터가 대부분”이라며 “잘 죽는 것은 결국 잘 사는 것이다. 교회가 막연히 사후세계에 대해 말하기보다 이웃을 돌아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성도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목사 역시 교회가 죽음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죽음을 준비하면 곧 죽을 거라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임을 일깨우는 것 또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span>”이라고 강조했다. 원 목사는 “<span class='quot1'>교회가 삶과 성공만 말해 성도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성도가 올바른 죽음관을 바탕으로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삶과 죽음을 균형 있게 설교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죽기 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엔딩노트나 유언장 쓰기를 권했다. 송 목사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전에 사전의료·장례의향서나 유훈 등을 엔딩노트에 적는다면 자기성찰뿐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죽음 준비의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권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삶의 소중함은 절로 배우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눔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span>”이라고 조언했다. 죽음 준비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일이다.<br/>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3.txt

제목: [크리스천과 웰다잉] 웰다잉 연극단장 최명환 “죽음 공부, 사는 법이 보였다”  
날짜: 20140517  
기자: 양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7100000026  
본문: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최명환(66·경기도 이천 은석교회) 웰다잉(Well-dying) 연극단장이 암 수술 직전 한 생각이다. 그는 신장암과 폐암으로 세 번 수술대에 올랐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미지의 세계이자 공포의 대상인 죽음이 궁금해 두 번째 수술 후 ‘죽음 공부’를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종말을 인정하자 새 삶이 펼쳐졌다. 대기업 임원에서 웰다잉 강사를 거쳐 연극배우로 인생 3막을 연 최 단장을 지난 1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br/>가지런히 빗어 넘긴 은발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는 만나자마자 명함 2장을 건넸다. 웰다잉 연극단이 속한 각당복지재단과 중부웰다잉문화연구소 명함이다. 연구소는 웰다잉 관련 학술행사와 세미나 개최를 위해 지난해 그가 설립했다. “잘 죽기 위해 4년 전부터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어요. 매년 갱신하는데 최소 20%는 달성합니다. 연구소 설립도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던 거예요.”<br/>하지만 원래 잘 죽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단장은 삼양사 영업담당 중역을 지냈다. 30여년간 근속하며 관계사 대표를 맡는 꿈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가온 죽음의 위기는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br/>2003년 신장암 판정을 받은 최 단장은 그해 오른쪽 신장의 3분의 1을 잘랐다. 불행히도 2년 뒤 왼쪽 신장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이번엔 왼쪽 신장의 4분의 1을 잘라야 했다. 담당의는 이전보다 위험하고 까다로운 수술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신변정리에 나섰다. 유언장을 쓰고 아내와 친구에게 당부할 말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참 답답했지요. 죽음에 대해 터놓고 말하고 싶은데 다들 ‘불길하다’며 피하니까요. 그때 결심했죠. 만약 산다면 저같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겠다고.”<br/>수술 후 2년 만에 정년퇴임을 한 그는 죽음 관련 책과 강의를 두루 섭렵했다. 그러다 2008년 우연히 각당복지재단의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알게 된 최 단장은 단숨에 달려가 등록했다. 이곳에서 그는 2년간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과 웰다잉 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했다.<br/>그러나 대중에게 죽음은 여전히 무거운 주제였다. 2009년 서울 마포구청에서 한 첫 강의에서 50, 60대 청중은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청중이 죽음을 자기 일로 느낄지 고민이 됐다. 마침 그 해 각당복지재단이 ‘웰다잉 연극단’을 시작했다. 연극으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자는 의도에서다. ‘쉬운 강의’를 하고자 얼떨결에 참여하게 된 생애 첫 오디션에서 그는 주연으로 발탁됐다. ‘단원 평균 연령 66세’인 웰다잉 연극단에 창단 멤버로 합류한 그는 ‘립스틱 아빠’ ‘행복한 죽음’ ‘소풍 가는 날’에 연극배우이자 단장으로 활약했다. 연극에 대한 열정은 수술의 아픔도 잊게 했다. 2012년 폐암 수술을 받은 그는 두 달 만에 무대에 복귀했다.<br/>전국의 사회복지관과 교회, 노인대학 등에서 무대를 올린 극단은 지난해 100회 공연을 돌파했다. 올해는 중견 연극배우이자 연출가인 장두이와 손잡고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무대에 오른다. 그는 ‘밑져야 본전’이란 도전이 5대 1의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밝게 웃었다.<br/>죽음에서 삶의 유한함을 배우는 게 ‘웰다잉’이라 정의한 그는 크리스천에게 잘 죽기 위해선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죽음을 앞둘수록 사회봉사나 가족에게 헌신하기, 자아성취 등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행복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 보세요.”<br/>양민경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4.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일, 항암치료 영양관리 강좌  
날짜: 201405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36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5월 항암치료와 영양관리 등 3차례의 암 환우 및 일반인 대상의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br/><br/>오는 20일(화) 오후 2시부터 ‘항암치료시 영양관리’를 주제로 손은주 영양실장이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강연은 항암치료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영양 식단과 부작용 극복방법 등이 제공된다.<br/><br/>이어 21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인의 암, 위암’을 주제로 외과 민재석 과장의 강연이 펼쳐진다. 민재석 과장은 위암의 치료에 대한 강연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의 궁금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br/><br/>28일(수)에는 정형외과 조상현 과장이 강가로 나서 ‘관절염의 진단 및 치료와 관리’ 주제의 강연을 펼친다. 암 이외에도 환자들이 흔히 궁금해 하는 질병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5.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감정 조절이 가능한 ‘예쁜 환자’가 되는 비법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14269196  
본문: 장모님의 예쁜 치매/김철수(공감·1만4000원)<br/>바야흐로 100세 시대. 장수 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노인 숫자도 급증하는 까닭이다.<br/>치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뇌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주사를 맞듯이 평소 두뇌훈련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br/>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사인 저자는 치매에도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감정 조절은 잘 유지되는 ‘예쁜 치매’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늘 안절부절못하며 가족을 괴롭히는 ‘미운 치매’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바람은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환자가 되는 것이다.<br/>책은 저자가 치매에 걸린 장모를 모시고 살며 느끼고 겪은 일에다가 치매 극복에 필요한 최신 의료정보를 엮었다. 간병기 형식이어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읽으며 치매 극복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br/>저자는 특히 암 덩어리처럼 수술로 깨끗이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쁜 치매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돕는 것이 최선의 치료일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예쁜 치매가 되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6.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감정 조절이 가능한 ‘예쁜 환자’가 되는 비법  
날짜: 2014051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032  
본문: 장모님의 예쁜 치매/김철수(공감·1만4000원)<br/>바야흐로 100세 시대. 장수 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노인 숫자도 급증하는 까닭이다.<br/>치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뇌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주사를 맞듯이 평소 두뇌훈련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br/>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사인 저자는 치매에도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감정 조절은 잘 유지되는 ‘예쁜 치매’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늘 안절부절못하며 가족을 괴롭히는 ‘미운 치매’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바람은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환자가 되는 것이다.<br/>책은 저자가 치매에 걸린 장모를 모시고 살며 느끼고 겪은 일에다가 치매 극복에 필요한 최신 의료정보를 엮었다. 간병기 형식이어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읽으며 치매 극복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br/>저자는 특히 암 덩어리처럼 수술로 깨끗이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쁜 치매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돕는 것이 최선의 치료일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예쁜 치매가 되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7.txt

제목: 최신 교정의 경향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아프지 않게  
날짜: 201405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60  
본문: [쿠키 건강] 지난 수년간 IT 와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 해 왔다. 로봇기술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수술에 도입되면서 정확한 치료결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절개로 통증과 수술 후유증까지 감소하여서 각광을 받고 있다.<br/><br/>치과 교정치료에도 이러한 첨단 IT 기술이 도입되면서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br/><br/>◇첨단 3D CT, 첨단 영상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br/><br/>진단하고, IT 기술을 이용해 치료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치료결과가 나오도록 맞춤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치료가 미리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로봇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맞춤용 교정 와이어(철사)를 사용해 치료가 정확하게 마무리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도 30~40% 정도 단축가능 하게 만든다.<br/><br/>아이비라인치과 정건성 원장은 “첨단 IT 기술이 교정에 도입되어서 과거 보다 치료기간을 현저히 단축하면서 치료후에 경험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스피드 교정 시술법이 개발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br/><br/>아이비라인 치과는 스피드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우선 3D CT 등의 첨단 장비로 환자분의 상태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를 컴퓨터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결과를 예측하고 상담을 제공한다.<br/><br/>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개개치아에 대한 맞춤 교정 장치를 제작하게 된다. 로봇이 만든 맞춤식 교정용 와이어를 사용하해 정확한 치료결과와 동시에 치료기간도 현저히 단축시켜 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8.txt

제목: KT 유전제 분석기술 투자, 서울대에 센터 설립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39  
본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로 육성 방침<br/><br/>[쿠키 건강] KT와 서울대학교는 15일 산학 협력을 통한 유전체분석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공동설립하기로 했다.<br/><br/>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김선영)에 설립된다. KT는 유전체 분석을 위한 첨단 ICT 역량을 제공한다.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연구 공간과 전문 연구인력을 제공해 유전체 분석 핵심솔루션 개발, 유전체 관련 사업발굴을 본격 추진한다.<br/><br/>양측은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를 미국의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학문적인 선도와 기술기반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br/><br/>유전체 분석 기술은 미래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다. 특정 암관련 유전체 연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도울 수 있고, 발병 후에도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어 생존율을 높이게 된다.<br/><br/>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게 되면, 국내외 어디에서든 자신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 진단 및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기대다.<br/><br/>KT 황창규 회장은 "KT는 앞선 IT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 유전체 분석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생명정보분석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면서, "서울대 BT기술과의 융합으로 우리나라의 유전체 분석과 응용의 실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글로벌 수준의 IT 역량과 분석 인프라를 두루 갖춘 KT와 세계적 수준의 생명정보학 교수들이 있는 서울대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돼 기쁘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이오인포매틱스와 응용에서 세계적으로 선도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유전체 관련 시장은 년 평균 3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1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50조 규모까지 예상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69.txt

제목: [크리스천과 웰다잉] 죽어야 부활… 믿음 안에서 두려움 떨쳐야  
날짜: 20140516  
기자: 양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97  
본문: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섬뜩한 느낌을 주지만 한편으론 의미심장한 질문이다.<br/><br/>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삶의 마지막 날’을 떠올린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 말했다. ‘실낙원’의 저자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황금열쇠’라고 했다.<br/><br/>이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삶의 모멘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음을 거친 뒤 부활해 지상명령을 전했다.<br/><br/>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br/><br/>죽음은 선물이다<br/><br/>누구나 죽음을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으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9.2%는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죽음 준비에 대해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높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br/><br/>사후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20여년간 말기암 환자를 돌본 샘물호스피스선교회장 원주희 목사는 신앙인 역시 평소 죽음을 생각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히 9:27)’이란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대부분 개인의 종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면서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등 죽음에 가까워지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분노하고 슬퍼한다. 이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br/><br/>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보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종교학자인 정진홍 울산대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0'>삶의 끝을 마련한 것은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br/><br/>죽음 준비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br/><br/>전문가들은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을 때 남은 삶을 충실히 살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싸나토로지스트(죽음교육 전문가)를 배출하는 임병식 한국싸나토로지협회 이사장은 죽음 준비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죽음을 앞둔 이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자연히 알게 된다. 쓸데없는 집착을 제거하기 때문”이라며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했듯 신앙인도 집착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br/><br/>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 역시 죽음을 인식할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죽음이 삶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자기반성과 변화”라며 “죽음을 앞둔 이라면 누구나 원수를 용서하고 분노를 풀고자 한다. 또 이로 인해 인생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br/><br/>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은영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회장은 “우리 모임이 올해로 23년 됐지만 교회에서 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인학교나 사회복지센터가 대부분”이라며 “잘 죽는 것은 결국 잘 사는 것이다. 교회가 막연히 사후세계에 대해 말하기보다 이웃을 돌아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성도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목사 역시 교회가 죽음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죽음을 준비하면 곧 죽을 거라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임을 일깨우는 것 또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span>”이라고 강조했다. 원 목사는 “<span class='quot1'>교회가 삶과 성공만 말해 성도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성도가 올바른 죽음관을 바탕으로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삶과 죽음을 균형 있게 설교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죽기 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엔딩노트나 유언장 쓰기를 권했다. 송 목사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전에 사전의료·장례의향서나 유훈 등을 엔딩노트에 적는다면 자기성찰뿐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죽음 준비의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권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삶의 소중함은 절로 배우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눔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span>”이라고 조언했다. 죽음 준비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일이다.<br/><br/>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0.txt

제목: [크리스천과 웰다잉] 웰다잉 연극단장 최명환 “죽음 공부, 사는 법이 보였다”  
날짜: 20140516  
기자: 양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6100000298  
본문: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최명환(66·경기도 이천 은석교회) 웰다잉(Well-dying) 연극단장이 암 수술 직전 한 생각이다. 그는 신장암과 폐암으로 세 번 수술대에 올랐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미지의 세계이자 공포의 대상인 죽음이 궁금해 두 번째 수술 후 ‘죽음 공부’를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종말을 인정하자 새 삶이 펼쳐졌다. 대기업 임원에서 웰다잉 강사를 거쳐 연극배우로 인생 3막을 연 최 단장을 지난 1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br/><br/>가지런히 빗어 넘긴 은발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는 만나자마자 명함 2장을 건넸다. 웰다잉 연극단이 속한 각당복지재단과 중부웰다잉문화연구소 명함이다. 연구소는 웰다잉 관련 학술행사와 세미나 개최를 위해 지난해 그가 설립했다. “잘 죽기 위해 4년 전부터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어요. 매년 갱신하는데 최소 20%는 달성합니다. 연구소 설립도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던 거예요.”<br/><br/>하지만 원래 잘 죽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단장은 삼양사 영업담당 중역을 지냈다. 30여년간 근속하며 관계사 대표를 맡는 꿈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가온 죽음의 위기는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br/><br/>2003년 신장암 판정을 받은 최 단장은 그해 오른쪽 신장의 3분의 1을 잘랐다. 불행히도 2년 뒤 왼쪽 신장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이번엔 왼쪽 신장의 4분의 1을 잘라야 했다. 담당의는 이전보다 위험하고 까다로운 수술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신변정리에 나섰다. 유언장을 쓰고 아내와 친구에게 당부할 말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참 답답했지요. 죽음에 대해 터놓고 말하고 싶은데 다들 ‘불길하다’며 피하니까요. 그때 결심했죠. 만약 산다면 저같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겠다고.”<br/><br/>수술 후 2년 만에 정년퇴임을 한 그는 죽음 관련 책과 강의를 두루 섭렵했다. 그러다 2008년 우연히 각당복지재단의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알게 된 최 단장은 단숨에 달려가 등록했다. 이곳에서 그는 2년간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과 웰다잉 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했다.<br/><br/>그러나 대중에게 죽음은 여전히 무거운 주제였다. 2009년 서울 마포구청에서 한 첫 강의에서 50, 60대 청중은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청중이 죽음을 자기 일로 느낄지 고민이 됐다. 마침 그 해 각당복지재단이 ‘웰다잉 연극단’을 시작했다. 연극으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자는 의도에서다. ‘쉬운 강의’를 하고자 얼떨결에 참여하게 된 생애 첫 오디션에서 그는 주연으로 발탁됐다. ‘단원 평균 연령 66세’인 웰다잉 연극단에 창단 멤버로 합류한 그는 ‘립스틱 아빠’ ‘행복한 죽음’ ‘소풍 가는 날’에 연극배우이자 단장으로 활약했다. 연극에 대한 열정은 수술의 아픔도 잊게 했다. 2012년 폐암 수술을 받은 그는 두 달 만에 무대에 복귀했다.<br/><br/>전국의 사회복지관과 교회, 노인대학 등에서 무대를 올린 극단은 지난해 100회 공연을 돌파했다. 올해는 중견 연극배우이자 연출가인 장두이와 손잡고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무대에 오른다. 그는 ‘밑져야 본전’이란 도전이 5대 1의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밝게 웃었다.<br/><br/>죽음에서 삶의 유한함을 배우는 게 ‘웰다잉’이라 정의한 그는 크리스천에게 잘 죽기 위해선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죽음을 앞둘수록 사회봉사나 가족에게 헌신하기, 자아성취 등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행복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 보세요.”<br/><br/>양민경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1.txt

제목: 동양생명 ‘수호천사 더블종신보험’… 은퇴 전 사망시 기존 상품의 보험금 2배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14248428  
본문: 동양생명은 직장 은퇴 전에 사망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 대비 사망보험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맞춤형 상품인 ‘수호천사 더블종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br/>1형(활동기 집중보장형)과 2형(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1형은 60세·65세·70세 등 선택한 은퇴시기 이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 해당일 계약자 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또 2대 질환(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종신입원, 종신수술, 암 진단비 등 4가지 체증형 특약을 선택하면 은퇴 후에도 질병에 대한 보장을 두 배 더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 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도 포함돼 있다.<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2.txt

제목: 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심장병 예방 근거 없다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000197  
본문: [쿠키 건강]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계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Richard Semba 교수는 JAMA Internal Medicine 5월 12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레스베라트롤이 암과 심장병 예방은 물론 인간의 수명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br/><br/>이는 프랑스인들이 버터, 치즈, 육식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레드와인을 일상적으로 음용해 미국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일명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 가설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br/><br/>연구팀은 1998~2009년 이탈리아의 대표적 와인 산지인 투스카니의 마을 두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 800여명의 소변 속 레스베라트롤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레스베라트롤 농도 수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이에서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br/><br/>또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사망한 268명 중 174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34명은 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과 레스베라트롤 농도간의 상관관계 역시 찾을 수 없었다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Semba 교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레스베라트롤이 암과 심혈관 질환의 진행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즉 이 성분이 염증완화와 심혈관 질환, 암, 장수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뜻한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3.txt

제목: 동양생명 ‘수호천사 더블종신보험’… 은퇴 전 사망시 기존 상품의 보험금 2배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000016  
본문: 동양생명은 직장 은퇴 전에 사망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 대비 사망보험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맞춤형 상품인 ‘수호천사 더블종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br/>1형(활동기 집중보장형)과 2형(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1형은 60세·65세·70세 등 선택한 은퇴시기 이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 해당일 계약자 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또 2대 질환(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종신입원, 종신수술, 암 진단비 등 4가지 체증형 특약을 선택하면 은퇴 후에도 질병에 대한 보장을 두 배 더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 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도 포함돼 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4.txt

제목: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18일, 일요일 검진 실시  
날짜: 201405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000154  
본문: [쿠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원장 김태선)는 오는 18일(일) 평일 건강검진 참여가 어려운 지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등을 내용으로 일요일에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인 1월 19일, 2월 16일, 3월 16일 및 지난 4월 20일에 평일에 검진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요검진을 실시해왔다. 일요검진 검진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검을 받을 수 있다.<br/><br/>김태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일요검진은 각종 예방접종, 종합검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일반건강진단-5대암검진 등의 검진내용으로 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5.txt

제목: 의료기록관리 전문성 제고…의료기록사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 명확화  
날짜: 201405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000163  
본문: [쿠키 건강]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br/><br/>의무기록사는 면허제도로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허취득 응시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기관에 마련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br/><br/>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된 원격(cyber)대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대학 교육이수자의 응시자격 부여문제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br/><br/>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2007년 관련 법률들이 동시에 고쳐지지 않아 발생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원격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도 의무기록사 면허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등의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 ▲의무기록사 시험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br/><br/>김희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span class='quot0'>의료기록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 따라 의료기록사 면허시험 자격 인정 기준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수한 의무기록사 양성을 통해 의료안전과 보건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이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6.txt

제목: [사이비 ‘유병언 구원파’를 해부한다] (7·끝) 전문가 좌담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14248501  
본문: “<span class='quot0'>지금처럼 이단 활개치는 시대 없어… 한국교회 책임감 느껴야</span>”<br/>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의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변질된 교리는 사회악으로 표출됐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정동섭 침신대 전 교수, 박용규 총신대 교수를 지난 13일 서울 총신대에서 만나 세월호 참사가 지닌 교회사적 의미와 한국교회의 대처방안을 들어봤다.<br/>좌담 참석자<br/>진용식 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br/>정동섭 침신대 전 교수<br/>박용규 총신대 교수<br/>-세월호 참사에 유병언의 구원파가 관련됐다.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br/>△진용식 회장=한국교회가 이단 대처를 철저히 했다면 구원파가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단이 교회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br/>△정동섭 교수=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시민들은 이단과 정통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심지어 기침이 구원파와 같은 조직인 줄 안다. 어떤 교회사학자는 ‘이단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기생하는 암세포’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유병언 구원파가 시작된 게 1962년부터이니 87년 오대양 사건 때는 ‘암 2기’ 정도 된 것이다. 그때 암세포를 도려냈으면 세월호 참사라는 말기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br/>△박용규 교수=미국에서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840년부터 70년까지 여호와의증인 안식교 모르몬교 등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이단이 발흥한 시대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역사적으로 교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윤리적·도덕적 타락이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고 쾌락을 추구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없다고 말한다. 십자가의 죄 사함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선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다. 구원파는 현대판 영지주의다.<br/>-교계에선 이번 기회에 ‘빅3 이단(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br/>△진 회장=‘빅3 이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200여개 사이비 종교단체 중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집단이다. 사이비 종교단체는 비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가출 이혼 등을 조장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은다. 하나님의교회, 신천지도 언젠가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사고를 터뜨릴 것이다.<br/>△정 교수=이들은 사회심리학적으로 하등종교라 할 수 있다. 하등종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딛 1:11)는 말씀처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고 가정을 깨뜨린다. 이렇게 하등종교, 이단이 설치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종교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다.<br/>-구원파 신도 수백명이 최근 금수원에서 검찰 진입을 막고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였다.<br/>△정 교수=그들도 어떻게 보면 거짓 영에 속은 순진한 피해자들이다. 정통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도 구원파라는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고 탈퇴한 사람이다. 구원파에서 탈퇴하는 것은 절대 배신행위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사이비종교특별법을 만들어 사이비 종교의 파괴적 언행을 통제해야 한다.<br/>△박 교수=이단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론 교주를 섬긴다. 교주는 순진한 사람들을 자기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성적 노예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다. 통일교와 전도관이 좋은 예다.<br/>△진 회장=정말 어이없는 행동이다. 이단 피해 상담 때 구원파 피해자가 가장 힘들다. 자신의 구원관이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다고 반박한다. 구원파는 일반교회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상담소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별로 없다.<br/>-구원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br/>△진 회장=유씨의 사업체는 몰락해도 신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돌아가셨듯 자신들도 핍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대양 사건 이후 유씨가 재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구원파는 또다시 사업체 이름을 바꿔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br/>△정 교수=유씨는 상습사기로 4년간 복역할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모 인사를 통해 청와대에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다. 이런 시도가 발각돼 해당 인사가 해임됐다. 이처럼 유씨는 강한 생존본능을 갖고 있다. 유씨가 복역을 하면 신도들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말씀에 돼 있다. 정부 언론 기독교에서 탄압하는 걸 보니 진짜 구원을 받겠다’고 착각한다. 구원파 조직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br/>△박 교수=미국에선 여호와의증인, 안식교의 재림 예언이 빗나가면서 와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박태선 문선명이 죽으면 천부교 통일교가 와해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아류들이 발생했다.<br/>-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br/>△정 교수=한기총이 2009년부터 여러 이단을 해제시켰고, 이단 연구가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단사역자들은 명예훼손 소송에 걸려 법률 비용을 충당하느라 악전고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단보다 이단 편을 드는 정통교회 내 회색분자들이다. 군소 교계언론사들은 이단에게서 후원을 받고 옹호기사를 게재한 뒤 이단사역자들을 공격한다. 이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신학교 수업에 반드시 이단 상담과정을 넣어야 한다. 이단 사역자들의 소송비용을 한국교회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br/>△박 교수=이단들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교계 정계 법조계 등에 막대한 로비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과 맞서다 소송에 걸리면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풍토가 형성돼 있다. 신학교 교수들이 이단문제에 침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교회는 공동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또 이번 참사로 드러난 구원파의 실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br/>△진 회장=이단의 실체를 낱낱이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 교회 밖 성경공부도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이단 탈퇴자들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어 해독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통교회에 정착하기 어렵다. 이단 상담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사이비종교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일본에선 종교와 신분을 숨긴 채 미혹했을 경우 피해자가 종교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br/>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7.txt

제목: 삼성전자, 7년 만에 백혈병 문제 사과… 권오현 부회장 “중재기구 결정 나오면 합당한 보상”  
날짜: 20140515  
기자: 김찬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5100000061  
본문: 7년을 끌어왔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문제가 해결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삼성전자는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이어 합당한 보상 등 전향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재해 관련 소송 참가도 철회하기로 했다.<br/>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는 일단 삼성전자의 발표를 환영했다. 다만 제3 중재기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br/>권 부회장은 1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pan class='quot0'>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span>”고 밝혔다.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br/>반도체사업장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여성노동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황씨의 아버지는 3개월 뒤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br/>이후 같은 해 11월 반올림이 발족했고,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랐다. 올 초 황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br/>권 부회장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9일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span>”고 덧붙였다.<br/>또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한 것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br/>삼성전자의 이번 입장 발표는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친 것이다. 당사자, 가족, 반올림 측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중재기구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고경영자(CEO)가 나서서 사과한 부분도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br/>하지만 반올림 측은 여전히 중재기구 설립에 부정적이다. 직접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반올림은 대책회의를 연 뒤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고 밝혔다.<br/>이어 피해 노동자·가족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각 사업장 화학물질과 안전·보건관리 현황 종합진단 및 결과 공개,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 개선과 대상·지원조건 확대 등을 요구했다.<br/>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직접 대화를 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조속히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br/>김찬희 임세정 기자 chkim@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8.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건강검진 수검자 100명 중 1.4명 ‘암’ 진단  
날짜: 201405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4100000043  
본문: 연령대 높을 수록 암 진단율도 상승<br/>[쿠키 건강]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 100명 중 1.4명꼴로 암 진단을 받았다는 국내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이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암 진단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진자 1만879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4%인 149명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br/>특히 이번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일수록 암 진단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40대 0.5%, 50대 1.8%, 60대 3.0%, 70대 이상 5.4%에서 암이 진단됐고, 여성의 암 진단비율은 40대 1.1%, 50대 1.4%, 60대 2.3%, 70대 이상 3.1%였다.<br/>또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암의 종류는 갑상선암 24.2%(36명), 폐암 14.1%(21명), 전립선암 12.1%(18명), 위암 10.7%(16명), 대장암 10.1%(15명), 유방암 6%(9명) 순이었으며, 기타 암은 34명이었다.<br/>이와 함께 건강검진 수진자에 대한 질환을 분석한 결과 혈관질환 진단 81건 중 뇌동맥류가 50명, 관상동맥질환으로 시술을 받은 수진자는 31명으로 확인됐다.<br/>암은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 생존률과 완치율이 증가한다. 하지만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상승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40~50대 중년층부터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층의 경우 암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검진 주기는 첫 검진 이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고, 질병마다 검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br/>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과반수를 차지하는 각종 성인병은 진행이 더디며 발병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진단하면 미처 치료해 보기도 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br/>따라서 건강검진은 조기진단과 예방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 항목을 선택해야하며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검진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br/>황진혁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검진의 중요한 목적은 전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나이에는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79.txt

제목: 제10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에 이현숙 서울대 교수 선정  
날짜: 201405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4100000013  
본문: [쿠키 건강] 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최수영,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가 선정하고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후원하는 ‘제10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이현숙(46) 교수가 선정됐다.<br/>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게 된 이현숙 교수는 세포 분열과 암 발생 기작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암세포의 특징인 유전체 불안정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암 억제인자 BRCA2의 기능을 밝히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br/>BRCA2는 돌연변이가 유전된 가족력 유방암과 췌장암의 원인 유전자로 유명하다. 또 마우스, 제브라피쉬 등 다양한 동물모델을 이용해 그 동안 분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세포분열기작 연구분야에 세포생물학적 생체실험을 더하는 독창적 연구를 수행해왔다.<br/>정상세포에서 세포주기 조절이나 세포사멸, 염색체 분열 등 유전정보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염색체 수와 구조 이상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세포 돌연변이율이 증가하고 암세포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것이 현재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암의 발생 기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유전체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기작을 정확히 규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br/>이현숙 교수는 2012년 대표적인 유방암 억제인자 BRCA2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염색체 분리조절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겨 염색체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염색체 수 이상으로 인해 유전정보가 빠르게 변형돼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유방암 등의 암환자에게서 BRCA2단백질 이상이 확인됐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디벨롭먼트 셀’지에 게재됐다.<br/>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의 역대 수상자로는 경상대 장호희 연구원,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 서울대 백성희 교수, 이화여대 이공주 교수, 포항공대 이영숙 교수, 경희대 손영숙 교수, 서울대 묵인희 교수, 충남대 조은경 교수, 서울대 김홍희 교수 등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여성과학자들이 포함돼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0.txt

제목: 인공성대삽입술 급여…척수강내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날짜: 201405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4100000243  
본문: 환자와 표적항암제 유전자 적합여부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br/><br/>[쿠키 건강]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이 급여화 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은 선별급여 된다.<br/><br/>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6차 회의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br/><br/>우선 우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23만2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br/><br/>또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유전자 검사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이번 급여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최대 28만원(현재: 14만원~34만원, 급여적용시:1만6000원~6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br/><br/>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는데 부정맥 환자의 심장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병변부위를 정확히 찾아 안내해 주는 기술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뿐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처음으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항목을 선별급여키로 결정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 50~80% 범위에서 본임부담률을 결정하게 된다.<br/><br/>척수강내 약물주입펌츠이식술은 인체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비용·고난이도 시술로서 그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으나 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률을 50%로 해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며 환자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br/><br/>또 되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치료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임상적 활용도가 낮고 과용 우려가 예상돼 7월부터 본인부담률을 80%로 해 선별급여키로 했다. 이에 환자 부담금은 행위료 기준으로 뇌양전자단층촬영의 겨우 6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뇌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br/><br/>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약 3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되며,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br/><br/>이와 함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1.txt

제목: 이건희 회장 응급실行에… 대기업 총수들 ‘건강 주의보’  
날짜: 20140514  
기자: 김찬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4100000097  
본문: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의 심장 질환으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고령으로, 또 일부는 각종 경영 악재를 겪으면서 건강이 나빠져 해당 그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수의 건강 악화는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서 예민한 변수이기도 하다.<br/>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은 암으로 투병 중이다.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절제 수술을 했다.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서 20년 넘게 앓아 온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br/>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 전 회장은 3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 간 이식을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br/>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출소한 뒤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회장은 36일 만인 지난 2일 귀국했다.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수감생활 중 만성 폐질환, 당뇨가 악화됐다.<br/>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체중이 10㎏ 이상 빠졌다.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억제제도 계속 투여하고 있다. 이 회장은 희귀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도 앓고 있다. 이 회장이 이달 초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CJ그룹 관계자들은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br/>정몽구(76)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왕성하게 국내외 출장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괜찮다. 지난 3월 유럽과 중국을 잇따라 다녀왔다. 다만 정 회장은 2010년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심장 점액종 제거 수술을 했다. 2006년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됐다 2개월 만에 풀려났을 때 협심증,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다.<br/>아흔이 넘은 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매일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워낙 고령이라 그룹에서 각별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열었던 마을잔치를 올해엔 연기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br/>이동찬(92)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대외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지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개최한 제14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도 참석했다.<br/>구자경(89) LG그룹 명예회장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지난 7일 천안연암대학 개교 40주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다. 구본무(69) LG그룹 회장은 평소 걷기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현재로선 건강에 별 문제는 없다고 한다.<br/>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2.txt

제목: 개인별 ‘맞춤형 검진’으로 건강한 삶 누리세요… 차병원그룹의 미래형 병원 ‘차움’  
날짜: 20140513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041  
본문: 과거에는 ‘건강검진’이라 하면 우리 몸에 암·당뇨·고혈압 등의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를 조기에 살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건강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의 종류도 많아졌으며, 그 질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최근에는 개인별 맞춤형 종합검진을 도입해 각종 질병의 조기예방에 힘쓰고 있는 병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br/>특히 차병원그룹의 ‘차움’은 VIP 검진을 비롯해 노화도 정밀 검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몸 속 적신호를 찾아내며 스파, 운동 요법, 영양 요법 등 모든 의학적 수단을 동원해 건강을 관리해 주는 미래형 병원이다. 차움은 1인 개별 룸에 누워 있으면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검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개별 룸 안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고품격 의료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국내외 명사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크리스틴 데이비스를 비롯해 피터 폰다, 수잔 소머스 등이 검진을 받기 위해 다녀갔다. 올해는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체결한 추신수 선수와 프로골퍼 박인비 선수가 줄기세포 보관 등 건강관리를 위해 차움을 찾기도 했다.<br/>◇방사선 노출 최소화한 안심검진에 주목=일부에서는 검진 항목이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방사선에 과다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차움은 최저선량 CT 및 최첨단 MRI 등을 통해 안전한 10대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검사 시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자 ‘개인별 방사선 노출량 평생관리 시스템’인 ‘참스(CHA-RMS, CHA-Radiation Monitoring System)’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시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최저 설계가 가능하며 개인별로 지속 누적 관리함으로서 평생 방사선량 관리가 가능하다.<br/>◇한국인 10대 암 조기 발견부터 정신건강까지 검진 가능=암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움은 암 예방을 위한 장기 및 질환별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중년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10대 암을 집중 관리한다. 우리나라 남성이 잘 걸리는 암으로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방광암, 췌장암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 있다. 검사 항목엔 기초검사를 포함한 정밀 혈액검사와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뇌혈관 검사 등 총 14가지가 들어 있다. 대상은 성인 남녀 모두 가능하며, 모든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으로 당일 검진에서 당일 결과 및 상담까지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크리스티 김 차움 국제진료센터 부원장은 “<span class='quot0'>차움의 검진은 신체 내부적으로는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는 부분과 외부적으로는 근골격 및 신경계통 등의 검진이 총체적으로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우울증을 비롯해 뇌의 노화 상태 및 정신건강까지 검진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점</span>”이라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3.txt

제목: 아픈 곳 없다는 부모님, 정말일까요?  
날짜: 201405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190  
본문: [쿠키 건강] 항상 자식이 먼저인 부모님. 혹여 자식이 마음 쓸까 봐 아픈 것까지 숨기는 게 부모 마음이다. 설령 부모님이 “괜찮다, 아픈 곳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부모님의 얼굴빛,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모님의 신체적 증상은 무엇인지, 노후에 접어들면 걸리기 쉬운 질환은 무엇인지 미리미리 머릿속에 익혀두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건 어떨까.<br/><br/>◇얼굴빛 해쓱하고 갑자기 살이 빠졌어요=얼굴빛이 해쓱하고 푸석한 데다, 몇 달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면 당뇨나 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당뇨는 식사량이 비슷해도 한두 달 사이에 10kg 이상 체중이 줄어들 수 있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유독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면 당뇨일 가능성이 높다. 당뇨는 자칫하면 시력을 잃거나 발이 썩는 등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빨리 진단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암인 경우에도 초기에는 거의 통증이 없으므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암은 빈혈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부모님 눈의 결막이 창백한지를 살펴 빈혈이 의심되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br/><br/>◇말수 줄어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부모님이 부쩍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시거나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고 본다면 노인성 난청일 확률이 높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노인성 난청을 앓을 정도로 흔하긴 해도, 의사소통을 방해해 사회적 고립을 부르기 쉽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br/><br/>◇입 냄새 심하고 씹는 게 불편해 보여요=치아와 잇몸의 노화는 몸의 노화보다 더 빨리 오므로 부모님 대부분이 치아와 잇몸질환을 앓고 있기 십상이다. 치아와 잇몸 질환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영양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평소보다 음식물을 씹는 것이 불편해 보이거나 대화를 나눌 때 입 냄새가 심하다면 얼른 치과에 모시고 가는 것이 좋다. 이미 의치를 하고 있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잇몸이나 혀 등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일 깨끗하게 의치를 씻도록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br/><br/>◇눈을 자주 찡그려요=부모님이 외출을 하실 때 햇빛에 유독 눈이 부시다거나 눈을 자주 찡그린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백내장은 눈에서 빛을 통과시켜 물체의 원근을 조절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60대에는 50%, 70대에는 70%가 앓을 정도로 흔하다. 평소 눈이 침침하고 빛이 퍼져 보이거나 햇빛에 눈이 많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동공 부분이 하얗게 변하게 된다. 이미 진행된 백내장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br/><br/>◇말과 행동이 어눌하고 부자연스러워요=부모님의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뇌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한쪽 얼굴에 저린 증상까지 있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이 파열돼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돼 발생하는 뇌출혈을 통틀어 일컫는다.<br/><br/>뇌졸중이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생기는 뇌경색은 20~40% 정도에서 전조 증상을 보인다. 대표 증상이 신체의 부분 마비나 말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극심한 두통, 시야 장애 등이므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br/><br/>◇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만져요=부모님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자주 만지거나 일어설 때마다 근처 물건을 짚고 일어나고 걸음이 불편해졌다면 관절염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붓는 것이 퇴행성관절염인데,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특히 쪼그려 앉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부모님은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 등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평소 찬찬히 살피도록 한다.<br/><br/>◇허리 펴기 어렵고 자꾸 구부려요=부모님이 편하게 쉬는 시간에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점, 다리가 차고 시리다는 점 등이 허리디스크와 다르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자칫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 예방하도록 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4.txt

제목: 위암 사망자 1만명 육박, 옻나무 추출물에서 가능성 찾아  
날짜: 201405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244  
본문: [쿠키 건강] 2012년 한국에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3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에 의하면 이는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 중 12.7%로, 폐암과 간암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이 70%에 육박함에도 이처럼 사망자수가 많은 것은 발생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암은 한국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생율이 높은 암이다.<br/><br/>50대 여성 천모씨는 2004년 유방암 수술을 하고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2010년 병원 정기검진 후 이어진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위암의 장간막 파종성 전이 소견을 받았다. 수술 후 위의 종양은 제거할 수 있었으나, 장간막에 퍼진 종양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을 견디기 힘들었고, 결국 내성에 의해 치료를 중단, 여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br/><br/>위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상당수는 천씨처럼 더 이상의 병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위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3A기 이전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50%, 2기 이전의 경우 70%에 육박하지만, 3B기나 4기 환자로 갈수록 30%, 10%로 계속해서 낮아진다. 또한 수술을 한 후 전이되어 재발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이 좋지 않다.<br/><br/>천씨는 남은 기간 삶의 질을 고려한 완화의료를 알아보던 중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에 대한 개념을 접했다. 처음에는 오랜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과 통증 완화를 위해 치료를 시작했으나, 6개월이 지난 후 받은 병원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장간막에 전이된 종양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천씨는 현재까지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관해(CR)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br/><br/>일부 학자들은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의 한방암치료제들은 신생혈관억제 효능, 항산화 효능 등을 근거로 위암,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두루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효능만으로는 천씨와 같은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의 생각이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해서 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기존에 설명하던 신생혈관억제 효능이나 항산화 효능만으로는 암이 완전히 관해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span>”며 “<span class='quot0'>분명히 직접적인 항암작용을 하는 기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김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결과는 한방암치료, 혹은 암환자의 한방병행치료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5.txt

제목: 을지대병원, 2017년까지 암센터·건강증진센터 신축  
날짜: 201405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204  
본문: [쿠키 건강] 서울 소재의 대형병원이 잇따라 암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있는 가운데 을지대학교병원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암센터 증축과 종합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br/><br/>현재 을지대병원은 신·증축을 위한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중 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br/><br/>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8,585㎡ 규모로 증축하는 암센터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을 갖추고, 분야별로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 진료 받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br/><br/>한편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21,047㎡의 규모로 치료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개인별 맞춤 건강검진 제공한다.<br/><br/>지하층에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병원 이용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br/><br/>황인택 을지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을지대학교병원이 1981년 대전을지병원 개원, 2004년 둔산 이전 개원에 이어 제 3의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증축될 암센터와 신축될 종합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6.txt

제목: 이건희 회장 응급실행에… 대기업 총수들 ‘건강 주의보’  
날짜: 20140513  
기자: 김찬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077  
본문: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의 심장 질환으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고령으로, 또 일부는 각종 경영 악재를 겪으면서 건강이 나빠져 해당 그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수의 건강 악화는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서 예민한 변수이기도 하다.<br/>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은 암으로 투병 중이다.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절제 수술을 했다.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서 20년 넘게 앓아 온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br/>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 전 회장은 3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 간 이식을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br/>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출소한 뒤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회장은 36일 만인 지난 2일 귀국했다.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수감생활 중 만성 폐질환, 당뇨가 악화됐다.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체중이 10㎏ 이상 빠졌다.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희귀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도 앓고 있다. 이달 초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CJ그룹은 어느 때보다 우려감이 높다.<br/>정몽구(76)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왕성하게 국내외 출장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괜찮다. 지난 3월 유럽과 중국을 잇따라 다녀왔다. 다만 정 회장은 2010년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심장 점액종 제거 수술을 했다. 2006년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됐다 2개월 만에 풀려났을 때 협심증,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다.<br/>아흔이 넘은 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매일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워낙 고령이라 그룹에서 각별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열었던 마을잔치를 올해엔 연기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 회장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br/>이동찬(92)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대외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지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개최한 제14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도 참석했다. 구자경(89) LG그룹 명예회장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지난 8일 천안연암대학 개교 40주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다. 구본무(69) LG그룹 회장은 평소 걷기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건강관리를 한다.<br/>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7.txt

제목: 재벌총수 '고령화'가 경영 악재… '건강리스크' 수면 위로 떠올라  
날짜: 201405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3100000003  
본문: [쿠키 경제]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의 심장 질환으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고령으로, 또 일부는 각종 경영 악재를 겪으면서 건강이 나빠져 해당 그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수의 건강 악화는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서 예민한 변수이기도 하다.<br/>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은 암으로 투병 중이다.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절제수술을 했다.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되면서 20년 넘게 앓아 온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br/>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 전 회장은 3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 간 이식을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br/>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출소한 뒤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회장은 36일만인 지난 2일 귀국했다. 서울대병원으로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수감생활 중 만성 폐질환, 당뇨가 악화됐다.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체중이 10㎏ 이상 빠졌다.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약하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도 앓고 있다. 이달 초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CJ그룹은 어느 때보다 우려감이 높다.<br/>정몽구(76)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왕성하게 국내·해외 출장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괜찮다. 지난 3월 유럽과 중국을 잇따라 다녀왔다. 다만 정 회장은 2010년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심장 점액종 제거 수술을 했다. 2006년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됐다 2개월 만에 풀려났을 때 협심증,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다.<br/>아흔이 넘은 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매일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워낙 고령이라 그룹에서 각별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열었던 마을잔치를 올해엔 연기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 회장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br/>이동찬(92)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대외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지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개최한 제14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도 참석했다. 구자경(89) LG그룹 명예회장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지난 8일 천안연암대학 개교 40주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다. 구본무(69) LG그룹 회장은 평소 걷기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8.txt

제목: 국립암센터 28일, 개원 13주년 국제심포지엄 열어  
날짜: 201405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314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오는 28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Seeing is Believing and Beyond’ 주제로 개원 13주년 기념 제8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스탠퍼드 대학교 크리스토퍼 컨택 박사,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데니얼 비그네론 박사, 세계 최초로 PET, MRI 등을 개발한 가천의과대학 조장희 박사, 하버드 의대의 존 프렌지오니 박사 등 세계적인 선두 그룹 석학들이 모여 PET-MRI와 분자영상을 포함한 초정밀 영상기법을 통한 새로운 암 진단법 뿐 아니라 영상유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신기술 등이 소개된다.<br/>이진수 원장은 “<span class='quot0'>미래 암 진단·치료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하여 암정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89.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서울아산병원 고혈압 강좌 外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198  
본문: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12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성인 중 약 15%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혈압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다른 혈관 질환을 발생시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이날 강좌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관한 올바른 건강상식과 관리 및 예방법에 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심장질환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문의: 02-3010-3160)<br/>◎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충무아트홀(중구 신당동) 1층 컨벤션센터에서 ‘암 예방 비타민, 있다! 없다?’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김정아 서울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비타민의 종류에 따른 효능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나이와 연령, 질병에 따라 비타민을 올바르게 먹는 법과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과 암에 독이 되는 비타민에 대해 강의한다. 참기비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상담이 제공된다.(문의: 02-2270-0534)<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15일(목)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을 이겨낸 여성,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서는 암건강증진센터 안아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암 치료 후 나타난 몸의 변화(주요 암 치료의 부작용 이해하기, 신체 이미지 변화) ▲암 치료 후 성과 사랑 ▲마음 다스리기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건강강좌는 사전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는다.(문의: 02-2072-0077, 0088)<br/>◎대한위암학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건양대병원 암센터 대강당에서 ‘2014 위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위암발병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위암의 원인과 진단,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소개한다. 강좌 프로그램은 ▲위암의 원인과 진단 및 내시경 치료(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성재규 교수) ▲위암 수술과 수술 후 관리(건양대병원 외과 이상억 교수) ▲위암 항암치료(을지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내유 교수) 등이다. 건양대병원 외과 이상억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기발견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평소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0.txt

제목: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 로봇 이용 한번에 제거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046  
본문: 로봇을 이용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을 제거하는 신의료기술이 등장했다. 중복암은 한 사람의 몸속에 다른 종류의 암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br/>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은 박동수(비뇨기과)·최성훈(외과) 교수팀이 지난 달 8일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한꺼번에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br/>환자는 전립선과 담낭에 각각 암이 생긴 것으로 밝혀진 57세 남자였다. 수술은 먼저 박 교수팀이 배꼽에 뚫은 구멍 한 곳으로 복강경을 집어넣어 하복부 골반에 위치한 전립선암을 잘라낸 다음, 최 교수팀이 곧바로 정반대 위치인 상복부에 위치한 담낭암을 잘라내는 순서로 진행됐다.<br/>배꼽 부위에 단 한 개의 창만 내고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두 종류의 암을 동시에 잘라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중복암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시술에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대 위치에 두 가지 암이 발견될 경우 개복을 한 상태에서 두 부위의 암을 각각 도려내는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단일공 로봇 암절제 수술을 하면 배에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미용 효과도 좋은 것이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1.txt

제목: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 로봇 이용 한번에 제거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14222221  
본문: 로봇을 이용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중복암’을 제거하는 신의료기술이 등장했다. 중복암은 한 사람의 몸속에 다른 종류의 암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br/>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은 박동수(비뇨기과)·최성훈(외과) 교수팀이 지난 달 8일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한꺼번에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br/>환자는 전립선과 담낭에 각각 암이 생긴 것으로 밝혀진 57세 남자였다. 수술은 먼저 박 교수팀이 배꼽에 뚫은 구멍 한 곳으로 복강경을 집어넣어 하복부 골반에 위치한 전립선암을 잘라낸 다음, 최 교수팀이 곧바로 정반대 위치인 상복부에 위치한 담낭암을 잘라내는 순서로 진행됐다.<br/>배꼽 부위에 단 한 개의 창만 내고 로봇을 이용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두 종류의 암을 동시에 잘라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중복암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시술에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대 위치에 두 가지 암이 발견될 경우 개복을 한 상태에서 두 부위의 암을 각각 도려내는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단일공 로봇 암절제 수술을 하면 배에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미용 효과도 좋은 것이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2.txt

제목: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 환자 세포 이용에 '주목'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382  
본문: TIL 세포 증폭 주입, 전이성 폐암 및 간암 환자 종양크기↓<br/><br/>[쿠키 건강] 종양침윤성림프구(TIL)를 증폭해 환자에 주입하는 새로운 면역치료 결과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TIL치료는 암조직에 침윤하고 있는 림프구를 분리해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이다.<br/><br/>9일 사이언스지에 대략적으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항암제 개발 분야의 2가지 키워드인 면역치료와 유전학 방법을 토대로 급부상한 TIL 세포 증폭 주입방식은 환자의 종양성장을 유발하는 특정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한다. 더욱이 연구 가설에 따르면 종양에 맞춤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br/><br/>이에 인체 면역체계를 적극 활용해 종양을 공격하는 오랜 연구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br/><br/>발표된 연구는 TIL 세포를 이용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종양세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에 최적의 항암효과를 알아보는 전체 엑솜 염기서열분석(Exome Sequencing)을 사용했다.<br/><br/>실험실 연구 상 변이에 반응이 관찰되는 TIL 세포를 증폭 배양해 전이성 폐암과 간암 환자에 주입한 결과 치료시행 환자군의 질환 정도가 안정화되는 소견을 보였다.<br/><br/>또 약 13개월 후 해당 환자의 재치료 시 TIL 주입 환자의 95%에서 T세포는 종양 변이에 특이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2차 치료 6개월 후 환자의 폐와 간 종양의 크기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br/><br/>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외과부 총책임자인 Steven Rosenberg는 "이번 면역치료 방법은 환자 개별 종양에 있어 유전자 돌연변이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br/><br/>현재 면역치료는 흑색종 및 신장암과 같은 희귀암 치료에 그 효과를 입증했지만 보다 일반적인 상피세포암을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던 상황이다.<br/><br/>이는 과학자들이 체내 면역체계를 이용해 상피세포암종에 의해 생성된 변이단백에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거나 반응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 면역치료의 활용법에서 난관에 부딪혀 온 이유이다.<br/><br/>한편, 인간의 상피세포는 외부를 둘러싼 피부와 내부의 소화관, 폐, 췌장, 방광 및 기타 구역에 분포하며 여기서 암의 약 80%가 발생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3.txt

제목: 만성질환사망률 감소 6대 요소 '열쇠'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379  
본문: [쿠키 건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질환 사망률 감소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5년까지 25% 사망률 감소(25x25)' 달성의 핵심으로 6개의 위험요소가 재부각됐다. 특히 흡연의 경우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큰 폭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 주요저자인 영국 임페리얼대학 Vasilis Kontis 교수는 4일 세계심장학술대회(WCC)에서 "흡연, 알코올 섭취, 염분 섭취, 비만, 혈압, 혈당 6가지의 위험요소들의 관리를 통해 비전염성질환의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연구에서는 활용가능한 역학연구들의 재분석과 메타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들이 비전염성질환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현재 WHO와 세계심장재단(WHF)은 25x25의 목표로 흡연율 30%, 해로운 알코올 섭취 10%, 염분섭취 30%, 고혈압 25%, 비만 및 당뇨병 증가 억제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br/><br/>이번 연구에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경우 30~70세 인구의 주요 4개 비전염성질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25년에는 남성 22%, 여성 19%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br/><br/>이와 함께 2025년까지 3700만명의 질환진행 지연이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위험요소 관리를 통한 혜택은 고령과 저중소득국에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는 30~69세 인구에서 1600만명, 70세 이상에서 인구 2100만명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저중소득국가에서는 3100만명의 질환진행 지연 및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br/><br/>특히 연구팀은 여러 위험요소 중 흡연에 대한 공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ortis 교수는 "흡연을 50% 이상 감소시켰을 때 남성에서 24% 초과, 여성에서는 20%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학술대회 현장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Robert Beaglehole 교수는 "위험요소의 관리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비용대비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br/><br/>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 6개의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34%, 만성 호흡기질환은 24%, 암은 7%, 당뇨병은 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5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4.txt

제목: [열방우체국-스와질란드 김종양 선교사] 아쉬운 이별 ‘사역 동역자’ 결혼하고 돈 벌어 ‘사역 지원자’로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026  
본문: 1993년 동역자 필리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구도시 포트엘리자베스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br/>부흥회에는 백인과 흑인, 혼혈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5일 동안의 집회가 끝난 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가 끝나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br/>“<span class='quot0'>저는 몇 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김 선교사의 기도를 받고 암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span>” 암을 치료받은 그 여인은 그 후 여러 번 스와질란드 선교센터로 찾아와 봉사를 했고, 그녀의 남편도 임마누엘 신학교를 건축할 때 몇 개월간 봉사를 했다.<br/>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면 많은 환자들을 접한다. 설교가 끝나면 환자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갖는데, 때로는 기도시간이 설교시간보다 더 길어질 때가 많다. 어떤 때는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를 받았다며 간증을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한 사람도 간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간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무척 실망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무얼 잘못한 건 아닐까 염려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자만하지 않도록, 원하시는 때에 치료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br/>포트엘리자베스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가려 하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저는 아이반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을 따라 스와질란드로 함께 가서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스와질란드로 따라오겠다고 하니 너무나 난처했다. 스와질란드에 있는 아내의 동의를 얻은 후 결국 아이반을 스와질란드로 데려왔다.<br/>스와질란드선교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반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만난 독일 여자와 결혼하고,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독일로 떠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br/>예수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뒤 아이반은 우리의 동역자로서 선교센터에서 함께 살게 됐다.<br/>효과적인 선교를 하려면 신학적인 선교지식이나 조직보다 현지인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한다. 하나님은 아이반 형제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가끔 밤을 새워가며 선교 이야기를 했다. 아이반 형제는 성실하고, 신실했다. 먼 지역으로 선교를 나갈 때는 운전사가 되어 주었고, 선교센터에 축대를 쌓을 때에는 현지인들을 고용해 필요한 벽돌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렇게 선교에 봉사하며 그는 부인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았다.<br/>약 1년이 지난 후 그가 나에게 “1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마음이 안정됐으니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도 해서 물질적으로 선교사님을 돕겠다”며 스와질란드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는 떠나기 전 마활랄라의 한 가정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3명의 스와지 청년을 소개해 줬다. 아이반이 떠난 후 나는 그 3명의 청년을 데리고 기도모임과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들과 함께 현재의 이시드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br/>아이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인 여성과 재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나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아들 이름을 김이라 지었다. 아이반은 지금도 꾸준히 스와질란드 선교센터에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스와질란드를 방문하는 등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br/>선교 사역을 하다보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구할 때가 참 많다. 13년 전쯤 남아공의 주교가 “<span class='quot1'>매년 연말 넬스프루이트(Nelspruit)의 공설운동장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금년 집회에 설교를 해 달라</span>”며 초청을 했다. 수만명이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도 참석하는 대형 집회였다. 설교를 잘 못하면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교에게 전화를 걸어 “초청은 감사하지만 그 집회에는 저보다 한국의 명성 있는 설교자를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주교는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였다.<br/>그 뒤로 약 5주 동안 설교자를 섭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연말연시에는 교회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절했다. 집회를 1주일 정도 남겨 놓고 주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찾지 못했다고 하자 그는 “우리는 당신을 초청하는 것이지 다른 한국인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설교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기에 초청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거절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br/>그때부터 밤을 새워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 저들이 실수로 저를 초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라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br/>매일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과 자신감을 주셨다. 설교 제목을 정하고 집회 하루 전까지 마지막 부분을 정리했다.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넬스프루이트로 갔다. 공설운동장 가까이 오니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나를 태운 차를 일부 경찰차들이 와서 호위를 했다. 집회본부가 있는 텐트에 도착하니 주교가 강단으로 인도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오늘 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br/>수만 명이 모인 자리라 장내는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다.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호흡 후 나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잠시 기다리니 모인 무리가 “아멘”하고 응답을 한 후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하는 설교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 덕분에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힘 있고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강단 위에 앉아 있던 남아공의 목회자 몇 분이 악수를 청했다. 그들은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설교 원고를 복사해 달라고 했다.<br/>1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남아공의 임마누엘국제신학교 출신인 프리실라 전도사가 전화를 해 “선교사님께서 공설운동장에서 하셨던 설교가 지금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채널 번호를 알려줬다. 그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차에는 라디오가 없어 듣지 못했지만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탁월한 설교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셨다. 나에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하라’며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설교한 이후 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 무명의 설교자에게도 필요에 따라 기름을 부어주시어 능력 있는 설교를 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br/>스와질란드 김종양 선교사<br/>◇김종양 선교사 △1946년 전북 출생 △1985년 독일 베뢰아 신학교와 영국 웨일스 신학대학 졸업 △1985년 10월 병원선교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세계선교회에서 파송받아 말라위 사역 시작 △1986년에 아프리카대륙선교회를 설립해 말라위 스와질란드 등 중남부 아프리카 7개국에 교회 고아원 병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학교 선교농장 기도원 기독의과대학 설립 △1987년 미국 남침례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 받고 1988년 6월 선교지를 스와질란드로 옮김.<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5.txt

제목: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 ‘볼라설팁’, 유럽과 미국 희귀의약품 지정  
날짜: 201405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179  
본문: [쿠키 건강]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물질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인 볼라설팁(volasertib)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과 유럽연합 규제당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약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br/><br/>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와 혈액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암으로써 모든 백혈병 종류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70세로써 주로 연령이 높은 성인에서 많이 발병한다. 현재 권고되는 표준 치료요법은 집중 화학요법이지만 고연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집중 화학요법을 견뎌내지 못하며 이 외에 치료하는 있는 대체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치료 예후 또한 좋지 않다.<br/><br/>볼라설팁은 Plk(Polo-like kinase)로 불리는 효소를 억제한다. Plk1은 Plk과에 속하며, 그 특성이 가장 잘 규명된 키나제이다. 볼라설팁으로 Plk1을 억제하면 세포 주기가 정지되고 궁극적으로 세포 사멸(세포자멸사)을 유도할 수 있다. Plk1 활동을 억제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인 세포 분열이 극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종양 세포 성장을 멈추고, 종양 세포의 활발한 분열을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베링거인겔하임의 의학부 총괄 책임자 클라우스 두기(Klaus Dugi) 교수는 “<span class='quot0'>볼라설팁은 세포 성장 및 과도한 분열을 억제하는 효소를 표적화하는 혁신적인 치료 기전을 기반으로 현재 제한된 치료요법으로 인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진행 중인 볼라설팁 제3상 임상 연구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볼라설팁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볼라설팁은 제 1, 2상 임상 시험을 통해 화학요법과 병용 치료할 경우,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올해 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6.txt

제목: 밝은 야간조명이 유방암 수면질환 유발한다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2100000221  
본문: 이은일 고려대 교수, 빛 공해 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br/><br/><br/><br/>[쿠키 건강] 야간 조명 등으로 인한 밝은 빛이 유방암과 수면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여 ‘빛 공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br/>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은일(빛 공해 연구팀, 연구책임자)교수는 지난 9일 서울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14년 (사)한국조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빛 공해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br/>연구결과에 따르면 밝은 빛으로 인한 빛 공해가 단순한 ▲수면 양과 질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높이고 ▲유방암 유병률까지 높이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은일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가량은 ‘빛 공해 방지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에너지 손실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문제를 제기했다.<br/><br/>◇수면의 양과 질이 현저히 저하=이헌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빛 공해와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해 연구한 결과 빛 공해가 심해짐에 따라 야간수면의 양과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동일한 젊은 성인 남성 연구군 23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과 빛 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에 대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해 현재 빛 공해 침입광 기준인 10lux는 물론 5lux에서도 수면의 양과 질이 유의하게 떨어졌다.<br/><br/>분석 결과, 빛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이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보다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br/><br/>빛 공해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이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에 비하여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잠든 후 깸(Wake after sleep onset)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얕은 수면인 N1 단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깊은 수면인 N2 단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r/><br/>또한, 꿈 수면으로 알려진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빛 공해가 수면의 양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br/><br/>◇인지기능수행에 부정적, 뇌활성도 저하=빛 공해의 수면영향을 fMRI 연구를 통해 평가한 고려대 연구팀은 동일한 젊은 성인 남성 연구군 23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과 빛 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 후 다음날 인지기능수행을 평가하는 n-back test를 시행하면서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해 뇌의 활성도와 활성부위를 분석해 5lux와 10lux에 의한 수면장애가 모두 다음날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br/><br/>분석 결과, 빛 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이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보다 뇌활성도를 저하시키고 이는 5lux보다 10lux 노출 시 더 뚜렷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br/><br/>10lux의 빛 공해가 있는 방에서 수면을 취한 연구군이 5lux의 연구군에 비해 빛 공해 전후의 뇌활성도 차이를 보였고, 좌뇌와 우뇌의 전두엽 부위의 뇌활성도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br/><br/>또한, 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수행을 하였을 때 이 같은 뇌활성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통해, 빛 공해 수면영향이 다음날 인지기능을 수행하는 뇌의 활성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br/><br/>◇눈 피로도 증가=서영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교수가 빛 노출이 눈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동일한 젊은 성인 남성 연구군 27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과 빛 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 후 각각 눈 피로도를 평가해 비교 분석해 5lux, 10lux 모두에서 눈피로도 증가를 확인했다.<br/><br/>분석 결과,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했을 때 보다 빛 공해(5 lux 또는 10 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 후에 눈 피로도가 증가했다. 빛 공해 노출 후 결막충혈 증가, 눈물막 파괴시간 감소로 인한 안구 건조 증가가 나타났으며, 눈 피로감, 눈 통증, 자극감, 초점 맞추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증가했다.<br/><br/>이은일 교수는 “<span class='quot0'>눈 피로도 증상은 5lux 와 10lux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수면 시 빛 노출을 피하는 것이 눈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span>”고 밝혔다.<br/><br/>◇유방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이은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빛 공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과 관련성 있음을 발표했다.<br/><br/>빛 노출에 의한 장기 영향, 특히 암 유병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인원으로 산출한 치료유병률 자료와 지역별 빛 공해 수준을 비교 평가한 생태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연구한 것이다.<br/><br/>연구결과 한국에서도 야간조명이 강한 지역일수록 유방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했고, 야간조명 외에 비만율, 음주율, 미세먼지 등도 유방암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또한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조명 환경 인프라 및 유방암 발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한 분석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 단위지역 전부를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동일하게 야간조명이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러한 연구결과는 과도한 빛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며 그로 인해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이스라엘 선행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는 최초의 결과이다.<br/><br/>이은일 교수는 이와 관련해 “<span class='quot0'>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초로 한국의 야간조명과 유방암 관련 질병지도를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인식 빛 공해, 건강보다는 에너지 손실이 문제=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빛 공해로 인한 질병 위험도 증가보다는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br/><br/>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빛 공해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20대 이상 남녀 성인 1096명을 대상으로 다른 유해요인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빛 공해에 대한 위험인식은 높지 않았다.<br/><br/>연구결과 2013년 법률로서 제정된 ‘빛 공해 방지법’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45.3%) 응답자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6%,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했다.<br/><br/>빛 공해 요소에 대해 개인이 자각하고 있는 영향정도 순위는 ‘과잉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5.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 위협’이 5.87점이었다. 빛공해 원인에 대한 정책적 관리 정도 순위는 ‘건축물의 발광간판’이 5.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옥외 광고물(5.67점)’, ‘보행자 길의 보안등(5.62점)’, ‘자동차 헤드라이트(5.5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br/><br/>빛 공해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인식 및 심리적 요소 분석 비교 결과, 빛 공해에 대한 위험인식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위험 요소들 중 가장 위험인식이 높은 요소는 석면이었으며, 그 밖에 불산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의료사고, 대기오염 등이 높은 위험인식 순위를 나타냈다.<br/><br/>빛 공해 연구팀을 이끈 이은일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수준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발표로 인해 국민들의 빛 공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span>”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br/><br/>또한 “우리나라 빛 공해 조도 기준이 주거지역에서 10lux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에서 5lux에서도 수면장애등 건강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국제조명위원회나 독일의 기준처럼 소등 전과 소등 후를 나눠서 조도기준을 정하고 소등 후는 1~2lux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7.txt

제목: 카자흐스탄 거대 간세포암 환자, 고대병원서 성공적으로 수술  
날짜: 201405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1100000023  
본문: 간담췌-간이식외과 김동식 교수 집도, 수술 마치고 건강 회복<br/><br/>[쿠키 건강] 카자흐스탄과 터키 등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간세포암 환자가 국내 의료진에 의하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br/><br/>카자흐스탄 유리 니빠리레에비치(68·남)씨는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시한부 인생이었다. 간세포암 3기였던 유리 니빠리레에비치씨, 보통 간세포암이 10㎝를 넘으면 거대 간세포암이라고 부른다. 유리 씨의 간 뒤쪽에는 무려 13㎝가 넘는 거대 간세포암이 달려있었고 횡경막까지 암세포가 침범한 상태였다.<br/><br/>CT로 확인해보니, 워낙 큰 암 덩어리 때문에 간이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을 정도였다.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정도 크기는 아니었는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동안 암 세포가 점점 커져버렸다.<br/><br/>유리 씨는 2013년 9월 경 몸에 심한 피로감을 느껴 카자흐스탄에서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를 통해 간암을 발견했다. 카자흐스탄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터키의 유명 병원에도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보내 치료 여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치료가 어렵다. 간 이식을 받아라’는 답변 뿐이었다.<br/><br/>고령의 나이 때문에 간이식은 위험하다는 판단에 유리씨는 이스라엘 최고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수술실에서 개복까지 했다. 하지만 감암 덩어리를 확인한 의료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대로 배를 닫았다. 유리씨로서는 사형선고나 같은 일이었다.<br/><br/>그러던 중 대한민국 고려대병원 간담췌-간이식외과 김동식 교수가 간암 수술을 잘한다는 얘기를 소아외과 의사인 아들 듀라브씨(43)를 통해 전해들었다. 지난 달 14일 한국에 입국했고, 23일 김동식 교수에게 ‘거대 간세포암 절제술’을 받았다.<br/><br/>유리씨의 ‘거대 간세포암 절제술’은 간단하지 않았다. 혹 자체를 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간 세포암 환자는 간경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원래 간 기능 자체가 매우 저하돼 있었다. 최대한 본인의 간을 보존하면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했다.<br/><br/>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또 한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유리씨와 같은 고령환자의 경우 큰 수술을 받고나면 섬망 증상이라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씨의 경우는 이 섬망 증상이 일주일가량 계속될 정도로 매우 심했다. 다행히 5월에 접어든 지난주 목요일부터 유리씨의 섬망이 사라졌다. 간 기능 역시 정상범위로 거의 돌아왔다.<br/><br/>김동식 교수는 “유리 씨와 같은 분은 이식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다. 간암이 유리 씨정도와 같이 아주 심한 사람은 이식을 하면 오히려 재발이 매우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절제가 최선이다”며 “먼 길을 돌아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지만 결국 잘 살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다.<br/><br/>유리씨는 지나 8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에 오면 꼭 연락해달라”며 김동식 교수에게 신신당부 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8.txt

제목: “키 작으면 더 오래 살고 암 발생률도 낮다” 美연구팀  
날짜: 201405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10100000116  
본문: [쿠키 사회] 키가 작을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하와이 대학 의과대학 노인의학전문의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가 하와이 거주 일본계 주민 8006명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거의 50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와이 리포터(Hawaii Reporter)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br/>이들을 신장 기준으로 157㎝ 이하와 162㎝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157㎝ 이하 그룹의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콕스 박사는 밝혔다.<br/>전체적으로 키가 클수록 수명은 짧은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 분석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수명 관련 FOXO-3 유전자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성장 초기에 체구가 다른 사람보다 작고 수명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윌콕스 박사는 분석했다.<br/>키가 작은 사람들은 또 혈중 인슐린 수치와 암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길고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간의 조사가 가능했다고 윌콕스 박사는 설명했다.<br/>조사 대상자 중 약 1200명은 90~100세까지 살았고 이 중 250명은 아직 살아있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799.txt

제목: 암환자 “맞춤형 건강서비스 받는다”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9100000198  
본문: 건양사회복지센터 올 6월부터 시작<br/><br/>[쿠키 건강] 건양사회복지센터가 올 6월부터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br/><br/>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이번 건강서비스는 암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br/><br/>현재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과 음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br/><br/>이에 '암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유·무산소 운동요법, 1대1 영양관리교육, 항암을 위한 조리법, 전화모니터링 서비스, 셀프 터칭 테라피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도와준다.<br/><br/>특히 최근 시범적으로 진행된 '셀프 터칭 테라피 교육'에 암환자와 가족 등 약 40여명이 참여해 사랑의 마음을 담은 셀프 핸드 터칭법을 배웠는데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br/><br/>'암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서를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br/><br/>한편,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인 건양사회복지센터는 아동들의 감성예술교육을 위한 '오감톡톡 상상놀이터'와 장애가정지원서비스인 '패밀리 하모니'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0.txt

제목: 방사선생명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열어  
날짜: 201405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9100000261  
본문: 일본 중입자가속기 전문가 및 국내 방사선 전문가 한자리에<br/><br/>[쿠키 건강] 방서선생명과학회는 지난 8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2014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br/><br/>이날 학술대회는 국내외 방사선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방사선을 이용한 기초연구부터 중개연구까지 다양한 암 치료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br/><br/>행사에서는 아주대학교 최경숙 교수가 ‘다양한 암세포 사멸 기전을 이용한 암 치료 효율 증대’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별 세션에서는 일본 군마대학교 중입자가속기센터 Tatusya OHNO 교수가 ‘탄소빔을 이용한 혁신적인 암 치료법’ 주제를 통해 일본 중입자치료의 현황과 양성자보다 강력한 중입자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br/><br/>또한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 Sei SAI 교수는 ‘췌장암 스템셀을 겨냥한 단독 중입자 방사선치료 또는 Gemcitabine를 결합한 치료의 우수한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br/><br/>이수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향후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1.txt

제목: ‘얼굴’ 부으면 신장질환…‘다리’ 부으면 심장질환 의심  
날짜: 201405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9100000165  
본문: [쿠키 건강] 자고 일어나면 심하게 얼굴이 붓거나, 발이 부어 신발이 잘 맞지 않는 부종 증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 또한 라면이나 찌개류 등과 같이 짠 음식을 먹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에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붓게 되는 것이다.<br/>부종은 우리 몸의 림프관을 통해 수분과 영양분, 노폐물이 운반되는 곳에 문제가 발생되면 생기는 증상이다. 음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부종이 발생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부종클리닉 정훈 과장의 도움말을 통해 ‘부종을 야기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br/>◇붓는 부위에 따라 질환 달라진다<br/>붓는 부위에 따라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얼굴이 부으면 신장질환, 심장에서 먼 다리 부위에 붓기가 나타나면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br/>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내 다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 되면서 혈중 단백질 농도를 떨어뜨린다. 이때 체내 삼투압 농도가 저하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삼투압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얼굴, 팔 등의 부위에 붓기가 나타난다.<br/>혈관 속에 수분을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이 약해져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은 신장질환 외에도 암, 빈혈, 당뇨병, 백혈병 등 다양한 질환이 있다.<br/>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혈관 밖으로 나갔던 혈액을 정맥이 끌어당겨 다시 내보내지 못하고 모세혈관 속 수분이 세포와 세포사이로 흘러 몸이 붓게 되는 것이다.<br/>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먼 쪽 부터 부종이 시작되는데 주로 다리와 종아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난다. 심부전증 초기에는 대개 발과 발목 주위에만 부종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범위가 확장돼 종아리, 복부, 폐 등 까지 부종이 나타나며 호흡곤란도 동반된다.<br/>특정 부위 부종이 아닌 몸 전체에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전신부종은 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및 항진 등의 내분비질환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질병과 무관하게 부종이 나타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에는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주요 원인 인 경우도 있다.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 중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종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항우울약, 항고혈압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에 의해서도 부종이 나타난다.<br/>또한 아침엔 얼굴과 손등이 붓고, 저녁엔 하지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생리주기가 원활하지 않은 여성이거나 폐경기 여성의 경우 이러한 부종을 경험하게 된다.<br/>정훈 서울시 북부병원 부종클리닉 과장은 “질병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 부종이 발생했다면 먼저 안정을 취하고 다리를 높이고 쉬는 것이 좋다. 또한 저염식 음식을 섭취하고 잠드기 3~4시간 전에는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 “하지만 신장이나 심장 질환 등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부종의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뇨제 등의 약물요법과 함께 원인질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br/>부종은 체내 수분이 저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뇨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할 전해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br/>이와 함께 염분(하루 5그램 이하)과 탄수화물(하루 90그램 이하)을 적게 섭취하고, 낮 동안에도 자주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다리를 높게 올리고 있는 것이 좋다. 다리 전체를 감싸고 조이는 탄력 스타킹을 낮 동안에 착용하는 것도 권장된다.<br/>부종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자각 할 수 있다. ▲평소 자주 신던 신발이 작아 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부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로 붓는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다 ▲유난히 물을 자주 마신다 ▲밤이 되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2.txt

제목: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보건복지부 60억 지원금 수혜  
날짜: 201405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301  
본문: [쿠키 건강]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사진)가 2014년 보건복지부 질환 극복 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 단계 평가에서 1단계(2012년~2013년)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2단계 사업을 시작했다.<br/><br/>이번 2단계 사업 진행으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국비 10억원과 주관 기관 대응비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br/><br/>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이번 2단계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에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센터 수익 모델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br/><br/>이에 앞서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1단계 사업(2012년~2013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난치성 여성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개념 진단, 치료법 개발의 초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총 2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와 함께 8건의 특허 등록,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성과를 만들어 냈다.<br/><br/>김승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 여성암이라도 치료 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신개념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 받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실용화가 가능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3.txt

제목: 가정의 달, 사랑한다면 건강 선물을  
날짜: 201405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311  
본문: [쿠키 건강]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19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유독 많아 ‘가정의 달’이라 불린다. 그러다보니 가족들 간에, 혹은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 무슨 선물을 할지 고민 중이라면 건강검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br/><br/>◇아픈 곳이 있어야 검사를 받는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지만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검진이 겁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 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내게 맞는 건강검진은 무엇인지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에 임하는 것이 좋다.<br/><br/>패키지형 건강검진이 많은 요즘,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도 폐암, 대장암 등이 뒤늦게 발견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종합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찾아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이나 건강 위험성에 따라 검진을 좀 더 집중해서 받지 않았거나, 검진 후 추가적인 선별 검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br/><br/>건강검진의 목적은 미리 검사를 받아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혈압, 혈당,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은 최소 비용을 들여 매년 하고, 나머지는 상담을 통하여 자기 나이의 건강 위험 수준에 따라 선별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40~50대 출렁이는 뱃살, 내시경으로 챙기자=현재 대부분의 상품형 또는 패키지형 종합검진에는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유방 촬영술, 자궁 세포진검사 등이 기본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장암이 중년층에서 급속히 늘고 있다. 기존의 건강검진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보는 대변 잠혈 검사에 그치거나 직장경 검사를 주로 하게 된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사람, 육식을 즐기는 사람 또는 40세 넘어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따로 받는 것이 좋다. 처음 검사에서 정상이면 최소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br/><br/>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이 비교적 높은 연령에서 발견되는 서구와 달리 40대에도 많이 발생한다. 젊은 여성의 유방은 유방촬영술에서 잘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유방에 멍울이 자주 잡히는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다. 간암은 만성 간염 보균 상태에서 대개 40~50대에 발생한다. 간염 보균자라면 복부 초음파 외에 복부 CT 촬영을 한 번은 받아 보는 게 좋다. 50세가 넘었는데 비만이거나 흡연자는 심장 CT를 찍어 관상동맥을 볼 필요가 있다. 멀쩡히 지내다 심근경색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br/>◇본격적으로 노화가 몸으로 드러나는 60~70대=60세가 되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눈이다. 망막은 흔히 증상이 없으면 정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망막의 변화를 봐야 한다. 목에서 뇌로 들어가는 굵은 동맥인 경동맥 초음파도 필요하다. 경동맥이 얼마나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는지를 보면 뇌졸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br/><br/>60세 이상 남자는 직장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췌장암 가족력의 경우 복부 CT로 검진이 가능하다. 최근 느는 갑상선암 검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갑상샘 초음파가 필요하다. 하지만 갑상선암 검사는 정기 검진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목 앞에 혹이 잡히거나, 다른 이유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br/><br/>20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60세에 접어들면 벌써 흡연 경력이 40년이다. 이때쯤이면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일 무서운 것이 폐암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검진에 포함된 가슴 엑스레이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는 어렵다. 담배를 최소 20년 이상 피운 경력이 있다면 폐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통상적인 CT 방사선 피폭량의 5분의 1 수준으로 찍을 수 있는 ‘저선량 CT’가 많은 병원에 보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검진항목에 추가해 활용하면 된다.<br/><br/>현재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을 정복하는 길은 최첨단 치료법이 아니다. 조기 발견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행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과 자궁경부암 발견을 위한 간편한 검진법이 있다. 위암은 1~2년마다 내시경을 받으면 되고, 자궁경부암은 자궁 세포진 검사로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암 검진은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 것이 빼먹지 않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생일 즈음에 또는 결혼기념일 즈음에는 반드시 암 검진을 하는 정례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br/><br/>◇검진 결과 정상은 면죄부 아니다=어떤 이들은 건강검진 이후 검진 결과만 통보받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거기서 빈틈이 생긴다. 분명히 검진 결과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검진 받은 것 자체로 안심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br/><br/>건강검진의 중요한 목적은 전체 결과를 놓고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체 의미를 파악해야 하지, 하나의 검사 항목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설사 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흡연?비만 등 건강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br/><br/>즉 건강검진상 ‘정상’이라는 의미는 현 단계에서 지금의 진단 방법으로 주요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결코 당신의 건강자체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건강을 해치는 당신의 생활 방식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을 계기로 생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4.txt

제목: “국내 방사선 치료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날짜: 2014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366  
본문: 선진국과 비교해 더 격상시켜야하는 것은 숙제, 최은경 방사선종양학회장<br/><br/>[쿠키 건강]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최은경 회장(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이 국내 방사선 치료 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교류를 통해 재평가를 받는 등 발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지난해 10월 부임한 이후로 대한방사선종양학회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br/><br/>취임 이후 가장 강조했던 것은 세계화(Globalization). 이 분야에 집중한 결과 최근 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br/><br/>지난 4월에는 유럽방사선종양학회(ESTRO) 이사회에 참석해 국내 학회와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은 학술적 지견 공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학회 개최시 해외 연자를 많이 데려올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br/><br/><br/><br/>또 방사선 치료 분야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그 첫 단추로 재미동포 방사선종양학회(KASTRO)와 정기적인 학술 심포지엄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가 단체인 국제암통제조합(UICC)에도 가입했다.<br/><br/>세계방사선치료대책위원회(GTFRCC) 이사회에도 참석, 앞으로 저개발국가의 방사선 치료 및 공동대책 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br/><br/>최 회장은 "방사선 치료 수준은 대등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스탠더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콜레보레이션(협력)를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러한 학술적 협력을 늘어나게 되면 나머지 발전 사업인 맞춤형 방사선 치료(Personalization)와 치료의 표준화(Stadardization)도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나아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학회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내 방사선 종양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작중이다.<br/><br/>최 회장은 "진료지침을 만들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 "진료지침이사를 선출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종양과 관련된 최초의 가이드라인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br/><br/>치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바라는 것도 생기고 있다. 첫 번째는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그는 "현재 국내 방사선 치료의 수가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면서 "미국에 있는 기계를 더 비싸게 들여와서 더 적은 비용으로 치료하고 있는 현실은 모순이며 향후 미국의 3분의 1수준은 돼야한다"고 말했다.<br/><br/>아울러 방사선 치료 전문가 인증을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사들이 방사전 치료를 다루면서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전문의사가 치료전 사인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인증 법제화를 희망하고 있다.<br/><br/>최 교수는 "약물 항암치료에서 완치할 수 있는 것은 혈액암외에는 없는 반면 방사선 치료는 후두암, 유방암 등 초기 암환자들을 완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효율적인 치료법"이라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신 지견을 획득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br/><br/>한편 학회는 이러한 발전 전략에 따라 오는 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는 Global Clinical Trial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표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임상연구의 해법에 대해 살펴본다.<br/><br/>10일에는 암환자들을 위해 호텔에서 동백섬까지 5㎞ 희망달리기를 통해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5.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환자 대상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날짜: 201405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312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펼쳤다.<br/>이번 행사에 사용된 카네이션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본인의 어머님이 암치료를 받고 있는 익명의 보호자가 어버이날을 병원에서 보내야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기증한 꽃이다.<br/>행사에 참여한 71병동 이00 간호사는 “우리 병동에는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와 비슷한 연세의 분들이 입원해 계신다. 어버이날 입원해 계시면 약간 울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한 송이의 카네이션으로 한번이라도 더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6.txt

제목: 폐암 4기 환자, 옻나무 추출물과의 병행치료로 수술 가능해져  
날짜: 201405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8100000164  
본문: [쿠키 건강] 60대 여성 김모씨는 병원에서 양쪽 폐로 암세포가 전이된 폐암 4기를 진단 받았다. 맞벌이를 하는 딸을 대신하여 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 수술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손녀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br/><br/>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폐암은 전체 암종 중 발생률은 4위지만 사망률은 1위에 올라와 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3, 4기 폐암의 경우 그 생존율은 더욱 떨어진다.<br/><br/>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폐암 환자들은 보통 항암치료를 통해 수명 연장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이 계속 커지거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항암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뿐더러,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를 통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이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한방병행치료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평균적인 내성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적은 부작용만을 겪으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br/><br/>김씨의 한방치료를 담당한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병행치료를 하더라도 폐암 4기에서 수술이 가능해지는 김씨 같은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한방병행치료를 통해 더 적은 부작용으로 평균보다 더 긴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견디게 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span>”고 말했다.<br/><br/>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단순히 면역력 증가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의 설명이다.<br/><br/>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러한 연구 결과는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7.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15일, ‘암을 이겨낸 여성’ 건강강좌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180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오는 15일(목)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을 이겨낸 여성,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br/>이날 강좌에서는 암건강증진센터 안아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암 치료 후 나타난 몸의 변화(주요 암 치료의 부작용 이해하기, 신체 이미지 변화) ▲암 치료 후 성과 사랑 ▲마음 다스리기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br/>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건강강좌는 사전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는다.(문의: 02-2072-0077, 0088)<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8.txt

제목: 범석상에 신전수 연세의대 교수  
날짜: 2014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14182828  
본문: 을지재단(이사장 박준숙)은 제17회 범석상 수상자로 연세의대 신전수(52·사진) 교수와 한국과학기자협회 심재억 회장, 대한의학학술편집인협의회(의편협), 사랑나눔의사회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br/>신 교수는 세포 간 신호전달을 원격 조절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암 정복에 기여했고, 심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에, 의편협은 우리나라 의학논문의 세계화에 공헌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또 사랑나눔의사회는 국내외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썼다. 이들에겐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7일 오후 5시30분 을지대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09.txt

제목: 범석상에 신전수 을지의대 교수  
날짜: 201405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032  
본문: 을지재단(이사장 박준숙)은 제17회 범석상 수상자로 연세의대 신전수(52·사진) 교수와 한국과학기자협회 심재억 회장, 대한의학학술편집인협의회(의편협), 사랑나눔의사회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br/>신 교수는 세포 간 신호전달을 원격 조절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암 정복에 기여했고, 심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에, 의편협은 우리나라 의학논문의 세계화에 공헌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또 사랑나눔의사회는 국내외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썼다. 이들에겐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7일 오후 5시30분 을지대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0.txt

제목: 서울백병원 13일(화) ‘암 예방 비타민, 있다! 없다?’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193  
본문: [쿠키 건강]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오는 13일(화) 오후 2시부터 충무아트홀(중구 신당동) 1층 컨벤션센터에서 ‘암 예방 비타민, 있다! 없다?’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이번 강의는 김정아 서울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비타민의 종류에 따른 효능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나이와 연령, 질병에 따라 비타민을 올바르게 먹는 법과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과 암에 독이 되는 비타민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br/><br/>참기비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문의: 02-2270-0534 서울백병원 홍보팀)<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1.txt

제목: 리큅이 제안하는 건강스무디 ⑤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171  
본문: [쿠키 생활] 뉴욕 로푸드 셰프(raw food chef) 경미니와 리큅이 제안하는 다섯 번째 건강 스무디는 ‘수박 클렌즈 스무디’다.<br/>약간의 당분과 95%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수박은 특히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잘 익은 수박을 섭취할 경우 체내의 질산염을 배출시켜줘 디톡스에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br/>먼저 수박 3컵과 생민트잎 한 줌을 준비해 3마력 이상의 고성능 블렌더에 넣는다. 시원함을 느끼려면 얼음을 함께 갈아 섭취한다. 리큅의 RPM 프로페셔널 블렌더(모델명: LB-32HP)를 사용할 경우 낮은 속도부터 서서히 재료를 갈아 1분 30초간 작동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한다.<br/>여름철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해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과육 그대로 섭취하는 것보다 주스로 갈아 섭취하게 되면 체내 수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더욱 빠른 이뇨 작용과 디톡스 효과를 얻을 수 있다.<br/>특히 다이어트 이전 단계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클렌즈 기능이 뛰어나며 피부 수분 공급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께 넣는 허브의 경우 민트 외에도 로즈마리 등 청량감을 높여 줄 수 있는 허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br/>민트는 항암 성분이 많은 털핀계열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br/>수박의 단맛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면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면 좋다. 짠맛이 수박의 달콤한 맛을 더욱 돋궈 준다. 다이어트 전 디톡스 과정이 힘들 경우에는 하루 정도 수박을 섭취하면 좋다.<br/>단 신장계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수박 주스만 단기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2.txt

제목: 굿병원, 해외환자 유치 속도 낸다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309  
본문: 최근 러시아 환자 성공적으로 치료 마쳐<br/><br/>[쿠키 건강]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굿병원(원장 전태호)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br/><br/>굿병원은 지난달 29일 디스크변성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러시아 국적의 세르게이 구브첸코(43)씨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br/><br/>평소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즐기던 세르게이씨는 이로 인해 허리 만성 통증으로 고통 받아 왔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너무 커 치료를 미룬 채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로 통증을 줄이는 데만 급급했었다.<br/><br/>그러나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지경에이르자 굿병원을 찾았다. 평소 어머니의 암 치료 차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그의 부인이 굿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추천했던 것. 굿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세르게이씨는 디스크가 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스크 변성증 진단을 받았다.<br/><br/>굿병원 의료진은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절개를 하지 않고 고주파열 주사로 치료하는 고주파 열 치료술(IDET)를 시행했다. 이 시술은 최소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소마취 후 15분 정도면 간단히 끝난다.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큰 세르게이씨도 별 어려움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었다.<br/><br/>시술을 담당한 전태호 원장은 “<span class='quot0'>질환을 오랜 시간 방치해 걱정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마취로 시술이진행돼 편안히 엎드린 채 대화를 나누며 시술을 진행했으며 이런 특성 상 노약자나 체력이 약한 환자도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br/>치료를 마친 세르게이씨는 “러시아에서는 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안타깝다. 평생 통증과 싸우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도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해준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br/><br/>최근 국제진료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나선 굿병원은 후발주자임에도 지난 3월 러시아 현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또 5월 하바로브스크 의료상담 출장 등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3.txt

제목: 폐암 4기 환자, 옻나무 추출물 병행치료로 수술 가능해져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294  
본문: [쿠키 건강] 60대 여성 김모씨는 병원에서 양쪽 폐로 암세포가 전이된 폐암 4기를 진단 받았다. 맞벌이를 하는 딸을 대신하여 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 수술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손녀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br/><br/>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폐암은 전체 암종 중 발생률은 4위지만 사망률은 1위에 올라와 있다. 특히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3, 4기 폐암의 경우 그 생존율은 더욱 떨어진다.<br/><br/>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폐암 환자들은 보통 항암치료를 통해 수명 연장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이 계속 커지거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항암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뿐더러,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를 통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이다.<br/><br/>김씨는 항암치료와 한방병행치료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평균적인 내성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적은 부작용만을 겪으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br/><br/>김씨의 한방치료를 담당한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병행치료를 하더라도 폐암 4기에서 수술이 가능해지는 김씨 같은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한방병행치료를 통해 더 적은 부작용으로 평균보다 더 긴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견디게 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span>”고 말했다.<br/><br/>치종단, 치종탕, 넥시아 등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는 더 이상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치료를 통해 폐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완치 혹은 장기생존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단순히 면역력 증가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의 설명이다.<br/><br/>김보근 원장은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통해,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치료제 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의 천연물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치종단Ⅱ(일명 티버스터)가 caspase 단백질 활성과 ribosome 생성관여 단백질을 억제하여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작용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러한 연구 결과는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암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항암효과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4.txt

제목: “한국의 간질환 사망률 OECD국가 중 가장 높아…관리체계 보완 필요”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308  
본문: [쿠키 건강]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간 건강 정책포럼’에서는 간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포럼의 참석자들은 간질환의 심각성과 사회적 부담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간질환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br/><br/>이날 문정림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와는 별도로 국가간정보센터을 운영함으로써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알코올사용 장애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가의 암관리사업만으로는 간암고위험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br/><br/>실제로 간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620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바이러스간염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간염유병률 및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 통계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br/><br/>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준성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내과 교수는 ‘간염 검사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간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중심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덧붙였다.<br/><br/>이준성 교수는 “<span class='quot0'>국가간암검진의 대상자 선정의 부적확성, 매우 낮은 수검률, 간 초음파검사의 질관리, 이상 소견자의 사후관리 문제 등 국가 간암검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평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제1세션 두 번째 발표자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B형·C형간염 바이러스에 밀려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적은 A형간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br/><br/>김영택 감염병관리과장은 “<span class='quot1'>A형간염은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큰 유행시기가 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다른 간염바이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묻혀있던 A형간염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국가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B형간염 예방접종의 실패 사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br/><br/>한편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2'>백신과 간염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성적을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간암 및 간질환 환자들을 국가 돌봐야 하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앞으로 다양한 정책간담회와 국회 정책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간질환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5.txt

제목: “한국의 간질환 사망률 OECD국가 중 가장 높아…관리체계 보완 필요”  
날짜: 201405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7100000314  
본문: [쿠키 건강]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간 건강 정책포럼’에서는 간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포럼의 참석자들은 간질환의 심각성과 사회적 부담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간질환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br/><br/>이날 문정림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와는 별도로 국가간정보센터을 운영함으로써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알코올사용 장애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가의 암관리사업만으로는 간암고위험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br/><br/>실제로 간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620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바이러스간염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간염유병률 및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 통계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br/><br/>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준성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내과 교수는 ‘간염 검사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간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중심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덧붙였다.<br/><br/>이준성 교수는 “<span class='quot0'>국가간암검진의 대상자 선정의 부적확성, 매우 낮은 수검률, 간 초음파검사의 질관리, 이상 소견자의 사후관리 문제 등 국가 간암검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평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제1세션 두 번째 발표자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B형·C형간염 바이러스에 밀려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적은 A형간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br/><br/>김영택 감염병관리과장은 “<span class='quot1'>A형간염은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큰 유행시기가 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다른 간염바이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묻혀있던 A형간염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국가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B형간염 예방접종의 실패 사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br/><br/>한편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2'>백신과 간염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성적을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간암 및 간질환 환자들을 국가 돌봐야 하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앞으로 다양한 정책간담회와 국회 정책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간질환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6.txt

제목: 흡연 등 암 발생 위험요인 규명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228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암센터, 공동연구협약<br/><br/>[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가 흡연 등 암 발생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공동연구에 들어간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와 암 관리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br/><br/>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암 예방부터 검진, 치료, 생존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암관리정책 지원에 필요한 연구 및 국가단위의 통계산출을 위해 2년간(2014년 5월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br/><br/>양 기관은 향후 2년 동안 ‘암 종합정보 DB’를 기반으로 ‘암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과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검증’, 암보장성 강화정책, 국가암검진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등 ‘암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앞서 지난 1년(2013.5.1~2014.4.30) 동안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에 앞서 건강보험 자격, 검진, 급여자료와 암센터 암등록자료 등을 연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암환자 약 150만명에 대한 ‘암 종합정보 DB’를 구축한 바 있다.<br/><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이 각종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협약은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국민건강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1'>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암 관련 연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진행을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7.txt

제목: 건국대병원, 가정의 달 맞아 효(孝)건강검진 프로그램 선보여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308  
본문: 암 정밀 검진부터 치매예방 검진까지,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br/><br/>[쿠키 건강] 건국대병원 헬스케어센터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포함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효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평소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br/><br/>검진 프로그램도 암과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효 표준형’은 기본 검진에 암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위암, 대장암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효 암정밀형’은 10대 암을, ‘효 정밀형’은 10대 암에 뇌혈관과 심장질환 검사를 더했다. ‘효 치매형’은 가장 고급형으로 ‘효 정밀형’에 치매 MRI가 추가된다. 자세한 문의는 건국대병원 홈페이지와 전화(02-2030-5700)로 하면 된다.<br/><br/>보건복지부 통계(2012년)에 따르면 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심장 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암정보센터 분석 결과(2011년) 암은 남성은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드러났다.<br/><br/>건국대병원 헬스케어센터는 명품 건강검진센터로 입소문이 나있다. 입구에는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화가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는 최고급호텔을 연상케 한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평균 90점을 얻으며 서울의 주요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8.txt

제목: 5월 가정의 달, 멀티비타민으로 감사인사 인기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365  
본문: [쿠키 건강]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버이날, 부부의날 외에도 스승의날, 성년의날까지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다. 즐겁기도 하지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br/><br/>이럴 때 합리적이면서도 센스 있는 선물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 하루한알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영양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만족스런 선물이 될 수 있다.<br/><br/>현대인은 공해와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등 비타민이 고갈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날씨가 풀리며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섭취가 중요해진다.<br/><br/>美하버드대 연구진의 식사지침에 따르면 식사를 통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필수영양소의 일일권장량은 그에 맞춰 제조된 멀티비타민 등을 통해 채워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멀티비타민의 장기복용이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멀티비타민의 암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br/><br/>대표 멀티비타민으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센트룸’(Centrum)이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일일 영양섭취량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제조된 대표적인 멀티비타민이라고 한다. 또 50세 이상을 위한 맞춤 멀티비타민인 ‘센트룸실버’는 노화로 점점 더 부족하기 쉬운 14가지 비타민과 11가지 미네랄이 과학적으로 함유돼 있어 영양불균형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19.txt

제목: 암생존자 관리, 1차 의료진이 담당해야  
날짜: 2014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168  
본문: 서울대암병원 주최 ‘제1회 국제암생존자 심포지엄’에서 논의<br/><br/>[쿠키 건강] 국내 암생존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관리전략이 강조되는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br/><br/>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가 마련한 제1회 국제암생존자심포지엄에서는 장기적인 암생존자 관리에 있어 1차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br/><br/>◇MD앤더슨 암센터의 암생존자 관리 노하우 소개<br/><br/>이날 연자로 초청된 Lewis Foxhall 교수(미국MD앤더슨 암센터)는 MD앤더슨 암센터의 암경험자 클리닉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span class='quot0'>체계화된 전문교육과 암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암생존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Foxhall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치료율이 향상됨에 따라 암생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미국의 경우 이미 2012년 기준으로 암생존자 수가 1370만명으로 집계됐고, 2020년에는 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span>”고 말했다.<br/><br/>또한 “관리의 대상을 완치자들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암생존자들에 대한 관리는 암 진단 시점부터 고려돼야 하고, 환자 본인뿐 아니라 투병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과 친구, 돌봄 제공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제시했다.<br/><br/>구체적으로는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를 소개했는데,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함께 의료진 간 환자정보를 공유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원 의뢰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암전문의-1차 진료의 연계 강화 필요<br/><br/>한편 국내 연자로 참석한 성균관의대 이정권 교수(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통합치유센터장)는 “<span class='quot1'>암 치료 후 장기적인 추적 관리는 1차 진료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만 현 의료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암생존자 관리전략에 주력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1차 의료시스템이 취약하고 암전문의와 1차 진료의 간 네트워킹이 잘 이뤄지지 않아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가정의학회가 암생존자 관리에 대한 인식확대와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암전문의와 1차 진료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차차 지역사회로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0.txt

제목: 채식보다 육식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312  
본문: [쿠키 건강]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식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육식에 대한 편견이다.<br/><br/><br/><br/>바로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적당하게 육식을 지속해온 사람들이 대다수다.<br/><br/><br/><br/>우리가 채식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건강관련 상식에 비춰보면 채식을 주로하고 먹을거리가 풍족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해야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선사시대 유골 비교에 따르면 신석기인은 구석기인보다 체구도 작고 감염성 질환 등 질병에 걸린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br/><br/><br/><br/>실제 일본 도쿄 노인종합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고기가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br/><br/><br/>고기 등에 포함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 내 알부민 수치를 유지해주고 신경조직을 튼튼하게 하여 줌으로서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최대 2.5배 이상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기 섭취를 줄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연구결과다.<br/><br/><br/><br/>또 올해 들어서는 오스트리아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오스트리아인 1320명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관련 조사 결과,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암과 심근경색 발생 빈도가 더 높고 알레르기 질환과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고 있다.<br/><br/><br/><br/>실제 육류섭취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체내에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된다. 고기 속에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은 인간에게 행복 전달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br/><br/><br/><br/>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은 “<span class='quot0'>채식은 채소에 치중된 편식이므로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육류, 생선, 야채,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바른 식생활로 건강을 지키려는 현대인들이 과연 어느 것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고 상식적인지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1.txt

제목: 하루에 견과류 한줌씩, 영양 담은 한 봉지면 충분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200  
본문: [쿠키 건강] 견과류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영양효과가 탁월하다. 정월대보름이면 찾아오는 ‘부럼’ 의 풍습이 이제 생활이 되고 있다. 건강에 좋으면서 맛도 좋은 견과류가 최근 몇 년 사이 비타민처럼 매일 먹는 건강식, 간단한 식사대용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br/><br/>하루 권장되는 견과류 섭취량은 한 줌에 얹어질 정도의 25g 정도로,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면 두뇌발달, 노화방지, 탈모예방, 피부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 시판되고 있는 하루 분량의 개별 포장된 견과제품은 호두, 아몬드와 같은 대표적인 견과류와 건포도 등의 건과일이 함께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br/><br/>호두에는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A 전구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무기질 및 비타민 A와 B도 풍부하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필수지방산인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붙는 것을 막아주므로 호두는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br/><br/>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100g당 26㎎(호두는 0.7㎎)이 들어 있다. 비타민 E는 유해(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성인병을 억제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아몬드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br/><br/>견과류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우리 몸에 나쁜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고열량 간식을 피해야 한다.<br/><br/>또한 견과류는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일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파괴한다.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또 포만감을 주어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한다.<br/><br/><br/><br/>‘하루견과’는 썬넛트에서 생산하는 하루분량 견과제품은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약국에서 최초 유통되는 견과류 식품이다. 토털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인 태전그룹에서 기획해 확산하고 있는 약국 내 헬스케어 서비스 유통 플랫폼인 오더스테이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썬넛트의 하루견과는 신선한 캘리포니아산 호두 등의 주요 원료를 직수입, 가공해 안정성을 높였고 약사의 전문 상담이 가능한 약국에서 유통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2.txt

제목: 대장내시경, 전날 관장약 복용 없이 당일 검사 가능  
날짜: 201405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2100000193  
본문: 민병원, 내시경으로 십이지장에 장정결제 투입하는 방법 시행해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br/><br/><br/><br/>[쿠키 건강] 주부 서모(67)씨는 평소 육류 및 튀김류를 즐겨 먹는다. 올해 초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에 통증이 느껴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위장약을 먹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점차 변비도 심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 정기 검진 시 혈변 증상이 있다는 결과에 대장대시경으로 재검사를 했고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다.<br/><br/>현재 국내 65세 이상 여성의 암 발병률 1위는 대장암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사망률 3위의 대장암이 2012년 여성암 사망률 2위가 되면서 사망률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위암이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및 치료하는데 비해 대장암은 초기에 알 수 없고 대장내시경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조기진단이 어려운 현실.<br/><br/>보통 복부 통증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 용종, 장결핵, 대장염 등의 진단과 조직 검사와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주류 및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자주 섭취하고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br/><br/>대장내시경 검사는 고화질 카메라가 달린 지름 1cm 정도 되는 작고 긴 관을 항문을 통해 대장이 시작되는 오른쪽 아랫배까지 약 80cm 정도 집어넣은 후 서서히 빼내면서 하는데 직장과 S상 결장, 상행 결장 등 대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진단한다. 또한 진단 뿐 아니라, 필요시 조직검사로 확진검사가 가능하고 전암성 병변 즉, 선종성 용종을 동시에 제거하면서 대장암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br/><br/>대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이 필수지만 검사 전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장 청소 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보다 장정결제의 양이 줄거나 향 첨가 등으로 복약이 비교적 쉬워졌지만 아직도 3~4L 이상의 물에 약물을 타 마시며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고초를 겪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만약 장정결제를 다 복용하지 못하고 검사를 받으면 검사 시간이 길어져 고통스럽고 간혹 재검사하는 경우도 생긴다.<br/><br/>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장정결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당일 검사가 가능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br/><br/>당일 장 청소와 검사가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 검사 중 장정결제를 주입하여 신속한 장세척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약 2시간 후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시경을 통해 십이지장에 장정결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약물이 주입 되면 거꾸로 역류하지 않고 소장을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신속한 장정결이 가능하다.<br/><br/>검사 당일 아침 금식만 하면 검사 전날 많은 양의 장정결제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장정결도도 90%이상이다.<br/><br/>민병원 소화기센터 조원영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부 병원에서는 인산나트륨제제를 이용해당일 검사 가능한 장정결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장 손상의 위험성으로 식약처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민병원은 식약처 허가 제품을 사용해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시경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복부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장치에 공기보다 100배 이상 체외로 빨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발생기를 이용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3.txt

제목: 연세암병원 30일 봉헌식 개최 “癌환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날짜: 201405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501100000192  
본문: [쿠키 건강] 연세암병원이 30일, 병원 앞 광장에서 봉헌식을 개최했다.<br/><br/>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세워진 연세암병원은 지상15층, 지하 7층, 510병상 규모로 제2의 신촌세브란스병원이라 불릴만큼 위용을 자랑한다.<br/><br/>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에 두고 설립된 연세암병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란 의미를 부여하고자 일반적인 준공식이 아닌 봉헌식 형태로 진행했다.<br/><br/>이날 김석수 연세대 이사장, 방우영 전 이사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홍영재 연세의대 동창회장, 로널드 데피뇨 텍사스 의대 MD앤더슨 암센터 원장, 윌리엄 페터슨 호주 대사, 자심 알부다이위 쿠웨이트 대사,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윤후덕, 류지영, 신의진, 문정림, 이언주, 김영환 국회의원,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권이혁, 이호왕 대한민국학술원 전 회장, 김정배 고려대학교 전 이사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br/><br/>연세암병원은 위암, 간암 등 15개 암 전문센터를 비롯해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완화의료센터 등의 특성화 센터를 둠으로써 암 예방부터 진단, 치료, 교육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br/><br/>노성훈 연세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미 14일부터 진료를 시작해 일평균 외래 환자 2000여 명, 병실가동률은 92%를 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연세암병원은 앞으로 환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의료진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주는 병원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4.txt

제목: 유전체 분석기업 ‘녹십자지놈’, 개인별 진단 맞춤 의료시대 연다  
날짜: 201404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30100000227  
본문: [쿠키 건강] 녹십자지놈이 유전체 분석 검사항목을 개발하고 개인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br/><br/>녹십자의 유전체분석 부문 자회사인 녹십자지놈에서 선보이는 서비스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 진단 검사용 엑솜 염기서열분석서비스와 마이크로어레이 검사 외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염색체 열성질환 및 근이영양증 보인자 검사, 유전성 암 검사 등이다.<br/><br/>특히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유전적 요인의 여러 암종의 발병 가능성을 한꺼번에 예측할 수 있는 유전성 암 검사와 신생아의 유전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산모의 유전질환 보인자 검사와 같이 1회 검사로 다양한 관련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br/><br/>지난해 8월 설립된 녹십자지놈은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GS) 등 주요 검사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유전체에서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는 생명공학정보전문가 인력을 통해 한층 단축된 검사시간과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br/><br/>조은해 녹십자지놈 유전체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녹십자지놈은 첨단 장비,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며 유전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체 분석 정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예측은 물론,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전문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5.txt

제목: 고려대 구로병원 29일 암병원 준공식 개최  
날짜: 201404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30100000386  
본문: [쿠키 건강] 고려대 구로병원은 지난 29일 ‘암병원 준공식’을 가졌다. 암병원은 연면적 8,585.77㎡에 지상 10층 규모로 2013년 2월 착공해 올해 3월에 준공됐다.<br/><br/>준공식에 앞서 4월 14일 진료를 시작한 구로병원 암병원은 쉽고 편하고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암병원이란 슬로건 아래 환자중심 암 치료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br/><br/>이날 준공식에는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고려대 김병철 총장, 김우경 의무부총장, 김정묵 의과대학 교우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주)한라 정몽원 회장 등 법인과 학교, 의료원, 유관기관, 건설관계사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br/><br/>구로병원 암병원은 암환자를 위한 전용 진료실 및 각종 검사실을 비롯해 방사선치료실, 일일항암치료실, 다학제 협진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췄으며, 환자가 원스톱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동선과 공간을 최적화하고 사적인 공간처럼 꾸며졌다. 또한, 각종 연구실과 교육실을 갖춰 미래지향적 연구와 학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br/><br/>김우경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구로병원은 초기 암 환자를 비롯해 전국의 중증 암환자가 몰리는 병원”이라며 “선도적인 다학제 진료시스템과 독립적인 암 전문병원 설립으로 보다 수준높은 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구로병원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br/><br/>백세현 고려대 구로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병원 설립 준비기간만 5년에 이를 만큼 여러 의료진들이 마음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한 성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오로지 환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규모가 아닌 질적으로 앞선 환자중심 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6.txt

제목: [새로나온 책]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外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3010014137163  
본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이연수 지음/레베카<br/>이른 시기의 결혼, 미국 생활, CCM 가수 데뷔, 유방암 판정과 투병, 자궁경부암으로 번지기 직전에 이뤄진 두 번째 수술…. 그 때마다 당한 시험을 저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극복했다. “<span class='quot0'>나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span>” 저자의 강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경험한다. 그리고 겪게 되는 두려움과 좌절, 고통.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이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크고 간략한’ 응답임을, 또 주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간증한다. CCM 가수답게 책은 마치 한 장의 잘 만들어진 CCM 앨범처럼 잔잔한 울림을 전해준다.<br/>24시간으로 나눠보는 성경/척 미슬러 지음, 이선숙 옮김/아가페북스<br/>성경의 흐름을 잡는 성경개론서다. 특이한 것이 ‘24시간’으로 나눠 성경 전체를 훑어본다는 것이다. 각 장의 제목은 ‘1 Hour 성경개관’ ‘2 Hour 창세기 1장 1∼3절’ 등으로 60분 내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연대기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 탄탄한 구성에 요점이 명확하고 흥미롭다는 게 특징이다. 또 성경 구절마다 역사·문화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저자는 젊은 시절 공군 조종사와 미사일 전문가로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을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다. 그러다 성경을 가르치는 소명을 이루고자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코이노니아 하우스(khouse.org)’를 설립, 성경을 배우려는 이들을 돕고 있다.<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7.txt

제목: [새로나온 책]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外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30100000046  
본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이연수 지음/레베카<br/>이른 시기의 결혼, 미국 생활, CCM 가수 데뷔, 유방암 판정과 투병, 자궁경부암으로 번지기 직전에 이뤄진 두 번째 수술…. 그 때마다 당한 시험을 저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극복했다. “<span class='quot0'>나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span>” 저자의 강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경험한다. 그리고 겪게 되는 두려움과 좌절, 고통.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이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크고 간략한’ 응답임을, 또 주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간증한다. CCM 가수답게 책은 마치 한 장의 잘 만들어진 CCM 앨범처럼 잔잔한 울림을 전해준다.<br/>24시간으로 나눠보는 성경/척 미슬러 지음, 이선숙 옮김/아가페북스<br/>성경의 흐름을 잡는 성경개론서다. 특이한 것이 ‘24시간’으로 나눠 성경 전체를 훑어본다는 것이다. 각 장의 제목은 ‘1 Hour 성경개관’ ‘2 Hour 창세기 1장 1∼3절’ 등으로 60분 내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연대기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 탄탄한 구성에 요점이 명확하고 흥미롭다는 게 특징이다. 또 성경 구절마다 역사·문화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저자는 젊은 시절 공군 조종사와 미사일 전문가로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을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다. 그러다 성경을 가르치는 소명을 이루고자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코이노니아 하우스(khouse.org)’를 설립, 성경을 배우려는 이들을 돕고 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8.txt

제목: 세월호 참사가 할퀸 마음 닥터 에세이로 추스른다  
날짜: 20140430  
기자: 노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30100000027  
본문: 세월호 침몰과 함께 전 국민의 마음도 가라앉았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에는 좀 버겁다.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서로의 몸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골라 본 책이다. 닥터 에세이. 가볍게 읽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좋겠다.<br/>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가나북스)는 한의사 김양규(59·부산 해운대연합교회) 장로가 생활습관 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쓴 책이다. 부산 김양규한의원 원장인 저자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성서한방보감’을 연재 중이다. 책의 주제는 ‘성경을 알면 장수가 보인다’이다.<br/>저자는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 부족, 흡연, 과음 등 평소 좋지 않은 습관으로 많은 사람이 생활습관 병에 시달린다고 진단한다. 암 심장병 뇌혈관장애 고혈압증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치매 등이 이에 속한다. 과민성대장증후군 우울증 궤양성대장염 등도 새롭게 증가한 생활습관 병이다. “<span class='quot0'>생활습관만 바꾸면 70∼80%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span>”고 말하는 저자는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요법, 한방 치료를 처방한다. 특히 영육 간의 치료와 예방을 강조한다.<br/>“우울증 환자는 기분이 가라앉아서 운동을 하러 나갈 수가 없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자꾸 운동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좀 더 기다려줘야 한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증 환자의 보호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기다리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326쪽)<br/>저자는 우울증 환자를 위한 영적인 처방으로 ‘시편 23편’을 내놓는다. 하루에 세 번 매일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 “<span class='quot0'>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해도 생명이 살아난다</span>”는 게 저자의 처방전이다.<br/> ‘눈빛이 달라졌어요’(VIVI2)는 노안수술 명의로 꼽히는 아이러브안과 대표원장 박영순(60·소망교회) 집사가 썼다. 기도하는 의사, 노래하는 의사, 권투하는 의사로 불린다. 전 복싱세계챔피언 홍수환 선수의 눈을 수술해준 인연으로 권투를 시작했다. 지난달엔 동양타이틀 전초전에서 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노래 실력도 수준급임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성악을 배운 그는 네 차례 독창회를 가졌고 아마추어 성악 동호회 ‘데뮤즈’ 회원으로 해마다 ‘소아암 환자 돕기 자선콘서트’에 동참하고 있다. 열린의사회 단장으로 몽골 미얀마 등에서 의료봉사를, 10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에게 무료 라식수술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br/>명성에 비해 작고 소박한 진료실에서 최근 저자를 만났다. 사실 이 책은 딱히 신앙서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왜 의사가 됐는지, 나눔을 왜 실천하는지 등의 내용에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자의 마음을 읽게 된다.<br/>‘기도하는 의사’란 별명이 붙여진 이유도 알 수 있다. “나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 수술 전 기도는 환자를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의사도 사람이고 수술은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더구나 아픈 가운데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환자들의 마음은 더욱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나와 환자 그리고 수술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다.”(179쪽)<br/>저자는 30여년 전 결혼하면서부터 교회에 나갔다. 일가친척에게 헌신적인 아내 덕분에 믿지 않던 집안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특히 어머니는 새벽기도에 가장 열심이었다. 책에는 이런 저자의 신앙적 배경이 들어있진 않다. 하지만 그가 책을 쓴 목적은 분명하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를 보시고 많은 분이 힘내셨으면 합니다. 죄와 사망의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 기쁨도 얻게 됩니다.”<br/>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29.txt

제목: 림프종연구회, “DLBCL 치료율 개선에 힘쓸 것”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9100000087  
본문: 26일 DLBCL 치료전략 관련 심포지엄 개최<br/><br/>[쿠키 건강] 림프종 환자들의 치료성적 개선을 위해 국내 혈액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br/><br/>대한혈액학회 림프종연구회(위원장 서철원)는 지난 26일 '광범위 큰 B 세포 림프종(DLBCL)의 최신 치료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r/><br/>이날 심포지엄에서는 DLBCL의 병리, PET 적용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요법과 장·단기 합병증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됐다. 림프종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Andrew D. Zelenetz 교수(메모리얼슬론 케터링 암센터)와 Christian Gisselbrecht 교수(프랑스 생루이병원)도 연자로 초청돼 DLBCL 치료의 최신 경향을 공유했다.<br/><br/>성균관의대 김원석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흔히들 림프종을 희귀질환으로 생각하지만, 림프종은 국내 성인 암 발병률 10위권 안에 든다"면서 "DLBCL은 국내 림프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이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치료에 실패한 40%는 사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많은 신약들이 개발 단계에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되고 구제요법, 유지요법, 자가이식 등의 효용성에 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br/><br/>그는 "최근 국제학회와 저널 등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다기관 연구들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일선에서 림프종 환자들을 진료하는 국내 임상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마지막으로 "림프종연구회는 2005년 설립된 이래 춘, 추계 심포지엄과 연구자모임을 비롯한 학술행사를 연 4회 열고, 분야별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데이터 축적에 힘쓰고 있다"면서 "내년 쯤에는 DLBCL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유지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BORMA 연구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0.txt

제목: 허경희 순복음찬양교회 목사 “젊은 날 서지 못했던 무대 환갑 넘어 오릅니다”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910014109225  
본문: 환갑을 넘긴 나이에 첫 독창회를 여는 소프라노가 있다. 허경희(64) 순복음찬양교회 목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영산아트홀에서 성가독창회를 연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에서 만난 허 목사는 “<span class='quot0'>기관지염과 후두암 투병으로 젊은 날 서지 못했던 무대에 이제야 오른다</span>”며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제 꿈을 이뤄주셔서 정말 기쁘다</span>”고 말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16곡을 부를 예정이다.<br/>그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투병으로 젊은 날 무대에 서지 못했다. 열다섯 살 무렵 천식을 앓았다. “<span class='quot1'>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지만 늘 기침을 했어요.</span>” 소녀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1968년 숙명여대 성악과에 최고의 실기 성적으로 입학했고 가장 높은 실기 성적으로 졸업했다. “<span class='quot1'>독일 베를린음대 입학 허가서를 받았지만 결혼하면서 포기하고 교편을 잡았어요.</span>”<br/>만성 기관지염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사촌 시누이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 78년 예수를 영접했다. “80년 어느 날 불같이 뜨거운 기운이 제 목을 태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고후 5:17)처럼 기관지염이 깨끗이 나았어요.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br/>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82년 후두암이 발병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저는 하나님이 제 암을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처럼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85년 영산신학원에 입학, 여의도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일했다. 99년 순복음찬양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span class='quot1'>지금도 어느 때는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게 나기도 해요.</span>”<br/>허 목사는 아이노스성가대를 조직해 10여년 동안 지휘했고 교회에서 성가를 계속 불렀다. 2012년부터 조용찬 순복음영산신학원 학장 제안으로 강단에도 선다. “<span class='quot1'>소프라노인 제게 목이 아픈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내했고 겸손해진 것 같아요.</span>”(웃음) 그는 독창회에 열 살 손자를 초대했다. “할머니가 노래 잘 부를 테니까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할머니 소프라노’의 첫 독창회 기대되지 않으세요?”<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1.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하버드의대 부속병원과 전립선·비뇨기암 협력  
날짜: 201404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9100000071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암병원은 최근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와 비뇨기·전립선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br/><br/>이와 관련 지난 21일 MGH 종양내과의 리차드 리(Richard J. Lee) 교수가 서울대암병원을 방문해 비뇨기·전립선암센터와 합동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리차드 리 교수는 MGH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립선암에서의 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s) 진단과 ▲방광암에서의 방광보존치료법에 대해 발표했다.<br/><br/>이에 앞서 양 기관은 위암과 뇌종양, 갑상선암을 중심으로 치료·연구 협력을 펼쳐 왔다.<br/><br/>이번 콘퍼런스를 기점으로 비뇨기·전립선암센터와 MGH의 비뇨기종양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 측은 앞으로 연구와 임상시험, 협력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학술 교류와 상호 의료진 방문 등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br/><br/>서울대암병원 비뇨기·전립선암센터는 비뇨기과와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생리학교실의 우수한 의료진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법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br/><br/>곽철 서울대학교암병원 비뇨기·전립선암센터장은 “비뇨기/전립선암 분야에서 MGH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과 함께 선진국형 암이라고 분류되는 전립선암의 경우, 국내에서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계 유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결과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2.txt

제목: 동산병원, 내시경으로 위종양 절제 2500례 돌파  
날짜: 201404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9100000067  
본문: [쿠키 건강] 계명대 동산병원이 최근 내시경으로 위종양을 절제하는 ‘내시경 점막박리술’을 2500례를 돌파했다.<br/><br/>동산병원 소화기센터는 내시경 점막박리술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연평균 330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술이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44개 상급 종합병원의 연평균 상부 내시경 점막박리술이 125례인 것과 비교하면 계명대 동산병원은 3배 가량 많다.<br/><br/>이번에 동산병원이 달성한 2500례는 조기위암을 비롯해 위암의 전암성병변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1㎝ 이상의 크기였다.<br/><br/>내시경 점막 박리술은 조기 위암이나 위용종, 조기 식도암 등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이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근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의 다섯 층으로 구분되는데, 조기위암은 림프절 전이유무에 관계없이 위 점막 또는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암을 말한다. 이중에서 림프절전이가 거의 없는 점막층과 점막근층에 국한된 분화가 좋은 위암은 내시경으로 절제하여도 재발이 거의 없어 현재는 내시경적 치료가 수술과 더불어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br/><br/>내시경적 점막박리술은 수술적 절제법에 비해 위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이 짧고, 위장 절제 후에 생길 수 있는 소화불량, 빈혈, 덤핑증후군, 역류증상 등의 합병증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적절한 적응대상이 되는 소화관 종양 및 조기위암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환자나 간경변증, 심폐기능 이상으로 수술을 견디기 힘든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위암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97%로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br/><br/>조광범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점막박리술은 고도로 숙련된 의료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내시경 점막박리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그 성공률도 90%를 상회한다”며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시대이므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3.txt

제목: 말기 암 투병… 19세 청년의 버킷리스트에 누리꾼들 감동하다  
날짜: 20140428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8100000055  
본문: 英 스티븐 서튼의 아름다운 삶<br/>청소년 암 환자 위해 모금 호소… SNS 심금 울려 45억원 넘게 답지<br/>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영국의 19세 청년 스티븐 서튼(사진)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46가지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다. 죽음과 싸우면서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스카이다이빙하기, 코끼리와 포옹하기 등의 체험에 도전해 그동안 33가지 항목을 실천했다.<br/>청소년 암환자를 위한 모금 운동도 그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로 시작됐다. 목표는 10만 파운드(약 1억7000만원). 하지만 인터넷 모금사이트 저스트기빙닷컴(justgiving.com)의 도움으로 목표를 순식간에 넘어섰다. 코미디언 제이슨 맨퍼드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응원에 나서면서 모금액은 하루 만에 100만 파운드를 돌파했다. 26일(현지시간) 현재 10만6000명 이상이 참여해 전체 모금액은 261만 파운드(약 45억6000만원)에 달한다. 대다수의 일반 시민은 5∼20파운드씩 기부하고 있다. 저스트기빙닷컴은 서튼의 당초 목표액 10만 파운드를 넘어서자 5만 파운드를 별도로 기부했다. 같은 처지의 청소년을 위해 죽기 전에 모금 운동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한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누리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br/>4년 전 직장암 판정을 받은 서튼은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퍼지면서 의사들은 치료가 힘들다고 포기했다. 하지만 서튼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해 청소년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연설 기회를 얻기도 했다.<br/>서튼의 버킷 리스트 중에는 아직 ‘페루 마추픽추 방문’ ‘호주 여행’ ‘브라질 리우 카니발에서 춤추기’ 등이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서튼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46가지의 리스트를 모두 채울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2일 서튼은 병실에 누운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불행히도 이게 큰 장애물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폐 하나가 기능을 잃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다”는 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과 지지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몸속에 암세포는 퍼져 있지만 지금 여기 살아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4.txt

제목: [메디컬 뉴스] ㈜메디바이오랩, 관절·연골 기능 개선 ‘조인트헬스골드캡슐’ 출시 外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8100000028  
본문: 관절·연골 기능 개선 ‘조인트헬스골드캡슐’ 출시<br/>㈜메디바이오랩(대표 이용민)은 최근 관절 및 연골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조인트헬스골드캡슐’을 새로 개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절염 퇴치에 뚜렷한 효능이 있는 ‘MBL 콤플렉스-1’을 주성분으로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및 ‘수용성 해조 칼슘’ 등을 복합 처방한 건강식품이다. 약국에서 판매하며 하루 2회, 매회 2캡슐씩 복용하면 된다(042-862-0174).<br/>비만예방 디자인 공모전 내달 15일까지 열어<br/>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4회 비만예방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누구나 개인 자격 또는 3인 이내 팀을 꾸려 어린이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만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 응모하면 된다. 당선작은 6월 13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02-322-7005).<br/>소아 난치성 뇌전증 환자 치료비 지원 협약<br/>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공동대표 심상돈)는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회장 이인구)와 소아 난치성 뇌전증(간질)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매년 ‘미주신경자극’ 치료가 필요한 뇌전증 환자 25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02-782-0386).<br/>전문의 100명 공동 집필 ‘류마티스학’ 발간<br/>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유대현)는 최근 류머티즘 질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의학지식을 총정리한 한글판 교과서 ‘류마티스학’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류마티스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류머티즘 질환을 다루는 각 분야 전문의 100명이 공동 집필한 책이다.<br/>무좀·가려움증 동시 해결 ‘무조날쿨크림’ 시판<br/>한미약품은 다음 달 1일 무좀치료와 가려움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무조날쿨크림’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은 항진균제 ‘테르비나핀’과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한 무좀치료제다.<br/>서울 중부시장 상인연합회와 건강지킴이 협약<br/>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은 최근 ‘건어물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중부시장 상인연합회와 건강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제일병원은 앞으로 중부시장에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인들의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수술,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br/>차움, 10대 암 검진 서비스 새로 시작<br/>차병원그룹 차움은 최저선량 CT 및 최첨단 MRI 등을 이용한 10대 암 검진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암 가족력이 있거나 보다 정밀한 조기 암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br/>분당차병원, 내일 림프부종강좌<br/>분당차병원은 29일 오전 10시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림프부종강좌’를 개최한다.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가 ‘부인암의 진단과 수술 및 관리법’ 유방암센터 강봉수 전임의가 ‘유방암의 진단과 수술 및 관리법’ 재활의학과 민경훈 교수가 ‘림프부종의 관리’란 제목으로 강의한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5.txt

제목: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화여대의료원, 여성건강 8대 생활수칙 발표  
날짜: 2014042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8100000016  
본문: 이화여대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건강 8대 생활수칙’을 만들어 여성건강 증진 운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br/>이 수칙에는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를 주제로 여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습관들이 담겨 있다.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여성건강 8대 생활수칙을 소개한다.<br/>1. 정기검진 생활화하기<br/>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하다. 특히 사춘기, 임신,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여성 특유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 피로로 여겨 무시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br/>여성의 과반수가 지니고 있는 자궁근종, 난소질환 및 각종 악성종양들은 최신 진단기기를 이용한 건강검진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발견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정기 검진은 이제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기억하자.<br/>2. 컬러 푸드 맛있게 먹기<br/>초록색 케일, 주황색 당근, 하얀색 양배추, 노란색 파프리카, 보라색 포도, 빨간색 토마토 등과 같이 천연색소 음식(컬러 푸드)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이다.<br/>항산화 및 해독 작용, 염증방지 효과가 탁월한 신선한 컬러 푸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암 발생 위험을 3분의1 정도 낮출 수 있다.<br/>3. 나만의 취미 갖기<br/>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동시에 자신의 소질을 찾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br/>취미활동은 성취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친구와 사회를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또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고 소속감을 높여줌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울증까지 예방할 수 있어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br/>4. 복부비만 예방·정상체중 유지<br/>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 신종 전염병 중 하나로 비만을 꼽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비만인구는 연간 약 40만 명씩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br/>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 등을 유발 하거나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둔해지고 입맛은 좋아지는 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을 감량하는 건 예전처럼 쉽지 않다.<br/>본인의 기존 체중에서 1㎏ 이상 늘면 즉각 다이어트에 돌입하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체중 1㎏ 증가를 방치하면 금방 3㎏, 5㎏이 늘게 된다.<br/>5.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br/>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건강행위다.<br/>세로토닌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실패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진통 효과를 얻기도 한다.<br/>봉사는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높이지만,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스스로를 향한 축복이다.<br/>6.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br/>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적 치유행동이며,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7시간이다. 불면증뿐 아니라 과도한 수면도 피로회복을 방해하므로 적당한 수면시간 유지가 중요하다. 수면장애는 치매, 고혈압, 뇌졸중, 동맥질환. 성기능 장애, 당뇨 및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은 숙면의 적임을 기억하자.<br/>7. 건강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하기<br/>사람의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다.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이유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유발한다.<br/>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 명상 등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해 준다면 면역력 증강은 물론이고 ‘강한 정신’을 갖게 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br/>8.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운동하기<br/>주 5회,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다.<br/>특히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피로감퇴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적당량의 근육을 만들어 주어 비만예방에도 도움이 된다.<br/>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운동이 부담스러울 경우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좋다. 운동할 때 발산되는 땀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며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6.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바른세상병원 ‘목, 허리 질환’ 강좌 外  
날짜: 201404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8100000148  
본문: [쿠키 건강] ◎바른세상병원은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병원 척추센터에서 ‘목, 허리 질환 아는 만큼 바로 지킨다’를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와 상담을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전직대통령 허리수술 집도의인 이승철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승철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평소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척추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또한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한 환자 치료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척추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건강강좌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강좌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를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30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건강강좌 후 바른세상병원 재활물리치료센터 정석호 실장의 ‘목, 허리에 좋은 운동 가이드’ 강의도 펼쳐진다.(문의: 1577-3175)<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지하2층 대강당에서 ‘림프부종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부인암의 진단과 수술 및 관리법(부인암센터 박현 교수) ▲유방암의 진단과 수술 및 관리법(유방암센터 강봉수 전임의) ▲림프부종의 관리(재활의학과 민경훈 교수) ▲림프흡수 마사지 교육(재활의학팀 유아림 치료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림프부종은 림프혈관계 순환 장애로 인해 조직에 과도한 부종과 단백물질의 축적, 염증 섬유화가 초래되는 만성질환이다.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서 수술 받은 쪽 팔과 다리가 붓고 두꺼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며, 대략 암 환자의 7%~25%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나 방치될 경우 증상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조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날 강좌는 암환자 및 가족, 그밖에 림프부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의: 031-780-6124)<br/>◎모커리한방병원은 오는 29일 저녁 7시에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 모커리한방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질환의 비수술 치료법’ 무료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공개강좌는 모커리한방병원 김기옥 병원장이 직접 강의하며 퇴행성 척추질환의 종류, 증상과 치료 등에 대해 강연한다. 또 다양한 환자 완쾌 사례와 분석 등을 환자 및 가족들에게 명쾌한 치료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기옥 원장은 중증 퇴행성 척추질환을 수술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각광받고 있는데 목디스크 10일, 허리디스크 약2주, 척추관협착증 3주 치료법을 세계 유명학회에 발표한 바 있으며, 유명한 미국병원과 함께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무료공개강좌는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 약 1시간 진행된다.(http://cafe.naver.com/necknback)<br/>◎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는 30일(수) 오후 3시,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갑상선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최선인가?’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에서는 ▲갑상선암 꼭 수술해야하는가(이비인후과 정광윤교수, 센터장) ▲갑상선암 수술, 과연 안전한가(외과 김훈엽 교수) ▲갑상선암수술 이후 무엇을 해야하는가(내과 안지현 교수) ▲질의응답(내과 김신곤 교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문의: 갑상선센터 02-920-6360)<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7.txt

제목: 이화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정밀 치매 검진 프로그램 시행  
날짜: 201404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8100000261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치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2만1000여명이던 환자수는 2009년 44만5000여명, 2010년 46만9000여명, 2011년 50만4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오는 2024년에는 국내 치매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매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암의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처럼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소장 김정숙)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이 가능한 치매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br/><br/>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치매 조기 예방과 발견을 위해 센터 내에 치매 전문 신경과 교수가 직접 진료하는 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는 치매가 의사 문진과 상담이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에 주목해 타병원과 다르게 치매 전문 신경과 교수와 임상심리사가 직접 진료와 상담을 제공해 건강검진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다.<br/><br/>뇌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지기능이 같은 나이, 같은 학력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는 ‘인지기능 평가’,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유사한 다른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혈액검사’, 뇌의 구조적 이상 소견을 확인해 주는 ‘뇌 영상검사’, 본인이 가진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조사하는 ‘생활습관 관련 설문지 작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br/><br/>뇌 영상검사의 경우 치매 특화 MRI(뇌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포함돼 퇴행성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는 뇌의 위축은 물론 뇌종양, 뇌혈관 질환, 뇌수두증 등 뇌의 구조적 이상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br/><br/>김정숙 소장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로 조사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의 특화된 뇌 건강검진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8.txt

제목: 유전자정보 분석했는데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면?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048  
본문: KT 최윤섭 팀장, 23AndMe 등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 발표<br/><br/>[쿠키 건강] 자신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했더니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왔지만 당장 뚜렷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을까?<br/><br/>스타트업 벤처 투자기업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최근 인사이트박스에 초대된 KT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 최윤섭 팀장은 ‘유전자에서 웨어러블까지’를 주제로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 정보,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공부하고 체험한 경험을 소개했다.<br/><br/>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 학문을 연구하고 시장 기회를 구상하는 최 팀장은 개인 유전자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미국의 ‘23AndMe’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봤다. DNA에 대해 알수록 자신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요 취지다.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질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br/><br/>23AndMe는 벌써 5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건강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중이다.<br/><br/>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자신의 정보와 검사키트를 보내야 하며, 6~8주 내에 결과 분석지가 택배로 온다. 가격은 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0만원 가량이다. 질병위험도 120개, 약에 대한 민감도 21개, 유전자 분석 등 질병위험 49개 등의 분석을 토대로 가장 높은 질병위험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br/><br/>최 팀장 본인은 심방세동, 제2형 당뇨병 등이 위험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주, 흡연을 멀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그로서는 막상 결과지를 보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br/><br/>그는 “음식, 흡연, 음주, 가족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고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유럽인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br/><br/>질병 발생에는 인종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한국인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질병 위험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이득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용소감을 밝혔다. 서비스 결과가 지금처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입수하게 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br/><br/>23AndMe는 진료상담과 건강관리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위험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전문의가 상담하면 12달러,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30분내에 상담하면 5달러, 24시간 내에 상담하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한 건강관리도 있다.<br/><br/>이에 앞서 최 팀장은 신뢰도 있는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연계된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br/><br/>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 ‘구글글래스’를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br/><br/>응급구조사가 즉각적인 상태를 파악하거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EMR(전자의무기록)에 음성녹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술 중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의견 교환도 가능하며, 생중계 녹화도 가능하다. EMR 기록에 무려 3분의 1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구축에도 유용할 것이란 기대가 많다.<br/><br/>또한 미국 Scanadu가 개발한 ‘스카우트(SCOUT)’는 광센서 기술을 사용해 관자놀이에 10초간 대고 있으면 체온·심박수·혈압·혈중산소농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선판매하고, 8500명의 참여를 통해 170만달러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도 역시 투자자로 지원하고, 결과 분석을 기다리는 중이다.<br/><br/>이 제품은 투자자들의 데이터 측정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료기기 인허가에 장벽이 많지만, 실제 사용과 임상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라고 제시했다.<br/><br/>이밖에 ‘PatientsLikeMe’는 환자커뮤니티 사이트로 1800개 질환, 20만명의 환자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환자들을 교육한다. 기존의 다양한 의료정보 기록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각종 치료의 부작용, 효능, 용량, 중단 이유 등을 공유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최후의 치료방법을 찾거나 주요 임상시험 환자 모집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br/><br/>최 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헬스, 스마트 헬스, 소비자 헬스 등 헬스케어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회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혁신 기술이 이뤄지길 바란다. KT 역시 헬스케어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39.txt

제목: 유전자정보 분석했는데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면?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148  
본문: KT 최윤섭 팀장, 23AndMe 등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 발표<br/><br/>[쿠키 건강] 자신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했더니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왔지만 당장 뚜렷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을까?<br/><br/>스타트업 벤처 투자기업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최근 인사이트박스에 초대된 KT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 최윤섭 팀장은 ‘유전자에서 웨어러블까지’를 주제로 파괴적 의료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 정보,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공부하고 체험한 경험을 소개했다.<br/><br/>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 학문을 연구하고 시장 기회를 구상하는 최 팀장은 개인 유전자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미국의 ‘23AndMe’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봤다. DNA에 대해 알수록 자신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요 취지다.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질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br/><br/>23AndMe는 벌써 5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건강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중이다.<br/><br/>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자신의 정보와 검사키트를 보내야 하며, 6~8주 내에 결과 분석지가 택배로 온다. 가격은 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0만원 가량이다. 질병위험도 120개, 약에 대한 민감도 21개, 유전자 분석 등 질병위험 49개 등의 분석을 토대로 가장 높은 질병위험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br/><br/>최 팀장 본인은 심방세동, 제2형 당뇨병 등이 위험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주, 흡연을 멀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그로서는 막상 결과지를 보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br/><br/>그는 “음식, 흡연, 음주, 가족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고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유럽인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br/><br/>질병 발생에는 인종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한국인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질병 위험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이득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용소감을 밝혔다. 서비스 결과가 지금처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입수하게 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br/><br/>이에 앞서 그는 신뢰도 있는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연계된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br/><br/>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와 상담 서비스로 확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악세사리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인 얼라이브코(AliveCor)는 심장질환 위험도를 상담해준다. 24시간 이내에 전문의가 상담하면 12달러,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30분내에 상담하면 5달러, 24시간 내에 상담하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한 건강관리도 있다<br/><br/>디지털헬스케어에서는 ‘구글글래스’를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br/><br/>응급구조사가 즉각적인 상태를 파악하거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EMR(전자의무기록)에 음성녹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술 중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의견 교환도 가능하며, 생중계 녹화도 가능하다. EMR 기록에 무려 3분의 1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구축에도 유용할 것이란 기대가 많다.<br/><br/>또한 미국 Scanadu가 개발한 ‘스카우트(SCOUT)’는 광센서 기술을 사용해 관자놀이에 10초간 대고 있으면 체온·심박수·혈압·혈중산소농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선판매하고, 8500명의 참여를 통해 170만달러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도 역시 투자자로 지원하고, 결과 분석을 기다리는 중이다.<br/><br/>이 제품은 투자자들의 데이터 측정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료기기 인허가에 장벽이 많지만, 실제 사용과 임상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라고 제시했다.<br/><br/>이밖에 ‘PatientsLikeMe’는 환자커뮤니티 사이트로 1800개 질환, 20만명의 환자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환자들을 교육한다. 기존의 다양한 의료정보 기록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각종 치료의 부작용, 효능, 용량, 중단 이유 등을 공유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최후의 치료방법을 찾거나 주요 임상시험 환자 모집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br/><br/>최 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헬스, 스마트 헬스, 소비자 헬스 등 헬스케어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회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혁신 기술이 이뤄지길 바란다. KT 역시 헬스케어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0.txt

제목: 한국전기연구원, 서울대병원의 의료기기 상용화 나서  
날짜: 201404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034  
본문: [쿠키 건강]한국전기연구원(원장 김호용)과 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이 의료기기 상용화와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br/><br/>양 기관은 지난 25일 양 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개발기술과 임상 의료기술 간 상호연구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협력협정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해 처음으로 맺는 공식 협정이다. 그동안 한국전기연구원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의료기기 개발을 상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그 의미가 깊다.<br/><br/>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재료, 정보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의 교류 ▲의료기기 R&D 사업에 참여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연수 활동, 자문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과 운용 ▲의료기기 개발 시설 입주 등 대형 인프라의 확보와 지원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에 필요한 연구비, 사업비의 확보와 지원 등의 상호활용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br/><br/>오병희 원장은 “<span class='quot0'>핵심원천기술에서부터 첨단융합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의료기기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에 대해 김호용 KERI 원장은 “<span class='quot1'>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 연구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춘 서울대병원과 영상의료기기 원천기술, 상용화 노하우를 보유한 KERI의 적극적 기술협력은 미래 첨단 의료영상기기 기술개발을 국내 기술진이 선도하고 상용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한편, KE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물게 의료기기 분야 연구를 중점추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합작연구센터인 RSS센터와 첨단의료기기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광학영상의료기기, 영상유도 방사선의료기기, 전기에너지 암치료기기 등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1.txt

제목: 제일병원, 글로벌의료서비스 ‘여성병원·여성암센터’ 대상  
날짜: 201404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7100000035  
본문: [쿠키 건강] 제일의료재단(이사장 이재곤) 제일병원이 지난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메디컬 아시아 2014, 제7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에서 4년 연속 대학(종합)병원 여성병원 부문과 여성암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br/><br/>메디컬아시아 대상은 한·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이 대상은 전문가 조사, 온라인 조사, 병원 모니터링, 직간접 암행조사, 공동 자문위원 인증을 거쳐 분야별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과 전문센터에 수여한다.<br/><br/>제일병원은 여성질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진료시스템의 우수성은 물론,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 운영과 무료숙소제공, 공항픽업서비스 등 고객서비스 차별성을 인정받아 외국여성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병원으로 선정됐다.<br/><br/>또한 아시아 여성암치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암센터 역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특수 암만을 집중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하는 진료시스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br/><br/>제일병원 민응기 원장과 김태경 행정부원장은 “<span class='quot0'>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걸어 온 제일병원의 고집과 열정이 있었기에 글로벌 여성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여성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2.txt

제목: "노인 암환자, 이차암 검진 대상 선별 필요"  
날짜: 2014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6100000151  
본문: 국립암센터 암정복포럼서 김열 교수 주장<br/><br/>[쿠키 건강] 노인 암 생존자에서 이차암 검진의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평가를 통해 검진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br/><br/>제46회 암정복포럼에서 '노인 암 생존자를 위한 검진'의 강연을 맡은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사업부장)는 "모든 노인 암 환자가 이차암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기대여명과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검진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이는 언뜻 이차암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데, 바꿔 말하면 기대여명이 5년 이상이고 기능적 상태가 좋은 노인 환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차암 검진을 시행하라는 말이다.<br/><br/>노인 암환자에서 이차암 검진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인 환자의 경우 암 사망 위험과 검진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JAMA에 발표되면서 이슈가 됐다(JAMA 2001;285:2750-2756).<br/><br/>이후 국제 가이드라인에는 암종별로 검진 시 상한연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대장암이다.<br/><br/>대장내시경검사가 노인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는 2008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50~75세의 경우 대변잠혈검사, 결장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되(권고등급 A) 76~85세는 환자 개인의 위험인자를 고려해 판단하고(권고등급 C), 85세 이상에서는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권고등급 D).<br/><br/>비슷한 맥락으로 유방암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지 말 것을(권고등급 I), 자궁경부암은 65세 이상에서 검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권고등급 D).<br/><br/>한편, 김 교수는 "노인 암환자에서 단순한 생존기간의 연장보다 삶의 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동반 만성질환과 신체기능, 정신적 우울 및 영양상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3.txt

제목: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내달 1일 직장인 검진 실시  
날짜: 201404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6100000135  
본문: [쿠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원장 김태선)는 오는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평일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직장인과 자영상인 등을 위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처방 및 결과상담 등을 실시한다.<br/><br/>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2014년 들어 매월 셋번째 일요일에 평소에 시간을 내기 힘든 자영상인 및 근로자 등을 위한 일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다.<br/><br/>김태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건협 부산센터는 평일과 같은 이용시간으로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검진을 진행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근로자의 날에 평소에 손자를 돌보는 어버이들의 검진을 예약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현재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PET-CT, 1.5T 초전도MRI, 128CH-CT 및 HD급 내시경검사기 등 최신장비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검진에서는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등 각종 예방접종도 가능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4.txt

제목: 나이 50대에 신학생 된 쌍둥이 듀엣 ‘수와 진’ 의 동생 안상진 전도사  
날짜: 20140426  
기자: 강주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6100000048  
본문: “<span class='quot0'>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왜이렇게 삶이 꼬이냐고… 세번째 죽음이 닥치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span>”<br/>그만두고 싶은 현재의 삶을 ‘장례’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든 치를 이도 있을 것이다. 처음 ‘죽음’이 그의 집을 노크했을 때 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여겼다. 다시 죽음이 그를 방문했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나 한탄했다. 세 번째 죽음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br/>너를 쓰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Sign)이었다. 그는 살아났다. 네 번째 삶은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노래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주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할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후반 인기 그룹이었던 쌍둥이 듀엣 ‘수와진’의 동생 안상진(54) 전도사의 고백이다.<br/>‘A＋우등생’ 학점 4.46, 전 강의 녹취<br/>최근 안 전도사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백석신학원을 찾았다. 교정에는 봄꽃이 만발했다. “다음주는 중국에 선교 공연을 가고요, 그 다음주 화요일이 좋겠어요. 제가 수업 듣는 날 학교로 찾아오시겠어요? 수업과 수업 사이에 짬이 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제안했을 때 그가 한 말이다. 안 전도사를 따라 신학교 강의실로 들어갔다.<br/>정인찬 학장의 ‘실천신학’ 강의였다. 수업 5분 전 리더의 인도로 학생 50여명은 노래를 불렀다. “<span class='quot0'>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span>”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였다. 백석신학원에서는 수업 전 모두 찬송가를 부른다고 한다. 예배드리듯 수업에 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수업이 딱딱한 건 아니었다. 정 학장의 예화에 여러 차례 웃음이 새어나왔다.<br/>“목회자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양떼가 놀라지 않도록 인자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카우보이가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이런 건 받아 적지 마세요.”(웃음) 안 전도사는 수업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얼굴은 정 학장에게 거의 고정했다. 손은 노트 위를 바삐 오갔다. 필기를 했다.<br/>정 학장은 복도에서 안 전도사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칭찬했다. 그럴 만했다. 지난해 신학과 2학년까지 그의 평점은 4.5점 만점에 4.46점. 비결은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다. 수업 전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고 수업 중 강의를 모두 녹취한다. 수업 후 녹취록을 만들고 과목마다 강의록을 만든다. 안 전도사가 내민 필기 노트는 정자로 일목요연했다.<br/>“한번은 강의를 하신 교수님도 제게 강의록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공부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다 복사해서 나눠줘요. 집에서 대학생 자녀들이 저 공부하는 거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하, 하!”<br/>그는 6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차례 학교에 나온다. 수업이 있는 날은 집에 돌아가면 새벽 1∼2시까지 녹취를 풀고 강의록을 정리한다. 13시간 연속으로 책상에 앉아있었던 적도 있다.<br/>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었다. “<span class='quot0'>뒤늦게 시작한 공부인데 열심히 해야죠.</span>” 한 강의가 끝난 뒤 그는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차에서 도시락을 꺼내왔다. 그건 도시락이 아니라 ‘보따리’처럼 보였다. 나는 안 전도사를 뒤쫓아 갔다. 그는 연구동 지하에 있는 학생회실 가운데 탁자 위에 연두색 가방을 풀었다.<br/> 죽을 고비 세 번, 네 번째 삶은 ‘신학’<br/>가방에서는 큼지막한 통이 여러 개 나왔다. 따뜻한 잡곡밥이 가득 든 플라스틱 반합, 밥 위에는 계란 프라이가 여러 개 올려져 있었다. 된장 시래깃국이 든 2ℓ 보온병, 국에서 김이 났다.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양념한 두부조림, 달콤한 멸치어묵볶음, 볶음 김치가 든 찬합. 민선용 학생회장이 가져온 파김치까지 식탁에 올려졌다. 집에서 차린 것 같은 상이었다.<br/>“처음에는 점심을 사먹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점심을 굶는 학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내에게 부탁해서 4∼5인분의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먹어요.”<br/>기자까지 6명이 안 전도사의 아내 조우진(48)씨가 싸준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음식이 넉넉하지 않는데도 서로 “계란 드세요” “파김치 맛있어요”라며 권했다. 식사 중 민 회장은 “<span class='quot1'>졸업여행을 준비해야 하는데 협조가 잘 될지 걱정</span>”이라고 했다. 안 전도사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없냐”고 물었다.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타 마셨다. 후식까지 먹었다.<br/>여러 사람의 도시락을 싸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크리스천이라면 어딜 가든지 함께 나눠 먹고 마셔야지요.” 그는 별 것 아니라는 듯 빙긋 웃었다.<br/>수업 시작 전 그는 학우들에게 화장품과 약을 나눠줬다. “지난주 중국 갔다 오면서 사온 거야. 화장품은 누구든지 예쁘게 해주는 거고 약은 보신용이야.” 친구들은 “중국에서 산 걸 믿을 수 있냐”며 핀잔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강의 노트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먹고 선물도 나눠주는 ‘과 동기’에게 익숙한 분위기였다.<br/>1987년 ‘새벽 아침’으로 데뷔한 수와진. ‘파초’ ‘바람 부는 거리’ ‘이별이란’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89년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안 전도사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10여년 동안 3차례 뇌수술을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식당 운영으로 재기할 무렵인 2000년 다시 간경변에 걸렸다 겨우 나았다. 2008년 형과 5집 ‘사랑해야 해’를 내 재기했지만 2011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br/>“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늦게 순종한 거예요. 세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이 제게 보낸 ‘사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폐종양이 없어졌다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세 번 살려주셨으니 이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신학 공부를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듬해 백석신학원에 입학했다. 고교 졸업 후 33년 만의 공부였다.<br/> 종은 주님 뜻대로, 교회 개척<br/>수업 사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진리동 옥상 하늘정원에서 대화를 나눴다. 정원으로 가면서 안 전도사는 “다음 수업 시간에 찬양 인도를 제가 해요. 늦으면 안 돼요”라고 했다. 그는 학교 자랑을 했다. “수업 전에 찬양 부르는 신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교수진도 정말 훌륭해요.”<br/>수와진은 활동 초기부터 아픈 아이들을 도왔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공연을 하고 거리에서 모금을 했다. “<span class='quot0'>수술 받기 전 입술이 새파랗던 아이가 심장병 수술 후 뛰어다니는 걸 보면 수술비 모금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어요.</span>” 수와진은 ‘거리 공연’을 통한 모금을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800여명이 심장병 수술을 받도록 도왔다.<br/>어린이들을 돕다 병원에 ‘빚’을 진 적도 있다. “심장병 수술이 시급하니까 우선 수술부터 받게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병원에 내야 할 수술비가 무려 2억원이 넘은 적도 있어요.” 수와진은 지금도 거리 공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형 안상수씨와 함께 사단법인 ‘수와진의 사랑더하기’도 세웠다.<br/>왜 하나님이 세 번이나 생명의 위기를 준 것 같으냐고 물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때려도 제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뭘.(미소) 연예인 생활하다 보면 유혹에 많이 빠져요.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때가 많았어요. 식당 운영할 때도 그랬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니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는 욥의 말이 떠오르는 얘기였다.<br/>“폐암 진단 후 눈물 흘리면서 ‘살려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수술대에 올랐어요. 병원에서 개복했는데 암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의사가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놀랐죠.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희 어머니까지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폐암’이라는 위기는 그에게 큰 선물로 돌아왔다.<br/>그는 내년쯤 경기도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다. “목회를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노래에 신학까지 시키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부르시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든.”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안 전도사는 “학우들이 기다린다”며 바삐 강의실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파초의 노랫말이 생각났다.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사는.’<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5.txt

제목: [사막의 영성] 침묵 속의 인내  
날짜: 2014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6100000025  
본문: ‘수도사들의 아버지’ 안토니 앞에서 제자들은 한 수도사를 칭찬했다. 한번은 그 수도사가 안토니를 만나러 왔다. 안토니는 그를 일부러 무시하면서, 모욕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전혀 모욕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토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span class='quot0'>그대는 밖은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안에는 강도들이 들끓는 마을과 같습니다.</span>” 안토니는 수도사가 어디까지 성숙했는가를 보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인내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br/>수도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의 경험이며 실천이었다. 제대로 된 영성 훈련은 인내를 키웠다. 페르메의 원로 테오돌은 수도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제자에게 “그대는 왜 수도사가 되었는가? 시련을 인내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원로 앤드류는 수도사에게 합당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을 때, 외적으로는 가난과 세상에서의 물러남이며 내면의 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br/> 오늘 하루를 참아보자<br/>4세기 사막 수도사들은 자발적인 가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메마른 사막에서 살다 보니 살기가 어려워 자신의 수도원을 떠나 이주할 생각을 자주 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수도원도 많았으니 쉽게 이사할 수 있었다.<br/>떠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몇 명의 수도사들이 있었다. 여기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결정하고 원로 암모나스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암모나스는 그것이 환경적인 괴로움 때문에 생겨난 것을 알고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후에 원래 살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br/>암모나스는 그들이 어렵지만 더 인내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원로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법이지만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인내하고 살았을까? 그 방법은 다음 일화 속에 나타난다.<br/>한 수도사는 9년 동안 수도원을 떠나고 싶은 유혹과 싸웠다. 매일 아침 그는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는 “<span class='quot0'>주님을 위해서 오늘 저녁까지 참아보자</span>”고 말했다.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내일 아침에 이곳을 떠나야지”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이 일을 9년 동안 반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 유혹이 물러나게 하셨고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br/>위와 비슷한 내용의 다음 일화는 이 유혹과 싸우는 방법이 사막에서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수도사 에나톤의 테오돌과 루시우스는 떠나고 싶은 생각에 늘 시달렸는데 추운 계절에는 “이 겨울이 지나면 떠나겠다”고 말하고, 여름이 오면 “이 여름이 지나면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50년을 싸우면서 한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다.<br/>원로 수도사들은 제자들에게 이 교부들의 일화를 항상 기억하라고 가르쳤다. 사막 교부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내심이 없음을 파악하고 인내할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았다. 한 계절만,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고 스스로 타일렀다. 이 인내 훈련이 없었다면 수도원운동은 생명력이 길지 못했을 것이다.<br/>우리는 수도원에 가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 직장 등 모든 환경에서 인내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것을 배웠다면 어려운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인내하지 못하고 결별하고, 다니던 교회도 직장도 쉽게 떠난다. 갈등이 생기면 떠나는 것으로 해결한다.<br/> 침묵 속에서 인내해야 할 때<br/>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은 별로 비중 있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거듭 강조한다. “<span class='quot0'>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span>”(히 10:36) “<span class='quot0'>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span>”(계 14:12) 주님께서는 “<span class='quot0'>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span>”(눅 21:19)고 말씀하셨다. 종말에 우리 목숨을 구하는 것은 인내이다(마 10:22).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약 1:3∼4)고 명령하셨고 우리 인내의 수준이 완전하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에 같은 인격을 원하신다(롬 9:22, 벧전 3:15). 인내는 주님을 닮은 확실한 증거다.<br/>이토록 인내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인내를 실천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낸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선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지상의 것을 참음으로 천상의 것을, 일시적인 것을 견디어서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견뎌야 한다. 슬픔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이때야말로 침묵 속에 인내해야 할 때다.<br/>김진하 <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6.txt

제목: 폐암 치료에 'LDK378(세리티닙)' 희소식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5100000202  
본문: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실패한 환자서 반응률 58%<br/><br/>[쿠키 건강] 폐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 LDK378(성분명 세리티닙)이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실패한 환자가 포함된 환자군에서 58%의 반응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의학전문지 NEJM에 게재됐다.<br/><br/>이번 임상연구는 흔히 처방되고 있는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또는 받은 후에 암이 진행한 환자와 과거에 ALK 억제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가 포함된 114명의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br/><br/>연구 결과에서 1일 400mg에서 최대 750mg 용량으로 치료받은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은 7개월로(95% 신뢰구간: 5.6-9.5개월) 나타났다.<br/><br/>이 밖에도 일일 750mg의 LDK378을 복용한 환자에서 전체반응률은 59%로,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를 비롯해 ALK 유전자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진행성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도 매우 높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br/><br/>이번 연구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82%), 설사(75%), 구토(65%), 피로감(47%), ALT(alanineaminotransferase) 수치 상승(35%)이었다.<br/><br/>이번에 게재된 초기연구결과는 2013년 미국임상종약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br/><br/>임상 총괄 책임 연구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 암센터의 Alice T. Shaw 박사는 "연구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LDK378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경험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 크리조티닙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의 치료되지 않은 병변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들이 크리조티닙 치료를 시작하고 1년 이내 재발될 경우 치료 옵션이 없던 상태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br/><br/>노바티스 측은 이번 연구 결과를 미국FDA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br/><br/>한편 FDA는 LDK378을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바 있다. 획기적 치료제는 최소한 1개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평가변수에 있어 기존 치료제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7.txt

제목: 나이 50대에 신학생 된 쌍둥이 듀엣 ‘수와 진’ 의 동생 안상진 전도사  
날짜: 20140425  
기자: 강주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5100000305  
본문: “<span class='quot0'>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왜이렇게 삶이 꼬이냐고… 세번째 죽음이 닥치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span>”<br/><br/>그만두고 싶은 현재의 삶을 ‘장례’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든 치를 이도 있을 것이다. 처음 ‘죽음’이 그의 집을 노크했을 때 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여겼다. 다시 죽음이 그를 방문했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나 한탄했다. 세 번째 죽음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br/><br/>너를 쓰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Sign)이었다. 그는 살아났다. 네 번째 삶은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노래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주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할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후반 인기 그룹이었던 쌍둥이 듀엣 ‘수와진’의 동생 안상진(54) 전도사의 고백이다.<br/><br/>‘A＋우등생’ 학점 4.46, 전 강의 녹취<br/><br/>최근 안 전도사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백석신학원을 찾았다. 교정에는 봄꽃이 만발했다. “다음주는 중국에 선교 공연을 가고요, 그 다음주 화요일이 좋겠어요. 제가 수업 듣는 날 학교로 찾아오시겠어요? 수업과 수업 사이에 짬이 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제안했을 때 그가 한 말이다. 안 전도사를 따라 신학교 강의실로 들어갔다.<br/><br/>정인찬 학장의 ‘실천신학’ 강의였다. 수업 5분 전 리더의 인도로 학생 50여명은 노래를 불렀다. “<span class='quot0'>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span>”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였다. 백석신학원에서는 수업 전 모두 찬송가를 부른다고 한다. 예배드리듯 수업에 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수업이 딱딱한 건 아니었다. 정 학장의 예화에 여러 차례 웃음이 새어나왔다.<br/><br/>“목회자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양떼가 놀라지 않도록 인자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카우보이가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이런 건 받아 적지 마세요.”(웃음) 안 전도사는 수업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얼굴은 정 학장에게 거의 고정했다. 손은 노트 위를 바삐 오갔다. 필기를 했다.<br/><br/>정 학장은 복도에서 안 전도사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칭찬했다. 그럴 만했다. 지난해 신학과 2학년까지 그의 평점은 4.5점 만점에 4.46점. 비결은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다. 수업 전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고 수업 중 강의를 모두 녹취한다. 수업 후 녹취록을 만들고 과목마다 강의록을 만든다. 안 전도사가 내민 필기 노트는 정자로 일목요연했다.<br/><br/>“한번은 강의를 하신 교수님도 제게 강의록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공부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다 복사해서 나눠줘요. 집에서 대학생 자녀들이 저 공부하는 거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하, 하!”<br/><br/>그는 6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차례 학교에 나온다. 수업이 있는 날은 집에 돌아가면 새벽 1∼2시까지 녹취를 풀고 강의록을 정리한다. 13시간 연속으로 책상에 앉아있었던 적도 있다.<br/><br/>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었다. “<span class='quot0'>뒤늦게 시작한 공부인데 열심히 해야죠.</span>” 한 강의가 끝난 뒤 그는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차에서 도시락을 꺼내왔다. 그건 도시락이 아니라 ‘보따리’처럼 보였다. 나는 안 전도사를 뒤쫓아 갔다. 그는 연구동 지하에 있는 학생회실 가운데 탁자 위에 연두색 가방을 풀었다.<br/><br/> 죽을 고비 세 번, 네 번째 삶은 ‘신학’<br/><br/>가방에서는 큼지막한 통이 여러 개 나왔다. 따뜻한 잡곡밥이 가득 든 플라스틱 반합, 밥 위에는 계란 프라이가 여러 개 올려져 있었다. 된장 시래깃국이 든 2ℓ 보온병, 국에서 김이 났다.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양념한 두부조림, 달콤한 멸치어묵볶음, 볶음 김치가 든 찬합. 민선용 학생회장이 가져온 파김치까지 식탁에 올려졌다. 집에서 차린 것 같은 상이었다.<br/><br/>“처음에는 점심을 사먹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점심을 굶는 학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내에게 부탁해서 4∼5인분의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먹어요.”<br/><br/>기자까지 6명이 안 전도사의 아내 조우진(48)씨가 싸준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음식이 넉넉하지 않는데도 서로 “계란 드세요” “파김치 맛있어요”라며 권했다. 식사 중 민 회장은 “<span class='quot1'>졸업여행을 준비해야 하는데 협조가 잘 될지 걱정</span>”이라고 했다. 안 전도사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없냐”고 물었다.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타 마셨다. 후식까지 먹었다.<br/><br/>여러 사람의 도시락을 싸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크리스천이라면 어딜 가든지 함께 나눠 먹고 마셔야지요.” 그는 별 것 아니라는 듯 빙긋 웃었다.<br/><br/>수업 시작 전 그는 학우들에게 화장품과 약을 나눠줬다. “지난주 중국 갔다 오면서 사온 거야. 화장품은 누구든지 예쁘게 해주는 거고 약은 보신용이야.” 친구들은 “중국에서 산 걸 믿을 수 있냐”며 핀잔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강의 노트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먹고 선물도 나눠주는 ‘과 동기’에게 익숙한 분위기였다.<br/><br/>1987년 ‘새벽 아침’으로 데뷔한 수와진. ‘파초’ ‘바람 부는 거리’ ‘이별이란’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89년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안 전도사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10여년 동안 3차례 뇌수술을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식당 운영으로 재기할 무렵인 2000년 다시 간경변에 걸렸다 겨우 나았다. 2008년 형과 5집 ‘사랑해야 해’를 내 재기했지만 2011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br/><br/>“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늦게 순종한 거예요. 세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이 제게 보낸 ‘사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폐종양이 없어졌다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세 번 살려주셨으니 이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신학 공부를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듬해 백석신학원에 입학했다. 고교 졸업 후 33년 만의 공부였다.<br/><br/> 종은 주님 뜻대로, 교회 개척<br/><br/>수업 사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진리동 옥상 하늘정원에서 대화를 나눴다. 정원으로 가면서 안 전도사는 “다음 수업 시간에 찬양 인도를 제가 해요. 늦으면 안 돼요”라고 했다. 그는 학교 자랑을 했다. “수업 전에 찬양 부르는 신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교수진도 정말 훌륭해요.”<br/><br/>수와진은 활동 초기부터 아픈 아이들을 도왔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공연을 하고 거리에서 모금을 했다. “<span class='quot0'>수술 받기 전 입술이 새파랗던 아이가 심장병 수술 후 뛰어다니는 걸 보면 수술비 모금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어요.</span>” 수와진은 ‘거리 공연’을 통한 모금을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800여명이 심장병 수술을 받도록 도왔다.<br/><br/>어린이들을 돕다 병원에 ‘빚’을 진 적도 있다. “심장병 수술이 시급하니까 우선 수술부터 받게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병원에 내야 할 수술비가 무려 2억원이 넘은 적도 있어요.” 수와진은 지금도 거리 공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형 안상수씨와 함께 사단법인 ‘수와진의 사랑더하기’도 세웠다.<br/><br/>왜 하나님이 세 번이나 생명의 위기를 준 것 같으냐고 물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때려도 제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뭘.(미소) 연예인 생활하다 보면 유혹에 많이 빠져요.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때가 많았어요. 식당 운영할 때도 그랬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니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는 욥의 말이 떠오르는 얘기였다.<br/><br/>“폐암 진단 후 눈물 흘리면서 ‘살려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수술대에 올랐어요. 병원에서 개복했는데 암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의사가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놀랐죠.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희 어머니까지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폐암’이라는 위기는 그에게 큰 선물로 돌아왔다.<br/><br/>그는 내년쯤 경기도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다. “목회를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노래에 신학까지 시키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부르시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든.”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안 전도사는 “학우들이 기다린다”며 바삐 강의실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파초의 노랫말이 생각났다.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사는.’<br/><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8.txt

제목: “황토가 좋아” 어느 장소건 황토방 쉽게 설치, 건강 챙길 수 있다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5100000064  
본문: ‘생황토힐링판재’ 개발·생산 나라산업㈜ 대표 김정남 장로<br/>“황토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동안 황토를 반죽해 시공하느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보다 더 효과가 좋은 황토 마감판재가 출시돼 가정이나 사무실은 물론 찜질방 설치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br/>나라산업㈜ 대표인 김정남(66) 인천 하늘문교회 장로는 “100% 친환경제품인 생황토힐링판재(생황토실내마감재)를 국내 단독 특허제품으로 개발·생산하게 되었다”며 “이것으로 우리가 주거하는 아파트, 주택, 유치원,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아토피치유센터, 공부방, 체험실. 기도실 등에 손쉽게 생황토방을 시공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br/>건물 내부의 벽체, 바닥재, 천장 등에 힐링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하며 시공방법도 쉽다. 석고보드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말끔하게 시설되는 장점이 있다. 즉 대중적으로 황토방의 효능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특별하다.<br/>7남매 중 장남으로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으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김 장로는 건축 및 건설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지난해 생황토힐링판재를 대중적으로 선보이고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br/>“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업이고 수익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앞으로 전망이 밝은 만큼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br/>김 장로가 밝히는 황토의 기능을 들어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황토 한 스푼에는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다양한 효소들이 순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황토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 왔다.<br/>황토의 효소성분은 소독제거, 분해력, 비료요소, 정화작용의 역할을 한다. 황토의 효능은 더 놀랍다. 혈액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며 관절염, 근육통, 요통에 좋고 체내노폐물을 분해한다고 한다. 아토피 등 염증을 제거하며 비세포(암) 억제 및 마음을 진정시켜 심신을 튼튼하게 한다. 황토방에서 자고 나면 상쾌하고 활력이 생긴다. 황토의 체감온도파장은 부드럽고 상쾌해서 자녀들 성격 형성에 좋으며 공부하는 수험생의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br/>“<span class='quot0'>황토를 가까이하면 유익한 원적외선이 인체에 방사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 화상에 대한 효과는 물론 원적외선과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체내의 유해물질을 방출시키며 사계절 쾌척한 온도를 유지하고 집 냄새를 없애줍니다.</span>”<br/>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본초강목 토부(土部)에서 흙을 61종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약성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약성이 강한 흙은 황토라고 전해지며 실로 옛 왕가에서는 왕자들이 피로할 때 쉴 수 있도록 3평 정도의 황토방을 만들어 사용했다고도 한다.<br/>생황토힐링판재란 국내 최고품 생황토 90%와 유기농볏짚, 천매암광물을 주원료로 숙성 혼합해 판재 형태로 만든 것이다. 효과는 습도조절, 원적외선 방사율, 포름알데히드 탈취, 라돈가스 차단, 실내공기정화탈취, 방음, 축열(단열)과 집 진드기 서식 불능으로 아토피 치료에 탁월하며, 습할 때 습기를 흡수했다 건조할 때 발산하는 효과로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br/>“생 황토 힐링판재 속에 인체에 유익한 더 좋은 광물이나 한약재를 넣어서 주문생산도 가능합니다. 특히 교회공간에 생황토방을 꾸며 지역주민들의 힐링 치유센터로 이용하길 권해드립니다.”<br/>김 장로는 교회가 생황토 힐링체험실을 운영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실내를 생황토힐링판재로 설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달라고 권했다.<br/>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자(지사)를 모집한다는 김 장로는 이 황토판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나라산업주식회사 홈페이지(naraindustry.com·네이버 검색창에 나라산업 검색)나 전화(02-2062-7878, 010-8280-7272, FAX 02-2062-7676 / 실무담당 김도훈이사 010-7204-4170)를 이용해도 된다.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이다. 이메일 문의는 nara7876@naver.com으로 하면 된다.<br/>김 장로는 현재 나눔실천국민운동본부선교회 총재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 기관은 본부 산하에 사업국을 운영, 전국 및 해외에 지부를 두고 협력단체들의 후원과 기부를 받아 선한 선교사역과 나눔운동에 사용하고 있다.<br/>특히 어려운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교회 성도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하는 이 자원봉사단체는 크리스천과 교역자들로 구성돼 복음을 우선적으로 펼치는 선교단체다.<br/>“<span class='quot0'>뜻을 같이하고 싶은 교회나 개인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원합니다.</span>”<br/>이 단체 총재를 맡고 있는 김 장로는 이 선교회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교회행사와 바자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신청하시는 교회에는 좋은 기증 물품 및 선교용품을 생산원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나눔실천국민운동본부 선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3 에쉐르 빌딩 501호에 있으며 연락처는 02-2166-6622, 010-8280-7272(이메일:nara7876@naver.com)이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49.txt

제목: 톱밥·깻묵 '암 치료제' 13년간 판 7명 적발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326  
본문: [쿠키 사회] 톱밥과 깻묵을 ‘암치료 특효약’이라고 속여 13년간 암 환자들에게 32억원어치나 판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br/>부산 금정경찰서(서장 양두환)는 24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62)씨를 구속하고 허모(56)씨 등 도매상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br/>김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동작구 모 식품 제조업체에서 미루나무 톱밥과 깻묵을 중탕기에 넣어 달인 물로 ‘융합균액HZ’라는 음료를 만든 뒤 ‘영지버섯이 융합돼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32억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br/>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지식인 검색을 통해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효과가 탁월하다. 암세포 수치가 낮아졌다”는 등의 가짜 사용 후기를 올려 암 환자들에게 팔았다.<br/>김씨 등은 이 액체를 암환자에게는 ℓ당 22만원, 도매상들에게는 3만5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이 13년간 판매한 양은 1ℓ짜리 1만여 병으로 추정된다.<br/>특히 이 액체는 부산 등의 대리점과 온라인 블로그, 다단계회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났고 일부 약국에서도 버젓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br/>김씨는 그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창고를 이중으로 만들어, 밖에서 제조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br/>이들은 2000년 인천의 한 업체에서 톱밥과 깻묵 9t을 사 지하창고에 쌓아두고 주문을 받을 때마다 중탕해 판매했고 톱밥 등에서 납과 크롬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br/>이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제품을 산 암 환자들은 대부분 냄새가 역겨워 몇 차례 먹다가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br/>경찰은 관할 기초단체에 통보, 문제의 업체를 폐쇄하고 톱밥 등 원재료 7.5t을 폐기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다.<br/>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0.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244  
본문: [쿠키 건강]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 일바검진과 국가 암 검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br/><br/>이와 관련 이대목동병원은 24일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을 갖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 국가 암 검진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br/><br/>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남부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데 따른 것이다.<br/><br/>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올해부터는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된다.<br/><br/>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은 김현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전문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순음청력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통합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했다.<br/><br/>이대목동병원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공공 분야 및 보건, 사회복지업, 건물관리업 종사자를 주된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 경비, 주차,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가 많은 야간작업 수행 직종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동시에 제공한다.<br/><br/>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수검진과 국가검진을 연계해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1.txt

제목: [역경의 열매] 임영서 (9) 암·당뇨·아토피에 좋은 특화된 죽을 개발하자!  
날짜: 2014042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103  
본문: 나는 창업컨설팅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익힌 판단과 기준은 그 어느 것도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br/>특히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에겐 운영에 따른 지혜와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죽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어 보니 관련 모회사가 30여개나 되어 경쟁이 아주 극심했다. 이 서바이벌 환경에서 특화된 죽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br/>“현재는 영양죽과 맛죽 일색이지만 심장에 좋은 죽, 암 환자에게 좋은 죽, 당뇨에 좋은 죽, 아토피에 좋은 죽 등 특화된 죽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br/>나는 가맹점 계약을 맺어 수입이 생기면 이를 모두 연구개발비에 투자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특화된 죽은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적절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이 결과로 죽업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면역력 증강을 위한 암 식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약선죽 시리즈를 내놓게 되었다.<br/>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라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연구하고 비싼 재료를 들여 힘들게 죽을 만들었지만 결국 비싸게 팔 수 없었다. 더구나 판매량도 미진해 오히려 손해였다. 그러나 웰빙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이 제품들이 충분한 평가와 각광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여전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br/>가맹점 수가 300개를 돌파하자 이제야 내가 어깨를 펴고 쉼 호흡을 크게 할 수 있었다. 고객들에게도 맛과 서비스에서 호평을 받아 이른바 죽집 프랜차이즈 메이저 그룹에 속할 수 있었다.<br/>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구해 응답받은 것을 어느 순간 너무나 빠르게 까먹어 버린다는 사실이다.<br/>사업이 자리를 잡고 직원들을 점점 늘여가던 무렵이었다. 가까운 어른이 돌아가셔서 양평 고향에 문상을 갔다가 우연히 노름판에 끼게 되었다. 승부욕이 강한 편인 나는 원래 노름은 안했다. 그런데 이날은 발동이 걸려 100만원 정도를 땄다. 첫날은 모두 돌려주었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다. 둘째날도 판에 끼어 또 돈을 따고 술도 한두잔 마시게 됐다.<br/>늘 주님의 손만 잡고 살아가라는 어머니의 기도와 당부를 받은 나였다.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일본과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이제 사업이 안정됐다고 긴장의 끈을 풀어버린 것이다. 한번 터진 봇물은 겉잡을 수 없었다.<br/>서울 컨설턴트들의 모임에서 동료들이 술 안마시는 나를 ‘샌님’이라고 놀려댔다. 나는 이날 호기롭게 ‘내가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는 것’이라며 오늘은 그 증거를 보이겠다고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br/>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두 번 다시 노름과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강한 처방을 내리셨다. 내가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상대에게 한 대 얻어맞은 나는 쓰러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버린 것이다. 뇌출혈을 일으킨 나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br/>병원에 온 아내와 딸에게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잊고 행동한 것에 절절히 후회를 했다. 퇴원하는 길에 신학교 은사셨던 송덕준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다. 이 분을 통한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었다.<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2.txt

제목: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5월부터 급여적용 확대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185  
본문: [쿠키 건강] 대장·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br/><br/>‘장루’는 대장·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이며, ‘요루’는 방광/요도 등의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한다.<br/><br/>정부는 5월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 복부에 인공개구를 설치한 환자의 오물을 받아내기 위한 피부 부착판과 주머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내부출혈, 종양 또는 혈관병변 등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코일)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br/><br/>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br/><br/>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br/><br/>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br/><br/>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br/><br/>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 시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br/><br/>한편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5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br/><br/>또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전했다.<br/><br/>정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3.txt

제목: “홍삼 항염증 작용, 분자적 기전 입증”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261  
본문: [쿠키 건강] 홍삼이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계통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홍삼의 항염증 작용에 대한 분자적 기전이 최초로 밝혀졌다.<br/><br/>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조재열 교수 연구팀은 24일 '홍삼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연구'를 통해 면역반응이 과발현돼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날 경우 홍삼추출물이 어떤 기전으로 염증반응을 개선시키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했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염증지표인 산화질소의 생성과 염증유전자들의 발현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점과 이러한 작용이 염증분자마커인 ATF-2, CREB 및 IRF-3의 활성 저해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염증 예방 및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염증반응은 세포 및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에 대한 국부적인 또는 전신적인 방어기작으로 주로 면역계를 이루는 체액성 매개체가 직접 반응하거나, 국부적 또는 전신적 작동 시스템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연쇄적인 생체반응에 의해 유발된다.<br/><br/>그러나 염증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될 경우 위염, 염증성 장염 등의 소화기질환,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그리고 세균성 폐렴, 기관지 폐렴, 대엽성 폐렴, 레지오렐라 폐렴 및 바이러스성 폐렴 등과 같은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들 염증반응이 장기적으로 과발현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하여 심장질환, 각종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평균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홍삼의 꾸준한 섭취는 부작용 우려 없이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span>”고 전했다.<br/><br/>이 연구 결과는 국제 SCI급 대체의학 저널 중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4년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4.txt

제목: 건보공단이 건보료로 임직원 사보험비 지원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283  
본문: 전의총, 건보공단·심평원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br/><br/>[쿠키 건강]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24일 감사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국민들의 질병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쓰여 져야 할 돈인 건강보험료로 임직원을 위한 사보험에 단체 가입을 해왔다는 이유다.<br/><br/><br/><br/>전의총이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항목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과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보험 가입 지원 항목에 암 등 중증 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이 급증한 것과 2014년에는 직원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게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br/><br/>또 건강보험재정을 자기 직원들 사보험 단체 가입에 쓴다는 것이 과연 공무원 및 공기업 윤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도 감사를 요청했다.<br/><br/>전의총은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한 건강보험료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자세의 결여이자 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스스로가 자기 기관 임직원들과 일반 국민들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이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5.txt

제목: 노바셀테크놀로지, 뇌종양 유발 새로운 원인물질 규명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191  
본문: [쿠키 건강] 동반진단 맞춤형 치료제 개발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국립암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악성 신경교종(Glioma)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br/><br/>악성 신경교종은 흔한 뇌종양 중 하나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악성 신경교종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저산소증 증상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악성 신경교종은 공격성이 높고 종양환경 형성을 위한 혈관신생 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br/><br/>뇌종양의 5년 생존율은 65% 이상이지만 악성으로 알려진 신경교종은 38%,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은 7%에 불과하다. 또 수술로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 재발 위험이 높고,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실시해도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br/><br/>노바셀테크놀로지는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이용해 악성 신경교종 세포의 저산소증 특이 분비단백질체 분석연구를 통해 NCB301, NCB302를 새로운 악성 신경교종 바이오마커로 발굴했다. 또 전사체를 이용한 생물정보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악성 신경교종환자에서도 과발현돼 있음을 확인했다. 기능 및 기전연구를 통해 NCB301, NCB302가 악성 신경 교종세포의 이동성을 직접 조절하는 것을 규명해 표적치료제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br/><br/>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span class='quot0'>NCB301, NCB302는 바이오마커 및 표적치료제가 부재했던 악성 신경교종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6.txt

제목: 고난도 간문부담도암 치료 및 생존율 2배 이상 높아졌다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268  
본문: [쿠키 생활] 수술을 못하는 진행성 ‘간문부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광역학요법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새 치료법의 등장으로 배이상 길어지게 됐다.<br/>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도현 교수(사진)팀은 레이저광선으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광역학 치료에 항암치료를 더하는 방법으로 진행성 간문부담도암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을 1년 5개월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br/>박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간문부담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광역학 치료’만 실시한 환자군과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의 생존 기간을 추적 관찰하며 비교했다. 그 결과 두 치료법 병행 환자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17개월로, ‘광역학 치료’ 단독 실시 환자군의 8개월에 비해 배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br/>또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 병행 환자군의 1년 생존율은 76.2%에 이른 반면, 기존 광역학 치료만 받은 환자군의 1년 생존율은 32%에 불과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담도의 상부에 생기는 간문부담도암은 수술을 받아야 완치되지만, 진행성의 경우에는 간문맥이나 동맥 등 주위 혈관으로 암이 침범해 수술로 절제할 수가 없어 1년 이상 생존율이 낮았다.<br/>연구결과는 유럽암학회 공식 학술지 ‘유로피안 저널 오브 캔서(European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게재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7.txt

제목: 원초적 본능 ‘샤론 스톤’도 피할 수 없었던 ‘뇌졸중’… 증상 가볍든 중하든 무조건 병원으로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278  
본문: [쿠키 건강] 90년대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미국 연예매체 내셔널인콰이어러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샤론 스톤이 이달초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다”라고 보도했다.<br/><br/>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브라질을 방문했던 샤론 스톤이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신속한 대처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그녀가 과거 뇌출혈로 생사를 오간 적이 있으며 뇌출혈 이후 잦은 두통에 시달려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함께 알려지면서 뇌졸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br/><br/>비단 샤론 스톤 같은 유명 배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5500만명 중 뇌졸중 사망자가 620만명으로 심혈관질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사망원인 분석 결과 암에 이어 뇌혈관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br/><br/>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질병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미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 다다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예방되어야 할 질병인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뇌졸중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br/><br/>뇌졸중은 크게 뇌 속의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뇌출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불리는 것은 뇌의 일부분에 일시적인 혈액공급의 중단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대개 24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혹은 극히 미약한 증상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들 간과하기 쉬우나, 반복적인 일과성 뇌 허혈증이 나타난 후 뇌졸중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빈도는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의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작이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해 뇌졸중의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br/><br/>흔히들 뇌졸중에 대해 예방이 되지 않고 치료가 힘들며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 오히려 뇌졸중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뇌졸중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치료만 이루어지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질병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br/><br/>일반적으로 한쪽 팔이나 다리, 얼굴에 갑자기 힘이 없다거나 저리고 감각이 무뎌질 때, 발음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질 때, 어지럼증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구토증상이 심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갑자기 기절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br/><br/>뇌졸중의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신속한 치료가 후유증을 적게 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뇌세포는 다른 조직과 달리 출생 시 이미 분화가 끝난 상태로 한번 손상되면 다시 소생하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 손상은 빨리 진행된다. 통상 6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열어 주지 않으면 소생시킬 수 없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혈압조절, 뇌압조절, 기도유지 등을 실시하고 혈전 용해제 치료를 시행해야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뇌경색은 한번 생기면, 곧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치료과정이 중요하다.<br/><br/>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이 발생된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 비만의 조절하고 염분 섭취 제한하고 야채와 채소의 섭취를 많이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1년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치료에 적극 임해야 하며 경동맥 질환이 심하면 경동맥 수술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과도한 음주, 감염, 스트레스 등을 피해야 한다.<br/><br/>일단 뇌졸중이 한번 발생해서 완전히 회복되거나 일부 후유증을 남기고 안정됐을 때는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치료하며 항 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br/><br/>온 종합병원 뇌신경수술센터 이동열 원장은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증상이 가볍든 중하든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와야 한다. 증상이 가벼우니까 한잠 자고 나면 낫겠지 하며 기다리거나, 민간요법 등에 초기 치료의 중요한 시간을 놓쳐 증세가 나빠지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뇌졸중은 그 치료가 어렵고 뇌수술 후에도 뇌졸중 경련처럼 흔히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뇌졸중에 안 걸리도록 평소 예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8.txt

제목: 조인메디칼, 유방 자가검진기 ‘브레스트스캔’ 국내 출시  
날짜: 201404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185  
본문: [쿠키 건강] 의료기기 수입업체 조인메디칼(대표 변박연)은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가정용 유방자가검진라이트 ‘브레스트스캔(Breast-Scan)’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br/><br/>이탈리아 브레메드(BREMED)사 제품인 ‘브레스트스캔’은 기존의 주관적인 촉진검사 방법과는 달리 가슴 조직 세포를 투과하는 강력한 적색 LED를 통해 유방조직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다.<br/><br/>620~640nm 특수파장의 적색 LED 빛을 유방 아래에 밀착해 위로 비추면 반대편에 투과돼 유방암이 주로 발생하는 혈관부위나 유관부위의 악성종양 등과 유방조직의 울혈, 멍울, 양성종양(물혹) 등으로 인해 검게 나타나는 그림자 부분을 본인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제품이다.<br/><br/>유럽 CE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으며, 이전 검사일 표시기능으로 월 1회 정기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회사 측은 “<span class='quot0'>다만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검사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변박연 대표는 “<span class='quot1'>유방암은 암환자 9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한국 여성 암 1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증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심각한 이상 징후가 있어야만 내원 검사를 하는 한국 실정이 안타까웠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새로운 개념의 가정용 유방자가검진라이트의 보급으로 유방암 조기진단에 일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59.txt

제목: 통곡물, 변비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이섬유가 듬뿍  
날짜: 201404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177  
본문: [쿠키 건강] 통곡물(whole grain)은 요즘 웰빙 식품계의 아이콘이다. 동서양 모두에서 건강식품으로 통하는 통곡물은 식용 불가 부분만 제거한 곡물을 뜻한다. 식감이 거칠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거친 음식’의 대명사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는 물론 각종 성인병, 암 예방에도 기여하는 통곡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br/><br/>현미, 통밀, 보리, 메밀, 귀리, 호밀 등 통곡물 최고의 성분은 당연 식이섬유다. 통밀, 현미에는 흰 밀가루,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이 들어 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 등으로는 분해, 소화되지 않는 ‘질기고 거친 녀석’이다. 충분히 섭취하면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장(腸)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대변의 양도 늘어난다. 식이섬유는 변비, 대장암 예방에 이로운 존재다. 또한 탄수화물 식품은 ‘살찌는 식품’이란 인식이 있지만 통곡물은 고(高)탄수화물 식품임에도 여기서 예외에 속한다.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공복감을 줄여주고 일찍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다.<br/><br/>식이섬유는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환자가 통곡물 섭취를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것은 이래서다.<br/><br/>◇당뇨, 암 치료에도 효과<br/><br/>통곡물은 ‘국민병’으로 통하는 당뇨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적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한 번에 약 30g씩 하루 세 번 통곡물을 먹거나 전체 곡물 섭취의 절반을 통곡물로 바꾸면 심장병, 당뇨병의 예방에 이롭다’며 통곡물 섭취를 적극 권장했다. 혈당 조절을 돕는 마그네슘, 크롬,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곡물의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이다.<br/><br/>치커리, 올리고당, 글루코만난처럼 통곡물도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의 일종이다. 이들은 위(胃)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섭취하면 대부분 장(腸)에 안착(安着)한다. 프리바이오틱스들은 장에서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산균 등 이로운 세균의 번식을 돕는다.<br/><br/>통곡물은 암 예방에도 기여한다. 흰쌀밥, 흰 밀가루, 흰 빵 등 정제된 곡물을 즐겨 먹으면 대장암, 췌장암, 위암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통곡물에 든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암 예방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1999년 7월 FDA는 통곡물이 51% 이상 함유된 제품의 라벨에 ‘암과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 캐나다의 식생활 지침서에는 ‘곡물의 절반 이상을 정제되지 않은 것(통곡물)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03년 보고서에는 ‘통곡물과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비만, 당뇨병,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쓰여 있다.<br/><br/>이 외에도 통곡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노화의 주범인 유해(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 등 파이토케미컬(식물성 생리 활성물질)의 70?80%는 곡류의 알곡을 싸고 있는 껍질 부위에 몰려 있다. 다만 통곡물의 단점도 있다. 정제된(도정된) 곡류에 비해 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며 과다 섭취하면 가스(방귀)가 잦아진다는 것이다.<br/><br/>◇식이섬유가 백미의 3배, 현미<br/><br/>우리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통곡물인 현미(玄米)가 백미(白米)보다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벼는 몇 번 도정했느냐 따라 현미, 배아미(胚芽米), 백미로 구분된다. 왕겨와 겉껍질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않은 쌀이 현미다.<br/><br/>따라서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보고(寶庫)인 배아(胚芽, 씨눈)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배아는 현미의 알짜 부위다. 쌀에서 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배젖(92%)과 쌀겨(5%)다. 하지만 현미 영양소의 3분의 2는 배아에 몰려 있다. 배아에는 ‘회춘 비타민’으로 통하는 비타민 E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br/><br/>현미는 변비 예방에도 이롭다. 쾌변(快便)을 돕는 식이섬유가 백미의 3배 이상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권할 만하다. 현미밥은 흰쌀밥에 비해 식후 혈당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현미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이섬유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쌀겨와 배아에 풍부하기 때문이다.<br/><br/>이 외에도 현미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셀레늄, 식이섬유, 감마오리자놀 등 다양한 웰빙 성분이 들어 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용하다. 현미밥은 씹고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한참 후에나 허기가 느껴진다. 또 현미에 든 아라비노자일란이란 성분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을 지녀 위(胃)에 금세 포만감을 안겨준다.<br/><br/>현미에도 아킬레스건은 있다. 현미밥 한 공기의 열량은 약 300㎉로 흰쌀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불량, 가스(방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약점이다. 현미밥은 적어도 10번 이상은 꼭꼭 씹어야 한다.<br/><br/>◇배아까지 함께 갈아 만드는 통밀가루<br/><br/>통밀가루(whole wheat flour)는 통밀 원곡(껍질, 배아, 배젖 모두)을 그대로 갈아서 만든 것이다. 흰색인 일반 밀가루와는 달리 다갈색을 띤다. 현미처럼 통밀가루에는 배아(씨눈)가 포함돼 있다. 배젖만으로 이뤄진 일반 밀가루에 비해 영양소가 훨씬 풍부한 것은 당연지사. 통밀가루에는 비타민 E가 일반 밀가루보다 3~5배나 들어 있다. 통밀가루 100g 중 12~15g이 식이섬유다. 일반 밀가루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5~6배나 높은 셈이다. 빈혈 예방을 돕는 철분과 정신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 B1도 통밀가루에 더 많다. 약점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아 일반 밀가루보다 보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br/><br/>도움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의료진<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0.txt

제목: 노바티스 항암신약 ‘LDK378’, 임상연구결과 NEJM 게재  
날짜: 201404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215  
본문: LDK378, ALK 양성 비소세포암 환자에서 7개월 기간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 달성<br/><br/><br/><br/>[쿠키 건강] 노바티스에서 폐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LDK378(성분명 세리티닙)이 진행성 역형성 림프종 키나제 양성(ALK+)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 1일 400mg 이상 투여한 결과58%의 전체 반응률과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을 달성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오브메디슨(NEJM)지에 게재됐다.<br/><br/>이번 임상연구는 흔히 처방되고 있는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또는 받은 후에 암이 진행한 환자와 과거에 ALK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총 114명의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노바티스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br/><br/>임상 총괄 책임 연구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 암센터의 앨리스 T. 쇼(Alice T. Shaw) 박사는 “<span class='quot0'>연구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LDK378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경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뿐만 아니라, 이전에 크리조티닙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에 치료되지 않은 병변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들이 크리조티닙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돼 재발되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br/><br/>NEJM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서 1일 400mg에서 최대 750mg 내약용량의 LDK378로 치료받은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입증됐다.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일일 750mg의 LDK378을 복용한 환자에서 59%의 전체반응률(ORR)이 보고됐다. 관찰된 반응을 통해 LDK378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았던 환자를 비롯하여 ALK 유전자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진행성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br/><br/>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82%), 설사(75%), 구토(65%), 피로감(47%),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 상승(35%)이었다. 이번에 게재된 초기연구결과는 2013년 미국임상종약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br/><br/>비소세포폐암은 가장 흔한 폐암으로 전체 폐암의 85~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2~7%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증식시키는 ALK 유전자 재배치가 일어난다. 주로 ALK 음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보다 비흡연자이고 젊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다.<br/><br/>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사장이자 항암제 개발 및 의학부 글로벌 책임자 알렉산드로 리바(Alessandro Riva) 박사는 “<span class='quot0'>NEJM에 게재된 주요임상결과는 노바티스에서 LDK378 첫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FDA가 승인신청서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FDA와 전세계 보건 당국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이 중요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br/><br/>FDA는 LDK378을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바 있다. 획기적 치료제는 최소한 1개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평가변수에 있어 기존 치료제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br/><br/>현재 LDK378에 대한 여러 건의 주요 임상연구가 전세계 30여 개국의 300여 개 이상의 연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1.txt

제목: 일동제약-가천대 길병원, 공동연구협약 양해각서 체결  
날짜: 2014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199  
본문: [쿠키 건강] 일동제약과 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이 22일, 인천 송도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br/><br/>체결식에는 길병원 이근 병원장, 가천대 노연홍 부총장, 일동제약 정연진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br/><br/>세 기관은 신약 및 의료기기, 진단시약 등에 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임상연구, 인적자원, 학술정보, 인프라 공유 등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 교류하기로 합의했다.<br/><br/>길병원 이근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일동제약과의 협약을 통해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일동제약 정연진 부회장은 “<span class='quot1'>제약회사와 학교, 의료기관은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다는 목표는 하나이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일동제약은 난치성감염증, 암, 당뇨병 등을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신약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및 가천대 길병원과의 이번 연구협약을 통해 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br/><br/>한편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등의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가천대학교는 지난해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2.txt

제목: 부산과학기술상 5명 선정  
날짜: 20140422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068  
본문: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2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13회 부산과학기술상 시상식을 가졌다.<br/>수상자는 민도식(부산대 분자생물학) 한진(인제대 의대) 김성장(부산대 의대) 김도상(부경대 응용수학) 정해영(부산대 약대) 교수 등 5명이다.<br/>부산대 민 교수는 새로운 암 유전자 가능 물질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연구해 항암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인제대 한 교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병인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20여년간 연구했다.<br/>부산대 김 교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각종 암 진단과 치료 방안 연구로 핵의학 분야의 임상학적 기술 진보에 크게 기여했다. 부경대 김 교수는 의사결정 이론의 핵심 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수리적 모델을 개발했다.<br/>부산대 정 교수는 인체 노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노화의 분자염증가설 이론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3.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 건강 8대 수칙’ 발표  
날짜: 201404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219  
본문: 여성 건강 캠페인 일환…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내용 담아<br/>[쿠키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는 ‘여성 건강 캠페인’ 일환으로 ‘여성 건강 8대 수칙’을 22일 발표했다<br/>‘여성 건강 8대 수칙’은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에서 기억하기 쉬운 핵심 키워드인 ‘여성 행복 사회 건강’ 8개 단어를 머릿 글자로 여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담았다.<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하는 8대 건강수칙은 ▲여성 건강의 시작은 정기검진하기 ▲성심껏 준비한 컬러 푸드 맛있게 먹기 ▲행복을 위한 나만의 취미 갖기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정상 체중 유지하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회복을 위해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하기 ▲강한 의지로 하루 30분이상 주 5회 땀나게 운동하기이다.<br/>▲여성 건강의 시작은 정기검진하기=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하다. 특히 사춘기, 임신,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여성 특유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무시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최신 진단기기를 이용한 간단한 검진과정을 통해 여성의 과반수가 지니고 있는 자궁근종, 난소질환 및 각종 악성종양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가능해졌다. 정기 검진은 이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기억하자.<br/>▲성심껏 준비한 컬러 푸드 맛있게 먹기=초록색 케일, 주황색 당근, 하얀색 양배추, 노랑색 파프리카, 보라색 포도, 빨간색 토마토와 같은 천연색소 음식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이다. 항산화, 해독작용, 염증방지에 탁월한 신선한 컬러푸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며, 암 발생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br/>▲행복을 위한 나만의 취미 갖기=자신만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동시에 자신의 소질을 찾고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다. 취미활동은 성취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친구와 사회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친밀한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높여줌으로써, 여성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하여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br/>▲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정상 체중 유지하기=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 중 하나로 비만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매년 1.6%씩 높아져 연간 약 4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둔해지고 입맛은 좋아지지만,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은 예전만 못하다. 본인 기존 체중에서 1㎏ 이상 늘면 즉각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1㎏을 방치하면 금방 3㎏이 되고 5㎏이 된다.<br/>▲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건강행위다. 세로토닌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실패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진통 효과를 얻기도 한다. 봉사는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높이지만,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스스로를 향한 축복이다.<br/>▲회복을 위해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적 치유행동으로,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7시간이다. 불면증 뿐 아니라 과도한 수면도 피로회복을 방해하므로 적당한 수면시간 유지가 중요하다. 수면장애는 치매, 고혈압, 뇌졸중, 동맥질환. 성기능 장애, 당뇨 및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은 숙면의 적임을 기억하자.<br/>▲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하기=사람의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피부트러블 같은 작은 증상부터 각종 심각한 신체 및 정신 질환까지 발생시킨다.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 명상 등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해 준다면 면역력 증강은 물론이고 ‘강한 멘탈’을 갖게 되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br/>▲강한 의지로 하루 30분이상 주 5회 땀나게 운동하기=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피로감퇴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적정량의 근육을 만들어 주어 비만을 예방한다. 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운동이 부담스러울 경우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좋다. 운동할 때 발산되는 땀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며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4.txt

제목: 국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임상 효과 입증  
날짜: 201404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194  
본문: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 주도, 9개 대학병원 네트워크 10년 연구 결실<br/>유럽혈액학회 공식 잡지 Haematologica 4월 온라인 판에 게재<br/>[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가 주도한 국산 백혈병 치료제인 라도티닙(슈펙트)의 임상 2상 연구결과가 혈액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에 게재됐다.<br/>라도티닙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아시아 최초의 만성골수성백혈병 2세대 치료제다. 국산 항암제를 한국 의사가 주도적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임상 연구해 국제적인 학술지에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서 전체 성인백혈병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와 그 중에서도 기존 백혈병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교신저자)·동아대학교병원 김성현(제1저자) 교수팀은 기존 항암제 치료로 인해 강력한 내성이 생겨 유전자의 일부가 변형된 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거나,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22세에서 75세의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77명에게 임상 1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라도티닙 400mg을 1일 2회 복용하게 하고 총 12개월을 추적 관찰했다.<br/>그 결과 65%인 50명은 치료 시작 후 12개월까지 발병 시점에 비해 혈액 내 암 세포가 10배 이상 감소하는 주요염색체반응을 얻었다. 또한 주요염색체반응이 24개월 이후까지 유지되는 비율은 87%로 치료 효과가 지속됨을 증명했다.<br/>전체 환자의 47%인 36명은 필라델피아염색체가 완전히 제거된 완전염색체반응을 치료 시작 1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얻어 우수하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였다. 치료 후 96%는 12개월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86%는 질환이 급성기로 진행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생존하는 것으로 관찰됐다.<br/>치료 중 관찰된 주요 부작용은 혈구 감소, 피로감, 황달 등이었으나 치료 용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부작용이 개선돼 안전성도 우수함이 확인됐다.<br/>김동욱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라도티닙이 개발돼 다국적 제약사의 기존 백혈병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는 결과를 얻어 한국이 약 값이 제일 싼 나라가 됐으며 서울성모병원의 주도로 국내 9개 대학병원 연구진이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 임상연구를 진행해 얻은 이번 연구결과로 한국 의학의 위상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span>”고 말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미 임상 2상시험을 통해 기존 항암제로는 치료하지 못해 다른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성골수성백혈병들에게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적절한 복용용량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데 주목해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한편 라도티닙은 2003년 일양약품에서 개발했고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팀이 주도적으로 전임상 및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했다. 2011년 11월까지 한국, 인도, 태국의 12개 대학병원에서 2상 임상 시험이 완료되자, 2012년 1월 한국 식약청은 라도티닙을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승인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5.txt

제목: 인하대병원, 외국인 환자수 3년새 2배 증가  
날짜: 20140422  
기자: 국민이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271  
본문: [쿠키 건강] 인하대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r/><br/>22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수는 2만2914명으로 2010년 1만1862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br/><br/>진료수입도 2012년도 대비 약 35% 증가했다. 특히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환자의 비중과 일평균진료비도 인천지역 평균(2012년도 약 1백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인하대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각 언어권 별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의사소통 문제없이 환자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처리해 만족도와 재방문횟수가 높다</span>”고 설명했다.<br/><br/>최근 방문한 러시아 환자는 “미국에 비해 의료비용은 저렴한 반면, 전문성은 뛰어나다고 판단되어 찾게 되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br/><br/>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27일 개최된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총회에서 부회장단으로 선출됐다.<br/><br/>김영모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앞으로 인하대병원은 공항의료센터, 인하국제의료센터(IIMC)와 협력해 외국인 환자들이 인천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이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6.txt

제목: "소아 ALCL 환자, 국내 치료 전망 밝아"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167  
본문: 유철주 연세의대 교수, 국제소아종양학회 심포지엄서 국내 치료현황 발표<br/><br/>[쿠키 건강] 역형성대세포림프종(ALCL) 소아 환자의 국내 치료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세의대 소아혈액종양과 유철주 교수는 지난 17일 국제소아종양학회(SIOP) Asia Congress의 림프종 심포지엄에서 'ALCL 치료현황'에 대한 국내 다기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br/>이날 발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우리나라의 소아암 치료를 대표하는 5개 기관에서 76명의 ALCL 소아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했을 때 5년 생존율(OS)이 87.4%, 5년 무질병생존율(EFS)이 71.1%였다.<br/><br/>또한 치료 후 13명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했는데,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시행 받은 9명을 포함한 치료 결과에서 5년 생존율이 76.2%로 확인돼 재발 시에도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유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소아암 치료성적이 많은 발전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ALCL은 치료에 반응이 좋아 완치율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br/><br/>이어 유 교수는 "최근 ALCL 치료제로 출시된 브렌툭시맙이나 크리조티닙 외에도 몇 가지 신약이 개발 중에 있다"며 "향후 소아청소년 ALCL의 완치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한편, ALCL은 우리나라 악성림프종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한 가지 유형으로 CD30 항원을 표현형으로 나타내고 역형성림프종키나아제(ALK)라는 암 유발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체가 있는 환자(소아청소년 ALCL의 90%, 성인의 경우 55%)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7.txt

제목: [김경호 미디어비평] ‘한국의 디바’ 이선희 콘서트, 30년이 흐른 시간의 흔적은 없었다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175  
본문: ‘노래하는 이선희 30th’ …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br/>앳된 얼굴의 잔주름은 거부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을 뿐이다. ‘J에게’ 마음을 빼앗긴 중년의 소녀가수는 30년 전 그대로 2~3개 옥타브를 변함없이 오르내렸다. 젊은 가슴을 꿰뚫는 듯한 감성적 음색에 폭발적 가창력은 말 그대로 ‘한국의 디바’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br/>‘노래하는 이선희 30th’ 콘서트가 열린 4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부터 3층까지 빼곡히 청중이 들어찬 대강당은 2시간 50여분간 시종 ‘아이돌 스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중가요 가수에게 좀처럼 공연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선희의 심적 부담이 컸다. 게다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콘서트 취소여부를 며칠간 고민해야했다. 그런만큼 숙연한 분위기에서 콘서트는 어렵게 시작됐다.<br/>오프닝 사회자로 무대에 나온 탤런트 이서진 역시 진도 여객선 참사로 고민하다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다며 숙연한 분위기에서도 ‘가수 이선희’ 진정성를 선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br/>오케스트라와 함께 시작된 ‘노래하는 이선희 30th’ 콘서트의 첫 작품은 ‘J에게’였다. 지난 1984년 제5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 곡은 1980년대 ‘이선희 신드롬’까지 낳았다. 5共 군사정권 당시 암울하고 억눌렸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J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탈출구였고 청춘의 청량함마저 던져주는 노래였다.<br/>암울했던 1984년, 초심으로 응답한 ‘J에게’<br/>촌스럽기 그지없는 아줌마 퍼머 머리에다 얼굴을 뒤덮는 잠자리안경, 게다가 치마까지 입고 잔뜩 긴장한 가냘픈 한 여대생의 폭발적 가창력은 젊은이들을 넘어 중년층의 가슴까지 뒤흔들었다. 당시 결성된 이선희 팬클럽은 이날도 어김없이 ‘아이돌 가수’를 능가하는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이선희 데뷔 당시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었던 팬클럽 회원들도 이제 40~50대 중년이 되었다. ‘엄마’들이 미친 듯 열광하며 야광봉을 흔들고 ‘J에게’ 노래에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br/>이선희는 이날 ‘J에게’로 공연을 시작해서 ’J에게‘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J에게’는 이선희 그 자체다. 이선희는 공연 중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가수로서 고민을 이 노래에 녹여넣였다고 소개했다. 노래를 하게 된 동기부터 수많은 히트곡을 내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무대 뒤편 영상물에 고스란히 담겼다,<br/>스트라이잰드,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을 닮고픈 소녀가수<br/>이선희는 어린 시절 3명의 디바를 존경하며 닮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1970년대 바브라 스트라이잰드를 비롯해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이었다. 특히 바브라 스트라이잰드의 ‘Woman in love’는 ‘노래하는 이선희’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롤모델이 되었다고 했다.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에 바친다’며 ‘I will always love you’를 불렀다. 이선희는 ‘그동안 감히 부르지 못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처음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br/>이선희는 3명의 디바 중 마돈나를 흉내낼 수 없었다고 했다. 가수 김완선 민혜경과 댄스로 맞설 수 없어 결국 노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J에게’를 부르던 초심이 지난 30년간 ‘이선희’를 관통하는 가수로서의 진정성이었고, 지금 그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br/>폭발적 가창력은 어디에서? 의문은 여전히 남아<br/>콘서트 2부. 빅마우스 밴드로 갈아탄 이선희는 내재된 끼를 정열적으로 내뿜는 ‘한국의 마돈나’를 연출했다. 무대를 오가는 여전히 어설픈 퍼포먼스지만 가창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30년전 가졌던 똑같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br/>이선희도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들이 보기에 ‘참함’과 ‘잠재적 에너지’가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있다는 것. 두 가지는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인생과 어느 중간점을 끊임없이 오가며 시기마다 다르게 노래에 담겨있다고 했다. ‘J에게’가 그녀가 부르는 시점마다 제각기 다른 맛을 내는 이유다. 그래서 이선희를 ‘완벽한 악기’라고 한다.<br/>노래하고 싶어 노래를 하다보니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해금과 가야금,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인연’은 동서양의 만남을 넘어 누구든 빠져들 애잔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런 탓일까. 최근 빌보드 K팝 차트 100곡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름아닌 ‘그중에 그대를 만나’였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디바 여왕의 귀환’이란 칭송까지 던졌다.<br/>이선희는 이날 자신을 OST가수로 아는 젊은층이 많다고 소개했다. 영화 ‘왕의 남자’의 OST ‘인연’과 TV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OST ‘여우비’ 영향일 것이다. 구미호 주인공이었던 톱스타 이승기가 이날 찬조출연을 했다.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선희 음색은 젊은층에도 어필하는 모양이다. 이선희 노래는 중독성 강한 호소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br/>30년 가수인생의 결산…글로벌 가수로서 출정식<br/>‘노래하는 이선희 30th’는 그저 이선희가 30년이란 한 세대를 결산하는 콘서트였다. 대참사와 공교롭게 맞물려 곤욕을 치렀지만 가수 30년을 결산하는 콘서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 옛날이여’ ‘나 항상 그대를’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등 20여곡을 열정적으로 부른 이선희. 이날은 가수 30년을 마무리하기 보단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출정식이나 다름없어 보였다.<br/>글로벌 가수, ‘제2의 이선희’ 한류를 기대한다. 어처구니없는 진도 여객선 참사로 패배주의와 우울증에 빠진 지금의 한국사회에 앞으로 청량함과 시원함을 주는 제2의 ‘J에게’를 통해 글로벌 디바로 거듭 나길 바란다. 공연 개최 논란속에 어렵사리 개최된 3일간의 ‘노래하는 이선희 30th’는 그녀의 글로벌 가수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충분히 드러내주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호 방송문화비평가 kyungho@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8.txt

제목: 美 FDA 위암치료제 라무시루맙 승인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253  
본문: [쿠키 건강]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진행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 라무시루맙(ramuciruma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br/><br/>FDA는 "라무시루맙은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진행성 위암과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착제 등의 화학요법에도 암이 전이된 환자를 대상으로 사이람자(Cyramza)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br/><br/>라무시루맙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수용체-2를 표적으로 하는 인간 면역글로불린1 단클론항체 수용체 길항제에 속하는 약물로 지난 2008년 엘리 릴리가 생명공학사 임클론 시스템(ImClone Systems)를 인수하면서 획득했다.<br/><br/>이번 허가는 절제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355명을 대상으로한 안전성과 및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br/><br/>임상시험 결과 라무시루맙 투여군의 생존기간이 5.2개월로 3.8개월인 위약군보다 1.4개월 더 길었다. 또 위약군에서 종양의 진행 속도가 1,3개월 늦춰진 것에 비해 라무시루맙군은 2.1개월 지연시켰음을 확인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고혈압 등이 있다.<br/><br/>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혈액학 및 종양부문 책임자 리처드 파즈두어(Richard Pazdur) 박사는 "지난 40여년동안 미국 내 위암 발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약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위암 환자들도 있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라무시루맙은 환자의 생존기간과 종양의 진행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69.txt

제목: 선병원, 암치료 세계 석학 초청 심포지엄 열어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264  
본문: [쿠키 건강]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이 유성선병원 암센터 개원과 암 치료 2300명을 돌파를 기념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세계적인 암 전문가 초청 ‘암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r/><br/>이번 심포지엄 첫날인 17일 일본 메디폴리스병원 양성자암치료센터 민 리(Min Li) 박사가 ‘최신 양성자 암치료’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으며, 18일에는 세계적인 면역치료 전문가인 도쿄 세타클리닉 마사시 사이토 박사가 ‘최신 암진단과 면역치료요법 지견’ 주제를 발표했다.<br/><br/>심포지엄은 암 치료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과 새로운 임상 연구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선병원 암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임상치료와 연구 성과들을 공유했다.<br/><br/>민 리(Min Li) 박사는 발표에서 “<span class='quot0'>양성자 암치료는 양성자를 가속 암을 치료하는 기법으로 암 조직만을 정확하게 공격해 부작용이 적어 암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폐암, 간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선병원은 양성자 암병원인 메디폴리스병원과 오는 5월 MOU를 체결하고 양성자 치료법 개발을 위한 암 환자 치료 교류 및 의사연수 교류, 정기적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br/><br/>‘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자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였던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자체 개발한 암 표적 진단키트를 통해 암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뇌종양과 췌장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사례를 보여주며 선병원 암 전문의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br/><br/>선병원은 마사시 사이토 팀이 개발한 암 진단키트를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암 조기진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br/><br/>선승훈 의료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암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암을 극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암치료 경쟁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고 선진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0.txt

제목: 장항석 교수의 ‘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  
날짜: 2014042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069  
본문: 암은 참 무서운 병이다. 암이란 말만 들어도 거의 질식할 것 같은 중압감이 느껴진다. 여기에 또 다른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수술한다 해도 재발이나 전이암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흔히 암 환자들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구해 먹거나 사용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r/>그러나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 장항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괜한 공포와 잘못된 지식으로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span>”며 주의를 당부했다.<br/>암 환자들의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장 교수가 최근 펴낸 ‘진료실 밖으로 나온 의사의 잔소리’(반디) 내용 중 암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힌 질문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한다.<br/>Q: 암이 번지는 것은 어떻게 아나?<br/>A: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암이 전신에 퍼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을 일부러 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br/>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충실히 받기만 하면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고, 혹시 전이되더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다.<br/>추적검사는 암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수술 후 2년 동안은 자주 하고, 암의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확연히 떨어지는 수술 후 2년, 특히 5년 이후가 되면 검사 간격을 늦추게 된다.<br/>Q: 항암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br/>A: 항암치료가 필요한데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고통도 심해 더 괴로워진다고 들은 탓으로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서일 것이다.<br/>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병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항암치료를 추천했다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증거에 의해 그 치료가 예후와 생존에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때는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월등한 치료효과를 얻게 된다.<br/>무조건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눈앞의 고통 때문에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암 치료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br/>Q: 피 한 방울이면 정말로 모든 암을 걸러낼 수 있나<br/>A: 암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술 전 조직검사로도 암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암 진단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로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br/>여기서 피검사라는 것은 핏속에서 종양지표물질(캔서 마커)을 검사한다는 뜻이다. 캔서 마커는 암이 발현하는 물질로 대개 단백질이나 DNA(유전자)가 그 역할을 한다. 이들 물질의 체내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상적인 캔서 마커는 불과 몇 개 되지 않고, 그나마 정확도 100%는 한 개도 없다.<br/>때때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피 한 방울 암 검진의 실상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보면 된다.<br/>Q: 임신 중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br/>A: 암의 특성에 따른 치료를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이는 갑상선 암 등 일부 순한 암에만 해당될 뿐이다. 임신 초기에 화급을 다투는 암이 발견되면 유산을 감수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은 암은 임신 중기쯤 암 절제 수술을 하고 출산 후 추가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신 중기에는 태아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임신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이다.<br/>임신 중기 후반이나 말기에 중대 암을 발견했을 때는 가급적 28주까지는 임신을 유지하고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암 절제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1.txt

제목: 대사치료로 암재발 위험 낮춰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87  
본문: 대한비타민C 암연구회 춘계학술대회<br/><br/>[쿠키 건강] 대한비타민C암연구회(회장 이영철) 춘계학술대회가 2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br/><br/>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자연물을 사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타민 C 활용, 암환자의 운동·식이요법, 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암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뤘다.<br/><br/>특히 방사선·항암치료에서 효과가 없어 포기한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도 진행됐는데 췌장암과 교모세포종, 위암 등의 암환자에 식사요법부터 심리치료, 비타민 치료 등의 대사요법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학회 이영철 회장은 “성인 3명중 1명 암환자라는 통계가 있는데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단순히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1차 의료에서 암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이영석 부회장은 “암은 단독치료로 효과 보기 힘들다. 암 발생이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정통의학의 항암, 방사선, 수술 등은 장기적 암 치료로 봤을 때 원자폭탄이다. 1번 이상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재발 확률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줘야 하는데 안하기 때문에 암이 재발하면 환자들이 불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이어 “암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수술 이후 보안대체의학으로 5년 이상 관리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환자는 재발걱정에 증명되지도 않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며 “학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 대하경원에서 축적된 치료를 도입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br/>특히 “암 치료환자가 100만명이면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은 400만명이 된다”며 암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br/>손정일 이사는 “기존 정통의학에서 처치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대학병원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중에 검증된 것이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유익한 것을 도입해 환자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회”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기존치료 부정이 아니라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환자가 가져온 자료를 기본으로 혈액검사, 대사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병기에 맞게 비타민 용량, 횟수, 기간을 정해 투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한다. 이와 함께 식습관 개선, 면역력 향상 치료, 심리치료도 병행한다”라며 “산속에 가지 말고, 하던 일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대사치료이다. 보다 효과 있는 치료를 위해 학회에서는 봄·가을 학술대회와 매년 2·3회의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대한비타민C암연구회는 2012년부터 대사치료에 관심있는 의사들이 같이 공부를 시작해 올 1월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회원이 100여명으로 이번 학술대회에는 200명 넘었다. 진료과 상관없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2.txt

제목: 완도 미역귀 130톤 기능식품 원료로 활용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50  
본문: 해림후코이단 원료, ‘이롬셀 이뮨푸드’에 적용<br/><br/>[쿠키 건강]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본격 활용된다.<br/><br/>해림후코이단은 최근 황성주 생식으로 잘 알려진 건강전문기업 이롬의 면역력 올인원 제품, ‘이롬셀 이뮨푸드’에 100%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이 사용됐다고 밝혔다.<br/><br/>이롬셀 이뮨푸드는 천연 면역물질인 미강발효분말, 운지버섯, 겨우살이추출물분말 등이 함유된 프리미엄 면역 증진 제품으로 최근 리뉴얼을 통해 미역귀 후코이단까지 함유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br/><br/>이번에 제품 업그레이드용으로 사용된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로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특이한 기전이 일본 암학회를 통해 전해지면서 전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다.<br/><br/>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1100편을 넘는 수준이며, 암 세포 자살유도 이외에도 ▲종양의 혈관신생 억제를 통한 암의 성장억제 ▲면역력 증강을 통한 암 억제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 억제를 통한 암의 전이 억제 등이 밝혀지고 있다.<br/><br/>특히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효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황산기의 함량이 30% 이상으로 모즈쿠 등 다른 해조를 활용한 후코이단보다 두배 가량 높아 더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br/><br/>해림후코이단 측은 “제품을 처음 리뉴얼하는 올해만 연간 400kg, 생미역귀 약 130톤 분량의 후코이단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적용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3.txt

제목: 폐암 환자, 흉막액 유무가 생존기간 가른다… 인하대병원 류정선 교수팀  
날짜: 2014042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071  
본문: 치명적인 폐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장기 생존 가능성이 높다. 폐암 전문가들이 흔히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 공식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폐암 1기 진단을 받고 치료했는데도 3기 이상 진행 또는 말기 단계 폐암 환자처럼 오래 못사는 환자들이 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만 하기엔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국내 의료진이 그 비밀을 세계 최초로 풀었다.<br/>인하대병원 폐암센터 류정선(사진) 교수팀은 “<span class='quot0'>폐암 환자들의 흉부 CT 사진을 장기간 분석해본 결과 흉막액(胸膜液)이 나타나면 암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생존 기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20일 밝혔다. 흉막액이란 폐의 표면을 덮고 있는 흉막간 틈을 채우고 있는 소량의 장액(漿液)을 가리키며, 폐가 수축운동을 할 때 양 흉막간 마찰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br/>류 교수팀이 인하대병원서 폐암 치료를 받은 2061명을 대상으로 병기별 전이 흉막액의 존재와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미량 흉막액이 있는 폐암 환자들은 병기가 1기 이하로 초기인데도 평균 생존기간이 7.7개월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1기 폐암인데도 흉막액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이 약 18개월로 배 이상 길었다.<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암이 생기면 흉막액이 좌폐와 우폐 사이의 종격동 쪽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암세포를 옮겨 나르는 매개체가 돼 버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흉막액이 종격동에서 발견되면 암의 크기나 개수와 관계없이 이미 폐암이 제 자리를 벗어나 말기 단계를 향해 본격적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따라서 폐암 환자에게서 흉막액이 폐 밖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흘러나온 것이 비치면 전이를 의심,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암학회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최신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4.txt

제목: [진도 여객선 침몰-영결식·빈소 표정] 고 남윤철 교사 부친 “의로운 죽음 택한 아들 자랑스러워”  
날짜: 20140421  
기자: 김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12  
본문: “의로운 죽음입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br/>‘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남윤철(35) 교사의 장례식이 20일 오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br/>오전 7시쯤 열린 남 교사의 장례식에서 남 교사의 부친은 자식과의 마지막 작별에서도 북받치는 슬픔을 누르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다독였다. 아들의 시신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잠시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가족과 지인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의로운 죽음입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초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부친에 이어 미혼인 남 교사가 2대 독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br/>남 교사의 부친은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던 17일 아들의 급여가 지급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쳤다. 남 교사는 부친과 따로 살았지만 매월 월급 때면 용돈을 보냈다고 한다.<br/>남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사의 제자였던 단원고 졸업생들도 스승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 교사의 한 친척은 “남 교사는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자신이 맘먹은 일은 꼭 이룰 만큼 의지가 강했다”며 “강직한 성격에 어린 제자들을 두고 홀로 탈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안산 단원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남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2학년6반 담임을 맡았다.<br/>단원고 학생들의 장례식도 오전 5시쯤부터 시작됐다. 장례식 내내 자식 잃은 부모, 친구 잃은 학생들은 영결식 내내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br/>안산제일장례식장에서 2학년4반 장진용 군의 발인식이 유족 20여명과 친구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하게 치러졌다. 학생 희생자 중에서 첫 장례식인 탓에 빈소에는 더욱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운구차를 따라 유족과 친구들의 긴 행렬이 이어질 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br/>이후 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반 안준혁 군,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장례식이 차례로 치러졌다.<br/>오전 발인 예정이었던 박지우, 김소정, 이다운, 이혜경 등 학생 희생자 4명의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과 합동 장례식을 논의하기로 해 발인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br/>세월호 승무원 고 정현선(28)씨의 발인은 오전 6시3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침몰 사고로 함께 숨진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기웅(28)씨의 유골함과 나란히 안치됐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해 오다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다.<br/>인천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정현선씨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고 김기웅씨와의 영면을 도울 수 있도록 나란히 안치했다</span>”고 말했다.<br/>청해진해운 소속 선사 승무원 박지영(22·여)씨의 빈소는 19일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나 발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씨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의 대피를 돕다가 변을 당했다.<br/>박씨는 모교인 수원과학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2011년 이 학교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한 박씨는 이듬해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휴학계를 냈다. 2012년 10월 큰아버지 소개로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에서 승무원 일을 해 왔다.<br/>안산·인천=김도영 정창교 전수민 기자 doyoung@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5.txt

제목: 갱년기 아내에 백수오 추출물 선물해보세요  
날짜: 2014042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070  
본문: 최근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 원료로 한 기능성 건강식품이 갱년기증후군을 겪는 중년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은 2012년 첫 출시한 백수오, 속단, 당귀 등 생약 추출물 ‘에스트로지’와 감마리놀렌산, 베타카로틴, 비타민B1·B2·D·E, 아연 등 영양소를 복합 처방한 자사 건강식품 ‘백수오궁(사진)’이 2년 만에 연매출 1000억 원대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br/>백수오궁은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불면증, 안면홍조 등 다양한 갱년기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br/>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에스트로지가 혈행 순환을 촉진해주고,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 건강은 물론 암 예방 효과도 발휘하고 비타민B군은 신체에 활력을, 비타민D는 폐경 후 급속히 촉진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br/>내츄럴엔도텍 마케팅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배우 유지인씨와 한의사 신정애 원장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백수오궁 섭취 경험을 소개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인 것이 급성장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6.txt

제목: 표적 항암제 이용한 임상시험, 새로운 개념 도입돼야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60  
본문: 18일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주최로 ‘Clinical Trial Workshop’ 개최<br/><br/>[쿠키 건강] 맞춤형 암치료가 강조되면서 분자표적 항암제를 이용한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br/><br/>중앙의대 황인규 교수(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8일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강윤구)가 주최한 '제11회 Clinical Trial Workshop'에 참석해 "종양 환자에서 표적치료제에 관한 임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분자표적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이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표적치료제의 특성상 표적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만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사가 필요하고, 피험자 수는 적어질 수 밖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수의 피험자를 모집해 통계적 유의성과 연구 신뢰도를 입증받았던 시절과는 분명 달라졌다는 얘기다.<br/><br/>또한 표적 항암제는 타깃 환자군과 병용한 항암제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약제라도 연구 설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br/><br/>황 교수는 "표적 항암제를 이용한 새로운 임상시험의 개념이 정착된다면 1상이나 2상임상 결과로 승인을 받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바이오마커 주도형 임상시험(biomarker-driven clinial trial)이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대장암 세션의 강연을 맡은 고려의대 오상철 교수(고대구로병원 종양혈액내과)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암 환자에게 있어 통계학적 의미와 임상적 의미는 분명 다르다"면서 "분자표적 항암제의 평가기준을 일반적인 항암제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7.txt

제목: '인종차별의 상징' 권투선수 '허리케인 카터' 별세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338  
본문: [쿠키 지구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기 권투선수에서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몰려 19년이나 옥살이를 하다 무죄로 풀려나며 부당한 인종차별의 상징이 된 루빈 카터가 숨졌다. 76세.<br/>그의 오랜 친구인 존 아티스는 20일(현지시간) 루빈 카터가 잠자던 중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전립선암으로 투병해왔다.<br/>카터는 태풍이 몰아치듯 주먹을 휘두른다 해서 ‘허리케인’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프로복싱 미들급 세계 1위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1966년 뉴저지의 한 선술집에서 백인 남자 3명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카터는 친구인 아티스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76년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유죄로 판정받았다.<br/>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레스티 마틴이라는 16세 흑인 소년의 끈질긴 노력과 주변의 석방운동에 힘입어 85년 마침내 무죄로 풀려났다.<br/>이 과정에서 카터가 겪은 고난과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포크록의 전설 밥 딜런이 75년 발표한 ‘허리케인’이라는 곡으로 대중에 알려졌으며, 99년엔 ‘허리케인 카터’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8.txt

제목: 인종차별 당한 챔피언 ‘허리케인 카터’ 별세…밥 딜런 노래, 영화로도 유명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290  
본문: [쿠키 지구촌]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프로복싱 챔피언이자 흑인 인종차별의 상징인 루빈 ‘허리케인’ 카터가 2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6세.<br/>그의 오랜 친구인 존 아티스는 20일(현지시간) 카터가 잠자던 중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전립선암으로 투병생활을 한 그는 토론토에 있는 자택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br/>카터는 현역 시절 27승 12패 1무를 기록한 미들급 프로 권투선수로 유명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경기 스타일 때문에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br/>한참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1966년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시의 한 선술집에서 3명의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선수생활을 마감했다.<br/>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백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했다.<br/>카터는 억울하게 19년간 옥고를 치른 후 1985년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새로킨 판사는 “<span class='quot0'>카터의 유죄 판결은 논리적 근거가 아닌 인종차별적 주장에 입각했다</span>”고 지적했다.<br/>카터는 자유의 몸이 된 뒤 고향 토론토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재소자를 위한 구명 활동에 힘을 쏟았다.<br/>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밥 딜런의 노래 ‘허리케인’의 소재가 됐으며 1999에는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 ‘허리케인 카터’로 제작되기도 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79.txt

제목: 생보사들 이번엔 자살보험금 논란  
날짜: 20140421  
기자: 조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05  
본문: ‘자살이 재해사고인가.’ 생명보험사들이 수년간 유지해 왔던 ‘재해사망특약’의 약관 내용을 둘러싸고 자살의 재해사고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명시해놓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생보사들은 당시 약관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잘못된 약관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도 있어 금융 당국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최근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종합감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총 20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br/>문제가 된 상품들은 ‘특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약관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와 무관하게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됐다. 보통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3배 더 많다.<br/>이런 상황은 ING생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볼 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0일 “<span class='quot0'>대부분 생보사들이 같은 표준약관을 인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span>”고 말했다. 해당 약관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살한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 또는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만 지급한다’고 수정됐다.<br/>생보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00년대 초반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내용</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소비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동안 큰 논란이 안 된 것 아니겠느냐</span>”고 말했다.<br/>그러나 잘못된 약관이더라도 이를 오랜 시간 방치한 보험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또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 부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br/>금융 당국도 자살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보상하는 식으로 건별 대응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에는 어떻게든 기준을 만들긴 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약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큰 재해보험금이 인정되면 말기암 환자 등의 자살 충동을 높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고민이 크다</span>”고 말했다.<br/>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0.txt

제목: [진도 여객선 침몰] 오열… 탈진… 실신… 실종자 가족들 지옥같은 하루하루  
날짜: 20140421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14  
본문: 통곡, 오열, 탈진, 실신, 분노…. 전남 진도에서 실종된 이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떤 표현으로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없다. 가족들은 심신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하루하루가 위태롭다. 허술한 구조작업에 수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대규모 ‘2차 피해’가 일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범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br/>어느 아버지의 하루<br/>진도 팽목항에서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아들의 생환을 기다리던 A씨는 20일에도 처음 이곳에 온 16일 옷차림 그대로였다. 선착장 바로 옆 가족대책본부에 앉아 다리가 저린 듯 왼쪽 무릎을 연신 만지고 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을 비비는 그에게 중년 여성이 “잠은 좀 잤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사망자가 더 나왔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른대요”라고 답했다.<br/>오전 6시50분쯤 해경 관계자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span class='quot0'>추가로 인도된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다</span>”고 알렸다. A씨는 깜짝 놀라 상황판으로 뛰어갔다. 37번째로 발견된 사망자는 이모군. 1997년 5월 4일생에 검정색 긴팔 옷을 입고 있는 여드름 많은 소년이라고 했다. A씨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본부로 돌아왔다. 왼쪽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손에 꽉 움켜쥐었다. 그는 부르튼 입술 오른쪽을 만지며 말없이 20여분간 줄담배를 피웠다.<br/>진도실내체육관으로 돌아간 A씨는 배터리 충전소에 1시간 동안 맡겨놨던 휴대전화를 찾아왔다. 그러고는 혹시나 전화가 왔을까 조심스럽게 통화목록을 열었다. 다행히 해경 측의 ‘사망 확인’ 전화는 오지 않았다.<br/>그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는 대형 모니터 바로 앞에 털썩 앉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수색작업 기사를 검색했다. 내용을 보는지 마는지 손은 계속 뉴스 ‘새로 고침’ 버튼만 눌렀다. 그러다 10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클릭했고 이어 고개를 ‘툭’ 떨궜다. 얼마나 울었을까. 퉁퉁 부은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br/>오전 9시쯤 자원봉사자들이 아침식사를 나눠줬지만 A씨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바라보다 다시 내려놨다. “드셔야 해요.” 자원봉사자가 말을 건네도 그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같이 온 아들에게는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아들도 말없이 돌아누웠다. A씨 가족은 벌써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br/>오전 9시30분쯤부터 선체 진입에 성공한 구조대가 잇따라 시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대형 모니터에 발견한 시신의 인상착의를 간략히 요약한 화면이 중계됐다. A씨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가리자 “앉아요, 앉아”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오전 인도한 시신 신원 확인 중’이라 적힌 상황판을 보며 A씨의 아내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br/>가족들도 위험하다<br/>지난 19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에 40대 남성이 이송됐다. 배를 빌려 타고 사고 현장 부근을 살펴보다 실신했다. 뇌경색 판정을 받은 그는 신체 오른쪽이 모두 마비됐다.<br/>안산의 단원고에서는 말기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학부모 심모(55)씨가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학교에 나와 연일 밤을 새우며 아들이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자식이 죽어 가는데 내가 치료를 받고 말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들은 분명히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br/>실종자 가족 B씨는 “휴대전화에 ‘061’(진도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면 그 실종자 부모는 사색이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학부모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거란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br/>이날 오전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뜨자 진도 실내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선 통곡하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이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서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br/>진도 한국병원에는 지난 닷새 동안 수십명의 가족이 병원에 실려 왔다. 식사는 못하는데 계속 울어 수분이 빠지다 보니 탈수 증세로 실신하는 경우가 많다. 17일에는 호흡이 너무 가빠져 몸 안에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는 과호흡 증세 환자까지 나왔다. 가족들의 증세는 점차 위중해지고 있다.<br/>마경자(40·여) 간호사는 “<span class='quot1'>실신한 이들도 몸 상태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팽목항이나 실내체육관으로 가려고 ‘차를 불러 달라’고 한다</span>”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의료진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span class='quot2'>학부모를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눈물과 고통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공감되니까….</span>” 마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다.<br/>대다수 가족들은 체육관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보며 지친 모습으로 이불에 누워 있다. 자리가 좁아 무릎을 한껏 구부려 누워야 한다. 함께 자리를 지키는 자녀들은 부모가 편히 눕도록 여간해선 눕지 않는다. 눈물을 겨우 참다가도 지인들이 위로 방문을 오면 통곡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메운다.<br/>턱없이 부족한 심리 지원<br/>실내체육관에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응급환자 이동진료소’가 있다. 20일 현재 533명(중복 치료 포함)이 링거를 맞거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응급치료를 받았다. 식사를 못해 탈수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스트레스가 심하니 밥을 먹지 않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몸의 이상으로 이어지는 환자가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정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는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중앙재해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심리지원팀을 조직해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닷새간 복지부 파견 상담사는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자체 소속 인력만 부스를 만들고 활동했다.<br/>정부의 심리지원이 시작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은 부스에서 가족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심신이 지친 가족들은 스스로 찾아갈 여력조차 없다. 실제 사고 이후 20일까지 지자체 상담 부스로 먼저 찾아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정신이 있는 한 이곳에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힘들다고 심리치료 받으러 갈 시간도, 정신도 없다”고 말했다.<br/>“힘내세요” “뭐 좀 드셨어요?” “물 드릴까요?” 가끔 상담사들이 체육관 안을 돌면서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지만 가족들은 대꾸도 잘 못하고 있다. 새로 친지들이 도착할 때나 통곡하며 잠시 입을 열 뿐 평소에는 말 한마디 할 기력조차 없는 상태다.<br/>특히 다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곳에 와 있는 경우엔 더 위험해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 상담사는 “가족들이 같이 와 있으며 함께 대화하며 기운을 차리기도 하지만 혼자 온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멍하니 있는 이들에게는 다가가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의 고통은 심리적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도=김유나 박세환 박은애 기자<br/>진도=김유나 박세환 박은애 기자 sprin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1.txt

제목: [진도 여객선 침몰] 단원고 남윤철 교사 장례식 엄수  
날짜: 201404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0100000183  
본문: [쿠키 사회] “의로운 죽음입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br/>‘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남윤철(35) 교사의 장례식이 20일 오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br/>오전 7시쯤 열린 남 교사의 장례식에서 남 교사의 부친은 자식과의 마지막 작별에서도 북받치는 슬픔을 누르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다독였다.<br/>아들의 시신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잠시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가족과 지인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br/>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의로운 죽음입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초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br/>부친에 이어 미혼인 남 교사가 2대 독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br/>남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남 교사의 부모는 아들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화장식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다.<br/>남 교사의 제자였던 단원고 졸업생들도 스승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br/>남 교사의 한 친척은 “남 교사는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자신이 맘먹은 일은 꼭 이룰 만큼 의지가 강했다”며 “강직한 성격에 어린 제자들을 두고 홀로 탈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br/>충북 청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안산 단원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남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2학년6반 담임을 맡았다.<br/>단원고 학생들의 장례식도 오전 5시쯤부터 시작됐다. 장례식 내내 자식 잃은 부모, 친구 잃은 학생들은 영결식 내내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br/>안산제일장례식장에서 2학년4반 장진용 군의 발인식이 유족 20여명과 친구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하게 치러졌다. 학생 희생자 중에서 첫 장례식인 탓에 빈소에는 더욱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운구차를 따라 유족과 친구들의 긴 행렬이 이어질 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br/>이후 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반 안준혁 군,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장례식이 차례로 치러졌다.<br/>오전 발인 예정이었던 박지우, 김소정, 이다운, 이혜경 등 학생 희생자 4명의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과 합동 장례식을 논의하기로 해 발인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br/>세월호 승무원 고 정현선(28)씨의 발인은 오전 6시3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침몰 사고로 함께 숨진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기웅(28)씨의 유골함과 나란히 안치됐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해 오다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다.<br/>인천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정현선씨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고 김기웅씨 와의 영면을 도울 수 있도록 나란히 안치했다</span>”고 말했다.<br/>청해진해운 소속 선사 승무원 박지영(22·여)씨의 빈소는 19일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나 발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씨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의 대피를 돕다가 변을 당했다.<br/>박씨는 모교인 수원과학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2011년 이 학교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한 박씨는 이듬해 아버지를 암으로 여위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휴학계를 냈다. 2012년 10월 큰아버지 소개로 청해진 해운에 입사해 세월호에서 승무원 일을 해왔다. 학교 측은 이날 “고인이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동기들도 졸업을 앞두고 있어 유족들과 상의 끝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안산·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정창교 전수민 기자 doyou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2.txt

제목: [바이블시론-도원욱]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날짜: 2014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0100000069  
본문: 최근 현직에서 은퇴한 후 지구촌 곳곳을 다니시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한 목회자분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다. 손녀를 보려고 유치원을 찾아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그 아이를 두 팔에 안을 때 마치 천국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하셨다. 가정에 천국이 있다.<br/>죽음의 병-가정 폭력과 학대<br/>봄꽃이 유난스러운 이 계절에,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들이 다름 아닌 부모들의 폭력과 학대로 목숨까지 잃었다. 그야말로 잔인한 계절이다. 친구들과 소풍 가는 게 소원이던 아이를 죽기까지 욕하고 발길질을 해댔던 그 사람들은 부모라 불려져서는 안 된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짐승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고 말았다. 지켜보던 온 국민이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 겨우 24개월 유아의 시신이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서 나왔다. 부모들은 뻔뻔하게 실종신고를 했다. 후진국이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일어난 일이다.<br/>어떡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인터넷만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간파된다. 지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존속살해가 287건이며 가정 내 상해 및 폭행은 2500건이다. 친족 간 범죄를 합하면 2만건이 넘었다. 거의 1주일에 1건씩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살인이 발생한다. 몸살이 아니다. 금수강산이 죽음의 병이 들었다.<br/>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는 아예 무반응을 자처하는 이도 있다. 험한 소식을 많이도 듣고 살며,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속 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외면하고, 비판하고, 비관하는 것만으론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암은 도려내야 한다.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한다. 무고한 피를 흘린 아이들의 억울한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온 나라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통즉불통(通卽不通) 불통즉통(不通卽通)이란 동의보감의 명언처럼 원활치 못한 소통이 질병의 원인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막힘 없는 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양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의 진공상태에서 비롯된 비극이다.<br/>‘나의 죄’ 고하며 울부짖을 때<br/>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께서 만물에게 부어주신 모성(母性)이 인간에게 결핍되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소중하게 다루기는커녕 학대와 폭력을 일삼아 죽이며, 굶겨 죽인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리다니, 북녘 땅에서 굶어 죽는 이들만으로 모자란단 말인가. 정녕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한반도는 과연 어떤 곳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무서운 시대의 징조라 아니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 오는 사이 어느새 탐욕과 배금주의가 온 나라에 암세포를 퍼뜨렸다.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하셨건만!(마 16:26)<br/>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다니엘과 느헤미아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은혜를 구해야 할 때다. 예수의 피로 이 땅을 적셔주시길 간구해야 한다.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영국의 토머스 모어 경은 ‘이 땅에 천국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고 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두 팔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한다(또 지면을 빌려 진도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그 유족들을 그분의 두 손에 의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진 가정 뒤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부활, 이 나라의 가정에 부활을 주시는 참 소망의 5월을 기대한다.<br/>도원욱 한성교회 담임목사<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3.txt

제목: [진도 여객선 침몰] 시신 수습된 날… 실종자 가족 24시  
날짜: 20140420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0100000166  
본문: [쿠키 사회] 통곡, 오열, 탈진, 실신, 분노…. 전남 진도에서 실종된 이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떤 표현으로도 완벽하게 대변하기 어렵다. 가족들은 심신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하루하루가 위태롭다. 허술한 구조작업에 실종자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칫 대규모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범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br/>어느 아버지의 하루<br/>진도 팽목항에서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아들의 생환을 기다리던 A씨는 20일에도 처음 이 곳에 온 16일 옷차림 그대로였다. 선착장 바로 옆 가족대책본부에 앉아 다리가 저린 듯 왼무릎을 연신 만지고 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을 비비는 그에게 중년 여성이 “잠은 좀 잤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사망자가 더 나왔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른대요”라고 답했다.<br/>오전 6시50분쯤 해경 관계자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span class='quot0'>추가로 인도된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다</span>”고 알렸다. A씨는 깜짝 놀라 상황판으로 뛰어갔다. 37번째로 발견된 사망자 신원은 이모군. 97년 5월 4일생에 검정색 긴팔 옷을 입고 있는 여드름 많은 소년이라고 했다. A씨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본부로 돌아왔다. 왼쪽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손에 꽉 움켜쥐었다. 그는 부르튼 입술 오른쪽을 만지며 말없이 20여분간 줄담배를 피웠다.<br/>진도실내체육관으로 돌아간 A씨는 배터리 충전소에 1시간동안 맡겨놨던 휴대전화를 찾아왔다. 그러고는 혹시나 전화가 왔을까 조심스럽게 통화목록을 열었다. 다행히 해경 측의 ‘사망 확인’ 전화는 오지 않았다.<br/>그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는 대형 모니터 바로 앞에 털썩 앉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수색 작업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내용을 보는지 마는지 손은 계속 뉴스 ‘새로 고침’ 버튼만 눌렀다. 그러다 10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클릭했고 이어 고개를 ‘툭’ 떨궜다. 얼마나 울었을까. 퉁퉁 부은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br/>오전 9시쯤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식사를 나눠줬지만 A씨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바라보다 다시 내려놨다. “드셔야 해요.” 자원봉사자가 말을 건넸지만 그는 시선도 주지 않았다. 같이 온 아들에게는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아들도 말없이 돌아누웠다. A씨 가족은 벌써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br/>오전 9시30분쯤부터 선체 진입에 성공한 구조대가 잇따라 시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대형 모니터에 발견한 시신의 인상착의를 간략히 요약한 화면이 중계됐다. A씨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가리자 “앉아요, 앉아”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트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전 인도한 시신 신원 확인 중’이라 적힌 상황판을 보며 A씨의 아내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br/>가족들도 위험하다<br/>지난 19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에 40대 남성이 이송됐다. 배를 빌려 타고 사고 현장 부근을 살펴보다 실신했다. 뇌경색 판정을 받은 그는 신체 오른쪽이 모두 마비됐다.<br/>안산의 단원고에서 말기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학교에 나와 연일 밤을 새우며 자녀가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심모(55)씨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치료를 받고 말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들은 분명히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br/>실종자 가족이라고 밝힌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자 가족의 휴대전화에 ‘061’(진도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면 그 부모는 사색이 된다”고 썼다.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침몰 당시 애들이 살기 위해 안쪽에서 깬 창문을 통해 시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학부모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거란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br/>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과 탈진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뜨자 같은 시각 진도 실내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선 안에 들어가 통곡하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이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서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br/>진도 한국병원에는 사고 이후 닷새 만에 수십 명의 가족이 병원에 실려 왔다. 식사는 못하는데 계속 울어서 수분이 빠지다보니 탈수 증세로 실신한 가족이 많다. 지난 17일에는 호흡이 너무 가빠져 몸 안에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는 과호흡 증세 환자까지 나오는 등 점차 증세가 위중해지고 있다. 마경자(40·여) 간호사는 “<span class='quot1'>보호자 대부분이 몸 상태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팽목항이나 실내체육관으로 가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실신했다가 정신만 차려도 빨리 돌아가려고 ‘차를 불러 달라’는 분도 많다</span>”고 말했다.<br/>이렇다보니 의료진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span class='quot2'>학부모를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눈물과 고통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공감되니까….</span>” 마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다.<br/>대부분의 가족들은 체육관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불을 깐 채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다. 자리가 좁아 무릎을 한껏 구부려 누워야만 한다.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앉아 있기도 했다. 눈물을 겨우 참다가도 다니던 교회 관계자들이나 지인들이 위로 방문을 오면 통곡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메웠다.<br/>턱없이 부족한 심리지원<br/>실내체육관에는 혹시나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응급환자 이동진료소’가 마련돼 있다. 사고가 발생한 16일부터 20일까지 533명(중복 치료 포함)이 링거를 맞거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응급치료를 받았다. 식사를 못해 탈수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밥을 먹지 않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몸의 이상으로 이어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정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는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중앙재해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심리지원팀을 조직해 사고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 또 사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최소 1회 이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그러나 사고 이후 닷새간 복지부 소속 상담사는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자체 소속 인력만 부스를 만들고 활동했다.<br/>정부의 심리지원이 시작돼도 지원 방식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부스에서 가족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심신이 지친 가족들은 스스로 찾아갈 여력조차 없다. 실제 사고 이후 20일까지 지자체 상담 부스로 먼저 찾아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정신이 있는 한 이 곳에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힘들다고 심리치료 받으러 갈 시간도, 정신도 없다”고 말했다.<br/>“힘내세요” “뭐 좀 드셨어요?” “물 드릴까요?” 가끔 상담사들이 체육관 안을 돌면서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지만 가족들은 대꾸도 잘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새로 친지들이 도착할 때나 통곡하며 잠시 입을 열뿐 평소에는 말 한마디 할 기력조차 없는 상태다.<br/>특히 다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곳에 나와 있는 경우 극도로 위험해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 상담사는 “가족들이 같이 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대화하며 기운을 차리는 경우가 있지만 혼자 온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멍하니 있는 이들에게는 다가가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만 앞세울 뿐 실질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리적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도=김유나 박세환 박은애 기자<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4.txt

제목: [사설]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날짜: 2014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9100000041  
본문: 흡연의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 연구팀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사망자 26만7200여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1.8%인 5만8100여명에 달하고 흡연에 따른 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br/>담배에는 6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선진국에서는 모든 암 사망 원인의 30%가 흡연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중에서 남녀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는 통계는 흡연이 질병과 사망을 부를 수 있음을 방증한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세 곳의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번 소송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이 국가나 KT&G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지난 10일에도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br/>하지만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료 공개를 꺼리는 KT&G와 달리 외국 회사인 필립모리스와 BAT는 이미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해 승산이 있다고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담배회사가 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은폐하고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했다.<br/>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 31.1%보다 훨씬 높다. 정부가 그동안 ‘담배는 개인의 기호품’이란 이유로 흡연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도록 방치해온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가격정책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담배 규제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5.txt

제목: 코티나 버틀러 英문화원 문학국장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 문학 통해 명확하게 전달”  
날짜: 20140419  
기자: 김나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9100000061  
본문: 올해 런던도서전에서는 한국 작가 10명이 현지에서 펼친 문학 행사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2년 전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된 뒤 관련 프로그램 기획부터 최종 집행까지 총괄한 코티나 버틀러(55·사진) 영국문화원 문학국장은 “<span class='quot0'>한국 문학이나 작가에 대해 잘 모르던 영국의 출판사들이 앞으로 한국을 더 주목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그는 런던도서전 행사 직후 현지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엄마를 부탁해’로 주목받은 신경숙뿐만 아니라 아동문학가 황선미, 시인 김혜순, 범죄소설의 이정명, 웹툰 분야의 윤태호까지 정말 다양한 작가들을 골고루 영국에 소개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터키 주빈국 행사 당시 20명, 중국 주빈국 행사 때 26명이 런던을 찾았던 것에 비해 너무 적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작가 개개인이 부각되는 동시에 한국 문학의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총평이다.<br/>그는 “<span class='quot0'>특히 도서전을 계기로 한국의 문학뿐 아니라 역사,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도서전은 영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가 좀 더 명확해지는 데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암울한 현대사를 극복한 한국의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전달됐다는 얘기다. 그는 “<span class='quot0'>‘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엄마와 자식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세대간의 갈등을 보며 영국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상 앞으로 돌진하는, 전진하는 사회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한국전쟁 등 복잡한 면모를 지닌 한국의 모습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행사였다</span>”고 평가했다.<br/>런던=김나래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6.txt

제목: 항암제 개발 트랜드, 이제는 속도 전쟁  
날짜: 2014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8100000167  
본문: 다중약물 동시평가 임상 진행<br/><br/>[쿠키 건강] 최근 항암제 임상시험에 변화의 새 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과학자와 제약기업이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까지 시간과 비용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br/><br/>기존 임상시험이 단일 약물 평가에 집중했다면 도입된 연구는 여러개 약물을 동시에 평가한다. 6일 발표된 혁신적 폐암 치료 연구에 따르면 영국 자선암연구소(CRUK)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14개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br/><br/>비소세포폐암 대상의 이번 연구는 체내 면역체계를 가속화시키는 2개 화합물을 포함 아스트라제네카의 12개 실험약물이 사용된다. 더불어 화이자는 특정 희귀 폐암에 승인을 받은 크리조티닙(상품명 잘코리)과 유방암에 효과를 보인 실험약물 팔보시클립(palbociclib)을 제공한다.<br/><br/>각 약물은 초기 15~20명 환자에 투여돼 신속한 과정을 거쳐 대규모 시험으로 나아가며 이점이 없는 약물은 빠르게 제외된다.<br/><br/>주목할 점은 대개 특정 약물을 연구의 중심에 세우는 것과 차별화 됐다는 것이다. 제시된 연구는 유전자변이를 타깃으로 진행성 폐암에 작용하는 여러 약물 가운데 보다 적합한 약물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 목표를 둔다.<br/><br/>일부 암에서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는 환자의 1~2% 미만에서 보고되는 등 지극히 드물어 한번에 1개 약물만을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도전과도 같기 때문이다.<br/><br/>이에 새로운 경향은 다양한 유전자 결함을 가진 환자의 암 표본 프로토콜을 제시해 연구자들이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앞서 언급된 2개 제약사와 42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CRUK 총 잭임자 Harpal Kumar는 "새로운 접근법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판을 새로 짤 것"이라며 "환자에 적용되는 약물 선택에 있어 시험 설계의 주안점이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br/><br/>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7, 8월경 시작될 The National Lung Matrix 연구는 항암치료제 연구방식을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 같은 노력은 환자 유전자 프로파일에 따라 조율해 가는 맞춤형 유전체 의학시대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더불어 전통적으로 약물시험의 표준지침이 치료약물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을 비교해 왔지만 여기서 무작위 환자 선정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이는 특정 치료가 유전자적으로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를 나타낸다면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의 무작위 선정 방법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에 기인한다.<br/><br/>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고 규모가 작은 임상시험은 통상적인 약물 승인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비용 절감은 물론이다.<br/><br/>이번 다중약물 임상에 참여한 아스트라제네카 혁신의약부 책임자인 Menelas Pangalos는 "아직 비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약물개발에 비용-효과적인 면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또 화이자 종양사업부 상무인 Mace Rothenberg는 "이번 연구가 효율적이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특정 환자군에 집중한 틈새시장 공략에 적절하다"고 밝혔다.<br/><br/>Kumar는 "새로운 약물이 연구 진행 중에 추가될 수 있으며 다른 제약기업도 적절한 시일 내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폐암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다른 유형의 종양에도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br/><br/>한편 제휴를 맺은 미국 암연구소는 지난 11월부터 5개 폐암 치료 실험약물을 평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다약제-다중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7.txt

제목: [바이블시론-도원욱]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날짜: 2014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8100000033  
본문: 최근 현직에서 은퇴한 후 지구촌 곳곳을 다니시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한 목회자분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다. 손녀를 보려고 유치원을 찾아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그 아이를 두 팔에 안을 때 마치 천국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하셨다. 가정에 천국이 있다.<br/>죽음의 병-가정 폭력과 학대<br/>봄꽃이 유난스러운 이 계절에,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들이 다름 아닌 부모들의 폭력과 학대로 목숨까지 잃었다. 그야말로 잔인한 계절이다. 친구들과 소풍 가는 게 소원이던 아이가 죽기까지 욕하고 발길질을 해댔던 그 사람들은 부모라 불려져서는 안 된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짐승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고 말았다. 지켜보던 온 국민이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 겨우 24개월 유아의 시신이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서 나왔다. 부모들은 뻔뻔하게 실종신고를 했다. 후진국이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일어난 일이다.<br/>어떡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인터넷만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간파된다. 지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존속살해가 287건이며 가정 내 상해 및 폭행은 2500건이다. 친족 간 범죄를 합하면 2만건이 넘었다. 거의 1주일에 1건씩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살인이 발생한다. 몸살이 아니다. 금수강산이 죽음의 병이 들었다.<br/>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는 아예 무반응을 자처하는 이도 있다. 험한 소식을 많이도 듣고 살며,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속 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외면하고, 비판하고, 비관하는 것만으론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암은 도려내야 한다.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한다. 무고한 피를 흘린 아이들의 억울한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온 나라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통즉불통(通卽不通) 불통즉통(不通卽通)이란 동의보감의 명언처럼 원활치 못한 소통이 질병의 원인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막힘 없는 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양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의 진공상태에서 비롯된 비극이다.<br/>‘나의 죄’ 고하며 울부짖을 때<br/>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께서 만물에게 부어주신 모성(母性)이 인간에게 결핍되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소중하게 다루기는커녕 학대와 폭력을 일삼아 죽이며, 굶겨 죽인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리다니, 북녘 땅에서 굶어 죽는 이들만으로 모자란단 말인가. 정녕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한반도는 과연 어떤 곳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무서운 시대의 징조라 아니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 오는 사이 어느새 탐욕과 배금주의가 온 나라에 암세포를 퍼뜨렸다.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하셨건만!(마 16:26)<br/>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다니엘과 느헤미아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은혜를 구해야 할 때다. 예수의 피로 이 땅을 적셔주시길 간구해야 한다.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영국의 토머스 모어 경은 ‘이 땅에 천국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고 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두 팔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한다(또 지면을 빌려 진도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그 유족들을 그분의 두 손에 의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진 가정 뒤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부활, 이 나라의 가정에 부활을 주시는 참 소망의 5월을 기대한다.<br/>도원욱 한성교회 담임목사<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8.txt

제목: 국립암센터, 시각장애인 위한 ‘암예방 점자책’ 발간  
날짜: 201404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7100000241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오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에 맞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암 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br/><br/>암 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개선을 통해 올바른 암 정보 인식 제고, 암 예방 실천 수준 향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br/><br/>새로 배포되는 암 예방 점자책에는 국민 암 예방 수칙,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br/><br/>또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도 내용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점자와 활자를 혼용 인쇄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br/><br/>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지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암예방 점자책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를 통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남겨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89.txt

제목: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20일, 일요일 검진 실시  
날짜: 201404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7100000389  
본문: [쿠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원장 김태선)는 오는 20일 일요일 건강검진을 시행한다.<br/><br/>이번 건강검진은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등으로 실시된다.<br/><br/>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인 1월 19일, 2월 16일, 3월 16일에 평일에 검진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요검진을 실시해 왔다.<br/><br/>부산센터의 일요검진은 각종 예방접종, 종합검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일반건강진단-5대암검진 등의 검진내용을 평일과 같이 수검할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0.txt

제목: 한화생명, 은퇴 전 가장 소득 상실때 유가족에 월급 지급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7100000034  
본문: 한화생명은 최근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이상 고도장해시,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을 판매중이다.<br/>이 상품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를 입으면 누적(체증)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br/>종신보험이지만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br/>자금전환 기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br/>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1.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으로 대안마련  
날짜: 2014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453  
본문: [쿠키 생활] 최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활식습관 마저 깨지면서 음주나 흡연, 주위 오염환경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암 발병율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3명중 1명은 암 진단을 받고,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 유병자로 평균 5년 이상이라 한다.<br/>암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 한 개 정도는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암 보험 가입시 지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체 가입하여 실제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br/>의료기술이 발전했고 암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하나 치료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암이란 질병이 단기간에 완치되는 것이 아닌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치료비 부담은 높을 수 밖에 없다.<br/>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비 보장이 되지만 고액 암의 경우 치료비 보장이 어려워, 개인 부담이 크다.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암 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암 진단금액이 높은 암 보험 상품 위주로 관심이 높다.<br/>암 진단비는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br/>나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렴한 암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상품 비교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시 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가입률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2.txt

제목: 폐암 환자 위한 직업재활, 지원 보강 필요  
날짜: 201404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161  
본문: [쿠키 건강] 암 관련 장애를 줄이고 직업 재활 지원 등 새로운 암 경험자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br/>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김영애 박사와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의 폐암 경험자 830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 전과 치료 후 고용 변화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Annals of Surgery 최근호에 발표됐다.<br/>연구에 따르면 폐암 진단 전, 대상 환자의 68.6%가 직장을 다녔으나 치료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38.8%로 약 30% 포인트 감소했다.<br/>이는 일반인의 고용비율인 6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령이 많고, 수입이 낮을수록, 동반질환 수가 많고, 사회적 기능수행 상 문제가 있는 경우 직업상실의 위험이 더 높았다. 업무 수행 상의 어려움으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피로가(78.6%),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적 제한(39.0%)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br/>김영애 박사는 “<span class='quot0'>본 연구에서 폐암 경험자의 87.7%가 직업 재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암 관련 장애를 최소화하고 직업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새로운 암 경험자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3.txt

제목: 4월 14일 문 연 연세암병원 이철 의료원장의 포부… “암 환자·가족 편에 서서 문턱 없는 병원 만들 것”  
날짜: 2014041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038  
본문: “<span class='quot0'>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 국적이나 연령 등 그 어떤 문턱이나 장벽도 없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span>”<br/>연세대 이철(사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5일 전날 개원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1'>연세암병원을 개원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혹시 최첨단 하드웨어가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진 자를 위한 병원이란 비판이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누구보다 앞장설 각오</span>”라고 포부를 밝혔다.<br/>신촌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단지 안에 자리 잡은 연세암병원은 연면적 10만5000㎡(약 3만2000평)에 지상 15층, 지하 7층, 510병상 규모이다. 1930명이 기부한 430억원의 기부금을 포함해 총 2530여억원이 투입됐다.<br/>이 의료원장은 이 병원을 암 환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최첨단 글로벌 허브 암병원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했다.<br/>이어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암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점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라며 “암 치료를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으며 환자와 가족들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병원을 만들 각오”라고 강조했다.<br/>연세암병원의 이런 정신은 1층에 설치된 ‘노아의 방주’ 조형물과 2층부터 7층까지 이어지는 ‘빛의 기둥’이 잘 보여준다. 암 환자들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 타 생명을 구하고 완치라는 희망과 약속의 상징인 빛의 기둥으로 향한다는 뜻이다.<br/>이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2'>누구나 와서 암이라는 이겨내기 힘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가족 친화적인 암 병원으로 운영해 나가겠다</span>”고 거듭 다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4.txt

제목: 고령화시대 의료비해결 의료실비보험 가입으로  
날짜: 2014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454  
본문: [쿠키 생활] 노년에는 면역이나 주의력 저하로 질병이나 사고 위험율이 높다.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비 대안으로 의료실비보험이 노후 대책의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중요해졌다.<br/>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5.1%에서 20년 후인 2010년엔 10.7%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수명에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예상이다.<br/>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이라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가 높기에 빠를수록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중복보장이 안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5.txt

제목: “비싼 건강검진일수록 방사선 피폭 더 커”  
날짜: 2014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274  
본문: 서울시내 10개 대학병원 검진 방사선 피해 분석…10개 방사선 피폭 차이 2배 이상<br/><br/>[쿠키 건강] 가격이 비싼 건강검진일수록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방사선 노출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민방사선감시센터가 서울 시내 10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진단항목을 분석할 결과를 발표했다.<br/><br/>그 결과 검진비용이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수가 0.812로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숙박검진이 가장 많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이번 조사를 총괄한 시민방사선감시센터 이윤근 소장은 기본검진에서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는 1밀리시버스(mSv) 미만이었지만 암 정밀 검진은 11.1mSv이었다고 밝혔다.<br/><br/>이 소장은 “<span class='quot0'>숙박검진은 24.1mSv로 연간 선량한도를 각각 11.1~24.1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유효선량이 가장 낮은 병원이 평균 14.61mSv인 것에 비해 가장 높은 병원은 301mSv로 2.1배나 차이가 났다</span>”고 우려했다.<br/><br/>또 “유효선량이 높은 병원은 대부분 PET-CT를 포함하고 있어 이 검사가 유효선량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검사항목”이라고 지적했다.<br/><br/>이 소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발생위험을 비교한 결과 숙박검진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자 220.8명, 여자는 335.6명이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암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br/><br/>토론회에 참석한 한림의대 주영수 교수는 건강검진에 대한 의학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숙박검진으로 인해 25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피폭량이 적은 기본검진도 문제가 많다”며 “숙박검진 각 항목의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이 크다”고 비판했다.<br/><br/>또한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검진의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1년에 1000만명 이상이 X-ray를 찍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방사선 피폭 문제는 어떻게든 컨트롤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 소장은 앞으로 검사기기의 선량을 최소화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검진시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량을 고지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방사선 노출량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병원 전원시 재촬영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종합검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가 병원 장비의 주기적인 방사선 피폭량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6.txt

제목: 강동경희대병원 ‘우리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 선봬  
날짜: 201404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165  
본문: [쿠키 건강]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이 체계적인 ‘우리 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br/><br/>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함께 협진 관리 시스템을 살려 전문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 관리를 제공한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강동구 드림스타트센터 주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아동 6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 사업을 진행, 후원하면서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br/><br/>우리 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체측정(신장, 체중, 비만도, 체지방), 청력, 안과 등 기본 검사와 더불어 폐기능, 초음파, 심전도, 심장기능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br/><br/>성장기에 꼭 체크해야 할 치과 진찰 및 파노라마 검사와 함께 영양상담이 더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알아보는 한방검사(경락기능검사, 맥진)과 이에 따른 한방병원 교수진의 전문 상담도 진행된다.<br/><br/>특히 건강검진은 침(타액)을 분석해 우리 아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한 눈에 체크해 보는 ‘유전체 분석 검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유전체 분석 검사는 내 몸에서 발병할 수 있는 6대 암과 29가지 질병의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다.<br/><br/>정종구 강동경희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아이 건강검진은 성장기 자녀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span>”라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자신의 건강 플랜은 일찍 계획할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향후 학습능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7.txt

제목: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침몰 원인 암초 아닌 것 같다”… 정부와 엇갈린 선원·전문가 입장에 혼선  
날짜: 201404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402  
본문: [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탑승 선원과 정부발표, 전문가 견해가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암초에 의한 좌초를 유력시 했으며 탑승했던 선원 두 명은 “암초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른 전문가는 선박 내부 폭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br/>세월호에서 구조돼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타수 오모(58)씨는 16일 인터넷 매체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해역 주변은 암초가 없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짐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암초는 아닌 것 같다”며 “선원들이 들었던 ‘쿵’ 소리는 여객선에 실린 컨테이너가 부딪히는 소리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br/>함께 치료를 받던 선원 박모(60)씨도 “해경 경비정을 타고 세월호 바닥 부분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파손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암초에 부딪히면서 남는 흔적이 따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br/>암초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는 정부의 분석과 엇갈리는 주장이다.<br/>정부와 선원 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해양대 항해시스템공학부 공길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사고 해역은 암초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암초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낮다</span>”며 “<span class='quot0'>카페리 선박인 만큼 내부 차량이나 화물 폭발에 의한 선체 균열도 염두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8.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개인별 유전자 따라 맞춤형 치료… ‘암 정복’ 선도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7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개인 맞춤형 암 치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용한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표준적 암 치료법은 더 이상 암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췌장암처럼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암이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고 개인 맞춤형 암 치료에 본격 나서고 있다.<br/>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란 암환자 개인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고 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다. 암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숨어 있다. 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종양도 분자적 특징이 다르고 종양이 퍼지는 기전도 다를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그 환자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사진)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소장은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 암의 발생기전이 상당 부분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암 발생기전 단계마다 작용하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유전자만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암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었지만 이제는 첫 번째 치료 단계부터 환자에게서 특이한 유전자형이 발견된다면 약 선택부터 달리해서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세계 유수의 병원들도 암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폐암, 대장암, 악성 흑색종 환자 5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암 치료’ 기술을 올해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체 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 소장은 “<span class='quot0'>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표적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 연구의 지표가 될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데 이곳의 암 수술 경험 및 환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span>”고 말했다.<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지난 2006년 선진국형 통합진료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소위 빅4라는 대형병원에서도 통합진료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암의 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의가 한 방에 모여 치료계획을 세운다. 모든 것이 낯선 암환자가 각 분야의 명의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암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치료에 대한 확신도 설 것이다.<br/>이에 대해 유창식 암센터 소장은 “젊었을 때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일을 한다. 가령 어려운 환자 사례가 찾아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한다”며 “우리 병원도 과학적 어려움, 재정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항상 따라붙지만 ‘우리가 못하면 환자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풍부한 고난도 수술 및 치료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맞춤형 암 치료 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899.txt

제목: 널리고 널린 암 정보에 많이 당황하셨다고요?  
날짜: 201404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26  
본문: ‘암’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단어다. 내가 암이라면, 또는 내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정확하고 최신의 많은 정보를 얻고 싶겠지만 문제는 인터넷 포털에 ‘암’을 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br/>그렇다면 어디에서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국가암정보센터’로 암환자 및 가족, 암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이다. 100여 종의 암 자료는 물론, 다양한 맞춤형 암 정보를 제공하는데 리플릿, 소책자, 그림동화, 동영상 강좌, 애니메이션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상담(1577-8899)도 효과적인데 암 전문 상담사가 암 예방, 암의 진단·치료·재활·식생활,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 예약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br/>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는 국가 암검진 및 중증(암)환자 등록·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서비스를 원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재가암환자관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응급의료비 대불 및 신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등도 정확한 암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r/>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문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회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br/>한편, 환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동 회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 또 환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참고하면 좋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0.txt

제목: 널리고 널린 암 정보에 많이 당황하셨다고요?  
날짜: 201404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39  
본문: ‘암’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단어다. 내가 암이라면, 또는 내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정확하고 최신의 많은 정보를 얻고 싶겠지만 문제는 인터넷 포털에 ‘암’을 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br/>그렇다면 어디에서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국가암정보센터’로 암환자 및 가족, 암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이다. 100여 종의 암 자료는 물론, 다양한 맞춤형 암 정보를 제공하는데 리플릿, 소책자, 그림동화, 동영상 강좌, 애니메이션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상담(1577-8899)도 효과적인데 암 전문 상담사가 암 예방, 암의 진단·치료·재활·식생활,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 예약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br/>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는 국가 암검진 및 중증(암)환자 등록·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서비스를 원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재가암환자관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응급의료비 대불 및 신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등도 정확한 암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r/>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문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회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br/>한편, 환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동 회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 또 환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참고하면 좋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1.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개인별 유전자 따라 맞춤형 치료… ‘암 정복’ 선도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458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개인 맞춤형 암 치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용한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표준적 암 치료법은 더 이상 암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췌장암처럼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암이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고 개인 맞춤형 암 치료에 본격 나서고 있다.<br/>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란 암환자 개인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고 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다. 암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숨어 있다. 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종양도 분자적 특징이 다르고 종양이 퍼지는 기전도 다를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그 환자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사진)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소장은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 암의 발생기전이 상당 부분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암 발생기전 단계마다 작용하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유전자만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암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었지만 이제는 첫 번째 치료 단계부터 환자에게서 특이한 유전자형이 발견된다면 약 선택부터 달리해서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세계 유수의 병원들도 암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폐암, 대장암, 악성 흑색종 환자 5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암 치료’ 기술을 올해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체 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 소장은 “<span class='quot0'>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표적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 연구의 지표가 될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데 이곳의 암 수술 경험 및 환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span>”고 말했다.<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지난 2006년 선진국형 통합진료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소위 빅4라는 대형병원에서도 통합진료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암의 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의가 한 방에 모여 치료계획을 세운다. 모든 것이 낯선 암환자가 각 분야의 명의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암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치료에 대한 확신도 설 것이다.<br/>이에 대해 유창식 암센터 소장은 “젊었을 때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일을 한다. 가령 어려운 환자 사례가 찾아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한다”며 “우리 병원도 과학적 어려움, 재정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항상 따라붙지만 ‘우리가 못하면 환자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풍부한 고난도 수술 및 치료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맞춤형 암 치료 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2.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서울 병원 다니는 지방 환자 묵을 곳이 없다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4  
본문: “항암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알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하지만 똑같은 암환자여도, 서울서 거주하며 치료받는 사람과 시골에서 올라온 암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달라요. 새벽 첫차를 타고 올라와 긴 대기시간을 보낸 후 주사실로 들어가죠. 항암제를 맞기 전부터 환자는 이미 지쳐 있어요. 힘들게 항암제를 맞고서 막차를 타고 내려갈 때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도 허망하게 버스 안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br/>인터뷰를 마치자, 마음을 짓눌렀던 깊은 한숨이 나왔다. 취재를 위해 많은 암환자를 만났지만,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암환자의 삶은 더욱 힘겨워 보였다. 절망과 외로움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br/>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존재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암 환자보다는 치매, 중풍 등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시설마다 암 환자를 카테고리 안에 넣어 놓았지만, 과연 암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토, 식욕 저하 등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입에 맞는 음식이 제공되는지, 향후 치료를 위해 고단백 음식들로 식단이 구성되는지 말이다. 또한 치매 등 질환의 성격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암환자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아무런 연고 없이 시골서 올라오는 암 환자는 대안으로 모텔이나 찜질방을 선택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암환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대형병원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근처 가까운 모텔과 찜질방을 묻는 질문이 뜬다. 암환자들의 고민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충주에서 올라온다는 60대 여성 환자는 “치료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말하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병원 내 볼일을 모두 보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말한다.<br/>“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고 자녀들도 생업이 있으니 혼자 와야지요. 남편도 내 주사 값을 벌려면 하루도 쉬지 못해요. 결국 혼자 올라오게 되는데, 여자 혼자 모텔을 이용하자니 무섭기도 했고 하루 이용료가 찜질방 요금의 몇 배니까 결국 찜질방을 가게 돼요. 하지만 덥고 춥고를 반복하는 그곳의 환경은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밤새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br/>착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암환자 쉼터란 곳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지만, 대개 도시와 멀고 공기 좋은 산속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메디텔은 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환자와 그 가족들이 머물기 위한 곳으로 관광시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으로 암환자를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 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줄 사회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3.txt

제목: 홍삼,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 강화 효능  
날짜: 20140415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9  
본문: “일부 식품업체에서 암 환자에게 좋은 제품이라며 출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암 환자에게 이롭다면 의사들이 먼저 추천을 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먹이겠지요. 아마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식품업체들의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홍삼의 경우 암 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 개선이나 장기의 체력을 보강해주는 이점이 있지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말이다.<br/>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대다수는 진단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보완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항암작용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주변의 권유로 혹은 소문만 듣고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br/>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br/>다만 홍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간접 증명이 된 만큼 수술로 인해 축난 몸을 보양하자면 섭취해도 괜찮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각종 바이러스, 세균을 사멸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br/>이는 조재열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와 이만휘 경북대학교 교수팀의 ‘홍삼 유래 산성 다당체에 의한 대식세포의 분자적 활성 기전’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연구팀은 홍삼을 섭취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F-κB, AP-1, STAT-1, ATF-2, 및 CREB 등 면역단백질의 핵 내 이동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인자(산화질소, 활성산소 및 종양괴사인자 등)들이 활발하게 분비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규명했다.<br/>한 대학병원 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적으로 홍삼이 항암작용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홍삼을 먹어서 암세포가 아주 작아졌다는 엄청난 효과는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으니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4.txt

제목: 홍삼,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 강화 효능  
날짜: 20140415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30  
본문: “일부 식품업체에서 암 환자에게 좋은 제품이라며 출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암 환자에게 이롭다면 의사들이 먼저 추천을 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먹이겠지요. 아마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식품업체들의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홍삼의 경우 암 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 개선이나 장기의 체력을 보강해주는 이점이 있지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말이다.<br/>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대다수는 진단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보완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항암작용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주변의 권유로 혹은 소문만 듣고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br/>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br/>다만 홍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간접 증명이 된 만큼 수술로 인해 축난 몸을 보양하자면 섭취해도 괜찮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각종 바이러스, 세균을 사멸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br/>이는 조재열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와 이만휘 경북대학교 교수팀의 ‘홍삼 유래 산성 다당체에 의한 대식세포의 분자적 활성 기전’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연구팀은 홍삼을 섭취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F-κB, AP-1, STAT-1, ATF-2, 및 CREB 등 면역단백질의 핵 내 이동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인자(산화질소, 활성산소 및 종양괴사인자 등)들이 활발하게 분비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규명했다.<br/>한 대학병원 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적으로 홍삼이 항암작용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홍삼을 먹어서 암세포가 아주 작아졌다는 엄청난 효과는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으니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5.txt

제목: [인터뷰] 길병원 혈액종양내과 신동복 교수 “싱겁기만 한 음식, 암환자의 ‘먹는 즐거움’ 뺏아간다”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3  
본문: 암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병이다. 한 달 전 먹은 삼겹살이 원인일 수 없고 연일 계속된 음주가 발병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행해온 잘못된 식습관이 암 덩어리를 키운 것인데, 이를 역설적으로 따져보자면 암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단은 재발 가능성을 낮출 뿐 내 몸에 이미 자리한 암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에도 대다수 암환자와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엄격한 식단에 얽매여 양질의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동복 교수(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암환자가 많다. 탈수 및 저혈당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는 암환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영양관리가 어렵다. 이럴수록 환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보호자는 이와 거꾸로 완치라는 명목 하에 일반인들에게도 맛없는 음식을 암환자의 식단으로 짠다. 가령, 환자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자주 먹여서 영양공급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br/>종양 제거 수술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앞둔 암환자라면 빨리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 암환자들은 채식 위주로만 식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신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체력전’에 비유하며 체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 단백질 섭취가 항암치료 성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체력이 떨어진 환자는 후속치료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br/>항암치료에 들어간 환자는 입맛이 변하고 식욕이 떨어진다. 치료를 거듭할수록 부작용에 따른 고통이 커지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다. 대안은 단순하게도 ‘더 잘 챙겨 먹는 것’이다. 신동복 교수는 “잘 먹어야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다. 싱거운 음식들로만 채운 식단은 식욕부진을 개선하지 못하고 악화시킬 뿐이다. 짠 것, 불에 그을린 것, 상한 것 등을 제외하고 암환자가 되기 이전에 즐기던 음식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br/>특히 신 교수는 메스꺼움, 식욕부진 등 항암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식욕을 촉진하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현재 ‘메게이스(성분명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는 항암치료에 따른 식욕부진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 감소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 약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초기에는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됐지만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상당히 좋아 지금은 식욕촉진제로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일시적으로 부신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복용 간격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정상인은 몇 끼 굶어서 체중이 감소해도 신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암환자의 체중 감소는 대사 장애를 유발한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귀동냥으로 얻은 영양정보에 치우치지 말고, 환자가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약의 도움을 받아 정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신동복 교수는 “<span class='quot0'>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한데 이는 암 환자도 마찬가지</span>”라며 “<span class='quot0'>치료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줄이는 것이 완치와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span>”이라고 강조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6.txt

제목: 치료비가 더 무서운 癌, 정부 지원 노크해보세요  
날짜: 201404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25  
본문: 2012년 한 해 암 진료 인원은 98만4166명이고 진료비는 4조1491억원, 급여비는 3조8515억원이다. 즉 2976억원(약 7.7%)을 암환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비급여(선택진료비, 치료재료비, 병실료, 간병료, 약제비 등)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br/>이 같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을 중심으로 보장성강화 계획을 밝혔는데 우선적으로 고가 항암제, MRI 등 영상 검사, 첨단수술 및 치료 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해 새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급여기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선택진료비도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 부담을 35% 축소하되 2017년까지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며, 병상도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br/>최근에는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월 투약비용 약 45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약 23만원)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월 투약비용 약 60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약 30만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돼 암환자의 부담이 덜어졌다.<br/>그렇다면 정부가 암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의료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의 암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국가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중증(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서비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등이 있다.<br/>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은 암으로 확진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확진일로부터 5년) 외래(약국 포함)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비급여 제외)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암 확정 진단 후 동사무소(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건강보험가입자)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록 가능여부를 등록처에 확인하면 된다.<br/>소아 암환자의 경우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에 대해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을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한다.<br/>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기준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만5000원, 지역 8만9000원)에 적합한 원발성 폐암에 대해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3년간 지원한다.<br/>재가 암환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재가 암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 생존자 등)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일 경우 취약계층 암환자와 말기암환자를 우선 지원한다. 가정간호서비스 증상 및 통증조절, 치료약품·소모품 등의 물품지원, 정서적·영적 지지, 자원봉사자 서비스,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등을 무료 지원하는데 관할지역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br/>말기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한다면 완화의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있다.<br/>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겪는 신체·심리·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간호·사회복지·자원봉사 및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7.txt

제목: 치료비가 더 무서운 癌, 정부 지원 노크해보세요  
날짜: 201404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38  
본문: 2012년 한 해 암 진료 인원은 98만4166명이고 진료비는 4조1491억원, 급여비는 3조8515억원이다. 즉 2976억원(약 7.7%)을 암환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비급여(선택진료비, 치료재료비, 병실료, 간병료, 약제비 등)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br/>이 같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을 중심으로 보장성강화 계획을 밝혔는데 우선적으로 고가 항암제, MRI 등 영상 검사, 첨단수술 및 치료 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해 새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급여기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선택진료비도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 부담을 35% 축소하되 2017년까지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며, 병상도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br/>최근에는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월 투약비용 약 45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약 23만원)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월 투약비용 약 60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약 30만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돼 암환자의 부담이 덜어졌다.<br/>그렇다면 정부가 암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의료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의 암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국가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중증(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서비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등이 있다.<br/>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은 암으로 확진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확진일로부터 5년) 외래(약국 포함)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비급여 제외)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암 확정 진단 후 동사무소(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건강보험가입자)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록 가능여부를 등록처에 확인하면 된다.<br/>소아 암환자의 경우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에 대해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을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한다.<br/>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기준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만5000원, 지역 8만9000원)에 적합한 원발성 폐암에 대해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3년간 지원한다.<br/>재가 암환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재가 암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 생존자 등)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일 경우 취약계층 암환자와 말기암환자를 우선 지원한다. 가정간호서비스 증상 및 통증조절, 치료약품·소모품 등의 물품지원, 정서적·영적 지지, 자원봉사자 서비스,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등을 무료 지원하는데 관할지역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br/>말기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한다면 완화의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있다.<br/>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겪는 신체·심리·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간호·사회복지·자원봉사 및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8.txt

제목: [암 수술 잘하는 병원-조선대병원 산부인과] “자궁암이어도 자녀 셋 출산 거뜬합니다”  
날짜: 20140415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29  
본문: “자궁경부암 크기가 커 자궁을 들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의사의 검진결과를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죠. 주치의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암세포를 제거하면 사는 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이라 부담이 컸지요.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자궁을 들어내 버리면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항암치료를 하면서 차도를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암 크기가 점점 커져 상황이 더 악화됐지요. 결국 자궁 적출을 결심했어요. 그 과정에서 운 좋게도 한세준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br/>전남 목포에 사는 김정미(39·가명)씨는 10년 전인 2005년 8월,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던 당시의 힘들었던 심정과 그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세준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부인종양학) 교수를 만난 그때를 회고했다.<br/>당시 김씨의 상태는 자궁경부암 1기 말로 주치의로부터 자궁적출 수술을 권유받는다. 암 크기가 두꺼웠던 김씨의 상태를 봐서는 자궁을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고 항암치료만 했다가는 암이 급격히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던 중 김씨는 한 교수의 광역학을 이용한 암 치료 사례를 접하게 된다. 자궁을 들어내지 않고 자궁암을 수술할 수 있다는 소식에 김씨는 곧바로 한 교수를 찾는다.<br/>김씨는 “<span class='quot0'>임신과 출산이 어찌 목숨과 같을 수 있으랴만, 미혼인 제게는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span>”고 당시의 간절함을 담은 편지 한 통을 김 교수에게 건넨다.<br/>이후 10년이 지나 지난 4월 11일 둘째 딸을 출산했다. 첫째 딸은 광역학 치료로 자궁 내 암세포가 제거된 후 시험관 아기에 성공해 2009년 8월 자연분만으로 출산에 성공했다.<br/>보통 자궁암에 걸린 여성 대다수는 항암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심해지거나 차도가 없어지면 자궁적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br/>다행스러운 것은 김씨의 사례처럼 자궁경부암에 걸렸지만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도 광역학 치료를 통해 자궁 내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술법이 개발됐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20∼30대 젊은 미혼 여성들도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상황에서 광역학 치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br/>현재 한 교수가 광역학 치료를 통해 자궁암을 시술한 건수는 169건에 달한다. 169건의 수술 중에는 단 한 건의 실패 사례도 없었다. 또 자궁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됐고,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도 출산에 성공했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자궁을 들어내야 하는 기존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는 한 교수가 진행한 ‘생식기능 보존을 원하는 젊은 여성의 자궁암 환자에서 항암화학 광역학 치료 후 성공한 임신 분만’ 연구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됐다.<br/>한 교수에 따르면 광역학을 이용한 자궁암 수술은 치료 중에 출혈이 전혀 없는 게 큰 장점이며 통증이 없으므로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과 출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외래에서 수술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으며 수술에 대한 제한성이 없어 여러 번 수차례 수술을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다.<br/>한 교수는 “<span class='quot1'>광역학 치료는 체내의 산소와 빛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물질(광과민 물질)이 빛에 의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단일한 산소와 이를 통해 유발되는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이 각종 병변부위와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최소 침습적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광역학 치료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환자들의 문의가 많이 온다</span>”며 “<span class='quot1'>젊은 나이에 자궁암에 걸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광역학 치료의 시술이 대중화됐으면 하는 바람</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광역학 시술은 빛을 유도하는 물질을 정맥주사에 투여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광역학 시술을 받은 환자는 햇빛에 주의해야 한다. 시술 후 6주까지는 외출 시 긴 소매 옷과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햇빛을 피해 가급적 흐린 날이나 야간에 외출해야 한다. 또 시술에 쓰이는 약물(광감각제)에 반응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광역학 치료비용은 대략 200만원 선이며,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여서 보험의 혜택이 없는 게 아쉬움 점이다.<br/>광주=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mide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09.txt

제목: [환우들의 이야기-건국대병원 ‘에델바이스’] “비슷한 처지 동료들 만나 생각·감정 공유”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2  
본문: 낯선 곳에서 만난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가장 편한 길을 알려준다. 암 환우회는 ‘완치’로 가는 고된 여행 중에 만난 가이드로, 암이 낯설고 두려운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심어주고 더불어 영양가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완치로 가는 좀 더 쉬운 길을 안내한다. 건국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환우회지만 구성원은 다양하다. 인천, 용인, 이천 등 각지에서 환우들이 찾아온다.<br/>에델바이스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 강영자씨는 3년 전 모든 치료를 끝냈다. 암 환자일 당시에도 환우회 활동을 열심히 한 그녀지만 완치 후에도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씨는 “<span class='quot0'>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에델바이스를 계속 찾는 이유</span>”라고 말했다.<br/>에델바이스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노래교실을 연다. 인터뷰를 위해 강씨를 찾은 날도 에델바이스 회원들의 노래연습이 있는 날. 강씨는 “<span class='quot0'>암을 안고서도 일상을 얼마나 즐기는지가 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span>”라며 “<span class='quot0'>회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내가 암환자란 사실을 잊게 해 주어 치료 과정이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유방암은 질환의 특성상 여성성을 상징하는 유방을 잃을 수 있는 병이다. 이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괜한 자격지심으로 외로워진다. 치료 중은 물론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에델바이스에서는 남편에 대한 고민이나 암에 대한 걱정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br/>에델바이스의 장점을 묻자 강씨는 회원수가 적은 점을 들었다. 그녀는 “적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서로에게 눈길 한 번 더 가게 되고 손 한 번 더 잡게 된다. 그렇다 보니 내성적인 환우일지라도 소외되는 법이 없다. 비록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우도 있지만 함께 모여 합창연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어느새 또 하나의 가족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br/>하지만 환우회 활동을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환자가 환우회를 통해 암을 극복한 사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대체요법과 보완요법 등에 심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정현 건국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환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환우일수록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span>”며 “<span class='quot1'>유방암의 길을 먼저 걸었던 암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듣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현명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2'>환우회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인간관계는 투병 중 겪는 심적인 고통을 상당히 덜어주어 향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0.txt

제목: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장 양정현 박사에 듣는다] 30∼40대 많이 발생… 고주파 온열치료 효과 불확실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5  
본문: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의 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기획연재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치료’ 주제의 의사·환자 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일 진행된 ‘유방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는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정현 (사진) 의료원장이 강사로 나서 암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유방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br/>유방암은 유방의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이 질병은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지만, 남성에서도 전체 유방암의 약 1% 정도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방암은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은 30대와 4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1일 진행된 ‘유방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자와의 대화에서 양정현 의료원장은 이러한 유방암에 대한 다양한 질환 정보와 수술 후 보존치료에 대해 설명했다.<br/>이날 한 환자는 ‘유방암 치료 시 고주파 온열치료의 효능’에 대해 물었다. 양정현 의료원장은 “효능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권장하는 치료는 아니다”라며 “일부 암세포는 온도가 올라가면 살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온열요법을 암치료에 사용하고, 고주파는 간암이나 갑상선암에서 혹 자체를 고주파로 열을 가해 괴사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외과적 수술과 표면수술에서 위암이나 간암과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주파 영역이 좁기 때문에 추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한 암치료가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양 의료원장은 아주 수술을 못하는 조건이라면 고주파치료도 괜찮다고 덧붙였다.<br/>일반적으로 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먹는 것에 민감하다. 유방암도 마찬가지. 이날 환자와 가족들은 유방암 환자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양정현 의료원장은 “한마디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암 환자가 치료 과정 중 비만을 유발하는 식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술을 자제해야 한다. 술은 그 자체로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도 섭취를 줄여야 한다.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또는 유방암 치료 과정 중엔 신선한 야채나 과일, 비타민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권장된다. 양 의료원장은 “일부에서는 콩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콩 그 자체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하지만 콩의 성분을 농축시켜서 식품으로 먹는 형태인 두부, 두유 등은 해롭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인들의 경우 서양인이 비해 유방암 발병 빈도가 높지 않은데, 이는 콩과 관련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br/>유방암 치료 시 좋은 음식으로 양 의료원장은 오메가3가 함유된 등푸른 생선을 추천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꽁치, 고등어 등이 있다. 다만 그는 “암 예방·치료와 연관된 음식 관련 연구들은 결과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으로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유방암 예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단의 경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개발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학적으로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건강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또한 지나치게 채식 위주로 건강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양 의료원장은 “채식만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살코기는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항암치료 시 면역력과 관련해서 홍삼을 복용해도 괜찮은지 묻는 환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양 의료원장은 “홍삼은 양면성이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반대로 홍삼이 여성호르몬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여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암 전이와 재발을 유발할 수 있어 양면성을 고루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석류와 칡의 경우 식품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함량이 농축된 제제 형태로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회나 날 음식을 먹는 것은 특히 삼가야 한다.<br/>이날 환자들은 폐경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과 유방암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한 환자는 골다공증이 있다면 뼈 전이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양정현 의료원장은 “골다공증이 유방암 전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D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항암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고 조언했다. 유방암 환자의 평상시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양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치료 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 간단한 운동으로 몸을 약간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span>”고 설명했다.<br/>한 환자는 “수술 후에 약을 주는 경우와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었다. 양 의료원장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항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암세포가 항호르몬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경우이다. 수용체가 없다면 항호르몬제 효과가 없다. 현재 60∼70%는 수용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적절한 치료만 하면 조기 유방암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거의 완치된다. 하지만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 따라서 가족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정현 의료원장은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혹시나 내가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학적인 유방암 치료 기술과 약물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유방암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1.txt

제목: 카엘젬백스, 섬유증 억제 효과 특허 출원 완료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32  
본문: [쿠키 건강] 차세대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는 ‘GV1001’이 섬유증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br/>일반적인 암 조직에서 세포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유발하는 섬유증은 항암치료제 및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항암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이번 출원은 ‘GV1001’이 췌장암 조직에서 유발되는 섬유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규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항암치료제가 암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향상 시켜, 소량의 항암제의 투여로 부작용 감소 및 효율적인 치료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br/>카엘젬백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GV1001의 섬유증 억제효능은 기존 항암치료제의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항암치료제와 병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2.txt

제목: 정부기관이 나선 537억 담배訴 시작… 건보, 승소 자신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161  
본문: 정부기관이 나선 국내 첫 담배소송이 첫발을 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 시장점유율 1∼3위 담배제조·수입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말보로’ ‘버지니아슬림’, BAT는 ‘던힐’ 제조·판매사다.<br/>◇정부의 첫 담배소송, 승소 확률은=소송은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건보공단이 지불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3484명 중 흡연 이력이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환자들이 선별됐다. 537억원은 건보공단이 2003∼2012년 이들의 암 치료를 위해 지불한 진료비 총액이다.<br/>개인 암 환자들이 낸 담배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와 함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건보소송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안선영 고문 변호사는 “공단은 19년간 쌓은 의학적 빅데이터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정보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출발부터 다른 소송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br/>◇건보소송 vs 개인소송, 다른 점은=피고에 필립모리스·BAT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차이다. 필립모리스·BAT 모두 해외 소송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폭로돼 패소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 개인들이 전패한 국내 담배소송의 피고 측 담배회사는 KT&G 한 곳뿐이었다.<br/>필립모리스는 2006년 미국 연방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당시 판결문을 통해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을 조작하고 유해성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BAT는 미 주정부와 거액 배상금에 합의하며 관련 기밀문서를 전부 공개했다. 불법 행위의 증거 자료는 풍부한 셈이다.<br/>물론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제조방법과 영업 전략을 사용했다는 건 입증돼야 한다.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span class='quot0'>다국적 담배회사가 제조법과 마케팅 측면에서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KT&G, 자료 내놓을까=그동안 KT&G 측은 “설탕 등 인체에 무해한 성분만 담배에 첨가한다. 암모니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br/>암모니아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니코틴 흡수를 빠르게 해 중독성을 높인다. 이 때문에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첨가물로 평가받는다. 필립모리스·BAT 등은 이미 암모니아를 쓴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KT&G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br/>정 변호사는 “<span class='quot1'>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모두 넣은 첨가물을 KT&G만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합당한 증거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담배 제조과정의 비밀을 폭로할 내부 고발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br/>◇인과관계 입증, 공은 담배회사에=지난해 건보공단은 2003∼2012년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규모를 10조127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한 해 1조7000억원이다. 이번 소송가액이 피해액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37억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br/>2011년 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 흡연력 20갑년(하루 1갑 이상 20년 흡연) 이상’인 경우에는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추린 이번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 대신 피고 측에 넘어간다. 피고인 담배회사가 ‘흡연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br/>안선영 변호사는 “<span class='quot2'>건보공단 소송이 개인소송보다 유리한 이유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상당부분 덜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영미 황인호 기자 ym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3.txt

제목: [삼성, 백혈병 논란 입장 표명]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 2년 후 사망… 사건 발단된 ‘황유미씨 사건’  
날짜: 20140415  
기자: 선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167  
본문: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황유미씨는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돼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혈병 발병이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정부가 나서 반도체 사업장의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달라질 것은 없었다.<br/>2010년 황씨의 유족과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 4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안전보건컨설팅 회사를 불러들여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공장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물질이 모두 외부 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span>”고 판단했다.<br/>판결 한 달 뒤 근로복지공단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업체 조사결과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낸 뒤였다. 그렇지만 삼성을 향하는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삼성전자는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br/>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재생불량성 빈혈(혈액암의 일종)을 산재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첫 혈액암 산재 인정 사례였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노력 끝에 산재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종류가 기존 9종에서 21종으로 늘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도 14종에서 35종으로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br/>2013년 1월 삼성전자는 피해자 측에 대화를 제의했고 이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와 협상이 진행됐다. 2013년 12월 첫 번째 본 협상이 시작됐다.<br/>그러나 이 사이에도 삼성전자에 불리한 사례들이 쌓여만 갔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김경미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r/>당시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발암 의심 물질에의 노출 여부와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개봉해 45만명이 관람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황씨 사건에 대한 반향을 일으키며 이번에 삼성전자가 입장을 표명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br/>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4.txt

제목: 정부기관이 나선 첫 담배소송… 이길 확률은?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20  
본문: [쿠키 사회] 정부기관이 나선 국내 첫 담배소송이 첫발을 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 시장점유율 1~3위 담배제조·수입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말보로’, ‘버지니아슬림’, BAT는 ‘던힐’ 제조·판매사다.<br/>◇정부의 첫 담배소송, 승소 확률은=손해배상의 취지는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건보공단이 지불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3484명 중 흡연 이력이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환자들이 선별됐다. 537억원은 건보공단이 2003~2012년 이들의 암 치료를 위해 지불한 진료비 총액이다.<br/>개인 암 환자들이 낸 담배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와 함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건보소송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안선영 고문 변호사는 “공단은 19년간 쌓은 의학적빅데이터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정보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출발부터 다른 소송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br/>◇건보소송 vs 개인소송, 다른 점은=결정적 차이는 피고에 필립모리스·BAT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필립모리스·BAT 모두 해외 소송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폭로돼 패소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 그동안 개인들이 전패한 국내 담배소송의 피고측 담배회사는 KT&G(한국담배인삼공사) 한 곳 뿐이었다.<br/>필립모리스는 2006년 미국 연방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당시 판결문을 통해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을 조작하고 유해성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BAT의 경우에는 미 주정부와 거액의 배상금에 합의하며 기밀문서 제공을 약속해 관련 자료가 전부 공개돼있다.<br/>물론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제조방법과 영업전략을 사용했다는 건 입증돼야 한다.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span class='quot0'>다국적 담배회사가 제조법 마케팅 측면에서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KT&G, 자료 내놓을까=그간 KT&G 측은 소송 과정에서 “설탕 등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첨가물로 넣고 있다. 암모니아는 넣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암모니아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니코틴 흡수를 빠르게 해 중독성을 높이는 첨가물이다. 개인소송 과정에서도 국내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범위는 논란이 됐지만 KT&G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br/>정미화 변호사는 “<span class='quot0'>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모두 넣은 첨가물을 KT&G만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합당한 증거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담배 제조과정의 비밀을 폭로할 내부 고발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br/>◇인과관계 입증, 공은 담배회사에=지난해 건보공단은 2003~2012년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비 중 공단의 급여비 지출규모를 10조127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한해 1조7000억원이다. 이번 소송가액이 피해액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37억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br/>2011년 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 흡연력 20갑년(하루 1갑 이상 20년 흡연) 이상’인 경우에는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추린 이번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 대신 피고측에 넘어간다. 피고인 담배회사가 ‘흡연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황인호 기자 ym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5.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두경부암 무료검진의 날’ 23일 개최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51  
본문: [쿠키 건강] ‘말하고, 먹고, 숨 쉬는 것’<br/>신체의 여러 기능 중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기능들이다. 하지만 이 곳에도 ‘암’은 발생한다. 바로 두경부암이다.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두경부암은 연간 40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흔한 암으로 전체 암 발생 장기 중 5~6위에 해당한다.<br/>코와 목, 구강, 혀, 침샘,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두경부암은 발생 부위가 얼굴과 목이니만큼 치료에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암 병변 부위를 절제하기가 쉽지 않고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손상된 외모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암이기도 하다. 구강암의 경우 1기 완치율은 90~95%이며 후두암 1기도 84%의 5년 생존율을 나타낸다.<br/>국제성모병원은 두경부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두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두경부암 무료 검진 및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23일 14시, 국제성모병원 마리아홀 대강당에서는 ‘두경부암의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로 이비인후과 홍현준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용호 교수의 강의가 진행돼 일반인에게 두경부암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과 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어서 15시부터 두경부암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시행한다.<br/>이 날 행사를 기획한 홍현준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두경부암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자가 검진을 통해 미리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한 귀와 목, 코와 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고 말했다.<br/>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세계적으로 개최되는 ‘두경부암 인식 주간’의 일환이기도 한 이날 국제성모병원의 공개 강좌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 참관할 수 있으며 두경부암 무료검진은 선착순 50명에 한해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무료검진 사전 접수는 032)290-3052에서 가능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6.txt

제목: 고난주간 연합 촛불기도회… 이종윤 목사 “한국교회, 말기암 환자같다”  
날짜: 20140415  
기자: 유영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427  
본문: 서울기독청년연합, 통일소망선교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광장기도연합’ 회원 500여명이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고난주간 연합 촛불기도회를 열었다. 북한 구원과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도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성의 간증영상을 상영한 뒤에는 기도소리가 더 커졌다.<br/><br/>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 대표 손인식 목사는 “<span class='quot0'>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이 걸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자</span>”고 권면했다.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목사는 “<span class='quot1'>한국교회가 말기 암 환자증세를 보이고 있다</span>”고 경고하면서 “<span class='quot1'>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같은 시각 부산역과 대구역, 충남 당진 버스터미널, 울산 태화로터리, 강원도 원주체육관 앞,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오테오 광장 등 국내외 20개 도시에서 기도가 이어졌다.<br/><br/>통일광장기도회는 독일의 월요기도모임을 모델로 2011년 10월부터 매주 열리고 있다. 1981년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된 월요기도모임은 9년간 촛불 기도회로 이어지면서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br/><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7.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해조의 섬 완도, 항암의 섬으로 재탄생… 후코이단 생산사업 주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536  
본문: 지난 4월 11일 개막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 미역귀로 만든 항암성분 후코이단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책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완도군이 항암 후코이단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 1996년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이후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SCI급 논문만 1100편이 넘는다.<br/>연구가 계속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 공인된 항암효과는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 덩어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해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 등 4가지다.<br/>완도군은 후코이단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3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금을 조성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설립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완도군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규모의 후코이단 전문기업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완도가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완도군이 이처럼 후코이단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의 품질이 좋기 때문. 실제로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품질의 평가기준인 황산기의 함량이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후코이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이 보통 15% 이하의 황산기 함량에 비해,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은 30%를 넘는다.<br/>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해림후코이단의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은 생미역귀로 환산해 2000톤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코이단 전용 생산시설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 또 해림후코이단은 웹사이트 www.fucoidanmall.or.kr에서 후코이단 무료 샘플신청을 받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8.txt

제목: 해조의 섬 완도, 항암의 섬으로 재탄생… 후코이단 생산사업 주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31  
본문: 지난 4월 11일 개막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 미역귀로 만든 항암성분 후코이단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책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완도군이 항암 후코이단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 1996년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이후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SCI급 논문만 1100편이 넘는다.<br/>연구가 계속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 공인된 항암효과는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 덩어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해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 등 4가지다.<br/>완도군은 후코이단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3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금을 조성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설립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완도군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규모의 후코이단 전문기업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완도가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완도군이 이처럼 후코이단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의 품질이 좋기 때문. 실제로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품질의 평가기준인 황산기의 함량이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후코이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이 보통 15% 이하의 황산기 함량에 비해,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은 30%를 넘는다.<br/>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해림후코이단의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은 생미역귀로 환산해 2000톤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코이단 전용 생산시설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19.txt

제목: 해조의 섬 완도, 항암의 섬으로 재탄생… 후코이단 생산사업 주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1  
본문: 지난 4월 11일 개막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 미역귀로 만든 항암성분 후코이단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책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완도군이 항암 후코이단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 1996년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이후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SCI급 논문만 1100편이 넘는다.<br/>연구가 계속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 공인된 항암효과는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 덩어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해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 등 4가지다.<br/>완도군은 후코이단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3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금을 조성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설립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완도군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규모의 후코이단 전문기업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완도가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완도군이 이처럼 후코이단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의 품질이 좋기 때문. 실제로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품질의 평가기준인 황산기의 함량이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후코이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이 보통 15% 이하의 황산기 함량에 비해,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은 30%를 넘는다.<br/>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해림후코이단의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은 생미역귀로 환산해 2000톤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코이단 전용 생산시설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0.txt

제목: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 당일 진찰·당일 검사 원칙… 2013년 총 402건 수술 시행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0  
본문: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양정현·의료원장)는 지난해 총 402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월 평균 33.5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것이며, 지난 2005년 8월 새 병원이 문을 연 이후의 누적 수술 건수는 1565건이다. 현재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성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됐다.<br/>유방암센터는 특히 유방암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최신의 유방촬영, 초음파, 조직검사 기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을 도입했으며, 당일 진찰과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전문의들 간의 협진을 제공한다. 또한 최신 장비인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양성 혹을 작은 상처만 남기고 깨끗이 치료하고 있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유방암 진료 및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감시림프절 생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유방절제술 등 최신의 수술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가슴의 절제 없이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유방보존술의 비율이 80.8%(325건)로 미국이나 유럽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br/>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병기별로 보면 1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기가 32.3%, 0기가 17.1%, 3기가 10.2%, 4기가 2%, 기타 0.5%로 나타났다.<br/>이러한 성과로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평균 99.2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전문 인력 구성 여부를 비롯해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전신상태 평가 기록,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병리학적 기록보고서의 충실률과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다수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9월 유방암센터를 개설한 뒤 그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술이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span>”고 평가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1.txt

제목: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 당일 진찰·당일 검사 원칙… 2013년 총 402건 수술 시행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60  
본문: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양정현·의료원장)는 지난해 총 402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월 평균 33.5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것이며, 지난 2005년 8월 새 병원이 문을 연 이후의 누적 수술 건수는 1565건이다. 현재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성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됐다.<br/>유방암센터는 특히 유방암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최신의 유방촬영, 초음파, 조직검사 기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을 도입했으며, 당일 진찰과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전문의들 간의 협진을 제공한다. 또한 최신 장비인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양성 혹을 작은 상처만 남기고 깨끗이 치료하고 있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유방암 진료 및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감시림프절 생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유방절제술 등 최신의 수술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가슴의 절제 없이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유방보존술의 비율이 80.8%(325건)로 미국이나 유럽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br/>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병기별로 보면 1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기가 32.3%, 0기가 17.1%, 3기가 10.2%, 4기가 2%, 기타 0.5%로 나타났다.<br/>이러한 성과로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평균 99.2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전문 인력 구성 여부를 비롯해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전신상태 평가 기록,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병리학적 기록보고서의 충실률과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다수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9월 유방암센터를 개설한 뒤 그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술이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span>”고 평가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2.txt

제목: [질환 바로알기-두경부암] 수술 포함한 병합치료가 일반적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54  
본문: [쿠키 건강] 두경부란 가슴 윗부분을 통칭하며 상부 호흡기관과 소화기계가 위치하는 곳이다. 두경부암은 생리적으로 숨 쉬고 먹고 말하는 중요한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식생활, 흡연,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들어 구인두암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인 노영수 교수(사진)의 도움말을 통해 ‘두경부암’에 대해 알아본다.<br/>◇두경부암의 종류는?<br/>인구의 노령화로 두경부암의 발생빈도는 증가 중이며 장기별 암 발생기준으로 보면 7위, 남자환자 기준으로 보면 5위에 해당하며 그 발생빈도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특징적인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후두, 인두, 혀, 안면의 일부 등의 결손이 불가피하여 환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br/>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비강 및 부비동암, 비인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타액선암, 갑상선암, 임파선암, 그리고 기타 두경부 악성 종물 등이 있다. 비강 및 부비동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종 중 약 2.2% 정도로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주된 치료법이 수술 및 방사선치료이다.<br/>비인두암은 약 0.4%정도로 드문 암으로 치료는 최근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의 병합치료가 최근의 주된 치료법이고 재발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br/>구강암은 혀에 생기는 설암이 대표적이다. 구강은 혀, 연구개, 협부 점막 등 8개의 부위로 나뉘며 수술이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구인두암은 편도암이 대표적이며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치료에 있어서 구강암과 마찬가지로 수술이 대표적인 치료법이다.<br/>하인두암은 상부 호흡소화기계에 발생하는 암중 5-10%를 차지하며 환자들의 대부분은 흡연 및 과량의 음주와 관련이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고 진행된 후에야 대개 연하곤란이나 연하통으로 내원하게 된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 혹은 항암치료를 병합하게 된다.<br/>후두암은 전체 악성종양의 2~5%를 차지하며, 두경부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흡연은 확실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초기 병기인 경우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음성을 보존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나 병기가 높은 경우에는 기관보존요법으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수술적 치료로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성대, 식도발성 또는 기계발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br/>타액선암은 이하선, 악하선 암으로 병리조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br/>갑상선암은 최근 초음파의 발달로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단일 장기 암으로는 유방, 자궁, 폐, 위 와 더불어 가장 흔한 암이다. 노영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치료는 주로 수술적 치료와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하나 수술의 범위는 단순 갑상선엽 절제에서 인접기관의 광범위 절제까지 병변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이중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후두, 기관 및 식도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두경부외과에서 주로 수술을 담당한다</span>”고 설명했다.<br/>◇두경부암의 진단과 치료<br/>일반적으로 외래를 통해 내원하여 암이 의심될 경우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며 조직검사가 요구될 시에는 수술을 예약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만약 암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입원 하에 PET-CT, 경부초음파, 위내시경, 대장조영술, 복부초음파, 골동위원소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전신전이 여부 및 다른 이상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br/>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보호자와의 면담 후 치료방법(수술적 치료, 방사선 혹은 항암치료)을 결정하고 이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이 있으나 초기 암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가지의 단독 치료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대개 두 가지 이상의 병합치료가 일반적이다.<br/>다른 장기의 악성종양과 비교했을 때 두경부암은 아직까지 수술을 포함하는 병합치료가 주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된 병기에서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br/>노영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후두 등의 주요 장기의 희생으로 수술 후 생리적 기능 장애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행 항암화학요법 후 종양의 치료반응 정도에 따라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다시 선택하거나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을 시행하는 ‘기관보존’ 개념의 치료법도 보편화되고 있어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등과 긴밀한 협진으로 다각적 치료가 필수적</span>”이라고 말했다<br/>과거에는 수술적 절제 후에 제거되는 부위의 기능적 상실로 인해 호흡곤란, 연하 및 발성 장애, 안면 결손 등이 발생해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등 수술의 한계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건성형분야의 미세수술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의 여러 조직을 수술로 제거된 부위에 이식함으로서 생리적, 기능적, 미용적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br/>이를 위해 두경부암은 그 진단과정에서부터 치료, 재건, 그리고 치료 후 재활에 이르기까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들의 다각적 협진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 종양의 완전한 제거, 결손의 최소화 및 기능적, 미용적 재건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두경부 종양의 치료에 있어, 특히 성형외과와의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계는 매우 중요하다.<br/>◇두경부외과는?<br/>이비인후-두경부외과 중 인후란 인두와 후두를 지칭하며 두경부외과란 뇌와 눈, 치아를 제외한 두부와 경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담당하는 외과적 분야를 의미한다.<br/>노영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구강, 타액선, 인두, 후두, 기관지와 경부 식도, 갑상선의 질환 및 경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의 진단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세분된 전문 의료 분과의 하나</span>”라며 “<span class='quot0'>조직학적으로는 주로 편평상피암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위에 따라 종양학적 특성이 달라서 발생 부위별로 상이한 치료 원칙을 갖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br/>한국인의 경우 후두암, 구강암, 인두암, 타액선암, 비강 및 부비동암의 순서로 호발하는데 두경부암의 발생 빈도는 전체 악성 종양 중 8위이다. 최근 진단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갑상선암을 포함할 경우 4번째로 호발하는 암에 해당된다.<br/>두경부 영역은 말하고, 숨쉬고, 삼키는 등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혈관, 뇌신경 등의 중요한 구조물이 우리 몸의 어느 다른 부위보다 복잡하게 위치하는 해부학적 특징이 있다.<br/>따라서 두경부암의 수술적 절제나 방사선치료는 여타 부위의 암에 비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적의 암치료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중 하나다.<br/>예를 들어 환자의 발성, 식이, 연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 중 영양 공급의 방법, 기도의 유지 방법, 의사 소통의 방법에 대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모의 심한 변형, 목이나 어깨의 운동 장애나 통증, 치아 결손이나 부정교합, 구강 건조증과 구강 점막의 손상 등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이면서도 각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포함한 관리가 필요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3.txt

제목: [인터뷰] 노영수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 “‘환자 삶의 질’ 최우선 고려”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457  
본문: 두경부암은 뇌를 제외한 귀·코·얼굴·구강·목과 관련해 생기는 암이다. 각 신체 부위별로 다양한 종양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 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고도로 전문적인 팀 단위의 치료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br/>두경부암은 생리적으로 숨 쉬고 먹고 말하는 중요한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식생활, 흡연,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영수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은 “두경부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어도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치료 방법 선택이나 치료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후두, 인두, 혀, 안면의 일부 등의 결손이 불가피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br/>◇환자 중심 진단과 치료=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는 이비인후-두경부외과 5명의 전문의와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전문의로 구성됐다. 암 진단과 치료 및 치료 후 환자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센터는 수술 이후 환자의 삶을 고려해 재활 치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진정한 환자 중심의 센터를 지향한다. 환자별 최적의 맞춤 치료를 위한 통합 진료시스템 구축이 큰 경쟁력이다. 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관련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 효율적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선택, 시행한 검사의 정확한 해석, 1차 치료 방법 및 추가적 치료 방법의 선택, 추적 관찰 중인 두경부암 환자의 재발 혹은 전이가 발견된 경우 진단·치료 방침 등을 함께 결정한다</span>”고 말했다.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외래에 설치된 최첨단 영상 진단기기는 질병의 위치와 정도를 환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인다.<br/>또한 △내시경 및 로봇을 이용한 첨단 수술 기법 △상처가 적은 미세 침습 수술 △전문 코디네이터의 1대 1 맞춤 서비스 등 차별화된 암 치료 서비스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였다.<br/>지난달 말 이대목동병원에 영입된 노영수 센터장은 두경부종양 수술 분야에서 탁월한 치료 성적을 자랑한다. 국내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의사로 평가받는 노 센터장은 연간 1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고, 대한두경부외과학회 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이사 및 기획이사, 대한기관식도학회 부회장,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두경부종양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학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br/>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두경부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과 목소리를 잃게 된다는 이중고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삶이나 가치관까지 고려하는 의료진의 섬세한 진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 센터는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와 함께 세심한 사후 관리까지 제공해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환자 마음까지 생각하는 치료=두경부암은 수술시간이 보통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고난도 분야이다. 이 센터는 수술 전 환자의 상태나 향후 치료 방법, 수술 위험, 성공률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최대한 파악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br/>두경부암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환자의 수술 부위가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이 센터는 수술 후 음성재활법, 식이재활법을 전문 의료진과 코디네이터의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다. 또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제공된다.<br/>이외에도 센터는 갑상선암과 두경부암 치료 영역에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첨단 수술기법을 도입해 빠른 회복과 최소한의 흉터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영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두경부암 임상 경험과 의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가 앞으로 이러한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환자가 찾아오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4.txt

제목: [인터뷰] 노영수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 “‘환자 삶의 질’ 최우선 고려”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3  
본문: 두경부암은 뇌를 제외한 귀·코·얼굴·구강·목과 관련해 생기는 암이다. 각 신체 부위별로 다양한 종양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 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고도로 전문적인 팀 단위의 치료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br/>두경부암은 생리적으로 숨 쉬고 먹고 말하는 중요한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식생활, 흡연,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영수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은 “두경부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어도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치료 방법 선택이나 치료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후두, 인두, 혀, 안면의 일부 등의 결손이 불가피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br/>◇환자 중심 진단과 치료=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는 이비인후-두경부외과 5명의 전문의와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전문의로 구성됐다. 암 진단과 치료 및 치료 후 환자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센터는 수술 이후 환자의 삶을 고려해 재활 치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진정한 환자 중심의 센터를 지향한다. 환자별 최적의 맞춤 치료를 위한 통합 진료시스템 구축이 큰 경쟁력이다. 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관련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 효율적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선택, 시행한 검사의 정확한 해석, 1차 치료 방법 및 추가적 치료 방법의 선택, 추적 관찰 중인 두경부암 환자의 재발 혹은 전이가 발견된 경우 진단·치료 방침 등을 함께 결정한다</span>”고 말했다.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외래에 설치된 최첨단 영상 진단기기는 질병의 위치와 정도를 환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인다.<br/>또한 △내시경 및 로봇을 이용한 첨단 수술 기법 △상처가 적은 미세 침습 수술 △전문 코디네이터의 1대 1 맞춤 서비스 등 차별화된 암 치료 서비스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였다.<br/>지난달 말 이대목동병원에 영입된 노영수 센터장은 두경부종양 수술 분야에서 탁월한 치료 성적을 자랑한다. 국내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의사로 평가받는 노 센터장은 연간 1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고, 대한두경부외과학회 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이사 및 기획이사, 대한기관식도학회 부회장,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두경부종양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학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br/>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두경부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과 목소리를 잃게 된다는 이중고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삶이나 가치관까지 고려하는 의료진의 섬세한 진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 센터는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와 함께 세심한 사후 관리까지 제공해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환자 마음까지 생각하는 치료=두경부암은 수술시간이 보통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고난도 분야이다. 이 센터는 수술 전 환자의 상태나 향후 치료 방법, 수술 위험, 성공률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최대한 파악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br/>두경부암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환자의 수술 부위가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이 센터는 수술 후 음성재활법, 식이재활법을 전문 의료진과 코디네이터의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다. 또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제공된다.<br/>이외에도 센터는 갑상선암과 두경부암 치료 영역에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첨단 수술기법을 도입해 빠른 회복과 최소한의 흉터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영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두경부암 임상 경험과 의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가 앞으로 이러한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환자가 찾아오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5.txt

제목: 고대안암병원 20일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 건강강좌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420  
본문: [쿠키 건강] 고대안암병원은 오는 4월 17일(목) 오후 2시 8층 중회의실에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에 대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스포츠의학센터 이진혁 운동처방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통증을 줄여줄 다양한 운동법이 소개된다.<br/><br/>암환자 및 가족과 관심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의료는 무료다. (문의: 02-920-6569, 6670)<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6.txt

제목: [건강나침반] 갑상선암과 환자의 알권리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1  
본문: 최근 갑상선암과 관련된 논란의 요점은 과잉 진단과 과잉치료이다. 갑상선암이 한국에서만 10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 수치를 보면 과잉 진단부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원래 갑상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절이 생기기 쉽고 수십년 후 이 중 아주 일부에서만 나쁜 암으로 변해간다. 따라서 전체 갑상선 결절 중 암일 경우는 매우 적고 심각한 암은 극소수에 불과하다.<br/>만일 폐암이나 간암처럼 위험한 암이라면 치료할 것인가 지켜볼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갑상선암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먼저 지켜볼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1cm 이하의 경우는 지켜보다 커지는 경우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나 전이률, 생존율에 영향이 없었다는 보고도 있어 미혼의 경우나 당장 수술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br/>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암을 포함해 갑상선을 일부만 제거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피할 것인가, 모두 제거하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20년간 2만명 이상의 환자를 연구한 한 미국의 연구에서 1cm 이하의 갑상선 암을 부분 절제한 경우나 모두 제거한 경우 생존율과 전이률에 차이가 없었다. 만일 부분 절제술 생존율이 96%이고 전절제술 생존율이 97%라는 설명에 부분 절제술을 선택했을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런 설명 없이 전절제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들었다면 그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환자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갑상선학회의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내분비 내과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거의 모든 갑상선 암을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절제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분 절제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즉 이 권고안은 전절제술을 원칙으로 하는 의사들에게 아주 작은 유두암조차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권고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결코 치료지침이 아니며 단체마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권고안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제 미국갑상선학회 권고안 제정에 참여한 동일 의사들 여럿이 미국 국립암네트워크 권고안에도 참여, 이 둘의 권고 사항에 차이가 있어 권고안이 순수하게 환자 편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소속 단체의 입장도 반영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br/>문제는 한국 의사들이 미국갑상선학회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갑상선 전절제술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됐다는 점이다. 마치 권고안이 갑상선암 모두 제거 면허증처럼 사용돼 아무리 작아도 모두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게 됐다. 아무리 착하고 작더라도 일단 암이라면 사람들은 놀라고 낙심하게 된다. 이런 환자들에게 암이니까 전이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단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은 아닐까?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극단적 치료를 강요한다면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양식 있는 의사라면 과장 없는 진실을 설명해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이용식 교수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 외과)<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7.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신정범 상무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4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9  
본문: 항암 치료의 역사를 바꾼 HER2 표적 단일클론 항체 항암제 ‘허셉틴’, 혈관형성 억제 항암제 ‘아바스틴’, 단일클론 항체 항암제 ‘맙테라’. 이 항암제들은 각각의 독특한 작용기전으로 치명적인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환자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의약품이다. 올해로 119년의 역사를 가진 로슈그룹은 이들 의약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약사이자, 전 세계 1위의 항암제 분야 리더다.<br/>한국로슈도 ‘혁신’을 지향하는 로슈그룹 전략에 따라 한국인에게 항암제, 면역억제제, 항바이러스제 등 혁신적인 신약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신임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으로 임명된 신정범 상무는 지난 4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로슈는 항암제 분야의 리더로서 다각화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암 치료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며 “혁신적인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15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만이 항암제 등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비결”이라고 말했다.<br/>최근 한국로슈는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보험급여 적용을 이뤄냈다. 이에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신 상무는 “사실 글로벌 본사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에는 해당 의약품의 효능, 경제성 평가를 설명해야 하고 글로벌 본사에는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약가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도 사기업이므로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한국의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br/>로슈그룹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알려져 있다. 한 해 그룹 매출의 18%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슈그룹은 매출의 약 18.6%인 87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0조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R&D에 투자했다. 신 상무는 “<span class='quot0'>이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span>”라고 비유했다.<br/>실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유럽연합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2013’에 따르면 로슈그룹은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세계 2000개의 기업 중 제약 기업의 투자 규모로 1위를 차지했다.<br/>로슈그룹은 전세계 8개국에 18개 곳의 R&D 시설을 보유했다. 일본의 쥬가이 제약을 포함한 3개의 독립된 연구 개발 부서도 가지고 있다. 로슈그룹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제넨텍은 인수 후에도 독립적인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막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신 상무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외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Open Innovation’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 등 150개 이상의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특히 로슈그룹은 한국인 의료진과도 많은 협력관계를 이뤄내고 있다. 신 상무는 “<span class='quot0'>한국의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로슈도 이 같은 우수성을 인식하고 임상 초기 단계부터 국내 우수 연구진의 참여를 확대해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로슈는 2002년 이후 총 99건의 다국가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총 508개 기관 및 5183명의 환자가 임상연구에 참여했다.<br/>혁신적인 신약개발을 일궈낸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상무는 “로슈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실패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진정 혁신을 원한다면 한국 제약사도 실패를 용납하는 기업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8.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일양약품 신약 ‘슈펙트’] 백혈병 1차 치료제 허가 받나  
날짜: 201404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8  
본문: 국산 18호 백혈병 치료제 신약인 일양약품의 ‘슈펙트’(사진)가 1차 치료제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임상3상 환자 등록이 완료되고 약물 투여와 관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약물 투여와 관찰을 마치면 3년 6개월에 걸친 임상3상 시험이 완료된다.<br/>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는 일양약품의 기술진이 자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한 슈펙트는 현재 2차 치료제로 출시돼 있다. 또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다국가 다임상 3상이 환자등록이 완료된 가운데 막바지 진행 단계에 있다. 슈펙트는 2011년 8월부터 2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외 24개 대형병원에서 임상3상을 진행했다. 향후 치료 기간을 마치는 대로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2차 치료제에서 만성기 골수성 백혈병 초기 환자도 처방이 되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된다.<br/>일양약품은 임상3상을 완료하는 대로 1차 치료제로 허가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해서는 임상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강보험 약가재협상, 출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일양약품은 오는 2015년 중순께 1차 치료제로 제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br/>이와 관련 지난 3월 21∼22일 일양약품은 ‘다국가, 다기관 슈펙트 연구자 미팅’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미팅은 지난 2월 28일부로 임상3상 환자등록이 완료된 슈펙트의 ‘다국가, 다기관 임상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슈펙트 임상에 참여한 국내외 연구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br/>김성현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내성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혈액종양 임상의가 진행한 ‘다국적 임상 2상 24개월 F/U update 결과’를 발표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슈펙트는 주요 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24개월까지 지속되면서 장기간 복용에 따른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복용 초기에 주로 발생했지만 일시적이었거나 용량 감량 및 일시적 복용 중단으로 잘 조절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슈펙트 복용 후 장기간 약효가 입증됐음을 재확인했다</span>”고 발표했다.<br/>슈펙트의 큰 장점은 저렴한 약가에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 치료제라는 점이다. 2차 치료제로도 경쟁 약물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1차 치료제로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경우 다시 인하된다.<br/>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아시아 최초로 출시된 슈펙트는 전 세계 4번째 백혈병 치료제로서, 조만간 1차 치료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고가여서 백혈병 치료제를 처방 받기 힘들었던 국내 및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슈펙트는 세계적인 혈액학회저널 등을 통해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됐으며 경제적 약가와 우수한 효능·효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29.txt

제목: 생존율 30%… 전이성 유방암, 관심이 필요하다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6  
본문: 최근 영국에서는 “내가 유방암 환자면 좋겠어요”라는 광고가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생존율이 낮은 다른 암환자들이 유방암보다 더 심각한 암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로, 유방암 환자 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러나 생존율 98%를 보이는 유방암은 1기인 초기암이고 전이성 유방암은 생존율이 30% 정도로 매우 낮다.<br/>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 백서 2013’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생 건수는 약 1만6000건으로 발생률과 함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 전이가 있는 2기 이상의 환자 비율이 약 43%로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또한 유방암은 재발률이 20∼30% 정도로 암세포의 성장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10년 후에도 재발 또는 전이가 되기도 한다. 재발을 경험한 환자의 50% 이상이 또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겪는데, 유방 외 부위로 전이됐을 경우 치료가 어려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br/>주부 김상희(37·가명)씨는 둘째 아이 모유 수유 중에 멍울과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지만, 임신 기간과 맞물려 임신 증상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병원 진료를 미뤘다. 결국 출산 이후 멍울이 계속 만져져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 병원에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전이 범위가 넓게 퍼져 수술도 불가능했다. 다행히 김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HER2 양성임을 확인해 HER2 표적치료제를 통해 치료 받아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의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적치료제는 특정 표적만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성은 물론이고 기존 약물 독성으로 인한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해 환자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현재 표적치료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약 50%는 질병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과적인 약물을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존 표적치료와 다른 기전의 새로운 표적치료제가 추가적인 생명 연장을 입증한 바 있다.<br/>정경해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김씨와 같이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 받았더라도 바로 환자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최근 정부가 많은 표적치료제의 보장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신약의 경우 여전히 허가에서 보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새로운 신약을 사용하면 보험이 인정되는 기존 치료약값조차 100% 모두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br/>한편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방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유방암 중 예후가 불량하지만 표적치료제로 잘 치료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세부적인 치료제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0.txt

제목: 생존율 30%… 전이성 유방암, 관심이 필요하다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61  
본문: 최근 영국에서는 “내가 유방암 환자면 좋겠어요”라는 광고가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생존율이 낮은 다른 암환자들이 유방암보다 더 심각한 암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로, 유방암 환자 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러나 생존율 98%를 보이는 유방암은 1기인 초기암이고 전이성 유방암은 생존율이 30% 정도로 매우 낮다.<br/>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 백서 2013’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생 건수는 약 1만6000건으로 발생률과 함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 전이가 있는 2기 이상의 환자 비율이 약 43%로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또한 유방암은 재발률이 20∼30% 정도로 암세포의 성장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10년 후에도 재발 또는 전이가 되기도 한다. 재발을 경험한 환자의 50% 이상이 또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겪는데, 유방 외 부위로 전이됐을 경우 치료가 어려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br/>주부 김상희(37·가명)씨는 둘째 아이 모유 수유 중에 멍울과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지만, 임신 기간과 맞물려 임신 증상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병원 진료를 미뤘다. 결국 출산 이후 멍울이 계속 만져져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 병원에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전이 범위가 넓게 퍼져 수술도 불가능했다. 다행히 김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HER2 양성임을 확인해 HER2 표적치료제를 통해 치료 받아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의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적치료제는 특정 표적만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성은 물론이고 기존 약물 독성으로 인한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해 환자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현재 표적치료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약 50%는 질병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과적인 약물을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존 표적치료와 다른 기전의 새로운 표적치료제가 추가적인 생명 연장을 입증한 바 있다.<br/>정경해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김씨와 같이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 받았더라도 바로 환자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최근 정부가 많은 표적치료제의 보장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신약의 경우 여전히 허가에서 보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새로운 신약을 사용하면 보험이 인정되는 기존 치료약값조차 100% 모두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br/>한편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방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유방암 중 예후가 불량하지만 표적치료제로 잘 치료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세부적인 치료제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1.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건강교실 200회, 16일 3대 질환 특집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40  
본문: [쿠키 건강]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대강당에서 건강교실 200회 특집 ‘3대 질환 극복 프로젝트 : 심장과 혈관질환, 폐암, 치매’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삼성서울병원은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건강을 위한 올바른 운동’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매달 1회씩 18년간 무료 건강강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br/>특히 삼성서울병원 건강교실은 국내 건강강좌 중 가장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회당 70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최대 23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건강강좌이다. 실제 200회 동안 14만여 명의 일반인이 참석했으며, 의료진 440여 명이 강단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br/>이번 200회 특집 건강교실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심장 및 혈관질환의 최신치료 ▲표적항암치료로 폐암정복 앞당긴다 ▲뇌미인과 예쁜치매(치매의 최신치료 및 예방) 등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최신치료법 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br/>첫 강연은 ▲심장 및 혈관질환의 최신치료는 심근경색 및 관상동맥질환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순환기내과 권현철 교수가 연자로 나서 최근 출범한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심장질환과 혈관치료의 최신치료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 최근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되고 있는 ▲폐암의 표적항암치료에 대해 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가 강의를 펼친다.<br/>마지막 강연은 ▲뇌미인 예쁜치매 - 치매의 최신치료법과 예방을 중심으로 뇌신경센터 나덕렬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하며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임상시험을 거치며 치매 정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br/>송재훈 원장은 “<span class='quot0'>건강교실은 국민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100세 건강시대를 여는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최신 치료법 등 국민건강향상을 통해 환자 행복을 실천해 사랑받는 건강교실과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span>”이라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2.txt

제목: 지름 0.5∼1㎝ 구멍만 뚫고 소화기암 수술… 인천성모병원 복강경·로봇수술법 도입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7  
본문: 소화기암의 경우 과거에는 배를 열고 수술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배를 크게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많고, 감염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것이 복강경과 로봇수술이다. 이 수술법은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한다. 김진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복강경 수술은 배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와 통증, 출혈이 적어 회복이 빠른 이점이 있다. 흉터가 거의 없어서 미용적으로도 좋다”며 “소화기질환에서 배를 열고 하던 많은 수술이 점차 복강경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강경 수술은 배꼽 한 곳만 조금 절개해 수술하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로까지 발전했다.<br/>◇배에 지름 0.5∼1㎝ 구멍만으로 수술=복강경 수술을 할 때는 배에 지름 0.5∼1㎝의 구멍 4∼5개를 뚫는다. 이곳을 통해 트로카라는 투관침을 삽입한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이후 배의 구멍으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는다. 카메라는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1.5배 이상 확대한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보여준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위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배의 구멍으로 수술 기구를 삽입해 암 등 문제가 있는 부위를 자른 후 끄집어낸다. 복강경 수술은 주위 장기나 조직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수술 스트레스가 적어 회복 기간이 단축된다. 일부 위암은 절제부터 재건까지 모든 과정을 복강경으로 진행하기도 한다.<br/>이와 관련, 인천성모병원은 2004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복강경만으로 위 절제 후 재건까지 완료하는 전(全)복강경 위암 수술에 성공했다. 로봇수술도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진행하는 수술법이다. 로봇수술에 달린 카메라는 복강경보다 더 확대된 3차원 시야를 보여줘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br/>◇배꼽 부위로 수술하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로 발전=최근엔 복강경 수술이 더욱 발전해 배꼽 부위의 구멍 하나로 수술할 수 있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에까지 이르렀다.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은 배꼽 부위에 단 한 곳만 절개해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어 미용적으로 우수하다. 이윤석 인천성모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인천성모병원의 경우 단일절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 절제술, 탈장 교정술을 시행한다. 단일절개 복강경으로 대장암을 수술하기도 한다”며 “대장암 수술은 정밀하게 이뤄져야 재발률이 낮고 부작용이 적다.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대장암 수술은 카메라를 통해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항문과 성기능, 배뇨기능을 살리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3.txt

제목: 지름 0.5∼1㎝ 구멍만 뚫고 소화기암 수술… 인천성모병원 복강경·로봇수술법 도입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460  
본문: 소화기암의 경우 과거에는 배를 열고 수술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배를 크게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많고, 감염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것이 복강경과 로봇수술이다. 이 수술법은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한다. 김진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복강경 수술은 배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와 통증, 출혈이 적어 회복이 빠른 이점이 있다. 흉터가 거의 없어서 미용적으로도 좋다”며 “소화기질환에서 배를 열고 하던 많은 수술이 점차 복강경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강경 수술은 배꼽 한 곳만 조금 절개해 수술하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로까지 발전했다.<br/>◇배에 지름 0.5∼1㎝ 구멍만으로 수술=복강경 수술을 할 때는 배에 지름 0.5∼1㎝의 구멍 4∼5개를 뚫는다. 이곳을 통해 트로카라는 투관침을 삽입한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이후 배의 구멍으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는다. 카메라는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1.5배 이상 확대한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보여준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위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배의 구멍으로 수술 기구를 삽입해 암 등 문제가 있는 부위를 자른 후 끄집어낸다. 복강경 수술은 주위 장기나 조직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수술 스트레스가 적어 회복 기간이 단축된다. 일부 위암은 절제부터 재건까지 모든 과정을 복강경으로 진행하기도 한다.<br/>이와 관련, 인천성모병원은 2004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복강경만으로 위 절제 후 재건까지 완료하는 전(全)복강경 위암 수술에 성공했다. 로봇수술도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진행하는 수술법이다. 로봇수술에 달린 카메라는 복강경보다 더 확대된 3차원 시야를 보여줘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br/>◇배꼽 부위로 수술하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로 발전=최근엔 복강경 수술이 더욱 발전해 배꼽 부위의 구멍 하나로 수술할 수 있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에까지 이르렀다.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은 배꼽 부위에 단 한 곳만 절개해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어 미용적으로 우수하다. 이윤석 인천성모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인천성모병원의 경우 단일절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 절제술, 탈장 교정술을 시행한다. 단일절개 복강경으로 대장암을 수술하기도 한다”며 “대장암 수술은 정밀하게 이뤄져야 재발률이 낮고 부작용이 적다.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대장암 수술은 카메라를 통해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항문과 성기능, 배뇨기능을 살리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4.txt

제목: 서울시 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 어르신 건강증진에 앞장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18  
본문: [쿠키건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br/><br/>서울시 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는 환자 중심의 진료패턴으로 진료 편의를 높여 노인성 질환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가족력과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집중 상담과 치매선별검사, 우울증검사, 일상생활 수행능력 검사, 시력&청력 검사, 상지&하지 검사, 배뇨장애 평가, 영양평가를 시행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br/><br/>백세건강증진교실은 고혈합, 당뇨, 골다공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식습관을 비롯해 올바른 생활습관 등 건강계획을 함께 세우며 질병의 예방과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br/><br/>강화된 노인성질환 진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인성질환 관련 공공의료사업을 실시해 지역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한 전문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안정망을 지원하고 있다.<br/><br/>이홍수 서울시 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장은 “<span class='quot0'>노인성질환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span>”며 “<span class='quot0'>서남권 대표 공공병원인 서남병원은 노인성질환의 전문적인 치료와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까지 동시에 제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65세 이상, 우울하고 기억력 떨어진다면 전문의 찾아야<br/><br/>65세 이상이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 ▲체중의 변화가 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잘 못 먹는다 ▲우울하다 ▲다리에 힘이 없고 잘 넘어진다 ▲소변보기가 불편하다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br/>이홍수 센터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가 느껴지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br/><br/>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되 항산화 영양소 섭취를 극대화 하는 것이 좋다. 섬유질이 많은 거친 곡류, 각종 콩류와 두부, 통째 먹는 과일, 다양한 채소,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청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암예방 효과가 있는 녹차와 1L 이상의 물 등을 권장한다.<br/><br/>반면, 지방 함유량과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 동물성 음식, 섬유질이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량이 적은 백설탕, 흰 밀가루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은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고열량 식사는 피한다. 짠 젓갈류, 훈제 및 태운 음식은 암 유발 및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 시킬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다.<br/><br/>음식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바른 생활 습관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빨래, 청소 등의 꾸준한 일상생활 역시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을 준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도 개선시켜 뇌·심혈관질환 뿐 아니라 폐기능의 향상에도 좋다.<br/><br/>7시간 정도의 적절한 수면 습관 또한 중요한데, 수면부족은 심장병, 뇌졸중, 비만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 특히 노인에서 불면증은 우울증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관심과 조기발견이 필요하다. 적절한 인간관계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또한 노인의 건강에 필수요소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꼭 필요한가… HPV 감염 산모, 수직 감염률 높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533  
본문: 5월의 신부가 된다는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있던 직장인 A(31렛㈋?씨는 얼마 전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검사 결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이하 HPV, Human Papiloma Virus)에 감염됐다는 것이었다.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 했지만 HPV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라 하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HPV가 출산 시 아이에게 수직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의사 말로는 HPV는 사전에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바이러스라 하는데 왜 진작 알지 못했을 까라는 생각에 때늦은 후회가 밀려왔다.<br/>매년 4월은 결혼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시기이다. 결혼 준비라고 하면 가전제품 등 혼수를 구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보다 앞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 건강’이다. 각자 시기야 다르겠지만 결혼의 다음 단계는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될 신부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기 전 머무는 ‘집’이라 불리는 ‘자궁’ 건강은 결혼 전부터 꼭 챙겨야 한다.<br/>지금까지 HPV는 성인 여성 및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산모가 HPV에 감염돼 있으면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br/>국내에서 산모 4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시험에 참여한 산모 중 15.4%(72명)이 HPV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출산한 아이에서 HPV가 발견된 경우는 3.2%(15명)였다. 전체 결과로만 보면 수치상 낮은 확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산모가 HPV에 감염됐을 경우 HPV에 감염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20.8%(72명 중 15명)에 달했다. 또한 HPV에 감염된 산모는 초산일 때 감염 확률이 18.5%(54명, 초산인 산모 292명)로 초산이 아닐 경우 10.2%(18명, 초산 아닌 산모 177명)보다 높았다. 즉 초산일 경우에 HPV에 감염될 확률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일 경우에 HPV 감염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br/>김영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집과 같기 때문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자궁 건강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HPV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수직 감염 위험이 높고 감염되면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HPV 백신 예방이 필수적</span>”이라고 말했다.<br/>또한 덴마크 인구를 토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모가 생식기 사마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1000명당 6.9명에서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은 아이의 호흡기 내에 사마귀 같은 혹이 자라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특히 한번 걸리면 계속 재발하는 특성 때문에 몇 개월 간격으로 아이의 호흡기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이에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연구와 같이 생식기 사마귀 역시 태아에게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HPV와 함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이 권장되며 특히 여성에게 HPV 인자가 없더라도 남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예비 부모는 남성까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6.txt

제목: 고대병원 17일,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 강좌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13  
본문: [쿠키 건강] 고려대 안암병원은 오눈 17일(목) 오후 2시 8층 중회의실에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br/><br/>이날 강좌는 스포츠의학센터 이진혁 운동처방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이번 강좌는 암환자 및 가족과 관심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문의: 02 920-6569, 6670)<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7.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수천년 전 동양에선 정신병도 빛 치료 시도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4  
본문: 광역학 치료의 역사 [상]<br/>빛을 이용한 질병 치료에 대한 역사를 볼 때 그 효시가 되는 사람들로는 희랍의 철학자들이었고, 그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관찰과 사색을 통한 그의 저서 ‘자연학’에서 빛이 파동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빛을 이용해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인도, 중국 등 동양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빛을 사용해 왔다. 특히 피부질환인 건선, 백반증, 암, 구루병, 심지어는 정신병까지도 빛을 이용한 치료를 시도했다.<br/>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는 햇빛을 이용하여 질병치료를 시도한 기록이 있다. 전신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치료 즉 일광욕을 치료에 이용했는데, 이때 옷을 벗고 햇빛에 일광욕하는 것이 유행했다. 당시 유명한 그리스 의사인 헤로도토스(Herodotus)는 일광욕 치료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때 기독교의 출현으로 태양신 숭배 및 햇빛을 이용한 치료는 우상 숭배화돼 이교도로 취급되기도 했다.<br/>18세기 후반에 들어서 햇빛을 사용하면 구루병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시 정립됐고, 19세기 들어서 의사 코빈(Cauvin)은 1815년 햇빛을 이용해 결핵, 구루병, 괴혈병, 류머티스, 신경마비, 부종, 근육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빛을 이용한 광선치료는 덴마크 의사 닐스 핀센(Niels Finsen)에 의해 과학적으로 더욱 발전했는데, 피부 결핵환자의 치료에 탄소 아크(carbon arc) 광선요법을 개발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당시 핀센은 페로 제도(Faroe Island)에서 태어나 북극권에서 낮과 밤이 대비되는 것에 흥미를 가져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빛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핀센은 곧 실험에 착수해 천연두 환자를 치료하는 데 빛(red light)을 쪼여 피부가 곪는 것을 예방하는 논문을 1893년에 발표했다. 그 후 햇빛에서 살균작용이 있는 성분을 발견해 자외선으로 피부결핵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1896년 코펜하겐에 Finsen Light Institute가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당시 알렉산드라(Alexandra) 공주는 후에 에드워드(Edward) 7세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핀센의 이 같은 발견을 영국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London Hospital의 의사들에게 빛을 이용한 광선요법을 하도록 지원했다. 오늘날 광선치료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신생아 황달의 치료인데, 이는 약 30년 전 엑세스(Essex)에 있는 Rochford Hospital에서 Cremer 등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br/>광선요법이 빛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광역학 치료는 조직 내에 광과민물질을 주입하여 빛의 작용으로 그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한 것은 BC 14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도에서 백반증의 치료에 소랄렌 성분을 함유한 식물 보과지(Psoralea corylifolia;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 개암풀)의 씨를 사용한 내용이 인도의 신성한 종교서적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고대의 광치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물 유래의 소랄렌(psoralen)을 사용했으며, 그것이 햇빛의 자외선 에너지에 의해 활성화됐다. 근대의 빛 기반 치료법으로는 천연두와 결핵의 치료에 빛을 사용해 임상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중요하게 보고한 핀센의 연구가 있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핀센은 일반적으로 아크램프를 이용한 빛 치료법 클리닉을 열었고, 강한 광범위 빛 조사를 임상적으로 실시했다. 그의 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 후 다수의 병원이 이러한 치료법을 적용했다.<br/>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원광대 산부인과 교수)<br/>◇광역학 치료의 역사[하]는 5월 20일 ‘암과의 동행’ 섹션에 연재됩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8.txt

제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병원 내 투약 오류 차단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77  
본문: [쿠키 건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석승한)은 병원 내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척추강 내 약물투여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br/><br/>이번 지침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현장적용 검토까지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병원간호사회, 한국QI간호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개발해 환자안전의 실효성을 높였다.<br/><br/>이러한 조치는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크리스틴 등의 항암제 투약 오류사고에 따른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증원과 관련 기관들이 환자안전 및 약물 관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br/><br/>빈크리스틴(Vincristine)은 소아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뿐 아니라 성인의 암 치료에도 자주 쓰이는 항암제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해야 하나, 이를 척추강으로 잘못 주사할 경우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된다.<br/><br/>인증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암제 사용 및 관리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약물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약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투약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전문가 합의를 통한 효과적인 지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보공유의 문제가 제기됐다.<br/><br/>이번 지침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지정 의료인만이 항암제를 조제·준비·처방·투약할 수 있으며, 투여 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투여 약물과 경로를 2중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됐다.<br/><br/>또 의료인은 투약절차·주입경로·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 후 투약하도록 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br/><br/>한편 인증원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 기준에 인증조사 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한 약물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br/><br/>석승한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지침을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약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39.txt

제목: ‘베이비부머 세대’ 응원해요…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계획 발표  
날짜: 20140415  
기자: 최정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181  
본문: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 70%가 고졸 이상 학력(전문대 이상 24.8%)에 남성 중 99.9%, 여성의 91.4%가 경제활동을 경험한 산업화 및 민주화의 주역이다. 또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 세대까지 부양한 마지막 세대로 평가된다.<br/>하지만 평균 은퇴연령이 52.6세에 불과해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데다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노인종합복지관(60세 이상)이나 경로당(65세 이상)을 이용하기에도 일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많다.<br/>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간·기회 확대, 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 건강관리 및 여가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서울의 51∼59세 베이비부머 세대는 146만명으로, 인구의 14.4% 규모다. 65세 이상 노인(115만명)보다 많다.<br/>시는 우선 베이비부머를 위해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전용 교육기관을 조성키로 했다. 마포구(2016년)에 첫 선을 보일 ‘50+ 캠퍼스’는 인생 재설계교육 및 베이비부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시내 5개 권역에 마련된다. 또 현재 은평구와 종로구(5월 개관)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br/>제2의 인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기술교육원 부설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와 장년창업센터 부설 ‘베이비부머 창업센터’를 신설하고, 귀농 희망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매년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해 50대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줄 계획이다.<br/>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을 원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사회공헌 허브’를 50+ 캠퍼스에 조성해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만 55세 암 검진 본인부담금(검진비의 10%) 전액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br/>최정욱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0.txt

제목: 진료 외 병원 생존방법 ‘제품 컨설팅’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75  
본문: BMCC, 5월 삼성서울병원 공식 센터로 편입<br/><br/>[쿠키 건강] “병원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의 엔드유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제품의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더 보완한 제품을 개발하게 만들 수 있다. 헬스케어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전문적인 시장의 세분화가 이뤄지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br/><br/>산업통상자원부 BMCC(바이오메드커텍트센터) 센터장이자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방사익 교수는 1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자문위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span class='quot0'>헬스케어 3.0 시대에는 병원이 의료서비스만이 아닌 헬스케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span>”고 제언했다.<br/><br/>이름 그대로 바이오와 의료를 연결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는 BMCC는 산업부 과제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지만, 임상시험센터처럼 연구부원장 산하에 병원 소속으로 정식 편입되기로 했다.<br/><br/>그간 자문위원단을 꾸려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병원 생존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수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논문을 쓰고 진급을 할 수 있는 만큼 R&D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탓이다.<br/><br/>또한 병원이 하나의 거대 헬스케어산업을 이어줄 수 있다. 방사익 센터장은 “헬스케어 2.0 시대에는 병원이 그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곳이었다면, 3.0시대에는 IT, 건설, 자동차, 가전, 보안 등 이종 산업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한다. 제약-서비스, 제약-진단기기 등의 사업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병원의 사업영역이 발병 후 진단, 치료에서 발병 전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질병이 다 나은 다음의 사후관리 역할까지 하며, IT혁신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공간 제약이 극복되고 서비스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br/><br/>방 센터장은 “병원을 벗어나더라도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24시간 생체신호를 측정해 질환관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투약방법, 운동, 식생활 등을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예방, 진단 분야가 계속 고성장할 전망이며, 바이오 역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로 내다봤다.<br/><br/>이런 과정에서 병원이 치료제, 의료기기 개발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물린다. 화이자는 심혈관, 중추신경 등의 연구소를 MGH캠퍼스 내로 이전했고, 브리밍햄 여성병원과 다나파버암연구소는 암환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br/><br/>병원이 중개연구를 통해 환자의 미충족 니즈를 수렴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초연구 모델 결과를 예측·해석하고 융복합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방 센터장은 “병원주도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병원이며, 타업계와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다. 바이오의료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중개연구는 물론, 병원과 산학연 간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피력했다.<br/><br/>◇개발 도움뿐 아니라 사업수정·중단에도 큰 의미<br/><br/>실제 제품 컨설팅에서 의미있게 진행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br/><br/>BMCC는 매년 7~10건의 On-Demand 컨설팅, 4~5건의 In-Depth 컨설팅을 정부 출연 연구비로 지원해왔다. 의뢰제품들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차기 개발 단계로 진입하거나, 상품화됐으며 일부는 사업을 수정하거나 중단, 실패에 따른 막대한 자원낭비를 차단할 수 있었다.<br/><br/>지난해인 4차년도까지 총 29개 기업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발단계 상승 45%, 시장진입 17%, 진척 없음 10%, 사업 수정 및 중단 28% 등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의 위험을 미리 예방해 큰 투자손실을 막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br/><br/>실제 사례를 보면, 바이오알파에서 출시한 음압치료기에 대해 다국적 기업 제품과의 비교 임상을 거쳐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에 수출 기회가 열리고 현재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이끌었다.<br/><br/>옵티메드에서는 미국, 유럽 등을 타깃으로 한 일화용 내시경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교수진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사용자인 의사들의 조작의 편리성을 더한 내시경을 최종 개발하기에 이르렀다.<br/><br/>BMCC는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지원사업 기획연구에 참여, 첨단 의료복합단지 커넥트 및 컨설팅 시범사업 모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산업인력개발원으로부터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인 의료기기로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 하반기부터 의료기기에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br/><br/>방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병원에서도 5월부터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적인 R&D를 수행하고 병원 중심의 바이오 의료 에코시스템을 주도해 가는 허브로 발전해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융복합 연구 촉진자 역할뿐만 아니라 비진료영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R&BD(기술사업화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1.txt

제목: [역경의 열매] 임영서 (2) ‘86아시안게임 공식 군고고마’ 어릴 적부터 상혼 발휘  
날짜: 20140415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32  
본문: 새벽기도를 나가시기 전 어머니는 항상 잠자는 내게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로운 아들,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다. 그럼에도 나는 반에서 공부도 평균 이하로 못했고 지각 잘하며 등록금은 제일 늦게 내는 말썽꾸러기였다. 담임선생님은 유독 내게 “넌 우리 학급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다.<br/>술 드시고 걸핏하면 주정하며 어머니를 못살게 구는 아버지, 구질구질한 가난, 해도 해도 끝없는 농사일…. 나는 탈출구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은 왜 항상 이 모양인지 불만이 끝없이 차올랐다. 교회 가기도 싫었다. 사춘기와 맞물리면서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됐다.<br/>이런 나를 다스리는 어머니의 방법이 참으로 지혜로웠다. 나는 연약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외아들이니 집안일도 많이 도왔고 특히 지게를 잘 졌다. 중학교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로 잘도 날랐다. 하루는 무거운 나뭇짐을 지고 지팡이를 의지해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지팡이를 달라고 하셨다. 나는 지팡이 없이 서 있는 것이 불편했는데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다.<br/>“지팡이 빨리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br/>“지게작대기 하나 없는데도 일어나기 힘들지. 그래 우리 인생도 반드시 의지해야 할 지팡이가 필요하단다. 많은 사람이 돈과 명예, 권력을 지팡이로 삼으려 하지만 결국 지나면 모두 거품이란다. 넌 항상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일어나거라. 주님의 손만 잡아야 한다.”<br/>당시 이 말은 내게 별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내 가슴속에 겨자씨처럼 심겨져 이후 삶의 위기마다 놀라운 처방전이 되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 피할 길을 만들어내곤 했다.<br/>중학교에 다니며 신문을 돌렸다. 당시는 새 구독자를 개발하는 것도 신문배달부의 주임무였다. 그런데 신분 한 부 구독시키는데 대한 수당이 한 달 구독료보다 훨씬 많았다.<br/>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학급 친구들에게 신문 구독을 하면 내가 받는 수당 4000원을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이다. 용돈이 궁한 아이들은 집에 가서 졸라 구독신청을 받아왔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 인맥을 동원해 많은 부수를 갖고 달려왔다. 나는 기본 수당을 나눠주고도 특별수당을 받았고 나중에는 지국까지 인수했다가 다시 비싸게 팔았다. 사람들은 어린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칭찬이 자자했다.<br/>겨울방학 때는 친구들과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다. 단순히 한 곳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2명 1조로 봉투팀 장작팀 생산팀 판매팀으로 나누었다. 봉투팀은 군고구마를 담을 봉투를 만들었고 장작팀은 산에 가서 군고구마 구울 땔감을 구해왔다. 생산팀은 가장 맛있게 굽는 방법을 연구해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이 군고구마를 5개의 판매팀이 예쁘게 만든 종이상자에 담아 직접 팔러 다녔다. 당시 86아시안게임 전이었는데 군고구마 상자에 ‘86아시안게임 공식 군고구마’라고 써붙이고 다니게 했다. 각 팀은 지역별 담당 구역만 돌며 판매를 했는데 아주 잘 팔렸다. 학생들인데다가 아시안게임 공식 군고구마라고 쓴 것을 재미있어했다.<br/>매일 장사를 끝내고 정산하면 친구들에게 일당을 모두 주고 내게 5만원 정도가 남았다. 당시 큰매형이 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장사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임을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다.<br/>내가 만약 혼자 장사를 했다면 이 정도 수입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사업은 사람들을 잘 관리해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 이 깨달음은 후일 내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적용할 첫 번째 힌트였다.<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2.txt

제목: 암 치료비의 경제적 대안,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후 가입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493  
본문: [쿠키 생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식습관마저 깨지면서 음주나 흡연, 주위 오염환경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암 발병을 일으킨다고 한다.<br/>2010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3명중 1명은 암 진단을 받고,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 유병자다.<br/>의료기술이 발전했고 완치율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암 치료비 부담은 갈수록 깊어져 일부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심각한 현실이다.<br/>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비 보장이 되지만 고액 암의 경우 치료비 보장이 어려워 개인 부담이 크다.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br/>따라서 암 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암 진단금액이 높은 암 보험 상품 위주로 관심이 높다.<br/>암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 한 개 정도는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암 보험 가입 시 지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체 가입하여 실제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br/>암 진단비는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br/>나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렴한 암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상품 비교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가입률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3.txt

제목: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 한국 폐암환자엔 효과 적다  
날짜: 20140414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041  
본문: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돌연변이 유전자 표적 암 치료제가 한국인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6∼7명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사진) 교수와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 1605명을 대상으로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와 기존의 항암제의 약효를 평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11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br/>EGFR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자극, 각종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극신호를 전달하는 유전자이며, 폐암 환자의 30∼40%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다.<br/>EGFR 돌연변이 유전자를 겨냥하는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표적 암 치료제는 이 유전자가 정상인 폐암 환자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다. 이들에게는 기존 항암제가 훨씬 더 잘 듣는다는 말이다.<br/>이번 연구결과 EGFR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음성) 환자들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했을 때가 이레사 등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치료군의 전체 생존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임상시험연구가 끝난 후 받은 후속치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4.txt

제목: [건강 나침반] 암 예방 백신, 보다 적극적 접종 권장 필요  
날짜: 20140414  
기자: 김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245  
본문: 미국 대통령 직속 암 위원회,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HPV 백신 접종률 향상 권고<br/><br/>[쿠키 건강칼럼] 1인 1암 보험 시대라고 한다. 월 1만9900원이면 각종 암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있자면 마치 암에 걸려도 보험 하나만 있으면 안심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보험은 어디까지 사후 처리의 접근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br/><br/>지난 1798년 영국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천연두 예방을 위해 우두를 접종한 것을 시작으로 백신은 여러 감염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왔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만 보더라도 백신은 단순한 예방의 차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예방’이란 표현 때문일까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백신 접종을 인색하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자궁경부암을 꼽을 수 있다.<br/><br/>21세기에 접어들며 의학은 암까지 정복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과거 영화 혹은 드라마 등에서 시한부 삶을 상징했던 백혈병도 완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암은 인류의 적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 암은 유전이나 생활 습관 등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암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만 건 이상의 암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그 중에도 최근 HPV라고 불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목 받고 있다.<br/><br/>HPV는 약 75~80%의 여성 및 남성이 일생 동안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항문암 등을 초래하게 된다.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HPV 감염에 대한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br/><br/>특히 여성은 HPV로 인한 질환 중 전세계 여성 암 사망률 2위이자 매 2분마다 1명 꼴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 자궁경부암을 주의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지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 덕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질환의 예후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알고는 있지만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궁경부암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단 발병하면 유일한 치료법이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자궁을 적출한다는 것은 여성성을 상실한다는 것 외에도 임신 좌절 등 심리적 충격과 우울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이렇듯 여성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은 사실 백신 접종으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등의 원인이 되는 HPV를 차단하여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한다. 특히 HPV는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및 질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HPV 백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HPV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HPV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것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br/><br/>전세계적으로 HPV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암 위원회(The President’s Cancer Panel)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한 청소년은 HPV 백신을 3회 접종할 수 있도록 전문의는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추천하고, 부모와 보호자 역시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도 HPV백신 접종률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HPV 예방 접종률이 80%까지 증가하면, 향후 미국 12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5만3000건의 자궁경부암을 방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다른 HPV 관련 암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추정했다.<br/><br/>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불거진 자궁경부암 백신 논란으로 가뜩이나 저조한 접종률이 보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반응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기피한다면 오히려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 등 건강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매달 지불하는 2만원 남짓의 보험료로 위안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암을 사전에 차단하는 백신 접종이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보다 현명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br/><br/>김병기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5.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암 전문병원’ 탈바꿈 선언… 암 치료에서 관리까지 환자 중심 원스톱 진료  
날짜: 20140414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039  
본문: 고대구로병원(원장 백세현)이 국제 수준의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환자중심 암 전문병원으로 탈바꿈한다.<br/>고대구로병원은 14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중심 원스톱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13일 선언했다.<br/>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만이 아닌,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하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암병원’을 기본가치로 추구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br/>새 암병원에는 외래진료실과 초음파실을 비롯해 각종 검사실과 방사선치료실, 일일 항암치료실, 교육실이 자리해 있으며 최첨단 진단 및 치료 장비를 대거 확충한 점이 특징이다.<br/>그 중 세계 최고사양 수준의 장비인 멀티 슬라이스 컴퓨터단층촬영기 ‘640MS-CT’는 16㎝ 폭을 0.35초 만에 촬영할 수 있는 CT다. 검사 시간이 짧은 만큼 방사선 피폭선량과 주입하는 조영제 양이 적어 보다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br/>고대구로병원 의료진의 암 치료 역량은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간 협진 시스템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팀워크를 자랑한다(표 참조). 주요 암종별 내·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과가 모두 참여하는 전문 다학제진료팀이 그것이다. 한 자리에 모인 의료진은 형식적인 상의에 그치지 않고 개별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br/>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감시림프절 생체 검사를 모든 암 수술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감시림프절 생검은 암 조직에 림프절 염색색소를 주입해 감시림프절을 찾아낸 후 일부를 절제하고 검사해 암세포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강경을 통해 암 조직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암 세포의 전이 여부를 미리 확인해 림프절 절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합병증이 적다.<br/>고대구로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표적 항암 치료와 독창적인 복강경수술법, 방사선 암 치료 시스템으로 치료효과를 높여 병동 규모보다는 질로 승부할 각오</span>”라며 “<span class='quot0'>암 치료 후에도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영양사·종교인이 합심해 총체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6.txt

제목: 건강보험공단, 담배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날짜: 201404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187  
본문: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대상…537억 청구 후 확대 예정<br/><br/>[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br/><br/>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br/><br/>특히 지난 임시이사회의(3월24일)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를 수용해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br/><br/>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br/><br/><br/><br/>공단은 “<span class='quot0'>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span>”라고 강조했다.<br/><br/>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br/><br/>한편 최근 대법원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에 대해 질병의 인과관계 미흡을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7.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서울대치과병원, 양악수술 강좌 外  
날짜: 201404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177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17일(목) 낮 12시 치과병원 지하 1강의실에서 ‘자연스러운 양악수술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으로 무료공개강좌를 연다. 양악수술 및 안면윤곽수술은 성형 전·후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수술로, 드라마틱하게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이 같은 수술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 양악수술 후 본래 개성 있는 얼굴 굴곡과 특징적인 형태를 잃어버려 매력적이기 보다 ‘획일화된 성형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에 17일 진행되는 공개강좌에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나만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양악수술에 관해 서병무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사진)의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문의: 02-2072-3114)<br/>◎중앙대학교병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폐암, 알고 싶어요!'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로 알려진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녀 모두 폐암으로, 201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여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이에 중앙대병원 종양협진클리닉에서는 폐암에 대해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 분야 전문 교수들이 최신 치료법과 협진에 의한 치료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강좌는 ▲폐암의 초기 증상과 내과적 진단(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 ▲폐암의 수술치료(흉부외과 최주원 교수),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교수),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접수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문의: 02-6299-2219)<br/>◎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회장 박성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다발성경화증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공개강좌는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다발성경화증 환우들에게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자가관리 및 가정간호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가 주최하는 이번 강좌는 한독테바가 후원한다. 강좌에서는 국내 다발성경화증 치료의 권위자인 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가 참석해 다발성경화증 치료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강좌는 ▲다발성경화증 치료A to Z(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 ▲다발성경화증 자기관리 및 가정간호(국립암센터 정애란 간호사) 등으로 진행된다. 공개강좌에서는 의료진 강의 외에도 환우들의 치료 수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질환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문의: 02-362-7744, 7774)<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8.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30일, 암경험자 건강증진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4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157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노동영)과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암건강증진센터 개소 3주년을 기념하는 ‘암경험자의 건강증진’ 주제의 심포지엄을 연다.<br/><br/>이날 심포지엄은 암 완치 후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임상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암경험자 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정책 ▲일차의료 관점에서의 암경험자의 임상적 관리 등 2부로 나눠 진행된다.<br/><br/>미국 최고의 암병원으로 알려진 앰디앤더슨암병원에서 암경험자 클리닉 개설, 암경험자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암경험자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해 왔던 루이스 폭스홀(Lewis Foxhall) 교수가 초청 연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br/><br/>이날 행사는 ▲MD Anderson 암센터의 암경험자 클리닉과 교육 프로그램 소개(루이스 폭스홀, 앰디앤더슨암센터) ▲한국에서 암경험자 관리의 이슈와 및 일차의료인의 역할?암경험자와 가족 연구회의 활동을 중심으로(이정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통합치유센터장) ▲국내의 암경험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양형국 국립암센터 연구원) ▲일차의료에서 암경험자 관리의 임상적 측면(루이스 폭스홀) ▲암경험자와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아산병원 암예방클리닉의 경험(선우성 울산의대 교수) ▲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의 3년간의 경험(조비룡 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장)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br/><br/>조비룡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치료 후 장기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전인적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span>”고 말했다.(02-2072-3335)<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49.txt

제목: 실손으로 보장받는 의료실비보험 가입은 고령화시대 의료비 해결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494  
본문: [쿠키 생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5.1%에서 20년 후인 2010년엔 10.7%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수명에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br/>노년에는 면역이나 주의력 저하로 질병이나 사고 위험률이 높다.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비 대안으로 의료실비보험이 노후 대책의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중요해졌다.<br/>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가 높기에 빠를수록 좋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이라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한다.<br/>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중복보장이 안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아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0.txt

제목: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발표  
날짜: 201404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377  
본문: [쿠키 사회]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 70%가 고졸 이상 학력(전문대 이상 24.8%)에 남성 중 99.9%, 여성의 91.4%가 경제활동을 경험한 산업화 및 민주화의 주역이다. 또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 세대까지 부양한 마지막 세대로 평가된다.<br/>하지만 평균 은퇴연령이 52.6세에 불과해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데다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노인종합복지관(60세 이상)이나 경로당(65세 이상)을 이용하기에도 일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많다.<br/>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간·기회 확대, 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 건강관리 및 여가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내 51~59세 베이비부머 세대는 146만명으로, 인구의 14.4% 규모다. 65세 이상 노인(115만명)보다 많다.<br/>시는 우선 베이비부머를 위해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전용 교육기관을 조성키로 했다. 마포구(2016년)에 첫 선을 보일 ‘50+ 캠퍼스’는 인생 재설계교육 및 베이비부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시내 5개 권역에 마련된다. 또 현재 은평구와 종로구(5월 개관)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br/>제2의 인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기술교육원 부설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와 장년창업센터 부설 ‘베이비부머 창업센터’를 신설하고, 귀농 희망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매년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해 50대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줄 계획이다.<br/>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을 원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사회공헌 허브’를 50+ 캠퍼스에 조성해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만 55세 암 검진 본인부담금(검진비의 10%) 전액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1.txt

제목: 담배소송, ‘중독성’ 등 담배회사 위법여부 쟁점  
날짜: 201404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236  
본문: 승소 가능성 놓고 소송 진행 찬반 엇갈려<br/><br/>[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이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의 흡여피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담배소송 관련 브리핑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중심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br/><br/>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537원 상당의 손배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흡연과 질병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밝혀 나갈 것”이라며 “개인 판결문을 보면 아직 법원은 중독성, 첨가물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WHO등에서는 인정하고 있어 그 부분 중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외부소송대리인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는 “개인소송은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은 KT&G뿐 아니라 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대형 담배회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회사는 미국내 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담배의 위해성과 관련자료를 허위로 알린데 대해 패소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들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시인한 불법행위나 위해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공단의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 치료비 등 지출자료와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면 증거 우위에 따라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br/><br/><br/><br/>특히 흡연자의 위험성 인지 여부와 관련해 “1980년대 까지는 이 부분을 담배회사들이 많이 인용했지만 최근에는 흡연자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중독성에 따른 것이라는 의학계 입장 등 초기 담배회사의 영업에 따라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평생 피우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이라며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br/><br/>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537억원은 특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통해 산출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 금액도 시기가 되면 연간 1조7천억 규모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부 고발자 등은 변론과정상 소송 중요사항으로 밝히기 힘들어 소송과정에서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br/><br/>또 장기간 소송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지연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소진시키며 공단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개인소송처럼 15년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아주 지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br/><br/>안선영 변호사는 “<span class='quot0'>공단 자료로 승소한다면 개인도 유리할 것이고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는 소송을 진행할 때 법정 뿐 아니라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소송이 아니라 흡연 피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span>”라고 밝혔다.<br/><br/>이어 “서울시 등 많이 지자체에서 이번 소송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차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br/><br/>한편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대법원의 담배소송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승소가능성 없는 소송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br/><br/>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span class='quot1'>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회사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소송</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은 소송을 통해 기존의 방만?부실경영에 대한 공공개혁의 칼날을 비켜가는 동시에 수뇌부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번 소송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다</span>”고 비판했다.<br/><br/>또 미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와 위증 위법성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법제가 다르고 담배와 암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해서 승소한 것이 아닌데도 건보공단은 이 사례를 예로 들어 마치 자신들도 승소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2.txt

제목: [‘중독국가’ 대한민국①] 뇌 쾌락중추 고장… PC방 죽돌이, 술독에도 쉽게 빠져  
날짜: 20140414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048  
본문: ①게임, 연쇄중독으로 가는 문<br/>인터넷게임·도박·알코올·마약(약물)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4대 중독’으로 꼽힌다. 4대 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흡연(10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 추산)이나 암(14조원·국립암센터 추산)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하면 8~11배 높다. 중독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br/>◇‘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중독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중독 성향을 갖게 되면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건 더 쉬워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새로운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br/>박형준(가명·33)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에 중독됐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했다가 점점 빠져들며 게임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씨는 게임 중독 때문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중독 성향은 없어지지 않았다.<br/>박씨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다. 대학 졸업 후 조리사자격증을 따서 식당에 취직했지만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돼 수차례 해고를 당했다. PC방에서 게임하며 가볍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부터 술기운이 오르면 본격적으로 폭음을 하는 게 이제 그의 일상이 됐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술을 마시면 게임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금방 기분 전환이 되고 훨씬 강렬하다</span>”고 말했다.<br/>관동대 명지병원 김현수 교수는 “<span class='quot1'>박씨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게임이 주는 보상에 의존했던 것이 이제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pan>”며 “<span class='quot1'>10대 시절의 게임 중독이 중독생활의 뿌리가 됐다</span>”고 설명했다.<br/>40대 가장인 최병우(가명)씨는 심심풀이로 인터넷게임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례다. 우연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면서 중독의 늪에 빠졌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도박에만 열중했다. 인터넷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경마 경정 경륜까지 손을 댔다. 결국 이혼 위기에 놓이고서야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br/>최씨는 아내와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만 봐도 또 빠져들 것 같아 PC방 근처도 가지 않고 스마트폰도 안 쓴다”면서도 “게임과 도박은 매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게임에) 중독성이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br/>◇게임 중독, 연쇄 중독의 시작=술 도박 약물과 달리 인터넷게임은 아동·청소년에게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나 자정 이후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 ‘셧다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게임 자체를 중독 행위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게임업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게임과 중독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게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br/>하지만 지난 1월 대만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음주로 이어지는 ‘중독의 연쇄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2000년 16세 청소년 1468명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한 다음 4년 뒤 20세가 된 이들의 음주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br/>결과는 16세 때 PC방을 드나들며 학업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의 고위험 음주율이 PC방 출입을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68명 가운데 25.9%는 20세가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이 가운데 16% 정도는 한 달에 3번 이상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군에 속했다.<br/>가톨릭대 의대 이해국 교수는 “<span class='quot2'>청소년기에 오락 목적으로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지나친 음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span>”라고 말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데다 밀집된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br/>◇중독자의 ‘뇌’는 닮았다=모든 중독자의 뇌는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접할 때 비슷하게 반응한다. 정상인의 뇌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중독자의 뇌는 전두엽의 쾌락중추가 급격히 활성화된다.<br/>정신의학 연구저널에 발표된 2009년 논문에 따르면 게임중독자에게 게임 관련 사진을 보여주면 뇌의 쾌락중추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부위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에게 술이나 마약 사진을 보여줬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비슷하다. 게임과 같은 행위도 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다.<br/>뇌의 쾌락중추가 고장 나면 조절력을 잃게 된다. 중독의 연쇄성은 이런 이유로 일어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게임 중독으로 10대부터 쾌락중추가 활성화되면 평생 중독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3'>어린 시기에 중독에 빠뜨리는 게임 중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3.txt

제목: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 일부 폐암환자만 효과 본다  
날짜: 20140413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3100000162  
본문: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돌연변이 유전자 표적 암 치료제가 한국인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6∼7명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사진) 교수와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 1605명을 대상으로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와 기존의 항암제의 약효를 평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11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br/>EGFR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자극, 각종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극신호를 전달하는 유전자이며, 폐암 환자의 30∼40%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다.<br/>EGFR 돌연변이 유전자를 겨냥하는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표적 암 치료제는 이 유전자가 정상인 폐암 환자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다. 이들에게는 기존 항암제가 훨씬 더 잘 듣는다는 말이다.<br/>이번 연구결과 EGFR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음성) 환자들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했을 때가 이레사 등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치료군의 전체 생존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임상시험연구가 끝난 후 받은 후속치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4.txt

제목: 경희의료원 16일, 환자와 함께 걷는 ‘힐링투어길’ 열어  
날짜: 201404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3100000030  
본문: [쿠키 건강]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의료진과 함께하는 환자, 보호자를 위한 ‘힐링투어길’ 행사를 실시한다.<br/>힐링투어길은 경희대학교 캠퍼스 곳곳을 의료진과 환자, 환자 보호자들이 걸으며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걷기 코스는 노천극장, 무용대학, 평화의 전당, 미술대학 등이며, 봉사단체인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보호자 곁에서 걷기를 돕는다.<br/>참가자들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교수의 ‘서혜경예술복지재단’ 3중주 클래식 공연과 무용대학 D.P.G.K팀의 공연을 감상하고, 경희대학교 미술관 ‘KUMA’에 전시된 김진만, 문소현 감독의 작품을 관람한다.<br/>행사 전 과정은 김한수 CF감독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되며 박병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참가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등, 각계 각층의 재능기부가 이어진다.<br/>‘힐링투어길’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윤병국 교수와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은영규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탄생한 환자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진행됐으며,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된다.<br/>윤병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힐링투어길의 콘셉트는 가벼운 캠퍼스 산책과 인생의 관조이다. 참여 환자들이 질병 극복 의지를 다잡고 삶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참가자가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들의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임영진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힐링투어길은 의료원의 암환자를 위한 15종의 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병원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진료와 치료의 수준을 넘어 환자나 가족의 삶과 정신까지 돌보고자 마련된 경희의료원만의 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석해 몸과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5.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용 줄여주는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2100000154  
본문: [쿠키 생활]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비 보장이 되지만 고액 암의 경우 치료비 보장이 어려워, 개인 부담이 크다.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암 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암 진단금액이 높은 암 보험 상품 위주로 관심이 높다.<br/>우리나라 암 발생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암 종류가 바로 위암이다. 위암이 잘 걸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맵고 짠 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위에 자극을 줌으로써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암 판정을 받는 암 환자들 중에는 치료를 위해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는 환자도 있어 암 발생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졌다.<br/>암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 한 개 정도는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암 보험 가입시 지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가입하여 실제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br/>암 진단비는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br/>나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렴한 암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상품 비교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가입률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올바른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6.txt

제목: 매년 증가하는 암발생 대비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으로 준비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2100000148  
본문: [쿠키 생활] 우리나라 암 발생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암 종류가 바로 위암이다. 위암이 잘 걸리는 이유는 예부터 맵고 짠 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위에 자극을 줌으로써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br/>암 판정을 받는 암 환자들 중에는 치료를 위해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는 환자도 있어 암 발생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졌다.<br/>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비 보장이 되지만 고액 암의 경우 치료비 보장이 어려워, 개인 부담이 크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암 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암 진단금액이 높은 암 보험 상품 위주로 관심이 높다.<br/>암 진단비는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br/>나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렴한 암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 생식기암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상품 비교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br/>암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 한 개 정도는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암 보험 가입시 지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체 가입하여 실제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 시 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7.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건 달성  
날짜: 201404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2100000123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은 지난 11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br/>지난 2011년 4우러 처음 로봇수술을 적용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3년 만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 달성에 성공했다.<br/>센터에서 100번째 수술을 받은 이(74·남)씨는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고 이 분야에서 로봇 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왔다.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 로봇수술을 선택했다”며 “첫날인데도 크게 아프지 않고 내일이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r/>이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로봇수술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br/>한편, 로봇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br/>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세계 유수의 전립선암 논문 38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광 목 부위가 수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복강경 수술의 40%,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성기능 회복률이 복강경 수술보다 1.39배 높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8.txt

제목: 병원치료비 혜택,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으로 저렴하게 가입!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2100000149  
본문: [쿠키 생활] 최근 봄철을 맞이하여 알레르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되고 있다.<br/>직장인 박모(35)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작업 하다 보니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안구건조증이라고 했다. 건조한 사무실에서 장시간 컴퓨터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데 병원을 일주일에 1~2번 정도 가다 보니 갈 때마다 지출되는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했다.<br/>이처럼 치료비 부담을 고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는 1억원정도다. 이 중 절반이 면역력 감소로 질병 발생율이 높은 노년층에서 발생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항목 증가도 매 년 늘어나고 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보장받는 보험으로 실제 늘어나는 의료비 항목의 부담을 줄여준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대안으로 준비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가 높기에 빠를수록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이라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한다.<br/>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중복보장이 안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59.txt

제목: “암줄기세포백신치료로 암 치료 유효율 높인다…CTC검사도 병행” 센신병원 구라모치 박사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416  
본문: [쿠키 생활] 일본 전역 35여개의 제휴 의료기관에 암치료 면역세포배양물질을 제공하고 있는 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새로운 암 치료를 위해 개발한 ‘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을 지난해 12월부터 암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암세포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CTC(Circulating Tumor Cell·혈액순환종양세포) 검사를 도입하여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5종 복합면역 요법’과 ‘수지상세포 획득 면역백신 요법’이 결합된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에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도록 한 암치료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2012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암 면역치료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신간 서적 ‘당신은 암 환자라서 행복하다’를 출판하여 의학박사로서, 암치료 전문병원장으로서, 세포치료 배양 전문가로서, 그리고 암환자로서 각각의 입장에서 암치료를 위해 나아갈 방향, 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암 환자에게 희망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br/>CTC는 혈액순환종양세포, 즉 혈액 중에 떠다니는 암세포다. 이러한 암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면서 장기로 이동해 전이 또는 재발을 일으킨다. 암세포 입자가 클 때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암세포일 때에는 측정이 어렵다. CTC검사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를 특수 기술로 검출해내는 최신 검사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DC-AIVac/CSC요법과 더불어 면역세포치료의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CTC검사를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경우 그만큼 암환자가 받게 될 고통도 줄여줄 수 있다</span>”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br/>구라모치 박사는 그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로 시행해 온 5종복합면역요법은 일본 내 대학병원, 종합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를 개량해 암치료 유효율을 더욱 향상 시킨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암치료 유효율 70~75%)으로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구라모치 박사의 새로운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암치료 방법으로 CTC검사와 함께 암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0.txt

제목: “수지상세포치료에 이어 암줄기세포백신치료로 암 치료 유효율 높인다” 센신병원 구라모치 박사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417  
본문: [쿠키 생활] 일본 전역 35여개의 제휴 의료기관에 암치료 면역세포배양물질을 제공하고 있는 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새로운 암 치료를 위해 개발한 ‘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을 지난해 12월부터 암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암세포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CTC(Circulating Tumor Cell·혈액순환종양세포) 검사를 도입하여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5종 복합면역 요법’과 ‘수지상세포 획득 면역백신 요법’이 결합된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에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도록 한 암치료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2012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암 면역치료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신간 서적 ‘당신은 암 환자라서 행복하다’를 출판하여 의학박사로서, 암치료 전문병원장으로서, 세포치료 배양 전문가로서, 그리고 암환자로서 각각의 입장에서 암치료를 위해 나아갈 방향, 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암 환자에게 희망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br/>CTC는 혈액순환종양세포, 즉 혈액 중에 떠다니는 암세포다. 이러한 암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면서 장기로 이동해 전이 또는 재발을 일으킨다. 암세포 입자가 클 때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암세포일 때에는 측정이 어렵다. CTC검사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를 특수 기술로 검출해내는 최신 검사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DC-AIVac/CSC요법과 더불어 면역세포치료의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CTC검사를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경우 그만큼 암환자가 받게 될 고통도 줄여줄 수 있다</span>”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br/>구라모치 박사는 그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로 시행해 온 5종복합면역요법은 일본 내 대학병원, 종합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를 개량해 암치료 유효율을 더욱 향상 시킨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암치료 유효율 70~75%)으로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구라모치 박사의 새로운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암치료 방법으로 CTC검사와 함께 암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1.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 돌파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307  
본문: [쿠키 사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로봇수술이 100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br/>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2011년 4월 처음 로봇수술을 한 이후 3년만에 이날 이모(74)씨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전립선암 100례를 달성했다.<br/>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른 반면 통증·출혈이나 상처감염 위험성은 적다. 또 복강경 수술에 비해 신경손상이나 주변조직 손상도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로봇수술은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로봇수술을 받은 이씨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은 뒤 로봇수술을 선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첫날인데도 크게 아프지 않고 내일이면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이완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다만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여서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br/>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2.txt

제목: 흡연 관련 대법원 판결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 유리하게 작용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214  
본문: 빅데이터 등 공단 역량 총동원해 인과관계 확실히 증명<br/><br/><br/><br/>[쿠키 건강] 개인이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를 확정됐지만 역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승소를 자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br/><br/>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명의 흡연자와 가족 등 30명이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span></span>”는 이유로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br/><br/>이로써 원고들이 지난 1999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15년을 끌어왔던 소송이 패배로 막을 내렸다.<br/><br/>재판부는 “폐암의 종류와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span></span>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개인력과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또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담배를 피운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개인이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이슈화됐고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담배소송 역시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하며 퍼져나갔다.<br/><br/>특히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span class='quot2'>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 없이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br/><br/>공단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국내에서 유일한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인적 물적 자원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br/><br/>사실 개인이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다.<br/><br/>공단은 “<span class='quot3'>빅데이터와 국내제일의 역학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물론 이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규모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span>”고 강조했다.<br/><br/>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에 대한 소송이 아닌 일부 암환자 진료비에 한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검토결과를 거친 결과라는 설명이다.<br/><br/>공단은 “<span class='quot3'>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0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span>”고 상기시켰다.<br/><br/>특히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또한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다고 밝힌 것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br/><br/>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4'>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승산 없었던 개인소송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 승소를 자신한다</span>”고 밝혔다.<br/><br/>이번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 유리하게 작용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br/><br/>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5'>법원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에서 역학적 인과관계 즉, 집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 즉, 소송을 건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span>”고 밝혔다.<br/><br/>그는 “<span class='quot5'>이번 대법원,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공단이 추진하는 담배 소송은 역학적 인과관계로 볼 때, 담배가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을 많이 지급됐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단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3.txt

제목: [겨자씨]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13977469  
본문: 바울은 평생 네 가지 은혜를 자랑했다. 첫째, 부끄러운 과거다.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동참했고 교회 박해의 앞잡이였다. 그런 허물에도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이다. 안질과 간질(몸의 가시)로 어딜 가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약점으로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br/>셋째, 고난 목록이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장과 한 번의 돌 맞음, 3번의 파선을 당했다. 또 강(江)의 위험을 비롯해 강도와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 그는 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했다. 모두 교회를 위해 받은 수난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었다. 넷째는 십자가다.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 길을 걸었고 십자가만 자랑했다.<br/>필자는 선친으로부터 병약함과 극한 가난을 물려받았다. 거주할 집이 없이 유년부터 청년시절을 고독하게 보냈다. 폐결핵과 4종 암, 당뇨 같은 병을 지녔지만 감사하며 산다. 그것들이 나를 온전히 비우게 하고 가장 모자란 겸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인도하고 봉헌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능력은 나에게 고통과 가난을 주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은 고통당하고 가난할 수 있는 은혜다.<br/>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4.txt

제목: 민병원, 조기위암 내시경 점막하박리술로 눈길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225  
본문: [쿠키 건강] 지난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42.8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발표했으며,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보면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의미이다.<br/><br/>이중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율이 높은 나라로 연간 신규 위암환자 수는 약 3만 여명으로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위암의 발생빈도는 남성에서는 1위이며, 여성은 3위로 알려져 있다.<br/><br/>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다 보니 국내의 위암 진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암 수술합병증 발생빈도는 10%, 수술사망률은 1% 내외로 과거에는 위암을 진단 받으면 전신마취 후에 개복수술을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조기 위암을 수술 없이 내시경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이 기존의 위암 치료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br/><br/>‘내시경점막하박리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위내시경을 이용하는 시술로 전신마취 없이 수면내시경 상태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내시경과 내시경용 전기칼을 이용해 병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선택적으로 암이 있는 부분만 절개하는 고난도 치료내시경 시술이기에 국내에서는 대학병원외에 민병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술법이다.<br/><br/>지금까지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은 주로 대학병원에서만 시행될 정도로 고난도 내시경시술로 알려져 있었으나, 민병원에서 대학병원 교수 출신 치료내시경 전문 팀을 구성하면서 활발히 시행중에 있다.<br/><br/>내시경점막하박리술의 장점은 위를 개복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아 흉터가 없고 회복시간이 빨라 시술 다음 날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치료성적이 우수해 국내외 학술지에서 발표한 완전 절제율과 완치율이 모두 95% 이상으로 개복수술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조기위암 환자의 경우 믿고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민병원 조원형·복진현 원장은 “<span class='quot0'>내시경 역량은 대학교수때부터 국내외 치료내시경 라이브시연 및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조기위암과 조기대장암의 치료내시경수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유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점막하박리술의 경우 의료비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원의 고가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용하기에 좋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5.txt

제목: [겨자씨]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094  
본문: 바울은 평생 네 가지 은혜를 자랑했다. 첫째, 부끄러운 과거다.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동참했고 교회 박해의 앞잡이였다. 그런 허물에도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이다. 안질과 간질(몸의 가시)로 어딜 가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약점으로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br/>셋째, 고난 목록이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장과 한 번의 돌 맞음, 3번의 파선을 당했다. 또 강(江)의 위험을 비롯해 강도와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 그는 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했다. 모두 교회를 위해 받은 수난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었다. 넷째는 십자가다.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 길을 걸었고 십자가만 자랑했다.<br/>필자는 선친으로부터 병약함과 극한 가난을 물려받았다. 거주할 집이 없이 유년부터 청년시절을 고독하게 보냈다. 폐결핵과 4종 암, 당뇨 같은 병을 지녔지만 감사하며 산다. 그것들이 나를 온전히 비우게 하고 가장 모자란 겸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인도하고 봉헌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능력은 나에게 고통과 가난을 주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은 고통당하고 가난할 수 있는 은혜다.<br/>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6.txt

제목: [바이블시론-김형민] 현수와 홀트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021  
본문: 최근 현수라는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면서 죽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아예 입양을 보내지 말자. 이게 무슨 수치냐?”면서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난하고, 입양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6·25전쟁 직후 홀트라는 미국인이 그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인 10억원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데 사용했다. 무려 18만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보살폈고, 8명의 고아들도 자신이 직접 입양을 했다.<br/>홀트의 딸, 말리 홀트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시집도 안 가고, 57년 동안이나 고아들을 돌보거나 입양시켰다. 최근 말리 홀트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침 어떤 단체에서 5000만원과 함께 사회공헌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내어놓았다. 현재 그녀는 3평짜리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병과 싸우며 생활을 하고 있다.<br/>입양금지법은 좀 더 신중하게<br/>아이를 입양한 외국인들이 떠나기 전에, 한국 목사의 축복기도라도 받게 하고픈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자주 있다.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병약한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주로 오는데, 양부모들이 막대한 수술비용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다.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입양자들과는 사뭇 다르다. 입양자의 입장보다 아이들 편에서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라 가능한 일일 것이다.<br/>물론 현수의 케이스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슬픈 일들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양부모의 케이스보다 더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양금지법은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br/>현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말리 홀트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 괴로운 중에 이런 독백을 했다. “아버지! 그때 후원이나 하시지, 왜 이 땅의 고아들을 입양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물질적인 부요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리고 버려진 고아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br/>“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제게 뭐라고 충고하실까요?” 그러자 마치 아버지께서 딸 말리 홀트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하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br/>지구 최초의 입양자 하나님<br/>“<span class='quot0'>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span>”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야고보서 1장 2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자는 항상 주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 지구 최초로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입양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올해 부활절 각 교회들이 특별한 연합예배들도 계획하겠지만 사회 곳곳으로 흩어져 이 사회의 약자들이 ‘왜 아픈지, 왜 우는지’ 예수님처럼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br/>무조건 고아 수출 국가라며 우리 얼굴, 우리의 자존심만 운운하지 말고 만일 입양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교회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 버려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아파하며 연구하는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가 먼저 나서줘야 할 일이 아닌가! 나는 기대한다. 아까운 생명 ‘현수의 목숨 값’이 헛되지 않도록 입양에 대한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br/>김형민 대학연합교회 담임목사<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7.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癌은 병원의 젖줄인가  
날짜: 20140410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033  
본문: 연세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이 14일 새 암(癌)병원을 동시에 개원한다. 연세의료원은 총 454병상의 연세암병원을 신축했고, 고려대의료원은 180병상을 증축한 고대구로병원에 14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한 국립암센터는 상반기 중 부속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016년 6월까지 220병상을 증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립암센터의 병상 수는 732개로 늘게 된다.<br/>사실 국내 수도권 암 병상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 서울아산병원 암센터(770)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655) 서울성모병원(500) 서울대병원(202) 등 소위 ‘빅4 병원’ 암병원과 국립암센터(512)의 병상 수만 해도 2639개나 된다. 앞으로 연세암병원과 고대구로병원, 국립암센터 증축 병상까지 추가될 경우 3500개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전 인구 3억2000여만명의 미국에도 500병상 내외의 암 전문병원은 슬로안-케터링 암센터와 M D 앤더슨 암센터, 다나-파버연구소 등 몇 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의 암병원 규모 및 암 환자 유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현실적인지 짐작할 수 있다.<br/>국내 대학병원들은 왜 이렇게 암 치료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다.<br/>우리나라 암 환자는 암 치료 시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소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이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료 등 비(非)보험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암 치료는 이같은 비보험 진료행위가 비교적 많이 이뤄지는 분야다. 환자들 사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다.<br/>‘신의료기술’이라는 이유로 보험진료가 원천봉쇄당하는 검사와 약, 의료기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병원으로선 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질병장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각 병원이 암병원을 특화하며 끊임없이 비보험 진료를 유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2011년 91조여원에서 2013년 101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또 2012년 기준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해마다 암과 싸우는 비용으로 약 25조∼30조원을 어떤 형태로든 허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br/>또 다른 문제는 병원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서로 과잉투자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과잉진료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암 환자, 즉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br/>우리나라 암병원은 규모와 시설 등 하드웨어 시스템에선 결코 미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로봇수술 장비 등 최신 의료기기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과 장비를 다루고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인력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암 전문병원들은 의료진과 연구진을 포함해 병상당 직원 수가 20.6(슬로안-케터링)∼23.4명(M D 앤더슨)에 이른다. 반면 국내 암병원들은 현대, 삼성 등 재벌이 투자한 암병원은 물론 정부가 암 치료 및 연구의 롤 모델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적으로 운영하는 국립암센터조차 직원 수가 병상당 3∼4명에 불과한 형편이다.<br/>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암병원들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서비스보다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양적 서비스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br/>정부는 의사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루 최대 외래 및 입원 환자 수를 제한, 각 환자들을 충분히 진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무분별한 암병원의 난립도 막아야 한다. 물론 국민이 암병원을 이용한 후 ‘바가지’를 썼다는 기분도 들지 않게 해줘야 한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8.txt

제목: [속보]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대법 “흡연-암 무관”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298  
본문: [쿠키 사회] 대법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가 확정됐다. “흡연과 암 무관”<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br/>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고 밝혔다.<br/>역학적 인과관계는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해 따져보는 것이다.<br/>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br/>또 이번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br/>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br/>결국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획일적·전면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br/>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span class='quot0'>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span>”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재판부는 “<span class='quot0'>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span>”고 말했다.<br/>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7년에 “<span class='quot1'>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span>”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span class='quot2'>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span>”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br/>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0'>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br/>두 소송의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1명과 5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69.txt

제목: MBN 리얼다큐 숨, 미래항암제 후코이단 조명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230  
본문: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 사례자로 출연<br/><br/>[쿠키 건강]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의 암 극복기가 MBN 방송 리얼다큐 숨에 소개된다.<br/><br/>4월 10일 10시에 방영되는 ‘신비의 바닷속 영약, 해초’ 편에 미역귀 후코이단을 먹고 전립선암을 완치한 이정식 사장의 사례가 방영되는 것.<br/><br/>미역귀, 다시마 등 갈조류에 주로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체내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면역증강 기능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생혈관 억제기능 △암의 전이를 막는 암세포 혈소판 점착 억제 기능 등이 알려져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br/><br/>실제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후코이단을 항암치료와 병행 처방하는 의사가 늘고 있을 정도로 효과를 공인받고 있다.<br/><br/>리얼다큐 숨에 소개된 이정식 사장은 37년간 해조류 무역업을 해온 해조 전문가.<br/><br/>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동진행한 후코이단 생산 국책사업의 단독사업자로 선정돼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했으나 2007년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는 아픔을 겪는다.<br/><br/>그러나 엄격한 식이요법과 직접 만든 후코이단 음용을 통해 전립선암을 완치, 현재는 후코이단 및 해조식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br/><br/>후코이단을 통한 이정식 사장의 암 극복기는 4월 10일 10시 MBN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0.txt

제목: 젊은 여성 암 환자도, 항암치료 후 임신 가능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309  
본문: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난소조직 냉동보관 최적방법 개발<br/>[쿠키 건강] 젊은 여성 암 환자에 대한 항암치료 전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조직 동결 시행시 난소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지침이 없는 난소동결기법의 최적 방법을 확립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가임력보존클리닉 서창석·이정렬 교수팀은 난소 조직 동결의 새로운 방법인 유리화동결시 난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결보호제 선택, 최적농도, 최적 노출시간 등의 동결방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br/>이번 연구 결과는 보조생식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인간생식(Human Reproduction)’ 4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br/>암환자의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배아/난자 동결보존법이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후 채취한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시킨 후 배아를 얼리고, 미혼여성이지만 초경 이후인 경우 과배란 후 채취한 난자를 얼리는 방법이다.<br/>이러한 배아/난자 동결보존법은 난소기능의 손상이 예상되는 항암, 방사선 치료 전에 시행하여 치료 이후에 임신을 원하는 암환자에게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br/>그러나 배아/난자 동결보존법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암 치료가 시급하여 과배란 유도법을 통한 난소채취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 또 난자나 배아 동결의 경우 한 번에 채취되는 난자수가 제한적이고 실패시 대체할 난자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br/>새로운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난소조직동결이다. 이 방법은 난소조직을 처리하여 동결한 후 몇 년 뒤 암 치료가 끝나고 동결 보존되었던 난소를 해동하여 환자에게 재이식하고 이식된 난소를 통해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로, 현재 최첨단 가임력보존 치료의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br/>연구팀에 따르면 난소 조직동결의 장점은 아주 작게 보관된 난소 피질 조직 한 조각에도 향후 무수히 많은 난자로 성숙될 수 있는 원시난포가 모여 있다는 점, 사춘기 이전의 여성에서 과배란 유도 없이 즉각적으로 난소조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식된 난소에서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 치료로 인한 폐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서 혁신적인 치료방법으로 평가된다.<br/>서창석·이정렬 교수팀은 생쥐의 난소조직을 수술적으로 얻은 후 다양한 동결보호제를 이용해 유리화동결법으로 난소조직동결을 시행 비교분석했다. 얼린 난소조직은 해동 후 다시 쥐의 신장조직에 이식하거나, 조직 그대로 시험관에서 배양해 난자의 성숙도와 호르몬 기능회복을 관찰했다. 이식 후 생존율을 평가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동결방법을 근거로 최적의 난소조직 동결방법을 제시했다.<br/>이정렬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난소 조직동결의 성공률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임상적인 적용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평가했다. 이어 서창석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환자에서의 가임력보존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확립하고자 하며, 확립된 프로토콜을 전국의 거점병원으로 기술이전하여 거주지에 관계 없이 동일수준의 가임력보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span>”라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1.txt

제목: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 정의를 향한 갈망을 주소서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13966058  
본문: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br/>비천한 우리를 진토에서 불러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귀한 사랑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암 5:15)고 말씀하시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명령하셨습니다.<br/>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암 5:7)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하나님의 법을 세울 만한 경견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br/>주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가 되도록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기도하오니 밥이 없는 이 땅과 세계의 이웃들에게는 밥을 주시고, 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의를 향한 갈망을 주소서.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br/>김원배 목사(목포 꿈동산교회)<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2.txt

제목: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 정의를 향한 갈망을 주소서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054  
본문: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br/>비천한 우리를 진토에서 불러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귀한 사랑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암 5:15)고 말씀하시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명령하셨습니다.<br/>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암 5:7)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하나님의 법을 세울 만한 경견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br/>주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가 되도록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기도하오니 밥이 없는 이 땅과 세계의 이웃들에게는 밥을 주시고, 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의를 향한 갈망을 주소서.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br/>김원배 목사(목포 꿈동산교회)<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3.txt

제목: [속보]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대법 “흡연-암 무관”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248  
본문: [쿠키 사회] 대법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가 확정됐다. “흡연과 암 무관”<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4.txt

제목: 이화의료원 21일, 여성건강증진센터 5주년 기념 행사 열어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287  
본문: [쿠키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병원 김옥길홀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해 건강강좌 및 명사 초청 토크쇼를 개최한다.<br/>지역주민과 환자, 보호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각 분야 여성암 전문의들의 강연과 함께 명사 초청 특강, 토크쇼 및 공연 등이 펼쳐진다. 김윤환 부인종양센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건강강좌에서는 ▲유전성 유방암이란?(이안복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똑똑한 건강 이야기(전혜진 건진의학과 교수) ▲뇌건강과 기억력 증진(정지향 신경과 교수) ▲하버드식 부인암 예방법(주웅 부인종양센터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br/>이어 이숙경 영화감독 겸 줌마네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토크쇼 ‘산책문답’에서는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가 초청강사로 나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또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과 유인경 기자, 환우들이 함께 ‘일상의 행복, 건강을 위한 노하우’를 주제로 토크쇼가 열린다.<br/>이와 함께 밴드 ‘신나는 섬’과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 환우와 환우 가족들로 구성된 ‘행복바이러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br/>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AIA생명, 청호나이스, 토다이 목동점 등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참가자에게는 선착순 400명에게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무료 종합건강검진권(1명), 청호나이스 비데(3명), 유방·갑상선 초음파 촬영권(10명), 토다이 목동점 무료식사권(15명), CGV 골드 클래스 영화관람권(2명), CGV 영화관람권(10명)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br/>이순남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을 남성과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여성건강증진센터가 여성 고객의 호응을 얻어 개소 5년 만에 국내에서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진료 시설로 자리 잡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그동안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여성 질환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제정하고, 지난 3월 말부터 ‘여성건강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문의: 02-2650-5504)<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5.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대법 판결 상관없어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506  
본문: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일(10일) 흡연 피해자 개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건보공단은 10일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가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을 통해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했다.<br/><br/>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000억원)에 대한 소송 제기가 아닌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br/><br/>특히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br/><br/>또 일부 언론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br/><br/>한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는 원심에서 해당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br/>또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들만이 상고를 제기해 원고들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에 대해만 상고심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에서 해당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2명은 상고이유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만 판단했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6.txt

제목: 산부인과 낮은 방문, 대한민국은 여성건강 사각지대②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168  
본문: 대한민국,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문화 정착 시급<br/><br/>[쿠키 건강]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문화는 여성의 일생에 거쳐 성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정착되고 활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r/><br/>상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도로 산부인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으나 보수적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br/><br/>국내에서 산부인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 중 대표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진행한 ‘와이즈우먼 피임생리이야기’ 캠페인이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주도로 정확한 피임 및 생리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전문의 상담을 활성화 하며, 실질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br/><br/>지난해부터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가 함께 여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재능기부 상담프로그램인 ‘똑톡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10월20일을 초경의 날로 제정해 초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리주기 계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3W 핑크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하기도 했다.<br/><br/>문제는 이같은 노력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산부인과 방문에 대해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진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span class='quot0'>그동안 산부인과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뿌리 깊은 보수적 인식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span>”라고 전했다.<br/><br/>◇미국, 국가 차원의 피임상담 인식개선…41만건의 낙태예방<br/><br/>미국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피임상담 인식개선 캠페인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10대의 임신율 감소 및 피임 실천율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br/><br/>Habor UCLA 클리닉센터 아니타 넬슨 교수는 미국의 피임상담문화에 대해 미국 여성들은 산부인과 문턱 넘기를 어려워하는 한국 여성들과 달리 산부인과 방문을 주저하지 않고, 피임법에 대해서도 전문의와 수시로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1970년대부터 여성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주도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br/><br/>미국은 1970년부터 ‘타이틀 X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피임법을 제공하고 여성 암 검진 등 성 건강 향상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와 각 관련 단체가 조성한 보조금을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가임기 여성을 주 타깃으로 전국 4100개 센터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47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58만6000건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했을 뿐 아니라 40만3000건의 낙태 예방, 53억 달러의 정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br/>또 공동 연방 뿐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Family PACT)도 있는데 연방에서 설정한 빈곤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피임법, 성병 검사 및 치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의도치 않은 임신과 낙태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br/><br/>넬슨 교수는 “<span class='quot1'>미국 정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계획 임신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설정해 40여년에 거쳐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 결과, 원하지 않은 임신율을 낮췄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성 건강 역시 증진됐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7.txt

제목: [한마당-염성덕] 母情의 위대함  
날짜: 20140409  
기자: 염성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010  
본문: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는 살신(殺身)의 모정(母情)을 실천한 박정렬 여사 추모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박 여사는 1978년 3월 딸(6)과 함께 친정 나들이에 나섰다가 자운리 불발령에서 기습적인 폭설에 막혀 길을 잃고 탈진했다. 살을 에는 맹추위가 엄습했지만 박 여사는 윗옷을 벗어 딸을 감싸 품에 안았다.<br/>결국 박 여사는 숨졌지만 딸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혹독한 환경에서 피붙이를 구한 것이다. ‘고 박정렬 여사 추모공원’에 세워진 동상은 어머니가 간절하고 그윽한 눈으로 품에 안은 딸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 눈보라 몰아치던 불발령 고갯길, 어린 딸을 살리고 숨져간 거룩한 어머니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위령탑에 적힌 글귀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br/>사건·사고 현장에서 모정이 빛을 발할 때가 많다. 지난해 4월 강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四川)성 구조현장에서 중년 여성 양위룽은 100㎏에 달하는 콘크리트 벽을 들어올려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구했다. 양위룽은 어떻게 괴력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무너진 주택 잔해 더미에서 발견된 한 여인은 숨졌지만 품속의 어린 아들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다. 모정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일이다.<br/>일본 피겨 스타 아사다 마오의 어머니는 딸 사랑이 유별했던 모양이다. 간질환으로 별세하기 전 아사다가 자신의 간이식을 권유했으나 딸을 위해 이식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건강과 장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교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애끓는 모정’ ‘애타는 모정’이란 표현이 떠오른다.<br/>태아를 살리기 위해 암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한 미국인 엘리자베스 조이스의 사랑 이야기는 ‘모정 시리즈’의 백미로 꼽혀도 손색이 없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지만 조이스는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한 달 만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종양을 제거했지만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려면 낙태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br/>생사기로에 선 조이스는 태아의 생명을 선택하고 암 치료를 중단했다.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두고 인공분만으로 딸을 낳았다. 출산 6주 후 딸을 안고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모정의 위대함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br/>염성덕 논설위원 sdyum@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8.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암병원 14일 개원 “암 치료의 새 지평 열겠다”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240  
본문: [쿠키 건강] 고대구로병원이 암 환자만을 위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오는 14일 암병원을 개원한다고 8일 밝혔다.<br/><br/>대병병원이 규모의 경쟁을 키워가는 지금, 구로병원 암병원은 ‘Easy(쉽고 편하고), Fast(빠르고), Credit(믿을 수 있는) 암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규모보다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통해 암치료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br/><br/>암 환자의 생존율를 높일 수 있도록 최첨단 치료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에서 진단까지, 수술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까지 오랜 기다림과 잦은 이동 없이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하도록 공간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새롭게 설계된 암병원은 기존 병원보다 외래진료실, 초음파 검사실, 방사선치료실, 일일 항암치료실, 교육실의 수를 확충해 환자의 편의를 높였다.<br/><br/>구로병원 암병원을 찾은 환자는 한 자리에 모인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진들로부터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표적항암치료와 독창적인 복강경수술법, 각종 첨단 방사선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만족도와 치료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 기존보다 확장된 일일항암치료실은 입원해야하는 성가심을 줄여준다.<br/><br/>더불어 구로병원 암병원에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사양의 장비인 640MSCT(Multi-Slice CT), 3.0T MRI를 갖추고 있어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640MSCT는 16cm의 넓은 범위를 0.35초 만에 촬영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CT로 검사 시간이 짧은 만큼 방사선 피복선량, 주입하는 조영제의 양도 적어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br/><br/>고대구로병원은 “14일 새롭게 개원하는 암병원을 통해 국제 수준의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환자중심 암병원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인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One-stop 진료와 함께 암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해 환자중심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79.txt

제목: EGFR 돌연변이 없는 폐암환자, 기존 항암제가 효과적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225  
본문: 표적항암제 이레사나 타세바 보다 효과 좋아,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br/>[쿠키 건강]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없는 폐암환자 치료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가 EGFR 표적항암제인 ‘이레사(Iressa)’나 ‘타세바(Tarceva)’ 보다 효과적이라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br/>현재 EGFR 돌연변이 음성 폐암환자는 국내 폐암환자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사진 왼쪽), 이준구 전문의(가운데),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오른쪽) 공동연구팀은 EGFR 표적항암제와 기존 항암제 치료를 비교한 11개 임상시험의 1605명 환자 치료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br/>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의학저널인 미국의학협회지(JAMA) 9일자에 게재됐다.<br/>공동연구팀은 표적항암제 효능에 논란이 있어 온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군에서 최선의 치료 약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시행했다.<br/>연구팀은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한 경우가 EGFR 표적항암제로 치료한 것 보다 암의 진행속도가 느리고(중앙 무진행 생존기간 6.4개월 대 4.5개월), 종양크기도 더 많이 감소(반응율 16.8% 대 7.2%)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이들 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와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에서 모두 관찰됐다.<br/>연구팀에 따르면 두 치료군 간에 전체 생존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임상시험 이후 받은 후속치료에 의해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팀은 향후 EGFR 돌연변이 음성환자에서는 EGFR 억제제보다 기존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br/>폐암은 국내 암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이다. 그러나 최근 표적항암제의 등장으로 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GFR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표적항암제인 이레사 혹은 타세바에 좋은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군은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EGFR 돌연변이 음성인 나머지 60% 환자에서 이레사, 타세바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있었다.<br/>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군에 대한 치료 방침 설정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과 ‘란셋(Lancet)’ 과 더불어 세계 3대 의학저널로 꼽히는 ‘JAMA’에 게재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0.txt

제목: 중앙대병원, 4월 17일 ‘폐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282  
본문: [쿠키 건강] 중앙대학교병원은 오는 4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폐암, 알고 싶어요!'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로 알려진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녀 모두 폐암으로, 201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여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br/><br/>특히, 폐암은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발견이 늦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br/><br/>이에 중앙대병원 종양협진클리닉에서는 폐암에 대해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 분야 전문 교수들이 최신 치료법과 협진에 의한 치료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br/><br/>이번 강좌는 ▲폐암의 초기 증상과 내과적 진단(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 ▲폐암의 수술치료(흉부외과 최주원 교수),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교수),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접수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br/><br/>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앙대병원 대외협력팀(02-6299-2219)으로 연락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1.txt

제목: 여성들 건강한 가슴 지키는 ‘유방 자가검진’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216  
본문: [쿠키 건강] 여성들에게 소중한 신체 중 하나인 가슴, 아름다운 가슴은 여성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출산을 마친 어머니의 가슴은 태어난 아이의 밥주머니 역할까지 충실하게 맡는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여성의 가슴 역시 각종 질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적은 유방암만이 아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의 도움말을 통해 여성의 가슴, 유방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알아본다.<br/>▲유선조직과 결합조직이 풍부한 치밀유방=치밀유방이란 젖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유선조직과 결합조직이 풍부하고 단단하게 모여 있다는 뜻으로 유방촬영 결과 유방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br/>여성의 유방은 나이에 따라 변하는데, 젊은 여성에서 치밀형 유방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유선조직이 줄고, 지방조직이 많아지면서 지방형 유방이 많아진다. 치밀유방은 그 자체로 질병은 아니지만, 유방 촬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병변이 가려져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정밀한 유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br/>▲여성 유방질환 중 가장 흔한 유방결절=유방결절이란 유방에 생긴 혹을 모두 일컫는 말로, 크게 양성 유방질환(단순 낭종, 섬유낭종성 변화, 섬유선종, 관내 유두종, 과오종, 과형성증, 유방염 등)과 악성 유방질환(유방암 등)으로 나뉜다.<br/>이 중 단순 낭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물주머니로, 쉽게 말해 물혹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결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이 섬유선종과 섬유낭종성 변화이다. 20~30대 젊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섬유선종은 구슬만 한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특징이다. 섬유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살 유방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r/>▲비대해진 섬유질과 유선 섬유낭종성 변화=섬유낭종성 변화는 20~50대 광범위한 연령층에 발병한다. 유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및 프로락틴에 민감히 반응하는 섬유질과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다.<br/>여성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일어나 유방의 구성 성분인 유방 섬유질과 유선이 비대해지면서 유방이 더 커지고 유방통이 일어나는 것은 섬유낭종성 변화라고 한다. 유방에서 시작해 어깨나 겨드랑이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질환을 가진 어떤 여성은 유방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여성은 배란기부터 생리 기간 전까지 유방이 약간 부은 듯하며 만지면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생리 직전에 더욱 심해진다. 또 어떤 여성은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을 겪기도 한다.<br/>그리고 유방 촉진 시는 경계가 불분명한 덩어리가 주로 겨드랑이에 가까운 부위에서 만져지기도 한다. 이 덩어리는 월경 이전에 점점 커지다가 월경이 끝나면 원상으로 복귀된다. 대부분 섬유낭종성 질환은 유방암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br/>▲겨드랑이 아래 제2의 가슴 부유방=부유방은 몸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유방이 발달하면서 호르몬 과잉 분비로 인해 겨드랑이 밑으로 또 다른 유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예도 있다. 부유방은 여성의 가슴과 같은 유선조직과 지방조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유방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하면 부유두에서 모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외관상 문제가 있으면 부유방 수술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유선조직을 제거하거나 주위 지방만 흡입한다.<br/>▲딱딱한 혹과 분비물, 유방암과 유방파제트병=아직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서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유방암의 증세는 다양하지만 유방에 딱딱한 혹이 만져지는 것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세다. 통증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젖꼭지에서 피와 같은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암이 진행되면 유방의 피부 혹은 유두가 유방 속으로 끌려들어가 옴폭 파이기도 한다. 또한 유두 피부가 습진처럼 헐거나 진물이 나면 유방암의 일종인 유방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다.<br/>▲유방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우선 유방 자가검진부터 해야 한다. 검진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한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생리가 끝난 뒤 일주일 무렵으로 임신 또는 무월경이 계속되는 시기에 한다. 폐경 후에는 매월 기억하기 쉬운 특정 날짜를 지정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br/>그 다음으로 유방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에 의하면 30세 이상에서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에서는 1~2년마다 임상검진과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유방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방전문의와 더욱 체계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또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도 유방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유방 자가검진 방법(출처=한국유방건강재단)1. 거울 앞에서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 양쪽 유방을 관찰한다.2.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3.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인다.4.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편 2, 3, 4번째 손가락 첫 마디 바닥 면을 이용해 검진한다.5. 유방 바깥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유두를 향해 천천히 들어오면서 유방을 촉진한다.6. 유방을 눌러서 비비는 느낌으로 실시한다.7.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만져본 후 유루의 위아래 양옆에서 안쪽으로 짜보아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2.txt

제목: 소중한 여성의 가슴, 적(敵)은 유방암만이 아니다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372  
본문: [쿠키 건강] 아름다운 가슴은 여성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출산을 마친 어머니의 가슴은 태어난 아이의 밥주머니 역할까지 충실하게 맡는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여성의 가슴 역시 각종 질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적은 유방암만이 아니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여성의 가슴, 유방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알아보자.<br/><br/>◇유선조직과 결합조직이 풍부한 치밀유방= 치밀유방이란 젖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유선조직과 결합조직이 풍부하고 단단하게 모여 있다는 뜻으로 유방 촬영 결과 유방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의 유방은 나이에 따라 변하는데, 젊은 여성에서 치밀형 유방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유선조직이 줄고, 지방조직이 많아지면서 지방형 유방이 많아진다.<br/><br/>치밀유방은 그 자체로 질병은 아니지만, 유방 촬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병변이 가려져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정밀한 유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br/><br/>◇여성 유방질환 중 가장 흔한 유방결절= 유방결절이란 유방에 생긴 혹을 모두 일컫는 말로, 크게 양성 유방질환(단순 낭종, 섬유낭종성 변화, 섬유선종, 관내 유두종, 과오종, 과형성증, 유방염 등)과 악성 유방질환(유방암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단순 낭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물주머니로, 쉽게 말해 물혹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유방결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이 섬유선종과 섬유낭종성 변화이다. 20~30대 젊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섬유선종은 구슬만 한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특징이다. 섬유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유방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r/><br/>◇비대해진 섬유질과 유선 섬유낭종성 변화= 섬유낭종성 변화는 20~50대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발병한다.<br/><br/>유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및 프로락틴에 민감히 반응하는 섬유질과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일어나 유방의 구성 성분인 유방 섬유질과 유선이 비대해지면서 유방이 더 커지고 유방통이 일어나는 것을 섬유낭종성 변화라고 한다. 유방에서 시작해 어깨나 겨드랑이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br/><br/>이 질환을 가진 어떤 여성은 유방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여성은 배란기부터 생리 기간 전까지 유방이 약간 부은 듯하며 만지면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br/><br/>이런 증상은 생리 직전에 더욱 심해진다. 또 어떤 여성은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을 겪기도 한다.<br/><br/>그리고 유방 촉진 시는 경계가 불분명한 덩어리가 주로 겨드랑이에 가까운 부위에서 만져지기도 한다. 이 덩어리는 월경 이전에 점점 커지다가 월경이 끝나면 원상으로 복귀된다. 대부분 섬유낭종성 질환은 유방암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br/><br/>◇겨드랑이 아래 제2의 가슴 부유방= 부유방은 몸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유방이 발달하면서 호르몬 과잉 분비로 인해 겨드랑이 밑으로 또 다른 유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예도 있다. 부유방은 여성의 가슴과 같은 유선조직과 지방조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유방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하면 부유두에서 모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외관상 문제가 있으면 부유방 수술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유선조직을 제거하거나 주위 지방만 흡입한다.<br/><br/>◇딱딱한 혹과 분비물, 유방암과 유방파제트병= 아직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서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유방암의 증세는 다양하지만 유방에 딱딱한 혹이 만져지는 것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세다. 통증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젖꼭지에서 피와 같은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암이 진행되면 유방의 피부 혹은 유두가 유방 속으로 끌려들어가 옴폭 파이기도 한다. 또한 유두 피부가 습진처럼 헐거나 진물이 나면 유방암의 일종인 유방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다.<br/><br/>◇유방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우선 유방 자가검진부터 해야 한다. 검진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한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생리가 끝난 뒤 일주일 무렵으로 임신 또는 무월경이 계속되는 시기에 한다. 폐경 후에는 매월 기억하기 쉬운 특정 날짜를 지정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으로 유방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에 의하면 30세 이상에서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에서는 1~2년마다 임상검진과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유방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방전문의와 더욱 체계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또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도 유방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3.txt

제목: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방광암 발생 논란… 제조 판매사에 6조 규모 배상 판결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206  
본문: [쿠키 건강]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가 또다시 방광암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br/><br/>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7일 다케다제약에 액토스의 발암 위험을 은폐한 혐의로 60억 달러(약 6조3138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br/><br/>아울러 배심원단은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미국 시장에서 액토스의 마케팅과 제품 판매를 담당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도 3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br/><br/>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액토스 투여로 인해 암에 걸렸으며, 다케다제약이 액토스와 방광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7년이나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br/><br/>반면 일본 다케다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부정해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br/><br/>실제 국내 사용설명서에서는 ‘이 약을 활동성 방광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약을 방광암 환자 및 방광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표기돼 있다.<br/><br/>미국 내 제품 라벨에서는 2011년 미국 FDA가 액토스와 방광암 위험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함에 따라 ‘1년 이상 복용 시 방광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4.txt

제목: CJ헬스케어, R&D로 승부  
날짜: 201404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8100000188  
본문: [쿠키 건강] CJ헬스케어가 신약 및 개량신약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지난 4월 1일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에서 CJ그룹의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한 CJ헬스케어는 출범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매진하여 2020년 매출 1조의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출사표를 던졌다.<br/><br/>올해로 만 30년을 맞은 CJ그룹의 제약사업은 86년 간염예방백신인 ‘헤팍신-B’를 순수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하면서 R&D 포문을 열었다. 90년에 고도의 정밀화학 기술이 필요한 기초 원료 물질인 7-ACA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며 R&D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1998년 신성 빈혈치료제 EPO제제(제품명: 에포카인)를 세계 3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국산 EPO를 보급하며 의약품의 국산화에 앞장섰다.<br/><br/>30년간 쌓아온 R&D기술력을 바탕으로 CJ헬스케어의 순환, 대사, 소화, 항암 계열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등의 연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br/><br/>먼저 CJ헬스케어의 이름으로는 처음 출시될 신약으로 새로운 기전의 역류성 위식도염 치료 신약(과제명 CJ-12420)이 개발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 29조원, 국내 2450억원(IMS)의 규모로 매 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역류성 위식도 질환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CJ-12420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P-CAB,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라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이미 임상 1상에서 기존 PPI제제보다 빠르고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와 뛰어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출시 목표 해인 2018년 출시될 경우 국내 및 세계 위산 관련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혁신적인 치료제이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CJ헬스케어는 현재 CJ-12420에 대해 임상 2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임상 3상 IND 승인을 목표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이 외에도 CJ헬스케어는 표적항암제 및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IBS(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신약 R&D로 미래 성장동력을 축적하고 있다.<br/><br/>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2세대 EPO 개발이 진행 중이다. EPO제제(신성빈혈치료제/제품명 에포카인)개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CJ헬스케어는 2019년 출시 목표로 기존 1세대 제품 대비 투여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개선한 2세대 EPO의 IND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치료제 시장이 세계 11조원, 국내 1200억원의 규모를 띄고 있어 향후 CJ헬스케어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개량신약으로는 나날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성질환 및 암 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고혈압+고지혈, 당뇨, 항암 등 순환, 대사, 암 질환을 중심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해 관련 치료제 시장지위를 한층 더 높인다는 전략이다.<br/><br/>CJ헬스케어는 자체 개발 및 병원, 벤처, 연구기관 등과의 C&D(Connect&Development)를 활용해 다양한 질환 군의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순환, 대사, 소화, 암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Heal the world, better life로의 비전을 실천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5.txt

제목: 순천향대서울병원 12일, 4회 소화기암센터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4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8100000159  
본문: [쿠키 건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암센터(소장 조주영)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제4회 소화기암센터 심포지엄을 연다.<br/><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술, 방사선치료, 내시경수술, 항암치료 등 다학제 접근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1부 소화기암의 최신지견과 2부 소화기암환자의 다학적 접근 및 치료로 나눠 총 7개의 연제가 발표된다.<br/><br/>조주영 교수(소화기내과)와 최석렬 교수(동아대학교병원)가 공동좌장을 맡은 제1부 소화기위암의 최신시견 세션에서는 ▲위암(동아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진석) ▲대장암(영남내병원 소화기내과 장병익) ▲췌담도암(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조재희) 발표가 예정돼 있다.<br/><br/>이어 이남수 교수(혈액종양내과)·장여운 교수(경희대병원)가 좌장을 맡은 2부 소화기암환자의 다학적 접근 및 치료 세션에서는 ▲소화기암 진단에서 MRI검사의 임상적 의의 (순천향대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황지영) ▲소화기암 진단에서 방사선 치료의 유용성(순천향대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아람) ▲소화기암 항암제 처방의 실제(순천향대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경하) ▲진행성 소화기암 환자에서 고식적 수술(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손명원) 발표로 진행된다.<br/><br/>조주영 소화기암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0'>2011년 개소한 이래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내과, 병리과 전문의들이 함께 다학제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제4회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6.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최재원 교수, 국민건강증진 향상 공로 대통령 표창  
날짜: 201404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8100000279  
본문: [쿠키 뉴스]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br/><br/>최재원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개인별 건강상태, 가족력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의 활성화를 이뤘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br/><br/>더불어 국내 건강검진의 질적 선진화를 이끌어나가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위상을 제고한 점과 지난 2011년부터 대외협력실장을 겸임하면서 사회 각계각층 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국내외 의료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br/><br/>한편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18명과 단체 4개 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7.txt

제목: “소아암 완치자들, 사회진출에 국가사회적 관심 필요”  
날짜: 20140408  
기자: 서울아산병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8100000316  
본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서종진 교수<br/><br/>[쿠키 건강] 제8회 SIOP Asia Congress 대회장을 맡고 있는 울산의대 서종진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가 소아암 완치자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br/><br/>서 교수는 소아암 환자의 완치뿐 아니라 심리사회학적 측면과 환자 가족, 장기 생존자 관리 등 소아암의 전인적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br/><br/>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이 70~80%까지 성장했고 완치 후 생존기간이 60~70년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또한 소아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챙겨야 할 몫이라는 철학에서다.<br/><br/>실제로 그는 지난 몇 년간 학술활동뿐 아니라 소아암 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 왔다. 소아혈액종양 간호사회 모임과 소아암 완치자 모임, 국내 소아암 환자 부모연합회를 결성 및 관리해 왔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학교장을 역임하며 소아암 환자 지원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개선에도 많은 공을 세웠다.<br/><br/>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장기간 입퇴원 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소아암은 환자 부모의 연령이 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소아암의 치료성적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정보전달 프로그램과 환자관리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br/><br/>그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환기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br/><br/>다가오는 5월에는 학회 차원에서 MBC 방송국이 주관하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아암 환자의 투병스토리와 관련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br/><br/>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지역 소아암 치료의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치료 후 지원정책에도 본보기가 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진료에 힘쓰는 한편 완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학회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8.txt

제목: [르포] 주말 매진 사례 이어가는 잠실야구장 가보니… 프로야구 암표상 ‘봄날은 갔다’  
날짜: 20140408  
기자: 박세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8100000126  
본문: “오늘은 어제랑 다르지. 날씨 좋∼잖아.”<br/>프로야구 두산과 기아의 경기를 3시간여 앞둔 6일 오전 11시쯤 서울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두산 응원석인 블루석 가격을 놓고 암표상과 손님이 가격을 흥정하는 중이었다. 비가 왔던 5일 암표를 싸게 구입했던 고객이 1만5000원짜리 표를 깎아 달라 하자 암표상은 난감해하며 고객을 설득하고 있었다.<br/>기자가 이날 암표 단속에 나선 경찰을 따라 매표소 부근을 어슬렁거리자 암표상 3∼4명이 “표 구하냐”며 접근해왔다. 주말 블루석 가격은 1만5000원. “얼마에 파느냐”고 묻자 “2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암표상은 대부분 백발이 성성하거나 주름이 가득한 장년층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4일과 5일 날씨가 나빠 공쳤다”고 했다. 헐값에 팔았던 걸 오늘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br/>요즘 잠실야구장 암표상은 대부분 ‘생계형’이다. 입장권을 정가에 대량 구입해 비싸게 파는 ‘전문 암표상’은 거의 없다. 대부분 표를 사놓고 관람을 못하게 된 이들로부터 경기 당일 헐값에 표를 넘겨받아 웃돈 붙여 되판다. 1만원짜리를 3000원쯤에 사서 1만2000원에 파는 식이다.<br/>암표 단속은 웃돈 받는 장면을 포착해야 가능하다. 정가보다 싸게 팔거나 구매자가 가격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 오후 1시쯤 한 남성이 암표상에게 표 사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이 달려가자 그는 “<span class='quot0'>내 돈 주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span>”고 소리치고는 야구장 안으로 사라졌다.<br/>이날 단속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 10여명, 잠실지구대 경찰관과 기동대 1개 중대가 총동원됐다. 경기장 주변을 돌며 매표소 근처를 샅샅이 훑었지만 3시간여 동안 적발된 암표상은 단 두 명뿐이었다. 4만원짜리 테이블석 표를 8만원에 판 안모(70)씨와 1만원짜리 네이비석을 1만5000원에 판 홍모(53)씨만 16만원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br/>이처럼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는 1만5000원짜리 티켓을 오히려 8000원에 파는 등 ‘떨이’ 장사를 하는 암표상이 많았던 탓이다. 인터넷 예매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암표 찾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빗방울이 흩뿌린 날씨의 영향이 컸다. 개막과 동시에 주말 매진사례를 이어가는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에도 암표상이 설 자리는 많지 않을 만큼 세태가 바뀐 것이다.<br/>그래도 생계형 암표상들은 단속을 피해 필사적으로 장사한다. 송파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3년 전에는 매표소 근처 사람들 틈에 섞여 대놓고 사고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먼저 흥정한 뒤 근처 화장실이나 지하철역, 주차장으로 이동해 거래한다</span>”고 말했다.<br/>지난해 잠실야구장 암표 단속 건수는 182건으로 2012년(106건)보다 늘었다. 올 시즌 개막 이후에는 열흘간 15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적발돼도 16만원 내고 다음날 다시 암표를 파는 사람들이 많다</span>”고 말했다.<br/>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89.txt

제목: 마크로젠, 차세대 시퀀싱 서비스 확대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308  
본문: [쿠키 건강] 국내 대표 유전자 분석업체 마크로젠이 자사의 차세대 시퀀싱 서비스 라인에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아이온 토렌트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br/>마크로젠은 유전자 시퀀싱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국 기반의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이미 2011년부터 라이프 테크놀로지스의 아이온 프로톤, 아이온 PGM 등 최신의 차세대 시퀀싱 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br/>최근에는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아이온 앰플리식 엑솜 인증 서비스 업체’ 에 가입했으며 엑솜 시퀀싱 및 아이온 앰플리식 핫스팟 암 패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br/>김형태 마크로젠 대표는 “아이온 프로톤과 아이온 PGM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마크로젠은 가장 포괄적인 시퀀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엑솜 시퀀싱과 아이온 앰플리식 핫스팟 암 패널 서비스를 통해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가 가속화되길 기대하며 최고 품질의 시퀀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0.txt

제목: [메디컬 뉴스] ㈜금강보청기, 보청기 렌탈 서비스 새로 시작 外  
날짜: 2014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047  
본문: 보청기 렌탈 서비스 새로 시작<br/>㈜금강보청기는 전국 100여 개 자사 보청기 전문 센터에서 난청인들에게 월 3만원대부터 보청기를 1∼3년간 빌려주는 보청기 렌탈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고가여서 장만하지 못했던 난청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자는 금강 보청기 렌탈 서비스 전용 전화(1588-5233)로 먼저 상담한 후 가까운 전문 센터를 안내 받아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보청기를 맞추면 된다. 6개월 내 분실 시 무상 재제작 서비스도 실시한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보청기는 본인 소유가 된다.<br/>척추건강 지침서 '미니맥스…' 펴내<br/>우리들병원은 수술의 위험성과 비(非)수술 요법의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척추건강지침서 ‘미니맥스 척추시술’을 펴냈다. 이상호 이사장 등 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최소 상처 척추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만8000원.<br/>10일 '이화 생명나눔 캠페인'<br/>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위원회(위원장 정구용)는 10일 오후 4∼6시 김옥길홀에서 ‘이화 생명나눔 캠페인’ 행사를 갖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유명철 이사장이 ‘생명을 나누면 세상을 살린다’, 한국장기기증원 하종원 이사장이 ‘한국 장기기증의 현황과 미래’란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희망 서약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전달식도 열린다(02-2650-2837).<br/>'최고의 암 식사 가이드' 공동 출간<br/>연세암병원 노성훈 병원장과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이 암 치료 중 체력 유지를 위한 식사 원칙과 요리법을 소개한 ‘최고의 암 식사 가이드’를 공동 출간했다. 수술 후 회복 단계별 요리와 함께 항암치료 중 식사가 어려울 때 무슨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건강 간식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1만7000원.<br/>아토피 치료제 '엘리델' 독점 판매<br/>㈜대웅제약은 최근 한국메나리니와 비(非)스테로이드성 아토피 치료제 ‘엘리델’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엘리델은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국소면역조절제로 경·중증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1.txt

제목: 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 혈액 속 암 세포 검출·분리 기술 개발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354  
본문: [쿠키 건강] 국내 연구팀이 혈액 속의 암세포를 손상 없이 검출해 분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br/><br/>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사진) 연구팀은 최근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혈중종양세포, Circulating Tumor Cells)를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 기술을 이용해, 손상 없이 검출·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화학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Angewandte Chemie(인용지수 13.734) 3월호에 온라인 게재됐다.<br/><br/>일반적으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원발 부위를 벗어나 혈액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암세포 숫자가 매우 적어 검사가 쉽지 않았다.<br/><br/>조영남 박사팀은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 기술과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 10억개의 혈구 중에서 1개의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고민감도 검출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검출된 암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br/><br/>이렇게 분리한 암세포는 추가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조영남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혈중종양세포 외에도,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암세포 유래 유전자 및 단백질의 효율적인 검출 및 분리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암 관련 진단 및 치료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spa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br/><br/>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지난해 12월 미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2.txt

제목: 아스피린 대장암 치료부터 임신가능성까지↑  
날짜: 2014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185  
본문: [쿠키 건강] 저용량 아스피린이 대장암 치료는 물론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임신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네덜란드 레이덴의대 Marlies S. Reimers 교수팀은 JAMA 4월 2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아스피린이 체내서 항앙작용을 일으켜 대장암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br/><br/>연구팀은 2002~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약 1000여명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꾸준히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환자는 182명으로 이 중 2012년 1월에 사망한 환자는 69명(37.9%)이었다. 반대로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817명의 환자 중 같은 해 사망한 환자는 396명(48.5%)으로 아스피린이 대장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br/><br/>Reimers 교수는 "대장암 진단 후 아스피린이 암 생존률을 높였고 HLA class I 항원을 가진 환자에서 특히 더 혜택이 있었다"면서 "이는 약물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아직 아스피린을 항암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장암 치료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암 치료 비용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br/><br/>한편 현재 아스피린을 항암제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아스피린의 새로운 발견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유산한 여성이 재임신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br/><br/>미국 국립아동건강·인간발달연구소(NICHD) Enrique Schisterman 박사팀은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0여명을 각각 저용량 아스피린군과 위약군으로 분류해 6개월 동안 추적관찰했다.<br/><br/>그 결과 아스피린군은 임신 성공률이 78%, 위약군은 66%였고, 출산 성공률도 아스피린군이 62%로 위약군의 53%보다 9% 더 높았다.<br/><br/>더불어 1년 사이 임신 4.5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이 아스피린을 복용 할 경우 재임신 가능성은 비복용한 이보다 더 컸다. 이에 Schisterman 박사는 "아스피린이 자궁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br/><br/>다만, 유산율은 아스피린군 13%, 위약군 12%로 아스피린이 유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3.txt

제목: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다실’, 덴마크에서 자궁경부병변 감소 효과 확인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239  
본문: 가다실 접종한 1993~1994년 출생 여성, 자궁경부전암병변 3기 80% 위험 감소<br/><br/>[쿠키 건강] 덴마크에서 4가 HPV(Human Papillomavirus,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제품명 가다실)이 도입된 후 실제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게재됐다.<br/><br/>덴마크 지역사회 암연구센터(Danish Cancer Society Research Center)는4가 HPV 백신이 지난 2006년에 덴마크에 도입된 이후 자궁경부병변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팀은 1989년에서 1999년 사이 덴마크에서 태어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HPV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출생연도별로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해 데이터를 추적 조사했다.<br/><br/>연구 결과, 4가 HPV백신을 접종받은 1991년에서 1994년도에 출생한 여성의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3년에서 1994년에 출생한 여성의 자궁경부전암병변 3기의 위험은 최대 80%까지 감소했으며 2기와 3기를 통틀어 자궁경부전암병변 위험이 73% 감소했다.<br/><br/>HPV는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의 세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궁경부 전암병변의 단계가 높을수록 자연퇴행률은 낮고 자궁경부암 진행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김진오 한국 MSD 의학부 이사는 “<span class='quot0'>이번 덴마크의 연구발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도입된 4가 HPV백신 가다실이 자궁경부전암병변 위험에 대한 감소 효과를 실제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MSD는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통해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4가 HPV 백신 가다실은 HPV 16,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HPV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을 도울 수 있다. 132개 국가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HPV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 52개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됐다.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남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26세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9~26세 남성 및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과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4.txt

제목: 이대여성암병원 19일, 개원 5주년 ‘여성암 심포지엄’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310  
본문: [쿠키 건강] 이대여성암병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여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br/>우재희 마취통증의학과 임상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김승철 부인종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여성암정복 특성화연구센터 개요 및 업적 소개’ 주제로 ▲갑상선암 검사를 둘러싼 논란(전혜진 건강증진센터 교수) ▲건강검진에서 PET의 역할(김범산 핵의학과 교수)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생검(정진 영상의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br/><br/>이어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암환자의 통증관리(임우성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물방울 유방재건술(서현석 성형외과 교수)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스트레스 관리(임원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br/><br/>아울러 정종일 포미즈 여성병원장이 ‘지역사회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은 4월 16일까지로 참가하는 개원의들에게는 연수평점 4점이 부여된다.(문의: 02-2650-2801)<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5.txt

제목: 원페이스 “보건의 날 맞아 건강검진 받고 화장품도 받으세요”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200  
본문: [쿠키 생활] 보건의 날을 맞아 인근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마련됐다.<br/>화장품 전문업체 원페이스는 보건의 날을 맞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 검진을 받은 후 인증샷을 찍은 사람 중 선착순 50명에게 BLP3 폼클렌저를 증정한다고 7일 밝혔다.<br/>김용회 원페이스 대표는 “<span class='quot0'>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 된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 몸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생청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이벤트를 마련했다</span>”고 전했다.<br/>스트레스,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각종 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검진을 통해 각종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이벤트가 분위기 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br/>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을 배경으로 우편으로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문을 들고 얼굴이 드러난 인증샷을 촬영하면 된다.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당 인터넷주소(URL)와 신청자 이름을 원페이스 홈페이지(www.oneface.co.kr) 내 리얼포토후기에 올리면 신청이 완료된다.<br/>한편 경품으로 제공되는 BLP3 폼클렌저는 아보카도오일과 호호바오일, 녹차추출물 등을 함유해 세안 후에도 당김현상 없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감 피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피부 등에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6.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으로 치료비용 혜택 받자  
날짜: 2014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6100000156  
본문: [쿠키 생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한 혜택을 가진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로 인해 통원 및 치료를 받을 때 실손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다. 최근 늘어나는 치료비 항목에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편이다.<br/>A(30)씨는 지난해 겨울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부활동이 잦아 쉽게 낫지 않으면서 병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났다. 한 번 방문에 약제비를 포함해서 1만원 정도 들었지만 잦은 치료를 받다보니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했다. 올해 초에는 알레르기로 인해 병원을 다녔는데,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을 받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전했다.<br/>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드는 치료비용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로 평균 1억원 정도다. 이 중 절반 이상이 64세 이상의 노년으로 나타나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노년에는 특히 면역력 감소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br/>의료비항목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의료실비보험 추천상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첫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가 높기에 빠를수록 좋다.<br/>또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이라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한다.<br/>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중복보장이 안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7.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용,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5100000151  
본문: [쿠키 생활] 10년 새 암 환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만큼 암이란 질병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예전에 비해 암에 대한 인식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보다 치료비 부담으로 바뀌었다. 일부 암 환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내방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br/>암 치료비용은 정부에서도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치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나 검사비, 암 치료기간 동안 생활해야 할 생활자금까지, 암에 대비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br/>음식섭취의 잘못된 습관과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이 최근 암을 유발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하고자 암 보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br/>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소득상실을 대비할 수 있어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암은 발생율이 높은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으로 이들 질환에 따른 보장금액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확인해보자.<br/>▶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시 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암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암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암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8.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용,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5100000152  
본문: [쿠키 생활] 10년 새 암 환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만큼 암이란 질병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예전에 비해 암에 대한 인식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보다 치료비 부담으로 바뀌었다. 일부 암 환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내방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br/>암 치료비용은 정부에서도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치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나 검사비, 암 치료기간 동안 생활해야 할 생활자금까지, 암에 대비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br/>음식섭취의 잘못된 습관과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이 최근 암을 유발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하고자 암 보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br/>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소득상실을 대비할 수 있어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암은 발생율이 높은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으로 이들 질환에 따른 보장금액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확인해보자.<br/>▶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시 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암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암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암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2-1999.txt

제목: 임신중 암 걸린 미국인의 母情… 자신 목숨보다 아기 선택했다  
날짜: 20140405  
기자: 강창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5100000087  
본문: 암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다시 찾아왔다. 엘리자베스 조이스(36)를 괴롭히기로 작심한 저승사자처럼. 미국 뉴욕의 조이스는 지난해 여름 임신했다.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2010년 완치 판정 때까지 받은 항암 치료 때문에 일찍 폐경을 맞았다. 조이스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자기 목숨을 가져갈 줄 몰랐을 것이다. 그는 한 달 뒤 암 재발 진단을 받는다.<br/>조이스는 수술로 허리의 악성종양을 들어냈다. 암세포가 더 없는지 확인하려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전신을 들여다봐야 했다. 이 검사는 몸속에 조영제라는 염료를 집어넣어야 한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의사는 낙태를 제안했다. 조이스는 검사를 거부했다. 아이를 선택한 것이다.<br/>임신 25~26주쯤 조이스는 암 치료를 하나씩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해 보였다고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토퍼 헨즈가 3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말했다. 헨즈는 조이스의 출산 과정을 촬영했다. 그는 조이스가 암 치료 중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전했다.<br/>임신 막바지로 갈수록 조이스는 숨쉬기 힘겨워 했다. 커다란 암 덩어리가 양쪽 폐를 누르고 있었다. 의료진은 서둘러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조이스의 딸 릴리는 지난 1월 23일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출산 예정일은 3월 4일이었다.<br/>숨쉬기도 벅찬 조이스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한 첫마디는 “릴리는 어때요”였다. “나는 괜찮은가”가 아니었다고 조이스 담당 의사 조애나 스톤 박사는 말했다. 조이스의 복부는 이미 상당량 종양으로 뒤덮여 있었다. 암세포는 빠르게 번졌다. 지난달 9일 조이스는 딸을 안은 남편 곁에서 숨졌다.<br/>스톤은 “퇴원한 조이스를 방문했을 때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며 “그는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걸 똑같이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br/>강창욱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